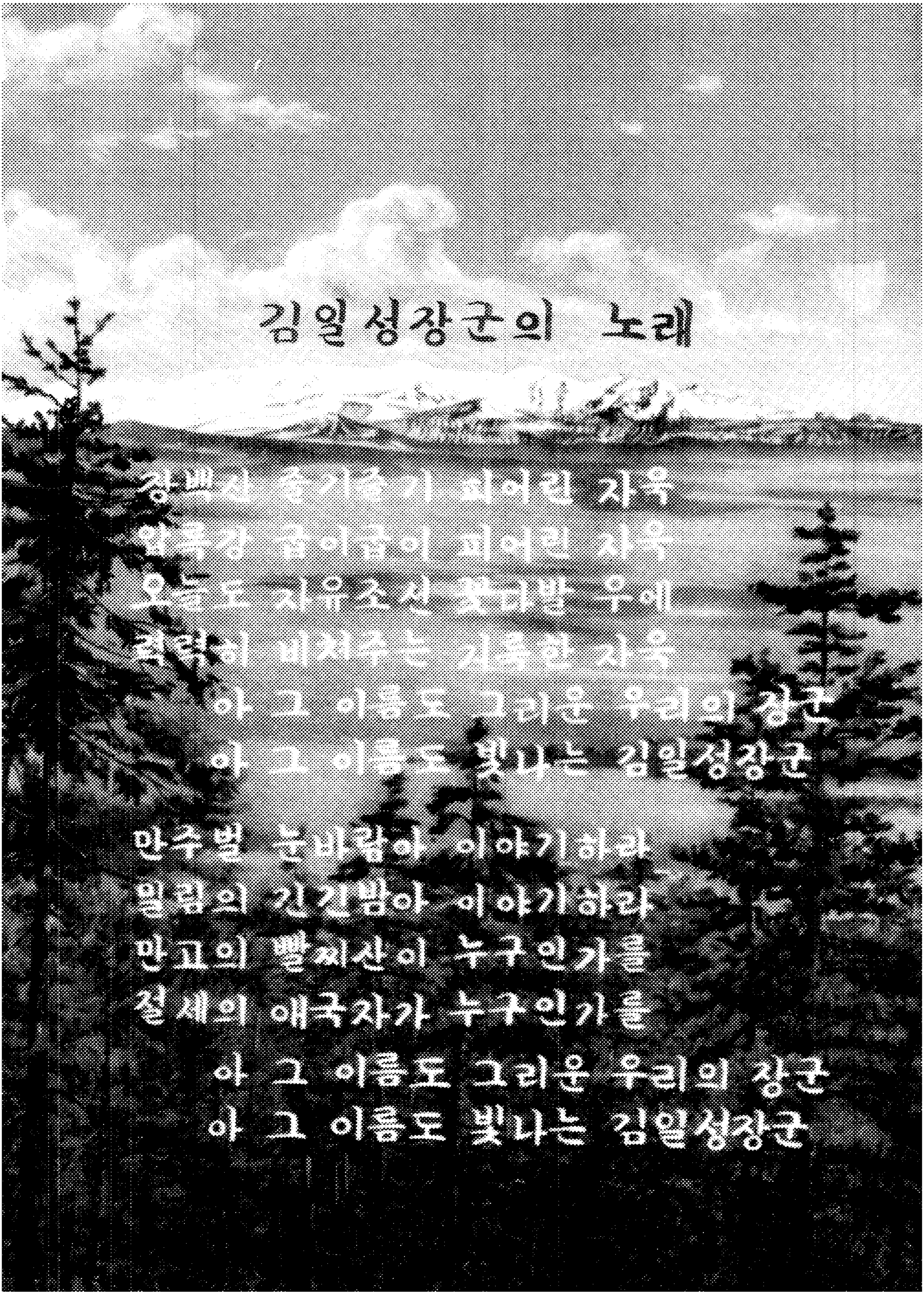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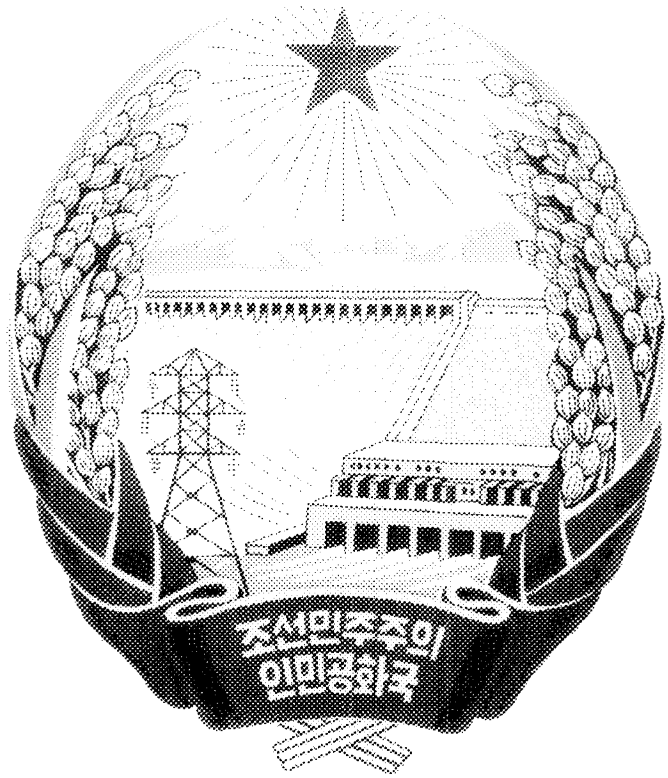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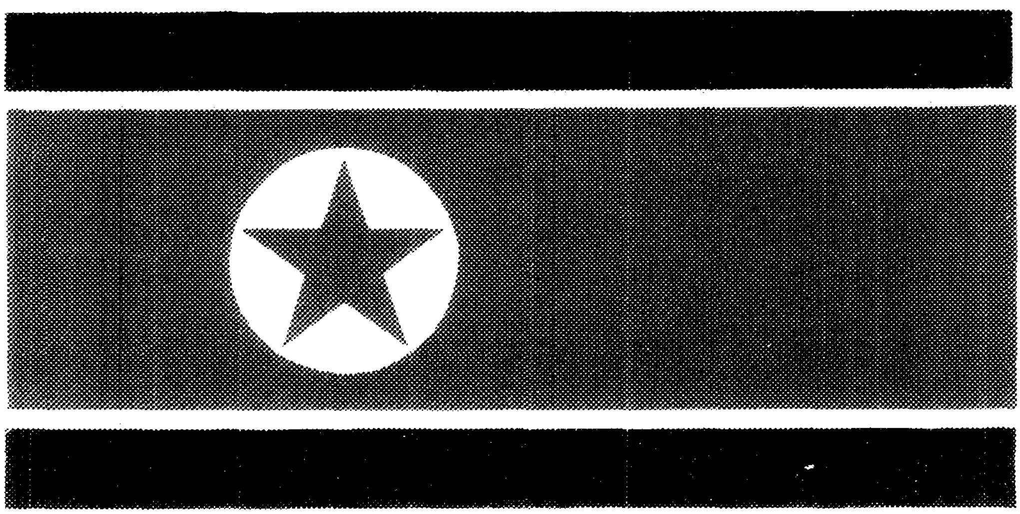
1972

조선중앙통신사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　례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연설

혁명력사자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정 치

사회주의경제건설

사회주의문화건설

인민생활향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형편

재일조선공민

국 제

아세아주

구라파주

아프리카주

미 주

대　양　주

량극지방

문건 및 자료

공동 콤뮤니케, 성명 및 호소문

성명일람

사진과 삽도



김일성동지의 로작, 연설 및 축하문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 년 사

(1971년 1월 1일)

동지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우리는 위대한 승리와 력사적사변들로 가득찬 1970년을 보내고 새 희망과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새해 1971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여러 동지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1970년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뜻깊은 해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인민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모든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속에서, 우리의 벗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회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다는것을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또한 대회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내놓았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욱 휘황한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당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속에서 당의 권위와 신임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허물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당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공업과 농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과학과 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이 격화되는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갔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쑤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대회가 내놓은 위대한 전망에 고무되여 충천한 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

력을 증명하는것이며 당의 령도밑에 난관에 굴하지 않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결과입니다.

나는 조국력사에 찬란히 기록될 1970년을 돌이켜보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보건일군, 작가, 예술인들, 당 및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키며 사회주의전취물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는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사회안전원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올해에도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갈라진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민족적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확대되고 조직화되여 가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이 더욱 높아가고 남조선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나고있습니다.

나는 헤아릴수 없이 어렵고 간고한 환경속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통일혁명당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 그리고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60만재일동포들과 총련의 전체 간부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새해의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맑스-레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와 전투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펼쳐준 강령적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 과업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되고 우리 인민의 모든 살림살이는 더욱 넉넉하여질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것입니다.

새해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올해부터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전반적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첫전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전당과 모든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들과 근로단체들,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 그리고 전체인민이 6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더욱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도록 하며 그 첫사업으로서 석탄공업부문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이 부문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일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더잘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기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위하여 우리는 올해에 흑색야금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광석생산을 더 빨리 높이고 원료예비처리를 개선하여 지금 있는 용광로들에서 선철생산을 훨씬 늘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농촌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고 경공업에 필요한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빨리 늘이며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새로 건설확장된 세멘트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세멘트생산량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기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기계공업부문에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공작기계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각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더 많이, 더 잘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부문과 운수부문에서 요구되는 선박들을 대량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광산들에서 요구되는 대형자동차, 대형불도젤, 대형굴착기 생산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필요한 새로운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은 올해에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해에 새로 일떠선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은을 내게 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붉은 어로공들은 물고기잡이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30만톤이상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하루에 최고 1만 8,000여톤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적성과를 거둔 당의 붉은 어로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수산부문일군들은 계속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특히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공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랭동, 절임, 말리기, 통졸임을 비롯한 물고기가공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며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조직도 빈틈없이 짜고들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계속 농촌경리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난해에 풍작을 이룩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올해에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알곡증산의 커다란 예비는 발관개를 실시하며 모를 일찍 내는데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발관개면적을 빨리 늘이며 랭상모를 더많이 내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5월 25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지대별로 파악있는 좋은 종자를 심도록 하며 농촌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며 퇴비생산운동을 적극 벌리며 특히 당면한 올해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집약화,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축산물생산을 늘이며 과수원의 비배관리를 잘하여 과일생산을 늘이고 그 저장과 가공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적, 전인민적인 관심을 돌려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높이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올해에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며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지금 있는 철도의 통과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철도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배길을 개척하고 항구와 포구들을 잘 꾸려 수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수송조직을 합리화하여 자동차로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 올해에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서두수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웅기화력발전소, 원유가공공장, 김책제철소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황해제철소의 소결로직장과 환원단광직장, 합성고무공장, 량책기계공장, 5월방직공장과 9월방직공장, 신포항과 룡대조선소 건설의 10대건설대상을 비롯하여 이미 시작한 중요대상들의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기간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건재를 국가와 중앙공업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없애고 모든 지방들에서 벽돌, 기와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널리 조직하여 지방건재를 가지고 살림집, 학교 그밖에 건설들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설계부문에서는 설계에서 랑비현상을 없애고 건설에 필요한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더 큰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한편 우리는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국방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모든 군수계획지표들을 넘쳐수행하여 인민군대에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는것입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자기들이 맡은 경제과업과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나 동원되고 준비된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연과 후방에서 방어공사를 빨리 끝내여 전국을 더욱 철저히 요새화하며 전략물자의 예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이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긴장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물리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며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나아가고있는 청년들은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도 계속 앞장서나아가야 하며 특히 새 기술과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적극 적용하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의 선구자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건설과 생산에서 나서는 기술문제들을 정력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속, 화학, 기계 공업부문에서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긴장된 로력사정을 푸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력배치를 잘하며 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엄격한 질서를 세워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한사람의 로력도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중요한 담보는 지도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분기별, 월별, 일별 전투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전당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계속 틀어쥐고 간부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1971년을 간부들의 자질과 지휘능력을 한계단 더 높이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답게 검박하고 긴장하게 생활하며 특히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이것이 오늘 당이 제기하는 구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할수 없습니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자만과 답보는 금물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투쟁과 전진, 창조와 혁신이 있을뿐입니다.

모두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1년 8월 6일)

김 일 성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비롯한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친왕의 가족 및 친척들과 그밖의 캄보쟈손님 여러분들을 다시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전체 애국적캄보쟈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 또다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것은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시위하는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민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오래 헤여졌던 친형제를 다시 만나는것과 같은 기쁜 심정을 가지고 당신들을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친왕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싸우는 캄보쟈인민에 대한 굳은 전투적련대성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오늘 조선과 캄보쟈는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전선으로 잇닿아있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캄보쟈인민의 형제적친선의 정과 아울러 반미구국항전에서 캄보쟈인민이 거두고있는 빛나는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새로운 큰 고무로 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괴뢰고용병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서 희생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700만의 캄보쟈인구가운데서 400만의 주민들을 망라하는 전국령토의 10분의 7을 이미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정치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승리입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지난 건조기의 9개월동안에만 하여도 캄보쟈의 여러 지역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괴뢰고용병들에게 련이어 섬멸적타격을 가하였으며 캄보쟈해방지역을 전국해방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이 모든 성과를 자신의 승리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캄보쟈인민이 거둔 이 승리는 바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특히 이 승리는 국가원수친왕께서 지난 시기 일관하게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정당한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쌓아올린 커다란 공적과 인민들속에서 누리고있는 국가원수친왕의 두터운 신망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애국적캄보쟈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가혹한 전쟁을 겪고있는 오늘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지난날 국가원수친왕께서 견지하여온 대내외정책들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국가원수친왕을 더욱 높이 존경하며 그의 두리에 날로 굳게 뭉쳐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오늘도 국가원수친왕의 력사적인 1970년 3월 23일 5개항목선언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국가원수친왕의 친근하고 정력적인 목소리는 날마다 온 캄보쟈땅에 울려퍼져 싸우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원쑤들에게는 커다란 공포감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캄보쟈인민은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령도밑에 조국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추호도 물러서지 않고 그어떤 타협도 없이 미제를 반대하여 계속 싸울것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캄보쟈인민에게 보내는 스물네번째와 스물다섯번째 편지에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을 완전한 승리에로 이끌어갈데 대한 결의를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시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용감한 반제투사로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위업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두터운 신임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이 지닌 높은 국제적신망으로 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이미 세계의 27개 주권국가들의 공식적승인을 받았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참말로 반제기치를 들고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령도하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며 미제의 앞잡이 론 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을 단호히 배격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한일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애국적캄보쟈인민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종국적승리의 앞길이 환히 열려져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론 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은 프놈펜의 좁은 지역에 포위되여 날로 심해지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있으며 그들의 명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이 멀지 않아 반드시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게 될것이며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국가수반으로하는 독립되고 평화롭고 반제적이며 인민적인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합니다.

캄보쟈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승리는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해방투쟁에 큰 기여로 되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 대한 귀중한 지원으로 됩니다.

세계의 어느곳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든지간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캄보쟈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요구할 때에

는 캄보쟈인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다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또다시 엄숙히 천명합니다.

오늘 캄보쟈인민을 비롯하여 인도지나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침략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전쟁의 불길을 웰남민주공화국과 캄보쟈, 라오스에로 확대하였으나 그것은 침략자들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을뿐입니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의 전투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나아가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불굴의 영웅적투쟁앞에서 미제가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추진시키고있는 전쟁의 《웰남화》 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책동도 전면적으로 파산되여가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불굴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무력침략을 용감하게 짓부시고 미제의 《불패성》에 대한 신화를 다시한번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웰남인민은 호지명동지의 신성한 유언을 높이 받들고 반미구국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전선에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라오스인민은 올해에 남부라오스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침공작전을 용감히 짓부셔버리고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적들에게 계속 타격을 주면서 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요즘 미국안에서 폭로된 미국방성의 웰남침략전쟁에 관한 비밀문건은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범죄의 장본인이 바로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앞에 더욱 남김없이 폭로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 머물러있을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륙해공군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들 그리고 온갖 살인무기들과 전쟁수단들을 모조리 걷어가지고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형제적웰남인민과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구국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며 얼마전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서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제기한 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7개항목의 새로운 발기와 라오스애국전선이 라오스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4월 27일과 6월 22일에 제기한 새로운 제의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이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 한놈을 때려눕힐 때까지 견결히 싸움으로써 반드시 영광스러운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아세아는 혁명적폭풍이 가장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습니다.

바로 아세아에 혁명하는 나라들, 또한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그들의 단결이 강하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여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민족해방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침략책동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단결된 이 지역 인민들의 단호한 반격에 부딛쳐 패배를 거듭함으로써 아세아에 더이상 그대로 버티고있을수 없는 막다른골목에 빠져들어갔으며 오늘 마침내 미제의 아세아 침략정책은 전면적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습니다.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에서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래 인도지나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발악적책동도 이미 기울어진 그들의 운명을 결코 건질수 없으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을수도 없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습니다. 미국안에서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대중적으로 앙양되고있으며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은 지속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적불안은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지배층내의 모순은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 미제가 그의 침략무력을 세계곳곳에 분산배치하여놓은 군사전략상 약점은 갈수록 드러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날로 첨예화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를 비롯하여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계속 얻어맞고 녹아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를 건져내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으로서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내놓고 이른바 정책변경에 대하여 떠들면서 보다 교활하고 모험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여나섰으나 이것 역시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공격하는데서 큰 힘을 넣은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봉쇄하고 질식시키려는것이였습니다.

중국에서 인민혁명이 승리하자 미제는 처음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모든 반동세력들을 동원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켜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에 대한 군사적침략위협과 적대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제의 봉쇄 및 고립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질식되기는커녕 아세아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강국으로,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요즘에 와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고 그와 외교관계를 설정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였으며 미제의 중국봉쇄정책은 수치스러운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미제가 국내외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간 력사적환경에서 얼마전 닉슨은 자기의 중국방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위대한 혁명적변혁과정을 《힘》으로써 저지시켜보려고 스무해이상이나 무모하게 추구하여온 미제의 중국적대시정책이 마침내 완전히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미제가 세계의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의 압력앞에 드디여 굴복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결국 닉슨은 지난날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제침략자들이 판문점에 흰기를 들고 나오듯이 베이징으로 흰기를 들고 찾아오게 된것입니다.

모든 사실은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의 붕괴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닉슨의 중국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세계에서는 여러가지 여론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닉슨의 중국방문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이며 미제국주의의 서산락일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큰 승리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승리입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제혁명투쟁을 하여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적들의 창끝에는 창끝으로 맞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적들의 기만전술에는 혁명적원칙성으로 대하여 그것을 짓부셔버린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있는 세련되고 단련된 당이며 인민입니다. 오늘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세아반제혁명력량의 믿음직한 기둥으로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견결히 맞서 투쟁하고있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세아와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을 적극 지원하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기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할것이며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을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있습니다.

지금 닉슨의 중국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제국주의진영내부는 새로운 혼란과 와해 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미제에 전적으로 추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시하여오던 일본수상 사또는 당황망조하여 매일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반동적정책의 파산을 가리워보려고 날뛰고있습니다. 미제에 맹종하여오던 그밖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도 모두 갈팡질팡하고있으며 특히 장개석도당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일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날을 따라 우리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혼란에 빠져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세찬 공격을 들이대여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

미제의 계속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인도지나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여러가지 군사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가 재생됨으로써 아세아의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여가고있습니다.

1969년 11월의 미일 《공동성명》으로부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자동연장과 얼마전에 있은 미일간의 《오끼나와반환협정》의 체결에 이르는 모든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라 이미 공공연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얼마전에도 미제는 미국방장관을 직접 일본과 남조선에 보내여 일본침략무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그들이 미군대신으로 아세아침략작전을 담당하도록 하며 남조선에서의 《미, 일, 한 공동작전체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모의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치고있으며 해외침략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남조선, 대만, 인도지나를 포함하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저들의 《방위권》으로 선포하고 조선전선에 일본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추진시키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어떠한 흉계도 제때에 짓부셔버림으로써 죽어가는 제국주의를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없애며 참다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조선과 대만에서, 인도지나와 일본에서 그리고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물러가야 하며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무장시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일반동들이 다른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그 나라 인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그만두어야 하며 매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 인민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물러가지 않고 침략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모든곳에서 쫓겨나고 말것입니다.

오늘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그들의 침략을 직접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발전되여왔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책동은 조선, 캄보쟈, 중국, 윁남,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인민들로 하여금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줍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언제나 어깨겯고 일치한 보조로 싸워왔으며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수 없다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아세아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에 의한 침략과 전쟁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지난날 한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싸워이긴것처럼 앞으로도 혁명전우로서, 형제적동맹자로서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만단의 태세를 더욱 굳게 하고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조중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당및정부대표단들이 교환되고 두 나라의 수도 평양과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 성대한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이 기념행사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이기려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피로써 맺어졌으며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형제적친선단결은 불패입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형제적중국인민과 함께 나갈것입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의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일본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아랍인민의 투쟁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투쟁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침략의 야망에 사로잡혀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쓰라린 참패로부터 교훈을 찾지 않고 또다시 옛 침략의 발자취를 따라 나간다면 그들 역시 종국적멸망의 비참한 운명을 면하지 못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의연히 주저앉아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고 발악하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어떤 불의의 사태에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어느때나 그를 철저히 때려부실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성과에 고무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우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혁명의 편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는 정세발전에 겁을 먹은 남조선의 현 괴뢰도당은 미제의 옷소매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의탁하여 여명을 부지하여보려고 부질없이 날뛰고있으며 저들의 매국배족적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막을수없는 기세로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기 위하여 모략적인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더욱 소란스럽게 떠들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의 이 어리석은 기만적모략책동은 그 누구를 속일수 없으며 자기들의 기울어진 운명을 구원하지도 못할것입니다.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힘쓰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4월에 8개 항목으로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이 공명정대한 평화통일방안에 대하여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없이 그저 빈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정말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선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할것이 아니라 그를 남조선에서 나가게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을 그만두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및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그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에 나설수 있도록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8개 항목 평화통일방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딴 문제로 치더라도 그들이 참말로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남북이 접촉하고 협상하는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간의 초보적접촉마저도 거절하면서 이른바 《평화통일》에 대하여 입으로 떠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더 큰 증오와 분노를 사게 될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배양》이 될 1973년도 이후시기 또는 1970년대후반기에 가서야 통일문제가 론

의될수 있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데 그 속심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그때까지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인다음 이른바 《승공통일》의 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선사람끼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성원밑에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은 오래전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왔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굳은 전투적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캄보쟈인민과 같은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 가지고 있는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이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의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뿐아니라 아세아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보다 강화발전시키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위업을 촉진시키는데 새로운 큰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끝으로 우리 인민이 반미공동투쟁에서 앞으로도 캄보쟈인민과 영원히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것이며 그들의 믿음직한 전우로, 동맹자로 남아있을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하면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현명한 령도밑에 용감한 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보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만세!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세계인민들의 단결 만세!

축 하 문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오늘 조선소년단은 우리 당과 인민의 깊은 사랑속에서 자기의 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인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소년단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무어진 소년들의 혁명적인 공산주의적대중단체입니다. 조선소년단은 창립된지 스물다섯해밖에 되지 않지만 깊은 력사적뿌리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이 조직된 1926년부터 헤여도 조선공산주의소년운동은 45년이라는 자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들은 거의 반세기동안 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나어린 혁명전사로서 대를 이어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소년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피어린 싸움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불사조로 자라났으며 우리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웅한 투쟁으로써 나어린 혁명전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바로 그들이 자라서 우리 당을 세우고 공화국을 세우는데 기둥으로 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날소년동맹과 아동단의 붉은 기발은 해방후 조선소년단의 기발로 이어졌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으며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 소년들은 소년단생활을 통하여 견결한 젊은 투사로 자라났으며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 우리의 슬기로운 소년단원들은 전선과 후방을 목숨바쳐 도왔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소년빨찌산을 뭇고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워 조선소년들의 용맹을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소년단생활을 거쳐 자라난 젊은 혁명투사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나왔습니다.

당과 혁명에 언제나 충직한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 《ㅍ마계획》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껏 도왔으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사회주의전취물과 행복한 생활속에는 조선소년단원들의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당과 인민의 참된 아들딸로서, 나어린 혁명전사로서, ㅍ마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습니다.

조선소년단은 200여만의 우리 나라 소년들을 묶어세운 큰 혁명조직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소년단원들이 이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나는 지난기간 조선소년단이 이루어놓은 자랑찬 성과를 높이 찬양하며 자기의 영웅한 투쟁으로써 우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귀여운 소년단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하는 길우에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 많이 배우며 더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는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기회에 소년단원들에게 몇가지 부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생활은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생활의 첫시작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기초조직생활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혁명적단련을 끊임없이 쌓아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는것, 이것은 소년들의 가장 큰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원이 된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처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소년단시절부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소년단규약을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소년단조직에서 주는 일들을 어김없이 실천하며 소년단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늘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생활하여야 하며 소년단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잘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좋은것은 본받고 그릇된것과는 투쟁하며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고 비판하고 고치면서 늘 자신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조직생활을 자립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임을 열고 문제를 토론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버릇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년단원들은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학습은 학생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학습을 잘하여야 훌륭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학습열의를 높이고 학습규률을 잘 지키며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부를 잘하여 모두가 다 최우등, 우등생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우리 말과 우리 나라의 혁명력사, 우리 나라의 지리를 잘 알며 과학기술지식

과 문학예술지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풍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책보기를 좋아하고 책을 즐겨읽는 버릇을 붙이며 혁명적인 책,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글한자를 배우고 실험기구 하나를 다루어도 반드시 우리 나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도덕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상적으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가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준비되여야 합니다.

셋째, 소년단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같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좋은 사회제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행복한 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는 끝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는 정신은 혁명선렬들의 간고한 투쟁과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나타납니다. 소년단원들은 책상하나, 걸상 하나, 유리 한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모든 비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공장과 협동농장의 재산들과 극장, 영화관, 병원, 공원을 비롯한 나라와 인민의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보호하여야 합니다.

넷째,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보지 않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세대들입니다. 소년단원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놈들의 통치밑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다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본성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소년단원들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날뛰고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주, 자본가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며 우리 인민의 공동재산을 해치려고 언제나 도사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제때에 잡아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는 사회주의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믿음직한 보위자로 되여야 합니다.

다섯째, 소년단원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힘쓰는 집단주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무들을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며 혁명조직과 집단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동무들사이에 서로 돕고 배우며 뒤떨어진 동무를 힘을 합쳐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또한 혁명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의 리익과 조직의 영예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리기주의는 자본주의사상잔재입니다. 리기주의사상을 가지고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사회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것만 귀중히 여기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동무들과 집단을 위하여,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소년단원들은 아름다운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옷차림과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며 아름다운 말을 쓰며 선생님들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정직하고 겸손하여야 하며 학교와 사회의 모든 생활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록화근위대》활동을 적극 벌려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하며 거리와 마을에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위생근위대》활동을 잘하여 언제나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집과 학교를 알뜰히 꾸리며 자기의 마을과 길들을 깨끗이 거두며 파리, 모기를 비롯한 해로운 벌레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일곱째,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도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재부와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다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입니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즐기며 부지런히 일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언제나 자기 집일과 학교일을 성실히 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는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미워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좋은일하기운동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ㅍ마계획》활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돕는 나어린 사회주의건설자가 되여야 합니다.

여덟째, 소년단원들은 사회정치활동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글뒤주》가 될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자라나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매 시기 제기되는 우리 당 정책을 잘 알고 과외시간과 방학동안을 리용하여 공장과 농촌, 건설장과 인민반에 나가 그것

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선전하며 사회정치적으로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가정과 인민반,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소년단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은 행복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고있지만 남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은 아직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소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소년단원들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일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통일된 조국땅에서 남조선소년들과 함께 다같이 마음껏 배우고 즐겁게 뛰놀며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열째, 소년단원들은 세계 여러 나라 소년들과의 국제주의적친선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나라 소년들과 단결하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나라 소년들과 단결하며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없고 지주, 자본가계급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동무들!

조선소년단원들의 미래는 끝없이 넓고 밝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앞길에는 통일된 조국,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조국의 새시대가 약속되여있으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락원이 펼쳐져있습니다.

행복한 새시대의 주인공들인 소년단원들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에서 온갖 행복을 마음껏 누릴 크나큰 영예와 함께 그 락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갈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바로 소년단원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자라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모두다 조선소년단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더 잘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야 할것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김 일 성

1971년 6월 6일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1년 6월 24일)

김 일 성

친애하는 청년대표동무들!

친애하는 외국의 청년대표 여러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는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과 우리 나라 전체 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지금 이 대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외국의 수많은 젊은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대회사업이 잘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사업의 성과를 축원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였으며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 용감한 젊은 투사들인 대회대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청년대표들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무들!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청년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조직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거의 반세기동안 조선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청년들은 준엄한 시련도 여러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우리의 청년들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냈으며 오직 혁명의 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빛나는 성과들에는 우리의 수백만 남녀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노력이 깃들어 있으며 이 땅우에 마련된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조물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조선청년들의 불멸의 위훈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하여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수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청년들의 정신도덕적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

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줄 알며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한결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청년들속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있습니다. 혁명의 시대에 사는 청년답게 투쟁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정치적조직생활에 충실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풍모이며 영웅적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이러한 좋은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커다란 자랑입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을 훌륭히 키워놓았다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

동무들!

청년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과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창설되였으며 이 제도하에서 우리 청년들은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투쟁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았다고 하여 결코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절반밖에 해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미제국주의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나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는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친미, 친일 주구들의 반동관료집단이 계속 둥지를 틀고있으며 반동적인 식민지파쑈통치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모든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혁명투쟁을 멈출수 없습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여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조국이 통일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또한 세계의 진보적청년들과 함께 전세계에서의 반제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의 대를 빛나게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화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꾸준히 따라배워야 합니다. 청년들은 행복하면 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의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을 잘 알고 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

니다.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모두다 청년시절을 사로청조직에 들어서 보내고있습니다. 사로청생활은 사로청원들의 정치적조직생활이며 사상단련의 좋은 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조직생활을 충실히 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함으로써 사로청생활기간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전사가 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사회주의건설은 오늘 청년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나라는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는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도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더욱 힘있고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투는 청년들의 더욱 힘찬 로력투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전선에서 위대한 력량입니다. 당은 청년들의 힘과 재능을 믿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다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과 농촌경리부문 그리고 대자연을 개조하는 건설장들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입니다. 지금 당은 이 부문에 큰 힘을 넣고있으며 청년들이 이 부문에서 더 큰 역할을 놀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탄광과 광산, 림업과 수산, 농촌경리 부문 그리고 발전소건설장들과 간석지건설장들에 더많은 청년들이 진출하며 전군중적운동으로 이 부문을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장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할 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앙양이 일어날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설뿐아니라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선봉대가 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기술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3대기술혁명은 현시기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며 그것은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에게 크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에게 맡겨

진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술혁명의 선봉대가 되려면 현대적인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이 널리 도입되고있으며 그 역할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돌격대, 선봉대의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대중적행군을 조직하여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꾸준히 배우고 또 배워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져야 하며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반대하며 낡은 기술기준을 타파하고 새 기술, 새 기록을 대담하게 창조하며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능률적인 기계들을 창안해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의 지혜와 힘으로 하루빨리 모든 생산공정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할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애호관리하며 잘 보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관리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적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것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떨쳐나서 사회주의 조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온갖 안일성과 권태증을 반대하고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원쑤들이 덤벼들면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 나아가 싸우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인민군대와 경비대의 청년들은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전투정치훈련에 더욱 정력적으로 참가하며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함께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며 전쟁경험을 꾸준히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자기의 초소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원쑤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안으로부터 해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적들의 파괴, 암해 책동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공장, 기업소, 철도, 항만을 비롯한 생산시설들과 문화시설들 그리고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을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

니다.

동무들!

우리의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남조선청년운동은 전반적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한부분을 이루고있습니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운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력대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였으며 조선청년의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기개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야수적 탄압과 테로를 박차고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잘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반제,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불길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벌써 석달동안이나 계속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은 민족적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며 그들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그들이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남조선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여야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파탄시켜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당면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과 전횡이 살판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청년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진보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원쑤들의 온갖 파쑈적탄압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특히 청년학생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그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욱 위대한 힘을 나타낼것이며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모든 애국적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들고일어나 싸울 때 남조선혁명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이 횡포한 군사적폭압과 악랄한 수법으로 장기집권을 꾀하고있지만 지난날 리승만괴뢰도당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이자들도 멀지않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거족적항거에 부딪쳐 거꾸러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공화국북반부청년들과 남조선청년들은 통일된 조국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자랑스러운 조선의 새세대들입니다. 남조선청년들은 하루빨리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도 공화국북반부청년들과 같이 행복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청춘의 지혜와 재능을 꽃피워야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청년들의 신성한 임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의 불행한 처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들과 한 투쟁대오에 같이 서있는 심정으로 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있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합니다. 그러나 남조선청년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투쟁대오를 확대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빛나게 실현할것입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서 그리고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의 열렬한 성원속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성스러운 위업은 기어코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

동무들!

조선청년들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진보적청년들의 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민족해방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것과 함께 전세계진보적인민들과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침략자이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주되는 적입니다.

조선청년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이 투쟁에서 세계 진보적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서 더 많은 국제적지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아세아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와 중국 대만에서, 남부웰남을 비롯한 인도지나에서,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의 모든 나라 청년들과 더욱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청년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회에는 세계의 수많은 젊은 반제투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제투쟁에서 청년들의 국제적련대성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청년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을뿐아니라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성원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여기며 당신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과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며 서로 지지성원하는것은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인민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인민들과 청년들의 국제적단결을 방해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반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철저히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리고 구라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계의 모든곳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대렬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입니다. 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처지는 더욱 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세계 진보적청년들과 함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투쟁대렬을 더욱 튼튼히 결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온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조선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청년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청년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청년들과 단결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청년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조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쌓아올린 빛나는 위훈과 업적들은 모두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앞으로의 강화발전과 조선청년들의 찬란한 미래도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광스러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며 우리 혁명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1년 6월 6일)

존경하는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동지!

친애하는 칠레의 손님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사회당대표단을 맞이하여 이처럼 친근하게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칠레사회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칠레는 우리 나라로부터 대양을 건너 멀리 떨어져있으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력사적오물을 가셔버리며 새로운 혁명적변혁을 일으키고있는 진보적인 자주독립국가로서 우리 인민에게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칠레사회당과 칠레인민의 투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있습니다.

오늘 칠레인민통일쁠럭을 대표하고있는 칠레정부는 쌀바도르 알옌데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와 결탁한 국내독점자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회적개혁들을 실시하고있으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칠레사회당과 칠레정부가 실시하고있는 진보적인 모든 대내외시책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칠레민주력량이 이룩한 승리와 칠레땅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변혁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지금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꾸바혁명의 승리로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미투쟁의 끊임없는 앙양은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이 지역에서 미제의 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허장성세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제는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근동과 아프리카에서, 그가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의하여 얻어맞고있으며 내리막길을 걷고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칠레의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짓밟고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칠레인민의 힘찬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칠레사회당과 칠레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칠레인민의 앞날은 휘황찬란할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칠레사회당과 칠레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의 이러한 확고한 지지와 련대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이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큰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동지!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당 및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를 두텁게 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칠레손님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이며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 혁명적칠레인민과 굳게 단결하여나아가려는 그들의 절절한 념원을 몸가까이 느낄것입니다.

나는 친선의 정이 가득찬 이 자리에서 수륙만리 머나먼곳에서 온 칠레의 벗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면서 우리 두 당 및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쌀바도르 알옌데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칠레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1년 6월 9일)

존경하는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

존경하는 로므니아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당신들을 매우 반가이 맞이하고있습니다.

이번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은 오래전부터 끊을수 없는 굳은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

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로므니아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근면하고 재능있는 로므니아인민이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므니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오늘 로므니아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새로운 진보와 문명에로의 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따라 당당히 나아가고있습니다.

이번에 로므니아 당및정부대표단은 로므니아인민의 창조적기상과 조선인민과의 형제적련대성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숭고한 념원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당신들은 이제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을것이며 형제적로므니아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한 손님들인 대표단일행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것과 아울러 당신들의 이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1년 6월 9일)

존경하는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

존경하는 로므니아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우리의 친근한 벗인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를 다시 만나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의 정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과 로므니아는 다같이 제2차세계대전후 동방과 서방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선 형제나라이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터운 친선협조관계를 맺고있습니다.

형제적로므니아공산당은 50년의 긴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로므니아인민은

공산당의 기치따라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간고하고도 보람있는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면하고 재능있는 로므니아인민은 파쑈기반에서 벗어난 다음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혁명적개혁들을 실시하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자기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로므니아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은 날로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변모되여가고있습니다.

로므니아인민은 자기 당 제10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면서 구라파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생활 창조에서 이룩하고 있는 빛나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의 뉴대를 넓혀나가는데 기여로 됩니다.

당신들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고 자기의 혁명진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힘찬 투쟁모습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강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미제와 공모결탁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고있는 재침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긴장합니다.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결정적으로 때려부실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현괴뢰통치배들이 총칼의 위협밑에 벌려놓았던 부정협잡《선거》놀음을 전후하여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이 새로이 강화되였으며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반미구국통일전선형성의 기운이 높아지고 남북교류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도 크게 울려나왔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그 어떠한 힘도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의 앙양과 현군사파쑈독재의 붕괴를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력량은 굳게 손을 잡고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의 현괴뢰도당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오늘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은 우리 인민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물심량면으로 우리에게 성의있는 지원을 주었으며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여러모로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로므니아 당과 정부와 전체 로므니아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과 로므니아 두나라 사이에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리익에 부합됩니다.

사회주의나라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서로 지지하고 단결하는것은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그것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할 때 참말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계속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이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와 평화애호력량은 승리하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은 걷잡을수 없이 쇠퇴몰락하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과 반제투쟁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력량이 단결하여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에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제국주의의 멸망을 더욱 빨리 촉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등 인도지나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랍인민들의 투쟁,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꾸바인민의 투쟁과 모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라파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맑스-레닌주의기치를 튼튼히 틀어쥐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나간다면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으며 모든 나라 인민들은 참다운 독립과 번영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형제적로므니아인민과의 친선단결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심화발전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나는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한 오늘의 이 즐거운 시각에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1년 6월 14일)

존경하는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옐레나 챠우쉐쓰꾸동지!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

존경하는 로므니아의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은 형제나라 로므니아의 벗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며 아울러 형제적로므니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그리고 이 방문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텁게 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에 대한 로므니아인민의 굳은 련대성의 표시로 되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인민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당신들의 방문을 큰 경사로서 맞이하였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보낸 이 며칠동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즐겁고 유익한 나날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로므니아인민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과 업적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구라파 및 세계 평화 문제에 대한 로므니아공산당과 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였습니다.

히틀러파시스트도당들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되였던 어려운 시기에 로므니아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반파쑈해방투쟁을 용감히 벌렸으며 마침내 1944년 8월 무장폭동을 일으켜 저주로운 파쑈독재정권을 때려부시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로므니아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물리치면서 커다란 희망에 넘쳐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힘차게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물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은 높은 정치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지난날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현대화과정에 있는 농업을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얼마전 로므니아인민은 로므니아공산당창건 50돐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였습니다.

오늘 로므니아인민은 니끌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므니아공산당의 령도밑에 당 제10차대회가 제시한 새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로므니아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서의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하며 구라파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훌륭한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사회주의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치적자주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자주권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이 있어야만 보장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계속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은 다 자립적인 기초우에서 건전하게 발전하여야만 죽어가는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고 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온갖 비방을 짓부시고 세계적범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세계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지난날 뒤떨어졌던 자기 조국을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적문화를 더욱 개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성과를 무엇보다 싫어하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걸고 남조선강점 《미군감축》이란 모략적책동의 연막뒤에서 남조선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의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끊임없이 무장도발을 감행하고 무장간첩과 무장간첩선들을 침입시키며 더욱 빈번히 고공정찰비행기를 공화국 북반부의 령공에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처럼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격화시키고있는것은 그들이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날로 장성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전쟁의 불길을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여기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정세를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계획수행에 적극 가담협력하는 대가로 조선을 다시 지배하며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이미 남조선에 재침할 모략까지 공공연히 꾸미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아세아에서 미국대신에 일본이 주역을 담당해야 한다느니, 1970년대에 본토밖의 어느 지역에서 작전하는 자위대를 상상할수 있다면 그곳은 조선이라느니 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놓았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도꾜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00해리의 방위권》에 대해 떠벌이면서 조선의 전지역이 저들의 작전지역에 포괄된다는것을 거듭 로골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얼마전에는 우리 나라 문턱가까이에서 《미일해군합동군사훈련》을 벌렸으며 일본 《자위대》장교집단들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꼬리를 물고 남조선에 드나들고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태발전은 19세기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농민들의 무장봉기를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대대적으로 침략무력을 끌고들어와 조선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과 간섭을 감행하기 시작하던 때를 방불케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뿐아니라 대만도 저들의 《방위권》에 속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며 아세아에서 옛식민지 지배권을 회복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문제가 당면한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는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공모결탁에 의한 새 전쟁 도발음모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단호히 규탄하며 그들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철저히 투쟁할것입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는 《미군감축》의 기만극을 당장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남아있는것은 인도지나에서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추진시키고있는것과 같이 조선에서도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앞장세워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저들의 침략계획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력사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을것이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은 그들자신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난 사회주의 새 동방인민들을 비롯하여 각성한 아세아인민은 그 누구도 조성된 위험한 사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형제적인도지나인민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패배를 주고있으며 형제적중국인민, 일본인민 그밖의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나서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입니다.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도, 오늘의 엄연한 현실도 다 무시하고 끝내 새로운 모험적인 침략전쟁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영영 비참한 멸망을 고하고야말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도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 그리고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인 현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날로 확대강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이 날로 앙양되고 남북교류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현 군사파쑈독재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는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른 환경속에서도 반미반일반괴뢰투쟁을 용감히 벌리고 있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뜨거운 형제적지지성원을 보냅니다.

지난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현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손을 잡고 거족적인 공동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였으며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고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든지 인민정권이 선다면 평화적조국통일은 실현될것입니다.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남북조선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은 승리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될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과 로므니아는 력사적으로 친형제처럼 친근한 관계를 맺고 긴밀히 협조하여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은 끊임없이 호상리해를 깊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또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언제나 성의껏 서로 지지협조하여왔으며 이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는 최근년간 중요 대표단들의 호상래왕과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에 걸친 호상련계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확대발전되여왔습니다.

로므니아 당과 정부와 인민은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물심량면으로 되는 지성어린 원조를 주었으며 오늘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와 로므니아 공산당과 정부와 전체 로므니아인민에게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입니다.

이번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조선과 로므니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보다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로므니아공산당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만세!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의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 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1년 6월 14일)

존경하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

존경하는 로므니아의 귀한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먼저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께서 오늘 저녁 이처럼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훌륭한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이제 끝나가고있습니다.

이번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로므니아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호상 리해와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대표단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당신들에 대한 높은 존경과 친근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로자들과 상봉하는 과정에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로므니아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정을 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반미투쟁업적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또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고 그의 군사기지가 철폐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과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로므니아가 비록 지리적으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나 우리 두 나라는 다같은 사회주의나라로서 형제적친선의 굳은 뉴대에 의하여 가까이 잇닿아있다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줍니다.

그동안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우리들사이의 회담에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한결같은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발표될 량국간의 공동콤뮤니케에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 공동콤뮤니케는 의심할바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 성과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촉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체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들로써 전반적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서로 평등하고 독자적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단결과 협조를 통해서만 확대강화될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이번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가져온 모든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이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므니아

공산당의 령도밑에 새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이 날로 룡성발전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로므니아인민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이 열렬한 축원과 형제적친선의 인사를 전하여주기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송하여 비행장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1971년 6월 15일)

존경하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그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

존경하는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

존경하는 로므니아의 귀한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의 귀한 손님들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일행은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고 이제 평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 며칠동안 우리는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하여 매우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작별을 앞둔 이 시각에 나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대표단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조선과 로므니아의 두 당, 두 나라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두 인민들사이의 호상리해와 우의를 보다 두텁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습니다.

조선인민은 당신들이 남기고 가는 형제적친선의 정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므니아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므니아인민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서로 헤여지지만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굳게 맺어진 조선로동당과 로므니아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그리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될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거듭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당신들이 앞으로의 려행과 조국에로 돌아가는 길에서 부디 몸건강하실것을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로므니아공산당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 부인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1년 7월 22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다시 만나 이처럼 친선의 정 넘치는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친왕과 같이온 가족 및 친척들과 그밖의 캄보쟈손님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싸우는 캄보쟈 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이번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다시금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은 반제공동전선에 서있는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조선인민과 캄보쟈 인민사이에 굳게 맺어진 친선단결을 힘있게 시위하는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이 방문은 우리에 대한 당신들의 두터운 믿음의 표시로 되며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됩니다.

국가원수 친왕께서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으며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상봉한것이 바로 어제일 같은데 벌써 한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전반적정세는 우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반동세력에게는 불리하게 더욱 크게 전변되였습니다.

캄보쟈에서의 사태발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한 불장난이 결국 그들자신의 무덤을 파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애호국가인 캄보쟈에 신식민주의적올가미를 들씌우기 위하여 갖은 회유기만책동을 다하던 끝에 반동적인 국가정변을 조작하고 뒤이어 날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지금도 캄보쟈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게 날마다 피비린 살륙만행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들고 날뛰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미제국주의의 변함없는 본성과 그의 잔인하고 야수적인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놓았습니다.

애국적캄보쟈인민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력사적인 1970년 3월 23일 5개항목선언에 따라 조직된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정의의 구국항전에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련이어 타격을 가하고 날로 큰 승리를 이룩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스눌지역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만 하여도 싸우면 싸울수록 강대해지는 캄보쟈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론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은 포위속에든 프놈 뻰에서 일대 혼란에 빠졌으며 이로부터 출로를 찾으려고 더욱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으며 그들은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패망의 길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미 캄보쟈령토의 대부분을 해방하였으며 반동통치지역으로부터 해방지역에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있습니다.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승인을 받고있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이 영웅적반미구국항전에서 거두고있는 이 모든 승리와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며 아울러 캄보쟈인민이 멀지 않아 반드시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독립되고 평화롭고 반제적이며 인민적인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거듭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여 캄보쟈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인도지나전역에서 녹아나고있습니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에 의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결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있으며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미제가 추진시키고있는 전쟁의 《웰남화》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책동은 캄보쟈와 웰남, 라오스 인민들의 단결된 공동투쟁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파산되여가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걷잡을수 없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부닥치고있으며 미국 지배층내의 모순은 극도에 이르고 그들의 전쟁정책은 미국인민들속에서도 철저히 배격당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의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그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를 걷어가지고 무조건 물러가야하며 인도지나 매개 나라 인민들의 문제는 이 나라 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현시대는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신흥세력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낡고 죽어가는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의 격렬한 판가리싸움이 진행되는 투쟁의 시대입니다. 이 투쟁에서 신흥세력이 승리하고 낡은 반동세력이 멸망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아세아에서는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 있는 조선으로부터 중국,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반미공동전선이 굳게 다져졌습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지지밑에 혁명하는 아세아나라 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미제에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은 별수 없이 아세아에서 쫓겨나게 될것입니다.

미제국주의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침략의 앞장에 내세움으로써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를 기화로 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날로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결탁과 모험적인 침략책동은 저들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촉진시킬따름입니다.

오늘 조선은 반제반미투쟁이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철저히 소멸해 버릴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진군을 더욱 다그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캄보쟈왕국과 캄보쟈인민이 언제나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서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선

사람끼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하여 주고있는데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싸워나갈것이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그의 각을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우리 인민은 국가원수친왕을 높이 존경하고 있으며 당신들의 방문을 고조되는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맞이하고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의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으면서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국가원수 친왕의 가족들과 친척들 및 그 일행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나라 친선방문중 지금 이 자리에 참가한 쌀림 하이다르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레바논국회대표단 성원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위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연설

(1971년 8월 8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존경하는 앙낌 코안대사각하와 부인!

동지들과 벗들!

나는 먼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우리에게 매우 훌륭하고 고무적인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미공동전선에 어깨겯고 굳건히 서있는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의 력사에 찬란한 새 페지를 남기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의 방문은 조선에서 캄보쟈에 이르는 아세아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보다 튼튼히 다지였으며 싸우는 인민들의 단결의 불패성을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

민들을 다같이 기쁘게 하며 반미공동위업의 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줍니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여러 기회에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언제나 조선인민과 함께 싸워나갈데 대한 캄보쟈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거듭 엄숙히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미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영웅적캄보쟈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며 저명한 반제투사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견결한 립장과 불굴의 투쟁정신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인민에 대한 각별히 열렬하고 고무적인 지지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지내는 그사이 일련의 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현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공동투쟁대책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과 견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명백히 밝혀질것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지난해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시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과 함께 두 나라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단결되여있을 때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습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조선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며 캄보쟈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게 될 그날을 힘차게 앞당겨나갈것이며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는 혁명적인민들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존경하는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에게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으며 우리들 사이의 전투적우의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끝으로 영웅적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서의 빛나는 최후승리를 다시금 열렬히 축원하면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들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국가원수친왕의 가족들과 친척들 및 그 일행의 건강을 위하여,

앙김 코안대사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외무상각하와 대표단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이라크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1971년 10월)

물음: 우리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조선로동당의 경험에 감탄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조선인민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류의 재부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한 것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나는 먼저 당신들이 우리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지난날 우리 나라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전진도상에서 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없애고 훌륭한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섰으며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갔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는 주체라는 말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이러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원칙과 립장을 표현하는 술어입니다.

생활은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완전히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자기의것을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경향이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였습니다.

정치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이 우리 당의 자주로선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의 기존공식에만 매여달리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려는 경향을 반대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문제도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외활동분야에서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크고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반제반미투쟁과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입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한것입니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로 되였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를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다고 하여 우리가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들사이에 유무상통하며 서로 협조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충분히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국가들사이의 호상협조를 매개 나라가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하자는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국방건설분야에서 자위의 방침을 견지하였습니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떠한 침략자들과 적들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입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도 완전한 평등의 원칙에서 할수 있게 되였으며 국제혁명위업에도 더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수백만 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담보를 찾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군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엄중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과 직접 마주앉아 애로를 타개하며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대중은 당의 의도를 파악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혁신운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천리마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혁신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으

며 바로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 있습니다. 천리마운동이 널리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열정과 재능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도 능히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존엄을 수호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경험에 감탄을 표시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사업에 대한 고무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물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라크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이미 오래 전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1968년 7월 17일 혁명이후에야 비로소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라크인민의 2년동안의 혁명의 성과들과 특히는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쿠르드민족문제를 해결한데 대하여 그리고 이것이 반제인민전선을 강화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답: 이라크인민은 외래제국주의의 지배를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968년 7월 17일 혁명이후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인민의 위대한 승리일뿐아니라 반제민족해방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이며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였습니다.

혁명후 이라크인민은 반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새 이라크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선 이라크인민앞에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 그리고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은 이라크인민을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려고 온갖 흉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흉책도 이라크인민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이라크인민은 적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경각성있게 지키면서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써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쿠르드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라크인민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서 축하하고있습니다.

민족들사이의 반목과 불화는 제국주의통치의 산물로서 그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입니다.

쿠르드민족문제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해결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며 이라크에서의 반제인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 또한 그것은 이라크자체의 내부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진보적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게 될것입니다.

이라크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대오에 튼튼히 서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이라크인민의 이와 같은 정당한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물음: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캄보쟈에 대한 군사적간섭으로써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불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초래된 후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더욱더 넓은 지역에 전쟁을 확대하려는 그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한 고리입니다.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과 라오스에서뿐아니라 인도지나전역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전쟁확대정책은 인도지나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으며 아세아와 전반적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의 확대는 그들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있으며 침략자들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전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전체 인도지나인민들과 온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분노에 찬 규탄과 항거에 부딪치고있습니다.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은 인도지나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을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지금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거듭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주고있으며 미제를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미제의 타산과는 반대로 온 인도지나땅이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영웅적인도지나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전쟁을 확대하고있는데로부터 초래된 후과로 하여 반드시 참패의 쓴맛을 보게 될것입니다. 인도지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패망은 불가피합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속에서 인도지나인민들과 싸우는 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원밑에 인도지나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더욱 호된 타격을 줌으로써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할것이며 번영하는 새조국을 건설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며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싸우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물음: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귀국인민의 혁명투쟁경험과 아랍사회부흥당의 령도밑에 20여년전부터 통일과 자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아랍민족의 경험사이에는 류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두 진보적인 경험사이의 관계발전전망과 그것이 세계혁명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조선인민은 이라크인민이 아랍사회부흥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통일과 자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경험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이라크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친근한 전우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이기때문에 호상간의 처지를 잘 리해하고 서로 동정하고있으며 진실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긴밀히 협조하고있

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이라크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아랍사회부흥당 사이의 련계도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당,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래왕도 많이 하고 호상 유익한 경험도 많이 나누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경험을 교환하는것은 호상간의 리해를 두텁게 하고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며 서로 많은것을 배울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사이의 관계발전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단결과 협조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날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더욱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의 친선단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과 그들의 공동 위업에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물음: 우리 아랍조국에서의 무장혁명은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의 리권과 미제의 군사기지인 이스라엘의 존재를 청산할것을 목적하고있습니다.

이와 류사한 투쟁을 진행하시였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계시는 당신께서 아랍인민의 이 혁명에 대하여 어떤 지지성원을 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아랍인민은 무장을 들고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용감한 아랍인민이 무장한 침략자들에게 무장으로 대항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폭력으로써 인민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에게 항거하여 싸워야만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있으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반제해방투쟁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무장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아랍인민들의 이 혁명투쟁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아랍인민의 혁명투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련대성과 지지성원은 일관합니다. 조선인민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체 아랍인민의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할것이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아랍인민의 친근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아랍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축 하 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9차전체대회 앞

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9차전체대회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한덕수의장동지와 대의원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총련제8차전체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4년간은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더욱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 조성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최근년간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을 군국주의길로 끌고 나가면서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을뿐만아니라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은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힘차게 싸움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일찌기 없었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결기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간부들과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면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세계 여러 나라 평화애호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참으로 많은일을 하였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총련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기의 일관된 애국적활동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과 정부 두리에 하나의 력량으로 통일단결시키고 영웅적조선인민의 슬기와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리익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정확히 대변하고 그를 견결히 옹호하고있으며 자기의 애국적활동을 통하여 60만재일동포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련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대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선민족의 당면 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일익을 감당하고있으며 그의 존재는 조선인민의 커다란 민족적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총련은 또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자기의 정당한 투쟁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애국적조직으로 되였으며 일본인민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총련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그 위신과 영향력이 전례없이 높아짐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총결기간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자본주의적환경에서도 자기들의 민족적리익을 성과있게 옹호하고 애국운동을 급속히 장성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조선인민의 해방운동과 조국통일운동 력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자랑찬 성과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거둔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총련지도부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로선, 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총련의 활동방침들을 옳게 세우고 그 수행에로 동포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주체의 기발아래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애로와 난관을 무릅쓰고 총련의 애국사업에 헌신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는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이 이국의 어려운 조건에서 영광스러운 항일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주체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

진시키고 자기의 애국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것을 매우 만족하게 여기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우리 당과 정부와 조선인민들을 대표하여 승리자의 긍지높이 총련제9차전체대회에 모인 전체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60만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총련제9차전체대회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여 우리 혁명이 보다 높은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우리 인민이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치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체 60만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지지와 신뢰 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열리게 된 총련제9차전체대회는 총련의 지도밑에 지난 기간 재일동포들이 거둔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총화하고 앞으로 해야 할 과업을 토의하게 됩니다. 대회는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발밑에 총련사업을 한층 더 높이 추켜올리며 60만 재일동포들을 우리 민족의 륭성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통하고있는 일관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총련이 이미 쟁취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를 더 발전시키며 재일동포들의 민족적리익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조국과 민족 앞에 응당한 공헌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나는 총련제9차전체대회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한덕수의장동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련의 애국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영웅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동포들의 단결된 위력과 애국적기백을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될 대회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1971년 1월 28일
평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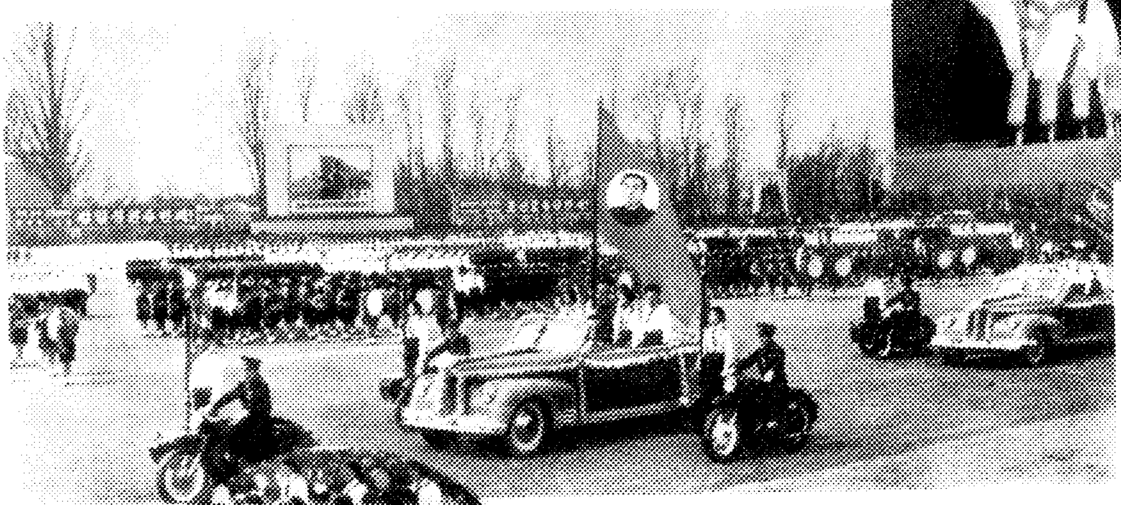
수령님탄생 예순돐기념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조선소년 단원이 붉은 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기념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주석단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예순돐을 맞이하여
수령님께 삼가 올리는 경축사를 랑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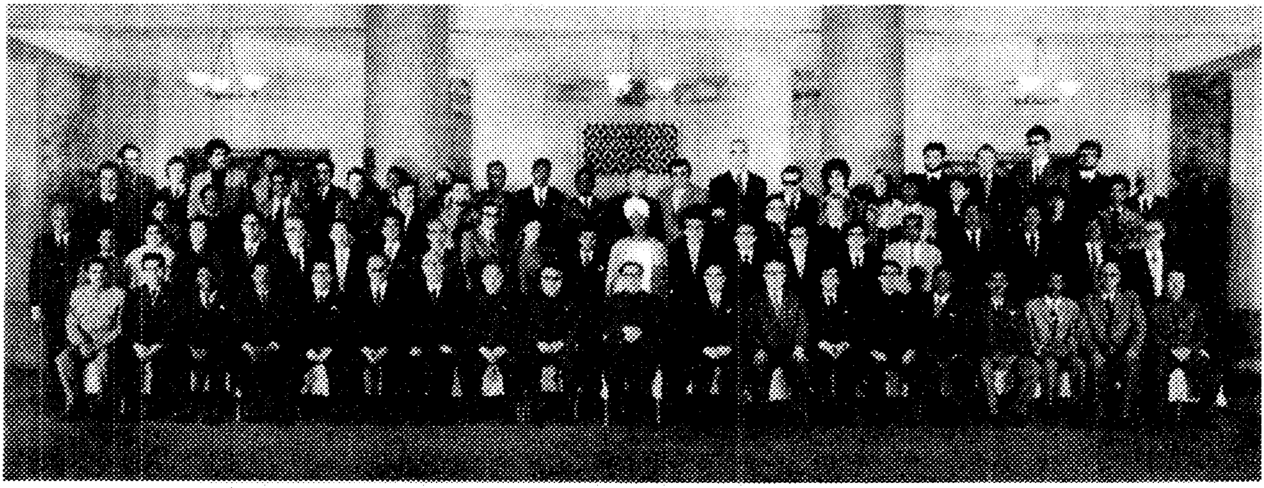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초상기를 선두로 조선소년단
련합단체기발이 대회장에 들어섰다



입단맹세문을 소리높이 읽는 어린이들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축하하는 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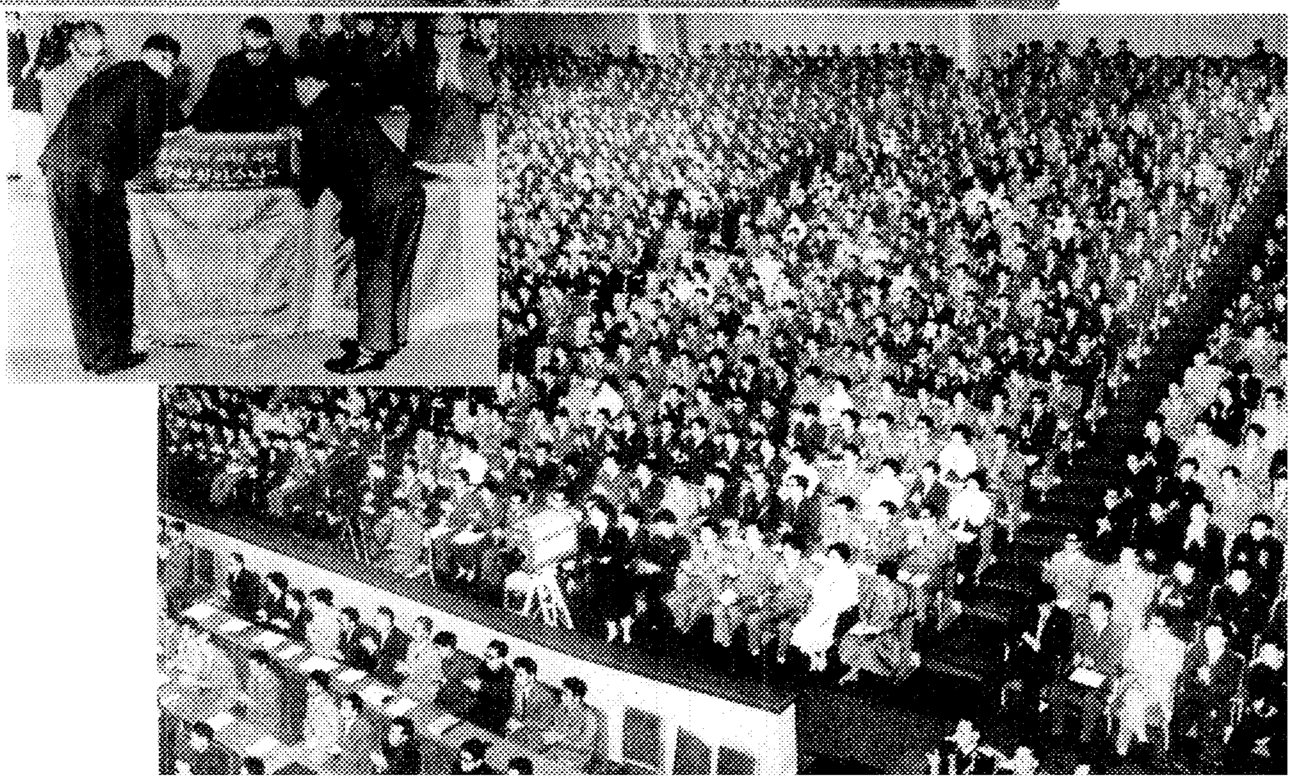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여러나라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국사회과학자 대회 주석단과 대회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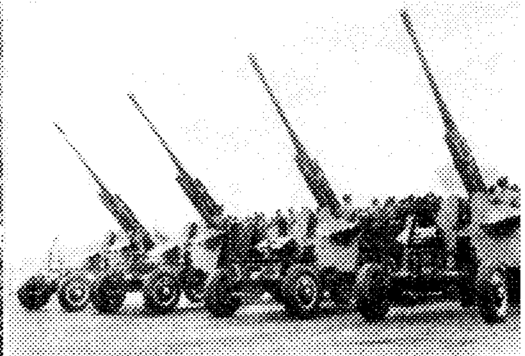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제막과 조선혁명박물관 개관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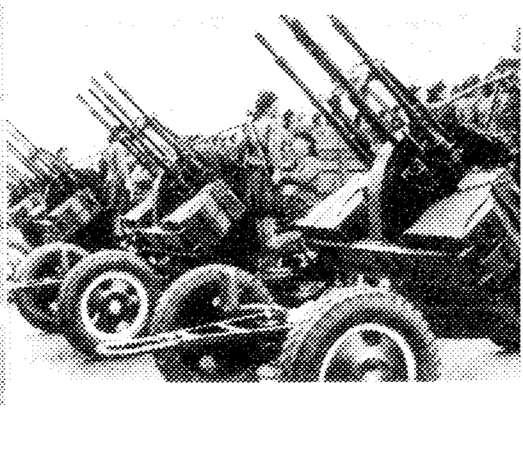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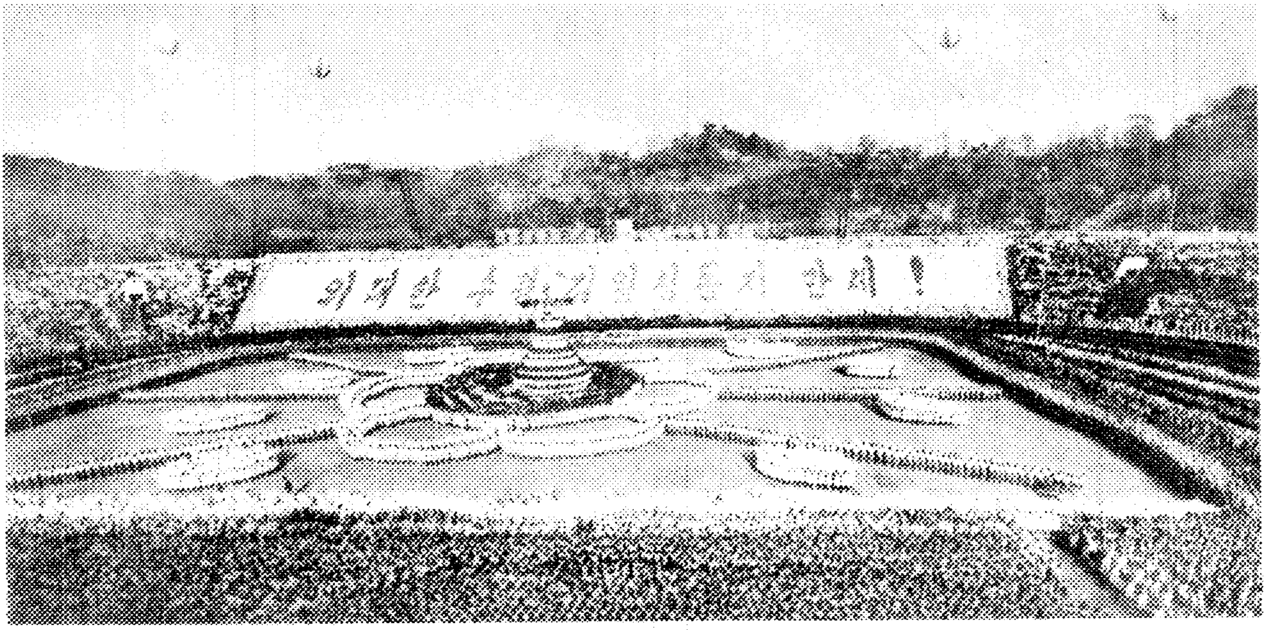
열병식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경축 열병식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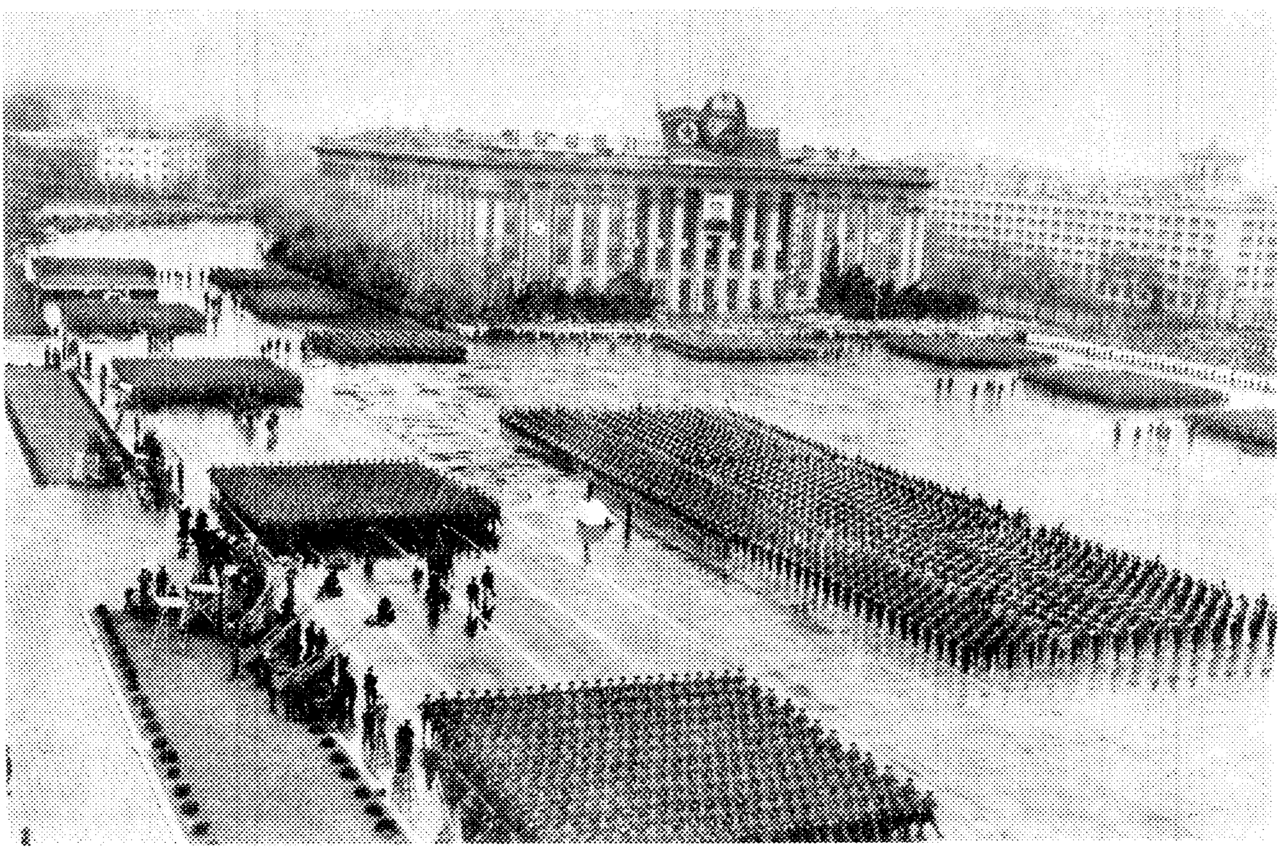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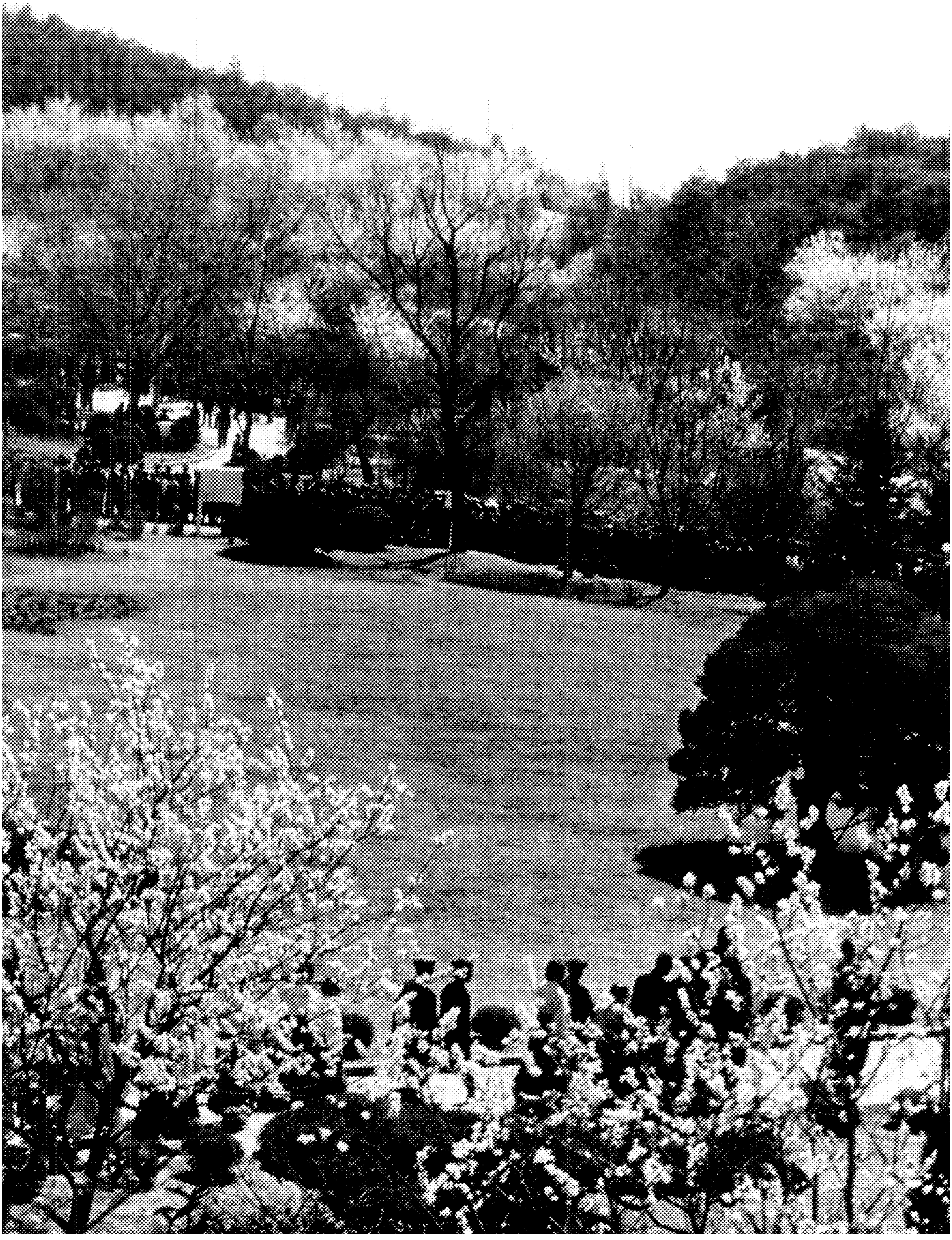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을 형상한 인민상계관작품인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종막의 한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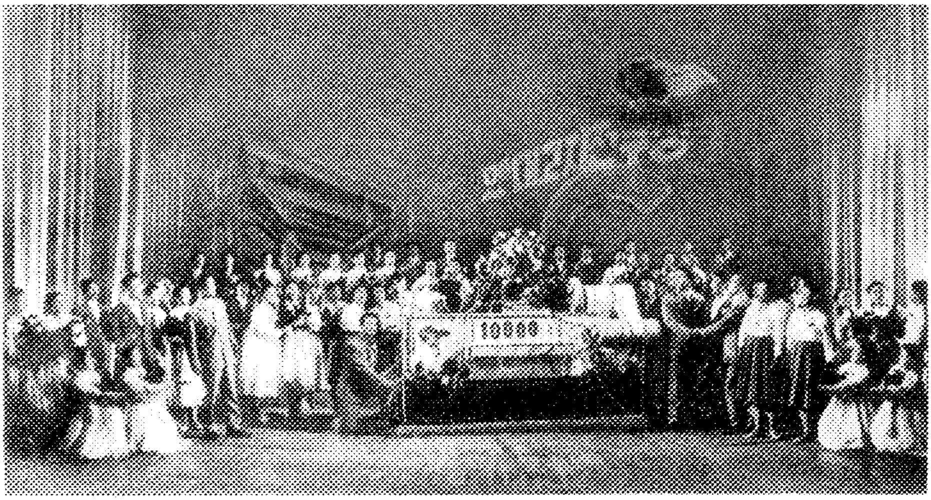
——→ 불패의 혁명대오 일당백의 조선인민군, 로농적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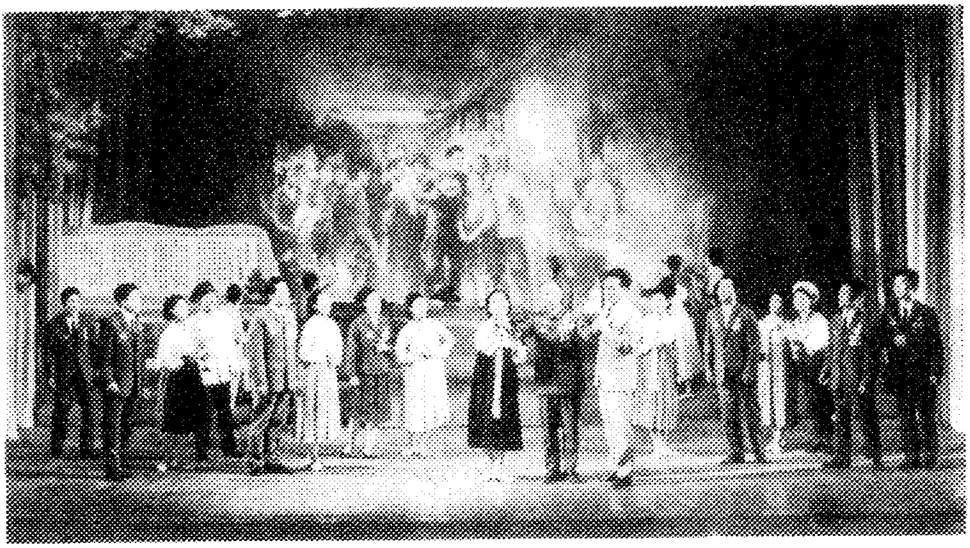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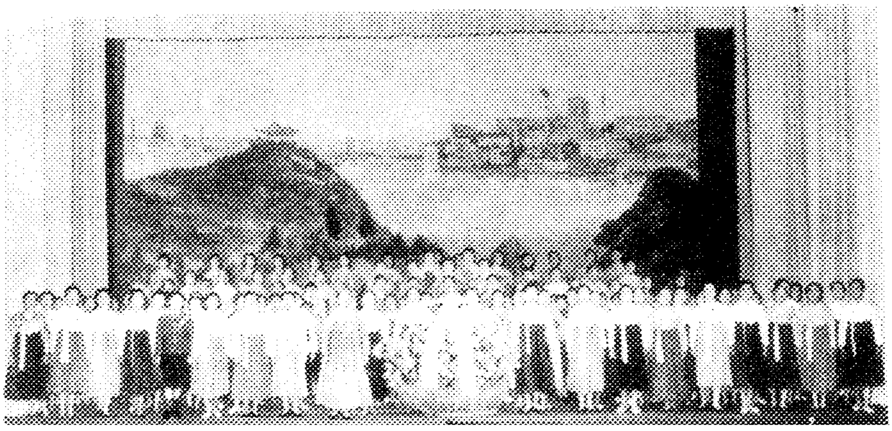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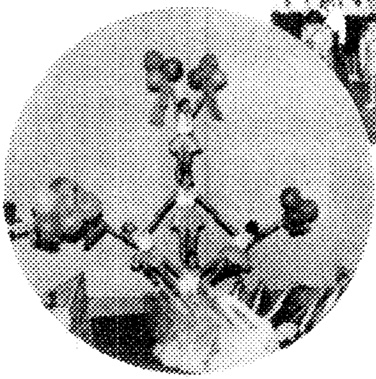
어버이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로동자예술소조원들과 녀맹예술 소조원들의 공연











어버이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청년학생예술소조원들과 농근맹 예술소조원들의 공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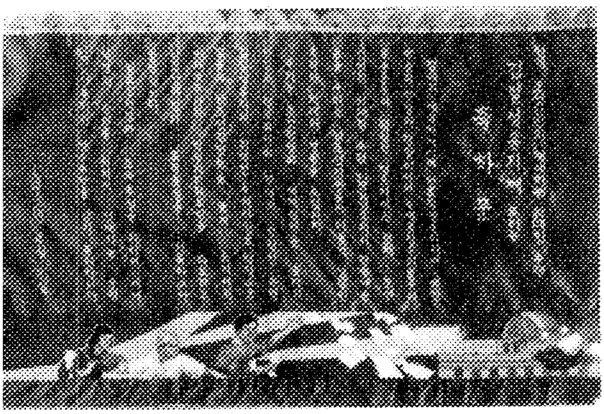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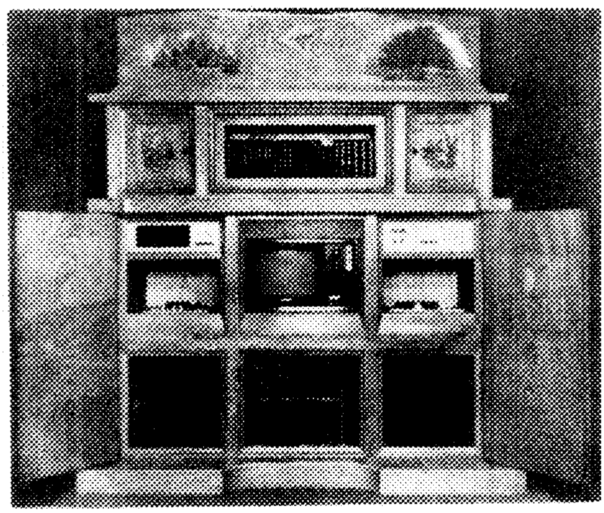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여든돐을 맞이하여 발행된 기념출판물들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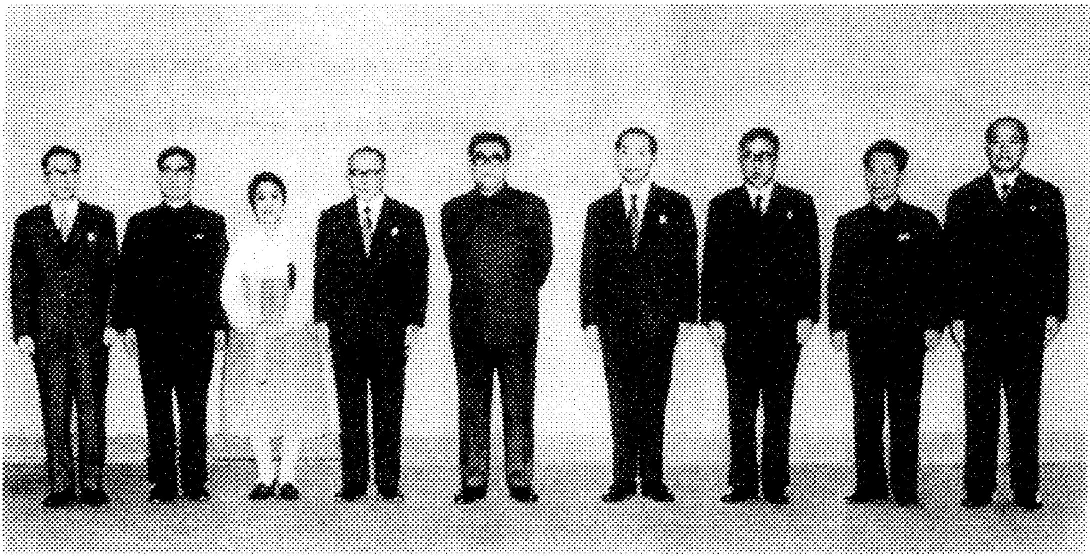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드린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 애국적인민들,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정이 담긴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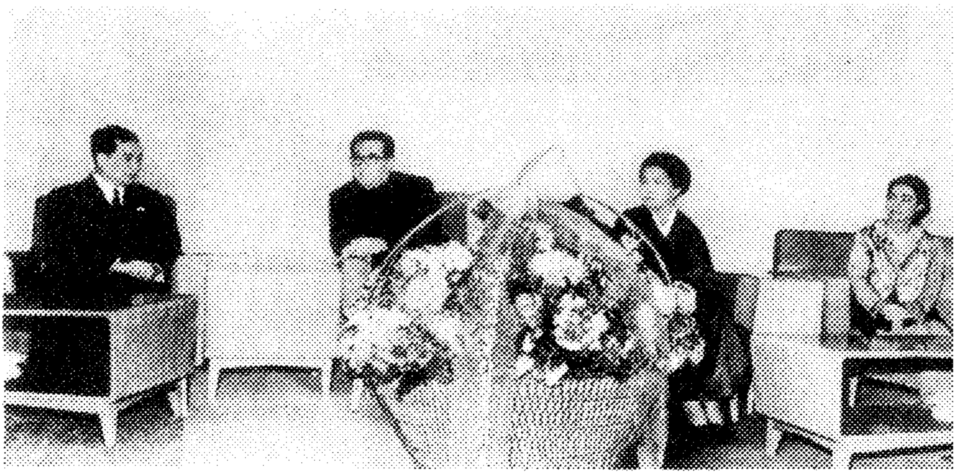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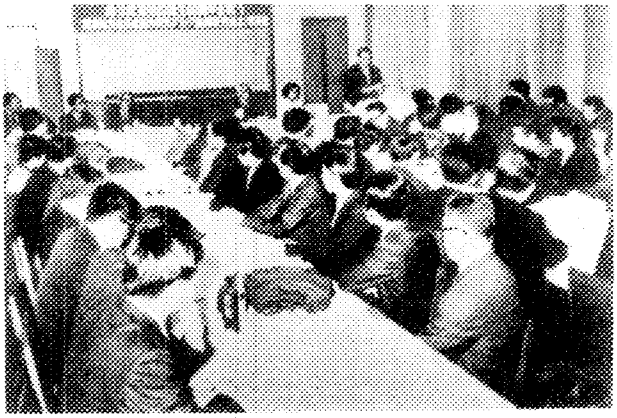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축하방문하여 온 캄보쟈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끄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안고온 [illegible]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일본 도꾜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원들 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일조협회회장으로부터 보내온 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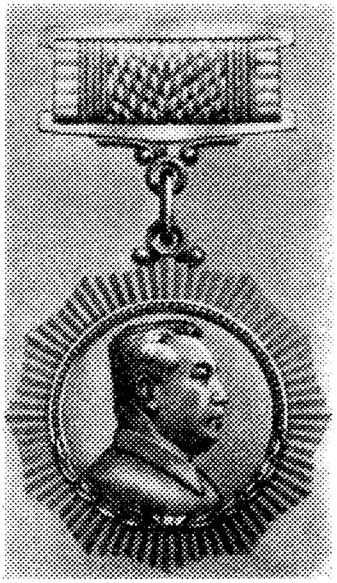
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전람회 진행



중근동지역 여러나라의 정치활동가, 권위있는 학자, 출판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에서 열린 《김일성동지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

서부독일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원들의 연구토론회





김일성상 금메달



김일성훈장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평양시내 근로자들의 성대한 야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중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여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총화하시여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위대한 주체의 전통,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조선혁명의 승리적발전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튼튼한 터전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해방된 우리 나라 현실에 구현하시여 가장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안팎의 원쑤들이 악랄하게 책동하던 어려운 정세하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지체없이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고 짧은 시일내에 우리 당을 강철같은 혁명적당으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그를 공고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만들어놓으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탁월한 령도와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시여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시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

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시고 그 총체를 령도하시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시일내에 승리적으로 수행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 온갖 착취의 근원이 청산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시고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여 나라일을 상론하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진정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아직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번영의 시기에 들어섰으며 강력한 경제력과 찬란히 개화발전된 사회주의적민족문화와 금성철벽의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남북조선인민들을 이끄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전반에서 현시대가 절박하게 해명을 기다리는 원칙적인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하심으로써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고계신다.

오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중영웅칭호를 수여함과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전 창 철

1972년 4월 14일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오늘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끝없는 환희와 감격속에서 뜻깊게 맞이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로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면서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대하고 찬란한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히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종파주의와 기회주의,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당을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일단결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와 근로단체들을 세우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은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백전백승하는 당을 향도적력량으로 하는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과학적예견성과 명철한 통찰력, 강철의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제국주의침략과 국내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세련된 령도와 천재적인 전략전술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고 짧은 시일안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이 땅우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과학과 교육, 문화를 개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고결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전체 근로자들을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시며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십니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고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완전한 정치적자주성과 튼튼한 자립경제, 불패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위대한 주체의 나라, 《천리마조선》으로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혁명적인 민으로서 그 영웅적기개를 온 세계에 떨치고있습니다.

온 3천리 조선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고계시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 그리고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철저한 계속혁명사상과 반제사상, 혁명적군중로선으로 특징지어지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훌륭히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실천적모범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심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으며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인 미일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시였으며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여오시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계십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60성상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고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빛나는 력사이며,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조국과 혁명, 민족과 인류 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영광찬란한 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가 있으며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래일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신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에 불멸의 금자탑으로 높이 솟아있을것입니다.

위대하고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이며 인민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은 한평생을 오로지 혁명에 바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시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받들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나갈 불타는 충성심과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절한 심정을 담아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1972년 4월 13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여!

오늘 우리는 남조선혁명과 국토통일을 위한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상 최대의 경사인 수령님의 탄생 60주년을 경건한 마음으로 뜻깊게 맞이합니다.

이 영광찬 민족사적명절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성업을 항시 승리에로 향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체 우리 당원들과 이 땅의 모든 혁명가들과 피착취, 피압박 인민대중의 무한한 경모의 정과 충성의 마음을 한데 모아 무상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수령님께서는 대대로 애국의 길에서 꿋꿋이 싸워온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혁명가문에서 탄생하신 그 장엄한 력사의 해돋이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성상을 민족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바쳐오시였으며 민족과 인류 앞에 영세불멸의 위대한 공적을 쌓으시였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 수령님께서는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찬란히 구현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춘풍추우 15성상 항일무장항

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시였으며 그간고무쌍한 혁명적폭풍우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전민족의 열광적환호리에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립의 명철한 대강을 제시하시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향도하시여 최단기간내에 조국 북반부를 전국혁명의 불패의 성새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조선을 무력으로 병탄하려는 국제반동의 괴수 미제침략자들에게 사상초유의 참패를 안기시고 놈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시였으며 세계혁명의 전진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키시였습니다.

휴전후 수령님께서는 황량한 폐허우에서 전설적인 천리마의 진군을 일으키시여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현대의 대기적을 창조하시고 조국 북반부에 존엄있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류의 최고리상을 실현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몸소 개척하시면서 주체조국의 기상과 영광을 온누리에 파시하시였습니다.

20세기의 방향타를 틀어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증유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띤 조선혁명을 가장 가까운 승리의 길로 향도하시면서 혁명의 노도가 전지구를 휩쓸고있는 현 시대의 세계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시고 반제반미투쟁을 부단한 앙양에로 추동하시였으며 인류사발전을 가속도적으로 추진시키시였습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사상리론과 전략전술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위대한 혁명의 길에서 인류사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화답하시여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을 중핵으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세계적판도에서 승리하는 시대의 혁명사상리론과 전략전술을 전포괄적으로 체계화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현 시대의 혁명학설을 창시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비상히 풍부화시키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보다 높은 차원에로 비약시키시였으며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앞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고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헤치시고 세기를 주름잡아오신 지난 60성상은 망국의 비운에서 조국을 구출하시고 민족적대통성의 시대를 열어놓은 영세불멸의 애국의 력정이며 짓눌리고 천대받던 피착취, 피압박 민중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광명을 안겨주신 영광찬란한 혁명의 력사이며 세계를 비치고 세기를 이끌어 인류최고리상의 실현을 촉진하여오신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금별의 년대기입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위대한 공산주의자이시며 사상리론의 대가이시고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리안의 통찰력과 강철의 의지,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불세출의 영웅이신 김일성동지를 자기의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이며 현 시대의 무상의 영광입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북반부에《사회주의모범》을 창조하시고 민중의 지상락원을 마련하시면서 미제강점하에서 신음하는 남녘의 피착취, 피압박 민중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려하시였으며 남조선혁명과 국토통일에 관한 독창적이고 명철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시여 이 땅의 혁명가들과 민중의 진로를 휘황히 명시하시였습니다.

전세계가 경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우리의 진군을 향도하고있기에 우리 남녘의 혁명가들과 민중은 국제적으로 대두한 각종 기회주의의 와중에서도 혁명의 방향각을 투철히 견지할수 있었으며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의 식민지파쑈광풍이 휘몰아치는 엄혹한 역경에서도 자기 위업의 진리성을 확신하고 최후승리에 대한 자신심에 충만되여 온갖 시련을 견결히 극복타개해올수 있었습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하고 자애로운 영상은 남조선혁명을 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본원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들에게 백절불굴의 투지를 북돋아주고 희망찬 미래에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남녘의 혁명가들이 철창과 단두대우에서도 수령님의 전사된 영광을 긍지높이 자랑하며 이땅의 민중들이 적들의 야수적탄압하에서도 《김일성동지 만세!》를 절규하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고창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명시하신 진로를 따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무이의 지도리념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기치하에 남조선에서는 혁명력량축적과 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수령님의 능동자재하신 방략에 의하여 급속히 호전되고있는 격동적인 정세하에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구축하고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분쇄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한 대중투쟁이 가강히 전개되고있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 당원들,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중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시기에 천명하신 위대한 혁명구상을 하루속히 전국적판도에서 실현하며 5천만 전민족이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된 3천리금수강산에서 무궁한 번영을 구가하게 될 희망찬 미래를 최대한으로 앞당길 충성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진로는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애로와 난관도 적들의 그 어떤 발악도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임을 자부하고있는 우리들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으며 남반부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서 물러서게 할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우리 통일혁명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 땅의 모든 혁명가들과 민중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고 완수하는것으로써 뚜렷이 증시할것이며 이북형제들과 합심협력하여 국토통일의 민족사적대업을 촉진함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어버이 수령님을 일구월심 경모하면서 수령님께 영원한 충성을 다지고있는 전체 우리 당원들과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열원을 담아 국토통일과 우리 나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하여, 통일조국의 륭성발전과 전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시며 남조선민중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1972년 4월 14일 서 울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민족의 찬란한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언제나 경모하여마지않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우리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한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뜻깊은 민족최대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에 류례없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여나시고 력사와 시대의 부름에 대답하시여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직 우리 인민의 자유해방과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세계사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여 휘황한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완전한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시고 세기적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조국땅우에 천리마기상이 나래치는 락원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 금성철벽의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그 빛을 찬연히 뿌리고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패의 주체사상은 남녘땅에서도 빛나게 구현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의 처지를 걱정하시여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총련을 무어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이 조국의 륭성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본주의적환경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계승자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도 드높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앞장에 서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로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끄심으로써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하기에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현대인류사상의 최고봉》,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생활의 신조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심으로써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수령님을 모시고나아가는 우리 조선인민처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민은 없습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성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아갈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나라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세계혁명승리를 위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2년 4월 14일
일본 도쿄

아버지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1972년 4월 15일,

이날 전체 조선인민은 60평생을 오로지 혁명에 바치시여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우리 민족의 이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온 나라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영원히 수령님을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나갈 불타는 충성심과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4월 16일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운동장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신 크나큰 영광속에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날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우리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인 유서깊은 력사의 땅 만경대에 자리잡고있는 이 학원 운동장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소년단원들을 비롯한 10여만명의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로 가득차 있었다.

오전 10시 30분,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에 앞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소년단 명예영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대회장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불같은 충성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면서 영웅적항일혁명투쟁과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완전한 정치적자주성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을 오늘의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청년들의 대중적정치조직과 함께 조선소년단을 창립하여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소년단을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혁명의 계승자들의 전투적인 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않으시고 다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마음껏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아갈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면서 그이를 우러러 그처럼 열렬한 환호를 올리며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였다.

온 장내에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250만 조선소년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이 어린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를 수령님께 드리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일행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부룬디공화국대통령특사,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대표단,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 그리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비롯한 전체 주석단성원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이어 소년단의식이 진행되였다.

개회선언이 있은다음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대회가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면서 수령님께 삼가올리는 경축사가 랑독되였다.

경축사에서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는 끝없는 감격과 행복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하면서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수령님께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1912년 4월 15일 아버지원수님의 탄생은 새 조선,새시대의 빛나는 탄생이였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위대한 아버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새벽길을 이어, 어머님께서 키워주신 조국광복의 뜻을 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 주체의 홰불을 높이 드시여 이 강산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신데 대하여 격조높이 읊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강철의 당을 창건하시고 인민정권을 세우시였으며 간악한 미제침략자들을 죽음의 함정에 처박고 승리한 이땅우에 부강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시여 지난날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온세상에 빛내여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원수님의 위대한 해빛은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어두운 남녘땅에도 빛발치여 통일의 새아침을 불러오고 싸우는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만대에 길이 전하여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는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라고하면서 그들은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깊고

억센 뿌리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조선소년단을 제때에 무어주시고 직접 이끌어주심으로써 나어린 혁명가들의 조직이 언제나 승리와 영광을 떨치게 되였으며 세계공산주의소년운동의 선두대렬에서 씩씩하게 나아가고있다고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철따라 새 교복을 내여주시는 등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가지가지의 배려에 대하여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맹세다지였다.

그러면서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소년단원들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민족최대의 영광의 날인 원수님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수령님께서 몸소 무어주시고 키워주시였으며 이끌어주시는 영광스러운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인 조선소년단에 새로 입단하는 수많은 소년들이 입단맹세를 다지는 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조선소년단원으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며 원수님을 목숨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는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아버지원수님께 드리는 조선소년단원의 선서가 랑독되였다.

그들은 선서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가진 영광을 간직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원수님의 혁명위업을 억만년 길이길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참된 계승자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명의로 전체 소년단원들을 축하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자라고있는 소년단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대회에 이어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학생소년들의 집단체조 《혁명의 태양이 솟는 만경대》가 진행되였다.

원수님의 생신날인 4월 15일 각도(직할시), 군(구역) 소재지들에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웅대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4월 15일전으로 앞당겨 끝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끝없는 감격과 행복을 안고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소년단련합단체대회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와 집단체조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끝없는 신뢰, 열화같은 충성심과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대회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면서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고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억세고 믿음직한 모습과 그들의 불타는 혁명정신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 부인이 그이를 축하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는 4월 15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만나시였다. 축하방문에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일행과 그밖의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또한 여기에 참가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며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여 지성어린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석상에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인민의 가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으로부터 벗으로, 전우로, 형제로 인정받는 각별한 특전을 지니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캄보쟈인민의 가장 커다란 흠모와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정으로 충만된 인사를 드리며 그이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시하누크친왕은 김일성수상께서는 캄보쟈인민과 그의 조국 캄보쟈의 가장 위대하고 진실하며 적극적인 벗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불행한 때 진정한 벗과 가짜벗을 알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큰 불행과 빈궁에 처하게 된 1970년 3월 18일이후 각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은 극히 진실하고 다정한 형제로서 우리에게 대단히 확고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었으며 우리의 정당한 위업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우리로 하여금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결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있습니다.

1970년 3월 18일의 정변이 있은 다음날 당신께서는 프놈 펜에 있는 귀 대사관을 철수하게 하시고 인민들에게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잡을것을 호소한 우리의 1970년 3월 23일 호소문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주시였으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구성되자 그를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으로 하여금 전투에서 수많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원조를 주시였습니다.

당신께서 취하신 이 모든 조치들을 우리가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또한 정치, 외교 등 분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기울이신 모든 노력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며 특히 해방된 다음 우리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매우 귀중한 원조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혁명의 숭고한 원칙에 충실하며 조선의 해방자이시며, 해방후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번영하며 가장 행복한 나라들중의 하나로 전변된 조선의 창건자이신 전설적영웅을 모시고있는 조선혁명의 특징입니다.

김일성원수 당신은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당신은 조선인민의 자랑으로 될뿐만 아니라 크메르인민과 세계 모든 혁명적이며 진보적이며 반제적인민들의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당신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나라들에 인구도 많지 않고 발전되지도 못하였으며 크지도 않은 나라라 하더라도 용감한 인민을 가지고있고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다면 가장 위험하고 강대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기반으로부터 해방될수 있으며 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희생성에 의거하여 군사,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면에서 위대한 강국으로 될수 있다는 경탄할 모범과 부인할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기적은 주체사상과 비범한 덕성을 지니신 수령님의 령도밑에 기적적인 천리마의 속도로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의 위대한 로동과 재능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영용한 형제이며 전우이며 동맹자로 된다는 커다란 행복과 각별한 특전을 향유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개무량하지 않겠습니까!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종국적인 승리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계속하였다.

조선의 남반부는 완전히 해방될것이며 조선인민의 유일한 수령이시며 합법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민족의 유일하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테두리내에서 반드시 남북이 완전히 불가항력적으로 통일될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영웅적인 귀국인민과 당신을 경모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영광스러운 당신의 탄생 예순돐이 되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나는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고 그이께 영광이 있으라!》,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단결하고 조선의 남반부가 해방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테두리내에서 남북이 통일될것을 축원한다》고 소리높이 웨치는바입니다.

석상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부터의 축원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고 우리 인민은 국가원수친왕의 귀중한 선물을 영원히 보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전우인 캄보쟈인민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령도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시면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가원수친왕이 건강하실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여러나라 대통령특사, 친선대표단과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이 그이를 축 하 방 문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14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부룬디공화국 대통령특사,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대표단,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만나시였다.

석상에서 부룬디공화국 대통령특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미쉘 미촘베로대통령이 보내는 가장 열렬한 축하인사를 담은 친서와 지성어린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대표단은 수령님께 자기 나라 대통령들이 드리는 열렬한 축하인사와 지성어린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은 그이께 드리는 칠레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명의로된 축하문을 전하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손님들과 각각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는 4월 14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을 만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그 부인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여 그이께 삼가 지성어린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석상에서 외교단 단장인 우리 나라 주재 남부웰남공화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단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파시스트들의 식민지통치의 멍에를 청산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후 영웅적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각하께서 몸소 이룩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나라들과 진보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인민들의 광범한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1950년~1953년기간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대규모적이고 포악한 침략전쟁을 분쇄하였습니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이 위대한 전쟁승리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놈들의 침략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심대한 참패를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피압

박인민들의 혁명투쟁운동에 고무적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후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각하의 두리에 뭉쳐 헌신적인 로동정신과 창조적지혜를 발휘하면서 한사람같이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미제에 의하여 생긴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가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오늘과 같은 부강한 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으며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국제무대에서 날을 따라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그는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는 남조선혁명에 고무적힘을 준다고 말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방침에 따라 조선의 평화통일위업이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형제적 조선인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있는 자기들은 조선인민이 제5차당대회가 제시한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훌륭히 완수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온 나라가 환희와 감격에 휩싸이고 전체 인민이 그이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 끓먹이고 있는 가운데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는 강연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중앙강연회

4월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중앙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들, 내각부수상들을 비롯한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그이의 혁명전사로 몸바쳐 싸우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공화국영웅들, 로력혁신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체 강연회 참가자들은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시고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싸우시는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과 그이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 고매한 덕성을 가슴깊이 새겨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다함없는 존경과 끓어넘치는 흠모의 정을 담아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강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출연자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광명한 미래를 약속하는 찬란한 해돋이였음을 강조하고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으로 엮어진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투쟁의 새시대, 승리하며 전진하는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력사를 수놓았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그는 먼저 수령님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혁명투쟁을 통해서 조국과 혁명 앞에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라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꿋꿋이 싸워온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열다섯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였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혁명을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길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리론, 새로운 전략전술을 창시하심으로써 조국과 혁명앞에 영생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는 1930년 카륜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정연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 무장투쟁의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해방후 가장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인류의 최고 리상을 선봉에서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되게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과 인민정권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하며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백전백승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와 근로단체들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총체를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광범한 인민대중을 제때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불패의 혁명기지를 꾸려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엄중한 정세하에서 혁명무력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여지없이 격파하심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시였으며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락후한 식민지 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활짝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나라 반만년력사에서 가장 크고 찬란한 민족사적대업이며 일찌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보기어려운 세계사적공적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는 조선혁명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여오신 자랑찬 력사이다.

강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오르시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투쟁의 반세기,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영광찬란한 력사이라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일정한 단계만이 아닌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이르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령도해오시는 실천투쟁속에서 위대한 사상리론을 창시하신 혁명의 영재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시기 우리 혁명의 특수성과 시대적조건을 옳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근본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04~505페지)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력사상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천재적리론을 창시하시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인류의 최고 리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길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있는 혁명적령도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처음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의 전투적기능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며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 반제반미 통일전선과 공동투쟁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 등 반제반미투쟁의 탁월한 리론과 전술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력량이 우리 시대의 2대 혁명력량이라는것, 그것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강연회에서는 다음으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체계정연하게 완성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대중령도의 탁월한 예술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확히 집행할수 있게하는 세련된 령도방법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에서 몸소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였으며 낡은 틀, 낡은방법을 마스고 새로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계실뿐만아니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품성, 참다운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고계실뿐만아니라 무한히 겸손하고 소박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니시고계신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없이 심오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였을뿐만아니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

전체 강연회 참가자들은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더 없는 행복과 영예를 다시금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를 받들어 충성다할것을 굳게 맹세 다지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였다.

이밖에도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혜산시와 청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 강 연 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중앙록음강연회를 가지였다.

강연회에는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의 녀성일군들과 각급 녀맹일군들, 평양시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근로녀성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녀성들의 해방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강연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성들을 봉건적 및 식민지적착취와 온갖 인신적예속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주시였으며 오늘은 어엿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주신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벗어나게 하시려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에 대해서와 혁명가유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피시고 앞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연회 전체 참가자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혁명적각오를 굳게 다지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는 중앙강연에 이어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강연회를 널리 조직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 강 연 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중앙강연회를 가지였다.

강연회에는 시내 직맹일군들, 공장, 기업소 직맹원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로동계급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의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나라의 참다운 주인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신데 대해서와 그들을 온갖 중로동과 유해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키며 보다 더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에 심려하여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아래 교육의 나라, 발전된 과학의 나라, 찬란한 예술과 체육의

나라, 60청춘에 90환갑을 노래하는 무병장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강연회 전체 참가자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시기에 60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으며 자신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부단히 혁명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불같은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강연회는 각도, 시, 군(구역) 직맹조직들에서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강 연 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는 4월 6일 중앙강연회를 가지였다.

강연회에는 평양시내 사로청원들과 청년학생들, 사로청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청년들을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년문제, 청년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였으며 우리 청년들을 새 사회건설의 거대한 혁명력량으로,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고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친아버지심정으로 보살펴주신다.

그이께서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였으며 재일조선인청년학생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이 마음껏 배우고 자라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강연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행복의 은인이신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였다.

강연회참가자들은 그 어떤 사나운 풍파속에서도 오직 수령님만을 따르며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강연회는 각도, 시, 군(구역)사로청 조직들에서도 진행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 모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모임을 광범히 가지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농촌을 마련해주시고 그들을 한없이 크고 넓으신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덕성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농촌문제해결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훌륭히 실현해오시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여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휘황한 공산주의 미래에로 확고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쁘신가운데서도 농민들을 찾으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알아보시여 우리의 농촌을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셨으며 우리 농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였다.

모임참가자들과 토론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으며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만고대풍을 이룩하며 영원히 그이께 충성다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인민군대, 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 강연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면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 강연회를 광범히 가지였다.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군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워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의 제목으로 강연회를 가지였으며 조선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인민경비대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록음강연회를 가지였다.

강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군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하여 친히 구분대를 찾으시고 군인들의 정치교양사업과 전투훈련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강연회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강조하였다.

강연회에 참가한 전체군인들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8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공헌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구분대들과 재일조선인총련합회 간부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문화기관 간부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군관, 장

명들에게 《김일성훈장》과 문화건설부문 일군들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할데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에 의하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고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교시들을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모범이 되고있는 102개의 공장, 기업소, 단체 및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구분대들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로선을 높이 받들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고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6명의 재일조선인총련합회 간부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해방전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빛나는 위훈을 세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국가경제문화기관 간부들과 근로자들,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군관, 장령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으신 덕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35명의 일군들에게 《김일성상》과 이에 따르는 상장과 금메달을 수여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창조성, 불패의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우리의 사회과학을 더욱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사회과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혁명과 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해설》(전5권)에 《김일성상》과 함께 이에 따르는 상장과 금메달을 수여하였다.

또한 4월 13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는 뜻깊은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위하여 학습과 소년단생활에서 항상 모범을 보인 2중천리마평양남산고등학교 분단위원장 김광일외 229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김일성소년영예상》에따르는 표창장과 휘장, 상품이 수여되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게된 모든 기관단체들과 수훈자들은 물론 온 나라가 끓어넘치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였다.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혁명하는것을 가장큰 행복으로 그이를 모시고 사는것을 끝없는 영광으로 가슴 가득히 느껴온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존귀하신 성함을 지닌 훈장과 상을 수여받게 되는 감격속에서 그이를 받들어 영원히 그이께 충성다하여 한 목숨 바칠 억세인 결의들을 다지였으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공장, 기업소, 단체 및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구분대들은 다음과같다.

강선제강소
성진제강소
대안전기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수풍발전소
검덕광산
신창탄광
흥남종합비료공장
룡성기계공장
남포조선소
최상열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백전사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리용수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윤호석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김병수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리동린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구성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옹진지질탐사대
윤종섭동무가 사업하는 제약공장
강계연필공장
전천성냥공장
신포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함경남도 인흥군 원평수산협동조합
강원도 통천군 고저수산협동조합
김일성종합대학 건설관리국
중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청년발전소 건설사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서평양기관차대
신성천역
리명수·[illegible]산사업소
조선중앙방송국
남포항
평양도시설계사업소
평양시 제1려객자동차사업소 팔동교중대
강계시 제1자동차운수대
만경대닭공장
평양과수농장
광포오리공장
국영 제5호종합농장지구위원회
재령농기계작업소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사업소
압록강관개건설종합기업소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관리위원회
평안남도 강서군 장진협동농장관리위원회
평양시 력포구역 소삼정협동농장관리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사범대학
함흥의학대학병원
로동신문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평양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교육도서출판사
원산농업대학
자강도 희천고등기계전문학교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중학교
황해북도 송림시 송림중학교
평양시 창전인민학교
개성시 고려유치원
황해남도 해주시 구제유치원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협동농장 탁아소
평양시 서흥탁아소
청진제강소 탁아소
조선인민군 제235군부대
조선인민군 제315군부대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조선인민군 제435군부대
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조선인민군 제582군부대
만경대혁명학원
조선인민군협주단
조선인민군 제401군부대
조선인민군 제406군부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대학
황해남도 청단군사회안전부 청단읍 분주소
조선인민경비대 제5491군부대 102분견대
류학빈동무가 사업하는 사회안전부
조선인민군 오광수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전운택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림기환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리금상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라현덕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리상설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한흥구동지소속구분대
조선인민군 김송렬동지소속구분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학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신소
평양출판사
제1연구소
4월28일공장
운곡목장
사회안전성붉은기연극단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경축 충성의 노래모임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이 되는 날인 4월 15일을 끝없는 기쁨속에서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날 저녁,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이 있었다.

모임에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새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이 올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기념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넘쳐한 시내 로동청년들과 영광스러운 올해를 전례없는 만고대풍으로 빛내이고저 봄을 앞당기며 농사일을 다그쳐온 협동농민들, 그리고 각 대학과 고등기술학교, 중학교 학생들 2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들과 함께 시내 당, 정권기관 간부들과 각 대학학장들, 사로청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역만리에서 평양으로 달려온 자전거행진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개회선언에 이어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이 충성의 노래모임에는 평양시내 5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이야기와 합창시, 대합창, 중창, 무용, 무대배경 등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품속에서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생활,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그들의 불같은 결의를 잘 보여주었다.

막이 오르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소년단원들,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이 백화만발한 4월의 만경대를 찾는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붉은 태양
　이 솟아오른다.
아 태양이 솟는다 태양이 솟는다
4월 15일 아침해 솟는다.
만경봉 하늘가에 태양이 솟아 올라
어둡던 강산에 해빛 뿌리셨네
아,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사회주의 내조국 세워주셨네.
은혜로운 그 사랑 강산에 넘치여
공산주의 찬란한 앞길 밝히셨네
아, 혁명의 태양 김일성원수님
우리들은 충성담아 인사 드립니다.

밤하늘의 고요를 깨뜨리며 《만경대에 붉은 태양이 솟았네》의 대합창이 은은히 울려퍼지는데 아름다운 꽃묶음을 든 무용수들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충성의 정을 담아 정중히 춤을 춘다.

출연자들은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그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만경대 갈림길아 길이 전하라》, 《빛나는 조국》,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은 영원하여라》, 《원수님을 영원히 따르렵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등의 우렁찬 합창과 중창, 이야기와 무대배경을 배합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해방후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수령님의 높은 덕성에 대하여, 수령님의 주위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일편단심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의 한길에서 몸과 마음 다 바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은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합창으로 끝났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 경축 야회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 15일저녁 혁명의 수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평양시내 근로자들의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광장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을 광복하신 다음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모여 온 근로자들로 사람의 바다를 이루었다.

광장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이 수도의 밤하늘에 힘있게 울려퍼졌다.

이어 광장의 야외무대에서는 시랑송이 있었다.

무대에 뛰여오른 남녀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송시를 그이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랑송하였다.

광장에서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축원합니다》의 합창이 울려퍼졌다.

야회참가자들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열화같은 마음을 안고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노래하자 4월의 만경대》, 《인민들은 주체사상 노래하네》, 《봉화산기슭》, 《혁명가》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돌아갔다.

광장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 만세!》의 환호성이 자주 터져올라 대동강의 물결을 타고 멀리 울려퍼져갔다.

수도의 밤은 깊어가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된 경축의 춤과 노래는 그칠줄 몰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 기념 로작전시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경사의 날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수령님의 로작전시회가 4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장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첫임무를 수행하던 시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와 그후 시기로 나뉘여 전시되였다.

전시회장의 첫부분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장차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제 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열두살의 어리신 나이에 홀몸으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셨을 때의 사료들과 팔도구소학교와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손수 지으신 작문들을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 《새날소년동맹》의 강령, 《조국광복회10대강령》, 그이께서 친히 창간하시고 지도하신 신문《새날》과 《볼쉐위크》, 잡지《농우》, 조국광복회기관지《3.1월간》, 그이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선에서 광범한 군중의 반일운동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비롯한 각종 소책자들과 론문 등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과 혁명적출판물들이 전시되였다.

다음부분에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수습하고 인민들앞에 가로놓인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타개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바쳐진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인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우리는 이해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것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실시에 관하여》 등이 전시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인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를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제3차, 4차, 5차 전원회의들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 등 조국의 자유독립과 영예를 고수하며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당과 전체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는데 바쳐진 력사적문헌들이 전시되였다.

그다음 부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오늘에 이르는동안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촉진을 위하여 바쳐진 력사적문헌들인 당 3차, 4차대회보고와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당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하여 최근시기 그이께서 집필하신 로작들과 연설들, 외국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각 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수록한 단행본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장에는 60만재일동포들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기 위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출판한 그이의 로작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많은 로작들과 《김일성전》, 김일성동지혁명활동략력 등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교양자료들을 많은 나라들에서 수십개의 민족어로 출판하고있으며 수백종의 신문잡지들에 싣고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수록한 각종 도서들과 화첩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며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에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는 당정책해설도서, 문예서적, 청소년교양도서, 과학기술도서와 신문, 잡지 등이 전시되였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 근로자들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백과전서적인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뼈와 살이 되게 깊이 연구 체득하고 철저히 옹호하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힘차게 내달릴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기념 도서와 출판물 특집들을 발간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김일성저작선집》제5권, 《김일성군사선집》제

1, 2권을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략전》, 《김일성동지전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도서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등 1968～1970년시기의 그이의 론문, 보고 결론, 강의, 담화 등 가운데서 중요저작 17건이 수록되였다.

《김일성군사선집》 제1권에는 고전적로작《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대하여》,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 《인민군대는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를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문제에 관한 불후의 로작들 중에서 중요저작 44건이 들어있다.

《김일성동지략전》에는 그이께서 걸어오신 영광의 60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새시대, 영광스러운 주체의 시대를 열어놓은 찬란한 승리의 력사가 14개장으로 감명깊게 서술되였다.

또한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등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혁명화의 기준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교시집들이 출판되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년대순 2, 3, 4), 《위대한 수령을 따라 배우자》(5, 6), 《4천만의 어버이》(3) 등 수많은 혁명전통 도서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이 출판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를 서술한 《중공업발전에 관한 사상의 빛나는 실현》, 《우리 당 경공업정책과 그 위대한 생활력》, 《사회주의 농촌관리문제에 대한 창조적사업》 등 수많은 도서들과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내용으로 하는 문예도서들이 출판되였다.

4월 15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로동신문》, 《민주조선》, 《로동청년》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각 신문들에서는 특간호를 발간하였으며 《근로자》, 《천리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잡지들도 4월 특집호를 발행하였다.

《로동신문》은 1면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표제를 달고 천연색사진들과 글을 실었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새로 출판된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비롯한 수많은 출판물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전달이어달리기

1972년 4월 15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는 각지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철석같은 결의를 담아 삼가 올리는 편지를 군중대회들에서 채택하고 이 편지를 전달할 이어달리기를 진행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혜산, 중강, 서수라, 창성, 1211고지, 판문점, 남포 등 각지에서 떠나 우리 나라의 모든 군과 도를 거쳐 혁명의 수도 평양에 닿게 된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렬에는 40여만명의 남녀 로동자, 협동농장원, 사무원, 청년학생들과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군인들, 사회안전원들이 참가하였다.

한편 2월 23일 일본의 남북단인 규슈 나가사끼와 혹가이도 삿뽀로에서 각각 떠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성다할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 60만동포들의 불같은 마음을 담은 그이께 드릴 편지들과 《충성의 기》를 넘겨받으면서 수천리길을 달려온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은 3월 19일 제163차귀국선《만경봉》호 편으로 청진에 도착하여 10여만 청진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4월 2일 평양을 향하여 떠났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60명의 남녀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은 40리연도에서 평양시내 20여만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4월 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민족최대의 경사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와 일본 각 현들에서 편지전달이어달리기를 통하여 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심이 담긴 편지를 경애하는 수령님께 올리는 전달식이 4월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달식장인 모란봉경기장은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하나의 커다란 꽃밭을 이루었다.

온 장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들끓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60만재일동포들의 충성어린 편지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리계백동지가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드리였으며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조선인민경비대원들, 사회안전원들, 각 도(직할시)내 당원들과 인민들의 충성어린 편지를 각 도(직할시)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이 드리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 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청소년학생들속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배움의 천리길>이어달리기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흠모의 정을 안고 경기대회에 참가한 1천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은 4월 5일 유서깊은 혁명사적지 포평을 떠나 원수님께서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큰뜻을 품으시고 홀몸으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을 따라 씩씩하게 달려 4월 10일 오후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열렬한 연도환영

을 받으며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와닿았다.

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을 따라 열린 경기대회를 통하여 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고 배우며 자라는 긍지와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떨치려는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약동하는 전투적기백과 슬기롭고 용감한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수령님께 드리는 대서사시적화폭

집단체조《혁명의 태양이 솟은 만경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는 집단체조《혁명의 태양이 솟은 만경대》가 4월 16일 붉은기 만경대혁명학원 운동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아— 인민의 태양이 솟았네
인민의 태양이 솟았네
4월 보름날 만경대에서
붉게붉게 솟아오른 인민의 태양
…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하세요
충성의 마음담아 인사드려요

집단체조의 서곡이 대합창으로 울려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옷차림을 한 수백명 어린이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달려나와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60성상, 오직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과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마음을 춤과 체육률동에 담아 펼쳐보이면서 영명하신 수령님께 커다란 꽃바구니를 드렸다.

집단체조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처음 집단체조의 체조수들은 혁명일가의 뜨거운 숨결이 스며있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만경대고향집에서 혁명의 태양이 솟아오른데 대하여 률동과 조형으로 그려보였다.

체조수들은 수령님께서 왜놈들을 치는 군사놀이를 하시던 군함바위와 강의한 의지를 키우시던 씨름터 등을 보여주는 률동으로 어리신 수령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워나가신데 대하여 그려보였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고 광림산맥의 험준한 산령을 넘으시며 배움의 천리길, 눈보라를 헤쳐나오신 수령님께서 조국의 가슴아픈 현실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일제를 물리치고 억눌려 사는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안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였음을 보여주는 《배움, 천리길》이라고 새긴 글자조형과 어린 시절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일제놈들의 략탈을 반대하여 돌무지를 쌓아놓고 싸우시던 사실을 보여주는 돌무지조형, 그리고 수령님께서 일제통치시기 망국의 비운이 서린 조국과 민족의 원한을 품으시고 압록강 포평나루터를 건느시던 때를 회상시키는 장면을 그려보였다.

위대한 아버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새벽길을 따라 위대한 어머님께서 안겨주신 조국광복의 높은 뜻을 안고 열다섯살의 어리신 몸으로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 수령님,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활동을 개시하시여 광범한 애국적청소년들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으며 백두령봉에 항일의 홰불을 올리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천만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출연자들은 폭넓게 형상하였다.

붉은 기발을 두손에 든 남녀학생들이 기발체조를 하며 《조선혁명》, 《ㅌ. ㄷ》, 《새날》의 글자조형을 새기고 기발을 힘있게 펄럭이면서 수령님께서 공청의 조직과 공청의 장성강화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해오신 빛나는 업적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조형을 그리였다.

운동장에 조선혁명의 힘찬 전진을 상징하는 큰 봉화가 펼쳐지자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안도의 밀림을 뒤흔들며 력사의 행군을 개시한 첫 의대오, 항일유격대가 힘찬 발구름소리를 울리며 보무당당히 들어섰다.

유격대복장차림을 한 남녀학생들이 항일유격대창건을 형상한 오각별조형과 100만 관동군을 무찌른 항일유격대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총체조를 하였으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에 발맞추어 생동한 춤과 률동으로 유격근거지내 인민들의 투쟁과 행복한 생활과 조국광복회창건을 보여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이끄시며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혁명로정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붉은기체조대형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에로의 진군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형상한 조형으로 운동장을 장식하였다.

체조수들은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력사의 그날을 회상시키며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신 수령님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세우신데 대하여 보여주는 여러가지 조형들을 그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만세!》

출연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오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이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3대기술혁명과업을 다그쳐 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 수령님의 강령적교시관철에 떨쳐나선 만경대구역내 주민들의 줄기찬 투쟁모습에 대하여서도 사다리체조와 조형으로보여주었다.

또한 의지를 단련하며 강한 체력을 키워가는 청소년학생들의 모습, 수령님의 손길따라 싸우는 남녘땅형제들의 투쟁, 혁명가유자녀들이 원수님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로, 민족간부의 골간으로 튼튼히 준비되여가고있는 자기들의 전투훈련장면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찬란한 무지개를 배경으로 공화국기를 펼쳐든 체조대렬 한복판에 수령님의 초상기를 옹위한 탑이 세워졌다.

집단체조의 종막을 장식한 청소년학생들은 운동장에 달려나와 수령님을 우러러 발을 구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 만세!》를 부르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수령님을 받들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영원토록 꽃피워갈 충성의 맹세를 다졌다.

인민상계관작품인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4월 26일 모란봉경기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여 인민상 계관작품인 대집단체조《로동당의 기치따라》가 진행되였다.

평양시내 중학교와 인민학교학생 7만여명이 출연한 이 집단체조는 60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시면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집대성하였다.

배경대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마루에 삼천리 조국땅을 굽어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지고 운동장한가운데 커다란 꽃바구니조형이 이루어졌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마흔돐을 맞이하여 우리 당 혁명무력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수령님께 올리는 충성의 꽃바구니!

이 꽃바구니에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성다하려는 60만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심정도 담겨져있었다.

수령님께 드리는 인민들의 이와 같은 경모의 정을 담아 배경대에는 《전체인민은 충성의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만세!》라는 글발이 련이어 새겨지고 꽃바구니춤대렬은 끝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집단체조는 1장에서 5장까지를 포괄하는 전반부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길을 년대기적으로 펼쳐보였다.

배경대에 유서깊은 만경대의 전경이 펼쳐지고 1장 《인민의 태양이 솟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가 시작되였다. 어린이들이 수령님께서 어리실 때부터 애국의 뜻을 키워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데 대하여 체육유희와 조립조형으로 보여주었다.

그이께서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애국의 뜻을 높이 키우신 만경대의 군함바위, 썰매바위 등 유서깊은 사적지를 찾아온 어린이들이 원수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배우는 여러가지 유희를 벌렸다.

수령님께서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열두살의 어리신 나이에 홀몸으로 팔도구로부터 만경대까지 걸어나오신 배움의 천리길을 펼쳐보이던 집단체조는 운동장에 《독립》이란 글자조형을 만들었다.

배경대에 《조선혁명 만세!》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전진가》의 장쾌한 선률에 맞추어 붉은기를 든 남학생들이 운동장을 메웠다.

2장 《조선혁명 만세》는 바로 항일혁명투쟁에 바쳐진 영웅서사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 입으셨던 그 교복차림을 하고 씩씩한 기발체조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형상하던 체조대렬은 《맑스-레닌주의보급》, 《주체의 창시》라는 글자조형을 만들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기에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1932년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개시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배경대에 모셔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개시, 이것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위대한 사변이였다.

배경대에 《유격근거지창설》, 《제반민주개혁실시》,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실현》 이란 글발이 차례로 나타나며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도 유격근거지내 어린이들과 혁명가유자녀들의 학습과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신데 대하여, 《조국광복회》두리에 모든 반일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시고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억눌렸던 조선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승리에 대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혁명의 사령부를 옹호보위하는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에 대하여 체조수들의 여러가지 조형과 동작으로 보여주었다.

3장 《새 민주조선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에서 체조대렬은 수령님께서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불패의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신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며 우리 당의 표식과 오각별을 새겼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의 기쁨과 앙양된 정치적열의를 생동하게 전하였다.

4장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하였다.

창격전과 불타는 탁동강도하전투,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진지방어전 등 수령님의 천재적전략전술과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하였다. 창격전과 불타는 탁동강도하전투,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진지방어전 등 수령님의 천재적전략전술과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기개를 형상한 조형들, 총체조, 고지에서 원쑤들을 물리치고 인민군전투원들이 《만세!》를 웨치는 조형들이 펼쳐졌다. 만세의 함성이 높아가는데 배경대에는 패배자 미제의 추악한 몰골과 인민군대가 거둔 전과들이 나타나며 《원수님께서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라는 격동적인 글발이 새겨졌다.

우리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승리하였다.

5장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는 수령님께서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자력갱생행진곡》에 맞추어 체조대렬이 여러개의 종대를 지어 씩씩하게 행진하면서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힘있게 불렀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일주일만에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한그루 백양나무밑 무너진 벽체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로동자들에게 전후복구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는 경애

하는 수령님의 영상이 배경대에 모셔졌다.

출연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 펼쳐나선 투쟁모습을 도수체조와 조형조립으로 보여주었다.

6장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오늘 우리 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거두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이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졌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거둔 가장 커다란 승리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인민의 완전한 사상의지의 통일을 과시하며 《당의 유일사상》이라는 글자조형과 수령님의 초상기를 모신 탑조형이 새겨졌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이룩된 또하나의 위대한 승리인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이 이룩된 사실을 높은 기교의 판체조로써 보여주었다.

7장 《아버지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누리는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배경대와 귀여운 어린이들의 체조와 재롱스러운 춤동작으로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모습과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 《10년제의무교육실시에로!》, 《체육의 전민화》 등 글발과 그림들이 배경대에 나타나고 어린이들의 뜀줄운동과 조형, 예술체조들이 펼쳐졌다.

8장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배경대의 한가운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라고 쓴 책표제의 글발을 중심으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는 남조선혁명가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여러개의 묶음조형을 만들고 공화국기들을 펼쳐보이면서 체조대형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체조대형은 여러개의 종대대형을 짓고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모습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60만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배경대 중심에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지고 눈부신 빛발이 해살처럼 퍼져나갔다.

《조국통일 만세!》, 《조선혁명 만세!》, 《반제반미공동전선 만세!》라는 글발이 배경대에 펼쳐지면서 집단체조 9장이 시작되였다.

9장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과 반제반미공동전선을 강화함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쳐부시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차게 구가하였다.

10장에서 체조수들은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형상하였다.

집단체조 종막에서 체조수들은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나고 그 붉은 태양의 빛발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 모습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초상기를 높이 든 조형대가 꽃탑을 이루고 그를 중심으로 체조수들이 겹겹이 늘어선 정경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이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지니고있는데 대하여 보여주었다.

배경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라고 쓴 글발이 힘있게 펼쳐지자 운동장에서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대합창이 장중하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주체의 빛발로 이 땅우에 밝은 세상의 새아침을 밝혀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혁명의 붉은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되새기며 그이를 우러르는 집단체조 출연자들, 그들이 감격에 겨워 우렁차게 부르는 노래소리는 만세의 환호성으로 바뀌였다.

이와 같이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신 조선혁명의 길, 주체의 길을 따라 혁명전통의 뿌리를 억세게 이어온 우리 혁명의 힘찬 진군로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서사시이며 청소년들이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였다.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는 정치사상적내용이 풍부하고 전투적이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웅장할뿐아니라 예술적인 체육기교, 규률성과 정확성, 우수한 배경대의 미술적조화가 잘 결합되였다. 그리하여 군중체육을 발전시키고 지난날에 이름이 높았던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경축 전국체육축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전국체육축전이 1972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전국중학생 및 대학생 지역별예선경기대회들에서 뽑힌 남녀선수들과 체육선수단 남녀선수들 5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체육축전에서는 국방체육, 군중체육, 민족경기 등 20여종목의 경기들이 중학교, 대학, 체육선수단 별로 진행되였다.

체육축전에서 우리 청소년학생들과 체육인들은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그이의 위대한 혁명위업을 대대로 이어나갈 조선의 열렬한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날 자기들의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불패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또한 그들은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불굴의 투지,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많은 종목에서 새 기술, 새 기록을 창조함으로써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체육축전은 학교체육사업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체육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전도유망한 체육인후비들이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전국체육축전에서는 체육선수단들이 참가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도 진행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체육선수단 선수들은 체육훈련에서 일상적으로 련마해 온 자기들의 높은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무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경축 예술소조 종합공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직총중앙위원회와 녀맹중앙위원회, 사로청중앙위원회, 민족보위성이 마련한 예술소조종합공연들이 평양시내 각 극장들에서 4월 15일을 전후하여 련일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로동자예술소조종합공연 (1972년 4월 23일),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 (4월 14일), 조선인민군 군인가족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4월 1일), 평양지구군인가족녀맹예술소조공연(4월 7일), 전국대학생예술축전종합공연(4월 20일),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종합공연 (4월 16일)들을 보시였다.

또한 김성애동지께서 공연을 보시였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던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일행이 함께 공연을 보았다.

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공연에 출연한 예술소조원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과 평양지구 군인가족녀맹예술소조원들에게는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5월 9일에 조선인민군예술소조종합공연도 보시고 공연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연들은 일찌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갖 풍파를 몸소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송가인 합창《위대하여라 우리 수령,인민의 태양》,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께 초병들은 명절인사를 드리옵니다》 합창과 무용《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대학생들의 충성의 노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들로 막을 열었다.

공연들에서는 온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며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혁명의 튼튼한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인 만경대와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노래한 작품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또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로동자들과 녀성들, 청소년학생들과 군인들의 보람찬 생활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로동자예술소조에서는 노래이야기《길이 전하라 만경대갈림길이여》, 가무이야기《남산의 푸른 소나무》, 무용《수령님 사랑속에 비단폭포 쏟아집니다》, 시와 노래《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일만호》, 노래와 춤《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인민군예술소조에서는 군무《북대정자에 울린 조국진군의 나팔소리》, 가무《강반석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중창《삼지연의 메아리》,노래춤이야기《우리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작품들을 공연하였다.

녀맹예술소조에서는 군무《위대한 어머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민족기악병창《광복의 천리길》을,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목금독주 《조선의 어머니》, 중창《우리는 수령님의 행복한 아들딸들》을 비롯한 수많은 종목의 예술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한편 평양지구 군인가족녀맹예술소조에서는 가무 《삼지연 련못가에서》, 손풍금병창 《수령님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시극《4월의 축포》를, 대학생예술축전종합공연 출연자들은 기악중주《만경대에 드리는 노래》, 음악극《진명학교의 종소리》, 노래와 춤《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겠습니다》를,학생소년예술축전종합공연출연자들은 무용《만경대에 충성의 꽃을 피워요》, 기악중주《아, 수령님품이여!》, 노래와 춤《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비롯한 다채로운 예술작품들을 공연하였다.

이러한 모든 공연종목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끓어넘치는 충성심, 위대한 태양이 솟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공연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절찬을 받았다.

공연들에 출연한 예술소조원들과 전체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계속 울리면서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경축 전국예술축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1972년에 전문예술인들이 참가한 전국연극축전(1월 5~26일)과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1월 12일~2월초), 전국녀맹예술소조축전(2월 20일~3월중순), 조선인민군 제15차군무자예술경연(1월), 전국대학생예술축전(2월 14~25일),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1월 18일~2월 7일)이 진행되였다.

천리마국립연극극장과 모란봉극장, 사회안전성연극극장에서 진행된 전국연극축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10여개연극단 예술인들이 참가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각 도(직할시)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에는 각 도(직할시)농업근로자예술소조단체가, 전국 녀맹예술소조축전에는 10여개의 각 도(직할시)녀맹종합예술소조 소조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된 전국대학생예술축전에는 대학을 단위로하여 시, 군(구역)과 도(직할시) 경연에서 뽑힌 대학생들로 무어진 도(직할시)종

합예술소조들이,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는 시, 군(구역)과 도(직할시)경연에서 뽑힌 인민학교, 중학교와 혁명학원, 중등학원의 소년단, 사로청원들로 무어진 11개도(직할시)학생소년종합예술소조들이 참가하였다.

축전무대에는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작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수한 예술작품들이 올랐다.

이 가운데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여 지난날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그린 작품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축전무대에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반영한 작품들 그리고 당 제5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며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수령님탄생 예순돐 기념일전으로 앞당겨 끝내기 위해 눈부신 투쟁을 벌린 각지 근로자들의 영웅적로력투쟁과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그린 작품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이 올랐다.

전국연극축전무대에서는《충성의 한길에서》(강계연극단), 《한 변호사가 찾은 길》(원산연극단), 《5호대지》(혜산연극단), 《첫 땅크병들》(조선인민군붉은기연극단), 《새 땅의 력사》(천리마신의주연극단) 《충성의 길》(청진연극단), 《지하의 해바라기》(천리마남포연극단), 《해빛 찬란한 길》(사리원연극단) 등 연극작품들과 《금골의 노래》(천리마함흥연극단), 《100리청춘과원》(천리마해주연극단), 《사천강반에 깃든 새 력사》 등 장막서사시극들이 공연되였다.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 축전무대에는 2중창《수령님 손길아래 꽃피는 우리 마을》(평북도), 노래와 춤《참나물에 깃든 뜨거운 어버이사랑》(량강도), 노래이야기《포연을 뚫고 해발은 비쳐옵니다》(함남도), 시와 노래《청산리와 함께 영원할 위대한 어버이사랑》, 군무《김일성장군님 만수무강축원합니다》(함북도), 남성중창《수령님 은덕으로 수도화, 뻬스화, 텔레비존화되였네》(황남도), 무용《봄뽕배추에 깃든 이야기》(평양시), 노래와 춤《분수식발판수로 두벌농사 풍년들었소》(황북도), 음악스케치《첫 수도물이 나오는 날》(자강도)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올랐다.

전국녀맹예술소조축전무대에서는 가무이야기《붉게 피는 백산부녀회》(평남도), 노래이야기《행복의 수도가에서》(평북도), 노래이야기《어항도시의 밤은 깊어가도》(함남도), 대화시《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갑니다》(강원도), 시랑송《강반석어머님처럼 한평생을 살렵니다》(함북도), 풍금과 노래《자장가에 깃든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평양시)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올랐다.

합창서사시《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로 막을 연 조선인민군 제15차군무자예술경연무대에서는 음악극《장군님을 기다리는 마음》, 녀성중창《압록강에 남기신 장군님맹세》, 경음악《수령님 다녀가신 갑판우에서》, 노래이야기 《조국진군의 길에서 맞은 장군님탄생일》 등 여러종목의 예술작품들이 공연되였다.

전국대학생예술축전에는 음악극《장군님께서 지켜주신 포화속의 배움터》(청진사범대학), 3중창《만경대를 노래하네》(평남석탄공업대학), 시와 중창《〈무림의원〉의 약값》(신의주의학대학), 음악극《진명학교의 종소리》(사리원교원대학), 음악극《〈지원〉의 높은 뜻 받들어갑니다》(함흥약학대학), 시극 《전선에서 전선으로!》, 중창과 무용《그 저녁을 언제나 잊지않아요》(천리마대학의 영예를 지닌 김일성종합대학), 경음악《구름속으로 사라진 빨찌산마차》(김책공업대학), 노래이야기《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삼지연이여 길이 전하라》(천리마원산농업대학)등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무대에서는 노래이야기《원수님께서 지펴주신 사랑의 불씨》, 남성중창《장군님은 교과서를 써 주시였네》(평남도), 노래이야기《원수님 사랑싣고 통학렬차달려요》(량강도), 가무이야기《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을 금강산아 전하라》(강원도), 체육무용《원수님 말씀지켜 무전기술 배워요》(함남도), 《무송의 깊은 밤에 적으신 〈새날〉신문》(함북도), 기악과 노래《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악기를 타며》(개성시), 음악극《사랑의 해발이 비쳐갑니다》(평양시), 민족기악중주《4월의 명절》(평북도), 가야금합주와 병창《영원히 빛나라 포평나루터》(자강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예술작품들이 공연되였다.

이러한 축전무대를 통하여 우리의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은 혁명발전의 매시기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며 창작과 생활을 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혁명적문예사상과 그의 구현인 우리 당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작품

197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창작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설부문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을 조직하고 집체적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 《불멸의 력사》(1932년), 《력사의 새벽길》(상)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설작품을 내놓았다.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에서 1923년초부터 1925년초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있다. 이 시기에 원수님께서는 12살의 나어리신 몸으로 8도구에서 만경대에 이르는 험한 천리길을 혼자 걸어나오시여 칠골외가에서 창덕학교를 다니시다가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또다시 체포되시였다는 기별을 받으시고 다시 만경대를 떠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포평나루를 건

느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배움의 천리길과 창덕학교시기의 생활은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소설은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탐구의 시기를 반영하고있다.

소설은 당시 원수님께서 체험하신 생활과 사건들을 년대기적로정에 따라 절을 배렬하면서 그 매개 절들을 생활체험의 진실한 예술적화폭이 되도록 하였다.

장편소설《불멸의 력사》(1932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1932년을 이야기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1932년 4월 25일,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을 이룩하시였다. 1932년 여름 수령님께서는 두만강연안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근거지내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시였다.

소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에서 이처럼 큰 의의를 가지는 무장투쟁의 시기를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과 사적에 맞게 혁명투쟁에서 체험하신 특징적인 사실들을 력사적순차에 따라 배렬하고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화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하는데 바쳐진 서사시적화폭이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가운데서 조선국민회창건 전후시기의 암담한 시대상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진정한 조선혁명력사의 새벽길을 열어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혁명가적풍모를 사상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소설의 첫째단락에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실태를 깊이 분석하시고 《지원》의 사상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방략을 탐구제시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있으며 둘째단락에서는 새로운 전국적인 반일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과 그에 기초한 조선국민회결성과정이 포괄되여있다.

소설은 셋째단락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령도하시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시는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마지막단락에서는 선생님의 옥중투쟁과 조선민족해방운동을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시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집체작)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머리시, 4장, 맺음시로 되여있는 이 서사시는 하늘땅이 다하도록 노래불러도 다할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억천만년의 세월과 천추만대를 두고 노래불러도 다할수 없는 수령님의 60년간의 영광의 력사를 끓어넘치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노래불렀다.

시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그이께 드리는 시집《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를 마련하였다.

헌시《어버이수령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를 비롯하여 70여편의 시들로 묶어진 시집에는 수령님에 대한 크나큰 신뢰와 충성의 열정이 차넘치고있었다.

문예리론분야에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연구》라는 리론론문집을 마련하였다.

음악부문에서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형상한 어린이노래집《만경대》와 김일성원수님의 항일무장투쟁시기 이야기를 형상한 어린이노래집《백두산》을 묶어 내놓았으며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실 도록 해설가요집》과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해설가요집》을 내놓아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미술부문에서는 미술가들의 집체창작으로 유화작품들인《천리마동상 초안을 보시는 어버이수령님》, 《만경대생가앞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창작가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조선화《무대예술인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자수《삼지연》등을 창작하였다.

연극부문에서는 혁명연극《위대한 전환》(천리마국립연극극장 만경대창작단 창조)과 혁명연극《생명선》(조선인민군 붉은기연극극장 창조집단창조), 혁명연극《위대한 어머니》(인민상계관작품 혁명연극《우리의 어머니》의 제2부, 사회안전성연극극장 창조집단 창조) 등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계를 형상한 혁명연극들을 창조하여 무대에 올렸다.

혁명연극《생명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때로부터 소왕청방어전투까지에 이르는 기간의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하고있다.

기록영화부문에서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장편기록영화들인《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노래한다》, 《위대한 전변에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주체의 빛발은 온누리에 비친다》를 마련하였다.

기록영화《주체의 빛발은 온누리에 비친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전세계인민들속에서 대해의 물결처럼 파급되고있는 사실들중에서 그 일부를 수록한것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편집한것이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에서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천연색광폭예술영화《꽃파는 처녀》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 영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 오가자에서 창작하시고 공연을 지도하신 혁명적작품《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각색한 것이다.

혁명적작품《꽃파는 처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혁명적작품《꽃파는 처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비운이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가난한 고용농의 딸인 꽃분이와 순희, 그의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그러한 고통과 불행을 다만 한 가정의 고통과 불행으로서가 아니라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그것을 당시 조선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으로 일반화하였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는길은 오직 혁명의 길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영화《꽃파는 처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손색없이 각색한 모든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근로자들의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크게 이바지하며 그들로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게함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

우리의 예술인들은 우리 나라 가극전통의 깊은 뿌리를 이루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피바다》의 빛나는 본보기에 기초하여 불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를 보여주는 인민상계관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만들어냈으며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또다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을 보여주는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를 혁명적대작으로 창조해냈다.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탁월한 미학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우리 혁명가극의 시대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재부이다. 가극은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높은 예술성을 가진 인민적형식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기념 영화상영월간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과시하는 영화상영월간이 4월 1일~30일까지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기간 전국 각지의 영화관들과 문화회관들, 구락부, 이동영사대들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주체의 빛발은 온 누리에 비친다》와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보여주는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하여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만경대》, 《공업화의 길에서》, 《과수의 나라》 등 기록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 오가자에서 친히 창작하시고 직접 조직지도하시여 공연하였던 혁명적작품《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천연색광폭예술영화《꽃파는 처녀》와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그대로 옮긴 광폭예술영화《피바다》(1, 2부), 《한자위단원의 운명》, 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예술영화《마을사람들속에서》, 《유격대의 오형제》(1, 2, 3부)등이 상영되였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이 어떻게 빛나게 실현되고있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민상계관작품들인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전, 후편)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보여주는 《사과딸때》, 《세상에 부럼없어라》,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등이 상영되였다.

또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이 발휘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보여주는 예술영화《전사의 맹세》(1,2부),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화선에서 부르던 노래》를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정찰병들의 적후투쟁모습을 형상한 《목란꽃》등이 상영되였다.

예술영화《성장의 길에서》(1, 2부)를 비롯한 남반부인민들의 애국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작품들과 재일조선공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반영한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를 비롯하여 그외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전국각지에서 상영되였다.

영화상영월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과시하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 선전하기 위한 전국사회과학자대회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전국사회과학자대회가 1972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가장 뜻깊은 경사의 날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온 나라가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끓어넘치고있는 환경속에 열리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과학교육기관에서 일하고있는 사회과학자들, 사상리론선전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원쑤들과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애국적 과학자,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남조선사회과학자 대표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끓어넘치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온 수령님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로작들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기자들이 또한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전체 인민과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 벗들과 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이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이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개회사가 있었다.

개회사에서는 우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 오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사회과학자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확고히 이끌어주고계시는 우리 사회과

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대회참가자들과 우리 나라 전체 사회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주체사상을 진수로하는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를 창시하시여 인류사상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개회사에서는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혁명적기치로 필승불패의 무기로 되고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연구하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과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하여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회과학으로 발전할수 있었으며 맑스-레닌주의사회과학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적과학자, 지식인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축기를 남조선사회과학자대표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대회집행부에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인과학자들의 끝없는 경모의 정과 다함없는 충성심을 담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명의로 어버이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축기를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성원들이 대회집행부에 전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의 보고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과학교육기관에서 일하고있는 사회과학자들, 사상리론선전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가 인류사상 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철저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체현하고계시며 풍부하고 고귀한 혁명투쟁경험과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겸비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와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우리 시대의 전일적인 맑스-레닌주의적사상리론체계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당건설에서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당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의 기본사명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가 못높이는가하는 문제로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에 관한 사상이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는것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에 관한 사상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혁명전통이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 혁명적재부로 된다는 사상과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에 관한 사상 그리고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혁명전통에 관한 전일적인 사상과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새 분야가 개척되였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계승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명시하신 혁명과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이 우리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더 한층 발전시키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이께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사상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 사상은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가장 옳바른 과학리론적해답을 준 위대한 사상으로서 이사상의 빛발아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가 마련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리론이 사회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라는것을 론증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리론 그리고 주체적인 문예사상, 민족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의 독창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계속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사상,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관한 리론 그리고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탁월한 사상, 민족어에 관한 사상,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등은 맑스-레닌주의를 일층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발전에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과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사상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에 관한 사상,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 그리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관한 고전적정식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진행과정에 남조선사회과학자대

표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과 애국적과학자, 지식인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그들의 혁명적결의를 안고 용약 사선을 넘어 충성의 대회장으로 달려온 남조선대표를 대회참가자들은 열렬히 환영하였다.

남조선사회과학자대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리론과 방침에 따라 혁명을 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사회과학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전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몸과 마음 다바쳐 광범한 민중속에 그를 널리 그리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는 혁명의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남조선의 애국적과학자, 지식인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피력한 그의 연설은 대회참가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대회에서는 또한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말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인 사회과학자들의 끝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전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전국사회과학자대회를 축하하여 대회앞으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총련산하 단일단체 및 사회단체들에서와 국내의 많은 과학, 교육, 문화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보내온 축전, 축하문들이 소개되였다.

이어 전국사회과학자대회를 축하하는 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소년단축하단은 온 장내가 감격과 흥분으로 끓어넘치는가운데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드리는 소년단축하문을 랑독하였다.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사회과학을 발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과학자들의 충성의 마음에 소년단원들의 붉은 마음을 함께 담아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대회진행과정에서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로작들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 무한한 흠모와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론증하였다. 그들의 연설은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0일 폐막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과학을 맑스-레닌주의사회과학의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과 육친적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며 우리 사회과학자들을 당의 사상리론선전의 영예로운 초병으로 키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사회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대회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맹세문이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 과학자,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재일조선인 과학자,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 지식인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작성채택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인민들의 붉은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랑독하였다.

대회는 또한 조선과 일본 사회과학자들 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일본사회과학자대표단의 제의를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적극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과학리론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그이께 충성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성과있게 수행하고 끝마쳤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이며 그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가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고부동한 승리에로 이끌수있다는것을 리론실천적으로 뚜렷이 증시하였다.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또한 맑스-레닌주의사회과학을 새롭게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킨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나라 사회과학의 빛나는 발전을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우리 사회과학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그 발전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며 일편단심 그이를 받들어 싸워나갈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들과 인테리들의 혁명적열의로 충만된 충성의 대회였다.

실로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한 영광의 대회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우리의 붉은 사회과학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대회로 우리 나라 사회과학의 발전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과학토론회 광범히 진행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는 과학토론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전국당간부양성기관과학토론회: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전국당간부양성기관과학토론회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과학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철학의 창시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창시자이시다》를 포함한 9건의 리론론문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 간부양성기관 교직원, 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를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당간부양성기관 교직원,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육친적인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서술한 9건의 토론론문이 발표되였다.

전국녀성과학토론회: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전국녀성과학토론회가 녀맹중앙위원회 주최로 4월 22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과학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은 녀성해방리론의 창시자이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녀성혁명화에 대한 독창적방침》등 여러건의 토론론문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천재적인 문예사상연구학술토론회: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면서 영화부문에서는 그이의 주체적이며 천재적인 문예사상을 연구하는 학술토론회를 가지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천재적문예사상과 그의 빛나는 생활력》, 《생활을 진실하고 다양하게 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미학사상과 그 거대한 생활력》,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에서 갈등을 옳게 해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문예사상과 거대한 생활력》이란 제목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전국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과학토론회: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기자동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과학토론회가 4월 11일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 사상선전의 믿음직한 초병들인 기자, 편집원들이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강령적지침으로 삼아야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들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여러편의 토론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은 물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조선혁명의 수령이실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수령이 갖추어야 할 사상리론적재능과 혁명실천의 경험, 고매한 덕성과 령도예술을 모두 겸비하고계심으로 하여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충성다할것을 맹세하였다.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남녘형제들은 원쑤들의 삼엄한 탄압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축

온 겨레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그이를 우러러 밝아오는 래일에 희망을 걸고 사는 남녘 형제들은 원쑤들의 삼엄한 탄압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축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유일한 향도적력량인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그이께 삼가 드리는 헌시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여!
온 남녘이 수령님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남녘인민의 미더운 얼굴들이
락원을 안고 세계의 하늘에
노을처럼 일어설 그날을 위하여
수령님의 만수무강 삼가 축원하옵니다!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께서 계시는 북녘을 바라보면서 직접 그이를 뵈옵고 축하못드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자기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대신해줄것을 바랬다. 바로 헌시는 남조선인민들의 그와 같은 심정을 담은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수령님께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축하문과 정성어린 선물들을 드리기 위해 힘을 다함과 함께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그것을 인민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군중들에게 배워주었다.

남조선 강원도 춘천지구의 《김일성수상님주체사상 녀성연구회》에 망라된 성원들은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4월 15일까지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과 《조선의 어머니》를 연구하고 완전히 통달할것을 한결같이 결의하고 그것을 열심히 읽고 통달하였다.

서울시 어느한 지구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은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찬란한 혁명업적과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하고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4.15명칭 비합법소조를 결성하였다.

서울의 한 애국주민은 수령님의 영상을 가슴속에 지닌 많은 동료들과 친지들의 환희와 축복을 담아 《4월 15일 위대한 태양은 솟아올랐다》라고 쓴 삐라를 시내 큰거리에 수많이 뿌려 시민들을 숭엄하고 경건한 마음과 민족적 긍지에 한층 휩싸이게 하였다.

남조선의 한 청년혁명가는 수령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 《수령님 만수무강하옵소서》의 가사를 쓰고 작곡하였다.

그는 이 충성의 노래를 짓기 위하여 남몰래 공화국북반부에서 부르는 노래들과 악보들을 손에 넣어 연구하였다.

이 노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넘쳐흐르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자신들이 충성의 표시로서 부를뿐더러 동료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배워주었다.

서울의 윤아무개지식인은 동료들이 모인 곳에서 그가 평양방송을 들어 힘을 얻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하면서 모두 따라부르게 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가난에 쪼들리고있는 김아무개주민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장의 고동이 높뛰는 자기의 가슴을 두팔로 안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광주시내 어느곳에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손아무개를 비롯한 수명의 청년들이 모이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우면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못했다.

이들은 《평양방송》을 통해 수령님을 노래한 가요들을 록음해두고 배웠는데 4.15전으로 충성의 노래 《수령님의 만수무강축원합니다》를 배웠으며 노래를 보급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달리던 뻐스

안에서도 운전수와 승객들의 합창으로 소리높이 불리워 오가는 길손들로 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경상북도의 한 공장로동자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첫머리에 정중히 편집한 《새노래집》 여러권을 만들어 로동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노래를 보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며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여 《김일성장군님 만세!》,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려는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부산의 김아무개기자는 대구의 상점로동자 김아무개녀성이 파쑈악당들에게 체포되여간 자리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면서 《김일성장군님 만세!》 3창을 결연히 웨쳤으며 충청북도의 심아무개주민이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 높이 불러 많은 사람들을 격동케 한 사실은 그의 한두가지 실례이다.

서울시내 로동자들의 한 모임에서 최아무개로동자는 《존귀하신 김일성수상님의 영상을 가슴마다에 모시고 희망에 넘쳐 살아가는 우리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으며 역시 이 시내 안아무개라는 사무원은 《김일성수상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사는것을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평남의 한 농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김일성수상님은 진정 우리 남녘 농민들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경모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자기들을 대신하여 축하를 드릴 대표를 그이께서 계시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 보냈다. 통일혁명당 서울, 평남, 호남 지역대표들은 전체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직접 전할 일념으로 총검의 숲을 헤치고 사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 왔다.

대표들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통일혁명당조직들이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과 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성어린 귀중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

선물들은 수령님 탄생 예순돐 선물진렬실에 전시되여 있다.

그가운데는 금빛구슬로 에워싸인 비단천의 붉은 바탕웃부분에 수령님의 초상을 정중히 모시고 그아래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면서 필승의 신념을 가다듬고 투쟁에 나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각계각층 군중의 틀튼한 모습을 수놓은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보내온 커다란 축기가 있다.

축기의 뒤면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통일혁명당산하의 모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 애국적인민들이 끝없는 경모의 정과 충성심을 한데 모아 드리는 축하문이 금실로 수놓아져있다. 축하문은 수령님께서 그 류례를 모르는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쌓아 올리신데 대해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우리 남반부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길이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혁명가는 폭과 길이가 각각 한메터가 넘는 두겹으로된 흰 비단천에 주먹만큼씩한 글자들을 피로써 쓴 혈서를 보내여왔는데 그 혈서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심장으로 축하하며 오직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될것을 피로써 맹세합니다.

한 녀성혁명가는 조선지도에다 공화국기를 그려 공화국기치하에 남북이 통일된 그 영광의 날을 손꼽아기다리는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수놓아 만든 축하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언제나 경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원수님

암담한 비운에 처하였던 조선민족에게 휘황한 미래를 예고한 수령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순돐이 되는 경사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끝없는 충성심과 흠모의 정으로 뜨거운 축하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오매에도 그리운 어버이 수령님!

저는 한없이 따사로운 수령님의 해발을 받으면서 암흑의 땅에서 자라나는 한송이의 해바라기입니다.

조선인민이 다같이 수령님의 품속에 안기는 그날을 위해서 오직 충직한 전사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선인민과 온 세계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우리의 수령 김일성원수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령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린 충성의 선물에서 남조선의 한 혁명가는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기상을 소박한 휜무명수예품에 그대로 옮겨놓고있다.

흰무명천에 흰실로 수놓은 등대가있고 등대에서는 주체의 빛발이 넓은 바다를 휘황히 비치고있다. 이 빛을 향하여 저 멀리에서 배 한척이 힘있게 노를 저어오고있다.

이 수는 남조선의 한 혁명가(남자)가 놓은것으로서 비록 서툴기는 하나 그가 얼마나 심열을 기울였는가 하는것을 력력히 찾아볼수 있다.

만리창파에 찬란한 주체의 빛을 뿌리는 희망의 등대, 주체의 등대를 향해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성취를 위하여 사나운 파도를 헤가르며 곧바르게 노를 저어오고있는 혁명가들을 형상한 이 수예품에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수령님을 우러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그들의 혁명적기백이 넘쳐흐르고있다.

남조선의 한 혁명부부는 혁명조직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여러 도시의 상점을 샅샅이 찾아 수천수만의 발결음을 옮기면서 구해들인 5만개의 구슬로 흰구슬바탕에 붉은 구슬며로 된 충성의 글자를 꿰여 엮어만든 축하문을 보내왔다.

수령님만을 믿고 그이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래일의 밝은 희망을 내다보고있는 남녘땅 동포들과 혁명가들의 붉은 충성심은 그이께 선물로 보내온 한산의 모시, 금산의 인삼, 제주도의 자방나무버섯을 비롯한 갖가지 특산물들과 진귀한 채취물들에서도 뚜렷이 볼수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그 향기로움이 비길데 없고 그 약효능이 비상하여 장생불로초로 불리여지고있는 자방나무버섯을 따서 수령님께 삼가 드리려고 그의 유일한 산지인 제주도 한나산 1천메터 험한 산허리를 톱아올랐으며 산호보다도 값진 귀중품을 채취하느라고 남해의 깊은 바다속에 쉽없이 들어갔다.

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고 희귀하고 보약이 되는것이라면 우선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고 그이께 꼭 드리고 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충성심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수령님께 드린 통일혁명당 전라도조직성원들의 맹세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수령님이시여!

우리는 맹세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도 추호의 동요없이 굳센 혁명지조를 지켜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 경모하는 민중들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붉은 씨앗을 뿌려 반석같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려가겠습니다.

투쟁의 앞길에는 투옥과 교수대도 놓여있지만 불패의 혁명사상, 주체의 붉은 사상 간직하고있기에 칠전팔기의 굳센 투지로 파단한 항전을 벌려 조국통일의 새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원흉들을 족치고 만민중의 대환영속에 어버이수령님을 통일광장의 높은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이상에 렬거한것들은 선물의 일부에 지나지않는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선물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심장으로부터 축원하였으며 그이의 충직한 전사로 살아나갈것을 굳게 맹세 다지였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함과 함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결의를 굳게 다짐으로써 그이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였다.

부산의 다이야수리공장의 리아무개 로동자는 《우리도 북반부형제들과 같이 김일성수상님의 정치를 받아야 잘 살수 있다》고 하면서 《수상님을 직접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신심에 넘쳐 강조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1972년 신년사와 그리고 그이께서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 접한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통일동상이 보인다》, 《통일은 되고야 만다》라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나왔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김일성수상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남북통일의 휘황한 길을 다시 밝혀주시였다.

수상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선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문제이며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한 주민은 《김일성수상님께서 내놓으신 방안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싸워서 이길 길을 명시해준다》고 말하였다.

일터를 잃고 헤매는 서울의 한 로동자는 《우리는 들고일어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세워야만 오늘의 불행과 고통속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쓴 삐라를 미제침략자들의 《대사관》에도 뿌리고 시내 여러곳에도 뿌리였다.

서울의 한 상점 점원인 김아무개청년은《미국놈이나 일본놈들밑에서는 살수 없다. 이놈들의 앞잡이인 박정희놈은 친미파이고 친일파이다》라고 락인찍으면서 《이놈들을 몽땅 한강물속에 처넣어야 한다》라고 결연히 말하였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원인 김아무개는 7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속히 우리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군을 내쫓고 박정희<정권>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남조선애국적인민들의 한결같은 결의를 담아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드린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통일혁명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 땅의 모든 혁명가들과 민중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고 완수하는것으로써 뚜렷이 증시할것이며 이북형제들과 합심합력하여 국토통일의 민족사적대업을 촉진함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견결히 싸워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혁명적기백을 잘 말해주고있다.

수령님 만수무강하옵소서

1. 암흑천지 남녘땅에서 모대기는 인민들우에 민족영웅 4월의 태양 밝고밝은 빛을 뿌리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 충성으로 축하하옵니다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2. 미제놈과 앞잡이들의 파쑈광풍 불어치는데
   우리 앞길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네
   남녘의 땅 청년학도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3. 조국통일 달성을 위해 조선혁명완수를 위해
   주체사상 높이 받들고 목숨으로 빛내여가리
   수령님께 충성다지는 무명전사들봐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재일동포들이 여러가지 경축행사를 진행

조국과 민족을 위한 총련의 애국사업에서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사업성과로서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기 위하여 《150일간 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60만재일동포들의 충성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60만의 붉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수령님께 드리는 영예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삼가 드리옵니다

실로 재일동포들은 끝없는 환희와 감격속에서 끓어넘치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께 다함없는 영예와 축하를 드리였다.

총련은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조국동포들과 함께 경축할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조국에 보내기에 앞서 3월 24일 도꾜 조선문화회관에서 축하단 환송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자전거 달리기 총련은 수령님께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드리기 위한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자전거이어달리기를 조직진행하였다.

2월 23일 전체 동포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수령님의 초상기를 선두에 모시고 북은 홋가이도 삿뽀로와 남은 규

슈 나가사끼에서 출발한 자전거 달리기 대오는 일본 방방곡곡의 재일동포들이 정성담아 마련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와 《충성의 기》를 가슴에 안고 수천리길을 달려 3월 6일 도꾜에 도착하였다.

자전거이어달리기에는 연 2만여명에 달하는 남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앙대회가 1만 2천여명의 각계층 동포들의 참가하에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60명의 자전거달리기대표단성원들이 규슈 나가사끼와 훗가이도 삿뽀로로부터 출발하여 총련 48개 도, 도, 부, 현본부에서의 조선총련중앙학원과 조선대학교 그리고 일본전국각지의 10개조선중고급학교들에서 넘겨받아온 재일동포들의 편지와 《충성의 기》 각각 60폭을 총련 한덕수의장께 전하였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편지와 《충성의 기》를 한덕수의장이 자전거달리기대표에게 위임하였다.

대회에서는 자전거달리기대표단 단장이 재일동포들의 편지와 《충성의 기》를 소중히 간수하고 조국의 품에 안겨 어버이 수령님께 삼가 드릴데 대한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념 강연회진행 총련은 4월 6일부터 일본각지의 총련현본부마다에서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참가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강연회를 일제히 진행하였다.

6일 도꾜 조선문화회관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인민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시다》라는 제목의 중앙강연회가 진행되였다.

원수님 탄생 예순돐기념 영화 상영 월간 총련은 4월 한달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영화상영월간》으로 설정하고 《만경대》를 비롯하여 《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 기록영화들과 《피바다》, 《유격대의 오형제》, 《마을사람들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조국으로 돌아온 관오의 일가》, 《꽃피는마을》, 《사과딸때》 등의 예술영화들을 총련의 각현본부들에서 광범히 상영하였다.

재일조선과학자학술보고회

총련은 또한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재일조선과학자 학술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보고회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과학의 세개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이라는 제목에 기초하여 발표되였으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자원, 자동화, 기계화, 농촌경리, 화학, 구조물, 등 일곱개분파로 나뉘여 진행된 자연과학부문보고회에서는 76편의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으며 의학과학부문에서는 23편의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선물들

총련조직들과 재일동포들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만든 선물들을 어버이 수령님께 삼가 드리기 위하여 보내여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대형회전동판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바다를 건너》와 수령님께 한덕수의장이 드리는 헌시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가 부각되여있는 느티나무병풍 등의 선물에는 수령님을 끝없이 우러러 받드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심이 어리여있다.

너비가 8메터 26센치나 되며 높이가 1메터 83센치, 무게만도 5톤이 넘는 웅장한 대형 동판화는 3개판으로 나뉘여 회전하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총련 조직을 굳게 다지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고있는 재일동포들의 모습과 총련이 조국통일과 대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한덕수의장이 자필로 쓰고 재일조선인 예술가집단이 지성을 다하여 마련한 선물인 느티나무병풍에는 수령님의 높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60만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이 넘쳐 흐르고있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삼가 보내온 조선대학교 교직원학생들의 선물에는 천연색텔레비죤에 의한 기록영화의 화면장치가 되여있어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그이께 영원토록 충성다할 이 대학교 전체 교직원학생들의 굳은 결의가 피력되고있다.

가장 굳고 오래오래 견딜수 있는 500년의 년륜을 가진 느티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이 《서가》의 맨 우에는 《만수무강》의 네글자가 새겨져있고 그 아래에 양피가위를 씌운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교시집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붉은 비단천우에 금빛수실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라고 수놓은 글발아래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그곳에 꿋꿋이 뿌리내린 푸른 소나무 그리고 주체의 기치아래 단결된 전체 재일동포들의 힘을 상징하는 조선회관을 그리고 그 두리로 60송이의 진달래꽃을 붉게 수놓은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축기에는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축기의 뒤면 축하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인류의 영재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일본의 모든 곳에 있는 총련조직들과 단일단체들에서 보내온 축기들에는 《한바늘수놓기 운동》에 참가하여 한오리 한오리 정성들여 새겨간 전체 동포녀성들의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반영되여있다.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념원하는 60만의 충성의 붉은 마음은 3만 6천송이나되는 꽃을 정성껏 말리여 그것으로 3천리금수강산의 조선지도를 아름답게 무늬놓고 그우에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유난히 빛나는 새별을 붉은 꽃으로 부각하여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과 그이의 만수무강을 열렬히 축원하는 축하문을 마련한 조청원들의 선물에도 그대로 깃들어있으며 일본에서 아직 그렇게 큰것을 만들어본적이 없다는 대형 2중전광사진 《만경대》를 통하여 유서깊은 만경대의 고향집과 그곳으로 쉬임없이 찾아드는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총련중앙학원교직원 학생들의 선물에도 담겨져있다.

재일본조선인 상공련합회 산하 동포상공인들은 림체사진설비, 총련기후현관하동포들은 양복제작설비, 총련 오사까부본부와 아이찌현본부 산따마본부관하 동포들은 천의 전후처리 및 염색설비, 총련 효고현본부 외 20개의 현본부관하 동포들은 공동으로 마련한 가정용 전기기구생산설비 등 이밖의 수많은 설비들과 개별기계류들을 선물로 보내여왔다.

총련 도꾜본부산하 동포들이 보내

여온 선물《스라이드 동판화》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잘 보여주고있다.

선물은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 두리로 예순송이의 진달래를 부각하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을 받으며 일본각지에 힘있게 솟아있는 총련회관들의 위용을 스라이드사진으로 형상함으로써 위력있는 총련조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총련이 걸어온 력사를 35분간에 걸치는 해설과 음악록음, 사진등으로 실감있게 보고 들을수 있게 장치되여있다.

또한 일본각지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에는 통일된 조국강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가려는 그들의 절절한 심정이 반영되고있다.

총련 산따마본부관하 동포들이 마련한 유화 《수령님을 우러러 조국통일 위하여 나서리!》와 조선화보사일군들이 마련한 합성사진 《조국통일을 위하여》는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재일동포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 나서고있는 모습을 힘있게 형상한 귀중한 선물들이다.

재일본조선언론출판보도일군들이 마련한 선물 《주체의 빛발아래》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빛나는 지구의의 량 옆에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이 정중히 모셔져있고 그 아래에 총련이 발간하는 각종 정기 출판물을 동판부식으로 적은글자들이 적혀있다.

이상에 렬거한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수령님께 드린 선물 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도 60만 재일동포들이 어버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고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재일본조선인경축대회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예순돐을 맞이한 영광의 날 4월 15일, 60만 재일동포들은 일본각지에서 경축대회를 가지고 끓어넘치는 환희와 감격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으며 일편단심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새롭게 가다듬었다.

이날 도꾜 조선문화회관에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기념 재일본조선인 중앙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 정면에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초상화앞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드린 커다란 꽃바구니와 그 량쪽에 여러개의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대회에는 단정한 명절 옷차림을 한 8천여명의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모두다 일어서서 그칠줄 모르는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한덕수의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력사이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전로정과 그이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을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는 계속하여 인류력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리론에 대하여서와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완성된 령도예술성과 한없이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하여 상세히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조국에 무한히 륭성발전하는 새시대를 가져다 주시였으며 우리들에게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마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60만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에 북받치는 뜨거운 심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열렬한 축하를 올리였다

그는 다음으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일군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며 《150일간혁신운동》을 자랑차게 매듭짓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총련의 모든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전체 총련 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

도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수령님께 드리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이 조선문화회관에서 엄숙히 진행되였다.

모임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앞에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목숨으로,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한 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죽어도 한목숨 기꺼이 수령님을 위해 바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는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또한 내외반동들과 종파분자들 그 어떤자들의 파괴책동, 모략책동도 걸음마다 짓부시고 한덕수의장동지를 중심으로 대렬의 통일단결을 굳게 다지며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할것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총련출판물들 특간호발간, 체육 및 예술축전

총련의 모든 출판물들은 4월 15일 민족최대의 명절을 경축하는 특간호들을 냈다.

특히 조선신보는 모든 사진들을 천연색으로 인쇄한 8페지의 특간호를 냈다.

신문은 1면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표제밑에 천연색으로 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조선청년》, 《조선녀성》, 《조선상공신문》, 《민족교육》, 《조선체육》, 《조선소년》 등 각 단체기관지들도 특간호 1면에 모두 천연색으로 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또한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교시집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김일성원수의 교시》를 출판하였다.

이 교시집에는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 수많은 교시중에서 1953년 11월 9일 조선정전축하일본인민평화친선사절단 접견석상에서 하신 연설로부터 시작하여 1972년 1월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주신 교시에 이르는 도합 37편의 교시들이 수록되였다.

총련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에 도꾜에서 우리 나라 인민상계관작품인 대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를 또다시 무대에 올렸으며 다채로운 체육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흠모와 존경,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무기를 안겨주신 수령님께서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실것을 진심으로 축원하였다.

도꾜지방에 있는 일본학사회관 혼꼬분관에서는 일본의 여러 대학들과 로조단체 및 지방에 무어진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들에 망라된 학자, 연구사, 사회활동가 등 수많은 인사들이 모여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 도꾜지방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들의 합동연구회를 가지였다.

연구회에서는 《김일성수상의 략력과 혁명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깊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수상님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며 일본혁명과 일조량국인민들간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할데 대한 자기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4월 12일 뽈스까의 까또비쩨도 대학들에서 공부하고있는 세계 16개나라의 류학생들은 수령님 탄생 예순돐 기념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계시며 세계혁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또한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의 군사조직인 팔레스티나항쟁군 총사령부의 한부대에서, 스웨리에에서, 파키스탄에서, 버마에서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와현 요꼬스까 등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당, 사회단체, 친선단체들이 여러가지 경축모임들을 가지였으며 모리따니와 단마르크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기념축하연회를 차렸다.

모임장소정면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 축하전문, 결의문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우리 시대의 근본적문제들에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여 세계혁명발전과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불후의 공헌을 하고계시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싸움에 일

4월 15일은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경사스러운 명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경축

전체 조선인민과 더불어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그러기에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대양주 등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 신뢰의 정으로 각종 다채로운 경축모임들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그이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부룬디, 수리아, 모리따니에서는 특사 또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그이께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 혹은 축하인사와 지성어린 선물을 전해드리였다.

칠레에서는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을 파견하여 수령님께 드리는 칠레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을 전해드리였다.

4월 14일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레닌훈장을 수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정부 및 정부수반들의 명의로, 또한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들과 진보적인 정치활동가, 저명한 학자, 작가, 기자들과 세계 각지에 조직되여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로부터 축전, 축하편지, 지성어린 귀중한 선물 수천건을 보내여왔다.

또한 세계 저명한 문필활동가들은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는 헌시와 송가들을 창작하여 보내여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전세계 수많은 이름난 출판사들에서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문헌집 혹은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신문, 잡지들에 널리 게재하여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 불멸의 혁명사상을 배우고있으며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죤방송들은 특별편집하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선전하였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로작,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를 비롯한 각종 경축전람회를 진행하였으며 영화감상회들을 마련하여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경축모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에 있는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대표부,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부, 남아프리카민족대회대표부, 범아프리카청년운동대표부,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대표부,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대표부, 서남아프리카인민해방운동대표부,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대표부, 에스빠냐인민해방전선대표부, 오만민족해방운동대표부와 케벡크해방전선대표부 성원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싸움에 떨쳐나선 수억만인민들의 심장속에 불굴의 투지와 신념을 불어넣어주고계시는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련합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와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의 불패의 생활력, 그이의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그리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기여하신 그이의 투쟁업적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토론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며선 혁명적인민들에게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였다.

경축기념출판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출판사들에서는 그이께 삼가드리는 경모와 신뢰의 선물로써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문헌집으로, 혹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여러개 민족어로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프랑스의 이름난 출판사인 《젠 아프리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김일성저작집》과 그이의 중요한 로작들이 10편수록된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프랑스어로 출판하였으며 중국의 《인민》출판사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출판하였다.

페루, 인도, 파키스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문헌집 혹은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윁남, 로므니아,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민주독일 등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물론 일본, 인도, 버마, 이라크, 수단,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칠레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출판하였으며 이름난 잡지들에 광범히 게재하였다.

또한 일본의 이름난 《미라이샤》출판사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여주는 회상실기 32편을 묶어 《인민들속에서》를 출판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각계각층인사들은 우리 나라 방문기를 집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잡지들은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60성상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기관지를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과 잡지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특별편집을 하였다.

4월 1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모든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1면에 정중히 모시고《김일성수상의 탄생 예순돐을 모주석과 주총리가 가장 열렬히 축하》라는 커다란 표제를 달고 그이께 보내온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의 축전전문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였다》라는 기사를, 《광명일보》는 《중조친선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스웨리예정부기관지《아프톤 블라데트》4월 14일 호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웅, 인민의 수령》이라는 표제로 기념론설을 실었으며 이 나라의 《엑스프레쎈》 4월 15일호도 특집기사를 실었다.

파키스탄신문《마싸와트》 4월 13일호는 《김일성수상님은 위대한 수령이시다—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 탄생 예순돐》이라는 제목을 단 론설을 옹근 한면에 걸쳐 실었다.

이밖에 여러 나라 신문, 잡지들도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웅, 위대한 수령》, 《영광스러운 불멸의 혁명업적의 60년》, 《김일성동지의 60년》,

《김일성수상님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행복을 축원합니다》등의 표제를 달고 그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 높은 신뢰를 표시하는 기념론설들과 특집기사들을 실었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로작들과 신문, 잡지들에는 모두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졌으며 그이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실었다. 또한 그 대부분의 책들에는 《김일성원수 탄생 예순돐 기념》이라는 글들이 씌여져있었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 축하방송을 조직하였다.

중국중앙방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방송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주악을 장중하게 전하고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노래《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푸른소나무》,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노래들을 방송하였다.

텔레비존방송들도 그이의 60성상의 혁명활동력사를 소개하였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신문들과 방송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커다란 기쁨의 명절로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이의 혁명활동로정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들이 달성한 성과들과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데 대하여서와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경축전람회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중국에서 진행된 《김일성동지 로작및혁명활동 사진전람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도시들에서 로작, 사진, 도서, 공예품, 수예품 등 다종다양한 경축전람회들이 진행되였다.

로작 및 도서전람회들에는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선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한 그이의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였으며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등 많은 도서들이 전시되였다.

중국과 꾸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경축사진전람회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60성상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수백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였으며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사회주의건설성과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애급,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각종 경축전람회들에는 우리 나라의 우아하고 섬세한 공예품과 수예품들도 전시되였다.

경축전람회장 정면마다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으며 국기게양대에는 우리 나라 국기가 드리워져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제막과 조선혁명박물관개관식 성대히 진행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가운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마흔돐을 성대히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를 모시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열화같은 지향을 담아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웅대한 조선혁명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조선혁명박물관의 웅장한 앞벽에 크게 새겨진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하여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셔져있다.

수령님의 동상을 앞에 모시고 자리잡은 웅장한 조선혁명박물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계와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빛나는 혁명력사를 포괄하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동상과 조선혁명박물관은 그 규모가 크고 내용이 풍부할뿐아니라 사적물들과 자료, 조각과 건축물들이 담고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에서 그 류례가 없는 가장 숭엄하고 웅장한 대기념비이다.

금빛 찬란한 수령님의 동상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새긴 커다란 돌벽화, 수령님의 초상을 모신 커다란 두폭의 붉은 기발과 대군상들, 웅장한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이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신 조선혁명의 길, 주체의 길을 따라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를 이어온 광휘로운 혁명로정을 집대성하여 보여주고있다.

4월 24일 현지에서는 30여만 군중이 모인가운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제막과 조선혁명박물관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각계각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 회천과 구성의 기계전사들, 수천척지하막장의 척후병들과 백두고원의 밀림을 정복하는 림업전사들, 먼바다의 어로전사들과 1211고지용사들, 연백벌과 백리합주벌, 열두삼천리벌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충성의 마음을 안고온 대표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당과 정부 지도간부동지들, 중앙과 지방일군들과 인민군장령들이 참가하였으며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인축하단과 통일혁명당축하단, 수령님께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온 자전거행진단,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 제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담긴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라고 쓴 구호가 커다란 기구에 달려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기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발들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만세!》 라고 쓴 글발이 창공높이 떠있었다.

모임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이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제막을 하였다.

수령님의 동상이 금빛찬란한 빛발을 뿌리는데 천지를 흔들며 수백발의 축포가 날아올랐으며 아름다운 꽃보라와 꽃락하산, 고무풍선이 꽃구름을 이루는데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인 군중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온 강산을 뒤흔드는 가운데 조선혁명박물관의 개관을 알리는 붉은 떼를 끊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만세의 환호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오직 60성상을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과 전체 조선인민의 명의로 된 대형 꽃바구니들이 증정되였으며 북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담긴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꽃바구니와 재일동포들이 수령님께 올리는 재일 총련꽃바구니들을 동상앞에 드렸다.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지방당및정권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부문,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경비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들의 수많은 꽃바구니들이 련달아 증정되였다.

다음 수령님의 동상제막과 조선혁명박물관개관에 즈음한 내각제1부수상동지의 연설이 있은데 뒤이어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통일혁명당축하단 단장과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의 축하연설들이 각각 있었다.

모임은《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주악에 맞춘 우렁찬 합창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며 일편단심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온누리에 더욱 빛내이며 우리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따라 배우려는 세계의 수많은 벗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배움의 전당으로 될것이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수령님의 동상은 웅장한 조선혁명박물관 앞벽에 새겨진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하여 높이 모셔져있다. 우리 당과 인민을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힘있게 부르시는 모습을 형상한 동상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과 예리한 통찰력,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세계혁명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

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숭엄하고 거룩하신 모습과 만사람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롭고 인자하신 영상을 최대의 정성을 들여 형상하였다. 대돌우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 높이는 20메터이다. 이 동상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조선인민의 불타는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만년초석이 되고 지칠줄 모르는 힘과 지혜가 되여 높이 솟아오른 위대한 충성의 창조물이다.

동상의 오른편에 있는 붉은기발 두리에는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우시여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력사적화폭을 폭넓게 보여주는 대군상이 조각되여있다.

동상의 붉은기폭두리에 조각된 대군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주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우리나라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불패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해외동포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며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내용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대조각군상은 227상이다. 이 대조각군상은 온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전체 인민이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기상을 보여주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예순해전, 191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조선인민의 장래운명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기에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반세기의 기간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포악한 두 제국주의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시고 준엄한 혁명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두 단계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단 14년동안에 성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고계시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모든 나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계시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계신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이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칭송하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빛내이기 위하여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전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그것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며 그이를 모시고 천년만년 살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끓어넘치는 경모의 정을 담아 여기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가장 숭엄하고 웅장한 대기념비이다.

숭엄하고 금빛찬란한 수령님의 동상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새긴 돌벽화, 혁명박물관의 웅장한 건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우는 대조각군상들, 폭넓고 길게 뻗은 대리석층계들, 언덕을 곱게 장식한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포기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붉은 조각가들과 미술가들, 설계가들과 건설자들, 전국각지의 근로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원들, 사회안전원들, 남녘형제들과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있으며 외국의 수많은 벗들의 지성도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은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불타는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주추돌로, 기둥으로 되고 힘과 기술, 지혜로 되여 높이 솟아오른 충성의 탑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조선혁명박물관과 함께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거점의 하나로서 앞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우리 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놀것이다.

수령님의 동상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넘치는 경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할것이며 수령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려는 뜨거운 충성의 결의를 더욱 가다듬게 할것이다.

또한 수령님의 동상과 조선혁명박물관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온 누리에 더욱 빛내이며 우리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따라배우려는 세계 수많은 벗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배움의 전당으로 될것이다.

혁명적교양의 전당—조선혁명박물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 가운데 그이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붉은 수도-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드는 만수대의 푸른 언덕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집대성한 조선혁명박물관이 1972년 4월 24일에 개관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성을 모아 새로 건립하였다.

총건평 5만 3천 700여평방메터에 달하는 웅대하고 우아한 대기념비적 위대한 창조물인 조선혁명박물관앞벽면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를 새긴 돌벽화가 부각되여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95개의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계

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 그리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긍지 높은 투쟁력사를 보여주는 100여년간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체계정연하게 갖추어져있으며 이 귀중한 자료들과 전시품이 진렬된 총연장 길이는 4.5키로메터에 달한다.

박물관 총서관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의 전로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판,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보여주는 거대한 화폭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수령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초기혁명활동과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스물다섯개 호실에 전시되여있다. 자료들은 나라와 민족이 망국의 비운에 몸부림치던 일제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영광스러운 조국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력사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고귀한 업적과 투쟁로정을 보여주고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시기관에는 조국땅에 개선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에 기초하시여 짧은 기간에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계속 사회주의혁명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령도하시여 과도기 첫시기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신 내용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자료와 문헌들, 여러가지 사진과 출판물자료들 그리고 이 시기 그이께서 친히 사용하시던 귀중한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관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16개국 무력침공자들과 남조선괴뢰군 등 200여만에 달하는 침략무력을 쓸어버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조국해방전쟁시기자료들이 11개호실에 나뉘여 전시되여있다. 자료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감회깊이 보여준다.

박물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전후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면적기술개건시기의 사적물과 자료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시일내에 수행하게하시여 지난날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신데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필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후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신 수령님의 로작들이 전시되여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관은 모두 8개의 호실로 구성되여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에서의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 창건방침과 그 빛나는 구현인 통일혁명당의 창건,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정형 그리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이 억세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반영한 자료들을 보게된다.

우리 당 대외정책의 빛나는 구현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실뿐만아니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하신데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박물관의 모든 진렬실들에는 새로 발굴된 사적물들과 고증된 자료들이 보충되고 이미있던 자료들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성을 띠고 합리적으로 전시되였으며 많은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직관성과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의 60성상, 투쟁의 반세기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전개하여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갖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 위대한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승리의 력사이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땅우에 오늘과 같은 민족적대번영과 인민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임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영광의 기념비로 솟아 있을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학교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일상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전국적인 거점으로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다지는 전국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

혁명의 붉은 수도, 만수대 언덕우에 정중히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4월 26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수령님을 받들어 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전국청년학생들의 선서모임이 진행되였다.

선서모임에는 전국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5만여명의 청년학생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 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모임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근로단체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통일혁명당축하단 성원들, 수령님께 삼가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온 자전거행진단 성원들

이 초대되였다.

모임에서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이 있었다.

이어 어버이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할것을 맹세다지는 청년학생대표, 군인대표, 남조선청년학생대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의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다지는 청년학생들의 선서가 있었다.

선서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인 우리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들은 우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의 열렬한 혁명가, 참된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엄숙히 선서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근위대, 결사대들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심장이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

우리는 영원토록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다바쳐 수령님께 충성다하겠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철저히 준비하겠다.

우리는 철천지원쑤 미제를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대를 이어 힘차게 싸워나가겠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들이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정력적으로 탐구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과 기술혁명의 앞장에 서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 나라를 가장 부강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나라로 전변시키겠다.

우리는 조국보위의 영예로운 담당자들이다.

우리는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마치와 낫, 펜을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지키겠다.

우리는 이렇게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원수님의 당으로 받들어나가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영광찬란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겠다.

전체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엄숙히 선서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중앙경축보고대회

우리 인민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속에서 가장 뜻깊게 경축한데 이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커다란 기쁨속에서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4월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고무자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중앙경축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였던 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각 도(직할시), 민족보위성, 사회안전성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통일혁명당축하단 성원들과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성원들, 제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같이 온 캄보쟈손님들이 초대되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축하하려 온 세계 여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 그밖에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많은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언제나 마음속깊이 흠모하여마지않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시며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 있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자 대회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그칠줄 모르는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성애동지께서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조선인민군장령들, 전투영웅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 통일혁명당축하단 단장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또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같이온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국내특사,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축하하려온 중국, 로므니아, 쏘련, 꾸바, 웰남, 남부웰남, 체스꼬슬로벤스꼬, 웽그리아, 독일, 뽈스까, 벌가리아, 몽골, 유고슬라비아, 탄자니아, 수리아, 소말리아, 꽁고, 애급, 인도네시아, 모리따니, 팔레스티나, 수단, 알제리, 기네, 이라크, 민주예멘, 파키스탄, 말리, 예멘, 인도의 정부군사대표단 단장들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일본사회활동가대표단 단장,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 초대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마흔돐경축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먼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와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20년대말 30년대초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와 일제강점후 20년동안에 걸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경험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일제의 반혁명무력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은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창건될 조선인민혁명군의 핵심적골간을 키우시고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시여 1930년 여름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의 출발점으로되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으며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시여 1932년 4월 25일 항일무장대오를 결성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은 그이께서 몸소 키우신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하는 참다운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창건된 첫날부터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였으며 자기 대오를 확대강화하고 무장을 비롯하여 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황속에서도 무장대오를 급속히 장성강화시키시였으며 적들의 끊임없는 《토벌작전》과 온갖 반혁명적책동들을 물리치시며 무장투쟁을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시여 적에 대한 적극적공세를 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적반일통일전선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시여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무장투쟁과 결부되여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국적범위에서 빨리발전할수 있게 되였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모든 반일조직들의 단결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또한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맑스의 가르침에 따라 국제적인 반일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드디여 항일무장투쟁은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되였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빛나게 성취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가장 높은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새기원을 열어놓았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지체없이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오신데 대하여서와 강력한 정규무력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복잡한 정세는 우리에게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 강력한 인민의 정규군대를 하루빨리 창건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현대적정규무력을 빨리 창건함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과 인민들의 새 생활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2월 8일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선의 정규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190페지)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더욱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자기의 강력한 정규무력을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였으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창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영광에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시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당과 정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왔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온 결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보고자는 지난기간 우리 인민군대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태세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야한다.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전체 인민이 자기에게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군사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방위시설물들을 더욱 완비하고 보강하여 온 강토를 더욱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한다.

전체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6

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계속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화국북반부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적동지들과 국제적벗들의 대렬을 늘이며 그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한다.

보고에서는 끝으로 모두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는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군대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으로 충만되여 있었다.

또한 대회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이의 군사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계속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혁명정신과 굳은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열병식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경축한데 이어 4월 25일 우리 인민과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마흔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의 성대한 열병식이 있었다.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넓은 대통로들은 수십만의 무장한 인민군대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과 위력한 현대적인 군사기술기재들, 시내근로자들로 꽉 들어찼다.

광장상공에는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만세!》라는 글발과 우리 당의 표식이 새겨진 붉은기와 공화국기를 드리운 커다란 기구들이 높이 떠있었다.

오전 10시,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광장에서는 일제히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뒤흔들고 수백발의 축포가 터져올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 시내근로자들은 만세를 웨치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호하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 청년근위대원들, 모든 군중들에게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성애동지께서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우리 나라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과 통일혁명당 축하단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주석단에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같이 온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국내특사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여러나라들에서 온 정부군사대표단 단장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인 사회당 국민운동국장,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 초대되였다.

주석단 좌우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각 도(직할시), 민족보위성, 사회안전성 대표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책임일군들이 자리잡고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전거행진단 성원들,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 성원들, 제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여기에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각국 대사관 무관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여러 나라 손님들이 또한 초대석에 자리잡았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열병식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애국가가 장엄하게 주악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탄 무개차가 열병대오앞으로 나오자 열병지휘관이 영접보고를 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열병대오를 사열하면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힘차게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자기들의 불같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사열이 끝나자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엄한 군악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열병식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연설하였다.

열병식축하연설에 이어 열병행진이 진행되였다.

장쾌하게 울리는 유격대행진곡 취주악에 발맞추어 김일성군사대학종대를 선두로 한 열병행진대오가 수령님께 영광을 드리며 보무당당히 주석단앞으로 행진해나아갔다.

자유독립훈장 제1급에 빛나는 군기를 날리며 김일성정치대학 열병대오와 함께 제518군부대, 제867군부대 열병종대가 그뒤를 따랐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고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였다.

녀성지휘관종대가 주석단앞을 지난데 이어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 학생대렬이 나타났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직업적혁명가, 직업적군인으로 자라나고있는 그들은 일편단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준비하려는 불같은 맹세를 다지며 보무 당당히 지축을 울리며 나아갔다.

조선인민군가의 씩씩한 선률을 타고 근위칭호에 빛나는 열병부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단 네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호통치던 미제침략자들의 중순양함 《볼찌모르》를 동해깊이 수장시킨 근위제2어뢰정대대렬이 군모의 댕기를 날리며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도도히 굽이쳐가는 열병대오들 가운데는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과 당의 참된 딸 안영애동무의 위훈도 깃든 근위부대의 군기를 추켜든 근위강건제2보병사단 장병들이 나아갔다.

이어 근위제10보병련대 열병대오와 근위서울제3보병사단 전투원들, 동해안의 전략적요충지 351고지전투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근위제86보병련대, 근위서울김책제4보병사단종대에 이어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을 받들고 영용하게 싸워 미제24사단을 괴멸시키고 사단장 띤이란놈을 사로잡은 근위제18보병련대열병대오가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다.

수령님께서는 손을 높이 쳐들어 흔드시며 이들 영웅전사들에게 답례하시였다.

보병종대들의 분렬행진에 뒤따라 지심을 흔들며 기계화부대들이 전진하여 나아갔다.

반땅크포병종대와 항공륙전병종대가 지나가자 장갑기계화보병들과 자동도하부대 수륙차병들이 불패의 위용을 떨치며 뒤따랐다.

멸적의 기세로 보무당당하게 행진해가는 포병들의 대렬속에는 녀성고사총, 녀성고사포병 종대들도 있었다.

근위제19고사포련대 근위고사포병들의 행진에 이어 위엄있게 포신들을 추켜들고 나아가는 방사포병종대, 곡사포, 평곡사포, 명사포병들의 종대가 련달아나아갔다.

감격과 기쁨의 세찬 파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무적을 자랑하는 로케트부대들이 위용을 떨치며 주석단앞을 지나자 관중들은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내며 일당백로케트포병들에게 축하를 보내였다.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로케트포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포병들의 대오에 이어 요란한 엔진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땅크부대들의 맨 선두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전투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근위서울제105기계화사단 땅크들이 무한궤도를 굴리며 나아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상 당과 혁명에 충실하여온 인민군장병들의 억세고 슬기로운 모습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 각 군종, 병종부대 열병종대들이 지나간데 이어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기를 선두에 정중히 모시고 우리 당의 학생청년대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대오가 광장을 누비나아갔다.

자동보총, 발사관 등의 무기와 여러가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한 각 구역 붉은청년근위대대렬이 련속 행진해갔다.

뒤이어 붉은 기폭을 휘날리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자원적무장조직인 로농적위대의 불패의 대오가 자동보총, 반자동보총, 기관총 등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보무당당히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로농적위대의 열병대렬을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손을 높이 드시여 격려하시였다.

열광적인 환호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박격포, 평사포, 고사포 등 각종 포로 장비된 시내 여러 공장, 기업소 로농적위대기계화구분대들의 열병대오가 연신 주석단을 지나갔다.

로농적위대의 마지막 대렬이 주석단앞을 지나가자 꽃바다를 이룬 광장의 군중들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우리에게 이처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을 마련하여 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만세를 부르고 꽃묶음을 흔들며 최대의 영광을 드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장엄한 열병행진은 끝났으나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끓어번지는 광장에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률이 흐르고 관중의 우렁찬 합창이 오래도록 그칠줄 모르고 울려퍼졌다.

열병식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40년동안 자라온 우리 혁명무력의 고상한 전투도덕적풍모와 불패의 위용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세련되고 단련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필승불패이라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연회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25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 있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과 중앙급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항일

투사들, 각도와 민족보위성, 사회안정성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 통일혁명당축하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같이 온 캄보쟈손님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온 각국 정부군사대표단 성원들, 일본사회당활동가대표단 성원들과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 또한 연회에 초대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무관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연회는 애국가 주악으로 시작되였으며 여기에서는 연회연설이 있었다.

연회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하고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의 대표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맹세하면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열렬히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통일혁명당축하단 성원들과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열렬히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성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열렬히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연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무력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오직 한마음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굳은 결의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와 기념강연회

야회: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25일 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경축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대야회를 보시였다.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이 야회를 보았다.

우리 나라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통일혁명당축하단,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함께 야회를 보았다.

우리 나라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무관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손님들이 야회를 보았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야회참가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높이 올리며 어버이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수천수만의 축포가 계속 터져올라 수도 평양의 밤하늘을 오색령롱한 불빛으로 수놓았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막을 올린 야회는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흥겨운 군중무용으로 흥성거렸다.

《노래하자, 4월의 만경대》, 《인민들은 주체사상노래하네》, 《봉화산기슭》등 경축의 밤하늘에 울려퍼지는 주악소리에 맞춰 흥겹게 노래부르며 춤추는 야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일찌기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 때로부터 반세기동안 몸소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기쁨으로 가득차 있었다.

강연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경축한 우리 인민들은 또다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4월 23일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중앙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조선인민군장령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강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강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사상, 군사문제에서 근본을 이루는 위대한 자위사상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문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수립에 관한 문제, 혁명적인 군사 전략전술문제를 비롯한 군사문제의 모든 령역에 걸치는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뛰여난 군사전략가이시라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처음으로 유격전쟁의 전략전술을 창시하시고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전략전술을 마련하시였으며 현대전의 제법칙을 꿰뚫어보시고 그에 맞는 혁명군대의 위력한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전백승하는 령활한 전법들을 창시하시여 맑스-레닌주의 전략전술발전에 큰 공헌을 하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한세대에 포악한 두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방위에 대한 탁월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금성철벽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강연에서는 끝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행복과 영예를 간직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군사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을 강조하였다.

강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강연회는 각 도와 시, 군들에서도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성함을 단 우리 나라에서 최고영예로 되는 상 및 훈장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김일성상을 제정함에 대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실로 위대하고 찬란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정확히 령도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는 위대한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오래동안 침략자들에게 짓밟혔던 조국을 광복하는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만행으로 말미암아 페허로 되였던 조국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여 오신 빛나는 투쟁로정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력사이며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문필활동을 통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창시하시고 현시대의 혁명적조류와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있는 모든 혁명운동들이 제기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해빛을 비쳐주는 위대한 붉은 태양》으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과학문화사상을 창시하시고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등 과학과 문화의 모든분야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으며 세계의 지도우에서 그 존재마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나라는 주체적인 과학과 인민적인 교육, 황금의 예술을 자랑하는 천리마조선, 주체의 조국으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가시고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으로서 자기 력사상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번영의 시대에 살고있다.

이것은 오로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정확히 령도하여주고계시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반세기동안의 리론실천활동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빛나는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 과학문화발전의 찬란한 개화기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며 빛내이기 위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사업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대상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함을 단 김일성상을 제정한다.

김일성상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상이다.

2, 《김일성상에 관한 규정》 및 《김일성상금메달 그림풀이》를 승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전 창 철

1972년 3월 20일 평양시

김일성상에 관한 규정

1. 김일성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작풍이 좋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다음과 같은 일군들에게 수여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거나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킴에 있어서 크나큰 공헌을 한 자연과학부문의 저명한 과학자, 기술자.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시는 그이의 빛나는 업적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수령님의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이의 권위를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크나큰 공헌을 한 사회과학부분의 과학자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

3)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원리에 맞는 혁명적인 사회주의적교육방법을 구현하며 교수교양의 모든 과정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을 세움으로써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기술 간부들을 양성하며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선 교과서, 과학기술도서, 군사교범들을 수많이 집필하여 과학, 교육 및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에 크나큰 공헌을 한 간부양성부문과 교육부문일군.

4)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예사상과 그이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함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 예술인.

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체육사상과 그이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을 대중화하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앞서게 함으로써 나라의 체육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한 체육일군들과 국제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창조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냄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체육인.

2. 김일성상은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 수여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륭성발전하는 로동당시대를 상징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체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학예술작품 또는 출판물.

3)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서적 및 설계작품.

3. 김일성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한다.

4. 김일성상을 수여받는 일군과 대상에는 김일성상 상장과 김일성상금메달을 수여한다.

5.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일군은 《김일성상계관인》,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대상은 《김일성상계관작품》이라 칭한다.

6. 김일성상은 해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4월 15일에 즈음하여 수여하는것을 기본으로한다.

《김일성상 금메달》 그림풀이

김일성상 금메달은 직경 39미리메터의 12각형으로되여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상징하여 금색찬연한 빛살로 되여있으며 그 중심에 내경 24미리메터, 외경 28미리메터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금부각상으로 모셔져있다.

동그라미의 아래부분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 월계수로 되여있고 웃부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를 상징하여 직경 0.8미리메터 크기의 열매들로 되여있다.

금메달은 고리로 수에 련결되여있으며 그 전체 길이는 65미리메터이다.

수는 너비 27미리메터, 길이 11미리메터 크기의 금사직으로 되여있으며 그 아래우에 금사직을 고정시키기 위한 금제장식이있다.

금메달의 뒤면에는 《김일성상 금메달》이라는 글자가 있으며 수의 뒤면에는 옷에 달기 위한 빈침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김일성훈장을 제정함에 대하여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홰불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기치밑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당을 불패의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혁명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시였으며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전법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무력침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고 우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내리막길에 들어서게하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짧은 시일내에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원래 락후하였던데다가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이 땅우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과학과 교육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빛나게 개척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을 이끄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고계신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반미투쟁,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시켜주신 조선인민의 은인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정확히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인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다.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경모하며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으면서 살며 싸우고있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과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께 최대의 충성을 다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념원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의 진두에서 험난한 투쟁의 가시덤불을 몸소 헤쳐나가시면서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집단,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군부대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함을 단 김일성훈장을 제정한다

김일성훈장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 훈장이다.

2, 《김일성훈장에 관한 규정》및 《김일성훈장 그림풀이》를 승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 용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전 창 철

1972년 3월 20일 평양시

김일성훈장에 관한 규정

1. 김일성훈장은 해방전후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작풍이 좋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다음과 같은 일군들에게 수여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 끝없이 충실하였

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크나큰 공헌을 한 항일혁명투사.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며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근로단체를 공고발전시키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광범한 대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의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이의 높으신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크나큰 공헌을 한 일군.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위력을 강화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크나큰 공헌을 한 일군.

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며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남조선혁명가.

5)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위한 투쟁에서와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공화국의 대외적위신을 높이는데서 크나큰 공헌을 한 총련일군들과 해외동포.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반제반미투쟁전략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국주의침략책동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침야망을 꺾어버리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크나큰 공헌을 한 외국의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

2. 김일성훈장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위훈으로 하여 전국의 모범으로 되고있는 집단,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군부대들에 수여한다.

3. 김일성훈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한다.

4. 김일성훈장은 해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4월 15일에 즈음하여 수여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김일성훈장》 그림풀이

김일성훈장은 너비 60미리메터, 길이 65미리메터의 금색찬연한 타원형으로 되여있으며 그 중심에 내경 31미리메터, 외경 34미리메터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안에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금부각상으로 모셔져있으며 량옆은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을 상징하여 벼이삭으로 둘러싸여있다.

이 훈장의 아래부분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마크가 새겨져있는 9미리메터 폭의 공화국기가 있으며 그 왼편에는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상징한 목란꽃이, 오른편에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여 월계수가 공화국기폭으로 둘러싸여있다.

당마크가 새겨져있는 공화국기우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상징한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가 있고 그 우로 금색광선이 해살과 같이 찬연히 비치고있으며 맨우에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상징한 금색오각별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뒤면에는 《김일성훈장》이라는 글자와 번호가 있으며 옷에 달기 위한 빈침이 있다.

이 훈장의 략수는 너비 33미리메터, 길이 11미리메터 크기의 금사직으로 되여있으며 그 중심에 금색오각별이 빛나고있다.

략수의 뒤면에는 옷에 달기 위한 빈침이 있다.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제정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청소년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해방후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의 힘이 있어야 나라가 힘이 있고 청년동맹이 사업을 잘해야 당이 튼튼하고 혁명과 건설이 잘되여간다고 하시면서 사로청을 당 다음가는 중요한 정치적조직으로 내세워주시고 사로청사업에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의 청년들과 청년일군들을 넓고넓은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영예로운 조선로동당원으로, 공화국영웅으로, 인민배우, 인민체육인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언제나 우리 청년들을 보람찬 위훈에로 부르시고 그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에 대하여서까지 높이 치하해주시고 표창해주시는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뛰여난 공훈을 세운 청소년들을 동맹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표창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영웅성과 애국심의 모범을 따르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6년 1월 17일 민청창립 열돐을 기념하여 《민청창립10주년기념청년의 영예상》을 제정하여주시고 해마다 수많은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원들 그리고 사로청일군들을 친히 표창하여 주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존경하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되였으며 그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최대의 영광으로 끝없는 자랑으로 되고있다.

우리 청년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1972년 1월 8일 내각결정 제1호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결

정하였다.

1.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김일성청년영예상》으로 고친다.

2. 《김일성청년영예상》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3. 이 결정실시와 관련하여 1956년 1월 16일 내각결정 제7호《조선민주청년동맹창립 제10주년과 관련하여》의 2와 1957년 1월 16일 내각비준 제18호《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 규정을 승인함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어진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여에 관한 규정

(1972년 1월 8일 내각결정 제1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사로청단체와 사로청원 및 사로청일군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나라 모든 청년들을 수령님의 주위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교양육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일성청년영예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조직들과 사로청원 및 사로청일군들에게 수여한다.

제3조 《김일성청년영예상》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추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훈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각의 비준을 받아 수여한다.

제4조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단체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제5조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은 사로청원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표창장과 《김일성청년영예상》 휘장 및 상품을 수여한다.

제6조 《김일성청년영예상》휘장은 왼편가슴에 단다.

제7조 《김일성청년영예상》은 해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기념일을 계기로 수여한다.

1972년 1월 8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제정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소년단원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꽃봉오리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피어린 항일의 나날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키워주신 그 넓은 사랑의 품에 해방된 새조선의 어린이들을 따뜻이 안아주시였으며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우리 나라 공산주의소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여 조선소년단을 세워주시고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소년단원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헤아려보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언제나 소년단조직을 아동단과 같이 전투적인 산조직으로 꾸려나가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년단사업을 잘 지도하는것과 함께 우수한 소년단원들에 대한 표창사업도 잘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1961년 6월 5일 조선소년단창립 열다섯돐을 맞는 전국소년단련합단체대회에서 소년단원들의 최대의 희망이며 자랑인 《조선소년의 영예상》을 제정하여주시고 수많은 소년단원들을 표창하여주시는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버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긍지는 없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끝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우리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 높은 충성의 마음을 반영하여 1972년 3월 9일 내각결정 13호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제정한다.

2. 《김일성소년영예상》에 관한 규정과 《김일성소년영예상》 휘장그림풀이를 승인한다.

3. 이 결정실시와 관련하여 1961년 6월 3일 내각결정 제94호 《조선소년의 영예상을 제정함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어진다.

《김일성소년영예상》에 관한 규정

(1972년 3월 9일 내각결정 제13호로 승인됨)

제1조 이 규정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키워내며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일성소년영예상》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소년단원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며 소년단조직생활과 학과학습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에게 수여한다.

제3조 《김일성소년영예상》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추천하며 국가수훈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각의 비준을 받아 수여한다.

제4조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는 소년단원들에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표창장과 《김일성소년영예상》휘장 및 상품을 수여한다.

제5조 《김일성소년영예상》휘장은 왼쪽가슴에 단다.

제6조 《김일성소년영예상》은 해마다 조선소년단창립기념일을 계기로 수여한다.

1972년 3월 9일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세계피압박피착취인민들의 붉은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는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수령의 한분이시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친근한 벗이시며 우리들의 존경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을 가지고 최대의 영예와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는 이 대회는 조선인민의 가장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과 때를 같이하여 열림으로 하여 더욱 의의있고 영광스러운 력사적인 대회로 되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절대적신뢰와 존경, 다함없는 흠모와 사랑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게 되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고 행복이며 크나큰 자랑입니다.

오늘 조선인민과 더불어 세계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이 이 의의 깊은 세계적인 명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예를 드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명함이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귀중하기때문이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그들을 자유와 행복,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커다란 힘과 신심을 북돋아주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으며 세계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선인민을 해방시키시였을뿐만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뒤떨어진 식민지 농업국가였던 조선을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발전된 농촌경리, 불패의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전설적인 천리마가 창공높이 나래치고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나라, 온 나라가 공장과 기계, 관개의 그물로 뒤덮이고 사시장철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생활에 과학, 교육, 문학예술이 전반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사람마다 행복하고 무병장수하는 조선은 진정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경탄하여 마지않는 사회주의 락원이며 사회주의의 본보기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사회적진보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투쟁에로 훌륭히 조직동원하시였을뿐만아니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 놓으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조선의 경탄할만한 위대한 현실과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훌륭한 성과들은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영웅적투쟁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주체사상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의 기수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키고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계시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가장 숭고하고 혁명적인 지지성원을 끊임없이 주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에 실로 위대하고 고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언제나 반제반미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결사전을 몸소 령도하시고계시며 세계 피압박피착취인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시여 그들에게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에로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시며 성심성의로 도와주고계시는 세계혁명의 붉은 태양이시며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기수이십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령도자》로,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받는 인류의 태양》으로,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으로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십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하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문필활동으로 혁명과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과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현시대의 혁명적조류와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있는 모든 혁명운동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의 앞길을 태양의 빛발처럼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관한 우리 시대 혁명리론의 완성으로 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의 최고봉으로 됩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천재적리론들과 전략전술은 오늘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강령으로, 혁명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로, 필승불패의 무기로 되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게는 멸망의 선고장으로, 무서운 폭탄으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그처럼 심오하고 독창적이며 백전백승하는것은 그것이 주체사상을 진수로하고 주체의 사상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 수령님의 로작들을 연구하는 행정에서 특히는 금번 귀국의 사회과학자대회에서의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또한 주체의 본질과 내용을 파악함이 없이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리해할수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리해하게 되였습니다.

주체는 혁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과학적방법론입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구속하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로부터의 정신적해방이 이룩되였으며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주로 자기의 힘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시대,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혁명운동이 진행되는 시대, 제국주의가 더욱 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세계적규모에서 앙양되고있는 혁명적폭풍우의 시대가 열리였습니다.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바와 같이 주체사상만이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이 위대한 사상만이 소여국가의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확고부동한 지침이며 필승불패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에 어떤태도로 대하며 이 사상을 연구하며 구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들에게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조건으로 됩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함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을뿐만아니라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는 우리들은 주체사상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충실성을 확언하며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는것을 굳게 결의하게 됩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체득하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의 생활의 신조로 되고있으며 투쟁의 목표로 되고있습니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당신을 따라배우며 당신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이며 투쟁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는 현시기 맑스-레닌주의사회과학의 기본사명도 바로 주체사상을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속에 깊이있게 해설침투 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에 튼튼히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우여곡절이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혁명과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깨닫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사회과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창조적재능을 다 바쳐 투쟁할것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걸어온 영웅적이며 위대한 조선혁명운동의 승리의 력사가 뚜렷이 확증하는바와같이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상의 더 넓은 지역에 파급되고 모든 대륙 인민들의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가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며 마침내 5대륙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을 성취하여줄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실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력사에 금문자로 아로 새겨질 주체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위대한 업적들과 더불어 인류력사에 영원토록 빛날것이며 이 위대한 사상은 마침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가져올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가장 경사스럽고 의의깊은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열렬히 축하하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당신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지식인 일동
1972년 4월 1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그이께 보내온 축전, 축하문, 축하편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크나큰 경사의 날이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다함없는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사회주의나라 당 및 정부 수반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각국 수반들과 정부지도자들, 전세계 혁명조직과 투쟁단체들, 친선단체들과 연구소 조성원들, 과학연구 및 교육문화기관, 출판보도부문, 사회정치활동가들과 평화인사들로부터 4월 한달에 보내온 축전, 축하문, 축하편지들만 하여도 1,500여건에 달한다.

축전, 축하문, 축하편지들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60성상을 바쳐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조선과 온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의 력사이다. 그이의 혁명활동력사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적실천가의 력사이며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참다운 수령의 혁명적력사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이께서 우리 시대의 혁명의 근본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의 실천적 경험과 모범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고무하시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이 추대되고계시며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귀감으로 되시였다고 지적하면서 세계혁명과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이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축전, 축하문 축하편지를 보내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니꼴라이 윅또로비치 뽀드고르느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수상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 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수상 범문동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원우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횡 떤 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혁명무력상 소좌 라울 까스뜨로 루쓰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 수상 윌리 슈토프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쓰딴꼬 또도로브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뽈스까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뾰뜨르 야로쉐비치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수상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웽그리아로농혁명정부수상 포크 예네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몽골인민공화국 내각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련방집행리사회 위원장 쉐말 비에디츠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장이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수상 펜 누트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후아리 부메디엔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수상 아브델 라호만 클레 파위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싼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
말리공화국 국가수반, 정부수상이며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대좌 무싸 뜨라오레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
예멘아랍공화국 수상겸 외무상 모호쎈 알아이니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하르또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시에라 레온공화국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
시에라 레온공화국 부대통령겸 수상 에스. 아이. 코로마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
싱가포르공화국 수상 리관유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셸 미홈베로
뽀르뚜갈공산당 총비서 알바로 쿤할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
아일랜드공산당 총비서 오리오르단
룩셈부르그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미니크 우르바니
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크누트 에스페르센
프랑스공산당 부총비서 죠르즈 마르쉐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
토이기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야쿠브 데미르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
이스라엘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메이르 빌너 겐세크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칼 헨리크 헤르만손
인도공산당 (맑스주의)중앙위원회 총비서 피 순다라야
이딸리아공산당 위원장 루이지 롱고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아이띠공산주의자통일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쟝 제라르드 쟈크 도르셀리엔
타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에꽈도르공산당 중앙위원회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파클루쁘공산당 중앙위원회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칠레공산당 중앙위원회
독일의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독일의공산당 상무위원회 위원장 쿠르트 바호만
스위스로동당을 대표하여 비서 장 뱅 쌍
산 마리노공산당 정치국을 대표하여 총비서 질도 가스뻬로니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뿌에르또 리꼬 사회당 총비서 후안 마리브라스
우루과이사회당 국제비서 까를로스 마차도
일본사회당 홋까이도 본부
일본사회당 고찌현 현본부
일본사회당 도꾜도본부위원장 우라베 히데오
일본사회당 지바현본부 위원장 가세 간
일본사회당 후꾸이현본부
일본사회당 가가와현본부
일본사회당 아끼다현본부
일본사회당 지바현본부 부위원장 아끼야 노보루
일본사회당 이바라기현본부
일본사회당 시마네현본부
일본사회당 미야기현 시오가마지부
일본사회당 가나가와 총지부 위원장 고다마 이찌로
일본사회당 도꾜도 아라가와 총지부
일본사회당 다까오까 총지부
일본사회당 도시마 총지부집행위원회
일본사회당 도꾜도 쥬오구 지부장 고이즈미 세이이찌
일본사회당 가스가이 지부장 이또 다다하루
일본사회당 아이찌현 지부
일본자유민주당 도요아께지부 나까무라 가쯔지
일본민주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가스가 잇고
일본민사당 아이찌현 지부
일본민사당 시즈오까현지부
이란인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엘. 에스. 칸다리
칠레주재 우루과이사회당 대표 호르헤 이리시며
파키스탄 펀쟈브주 의회 의원 파키스탄 인민당 미쓰 나이쎄르 꼬카르
꼬스따리까인민전위당 총비서 마누엘 라 모라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이라크) 부총비서 슈블리 알 아이싸비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까나리아섬 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알제리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 쏘아레스 다 실바
이라크 주재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 대표 푼한 아브둘 파타호
꼬모르민족해방운동 총서기 에이 바카리 보이나
알제리에 있는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파타흐)대표부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알 아씨파군 총사령부 정치위원 대리 아불 하이르
우르과이좌익해방전선 위원장 박사 아돌프 아기레 곤쌀레스
모잠비끄해방전선 집행위원회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스웨리예련합민족해방전선단체 행정위원회 위원장 알호마르춘선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 정치조직 중앙위원회 총비서 아브둘 파타호이스마일
강점된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 지도부 성원 라디스 도보르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 지부
예멘아랍공화국주재 팔레스티나 해방운동 조직대표 나이

임 샤나아르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비서 박사 죠르쥬 하바쉬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바그다드지부
알제리에 있는 여러 나라 투쟁단체 대표부 성원일동
모리따니회교공화국주재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알파타흐)상설대표부 대표 아부 이쌈
오지리주재 희랍민주련맹 위원장 끈산탄린 리똑소 포이로스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가이아나인민진보당 총비서 체디 쟈간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싸이드 마레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전국비서 에드워드 은돌로브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표 루꼬끼 앙브로이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행정비서 모세스 엠 가로에브
우루과이좌익해방전선 부위원장이며 국회의원 에두아르도 베네또
핀란드공화국 행정 및 개발상 마띠 로우에꼬스끼
말리공화국 최고재판소 총검사 알리우 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모가디쇼도 아프고이군 장관 아브달라 하지 아흐메드중좌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운수담당 국무비서 아브둘라지즈 누르 헤르시박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겸 교육담당국무비서 아브더라자크 모하무드 아부카르소좌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외무담당국무비서 오마르 아르떼흐 갈리브
일본 도꾜도 특별구 의회 의장회 회장이며 고도구 구의회 의장 요네자와 마사가즈
일본 아이찌현 의회의원 가또 쇼노스께
일본 도야마현 현의회 의장 마쯔자와 로꾸로
일본 아이찌현 시오가마시의회 의장 사또 마사오
일본 아이찌현 고난시 시장 다끼 가즈오, 시의회의장 후꾸다 젠이찌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 의회의장 기또 가쯔로
일본 아이찌현 안죠시 의회의장 가미야오 미요시
일본국민건강보건 나고야시민의회
일본 후꾸이현 다께후시의회 의장 야오 데이이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장 마쯔노 데쯔기로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 시장 가이 히데오
일본 후꾸이현 다께후시 시장 나까니시 도시가쯔
일본 후꾸이현 후꾸이시 시장 시마다 히로미찌
일본 아이찌현 한다시 시장 후까즈 다마이찌로
일본 도꾜도 아끼시마시 의회 부의장 사라시마 시노브
일본자유민주당 아이찌현 도요하시 의회 의장 우에다 규이찌
일본 가와사끼시 의회 의장 구보끼 아끼라
일본 아이찌현 오와리 아사히시 의회 의장 모리 겡이찌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시장 우찌다 기꾸
일본 시즈오까현 시즈오까시의회 부의장 지까마쯔 죠사꾸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시의회의장 핫또리 사다히로
일본 아이찌현 한다시 의회 의장 니이미 야스조
일본 지바시민회의 의장 지바 지오세
일본 시즈오까현 미시마시 의회 아끼야마 나메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시 시장 와다나베 사브로
일본 후꾸이현 쯔루가시장 야베 지에오
일본 군마현 기류시시장 고야마 도시오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 시장 고지마 가즈미
일본 아이찌현 이누야마시 시장 고지마 세이조, 시의회의장 이시다 다다시
일본 니이가다시 시장 와다나베 고따로
일본 후꾸이현 오노시 시장 데라시마 도시아끼
일본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구 구장 스노하라 게이니찌
일본 미야기현 시오가마 시장 가와세 모도지로
일본 지바현 이찌가와시 시장 도니가와 스스무
일본 아이찌현 지다시 시장 야마모도 니조
일본 지바현 노다시 시장 신무라 가쯔오
일본 니이가다현 쯔바메시 시장 난바 노리아쯔
일본 아이찌현 오오부시장 오시마 다께오
일본 자유민주당 출신 아이찌현 도요하시 시장 가와이로꾸로
일본 미야기현 가와사끼시 시장 이또 사부로
일본 나고야시 미야꼬호텔 사장 요시다 류사꾸
일본 니이가다현 이도이가와시 고이께 게이죠
일본 이찌노미야 시장 모리 베이따로
일본 교또시 마이다쬬 정의회 의장 고또 요시오
일본 이시까와현 나나쯔까 정의회 의장 사꾸노 산세이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정장 하마지마 쥬이찌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의회의장 아니에다 헤이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닛신쬬 이시까와 이사무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도꼬나메시쬬 히사다 게이조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나오끼 마끼가즈
일본 아이찌현 후소쬬 정장 센다 메이이찌
핀란드 뜨르끄시 시장 대이노 메이베이노
레바논 트리폴리시장 아브둘 하미드 오웨기다
일본 도꾜도 호야시 스즈끼 마사요시
일본 교또시 미나미구 이시다마찌 안도 기찌마쯔, 아와구라 쇼이찌, 히루이 기요따로
일본 센다이시 아사노 도미
일본도꾜도 다찌가와시 도요나가 유끼오
일본 교또 이시다 스스무
일본 도찌기현 우쯔노미야시 쯔까하라 마사이찌로
일본 교또시 오모리 시게오
일본 도꾜도 다이또구 야나기 쇼따로
일본 도찌기현 우쯔노미야시 나까고아 히로시
일본 시마네현 히라다시 나까오 슈이찌로
일본 교또 오구라 요시오
일본 시마네현 히라다시 시노하라 요네오
일본 시마네현 히라다시 오까모도 다쯔오
일본 도꾜도 다이또구 시와다리 긴조
일본 도꾜도 아다찌구 호리 즈스이
일본 도꾜 다이또구 야마다 시게오
일본 도꾜도 스미다리 센고
일본 지바현 지바시 노부도조 나까지마 히미즈
일본 지바현 지바시 아끼바 시즈에
일본 군마현 기류시 에이라구쬬 다나까 가인
일본 오사까 이꾸노구 마쯔바라 노부유끼
일본 니이가다시 무라다 사부로
일본 아이찌현 안죠시 오꾸보 가쯔꼬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끼시 쯔네마쯔 미쯔야마 마사히사
일본 교또시 사꾜구 깅가꾸지정 요쯔기 겡이찌
일본 국회 의원 요꼬야마 도시아끼
일본 국회의원 사또 간즈
일본 중의원 의원 사또 간쥬

일본 중의원 의원 안따꾸 쯔네히꼬
일본 중의원 의원 간가와 기이찌
일본 중의원 의원 네와 규쇼
일본 중의원 의원 하다 야와라
일본 참의원 의원 쯔지 가즈히꼬, 중의원 의원 도모리 요시오
일본 참의원 의원 히데오
일본 아이찌현 의회의원 가와시마 미노루
일본 시마네현의회 의원 오구보 히사미쯔
일본 아이찌현의회 의원 마쯔가와 아끼노리
일본 아이찌현의회 의원 구리끼 후지오
일본 지바현 의회의원 이찌가와 히꾸헤
일본 아이찌현의회 의원 다데마쯔 세이신
일본 아이찌현의회 의원 요꼬에 가네오
일본 아이찌현 의회의원 스기에 기이찌
일본 시즈오까현의회의원 가또도요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의원 데라니시 마나부
일본 아이찌현 의회 의원 곤도 슌지
일본 아이찌현 의회 의원 야마우찌 기요시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의원 사이또 다께하루
일본 아이찌현 의회 의원 와다나베 야스사부로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의원 오까다 렌따로
일본 아이찌현 의회의원 호죠 고자부로
일본 아이찌현 의회 의원 다까하시 노리유끼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의원 반 스 미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 가시와끼 싱이찌
일본 아이찌현 의회 의원 미야다 히데오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의원 미즈노 미쯔루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의원 사또 쥰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하세가와 기라이
일본 나고야시의회 의원 곤도 노리오
일본 아이찌현 한다시의회 의원 스기우라 우메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의원 이또 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의원 스즈무라 마사요시
일본 나고야시의회 의원 시모다이 라이지이찌
일본 가와사끼시의회 의원 오까다 가즈오
일본 나고야시 의회 의원 히라노 다끼찌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 시의회의원 친목회 회장 히라노 마사가즈
일본 이찌노미야시의회 의원 야다 게이지
일본 나고야시 의회의원 가시와 마사미쯔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또시 의회 의원 단지 아이이찌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메라가도 히로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구노 고헤이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하야시 교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인나미 이사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사이기 스기도
일본 요꼬하마시 의회 의원 다까기 도시다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오야 고시로
일본 나고야시의회 의원 호소가와 데쯔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다메마쯔 메쯔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시의회 의원 니시와끼 마사하루
일본 나고야시 시의회 의원 스즈끼 마쯔스께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이또우 호우잔
일본 가와사끼시의회 의원 시바다 후사끼
일본 도꾜도 아라가와구 의회 의원 도다 스미꼬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의회 의원 나가이 기요시
일본 나고야시 시의회 의원 이또 요시야마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고지마 로따로
일본 아이찌현 이찌노미야시 의회 의원 미우라 마사요시
일본 아이찌현 오와리아사히시 시의회 의원 아오야마 하루도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시의회 의원 고또 긴고로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시의회 의원 히라마쯔 고세이
일본 아이찌현 오와리 아사히시 의회 의원 다나까 도요하루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오와끼 히데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다까사끼 노보루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곤도 아끼오
일본 아이찌현 안죠시 시장 스기우 라스기에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요네모도 후꾸다로
일본 나고야시 의회 의원 호소까와 데쯔오
일본 가와사끼시 의회 의원 고시미 즈꼬지
일본 가와사끼시 의회의원 다나까 도시조
일본 오사까시의회 의원 야마가와 요조
일본 아이찌현 니시오시 시의회 국장 다까하라 시게루
일본 아이찌현 오와리아사히시 시의회 의원 가또 시게유끼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시의회 의원 히라노 다기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의회 의원 다께시다 미쯔에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의회 의원 간베 쇼지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의회 의원 가지다 가즈기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까시와 마사미쯔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의회 의원 야마구찌 다까시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도시 전시의회 의원 고스께 고마호
일본 아이찌현 니시오시 시민생활부장 이시까와 마쯔시게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시민과장 가또 야스오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회 사회당 의원단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죠 의회 의원 노무라 히데오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죠 의회 의원 고지마 겐이찌
일본 니이가다현 나까구비끼군 요시가와마찌 에무라 다게오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 니시구 히마마쯔쬬바이 련합회 회장 아오끼 꼬사꾸
일본 도찌기현 니시나스노마찌의회 의원 다까무라 세이스
일본 도찌기현 니시나스노마찌의회 의원 구리바라 고지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정의회 의원 히라이 에이지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정의회 의원 아오끼 기요시
일본 사회당출신 중의원 의원 다까다 노미유끼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의회 사회당 출신 의원 가나다 죠이찌
일본사회당 미야기현 시오가마시의회 의원단 사또 미쯔오, 곤도 구지로, 사또 사다오
일본 히로싸끼시의회 사회당소속 의원이며 사회당 의원단 단장인 모리 에끼요시
일본 지바현의회 의원 사회당원 호시노 마사요
일본사회당 가나가와현회 위원 나가오 야스지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의회 사회당 출신 의원 후꾸이 와꼬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의회 사회당 출신 의원 이노우에 도무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의회 사회당 출신의원 요시

하라 히도시
일본사회당출신 아이찌현 의회 의원 사이또 미쯔오
일본 사회당 가나가와현회 위원 도끼오아 끼요시
일본 지바현 지바시의회 사회당 의원단
일본 도꾜도 다나시 일본사회당소속 시의회 의원 시라끼 도모꼬
일본사회당 호즈미 시찌로
일본사회당 가쯔마따 세이이찌
일본사회당 오까자끼시 오다 이찌오
일본자유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와세다 류에몬
일본 나고야시의회 자유민주당의원단 단장 미야다 가즈오
일본자유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무라다 게이지로
일본 아이찌현 의회 자민당 출신의원 다까하시 아끼라
일본자민당 출신 나야고시 의회 의원단 단장 우메무라 다다오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의회 자유민주당 출신 의원 이나다 마세이찌
일본자유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후꾸이 이사무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 시의회 자유민주당의원단 단장 가라 슌지
일본 센다이시의회 공명당소속의원 스기오까 히로아끼
일본공명당소속 참의원의원 후지와라 후사오
일본공명당소속 센다이시의회 의원 오노데라 도세히로
일본민사당출신 아이찌현 도요하시시의회 의원 스즈끼 도요사부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모리야마구 민사당당원 하세가와 도시유끼
일본 아이찌현 현의회 민주사회당 의원 단장 쯔까모도 젠이찌
일본군마현기류시 에기마도오리 네기시 요시유끼
꾸바 탁아소 유치원 전국지도부
신일본 《휴진노까이가스가이》지부 사무국장 미즈노 아끼에
일본 《호쇼가꾸에 봉까이》
일본 구노 쥬지후원회 이또요아께 지부
일본전국혁신시장회 회장 요꼬하마 시장 아스가다 이찌오
일본 도꾜도 나까노시 오까모도 에이지
일본 도요하시시 야마다 하쯔꼬
일본 도꾜도청 경제국장 오자와 가즈마로
일본 시마네현 하라 세이쯔
민주독일의 이전 수상 옷토 그로테볼의 부인 요한나 그로테볼
말리공화국 최고재판소 소장, 말리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싼느 쎄이
미국군인 로렌스 엠 스티체브 스테파니 아르 듀란트
네팔 사회활동가 땅까 쁘라싸드 아차리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국회 의원 비비안 뜨리아스
레바논 싸이다시 시장인 국회의원 마아루푸 싸아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미나도구 다부찌 의원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오지가구 《민세이인》협의회 총무 끼또 고따
일본 전참의원 의원 아베 기미꼬
세계직업련맹 존 바피아데스 (미국), 마다완 아쥬탄(인도)
파키스탄 《사회사상가학술회》 성원일동
꾸바에 있는 미국인련맹
꾸바전국소농협회 위원장 호세 다미레스 꾸르스
꾸바과학원 성원일동
꾸바 아랍문화협회 위원장 니꼴라스 꼬씨오
아랍기자동맹 서기장 워피크 터이비
네팔전민족판챠야트 위원장 랄리 쁘찬드
오지리공화국 력사가동맹 위원장 박사 루돌프 빅크
핀란드인민민주련맹 위원장 엘레 알레뉴스, 총비서 아이모 하파넨
수단사회주의동맹 서기장 마아문 아와드 아브제이드
에꽈도르혁명가들을 대표하여 페오나르도 로뻬스 몬쌀베쌀바도르혁명가 로께 달똔
김일성수상각하 탄생 예순돐기념 일본 요꼬스까시민 축하회 대표 나가노 마사요시, 한다 시찌로
네팔 라리뜨쁘르시 히라냐도서관의 주최로 진행된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 경축집회 참가자 일동
오지리에 있는 토이기 로동자 및 대학생들의 《김일성동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을 대표하여 책임자 카밀 세다르
아덴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라호르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
라호르 파키스탄청년로동자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일본 이바라기현 오가와무라 《김일성수상저작연구회》
일본 아이찌 《김일성수상로작연구회》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수상의 로작연구소조》위원장
김일성수상님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는 도꾜지방 《김일성로작연구소조》합동연구회
파키스탄 라호르청년교원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라왈핀디 파키스탄 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부위원장 마쑤드 알 하싼부트
구라파에 있는 진보적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구라파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파키스탄 라호르민족대학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헤이끼 히르벤쌀르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책임자 빅토르. 엘. 마예키쏘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서기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흐
파키스탄청년빌룰가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파키스탄 이슬라미아대학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파키스탄 훠먼크리스천대학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파키스탄 청년기독교인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파키스탄 판쟈브종합대학연구생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성원 일동
파키스탄 판쟈브종합대학녀성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쾨뻰하븐종합대학 정치과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조》보티 안네떼
괴뗀하븐건축대학 계획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띤 바르노우
괴뗀하븐건축대학 발전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안네 올레쎈
괴뗀하븐의 외스떼르지역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피터 싸미펠트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일본정기선박 《고후꾸마루》의 《김일성수상로작애독회》 회원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이즈미 시게요시
스웨리예 스톡홀름종합대학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크리스티나 칠란드르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 책임자 보마뛰
버마련방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우보예
싼또메 및 쁘랭씨쁘해방위원회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 일동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대표하여 비르기타 세베프죠르드
중근동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을 대표하여 카마라 무싸, 아다마 드라메
핀란드 땀뻬레종합대학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위원장 까리 비따포 히아, 서기장 리뜨바 리나 하이밀라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김일성동지의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 일동
구라파에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 《김일성동지혁명투쟁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위원장 왈도 라까바도
팔레스티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아브델 말레크 모하메드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 《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위원회 책임자 아부깔레뜨
구라파에서 공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성원일동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버마련방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버마련방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위원장 우랏민
오지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류학생 《김일성동지혁명사상 및 로작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책임자 니코스 시더리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 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
룩셈부르그 《김일성동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오지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랍 및 팔레스티나 류학생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소조》성원일동
아프리카에 있는 아랍인《김일성동지주체사상 연구소조》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 일동
버마련방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녀성소조》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 일동
레바논의 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 위원회 《다르 탈티아》국장 아브둘 하미드 나쎄르
잠비아공화국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존하이 론다
잠비아공화국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책임자 쟈끄브 엠 까말라따
일본 아이찌대학 로작연구회 회원 구로야나기 히로끄
인도에있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 및 판쟙어번역위원회》 에이취 에이취 쟈키르 싱 아난드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수상로작출판편집부》성원일동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성원들
일본 아이찌대학 《로작연구회》회원 미즈다니 마리
일본 아이찌대학 《로작연구회》회원 나까미찌 쥬지
일본 군마현 조선문제연구회 회원일동
일본 도꾜도 스미다구 일조민족교육연구회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 기다시로마찌 《조선문제연구회》대표 오가미 겡이찌
일본 아이찌대학 조선문학연구회 사사끼 사찌도
일본 시즈오까현 시즈오까대학 《조선연구회》
일본 아이찌대학 조선문학연구회 구로다 아쯔끄
일본 아이찌대학 조선문화연구회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대학 《조선연구회》
일본 아이찌대학 조선문학연구회 바바 도루
일본 아이찌대학 조선문학연구회 이사구로 마찌끄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트수아, 서기장 페르난도 무릴로 비아냐
이라크조선친선협회
버마조선친선협회 중앙집행위원회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 위원장 커티스죠세프, 서기장 바바오노졸라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전국위원장 몬티 코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우타르 프라데쉬지부 위원장 엠. 엘. 구즈랄, 서기장 비샨 카프트
전인도조선친선협회위원장 국회의원 케이. 디. 말라비아, 총서기장 국회의원 에이. 엔. 비디아럼까르, 서기 옴프 라카쉬 만트리
또고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존손 뽈리까르쁘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쟝 쥬쎄 까날
레바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맘두흐 아브달라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안또니오 로아지오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대리 아민 아브둘라 히드오마르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위원장 더킨 예초, 서기장 우 쏘루잉
네팔조선친선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시에라 레온공화국 재정상이며 전인민대회당 총비서이며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명예위원장인 씨. 에이. 카마라 테일러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스텐 브란스트룸
카라치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성원일동
리얄프르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미안모함마드 이크발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성원일동
쏘바 책신그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두냐프르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까우꼬 알또넨,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르드 그렌 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조직한 독자연구모임 참가자 일동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압비, 서기장 토르스텐 디네쎈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엠 일리야스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 위원장 교수 하워드 엘 파슨즈, 집행 비서 죠세프 브란드

조선인민과의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위원장 멜바 에르난데스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를 대표하여 레네 로블러, 오로와세르

알제리조선친선라뜨라우이 알리옛투사협동농장 위원장, 지배인, 농장원 일동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페르 에굼 마우세르, 리사회위원장 포르 린네 한센

알제리조선친선 빠뜨리스루뭄바 델사아동학원교직원 학생 일동

꾸바조선친선 가금원종장 종업원 일동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삭쎈부르그 제사공장 《김일성브리가다》성원 일동

수단 하르툼시 바라리구역 《조선촌》주민일동

꾸바 《천리마》조선소 지배인 쎄르히오 치룰레스 끄르쏘

꾸바 《천리마》조선소 당비서 베네 디아스 노아

수단 하르툼시 바라리구역 《조선촌》인민리사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아흐메드 아민 알디야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련대성위원회》서기장 아부 바쌈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 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성원 일동

윈에서 공부하고있는 《맑스-레닌주의대학생동맹》과 이 동맹의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반제투쟁위원회》성원들을 대표하여 책임자 월프강 클라네르르

버마련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

버마련방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

인도 《남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라빈메르 한다

일본 가나가와현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회

일본 나가노현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회 회장 요시다 스에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국자 니이가다 집결소 매점조합

일조왕래실현 도꾜도 시나가와 련락회의

일본 시마네현 일조경제교류촉진회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일조협회 전사무국장 도가사 후미오

일조협회 이시까와현본부

일조협회 가가와현 련합회

일조협회 도꾜도련합회 회장 아오야마 요시미쯔

일조협회 아이찌현 련합회 기무라 무쯔로

일조협회 사이다마현련합회 회장 세야 히데유끼

일조협회 아이찌현 련합회 리사 가또 노부꼬

일조협회 시즈오까현 누마즈시지부

일조협회 이와데현 모리오까시지부

일조협회 사이다마현 와라비시지부

일조 협회 시즈오까 지부

일조협회 이다바시지부 회장 마쯔이 소이찌

일조협회 나가노현 마쯔모도시 지부장 고시다 젱이찌로

일조협회 도꾜도 시나가와지부회장 나미끼 히사지

일조협회 도찌기현 야이다시지부 하세가와 가쯔미

일조협회 아오모리현 서북지부 사무국장 이와다 히데오

일조협회 아오모리현 히로사끼지부 고문 도도로끼 야스노리

일조협회 오사까부련합회 혼죠 이찌지로

일조협회쯔루오까 히데오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 쥬지

일조우호촉진 가나가와현 의회의원 간담회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조선방문대표단 수원 오꾸다이라 쯔네오

일조우호촉진 도꾜도의회 의원련맹

일조우호촉진 나까노구의회 의원련맹

일본 니이가다현 의회의원 니이가다 버드나무회 회장 와다나베 시게오

세계평화리사회 서기장 로메쉬 찬드라

세계직업련맹 서기장 삐에르 장쑤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로베르또 비에찌

국제기자동맹 서기장 이쥐 꾸브까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서기장 변호사 죠요 노르드만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서기장 기사 아브델 하미드 엘 잔랄리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서기장 아민 에이. 아와달라

세계과학자련맹 서기장 삐 비까르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서기장 아담 게르머니잔, 서기 니꼬메데스 앙뒤네즈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 서기장 대리 포파나 이브라히마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장 박사 파우지 엘 사이드

국제방직, 피복, 피혁, 모피 공업로동자 직업련맹 서기국을 대표하여 안투안 헤레로

국제농업, 림업 및 재배로동자 직업련맹 서기장 로리스 아비아떠

국제운수, 항만 및 어업로동자 직업련맹서기국을 대표하여 서기장 데브 꾸마르 간굴리

국제광부직업련맹 서기장 아델리오 프랑시니

국제농업, 림업 및 재배로동자 직업련맹서기 르이스 떼노리오 메 리마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서기 니꼬메데스 앙뒤네즈

국제출판사 제임스 에스. 알리

아세아아프리카보험 및 재보험련맹 서기장 에이. 엠 다니쉬

국제농업, 림업 및 재배로동자 직업련맹에 와있는 에스빠냐 로조일군 에. 가르시아

말리공화국 바마코지구 청년 및 체육지도국 성원들을 대표하여 총국장 쎄이드 떠에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아브들라이에 쏘우

버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총서기 변호사 우라죠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잠비아주재대표 티. 티온꼬비이

알제리에 있는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대표부성원 일동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책임대표 새켄 문룬그와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위원장대리 겸 전국비서, 혁명지도 위원장 포트라꼬 케이. 레 발 로
레바논 평화운동위원회 위원장 박사 하쉠 후쎄이니
버마 세계평화위원회 서기장 더킨린
애급아랍공화국 평화민족리사회 총서기 할리드 모헤딘
콜롬비아평화리사회 위원장 후아낀 몰라노 깜뿌싸노
페루평화운동 위원장 까발예로 멘데스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평화위원회
일본 아이찌현 평화위원회 회장 시무라 다께시
일본 도꾜도 구니다찌마찌 평화위원회 세 까브 마사
핀란드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 빠보 린딸라, 서기장 미르잠 비레뚜오미넨, 서기 쎄뽀 까네르바, 서기 뻬까 따뿔라, 서기 닐스 또르발드스, 서기 쎄뽀 니스까넨
콩고로동당 당원인 콩고제인민간의친선협회위원장 비팔발라
상부볼따제인민간의친선협회 위원장 다우다 디알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상 예멘제인민과의 친선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사 아브둘 아지즈 달리
인스브룩크반제투쟁련대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책임자 하디 한된야니
파키스탄 《라호르시법률가협회》성원일동
일본 마루노우찌 법률회계 사무소 변호사 이시가와 야스유기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까스뜨로 라바레요, 서기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
수리아아랍지역 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브달라 알아호마드
독일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민주화투쟁지지련대성위원회》산하 아크빌로 영화사
김일성수상 탄생 예순돐기념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경축집회 참가자 일동
버마조선친선협회에서 진행한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돐기념 경축모임 참가자 일동
일조협회 에도가와 지부
팔레스티나로동총련맹 총비서 파트히 라기브
애급로동련맹 위원장 살라흐 가리브
파틀루쁘로동총련맹을 대표하여 에르만 송송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흐디 아브둘라 싸이드
레바논로동자사무원로조민족련맹 위원장 알야스 알 하브르
앙골라근로자전국동맹을 대표하여 앙골라근로자전국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팡 다모 아라망도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서기장 팔 말리크
꾸바근로자 중앙 집행 뷰로
네팔로동자단체 위원장 시 피구 쁘따
전네팔로조꽁그레스 서기장 콜라즈 싸끼야
나이제리아 로동조합 대회
세계직업련맹에 있는 다오메근로자총동맹대표 그바기디하진
요르단 로동조합총련맹 부총비서 파트히 알나지
세계직업련맹에 와있는 이란로조대표이며 이란로조 련락위원회 책임자인 알리 자와헤리
전아프리카로조련맹 부총비서 마마두 운디아이에
일본 후지유기장 종업원 일동
일본 시즈오까현 평의장 아오끼 신지
말리도자기공장 지배인 브브 두꾸레
전일본자치단체 로동조합 훗가이도 본부
일본 생활의료협동조합 메이난회
일본 전국전기통신로동조합 시모야마 이노기찌
일본 요꼬하마무역협동조합 리사장 오꾸자와 마사오
일본 《유기찌》공업조합 전무리사 다께우찌 고꾸에
일본전국전기통신로동조합 시가 쯔네오
일본 전국전기통신 로동조합 야나기하라 가즈마
일본전국전기통신로동조합 이즈모분회
일본전국 전기통신 로동조합 기다가와 쇼지
일본전국 전기통신 로동조합 가사하라 에이이찌
일본 《호와》공업주식회사 로동조합
일본사철로동조합련합회 서기장 요시오까 가즈오
일본전국전기통신 로동조합 스즈끼 겡이찌로
일본전국 신탁은행 종업원조합련합회 가와구찌 게이사
일본전국신탁은행종업원조합 련합회 우에다 모도유끼
일본전훗까이도로동조합 협의회 의장 기다히라 히사오
일본 훗까이도 전일본자유로동조합
일본 도꾸슈꼬 로동조합
일본 국철로동조합 도꾜지방본부 부인부
전일본 자치단체 로동조합 니이가다현 본부
일본 도꾜 《고루꾸》공동조합 리사장 와다나베 아끼라
일본 의료로동조합 시마네현 협의회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 로동조합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메이꼬관리조합로조
일본 교또시 《도에이》촬영소 로동조합장 쯔찌하세 아사무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전일본 자유로동조합 지부
일본 니이가다시 직원로동조합 집행위원장 이또 신시또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가시조합리사 와다나베 후미오
일본 가스가이시 직원조합 위원장 이또 만기찌
전일본자유로동조합 아이찌현 나고야시 오조네분회
일본 지바시 지바 《니표르도》조합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 로동조합평의회
일본도꾜 이다비시구 로동조합련합회 의장 스즈끼 도시로
일본 시마네현 마쯔에지구 로동조합평의회
전일통 로동조합 시마네현지부
전일본 자유로동조합 시마네현지부
일본 야마무라 유리 로동조합 사가미하라지부
일본 국철로조 나고야지방 본부 집행위원장 다께우찌 히로시
전일본 자유로동조합 미나도구분회
일본 아이찌현 《미나도》지구로동조합
일본기다큐슈 야하다시지구 로동조합 협의회
일본 《도끼고꾸》로동조합 지부장 후지다 사찌오
일본 도꾜도식료상업로동조합 고또지부 호이꾸엔분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세도지구 로동조합
일본 도꾜도 아라까와구 로동조합평의회의장 모리야상
일본 니이가다현 나가오까지구 로동조합련합회
일본 도야마현 신미나도시 신미나도지구 로동협의회
전일본 자치단체 로동조합 시마네현 마쯔에시지부
일본 시즈오까현 미시마시지구 로동조합회의 의장 오꾸노 유따브가
일본 나고야시 《메히덴샤》로동조합 나고야지부
일본총평 가가와현지부
일본 나고야시 교통로동조합 사와가미지부장 노다이사무
일본국철로동조합 시즈오까현 누마즈지부
일본 전국전기통신로동조합 시마네현지부
일본 전국전기통신 로동조합 지바현지부집행 위원장 오하기 고로
전주류군 로동조합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지부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로동조합 모리 도시아끼
일본 국철로조 아이찌현 협의회 세끼 도시유끼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고안 로동조합
일본 아이찌현 《젠니찌고완》 로동조합 나고야지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전국전기통신로동조합 동해지방본부
일본 아이찌현 자동차교통 로조 가네꼬 도시후미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미꾸자이》로동조합 위원장 우가와 마사히로
일본 아이찌현 로동조합평의회 이이지마 미끼오
일본 시마네현 마쯔에시립병원 로동조합
전농림로동조합 시마네현본부
일본 아끼다현 로동조합 회의
일본 시마네현 직원로동조합
일본 아이찌현 고난 직원로동조합 위원장 나까시마 세이끼
일본 시마네현 로동조합 평의회
일본 니이가다현 직원로동조합
일본 로동조합총평의회 고찌현본부
일본 이바라기현 로동조합련합회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지방 로동조합평의회
일본 미야기현 로동조합평의회 다까하시 오사무
일본 아이찌현 나까하시마군 《가시》조합리사 마쯔시다 지로
이라크 로동조합총동맹위원회 위원장 모함메드 아이쉬
몽골인민공화국 중앙도 알만볼탁그군 몽골조선친선 《허럴머르》농업협동조합원 일동
일본 나고야대학 부속고등학교 분회일동
일본 오사까부 《구라이》사장 세고꾸 죠, 부사장 오까바야시 쭈구오
일조협회 아오모리현 히로사끼지부사무국장 가가오무라 세이메이
일본 교또부 《까푸또》조합장 아오야마 시께루
일본사회당 도꾜도 다이도구 의원 모리다 노리시게
일본 니이가다현 로동조합 평의회
일본 후꾸이현 지구평의회 나까가와 헤이다유
일본 가쯔야마 지구평의회 다까노 하루조
짐바브웨로조대회 총비서 아론 은들로브
남아프리카로조대회 총비서 마크 윌리암스 쇼페
꽁고 베투성냥공장 종업원일동
세계민주청년련맹 뷰로주재 도미니까공산당 청년부대표 이그나씨오 메히아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시에라 레온공화국 보건성 부상이며 전국청년동맹 위원장인 국회의원 엘. 피. 알렌
꽁고사회주의청년동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쥴레스오까반데
네팔청년단체 중앙위원회 위원장 야즈나 쁘라사드 짜랴
핀란드민주청년련맹을 대표하여 위원장 제까 사하드니오
에스빠냐공산주의청년동맹
하르툼주 옴두르만시 베이툴 말리 5월청년부대 성원일동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위원회
부룬디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핀란드사회민주청년중앙련맹 서기장 투오모 사아리넨, 외교위원회 위원장 한누 베사, 국제비서 일포 만니넨
델리청년련맹 위원장 발조르 싱 초한
시에라 레온 전국녀성대회 총비서 프린세스 브크노르, 조직비서 낸시스틸 다이그달
프랑스중앙녀맹위원회 부위원장 마리에 클로드 바이앙 이본 듀몽
체스꼬슬로벤스꼬 녀성리사회 위원장 구수따 푸치꼬바
말리 민족녀성동맹을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사회사업국가비서 이 나 디알로
수단사회주의녀성동맹 알디윰 알 샤르끼야 지부 녀성일동을 대표하여 위원장 싸미라 이스마일
수단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수리아 모성 및 아동보호녀성동맹위원장 나디라사나디끼, 서기장 박사 나쟈흐 사아리
예멘녀성총동맹중앙위원회
스웨리예좌익녀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예바 탈매
꾸 바 녀 성 련 맹
오지리 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쉬 라 게 르
신일본 부인회 가스가이 지부장 미야시다 기요미
신일본 부인회 아이찌현 나고야시 나까가와구지부장 무라마쯔 마사꼬
신일본부인회 아이찌현 가스가이시 지부장 데라사와 지나미
일본부인민주구락부성원일동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市 전부인회장 미즈다 우지에
신일본부인회 부회장 아라까와 기요
일본 나고야시 아쯔다구 부인회 나가노 다끼꼬
일본 도꾜도 도건일반로동조합 가쯔시가 지부 부인부장
일본부인 월간 도찌기현실행위원회 유지일동
일본 전국부인 세리사련맹회장 후꾸모리 도시꼬
일본 도꾜도 가메이도 어린이를 지키는회 미야시다 기누꼬
일본부인회의 도찌기현본부
일본부인회의 아이찌현본부
일본 나고야 시립녀자단기대학 학장 아리야마 가네다까
일본 이바라기대학 학장 세끼세이이찌
네팔공과대학 학장 클라 라뜨나 쫄라다르
일본 지바현 나라시노 시립 나라시노고등학교 교장 스즈끼 도끼오
요꼬하마 가나가다학원 교장 사또 게이이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도호고등학교교장 시마다 겐기찌
일본 도요하시시 아이찌대학 교수 히라오 빈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법학부 교수 하세가와 마사야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교수 하라다 세이메이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 아이찌대학교수 가게우찌 노부히꼬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곤도 데쯔오
일본 도요하시시 아이찌대학 교수 미야사끼 시즈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교수 다까야마 가즈오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고즈까 사다오
일본 나가노현 우에다시 신슈대학 교수 야스다 가스아끼
프랑스 교수 부부 마르떤느 아잠, 부인 장루이 아잠
알제리 교수들인 모하메드 마꾸트, 나따샤 마꾸트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교수 이나꼬 쯔네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교수 마쯔이 요시로
일본 사이다마현 사이다마대학 명예교수 아와야 유다까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요꼬고시 에이이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교수 시라이와 겡이찌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무로이 찌까라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모리야마 아끼
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다까기 겐따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나고야대학 교수 시미즈 아끼노부
일본 나고야 시립녀자단기대학 교수 가와우찌 미쯔요시

일본 나고야시 쥬꾜대학 교수 데와야마 히데오
일본 오사까 외국어대학 교수 시바이께 야스오
까히라 종합대학 교수 박사 모하메드 싸베르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시립녀자단과대학 조교수 사이또 이사무
일본 아이찌현립대학 조교수 히 라 다 죠 지
일본 아이찌현립대학 조교수 요꼬야마 아끼라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메이죠대학 조교수 스즈끼미끼히사
일본 아이찌현 현립대학 조교수 시시도 스꾸오
일본 후꾸시대학 조교수 스가와 히사시
일본 나고야대학 조수 이또 젠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나고야대학 조수 마에다 가쯔요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조수 고노 야스히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조수 이꾸다 가즈나리
일본 나고야대학 조수 나가시마 유
일본 나고야대학 조수 요시다 시게아끼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조수 고바야시 다꾸
스웨리예 웁쌀라종합대학 경제학학사 베르구스트룸웰리
일본 나고야대학 강사 오까모또 아끼라
일본 후꾸시대학 강사 이이다 데쯔야
일본 예술대학 강사 사또 다께지로
나이제리아 에누구종합대학 교원 윌리암 아니췌
일본 사회복지대학 다까시마 스스무
일본 아이찌대학 사와다 가즈오, 나까우찌 다스야, 미야모도 도시, 마쯔모도 도오루, 오가와 가쯔히로, 이소가와 요이찌, 이시까와 히데이쯔, 쯔네다 히데가즈, 곤도 히사시, 도야마 도시후미
일본 아이찌대학 오하시 노리오, 쯔까모도 미요시, 마도바 쇼지우메, 모도꼬 이찌로, 마에하다 세이지, 오야기 히데아끼
일본 혹까이도대학 야마모도 다마끼
일본 아이찌대학 다까하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공업대학 시미즈 아끼노부
일본 나고야대학 시오자와 젠지
일본 아이찌대학 가네꼬 에이쬬
일본 아이찌대학 미야지마 노브오, 이와바나 아끼라, 오오시마 쇼이찌
일본 쥬부공업대학 고바야시 야스지, 모리 지로, 가미야마 마사히로
일본 로도대학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대학 경제학부 미즈다 히로시
일본 와까미야 고등학교 하라 데쯔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미즈호 고등학교 교원 곤도 야찌요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세이료 상업고등학교 교원 기다가와 다이세이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미난고등학교 교원 이시다 사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아이찌고등학교 교원 세도 스나오
일본 아이찌현 도꼬나메시 고등학교 교원 가기다 에이이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도호고등학교 교원 니시이 후에
일본 아이찌현 지류상업고등학교 교원 나가야 가쯔이찌
일본 나고야 시립세이료상업고등학교 교원 이노우에 가요꼬
일본 아이찌현 도꼬나메시고등학교 교원 히비이 히사오
일본 아이찌현 현립 나가구데고등학교 교원 이이다 간꼬
일본 나고야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원 구즈 가리오
일본 나고야시 세이교고등학교 교원 사와다 요시히로
일본 아이찌현 한다상업고등학교 교원 야마모도 다까고레
일본 나고야시 세이교고등학교 교원 이찌다 간또구
일본 아이찌현 가리야고등학교 교원 후까즈 시유끼
일본 나고야시 시립 세이료상업고등학교 교원 이노우에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우시다고등학교 교원 마끼 마사히꼬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시립 공업고등학교 교원 우찌다 마사미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도꼬나메고등학교 교원 하야가와 메스즈
일본 아이찌현 현립 요꼬스까고등학교 교원 다지리 우끼오
일본 나고야 시립고등학교 교원 가또 하찌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고등학교 교원 마쯔나가 요시히꼬
일본 나고야 《슈꾸도꾸》고등학교 교원 이시이 유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사립 제2공업고등학교 교원 가와시마 겐
일본 아이찌현 기소가와 고등학교 몽까이 유시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중학교 교원 하야가와 교지
일본 나고야시 후지예소학교 교원 세끼도 후꾸다로
일본 나고야시 쥬오소학교 교원 오무라 스미꼬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소학교 교원 가와이 교꼬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니시우라소학교 교원 아사노 다께히꼬
일본 아이찌현 지따정립 아사히기다소학교 교원 오가다 야스오
일본 아이찌현 히다조립 아사히소학교 교원 이노우에 쇼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소학교 교원 사또 마사꼬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소학교 교원 이또 데쯔오
일본 아이찌현 세도시 교원 고자꾸라 겐
일본 나고야시 교원 야마나 야스히꼬
일본 아이찌현 세또시 교원 야노 고이찌
일본 나고야사 기다구 교원 이노우에 아끼꼬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 교원 후지모도 히로시
일본 나고야시 히가시구 교원 미즈다니 겐
일본 아이찌현 이누야마시 교원 이나가끼 야스다니
일본 나고야시 쇼와구 교원 가미무라 준조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지꾸사구교원 구노 호후
일본 나고야 히가시구 교원 와다나베 요시끼요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기다구 교원 미야가와 요시오
일본 아이찌현 오까자끼시 교원 후지시로 슈조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 시립 고등학교 교원조합 집행위원장 사또 노리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이찌무라학원 고등학교 교직원조합 집행위원장 마쯔모도 다까시
일본 나고야대학 문부기관 가와무라 마스오
일본 히가시 오사까교직원조합
일본 교또시 가쯔우라 고등학교 학부협회 회장 야마모도 다다요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쥬꾜대학 타구부일동
일본 도꾜도 《민주적인 사회교육을 발전시키는 도민의 회》
일본교직원조합 미야기현 구리하라군지부
일본 아이찌현 교육써클 련락협의회
일본 아이찌현 고등학교교직원조합 집행위원장 다께모도 유스
일본 나고야대학 직원조합 위원장 하라 다까쯔꼬
일본 도꾜고등학교 교원조합 위원장 사까우시 메쯔로
일본 도꾜교직원조합 련합회 위원장 후지야마 유끼오, 서기장 하라다 마꼬도
일본 시마네현 교직원조합
일본 고찌현 하마교원조합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아사히가오까 고등학교 교직원일동
일본 아이찌대학 조선문학연구회 미즈다니 아끼고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교직원로동조합
뽈스까 까또비쩨지구 외국류학생위원회 상무위원회
일본 도꾜 다이또구 교육의원 베니바야시 마사꼬
일본 나고야 쥬꾸시대학상임리사 오사와 마사루
기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적도기네공화국 류학생 일동
핀란드 땀베레종합대학 학생련맹집행위원회 위원장 마르띠 꼬르호넨, 총서기 베르띠 딸멜라
서파키스탄 《기계기술대학 학생동맹》성원 일동
파키스탄 《펀쟈브 학생동맹》성원 일동
예멘학생 전국총동맹 위원장 알리 아브돌 라흐만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바그다드지부 위원장 아잠 알 아흐마드
파키스탄 전국 학생련맹
프랑스에 있는 흑아프리카대학생련맹
일본에 있는 사회주의연구회 미야기지부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다꾸마연구소 사장 다꾸마 쇼이찌
일본 도까이산업경제조사소 소장 이또 죠고
모리스토레스연구소 소장 지 쟝뮤르레쓰
일본 시인 사또 노리오, 소설가 사또 기미꼬
일본 나고야 오다내파의원 원장 오다 가쯔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가와시마외과병원 원장 가와시마 미쯔하루
팔레스티나 의사협회 책임자 탑탑 와시드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캄보쟈 류학생일동
함흥화학공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윁남류학생일동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실습하고 있는 함흥화학공업대학 윁남류학생일동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윁남류학생일동
천리마원산농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윁남류학생 일동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꾸바류학생일동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류학생일동
천리마조선에서 실습하고 있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들을 대표하여 책임자 아브돌 라자그 이스마엘, 부책임자 가지 알리 후레이즈
천리마원산농업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류학생일동
일본 와꼬교역 주식회사
오지리 헤르몬탄 기계생산및수출주식회사
일본 기찌예쯔 물산주식회사
일본 호꾸세이산업주식회사 사장 요시오까 유다까
일본 나고야《교와》주식회사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바노아쯔 세이끼》주식회사 사장 반 야스히로
일본 도꾜도 《산와》물산주식회사
일본 태고산업주식회사
일본 오까야마시 오까야마무역주식회사 고가미 요시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아이찌쇼나마콘주식회사 사장 나가다
일본호와공업주식회사 사장 노자끼 노부요시
일본 《에지리호로》주식회사
일본 《교에이겐빵》주식회사
일본 도꾜도 오시바호도혼주식회사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하이오와》산업주식 회사
일본 히노자동차 고꾸요주식회사 취체역 사장 마쯔가다 마사노부
일본 나고야 《다이꼬에끼까》가스주식회사 사장 즈찌야 또이찌
일본 안쬬삼교공업주식회사 사장 곤도 미끼오
일본 이찌노미야시 혼다메리야스주식회사 공장장 히로가와 사부로
일본 오사까시 미야께제분주식회사 사장 미야께 쇼스께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도요》공업주식회사 사장 이시다 마사이찌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도메이 세이꼬》주식회사
일본 나고야 우찌야마전기공업주식회사 사장 우찌야마 시게하루
일본 《쇼에이샤》주식회사 전무 나까오 다쯔도
싱가포르 관광선박회사
일본 아이찌현 도요아께쬬 도메택시회사 사장 스가누마 로이찌
일본 나고야 《이와다》회사 지점 이와다 쥰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모리야마 자동차회사 사장 히라고 미끼마로
일본 쥬부라샤회사 사장 야마다 하야도
일본호스타설비회사 공업상무 호스타 시로시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교육산업회사 사장 이소무라 마다시
일본 오사까시 《사까에》무역회사 사장 사시가와 겐또
산신 일본무역회사 이마이 사뽀루
일본 아이찌무역회사
일본도다건설회사 나고야 기사장 기요오까 규이찌
일본도다건설회사 부장 시모다 히로히꼬
일본도다건설회사 부장 다까기 유다까
일본 도다건설회사 부장 가와이 이사무
일본 도다건설회사 과장 다지리 신
일본 미야기기계건설회사 마스꼬 마쯔오
일본 사기미곤포회사 사장 스즈끼 시게따로
일본 아이찌현 미쯔비시자동차회사 사장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오다전동기회사 사장 오다 요시마사
일본 마루세이 부동산회사 사장 시미즈 마사가즈
일본 쥬부전력회사 과장 오자다 노브이찌
일본 마루세이 부동산회사 사장 히라이 마사나리
일본 가찌가와 회사사장 끼도 고이찌
일본 다이아이설계회사 사장 시자끼 야스아끼
일본 《에이와》기선회사사장 마스가와 하루오
일본 도꾜기계회사 사장 나까구찌 고이찌
도꾜 《마루이찌》상사 사장 다니 야스히로
이딸리아꼬지스 상사
일본가와가미상회
일본 산꼬무역회
파키스탄 《상공회의소련맹》위원장 아쉬라프 타바니
일조무역회 전무리사 아이가와 리이찌로
일조무역회 상무리사 무라가미 사다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미나도 나까가와 민주상공회 회장 도야마 모또
싱가포르태평양 선박유한 공사
일본 후지 운수사장 오바야시 리끼조
일본 교또시 고도부시상회 대표 미야모도 마사오
일본 도꾜붓산 사장 가와세 가즈쯔라
레바논 바이루르 천리마제분공장 로동자 일동
일본 《고와》정밀공업소 사장 모리다 우데이찌
일본 아이찌현 이누야마시 도다세이사쿠상사 사장 시바아 요시히로
일본 아이찌현 이찌노미아시 분세이또서점 사장 고시오리 유지
일본 이찌노미야시 닛께이다까지점 다까기 싱이찌
일본 상신교역주식회사
일본 나고야시 프레시덴트주식회사
일본 니이가다현 니이가다시 《꼬르쁘스》회사 다끼 요히꼬외 사원일동
일본 나고야 《미즈노 목꼬》상사사장 미즈노 쇼이찌
일본유신상사주식회사 사장 노구찌 미사히로
일본 도다건설회사 사장 도다 군노스께이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닛산부힌》판매사장 히구찌 요시노스께
일본 니이가다현 니이가다 《고한》호텔
일본 아이찌현 식료품동맹
일본 이시까와현 나나쯔까 점장 오모다이 아끼오
일본 아이찌현 니시오시시 《오까다사까》상점
일본 아이찌현 아이찌군 도요아께쬬 사가노 미곡점
일본 나고야시 사또전기기계상점 사또 다까시
일본 《마르에이하찌야》상회
일본 도시바회사 호또혼지 사장대리 고브 쥰조
일본도시바 호또혼지 사장 오자끼 꼬노신
일본 전동공예회사 모도하시 교꾸사이
일본도꾜 《다이메이》건설회사 세끼노부지
일본나고야 닛산회사 사장 사또 다께오
쏘련 디젤선박 《스바네찌야》호 선원들의 위임에 의하여 선장, 제1부선장, 공청조직원, 선박위원회 위원장들
희랍선박 《쁠류크스》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죠지 로우꼬우나끼스
희랍선박 《안또니》호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팬리스 아이니스
희랍선박 《코스리스》호 선장, 항해사 및 선원을 대표하여 선장 메오로카로스 바셀오스
희랍선박 《아리스타이오스》호 선장, 기관장 및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마스트로 카이오스
끼쁘로스선박 《싼드라》호 전체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끼쁘로스선박 《실버 펴》호 선장 및 선원 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해나끼스 콘노스
파키스탄 선박 《젤룸》호 선장 비 하 싼
일본후꾸시마 조선철공소 대표취체역 사장 후꾸시마 구니미쯔, 기선 《고후꾸마루》선원일동
일본선박 《도꼬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하마지 지로
일본선박 《긴죠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다나까 마사오, 사무장 효 도 노부야스
일본 후지기선주식회사선박 《아즈마산마루》선장 나까다 쥰료와 선원일동
일본선박 하찌요기선주식회사 소속선박 《에이요마루》선장 고바시게루와 선원일동
일본선박 제 13 《긴세이마루》전체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하기바라 요시오
유고슬라비아 선박 《쩬즈》호 선장 및선원 일동
싱가포르선박 《글로티》호전체 선원의 이름으로 선장 크. 손네르비그
싱가포르선박 《사가조》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까메마디셴
싱가포르 코스모쓰선박회사소속배 《유니버셜》호의 사관들과 선원일동
싱가포르선박 《럭키 르레이더》호 선장 홍 시우 캄
깜차뜨까 기선회사 높은 생산력선원집단 《차즈마》호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기관선 선장 브. 이. 루나쉰, 당조직책임자 뻬. 아. 베스쁘로 즈반늬호
쁠스까조선해운회사 선박 《미츠께비츠》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따마르쓰끼 안또니
싱가포르선박 《동호》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케이. 발로우
일본선박 《고쥬마루》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가와우찌 히기야
파키스탄 주간신문 《누스라트》주필 씨드 알리 자파르자이디
파키스탄 《데일리 임로제》신문사 기자일동
파키스탄 《캐피털》출판사를 대표하여 싸이드 하싼 모호신
파키스탄 주간신문 《씨하브》 기자및 종업원일동
파키스탄 《마싸와트》신문사 주필 아흐메드 바쉬르
파키스탄 《싼》신문사 부주필 아흐마드 하싼
파키스탄 《마싸와트》신문사 사장 모함마드 이크랍
파키스탄 주간신문 《아화크》책임주필 샤우카트 후쎄인 샤우카트
파키스탄신문 《뉴타임스》주필 자미를 라흐만
파키스탄 《카즈미》출판사를 대표하여 사장 나씨르 카즈미
핀란드공산당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주필 요르마 심뿌라, 부주필 에르끼꿈뿔라이넨
핀란드 땀뻬레 사난떠에출판사 사장 따삐오 아호넨, 행정부사장 올라비 니에미넨, 직장장 까우꼬 라악소
핀란드 땀베레학생신문 《아비이시》주필 벨리안떠 싸뿔라이넨, 편집원 따빠니 까멀라, 편집원 까리 비이따보히야
핀란드 기자 한누 린나인마아, 요따르꾸 삔나넨, 요한 본 본스또르프, 세쁘-헤이끼 살로넨, 에스꼬세빠넨, 아아레 노여넨, 유하 빌꾸넨
핀란드 기술대학 및 경제기술학교 학생련맹신문 《권딱써》주필 요한나 해메
일본 《미라이샤》출판사사장 니시다니 요시오, 《미라이샤》출판사 사원일동
일본 《요미우리신붕》 호꾸리꾸지사 사장 다마즈다 다이조
일본 《아사히신붕》나고야 본사 가이다 도모히로
일본 이시까와현 《호고꾸》신문사 부사장 가미야마
일본 《마이니찌신붕》중부본사 이찌노 겐조
일본 《아이찌타임스》사장 나까노 다모쯔
일본 아이찌현 가스가이시 문화공론사장 오쯔보 시루시
일본 《요미우리신붕》사 론설위원회 고문 다까기 다께오, 사회부 통신주임 쯔꾸다 다모쯔
각하를 흠모하여 따라배우는 네팔기자협회 서기장
네팔 일간지 《싸마찐》책임주필 나라얀 샤르마하주렐
미국잡지 《뉴스위크》도꾜지국장 버나드 크리셔
미국에 있는신문 《공개편지》발행인 주영한

애급아랍공화국《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 행정리사회 위원장 무스타파 바하가르 바다위

애급아랍공화국 《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 총국장 아브델 하미드 아흐메드 하므루쉬

《코머너》지 주필 네팔기자협회위원장 고팔 다스 스레스타

네팔《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 위원회》위원장

네팔 주간지 《저너자그러머》 책임주필 히라니 야랄스타

네팔주간지 《녀야유그》편집원 케이피씨와 쓰머쉬 피씨와 쓰머

네팔 주간지《짜러챠》 주필 엔비너의 우빠니

네팔 주간지 《마뜨리푸미》주필 고빈다더 요기

인도신문 《샤벨라》책임주필 마단 모한꾸라

인도 월간잡지 《콘템퍼러리》주필 디다쓰 그프타

칠레 에쓰. 에쓰 출판사 사장 까를로스 살라싸르 우마냐

레바논 편집인 협회 위원장 물함 카람

일본《요미우리신붕》대표 취체역사장 무다이 미쯔오, 부사장 겸 편집주간 하라 시로, 취체역 겸 편집국장 하세가와 지쯔오

레바논에 있는 《알리와우》신문사 편집부 일동

레바논에 있는 《알 발라트》잡지사 사장겸주필 갓싼 슈라티, 《알 발라트》잡지사 편집부성원 일동

레바논에 있는 《두스루르》잡지사 사장겸주필 알리 발루트

우루과이 공산당 집행위원회 정치리론잡지 편집비서 리따 이바르부루

오지리 《안톤뚜슈》출판사 종업원들을 대표하여 사장 안톤뚜슈

알제리 국영출판문화사 수출부장 베모주루네

오스트랄리아 잡지 《해불》주필 스탠리 무어

스웨리예 《아프톤 블라데트》신문사 대외광고부장 오베린드

수리아신문 《주간체육》주인 카멜엘븐니

수단 《알 사바브》잡지사 기자, 편집원들을 대표하여 책임주필 이브라힘 아브델 가욤

수단 《알 아얌》신문사 부주필 라흐만 술레이만

우리 나라 방문 일본사회과학자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끼쁘로스대표단 단장 크리싼도스 싸비데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일본문화인 대표단성원 단장 야마네 긴지, 부단장 후지시마 우다이, 비서장 오가모도 요시히꼬, 단원 마쯔모도 마사쯔꾸, 단원 마까베 진, 단원 이시노게이 이찌로, 단원 에마 소꼬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던 소말리아대표단 일동

미국기자 라이오넬 마르틴

프랑스의 《아프리끄 아지아》잡지사 총사장 씨몽 말레이

미국 《뉴욕타임스》편집국 부주필 해리슨 솔스베리

파키스탄 《쟈거우》신문사주필 에킬. 미루자

레바논사회진보당 위원장 카말 줌불라트

우루과이 광범한 전선서기장 웰마르 미첼리니

바수톨랜드대회당 까히라주재 파까네 보꼬트 칼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 야씨르 아라파트

핀란드인민민주련맹 위원장 엘레 알데뉴스, 총비서 아이모 하파넨

네팔 전민족판챠야드 위원장 탈리 쁘찬드

몽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므. 르함수렌

라호르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성원일동

카나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씨. 놀

밀라노조선인민과의 친선위원회 위원장 마리오 제즈모나뜨

일본 나고야시 나까무라 히오도끼 도리

일본 혹가이도척식은행 도꾜도 신쥬꾸구지점 종업원일동

일본 나고야《시노다세인》직원일동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시립공업학교 고쇼분회일동

일본 지바현 모바라시 우에시다 케이이찌로

레바논제지회사 사장 오미루 간두루와 종업원일동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있는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동남아세아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독서연구회》성원일동

파키스탄 라왈핀디 카후라정부고등학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에꽈도르혁명가청년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파키스탄《김일성수상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일본 아이찌대학 《로작연구회》회원 도야 마사나루

일본 이바라기대학 《김일성수상저작연구회》

일본 이바라기현 오가와무라 《김일성수상저작연구회》

일본 아이찌현 도요하시시 아이찌대학 조선문화연구회

수단 《알 싸하파》신문사 국장 알리 모하메드 알리누구드

수단 《알라이 알암》 잡지사 주필 무함마드 알 무슈리프 할리파

쿠웨이트에 있는 《알라이 알암》출판사 총국장 겸 책임주필 파헤드 아브둘 아지즈 알 마사이드

희랍선박 《네오리스》호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에스투르니스

소말리아선박 《라호산》호 전체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브. 에흐. 베흐쎄

끼쁘로스선박 《미레라 아씨미나》호 전체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마르카키스 게오르기오스

일본 《니혼쯔운》주식회사 니이가다점장 마쯔우라 요시히꼬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찌시 이도사끼마찌 이도사끼병원 원장 무까이 쯔로

일본 아이찌현 의회의원 데라니시 마나부

일본 요꼬하마축구협회 부회장 가다오가 쯔기오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 일본탁구협회 핫또리 이사오

일본 아이찌현 축구협회 리사장 이찌하시 나나오

일본탁구협회 사무국장 안도 요시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청년체육 및 사회문제성 수단 집단체조대표단 하싼 이브라힘 아부 쟈발, 쟈파르 샨 타이르, 파둘 엘 사이드 파울, 무사엘 카리파

수리아아랍지역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랄라 알 아흐마드

수리아아랍지역 아랍조선친선협회군중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던 이라크대표단 무스타파 알 피키키, 알리아 맘두호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 겐꼬사회회관내 나가노현 로동자, 농민우호중국방문단 단장 기와미즈 이사무, 부단장 스가누마 마사, 사무국장 마쯔모도시루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칠레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축하편지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우리는 당신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우리 칠레인민의 존경과 흠모의 정과 련대성을 표시하여 당신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쌓아올린 영웅적업적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탁월한 수령이시며 세련된 령도자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훌륭한 기상을 대표하고계시는 저명한 국가활동가이신 당신께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선의 유구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그리고 원쑤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해방과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불요불굴의 투쟁에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직접 령도하신 항일유격대가 쌓아올린 위훈은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가장 탁월한 당신께서 내놓으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정책의 정당성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습니다.

당신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미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그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패배를 주고 그를 타승한 이 영웅서사시는 칠레인민을 한없이 경탄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평화위업과 반제혁명운동의 보루인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고무자이신 당신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동지!

우리는 조선인민이 벌리고있는 영광스러운 해방투쟁과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정당한 로선에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한다는것을 당신께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우리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당신께 다시한번 우리의 경의를 표시합니다.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칠레인민통일련합 전국정치위원회 위원장
상원의원 안쎌모 쑬레

사회당중앙위원회 총비서대리 상원의원
아도니스 쎄뿔베다

급진당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호르헤 뻬싸로

좌익기독교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보스꼬 빠라
비서 뻬드로 펠리뻬

공산당중앙위원회 총비서 상원의원
루이스 꼬르발란

인민통일행동운동 총비서대리
하이메 가스무리

인민독립행동당 위원장 라파엘 따루드 씨와더

사회민주당 위원장 상원의원
루이스 페르난도 루엔고

좌익급진당 위원장 상원의원
루이스 보싸이

인민통일녀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까 례라
비서 국회위원 미레이아 발뜨라

국회사회당 의원대표 까르넨 라쏘 까레라

칠레국회 하원의장 국회의원
페르난도 싼우에싸

민족회의 성원들
아니쎄또 로드리게스
알베르또 발뜨라 꼬르떼스
우고 미란다
빅또르 꼰뜨레라스
라몬 리부라 오초아
볼로디아 떼이뗄보임
안또니오 따보라
빅또르 올리바레스
씨쁘리아노 뽄떼고 (국회의원)
까르로스 곤쌀레스 (국회의원)
루이스 떼헤다 올리바(국회의원)
우고 로블레스
알레한드로 또로 에레라
오스발도 히아니
마리오 빨레스뜨로
환 아쎄베도
라우라 알엔데
뻬드로 우라
루이스 마리아
호엘 마람비오

국회공산당 의원대표 루이스 파스따비노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까스떼요
부위원장 오르란도 밀야스(국회의원)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수아
서기장 페르난도 무릴로 비아냐
재정비서 오스발도 데 페우브레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마르따 멜로

사회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 에드문도 쎄라니

사회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부장 알레한드로 힐리베르또

칠레학생련맹 위원장 알레한드로 로하스

국립공업대학 학생련맹
위원장 알베르또 리오스

사범대학 학생련맹

위원장 루이스 깨싸다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까르로스 로르까
인민통일행동운동청년전국위원회 총비서대리
디에고 뽀르딸레스
혁명적급진청년전국지도부
위원장 알레한드로 몬떼씨노 예이에르
사회민주청년동맹 총비서 루이스 우라 모예나
좌익기독교청년전국지도부
총비서 빅또르 베라
좌익인민행동청년부 비서
네리 히메네스
칠레근로자통일중앙전국지도부
위원장 루이스 피게로아(국회의원)
제1부위원장 에두아르도 로하스 꾸에야르
제2부위원장 바야르도 곤쌀레스
문화비서 호르헤 고도이
총비서 라몬 페르난데스
조직비서 니꼴라스 로뻬스
녀성사업담당비서 라껠 마르찬뜨
칠레개인기업가련맹
위원장 마르씨알 꼬르떼스
총비서 빠르떠씨오 곤쌀레스
칠레도시로동자동맹대표
환 떼무니르
토지개혁촉진근로자협회
위원장 훌리오 오발야
사장 빅또르 드레야나
방직산별로조전국련맹
총비서 마리오 곤쌀레스
보건일군전국련맹
위원장 알베르또 두아르떼
철도공업로조 국제비서대리
환 에스뻬노사
교육성 문화출판국
국장 마리오 페레로
국가공동교통회사 근로자통일로조
부위원장 아벨네고 쎄뿔베라
건설, 목재및건재공업로조
총비서 호쎄꼰차
금속근로자전국련맹
위원장 루벤 발데스
총비서 루이스 레떼리에르
싼디아고시 사무원협회
위원장 호엘마챠도
철도로조지도부 성원 쎄레스떠노 뽀르뚜갈
《란길》인디안농민협회
총비서 엔리께 아벤다노
비서 까르로스 아야라
농목축개발전국근로자협회
총비서 디오고 씨에르뻬
위원장 오스까르 뽄쎄

주택로동자련맹
부위원장 오레스떼스 갈예길요스
《끼만뚜》국가편집부로조
위원장 라울 도노쏘
국립공업대학근로자협회
위원장 루이스 빠라다
칠레광업전국련맹
총비서 알라미로 구수만
동광로조전국련맹
위원장 오르란도 모라가
부위원장 훌리오 빌야 까쎄레스
《추끼까마따》동광회사로조
위원장 다비오 다비드손 왈께르
사장 에밀리오 아치까르도
비서 마리오 쁘라도 곤쌀레스
칠레전기회사 근로자전국련맹
위원장 하이메 도나또
국제부장 마리오 게라
칠레전기 회사 근로자통일로조
위원장 레안드로 쁘라도
사장 에리베르또 씨후엔떼스
건설로동자로조
위원장 호쎄 푸르힐요
싼띠아고주건설로조 위원장 루이스 라라
교육근로자통일로조전국지도부
위원장 쎄르히오 아스또르가
총비서 쎄싸르 아스꼬바르
사회보장로동자련맹
위원장 루이싸 멘디부로
국장 가브리엘 빠라다
은행근로자련맹 총비서 아르만도 올리바레스
지도부성원 루이스 디아스 쏠리스
지도부성원 환 이노스뜨로싸
출판근로자련맹 엘로이 라미레스
피혁및신발전국로동자련맹
위원장 아르만도 아기레
뻐스및승용차운전수및차장로조 쎄넨뻬노
《자유》농업로동자로조전국협회
에우헤니오 레온
칠레정미소일군련맹
위원장 끄레스쎈씨오 루나호르헤 모레노
칠레근로자통일중앙청년체육협회
위원장 뻬드로 엔리께스
비서 안또니오 쎄뿔베다
칠레도시공무원전국협회
위원장 린꼬나니 베리오스
칠레근로자통일중앙싼띠아고주위원회
마끼노 싼체스
기자 아니발 과우레
방송기자 무릴요

싼 띠 아 고
1972년 4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그이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드림)

에두아르도 쏘리아노

1장

김일성동지 만세!
사회주의조선 만세!
전세계 인민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노래하노니
아, 오늘은 용감하고 천재적인
불패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탄생일!
그 이름 김일성, 그 어디서나 들려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도
그 이름앞에 제국주의반동들은
떨며 쓰러집니다.
아, 그이의 사상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하나의 샘터
모든 대륙 모든 인종
모든 인민들이 그샘을 마시나니.
아, 그이의 창조적천재
강철의 의지
인류력사에 둘도 없을 애국주의
온 세계는 그이를 경모합니다.
오, 거침없이 전진하시는
김일성동지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력사적시대를 잘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빛발을 따라 인도되나니
꺼질줄 모르는 조선에 비치는 그 빛을 따라
오늘 만사람의 가슴속에
당신의 영상이 간직되였고,
격전장 그어디에서나
당신의 사상,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착취받는 모든 인민 당신의 이름을 기치로 삼노니
만약 당신께서 진두에 서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조선은 과연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2장

당신께서 압록강을 건느실 때
마음의 괴로움은 얼마였으며.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당신의 빛나는군사예술이
였습니다.
당신의 천재적예지와
맑스—레닌주의적확신성은
불패의 당을 창건하시고
영생불멸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양키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의 승리
조선의 평화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여기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당신의 첫째가는 위대한 공헌
아 위대한 수령
충직한 맑스—레닌주의자
모든것은 당신의 현명한 위업의 결실입니다.
조선로동당 창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조선인민군대의 창건자
폭풍과 시련속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였고
새 인민교육체계를 창설하시였습니다.
만고의 빨찌산,
강철의 령장,
탁월한 원수,
위대한 정치가,
현명한 수령,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보위자,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대사상
리론가,
당신의 위업을 만경대만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선만이 당신을 모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시에 우리의 수령
당신의 그 붉은 빛발은
온 누리에 비쳐오나니
당신의 재능과 예지는
로동자, 농민, 학생
모든 혁명가들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삶의 필수적무기!

3장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만고의 빨찌산영웅
수천수만 격렬한 전투에서 승리자!
보천보와 서수라
로흑산, 경박호
륙과송과 훈춘
1211고지, 351고지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셨습니다.
조선과 김일성동지는 하나의 유일체
김일성동지는 강철의 령장
그이의 전략과 전술로써 무장한
조선 그 자체가 패전을 모르는 하나의 군대
자기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난관을 뚫고 영용하게 전진하는 조선
얼마전만 하여도
재더미와 불길, 진탕속에
조선의 도시와 마을들이 놓여있지 않았더냐,

4장

김일성!
모든것을 비쳐주는 붉은 태양
낮과 밤을 가림없이 밝혀주는 붉은 태양
백두산도 경건히 받들어모신 인민의 수령
인민들은 당신에게 감사드리며
당신의 천재적이며 백전백승의 사상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투쟁의 무기로 삼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압박받는 인민들의 탁월한 수령
영광이 있으십시오!
전세계 혁명가들은 당신께 축하를 보냅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탄생하신 예순돐 기념일
근 반세기의 찬란한 투쟁로정을 빛내이신
수령님이시여
만수무강, 만수무강하십시오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성과 바라며
영웅적조선의 고무자적천재
김일성동지 만세!
당신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만세!
붉은 태양 김일성동지 만세!

(필자는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책임자임)

명 절

마트하드 아까쉬

노래를 드립니다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시는
김일성동지께 이 노래를 드립니다.

끝없는 존경의 노래
영원한 심장의 노래
세계는 당신의 탄생일에 노래를 드립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명절입니까
당신께서 맞고 보내는 날과 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명절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이신 당신을 우러러보며
당신께서 이룩하시는 모든 위업을
경모의 정으로 쳐다보며
당신의 건강하신 안광에서
태양의 빛발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명절로 맞고있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인 명절입니까
당신께서 생활하시는 매일매일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투사들의 명절입니다.

당신을 따라 굴함없이 싸우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손에 총을 놓지않으며
당신을 따라배우며 영웅으로 살려는
당신의 형제들의 명절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명절입니까
당신께서 혁명을 이끌어가시는 매일매일은
근로하는 온세상 로동계급의 명절입니다.

당신을 친근한 벗으로 동지로 모시며
당신의 빛나는 눈에서 광명을 내다보며
당신의 손길에서 꽃피는 미래를 보며
행복을 창조해가는 로동자들의 명절입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기에 그들은 모든것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기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존경의 노래를 당신께 보내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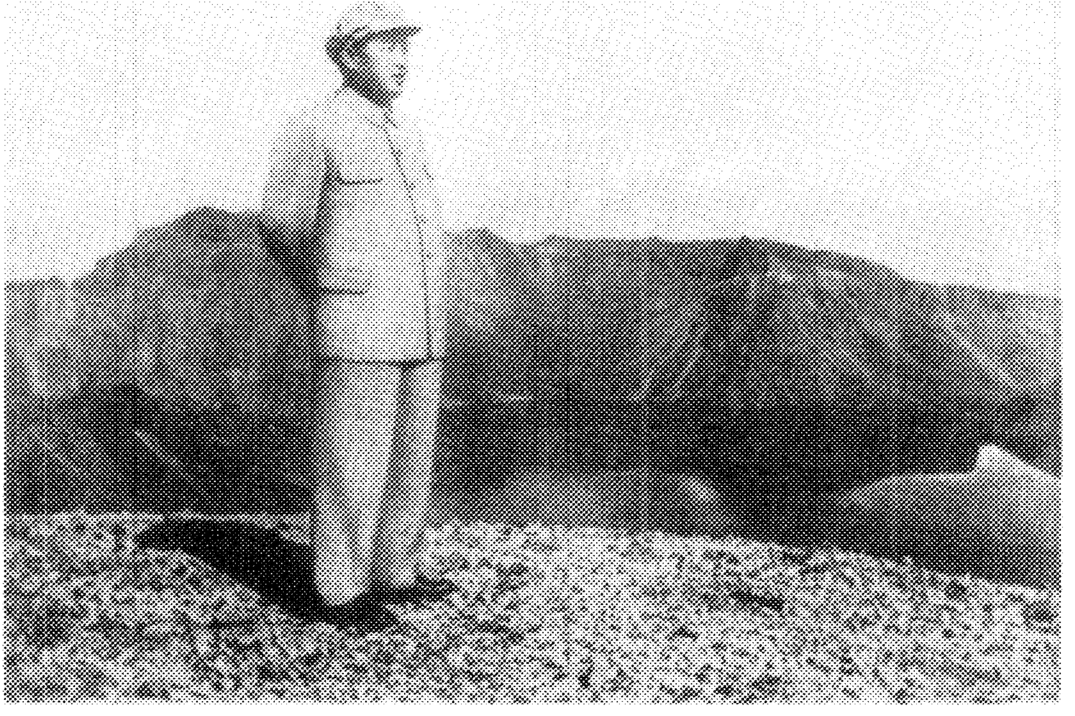
당신의 탄생일은 얼마나 위대한 명절입니까
당신의 탄생일은 이 세상농민들의 명절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성함을 노래불러 전하며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빛발을 온몸에 받으며
당신의 위대한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농민들의 명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계인민들의 명절입니다.
영원히 대를 이어가며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보위하며
당신을 친어버이로 모시는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명절입니다.

아! 오늘은 나의 가장 귀중한 명절
온 세계 인민들이 영원히 누려갈
가장 영예롭고 빛나는 명절입니다.

디마스끄에서

(필자는 수리아문학신문 주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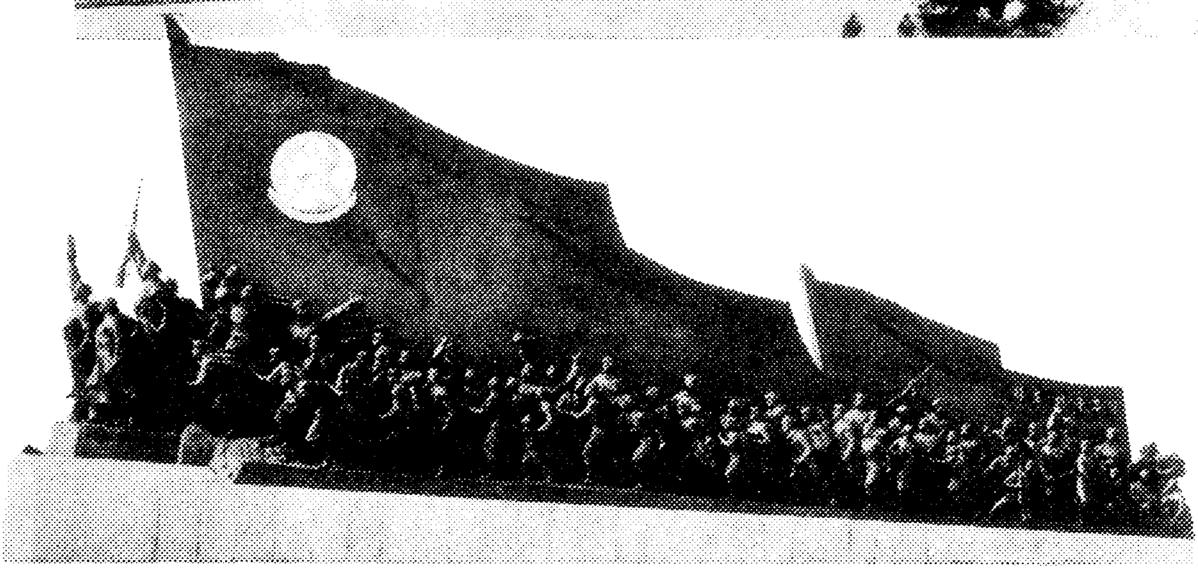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고하게 인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우리 인민은 평양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어버이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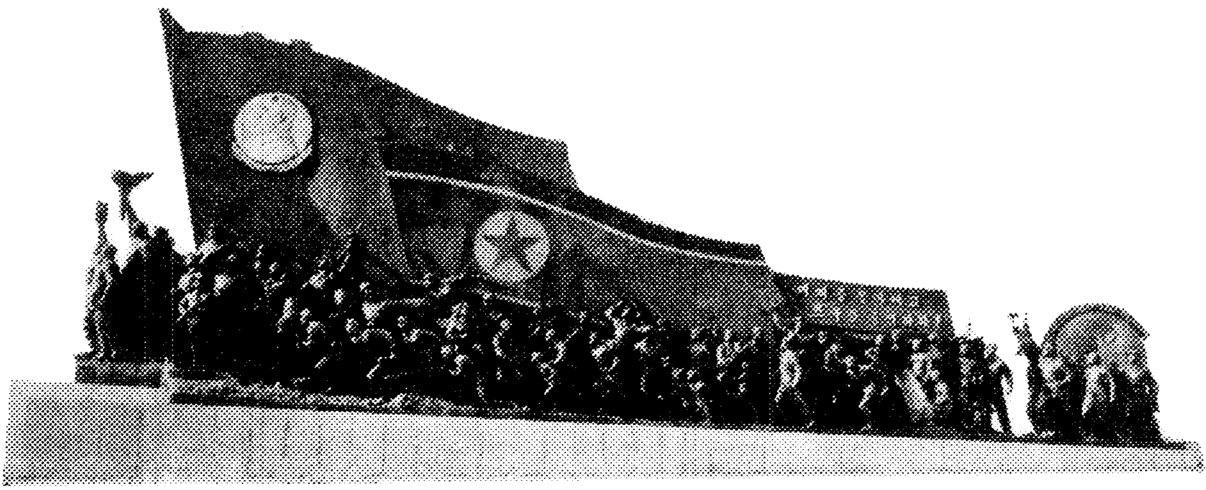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왼쪽에 세워진 대중조각군상(정면군상, 좌측군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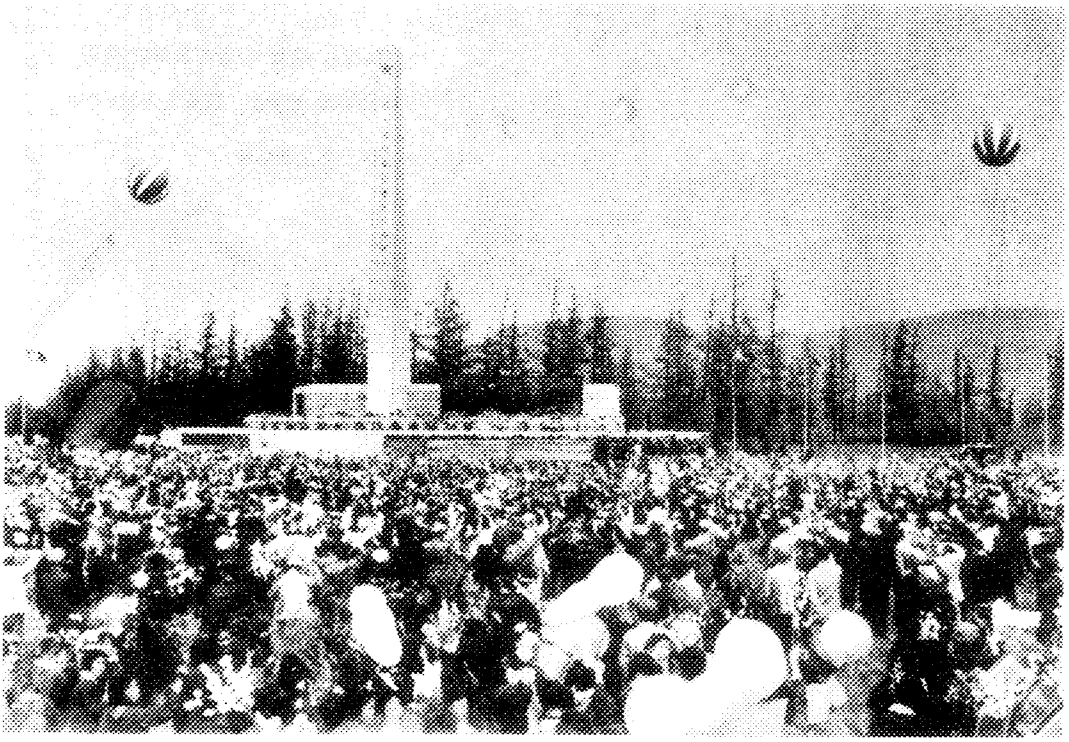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오른쪽에 세워진 대조각군상(정면 군상, 좌우군상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항일혁명투쟁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력사의 대기념비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세웠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의 [illegible] 탑의 기본주제내용을 형상하고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여 강도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혁명전통,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튼튼한 밑천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지도리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요불굴의 투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예리한 통찰력,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행정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적혁명로선의 빛나는 구현과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독자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들을 우리 나라 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떤 기존명제나 공식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항일무장투쟁의 발전단계들을 규정하시고 매 단계, 매 시기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으며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의 비굴한 행동과 주체확립을 방해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따라서 피압박민족은 오직 반제투쟁을 강화하여야만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 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고 가르치시고《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기백으로 무장투쟁을 벌려 일제를 무자비하게 족치시였다.

이와 같은 철저한 반제사상은 온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아성을 종국적으로 짓부실 때까지 공산주의자들, 혁명적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정에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것은 수령님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였다.

수령님께 있어서 온갖 사색과 실천의 기준은 오직 혁명의 리익 하나뿐이였다.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혁명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심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문제의 고찰과 처리에서 언제나 정확하시였고 혁명령도에서 항상 현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요구라면 사생결단의 준엄한 마당에도 한몸의 위험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뛰여드시여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원칙성, 대담성,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수완,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시였다.

그러시기에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줄곧 고조에로만 이끌어오실수 있었다.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실로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사들의 불멸의 구감이였다.

수령님을 따라배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영명하고 위대하신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그이를 조선혁명의 운명과 련결시키면서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그 어떤 명예도 직위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우는것이였다.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은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였다.

수령님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은 또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깊이 연구하여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필승불패의 힘을 주는 행동강령이며 지침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한구절, 한글자를 심오하게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수백 수천리 떨어진곳에 홀로 남아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 그이의 뜻대로 살며 싸워 이겼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체계는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우리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대를 이어 소중히 간직하고 튼튼히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당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와 인민정권건설의 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기초와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시는 등 실로 조선혁명의 가일층의 발전과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영생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는 과정에서 귀중한 투쟁경험들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시고 풍부한 당사업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인민정권의 기초를 쌓으시고 고귀한 인민정권사업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대중단체의 건설과 사업경험, 혁명무력의 건설과 군사활동분야에서의 고귀한 경험, 통일전선사업경험 등 참으로 귀중한 투쟁경험을 수많이 창조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사업방법과 작풍문제를 대중지도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적군중관점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군이란 말그대로 단독적인 로력이나 열망만으로써는 안된다.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싸울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인민에게서 배우고 인민을 잘 교양하고 조직하여 옳게 발동시킨다면 어떤 일이건 못해낼것이 없다.…

그이께서 밝히신 혁명적군중관점은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관점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관점이며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사업을 그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관점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하시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며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중심고리를 찾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등의 진실로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하시여 겸손성과 소박성, 고상한 인간성과 문화성, 공산주의적혁명가적기풍, 이신작칙의 공산주의적사업작풍,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동지적의리 등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 적을 고립시키고 온갖 반일력량을 묶어세워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해 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창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의 본질적특성, 보편적진리로 하여 현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그 내용이 비상히 풍부하고 심오하며 그리고 다방면적이고 심각한것으로하여 가장 높은 사상적수준에 있으며 따라서 위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무한히 넓으며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는것이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찬란한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은 우리 나라에만 아니라 싸우는 세계 공산주의자들,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생활의 거울로, 투쟁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이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듯이 그이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 역시 영원히 타오르는 혁명의 횃불이 되여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것이다.

국내주요혁명사적지

인민의 태양이 솟은 혁명의 요람—만경대

만경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인민의 태양이 높이 솟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이며 조선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만경대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리(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혁명적가정의 전통이 깃든 력사의 땅, 만경대의 한 빈농가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삼촌, 동생들 그리고 외할아버님,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은 1866년 대동강에 침입해온 미국 해적선 《샤난호》를 불태워버리는 인민들의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 역시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강의하게 싸우신 애국자들이시였다. 두분께서는 아드님들과 손자들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면서 모진 가난과 일제의 박해에도 굴함없이 싸우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시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도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일찌부터 반일혁명투쟁의 길에 몸바쳐 나서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시며 열렬한 녀성혁명활동가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1908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한가정을 이루신후 집안의 기둥이 되여 모든 일을 도맡아보시면서 온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시고 혁명화하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또한 열렬한 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와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철주동지, 열렬한 혁명투사 김원주동지도 이곳에서 태여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시였으며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신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시였다.

이러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애국주의 교양과 자신께서 몸소 보시고 체험을 통하여 반일애국사상과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워나가시였다. 조선인민의 거족적반일항쟁이였던 3.1봉기 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그 대렬에 참가하시여 애국적정열을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곱살되시던 해에 평양감옥에 가시여 일제교형리들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형색을 분간할수 없게된 아버님을 찾아뵈옵고 오신 이후 일제원쑤놈들을 때려부시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 날 만경대 고향집에 달려들어 비밀문건을 찾아내려고 발악하는 일제경찰놈들을 사금파리를 재운 고무줄총으로 쏘아 혼쌀을 내주시였으며 그리고 어느 해 여름에는 동무들과 함께 만경봉에 오르시여 만경봉기슭에서 술놀이판을 벌려고있던 일제놈들과 지주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워 쫓아버리기도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부모님을 따라 중국동북으로 가시여 팔도구에서 소학교를 마치신후 우리 나라 말과 글, 조국의 력사와 지리를 배워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고 만경대로 나오시여 칠골 외가에서 창덕학교에 다니셨다.

《…사람은 우선 제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대로 창덕학교에서 학습에 열중하시였다. 1925년 2월중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시여 《…조선이 독립하지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굳게 결심하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그후 1926년 6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후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15성상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심으로써 조국해방의 빛나는승리를 이룩하시였다.

1945년 조국을 해방하시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만경대의 고향집에서 20여년만에 오매에도 그리던 가족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오늘 만경대에는 우리 나라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혁명적인민들이 그칠사이없이 찾아오고있다.

만경대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세기동안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계시며 세계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공헌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존경과 감탄을 금치못하고있다.

만경대를 찾은 한 외국사람은 《이곳은 조선사람뿐만아니라 전세계 혁명가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무적힘을 주는 혁명의 책원지이다. 그렇기때문에 만경대는 영광과 경모의 땅으로 되고 있다》고 하였다.

참으로 인민의 태양이 높이 솟아오른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지로서 우리 인민을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훌륭한 학교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만경대고향집

만경봉밑의 양지바른 아늑한 곳에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인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의 고향집이 있다.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이 초가집은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께서 19세기중엽 평양중성리에서 사시다가 생활이 너무 구차하시여 지주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얻은 산당집이였다.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이집에서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면서 극히 가난하게 살아왔다.

이 집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오직 혁명을 위한 한 길에서 몸바쳐싸우신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들을 낳아키워온 집으로, 그분들의 혁명투쟁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집이다.

이 초가집에서 1894년 7월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께서 탄생하시여 청소년시절을 보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삼촌이신 김형록선생과 김형권동지, 동생이신 김철주동지와 사촌동생이신 김원주동지들도 모두 이곳에서 탄생하시였다. 또한 이 집은 강반석녀사의 뛰여난 재질과 인자하고 강의한 성품, 원쑤들과는 견결하게 싸우신 투쟁정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있다.

초가집에는 여기서 3대를 살아온 이 집안의 총재산인 약간의 식기류와 퇴색한 농짝, 물레와 베틀, 보습과 낫, 작두 그리고 90년전부터 소중히 다루며 대를 물려온 이그러진 독, 강반석어머님께서 금이 가면 때고 때여 본색을 모르게 된 물동이 등이 소중히 보존되여 있다.

군함바위

만경대고향집 길건너 산밑에는 크고 작은 바위돌들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중 군함파도 같이 우뚝 솟은 큰 바위는 김일성동지께서 어린 시절 군사놀이를 지휘하시던 군함바위이다.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 교양을 받으셨으며 더우기 김형직선생님께서 옥중생활을 하시게 되자 김일성동지의 가슴속에는 왜놈들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불길처럼 타번지셨다.

그때 그이께서는 날이 밝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원쑤 치러간다.》고 하시면서 마을아이들을 거느리고 군함바위에서 왜놈을 쳐부시는 군사놀이를 하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함바위에 높이 올라서시여 《원쑤 왜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베여버리라!》하고 소리높이 웨치시며 긴 나무칼을 뽑아 휘두르면서 군함바위를 떠나 만경대에로 돌격하시여 《만세》소리 높이높이 울리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왜놈치는 군사놀이를 하시며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였다.

백양나무

만경대 초가집 앞마당에는 푸르싱싱한 가지가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양나무가 서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양숭실중학교에 다니시던 어느날 두 동생과 함께 백양나무를 심으시였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조국강토에 기여든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지시면서 《…우리는 왜놈들과 싸워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이 백양나무의 푸른 가지가 저 하늘높이 자랄 때면 우리 조국도 해방되고 독립되겠는데 우리 모두 그때까지 굴함없이 싸워 나라가 독립된후 행복한 새 나라를 세우고 잘 살아보자》고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심으신 백양나무는 오늘도 선생님께서 념원하시던 행복한 새 나라의 번영을 축복하듯 하늘높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썰매바위

만경대 고향집 뒤 산기슭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 바위에서 마을의 동무들과 함께 썰매놀이를 하시였다.

어린 시절에 그이께서는 팔타기놀음과 썰매놀이를 자주하시였으며 벼짚과 헝겊으로 공을 만들어 차시였다.

이런 놀음에 옷이 빨리 해졌으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옷이 좀 해지면 어떠냐. 그저 굳세고 씩씩하게 자라면 그만이 아니냐. 내가 대신 밤잠을 좀 덜자고 무명 몇자만 더 짜면 되지…어서 실컷 뽈도 차고 썰매도 타거라.》고 말씀 하시였다.

아드님의 장래를 위하여 어떤 고달픔도 기쁨으로 여겨가시는 어머님의 수고를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그후 썰매놀이를 그만두시였다.

썰매바위는 오늘도 강반석어머님의 깊고깊은 사랑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씩씩하게 자라나신 김일성동지의 슬기로운 성품을 감명깊게 전하여주고있다.

들메나무

만경대고향집곁에 솟아있는 들메나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 시절 《무지개잡이》를 하시던 나무이다.

소나기가 멎은 뒤 대동강물우에 찬란히 빛을 뿌리며 일곱색무지개가 만경봉에 비끼면 그이께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잡으려 들메나무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봉에 비낀 무지개를 잡으려 오르시여 산좋고 물맑은 이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새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키우셨으며 조국과 민족을 일제의 철쇄에서 해방하여 찬란한 무지개비낀 지상락원을 꾸리시려는 위대한 뜻을 키우시였다.

낚시터

만경대의 고향집에서 서쪽으로 100메터거리가 잘 되는곳에 낚시터가 있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시절 동무들과 함께 낚시터에 오시여 낚시질도 하시고 헤염도 치시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커다란 돌판우에 앉으시여 낚시를 드리우시고 책을 읽으시였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기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가을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대원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낚시질을 좋아하는것은 고기를 잡는 재미때문만은 아니요. 고기잡는 재미도 있지만 그만 못지않는 다른 재미도 있소. 례하면 시인이 낚시질하면서 글귀를 생각하며 발명가가 낚시를 드리우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재미란 고기잡는 재미보다 결코 못지 않다고들 하오. 이런 사람들은 고기잡는 재미보다 더 깊은 맛을 아는 사람들이요.

동무도 낚시를 드리우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문제가 곧잘 풀려나온다는것을 알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 순간순간을 오직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조선혁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그이께서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지니고 키우신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소나무

만경대에 우뚝 솟은 만경봉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무지개를 잡으시겠다고 오르시던 《무지개소나무》가 있다.

그이께서는 《들메나무》에서 잡으시지못한 무지개를 기어이 잡으시려고 이 소나무에 오르시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소나무에 오르시여 대동강우에 비낀 일곱색무지개와 그 밑에 가없이 펼쳐진 푸른 들을 황홀하게 굽어보시며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였다.

그네터

만경대 고향집 뒤동산에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어린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그네에 태우시고 반일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던 유서깊은 그네터가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투쟁하시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놈들의 악랄한 고문에 모습조차 분간하기 어렵게 된 아버님을 보신후부터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군하시였다.

그때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김일성동지를 데리시고 그네터로 가시여 그네를 태워주시며 《증손아, 저앞의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너의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너의 아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웠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를 붙들어가겠니?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아드님의 가슴속에 아버님의 큰 뜻을 깊이 새겨주셨으며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강한 애국심을 안겨주시였다.

학습터

앞이 탁 트이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눈아래 굽어보이는 만경봉기슭에 김일성동지께서 어린 시절 공부하시던 유서깊은 학습터가 있다.

어린시절 그이께서는 이 학습터에 자주 오르시여 아버님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창덕학교에 다니실때도 자주 이곳에 오시여 학습에 열중하시면서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였으며 집안 농사일을 힘껏 도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얼마나 정신을 들여 책을 읽었던지 보슬비가 내리는것도,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오는것도, 풀을 먹이려고 끌고오셨던 소가 고삐를 풀고 집으로 내려간것도 모르시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시절 가시는곳마다에 이러한 훌륭한 학습터를 만드시였다

씨름터

만경봉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시절 동무들과 씨름을 하시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던 씨름터가 있다.

그이께서는 씨름을 잘하시여 언제나 동무들을 보기좋게 지우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이가 퍽 우인 동무와 씨름에서 힘이 부쳐도 수를 써서 기어이 이기시고야 말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서 씨름을 하시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 싸울 몸을 튼튼히 단련하시였으며 강철같은 의지와 불굴의 투지를 키우시였다.

샘물터

만경봉기슭 아래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어린시절 아버님과 함께 오시여 랭수마찰을 하시던 유서깊은 샘물터가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왜놈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선 몸이 튼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른 아침마다 아드님을 데리시고 이 샘물터로 오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 시절 아침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바위틈에서 솟아오르는 시원한 물도 마시고 랭수마찰도 하시면서 몸을 단련하셨다.

오늘도 강철의 령장을 키워낸 이 샘물은 력사의 땅, 만경대와 더불어 영원히 솟아오르고있다.

순화학교

순화학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다니시였으며 만경대 일대를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하실때 몸소 교편을 잡으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힘쓰시던 유서깊은 학교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순화학교를 마치신 1911년에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고학으로 공부하시였는데 그후 보다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위하여 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였다.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선생님께서는 만경대 일대 가난한 농민자제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육성하시는 한편 반일독립운동을 계속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후대교육에서 반일애국주의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애국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청년들과 농민들속에서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힘을 키우고 합쳐야 하며 《뜻이 원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 련계를 맺고 반일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시였다.

애국의 큰 뜻이 깃든 혁명의 땅—칠골

칠골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의 분부대로 조선의 현실속에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워나가시였으며,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이다.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로부터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쪽으로 10리남짓하게 떨어져있는 칠골은 앞이 환히 트인 벌과 높고 낮은 둔덕을 끼고있는 오붓한 농촌마을이다.

바로 여기에 김일성동지께서 부모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만주에 가시여 팔도구소학교를 다니시다가 사람은 우선 제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조국에 나오시여 창덕학교에 다니실때 계시던 외가인 자그마한 초가집이 자리잡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은 칠골에 창덕학교를 세우시고 30여년간 후대교양에 몸바치신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자이시였다. 선생께서는 3. 1인민봉기때에는 대동군룡산면내 인민들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랑독하시고 반일독립시위를 조직하시여 칠골에서부터 평양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렬을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 역시 일찍부터 조국광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시였다.

이러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시였고 뛰여난 성품과 재질을 소유하고 계시였다.

칠골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현실속에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워나가신 유서깊은 혁명의 땅이다.

애국의 큰 뜻이 깃든 혁명의 땅, 칠

골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다니시던 창덕학교와 그때 계시던 외가인 초가집, 그리고 그이께서 학습하시며 동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던 학습터와 군사놀이를 하시던 메나골, 조국광복의 굳은 맹세를 다지신 결의터 등이 있다.

칠골 외가집

배움의 천리길을 나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현실속에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워나가신 유서깊은 집이며 열렬한 녀성혁명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집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1892년 4월 21일 이 집에서 강돈욱선생님의 둘째따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릴적부터 일제와 착취계급을 미워하고 같은 처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계급적우애심이 강하시였다.

칠골 외가에는 강반석녀사의 알뜰하고 뛰여난 재질을 말하여주는 물동이와 물독, 윤기나는 놋그릇, 베틀, 토리개 등이 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철들기시작하자부터 스스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농사일을 하시였으며 부엌일, 집안팎일을 맡아 알뜰히 하시였을뿐만아니라 내일 네일 가리지 않으시고 같은 처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극진히 도우시였다. 그러한 가운데서 녀사께서는 일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 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알기쉽게 깨우쳐주군 하시였다.

칠골 외가의 헛간 입구에는 어린시절 녀사께서 일제와 지주놈을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있는 하나의 절구가 있다.

녀사께서는 피를 매끼 이 절구에서 찧어 때식을 끓였다. 마을사람들은 힘들게 매끼 절구에 찧어서 하지 말고 정미소에서 찧어오라고 말하였다. 그럴때마다 녀사께서는 동삐가 휘도록 지은 곡식을 일제와 지주놈에게 빼앗기고 정미소에 삯까지 내고나면 남을게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뜯기우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좀 들더라도 찧어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배우려는 의욕이 매우 강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우리 글을 배우시고 오빠의 방조를 받으시면서 비록 학교에는 다니시지못하였으나 훌륭히 학습하시였으며 새것과 진보적인 것을 열렬히 지향하여 투쟁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또한 녀자들에게 굴종만을 요구하는 봉건적인 질곡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녀자들 자신이 자기가 갈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 주시였다.

이와 같이 어린시절 녀사께서 지니신 고매한 사상과 덕성, 뛰여난 재질은 장차 혁명가의 안해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 키우신 조선의 어머니로, 자신의 모든것을 오직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다 바쳐 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로, 우리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될수있는 터전으로 되였다.

칠골 외가집에는 배움의 천리길을 나오신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실때 계시던 한칸의 자그마한 방과 외할아버님께서 그이께 깔아드리셨다는 돗자리와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며 켜시던 남포등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방에서 아버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시면서 분초를 아끼시며 열심히 공부하시였으며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워나가시였다.

창덕학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 시절 공부하시던 유서깊은 학교이다.

창덕학교는 칠골 외가집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그리 멀지 않는 자그마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남향받이로 앉은 세간짜리 《ㄱ》자형의 몰기와집으로된 창덕학교는 1907년 강돈욱선생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제들을 위하여 세운것인데 김일성동지께서는 동쪽으로 꺾어진 교실 우축 맨 앞책상 왼편자리에서 공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업시간에는 언제나 단정히 앉으시여 열심히 배워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르는것을 감추거나 그저 넘겨버리지 않으셨으며 알고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훌륭히 발표하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창덕학교에 편입하신지 얼마안되여 뒤졌던 과목들을 모두 따라 앞서시였고 학기말에는 단연 전교에서 으뜸가는 성적을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습반을 무으시고 뒤떨어진 동무들을 친절히 도와주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느날 동무들이 그이께서 중국말을 잘 아신다는것을 알고 중국말을 꼭 한번이라도 해보라고 졸라댔다. 그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글쎄, 필요하다면 중국말도 해야지. 그러나 조선사람은 우리 말을 더 잘 알아야 하며 우리 글을 더 많이 배워야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자기 정신으로 살고 자기 나라 것을 더 잘 배워야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창덕학교에 편입하신지 얼마안되던 어느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표지에 《국어독본》이라고 씌여진 일본어책을 가지고 외할아버님께 가시여 이 책을 가지고 글을 왜 배워야 하며 일본어책을 왜 《국어독본》이라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 물으심에 못내 감탄하신 외할아버님께서는 일제놈들의 강요로 일본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수 없는 가슴아픈 사연을 이야기하시면서 제 근본을 잊지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의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듣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없이 자기 방에 돌아오시여 《국어독본》이란 네글자중에서 《국》자를 긁어버리고 《일》자를 써넣어 《일어독본》으로 만들어버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결코 일본어가 조선의 《국어》로 될수없으며 조선사람들은 조선글을 절대로 버릴수 없으며 조선글을 더욱 빛내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부하는 여가와 방학때 외가집과 만경대고향집의 바쁜 일손을 도우셨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당하는 고역과 생활처지를 직접 체험하시였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가집의 마당질을 도우셨다. 그때 그이께서는 외삼촌은 저렇게 뼈가 휘도록 일하는데 집안은 언제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암만 생각해도 이놈의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일제에 짓밟혀 신음하는 조선의 모든 현실은 김일성동지로 하여금 더욱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시였다.

《이 세상에 남의 등을 긁아먹는 지주, 자본가가 없어야 한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패속이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가 없을 때라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잘 살수 있다.》

이것은 창덕학교 5학년때의 그이의 학습장에 씌여진 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벌써 나라를 찾자면 반드시 일제침략자들뿐만아니라 그 앞잡이들, 지주놈들을 때려부셔야 한다는것, 나아가서는 가난한 근로대중이 행복하게 살 새 세상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생각하시게 되였다.

학습터

창덕학교 뒤산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실때 학과시간이 끝나거나 이른 새벽이면 자주 오르시여 학습하시면서 동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던 유서깊은 학습터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 학습터에서 조용히 책읽기를 즐겨하셨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책만이 아니라 애국자들의 전기와 그들이 쓴 작품들도 많이 읽으시였다. 학습터에서 그이께서는 동무들에게 애국적감정이 깃들어 있는 좋은 시들을 읊어 주시거나 미제침략선 《샤만호》를 물리친 고향사람들의 용감한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뜨거운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어느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습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창덕학교앞으로 뻗은 신작로로 긴 전선대를 실은 자동차들이 달리는것을 보고 전기불이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동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왜놈들이 늘이는 전기줄은 조선사람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거미줄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속이 엉큼한 거미란놈은 어두운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줄을 늘여놓고는 춤을 추는 나비를 잡아 피를 빨아먹고 살지 않느냐.

왜놈들은 바로 그런 거미와 같은 놈들이란다.그놈들은 전기줄을 자꾸 늘여놓고 조선사람의 주머니를 깡그리 털어가는것만이 아니라 기름이 뚝뚝 흐르는 조선의 쌀을 더 빨리, 더 많이 찧어서 제놈들의 나라로 실어가자는 수작이란다. 그리고 전기로 공장과 광산을 빨리 돌려서 우리 나라 땅속에 묻힌 귀중한 보물들을 몽땅 캐가려는 날강도놈들의 짓이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일찍부터 남달리 일제를 미워하시는 정신이 강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원쑤를 치고 조국의 광복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크나큰 뜻을 더욱 무르익혀가시였다.

메나골

창덕학교뒤산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동무들을 데리고 왜놈들을 때려잡는 군사놀이를 조직진행하시던 메나골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놀이를 조직지휘하실때면 동무들에게 대담성과 그리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하게 요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메나골에서 닭알귀신이 나온다고 하면서 무서워한다는것을 아시고 밤에 군사놀이를 조직하시여 메나골에 대한 정찰을 진행하시였다. 군사놀이를 거듭하는 동안 모든 아이들이 메나골에 갔다왔으나 《귀신》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에게 세상에는 《하나님》도 《귀신》도 없다는것을 말씀하시여 미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깨버리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놀이를 조직할때는 《왜놈군대》의 진을 대담하고 용감하게 쳐들어가 점령하는 《진치기》놀이를 즐겨 조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진치기》놀이에서 상대편과 자기편 동무들의 좋은점과 약점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알맞는 전술을 생각해내시였으며 상대편의 전술을 알아내시고 새로운 전술과 전법을 짜심으로써 적진지를 영낙없이 점령해버리군 하시였다.

창덕학교뒤산에는 메나골과 함께 씨름터도 있는데 김일성동지께서 씨름을 하실때도 어떤 재주를 써서라도 자신보다도 두세살우인 상대방을 지워놓군 하시였다.

이와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덕학교 뒤산 메나골에서 군사놀이를 자주 조직하시고 왜놈들을 무찌르는 백전백승의 군사전법을 연구하고 익히시며 조국광복의 위대한 뜻을 키워나가시였다.

결의터

조선을 배우며 혁명의 위대한 뜻을 키워가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1925년초 어느날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받으셨다.

왜놈에 대한 불타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창덕학교뒤산에 오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이 계시는 북쪽하늘을 바라보시며 **《어디 보자, 내 죽는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이 원쑤를 갚고야 말리라!》**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가는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아버님의 가르치심대로 만난을 뚫고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다지신 그이께서는 읽으시던 책들과 학습장들을 정리하시고 집에 있던 자신의 사진을 아무도 모르게 죄다 감춰버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벌써 왜놈을 쳐부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고 이렇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꿈과 위대한 포부를 키우셨으며 자애로운 할아버님, 할머님이 계시고 외가가 있는 그리운 고향을 뒤에 두고 1925년초 열네살되시던 해에 중국 팔도구를 향해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조국광복의 새벽길을 헤쳐간 혁명의 땅—봉화리

봉화리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이다.

봉화혁명사적지는 평양에서 동쪽으로 90여리 떨어져있는 평안남도 강동군 봉화리 내동부락(당시 평안남도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 내동부락)에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만경대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반일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넓혀나가시기 위하여 1916년 봄에 봉화리로 자리를 옮기시고 1917년 가을까지 계시면서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이곳은 그때 반일독립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던 강동군, 순천군, 성천군, 대동군 일대와 련계를 가지기 좋았고 평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강변산골이여서 일제놈들의 눈을 피하여 활동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였다.

봉화리로 투쟁무대를 옮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시 분산되여 활동하고 있던 동지들을 한데 묶어세우고 장차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정치, 군사력량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위한 반일혁명조직을 결성하시는데 온갖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1917년 3월 23일 국내외에 있는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묶어세워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를 지도하시는 한편 조선국민회의 지하활동을 가리워주며 그의 활동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방조해주는 합법적조직인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를 뭇고 여기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양과 강동 일대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동지규합과 조선국민회조직의 확대, 군사간부와 인재의 양성, 자금조달과 무기구입, 광범한 군중속에서의 반일애국사상의 선전 등 수많은 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국내외 각지에서 찾아오는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여 사업을 토의하시고 새로운 과업을 주시군 하시였다.

한편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명신학교에서 직접 교편을 잡으시고 《지원》의 애국사상에 기초하시여 청소년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시였으며 인민대중속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반일애국문화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어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모님의 교양을 받으시면서 애국의 높은 뜻을 키워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동에 계실때를 감회깊이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전에 강동에 있을 때 아버지가 써준 제강을 외워가지고 무슨 기념회에 나가서 오늘의 소년단축하단이 하는것처럼 연설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19폐지)

지금 봉화혁명사적지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과 사적비가 있으며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사적물들이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명신학교 앞마당에는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으시고 한손에 책을 펼쳐 드시고 다른 한손으로는 교탁을 짚으신채 멀리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시며 서계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 싸우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선생님의 서거 마흔돐이 되는 날인 1968년 6월 5일에 세웠다.

명신학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가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후대들을 《지원》의 애국사상으로 교육교양하시던 학교이다.

봉화산에서 뻗어내린 낮은 언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이 학교는 《ㄱ》자형의 그리 크지않은 아담한 집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교편을 직접 잡으시고 가난한집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입학시켜 그들을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지덕체를 갖춘 애국자,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후대교양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를 가르쳐주시면서 언제나 글 한자를 가르쳐도 거기에 애국의 사상을 불어넣어주시였고 글 한줄을 지어도 《백두산》, 《압록강》, 《무궁화》와 같은 제목과 침략자 일제를 폭로하는 제목을 달고 짓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적자부심과 반일애국사상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자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너희들이 공부를 왜하는가, 그것은 왜놈들 앞에서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또 왜놈의 개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이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금은보화도, 쌀도 모두 빼앗아가고있다.

왜놈들을 내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없다.

우리는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적감정과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기 위하여 《교가》, 《정신가》, 《전진가》 등 애국주의사상을 담은 많은 노래를 손수 지으시여 그들에게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절절한 애국사상과 투쟁정신으로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가을 이곳 명신학교에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 평양감옥으로 가시였다.

지금 명신학교에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직관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살림집

명신학교뒤에 두간 방에 부엌 한간으로 되여있는 추녀가 낮은 자그마한 살림집이 있다. 이 집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사업을 지도하시던 혁명의 집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봄에 가족들을 이 집에 모셔왔다.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섯살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집에서 조선국민회의 활동방침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토의하시였으며 국내외 각지에서 찾아오는 조선국민회 공작원들의 사업보고를 들으시고 새로운 과업을 주시군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조선국민회 공작원들을 성의껏 도와주시였다.

이 집 지붕 굴뚝곁의 기와밑에는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의 비밀문건을 감추어 두시였던 자리가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부탁대로 비밀문건을 꺼내여 재빨리 처리함으로써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시였다. 1917년 가을, 조선국민회 사건으로 일제경찰놈들에게 잡혀가시던 선생님께서는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떡전나루터에서 비밀쪽지를 강반석녀사께 보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체포되여 가신뒤 강동기마경찰대놈들이 가택수색에 달려들었을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자 뒤테면 봐라》고 하시면서 놈들을 항거하여 완강히 싸우시였다. 이때 어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의 강의하고 억센 투지를 보시였다.

선생님이 체포되여 가신후 강반석녀사께서는 선생님께서 하시던 혁명사업의 뒤수습을 다하신후 이듬해 봄에야 이곳을 떠나시여 만경대로 가시였다.

지금 이 집에는 수수한 살을 깐 방에 책상이 있고 부엌에는 강반석녀사의 고매한 품성과 알뜰한 살림살이 모습을 보여주는 부엌살림도구들이 놓여있다

운동장

운동장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명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손수 닦으신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운동장을 꾸려 놓고 학생체육운동에 필요한 기구들도 손수 만드시였다.

지금도 이 운동장 한쪽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참나무로 만들어 세워놓은 목봉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늘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공부도 잘할수 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몸을 튼튼히 하며 투지와 용감성을 키우는데 힘쓰시였다. 그리하여 선생님께서는 군사놀이, 씨름, 공차기 등 다양한 운동으로 학생들속에 강의한 의지와 집단주의사상을 배양하시였으며 단합된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실감있게 교양하시였다.

박우물

명신학교 운동장 한 옆에 있는 박우물은 김형직선생님의 일가가 이곳에 계실때 쓰시던 샘물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조선의 물은 어딜가나 맑고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이 박우물에 조약돌을 깔고 항상 깨끗이 거두시였으며 길손들을 위해 여기에 늘 쪽박을 띄워놓으시였다.

이 샘물을 마시며 명신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국내외에서 김형직선생님을 찾아오는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또한 이 샘물을 마시며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한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 박우물가에서 강반석녀사께서는 마을녀성들에게 조선은 반드시 독립되고야만다는 신념을 안겨주시였다.

또한 이웃에서 가져온 찰떡을 물독에 넣고 열흘이 넘도록 아침저녁으로 이 샘물을 떠다 갈아넣으시여 시어머님께 드렸다는 강반석녀사의 효성이 지극한 이야기도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계시던 초가집

봉화산바위터로 올라가는 산기슭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족이 오기전 몇달동안 계시던 자그마한 초가집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자주 모여오는 마을사람들에게 당시 우리 나라 형편과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하시였다. 또 이 집에서 밤이면 야학을 열어 청년들을 민족적자부심과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주인집을 도와 보리마당질도 하시였으며 봉화산에서 땔나무도 베여다 손수 쌓아놓군 하시였다.

배나무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족들이 오시기전에 계시던 봉화산기슭에 있는 자그마한 초가집뒤에 50여년간 자라온 키높은 배나무가 서있다.

이 배나무는 1916년 가을 선생님께서 돌배나무에 추향리를 접하여 손수 자래운것이다. 이 배나무는 선생님께서 이곳을 떠나신지 7년만에 열매를 맺었으며 그 후에도 탐스럽게 추향리가 열리고있다.

선생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군 하시였다..

《…산과 들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서 과일들이 주렁지게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잘 꾸리고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나라가 문명한가 쇠퇴한가 하는것은 그 나라에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한가에 달려있다.

우리들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마을주변과 수정천가에 이르기까지 백양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들을 심어 온 마을에 록음이 우거지게 하였으며 산에서 돌을 날라다가 마을의 길을 닦게 함으로써 살기좋은 마을로 꾸리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터밭을 잘 가꾸고 강냉이와 고구마를 심어 풍작을 거둠으로써 땅이 척박한 곳이라고 나무람하는 마을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였다.

아침운동터

봉화산중턱에는 아침운동터가 있다. 선생님께서는 아침이면 나팔을 불어 이 운동터에 학생들을 모이게 하시고는 아침체조를 규칙적으로 시키고 씨름, 그네뛰기 기타 체육경기도 조직하시여 체력을 단련시키며 조직성을 길러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손수 애국적인 시와 노래를 지어 가르쳐주시였으며 수정천가에서 물싸움, 봉화산에서 살맹이 따기 등 여러가지 과외생활을 조직하시여 학생들을 곤난극복의 정신, 집단주의정신, 동지우애심, 애국적인 정서와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워나가도록 교양하시였다.

봉화산 바위터

봉화산마루에 약 100메터 치달아오르면 바위터가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국내와 국외에서 찾아오는 조선국민회 련락원과 공작원들, 애국투사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조선국민회의 활동방침과 구체적인 투쟁방도를 의논하시였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어 파견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명절이나 일요일 같은 때 연극이나 운동회를 자주 조직하시여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비롯한 독립운동자들과의 모임이나 련계를 맺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고 이런 기회에 각곳에서 모여드는 동지들과 함께 바위터로 가시여 비밀리에 회합을 가지군 하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곳에 자주 오시여 강이나 산, 전야의 푸식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에게 애국사상과 투사의 신념을 넣어주는 산 교재로 삼으시였다. 어느날 학생들을 데리고 봉화산에 오르신 선생님께서는 밭에 줄줄이 서 있는 수수대를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생들! 저것을 보라,

마치 군대가 사열을 받기 위해서 줄지어 서있는것같지 않는가.

여기서 보니 봉화산은 장군 같고 저것은 조선의 군대같다.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있다면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계시던 집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만경대에서 이곳 봉화리로 오신 처음 몇달동안 비석산 모퉁이의 돌기와집에서 생활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집에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고 련계를 가지시면서 혁명사업을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사적비

김형직선생님의 사적비는 내동마을 어귀의 나지막한 비석산우에 자리잡고 있다.

이 비는 너비 5메터, 높이 3메터 가량의 크기에 무게 11톤의 화강암을 다듬어 비문쪽을 매끈하게 하고 뒤는 자연석 그대로 하여 세운것이다.

비문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1916년 3월부터 1917년 가을까지 이곳 봉화리에 계시면서 혁명활동을 전개한 사적들이 씌여져있다.

이 비는 선생님께서 전생애를 바쳐 쌓아올린 위대한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선생님의 서거 마흔돐이 되는 해인 1966년 6월 5일에 세웠다.

비석계의 기념비

김형직선생님의 사적비에서 얼마간 내려오면 높이 약 2메터정도 되는 두개의 비석이 가지런히 서있다.

이 비석은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적활동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비석계원들이 선생님께서 이 고장을 떠나신지 10년후인 1928년 6월 24일 세운것이다. 비석계의 맨웃자리에는 비석계의 조직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의 명함이 모셔져있으며 다른 한쪽면에는 선생님께서 쓰신 《불망비문》이 새겨져있다.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 호미와 낫을 벗으로 삼고 전원에서 잡초와 씨름하는 농민들과 망망대해에서 풍파가 한번 일어나면 고기의 배속에 장사지낼줄 알면서도 한척의 쪽배에 의지하여 고기떼를 탐색하는 어민들과 충암절벽에서 한발을 비뚝하면 승냥이의 밥이 될줄을 뻔히 알면서도 약초캐기와 벌목에 종사하는 그네들도 수고와 위험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생명의 위험을 조금도 주저치 않으니 그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영원불후하는 생명을 요구함이로다.》

조선국민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우리 나라에서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한 혁명조직이였으며 그 조직규모와 활동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다.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1917년 3월 23일 평안남도 대동군 봉화리(당시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 내동부락)에서 결성되였다.

조선국민회는 조선독립을 조선사람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달성할데 대한 투쟁과업을 제기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는 자기 조직을 국내각지에는 물론 국외에까지 널리 확대하고 공작원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각지에 파견하여 그 력량을 확장하였으며 이러한 지역들에는 구역장을 두고 매년 봄 평양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중국 안동에는 련락원을, 베이징에는 통신원을 두었다.

조선국민회는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지 호상간에 일체 암호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자금조달과 무기구입, 군사간부와 인재의 양성, 광범한 군중속에 반일애국사상 선전 등 수많은 사업을 조직전개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걸고 싸울것을 맹세하는 사람들만을 엄밀히 선발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였으며 동지호상간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회원들의 사상적인 동요와 조직으로부터의 리탈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국민회는 일제의 강점하에 신음하던 조선인민들에게 반일애국사상을 널리 선전하고 광범한 대중속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지반을 튼튼히 닦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상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였으며 그의 조직과 활동의 경험은 그 이후시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학교계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강동에 계실때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조직하신 합법적조직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공동사업의 리익과 경제적인 호상부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를 뭇던 풍습을 리용하여 학교계를 뭇고 거기에 광범한 인민들을 인입하여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물심량면으로 방조하도록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학교계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계에는 책임자로서 계장을 두고 계원들의 모임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학교계를 통하여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확대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시는 한편 군중들을 결속하고 그들속에 반일애국사상을 넣어 주시였다.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중강

중강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과 열렬한 녀성혁명투사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의 발자취가 스며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의 꾸준한 교양을 받으시며 원수격멸의 크나큰 뜻을 키워가신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이다.

중강은 자강도 도소재지인 강계에서 동북쪽으로 500리가량 떨어진 압록강반의 자그마한 국경도시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8년 가을 평양감옥에서 출옥하신후 이미 감옥에서 구상하신대로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

와 중국동북지방으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기 위하여 만경대를 떠나 이곳 중강으로 오시였다.

당시 중강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연안은 혁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며 국내와 국외의 반일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시기에 유리한 곳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이 일대로 옮기던 때는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후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향전환의 위대한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선구자로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서시였다.

지금 중강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반일독립운동자들과 모든 반일력량을 통일적으로 묶어세워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위대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중강 땅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거처하고계시면서 혁명활동을 지도하시던 중강려인숙(지금은 중강사적관)을 비롯하여 《중강우편국》, 《낚시터》, 《승리터》, 《나루터》등 유서깊은 혁명사적들이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을 지도하시던 집

김형직선생님께서 중강에 오시여 얼마동안 계시면서 혁명활동을 지도하시던 집은 중강거리의 한복판 큰길에 면해있다.

이 집은 《ㅁ》자형의 동기와집인데 남향받이로 두간짜리 사랑방이 있다. 당시 이 집은 치과업과 려인숙을 겸하던 강로인의 집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 집 안채에 계시면서 이미 평양감옥에서 구상하시고 준비하신대로 표면상 직업은 의사로서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집에서 국내각지와 남만일대에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과 비밀회합을 가지시였으며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 국내깊이와 국외로 떠나보내군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병치료를 받고저 찾아오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등 각계각층속에 반일애국사상을 불어넣어주시였으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국외투쟁과 국내투쟁을 통일적으로 련결시키고 지도하시는 중추적역할을 담당수행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리신 김일성동지께 혁명의 큰 뜻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때 선생님께서 계시던 살림집 맞은편에는 높이 2메터정도의 2층다락이 있었다.

어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다락에 자주 올라가시여 아버님으로부터 교양을 받으시면서 혁명의 위대한 뜻을 키워가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무시로 찾아오는 선생님의 전우들을 자신은 굶으시면서도 정성껏 대접하셨고 땀에 젖은 그들의 옷을 빨아서 손질해 입히시였다. 또한 녀사께서는 마른날 궂은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헤치시며 련락임무를 수행하시였으며 선생님의 신변을 보호하여 위험도 서슴없이 막아나서시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일가가 만경대를 떠나서 림강으로 가시기전까지 계시던 살림집은 나어리신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뜻을 키워가시던 집인 동시에 부모님께서 조선혁명을 지휘하시던 혁명의 집이였다.

지금 이 집은 중강사적관으로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신후 중강과 림강, 팔도구, 무송 등지를 거점으로 국내반일운동과 국외투쟁을 지도하신 내용의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중강우편국

김형직선생님께서 중강과 림강일대를 혁명활동의 중심지로 정하시고 활동할때 독립운동자금확보와 통신련락에 리용하시던 우편국이다.

중강우편국은 선생님께서 계시던 강로인의 려인숙에서 나루터로 가는 큰길가에 위치하고있다.

당시 이 우편국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공작원이 들어가 활동하고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공작원을 통하여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에게 비밀문건을 발송하였으며 각지에서 오는 우편물을 접수하시였다. 그때 선생님께 서울,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소포들을 보내여왔는데 소포속에는 중요문건과 자료들이 들어있었으며 무기도 있었다.

또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중강우편국을 통하여 일제기관에 복무하는 악질적인 관리들과 군수들에게 수많은 경고문을 띄워 놈들의 행패를 저지시키기도 하시였다.

경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천만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 왜적들은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에게 여지없이 압박과 착취를 감행하고있다. 때문에 우리들은 조선독립을 위하여 그리운 조국과 부모형제처자들을 버리고 국내와 이국땅에서 왜적들과 피흘리면서 싸우고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라의 운명이 일시 암운에 가리워져있는 이 시각에 강도 왜놈들에게 아부굴종하여 자기 민족과 나라를 배반하거늘 어찌 통탄하지 않으랴.…

경고하노니 너희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을 뉘우치고 조선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지사들을 적극 도와 왜적들을 반대하여 나서라.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응하지 않고 적들의 개노릇을 계속한다면 반역자로 규정하고 삼천만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것을 엄격히 경고한다.》

한편 선생님의 지도를 받던 공작원은 이 우편국에서 일제의 《공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감쪽같이 빼돌리군 하였다.

낚시터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동지들과 련계를 맺는 장소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장소로 리용하시던 곳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나어리신 김일성동지를 낚시터에 데리고 가시여 그이께 혁명의 큰 뜻을 키워주시였으며 조국땅에 드리운 암운을 몰아낼 적극적인 투쟁방도를 설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낚시터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가며 수많이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로부터 사업형편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새로운 투쟁방향과 과업을 주시였으며 독립운동의 뜻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낚시터는 지난날 압록강이 흐르던 곳인데 지금은 막히여 큰 늪으로 되여있다.

씨름터

김형직선생님께서 계시던 강로인의 려인숙으로부터 압록강쪽으로 약 200메터쯤 떨어진 모래불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동무들과 함께 씨름을 하시던 씨름터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씨름터에 자주 가시여 일본놈을 쳐부실 장수힘을 기르셨고 몸과 마음도 단련하여나가시였던것이다.

승리터

어린 시절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소년을 모욕한 일본놈의 아이들에게 단단히 혼을 내주신곳이다.

승리터는 강로인의 려인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중강거리에 있다.

어느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놈의 아이들이 조선소년을 멸시하는것을 보시게되자 한달음으로 달려가 자신보다도 훨씬 큰 그놈을 단단히 혼내주시고 잘못을 빌게 하시였으며 다시는 조선소년들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오금을 박아놓으시였다.

그후부터 그이께서 먼곳에 나타나기만해도 왜놈의 아이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뺏으며 이곳은 조선소년들의 놀이터로 되였다.

그때로부터 이곳은 《승리터》로 불리우게 되였다.

나루터

중강거리에서 압록강을 거슬러올라간 기슭에 나루터가 있다. 이곳 중강나루터에는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투쟁사적을 길이 전하고있는 사적비가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20년봄 혁명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중강나루터로 압록강을 건느시여 중국동북지방에 있는 림강으로 가시였다.

선생님의 불굴의 혁명활동에 의하여 중강일대에서 반일기세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질겁한 일제는 중강에 수비대, 헌병과 경찰, 자위단을 배치하였고 여러곳에 경찰관주재소, 파출소를 설치하였으며 강변에는 곳곳에 포대까지 쌓아놓았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신변의 위험을 아랑곳도하지 않으시고 이 나루터를 건너 림강과 그 주변일대로 드나드시면서 혁명의 불씨를 심으셨고 몸소 여러 조직들과의 밀접한 련계를 가지시면서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림강에 계실때만 해도 여러번 이 나루터로 해서 평양 하당골에 오시여 독립운동자들과 회합도 가지시였으며 대성중학교와 순화학교 동지에서 비밀리에 연설도 하시고 강동경찰서에 대한 습격을 조직해주시기도 하시였다.

또한 이 나루터로 해서 선생님의 지도밑에 독립운동자들이 나무단, 백삼상자, 꿀초롱, 조짚단 속에 무기를 감추어가지고 자주 넘나들군 하였다.

특히 어린시절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모님을 따라 림강에 가계실 때 총검의 숲을 이룬 이 나루터를 자주 건너다니시면서 아버님의 련락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림강에서도 이곳 중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투쟁과 국외투쟁을 련결시키는 중추적역할을 담당수행하시면서 독창적으로 반일혁명투쟁의 길을 줄기차게 개척해나가시였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비낀 포평

포평은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열네살의 어리신 몸으로 압록강을 건느시여 혁명의 길에 오르신 영광의 땅이며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그리고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불멸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이다.

량강도 후창군 후창읍(당시는 평안북도 후창군 소재지였다)에 있는 포평은 도소재지인 혜산에서 서북쪽으로 360여리 떨어져있다.

포평땅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서곡을 알리는 포평나루터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의 넋이 깃든 비밀련락장소, 포평경찰관주재소자리, 연포리주막집, 산전막, 하삼포옷목 그리고 리보익녀사께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강의하게 싸우신 압강려관과 후주려관 등이 있다.

포평나루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네살 되시던 해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셨던 력사의 나루터이다.

지금 포평나루터에는 두루마기차림에 학생모를 쓰시고 책보를 끼신 열네살 되시던 때의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그 주변에는 아담한 공원이 꾸려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2살 되시던 해에 팔도구소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조선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드시고 홀몸으로 포평나루터를 건너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였다.

그리운 조국에 나오시여 창덕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받으시고 열두살 때 걸어나오신 천리길을 따라 10여일만에 압록강연안에 자리잡고있는 포평나루터에 이르시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으로 건너가는 겨레들을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김일성선집》, 1권, 1963년판, 11페지)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시며 조국광복의 비장한 결의를 다지시면서 포평나루터를 건느

신후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였다.

이와 같이 포평나루터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려명을 알려주시던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이다.

비밀련락장소

김형직선생님께서 팔도구에 계실 때 국내반일운동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신 집이다.

포평에 있는 이 집은 당시 《가게방》(자그마한 상점)을 차려놓고 우편국의 《위탁소》일도 맡아보았다.

김형직선생님의 불요불굴의 투지와 정력적인 혁명활동, 높은 덕성에 깊이 감동된 이 집주인은 선생님의 활동을 적극 도와나섰다.

이 집은 물건을 사려오거나 편지, 소포 등을 부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계로 일제경찰과 밀정놈의 감시를 쉽게 피할수 있었고 혁명활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우편국의 《위탁소》를 통하여 편지로써 평양, 서울, 부산 등 국내 각지의 반일운동자들을 지도하시였으며 한편으로 국내 각처로부터 부쳐오는 소포속의 비밀통신을 통하여 국내반일운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당시 어리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으시고 이 련락장소로 자주 오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국내혁명동지들에게 보내시는 비밀련락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였으며 비밀통신들과 국내신문도 날라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중요한 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몸소 위험을 무릅쓰시고 이곳으로 오시여 혁명동지들과 사업을 토의하고 새로운 투쟁임무를 주군 하시였다.

이와 같이 이 비밀련락장소는 혁명투쟁사적이 깃든 유서깊은 집이다.

포평경찰관주재소자리

김형직선생님께서 1924년 11월 국내조직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조직을 지도하기 위하여 포평에 건너오시였다가 일제경찰의 특무놈인 손세심의 밀고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 감금당하셨던 곳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포평경찰관주재소에 감금되여있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일제경찰놈들과 완강하게 싸우시는 한편 이곳 주재소에 갇혀있는 동포들에게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는 놈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주의사상과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교양하시였다.

어떠한 고문으로써도 선생님을 굴복시킬수 없었던 일제교형리들은 김형직선생님을 후창경찰서로 이송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돼지바우》라고 불리는 포악한 일본순사 아끼시마라는 놈에게 압송되여 이곳 포평경찰관주재소를 떠나시였다.

연포리주막집

포평에서 서남쪽으로 압록강을 한옆에 끼고 뻗은 큰 길을 따라 25리쯤 내려가면 왼쪽으로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이 길이 당시 후창(지금은 월탄로동자구)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을 따라 15리쯤 깊숙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뾰족봉이 솟아있다. 그 맞은편 양지바른 산기슭에 갖가지 나무들이 빼곡히 둘러선 곳에 큰 동기와집 한채가 자리잡고있는데 바로 이 집이 연포리주막집이다.

연포리주막집마당가에는 흰 대리석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발이 새겨져있다.

《김형직선생님은 1924년 1월 포평에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후창경찰서로 압송되던 도중 이 주막에서 탈주하여 동북으로 망명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주막에서 황씨의 도움을 받아 탈주하여 뾰족봉에 오르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혁명활동을 하던 황씨는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독한 술 한되병을 가지고 선생님을 압송하는 아끼시마라는 순사놈의 뒤를 따르며 기회를 노리다가 바로 이 주막집에서 그놈을 만취시켜놓고 선생님의 탈출을 도왔다.

산전막

뾰족봉에 오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밤새 산속을 헤치고 걸으시다가 밤늦게야 김씨로인의 산전막을 발견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김씨로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이곳에 수일간 은신하고 계시였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오랜 혁명활동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놈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것과 김씨로인에게 화가 미칠것을 념려하시여 집에 계시지 않으시고 집앞에 있는 조난가리속에 몸을 피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때에 심한 동상을 입으시였다.

며칠후 일제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완화되자 선생님께서는 김씨로인의 길안내를 받으며 산에서 내려오시여 압록강을 건너가시였다.

하삼포웃목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장대로 강을 건느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갓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때 이미 입은 동상에다가 더 심한 동상을 겹쳐 입으시였다.

압록강을 건느신 선생님께서는 심한 동상을 치료하실 사이도 없이 새로운 투쟁을 위하여 팔도구를 떠나 무송으로 가시였다.

지금 하삼포웃목에는 흰 두루마기자락을 기폭처럼 날리시며 일제침략자들과의 투쟁을 위하여 눈보라치는 압록강얼음우를 건느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형상한 유화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압강려관 및 후주려관

포평에 있는 압강려관과 동흥에 있는 후주려관은 김일성동지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 강의한 혁명적의지로 일제놈들의 흉계를 파탄시킨 투쟁사적이 깃들어있는 집들이다.

조국을 반드시 독립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암담한 조국하늘에 조국광복의 휘황한 빛발을 비쳐주시였다.

조선인민들은 오직 김일성동지를 태양으로 우러러보며 그이의 해빛아래 살아갈 희망찬 그날을 기다리시며 승리를 향하여 떨쳐나섰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1939년말 김일성동지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를 강제로 포평에 데려다가 이 압강려판(일제놈들은 할머님을 통훙까지 강제로 데리고 와서 《후주려판》에서도 이렇게 책동하였다.) 뒤방에 감금하여놓고 김일성동지를 《귀순》시켜보겠다고 어리석은 망동을 부리였다.

그러나 리보익녀사께서는 놈들의 온갖 위협공갈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놈들과 꿋꿋이 싸우시였다.

지어 놈들은 리보익녀사를 중국동북일대의 험한 산속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귀순》하라는 편지를 쓸것을 강요하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일제의 주구놈들에게 《네놈들은 황금에 눈이 어두워 나라와 인민을 원쑤에게 팔아먹는 개놈들이다. 우리 성주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싸우는 대장이다.…만일 네놈들이 나를 죽이면 우리 성주가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다.》라고 추상같은 호령을 하시고 만경대로 돌아오시였다.

조국광복의 횃불이 타오른 혁명의 성지—보천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6월 4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남긴 위대한 전투를 몸소 조직지휘하신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이다.

일제는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압록강, 두만강연안의 국경일대에 제1선부터 제4선까지 삼엄한 경계망을 늘여놓았으며 특히 보천보는 놈들이 《난공불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중요한 군사정치적요새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6월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몸소 조국진군의 앞장에 서시여 일제가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보천보에 진격하시였으며 일제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우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죽지않고 살아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과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었다.

압록강의 구시물동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대를 친솔하시고 1937년 6월 3일 밤 구시물동에 떼목다리를 놓고 압록강을 건너 보천보에로 진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후 로획물자운반을 자원하여 나선 100여명의 인민들과 함께 6월 5일 새벽 다시 이곳 구시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로획물자를 지고 따라온 인민들이 압록강을 건느는것을 하나하나 보살피신후 맨 마지막에 강을 건느시였다.

지금 구시물동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대원과 이곳 주민의 안내를 받으시며 떼목에서 조국땅우에 선참으로 내리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유화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곤장덕

조국진군을 위하여 압록강을 건느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4일 곤장덕둥판에 오르시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조국땅에서 첫 아침을 맞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경계근무를 세우시고 부대의 전투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것을 지시하시였다. 그리고 보천보거리에 정찰을 파견하시고 몸소 쌍안경으로 보천보시내 적기관들을 세심히 살피시였다.

이날 오후에 그이께서는 곤장덕수림속에서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각 구분대에 전투임무를 주시였다.

어두워질 무렵에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대는 곤장덕기슭으로 내려와 당시 검은바위부근 물방아간모퉁이에 놓여있던 다리로 가림천을 건너 각각 지정된 목표로 접근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동상

민족재생의 화광이 비껴오른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거리에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동상은 한손에 군모를 벗어쥐시고 인민들앞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보천보거리를 들이쳐 원쑤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웠다.

보천보거리와 골목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포고문》, 《조선인민에게 격함》 《일본군대에서 복무하는 조선인형제에게 고함》 등의 수많은 격문과 선전문이 나붙었다.

보천보거리는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었다.

《김일성장군께서 오셨다》

《우리 혁명군대가 왔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

《조선독립 만세!》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를 맞이하는 이곳 인민들은 감격에 목이 메여 당시의 주재소앞거리로 물밀듯이 모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의 흉악무도한 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모든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원쑤를 반대해 싸울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불같은 연설의 마디마디는 군중들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의 신심과 투지를 힘있게 북돋아주었을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영원히 살아 있을 불멸의 횃불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이 자리에 수령님의 탄생 쉰돐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서른돐을 기념하여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1962년 6월 4일에 모셨다.

보천보전투지휘처

가림천가 보천보입구 황철나무밑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전투를 지휘하신 보천보전투지휘처가 있다.

지휘처는 일제의 경찰관주재소로부터 불과 140메터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시내지형보다 2.4메터나 낮은곳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곳을 지휘처로 정하신것은 야간습격전투인 조건에서 적들의 행동을 직접 잘 감시하며 부대의 공격과 철수를 직접 신속히 지휘하시기 위해서였다.

1937년 6월 4일 밤 10시 정각에 지휘처에서 울리신 그이의 공격신호총소리는 암담하던 조국의 밤하늘을 뒤흔들며 온 누리에 메아리쳐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었으며 일제침략자들에게는 멸망의 불벼락을 들씌웠다.

지금 여기에는 당시 전투를 지휘하시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그림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마흔돐이 되는 1959년 4월 15일에 이곳 지휘처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6월 4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이 황철나무곁에서 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 전투를 지휘하시던 곳에 서있던 황철나무는 고목으로 유리관속에 보관되여있다.

경찰관주재소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때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되였던 경찰관주재소가 지금도 그 당시 건물 그대로 남아있다.

일제는 국경일대의 경비를 강화할 목적으로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한후 주재소 구역내에 순사놈의 집까지 짓고 돌담으로 울타리를 치고 50센치메터의 간격으로 3선철조망까지 늘여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경찰관주재소를 점령하고 죄없이 갇힌 인민들을 석방하고 무기고에서 《국방부인회기증》이라고 글발이 새겨져있는 경기관총을 비롯한 보총, 권총, 탄약 등 수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당시 놈들의 어용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을 받아 녹아난 보천보경찰관주재소는 《…모두 탄환에 맞아 벌둥지같이 구멍이 숭숭뚫어져있어 그 참상은 차마 눈으로 볼수가 없었다.》

지금 경찰관주재소 건물벽에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맹렬한 사격으로 뚫린 총탄구멍자리의 일부가 남아있다.

소방회관

보천보전투때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소각되였다. 지금의 건물은 일제가 1939년 불탄자리에 원상대로 다시 지은것이다.

일제는 1915년에 경찰보조기관인 소방대를 각지에 조직하였다. 놈들은 1934년 이곳에 소방대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는 30명의 주구들이 망라되여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경찰놈들을 돕고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소방회관》을 습격하여 놈들을 소멸한후 건물을 불태워버렸다.

면사무소

보천보전투때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불타고 지금의 건물은 놈들이 1939년에 복구해놓은것이다.

일제는 1934년 4월 종래의 보혜면을 분할해서 혜산읍과 보천면을 내오고 이곳에 면사무소를 설치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출판도구를 로획하였으며 건물을 불태워버렸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던 놈들의 각종 세금문서와 징용대장, 호적문건들이 재가 되였다.

우편국

일제의 대륙침략과 식민지통치를 보장하는 중요통신수단이였던 우편국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때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완전히 불타버렸다.

당시 이 우편국에는 전부 일본놈들이 틀고앉아 있었다. 적들은 이 우편국을 국경경비통신의 주요수단으로 리용하였으며 여기서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비밀정보를 수집하였다.

보천보전투에서 녹아난 놈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속에서 끝내 우편국을 다시 짓지 못하였다.

지금 이 빈터에는 놈들이 사용하던 우편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농사시험장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농사시험장 사무실과 부속건물을 불이쳤다.

일제는 이 지방 공예작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농작물의 략탈범위를 넓히고 소위 《북선개척》이라는 미명하에 1931년에 총독부직속의 농사시험장을 설치하였다. 놈들은 이 농사시험장에 일제의 예비역륙군소위놈을 책임자로한 20여명의 《재향군인》들을 두었으며 1936년에는 포대까지 쌓아놓았다.

그러나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력한 타격에 총 한방 쏘지 못한채 녹아나고말았다.

이때 겨우 목숨을 붙이고 도망쳐간 농사시험장의 책임자란놈은 왜 돌아오지않는가고 질문한 이곳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만주에 있을때 항일유격대하고 수차 맞다들어보았는데 그때마다 녹아났다. 그러니 그들앞에서 피하는것이 제일 상책이다.》

산림보호구

산림보호구도 조선인민혁명군이 들이쳐 불살라버렸다.

보천산림보호구에는 총칼로 무장한 주사, 간수 등 수많은 놈들이 틀고앉아서 백두산일대의 산림자원을 제것처럼 략탈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산림법》위반이란 터무니없는 각종 죄명을 붙여 벌금을 받거나 징역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놈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건물안에서 밖으로 통하는 땅굴을 파놓고 도망칠 준비까지 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6월 4일밤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소탕되였으며 건물은 불타버렸다.

이날밤 놈들의 《유력자》들이 이곳에 모여 산림보호구주인놈의 《영전 축하주연》을 벌려놓았다가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지금의 건물은 놈들이 1939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이 건물앞에 서있는 느티나무에는 보천보전투때 불에 타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밖에도 보천보에는 무산 및 대진방면 방어대와 혜산방면 방어대 배치장소들과 경비전화선을 끊은곳들이 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1962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돐을 맞이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그이께서 조직하시고 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멸의 영웅적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혜산시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세웠다.

백두산기슭의 패궁정마루에 하늘높이 솟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공산주의 붉은 기치, 민족해방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15성상 피흘려 싸워온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을 집대성한것이며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준 보천보전투승리를 상징한것이다.

기념탑은 바람에 나붓기는 붉은 기발과 혁명의 진두에 몸소 서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선두로 하고 그이의 뒤를 따라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항일투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형상한 무려 61명에 달하는 인물군상으로 이루어져있다.

기념탑의 높이는 38.7메터, 길이는 30.5메터, 조각상의 총연장길이는 78메터이며 탑신인 기발은 붉은색 화강석으로, 기단은 흰색 화강석으로 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선두로 한 정면군상은 기념탑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군모를 벗어쥐시고 다른 한손에는 쌍안경을 드신채 옷자락을 날리며 조국땅을 바라보고계시며 그이의 왼쪽에는 혁명의 최고뇌수인 사령부를 보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다 바쳐 싸워온 《철벽의 용사》가, 오른쪽에는 《불굴의 녀대원》이 서있다.

탑의 동쪽면을 차지한 서른분의 군상은 항일무장투쟁의 첫시작으로부터 승리하는 날까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중심으로 로동자, 농민, 청년들 그리고 로인들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들이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안고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온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준다.

탑의 서쪽면을 차지하고 있는 서른분의 군상은 일제의 삼엄한 총검의 숲을 헤치고 엄혹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며 주림과 피곤을 참아가면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이긴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의 력사를 보여준다.

이 웅대한 기념탑은 실로 특출한 예술적형상의 일대 서사시적화폭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일제를 무찌르는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 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불타는 신념, 고상한 혁명적동지애 그리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계속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또다시 승리의 홰불이 높이 오른 영광의 땅—무산지구

무산지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 5월에 또다시 국내깊이에로 진출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선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혁명전적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 북대정자회의에서 또다시 국내깊이에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압록강을 건너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였다.

그이께서 조국에로 진출하시여 밟으신 5호물동, 청봉, 건창, 베개봉, 삼지연, 《갑무경비도로》, 무포, 신사동, 대홍단 등지에는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불멸의 사적들로 가득차 있다.

5호물동

1939년 5월 1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무산지구에로 진출하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오신 곳이다.

5호물동은 량강도 무산군 압록강가에 있다.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두해만에 사랑하는 조국땅을 다시 밟게 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저마다 흙을 움켜쥐기도 하였고 소백수의 맑은 물속에서 속돌을 골라내여 보물과 같이 배낭속에 간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5호물동 맑은 물가에 탐스럽게 핀 진달래를 꺾어드시고 감격과 흥분에 싸인 대원들에게 《조국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소!》라고 하시면서 대원들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교양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이곳에서 소휴식을 한다음 청봉기슭으로 행군해갔다.

청봉숙영지

1939년 5월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5호물동으로 압록강을 건너 이곳에서 하루밤 숙영하였다.

청봉은 해발 1,400여메터의 높은 지대이다.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잣나무 등 사시절 푸른나무들로 덮여있다고 하여 이곳을 청봉이라고 불러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친솔하시고 청봉에 도착하시자 숙영지에서 5리 떨어진 곳에 강력한 후방경계부대를 배치하고 부대에 숙영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각구분대의 숙영지를 돌아보시며 대원들을 보살펴주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목재소로동자들을 부르시여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으

며 그들을 통하여 적정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신후 건창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포태리목재장 습격에 소부대를 파견하시였다.

그이를 모시고 조국땅에서 숙영하게 된 대원들은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곁에서 밤이 깊도록 조국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튿날 새벽 김일성동지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은 수많은 아름드리나무에 구호를 새겼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일본의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항일대전승리 만세!》 등의 구호들이 수많은 나무들에 새겨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맥박치는 이 구호들은 당시 암흑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을 안겨주었다.

청봉숙영지에는 사령부자리, 그 주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15개의 대원실자리, 9개의 취사장자리, 7개의 칼도마와 하나의 우물터, 구호를 쓴 20여그루의 나무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사용하던 가위, 통조림, 총기름통, 식칼 등이 발굴되여 귀중히 보존되여 있다. 보통 20~30명이 들어가 잘수있는 대원실은 규모있게 천막을 쳤고 병실중심에는 0.7메터의 규격으로 통나무를 잘라 정방형을 만들고 그안에 불을 피웠다.

취사장은 통나무 두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량쪽에 놓고 그우에 솥과 남비를 걸고 밥을 지었다.

이 모든것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새긴 항일유격대원들이 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 얼마나 규률있고 조직적인 생활을 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건창숙영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청봉에서 숙영한 다음날인 5월 19일에 숙영한 곳이다.

건창은 숙영지옆으로 흐르는 물이 1년치고 흐르는기간보다 말라있는 때가 더 오래다는데서 온 이름이다. 량강도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에서 약 5리쯤 떨어진곳에 자리잡은 건창숙영지는 해발 1,250메터의 높은 지대이며 당시 이곳은 울창한 수림지대였다. 건창 좌우측에는 청봉과 베개봉 능선이 뻗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봉에서 10리밖에 안되는 가까운 건창에서 또다시 부대에 숙영명령을 내리시였다.

이것은 당시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는 조건에서 멀리 가는척하면서 적의 코밑에 들아앉음으로써 놈들을 대혼란속에 몰아넣기 위한 탁월한 전술적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숙영하는 대원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청봉에서 포태리목재장습격에 파견한 소부대성원들이 돌아오기를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전투성과를 치하하시였다. 포태리목재장에 대한 습격전투는 적들의 력량을 포태산, 독산계선에 유인 집결시킴으로써 부대의 무산지구진출을 용이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건창숙영지에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사령부의 천막자리와 17개의 대원실자리, 13개의 취사장터와 7개의 칼도마, 껍질벗긴나무 8대가 발굴되였다.

숙영지에는 사령부를 중심으로 매개 불무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였다. 불무지에는 일풍식 혹은 도리풍식의 천막을 치고 땅에는 나무잎과 나무껍질을 깔아 습기를 방지하였다.

건창에서 숙영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5월 20일 베개봉으로 진군해갔다.

베개봉숙영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건창에서 하루 숙영하고 5월 20일에는 이 베개봉에서 숙영하시였다.

베개봉숙영지는 량강도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에서 동북쪽으로 약 8키로메터 떨어진 수림속에 있다. 베개봉은 베개와 비슷하다는데서 나온 이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창숙영지에서 베개봉까지 대렬의 선두에 서시여 지도와 라침판으로 안개로 앞을 분간할수 없는 어려운 행군로를 여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기동상태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베개봉 약 10리 못미친 곳에 후방경계부대를 배치하신후 베개봉기슭에 이르시여 전부대에 숙영명령을 내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의 숙영준비를 보살펴주신후 사령부천막에서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적들의 약점을 예리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백두산동쪽고원을 따라 진군하여 무산지구에서 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릴데 대한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베개봉숙영지에는 사령부장풍자리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대원실이 배치되였던 10개의 장풍자리가 귀중히 보존되여있다. 여기에는 7개의 취사장자리와 하루밤을 쉬여가도 땔나무까지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 쓰던 유격대내의 강철같은 규률생활을 보여주는 나무무지 등이 남아있다.

삼지연휴식터

삼지연은 1939년 5월 2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베개봉에서 떠나 무산지구로 진군하던 도중에 휴식한 곳이다.

삼지연휴식터에서 베개봉숙영지까지는 10키로메터이고 삼지연읍까지는 4키로메터이다.

원래 이곳에는 강물이 흘렀는데 백두산화산이 터질 때 날려온 현무암과 부석이 쌓여 3개의 못이 가지런히 이루어졌다하여 삼지연이라고 불려왔다.

그이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병풍을 두른듯이 못가에 푸른 숲이 우거진 조국땅 삼지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시며 잠시 행군의 피로를 푸시였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삼지연못가에서 즐기는 대원들에게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소.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을 드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은 대원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불태우며 기어코 조국을 해방할 굳은 신념을 다지면서 그이와 함께 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조국이 광복되면 이곳에 휴양소를 짓자고 하시며 대원들을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시였다.

점심식사후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의 전투준비를 하나하나 보살피신후 출발명령을 내리시였다.

갑무경비도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낮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령솔하시고 보무당당히 삼지연에서 무포까지 100여리를 행군하심으로써 적들

을 전률케한 곳이다.

《갑무경비도로》(갑산—무산간을 통과하는 경비도로)는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겠다고 몇해를 두고 닦아온 경비도로이다.. 당시 일제는 《갑무경비도로》의 개통식을 앞두고 말끔히 청소까지 해놓고 이 도로로 누구도 다니지 못하게 하였던것이다.

5월 20일 베개봉숙영지에서 소집된 지휘관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동쪽고원에 적들의 주의가 덜 돌려지는 약점을 리용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적들의 《국경경비도로》를 대낮에 행군하여 한달음에 무산지구에로 쭉 빠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대낮에 대부대가 적들이 닦아놓은 《국경경비도로》로의 행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대성을 시위하는 행군으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다시한번 힘있게 북돋아주는 승리의 행군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대들은 질서정연하고 위풍당당하게 행군해야 하며 맞다드는 적은 재빨리 소멸해버리고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은 대원들은 5월 21일 삼지연에서 휴식한후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지어 발걸음도 드높이 《갑무경비도로》로 행군해나갔다.

무포숙영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시던 길에 5월 21일 숙영한 유서깊은 곳이다.

무포숙영지는 량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당시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 홍암동)에서 두만강쪽으로 약 6키로메터 떨어진, 적개골수가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있다.

부대를 거느리시고 무포에 이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일대의 지형조건과 적정을 살피시고 8련대는 두만강건너 장산령기슭에, 나머지 부대들은 적개골수의 좌우에 배치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적이 갑자기 나타날수 있는 조건에서 신속한 기동을 위하여 천막을 치지 말고 숙영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이날 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시고 《갑무경비도로》로 장거리행군을 한데 대한 총화를 하신 다음 대홍단지구진출에서 8련대는 사령부와 함께 신사동방향으로, 7련대는 두지바위와 신개척방향으로 각각 진출하였다가 다시 대홍단벌에 집결하여 추격해오는 적들을 소멸할데 대한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5월 22일 아침 부대는 멸적의 기세드높이 대홍단을 향하여 이곳을 떠났다.

국사당부근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사동과 신개척으로 진출하던 도중 잠시 휴식하던 곳이다.

국사당 서쪽으로는 까치봉이 있고 동쪽에는 로은산이 막아서있다. 로은산을 중심으로 왼쪽 골짜기를 따라 30리 가량 내려가면 두지바위와 신개척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포에서 떠나 행군하는 도중 부대의 일부력량을 떼여 삼수평과 무포쪽에 방차대를, 까치봉에는 보초대를 각각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대홍단벌을 가로질러 국사당부근에 이르시여 전부대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이곳에서 대원들은 그이께서 찾아주신 황철나무밑에 있는 맑은 샘물을 마시며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홍단일대의 정형과 부대의 진격방향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음의 집결구역을 이곳 국사당으로 정하신 뒤 이미 세워진 작전계획에 따라 부대들에 전투행동을 개시할것을 명령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곧 신사동과 신개척의 두방향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신사동

신사동은 1939년 5월 22일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 일대에 진출하시여 사령부를 정하시고 부대들의 전투활동을 지휘하시면서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여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신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이다.

신사동은 량강도 삼지연군 5호지구 홍암로동자구(당시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 농사동)에 자리잡고있다.

지금 이곳 신사동에는 세채의 귀틀집이 서있고 일제놈들이 부설하였던 림산철길자리만이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일제침략자들이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한 목재채벌장과 림산철도가 있었고 로동자들과 화전민들이 많이 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8련대와 경위중대를 거느리시고 로은산좌측에 있는 신사동에 진출하시여 이곳 목재소의 한 귀틀집을 사령부로 정하시고 부대들의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곳 로동자들과 인민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명과 목적을 해설하신후 간악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내용을 해설하여 주신 다음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친솔밑에 신사동에 진출하였던 부대는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한다음 5월 23일 새벽 이곳을 떠나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곳 신사동에는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형상한 유화가 정중하게 모셔져있다.

대홍단전투지휘처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그러하시였던것처럼 이 전투때에도 적탄이 비발치는 화선의 기관총좌지염에서 몸소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당시 사령부가 위치했던 곳에서 약 10메터정도의 사이를 두고 3정의 기관총이 배치되였던 자리도 있다.

대홍단벌

대홍단은 1939년 5월 2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 강도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준 혁명전적지이다.

5월 23일 새벽에 신사동을 떠나 대홍단에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신개척에 파견한 7련대가 국사당집결처로 돌아올 방향에 부대를 매복시키시였다.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측하신대로 7련대의 뒤에는 철갑모를 번쩍거리며 적들이 추격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7련대의 뒤에 적들이 추격하고있다는것을 암호로 7련대에 알려주게 하신후 7련대가 다 지나가고 원쑤들만이 매복권내에 들었을 때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사격으로 적들은 완전히 녹아나고 말았다.

실로 대홍단전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하는 유격전술과 위대한 령군술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산지구에서 혁명의 불길을 높이 올리신후 부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을 건느시였다.

대홍단전적지에는 샘물터, 국사당집결처, 기관총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 김세옥동지의 묘지가 있다.

이 모든것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이곳에 진출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한 불멸의 이야기를 을 전해주고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두돐이 되는 날인 1971년 5월 23일 우리 인민은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영원히 기념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대홍단벌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세웠다.

대홍단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높이 솟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높이 35메터)은 넓은 바닥판석우에 솟은 장방형탑신(높이 33메터)과 그를 중심으로 량쪽에 날개처럼 펼쳐진 두 벽면으로 이루어졌다.

백두의 하늘 높이 치솟아 무산지구전투의 대승리를 형상한 흰 화강석탑신, 머리에는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오각별—장수별이 찬연히 빛나고 그 아래로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라는 금문자가 부각되여있다.

탑의 동쪽벽면(높이 3.6메터, 길이 18메터)에는 몸소 진두에 서시여 무산지구진공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쑤격멸의 결전에로 질풍같이 내닫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 28명의 대군상이 힘있게 펼쳐있다.

탑의 서쪽면(높이 3.6메터, 길이 15메터)에는 력사적인 무산지구진공전투의 전행정과 그 불멸의 투쟁사적을 집약적으로 서술한 비문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불요불굴의 반일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의 혁명사적지

김형권동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하여 조선혁명군 소조를 인솔하고 국내에 들어갈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고 안도에서 무송, 장백을 거쳐 1930년 8월 11일 국내에로 진출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장백을 떠나 조국을 향하시면서 무장소조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흐름이 우거진 조국의 산림들, 기름진 땅과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 온금의 보화로 가득차고 모든것이 아름다운 우리 조국은 지금 일제의 발굽밑에 신음하고있다. 우리 어찌 발걸음을 지체할수 있겠는가, 죽기를 맹세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자…》

불요불굴의 반일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소조원들과 함께 국내에 진출하여 풍산, 리원, 북청, 홍원 일대에서 파감하고 정력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일제놈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파발리일대혁명사적지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이 간악한 일제교형리를 처단하고 조선인민에게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력사에 길이 빛날 혁명전적지이다.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은 압록강을 건너 삼수군 회골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1930년 8월 12일 사수고개(당시 함경남도 삼수군 금수면 심발리)주막집에 이르러 부근 인민들과 교원들에게서 지방형편을 알아보면서 반일선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무장소조원들은 삼수군경찰서앞을 대담하게 통과하여 국내깊이 들어오던 도중 매덕령(풍산군과 풍서군 사이에 있는 령)잣은굽이 주막집에 이르렀다.

잣은굽이주막집: 8월 13일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이 하루밤 쉬여간곳이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주막집주인에게서 이 지방실정을 료해하시는 한편 무장소조원들과 앞으로의 행동방침을 토의하시였다. 8월 14일 새벽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무장소조원들은 이 주막집을 출발하였다.

지금 이 집에는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의 국내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황수원동판: 매덕령 잣은굽이주막집에서 하루밤을 쉬시고 8월 14일 낮 황수원동판에 이르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이곳 일본놈 틀쪽회사의 고용로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날 풍산군 지경리에서 정치사업을 하시고 허항령을 넘어 황수원동판(일명 배상개덕)에 이르시여 로동자들 속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해설해주시면서 이 길만이 우리가 나아갈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깨우쳐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 몸소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하시던 황수원동판에는 지금 김형권동지의 혁명사적비가 정중히 세워졌다.

내중경찰관주재소자리: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원들이 일제교형리를 처단하고 생사기로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이다.

황수원동판으로부터 파발리로 행군

하면서 내중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한 이 지방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백주에 내중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부장 《오빠시》란놈을 처단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 울린 한 방의 총소리는 원쑤놈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암흑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며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때 총소리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주재소앞으로 모여와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군중들에게 인사를 보내면서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우리는…일본놈들과 직접 싸우는 조선혁명군입니다.…왜서 당신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산간벽지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안됩니까. 이것은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자기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인민을 억압착취하기때문입니다.

조선인민은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철천지원쑤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을 못살게 굴던 오빠시란놈을 방금 처단하였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철모르는 아이들까지 무서워했겠습니까…

조선인민은 우리의 강토에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무장소조원들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져다주는 자전거를 타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후치령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봉오골어귀: 인민들로부터 물심량면의 지지성원과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파발리를 떠난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한 무장소조원들은 봉오골어귀에 이르러 때마침 후치령을 넘어오는 승합차 《함남 268호》를 기습하여 돌려세우고 후치령을 넘어 명당덕까지 몰고 간것이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차에 타고 있던 풍산경찰서 사법계주임이란놈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놈에게 우리는 파발리에서 〈오빠시〉란놈을 처단했다. 돌아가면 인민들과 너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너는 조선사람이니 용서해주더라고 해라 그러니 다시는 일제의 개질을 하지 말라. 그때는 용서치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명당덕에서 차를 되돌려보낸 김형권동지께서는 여기서부터 깊은 수림을 거쳐 단천으로 갈것을 계획하시였다. 지금 봉오골마을 한가운데는 김형권동지의 혁명사적을 아로새긴 대리석기념비가 높이 솟아있다.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서 울리신 총소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첫 팜스-레닌주의적무장소조가 국내에서 울린 첫 혁명의 총소리였으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획기적인 시대에로 이행함을 국내동지들에게 알리는 력사의 총소리였다.

리원혁명사적지

국내에 진출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파발리에서 첫 총성을 울리신후 후치령을 넘어 취덕산기슭을 따라 리원땅에 이르시여 문앙리와 대덕리의 일대에서 정력적인 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문앙리: 김형권동지께서 며칠간 묵으면서 정치사업을 하시던곳이다.

문앙리혁명사적지는 리원읍에서 서북쪽으로 약 40리가량 떨어진 배덕골에 자리잡고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지금 문앙리사적비가 있는 근처의 한 지주집의 산당지기로인의 집(량통기와집)에서 무장소조를 거느리시고 며칠동안 묵으시면서 이 일대의 적정을 자세히 료해장악하신후 인민들속에서 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곳 동지들에게 일제의 강도적략탈과 폭압에 대하여서와 조선사람들의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은 힘을 합쳐서 일본놈과 싸워야 한다는것, 그래야 우리가 독립된 제 나라에서 잘 살수 있다는것을 알기쉽게 해설해주시면서 그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지금 문앙리에는 혁명사적관이 꾸려져있으며 사적비, 산당집, 오이밭골, 버드나무터, 감시초자리, 우물 등 유서깊은 곳들이 있다.

파발리경찰관주재소를 대낮에 습격당한 일제놈들은 그후 함경남도 7개군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하신 무장소조를 추격하였다. 이러한 때 김형권동지께서 문앙리에서 반일선전사업을 진행하시고 적들의 발악적인 추격에 대처하여 단천에로의 행군로정을 달리하시고 리원군일대에 묵으면서 정세를 더 료해하고 활동을 전개할것을 결심하시였다.

대덕리: 김형권동지께서는 문앙리로부터 대덕리 대바위골에 비밀근거지를 정하시고 평활하게 대중속에서 널리 정치활동을 벌리시면서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지금 대바위골에는 김형권동지께서 그곳에 오시여 사업하시던 대바위, 초가집, 망원초, 범굴 등이 있다.

지금 범굴앞에는 사적비가 세워져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선생님께서 1930년 8월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인솔하시고 여기 범굴에 비밀장소를 설정하신뒤 조성된 국내정세를 료해분석하시고 그에 적응한 활동방침을 수립하시였으며 인민들과 청년들을 반일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면서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고무추동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 일대의 농민들과 로동자들을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각성시키시여 투쟁조직을 뭇고 반일투쟁을 벌리도록 교양하시였다. 또한 부근의 숯구이를 하는 곳들에 무장소조원들을 파견하시여 로동자들과 화전농민들속에서 반일선전을 하면서 적정도 알아오도록 하시였다.

김형직선생께서는 10여일간 리원일대에서 대중정치사업을 벌리신 다음 대덕리를 떠나 리원군 원사리 정광사계선에 이르시여 적정을 료해하신후 소조를 2개조로 나누어 그중 한개조를 인솔하시고 북청방향으로 진출하시였다.

북청혁명사적지

김형권동지께서 북청땅에 진출하시여 맹렬한 군사 및 정치활동을 벌리신 혁명사적지이다.

리원을 떠나 9월 1일 이른 새벽 북청군 대덕산 서덕바위부근에 이른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은 적들과 불의에 조우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적들이 무장소조를 먼저 발견하고 불과 400메터거리안에서 달려드는 긴박한 순간에도 조성된 정황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시고 놈들을 기만유인하여 무리로 쓸어눕혔다.

당시 김형권동지께서 적들을 유인한 지점과 측면사격을 한곳에 표식비가 세워져있다. 농립모와 저고리를 걸어 허수아비로 리용한 소나무가 사적물로 잘 관리보존되고있다. 유인전투지점에서 능선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작전터》가 있는데 《작전터》표식비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거느리시고 1930년 9월 1일 이

곳에 오시여 대덕산 유인전투승리를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작전계획을 토의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낮동안 《작전터》에서 휴식하신 다음 날이 어둡자 산에서 내리시여 적들이 무장소조가 멀리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광제사》절간에 모여 남포등까지 켜놓고있을 때 불의에 기습하여 놈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적들을 요정내신후 김형권동지께서는 소조원과 함께 거기에서 30리를 단숨에 달리여 북청읍에 있는 토성안에 이르시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시였다.

오늘 이곳에는 김형권동지께서 지휘하신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기념하여 사적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는 일천구백삼십년 김일성동지께서 국내에 나가 무장투쟁의 거점을 창설하며 대중단체를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고 일천구백삼십년 팔월에 함경남도 일대에 진출하여 풍산군 파발리주재소를 습격하고 원쑤들을 소탕한후 구월에는 대덕산에 이르러 수색에 동원된 적경찰들과 전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삼각산줄기를 타고 나오시던 도중 이곳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남대천을 건너 홍원쪽으로 나가시였다》

북청혁명사적지에는 북청읍내에서 12키로메터 떨어진 죽장리의 큰골짜기, 대덕산의 전투지와 그곳에 꾸려진 북청사적관, 북청일대에서의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업적을 기념하여 세운 웅장한 사적비, 그리고 《작전터》가 있으며 그 아래 산계곡에 자리잡은 《광제사》, 북청읍 토성안에 자리잡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신 곳 등이 있다.

홍원혁명사적지

김형권동지께서 수색에 미쳐날뛰던 일제경찰놈들을 차단하고 혁명적지조를 지켜 싸운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이다.

김형권동지께서는 홍원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가시다가 절부암부락에 있는 국수집 뒤방에서 소조원과 행동계획을 의논하시며 어둠기를 기다리시였다.

날이 어둡자 국수집을 떠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오솔길을 따라 홍원읍에서 약 10리쯤 떨어져있는 절부암작전터에 이르시여 소조원과 함께 야간행동과 관련하여 은밀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암호 사용 등 일련의 문제를에 대하여 다시 토의하시고 행동을 개시하시였다.

작전터인 절부암에서 홍원쪽으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물맞이플근처의 큰 백양나무밑(방동리전투장소)에 이른 한 소조원은 불의에 홍원쪽에서 내려오는 일제경찰놈들과 맞다들게 되였다.

위험에 부닥쳤음을 직감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동지를 구원하여 나갈 길을 타개하시기 위하여 비호같이 달려들어 소조원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있는 전진경찰관주재소 《오까요》소장놈에게 명중탄을 안기시였다.

소장놈을 단방에 요정낸 김형권동지께서는 꽁무니를 내빼는 경찰놈들을 추격하여 단신으로 홍원읍으로 들어가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홍원읍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다가 일제주구놈의 밀고에 의하여 수십명의 무장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든 영광의 땅—홍원에는 김형권동지의 동상을 비롯하여 사적관, 사적비 그리고 일제경찰놈들에게 복수의 총탄을 안긴곳 등이 있다. 김형권동지의 사적비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김일성동지의 삼촌이시며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께서는 1930년 8월 조선혁명군의 한소조를 인솔하시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풍산, 덕성, 리원, 북청 등지와 이곳 홍원일대에서 일제경찰들과 수차의 전투를 진행하시여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시였으며 한편 광범한 인민들속에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여 애국적인민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훌륭히 실현하시였다. 동지는 1930년 9월 불행하게도 이곳 홍원에서 적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그후 동지께서는 원쑤들의 감옥과 공판정에서 굴함없이 투쟁하시다가 1935년 12월 18일 30세를 일기로 애석하게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 유서깊은 사적지에 비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편단심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신 불굴의 공산주의자 김형권동지의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리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국내활동과 관련한 전적지

무산지구전적지

붉은바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3월 서강회의에서 제시하신 국내진공에 대한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4사 부대가 진출하여 승리의 개가를 올린 유서깊은 곳이다.

붉은 바위는 량강도 삼지연군 5호지구 홍암로동자구에 있다. (당시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 홍암동)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가 떠나기에 앞서 국내진출로정과 구체적인 행동방침까지 가르쳐주신 다음 국내지리에 밝은 대원 10여명을 배속시켜주시면서 부대의 지휘성원들에게 경각성을 높일것과 모든것을 신중히 타산한후 행동할것을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국내진출로정을 따라 조국에로 진출하여 1937년 5월 15일 밤 붉은바위 마을의 일제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적의 창고에서 식량, 피복, 지하족 등을 로획하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편 대원들은 일제파쑈통치의 야만성을 폭로하며 조선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는 격문을 부락각곳에 살포하였으며 마을사람들에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갖가지 전설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의로운 사명을 해설하며 인민들의 애국적열의를 고취하는 선전사업을 널리 진행하였다.

무산지구 붉은바위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부대는 이곳을 철수하여

다시 두만강을 건넜으며 삼수평을 습격하고 돌아온 부대와 합류하여 승리의 기세높이 행군을 개시하였다.

1937년의 베개봉숙영지: 무산지구 붉은바위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정을 따라 집결처로 돌아가던중 하루밤 쉬여간 숙영지이다.

1937년의 베개봉숙영지는 당시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포태리땅이였다.

붉은바위전투후 《곰의 자리》에서 총한방 쏘지 않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조선인민혁명군 한 부대는 이미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정을 따라 행군방향을 다시 국내에로 돌리고 두만강을 건너 베개봉에 숙영지를 잡았다.

부대는 숙영지부근부락 인민들속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영명하신 령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 특히 《조국광복회10대강령》등을 알기 쉽게 해설선전하면서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한편 부대는 칠토장에 진출하여 로동자들속에 광범한 정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습격조원들을 파견하여 중토장을 습격하고 가와시마란놈을 체포해가지고 베개봉에 돌아왔다.

부대는 베개봉숙영지 일대에서 정치, 군사적목적을 달성한후 소백산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소백산숙영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내진출로정을 마치고 그이의 품으로 돌아가던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하루밤 쉬여간 뜻깊은 숙영지이다.

베개봉을 떠나 소백산에 이른 부대는 계속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해 누게막을 치고 숙영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로획물자운반에 동원된 로동자들과 한집식구처럼 지내면서 그들에게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일제는 꼭 멸망한다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었다. 이튿날 유격대원들은 피복과 식량 등을 로동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길까지 안내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소백산을 떠나 귀로에 오른 부대앞에는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중중첩첩한 난관이 가로놓이게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황을 깊이 통찰하시고 보천보진공날자를 앞당기시여 무산지구에로 진출했던 부대앞에 조성된 이 난관을 제거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부대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내진출방침을 훌륭히 수행한 크나큰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두지바위, 신개척: 두지바위, 신개척은 1939년 5월 2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오중흡동지가 인솔한 조선인민혁명군 7련대가 진출하여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곳이다.

조선인민혁명군 7련대가 이곳에 진출하게 된것은 농사동과 창평, 홍암일대에서 나타나는 적을 제압함으로써 신사동에 자리잡은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신 대홍단전투를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함경북도 무산군 삼장면 농사동(현재는 량강도 삼지연군 대홍단 로동자구)에 속해있던 이 신개척마을에는 일제침략자들의 《북선제지주식회사》 계통의 목재소와 창고가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은밀히 목재소에 돌입하여 총한방 쏘지 않고 20여명의 산림보호대놈들과 일본인 십장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았고 목재소와 물쪽회사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적들의 창고에서 로획한 막대한 량의 식량과 피복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두지바위, 신개척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집결구역인 국사당으로 돌아왔다.

두만강연안의 혁명전적지

가라지봉밀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와 정치공작원들이 국내에 파견되여 1932년부터 1936년까지 국내공작에 리용한 밀영이다. 무산군 강선리에 있다.

1932년 유격대의 정치공작원들은 가라지봉에 밀영을 설치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동만유격근거지와 긴밀한 련계밑에 무산, 청진, 부령, 회령, 웅기, 라진 등지에서 적극적인 정치공작과 경제모연공작을 벌려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많은 군수물자를 항일유격대에 보내였다.

정치공작원들은 로망동금광과 청진제강소, 유선탄광 로동자들속에서 비밀혁명조직인 《반일혁명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후원회성원들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교양사업과 항일유격대를 돕기 위한 경제모연사업,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당시 유선탄광에 파견되였던 한 정치공작원은 유선에 《조일운송부》라는 운송점을 차려놓고 국내 여러지방에서 보내오는 군수품과 원호물자를 유격근거지에 보냈다.

밀영에서는 또한 혁명적출판물, 삐라, 격문 등을 찍어 국내여러곳에 보내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가라지봉밀영에는 국내의 다른 지방과 련계를 맺기 위한 비밀련락장소로 되고있던 귀틀집과 출판물을 인쇄하던 돌집, 암호를 새겨 서로 련락하던 련락바위, 암호를 적은 편지쪽지를 감추어두던 참나무, 그리고 망원초소, 풀막, 샘물터 등이 있다.

쑥새골밀영: 국내에 진출한 정치공작원들이 1930년 전반기에 쑥새골에 밀영을 설치하고 가라지봉과 긴밀한 련계밑에 활동하면서 인민들속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붉은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킬뿐만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유격근거지에 보내도록 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담당수행한 유서깊은 곳이다. 회령군 학오리에 있다.

쑥새골밀영에는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였던 귀틀집과 삐라와 격문, 선전문 등을 찍어내던 귀틀집이 있다. 이와함께 두만강건너의 유격근거지에서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과의 련계를 취하던 신호바위, 밀영에서 출판하던 삐라와 격문, 등사기를 보관하던 비밀굴, 정치공작원들이 활동하면서 쓰던 샘물터가 있다.

장덕나루터: 함경북도 온성군 심청리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1키로메터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를 책임자로 한 무장소조원들이 1934년 3월 12일 이곳 장덕나루에 자리잡고 있던 일제의 파출소를 습격하였다.

무장소조원들은 경관놈을 처단하고 기병총과 탄며를 로획한 다음 파출소부근에 모인 인민들에게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며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를 쳐부시고있다는 내용으로 선동연설을 한후다시 두만강을 건넜다.

세선리: 고성로동자구(종전의 온성읍)에서 서북쪽으로 한 십리가량 떨어져있는 마을이다.

세선리를 감돌아 흐르는 두만강 건

녀편 마음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3년 초봄 어느 날에 들리시였던 향수천자마을이다.

1935년 1월 11일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망을 뚫고 두만강을 건너 세선리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두조로 나뉘여 이곳에 있던 악질지주놈들을 습격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반일기세를 북돋아주었다.

남산리 : 고성로동자구에 있다.

1935년 1월 5일 두만강을 건너온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은 이곳의 악질면장을 비롯한 친일지주놈들을 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반일기세를 북돋아주었다.

습격전투는 이밖에도 마산리와 농민상조회 활동 지역이던 월파리 등 온성군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진행되였다.

퉁당나루터 : 퉁당나루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무장소조가 일제경찰파출소를 습격하여 적의 무기를 빼앗기 위하여 1933년 9월 17일 두만강을 건는 나루터이다. 경원군 숭량리에 있다.

용감한 항일유격대원들인 오일파, 박세홍, 한태연동지들은 무기획득에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퉁당파출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두만강을 건느다가 《국경수비대》와 경찰놈들의 추격을 받게되였다. 박세홍동지는 물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한자루의 권총을 동지들에게 넘겨주었던것이다.

지금 이 퉁당나루에는 사적비가 세워져있으며 명제판에는 동강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새겨져있다.. 유물로서 세관감시소, 파출소자리가 있다.

풍산골 : 1935년 요영구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국내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던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이다.

풍산골일대에는 두만강도강지점, 숙영지, 무수골목재소습격장소, 새골조우전투장소 등이 있다.

국내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조원들은 무수골목재소 벌목장사무실을 들이치고 현장창고에 있던 밀가루, 천, 신발 등을 비롯한 물품들을 몽땅 로동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자랑찬 승리를 거두고 귀로에 오른 소조원들은 새골과 우적골 조우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들을 진행하여 일제와 친일주구놈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붉은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최후결전을 위하여

1940년 8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소할바령회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웅기, 라진, 청진, 함흥, 원산, 평양 일대와 서울, 인천, 부산 등 국내 각지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웅기뒤산련락장소 :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비밀련락장소로 정하고 웅기, 라진의 항만일대와 아오지, 부거, 탁산 등지에서 적의 군사비밀을 정찰하였으며 인민들속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해설선전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1940년부터 1945년 조국이 해방될때까지 리용한 웅기뒤산련락장소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이 리용하던 귀틀집이 있고 그옆에는 소조원들이 무기를 감추어두기도 하고 가랑잎을 돌로 지질러 놓아 서로 다녀갔다는 것을 알리며 필요한 증명서, 비밀쪽지를 보관했다는 큰 바위와 샘물터가 있다.

보로지산련락장소 : 함경북도 라진시 후창리 보로지산에 있다.

국내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소조원들은 1941년초부터 1945년 조국을 해방하는 날까지 이곳에 비밀련락장소를 꾸리고 군사정치활동을 벌린 유서깊은 곳이다.

보로지산비밀련락장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조성원이 숯구이 로동자와 련계를 맺던 대문령살바위집터, 휴식하던 장소인 대문령살바위숯가마터와 비밀쪽지를 보관하던 바위와 참나무가 있다.

관곡동가매원 :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공작원들이 1941년부터 1945년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숯구이로동자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웅기, 라진, 유진, 청진, 라남, 함흥, 원산 지방에 대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던 유서깊은 곳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성원들이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군중들속에서 정치공작을 진행하던 한 로인의 집터 그리고 숯구이 로동자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국내공작임무를 수행하면서 리용하던 또 다른로인의 집터와 비밀련락장소로 리용하던 바위굴이 있다.

신흥파출소자리 : 1940년 여름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 나온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소조원중의 한 동지가 라진시내 정찰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파출소경관놈을 감쪽같이 속여 넘겨 놈들의 《단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곳이다.

저술령 : 1940년대 전반기 국내에 진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조원들이 이 저술령을 넘어 멀리 원산, 평양까지 진출하여 적배치정형과 군사시설 등을 정찰하였으며 청진과 라진 등 국내도처에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서수라 :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에로 부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의 불벼락을 들씌우면서 1945년 8월 9일 웅기항에 상륙하였으며 서수라(만향고개)에 진격하여 최후 발악하던 일제침략군을 섬멸하고 이곳을 해방하였다. 이 전투에 이어 라진전투에 참가했다가 부대는 청진으로 계속 진격해 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상륙장소 :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현재의 함경북도 라진시 유현리에 상륙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는 김일성동지의 작전계획에 따라 1945년 8월 11일 이곳으로 상륙하여 이 일대에 둥지를 틀고있던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고 일제놈들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을 해방하였던것이다.

현재 이 상륙장소에는 1970년 6월에 세워진 표식주가 있다.

이 외에도 두만강연안에는 수많은 혁명전적지들이 있다.

이 모든 혁명전적지들과 거기에 있는 사적지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소집하시고 지도하신 주요회의

카륜회의(1930년 6월) **당시환경:** 일제는 《신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살인악법들을 조작하고 파쑈기구를 늘여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강도적략탈을 강화하였다. 이에 항거하여 국내 각지에서 반일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종파분자들은 파쟁을 계속하면서 혁명대렬의 분렬을 조장하였으며 대중에게 모험적인 5.30폭동을 강요하였다. 정세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올바른 혁명적로선을 요구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대상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며 동력은 로동계급과 농민, 소자산계급이며 민족자본가들도 혁명을 같이 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는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며 세계혁명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이 로선의 실현방도로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육성과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며 군사경험을 쌓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③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통일전선을 이룩함에 있어서 견지하여야할 원칙 즉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의 확고한 보장, 로농동맹의 강화, 단결할수있는 모든 계급계층과의 단결, 하층통일을 기본으로하면서 여기에 상층통일을 결합하는 문제 등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④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적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은 당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충분히 갖춘다음에 실현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워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려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비로소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일대전환의 새시대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명월구회의(1931년 5월 20일) **당시환경:** 만주침략을 위한 일제의 전쟁도발책동의 로골화,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좌경모험주의적 5.30폭동을 구실로 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계속되는 일제의 백색테로로 말미암아 동만일대는 공포와 전쟁전야의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에서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자》의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5.30폭동의 교훈을 심각히 분석하시고 조성된 주객관적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것이라고 다시금 밝히시면서 무장투쟁을 위한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할데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혁명의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력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는 혁명적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좌경적 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자》, 단행본, 1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우선 매개 지방들에서 혁명적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며 파괴된 대중단체를 복구정비하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며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결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투쟁전술에서 견지해야할 원칙을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일제의 민족리간정책을 폭로하며 조중인민들간의 전투적친선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은 좌경맹동적인 5.30폭동의 후과로 인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시급히 수습하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여 혁명을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송강회의(1931년 9월) **당시환경:**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으며 조선과 동만에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류혈적인 백색테로를 감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앉아서 죽느냐,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9.18사변후 조성된 정세와 카륜회의 이후에 추진하여온 무장투쟁준비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항일무장투쟁만이 조선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재천명하시면서 모두다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울것을 호소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송강회의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킴에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명월구회의(1931년 12월 16일) **당시환경:** 일제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의 불길을 만주 전지역에 확대하면서 우리 나라를 대륙침략전쟁의 《공고한 후방기지》로 만들려고 조선인민에 대한 류혈적탄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우리 인민들은 놈들의 류혈적인 탄압에 폭력적진출로 대답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시급히 전개

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일제의 만주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이미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투쟁의 장기성과 간고성이 예견되는 조건하에서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 상비적인 혁명무력으로서의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가 의거할 유격근거지의 창설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③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강력한 타격을 주기 위하여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인민들과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며 반일부대들을 포함한 중국인민의 반일력량과 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천명하신 방침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명월구회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회의였다.

량강구회의(1932년 9월) **당시환경:** 동만 각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이 강화되자 이에 당황한 일제는 대병력을 투입하여 반일무장력량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적들의 공세가 강화되자 반일부대들속에서는 미리 겁을 집어먹고 동요하며 투항하거나 도망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회의의기본내용: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일부대와 계속 공동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유격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반일부대들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또 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열렬한 반일혁명투사들이라는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반일력량편성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하고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며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할수있게 하였다.

왕청회의(1933년 봄) **당시환경:**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두만강연안에 혁명근거지가 창설되였으며 무장투쟁과 혁명활동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우리 나라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이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따라 정권문제, 근거지형태문제, 반제공동전선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근본문제인 정권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쏘베트》로선을 주장하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적책동을 폭로비판하시고 우리가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토지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생활에서 일제와 봉건잔재의 숙청,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8시간로동제와 남녀평등권의 실시, 선진적인 교육제도의 확립 등 인민혁명정부가 수행해야할 당면과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내놓으신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근거지창설에서의 좌경기회주의자, 종파분자들의 극좌적인 책동과 그 해독성을 폭로비판하시고 해방지구형태의 완전유격근거지창설과 함께 반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를 배합하여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반유격근거지창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③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그 어떤 곤난이 있어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된 독창적인 방침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더욱 풍부히 하였다.

다홍왜회의(1935년 2월말~3월초) **당시환경:** 항일무장투쟁의 급속한 강화발전에 당황한 일제는 유격대에 대한 《토벌》공세와 근거지에 대한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음흉한 술책으로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꾀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반《민생단》투쟁을 악용하여 제놈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채우려고 책동함으로써 조선혁명은 엄중한 난국에 직면하게 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할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혁명임무를 부인해나선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부당한 견해를 신랄히 폭로규탄하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응당한 권리이라고 하시면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일치하며 국제혁명운동발전에 기여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날뛰고 있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범죄적책동 즉 간부문제에 대한 민족배타주의적인 그릇된 《주장》과 《민생단》의 발생근원을 외곡하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80~90%를 《민생단》으로 몰려는 허황한 주장 그리고 일제의 교활한 책동에 발맞추워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군중을 《민생단》의 루명을 들씌워 배척함으로써 혁명대렬을 안으로부터 파괴하려는 범죄적인 행동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시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수호할것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끝으로 반《민생단》투쟁을 바로 잡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 투쟁은 어디까지나

적들의 간계를 물리치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여 교양개조함으로써 더 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선혁명에서 주체가 더욱 철저히 서게되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이 이룩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각국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과 호상관계에서 지켜야할 혁명적립장과 원칙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요영구회의(1935년 3월하순)

당시환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를 비롯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비상히 장성강화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킬수 있는 제반조건들이 마련되였다. 한편 이 시기 일제는 거듭 참패를 당하면서도 수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근거지 《토벌》에 내몰면서 《집단부락》설치에 미쳐 날뛰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반《민생단》투쟁에서 좌경적 편향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한 과업을 재천명하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광활한 지대에 진출시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조선혁명의 앙양을 위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보존강화하며 투쟁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술적우세를 계속 확고히 견지하면서 보다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심으로써 《근거지사수론》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단호히 분쇄하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 발로되였던 후과를 철저히 극복하며 이 투쟁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반《민생단》투쟁을 계급로선과 혁명적 군중로선을 정확히 결합하는 원칙에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단합시키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촉진시켰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이 보다더 튼튼히 이루어졌다.

남호두회의(1936년 2월 27일)

당시환경: 193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국내국제적으로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과의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다.

일본, 독일, 이딸리아 등 파쑈국가들은 《반공협정》을 체결하고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모든 진보적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데로 나갔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앞에는 파시즘과 증대되는 전쟁위협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할 과업이 긴절하게 나서고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강도적인 략탈과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들의 반일감정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내외의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발전하고 있었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보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력사적 보고에서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주체적혁명로선에 기초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후과를 철저히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일층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며 아직 《민생단》의 누명을 벗지못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빨리 회복시켜야 하며 혁명의 길에 나선 모든 사람들을 믿고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부단히 검열하며 단련육성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광범한 애국력량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하는 대중적인 혁명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의 명칭에 대하여, 통일전선조직의 강령에 반영할 기본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시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견지해야할 전술적원칙들과 그 구체적실행방도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③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강력히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기초와 사상적준비,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④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공청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청년들의 대중적인 지하혁명조직인 조선반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일청년동맹의 망라대상을 규정하시고 반일청년동맹의 당면한 행동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반일청년동맹조직건설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유격근거지는 반드시 반유격구형태를 띠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연안이 주민들의 구성과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나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는데 유리하다고 가르치시였다.

⑥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주변의 조선청년들과 국내의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들이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새 사단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 조선혁명의 주력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항일련합군사업을 강화하며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더 힘있게 벌려 일제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선혁명운동에서 주체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회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 반혁명적 주장들과 책동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위력과 주

체적인 혁명로선의 정당성을 다시금 파시하였다.

미혼진회의(1936년 3월) **당시환경**: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내놓으신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더욱 구체화할데 대한 구상을 하시면서 동강으로 나오시는 긴 행군과정에 미혼진에 이르시여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회의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북부 국경일대에로 진출시키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남호두회의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이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새로 편성할데 대한 문제를 내놓으시였다.

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독립 제1사를 제4사로, 북만에서 활동중인 제4, 제5련대 및 기타 력량으로 제5사를, 독립 제1사 제2련대를 골간으로 제6사를, 제4, 제5련대의 일부 력량으로 독립려단을 편성할것을 결정하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의 실현을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동강회의(1936년 5월 1—15일) **당시환경**: 일제에 대한 조선인민의 반일기세가 비상히 앙양되여갔으며 혁명대렬내에서는 조선혁명의 일대앙양의 길을 열어놓은 남호두회의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각 부문에 걸쳐 성과적으로 진행되여갔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내놓으신 전략적방침에 따라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고 통일전선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구체적방도를 명시하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의 창건을 선포하시고 그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및 규약을 발표하시고 회의가 진행되던 1936년 5월 5일 영광스러운 조국광복회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광복회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광복회 기관지로서 《3.1월간》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국광복회의 조직망을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통일전선운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술적문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또한 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 및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촉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한다고 가르치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지대에로의 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실천적방도와 맑스-레닌주의당창건준비를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국광복회를 창건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회의로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었으며 국제적으로 반파쑈 반제혁명력량편성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서강회의(1937년 3월) **당시환경**: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강도적략탈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하면서 특히 《내선일체》니, 《동조동근》이니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조선은 암흑의 천지로 변하였고 조선인민의 전도는 그야말로 암담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조국진군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하루속히 국내 깊이 진출시켜야 한다고 천명하시면서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더욱 줄기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백두산근거지를 장백산맥일대에로 확대할것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진군을 위한 각 부대들의 행동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일제의 국경경비의 요충지의 하나인 보천보로 진격하며 다른 부대들은 무산지구로 진격하는 한편 림강, 장백 일대에서 적을 견제할것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 혁명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가일층 확대발전시켜 나갈수 있게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 및 병사대회(1937년 8월) **당시환경**: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은 직후인 1937년 7월 7일 일제는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에서 식민지적 략탈과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이와함께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는 한편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막아 보려고 악을 쓰며 날뛰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일제의 멸망을 다그치며 조국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렬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국경일대에서의 무장투쟁을 적극화하여 일제의 배후를 교란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의 중요한 군사기지와 군수산업중심지들에 더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일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대중적인 투쟁에로 조직동원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활동에 배합하여 전인민적반일항전을 준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조선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조국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였다. 그리고 세계혁명 특히 린접국가들의 혁명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남패자회의(1938년 11월) **당시환경**: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지나파견군》, 관동군, 조선주둔 일본군, 위만군 등 10여만의 대병력을 투입하는 한편 우리 인민들에 대한 류례없는 파쑈적폭압을 강화하면서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기 위해 계속 악랄하게 날뛰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진출하시고 몽강, 림강 일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진행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남

패자에 도착하시여 동남만에서 활동하던 항일무장부대들을 여기에 집결시키고 남패자회의를 여시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혁명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열하원정》의 좌경모험주의적오유에 대하여 다시금 비판하시였으며 일제의 발악적공세를 짓부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체적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장장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적들의 대규모 《토벌》작전에 대처하여 주동적으로 대부대기동작전으로써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며 무장투쟁을 국경지대와 국내에로 계속 확대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활동과 배합하여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부대기동작전을 벌리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3개방면군으로 편성하시고 그 활동지역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회의에서 제시된 탁월한 투쟁방침은 좌경모험주의가 빚어낸 해독적후과를 가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계속앙양에로 이끌어 올릴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불러일으켰다.

북대정자회의(1939년 4월)

당시환경: 일제는 국경경비의 대대적인 강화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에 미쳐 날뛰면서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파괴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엄혹한 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패자회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1938년 겨울부터 1939년 봄에 걸쳐 적들의 발악적인 공격을 물리치면서 우리 나라 북부국경대안인 백두산서남일대에로 다시 진출하시는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마치시고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시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동기작전과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얻은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시고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를 분석하신 다음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기작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력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반격전에로 이행하여 계속 국내깊에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활동과 배합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를 국내각지에 파견하여 장백과 국내의 혁명조직을 복구하며 새로운 혁명조직을 내오도록 지도하시였으며 무장투쟁과 배합하여 반일조국광복운동을 힘차게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동북부로 이동하여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일제침략자들에게 정치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을뿐만아니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일제의 대검거선풍으로 말미암아 일시 조성되였던 난국을 극복하고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 올릴수 있게 하였다.

소할바령회의(1940년 8월)

당시환경: 독일, 이딸리아, 일본 등 파쑈국가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였으며 세계 각국인민들의 반파쑈반전투쟁이 날로 강화되였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속결하고 쏘련과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전쟁의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기 위하여 폭압기구와 파쑈악법을 무수히 꾸며내고 우리 인민에 대한 전례없는 폭압과 강도적략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집단부락》정책을 더욱 발악적으로 추진시키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격멸》하기 위해 덤벼들었으며 《쏘일중립조약》체결을 기화로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온갖 모략을 다하였다.

회의의 기본내용: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외의 혁명정세를 분석총화하시고 다가올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성원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세련된 혁명간부로 육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②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무장투쟁과 지하투쟁을 강화하여 일제의 패망을 촉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③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와 소조들이 정치군사활동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하여금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유격전술에 정통하고 현대전에 필요한 선진적군사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④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회의의 력사적의의: 조성된 엄혹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조국의 해방과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게 하였으며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마련하여놓을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할바령회의후 변천되는 정세를 예리하게 주시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하루빨리 앞당기며 그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있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3년 9월 15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하신 연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전국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론증하신 다음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자,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잘 할수 있습니다.》(《조선혁명

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단행본, 3페지)

그이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가까워오고있는 변천된 새로운 정세는 조선혁명가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학습과 함께 광복된 조국에서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유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자체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당면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여 강도일제와 최후결전을 전개할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닦을데 대하여, 국내에 강력한 조직적거점으로서의 혁명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속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치군사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해방된 다음 새 조국건설에 중요임무을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투쟁강령이였다. 또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과학적으로 천명하고 국제파시즘의 돌격대의 하나인 일제침략무력을 승리적으로 격파할수 있게 함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세계혁명운동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력사적인 연설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는 당시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인민이 나아갈 명확한 앞길과 당면한 투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력사적인 연설이였다.

그이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당면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선혁명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시고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발전을 억제당하였으며 오래동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의연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며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현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그이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로동계급이 령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길, 이것이 곧 그이께서 밝히신 해방된 조선인민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원칙에 엄격히 서서 통일적인 로동계급의 당,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조선공산당을 시급히 창건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조직원칙에 철저히 립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의 령도적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이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자기 주위에 최대한으로 집결시키고 일제 반혁명력량을 고립시키고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계급투쟁의 무기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정권이 수행해야 할 13개 조항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그이께서는 특히 조국남반부에 미제침략군이 기여들게 되는 정치정세는 자기의 혁명군대를 창건할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한다고 하시면서 민족군대의 건설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혁명군대를 창건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끝으로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의 3대과업수행에서 지도간부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는 해방후 조성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조선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추진시키고 보위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조선인민의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무으신 주요혁명조직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선진적인 청년들과 학생들로 무으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투쟁목적과 투쟁과업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ㅌ. ㄷ》의 목적은 장차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는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우선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고 조직의 력량을 장성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맑스-레닌주의사상의 보급과 반일애국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조직의 력량을 장성시키고 공산주의적핵심대오를 확대하며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은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열다섯살때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조직을 계기로 혁명활동을 개시하시였으며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고 이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으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청년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이끄는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았으며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되였다.

새날소년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직접 조직지도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적 첫 소년혁명조직이였다.

새날소년동맹은 청소년학생들을 믿음직한 새세대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에 의하여 1926년 12월 15일에 조직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날소년동맹앞에 다음과 같은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첫째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 그러기 위해서 동맹원들은 선진사회사상과 군사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둘째로, 민족해방과 동시에 계급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 그러기 위해서 동맹원들은 부모들의 낡은 민족주의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진사상을 따라야 한다.

셋째로, 동포들속에서 반일선전과 계몽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야 한다.…

그이께서는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년들의 활동준칙을 제정하시고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동맹원들의 특성에 맞게 독서회, 이야기모임, 강연회, 토론회, 웅변대회, 군사유희 등을 조직하여 소년들의 정치적각성과 조직성을 높이였다.

또한 동맹은 연예대를 조직하여 주변농촌을 순회공연하는 등 인민대중속에서 반일선전과 계몽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이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새날소년동맹은 우리 나라 소년운동을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길림시내의 전체 조선소년들을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무으신 합법적소년조직이였다.

그이께서는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길림으로 옮기신후 무송에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지도하신 경험에 기초하여 1927년 봄 조선소년들의 혁명적단체인 《조선인길림소년회》를 무으시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의 목적은 새날소년동맹의 투쟁과업과 마찬가지로 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점차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소년들의 취미에 맞게 독서모임, 토론회, 연예회, 체육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년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반일사상을 안겨주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교양과 보살핌속에서 조선인길림소년회 회원들은 그후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새날소년동맹과 함께 조선인길림소년회의 활동경험과 업적은 조선청년운동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조선인류길학우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길림시의 중등학교이상의 각급학교 조선인 학생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조직지도하신 합법적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봄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있던 길림시내의 조선인류학생들의 친목단체였던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책임지시면서 이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으로 조선인류길학우회를 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학생들의 기질과 특성에 맞게 독서회, 웅변대회, 토론회, 기념회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시는 한편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각종 출판물들을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류길학우회에 망라된 청년학생들은 민족주의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산주의영향하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그들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반제청년동맹원 또는 공청원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되였다.

반제청년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진적인 청년들과 학생들로써 무으신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비합법적 지하혁명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의 청년학생들속에 《ㅌ. ㄷ》의 하부조직이 생겨나고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핵심력량이 급속히 장성강화됨에 따라 보다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1927년 여름에 《ㅌ. ㄷ》의 명칭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시였다.

그리고 길림시내의 청년학생범위를 벗어나 중남만의 농촌청년들속으로 그 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망라한 대중적성격을 띤 비합법적청년혁명조직으로서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삼았다.

반제청년동맹은 자기의 투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기울이였다.

이때 벌써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계몽각성시켜 그들을 혁명운동에로 안내하는 선각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시였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동맹원들을 길림시주변농촌들에 파견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청년동맹의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매개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지도하시였다.

당시 교하에는 민족주의자들의 청년단체인 《려신청년회》가 있었다. 그이께서는 좌경적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면서 《려신청년회》안의 선진적인 청년들에게 혁명적교양을 주시여 그들로 하여금 그 내부에 반제청년동맹 지부를 조직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능숙하고도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반제청년동맹의 조직망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의 광범한 농촌뿐만아니라 심양, 장춘, 할빈, 돈화, 흥경, 류하, 료원 등 도시와 농촌의 넓은 지역에 확대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맑스-레닌주의의 불멸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반일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반제청년동맹의 활동과 경험은 해방후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고 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1927년 여름,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의 주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무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맹원들과 선진적인 청년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과 혁명의식을 높여주시였으며 동맹조직을 확대하는사업에 힘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공청조직망은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흥경,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등 넓은지역에까지 뻗어나가게되였다. 특히 공청회의들을 직접 지도하시여 《생활검토회》등 동맹생활규범을 세워주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공청원들을 비롯한 선진적청년들을 길림주변의 농촌을 혁명화하는 사업, 연예대활동과 군사훈련, 적정탐지, 적의 주구청산, 통신련락 등 어려운 혁명임무수행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실천투쟁을 통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시고 이 조직을 통하여 새날소년동맹,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반제청년동맹 등 모든 반일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4분 5렬되였던 국내청년운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를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혁명적인 길로 이끄실 목적으로 직접 국내에 공작원들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전반적인 조선청년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지도가 보장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이께서 공산주의청년동맹을 통하여 수많은 공산주의적청년핵심들을 육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발전을 추동하는 핵심적골간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산청년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 겨울 무송에서 조직하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선진적인 청년들을 핵심으로 하고 민족주의운동단체와 조선독립군에 관계했던 반일적인 청년들도 망라한 대중적인 혁명조직이였다. 그이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백산청년동맹은 짧은 기간에 무송, 안도, 돈화, 장백 등 백두산주변의 넓은 구역의 수많은 청년들을 묶어세울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산청년동맹으로 하여금 새날소년동맹의 사업을 지도방조하며 대중을 교양하여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 힘쓰도록 이끄시였다. 백산청년동맹원들은 그이의 지도밑에 광범한 군중속에서 조직선전활동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들은 그이의 모범을 따라 강연, 해설담화 등을 통하여 군중들에게 반일애국사상과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적극 선전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조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8년 무송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소조를 무으시였다. 소조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와 삼촌이신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소조의 투쟁목적은 일제를 타도하고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소조는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무송지방에 있던 부녀회, 청년동맹, 소년동맹 등 모든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소조는 공산주의적핵심들을 육성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결속하여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부녀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광범한 근로녀성들을 망라하여 무으신 대중적이며 혁명적인 녀성정치단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곳곳에 부녀회들을 무으시고 그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의 지도와 방조밑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1926년 부녀회를 무으시고 녀성들속에서 정치계몽사업과 반일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시는 한편 부녀회조직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

부녀회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녀성들속에 깊이 뿌리박고 넓은 지역에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원쑤가 누구인지 잘 모르던 녀성들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녀성단체들을 조직지도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에 부녀회를 무으시고 몸소 그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녀회는 광범한 녀성들을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불러일으켰으며 적지 않은 부녀회원들이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작식대원, 재봉대원, 전투원으로서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훌륭한 녀성혁명가로서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혁명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 여름, 이통현 고유수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공청및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써 결성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 무장소조였다.

조선혁명군의 사명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침투하여 인민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그들을 항일의 기치밑에 결속하면서 무장투쟁을 위한 경험을 쌓고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 있었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군의 정치 및 군사 조직체계를 짜시고 그 소조들을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파견하시였다. 소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광범한 대중속에 해설침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정치 및 군사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는 김형권동지의 지도밑에 1930년 여름 풍산, 리원, 북청, 홍원 등지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조선혁명군은 우리 나라에서 무장투쟁의 핵심적골간을 꾸려나가며 그의 정치적 및 군사적 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민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에 카륜파 고유수, 오가자에서 조직하신 빈고농을 핵심으로 전체 근로농민대중을 망라한 농민들의 혁명적대중단체였다.

그이께서는 빈고농을 핵심으로 전체 근로농민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혁명화하여 그들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카륜파 고유수에서 농민협회를 조직하시였으며 오가자에서는 본래 있던 농우회를 농민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농민동맹(농민협회)은 농민들에게 반일애국주의사상과 계급의식교양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농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그들을 줄기차게 동원하였다.

또한 농민동맹(농민협회)은 농촌을 혁명화하며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청년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0년에 광범한 군중들을 계층별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혁명의 핵심력량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적대책의 하나로서 카륜파 고유수에서 조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회에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던 청년들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여 조직에 망라시키시였으며 지어 민족주의적인 청년조직까지도 혁명적으로 개편하시여 단일한 청년조직의 지도를 받을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청년회는 청년들에게 주로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보급하며 군사지식을 습득시켰다. 그리고 부락에 잠입하는 일제주구들을 청산하는 투쟁과 혁명가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청년회원들중에서 검열되고 준비된 우수한 회원들을 뽑아서 공청에 받아들이거나 조선혁명군에 입대시키시였다.

청년회는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던 시기 광범한 청년들을 각성시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과 혁명의 핵심력량을 꾸리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년탐험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 혁명의 후비간부를 전망성있게 키우시기 위하여 고유수, 오가자에 있는 삼광학교와 삼성소학교에 조직하신 소년들의 대중적정치단체였다.

소년탐험대원들은 그이의 혁명사상과 가르치심을 열심히 학습하면서 농민들속에서의 반일선전과 로력협조, 밀정감시, 군사훈련, 통신련락 등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였다.

그이의 높은 뜻으로 교양육성된 청소년들은 모두 혁명의 후비간부로,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자라났다.

소년선봉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실 목적으로 1930년에 회덕현 오가자 삼성소학교에 조직하신 소년들의 대중적정치단체였다.

소년선봉대의 임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군사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모든 일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생활에서 검박하고 례절이 밝은 대원이 되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조직의 비밀을 지키며, 보초근무, 군사훈련, 통신련락, 밀정감시, 연예대선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것이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소년선봉대원들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애국의 정열로 불타는 열렬한 혁명투사로 자라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오가자일대에서 소년선봉대를 조직운영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안에 일제와 싸울수 있는 청소년들을 망라시켜 소년선봉대를 조직하시였다.

유격근거지의 소년선봉대는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에 따라 조직된 반군사조직의 하나로서 농사도 지으면서 근거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왕청현 공청확대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년선봉대와 공산주의아동단도 공청의 유력한 후비군인것이다. 지난 모든 경험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소년선봉대와 혁명적인 아동들은 상상하기 곤난한 혁명적기적들을 창조할수 있었다. 천진란만한 그들에게 계급적의식이 옳게 침투되면 청장년보다도 못하지 않게 곤난한 혁명적과업들을 완수할수 있다. 그들은 백색테로하에서도 적정에 대한 정찰과 통신련락과 심지어 적의 무장해제 등 가장 어려운 일들을 영용하게 수행하고있다. 그들을 옳게 조직하여 혁명적교양을 정상적으로 준다면 장래 훌륭한 혁명가로 육성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소년선봉대는 반일자위대와 함께 적의 무기를 획득하고 유격근거지를 지켰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원호사업, 후방가족들의 로력협조, 비밀통신련락, 삐라공작, 적정탐지, 적의 주구청산 등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또한 소년선봉대에서 우수한 대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되였다.

그이의 높은 뜻으로 교양육성된 소년선봉대원들은 앞날의 조선혁명의 후비대로, 믿음직한 혁명투사로 자라났다.

조선인민혁명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를 창건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65페지)

조선인민혁명군은 그이께서 몸소 다년간 육성하신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직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조선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첫 혁명적무력이였으며 인민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또한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혁명군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새 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였으며 일제의 패망을 선고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등 전반적조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심으로써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인민혁명정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봄 왕청회의에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두만강연안 혁명근거지들에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세우는 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것도 아니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부이며 이 정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녀자들에게 남자와 꼭 같은 권리를 주며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다 일할수 있고 다 잘 살수 있게 한다.…

인민혁명정부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일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으로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권이였다.

인민혁명정부의 당면임무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에서 제반 민주주의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근거지인민들에게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선포하고 가렴잡세를 페지하였으며 남녀평등권과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완전유격근거지에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경제적관계와 혁명질서가 확립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일대의 완전유격근거지들에 수립하신 인민혁명정부는 조선인민에게 장차 수립할 정권의 원형을 실물로 보여주었고 그것은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세워야 할 정권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맑스-레닌주의를 풍부히하고 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였다.

반일자위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일대의 유격근거지에서 적위대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조직하신 자원적인 반군사조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기지인 유격근거지를 철벽으로 지키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총을 잡고 싸울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물론하고 원쑤를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나서야 한다.

근거지의 전체 인민이 유격대와 힘을 합쳐 싸운다면 그 어떤 적도 능히 막아낼수 있다.

반일자위대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부터 조직된 인민적인 무장대오이다.…

반일자위대원들은 인민들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자체로 농사를 지어 식량도 해결하고 인민들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또한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을 연구체득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적은 인원과 빈약한 무장으로 근거지 《토벌》에 달려드는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반일자위대는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근거지를 튼튼히 방위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의용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일대에 창설하신 완전유격근거지에 무으신 반군사조직이다.

청년의용군의 임무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보위하고 그들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단련육성하는 한편 농사도 지으면서 유격대와 인민을 돕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의용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도와 침공하여오는적을 족치고 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하였다.

청년의용군대원들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에 따라 유격근거지가 발전적으로 해산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게 되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청년의용군은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며 무장대오를 보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아동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 무으신 공산주의적소년정치조직이다.

아동단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가르치심을 자기 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았으며 이에는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결의한 7~14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받아들였다.

반일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3년 여름 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내에 각계각층의 반일력량을 묶어세우시기 위한 조직적대책의 하나로서 반제동맹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무으신 대중적인 반일혁명조직이였다.

반일회의 임무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광범한 반일력량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그이의 주위에 묶어세우며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

들의 반일혁명의식을 높여주며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적극적인 원호사업을 조직진행하는것이였다.

반일회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여 그들을 묶어세웠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면서 대중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반일회는 통일전선운동의 조직적거점의 하나로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농민위원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3년 여름에 농민협회를 개편하는 형식으로 조직하신 농민들의 대중적인 반일혁명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그이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두만강연안을 비롯한 광범한 농촌지역에 농민위원회들이 조직확대되였으며 여기에 농민들이 광범히 망라되게 되였다.

농민위원회는 광범한 농민군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묶어세우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국광복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에 따라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그 창립선언 및 규약을 발표하시였으며 그 기관지 《3. 1월간》을 창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것을 조선인민앞에 나선 가장 기본적인 정치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강령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과업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창설할데 대한 과업, 민주주의적교육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 그리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진 상설적인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으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혁명적정치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의 투쟁목적과 투쟁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본회는 전체 반일독립사상을 가진 동포들을 단결시켜 강도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인민의 진정한 해방을 달성하는것을 취지로 한다.

이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본회의 목적 10대강령을 중심행동강령으로 하는 동시에 각종 형식으로 투쟁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이 목적 10대강령을 실현하도록 투쟁한다.》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후 백두산근거지에 의거하시여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전국각지에 파견하시는 동시에 국내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는 혁명가들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여 나아가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비롯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전국각지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들에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이에는 불과 수개월동안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등 수십여만의 반일군중이 결속되였다.

조국광복회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해설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기치밑에 모든 반일력량을 동원집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하심으로서 주체적혁명력량이 전국적범위에서 튼튼히 꾸려지게 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이 앙양되게 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국광복회창건과 통일전선운동의 확대강화는 국제적으로 반제통일전선운동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세계식민지 및 예속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주요 전투

쟈피거우전투(1933년 3월 3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휘밑에 항일유격대가 왕청현 쟈피거우에서 불의에 적을 기습하여 소멸하고 많은 무기를 탈취한 매복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쟈피거우의 골짜기에 매복진을 치고 군사용목재운반을 호송하는 일제수비대와 무장자위단놈들을 불의에 습격소멸하고 권총과 많은 보총 및 탄약을 로획하였다.

그이의 직접적지휘밑에 진행된 쟈피거우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적의 무기를 탈취하는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왕청방어전투(1933년 4월 17~1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근거지내 인민들이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토벌》작전을 물리치고 조선혁명의 심장부를 영웅적으로 지킨 전투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과 근거지인민들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해온 원수놈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끝짜기 좌우의 유리한 고지들을 차지하고 불의의 사격으로 적을 소멸하였으며 근거지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전투행동을 보장하는 한편 밀려드는 적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웠다. 나어린 소년들까지 널판자에 못을 박아 그것을 산기슭의 유일한 통로에 매몰하여 적 자동차의 침입을 저해하는 등 모든 사람들이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싸웠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일제침략자들은 3일만에 400여명의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고 말았다.

소왕청방어전투는 우리 인민에게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싸운다면 그 어떤 원쑤도 반드시 타승할수 있다는 고귀한 경험을 주었다.

동녕현성진공전투(1933년 9월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중국반일부대들과 첫 련합작전으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성시공격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시내에 지휘처를 정하시고 전투를 총 지휘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전투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여 일제침략군의 병실을 완전히 봉쇄하였으며 맹렬한 시가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서산포대에 의거하여 발악하던 적들을 제압하고 포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런데 남문과 동문으로 돌입하던 반일부대는 적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적들을 맹렬히 공격하여 전투성과를 확대하면서 반일부대들을 구원하였으며 그들의 사기를 돋구어주었다. 적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돌격을 시도하였으나 조선인민혁명군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그때마다 분쇄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적의 병기창, 군수품적치장 등을 습격하여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으며 200여명의 일본군과 300여명의 위만군을 살상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동녕현성진공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제공동전선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는 또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법과 령군술을 과시하였으며 그이께서 육성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용감성과 대담성, 그들의 영웅적인 기개를 널리 시위하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방어전투(1933년 12월~1934년 1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1933년 12월~1934년 1월사이에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을 물리치고 피로써 혁명근거지를 사수한 가장 큰 방어전투이다.

당시 소왕청유격근거지는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고계시는 조선혁명의 심장부였다.

그렇기때문에 적들은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작전에 미쳐날뛰였다.

적들은 1933년 12월에 왕청과 훈춘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 경비대와 조선주둔 19보병사단관하 5천여명의 《최정예》병력을 동원하여 비행기와 포, 기관총의 엄호를 받으면서 소왕청유격근거지로 총공격하여왔다.

이 준엄한 시기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주변의 험악한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적을 정면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하면서 익측과 배후타격을 능숙하게 배합하시여 적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도록 하시였다.

당시 적들보다 비할바없이 적은 력량으로 20여일간이나 계속되는 전투로 하여 근거지내의 형편은 더욱 더 어렵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소왕청근거지를 방어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두개의 부대로 나누어 근거지를 계속 방어하며 다른 한개 부대는 적후방에 진출하여 활동할데 대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한개 부대를 거느리시고 적후의 량수천자, 북봉오동 등지의 적 병영, 경찰, 자위단, 군수창고, 군수물자 수송대들을 련속 습격소탕하시였으며 적들의 집결지점이며 후방중심지인 왕청시가지에 대한 공격작전을 벌리시여 놈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활한 전술에 의하여 련속 뒤통수를 얻어맞고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절망에 빠진 적들은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대한 토벌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50여명의 인원으로 5,000여명의 적들과 40여일간에 걸쳐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조선혁명의 심장부인 소왕청근거지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소왕청방어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혁명의 사령부를 튼튼히 보위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전투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은 필승불패임을 보여주었다.

라자구전투(1934년 6월 26일~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중국인반일부대와 협동작전으로 원쑤들을 섬멸한 성시진공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6일 라자구진공전투에 앞서 일부 부대의 력량으로 석두하자의 적들을 삼도하자지역의 개활지대에 끌어내여 소멸하고 계속하여 라자구시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과 중국인 반일부대들은 4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시가를 공격하였다.

3일간의 가렬한 전투가 계속되자 반일부대에서 동요가 일어났으며 적들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반돌격을 기도하였다. 조성된 불리한 정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서산포대를 점령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공격하는 주력부대의 진두에서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원쑤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떠벌이던 서산포대를 비롯하여 적의 박격포진지, 경찰서, 적지휘부 등을 점령하고 라자구를 해방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고 수많은 적을 살상포로하였다.

라자구전투의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령군술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더욱 확대공고화하였으며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주동적으로 보위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킴에 이바지하였다.

로흑산전투(1935년 6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로흑산에 둥지를 틀고있던 악질적인 《정안군》을 소멸한 전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며 북만원정에 앞서 그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로흑산부근 왕보만에 주둔하고 있는 악질적인 《정안군》놈들을 때려부실 작전계획을 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로흑산의 위자구골짜기에서 산림대로 가장한 유인대로 추격해 오는 적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우고 발악하는 적들을 육박전으로 완전히 소멸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이 전투에서 적들이 《철군》이라고 자랑하던 《정안군》 1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박격포, 중기 및 경기관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로흑산전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유격전술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고 보다 넓은 지역에로 진출하는 대원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다.

무송현성진공전투(1936년 8월 17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중국인 반일부대와 련합작전으로 적들을 소멸한 성시공격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군사전략상 요충지인 무송현성전투에 앞서 적의 증원부대들이 올수있는 림강, 몽강, 안도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들에 방차대를 미리 파견하시는 한편 일부 력량으로 무송현성에서 얼마 멀지 않는곳에 있는 송수진을 들이쳐 적들의 주의를 그곳에 집중시킨 다음 8월 17일 새벽 2시 무송현성에로 진공할것을 전대오에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남문 가까이에 지휘소를 정하시고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주공방향을 담당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적의 중요지탱점인 동산포대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소남문과 대남문으로 진격하였으나 북문으로 공격하던 반일부대들이 원쑤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퇴각하기 시작함으로써 정황은 아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조성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정황을 재빨리 통찰하시고 적들을 성밖으로 끌어내여 소멸할것을 계획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각 부대들을 동산과 그 일대 고지로 이동시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박격포와 비행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덤벼드는 적들에게 집중사격과 육박전으로 섬멸적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은 수많은 시체를 남긴채 패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군과 위만군 3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로획하였다.

무송현성전투의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전투적 위력을 다시금 널리 시위하였으며 원쑤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대덕수 및 소덕수전투(1936년 9월 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장백현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첫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송일대의 적을 제압하신후 1936년 8월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만강을 떠나 지양개를 거쳐 9월 1일에 장백현 대덕수에 이르시여 이곳에서 적들의 공격을 미리 예견하시고 놈들을 족칠 작전을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선바위와 신창동에서 넘어오는 길목부근에 망원초를 배치하시고 대덕수마을 인민들을 대피시킬 조치를 취하신다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기여드는 적들을 사격권내에 바싹 끌어들여 몰살시킬것을 명령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망원초성원들의 뒤를 따라 미친듯이 기여드는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었으며 일제히 돌격하여 놈들을 소멸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2일 2도강과 15도구골 교차지점을 이루는 울창한 산림지대인 마등창에 이르시여 추격해오는 적들을 소멸할 작전계획을 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작전하신대로 추격해오는 적들을 서로 접근시켜 맞불질을 붙여놓고 대원들을 재빨리 산등판에 오르게 하시였다.

이날 적들은 저희들끼리 개싸움을 벌려 수많은 죽엄을 내였다.

대덕수, 소덕수 전투에서의 승리는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국경지대에로의 진출을 알리는 서막으로서 인민들에게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조국광복의 신심을 확고하게 하였다.

이도강전투(1936년 10월 2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도구를 습격한데 뒤이어 이도강전투를 계획하시고 몸소 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선발대가 먼저 철조망을 헤치고 통로를 낸다음 제1습격조는 북쪽으로부터 부락에 돌입하여 적의 병영을 포위하고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며 제2습격조는 동쪽으로부터 부락에 돌입하여 적의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이때에 일부 력량은 경찰서부근에 있는 적장교, 악질지주, 친일관료배들의 집들을 습격하여 악질분자들을 처단하였으며 한쪽으로는 적의 창고물자들을 굶주리고 헐벗은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순식간에 이도강의 적은 소탕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도강전투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유격전술과 탁월한 령군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었으며 백두산일대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적들을 제압함으로써 백두산근거지창설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희샤즈거우전투(1937년 1월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희샤즈거우에 달려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준 전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가 희샤즈거우에 자리잡고 있다는것을 탐지한 적들은 많은 병력으로 이 일대에 달려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구체적인 정황과 적들의 기도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여 삼개골고지의 남쪽고지와 북쪽고지에 각각 배치하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적들을 유인하여 삼개골부근의 유리한 곳에 몰아넣고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그리고 살아남은 놈들을 야간습격으로 완전히 소멸하였다.

희샤즈거우전투의 승리는 1937년 일제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동기토벌작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홍두산전투(1937년 2월 1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홍두산에서 일제의 《토벌대》를 소멸한 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가 홍두산밀영에 있다는것을 탐지한 적들은 이도강주둔 《토벌대》 500여명을 동원하여 홍두산밀영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여왔다.

이때 홍두산밀영에는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불과 20여명의 대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황을 제때에 통찰하시고 적들을 깊은 골짜기에 유인하여 소멸할것을

결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초소에 있는 동무들을 처음에는 적들의 눈에 띄우도록 산릉선을 타고내려오다가 골짜기를 돌아내려오도록하시였다.

적들은 철수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보초병들을 보고 미친듯이 총을 쏘아대면서 릉선을 따라 급히 내려오고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이미 우리 보초병들이 내려오는 길목을 향하여 반달형으로 산개하였다가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하여 순식간에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적들은 짐을 지고 강제로 끌려온 인민들을 《방패》로 계속 집요하게 덤벼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을 념려하시여 사격을 멈추게 하시고 이 기회를 리용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곧 돌격으로 넘어가 거의 소멸하였다. 살아 남은 놈들도 사령부의 안전을 념려하여 제2밀영쪽에서 이곳으로 달려오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 의하여 몰살당하였다.

홍두산전투의 승리는 이 시기에 진행된 전투들과 함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줌으로써 놈들의 《토벌작전》을 격파하고 백두산근거지를 공고히하며 인민대중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의 반일기세를 크게 고무하였다.

리명수전투(1937년 2월 2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일제놈들이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소멸》하겠다고 발악하면서 벌린 1936—1937년《동기토벌》작전을 최종적으로 꺾어버린 전투이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동기토벌》에서 련속적인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들은 350여명의 병력으로 이도강과 8도구 두방향으로부터 사문개정게선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공격하려고 은밀히 행동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와 기동상태를 미리 통찰하시고 놈들을 일격에 소멸하기 위하여 하루밤사이에 부대를 100리가 넘는 리명수로 진출시키시여 유리한 지점인 리명수골안에 매복시키고 이도강에는 일부 부대를 배치하시였다.

이것을 알리없는 8도구의 적 200여명은 마음놓고 리명수골안으로 올라오다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집중사격에 녹아났다.

이 무렵에 이도강쪽에서 150여명의 적들이 기여들다가 리명수골짜기로 넘어서는 고개턱에 배치된 유격대원들의 세찬 불벼락을 맞아 녹아났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17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경기관총 3정, 보병총 150여정, 권총 30여정과 수백발의 탄약을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였다.

리명수전투의 승리는 1936년—1937년 동기간에 있은 전투들과 함께 일제의 《동기토벌작전》을 완전히 분쇄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천보전투(1937년 6월 4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일제의 군사적요충지인 보천보로 진출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력사적전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헤매고있던 준엄한 시기에 서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진군에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6월 3일 일제가 호언장담하던 《철벽》의 《국경경비진》을 돌파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찰자료에 근거하여 적정을 다시 확인하신후 구체적인 전투계획을 세우시고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전투명령은 기관총 두문을 가진 한개 구분대는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는 동시에 무산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며 또 한개 구분대는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우편국 등을 습격하며 그리고 한개 구분대는 기관총 한문을 가지고 혜산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고 증원부대를 소멸하는 한편 혜산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나머지 한개 구분대는 시내 각처에 삐라와 격문을 살포하며 주민들에게 선전해설공작을 하고 로획한 적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것이였다.

6월 4일 밤 10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울리신 한방의 총소리를 신호로 보천보전투는 개시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성난 사자마냥 적의 소굴에 뛰여들어 원쑤들을 쓸어눕혔으며 순식간에 경찰관주재소의 적을 소탕하고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우편국 등에 불을 질렀다.

온 거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포고문이 살포되였으며 격문과 삐라가 나붙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거리에 떨쳐나온 군중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면서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뭉쳐 일제를 반대해 싸울것을 호소하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오매에도 잊지 않고 흠모하여 존경해마지않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명한 모습을 눈앞에 바라보고 그이의 연설까지 듣게 된 인민들은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으며 온거리는 환호로 들끓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보천보진격에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대병력으로 개선의 길에 오른 조선인민혁명군을 추격하여왔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구시산과 간삼봉에서 완전히 녹아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천보전투승리의 거대한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천보전투는 어떤 전략적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 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 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입니다. 여기에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입니다.》(《김일성선집》, 5권, 1965년판, 504～505페지)

구시산전투(1937년 6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보천보전투에서 승리한후 뒤따라오는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준 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천보에서 얻어맞은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뒤따라 오리라는것을 예견하시고 놈들을 구시산에서 섬멸할데 대한 작전계획을 세우시였다.

적들은 혜산일대의 무장경찰, 수비대《토벌대》 등 700여명의 무력으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황급히 추격하여왔다.

김일성동지의 작전계획에 따라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기 위해 구시산에 매복진을 치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적들을 가까운 거리에 바싹 접근시켜놓고 명중탄과 돌사태를 들씌워 무리로 쓸어눕히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수많은 적을 살상하고 경기관총, 척탄통을 비롯한 많은 무기와 군수기재들을 로획하였다.

구시산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다시금 잘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더욱 크게 안겨주었다.

간삼봉전투(1937년 6월 3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보천보전투후 계속되는 적들의 추격을 최종적으로 꺾어놓은 력사적인 전투이다.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일제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소위 《대토벌》을 서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간삼봉계선에서 적들을 소멸할 구체적인 전투계획을 세우시였다.

6월 30일 아침 놈들이 소위 《정예》부대라고 이르던 일제의 조선주둔 19사단소속 함흥 74련대의 2천여명과 위만군혼성려단 400명이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포위진을 치면서 간삼봉으로 기여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련합부대는 간삼봉계선의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전투진를 펴고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

온종일 계속된 가렬한 전투에서 놈들의 《삼면포위공격》기도는 완전히 분쇄되고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하였으며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무기와 장구를 집어던지고 달아났다.

간삼봉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적 1,500여명을 살상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간삼봉전투의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활한 령군술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조선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였다.

가재수전투(1938년 4월 1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가재수집단부락에 둥지를 틀고 있던 적들을 소멸한 전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정을 세밀히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재수집단부락을 3개방향으로 은밀히 포위하고 적들을 소멸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일본군복으로 변장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개 부대가 동문앞에 이르러 성문보초놈을 제끼고 성문을 열자 뒤따라 오던 부대들이 쏜살같이 부락안으로 들어가 포대들과 경찰서를 포위하고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적들은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포대들은 순식간에 점령되였다. 북쪽포대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점령되였다.

가재수전투는 《공산군을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떠들면서 인민들을 기만하려던 적들의 허위선전을 낱낱이 폭로분쇄하고 놈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주었으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가재수전투를 통하여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6도구전투(1938년 4월 2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림강현 6도구에 둥지를 틀고 있던 적들을 소멸한 습격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지도하신후 대륙침략에 미쳐날뛰는 일제의 뒤통수를 더욱 호되게 때리며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국경연안으로 진출하시여 첫전투로서 6도구시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4월 26일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일부대원들을 친솔하시고 6도구 왕산에 도착하시여 이날밤에 성시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삽시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일부 살아남은 적들도 무장해제시켰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수많은 적을 살상하였으며 식량과 의복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6도구전투는 적 토벌중심지의 하나를 짓부심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놈들의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쌍산자전투(1938년 4월 2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림강현 쌍산자에서 일제 《토벌대》를 소멸한 전투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달려드는 적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부어 놈들을 무리로 쓸어 눕히였으나 적들은 새로운 력량을 투입하여 집요하게 공격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대원들과 함께 명중탄을 퍼부어 많은 적을 소멸하였다.

적들은 온종일 기병을 포함한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발악하였으나 결국 200여명의 더러운 시체를 남기고 도망치고 말았다.

쌍산자전투의 승리는 대륙침략에 미쳐날뛰던 일제놈들의 뒤통수를 때림으로써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구가점전투(1939년 4월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압록강연안 국경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는 적들의 군사요충지의 하나로서 수많은 적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구가점을 불의에 습격하여 단숨에 점령하고 수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한 전투이다.

이 전투는 춘기대반격전으로 넘어간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침략자들에게 가한 첫타격으로서 놈들을 공포에 떨게하였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15도구전투(1939년 4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가점전투에 련이어 적들에게 숨돌릴틈을 주지않고 련속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적들의 《토벌거점》으로 되고있던 15도구에 대한 습격전투를 조직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사방에서 적의 소굴을 공격하여 먼저 동, 서, 남 세곳의 적포대를 점령한다음 발악하는 북문포대에 총공격을 들이대여 순식간에 점령해버렸다.

이 전투는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5.1절을 높은 전투적성과로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진행되였으며 수많은 적들을 살상하고 막대한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반절구전투(1939년 5월 3일): 소더수등판에서 5.1절을 성대히 기념한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곧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시는 한편 반절구전투를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월식으로 달이 가리워지는 바로 그 순간을 리용하여 적의 소굴에 부대를 은밀히 접근시키고 불의에 일제히 공격하도록 하심으로써 원쑤놈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식량, 피복, 탄약

등 조국진군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로획하였다.

무산지구전투(1939년 5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9년 5월 무산지구의 적들을 소멸한 국내진공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대정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몸소 거느리시고 5월 18일 압록강을 건너 청봉, 건창, 베개봉을 거쳐 삼지연을 지나 일제가 갓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5월 21일 무포에 이르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포에서 무산지구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전투명령을 내리신후 5월 22일 아침 몸소 부대를 거느리시고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서 부대를 두개방향(신사동방향과 신개척방향)에서 활동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명철한 전술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신사동과 신개척 등지에 둥지를 틀고있던 적들을 족치고 로은산지구일대를 단숨에 해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의 전투행동을 지휘하시면서 신사동인민들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리고 목재소로동자들의 합숙도 친히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신후 곧 부대를 거느리시고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에 돌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기도를 미리 꿰뚫어보시고 창평방향에서 뒤따라오는 적들을 대홍단벌에서 소멸할것을 계획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5월 23일 미친듯이 달려드는 수백명의 적들을 대홍단벌에서 완전히 소멸하고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였다.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전법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진군에 관한 방침의 정당성을 빛나게 확증하였다.

또한 이 승리는 이른바 《공산군을 섬멸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확대하며 인민들에게 승리의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다.

올기강전투(1939년 6월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산지구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백두산동북부에 진출하시여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조직진행하신 전투이다.

무산지구전투에서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한 일제는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방을 탐색하려고 악착스럽게 날뛰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올기강과 그 옆 큰 길 좌우쪽에 매복진을 치고 유인대를 뒤따라 기여드는 일본《지도관》놈이하 200여명의 적들에게 불의의 불벼락을 들씌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순식간에 일본《지도관》놈을 포함하여 적 50명을 살상하고 위만군 대대장이하 대부분을 포로하였으며 기관총 4정, 100여정의 보총을 포함하여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올기강전투는 김일성동지의 명철한 전략전술을 다시한번 시위하고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하여 주었다.

륙과송, 자신즈 전투(1939년 12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조직전개하시던 시기의 중요한 습격전투이다.

당시 륙과송에는 목재 채벌로동자 500～600명과 70여명의 산림경찰대가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12월 17일 밤 9시, 놈들의 병실에 대한 진공을 개시하여 집요하게 저항하는 적들을 소멸하였다. 그리고 식량과 군수물자를 수많이 로획하였다.

륙과송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마친 부대는 그곳에서 60～70리 떨어진 자신즈에 진출하였다.

당시 자신즈에는 근 1,000여명의 목재채벌로동자들과 일본놈장교가 지휘하는 위만군, 산림경찰대들이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12월 24일 밤 12시경 적병영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궁지에 빠진 적들은 총한방 쏘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은 자신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로획한 물자운반에 자원하여 나선 300여명의 로동자들과 대원들은 수많은 식량과 군수물자를 가지고 지정된 지점에 도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들앞에서 몸소 정치사업을 하시였다.

로동자들은 앞을 다투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켜줄것을 청원하였다. 이리하여 륙과송에서 새로 들어온 동무들까지 합쳐서 200여명의 신입대원들이 부대에 편입되였다.

륙과송, 자신즈 전투는 적들의 《대토벌》작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확대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대마록구전투(1940년 3월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석탄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조직지도하신후 다시금 국내깊이에로 진공하기 위하여 두만강일대에로 진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의 《토벌대》가 둥지를 틀고있는 대마록구를 불의에 습격하여 놈들을 소멸하고 식량을 로획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공격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저녁 8시경 적본부를 불의에 습격하여 그 내부에 도사리고있던 놈들을 소탕하고 모여온 로동자들앞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적10여명을 살상하고 기관총 1정과 수십정의 보총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와 탄약 10여상자, 1,000여벌의 군복, 700여포대의 밀가루, 그밖의 물자들을 로획하였다.

대마록구전투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커다란 정치적영향을 주었으며 새로 입대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전투사기를 크게 높여주었다.

홍기하전투(1940년 3월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화룡현 홍기하골짜기에서 뒤따르는 적들을 유인하여 족쳐버린 전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마록구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무산군 창평방면으로 진출하시다가 뒤따르는 적들을 홍기하골짜기의 유리한 지역에서 소멸할 전투계획을 짜시고 부대를 매복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복수의 불벼락을 퍼부어 일제침략자들이 소위 《정예》를 자랑하던 마에다부대와 《의용신선대》라는 《토벌대》놈들을 완전히 격멸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적17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기관총 6정, 보총 100여정, 권총 30여정, 무전기 1대, 탄약 수만발을 로획하였다.

홍기하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유격전술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으며 적들의 《토벌》기도를 파탄시켰으며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적문학예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진정으로 인민적인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왔습니다.

지금은 예술대요, 극단이요 하는것을 다 갖추어놓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혁명사업을 할 때에는 당조직사업과 선전사업을 하고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리는 또 자신이 소설도 쓰고 각본도 만들고 작곡도 해야만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357페지)

수령님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지도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혁명문학예술사업을 확고히 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선전선동자적역할을 중요시하시고 광범한 군중속에서 문학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송에서 소학교에 다니실 때에 벌써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면서 학생들로써 연예공연을 준비하여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으며 그후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시고 청소년학생들로 연예대를 무어 노래, 춤, 연극 여러가지 공연종목을 가지고 주변농촌을 순회공연하면서 농민들속에서 반일선전교양과 계몽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길림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반일혁명조직들을 내오시고 지도하실 때에도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군중을 반일혁명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선전대를 만들어 혁명적노래를 보급하며 연극을 공연하는 등 군중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조직지도하신 혁명적문학예술활동은 철저히 주체사상을 구현한데서 선행시기의 다른 모든 문예운동과 구별되였다. 그이께서는 무송제1소학교에 다니시던 때에 그곳 무송에서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우신 백산학교의 개교를 경축하는 모임에서 연극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를 공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때에 벌써 일제침략자들을 끝없이 미워하시고 주체적립장에서 반드시 조국을 해방하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가지시였으며 혁명승리를 위하여서는 개인복수나 테로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체인민이 한데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문예작품에서 구현하시였음을 알수 있다.

그이의 직접적지도밑에 길림에서 창작공연된 연극이 관중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것도 이 작품이 민족주의자들의 부패타락한 정체를 폭로하고 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는 사상적지향을 구현함으로써 당시 조선혁명앞에 나서고 있는 절박한 정치적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다는데 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조직진행하신 혁명적문학예술사업에서 벌써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며 조선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주체적인 혁명적작품창작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여 그 활동을 지도하시면서 몸소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실 때에도 예술선전대활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를 활발히 조직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지도하시는 전과정에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방침을 내놓으시고 유격대원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대중정치사업과 부대내 군중문화사업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문학예술활동을 활발히 조직진행하도록 육친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지도와 육친적배려밑에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집체적힘과 지혜에 의하여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형태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군중속에 널리 보급되였고 또한 적군와해공작에서 예리한 투쟁무기로 리용되였다. 실로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그 높은 사상예술적성과와 혁명에서 논 역할과 의의에 있어서 우리 나라 문학예술사상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은 리정표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왕청현 공청확대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연극, 혁명가요, 강연, 체육회, 문맹퇴치사업, 선전포스터, 격문 등 각종 형식으로써 그들의 비위에 알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아주 리해하기 쉬운것을 취하되 반드시 명심할것은 말한마디, 노래 한 구절 할것없이 모두 일본제국주의 타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목적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인식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사상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인 문학예술사업에서 철저히 주체를 세울데 대한 근본요구가 제시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시종일관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에 립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였으며 문학예술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포치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적인민들자신의 집체적힘으로 이를 발전시켜나가도록 지도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정확한 지도방침을 내놓으시기 이전시기에는 조선혁명과 밀접히 결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인민들에 대한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 될수 없었다. 오직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문학예술사업

에서도 이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정확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비로소 문학예술은 철저히 조선혁명과 근로인민에게 복무하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힘있게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항일혁명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의의를 심오히 통찰하시고 손수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반일전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가요를 창작하시여 군중속에 널리 보급하시면서 노래와 시를 대중교양과 혁명투쟁에 적극 리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가요의 근본지도사상으로 되였다. 항일혁명가요는 그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제사상의 기본방향과 시정신, 현실을 시적으로 일반화하는 방법, 시적형상과 기백, 시가의 형식 등 혁명적시가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였다. 바로 이것은 시가문학의 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다. 항일혁명가요는 혁명적시가가 반드시 지녀야 할 본질적인 특성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항일혁명가요의 주제는 조선혁명에 대한 철저한 복무의 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무장투쟁로선, 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 등을 시적으로 일반화하여 해설선전하는 문제는 항일혁명가요 앞에 나선 가장 근본적인 예술적과제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는 항일혁명가요의 이러한 주제사상적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작품이다. 이 가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직접적구현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정책풀이형식에 담아 전면적으로 구현하였다. 가요는 수령님께서 손수 작성하여 발표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기본내용을 담고있는 작품으로서 주제의 전투성과 현대성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정치적과업들과 경제적과업들, 사회문화적과업들과 대외적과업 등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조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강령의 본질적내용이 시적으로 훌륭하게 일반화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직접 시적으로 일반화하는데 바쳐진 주제의 작품들로는 이밖에도 무장투쟁로선을 반영한 《조선인민혁명군》,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반영한 《통일전선가》, 《병사의 무예》, 《모두다 반일전으로》와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취급한 《인민주권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가요의 주제는 혁명의 근본적문제들에 대한 시적구현에 제1차적주목을 돌리였다. 항일혁명가요의 주제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관철에로의 전투적호소와 이 투쟁행정에서 발휘되는 혁명투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노래하는데 돌려졌다. 여기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인 강도일본제국주의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과업수행에로 호소하는데 바쳐진 주제의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저한 반제사상으로 충만된 《반일전가》를 비롯하여 《민족해방가》, 《반일가》, 《반일병사가》, 《반일혁명가》 등의 작품들은 모두 강도일본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고 위대한 반제민족해방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바쳐진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결같이 일제침략자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하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의 새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사상을 줄기차게 관통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의 관철에 바쳐진 주제분야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온갖 사회적불평등과 착취의 사회적근원을 폭로규탄하고 인민대중을 모순된 사회제도를 뒤집어엎는 혁명투쟁의 결전장에로 힘차게 호소한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계급해방사상이 예리한 정론적기백속에서 강렬하게 울려나오는것이 특징적이다. 가요 《불평등가》, 《가난한자의 노래》, 《무산혁명가》, 《단결하라 무산대중》, 《무산자의 노래》 등 작품들은 모두 사회적불평등과 착취를 낳는 썩어빠진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그 터전우에 압박없고 착취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철저한 계급해방사상으로 일관되였다. 주제분야에서 또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등 온갖 반동적인 사상들을 폭로규탄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데 바쳐진 작품들이다. 가요 《파쟁반대가》를 비롯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들과 경향들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한 정론적기백으로 폭로규탄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는데로 시적기백을 일관시키고있는것이다. 항일혁명가요는 이밖에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생동한 새로운 주제분야를 수많이 개척하였다.

항일혁명연극;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킨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이다. 항일혁명연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문예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연극사상 처음으로 조선혁명에 직접적으로 복무하는 철저하게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서 새롭게 발전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어렵고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직 조선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연극예술-항일혁명연극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면서 몸소 연예대와 아동유희대 등을 조직하시고 그의 창조활동을 직접 지도하여 주시였을뿐만아니라 항일혁명연극의 사상미학적 및 인식교양적 기능을 높이시기 위하여 연극대본의 창작으로부터 시작하시여 연출과 연기, 무대장치와 분장, 지어는 공연조직에 이르기까지의 연극창조전반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연기형상을 비롯한 혁명연극의 창조공연과정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와 지도는 항일혁명연극으로하여금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케 한 제반원칙적 인문제들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그이께서는 이미 지하혁명투쟁을 벌리시는 시기에 《딸에게서 온 편지》, 《혁명가의 안해 수동이 어머니》, 《성황당》 《후모의 학대》 등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작품들과 《단심줄》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혁명적유희극들을 몸소 창작하시여 공연케하시였을뿐만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경축대회》 등 수많은 혁명연극들을 몸소 창작하시여 공연케하심으로써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반

일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항일혁명연극은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 그리고 그이의 창조적모범에 고무되면서 항일혁명투쟁의 매단계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2년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기까지의 항일혁명연극은 수령님께서 이 시기 혁명연극앞에 제시하신 창조적방향에 기초하여 청소년학생들과 광범한 군중들을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연극작품을 적극 창조공연한것이다.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유희극 《단심줄》, 《13도 자랑》을 비롯하여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창조공연된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등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러한 연극작품들은 선행시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총화하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대중이 하나의 반일혁명력량으로 굳게 통일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힘있게 구현하고있다. 이 시기 항일혁명연극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다른하나는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투쟁의 길에 들어서는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정을 옳게 반영하는것이였다. 1930년 겨울 오가자 삼성소학교 강당에서 한 혁명연극은 바로 그와 같은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나선 작품들중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맑스-레닌주의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자본주의적 및 봉건적 유습과 종교, 미신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사회계급적각성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한 혁명연극작품들도 적지않게 창조공연되였다. 문맹퇴치, 미신타파, 봉건유습에 대한 반대 등이 그 주제들인데 이러한 혁명연극작품들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이다. 이와 아울러 이 시기에 창조공연된 연극들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연극 《성황당》과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창조공연된 《색친단, 색부단》,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파벌싸움을 폭로풍자한 작품 등이 있다. 이 연극작품들은 일제의 강도적침략과 야수적만행을 항거하여나선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반영하고있으며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종파행동의 반동성, 원쑤들의 내부적모순과 불가피한 멸망의 운명을 비판폭로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던 초기의 혁명연극들은 그 사상주제적내용과 극적형태가 다양하였으나 그것들은 한결같이 무장투쟁의 조직사상적지반을 튼튼히 닦고 인민들에게 민족적 및 계급적 자각을 불러일으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게 하고 장차 무장대오에 자각적으로 참가할수 있게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항일혁명연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무장대오의 조직과 그 투쟁의 강화발전,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의 창설과 함께 활발히 창조공연되였다. 이 시기 항일혁명연극은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의 창조과업을 밝혀주신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무장대오의 확대강화와 유격근거지의 보위 및 근거지인민들의 사상정치적교양에 이바지하는 사상주제의 연극작품들을 적극 창작한것이다. 연극 《아버지는 이겼다》, 《유언을 받들고》등은 그러한 주제사상의 연극작품들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연극 《유언을 받들고》는 1932년 춘황폭동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에 참가하는 오누이의 형상을 통하여 이 시기 청소년들과 광범한 군중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에 들어가던 과정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이 시기 혁명연극에서는 원쑤들의 만행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작품들도 많이 창작공연되였다. 연극 《승냥이》와 내두산유격근거지에서 한 혁명연극 등은 그러한 작품들중의 대표적인것들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끌어들임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무장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는 사상주제적내용의 연극작품들도 많이 창작공연되였다. 그 가운데서 널리 알려진것의 하나가 연극 《기민탄식》이다. 이시기 연극에서는 《게다짝이 운다》와 같이 원쑤들의 말로를 풍자한 연극작품들도 적지않게 창작되였다. 이 연극들은 모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받들어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을 반일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키워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신 시기에 들어와서 항일혁명연극은 항일무장투쟁의 지역적범위가 훨씬 넓어진것과 관련하여 연극활동에서 더욱 기동성과 민활성을 보장하고 광범한 지역에서 군중들의 수준과 취미에 맞게 연극의 주제와 종류를 다양하게 개척하는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시기에 와서는 원쑤들의 그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수령님의 참된 항일혁명투사들의 강의한 형상을 보여주면서 일제의 야수적 본질과 만행을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놈들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필연성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폭넓게 보여준 우수한 혁명연극들이 많이 창조공연되였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경축대회》이다.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인 문예사상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작품으로서 연극창조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혁명적원칙을 빛나게 구현한 창조적구감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예술적으로 형상한 혁명적유희극 《단심줄》, 그이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혁명연극 《아버지는 이겼다》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바와 같이 항일혁명연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를 구현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직접 예술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데 힘있게 복무하였다. 항일혁명연극에서 창조된 공산주의투사, 긍정적주인공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이며 그들과 함께 싸운 혁명적인민들이다. 그들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징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이것은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에 대한 충직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원쑤에 대한 비타협성,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그들이 발휘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진수를 이룬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에서의 어머니와 을남이, 《경축대

회》의 유격대원들, 혁명연극 《아버지는 이겼다》에서의 아버지, 《유언을 받들고》에서의 오누이 등은 바로 그러한 형상들이다. 항일혁명연극에서는 또한 극작법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갈등문제, 극적구성과 위음새문제, 언어문제 기타 문제들을 혁명적연극예술의 근본성격과 전투적사명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다.

항일혁명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청소년들속에서 연극, 노래, 무용 등 여러가지 형식들을 배합하여 출연하는 연예대를 조직하시고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아동유희대가 조직되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속에서 혁명적무용창조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이 부를 노래와 각본을 손수 창작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혁명무용발전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항일혁명무용은 참말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었다. 높은 공산주의적당성으로 충만된 항일혁명무용의 사상주제는 철저하게 시대가 제기하고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혁명적내용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예술적형상에서도 인민대중의 구미에 맞고 그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률동으로 특징적이였다. 항일혁명무용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풍부한 무용률동으로 형상하는 작품들이다.

유희극 《단심줄》과 《13도 자랑》등은 이러한 작품들중에서 대표적인것에 속한다. 유희극 《단심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굳게 통일단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나서 싸운다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힘있게 보여준다. 《13도 자랑》은 13명의 어린이들이 각각 13도의 도별 지도쪼각을 들고나와 매개 도의 자랑을 노래하면서 조선지도를 만드는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빼앗긴 조국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궐기하여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항일혁명무용작품들중에는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과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준것이 많다. 《총춤》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총춤》은 무장투쟁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면서 총을 잡은 유격대원들의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힘있게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적내용은 시종일관 전투적인 기백과 락천적인 생활감정으로 충만된 씩씩하고 약동하는 무용률동을 통하여 생동하게 부각되고있다. 항일혁명무용가운데는 항일무장투쟁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작품들과 함께 항일유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다양한 생활국면을 통하여 풍부하게 형상화한 작품들도 있다. 이러한 작품의 대표적인것으로는 항일유격대녀대원들의 혁명임무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보여주는 《재봉대원춤》, 유격대원들의 전투적기백과 투지를 힘차게 보여준 《기마병춤》과 《칼춤》, 유격대원들의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락관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붉은 수건춤》 등이 있다. 어떤역경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군복을 만들어내는 항일유격대녀대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재봉대원 춤》은 명령을 끝까지 수행해내고야마는 높은 책임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생동한 률동으로 표현하고있다. 무용은 전투임무를 완수한 자랑과 긍지높이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환희에 넘친 춤을 통하여 수령님의 전사된 끝없는 영예와 혁명적락관주의를 감명깊게 보여준다. 《기마병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말을 타고 험산준령을 넘나들면서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는 투쟁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은 생활소재의 특성에 맞는 격동적인 내용과 전투적이며 씩씩한 률동으로 특징적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에 대한 붉은 충성의 마음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보여주는 무용으로는 《붉은 수건춤》외에도 적지 않다. 항일혁명무용에서는 또한 혁명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모습도 훌륭히 형상되여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의 혈연적련계에 기초한 영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화폭과 전투적기백을 심오하게 반영하고있다. 《근거지의 봄》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은 근거지에 세워진 인민혁명정부의 혜택을 받아 땅의 주인된 농민들과 이들의 일손을 도와나선 유격대원들의 락천적인 로력투쟁과 함께 적들이 달려들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한명어리가 되여 근거지를 지켜내는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작품은 투쟁속에서 지켜낸 근거지의 봄은 바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전체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지켜낸 투쟁의 봄, 생활의 봄이였으며 하나로 뭉친 군민의 정을 붉게 꽃피워 원쑤를 족친 승리의 봄이였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준다. 또한 혁명무용작품들에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반영한 작품들도 적지않다. 산딸기를 많이 따서 유격대병원에 보내는 아동단원들의 감동적인 사실을 반영한 무용 《산딸기춤》과 항일유격대에 보내기 위해 나물을 캐는 녀성들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반영한 《나물캐는 춤》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혁명무용은 그 정치사상적내용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인것으로 특징적이다. 혁명무용의 생활적바탕에는 투쟁으로 충만된 위대한 혁명투쟁현실이 놓여있다. 혁명무용의 주인공들은 모두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그들을 도와 함께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이였다. 또한 주제사상적내용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일뿐아니라 무용형상이 매우 진실하고 생동하다. 혁명무용의 매개 률동은 혁명적이며 약동적이며 아름다운것으로 특징적이다. 그리고 혁명무용에서는 생활론리에 따르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생활적인 구도를 잘 잡음으로써 사상적내용을 매우 심오하고 명확하게 반영하고있다.

항일혁명무용은 또한 군무를 비롯하여 독무, 쌍무 그리고 노래와 춤을 배합한것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창조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널리 퍼진것은 군무였다. 그것은 군무형식이 생활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반영할수 있었다는 사정과 함께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이 출현하여 추는 춤형식을 요구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항일혁명무용으로서는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하는 군중무용형식이 널리 보급되였다. 혁명적군중무용은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오락회나 명절날 또는 연예공연 뒤끝에 많이 추었다. 군중무용은 항일혁명무용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생활화된 무용형식이였다. 혁명연극 《경축대회》공연 뒤끝에 무대에 출연한 사람들과 관중들이 한데 어울려 춘 《경축대회종곡》과 같은 대군무형식의 춤은 매우 의의있는것이였다. 혁명무용의 형식으로서는 또한 《단심줄》과 《13도자랑》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음악과 무용을 배합한 형식이 많이 리용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춤에 노래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률동형상의 제한성을 보충하고 주제사상

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미학정서적작용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항일혁명미술; 항일혁명미술은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교양하고 그 관철을 위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선전선동자적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인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에서 벽보, 속보, 표어, 포스터, 구호 등 각종 형식의 직관물을 널리 적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혁명적미술의 창조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신문 《새날》, 《볼쉐위크》와 잡지 《농우》를 비롯한 많은 혁명적출판물들에서 대중교양에 알맞는 삽화에 기타의 미술형식을 다양하게 리용하도록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직관선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미술작품창작과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지도하시였다. 항일혁명미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구현하여 철저하게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대변한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주제로 하였으며 인민대중을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이며 선동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일관되여있었다. 항일혁명미술에서는 선전포스터를 비롯한 선전미술이 특히 발전하였다. 그것은 선전미술이 정론성과 전투성, 시기성과 기동성을 그 어느 미술형식보다도 민감하게 보장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선전미술은 선전포스터, 풍자만화, 삽화, 장정 등 다양한 종류에 걸쳐 창작되여 인민들속에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미술의 사상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예술적으로 구현한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계급적각성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지와 원쑤에 대한 증오심은 선전화 《전투》를 비롯한 많은 그림들에 심오하게 반영되여있다. 《전투》의 화면중심에는 원쑤들에게 죽음의 불벼락을 퍼부으며 폭풍과도 같이 육박해가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의 굳건한 모습이 크게 부각되여있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격동적으로 그려진 일당백의 혁명전사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의 형상에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무장투쟁에로 부르는 강렬한 호소가 담겨져있다. 간악한 원쑤 일제침략자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들이박는 유격대원의 모습과 유격대원의 뒤를 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투쟁에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 그리고 유격대의 드세찬 공격과 서리발총창앞에 무리로 녹아나는 원쑤들의 추악한 몰골과 패망상을 통하여 작품은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 강도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격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미술작품들 가운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을 폭로하고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호소한 작품들이 많다. 이러한 내용의 작품에서는 박력있는 필치와 예리한 풍자적수법이 널리 리용되였다. 왕청현 석현마을에서 연극이 공연될 때 무대정면에 그려붙인 그림은 그러한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는 강도일제를 구렁이로 비유함으로써 그의 징그러운 몸뚱이를 침략적야욕의 화신으로 풍자하고 그 몸뚱이를 동강내는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거세찬 반제투쟁의 혁명적진출을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그림에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노리는 일제의 침략적본성이 날카롭게 폭로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피압박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도처에서 반제투쟁에 떨쳐나설데 대한 혁명사상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이 명백히 구현되였다. 항일혁명미술작품들가운데는 또한 수예 《꽃수건》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슴속 깊이에 자리잡고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도 적지않다. 무궁화 열세송이로 삼천리금수강산을 새겨 보인 수예 《꽃수건》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에는 영원히 굴함없는 조국의 기개를 상징하는 굳건한 무궁화줄기가 동해안을 따라 뻗어있고 광복된 조국의 새날을 상징하는 청청한 푸른 잎과 붉은 꽃송이들이 삼천리금수강산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수예의 이러한 화폭에는 조국을 광복하고 아름다운 조국땅우에 살기좋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혁명적열정이 힘차게 맥박치고있다. 항일혁명미술에서는 삽화와 장정도 중요한 미술형식의 하나로 널리 리용되였다. 혁명적출판물의 삽화와 장정들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여있어 글의 혁명적인 내용과 제목을 선명하게 표현하면서 커다란 인식교양적역할을 놀았다. 이리하여 혁명적출판물에서의 삽화와 장정은 인민들을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수행에로 고무추동하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혁명미술의 다른 형식들과 함께 선전선동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찬란히 개화발전한 항일혁명미술은 철저하게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정치사상적 예리성과 심오성, 생활적구체성과 선전선동성, 기동성과 강력한 호소성으로 특징지어졌다. 실로 항일혁명미술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훌륭히 복무한 선전선동의 힘있는 무기였으며 철저하게 당적이고 인민적인 미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한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한부문으로서 해방후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의 유일한 전통으로 된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문예사상을 구현하고 고매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을 쌓아올림으로써 해방후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의 유일한 전통으로 된다. 해방후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서 참말로 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황금의 예술》, 《세계최고봉의 예술》로서 온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것도 바로 그것이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이 빛나는 전통에 튼튼히 뿌리박고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발간 지도하신 출판물

신문《새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 겨울 무송에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신 신문이다.

신문《새날》에는 계급교양자료, 맑스-레닌주의원리교양자료, 군사지식자료, 봉건, 미신 등 낡은 유습의 청산을 위한 교양자료 등을 주었다.

신문《새날》은 무송시와 주변의 여러 농촌들에 배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신문《새날》을 배포하는 사업을 맡아하시였다.

신문《새날》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반일애국사상을 넣어주고 선진적인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세워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신문《새날》은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신문발간의 새기원을 열어놓았다.

잡지《볼쉐위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카륜, 쟈쟈툰을 비롯한 넓은지역의 혁명군중을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1930년 여름부터 카륜에서 직접 편집발간하신 잡지이다.

잡지 《볼쉐위크》는 처음 월간잡지형식으로 발간되다가 그후에 주간신문형식으로 발간되였다.

잡지《볼쉐위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혁명의 발전전망과 당시 정세,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략탈적본성 및 로동자, 농민들의 빈궁과 무권리한 처지,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 그리고 봉건유습과 종교, 미신을 반대할데 대한 문제 등 생동한 사실적자료들을 가지고 편성되였다.

이 잡지는 카륜, 고유수, 오가자 일대는 물론 중부 만주의 여러 지방에 널리 배포되였다.

잡지 《볼쉐위크》는 광범한 군중들을 반일애국사상과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군중을 혁명화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잡지 《볼쉐위크》의 편집과 운영경험은 우리당 출판물이 계승하고있는 고귀한 재부로 되였다.

신문《서광》;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주간대내정치신문이다.

신문 《서광》은 그이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1937년 5월에 창간되였다 .

신문《서광》은 조선혁명의 전반적문제들을 취급하였으며 중대간부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한번에 수백부씩 발간되였다.

신문《서광》제1호에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 실리였다.

신문《서광》에는 반파쑈인민전선 로선과 조선에서의 반일통일전선문제, 조선혁명의 전도와 그를 주동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문제, 조선혁명의 성격과 동력, 장차 수립될 조선인민혁명정부의 성격, 로농동맹에 대한 문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조국광복회활동방향에 대한 문제, 조선민족해방동맹의 활동방향에 대한 문제 등 조선혁명발전과 당창건준비에 대한 방향과 사상적기초를 주는 김일성동지의 론설이 많이 실렸다. 또한 《서광》에서는 조선인민의 절박한 생활적요구와 투쟁구호를 제기한 지방통신기사와 군사통신기사들이 적지않게 취급되였다.

신문《서광》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광범한 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그이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반일혁명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는데 있어서 선전선동자, 고무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신문《서광》에 구현된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적출판물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으로 되고있다.

잡지《농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회덕현 오가자일대의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면서 발간하신 잡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가자에서 그곳에 이미 있던 농우회를 농민동맹으로 개편하시고 여기에 광범한 농민들을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면서 잡지《농우》를 발간하시였다.

이 잡지에는 《지주는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종교에 대한 비판》, 《미신을 타파하자》 등 사회정치문제들과 《단결은 우리의 힘이다》, 《일제를 타도하자!》, 《왜 아직 잠을 자고 있는가, 빨리 잠을 깨라!》등 농민들을 단결과 투쟁에로 부르는 격동적인 글들을 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잡지의 독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들이 다 리해할수 있도록 글을 쉽게 쓰며 술어해설란과 농사경험란을 설정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잡지《농우》는 조선혁명군대원들과 혁명조직을 통하여 료하농촌뿐만아니라 하르빈을 비롯한 북만일대와 길림, 카륜, 고유수, 장춘 등 중부만주일대, 그리고 남만지방과 료원지방까지 배포되였다.

잡지《농우》는 인민들에게 반일애국사상과 조선혁명의 주체사상을 침투시키는 힘있는 선전선동수단으로, 훌륭한 교과서로 되였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동원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우》의 발간과 운영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당적출판물의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신문《철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9년말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진행하시던 간고한 시기에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발간된 조선인민혁명군 대내주간신문이다.

신문《철혈》에는 《규률은 왜 지켜야하는가?》, 《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겠다》, 《국내 인민들을 어떻게 일떠세울것인가?》, 《제국주의전쟁의 원인》 등을 비롯하여 보초근무, 정치학

습에서의 모범적인 사실들을 쓴 기사들이 실렸다.

신문《철혈》에는 또한 국내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소식과 국제혁명정세에 대한 자료들도 실어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며 투쟁열의를 고무하였다.

그이께서는 신문《철혈》을 각 중대에서 집체적으로 독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돌려보도록 하심으로써 신문이 부대전투력강화를 위한 믿음직한 정치사상교양수단으로, 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벗으로 되게 하시였다.

신문《철혈》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의 사령부를 철저히 보위하도록 교양하는 무기였다.

신문《철혈》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사상교양자료로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며 조선공산당창건 준비를 위한 조직적골간을 꾸리는데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혁명적출판물《철혈》의 경험과 업적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출판물이 계승할 빛나는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신문《종소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발간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주간신문이다.

그이께서는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에 들어서면서 신문《종소리》를 발간하도록 하시였다.

신문《종소리》 매호는 유격대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어떤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결사대로 준비시키며 당면한 군정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되였다.

신문《종소리》에는 《학습도 전투다》를 비롯하여 대원들의 정치학습정형과 보초근무에 대한 자료들, 《일본놈들은 장백땅을 어떻게 불살라버렸으며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검거학살하였는가》를 비롯하여 일제침략자들을 폭로규탄하는 기사들과 계급교양자료들이 실렸다. 그리고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해설문 등이 게재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신문《종소리》의 편집과 운영에 깊은 의의를 부여하시고 몸소 원고들을 검토하시면서 편집형식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글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대원들을 양성하여 《종소리》의 필진을 튼튼히 갖추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당시 《종소리》는 통신원들과 보통대원들이 쓴 글로써 편집되였다.

신문《종소리》는 유격대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하고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1930년대 후반기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위기를 타개하고 조선혁명의 끊임없는 앙양과 위대한 승리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신문《종소리》는 일제의 패망과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와 희망의 종소리로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잡지《3.1월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몸소 발간하신 맑스-레닌주의적정치리론잡지이다.

그이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의 실현을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1936년 5월 5일에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 기관잡지 《3.1월간》을 창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 의하여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송두리채 빼앗긴 당시의 조건에서 우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전취하고…》,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조국광복회 10대강령 6조, 8조 참조)을 선포하시고 그 어려운 투쟁의 불길속에서도 사령부의 비서처성원들에게 조국광복회기관지의 편집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후방밀영에 출판기관을 두시고 혁명적출판물의 간행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잡지《3.1월간》에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시는 론문들과 교양자료들을 친히 쓰시였을뿐만아니라 비서처성원들을 몸소 지도하시여 각계각층 군중의 실정과 의식수준에 맞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 내용을 통속적으로 해설선전하는 글들을 써서 매호에 련속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잡지 《3.1월간》에는 또한 《조국광복회의 새소식》, 《반일민족혁명전쟁승리소식》, 《혁명군의 전과와 인민들의 혁명군원호사업》, 《3.1운동 실패의 원인》, 《독립군의 실패원인》, 《광주학생사건의 교훈》, 《국내외정세》 등 다양한 내용을 실었다. 잡지 《3.1월간》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의 밝은 빛을 뿌려줌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새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잡지 《3.1월간》의 발간당시를 감회깊이 회상하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과거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수록한 단행본이나 잡지 〈3.1월간〉과 같은것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출판물들은…우리 조선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발간된 잡지 《3.1월간》은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데서와 조선인민의 혁명무력을 강화하며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각계각층 반일군중을 결속하여 강력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함에 있어서 집단적선전선동자 및 집단적조직자로서의 전투적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였으며 이 행정에서 불멸의 투쟁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렸다.

잡지《3.1월간》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과 고귀한 경험은 오늘 우리 나라 당적출판물과 기자, 문필전사들의 산거울로 되고있다.

잡지《화전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1937년에 조국광복회국내지부인 조선민족해방동맹기관잡지로서 발간되였다.

잡지《화전민》은 국내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것이 특색이다.

잡지《투쟁》; 1932년부터 1934년까지 발간된 정치잡지이다.

신문《반일보》; 1934년부터 1935년까지 발간된 정치신문이다.

이외 신문으로서 **《전투보》, 《구국보》, 《민중보》, 《첩보》**와 잡지로서 **《적기》, 《전투》, 《전기》, 《반일투쟁보》, 《인민혁명화보》, 《혁명청년화보》** 등이 발간되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한 국제적반향

《만경대는 조선인민뿐만아니라 혁명하는 나라 사람들,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투사들의 위대한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때문에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의 가정은 모든 혁명가들과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의 위대한 모범으로 되고있다.》(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김일성수상의 혁명일가와 친척들은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김일성수상님께서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만경대고향집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소박한 살림도구와 그리고 농기구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곳 만경대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올랐다.》(쏘련친축가대표단 단장 미비루빈 게오르기 보리쏘비츠)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께서 탄생하시여 자라나신 혁명적생가를 방문하였다.

그이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애국적정열과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는 이 집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첫교양을 받으셨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기반에서 헤매고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결정적인 투쟁을 위한 힘을 안겨주신다.》(꾸바공화국 과학원대표단 단장 떼르쏘 싸엔스)

《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김형직선생처럼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아버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태양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를 키우신 분이시기때문이다. 그이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나라인 조선의 아버님이시다.》(남아프리카 범아프리카대회당 대표 몰레피 모끄니)

《강반석녀사도 김형직선생과 함께 자제분이신 김일성원수님을 교육육성하시였다.

오직 이러한 혁명적가정만이 이처럼 빛을 뿌리는 아세아의 아들을 낳을수 있는것이다.》(시에라 레온녀성조직전국련맹 총서기 도라 라이쯔)

《실로 강반석녀사는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각자인 동시에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들과 세계 선량한 녀성들의 전형이다.》(꽝고신문 《브라자빌》)

《우리는 김일성원수님의 가정과 같이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위대한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러한 혁명적가정을 세계에서 결코 찾아볼수 없다…

만경대방문은 나의 기억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김일성동지의 가정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정인가를 알수 있었다.》(《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이며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

《세계력사에는 인민의 수령들이 쌓아올린 혁명업적들이 적지않게 수록되여있다.

그러나 김일성수상과 같이 온 가정이 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혁명활동에 참가한 그러한 례는 보기 드물다.…

김일성수상은 전체 인민들로부터 그렇게도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고계신다.

우리는 만경대에 와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성과의 밑뿌리를 알게 되였다.》(잠비아 중앙주 국무상 정치보좌관 엠. 예취. 발루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의 력사는 조선인민의 영웅성을 반영하고있으며 외래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고봉을 이루고있다.》(오스트랄리아 기자 윌프레드 버체트)

《만경대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할뿐아니라 다른 많은 혁명가들에게 교육적이며 고무적인 힘을 주는곳이다.》(뽀르뚜갈령기네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중앙위원회 위원 바스꼬 카브랄)

《만경대는 조선인민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가정의 모범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전세계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심장으로 계속 남아있을것이다.

나는 만경대에 있는 모든것, 고향집과 사적, 나무 한그루도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김일성수상님의 위대한 혁명적가정의 모범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생각한다.》(오지리《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 무싸 빌랄)

《이곳 만경대는 조선사람들뿐만아니라 전세계혁명가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무적힘을 주는 혁명의 책원지이다.》(인도 《이브닝 뷰》 지 주필이며 전인도민주당 위원장 피. 엘. 타칸팔)

《만경대는 조선사람들만의
마음의 고향이 아니여라
혁명의 요람지에서
령감을 얻으려는
온 세계 투사들과 진보적인사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곳이여라》(오스트랄리아 평화투사이며 작가 스탠리 무어)

《빛나여라 그 이름 만경대
그대 품속에서 태양이 솟아나고
이 태양이 비치는 곳마다
혁명의 불길 드높네
아, 그대 만경대여!
너는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
너는 폭풍헤치는 투사들의 희망의 등대!

빛나여라 그 이름 만경대!
그대의 이름은 20세기의 자랑
그대 뿌리는 혁명의 빛발은
온 누리에 차고넘치네
아, 그대 만경대여!
너로 하여 투사들은 용맹하고
혁명의 폭풍은 더욱 세차여라》(상부볼따근로자 직업동맹 깜비레 모리스)

《바로 지금으로부터 60년전 1912년 4월 15일 인류의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검은 구름이 드리웠던 지구상의 모든곳에서 혁명의 새 아침이 밝아왔으며 제국주의의 억압밑에서 신음하던 모든 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 일동)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이였으며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으며 오늘도 래일도 조선혁명승리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김일성동지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덕성의 전형을 집중적으로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애급신문 《알 아호바르》)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야말로 세계민족해방투쟁력사에 금문자로 찬란히 아로새겨질 위대한 투쟁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억압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모든 피압박인민들에게 무한한 고무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투쟁이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은 자기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모범으로 되며 그 투쟁경험이야말로 오늘 혁명투쟁에서 천금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있다.》(이전 라틴아메리카대학생기구 상설서기국 파들루쁘대표 보세 나마로)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리론과 실천을 풍부화시킨것이다. 이 투쟁은 또한 조선에서 독립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이 투쟁은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기초를 닦았으며 인민적혁명정부창건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의심할바 없이 이 모든것은 세계력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세계민주청년련맹 서기 제이. 에르. 두아루쩨)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15성상이나 조직전개된 항일무쟁투쟁은 강대한 일제침략군을 반대하는 가장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이 투쟁의 력사는 어느 나라 당, 어느 나라 인민,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빛나는 력사이며 세계혁명운동에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겨야 할 아름답고 위대한 서사시이다. 그렇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고귀한 경험은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쿠바국제정치연구소 지도리사회 성원 페데리꼬 데 꼬르도바 까스뜨르박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투쟁경험은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 혁명가들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아바나종합대학 력사학교수 에르난도 가르시아)

《김일성수상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인민무력창건에 관한 리론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조선인민만의 재부로만 되는것이 아니다. 이 혁명전통은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폭력적 지배밑에 있는 피압박민족들과 기타 피압박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다른 민족들과 인민들의 재부로도 된다.

김일성수상께서 창건하신 항일유격대의 조직원칙과 활동방침은 피압박인민들이 혁명적군대를 창건함에 있어서 그 원칙과 방침으로 되며 그들에게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옳바른 길을 가리켜주고있다.》(일본아세아아프리카연구소 부소장 데라모도 미쯔아끼)

《김일성수상께서 직접 조직지도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제공동행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실로 김일성수상의 반제민족통일전선로선과 반제공동행동방침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국제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애급신문 《알 굼후리아》)

《일제를 무찌르는 항일무장투쟁의 진행정에서 짜신 김일성동지의 전략과 전술은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등대로 된다.》(전인도민주당위원장이며 《이브닝 뉴》지 주필 피. 엘. 라칸팔)

《실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체계와 고귀한 투쟁업적들은 세계혁명력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고귀한 혁명전통은 전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아바나에 있는 과떼말라혁명조직대표)

《반제투쟁에 일떠선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귀한 전략전술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이의 전략전술이 오늘 손에 무장을 들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가장 정확한 투쟁방도를 명백히 가르쳐주고있기때문이다.》(쿠바에 있는 뻬루인동맹 위원장 뻬드로 까스뜨로)

《참으로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과 당신의 혁명력사는 전체 조선인민들뿐만아니라 자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며 혁명적정열과 지혜를 주는 원천으로, 승리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습니다.》(말리녀자고등사범학교 학생위원회 서기장 아미나따 니아예)

《1930년대부터 손에 무장을 들고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워 승리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고귀한 경험은 어떠한 민족이건 오직 손에 무기를 틀어잡고 싸워야만 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증명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경험을 본받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원쑤들과 유격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는것이다.》(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 위원장)

《나라의 광복을 위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력사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로부터 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무로 되며 지도적지침으로 된다》(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존 피트맨)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 고귀한 업적은 세계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기네농업근로자동맹 부위원장 마리 무루)

《자유의 찬란한 해빛 지니고
전설의 거인마냥 그이는 만경대에 탄생하셨네
그이 심장, 그이 형안
혁명의 정기로 넘치고
그이 마음 압제받는 겨레에로 달렸나니
서리발같은 그이의 투지
불빛에 번쩍이는 장검에 비기랴!
조선인민을 구원하려는 그이 맹세에
산도 강도 떨었어라
마침내 일제는 그이 앞에 무릎을 꿇었네
김일성원수 만세!
김일성원수이시여 만수무강하시라!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제아이에 오모레지에)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영광의 60성상이 흘렀다.

1972년 4월 15일,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다함없는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60성상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바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의 력사는 아직 그 류례를 모르는 가장 많은 일, 가장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신 나날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긴긴 나날 숙영지의 밤이 퍼그나 깊어간다는 전령병의 말을 들으시자 암흑에 잠긴 조국의 산발을 바라보시며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 푹 쉬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하신 이후에도 쉬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20년만에 처음보는 고향—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먼저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애써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것이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는것이며 모든 사람이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62페지)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기나긴 나날 휴식도 밤잠도 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 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찾으시여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을 허물없이 상론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하기에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인민들이 있고 인민들속에는 언제나 수령님께서 계시여 수령님과 인민의 마음은 하나로 잇닿아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어디를 가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으며 우리 인민들 그 누구에게나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과 크나큰 배려가 가닿지 않은 사람이란 없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만일도 못되건만 그이께서 오르신 현지지도의 로정은 무려 127만여리에 달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자욱자욱 마다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위대한 력사적승리가 력력히 빛나고있다.

정녕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과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하늘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 비길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다 지니신 로동계급의 걸출한 수령만이 쌓을수 있는 불멸의 공헌과 혁명적업적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슴깊이 느끼면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현지지도사적지들을 꾸리고 길이길이 빛내이고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시였으며 헌시비, 사적비, 유래비들을 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지들중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사회주의문화건설과 관련한 일부 현지지도사적지들을 평화적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별로 먼저 묶어주며 다른 수많은 현지지도사적지들은 계속 수록할것이다.

강선으로 가시는 길에서
(평양시 만경대구역 서리)

우리 인민은 만경대와 강선의 갈림길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9일에 헌시비를 세웠다. 높이 4.5메터, 너비 14메터되는 헌시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어둡던 이 강산에 태양으로 솟아
자유의 해빛 온 누리에 뿌려주신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
눈보라 만리 행군길에서도
밀림의 긴긴밤 우등불가에서도
한시도 잊으신적 없던 조국
그리운 고향 아름다운 만경대

십오성상 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준엄한 혈전의 길을 헤쳐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새조국의 앞날을 구상하시며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가시던 그날
잠시 차를 세우시고 내리시였던 갈림길이여!
잊지 못할 력사의 한길이여

《저기가 바로 만경대요…좋은 곳이요
…이십년만에 보는 고향이군!
들어가면 늙으신 조부모님이 계실것이요
내 인사를 전해주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며칠 있지 않아서
나도 돌아올것이라고 알려 드리시오…》

아!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이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떠나시던 길
해방의 새봄을 안으시고 개선하신 길이건만
고향보다 먼저
혁명을 생각하시는 그 높은 뜻이여
인민을 생각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여!

아, 장군님께서는 그 후에도
조선혁명의 참모부—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인민들과 조국개선의 첫 인사 나누시고서야
그립고 그립던 만경대를 찾으시였거니

그 높은 뜻
그 뜨거운 마음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지리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평북도 신의주시 관문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1월 신의주 동중학교마당에서 소집된 군중대회에 친히 참가하시여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

혀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9일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1.9메터, 너비 2.9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15성상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일제 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1월 27일 이곳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새조선이 나아가야할 길은 일본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잔재를 없애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지난날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오늘은 새 민주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우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당은 새 민주조국건설을 위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모든 애국적민주력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간다고 하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굳게 단결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기둥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학생들은 선진적인 사상과 리론을 더많이 배우며 친일주구들과 반동들을 때려부시고 새 민주조국건설을 위하여 모두다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새 조국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영웅적인 우리 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이 땅우에 세기적인 락후를 털어버리고 주체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이룩하여놓았다.

우리는 이 력사적인 사적지에 비를 세워 조국을 해방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황북도 사리원시 동1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2월 6일에 소집된 사리원군중대회에서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며 길이 빛내여가기 위하여 1972년 4월 15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5메터, 너비 5.5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해방하여주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해방의 감격에 휩싸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려는 혁명적열의가 삼천리금수강산에 차넘치던 1945년 12월 6일

오매에도 그리던 장군님을 맞이한 한없는 기쁨을 안고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부르던 그날의 감격이여!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진보적민주주의 길,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하루빨리 굳게 뭉쳐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들과 지식인,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도 포함한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굳게 결성하고 모두다 힘을 합쳐 새 조국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열화같은 연설은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로, 투쟁의 홰불로 되였나니

우리는 장군님의 그날의 영상을 우러러 주체조국의 창시자이시며 우리 민족의 붉은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유서깊은 이곳에 삼가 비를 세운다.

문명리사적비

(평남도 강동군 문명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정권로선을 내놓으시고 유격근거지에서 창설해본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에 훌륭히 구현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높은 은공을 따라 배우며 길이 전해가기 위하여 그이를 인민의 첫 대의원으로 추대하고 선거하였던 강동군 문명리에 사적비를 1972년 3월 24일에 세웠다.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 문명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인민의 첫 대의원으로 추대한 유서깊은곳이다.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민은 땅의 주인으로 되고 로동자는 공장의 주인으로 되고 녀성들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여 온 나라가 창조의 기쁨으로 들끓던 1946년 가을 이 나라 인민들은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맞이하여 자기의 주권을 가지게 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앞을 다투어 자기들의 선거구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인민의 첫 대의원으로 추대하려는 충성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삼등면인민대표들이 대의원립후보를 수락하여주실것을 청원하였을 때 그 뜨거운 심정을 받아들여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저를 대의원립후보자로 추천하여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않고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1946년 10월 16일 이곳 산천도, 사람도 목메여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그이를 맞이하던 그날, 혁명의 탄부들과 삼등면내 농민들이 그이께서 오시는 길우에 광목필을 펴놓았을 때 광목이야 인민들이 입어야지 내가 밟고 가서야 되겠는가고 굳이 사양하시던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감격으로 눈물짓는 이곳 유권자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하시면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휘황한 길을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니 앞으로 더 잘 살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나라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며 하루바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아, 그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장군님!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장군님을 우러러 받드는 인민의 충성속에 원수들의 온갖 흉계를 짓부시고 우리 나라의 첫 민주선거는 승리의 개가를 올렸고 우리의 인민주권은 반석으로 다져졌거니

그 초석우에서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나라, 천리마의 나라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자랐으며 모두가 일하며 배우며 골고루 행복을 누리는 지상락원으로 되였거니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노라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평양시 보통강구역 봉화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년 5월 21일에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건국사업의 봉길을 지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평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5월 21일에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을 세웠다. 기념탑은 탑과 비로 구성되였다. 높이 15메터, 너비 19메터되는 탑의 유래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랜 세월 이 고장인민들의 한숨과 피눈물을 자아내며 흘러내리던 원한의 강, 보통강!

그 어느때부터였는가? 인민들의 기쁨을 담아싣고 행복을 노래하며 흐르기 시작한것은, 너 보통강아!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해방의 감격은 갈수록 가슴에 차 넘치고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의욕은 하늘에 닿았건만

그러나 아직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 누구도 모르던 해방된 이듬해 봄,

우리 인민의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십오성상 항일전에서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혁명의 참모부 당을 창건하시고 억년토록 번영할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땅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더니

아, 밤과 밤을 밝히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큰물에 밀리우고 큰물에 쫓기우며 가난하게 살아온 이 강변인민들의 고통을 가슴아파하시여 친히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였어라.

1946년 5월 21일, 어찌 잊을수 있으랴!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장군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영광의 그날이여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해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민주국가건설을 위하여 이 작은 공사부터 완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아, 그날 사람들은 감격에 목메여 장군님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더라

궂은 비 내리는 날 어지러운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작업장에 오시여 우리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오늘의 하루가 장래의 백날맞잡이라 하시며 장마전에 이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 힘껏 일하자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신 장군님,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일떠선 우리들 그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했으랴!

우리들은 산을 갈라 강줄기를 돌리고 진펄을 파헤치고 뚝을 높이 쌓아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거창한 이 공사를 단 55일간에 끝내는 자랑찬 기적을 창조하였거니

보통강변에 오른 승리의 만세소리

그것은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새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의 시위

그것은 온 나라를 새 조국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장엄한 서곡, 이 나라 대자연개조의 우렁찬 첫 발걸음소리

아, 그날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력갱생의 기치따라 새조선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줄달음쳐 왔거니

오늘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그 빛을 찬연히 뿌리여라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몸소 첫삽을 뜨신 그 은혜로운 뚝에 오늘은 푸른 수양버들 기쁨에 설레이고 락원동 붉은 거리 아득히 펼쳐졌어라

저기 보통교무지개다리를 넘어서면 토성랑 옛터에 현대적인 천리마, 서성거리 하늘높이 솟아 인민들은 장군님의 크나큰 은공을 노래하거니

아, 락원의 강, 보통강이여! 만고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며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흘러가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함흥시 흥남구역 천기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지구를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국내부원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 나라의 으뜸가는 대화학공업도시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평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천세만세 길이길이 빛내여가기 위하여 1963년 4월 15일 웅장한 공업도시 넘어로 동해의 푸른 물결이 바라보이는 함흥시 흥남구역 천기동에 그이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수상님의 동상은 1948년 3월 비료산우의 주석단에서 흥남지구인민공장(5대공장) 로동자들에게 한손을 높이 드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로 부르신 당시의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돌우의 동상의 높이는 4.6메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입니다.》

수상님께서는 자주 이곳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흥남지구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한 부문인 굴지의 화학공업도시로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그이의 현명한 평도에 의하여 흥남종합비료공장에서는 질안공장(1958. 4. 20), 제1뇨소비료공장(1967. 4. 10),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1967. 4. 10), 과린산공장들이 련이어 조업할때 본궁종합화학공장에서는 농약직장, 살초제직장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그리하여 질안비료밖에 모르던 우리 농민들은 여러가지 비료로 땅을 걸게 하고 각종 농약으로 김과 해충을 잡아 해마다 대풍작을 거두는 화학화의 시대에 살게되였다.

또한 갈대만 무성하던 룡흥벌에 본궁2.8비날론공장(1961. 5. 6)과 더불어 본궁염료공장(1960. 12. 18), 본궁염화비닐공장(1960. 12. 25)들이 련이어 조업함으로써 지난시기 흰옷만을 입어 백의동포라 불리우던 우리 인민들이 철따라 여러가지 색갈의 옷을 해

입고 아름다운 염화비닐제품들을 쓰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로 흥남지구의 화학공업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유기화학공업과 무기화학공업을 배합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주체적인 화학공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과학원 함흥분원과 함흥화학공업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구현하여 자체의 민족간부들을 키워냈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여 비날론공업과 암모니아 합성공업을 창설하였으며 우리 나라 화학공업을 세계 선진적수준에 올려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세워주신 매개 공장, 그이께서 새로 창설해주신 화학공업의 새로운 부문들은 그대로 주체사상의 영생불멸의 기념물로, 주체나라의 찬연한 기념탑으로 빛나고있다.

평양방직공장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평양방직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공장을 세계 1등급의 방직종합공장으로 꾸려주시였으며 로동자들에게 한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공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10일에 높이 4메터, 너비 7.2메터되는 유래비를 세웠다.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은 긴긴밤을 지새우며 물레를 돌리고 돌리여도 자식들에게 옷 한벌 변변히 입힐수 없었다.

사람들이여, 언제부터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이 물러가고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모르는 새세상이 펼쳐졌던가

일찌기 항일전의 그날 가슴깊이 간직해 오시던 어머님께서 주신 돈 20원을 헐벗은 마안산아동들을 위해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잘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여기 대동강기슭에 우리 나라의 첫 방직공장을 세워주시였다.

가렬한 전쟁시기에도 우리 공장을 귀중히 여기시여 멀리 후방지대로 옮겨주시고 친히 우리들을 찾으시여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힘을 발휘하여 전시생산을 넘쳐해야 한다고 고무하여주신 수령님,

잊을수 없어라, 1953년 7월 29일, 수령님께서는 정전후 이틀만에 아직도 채 가시지않은 포연을 헤치시고 페허로 된 이곳을 친히 찾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너진 벽체와 벽돌장이 널려있는 공장구내를 돌아보시고 자재도, 공장복구를 위한 계획도 없이 어렵게만 생각하고있던 우리들에게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보통 건설하는 식으로 하면 5년이 걸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건설을 전투와 같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2개월동안 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재더미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멀지 않아 이곳에 실뽑는 공장, 천짜는 공장, 염색도 하고 날염도 하는 세계 일등급의 방직종합공장을 일떠세우자고…

아,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여! 수령님께서는 공장복구는 단순한 로동이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이라 하시며 우리들을 힘차게 불러주시였다.

1953년 7월에도, 8월에도 그리고 10월에도, 11월에도 수령님께서는 거듭 찾아오시여 현지에서 직접 건설사업을 지도하시며 걸린고리들을 손수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은혜로운 손길아래 새로 일떠선 공장에서 첫 옷감이 쏟아져나오던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여!

우리가 짜낸 옷감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피여날때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인민들에게 더좋은 옷감을 마련해주시려고 두메산골의 상점을 찾으시여 인민들이 어떤 천을 요구하며 어떤 색갈과 무늬를 좋아하는가를 헤아리고계시였다.

인민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나니 우리 인민들을 잘 입히기 위하여 민족적자부심, 공산주의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뜻이여!

아, 여기서 쉬임없이 필필이 쏟아져 내리는 색갈 곱고 꽃무늬 아름다운 갖가지 옷감을 볼때 사람들이여,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그 오리오리에 깃들어있음을 잊지말자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녀성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시고 떳떳한 혁명가로, 자랑찬 천리마기수로 키워주신 수령님,

우리들의 일터를 궁전으로, 구내를 공원으로 꾸려주시고도 합숙과 구내상점, 탁아소와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아주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베풀어주신 수령님,

어제는 새 교복을 입은 어린이들을 보시려고 친히 소년단원들을 부르시더니 오늘은 먼바다로 떠나가는 어로공들의 솜옷을 보살피시는 수령님,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화려한 꽃비단으로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금수강산 내나라, 이 땅에서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충성다할 마음을 담아 여기에 비를 세우나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여, 불멸의 업적이여!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빛나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사리원방직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우리 로동계급을 령도계급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방직공장을 와이샤쯔, 손수건 등의 고급천을 짜내는 면방직기지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15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2.5메터, 너비 4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지펴올리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져 새 사회건설의 혁명적기상이 온나라에 나래치던 1946년 12월 10일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입히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사리원방직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로동계급은 당의 품속에서 새 생활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던 그날의 감격을 우리 어찌 잊으랴

나어린 제사공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이런 어린애가 와서 열두시간 일을 하면서도 왜놈들한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소》라고 하시며 나어린 소녀들은 로동을 시킬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기르며 학교에 보내여 공부를 시키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굳세게 싸우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방직기계들을 빨리 조립해서 좋은 천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많이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가난과 고역의 피눈물로 얼룩진 누더기옷을 영영 벗어던지고 모두다 사시장철 웃걱정을 모르는 오늘의 행복이 꽃피였거니

우리는 이 영광, 이 행복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며 삼가 여기에 비를 세워 만대에 빛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한다.

평남관개유래비

(평남도 안주군 룡흥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면서 몸소 평남관개의 터전을 잡아주시였고 평남관개를 수리화의 본보기로, 으뜸가는 관개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안주군 룡흥리의 연풍호에 1972년 4월 12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4메터, 너비 16메터되는 유래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날아가던 새들도 목 축일 물이 없어 그냥 지나가던 열두삼천리벌!

지난날 이곳 농민들은 떠나가던 구름장을 애타게 쳐다보며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늘이 무심하다고 목놓아 울었건만 눈물만으로는 시드는 벼포기를 일떠 세울수 없었더라

물! 이곳 농민들이 대대손손 그처럼 바라던 물에 대한 념원은 어버이수령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덕에 의하여 이루어졌나니

평남관개—이는 수령님의 농민들에 대한 끝없이 따사롭고 은혜로운 어버이 사랑의 영원한 젖줄기이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해방된 조국땅에 수리화를 실현할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세우시고 1946년 여름에 이곳에 오시여 평남관개공사방향을 가르쳐 주시였고 1948년 여름에는 공사현장을 친히 찾으시여 건설자들의 흙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격려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평남관개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정치경제적의의를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평남관개를 이룩한다는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새제도의 우월성을 시위하는것으로도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공사는 정치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연풍저수지공사가 끝나가던 1949년 7월초 이곳에 오신 수령님께서는 《연풍저수지공사가 다 완공되여 가는데 빨리 굴을 뚫어서 물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 물은 안주 열두삼천리벌에 보낼 생명수입니다. 빨리 완공해서 인민들에게 이밥을 먹게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사에서 막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완공의 그날을 눈앞에 두었던 공사는 전쟁으로 한동안 멎게 되였고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시설들은 모조리 마사졌다.

1954년봄, 전후 그 어렵던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할데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였고 1955년 4월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공사를 만년대계로 질적으로 잘하고 문화성도 높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무려 10여차의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이에 끝없이 고무된 로동자, 농민,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1957년에 물을 보내기로 예견되였던 공사는 한해 앞당겨 불과 1년 10개월만인 1955년 5월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십리굴》을 지나서 《연풍호》에 고였던 대동강물이 인출, 룡계 등 일곱개의 긴 굴을 거쳐 내닫기 시작한 그날 대동강물이 처음으로 금성양수장에서 끌어올린 청천강물과 합쳐 한곬으로 흐르던 그날, 열두삼천리 한끝에서 한끝까지 피줄처럼 뻗어나간 만여리의 크고 작은 물길들에 은혜로운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이 고장 농민들은 물에 뛰여 들어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쥐면서 《김일성장군만세!》를 목메여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평남관개공사가 끝남으로 하여 기나긴 세월을 두고 메말랐던 열두삼천리벌은 물고생에서 영영 해방되고 이 은혜로운 젖줄기를 받은 안주, 문덕, 숙천, 평원, 순안 등 5개의 군에 끝없이 넓은 10만정보의 벌은 오늘 만풍년을 노래하는 기름진 땅으로 되였다.

이 뿐이랴! 오늘 수령님의 위대한 수리화정책이 온 나라에 실현되여 그 어데를 가나 물길은 그물처럼 펼쳐져 해마다 대풍을 이루나니

아, 사람도, 산천도 소리를 합쳐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을 마련해주신 우리의 수령님께 감사와 충성의 노래를 삼가 드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열두삼천리벌에 해마다 련이어 풍년이 들라고 이 저수지에 《연풍호》라는 이름까지 친히 지어 주시였거니

우리는 유서깊은 이 호수가에 비를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그 은공을 자자손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평남도 양덕군 온하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산간지대농촌들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상락원으로 꾸릴데 대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공을 천세만세 빛내여가기 위하여 1972년 4월 12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날아가던 구름도 산허리에 걸리고 해빛마저 스며들기 힘들어하는 온하리 구지골

그 옛날 화전민들의 신세타령 구슬피 울리던 한적한 이 산골이 오늘은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나니 사람들이여, 이곳에 깃든 어버이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말자!

나라의 주인된 기쁨과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1947년 9월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도 두메산골 인민들의 생활이 념려되시여 가시덤불 험한 길을 헤치시며 외진 이곳 구지골에 찾아오시였다.

여기 김로인의 귀틀집에 들리시여 로인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땅은 얼마나 분여받았으며 살림살이는 어떤가 손자들이 학교에 다니는가를 물으시며 자신께서도 할아버지와 같은 조부모님이 계신다고 하시면서 손수 담배불도 붙여주시고 저녁상을 마주하시고 수저까지 들려주신 장군님!

마을농민들을 부르시여 밤이 깊도록 살림살이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산을 잘 리용하여 밑천이 들지않는 부업들을 크게 하십시오. 이 산들에 황금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합니다.》라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며 해빛이 그립던 이곳 인민들에게 따사로운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신 장군님!

아, 그분이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신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이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아, 그분이 이처럼 험한 산골을 찾아주실줄 그누가 알았으랴!

장군님을 모신 감격과 기쁨을 누를길 없어 덩실덩실 춤을 추던 김로인, 장군님께서 오신 날자를 목책에 적어서 대를 두고 전하겠노라고 아뢰였을때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할아버지, 그보다도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라고 적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한밤을 명석우에서 목침을 베시고 주무신 장군님께서는 이곳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걱정되시여 이른새벽 찬서리 밟으시며 기린산등판에 오르시여 방목장과 양을 기를 자리도 친히 잡아주시고 비탈진 패기밭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는 비결을 가르쳐주시였으며 학교길이 먼 구지골어린이들을 념려하시여 양지바른 곳에 학교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아, 반만년 유구한 력사에 이 나라 인민들이 이렇듯 자애로운 수령님을 모셔본적이 있었던가. 이때까지 누가 한번 이곳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여주었던가!

산골농민들이 잘 살길을 환히 밝혀주신 장군님의 따사로운 어버이손길이여! 그이의 크나큰 사랑이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손길아래 오늘은 은하리에서, 창성에서 아니 온 나라 두메산골이 모두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여 인민들은 행복을 노래하거니

수령님의 발자취 스며있고 수령님이 뿌려주신, 따뜻한 해빛아래 활짝 꽃핀 력사의 땅, 이 구지골에 우리는 비를 세워 전체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고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함북도 경원군 농포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원군 농포리를 북방농사의 기계화본보기로, 북방의 튼튼한 면양기지로 꾸려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에 커다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크나큰 은공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18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8메터, 너비 5.6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 나라에 민족비운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시기 대륙을 삼키려는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살벌한 칼부림과 군마의 발굽에 찢기고 짓밟히며 숨조차 마음대로 쉴수 없었던 두만강기슭 농포벌!

이 수난의 땅에 오늘은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이 펼쳐졌나니 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이루어진 빛나는 열매여라

수령님께서는 항일전의 그 간고한 날에 친히 유격대원들을 이곳에 보내시여 어둠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빛을 안겨주시였고 조국에 개선하시자 땅과 자유를 주시여 맺히고 맺혔던 우리들의 숙원을 풀어주시였으며 사회주의 새 생활의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잊을수 없어라, 1948년 6월 6일, 현지지도의 그날이여! 그 이름 오매에도 그립던 수령님을 처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우리들의 감격과 영광은 얼마나 컸던가!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머나먼 한끝 이름없는 이곳에까지 찾아오시여 우리들의 살림살이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펴이게 하시기 위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54년 7월, 수령님께서는 이 고장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수천리 먼곳의 우리들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슬내린 두렁길을 밟으시며 무르익은 밀보리를 보시고 《보리가 참 잘 되였습니다. 기계로 심은것이 잘 되였습니다.…기계화를 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것을 도내인민들에게 실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논두렁도 기계로 밀어 경지면적을 늘이고 장차 농사일을 기계로 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력조직으로부터 모를 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북방의 추운 지대에 알맞는 씨앗까지 골라주시며 해마다 풍년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멀리 떨어져있는 분장에도 들리시여 양떼를 몰고온 방목공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우리 나라 인민들이 지금은 면직물로 옷을 해입고 다니지만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생활이 높아지면 명주옷을 요구하게 될것이고 다음 단계에가서는 모직물을 요구하게 될것입니다.》라고 하시며 이곳을 우리 나라의 면양기지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양털과 우유가공품생산량을 손수 수첩에 계산해보시며 축산업발전의 큰길을 열어주시고 방목공들의 옷과 신발, 행건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신 수령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극진하다해도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에 비길수 있으랴!

우리는 수도 평양과 멀리 떨어져 조국의 북변에 있어도 수령님의 어버이품을 몸가까이 느끼며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가장 많이 받고있거니 푸른 초원과 언덕마다에는 집짐승떼 구름처럼 흐르고 수천정보의 규격화된 논밭에는 밭갈이와 모내기로부터 가을걷이와 마당질에 이르기까지 기계로 농사짓는다.

오막살이 초가집뿐이던 가난한 마을에 추녀 높은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어서고 학교와 진료소, 상점들이 아담하게 들어섰다.

이 나라 인민들이 피나리보짐을 피눈물로 적시며 정처없이 떠나던 여기 두만강기슭에 아, 오늘은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는 만년대계의 제방이 뻗어 농포벌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나니

이 땅우에 사회주의지상락원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높으신 은덕과 고매한 덕성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빛나리라

문 수 봉

(평양시 대동강구역 탱천1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 4월 6일 새조국건설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들을 심으시였다.

그이께서 친히 심으셨던 이깔나무들은 그후 모진 풍상과 화염속에서도 굿굿이 살아 오늘 10여그루의 아름드리 나무로 소소리 자라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벌거벗은 야산들에 나무씨를 뿌리시면서 조국강산에 무성한 산림을 꾸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수상님께서는 건국초기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평양시민들의 식수기념식을 조직해주시였고 그들과 함께 문수봉에 오르시여 친히 나무들을 심으셨다.

그이께서는 한줄의 나무들을 다 심으시고나서 곁에서 나무를 심고있던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무를 심읍시다. 이렇게 10년만 심으면 됩니다.》

《우리는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많이 심어야 하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수상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마다에 깊이 아로 새겨져 조국강산에 용재림, 제지림, 섬유림, 과수원, 가로수들이 촘촘히 일어서게 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조국의 젖줄기를 마시며 새로 자라나기 시작한 우리의 나무들은 너무나도 적은 년륜을 새긴채 다시 엄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였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던 나무들은 폭풍과 화염에 휩싸이고 첫 열매가 달리던 과수원들은 소이탄의 불바다속에 잠기였다.

전선과 후방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이것을 보신 수상님께서는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그리시며 내각산림국과 함께 지방마다 산림경영소들을 내오시였으며 전선의 일부 군인들을 제대시켜 후방의 산림보호원들로 파견하시였다.

또한 평양, 평산을 비롯한 도처에 양모장들을 꾸려주시였으며 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학생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후방의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전시나무심기에 부르셨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불바다속에서 산기슭마다에는 과수원과 기름동산, 산중턱마다엔 섬유림과 제지림, 산봉우리마다엔 용재림으로 가득찬 산림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산림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몸소 키우시였고 친히 자래우는 방법까지 연구하시여 번식시키신 수삼나무와 향오동, 평양단풍을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들도 많다.

수상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간고한 나날에 한그루의 수삼나무를 얻으시자 몸소 화분에서 키우시였으며 전후에는 정원에 옮겨심어 기후풍토에 적응시키시였으며 그후에는 수삼나무재배사업소를 내오시고 대대적으로 심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지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수천만년전에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수삼나무는 고고학적인 화석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세계천연기념물적인 수삼나무숲으로, 풍요한 경제림의 한 수종으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한그루의 나무를 보시고도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들은 전후에 들어와서 나무 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해마다 벌리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공업국가에 상응하게 산림축적계수가 높은 나라들중의 하나로, 인구 1인당 록지면적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평양속에 공원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원속에 평양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친히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력사의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며 그이의 높은 뜻을 대대손손 빛내여 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4월 6일(1971. 3. 26정령)을 식수절로 제정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김일성종합대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합대학을 몸소 창립해 주시였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가 보장된 대학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학의 모범으로, 세계 일등급의 선진대학으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하려는 일념으로 1968년 9월 9일 룡남산마루에 그이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동상은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교육학을 완성하신 수상님께서 종합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심려하시며 온갖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는 자애롭고 숭엄하신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돌우의 동상의 높이는 6.3메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민족간부문제를 푸는 중심고리를 고등교육의 모체로 되는 종합대학을 먼저 꾸리는데서 찾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대학의 특징은 인민의 아들딸들이 자유롭게 배울수 있으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세계에 빛나도록 발전시키며 인민의 조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인민의 대학이라는데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국초기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대동강가의 잡초 우거진 언덕을 오르내리시면서 해빛 밝은 룡남산마루에 대학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로 종합대학을 지을것을 발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친히 붓을 드시고 전국의 학자들에게 《위촉장》을 쓰시면서 대학교수진영을 꾸려주시였으며 지난날 배우지 못한 혁명가유자녀들과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을 대상하여 대학에 예비과를 두라고 하시면서 대학생모집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보아주시던 대학모표도안의 《대학》글자밑에 손수 펼쳐진 책과 월계수를 그려넣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나날 친히 보신 귀중한 책들을 비롯하여 5만여권의 과학참고도서들을 대학에 보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해방된지 불과 1년만인 1946년 10월 1일에 인민의 대학인 종합대학의 창립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대학의 창립을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대학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부른다.

수령님께서는 종합대학을 창립해 주신 이후에도 수많은 현지지도와 교시를 통하여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과학연구사업과 대학관리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창립당시 7개의 학부에 60여명의 교원과 1,500여명의 학생들을 가졌던 종합대학은 오늘 12개의 학부, 80여개의 강좌, 수많은 연구소와 연구실, 박사원과 연구원, 수십만평방메터의 현대적인 교사, 100만권을 장서하고있는 과학도서관, 대학출판사를 구비한 배움의 최고전당으로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로 종합대학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과학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인재를 키워내는 민족간부양성의 중심기지로,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전국의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인민의 대학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들을 창립하는데 이바지한 모체대학으로, 첫 천리마대학으로 급속히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주을휴양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주을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휴양소를 세계에 으뜸가는 문화휴양지로, 온수터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9월 15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2.8메터, 너비 5.6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이룩난 휴양지로, 근로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는 주을휴양소!

일찌기 조국으로 진군하시던 항일전의 그날 삼지연못가를 거니시며 혁명이 승리한 다음 산좋고 물맑은 이 나라 곳곳에 인민의 휴양소를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수령님!

잊을수 없어라, 1946년 4월,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신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큰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 이 머나먼 주을땅을 찾으신 그날의 감격이여!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주을은 참 좋은 곳입니다.…이곳을 근로자들의 휴양지로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수령님이시기에 전후복구건설의 그 바쁘시던 나날에도 또다시 여기에 찾아오시여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휴양소를 더 크고 더 아름답게 꾸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어제는 높은 산발에 몸소 오르시여 저 멀리 바다가 룡현까지 휴양소구역을 넓히고 수십리 포장길도 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산정기 그윽한 솔밭속에 새 탑식휴양각터전도 잡아주시고 국제경기도 할수 있게 체육관도 크게 짓고 수영장과 보트장도 만들어 세상에서 으뜸가는 휴양소로 꾸리라 하시며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한줄기의 온천물도 더 찾아내여 널리 리용하라고 친히 광천탐사대를 보내주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크나큰 어버이 사랑을 베푸시여 가족휴양과 농민휴양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근로자들을 위해 더 많은 시설을 갖추라고 특별히 휴양소건설사업소까지 무어주시였거니,

궁전같은 휴양각들과 꽃향기 그윽한 화초원, 넓고 시원하게 뻗어간 구내길, 그 어디인들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으랴!

주을휴양소, 여기는 또한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거룩한 자욱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이 먼곳에 오시여 전국지질탐사대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온 나라를 더많은 지하자원개발에로 힘차게 불러주시였고

여기에서 또 금속공업부문, 건설부문, 수산부문, 지방산업부문 일군협의회들을 소집하시여 함북도를 추켜세움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주시였고

여기서 또한 과학자들과 인테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시려고 손수 함북도내 과학자 인테리들과의 협의회를 여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 이는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 이는 우리들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힘의 원천,

아,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여기서 사람들은 마음껏 휴식하며 래일의 새힘을 키우거니, 그이를 모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는 우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 여기에 비를 세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함북도 경성군 주을사적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잠시 휴식을 바라시는 근로자들의 소원을 이기지 못하시여 휴양소에 오시였건만 여기서도 휴식을 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내리시였던 력사의 집을 사적관으로 꾸리고 1971년 6월 5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1.3메터, 너비2.1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집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7년 9월에 한주일동안 머물러계시던 유서깊은 집이다.

이 땅우에 해방의 새봄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15성상 하루와 같이 사나운 눈보라와 폭풍을 헤쳐오시였고 광복된 조국땅에 우리 혁명의 참모부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제반 민주개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여 오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잠시라도 휴식하셨으면 하는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시여 이곳에 오시였건만 여기에서도 휴식을 잊으시고 청진방적공장, 성진제강소를 비롯한 도내 여러 산업시설들과 항만시설, 문화기관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장군님을 만나뵈옵고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민들을 만나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였고 온천구내의 구석구석을 몸소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의 휴양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였다.

아, 밤이 지새도록 불빛 꺼질줄 모르던 집이여, 잊을수 없는 현지지도의 나날이여!

오직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과 어버이사랑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사적비
(자강도 장강군 향하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 12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전원회의가 소집되였던 자강도 장강군 향하리에 1969년 10월 10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1.2메터, 너비 2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였던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친히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에서 전쟁개시후 반년간의 전쟁행정을 분석총화하시고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국가 및 군사부문에서 혁명적규률을 강화하는것을 제1차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적들에게 력량을 다시 수습할 시간적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인 추격전을 전개하며 특히 군사활동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할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시적후퇴시기에 입은 상처를 가시고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킬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김일성동지의 명철한 혁명적방침들은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전당과 그

티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최후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평북도 천마군 조악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당간부양성의 기지인 중앙당학교를 찾으시고 당학교사업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그것을 길이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2년 3월 30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1952년 6월 온 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집중되고있던 그때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돌보셔야 할 일 오죽이나 많았으랴만 간부를 키우는 일은 나라의 전망과 관련된 심중한 문제라하시며 최고사령부의 그 바쁘신 방을 비우시고 그전날 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지도하시던 그 심정으로 이곳에 자리잡은 중앙당학교에 찾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험난한 로정의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오시던 첫걸음에 식당과 침실, 교실과 도서실을 돌아보시며 전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생활에 하나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우리들을 금싸라기처럼 아끼시여 방공호도 파고 안전하게 공부할수 있게하라 가르치시였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교직원, 학생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여 학교사업을 의논하시고 친히 한 교원의 강의도 참관하시였으며 몸소 교직원학생들에게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전쟁승리를 위한 당의 위대한 방침을 밝히시고 당학교사업의 영원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학교는 간부들에게 순수 <리론>만 가르칠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천과 결부된 산지식을 소유한 정치활동가로 양성하여야 합니다.…교수교양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학생들을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이 되도록 그들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며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에 대한 신심,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교양하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파외시간에 광산과 농촌에 나가서 당정책도 해설선전하며 당사업도 배워주라 일깨워 주시고 그 걸음으로 신흥리민주선전실을 찾으시여 세포사업까지 친히 지도하시며 전시 농촌의 당사업방향을 가르쳐주시였다.

아! 가렬처절한 전쟁의 그날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수수한 저 집에서 하루밤을 지새우시며 그토록 우리들을 아껴주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가르치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을 훌륭히 키워내여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고 오늘 우리 중앙당학교는 당간부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자라났거니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의 그날 우리들의 심장을 뜨겁게 흔들며 울리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높은 뜻, 그 뜨거운 사랑을 천년만년 길이 전하며 오직 한마음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충성의 결의를 담아 여기에 삼가 비를 세운다.

김일성원수님의 전선지도 사 적 비
(강원도 법동군 룡포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인민군부대 장병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와 크나큰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27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4메터, 너비 2.2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51년 4월 27일에 이곳에 오시여 적과 직접 맞서 싸우고있는 군부대 장병들에게 전투성과 특히 적후투쟁성과에 대하여 치하하시고 전쟁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미제는 멸망하고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전체 장병들이 항일투사들처럼 백절불굴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지형의 특성에 맞게 산지전과 해안방어전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그리고 부대의 군사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며 군인들은 인민들을 도와주고 인민들은 전선원호사업을 더 잘하여 하루속히 조국땅에서 미제 원쑤를 소탕할것을 교시하시였다.

영웅적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원쑤격멸의 성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전선지도사적비를 세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한다.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
(평남도 순천군 백송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2년 4월 순천군 백송리에 자리잡고 있던 종합대학을 찾으시고 전후복구건설, 민족간부양성, 대자연개조 등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그것을 천년만년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1년 9월 10일 헌시비를 세웠다. 높이 2.1메터, 너비 1.9메터되는 헌시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반만년 력사우에 솟아오른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이의 해발아래 새조선은 태여나
어제날의 머슴이 영웅이 되고
온 강산이 타번지는 불바다속에서도
배움의 꽃은 피여 청춘은 푸르러라

아, 설레는 자모산발이여,
　　　　이야기하라
탄생 마흔돐에 포연을 헤치시고
우리의 배움터를 찾으신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너 영광의 방이여, 길이 노래하라
한밤을 우리와 함께 새우시며
천년미래를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피끓는 심장에 혁명의 불길은

타올라라
미제를 쓸어눕힌 승리한 이 땅우에
공산주의의 조국을 높이 세우리라!
김일성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

개성방직공장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학정에서 신음하던 개성인민들을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아주시였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형무소자리에 개성방직공장을 세워주시였으며 공장을 우리 나라의 견직물생산기지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천년이고 만년이고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1년 9월 21일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2.9메터, 너비 7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북녘을 그리는 남녘땅 겨레의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오는 개성땅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들을 부르며 여기 높이 서있는 방직공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속에서 솟아난 행복의 전당이다.

미제침략자들의 피묻은 구두발에 짓밟히고 수난속에 신음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여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겨주신 수령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성사람들의 령락된 생활을 하루빨리 추켜 세우시기 위하여 전쟁의 그 준엄한 불길속에서도 공장을 세우시여 우리들에게 보람찬 청춘의 일터를 주시고 자신의 로력과 투쟁으로 행복을 창조할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행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행복과 아름다운 생활은 오직 자기의 손으로 창조하여야 합니다.》

하여 머리우에는 푸른 하늘이 열리고 가슴속에서는 희망이 솟구쳐올랐나니 로동속에 행복을 꽃피우며우리들은 새 생활의 넓은 길로 줄달음쳐왔어라

감격도 새로운 1957년 8월 24일, 오매에도 그리던 수령님을 맞이한 우리들은 기쁨에 목메여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더라!

이날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우리들이 거둔 적은 성과를 분에 넘치게 치하하시여 공장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놈들의 형무소자리에 우리는 공장을 건설하고 천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공장을 확장하고 기계를 더 증설하여 질좋고 아름다운 천을 더 짜서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직물생산협동조합원들에게도 깊은 배려를 돌리시여 날로 발전해가는 우리 공장에 그들을 넣어주시고 어엿한 나라의 주인—로동계급으로 키워주시였다.

1960년 9월 21일 또다시 우리들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공장이 커지고 우리 생활이 좋아진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크나큰 사랑을 베푸시고 조국통일의 명확한 방도를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지난날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더 잘 살아야 한다고 그토록 심려하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 사랑을 우리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우리들이 힘겨워 할세라 수직기를 력직기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시지않으시여 녀성들의 키에 알맞게 기대를 낮추어주신 수령님

숨막히는 세상에서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근로자중학교를 세워주시고 구락부까지 꾸려주신 수령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장은 지난날 개성지방에서 일년동안 짜내던 천을 오늘은 불과 반나절이면 짜내는 현대적인 방직공장으로 자랐거니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우리들은 천리마기수로 자라나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새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가고있다.

아, 저주로운 지난날의 자취를 영영 지워버리고 이땅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마련하시여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보람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여!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 우리들의 충성의 마음담아 여기에 비를 세워 영명하신 우리 인민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높은 은덕과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평양과수농장유래비

(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불타는 야산에 평양과수농장을 창설해주시고 농장을 수도의 사과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따라 배우며 천추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13일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3.3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온 동판에 해마다 황금열매 주렁지는 저 과일나무 한그루 한그루에는 우리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거니

사람들이여! 전쟁의 불비속에서 태여난 이 과수원의 자랑찬 력사를 잊지 말자

1951년 10월 전쟁의 불길이 온 강산을 휩쓸던 준엄한 그날 천리전선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고 돌아오시던 수령님께서는 포연에 그슬은 옷자락을 날리시며 불타는 이 언덕에 오르시였다.

《불타고있는 이 야산들에도 과수원을 일굽시다. 여기는 평양도 가깝고 땅도 잘 걸우면 과수원을 만들기에는 좋을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선물할 과일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장차 수도의 과일공급기지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여기에 손수 수도시민들을 위한 만년대계의 과수원터전을 잡아주시고 모든것을 전선을 위해서 바치던 그 어려운 때 이 과수원건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하루빨리 이곳을 개간하도록 싸우는 인민군전투원들을 보내주시였고 자동차와 묘목까지 친히 공급해 주시였거니

아, 수천수만년 인류력사는 흘렀어도 준엄한 결전의 날에 이처럼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인민의 행복을 심려하시여 과수원까지 꾸려주신 수령이 또 어데 있었던가

불비를 헤치고 심은 애어린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며 억세게 자라나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 수령님께서는 이곳을 찾으시여 포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수도시민들에게 과일을 공급하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수도에 과일을 더 많이 공급할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들에게 주시였다.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고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까지 넉넉히 차례지게 하시려는 수령님!

나라일로 바쁘시련만 해마다 우리 농장에 오시여 과일나무를 주체있게

가꿀데 대해서와 기계화하여 일을 헐하게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은혜로운 나날은 그 얼마였던가

오랜 세월 물이 없어 풀마저 시들던 이 땅에 멀리 대동강에서 생명수를 끌어다주신 수령님

비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과일나무들이 상하지나 않았는가 걱정하시여 한밤중에도 전화로 물어보시는 수령님

아,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이여 크나큰 은덕이여!

봄이면 꽃구름 피여나고 가을이면 백과 주렁져 무르익는 여기 능금동 청춘과원에 우리는 비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덕과 불멸의 업적을 천추에 길이 전한다.

청산리사적비
(평남도 강서군 청산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새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시고 발전시키심으로써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크나큰 은덕을 따라배우며 천세만세 빛내여가기 위하여 1971년 5월 강서군 청산리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2.4메터, 너비 9.3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견지하여오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시고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당 및 국가 경제지도관리사업체계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공산주의적인 지도방법을 완성하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 2월 몸소 눈길을 헤치시며 이곳에 오시여 보름동안이나 친히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혹은 지방당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여 농장의 관리운영과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시였으며 그것을 풀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산리방법의 기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쥐는 방법,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무기를 얻었고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무궁무진한 힘을 내게 되였다.

이곳 청산리는 우리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속에서 꽃핀 곳이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194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차례나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그동안 수령님께서 청산리사람들에게 베푸신 따뜻한 손길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수령님께서는 스스럼없이 탈곡장멍석우에 앉으시여 농민들과 함께 농사계획을 짜기도 하시였고 마을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주택터전도 손수 잡아주시였으며 사회주의적농촌경리를 정확히 운영할수 있는 길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여기 청산리에 지피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불꽃은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퍼지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고 혁명의 일대 앙양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배워주고 배우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좋은 나라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천년만년 살리라 가슴뜨겁게 속다짐한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온 누리에 그 빛을 더욱 찬연히 뿌리고있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영생불멸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이 태여난 고향인 여기 수령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가 있은 이곳에 비를 세워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노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강원도 회양군 포천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강원도 회양군 포천리에서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공산주의적새싹인 분조관리제를 창시하시고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따라 배우며 천추에 길이길이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2년 5월 11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4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발기에 의하여 분조관리제가 태여난 유서깊은 땅이다.

테제의 휘황한 빛발로 우리 농촌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 사회주의농촌경리가 가장 합리적인 로력조직형태를 절실히 요구하던 때인 1965년 5월 11일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름도 쉬여가는 아흔아홉굽이 령길을 넘으시여 여기 산간마을 포천리를 찾으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 분조관리제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께서는 이곳 농장의 형편을 일일이 헤아려보시고 기본생산단위인 작업반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일이 복잡할수록 살림을 작게 해야 관리하기도 헐하고 생산도 높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매개 분조에 포전을 다 고정시켜주고 부림소도 분조마다 고정시켜 분조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포천리에서 먼저 작업반우대제기준을 놓고 그에 준하여 분조우대(관리)제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장원들이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집단생활의 가장 합리적인 세포는 분조라고 하시면서 분조의 크기, 로력과 생산수단의 고착 등 분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포전정리와 농촌기계화는 어떻게 실현하며 지어 여기 마을사람들이 먹는 물이며 땔나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보살펴 주실 때 농장원들은 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앞에 진정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발기하신 분조관리제—이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공산주의적새싹, 사회주의농촌을 떠미는 위대한 힘이여라!

하나의 고리에서 천만고리의 매듭을 푸시고 하나의 모범을 창조하시여 순식간에 온 나라에 옮겨놓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해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나니,

아, 이름없던 여기 포천땅에서 지피신 한점의 불꽃이여! 그 불꽃은 료원의 불길마냥 전국에 타번져 휘황한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기고있어라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포전마다 꽃피워가는 분조관리제의 고향 포천땅, 기계로 밭갈고 화학으로 농사짓는 여기,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서로 돕고 이끌어 분조를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두가 공동관리운영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니 전야마다 황금이삭 설레고 만풍년의 노래소리 하늘땅에 차넘쳐라

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농촌!

공산주의미래에로 가는 찬란한 앞길을 밝혀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은 해와 달과 더불어 무궁한 세월속에 길이 빛나리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평안남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한 당정책을 제시하실 때마다 먼저 평남도에서 그 시범을 보여주신 다음 전국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평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4월 15일에 평성시 평성동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2메터, 너비 20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을 둘러싸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따라 천지개벽을 이룩한 우리 평안남도!

해방의 기쁨을 안고 민주건설의 첫 자욱을 떼던 그날이 어제같은데 아, 벌써 몇세기가 흘러간듯 사람도, 강산도 변하고 지난날 락후한 농업지대였던 이 고장이 오늘은 사회주의대공업과 농업을 자랑하며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거니

사람들이여, 인민을 위하여 세기를 주름잡아 주시고 이 땅우에 찬란한 새력사를 펼쳐주신 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자!

항일전의 간고한 나날에 그처럼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 수령님께서 먼저 조국개선의 첫인사를 강선의 로동계급과 나누신 그때로부터,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맞이하여 삼등선거구의 유권자들앞에서 《저를 대의원립후보자로 추천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몸바쳐 일하겠습니다.》라고 겸허하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우리들은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은덕을 받으며 그 얼마나 영광에 찬길을 걸어왔던가

수령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선봉의 영예를 지니고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달려온 평안남도!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가 큰 걸음을 내디더야 할때마다 우리 도를 찾으시였고 몸소 진두에 서시여 우리들을 투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거니

잊을수 없어라, 지난날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난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동무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던 력사의 그날이여!

포화를 이겨낸 한그루의 백양나무아래에서 우리들의 억센 손에 나라를 일떠세울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쥐여주시던 감격의 그날이여!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온 세상에 그 빛을 휘황히 뿌려주시던 영광의 그날이여!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거룩한 그 자욱자욱 오늘은 어디를 가나 위대한 열매를 맺어 찬연히 빛나고있어라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였다.

평남도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둘러싸고있는 도로서 그 정치적의의를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그이께서 계시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위하고있는 우리 평안남도

이 크나큰 신임앞에서 우리 어찌 몸불을 헤아렸으랴

수령님께서는 부강한 조국을 구상하실때 먼저 우리도를 생각해주시였고 우리도의 공업과 농업을 계획하실때 륭성할 사회주의조국의 래일을 생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도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지리적조건을 깊이 헤아리시고 나라의 강력한 주체공업의 큰 몫을 담당할 중공업의 기지들을 꾸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도의 농업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시고 손수 저수지위치와 물길을 잡아주시였고 막대한 자금을 돌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선참으로 평남관개와 기양관개를 비롯한 수만리관개망을 펼쳐주시였으며 농촌경리를 기계화함에 있어서도 아낌없이 많은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선진영농법을 도입할 때에는 우리 도가 선봉에 서라고 수령님께서는 얼마나 지극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던가

수령님의 위대하신 구상을 선참으로 구현하는 시범단위의 높은 영예를 지니고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평안남도

수령님께서는 새환경에 맞게 중요한 정책을 세우실 때마다 우리 도에서 먼저 시범하시였고 한점의 불꽃을 일구시여 그것을 온 나라에 지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당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요한 당정책을 먼저 평남도에서 시험해 보고 전국에 보급하였습니다.

농업협동화를 실시할때에도 그랬고 1958년 지방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때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청산리방법도 평남도에서 나왔고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와 농업관리체계도 평남도의 대안전기공장과 숙천에서 먼저 실시해 본 다음에 전국에 보급하였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뜻이 이르는 곳마다 꽃핀 땅이여!

천리마의 고향이 여기에 있고 이름높은 청산리가 여기에 있어라

대안체계가 여기서 태여났고 숙천체계도 여기서 마련되였어라

아,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나래쳐 온 나라를 혁명적대고조로 불러일으킨다.

언제나 인민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인민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어제는 야금기지의 전기로앞에서, 오늘은 한 농촌의 포전에서, 때로는 서부탄전의 지하막장에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꾸려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는 수령님!

비 내리는 새벽길도, 눈 내리는 저녁길도 가리지 않으시고 수령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 평안남도에 무려 800여차례의 현지지도를 주시였거니

아, 이 땅에 천만갈래로 뻗어간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산간농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여 두메산골 은하리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고뿔불 희미한 명석우에서 밤을 지새우시며 누구도 모르던 황금산의 열쇠를 쥐여주신 수령님!

때로는 어느 한 농촌의 세포학습회를 지도하시기도 하며 안개낀 이른 새벽 배머리에 오시여서는 고기잡이 떠나는 어로공들을 고무하여주신 수령님!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오늘 평안남도에는 대동강기슭기슭에 만년

대계의 강력한 기계제작기지와 대야금기지, 석탄기지와 전력기지 그리고 강력한 화학공업과 지방공업이 반석으로 다져지고 자동차와 뜨락또르, 현대적 대형기계들과 인민소비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우리 도는 나라의 풍요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니 대동강과 청천강이 합쳐 이루어진 대륜환식관개체계를 따라 넓은 벌마다에는 생명수 흘러들고 기계화, 화학화의 새시대는 열리여 농민들은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고있다.

오랜 세월 버림받던 서해의 넓은 간석지는 황금벌로 변하고 포구마다에는 우리 손으로 무은 고기배들이 풍어기를 날린다.

양덕맹산의 깊은 산간마을에도 불빛 밝은 문화주택 들어서고 어디가나 학교와 진료소, 유치원과 탁아소들이 아담하게 일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자랑하고있다.

아,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여 뜨거운 사랑이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였고 수령님의 아버님이시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이 활짝 꽃피고있는 이 영광의 땅에 수령님께서 손수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지어주신 청춘도시 여기 평성에 우리들은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할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을 모시고 비를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천추만대에 길이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함경북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함북도를 나라의 믿음직한 기간공업지대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2일 청진시 포항구역 청송2동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4메터, 너비6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함경북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인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믿음직한 기간공업지대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오랜 세월 빛을 잃었던 이 나라 북변 함경북도에 펼쳐진 찬연한 오늘의 새 력사!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946년 4월 친히 이 고장에 찾아오시여 함북도당 및 정권기관간부련석회의를 여시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우리 도에 강력한 기간공업기지를 창설할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함북도에는 광석,선철, 강철,석탄, 섬유, 펄프, 목재 등 인민경제발전에서 첫공정을 차지하는 부문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인민경제발전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인차를 타시고 구름우에 솟은 무산광산 철산봉에도 오르시고 험산준령을 넘어 북부탄전지대에도 들리시여 청소한 로동계급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모든것이 페허로 된 전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손수 길러내신 대기술집단을 보내주시고 전국적인 지원사업도 직접 조직해주시면서 기간공업기지는 원상대로가 아니라 그전보다 몇배, 몇십배 더 웅장하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들을 새로운 전투에로 부르시였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끊임없는 혁신,끊임없는 전진, 끊임없는 창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우리를 창조와 혁신에로 이끌어주었다.

긴긴세월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이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누구나 다 잘 살수있는 열쇠를 찾아주시였다. 머나먼 우리 도에 오실때마다 잠시의 휴식도 잊으시고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기적과 위훈에로 부르신 수령님의 잊을수 없는 현지지도의 나날을 어찌 글로 다 적을수 있으랴!

우리 고장의 자그마한 아마공장에서 일어난 한점의 불꽃을 보시고 온 나라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지펴주시고 때로는 먼 북방의 이름없는 군을 종합농장으로 꾸리시여 공산주의기업관리의 모범을 창조하신 수령님!

《우리가 농촌에 나와서 좋은 길로만 다니겠습니까? 이 차를 타고다니다가 빠지면 걸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가보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길없는 진펄을 헤치시고 조국의 한끝 서수라까지 찾아가시여 왜새풀만 무성하던 그 진펄우에 락원을 꾸려주신 수령님!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시는 친어버이 심정으로 가을의 한잎 락엽을 보시고도 북쪽에서는 선기가 났겠다고 하시며 먼 북방에 사는 우리들의 겨울나이 차비를 걱정하시는 수령님!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이여! 그 은혜여!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마천령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넓고넓은 땅은 강력한 기간공업지대로 전변되였으니 여기 대야금기지에서 쏟아지는 쇠물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철산과 북부탄전들에서는 천지를 진동하는 대발파소리와 함께 쇠돌과 석탄이 사태처럼 쏟아져나온다.

대화학섬유기지에는 옷감의 원료가 태산같이 쌓이고 우리 손으로 무은 산악같은 대형선박들은 련이어 동해에 진수한다.

수령님께서 몸소 골라주신 씨앗으로 우리 농촌은 해마다 만풍년을 거두고 그이께서 보내주신 양떼 골짜기마다 구름처럼 흐르는데 산은 산마다 과일이 주렁졌다.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새거리와 마을, 병원과 학교마다, 천리동해의 포구마다 행복의 노래, 풍어의 노래 차고 넘치고 그이께서 무어주신 원양어로선단들 만선기 휘날리며 기지로 돌아온다.

정녕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따라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달라졌으니 아, 산천초목도 우리와 함께 머리숙여 수령님께 감사드린다.

천만년 수령님을 길이 받들고 대를 이어 충성다할 뜨거운 마음을 담아 우리는 그이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력사가 깃든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시고 비를 세워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함경남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함남도를 사회주의공업농업지대로,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

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15일에 함흥시 반룡산우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2.2메터, 너비7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한쪽은 농촌풍경이고 한쪽은 공장풍경입니다. 사회주의면모가 나타납니다. 농사가 썩 잘되니 좋고 공장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타오르니 생산이 많이나서 좋고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으니 좋고…이제는 완전히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경치입니다.》
(1932년 9월 12일 반룡산에 오르시여 하신말씀중에서)

사람들이여! 이 땅에 창조된 오늘의 이 위대한 전변이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랜 세월을 두고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시달리던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못살 곳이라 원망하며 피눈물을 뿌리며 떠나던 땅, 이 땅우에 펼쳐진 지상락원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손길아래에서 꽃피여 만발하였다.

일찌기 항일의 그날에 조국땅에 세울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수령님께서는 분여받은 새땅에 첫 씨앗을 뿌리던 1946년 4월 몸소 이 고장에 오시여 나라의 주인된 우리들을 부강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수령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새 로선을 제시하신 수령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3년 10월 다시 이 고장을 찾으시여 초연이 가시지 않은 폐허를 몸소 헤치시며 함흥에는 대화학공업기지를, 함주백리벌에는 협동화의 첫 살림을 마련해 주시고 신포와 광포땅에는 수산업과 가금업발전의 웅대한 설계도를 손수 그려주시였다.

내외의 원쑤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 있던 1956년 5월과 1957년 3월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으시여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천리마의 대진군에로 이끌어주시였으니 기적과 비약으로 들끓는 창조의 낮과 밤이 계속되는 속에서 도처에 웅대한 새 공장들과 광산들, 발전소와 수산기지들, 화려한 도시들과 아담한 주택지구들이 일어서고 협동벌에는 생명수가 넘쳐 흘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신 수령님께서는 1967년 6월 우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다시 한번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일으킬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실로 수령님께서 걸으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자욱마다에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창조물이 솟아나고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하늘높이 타올랐거니 수천년 버림받던 이 고장에 주체공업의 위력을 자랑하는 현대적비날론공장을 비롯한 대공업기지와 과학과 교육, 문화의 전당들이 세워지고 농촌테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풍요한 가을이 무르익는 사회주의협동벌에서, 북청회의열매가 주렁진 황금동산에서 사람들은 무병장수하여 오늘의 이 행복을 뜨겁게 노래한다.

아! 로동자와 농민과 지식인 우리들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공산주의 높은 령마루에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생활과 살림을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덕성을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정녕 백번 다시 태여나 수령님을 모시고 천년만년 그이께 충성을 다하고 싶은 우리들의 심정을 담아 여기에 비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배려와 높은 은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자강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자강도를 우리 나라의 믿음직한 대후방기지로,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7월 27일에 현지지도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4.3메터, 너비 8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자강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나라의 믿음직한 대후방기지로,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이룩한 위대한 변혁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자강도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혁은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길을 따라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되며 우리 제도하에서는 산간지대나 벌방지대나 할것없이 모든 지방이 다 번영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긴긴세월 한뙈기의 돌밭에 명줄을 걸고 고콜불에 그을은 귀틀집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자강땅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못살던 우리 도내 인민들의 처지를 가슴아파하시며 해방된 첫날부터 우리도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8년 우리 도에 친히 오시여 강계군각정당사회단체열성자회의를 여시고 조국의 륭성과 통일의 앞날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이 산골땅을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울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9년 1월에 우리 자강도를 새로 창설하여주시여 이 지대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주시였고 나라의 대후방기지를 담당할 영예로운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천년동안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자연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비결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는 사회를 개조할뿐만아니라 자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조하여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였고 산이 많은 이 고장에서 산을 잘 리용하여 산마다 황금산으로 꽃피우고 무심히 흘러가던 물을 길들이여 땅을 적시고 전기를 일쿠며 물고기도 기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고 영웅의 넋을 심어주시였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쳤을때나 새로운 과업을 받고 밤을 지새울때나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찾아주시여 기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셨거니 밤도, 잠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그이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을 천리로 헤아리랴, 만리로 헤아리랴!

이름없는 한 농촌의 당세포사업까지 지도하여 주신 수령님,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그 준엄한 시각에도 친히 우리 나라 첫 기계공업기지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자래워주신 수령님,

해빛도 그늘지는 산간벽지에까지 찾아오시여 뒤떨어진 농사를 추세워나갈 방도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신 수령님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저기

압록강, 독로강, 장진강우에 만년대계의 대동력기지가 일떠섰고 쑥새풀만 무성하던 골짜기들에 현대적기계공업기지들이 거연히 솟아났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산은 산마다 황금산이 되고 그 줄기마다에서 은금보화 쏟아진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문화농촌에는 해마다 만풍년이 들고 산기슭마다 집짐승떼 구름처럼 흐르며 개울과 호수에는 고기떼 욱실거린다.

지난날 문명과 등졌던 산간마을 그 어디를 가나 아이들의 글소리 랑랑히 울리고 탕림과 오가산밑에도 병원과 학교가 서고 전등불 밝은 문화주택들에서는 수령님의 높고 깊은 은덕을 노래하는 가야금소리 울려온다.

산천도 머리숙여 오늘의 이 행복, 이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일찌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국내외의 혁명조직과 독립운동자들을 지도하시던 성스러운 땅에,

조국광복을 위해 몸바쳐 싸우시는 부모님을 따라 수령님께서 어린시절의 한때를 보내시였고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홀로 포평을 떠나 배움의 천리길 걸으신 그 자욱 오늘도 력력한 곳,

열네살되시던 때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다지며 압록강을 건느신 영광의 이 땅에,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결정적승리를 가져온 천재적작전을 짜시였고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여시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신 여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보람과 행복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할 뜨거운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을 모시고 비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개성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성지구인민들을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아주시였을뿐만아니라 령락된 소비도시, 상업도시였던 이 고장을 사회주의 경공업도시로, 교육문화도시로, 공화국북반부의 정치경제적관문도시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천세만세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68년 8월 24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1.6메터, 너비 2.8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악독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경찰통치기반에서 이 땅을 해방하여 주시였고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개성지구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적과 대치한 연선지대의 협동농장들과 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과 학교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시면서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이 지대의 긴장된 식량과 종곡, 농기구와 부림소를 해결하며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하고 공장과 학교를 운영하며 인민생활을 안착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간부들을 현지에 파견하시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성지구의 전후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을 설계하여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직업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령락된 이 지구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송고직을 비롯한 직물,도자기, 화강석, 식료가공 등 지방의 원료원천과 생산전통에 기초한 지방산업을 발전시키며 알곡을 위주로 하여 축산, 과수, 인삼, 남새, 양잠 등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모두가 이밥에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한 송도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망과 문화보건기관들을 광범히 설치하며 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군중들을 사회주의근로자로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개성지구전부가 천리마작업반, 천리마조합, 천리마군으로 되게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령락된 소비도시이며 상업도시인 개성을 사회주의경공업도시로, 교육문화도시로 꾸리며 공화국북반부의 정치경제군사적관문으로, 조국통일의 큰 영향력으로 되게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모든 조선사람은 다 조국통일을 갈망하고있지만 개성지구에서는 앞으로 끌려나간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더욱 절박하게 기다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국의 절반땅인 남반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남반부의 부모형제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남북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할수 있는 준비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조선은 하나이며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현지지도와 강령적 교시는 개성지구인민들의 정치,경제, 문화 모든 생활에 오늘과 같이 거대한 변혁과 행복을 가져오게 하였다.

개성지구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높은 영예를 만천하에 떨치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며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 있다.

이곳은 김일성원수님께서 (1957년 8월 24일) 친히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조선식건물을 보존하고 현대적건물을 잘 지어 개성시를 아름답게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신 자리이다.

김일성원수님께 바치는 다함없는 충성심으로 개성지구인민들은 삼가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을 적어 바다보다도 깊고 태양보다도 뜨거운 배려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길이 전한다.

강계청년발전소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강도 황수평에 강계청년발전소자리를 잡아주시였고 발전소를 어떤 정황속에서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동력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1년 10월 10일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8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황수평에 자리잡은 강계청년발전소!

여기서 우리 나라 공업의 심장은 고동치며 온 나라에 강력한 전류를 보내고있거니 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위대한 전기화사상의 빛나는 열매이며 자위로선의 자랑찬 구현이다.

일찍부터 우리 나라 경제의 전망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동력기지들을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나

라 첫 새로운 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대자연정복에로 청년들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건설장은 청년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기술을 련마하는 공산주의학교라고 하시면서 친히 이름을 《강계청년발전소》라고 지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청년건설자들이 울린 거세찬 발파소리는 정적속에 잠겼던 이 산골을 뒤흔들며 메아리쳐갔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공사형편을 알아보시고 걸린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발전소건설이 한창이던 1961년 5월에는 건설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후손만대에 넘겨줄 우리발전소를 만년대계로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이 공사를 해놓으면 우리 나라의 보배덩어리로 됩니다.》라고 우리들을 끝없이 고무하여주시였다.

낯선 고장에 와서 일하는 청년건설자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신 수령님께서는 여기 황수령에 첫서리가 내리거나 찬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평양에서 전화로 우리들의 생활과 건강상태를 물으시였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답게 락천적으로 살줄 알아야 한다고 여러가지 악기까지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덕에 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청년건설자들은 용기백배 하늘을 찌르는 기세로 밀림의 모진 추위와 백년만에 처음이라는 큰물도 이겨냈으며 높은 산을 떠옮기고 도도한 강줄기도 돌려세웠다.

1964년 5월 1일 강계청년발전소의 완공을 알리는 뜻깊은 날 수령님께서 친히 조업식에 나오시니 동력의 큰 심장은 만사람의 환호를 합쳐 지축을 울리며 세차게 고동쳤다.

그이께서는 이날 건설공사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을 높이 치하해주시였거니 그 영예 발전소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리라

수령님께서는 《해놓으니 참 좋습니다. 위대한 건설입니다.… 아주 큰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당만이 할수있습니다. 력사적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건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전소조업을 축하해주시였다.

하여 장진강, 오만강, 삼포강, 서중강의 크고작은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치고 거세차게 흘러 여러개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강계청년발전소는 그 어떤 정황에서도 전력을 공급할수 있는 우리 나라 전력공업의 강력한 요새로 되였다.

지난날 화전민들과 처소군들이 세상을 저주하며 피눈물 뿌리며 넘었다는 《아득령》도 이제는 수십만크바의 전력을 일으키게 하는 황금수를 넘겨 보낸다하여 수령님께서 이름지어주신 그대로 《황수령》으로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청년건설자들은 동력기지건설의 붉은 초병들로, 대부대로 억세게 자라서 오늘은 전기화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후손만대에 길이 물려줄 이 밑천은 오직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나니 여기에 우리는 비를 세워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길이길이 전한다.

독로강발전소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독로강발전소를 건설하게 하심으로써 전력공업발전의 새 력사를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10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6.5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독로강발전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건설한 대동력기지이다.

해방직후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공업의 심장이며 동맥인 전력공업을 앞세우시기 위하여 1949년 10월 높은 고개와 험한 산길을 무릅쓰시고 몸소 이곳까지 찾아오시여 아직 설계와 가설공사를 하고있던 우리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안겨주시였으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나아갈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였다.

《우리의 손으로 발전기를 조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전소를 건설하는것만큼 질적으로 하며 이 공사에서 많은 간부와 기술자를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그 준엄한 시각에도 수령님께서는 건설사업소일군들을 찾으시여 전쟁이 끝나면 공사장을 단시일내에 정비하고 우리의 힘으로 발전소를 더 거창하게 일떠 세우자고 고무하여주시였다.

1957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자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손수 가르쳐주신 수령님께서는 가물막이공사를 끝낸 1958년 8월 또다시 이곳에 오시여 《우리는 몇천년을 두고 흐르던 강을 막아 자연을 정복하였습니다.…독로강발전소건설공사는 전력생산의 증대에만 큰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발전소들을 건설할 간부와 기능공을 양성하며 경험을 얻는데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이는 마치 우리 나라 공업대학과 같습니다.》라고 우리들의 작은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세기를 주름잡는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 서라고 고무하여주시였다.

발전소조업을 앞둔 1959년 8월 네번째로 이곳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발전소를 보시고 웅장한 《지하궁전》이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질적으로 마감짓고 이 공사의 경험을 살리여 보다 큰 새 발전소를 건설할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을 찾으실 때마다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발전소건설에 지원하여 온것이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고 하시면서 추워할세라 솜옷과 털모자, 겨울신발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우리들의 소박한 예술소조공연을 밤늦도록 보아주시고는 현실속에서 훌륭한 예술이 나왔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깊고깊은 사랑과 따뜻한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청년건설자들은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속에서도 얼음물에 뛰여들어 세찬 물결을 가슴으로 막으며 산악같은 언제와 발전소를 일떠세웠다.

여기 산짐승소리만 들리던 두메산골에 오늘은 려객선의 고동소리 메아리치는 푸른 호수를 안고 거연히 솟은 철벽의 동력기지 독로강발전소는 수천수만의 전기화초병들을 키워내여 우리 수많은 강들에 크고작은 수력발전소들을 일떠세우게 한 뜻깊은 첫 대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전기화구상을 꽃피워 그 위용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다.

아, 우리 나라 전력공업의 새력사를 열어주신 수령님!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과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성진제강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

지지도의 나날 성진제강소를 우리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에 필요한 강철생산기지로, 기술개건의 선봉대로 만들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현명한 령도와 높은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5월 8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7.5메터, 너비 3.5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 동해기슭에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며 거연히 서있는 성진제강소!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는 이 강철기지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고 튼튼히 다져졌다.

제국주의자들이 5련발총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침략할때 화승대 하나 만들지 못하고 뒤떨어졌던 탓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인민의 옛처지를 가슴아파하시며 다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하며 우리가 강해지자면 강철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께서는 1947년 9월 친히 우리 공장에 오시여 일제가 마스고 간 공장터전우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로 강철을 생산하는 주체적인 강력한 야금기지를 웅장하게 일떠세울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1954년 7월 13일, 가렬한 전쟁시기 지하에서 쇠물을 뽑을때나 《로동자련대》를 무어 총을 쥐고 미제와 싸울때나 오매에도 그립던 수상님을 폐허우에서 맞이하던 그날의 감격이여!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세운 첫 전기로에서 쏟아지는 쇠물을 보시고 **《이 공장 일이 잘되기때문에 중앙에서 안심할수 있습니다.》**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해주시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강철이든지 다 만드는 공장으로 더 웅장하게 복구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공업화와 기술혁명, 이것은 성진제강소의 강철에 달려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공장에 이처럼 큰 영예를 안겨주시고 우리들을 기술개건의 선봉대로 세워주시였거니

그이께서는 국방공업, 기계공업, 전기공업, 화학공업 이 모든것은 강철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백사장모래불을 밟으시며 새 직장들과 기대들을 앉힐 자리를 잡아주시였고 현대적인 설비와 기대들을 선참으로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강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금속과학연구집단을 보내주시고 공장대학을 세워주시여 우리 나라 강철공업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대기술부대를 키워주시였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1961년 5월 우리 공장에 다시 오신 수령님께서는 적들이 왼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들이댈것이 아니라 한번 때리면 두번 세번 후려 갈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위의 혁명사상과 멸적의 투지를 안겨주시였으며 우리들을 끊임없는 혁신, 끊임없는 전진, 끊임없는 창조에로 부르시였다.

공장의 모든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우리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신 수령님!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신선한 남새와 펄펄 뛰는 생선을 보시고도 먼저 강철전사들을 생각하신 어버이수령님!

아, 진정 부모의 사랑도 미치지 못할 그 은정,그 넓으신 품을 우리 어찌다 헤아릴수 있으랴

여기에서 쏟아지는 쇠물과 강재의 불줄기, 그것은 기계가 되고 자동차와 뜨락또르, 대형선박이 되여 사회주의 조국을 부강하게 하며 멸적의 총이되고 대포가 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가고있어라

사람들이여! 한덩이 강철, 한치의 강재마다에는 세기적인 락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부강한 조국을 일떠세워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게 하신 그이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 있거니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강철은 이렇듯 무겁고 억세인것이여라!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 우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영웅적인 강철군단으로 키워주시고 지난날 일년동안에 생산하던 강철을 단 하루에 생산하는 대강철기지를 꾸려주신 수령님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으신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룡성기계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룡성기계공장을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대형기계생산기지로, 기계공업의 기수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크나큰 은덕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30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2메터, 너비 6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제날의 우리들은 남의 나라 기계들을 볼때마다 그것을 신비하고 부럽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세계사람들이 찬탄하고 부러워하거니 남들이 애써 백년을 가야 할 기계공업의 령마루를 불과 십여년만에 날아넘게 하신 수령님

우리 나라를 강력한 주체공업을 가진 문명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나라의 대형기계기지를 꾸려주신 여기에 우리는 수령님을 칭송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비를 높이 세우노라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떠받들고 일어설 중공업의 심장인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위대한 주체사상을 안겨주시고 조선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깨우쳐주셨어라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큰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전후 재더미에 묻혔던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대형기계기지창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어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공업이 기수가 되고 기계공업에서는 룡성기계공장이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이렇듯 이 공장과 룡성의 로동계급이 설 영예로운 자리를 정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믿고 아끼시기에 가장 엄하게 키워 주시였나니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실 때나 온 나라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실 때에도 혁명하는 시대에 혁명가답게 혁명적기백으로 살라고 하시며 간고한 투쟁의 선두에 바로 우리를 세워주시였어라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어려울 때나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실 때마다 가장 미더운 맏아들의 집을 찾아 살림을 의논하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매번 우리 공장을 먼저 찾아주시였나니

1967년 6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전국을 불러일으키실 때에도 우리들을 선참으로 찾아주시여 로동계급이 당로선의 진미를 안다고 하사

며 《동무들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야 하오!》라고 다시금 두터운 신임을 주시였어라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대견스럽고 제일 기쁘시여 옷에 기름이 묻는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허리를 굽히시고 어루만져보시는 수령님

날씨가 조금만 차도 감기에 걸리지나 않았는가 고기와 기름과 남새들은 넉넉한가고 깊은 한밤중에도 멀리 평양에서 전화로 알아보시고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

아! 이처럼 우리를 믿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아껴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여! 몸이 찢겨 가루가 된들 그이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일인들 해내지 못하랴! 그 어떤 기적인들 창조해내지 못했으랴!

수령님의 요구는 곧 우리의 공칭능력! 이는 우리의 구호,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예와 행복으로 되였나니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렁찬 혁명가요와 우등불로 밤을 밝히며 온 통성사람들과 함께 가슴을 불태우면서 작은 기계로 수십배나 되는 큰 소재를 따라가며 뜯어내여 우리가 만들어낸 8메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 세계 1등급의 비날론공장종합설비들과 6천톤프레스, 경제와 국방의 위력한 그 모든 기계설비들,

바로 그것은 그이께 바치는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이였노라

《…이 공장은 진실로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장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령님의 이 가장 높은 평가와 치하는 언제나 우리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부르시거니 그이께서 친히 불러주신 《어머니공장》, 《영웅공장》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천리마통성기계공장이여!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하오!》

이 힘찬 교시로 공장과 함께 우리들을 자래워주시고 세기적인 변혁을 일으키게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길이 빛나리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6월4일차량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4일차량공장을 객차, 화차, 랭동차 등의 현대적인 차량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6월 4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4메터, 너비 6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남의 나라에서는 증기기관차가 달릴 때 달구지만 굴러가던 이 땅, 오늘은 이땅의 동서와 남북을 가로세로 주름잡으며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객차와 화차, 랭동렬차들이 기세차게 달리고 있거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여! 천추에 길이 빛나라

일찌기 수송을 앞세워야 나라의 경제를 풀게되고 자립적인 철도운수기계제작공업을 튼튼히 다져야 수송을 앞세울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를 받으면서 우리 공장은 나라의 차량생산에서 큰몫을 맡은 현대적인 대규모의 공장으로 자랐어라

《원산철도공장은 우리 나라에서 큰 공장입니다.…이 공장은 사실 우리 로동당을 보위하고 우리 조선혁명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로동계급의 핵심진지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벌써 1947년 9월에 낡은 화차나 겨우 수리하던 이름없던 우리 공장에 친히 찾아오시여 우리 로동계급을 새조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주시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우리 공장을 금싸라기처럼 아끼시여 손수 평북땅에 옮겨주시였다.

정전후 할일은 많고 모든것이 바르던 그 시기에도 수령님께서는 선참으로 여기에 현대적인 차량공장을 세우실 방침을 제시하시고 타다남은 기둥들과 철골만이 어지럽던 이곳을 찾으시여 손수설계도면을 펼치시고 일일이 직장과 기대들이 앉을 자리를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건설을 지원하라고 인민군대동무들을 보내주시였고 각종 최신설비들과 자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거니

우리 공장건설을 위해 수령님께서 돌리신 배려는 얼마나 많고 많았던가!

1958년 3월 14일,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조와 혁신의 낮과 밤을 거듭하여 우리가 만든 첫 30톤급 화차를 수령님께 보여드리던 그날의 감격이여!

수령님께서는 친자식의 일솜씨를 대견해하시는 어버이심정으로 아직 미숙한데가 많은 화차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시며 《인제는 우리도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화차를 만들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처음되는 일입니다.》라고 높이 치하하여 주시였고 나라의 긴장된 철도수송문제는 동무들이 풀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며 우리들은 심장으로 맹세다졌더라, 수령님께서 바라신다면 우리는 바다도 가르고 산도 떠옮기리라고…

수령님께서는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시였고 또 언제나 저멀리 우리들이 가닿아야 할 높은 령마루에 서시여 우리들을 불러주시였다.

우리가 전후에 공장건설을 한창 다그칠때 벌써 30톤급 화차를 생산하여 5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로 달려가야 한다고 하시였고 5개년계획의 령마루를 눈앞에 두었을 때에는 또다시 60톤급 화차를 생산하여 7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과분하게도 모범공장이라 불러주시며 전쟁에서도 건설에서도 당과 혁명을 위해 이바지하였다는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라고 우리를 고무하여주시였다

우리들을 그처럼 아끼시며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워주시고도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념려하시여 천리마조선을 일떠세운 로동계급답게 생활도 혁명적으로 꾸리라고 가르쳐주신 수령님,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의 철없는 어린것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주시느라고 탁아소를 떠나실줄 모르시던 수령님,

아, 어버이수령님의 넓으신 품이여, 한없이 자애로운 손길이여!

우리들은 대를 이어 이 공장을 지켜가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높으신 은덕을 길이 빛내여 가리라

김종태전기기관차 공장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을 우리 나라의 강력한 철도전기화의 심장부로, 철도운수기계제작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15일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2.8메터, 너비 7.5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동해의 푸른 기슭과 서해의 황금벌판을 누비며 시대의 긍지높이 달려가는 저 《붉은기》호 전기기관차!

사람들이여!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이땅우에 한세기를 뛰여넘어 철도전기화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영원히 잊지 말자!

해방의 새봄을 안으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께서는 1945년 12월 10일 우리 공장을 찾으시여 첫 연설에서 우리를 혁명의 령도계급이라 하시며 철도전기화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우리의 리상은 철도에서 기계화를 하고 전기화를 하며 여기에 자동화까지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이끄시던 그 준엄한 나날에도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철도전기화의 기술집단을 키워주신 수령님

그이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멎자 무참히 파괴된 우리 공장에 오시여 무너진 벽체들로 어지럽던 구내길을 걸으시며 이 공장을 더 웅장하게 백년대계로 일떠세우자고 하시면서 건설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이 땅우에 새로 태여날 전기기관차를 위하여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수많은 현지지도의 나날을!

구름도 발 아래에 감도는 양덕고개의 이슬내린 철뚝길을 걸으시며 철길의 구배와 굴곡도 알아보시고 우리 나라지형에 맞는 전기기관차의 구조까지 구상하신 수령님,

어제는 대동강기슭의 한 전기공장을 찾으시여 전동기제작을 의논하시더니 오늘은 머나먼 동광에 가시여 동을 더 많이 캐여 철도전기화를 돕자고 그곳 로동자들을 고무하여주신 수령님,

온 나라가 천리마의 기세높이 5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환히 내다보던 1959년 8월, 수령님께서는 공장에 오시여 새로 꾸려진 직장을 돌아보시고 대견해하시며 이제부터는 전기기관차를 대담하게 만들라고 크나큰 영예와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던가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수천수만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며 깎고 무어내던 벅찬 전투의 낮과 밤이여!

현대기계공업의 정수로 불리우는 전기기관차의 심장 고속도차단기도 끝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였거니

아, 1961년 8월 30일, 이 땅에 태여난 첫 전기기관차가 우렁찬 고동을 울리던 감격의 그날이여!

공장에 오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차에 오르시여 운전대도 만져보고 차체도 쓸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만들지 않고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으니까 한계단 뛰여넘은셈입니다. 증기기관차는 산업혁명시기에 쓰던것이지만 전기기관차는 공산주의시대에 쓰는것입니다. 동무들이 대단한 일을 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나라 기술혁명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기기관차에 《붉은기》란 이름까지 달아주시고 공장을《전기기관차공장》이라고 불러주시였다.

항일의 나날 혁명의 대오앞에 항상 휘날려 온 붉은기! 이 영광의 붉은기를 아로새기며 우리들은 그이의 영원한 혁명전사로 굳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언제나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숫눈길 밟으시며 우리의 설맞이모임에까지 친히 오시여 새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결의를 치하하여주신 수령님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일찌기 우리들 《생산돌격운동》의 첫봉화를 들도록 하여주신 그때로부터 그이의 현명하신 현지지도의 손길을 따라 우리 공장은 강력한 철도전기화의 심장부로, 철도운수기계제작기지로 억세게 자라나 주체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어라

오늘은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객차의 거창한 행렬들이 넘치는 인민의 행복을 싣고 나라의 무진장한 재부를 나르며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고있거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공산주의전기화의 위대한 사상이여! 철도전기화의 새력사를 펼쳐주신 불멸의 업적과 높으신 은덕이여! 공산주의에로 잇닿은 조국의 동맥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주을아마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을아마공장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발기하시여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따라 배우며 천세만세 빛내여가기 위하여 1970년 10월 10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4메터, 너비 3.8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 주을아마공장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몸소 창조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철과 기계문제를 풀기 위한 새롭고 위대한 구상을 하고계시던 수령님께서는 1959년 3월 13일 이름없던 자그마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용선로를 만들고 세대의 낡은 기계로 새로운 선반기들을 만들어 공무직장을 꾸리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공무직장에 들리신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공기마치의 조절판을 친히 밟아보시고 낡은 자재를 모아 조립하고있는 만능선반기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는 여기에 기계박사, 로동자박사가 있다고 파분하게 치하를 하시며 우리들의 기름묻은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용감하고 대담한 일입니다. …이 공장은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기술신비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한 공장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 공장이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라는 당의 구호를 써붙일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모범을 따라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시고도 만을 헤아리시고 움터나는 하나의 새싹에서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신 수령님!

수령님께서 지피신 한점의 불꽃은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거세찬 불길로 타올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령역을 휩쓸면서 불과 1년동안에 계획의 1만 3천여대의 공작기계를 새끼치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이 불길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기계가 기계를, 직장이 직장을, 공장이 공장을 새끼치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빛나는 력사우에 금문자로 아로 새겨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새로워지는 현지교시의 그 위대한 사상이여!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위대한 발기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력사에 새기원을 열

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길주통신기계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예군인들을 조국을 위하여 피흘린 나라의 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시들줄 모르는 혁명의 꽃으로 피여나게 보람찬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5월 7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4.5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공화국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을뿐인 우리 영예군인들을 조국을 위해 피흘린 나라의 꽃이라고 하시고 언제나 시들줄 모르는 혁명의 꽃으로 피여나도록 보람찬 길을 열어주시였다.

1958년 5월, 몸소 이곳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고 하시며 《동무들은 지난날 전선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잘 싸운것처럼 오늘도 계속 그런 혁명정신으로 살아나가야 하며 아들딸들도 다 그런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라고 우리를 힘차게 고무하시고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시였다.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 우리들을 붉은 혁명전사로 키워주시고 영예로운 혁명대오에 세워주신 수령님!

벌써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예군인학교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 영예군인들이 혁명대오에 서도록 온갖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신 수령님!

우리의 불편한 몸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손으로라도 글을 쓸수 있어야 한다고 손수 자신의 만년필을 뽑아 의수에 끼워주신 후 글쓰는 동작을 이윽토록 지켜보시던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계속 혁명대오에 서서 떳떳이 나아갈수 있게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으셨거니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을 우리의 체질에 맞게 기계화된 현대적공장으로 꾸려주시였고 우리의 학습을 념려하시여 전임교원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자동차와 자전거도 제일 좋은것으로 보내주시였다.

우리를 평생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극진한 사회적존경과 사랑속에 살게 해주시고도 이 경치 좋은 곳에서 화선악기를 다루던 그 솜씨로 악기도 다루면서 락천적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며 넓은 무대를 갖춘 큰 구락부도 새로 지어주시고 과수원도 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을 어데다 비기랴!

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영예군인의 안해들에게 남편의 간호원이 되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달달이 보약과 간호비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들을 친히 부르시여 곁에 앉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이끌어주신대로 우리들은 붉은 꽃을 계속 피워가며 힘차게 일하고있으며 수령님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난 우리의 후대들은 오늘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국의 방선에서 멸적의 총을 잡고 굳건히 서 있다.

어찌 잊으랴, 1970년 5월,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락천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그대로 담은 예술소조공연을 하던 그날의 감격을…

이날 수령님께서는 그리도 걱정하시던 그 의수로 우리들이 자유롭게 악기도 다루고 글도 쓰며 미제 원쑤를 족치던 그 기백, 그 정신으로 살고 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아, 포연탄우를 헤쳐 수령님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돌진해가던 그 나날에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던 그이

오늘도 이처럼 항상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승리의 신심을 주시여 영광스런 혁명대오에서 희망에 넘쳐 나아갈수 있게 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여기에 아로새겨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비를 세운다.

해주—하성간철길유래비
(황남도 해주시 청풍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첫 부대》로 키워주시였으며 200리 해주—하성간철길을 단 75일간에 끝낼수 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8월 12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4.7메터, 너비 11.5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영웅들입니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단 75일간에 끝냈다는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세계청년운동에서 이런 사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영웅입니다.》(김일성원수님의 1958년 8월 12일 교시중에서)

이 나라 청춘들의 고귀한 땀이 스민 해주—하성 200리철길! 여기서 피끓는 가슴들이 영웅조선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떨쳤다. 여기서 젊은 심장들이 불타는 충성을 걸음마다 아로 새겼다.

사람들이여! 우리 청년들을 영웅으로 키우시여 이 땅우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하게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은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자!

일찌기 청년들은 나라의 꽃이며 미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수령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폭풍속에서 자래우시여 조선청년들의 억년 드놀지 않는 심장과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성을 길러주시였다.

잊을수 없어라, 5개년고지에로 비약하는 조국이 철도운수를 앞세울것을 요구할 때 나라의 철길을 느릴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 한복판을 누벼갈 철길개척에로 청년들을 부르시였거니 그이의 부름따라 청춘의 보람찬 일터로 달려간 우리 철도건설자들의 심장은 얼마나 세차게 고동쳤던가!

개척지에 우리들의 생활이 억세게 뿌리내리던 1958년 6월 19일 수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신 그날은 산천도 기쁨에 겨워 설레였더라.

200리 크고작은 공사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한일보다 해야할 일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첫 부대》라는 영예를 주시고 더 세찬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가르치시였어라.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합니다. 겁을 먹을 때에는 모든것이 신비롭게만 보이는 법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수령님께서 일터를 공산주의교양의 학교로, 약동하는 기백과 혁명적랑만이 흘어번지는 청춘의 활무대로 하라 하시고 야영식당과 천막에도 들리시여 집떠난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심정 그대로 먹는 문제며 잠자리까지 보살펴주실 때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목이 멘 우리들은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여, 바다보다 넓은 은혜로운 품이여!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피끓는 청춘이라하랴, 영웅조선청년이라 하랴

수령님의 보살피심에 고무된 우리들

은 숯구치는 물속에서 옹벽을 쌓고 조립식철다리를 무어 충성의 어깨에 조국의 동맥을 떠메여 세웠어라.

5만산, 7만산이 순식간에 날아나고 날이 새면 강줄기가 돌아서는 비약의 나날속에 적어도 3~4년을 걸려야 한다던 이 공사를 75일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어라.

정녕 잊을수 없어라 1958년 8월 12일, 수령님께서 개통식의 테프를 끊어주신 영광의 그날이여, 《청년렬차》의 첫 기적소리 하늘땅에 울리던 그날의 감격이여!

아, 그날의 영광과 감격도 새로이 오늘도 그이께서 맡겨주신 혁명의 초소에서 더 큰 위훈 떨치는 우리, 또다시 수령님께서 부르신다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며 언제나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아가리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불멸의 은공이여, 번영하는 조국의 동맥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2.8세멘트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2.8세멘트공장을 세계에 손꼽히는 대건재기지로, 우리 나라 건재공업의 본보기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9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 나라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며 여기 청룡벌에 거연히 일떠선 대건재공업기지—2.8세멘트공장

우리 공장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나라의 믿음직한 건재공업기지로 자라났거니

가렬처절한 전쟁의 불길로 하여 모든것이 타버리고 파괴되여 한장의 벽돌장도, 한줌의 세멘트도 없던 정전직후,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만년대계의 세멘트생산기지를 마련하여주시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어찌 다 헤아리랴!

일손이 천금같이 귀중하던 그때에 이 땅에 솟아오를 소성로를 위해 수많은 인민군군인들까지 보내주신 수령님

그이께서는 1959년 6월 2일, 친히 이곳을 찾으시고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소성로가 들어 앉을 자리까지 몸소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지대는 석회석매장량이 많고 질도 좋습니다. 앞으로 마동은 우리 나라 세멘트 공업의 중심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고무하여주시였다.

해를 넘겨야 한다던 소성로를 넉달만에 쌓아놓고 충성의 탑인양 은빛굴뚝이 하늘높이 솟아오르던 때에 또다시 우리들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공장의 생산규모를 더 크게 하고 로동자들이 헐하고 흥겹게 일하도록 현대적인 대자동화공장을 꾸릴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몸소 《2.8세멘트공장》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세멘트를 생산하지 못하면 공장과 농촌 건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시며 우리 마동로동계급을 건재공업의 전초병으로 키워주시고 세멘트생산의 앞장에서 늘 혁신의 봉화를 일으키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어찌 태산의 높이에 비기랴, 바다의 깊이에 비기랴!

십리도 못되는 출근길을 념려하시여 통근뻐스를 보내주시였고 우리들의 건강과 주변농민들의 농사일을 걱정하시여 먼지잡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사철 신선한 남새와 물고기, 닭알과 기름을 공급받도록 튼튼한 후방기지도 꾸려주신 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이여!

해빛보다 따사로운 수령님의 어버이 사랑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들은 불타는 충성의 열정으로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며 불과 2년동안에 세계에 손꼽히는 대건재기지를 여기에 일떠세웠다.

날을 따라 번영하는 조국땅에 시간마다 늘어나는 새 공장과 새 문화도시들, 끝없이 뻗어가는 포장도로와 거창하게 일떠서는 언제와 발전소들!

이 모든것은 여기 마동땅을 세멘트공업의 중심지로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의 고귀한 열매이거니

우리는 이 땅에 주체적인 건재공업의 새 력사를 마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고저 삼가 여기에 비를 세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흥남비료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흥남비료공장을 우리 나라의 대종합비료생산기지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이 땅우에 화학화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11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4메터, 너비 8.7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입니다.… 쌀은 인민생활을 의미하며 사회주의건설은 곧 인민생활을 높이자는것입니다.》

비료가 있어야 농업이 발전할수 있고 쌀이 많아야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공업도 힘있게 일어선다고 가르치신 수령님!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알곡증산의 가장 빠른 길을 비료로 땅을 살찌워 집약농사를 하는데서 찾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여기 흥남땅에 농촌화학화의 거점, 대종합화학비료기지를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잊을수 없어라! 1946년 4월 17일 자나깨나 그립던 수령님을 뵈옵던 그날의 감격이여!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끝내신 그길로 우리 공장을 찾으시여 우리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어 토지개혁의 승리를 공고화하고 부강한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라고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침략자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모든것이 산산이 파괴되고 발길조차 옮겨디디기 어려운 공장구내를 가슴 아픈 심정으로 돌아보시고나서 우리 로동자들과 같이 가마니를 깔고 앉으시여 밤깊도록 공장복구의 방향을 의논하시면서 지금 온 나라 농민들이 흥남을 바라보고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주일간이나 흥남지구에 머무르시면서 잠시의 쉼도 모르시고 오늘은 화학공업대학교원, 학생들을 만나보시고 다음날에는 멀리 장진강발전소에 가시여 걸린 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모든것을 흥남비료공장복구건설에로!》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신 혁명의 불씨는 태산도 가르고 바다도 메울 힘이 되였거니 우리들은 수령님 부름따라 《로동자련대》를 무어 미제를 족치던 그 기세로

몇십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던 원쑤들의 비방을 짓부시고 불과 두해동안에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웠고 뒤이어 질안, 파린산석회비료의 고지도 단숨에 점령하여 농촌에 갓 태여난 사회주의협동화의 새싹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날로 번영하는 농촌이 더많은 비료를 요구하던 1965년 2월 또다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문제도, 농촌화학화를 앞당기는 길도 우리 공장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친히 구상하시고 발기하신 주체적인 무연탄가스화공장건설에서 다시한번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도록 우리들을 힘차게 불러주시였다.

우리들에게 또다시 《화학공업에서는 여기가 1211고지》라는 높은 영예를 주신 수령님께서는 더 높은 비료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여시기 위하여 몸소 한 직장의 당세포에 적을 올리시고 분공도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굽힐줄 모르는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굳센 전통을 가진 이 공장을 대를 이어 사수하라하시며 우리들을 로동계급의 위력한 군단으로 키워주시고 《흥남에 오기만하면 더 젊어지는것 같습니다.》라고 크나큰 믿음과 영예로운 임무를 주신 수령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유해로동》이라는 말조차 없어져야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을 공기 맑은 로동궁전으로 꾸려주시고 풍치좋은 동해기슭에 휴양소까지 지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사람들이여! 황금파도 물결치는 풍요한 들판과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이 저절로 마련되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더 잘 먹이며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비료가 되고 쌀이 되여 이 땅에 차고넘치거니

대대손손 수령님께 충성다할 우리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여기에 비를 세워 대종합비료기지를 창설하시여 이 땅우에 화학화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였고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본궁화학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본궁벌에 주체적인 화학공업의 중심지를 창설하시고 공장을 대화학공업기지로 꾸리시여 화학화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며 후세에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16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7메터, 너비 3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 땅우에 화학화의 새 시대를 펼쳐가며 여기 성천강반에 거창하게 일떠선 대화학공업기지 본궁화학공장!

여기서 쏟아져내리는 하나하나의 제품들은 인민들의 살림을 생각하시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매여라

《화학화를 광범히 실시한다면 자연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화학섬유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농촌에 더 많은 비료와 농약 등을 공급해줌으로써 농업생산을 급속히 높일수 있습니다.…염화비닐과 기타 합성수지원료로써는 훌륭한 비옷이나 신발도 만들수 있고 가구, 문화용구, 장난감과 가지각색의 소비품들을 훌륭히 만들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화학화의 방향에서 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세워오신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여기 본궁벌에 주체적인 화학공업의 중심지를 창설하시고 이 땅우에 찬란한 화학화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해방후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간고분투하여 쌓아올린 화학공업의 초석이 형체도 없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1953년 10월 먼길을 찾아오신 수령님을 재가루 흩날리는 황량한 폐허우에 모시게 되였을 때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던가!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도리여 본궁의 로동계급이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설비를 용케 구해냈다고 높이 치하하시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던 우리들에게 공장복구의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미제를 족친 그 기세로 공장을 더 크게 건설하여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우리들은 수령님께서 쥐여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한달음에 천리를 내닫는 기세로 재더미를 밀어제끼고 불과 여섯달만에 첫 카바이트물을 뽑았더라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본궁화학공장앞에는 더 큰 과업이 제기됩니다. 이 공장의 전망도 큽니다. 쟁취한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물감공장과 농약공장이 무성한 갈대숲을 헤치고 거연히 일떠설 때 수령님께서는 이어 염화비닐공장도, 가성소다공장도, 살초제공장도 세우라고 손수 터전을 잡아주시며 또다시 우리들을 화학화의 높은 고지점령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동무들에게 달렸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나니 건설장과 건설장, 당위원회와 당세포를 찾으시여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며 밝히신 현지지도의 밤은 그 얼마였던가!

사회주의조국땅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갖가지 물감과 염화비닐과 농약들이 쏟아져내리던 날 수령님께서는 인제는 인민들에게 철따라 물색옷과 고운 신발, 비옷을 보내주게 되였고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게 되였다고 더없이 기뻐하시였다.

우리들을 나라의 참된 주인, 혁명의 전위부대로, 화학공업의 당당한 초병으로 키워주시고도 전로공들을 생각하시여 손수 새 작업모와 작업복을 보내주신 수령님!

그전날 나무 한그루 자라지 못하던 유해현장을 공기 맑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로동궁전으로 꾸려주신 수령님!

아!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던 우리 인민들을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화학화의 새 시대에 살게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다함없는 배려여!

우리는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뜨거운 마음을 담아 여기에 비를 세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2.8비날론공장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비날론연구소를 조직해주시였고 전후에 잡초만 무성하던 황량한 룡흥벌에 2.8비날론공장을 튼튼히 꾸리시여 목화, 누에밖에 모르던 방직공업에 스프와 함께 비날론을 보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공을 따라 배

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5월 6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1메터, 너비 7.5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 갈대만 무성하던 룡흥벌에 거연히 일떠선 세계 일등급의 대비날론공장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태여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일찌기 항일의 그날 가슴깊이 간직해오시던 어머님이 주신 돈 20원을 헐벗은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위해 내놓으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모든것이 바르고 어렵던 때에도 지난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들을 따뜻이 덥혀주시기 위하여 가시는 곳마다에 선참으로 방직공장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부족하시여 우리 인민의 입는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해오시던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세기적인 숙제로 내려오던 입는 문제를 주체적인 화학섬유공업의 발전에서 찾으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땅이 적고 또 기후조건으로하여 목화가 잘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목화만으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비날론공장건설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있던시기 수령님께서는 1952년 4월 27일 전국과학자대회를 소집하시여 자립적인 화학섬유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직접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야 했던 그날에도 비날론연구소를 꾸려주시고 친히 귀중한 실험기구와 시약을 보내주시였으며 연구사업이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에는 친히 평양에서 먼 청수까지 오시여 비날론연구집단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였다.

비날론의 연구성과를 싸우는 고지의 전과처럼 기다리시던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첫 비날론시제품이 나왔을 때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까지 여시고 손수 비날론을 쥐여보시며 하루빨리 비날론생산을 공업화할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비날론은 면에 가까와 아이들의 옷으로부터 어른들의 의복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옷을 만들수 있는 대중성있는 섬유입니다. 이것으로 아이들과 녀성들의 옷을 맵시있게 해 입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57년 3월 21일 수령님께서는 아직 비날론을 공업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있을 때에 친히 여기 성천강기슭 룡흥벌에 오시여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통일된 그날 헐벗은 남반부인민들에게도 비날론옷을 입힐수 있게 공장을 크게 건설하자고 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온 나라의 일이 수령님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던 그 바쁘신 나날에도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비날론공장건설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온 나라를 비날론공장건설에로 불러일으켜주시였고 세인을 놀래우는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여주시였으며 수백수천으로 걸렸던 매듭을 손수 풀어주시였다.

아, 비날론공장의 넓고넓은 구내와 높고낮은 건물이며 천리로 뻗어간 배관과 수천수만의 크고작은 설비들, 그 어디에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기에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일떠선 대비날론공장의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그날, 1961년 5월 6일 반만년의 력사가 흘러간 이 땅우에 처음으로 조선의 솜—비날론폭포가 쏟아져내릴때 인민들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메여 김일성원수님만세를 불렀더라

사시장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쏟아져내리는 비날론, 그 한송이한송이에는 가난했던 우리 조국의 비운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시려는 수령님의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은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나니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이 땅우에 비날론의 새력사를 창조하여주시고 인민을 위해 지극한 사랑을 바치신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함흥모방직공장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호련천기슭에 함흥모방직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공장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생활에 온갖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으신 덕성을 따라 배우며 천세만세 빛내여가기 위하여 1972년 4월 11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2.9메터, 너비 7.2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여기 호련천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궁전 모방직공장!

펄펄이 흘러내리는 모직천의 오리오리마다에는 항상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깃들어있거니

오늘은 어제보다, 래일은 오늘보다 우리들의 살림을 더 유족하게 하시려는 수령님!

철따라 비단옷을 입혀주시고도 마음에 차지 않으시여 더좋은 모직옷을 입히시려고 심려하시는 수령님!

잊을수 없어라 1961년 10월,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친히 찾아오시여 모방직공장을 최신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대공장으로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손수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공장건설의 정형을 알아보시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시였으며 기초공사에서부터 직기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하루빨리 인민들을 더 좋은 천으로 따뜻이 입히시려는 수령님께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에 벌써 장차 이 공장에서 천을 잘 기능공들을 앞당겨 키워주시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공장을 찾아 오시여 시험생산정형도 료해하시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그 가지수를 늘일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모방직공장을 잘 돌리면 좋은 외투천을 많이 짤수 있습니다. 고운 외투천을 짜서 먼저 온나라의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외투를 입혀야 하겠습니다.…동무들이 이것을 잘 짜면 우리 사람들을 아주 잘 입힐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모직의 첫 제품이 나왔을 때 매우 기뻐하시면서 아직 일솜씨가 서툰 우리들에게 그만하면 괜찮다고 분에 넘치게 치하를 해주시였으며 외투천과 모포를 일일이 보아주시고 친필로 직물의 색갈과 조직에 대한 의견을 써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우리들이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과 무늬를 내여 갖가지 천을 내라고 손수 수십종의 견본까지 보내주시였다.

언제나 우리들을 아끼시고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주시며 빛나는 공산주의길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

이곳에 오실 때마다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우리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도록 가장 현대적인 로동안전시설들과 유치원, 탁아소, 병원 등 모든 편의위생시설들을

문화적으로 꾸려주신 수령님!

우리들의 출퇴근길을 념려하시여 여러대의 통근뻐스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아, 높고깊은 그 사랑, 그 은덕을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어버이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열념으로 필필이 모직천을 짜내는 우리들의 이 영예, 이 기쁨 끝이 없어라

사람들이여! 엄동설한 눈보라속에서도 추위를 모르고 철따라 산듯한 새 모직옷을 입을 때 잊지 말자,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그 사랑으로하여 그토록 따뜻하고 포근함을!…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여기 모방직공장에 깃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깊은 은덕은 영원히 빛나리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예군인들에게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게 이끌어주고계시며 그들에게 온갖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11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7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있어 만물이 자라나고 온갖 꽃이 피여나듯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계시여 우리 영예군인들은 오늘도 계속 혁명의 붉은 꽃을 피우며 빛나는 미래를 안고 산다.

잊을수 없어라, 1967년 6월 13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친히 찾아주시였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을 헤치시고 불타는 고지의 전호속에 몸소 오시여 우리들에게 필승불패의 신념을 안겨주시던 그날처럼…

원수님께서 영예군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대견하게 보시며 건강은 어떤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며 우리들이 만든 비닐제품이 질이 좋다고 거듭 칭찬하실 때 아,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 올랐던가!

《공장이 아주 알뜰하오. 마음에 들게 잘 꾸려놓았소.

영예군인들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것은 큰 공훈이요…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피흘려 싸웠고 지금도 잘 싸우고있소.》

지난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 우리들을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키워주시고 조국을 지키는 영예를 주시였으며 성스러운 싸움터에서 부상을 입은 우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언제나 시들줄 모르는 혁명의 붉은 꽃으로 계속 피도록 이끌어주신 수령님!

우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는 영예군인의 안해들이 남편을 돌보느라 수고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앞에 세우고 한장 더 찍자고하신 어버이 수령님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수령님같이 자애로우신 분이 또 계시랴

공장을 떠나시는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배웅해 드리지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방금 사진을 찍고난 그 자리에 앉아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한 영예군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되돌아오신 수령님!

그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오래오래 놓으실줄 모르시던 원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여!

이처럼 크나큰 사랑을 기울여 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당조직에서 영예군인들을 잘돌봐 주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하실때 아, 우리들은 어버이원수님의 위대한 그 사랑에 목이 메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김일성원수님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정녕,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마다 어버이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이 잇닿아 있거니

원수님께서는 구락부가 먼데 있어 우리 영예군인들이 불편하겠다고 하시며 공장구내에 훌륭한 구락부를 새로 지어 주시였고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시여 아담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세워 주시였다.

아,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덕에 이 한몸 바쳐 충성을 다 한들 끝이 있으랴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의 정다운 동무가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비닐놀이감을 볼때마다, 협동벌의 풍년싹을 포근히 감싸주는 하얀 비닐박막을 볼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혁명에 이바지하는 높은 긍지로 한없이 부풀어 오른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원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은 원수님의 영원한 친위대, 결사대로 이 영예로운 초소에 굳건히 서서 혁명의 붉은 꽃을 피우고 또 피우리라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우리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으신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립석전망대헌시비

(평남도 문덕군 립석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자주 립석전망대에 오르시여 협동전야를 부감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로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크나큰 은공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10일에 헌시비를 세웠다. 높이 2.5메터, 너비 4메터되는 헌시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원수님이 언덕에 오르시여
열두삼천리 가없는 벌을 한품에 안으시고
황금파도 설레이는 행복의 대지를 펼쳐주셨네
꽃피는 락원, 사회주의농촌을 꾸려주셨네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 그이
협동농민의 자랑과 영예를 안겨주신 그이
거북등같이 터지던 메마른 벌판에
억년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주신 그이

오늘은 위대한 테제의 빛발로 온 땅을 비쳐주시여
기계와 약으로 농사를 지으며
아름다운 문화농촌 꽃피워 가네
공산주의 새봄을 앞당겨 가네

아, 열두삼천리벌 아무리 넓다해도
그 은혜, 그 사랑을 어찌 다 담을수 있으랴
우리 여기에 비를 세워 영원토록 대를 이어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 전해 가리라

룡연종합농장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연종합농장을 창설해주시였고 농장을 공산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덕성을 따라 배우며 천세만세 빛내여가기 위하여1972년 4월 20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따라 온 농장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선참으로 휘황한 공산주의농촌의 넓은 마당으로 들어가고있는 통연땅!

여기 통연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공산주의농촌건설에 대한 독창적사상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활짝 꽃핀 은혜로운 땅이다.

만경대의 가난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부터 땅없는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가슴아파하시였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

사회주의농업협동화의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께서는 군을 단위로하는 전민소유화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1959년 6월 가장 뒤떨어졌던 우리 통연군을 공산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로 만드시기 위하여 군종합농장을 무어주시였다.

농장이 창설된지 1년, 수령님의 높은 뜻 충성으로 받들고 마음은 그 한길로 줄달음쳤건만 모든 것에 서툴고 어렵던 1960년 9월 19일, 수령님께서는 친히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의 끝에서 끝까지 150리 먼길을 몸소 밟으시며 농장살림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며 우리 농장이 나갈길과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여 기계로 농사짓고 남는 로력으로 축산과 과수, 수산을 하라고 하시였으며 우리들의 서툰 일솜씨를 보시고는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말고 대담하라고 격려하여주시였다.

《이렇게 큰 농장을 운영할려면 곤난도 있을수 있고 실패할때도 틀론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실패할가봐 겁내지 말고 대담하게 해서 이곳을 모범농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당이 제기한 혁명과업을 동요없이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이곳 통연군을 모범농장으로 만드시오.》

아, 우리의 가슴가슴 얼마나 크나큰 신심과 충성으로 불탔던가!

온 나라의 수만가지일을 보살피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철이 바뀔때마다 농장의 형편을 알아보시고 온 나라가 잠든 깊은 밤에도 잠못이루시고 전화로 왕가물을 이길 방도를 가르쳐주신 수령님

갓태여난 우리 농장이 어서 자라라고 새 기계와 종자, 비료와 농약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보내주신 수령님

그러시고도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장을 더 높이 추켜세워주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우리들을 부르시여 농장사업을 친히 보아주시며 전민소유화의 은을 내기 위한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거니

수령님의 크나큰 그 은덕을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물이 금처럼 귀하다고 그이름 금수벌이라 부르던 저 벌에 오늘은 은혜로운 생명수 넘쳐흐르고 멍든 어깨에 가대기를 끄을던 만가장벌에 오늘은 기계화의 대군단이 기운차게 달리는데 여기 불태산기슭에 줄지어 늘어선 문화주택마다에선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칠줄 몰라라

지난날 사람못살 고장이라 이땅을 원망하며 품팔이 떠나던 우리 농민들이 사나운파도에 밀리우고 쫓기우며 조개를 캐여 살아가던 우리 녀인들이 오늘은 공산주의 붉은 대가정속에서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농업로동자로 되였거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크나큰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천대를 두고 만대를 이어가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성다할 우리들의 불타는 마음담아 여기에 비를 세운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함북도 웅기군 서수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왁새풀만 무성하던 웅기땅에 독창적인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종합농장을 창설하시였고 농장을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24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3.8메터, 너비 3.4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3월 16일 웅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웅기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마음을 안고 간고한 혁명투쟁을 해온 고귀한 발자취가 깃든 곳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유서깊은 고장에 그이의 독창적인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웅기군종합농장을 건설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축산을 위주로 하면서 수산업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유리한 자연경제적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친히 군내 여러곳을 찾으시여 현지에서 직접 지도를 주심으로써 웅기군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의 북쪽 한끝인 이곳 서수라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였다.

아직 눈석임물이 흐르고있던 이른 봄, 길은 매우 어지럽고 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우리가 농촌에 나와서 좋은 길로만 다니겠습니까?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빠지면 걸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가보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곳 바다기슭의 이름없는 도래굽이에까지 찾아오시여 인민들이 나아갈 공산주의미래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그이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으로 지난날에는 왁새풀만이 설레이던 진펄이였고 하루 세끼 피죽으로도 끼니를 에우기 힘들던 이 고장은 해마다 만고대풍이 들어 오곡이 물결치고 양과 젖소가 떼를지어 흐르며 사철 풍어의 노래소리 울려퍼지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이 땅우에 인민의 새력사를 마련하여주시였고 행복과 영광에 찬 새 생활을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위대하심과 그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어지돈관개유래비

(황북도 봉산군 청계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세월 수재와 한재로 시달리던 서남부일대에 어지돈관개자리를 잡아주시였고 관개관리소를 황남북일대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대관개기지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빛나는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따라 배우며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15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6메터, 너비 14.5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4년 2월 25일 이곳 어지돈관개공사예정지를 돌아보시면서 《…어지돈관개공사는 경제적으로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의의가 큽니다.

봉산, 은파, 황주, 사리원 지대의 농민들은 대대손손 한재와 수재로 말미암아 혹심한 피해를 받아왔으며 특히 답면저수지대에서 수백년간 수천여호의 농민들이 비위생적인 수중생활을 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배를 타고서야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수중생활에서 해방되여 논밭에서 안전하고 높은 수확을 내며 문화위생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합니다.…이 자연개조사업은 후손만대에 넘겨줄 영예로운 과업이며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길가는 손님에게 밥 한그릇은 대접해도 물 한그릇은 대접 못한다던 황주긴동벌농민들과 벼농사 짓자고 가을과 봄에는 《백성보》를 막아 논판에 물을 잡아두고 다음에는 그 물때문에 이웃집에도 함지배를 타고서야 다니던 봉산 나무리벌농민들, 가물어도 물걱정, 물이 있어도 물걱정을 하던 우리 농민들의 쓰라린 고통은 여기 서흥호가 생기면서부터 먼 옛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물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고 1949년에 벌써 어지돈관개공사예정지를 조사측량하도록 하시였으며 1954년 2월 25일에는 이곳에 오시여 험하고 가파로운 산길을 오르내리시면서 구체적인 공사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고 손수 서흥호의 동뚝을 앉힐 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뒤이어 공사가 한창 벌어졌던 1957년 12월 21일에 오셔서는 《여기에 언제를 건설하면 황해북도에 〈바다〉가 생길것입니다.

이곳에서 근로자들이 배놀이도 하고 휴식을 할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휴양소를 건설하고 호수에는 양어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도 건설하여 근방 양수장들에 전기를 보내주고 또 흘러가는 물로는 사리원시에 운하도 건설하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은 어지돈관개공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예정한것보다 한해 앞당겨 1961년 7월에 끝마치였다.

천지개벽하여 이 산골에 새로 생겨난 《바다》, 수령님께서 그 이름 《서흥호》라 지어주신 이 호수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겪어야만 하던 물고통에서 농민들을 해방하며 그들에게 행복과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오늘 서흥호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17개의 긴굴을 지나 줄줄이 뻗은 3천 5백리의 물길을 따라 4만정보의 넓은 벌에 생명수로 흘러들며 또 그 물은 발전기를 돌리여 수백여개의 양수장에 전기를 보낸다.

아! 자연의 무제한한 힘을 쥐여잡고 풍년을 마음대로 마련하는 《관개의 나라》—이 땅에 사는 인민들은 여기에 비를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노라!

미루벌개간유래비

(황북도신계군 평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목축일 물마저 없어 내버리던 백리 미루벌을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천년이고 만년이고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2년 4월 15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2.4메터, 너비 3.9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땅은 가없이 넓어도 목축일 물마저 없어 먼 조상때부터 사람 못살 고장으로 밀어버렸다고하여 그 이름 미루둥!

그 원한의 땅에 오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구상이 꽃피여 사회주의지상락원이 펼쳐졌거니,

사람들이여! 천지개벽한 미루둥 백리벌에 깃든 수령님의 위대한 뜻과 크나큰 사랑을 영원히 잊지 말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7년 6월 몸소 이고장에 찾아오시여 여기는 평양과 서울의 중심이니 모든 점으로 보아 아주 중요한 지대이며 조선의 처녀지로서 매우 흥미있는 곳이라 하시며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미루벌의 휘황한 앞날을 밝혀주시였다.

《신계지구는 관개건설을 잘 할뿐만아니라 주민부락들에까지 전기를 주고 토지정리도 잘하고 도로망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과수원도 조성하여 아주 리상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신계지구는 우리 시대의 개척지로서 공산주의락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고장 농민들을 대대로 겪어오던 자연피해의 쓰라린 고통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려면 황금으로 제방을 쌓더라도 례성강물을 끌어올려 하루빨리 물을 주자고 하시면서 몸소 잡초 우거진 험한 길을 헤치시고 저 재우재마루에 오르시여 친히 저수지자리와 물길을 잡아주신 수령님!

우리 농민들과 밭두렁에 마주 앉으시여 미루벌을 기름진 땅으로 개간할 방도를 가르쳐주시였고 수많은 농업기술자들과 기계화의 대집단을 보내주신 수령님!

점심참에 풋강냉이를 삶아 드렸을때 《땀흘려 일한 동무들이 먼저 햇곡식을 자셔야지》라고 하시며 우리들의 손에 먼저 들려주신 수령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리벌 한끝까지 몸소 발걸음을 옮기시며 세상에 부럼없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킬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실때 끓어오르는 환호성에 미루벌이여, 너도 세기의 잠에서 깨여났더라

아, 언제나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여 인민들에게 리롭다면 바다도 밀어내시고 인민들에게 해롭다면 산도 떠옮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어찌 하늘과 바다에 비기랴!

그 사랑 그 은덕에 무한히 고무된 미루벌사람들은 수령님께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안고 잡초와 나무뿌리를 파헤치여 황무지를 개간하였고 큰물과 눈사태를 밀어제끼여 123만산을 떠옮기여 산악같은 신곡저수지언제를 쌓아올려 천리물길을 열었거니 례성강 푸른 물이 4단양수관을 타고 올라 신계, 곡산, 수안 일대의 무연한 등판을 적시며 생명수로 굽이쳐 흐른다.

기계와 화학으로 농사짓는 논벌에는 해마다 오곡이 파도치고 산은 산마다 백과주렁지며 산기슭마다 집짐승들이 떼지여 흐른다.

전기불 밝고 수도물이 콸콸 쏟아지는 아담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어섰고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와 병원을 갖춘 마을마다 사회주의문화가 활짝 꽃피여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한다.

아, 해빛보다 따사로운 수령님의 품속에서 다시 태여난 미루벌 공산주의락원이여!

우리들은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담아 삼가 여기에 비를 세워 천년이고 만년이고 해와 달과 더불어 영원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기양관개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양관개자리를 잡아주시고 관개관리소를 평남, 어지돈, 압록강 관개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급수기지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천년만년 빛내여 가기 위하여 1972년 4월 30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유래비의 비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동강물이 이백자높이에 치달아 올라 백리호수를 이루고 4천리물길을 따라 서해의 넓은 벌을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는 여기 기양관개!

일찌기 평남관개를 마련하여주신 수령님께서는 1957년 10월 대동강과 청천강을 합쳐 대륙환식관개체계를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이곳을 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잡초우거졌던 이 언덕에 오르시여

《자리가 좋습니다.…과거 이 지방농민들은 3년농사를 지어서 한해도 못먹었습니다. 하루속히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줍시다.》라고 하시면서 설계도의 한점 한금을 짚으시며 양수장의 터전과 수천갈래의 물길까지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거듭 이곳을 찾으시여 공사의 선후차를 가려주시고 수많은 대형기계와 설비들을 보내주시고도 마음 놓이시지 않아 모두가 홍겹게 일하라고 악기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새긴 우리들은 세상에 류례없는 대규모의 태성저수지의 흙언제를 쌓았고 십리굴도 단숨에 뚫었으며 아직 해보지 못한 대형설비들을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만들어 5년이 걸려야 한다던 이 공사를 불과 1년 8개월동안에 끝냈다.

1959년 4월 30일 력사적인 통수식의 날

어버이 수령님께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해놓았습니다.》라고 치하하시며 붉은 테프를 끊어주셨을 때 억년 버림받던 대동강물이 초당 23톤의 속도로 1단, 2단양수장을 거쳐 수십메터 높이에 올라 태성저수지와 크고 작은 여러개의 저수지들을 채우고 수천수백여개소의 구조물들을 따라 생명수로 흘러갈때 우리는 물속에 뛰여들어 평생소원을 풀어주신 그이를 우러러 《김일성원수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 몸소 여기 동뚝길을 걸으시며 한방울의 물도 허실할세라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다.

아! 그 어느날에는 농사에 해로운 짠물이 섞일세라 태성저수지 물까지 두손으로 움켜마셔보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젖줄기는 5만여정보의 논과 밭에 흘러넘쳐 해마다 두벌 농사로, 쌀풍년 과일풍년을 자랑하고 강선과 기양에 공업용수를 주어 쇳물폭포 쏟아지고 농촌기계화의 대군단이 줄뻗는데 고기떼 욱실거리는 태성의 호수가에는 휴양객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퍼지거니

오! 기양관개여!

너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덕,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천년만년 노래하며 길이길이 전하리라!

황강포배수갑문유래비
(개성시 개풍군 의포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해방지구의 농민들을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아주시였고 황강포배수갑문을 세워주시여 《죽동네》로 소문났던 풍덕벌, 영개벌, 태성벌내 농민들에게 사회주의협동농민, 쌀동네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8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9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 황강포에 철벽의 판문인양 밀물을 막아 풍덕벌의 옥답을 믿음직하게 지켜서있는 배수갑문

사람들이여! 여기에 깃든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배려와 크나큰 은덕을 영원토록 잊지말자

1957년 8월 25일, 분계선 가까운 우리 통산마을에 친히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마당에 편 멍석자리에 우리와 같이 허물없이 앉으시여 지난날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와 압박에 짓눌리여 살던 신해방지구농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이제는 지주도 없고 빼앗아 갈 사람도 없으니 힘껏 농사를 지어서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힘을 안겨주시고 조합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가을이면 서해의 짠물이 황강포로 밀려들어 지어놓은 한해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배수갑문을 빨리 건설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실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건설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주시고 배수갑문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은 배수갑문건설에 한사람같이 달라붙어 사정없이 밀려드는 밀물을 몸으로 막고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2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이 공사를 불과 여덟달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하여 지난날 이 고장 인민들에게 그처럼 많은 고통을 주던 금성천은 오늘 만풍년을 노래하며 풍덕벌을 적시고 어병산줄기를 타고넘어 영개벌과 태성벌에도 차고넘치는 생명수로 되였다.

그 옛날 《죽동네》들이 《쌀동네》로 변하고 풍성한 새살림 나날이 늘어만 가는 이 고장의 천지개벽

오랜세월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천대받던 이 고장농민들이 오늘은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노래한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신음하던 이 고장 농민들을 해방시켜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겨주신 수령님

우리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시고 사회주의협동화의 대로를 열어주시였으며 억년 그 어떤 재해도 모르는 대풍을 마련해주신 수령님…

아,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 사는 기쁨은 하늘에 닿고 행복의 노래는 강산에 차고 넘치나니

우리들은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할 마음을 담아 여기 황강포배수갑문에 깃든 영명하신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비에 새겨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황남도 연안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남반부 인민들을 잊지 않으시고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고 계시며 연안군 인민들을 사회주의제도의 품에 안아주신 이후에도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주신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높은 은덕을 따라 배우며 그것을 천세만세 빛내여가기 위하여 1972년 4월 11일에 사적비를 세웠다.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대하처럼 흘러드는 연안땅!

사람도, 산천도 여기 발이랑을 적시

며 흘러가는 한줄기의 물파 저기 아득히 펼쳐진 들판의 한포기 벼이삭도 고개숙여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노래하고있는 이 땅,

사람들이여! 잊지 말라

미제 원쑤들에 의하여 조국이 량단되고 남북친지들의 소식조차 모르던 그 엄혹한 시기, 가난과 압박과 무권리속에서 울고있던 우리들을 생각하시여 수령님께서 잠못이루신 그 밤과 밤을…

1947년 봄 모진 세월과 가물로 사람들의 가슴도 땅도 마르고 터져 피눈물을 흘리던때 미제 원쑤들의 방해책동파 38선의 두터운 장벽을 헤치고 우리들의 가슴파 들판에 넘쳐 흘러들던 은혜로운 생명수, 수령님의 그 크나큰 사랑의 손길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 땅을 해방하시여 우리들을 한품에 안아주셨고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키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이 고장 사람들이 일제와 미제의 가혹한 탄압파 착취밑에서 얼마나 고생하였는가고 하시며 우리들의 살림을 하루빨리 추켜세우시기 위하여 고심하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더라

《이곳 인민들은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잘 살아야 합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름없는 한 농촌작업반 분세포회의에 참가하시여 당원들파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계급투쟁파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당원들이 설 자리를 가르쳐주신 수령님

아, 수령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나니

미제 원쑤놈들파의 판가리싸움에서 조선로동당원으로서, 공화국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고 희생된 사람들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동무의 아버지노릇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고 하시며 손수 혁명의 핵심으로 키워주신 수령님

미제 원쑤놈들에게 억울하게 끌려간 가족들의 기막힌 사연을 헤아리시고는 또 밤 지새는 줄을 모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여!

모든 불행의 화근은 미국놈들때문이라 하시며 미제 원쑤놈들파 싸우는 마음으로 《동무들은 일을 더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여 로력영웅도 되여야 하며 당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교양하여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신 수령님

위대한 사랑이 대하처럼 흘러넘치는 이 땅,

아, 사람도 산천도 키돋움하여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며 노래하는 연안땅이여!

남북의 차이를 하늘파 땅처럼 만들어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라고 하신 수령님의 높은 뜻 이 땅우에 활짝 꽃피였거니,

어제날의 머슴군인 우리들이, 미제 원쑤놈들에게 부모를 잃은 아들딸들이, 어제날 남으로 끌려간 남편 생각으로 눈물짓던 녀인들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수령님께 목숨바쳐 충성 다할것을 다짐하며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높으신 은덕과 위대한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광포오리공장 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갈대숲이 우거지고 물새만 날아들던 호수가에 광포오리공장을 꾸려주시였고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먹는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뜨거운 사랑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31일에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3메터 너비 6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파 같다.

《우리 조상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못 먹던 력사를 깨뜨리고 고기먹는 력사를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영원토록 길이길이 잊지 않으리라!

여기 광포오리공장은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늘 념려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기문제해결의 빠른 길을 가금업발전에서 찾으시고 그 위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실현하신 곳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 아직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있을때 수령님께서는 전선파 후방의 수백수천가지 일들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시각에도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설계하고계시였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고기문제를 풀기 위하여 여기 광포에 큰 규모의 오리공장건설을 계획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난지 닷새만에 많은 제대군인들파 기술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였고 우리 나라 오리의 원종으로 될 오리알까지 비행기에 실어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친히 《광포종》이라 지어주시였다.

1956년 5월 16일 수령님께서는 목장에 찾아오시여 진창길과 우거진 갈대숲을 몸소 헤치시여 현장을 돌아보시고 공장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로동자들의 로동조건파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후에도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오시여 공장의 관리운영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먹이단위, 살찌우는 날수 등을 파학적으로 정하여 주시였고 공장의 전망계획까지 손수 짜 주시였다.

공장의 터전을 닦을 때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움튼 새싹인 가금업이 어서 자라라고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고 오리고기가 쏟아져나올때에는 그것을 조선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할데 대하여 세심히 배려하시는 수령님,

가금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언제나 일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수령님

아, 아! 인민들에게 더많은 고기를 먹이기 위하여 이토록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뜨겁고도 뜨거운 사랑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생겨났고 그이의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발전하여온 광포오리공장은 오늘 그 규모와 생산량, 기술장비로 보아 세계에서 으뜸가는 오리공장으로 되였다.

지난날에는 갈대숲이 우거지고 물새만 날아들던 호수, 지금은 수십만마리의오리떼들이 구름처럼 흐르는 광포호수, 둘레가 70리나 되는 호수가, 그 어느기슭, 그 어느 한 풀포기, 그 어디에 우리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파 발길이 미치지 않은곳이 있으랴!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밤낮을 잊으시고 깊이 념려하시며 고기 못먹던 력사를 깨뜨리고 우리 세대에 고기 먹는 새력사를 마련하여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파 높고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함남도 북청군 북청읍)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북청군을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파일생산기지로, 조밀한 파일가공기지로, 파일기술자양성기지로

민용직하게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북청회의》의 고향인 룡전리가 바라보이는 북청읍에 그이의 동상을 1970년 10월 15일에 정중히 모시였다.

수령님의 동상은 조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과일동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면서 북청일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숭엄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돌우의 동상의 높이는 6.3메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7년 3월에 북청땅을 찾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저런 경사지에 과수원을 조성한다면 10만정보는 할수 있을것입니다. 경사지과수원조성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두해가 지난 1959년 10월에 수령님께서는 다시 룡전리 문화협동농장을 찾으시고 북청군이 과수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하시면서 계단식과수원의 본보기를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하나를 통하여 백을 내다보시고 한점을 뚫고 천만가지 매듭을 풀어나가시는 수령님께서는 1961년 4월 7일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북청군의 경험을 일반화하신 다음 7개년계획기간에 전군중적운동으로 과수면적을 30만정보로 늘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그 실현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북청군을 자주 찾으시고 여러가지 과수를 심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게 과수나무의 모양을 바로 잡으며 가지자르기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지극한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50여년의 년륜을 새기고 늙어 산비탈에 버림받던 사과나무도 소생하여 과실이 그전보다 더 많이 달리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과수원들이 40년에 청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는 몇알의 사과를 구할길 없어 제상에 물감을 들인 감자를 놓아야 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봄이면 사과꽃구름, 가을이면 주홍빛 사과들이 주렁지는 과수동산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떨어진 사과를 한알도 버리지 말고 아이들에게 파자며 잼으로 가공해 주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북청군 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농장원들은 인민들을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여 군에는 과실종합가공기지를, 군내 농장들에는 간단한 건파설비와 잼가공설비를 갖추고 50여종의 과일가공제품들을 생산하여 군내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다른 지방에 보내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함남도 북청군 룡전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경사지과수원이 많은 조건에서 경사지과수원비배관리의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세에 길이전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7일 사적비를 세웠다. 높이 2.8메터, 너비 6.6메터되는 사적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4월 7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몸소 조직지도하신 유서 깊은 곳이다.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회의에서 20만정보의 새땅을 얻어내여 나라의 방방곡곡을 과일동산으로 만들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지난날 선조들은 우리 나라에 산이 많은것을 한탄하였다. 기나긴 세월을 두고 버림받아 온 산, 갸륵한 정성을 지닌 우리 할아버지들도 어떻게 할바를 몰라하던 산, 그것은 오직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자신께 차례진 사과를 아동단원들에게 주시여 조선을 알게 하고 기쁨을 주신 수령님, 오늘의 우리 행복뿐만아니라 멀고먼 후날의 자손들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앞에 머리를 숙이였더라 놀 나라의 산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구상해오시던 수령님께서는 1957년 3월, 이곳에 오시여 우리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꾸리는데서 북청군을 본보기로 정하시고 그후 여러차례 이곳에 오시여 손수 그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3년 8월 4일 룡전리를 돌아보시며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이 이상 더좋은 지상락원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논판이고 뒤에는 과일동산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여기서 창조하신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10만정보의 산경사지과수원조성운동을 벌리시였고 그에 토대하여 력사적인 북청회의를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높고낮은 산들과 언덕들은 봄에는 꽃보라를 뿌려 수령님의 은덕을 노래하고 가을에는 붉게 익은 과일들로 온 강산을 뒤덮어 그이의 어버이사랑을 이야기한다.

날이 갈수록 《북청회의》의 위대한 사상은 더욱 꽃피여 과수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갖가지 과일들이 풍기는 향기는 날을 따라 더 그윽하게 온 강산에 차고 넘친다.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오직 인민을 위하시고 후대를 위하시여 기적을 마련하시고 우리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금수강산으로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높은 덕성을 대대손손 길이 전하노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들
(황남도 과일군 북창, 송곡, 염전 분장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일군에 송화과수농장을 창설하여주시였으며 그후 농장을 세계 1등급의 과일생산기지로, 으뜸가는 과실가공기지로, 과수관리의 본보기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북창(1970년 11월 2일), 송곡(1970년 11월 2일), 염전(1970년 11월 2일) 분장들에 사적비들을 세웠다.

북창(2.2메터, 3.7메터), 송곡(2.1메터, 3.5메터), 염전(3.2메터, 2.5메터) 분장들의 사적비들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과일군 북창분장

여기 과일군 과수농장의 북창분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차례에 걸친 현지지도를 받은 영광의 땅이다.

1965년 1월 23일 숫눈길을 밟으시며 여기 북창분장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무연히 펼쳐진 과원을 바라보시며 《과수원이 굉장합니다. 사과나무들이 청소년시절이구만…》하고 대견해 하시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큰 재부를 마련해 놓았다고 우리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과원을 걸으시며 가지에 소복이 앉은 흰눈을 손수 터시고 과일나무의 꽃눈을 만져도 보시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친히 재여도 보시면서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나무 사이를 넓게 잡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주체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67년 5월 15일 두번째로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먹이풀을 심어 돼지를 기르고 거름을 많이 내여 과일나무들이 잘자라게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종업원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주택구역을 아름답게 꾸리여 문화적으로 생활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시고 예비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자래워 과원의 빈자리를 제때에 메꾸며 습해를 방지하여 억년청춘과원으로 꽃피게 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는 한이 없나니 우리는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이 과원을 후손만대에 넘겨줄 대기념물로 억년 청춘과원으로 가꾸어 나가리라!

과일군 송곡분장

여기 과일군 과수농장의 송곡분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를 받은 영광의 땅이다.

1965년 1월 23일 찬바람을 헤치시고 이곳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변모된 송곡을 돌아보시면서 이곳 과일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과일농장이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높은 긍지를 안겨주시고 귀중한 과일나무들을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풍림을 조성하라고 교시하시였다.

《바다가인데 태풍이 불지 않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을 생각해서 방풍림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과꽃이 한창이던 1967년 5월 15일에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여기 솔비둥언덕에 오르시여 우리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시면서 앞으로 이 과수원에 오면 공산주의무릉도원에 온 기분이 나도록 보다 더 훌륭히 꾸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여기 송곡분장을 돌아보시고 문화주택도 알뜰히 꾸리고 과원에 물도랑도 째고 과일나무들을 잘 가꾸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고 교시하시면서 과일가공공장과 저장고 부두를 빨리 건설하여 사철 맛있는 과일들을 공급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작업반책임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들의 결의를 치하하여 주시면서 《10년후이면 과실을 얼마나 땁니까? 10만톤이면 대단한 밑천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여 과일군이 점령하여야 할 10만톤의 과일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배려와 높은 신임에 보답하리라.

과일군 염전분장

바다물이 스며들어 쑥새풀마저 짠물에 시들고 소금 걷는 사람들의 원한의 노래소리 구슬프던 여기 염전땅이 오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백과주렁진 황금동산으로 변모되고 사람들은 여기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다.

이곳을 아름답게 잘 꾸리여 조국이 통일된 후 남북인민들의 문화유원지로 되게 하라고 가르치신 수령님께서는 1965년 1월 23일 몸소 머나먼 서해기슭에 찾아오시여 우리의 과원을 돌아보시며 보다 규모있게 잘 꾸리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정성들여 가꾸어 해마다 만풍년이 들게 하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공급하라고 하시고 길도 잘 닦고 부두도 건설하여 수송도 자동차와 기계배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사과꽃이 한창이던 1967년 5월 15일 수령님께서는 두번째로 여기에 찾아오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과수원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치하해주시고 이 성과는 《작업반책임제》를 실시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우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확실히 작업반을 40정보단위로 하고 책임제를 실시하는것이 우월합니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의 살림살이까지 념려하시여 문화주택들을 보다 아름답게 짓고 문화적으로 생활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한들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에 비길수 있으랴!

그이께서 계심으로하여 염전분장은 이렇듯 규모가 째이고 아름다운 과원으로 전변되여 사람마다 행복을 노래하고있나니

우리는 일편단심 충성 다하여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 남북조선인민들이 다같이 행복을 누리고 즐길수 있도록 이 염전분장을 아름답고 문화적인 대 과수원으로 영원히 꽃피워 가리라!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원수님

(평양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제일 좋은 장대재언덕우에 궁전의 자리를 잡아주시였고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종합적과외교양기지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13일 궁전을 배경으로 하여 그이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동상은 아이들을 우리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돌우의 동상의 높이는 3.6메터이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그날 하모니카를 불고싶어하는 마안산 어린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치렬한 전투의 나날에도 새로지은 옷과 학용품속에 하모니카를 보내주시던 친어버이심정으로 해방후에 벌써 장대재언덕우에 궁전의 터전을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

온 강산이 화염에 잠겨있던 전화의 나날에 몸소 장대재언덕우에 오르시여 미제가 파괴하고 불태운 이 자리에 몇십배로 더 큰 궁전을 짓자고 고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궁전건설을 발기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꽃봉오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잘 지어줍시다.》라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설계도면을 보아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건설일군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궁전의 모형을 한층두층 쌓아보시면서 궁전설계를 완성해주시였고 건설장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어떠한 자재이건 아끼지 말고 쓰도록 가르치시면서 궁전건설을 돌보아주시였다.

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속에서 솟아난 사랑의 품—평양학생소년궁전은 200여개의 연구실과 활동실들, 극장과 체육관, 도서관과 대중활동실들을 갖추고 1963년 9월 30일에 창립되였다.

아동궁전의 매층과 계단마다 장식된 옥돌과 대리석, 500여개의 방마다 갖추어진 현대적설비와 실험기구들, 여러가지 악기와 체육기재—여기에는 배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넘쳐있으며 후대교육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주신 수령님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의 설맞이모임으로부터 시작하여 한해에도 몇차례씩 궁전에 찾아오시여 학생소년들의 실험과 실습, 체육과 예술활동도 친히 보아주시며 가장 큰 기쁨과 포부를 안겨주신다.

그이께서는 차를 타고 지나시다가도 많은 학생들이 궁전으로 들어가는것을 보시고는 못내 기뻐하시였고 당중앙의 창가에서 궁전의 불빛만 보아도 하루의 피곤이 풀리고 새힘이 솟는다고 말씀하신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궁전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규교육은 물론 과외교양도 국가가 책임지는 배움의 새세상을 펼쳐준 배움의 전당으로, 행복의 요람으로 되였다.

오늘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종합적과외교양의 기지로서뿐만아니라 전국에 과외교양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보급기지로 되여 찾아오는 청소년들, 교육교양자들, 외국의 벗들이 끄칠새 없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옷매무시를 바로 잡으며 그이의 동상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대성산유원지유래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세월 버림받아오던 대성산에 세계적대규모의 인민의 락원—대문화유원지를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19일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4.8메터, 너비 12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혁명의 수도 평양을 한품에 안고 성벽마냥 동북변에 높이 솟은 대성산!

천오백여년의 유구한 세월속에 그 전날의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유적들을 간직한채 파묻혀 빛을잃었던 대성산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오늘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물들을 가슴에 가득 안고 인민의 락원—대문화유원지로 자랑높이 솟아났어라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시던 항일전의 그날에 황폐화된 이 땅의 산천을 두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며 쓰러진 나무들을 손수 세워 주시고 대원들에게 조국의 일목일초를 사랑하라고 타일러 주신 수령님

지난날 억눌리고 천대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 주시고도 더 큰 기쁨을 주시려 언제나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여기에 인민의 대문화유원지를 꾸릴 구상을 하시고 전후 어려운 나라 형편에서도 유원지건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으며 건설사업을 하나하나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잊을수 없어라 1958년 4월 5일, 수령님께서 몸소 덤불길을 헤치시고 유원지건설에 떨쳐나선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찾으시여 여기 대성산에 오르신 그날 오랜 세월 잠들었던 산봉우리들과 수풀도 수령님을 반기여 설레고 또 설레였더라

《대성산은 고적들이 많은 유서깊은 곳인데 여기에다 현대적공원설비를 갖추어 놓으면 휴식도 하고 또 많은것을 배울수 있는 훌륭한 장소로 될수 있습니다.》

유원지를 한번 보고나면 삼천리 온 강산을 돌아본듯, 조국의 찬란한 력사를 더듬어 본듯 꾸리시려는 수령님의 높은 뜻이여, 유원지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애국주의와 과학지식을 배우는 배움터로 꾸리시려는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이여

정녕 인민을 위하시고 후대들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나니 수령님의 높으신 뜻에 고무된 과학자들과 설계가들이 유원지설계를 위해 바친 감격의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들의 대담한 환상과 창조적의욕도 수령님의 그 웅대한 구상에는 미칠수 없었어라

수령님께서는 동물원, 식물원은 나라의 면모라고 하시며 우리 선조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로동당시대에 세계적규모로 훌륭하게 꾸리여 후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무 한그루를 떠 옮길 때에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유원지의 풍치를 생각하시는 수령님

오솔길을 하나 두고서도 인민의 편의와 력사유적들을 생각하시는 수령님

그러시기에 수령님께서는 나무가지 하나도 전문학자들과 의논함이 없이는 누구도 다칠수 없다고 엄하게 이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그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나 머나먼 외국에 다녀오시는 길에서나 우리 유원지를 생각하시여 희귀한 동식물을 구해다주신다.

이처럼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고도 수령님께서는 댁에서 몸소 키우시던 귀중한 동식물까지 보내주시였거니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수삼나무는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무성하게 자라나 조국의 산과 언덕을 덮어가고 있다.

지난날 이름없던 화초들도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이름을 얻고 그윽한 향기를 뿜고있는 이곳, 아! 대성산에 피여난 한 떨기의 꽃으로부터 저 산봉우리 정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깃들지 않은데 있으랴

하여 지난날 빛을 잃었던 여기 대성산에 세계적규모의 대문화유원지가 화려하게 펼쳐졌거니 저기 소문봉에 옛성은 다시 솟아나고 골짜기못가에는 산그림자 아름다워 날아가던 새들도 깃을 치며 내린다.

누구나 한번 와보면 몸과 마음이 마냥 젊어지는 인민의 대문화유원지,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 없어라 이로 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은 더욱 빛나고 이로 하여 인민들은 더욱 행복하여라

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여! 크나큰 은덕이여, 인민의 락원 대성산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전해가라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사 적 비

(송도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송도원을 세계에 으뜸가는 대공원으로 웅대한 현대적대휴양지로 꾸려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길이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71년 11월 28일 유래비를 세웠다. 높이 4메터, 너비 16메터되는 유래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는 송도원!

푸른 소나무 우거진 유보도와 흰 물결 반기는 백사장을 거닐때 사람들이여 이 송도원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을 잊지말자!

반만년 유구한 세월,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우에 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수 없었고 마음껏 일하고 잠시라도 쉬여 봤으면 하던 이 나라 인민들의 소박한 그 념원마저 풀길 없던 원한에 찬 력사는 영영 옛이야기로 흘러갔어라

일찌기 항일전의 그날 삼지연의 못가를 거니시며 산좋고 물맑은 이 나라 곳곳에 휴양소를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수령님

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 해방된 조국강산 그 어데나 해발처럼 찬란히 비쳤거니

잊을수 없어라 1947년 여름, 이때부터가 아니였던가? 오랜 세월 착취자들의 한낱 놀이터로 빛을 잃었던 송도원에 락원의 꽃이 피기 시작한것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도 한평생 허리를 못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더 큰 행복과 더 좋은 쉼터를 마련해 주시려고 수령님께서 몸소 이곳에 찾아오신 날, 그날은 사람도, 산천초목도 감격에 목메여 흐느꼈더라

그렇듯 인민을 위하여 심려하시는 수령님이시기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쪼개쓰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시여 모든것을 아끼지 말고 여기에 세계 1등급의 대유원지를 꾸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국가건설위원회는 송도원총계획도를 작성하여 대대적인 국가투자와 전인민적운동으로 인차 건설하되 투자를 아끼지 말고 국제적수준으로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원쑤들의 폭격에 불타버린 한그루의 소나무앞에서도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시고 깃을 잃은 한마리의 새를 보시고도 안색을 흐리시던 수령님의 심중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손수 송도원유원지건설사업소를 무어주시고 수십년생의 큰 소나무들을 옮겨 심게 하시여 송도원의 고유한 옛 풍치를 되살려주신 수령님

어제는 밤이 깊도록 우리가 만든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고쳐 주시더니 오늘은 또 갈매기도 아직 잠든 이른 새벽 이슬맺은 솔밭을 헤치시며 휴양소와 야영소, 식물원과 동물원, 꽃밭과 련못 자리를 일일이 잡아주시였어라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수령님께서는 송도원건설문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까지 보아주시였거니 휴양생들이 거닐기 좋으라고 유원지안에 모래길을 내여 주시고 정각으로 오르는 가파로운 길을 몸소 오르내려보시고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편한 길을 내 주자고 하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황주의 련꽃이 좋으니 가져다 심으라고 머나먼 천리길에서 친히 전화를 거시고 그 련꽃이 잘 자라는가 해마다 알아보신 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던가!

참으로 송도원은 그 어데를 가도 수령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이의 은덕이 깃들어있지 않은 곳이 없거니 그 한그루한그루의 소나무와 그 한떨기의 련꽃이 오늘은 끝없이 설레이는 울창한 소나무숲이되고 천만송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였어라

정녕 영명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송도원은 세계에 으뜸가는 대공원으로, 웅대한 현대적인 대휴양지로 활짝 꽃피였다.

날이 갈수록 해빛은 따사롭고 행복은 가슴에 차넘치나니 우리들은 옷깃을 여미며 감사를 드리노라,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 다 하리라 다짐하노라

사람들이여! 우리의 후대들이 송도원에 대하여 물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기전에 자연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가꾸어 주시고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이야기하라!

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하신 사랑이여, 불멸의 은공이여! 사철 푸르싱싱한 저 소나무와 더불어 억년 마를줄 모르는 저 바다와 더불어 영원하리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동상

(송도원소년단야영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동상이 푸른 소나무 우거지고 해당화 붉게 피는 송도원소년단야영소에 1971년 6월 6일 정중히 모셔졌다.

수령님의 동상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금빛으로 만천하를 밝히시며 어린이들속에 계시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대동우의 동상의 높이는 3.4메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61년 9월 30일에 송도원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솔밭도 좋고 모래밭도 좋고 파도도 낮고 수심도 얕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이 자리를 아끼셨다가 야영소를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일좋은 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준것은 참 잘한 일이요 그걸 누구에게 주겠소. 제일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오. 제일좋은것을!》

그이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야영기간에 먹는 20종의 료리분석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다가 아이들에게 두부보다 닭알, 과실, 당분을 더 많이 공급하라고 하시였으며 이불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 담요나 누빈이불을 주라고 친부모도 다하지 못하는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또한 아이들은 층암절벽이나 안개낀 산봉우리를 다 리해하지 못하므로 사회주의건설모습, 영웅들의 투쟁모습, 동해의 해돋이와 같이 발랄하고 씩씩한 그림을 붙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야영생들에게 침대와 수도꼭지도, 등산지팡이와 등산배낭도, 거울과 수산물표본도 제일 크고 제일 좋은것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 설비와 시설을 갖춘 구락부를 궁전처럼 지어 소조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야영소와 나란히 구락부가 일떠섰는데 여기에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을 비롯하여 수산실, 양어실, 등산실, 탁구실 등 7개의 소조활동실들이 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친히 조직해주신 소조활동은 실내와 야외 생활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자연기후조건과 소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야영생활을 다양하게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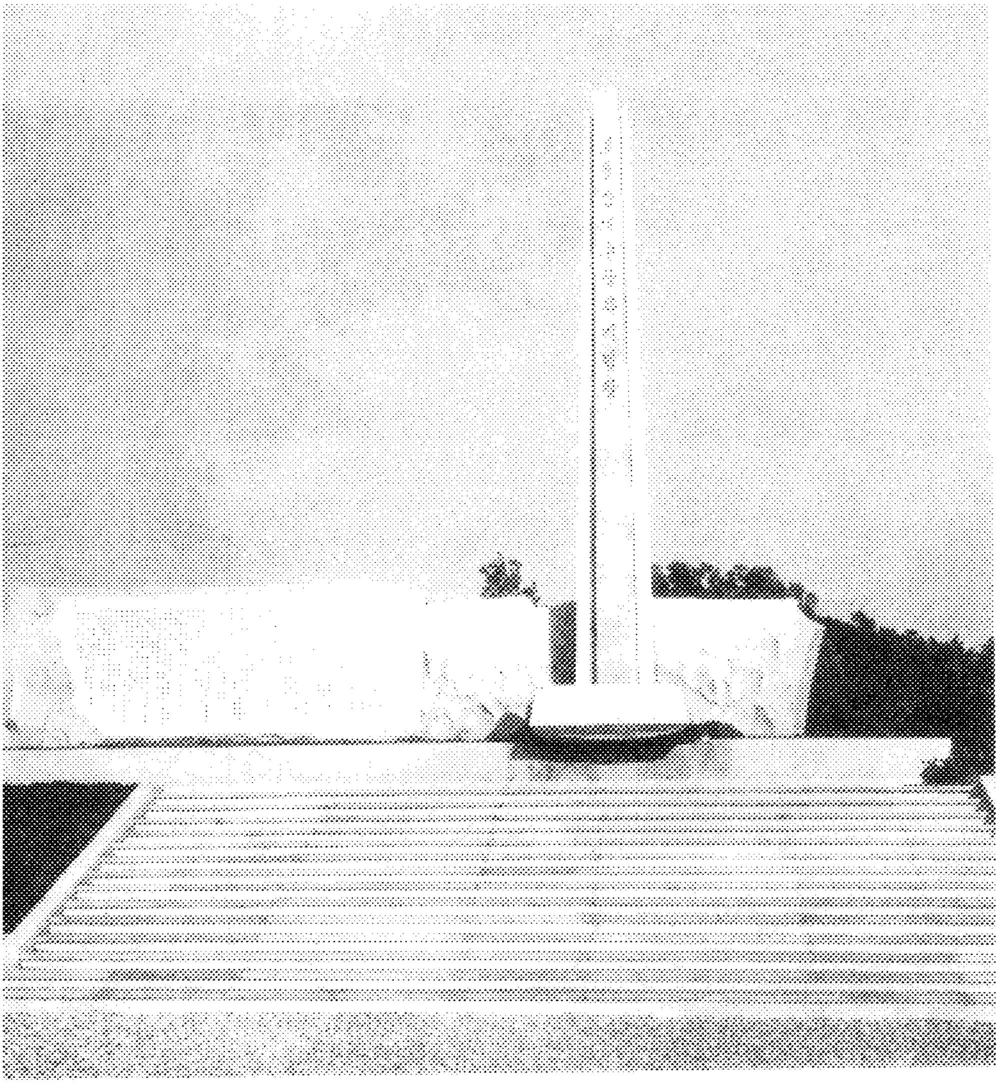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야영기간에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며 해양국의 소년단원답게 바다의 믿음직한 정복자로 조국의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로 더 잘 준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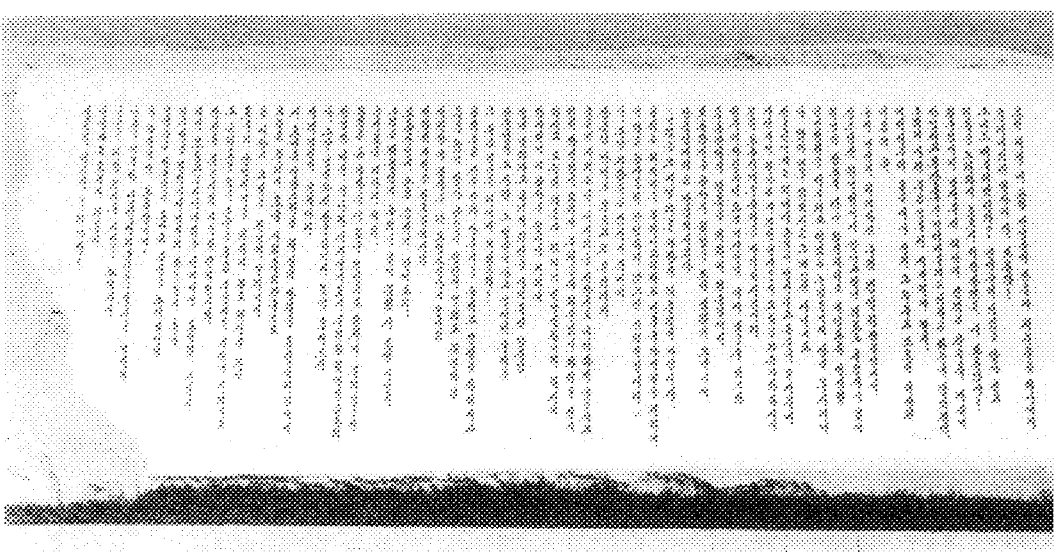
그러기에 소년단야영생들은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베풀어주신 아버지 원수님께 아침 첫 인사를 드리는 일로부터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만경대의 갈림길에 세운 현시비 《강선으로 가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1912년 4월 15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서깊은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영광의 예순돐을 맞이하였다.

인류력사에 영원한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인민과 외국의 벗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을 노래한다.

암흑이 광명을 뒤덮고
겨레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이 나라 강토우에
태양이 솟았습니다.

은혜로운 그 해발 삼천리에 비끼여
조선은 혁명으로 압제의 사슬 끊어버리고
세기를 주름잡아 인민의 락원 세웠습니다.
투쟁의 길 찾고 폭풍을 헤가르며
공산주의 언덕으로 내달립니다.

아— 위대하시여라, 영명하시여라
조선의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위훈의 탑은 창공에 치솟고
영광의 빛발은 만리에 뻗었나니
천년만년 길이 영생하시라
그 이름 존귀하신 김일성동지이시여!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그것은 조선혁명의 새 시대를 마련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광명한 미래를 약속하는 찬란한 해돋이였다.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장도에 오르심으로써 칠칠암흑속에서 혁명의 태양을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원은 비로소 그 빛나는 실현을 볼수 있었다.

그이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으로 엮어진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투쟁의 새 시대, 승리하며 전진하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진정 우리의 수령님은 지난날 뜯기고 짓밟히고 천대받으며 살아오던 우리 인민을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참된 삶의 보람과 끝없이 행복한 오늘의 생활을 주시고 희망찬 래일을 안겨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로동계급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온갖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시였다.

장구한 혁명의 나날 조국과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지니신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한품에 안으시여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키워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로동자들에게 참다운 로동의 권리를 안겨주시였으며 현대적설비를 갖춘 훌륭한 일터에서 온갖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일할수 있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여 우리 로동계급을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굳게 믿으시고 조선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피어린 싸움의 나날에도 우리 로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고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교양하시여 반일투쟁의 선두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이요.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여주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주력해야 하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몸소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주시고 반일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주시였으며 항일유격대에 광범히 받아들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36년 5월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광범한 로동자들을 이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산업중심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조국광복회하부조직망을 내오도록 이끄시였으며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여 국내인민들을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결속시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39년 5월에 또다시 조국에 진출하시였을 때에 정치공작원들을 로동자들속에 보내시여 그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겨주도록 하시였으며 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지구에 진출하시여서는 몸소 신사동목재소 로동자들의 합숙을 찾으시여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39년에 백두산동북부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리시는 준엄한 투쟁속에서도 일제놈들이 경영하는 륙파송파 쟈신즈 목재소를 치시고 이곳 목재소로동자들속에서 몸소 정치사업을 벌리시여 그들을 집단적으로 유격대에 받아들이시였다.

백두산동북부일대의 골짜기와 릉선마다에 일제의 《토벌대》가 꽉 들어찬 그 어려운 시기 단꺼번에 200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유격대에 받아들인다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혁명적로동계급의 힘에 의거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앙양시켜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었다.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소부대활동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령님께서는 정치공작원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시여 우리 로동계급이 반일투쟁에서 핵심적이며 전위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이처럼 깊으신 믿음과 뜨거운 사랑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장차 해방된 조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핵심적골간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만경대고향집도 들리지 않으시고;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조국에 개선하시자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새 조국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였다.

해방직후 조성된 정세는 복잡하였으며 우리 인민앞에는 너무나도 큰 난관이 가로 놓여있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반동세력을 긁어모아 제놈들의 지반을 꾸리면서 전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아세아침략의 교두보로 만들려고 온갖 음모책동을 다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현실과 혁명발전의 전반을 깊이 헤아리시고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로선을 내놓으시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과업이 나서고있으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혁명을 령도할것입니까, 로동계급이 령도할것입니까 자본가계급이 령도할것입니까?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영용하게 싸운 로동계급만이 조선혁명을 령도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령도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령도해나가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굳게 믿으시고 먼저 우리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1945년 10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먼저 만나 새 조국건설의 큰일을 상론하시려고 헤여진지 20년간 북방의 눈보라밀림속에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는 만경대고향집도 들리지 않으시고 강선제강소로 향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이 무척 그립고 보고싶어 먼저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일제와 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에 거칠어진 로동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해방된 조선로동계급은 공장과 국가의 주인으로서 공장을 놈들의 파괴탐락행위로부터 보위하며 우리의 힘으로 공장을 건설확장하여 우리 나라의 큰 강철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물론 우리에게는 난관과 애로가 많을것이다. 그러나 전체 로동자들이 하나로 뭉친 힘으로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점령못할것이 없다.…

그때 강선의 로동계급은 그이께서 만경대고향집에 들리지 않으시고 자기들을 먼저 찾아주신 그깊은 사연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으나 일제와 자본가놈들의 채찍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자기들에게 나라의 큰 공장을 맡겨주시고 나라의 주인된 사명을 다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너무도 커서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누르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오늘은 수풍의 동력전사들을 만나주시고 래일은 흥남의 로동계급과 신포의 어로공들을 만나시여 고역에 거칠어진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새 조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라고 힘차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로동계급의 대중적조직인 직업동맹을 창립하시여;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령도계급인 우리 로동계급이 사회에 대한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온갖 반동들과 이색분자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고 로동계급의 대중적조직인 직업동맹을 창건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로동자들은 혁명적대중조직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가로 단련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더욱 단련되고 혁명화된 계급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며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제철소로동자들을 찾으시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적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정치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밥만 먹고 거저 사는 사람에게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사람은 반드시 정치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일도 알고 사회의 일도 알고 그리하여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인민을 위해서 싸우고 낡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에게 참다운 혁명가의 삶이란 무엇이며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일이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을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 및 경제관리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해방직후에만 하여

도 정치간부학교, 생산기업소지배인강습소를 내오게 하시였으며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도 각종 재직간부양성기관들을 마련해 주시였다.

오늘에 와서는 중요산업지구마다에 공장대학, 공산대학, 직장장학교, 작업반장학교 이밖에 대학안에 통신반, 특설반 등을 두게 하시여 일제시기 공부하지 못한 수많은 로동자들에게 일하면서도 배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반적으로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수준을 가지게 되였다.

《동무에 대한 사업보고를 듣고 로력영웅칭호를 주기로 했소.》;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첫 로력영웅도 우리 로동계급속에서 나오게 하는 영광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직포공 리화순동무의 로력성과를 체계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가 생산에서 더욱 혁신을 일으키도록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해주시면서 크나큰 힘을 안겨주시였다.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에 끝없이 고무된 그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용감히 박차고 날에 날마다 새기록을 창조하여 72대의 직기를 혼자 맡아 천을 짜는 새기록을 세우고 영광스럽게도 수령님을 모시고 열렸던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직포공 리화순동무의 로력투쟁정형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그동무야말로 영웅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더니 《이번에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동무에 대한 사업보고를 듣고 로력영웅칭호를 주기로 했소.》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반부에서 인민군대의 배낭우에 업혀서 들어온 이 한 녀성을 당의 참된 딸로, 혁명가의 한 사람으로,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으로까지 키워주시였다.

이러한 사실은 리화순동무 한사람에게만 한한일이 아니였다.

강철전선에서 나온 영웅들도 지하전선에서 나온 영웅들도 백두밀림의 벌목전선에서 나온 영웅들도 그 모두가 수령님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자라났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녀성들의 모임에 참가하시여 한 천리마작업반장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얻은 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어렵고 장기적인 심각한 사상혁명이지만 타고난 락후분자가 없기때문에 개조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모두를 공산주의자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철공생산협동조합에 들리시여 방금 로동계급대렬에 들어선 어제날의 상공업자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고 고무하시였으며 한 광산에 가시였을 때에는 지난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자기 생활을 두고 우울하게 지내는 한 로동자에게 어머니는 아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를 한품에 안아주시여 로력영웅으로까지 키워주시였다.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과 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훈광부》, 《공훈탄부》, 《공훈용해공》, 《공훈벌목공》, 《공훈기계제작공》 등 여러가지 영예칭호와 광부절, 어부절, 철도절, 지방공업절, 기계절 등 여러가지 산업절을 제정하시여 우리 로동계급에게 자기 직업과 혁명초소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당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우리 나라를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해방직후 민주개혁의 첫 사업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였다.

당시 재령나무리벌에서는 토지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악질지주들이 일제군경놈들에게서 물려받은 무기를 갖추어놓고 기회를 노리였으며 《별공단》같은 반동단체를 조직하여 가지고 우리 일군들을 살해하며 전달군들을 모아가지고 농촌위원회를 습격해오는데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런때 수령님께서는 황철의 로동자들을 파견하시여 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짓부시게 하시였다.

전후 5개년계획의 수행에 들어서던 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엄중한 시련을 겪고있었으며 이것을 기회로 제국주의자들은 반공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남조선에 둥지를 튼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백주에 서울거리로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발광적인 《북진》소동을 벌리였다.

국내외정세가 이렇게 복잡한 때에 당내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기계에서는 밥이 나오지 않는다》,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느니 하면서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시비해나섰으며 당과 정부를 전복할 천추에 용납못할 음모까지 꾸미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로동계급의 힘에 의거하시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분쇄해버릴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내외원쑤놈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전당적인 정치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몸소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였다.

그때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곳 강철전사들에게 《지금 우리 형편은 매우 어렵다. 미국놈들은 진달래꽃이 피면 다시 쳐들어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들어올는지도 모른다, … 우리 나라 종파놈들은 제각기 자기 상전을 등에 업고 당을 반대하고있으며 리승만은 미국을 믿고 우리에게 덤벼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구를 믿겠는가, 당신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고 말씀하시였다.

강선의 강철로동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을 당의 보위자로 굳게 믿으시는 수령님의 깊은 신뢰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치못하였으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단매에 쳐부실 결의를 다지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후 강선의 로동계급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전기로에 집어넣겠으니 강선제강소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며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분쇄하면서 경제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켰다.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을 치렬한 계급투쟁의 불길속에서 추호의 동요없이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붉은 친위대, 결사대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당의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옹호관철자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원대한 구상에 따라 해방직후 력사상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우리 로동계급을 앞장세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공장, 기업소를 일일이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특히 사회주의기초를 마련할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서던 시기 우리에게는 자재, 자금도 부족했고 내외원쑤들이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백방으로 방해해 나섬으로써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바로 이러한 때 수령님께서는 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벌리는 한편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몸소 로동자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천리마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옹호관철하도록 힘차게 이끌어주시였다.

1956년 12월 강선제강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 자신의 가까이에 앉히시고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를 하나하나 말씀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오직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믿고있으며 당신들밖에 의지할데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처한 이 엄중한 난국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당신들이 기세를 올리고 분발하여 생산도 많이 내고 건설도 잘하여 경제건설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로동계급을 끝없이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이 말씀은 강선의 강철전사들에게 태산이라도 떠옮길듯한 힘을 안겨주시였다.

그러기에 강선의 로동계급은 1만톤의 강재만 더 생산해준다면 나라가 허리를 쭉 펴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속깊이에 새겨넣고 나라형편이 그렇고 혁명의 요구가 그렇다면 기어코 강철을 더 뽑아내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의밑에 6만톤공칭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철을 뽑아내는 류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 투쟁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끊임없는 새 기적과 혁신에로 우리 로동계급을 이끌어주시였다.

1961년 12월 6일 대안전기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로동자들을 경제관리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 혁명적인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다음해 생산계획실행을 위하여 예비안토의에서 창의고안도 많이하고 작업개편을 위한 토론에도 많이 참가하고있다는 한 로동자의 이야기를 무심히 듣지않으시고 몸소 그 동무를 찾으시여 《동무. **나하고도 이번에 사업을 많이 해봅시다. 이번에 사업을 더 잘해봅시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진짜 로동계급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1959년 3월 주을아마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이 만든 수수한 공작기계를 보시고도 그것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귀중한 열매이라고 치하해주시면서 그 한점의 불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여 위대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도록하여주시였다.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기술혁신의 불길속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동차와 뜨락또르, 불도젤과 굴착기, 8메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 등 수많은 대형기계와 설비들을 만들어내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리였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른 1967년 6월 룡성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경제건설도 국방건설도 다 같이 잘하자면 1957년에 천리마운동을 전개하던 때와 같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투쟁의 선두에 나설 사람은 《…**오직 로동계급외에는 딴 사람은 없다.**》, 《…**우리 로동계급이 당로선의 진미를 안다.**》고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표시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에 접한 룡성의 로동계급은 《우리에게는 공칭능력이 따로 없다.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이 곧 우리의 기준량이며 공칭능력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기로의 능력을 2배, 3배로 갱신하고 정밀한 설비부속품가공계획을 400%, 600%, 1,000%씩 수행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갔다.

그들은 불과 반년동안에 6천톤프레스를 만들어내고 년간계획을 석달 앞당겨 끝냈으며 강선의 로동계급은 공칭능력이 6만톤밖에 안되던 분괴압연기의 능력을 12만톤으로 올린 그 기세로 계속 혁신하여 그를 또다시 45만톤으로 끌어올리였다.

이와 같은 혁신의 불길속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경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장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리하여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란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이기간에 해마다 평균 공업생산을 19.1%의 높은 속도로 장성시켰다.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에로 우리 로동계급을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은 뒤떨어졌던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시고 마음껏 흥겹게 일할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마련해주시였다

로동법령의 원형을 창조하시여;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발굽아래서 노예로동에 강요당하여 시달리는 우리 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로동계급을 해방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근거지, 해방지구에서 민주주의적 로동생활의 실천적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8시간로동제실시, 로동조건의 개선, 임금의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것.》등 로동계급의 사회계급적해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장차 해방된 조국땅에서 실시할 로동법령의 원형을 창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륙과송, 자신즈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조직진행하시여 도처에서 원쑤들을 격멸소탕하고 식민지강제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로동자들을 해방시켜주시고 그들에게 8시간로동제실시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1934년 여름,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인 요영구에서 계절로동을 하고있던 목재로동자들을 찾으시여 일제와 목재상놈의 가혹한 착취에 멍들고 거칠어진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고역속에 허덕이는 그들의 생활처지를 몹시 가슴 아파하시며 목재로동자들에게 8시간로동제를 비롯한 로동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도록 계급적자각을 높여주시였다.

로동법령을 제정발포하시여;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우리 로동자들을 찾아주시여 그들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한편 참된 삶과 로동의 권리를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46년 1월 평양철도공장(지금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로동자들을 찾으시여 고역에 시달리던 그들의 거치른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나라가 해방되였다고 그저 기쁘다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해방된 우리 나라를 이제부터 건설하고 꾸려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우리에게 가로놓여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우리 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이제는 이 공장이 우리의 공장이며 동무들의 공장입니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을 일일이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로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의 권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는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제정하여주시였다.

로동법령이 발포되자 조선메리야스공장 로동자들은 감격의 격정을 누를길없어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썼다.

…오래동안 왜놈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우마와 같이 시달려오던 우리들을 해방하는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대하여 실로 감개무량이 올시다.…

…우리들은 장군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보통강개수공사제2차돌격을 힘차게 전개할것이며 따라서 산업부흥에 적극 참가하여 생산돌격운동을 맹렬히 전개할것을 맹세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로동법령을 제정발포하시여 우리 로동자들에게 참된 로동의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 혜택을 정확히 보장받도록 크나큰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은덕으로 일제때 하루 14~18시간의 강제로동을 강요당하던 우리 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제의 혜택을 보장받고있으며 유해부문과 지하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6시간 또는 7시간을 일하고있다.

로동자들의 휴양조직정형을 돌으시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8시간로동제만 아니라 년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로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주며 해마다 14일간씩의 정기휴가와 고열 및 유해부문 그리고 수산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는 그외에 7~16일간의 보충적인 휴가를 주시며 모성로동자들에게는 일할때와 꼭같은 로임을 주면서 77일간이라는 산전산후휴가의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행복한 정휴양생활을 안겨주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로동자들이 정휴양을 제대로 보장받고있는가를 알아보시며 해마다 더 많은 로동자들을 휴양시키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1958년 4월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강철생산형편을 료해하시고 생산조직을 더 잘 하도록 가르쳐주시는 한편 지난해 로동자들에게 정휴양조직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해마다 근 절반에 가까운 로동자들이 정휴양소에 갔음에도 불구하시고 수령님께서는 나라에서 로력을 더 줄터이니 휴양조직을 꼭 해야한다고 당부하시면서 야간정양소를 더 짓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로동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일하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조선의 로동자들은 세계로동자들중에서 자기의 권리를 가장 완전하게 보장받고있다.》, 《…한사람의 실업자도 없는 사회주의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야말로 꿈과 같은 별천지였다.》고 감탄을 금치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깊은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고계신다

공장안에 김이 약간 서려있는것을 보시고도; 수령님께서는 로동보호를 위해서는 자금을 아끼지않는다고 하시면서 산업시설과 생산 설비들을 더 훌륭하게 갖추어주시기 위하여 그 언제나 심려하시며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1962년 12월 9일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공장내부에 김이 서려있는것을 보시고 전후 수많은 공장을 우리의 손으로 지었는데 이공장의 로동조건하나 더 좋게 못해주겠는가, 관심만있다면 얼마든지 더 좋게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 공장을 하나 지어주도록 배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건강에 약간의 김조차 해롭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그 시설하나를 개선하는것이 아니라 옹근 공장하나를 새로 짓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며 우리 로동계급을 천금같이 아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시간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이 공장에 머무르시여 새로 지을 공장내부의 설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을 짓는데는 로동조건과 문화휴식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에서 우선 건설해놓고 건설비는 그다음에 계산하도록 합시다.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아끼지 말아야 하오.…

로동자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로동조건과 문화휴식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며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먼저 공장을 잘 짓고 그 다음에 건설비를 계산하도록 한 이와같은 사실은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알지못하고있다.

1947년 4월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여 공장생산시설과 로동조건을 보살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마쇄직장에 이르시였을때 동행하던 간부들은 그이의 신변을 념려하여 직장에 들어가지마시고 바깥쪽에서 보아주실것을 말씀올렸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은 거기서 일도하고있는데 들어가 구경이야 못하겠는가, 다 들어가 직접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먼저 직장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이 일하는 곳곳을 돌아보시며 유해정도를 몸소 헤아려보시고 로동자들의 몸에 먼지와 냄새가 미치지 않도록 로동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로동자들에게 안전한 로동조건을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마련해주시는 수령님께서는 한 방직공장에 가시여서는 방직공들의 키에 맞게 기대를 만들어주도록 하시였으며 한 지방산업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의자가 좋아야 로동에 대한 영예감도 가지고 로동생산능률을 더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갓 직장에 진출한 녀성로동자들에게 폭신폭신한 의자를 만들어주게 하시였다.

해빛은 지하와 원양만리바다우에도; 로동자들에게 로동조건을 더잘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는 수령님께서 우리 광부들과 탄부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와 보살피심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언제나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과 탄부들을 걱정하시는 수령님께서는 특히 그들의 로동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면서 갱내조명시설을 잘해주도록 하시고 작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지키도록 갱내작업질서에 대한 영화까지 만들어 보여주게 하시였다.

그리고 광부들과 탄부들을 지상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처럼 태양의 자외선을 항상 몸에 받도록 수은태양등을 설치하게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 광산에 가시였을 때 갱내 식당을 잘 꾸려놓고 광부들이 일하는것을 보시고 돌아오시여서는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멀리 백두산밑에 있는 기업소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으시여 그 모범을 본받도록 하여 주시였다.

이처럼 우리 로동자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공장가까이에 주택을 마련해주시고 통근뻐스까지 보내주시였으며 영예군인들에게 자전거와 삼륜차까지 보내주시였다.

한 영예군인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못치기작업반에 들리시여 로동자들이 하는 못치기작업을 몸소 해보시면서 작업장의 밝기가 약하다고 걱정하시여 손수 작업등까지 켜주시였다.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은 원양만리바다우에서 고기를 잡는 어로공들에게도 골고루 미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로동안전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배를 하나 만들어도 태풍에 견딜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였다.

어로공들이 타고 고기잡이하는《백두산》호, 《금강산》호, 《봉화산》호, 《대성산》호 등 크고 작은 배 그 어느 하나에도 수령님의 사랑이 스며있지 않은것이 없다.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전파탐지기와 어군탐지기, 방향탐지기 등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크고 작은 기계배들을 무어주시고도 어로공들의 배길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려주고계신다.

조국의 령해를 벗어나 산악같은 얼음산을 뚫으며 먼바다어장에 도착한 어로공들의 승리를 축하하여 몸소 전보문을 보내주시였으며 먼바다날씨가 거칠어진다는 일기예보를 받으시면 어로공들의 배길이 걱정되시여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몸소 무전으로 어로공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몸건강히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끝없이 고무해주신다.

우리 어로공들을 금싸라기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서해의 크고작은 포구들을 친히 찾으시여 어로공들의 사업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신다.

1967년초 어느날 눈나리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해의 바다물역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고기배에 오르시여 고기비늘이 묻은 어로공들의 손을 허물없이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어로작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작업복단추가 밖으로 내달린것을 보시고 고기그물을 잡아당길때 단추에 그물코가 걸리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단추를 안으로 들어가게 달도록하시였다.

크나큰 사랑이 담긴 모직작업복;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조건을 마련해주시였을뿐아니라 막대한 국가자금을 투자하여 여러가지 직종에 따르는 로동보호용구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해주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으며 그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1947년 3월 어느날 남포제련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전해직장에 이르시여 전해공들이 입은 작업복이 류산물에 구멍이 뚫어진것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산에 견디는 모직천으로 작업복을 따로 만들어주도록 하시였다.

1958년 봄, 백두밀림속에서 일하는 나무베기공들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가정으로부터 멀리떨어져 오래동안 류동하면서 산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념려하시여 순환식채벌법을 도입하여 림산마을을 꾸리고 정착하여 살림하면서 작업장에 출근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눈비를 맞으며 일한다고 눈비에 젖어도 견딜수 있는 아마직이나 그보다 더 질긴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림업부문 로동자들의 로동보호물자를 생산하는 전문공장을 내오도록 배려를 돌리시였다.

우리 로동자들의 로동생활에 대하여 이처럼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수령님께서는 신발문제에서도 직종과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도록 배려해주시였다.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용해공들과 소성공들은 불꽃튕기는 일터에서도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두터운 가죽으로 바닥을 만든 신발을 신고 일하며 어로공들은 무릎우에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방직공들은 땀을 잘 들이는 폭신폭신한것으로 만들고 나무베기공들은 겨울에 발싸개를 두툼하게 할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신발을 신고 일하고있다.

창성에서 보내주신 산과실사탕;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아직 우리 나라 살림이 넉넉치못한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로동자들에게 영양제를 어김없이 보장해주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1947년 4월 13일 남포제련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유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에 대한 영양제공급상태를 친히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평양곡산공장에서 만드는 물엿과 여러가지 영양제를 우선 공급해주도록 해주시였으며 이러한 배려가 온 나라의 모든 로동자들에게 가닿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

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에게는 우유가 좋다고 하시면서 몸소 젖소를 외국에서 구해다까지 주시였다.

1962년 8월, 황해제철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심한 삼복더위도 가리지 않으시고 용해장을 찾으시여 1,600도의 높은 열을 내뿜는 평로결에 오래도록 서계시면서 고열로동을 하는 용해공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몸소 그 열도를 헤아려보시였다.

우리 강철로동자들, 용해공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용해공들이 땀을 충분히 들이도록 일터에 선풍기를 놓고 유리창에 발을 쳐서 태양의 직사빛을 가리우도록 해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식도 더주고 사탕도 많이 보낼테니 팥속을 넣은 빵을 만들어주라고 하시였으며 우유도 넉넉히 공급하고 탄산수에 오미자를 넣어주도록 하시는 등 실로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로동자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서는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시며 피곤을 풀었고 기름진 영양제 간식으로 날마다 영양을 보충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다.

삼복더위가 심한 1966년 8월 어느날 황해제철소 앞마당에는 시룹을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용광로앞에서 쇠물을 녹이던 용해공들은 모두 달려가 시룹을 받아들였다. 병마다에는 머나먼 창성땅에서 만든 상표가 붙어있었다.

그때 멀리 창성에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창성도 이렇게 더운데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용해공들은 이 삼복더위에 얼마나 힘들어 하겠는가.**…고하시면서 창성에서 여기까지 산과실로 만든 시룹을 보내주시였다.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서 활동하는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손수 식량을 보내주시였으며 후방밀영에서 치료하고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시여 식량과 귀중한 약까지 구해보내주시던 그사랑 그대로였다.

를 지으시고 시뻘건 불찌들이 날아와 떨어지는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줄곧 박수를 쳐주시고 출선작업이 끝나자 용해공들을 가까이 부르시였다.

…**어렵고 힘든 작업을 기계화해야 동무들이 고된 로동에서 해방될수 있으며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소.**

일본놈들은 로동자들을 착취할 궁리나 했지 로동자들이야 힘들어하건 죽건 그건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선작업을 적극 기계화하여 일을 헐하고 안전하게 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러한 감격적인 이야기는 온나라 그 어느 공장, 어느 기업소에 가나 찾아 볼수 있다.

기술혁명의 새 시대를 펼치시고; 1960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면적인 기술혁신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길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0월 하순에 대야금기지의 하나인 강선제강소에 이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 용해공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전번보다 몸이 좀 수척해진것같은데 일이 고달프지 않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용해장에서 고열과 싸우며 삽질을 하는 용해공들을 보시며안광에서 무거운 시름을 거두지못하셨다.

이 제강소는 전후 6~7년 기간에 기술장비와 기계화의 수준이 전쟁전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게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사람들은 용해장의 삽질이나 절단장의 손로동을 의례히 그렇게 하는것으로 여기고 누구나 그런것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로동계급에게 언제나 좋은것을 주시고도 더 좋은것을 주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에는 우리가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면 이제는 어렵고 힘든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에서 제기한 기술혁명입니다. 라고 하시며 삽질도 기계화하여 온갖 손로동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완전히 해방하시기 위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일정에 올랐던 1961년 12월에는 천리마안주탄광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고 우리 로동자들과 인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용해공이 든 삽의 무게도 가늠해 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부문들에서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여야 합니다. 고열이 특별히 심한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세기를 두고 어려운 손로동에 허리를 펼날이 없었고 기계에 치우고 숨막히는 가스에 취해 넘어지던 우리 로동자들을 해방후 공장의 주인, 기술의 담당자로 키워주신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동화의 래일을 구상하시며 몸소 화염을 내뿜는 전기로의 뜨거운 불길을 자신의 몸에 받아보시기도 하시며 용해공들이 든 큰 삽의 무게도 손수 가늠해 보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복잡한 정사를 바로잡아 나가시는 그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북방의 한 광산에 가시여서는 광부들이 타고다니는 인차에도 친히 오르시고 험한 오솔길도 걸으시며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광산의 힘든 로동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우선 로동자들이 다니는 길부터 넓게 잘 닦고 기계화의 대로를 열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그처럼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46년 6월 1일에 황해제철소로동자들이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하고간 용광로를 자기의 힘과 기술로 복구하여 새 조국건설의 첫 쇠물을 뽑을때 몸소 그들을 찾으시여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된 새 조선의 첫 쇠물을 뽑는 감격적인 순간 만면에 미소

그때 마중나온 탄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던 수령님께서는 한 탄부의 손이 튼것을 보시자 그의 손을 잡으시고 … 손이 텄구만, **탄광작업을 빨리 기계화해야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곳 탄부들은 터지고 갈라진 손등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밤마다 뼈속까지 쑤시여 저려나는 손때문에 잠들지 못하던 일제때 일을 생각하면 손등이 좀 튼것쯤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하지만 우리 탄부들을 귀중하게 여기시며 끝없이 사랑해주시는 수령님께서는 한 탄부의 손이 좀 튼것을 보시고도 그들을 힘든 탄광작업에서 완전히 해방하지 못한 생각으로 하여 발길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탄광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탄광작업을 기계화하여 일을 헐하고 능률적으로 할데 대하여 온갖 대책을 세우시고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후 이 탄광에서는 원통식채탄기를 창안도입하여 남포를 하지않고 석탄을 캐냄으로써 먼지와 연기도 나지않게 하고 일을 헐하고 능률적으로 해나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1967년 여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이곳 탄광로동자들의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모든 탄광들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 기계화하고 자동화한다면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나 방직공장에서 천을 짜는 일이나 로동하는데서 별차이가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품속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탄부들과 광부들에게는 오소리굴같은데서 허리를 펴지못하고 간데라를 입에 물고 곡괭이질을 하였으며 그러다가 굴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사이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던 해방전의 비참한 처지가 먼 옛말로 되였다.

전면적자동화의 길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려면 기계화와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몸소 전면적자동화의 길로 로동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의 기술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이 실현되여 우리 나라 공업의 기술적장비가 더욱 강화되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던 1963년 5월 수령님께서는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일군들과 구성공작기계공장 일군들을 친히 당중앙위원회의 사무실로 부르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동선반을 만들 생각이 있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며 할수 있겠는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자동공작기계를 만드는 문제, 이것은 공작기계를 직접 만들고있는 사람들도 당면한 문제로 생각하고있지 못한 문제였다.

수령님의 말씀에는 기술혁명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뿐만아니라 현대기술의 높은 고지에로 올라서야 할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로동계급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하루빨리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려는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자동화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1964년 4월 23일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희천기계전사들이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만든 자동공작기계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의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71년 2월에는 또다시 희천땅을 찾으시여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그 불길을 온 나라에 퍼지게 하시였다.

생산공정에 자동흐름선이 적극 도입되고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은 보다 홀겹고 헐한 로동으로 바뀌여지고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는 대형자동차의 기관생산에 자동흐름선을 도입하여 소재를 물리고 완성할때까지 사람의 손을 대지않게 되여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앴으며 기양뜨락또르공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열처리공정에 원격조종에 의한 자동화를 도입하여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었다.

북방의 한 야금공장에서는 자동화를 도입하여 전기로앞에서도 기계공장에서처럼 쉽게 일하고있다.

각지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자동제진장치들을 받아들여 유해로운 먼지와 냄새를 없애고 소성공들이 일을 헐하고 능률적으로 하게 하고있다.

중앙공업만 아니라 지방산업공장들에서도 힘든 로동에서 근로자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이 세기적변혁은 오직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빛나는 결실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을 유족하게 살도록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게 한스럽소.》; 수령님께서는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시고 하나의 방침을 내세우시면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계신다.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배급을 줄 쌀 한가마니 변변한것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농민들이 수령님께 보내온 애국미를 황철의 용해공들을 비롯하여 온나라 로동자들에게 골고루 보내주시였다.

귀여운 자식에게 하나를 먹이면 둘을 먹이고 싶어하는 어버이심정 그대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부식물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1947년 4월 어느날, 평양곡산공장로동자들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생산현장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다가 정제유직장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릇이 넘치게 짜지는 강냉이기름을 한동안 지켜보시면서

…이세상에서 좋은 집을 짓는 사람도, 좋은 천을 짜는 사람도, 좋은 기름을 만드는 사람도 다 로동자들인데 그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옥수수기름을 수출할것이아니라 로동자들에게 공급하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름을 더잘 먹이시려고 이처럼 따뜻한 배려를 돌려주신 그이께서는 고기, 닭알, 물고기까지 풍족하게 먹을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게 한스럽소.》**라고 하시면서 가시

는곳마다에서 몸소 닭공장터까지 잡아주시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떨구지않고 먹이기 위해서 깊이 심려하고계신다.

어느 한 담수양어연구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이 그이께 드리려고 산진 잉어 몇마리를 잡아낸것을 아시고 잉어 한마리가 20만~30만의 알을 가진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알입니까? 번식시켜서 인민들이 고기를 먹을때 내가 먹어야지 먼저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고기를 도로 못에 갔다 넣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거액의 국가자금으로 현대적인 원양어로선단을 무어 먼바다의 고기까지 대대적으로 잡아오도록 하시였으며 호수와 저수지, 못 마다에 고기가 욱실거리게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새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황해제철소에 먼저 분수식남새재배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시였으며 이 사업을 몸소 틀어쥐시고이끌어주시였다.

1961년 12월 6일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고계셨다.

생산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식당에 들리시여 식사를 청하시였다.

있는 그대로 음식을 들여오라는 말씀에 취사원아주머니는 달리 행동할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밥과 국, 김치, 낙지자반 등 로동자들이 먹는 그대로 준비해서 식탁우에 놓아드렸다.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면서 우리 로동자들이 먹는 식사를 친히 맛보아주셨다. 그러시면서 국을 더 맛있게 할수 없는가, 기름은 얼마나 넣는가, 밥을 더 맛있게 할수는 없는가, 국은 몇가지를 끓이는가고 일일이 물으시며 앞으로 후방공급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로동자들이 푸짐한 식탁을 차려놓고 먹는 한그릇의 밥과 한알의 닭알에도, 한마리의 물고기와 신선한 남새에도 자식을 생각하는 친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수령님의 깊고도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고있다.

비날론천을 두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기 위하여 항상 심려하시며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비록 경제적난관은 많지만 입는문제를 풀어야한다고 하시면서 긴장된 나라재정의 일부를 대담하게 떼내시여 먼저 방직공장을 건설하게 하시였으며 그후에도 계속하여 우리 인민들의 입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심려하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시기 몸소 비날론연구집단을 무어주시고 각종 실험기구와 시약들을 보내주시였다.

1956년 첫 비날론이 생산되였을때 수령님께서는 처음으로 뽑아낸 비날론을 대견하게 만져보시며…**이것으로 아이들의 옷을 맵시있게 해입히고 녀성들의 쟈케트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비날론생산을 빨리 공업화해서 인민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비날론천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자 그이께서는 또다시 인민들에게 질좋은 모직옷감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함흥모방직공장건설장을 찾으시여 현지에서 건설을 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화학섬유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국 도처에 중소규모의 방적공장과 방직공장, 기성복공장, 녀자옷공장, 어린이옷공장, 편직공장들이 일떠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탄탄하고 아름다운 옷감이 넉넉히 차례지게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중소비품의 값을 계속 대폭 낮추어주시는 한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거듭 대폭적으로 올려주고계신다.

1970년에만 하여도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평균 31.5%나 올리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마루바닥을 몸소 짚어도보시며;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쓸모있고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온나라가 불바다속에 잠겨있던 1951년에 승리의 앞날을 확고히 내다보시고 오늘의 평양을 설계하시였다.

전후 수도의 거리들과 새 다층주택들이 일떠설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새집들이 하는 어느 한 가정을 찾으시여 마루바닥에 손을 대보시며 마루바닥보다 온돌방이 어떤가고 집주인에게 물으시고는 인민들이 희망하는대로 앞으로는 다층주택들에도 모두 온돌을 놓으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자막대기를 잡으시고 집안의 너비와 길이를 재보시며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엌을 넓혀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과 기업소를 찾으실때면 언제나 로동자들의 살림집형편을 알아보시고 친히 그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돌보아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산판을 찾아가시여서는 추운지대인데 집을 지을때에는 담벽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용해공들을 찾으시여서는 힘든 일을 하는데 두세간짜리 좋은 집을 주고 푹 쉴수 있게 해주라고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였다.

평양에 화력발전소를 세울 구상을 하시였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여기서 나오는 더운물로 근로자들의 살림방을 덥여주실것을 계획하시였으며 한장의 타일을 보시고도 그것으로 로동자들의 살림집을 아름답게 장식할것을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세멘트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집을 짓고있는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소성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먼지가 집마을에 떨어질수 있으니 공장에서 좀 멀어진 선선하고 양지바른 곳에 집터를 잡으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근로자들을 더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다층주택에서 살도록 항상 심려하시는 수령님께서는 세계1등급의 거리—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를 일떠세우시고 그 누구보다 로동자들이 먼저 새집에 들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 새집들이 하는것을 몸소 보살펴주시였다.

1970년 8월 어느날 당 제5차대회를 준비하시는 그 바쁘신때에도 서성거리의 새 주택에 이사하는 한 가정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주택시설이 훌륭하여 부족한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가구들을 더 좋은것으로 마련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로동계급을 가장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며 로동계급을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밝히시고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울수 있는 독창적인 교육체계를 세우시여 로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였다.

1946년 4월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시여 공장복구정형과 건설전망을 료해하시던 수령님께서는 회의실을 정리하고있던 한 어린동무를 만나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으시였다. 그동무는 잠시 주저하다가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배우는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힘있게 두드려주시며 좋소, 배워야하오. 배우지 않고서는 새 조국을 건설해나갈수 없소! 라고 하시면서 그를 곧 학교에 보내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통하여 해방후 배움을 열망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희망을 내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을 배우게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밑에 성인교육체계, 통신 및 야간교육, 단기강습 등 온갖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는 과학기술문화를 가지게하여주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발기로 창설된 공장대학과 공산대학, 전문대학안에 설치한 통신반과 재직반, 특설반들에서 우리 로동자들은 일하면서도 고등교육을 받으며 마음껏 배우게 되였다.

1958년 6월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심에도 8월 8일공장을 찾으시고 어느한 직장에서 나어린 기대공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대공으로부터 4급공이라는 말을 들으시고나서 빨리 기능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수, 기사가 되라고하시면서 그를 크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온 공장 로동자들이 배움으로 들끓고있던 1959년 7월 그이께서는 또다시 8월 8일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해전에 들어섰던 직장에서 또다시 그 기대공을 만나시여 몇급공이 되였는가고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그는 6급공이 되였다고 자랑차게 보고를 올렸다.

수령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처럼 기뻐하신것은 비단 한 로동자가 어엿한 기능공으로 자란 일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여겨져서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한 기대공의 성장에서 시대의 영웅들인 천리마기수들이 자기의 기술지식과 문화수준을 높여 나라의 기술문화혁명수행에서도 앞장서 나가고있으며 우리 로동계급이 문명한 계급으로 자라나고있음을 똑똑히 보시였기때문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경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하였던 어느 한 작업반장을 부르시여서는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쟁취하였는가고 물으시고 공부를 많이하라고 일깨워주시였으며 황철의 용해공들을 찾으시여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도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하였던 한 방직공을 부르시여서는 그의 로력적위훈을 치하해주시면서 대학에가 공부를 하여 훌륭한 관리일군이 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강선의 강철전사들을 찾으시여서는 일하면서 배우면 로동계급의 참다운 인테리가 될수 있다고 그들을 크게 고무해주시였다.

수령님의 넓고 깊은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나라의 혜택으로 각급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로동자들의 문화적휴식을 보장해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 로동자구들을 비롯한 전국도처에 우리 인민들과 로동자들을 위한 극장과 영화관, 로동자문화회관, 도서관, 공원 그리고 정양소와 휴양소들을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도 해방후 우리 인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어떻게하면 잘 마련해주겠는가에 대하여 구상하시면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1939년 5월 수령님께서 또다시 조국에 진군하시여 삼지연에서 부대를 잠시 휴식시킬때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삼지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시면서…**혁명이 승리한 다음 여기다 휴양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유서깊은 모란봉이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될수 있은것도 오직 수령님의 끝없는 배려의 결과이다.

전후시기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웠으나 수령님께서는 로동행정일군들을 부르시여 전쟁기간에 로동자들이 몹시 피로하였는데 빨리 정휴양소들을 복구건설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동안에만도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명승지들에서 행복한 정휴양생활을 하고있다.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제관직장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도서와 신문들의 부수와 그 리용정형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문독보는 매일해야하며 30분쯤 일찍나와 독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문을 보고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고 당중앙에서는 무엇을 하며 남조선은 어떻고 북조선은 어떻게 되고있는가를 다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따사로운 보살피심으로하여 오늘 전국은 휘황한 전등불밑에서 라지오, 유선방송망으로 뒤덮였으며 전국의 텔레비존화가 촉진되고있다.

《써클이 아주 훌륭하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광범한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참가하도록 세심히 돌봐주시였다.

1959년 8월초 그이께서는 준공을 앞둔 독로강발전소건설장을 몸소 찾으시였다.

수령님을 맞이한 끝없는 기쁨속에서 건설장의 한 일군은 그이께 공사의 진

척정형을 말씀드린다음 건설자들이 발전소준공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예술공연을 준비하였다는것을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피로도 푸시지 않으시고 《일없소. 일없소…봅시다. 건설을 훌륭히하는 동무들이니까 써클도 잘할테지? ! …》라고 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표시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우리의 자랑—독로강발전소》를 보시면서 장면이 바뀔때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보내주시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의 공연을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써클이 아주 훌륭하오. 이곳 건설자들은 일도 잘하고 써클도 잘하오.…로동자동무들이 창작하고 로동자자신들이 출연하니 더욱 좋소.…

현실속에서만이 훌륭한 예술이 나올수 있소.》

1967년 6월에는 림업로동자들이 준비한 예술작품을 높이 평가하여 주시였으며 그 작품에 출연한 늙은이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당일군들을 통하여 전해주기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이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신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기전에 먼저 호주머니부터 《진단》해보고서야 환자를 대하던 썩어빠진 착취사회에서 돈이 없어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로동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 로동자들은 가난하다는 죄아닌 《죄》때문에 병원에 가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한 많은 세상을 마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 로동자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무병장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이땅우에 빛나게 실시하여주시였다.

1952년 11월 13일, 수령님께서는 1953년 1월 1일부터 전체 인민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이 결정에 따라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다 무상치료의 크나큰 혜택을 받게 되였다.

우리 로동자들은 아무리 중한 병을 앓아도 치료비에 대해서 걱정조차 하지않을뿐아니라 아무리 값비싼 약을 쓴다해도 돈한푼 들이지 않으며 몇달지어는 몇해씩 입원치료를 받아도 《입원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치료를 받고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이 모든 행복한 생활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 로동계급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덕성과 두터운 배려의 결과이다.

수령님께서 그처럼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키워주시고 끊임없이 보살펴주시기에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혁명적인 영웅적로동계급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장에서 나아갈수 있으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되였다.

그렇듯 높은 공산주의적덕성과 고매한 인품을 지니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싸우는 우리 로동자들처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로동계급은 이세상에 없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태여나시여 어린시절부터 우리 농민들의 설움을 누구보다 가슴 사무치게 느끼시였던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농촌문제해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을 한없이 크고 넓으신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자애로운 어버이손길로 따뜻이 보살피시며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천대받던 우리 농민들을 떳떳한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하여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농민들에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여주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에로 곧바로 이끌어주고계시며 농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보살피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농민문제해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만경대와 포평, 림강, 팔도구, 무송, 화전 등지에서 때식을 끓일것이없어 내굴 한오리 오르지 않는 가난한 초가집들과 살길을 찾아 이국땅에까지 와서 헤매는 우리 농민들의 눈물겨운 처지를 보실때마다 자신이 당하시는 고통보다도 더 가슴아프게 느끼시면서 일제와 지주를 쳐없애고 농민들의 피맺힌 숙망을 풀어줄 큰 뜻을 품으시였다.

그이께서는 1928년에 교하지방에 나가시여 반제청년동맹을 꾸려주시고 농민들을 각성시켜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교하는 길림에서 험준한 로일령의 령길을 넘어 180리나 떨어져있는 곳이였지만 수령님께서는 1년에도 여러차례씩 몸소 나가시여 농민들에게 지주의 교활하고 악랄한 착취적본성을 깨우쳐주시였으며 일제와 지주놈들과 싸워이길수 있는 투쟁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 등 넓은 농촌지역에 진정한 혁명적농민조직인 농민동맹, 농민협회를 조

직하시고 고농과 빈농을 중심으로하여 광범한 근로농민을 묶어세우시였다.

오가자의 한 로인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로인과 함께 새끼도 꼬시고 농사일에 거치러진 손등도 쓰다듬어주시며 다음과 같이 타이르시였다.

…할아버지, 지금 온 조선이 이 방안처럼 어둡고 캄캄합니다. 온 삼천리강산이 신음하고있습니다. 가슴아픈 일로 가득차있습니다.…그렇지만 이런 고생이 옛말로 될 그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일제통치하의 우리 농민들의 처지와 념원을 깊이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도록 하심으로써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절한 숙망을 풀어주시였다.

1934년 초봄 원쑤들의《토벌》을 물리치는 가렬한 싸움속에서 왕청현 십리평농민들이 집과 얼마 안되는 가장집물마저 모조리 잃어버렸을 때 그이께서는 몸소 적의 후방을 치시고 씨앗과 식량, 여러마리의 부림소를 해결해주시였다.

1935년 봄,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원정과정에서 병환으로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근거지농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뒤를라즈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농민들이 모두 식량이 떨어지고 씨앗과 부림소가 없어 근심에 싸여있는것을 아시자 자신의 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곧 유격대를 친솔하시고 일제의 목재소를 치시고 수많은 식량과 부림소를 해결해주시였으며 얼마후에는 많은 영농자금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혁명전사의 유가족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해방후에도 그언제나 유가족들을 보살펴주시였다.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전사한 강종근동무의 어머니를 무척 찾으시다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염보배어머니를 처음 만나시였을 때 그이께서는 《…어머니…아들도 먼저 가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고…오늘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니…》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목이 메여 말씀을 더 이으시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흐느끼우는 염보배어머니의 어깨를 한팔로 부축하시고 다른 한손으로 손수건을 꺼내시여 자신과 어머니의 눈물을 번갈아 닦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실시하신 토지개혁의 시책을 통하여 토지문제해결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쌓으시였으며 그것을 무르익히시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인 토지문제해결방도가 밝혀져있는 맑스-레닌주의적토지강령을 세상에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극히 짧은 기간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을 마련해주시였다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소작살이와 머슴살이로 굶주리고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실정을 헤아리시고 해방후 민주개혁에서도 토지개혁을 먼저 실시하여야 할 혁명과업으로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였다.

1946년 2월하순의 어느날 대동군의 한 작은 마을을 몸소 찾으신 그이께서는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시였다.

…이제 잘살아봅시다! 남의 땅을 얻어부치며 애써 지은 낟알을 지주에게 빼앗겨 못사는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제땅을 가지고 잘살아봅시다!…

그러시면서 토지개혁은 땅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있는 농민들자신이 주동이 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해방직후의 하루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례사로운 하루가 아니였다.

그러나 전반적건국사업을 지도하시는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1946년에 한달이상이나 숙천땅에 가계시면서 토지개혁실시와 관련하여 농민들과 의논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고려하시여 토지몰수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시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만이 가질수있다는 혁명적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혁명적원칙을 적용하시여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였다.

어제날 머슴군의 이름석자가 씨여진 문패; 수령님께서는 땅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신 다음에도 그것이 농촌의 실정과 농민들의 의사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도록 평안남도일대의 여러 농촌을 지도하시였다.

1946년 3월 어느날, 평안남도 대동군 시족면 내리(현재 삼석구역 로산리)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마을농민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토지개혁사업이 잘되여가는지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농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우에 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인들에게 토지개혁에 대한 소감을 물으시고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기뻐하시니 나도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땅을 준게 아닙니다. 본래 땅의 주인들인 여러분이 제땅을 도로 찾은것입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내놓고 어떤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땅은 밭갈이하는 여러 농민들의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이 몰라서 안타까워하던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는 그 마을에서 지주집머슴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여 그들이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생하던 피맺힌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이 지주 집과 이집세간살이 등을 몽땅이 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한 농민들에게 주고 땅도 박지주네 땅가운데서 제일 좋은것으로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주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의 문패를 친필로 쓰시여 그집 대문기둥에다 손수 붙여주시였다.

이 농민이 마을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이께 드리려고 삶은 감자를 가지고왔을 때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고맙게 여기시며 감자껍질을 손수 벗기시여 제일 나이많은 로인에게 먼저 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모여앉은 모든 농민들에게 일일이 권하신 다음에야 자신께서 드시는것이였다.

이때 맨먼저 감자를 받은 그 로인이 감자를 두 손에 받아쥔채 백발머리를 푹 숙이고 흐느끼더니 그만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목놓아 울었다. 그 로인은 한생토록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며 짐승처럼 구박받다가 수령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인간적인 공대를 받았던것이다.

그러니 수령님의 그렇듯 소탈하시고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고결한 성품을 한갖 례의범절이라고만 할수 없다. 그것은 진정 낡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가장 천대받고 버림받던 인민에 대한 충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인것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불과 20여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하고 정확하게 승리적으로 수행되였다. 땅의 주인으로 된 우리 농민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해에 1945년에 비하면 알곡을 340만석이나 더 냈으며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농민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수령님께 충성의 애국미를 바치였다.

포화속에서 튼 협동경리의 싹;

농민들은 평생소원을 풀었다고 저마다 기쁨을 금치못하면서 밭을 갈고 논을 풀며 부지런히 일손을 놀려갔지만 자기들의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앞으로 어느길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벌써 이 앞길을 환히 내다보시고 계시였다. 그것은 바로 협동화의 길이였다.

그이께서는 토지개혁에 뒤이어 농업협동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길에 들어서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0년 2월 중요농촌지대인 룡천, 정주, 안주, 재령, 함주 등지에 농기계임경소를 설치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기계화의 우월성을 보여주시였으며 국영농목장과 관개관리소를 설치하시여 앞으로 농촌이 대규모집단경리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실물로 깨우쳐주시였고 농민은행, 소비조합들을 내오시고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체험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온 강토를 뒤덮었던 1952년에 전국다수확모범농민회의를 친히 소집하시고 사회주의협동화의 싹인 로력협조반을 무어서 일해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뭇고 운영해나갈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가르쳐주시였다.

1952년 5월 어느날, 이른새벽 수령님께서는 평남도 대동군 원화마을을 찾으시였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에서 깨여나지 않았고 동행한 부관은 수령님께서 들어가실 방을 마련하려고 한농가에 들어가려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부관을 만류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주인을 깨우지 마오. 단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면 얼마나 곤해하겠소. 이제 얼마후이면 날이 밝겠으니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마당에 앉아 쉬기요! …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짚단우에 앉으시여 날이 샐때를 기다리시였다.

단잠을 자는 한 농민을 위하여 자신께서는 쌀쌀한 새벽바람을 맞으시는것도 아랑곳하지않으시는 뜨거운 그사랑은 북만의 엄혹한 야밤을 한데서 새우시며 곤히 잠든 대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재우기 위하여 이 불무지 저 불무지를 돌아보시면서 꺼져가는 불무지에 나무를 지펴주시던 그사랑 그대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미제야수놈들의 비행기가 머리우에서 미친듯이 돌아치는것도 아랑곳하지않으시고 마을농민들과 함께 종일토록 밭에서 씨앗을 뿌리시고 삼태기를 들고 거름을 나르시면서 농사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는 **《소겨리반, 품앗이반을 더 많이 무어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흥겹게 일을 하오. 이것은 앞으로 농촌을 협동화하는데도 아주 필요한 일이요.》**라고 하시면서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가르쳐주시였다.

대규모집단경리의 주인으로;

가렬한 전쟁으로 하여 농촌경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전후에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을 발전시킬수도 없었고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울수 없었다. 농촌경리의 발전은 물론 공업에 필요한 원료와 전후 어렵게 된 식량문제도 풀수 없었다.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때에 내놓으시고 우리 농민들을 광활한 사회주의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경험적으로 매개 군에 몇개씩의 협동조합을 조직하시고 그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업협동조합의 형태, 규모등 협동화의 구체적방도와 속도를 규정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빈농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이 남먼저 협동조합을 뭇고 농업협동화운동에서 경험을 쌓으며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먼저 조직된 협동조합들에 국가로부터 농기계, 건설자재, 식량, 종곡 등 막대한 물질재정적방조와 로력적방조를 아낌없이 주어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빠른 시일내에 나타내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1953년 10월초 개천군 준혁리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인민군후방가족들을 핵심으로 열여덟농가로서 협동조합을 무었는데 그들에게는 부림소가 모자랐고 식량도 부족하였다.

아직 전쟁의 화약내가 채 가시지도 않던 그 당시로 말하면 나라에는 식량도 비료도 넉넉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현대적인 농기계같은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때였다.

바로 이런 때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식량과 비료를 보내주시고 농민은행을 통하여 영농자금도 해결해주시였으며 얼마후에는 뜨락또르까지 보내주시였다.

재더미를 헤치고 인민경제를 일떠세우기에 한푼의 돈, 한줌의 세멘트도 천금맞잡이로 써야 했던 이 시기에 개천군 준혁리만이아닌 전국농촌에 많은 돈과 물자를 보내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수령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몸소 농촌에 나오시여 이미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화지구에 14개의 농업협동조합을 몸소 무어주시고 1954년 한해동안에 세차례나 현지지도하시였다.

1954년 11월 18일 수령님께서는 청산리를 찾으시였다. 전쟁으로 하여 단간집 한채, 밥그릇 하나 성한것이 없고 부림소 한마리, 보습 하나 쓸만한것이 없게된 어려운 환경이였지만 협동조합을 뭇고 또다시 새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그들을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을 지도하시는 바쁘신가운데도 청산리농민들을 찾으신것이다.

그때 조합원들은 조합탈곡장에서 벼탈곡을 하고 있었다.

탈곡장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조합원들이 미처 인사의 말씀도 올리기 전에 그간 얼마나 고생들하였는가고 하시면서 탈곡장 한쪽에 무져놓은 북데기우에 앉으시였다. 탈곡하던 40여명의 조합원들은 그이를 모시고 한집안식구처럼 빙 둘러앉았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아무말씀도 안하시고 조합원들의 얼굴과 옷차림을 찬찬히 눈여겨보시다가 한 조합원에게서 시선을 멈추시더니 **《솜저고리가 다해졌구만요…》**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친자식의 옷이 해진것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면서 잠시 말씀을 더 잇지 못해하시였다.

실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애기의 손을 잡아주며 이끌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는, 신접살림을 낸 자식을 돌보아주는 부모의 보살핌에도 비길수 없는 그러한 보살핌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직된 협동조합을 튼튼히 꾸려주시기 위하여 이슬젖은 농촌의 두렁길을 밟으시며 농민들을 찾아가시였고 우리 농민들을 대규모집단경리의 주인으로, 사회주의농업근로자

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배려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 이 위대한 변혁이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1958년 8월에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수령님께서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우리 농민들을 공산주의 미래에로 인도하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가 완성되자 1959년 1월에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조건에 맞게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진행하여 이 분야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농촌실정을 손금보듯 알아보시고 사회주의농촌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0년 2월에 보름동안이나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1961년 12월에는 숙천군에 나가시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시여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하부의 기층 단위에 이르기까지 튼튼히 맞물리게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2년 8월에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몸소 소집하시여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지역적거점의 역할을 놀데 대한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전과정에서 농촌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일관하게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세상에 발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속에는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농사도 공업처럼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로 지으며 농민도 로동자들처럼 8시간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생산물을 내며 사상과 문화수준에서도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모두를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여 다 같이 문명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헤아릴수 없이 넓고 깊은 사상과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휘황한 길을 따라 공산주의의 새날을 희망과 환희에 넘쳐 맞이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여 천지개벽한 우리 농촌은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모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전변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두터운 배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워주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에게 온갖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안겨주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1946년 11월 3일에 있은 첫 민주선거에서 우리 농민들은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손에 선거표를 쥐고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불과 한달남짓한 짧은 기간에 당을 창건하시여 선진적인 농민들을 광범히 받아들이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쌓아올리신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46년 1월 31일에 고농과 빈농을 중심으로 농민동맹을 창건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리와 마을을 현지지도하실 때면 언제나 우리 농민들의 조직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친히 학습회나 회의에 참가하시여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도록 일깨워주시기도 하시였다.

1949년 1월 순천군 사인면 삼화리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농촌당세포학습회에 몸소 참가하시여 밤이깊도록 학습강사의 해설과 당원들의 토론을 다 들으시고 계급의식을 높일데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1952년 6월 20일 전쟁의 포화를 헤치시며 룡천군 장산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26명이 모여앉은 회의에 친히 참가하시여 한 녀성의 소박한 토론을 그처럼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시에 식량을 더 많이 증산할 필요성을 차근차근 타일러주시였으며 당출판물을 많이 읽어 정치사상수준을 높일데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을 창건하시여;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 견결한 혁명가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을 계급없는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보시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55년 4월전원회의이후 평안남도 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 황해남도 농업협동조합열성자회의 들에서와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항상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1961년 1월 리현리당총회를 친히 지도하시면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얻은 경험에 대한 한 동무의 토론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바로 훌륭한 공산주의자요》라고 치하해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사회에 까지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민들의 정치적조직

이였던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시고 1965년 3월 25일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들의 혁명적인 정치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여 주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고; 수령님께서는 1934년 초봄 강도일제놈들의 거듭되는 《토벌》로 하여 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왕청현 십리평 농민들을 생각하시여 자신께 차례지는 음식마저도 드시지않으시고 나많은 로인에게 권하시던 그사랑 그대로 해방후 우리 인민과 농민들이 이밥을 먹으면서 유족하게 살도록 따뜻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마다 오뉴월이면 심한 가물로 하여 곡식이 말라들고 칠팔월 장마에 논밭이 온통 물에 잠기는 우리 나라 기후조건과 농업에서 논벼생산이 많이 차지하는 특성에서 무엇보다도 수리화를 하지 않고서는 알곡생산을 높일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직후인 1946년 5월에 벌써 서평양일대를 친히 돌아보시고 보통강개수공사의 구체적인 실정을 알아보시였으며 21일에는 착공식에 나오시여 첫삽을 뜨시였다.

당시 서평양일대의 1만 8천여정보의 논밭을 싸고돌던 보통강은 해마다 큰물이 넘쳐나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던 재난의 강이였다. 그런데 보통강개수공사는 5천메터에 70여만립방메터의 흙을 파올리고 제방을 쌓아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러나 원쑤들이《10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이 난공사를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55일 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쌓아 올리였다.

어데가나〈연풍호〉;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직후인 1946년 4월 12일 벌써 평남도 안주군 백학리에 나가시여 농민들속에서 물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평남관개공사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였으며 곧 그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시였다.

대동강물과 청천강물을 끌어올려 메마른 열두삼천리벌에 생명수를 보내게 될 평남관개공사는 3천 800여리의 수로를 째고 5,200개의 크고 작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방대한 공사로서 세계적으로도 꼽히는 거대한 규모의 공사였다.

수령님께서는 평남관개공사 발단구역의 하나인 평원군의 삼봉리와 대암리에 나오시여 힘든 농사일에 마디마다 옹이가 박힌 농민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농민들에게는 지주놈들에 대한 땅없는 원한과 함께 물없이 농사를 지어온 고통과 슬픔도 맺혀있다고 가슴아파하시며 이 공사를 빨리 끝내여 농민들에게 물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1956년 5월 30일 수령님께서는 완공된 평남관개시설들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평남관개가 시작되는 대동강취입구를 돌아보시고 저수지를 찾아오시였다.

농민들은 수령님께 호수의 이름을 지어주실것을 거듭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면서 정 그렇다면 어디 하나 지어보자고 하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관개에서 〈맏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평남관개가 완공된 결과 이제는 열두삼천리벌에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되였으니 이 저수지를 〈연풍호〉라 부릅시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몸소 대동강의 상류와 청천강변 높고 낮은 산발을 오르내리시면서 물길과 산세를 깊이 료해하시였고 설계도의 점하나 선하나를 짚어나가시였으며 건설자들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푼의 돈도 새롭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도 수십억원(구화폐)의 국가자금을 파괴된 관개시설을 복구정비하는데 쓰도록 돌려주시였으며 특히 전후에 들어와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동원하시였으며 몸소 공사현장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안주, 문덕, 평원 벌을 비롯한 5만여정보의 옥답을 적시여주는 평남관개며 4만여정보의 대동, 강서, 온천, 남포, 증산 벌에 생명수를 보내는 기양관개, 3만 4천여정보의 봉산 나무리벌과 황주 긴등벌을 적시는 어지돈공사를 비롯하여 대규모관개들과 우리 나라의 높고낮은 지대를 그물처럼 뒤덮은 중소규모의 조밀한 관개수로들의 그 어느 하나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가닿지않은 곳이란없다.

그이의 크나큰 은덕은 마침내 사랑의 생명수로 벌마다 골짜기마다 흘러 우리 나라는 어데가나 《연풍호》요, 어데가나 풍년벌이 펼쳐져있다.

1957년 1월 어느날 장수원협동농장 제3작업반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토지의 경사가 급한데다가 물원천이 없어서 논을 풀지 못해 애쓰고 있는 이곳 농민들의 실정을 깊이 료해하시였다.

어떻게하면 이 고장 농민들에게 이밥을 넉넉히 먹일것인가를 심려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사흘후 다시금 어두운 밤길에 이 마을을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캄캄한 밤에 몸소 홰불을 추켜드시고 4시간동안이나 잡초우거진 험한 풀숲을 헤쳐나가시며 저수지는 어데다 만들고 물고는 어떻게 째며 물목을 막을 돌과 흙은 어디의것을 쓰라는것까지 하나하나 대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모판에 벼종자를 뿌릴 때, 모내기를 할 때, 논벼를 가꿀 때, 추수를 할 때에 이 작업반에 나오시여 친히 일을 하시면서 벼농사를 짓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농민들에게 이밥을 먹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디에나 흘러넘치고있다.

그이께서는 이해 6월에 황해북도 신계 미루등을 찾으시였다.

신계 미루등은 옛날 조상때부터 물이 여간만 귀하지 않아 조금만 가물어도 땅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곡식이 타버리고 사람이 마실 물마저 쫄아들어 몇십리에 가서 물을 길어다 마셔야 하였으며 날아가던 새들도 목이 말라 울며 지났다는 고장이다.

수령님께서는 물걱정에 주름살이 잡힌 이곳 농민들의 물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길도 없는 험한 산길을 헤치시며 저수지자리와 양수기 놓을 자리며 상수도를 놓기위한 물탕크자리까지 일일이 잡아주시였고 4단양수장을 설치하고 200여메터의 까마득한 높이로 례성강물을 끌어올리게 하시였다.

미루등의 새력사는 이렇듯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수령님께서는 지나가던 길손들에게 밥한그릇 대접해도 물한모금 권하지 못했다는 봉산땅만이 아닌 나라의 벌

방과 두메 그 어디에나 생명수가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이에 배수체계까지 결합하도록 이끄시여 고인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도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우리 농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1월 신천군 새날농업협동조합을 찾으시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밭에 관수를 하면 높은 소출을 낼수 있습니다. 당은 앞으로 모든 밭에 관수를 실시할것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우선 동무네 조합에서 먼저 해보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려고 하는데 새날농업협동조합에서 한번 밭관수하는데서 혁명을 일으켜 보십시오.…

일찍부터 발관개의 광활한 길을 열어주신 그이께서는 1965년 1월에는 송림시를 찾으시여 남새밭에 분수식관수를 실시할데 대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농업을 공업화하는 또하나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농민들은 석달왕가물에도 만년큰물에도 근심걱정을 모르고 세세년년 만풍년을 맞이하여 누구나 다 식량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유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알과 고기를 먹이시려;

우리 축산업이 공업화되고 현대화되여 나가는 그 자국마다에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를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과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는것이란 없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축산업을 다시 일떠세울 준비를 마련하여 나가시였다. 전후에 가금업발전을 몸소 틀어쥐시고 지도하시였으며 눈 내리고 비가 오는 진창길도 가리지 않으시고 닭공장, 오리공장, 배합먹이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건설과 관리운영, 생산조직과 기술공정, 닭알운반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7년 설날에 수도의 교외에 있는 한 닭공장을 찾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인민들에게 닭알을 먹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닭치기는 성공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집집의 밥상에 웃음이 피여나고 기쁨이 호를 때마다 우리는 풍족한 생활의 보람을 노래하기에 앞서 내 나이 50이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게 한스럽다고 말씀하시며 몸소 더 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마운 은덕을 영원히 잊지않을것이다.

모든산을 황금산, 비단산으로;

온 군이 파일동산으로 전변된 파일군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그 어디를 가나 볼수 있는 파수원과 파수나무의 매 그루마다에는 우리 인민을 풍족하게 살게 해 주시려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이 스며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개발하며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 지상락원을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해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시자 혁명의 수십만리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신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문수봉에 오르시여 손수 나무를 심으시였으며 농촌과 마을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조국땅을 파원으로 변모시킬 만년대계의 화폭을 펼치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토지개혁직후에 강동군의 한 농촌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분여받는 땅에서 농사를 잘 지을뿐아니라 큰 나무가 없는 야산들에 과일나무를 심으라고 가르치셨고 시중군의 한 마을을 찾으시고는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산과 집 주변에 많이 심어 마을을 경치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꾸리라고 가르쳐주시였다.

1951년 가을 전선을 시찰하시고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고개길에서 차를 멈추시고 미제원쑤들의 폭격에 벌둥지처럼 패인 구릉들을 오래도록 살펴보시며 가슴아파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불타고있는 이 야산들에도 과수원을 일구자. 여기는 평양도 가깝고 땅도 잘 걸우면 과수원을 만들기에는 좋을것같다.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선물할 과실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전쟁이 한창이던 어려운 나날에 평양과 송화일떼에 대규모적인 과수농장의 터전을 마련하시였고 오늘은 세계 1등급의 대과수농장으로 발전시키시였다.

1959년에 북청군 룡전리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비를 맞으시는것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43도나 되는 급경사를 오르내리시면서 산비탈의 계단식과수원을 일일이 돌아보시였고 과일나무사이의 거리를 발걸음으로 재여도 보시고 평당그루수도 세여보시였다. 그리고 나무의 가지자름모양을 살피시고 태풍을 념려하시여 바람방향도 물어보시며 과수원을 확장할 구체적인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61년 4월 7일 여기 룡전리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전국의 야산을 과수원으로 꾸리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벌리도록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높은 뜻에 의하여 지난날 사과한알이 없어 아버지의 환갑잔치상에도 고구마에 빨간 물감을 들여 올려놓았다는 장연땅만이 아닌 조국의 모든 야산들과 골짜기들이 백과가 주렁지는 황금산, 비단산으로 꾸려졌다.

산간지대농민들도 벌방 부럽지 않게;

수령님께서는 1947년 초가을 아흔아홉굽이를 돌아야 오르내린다는 아호비령의 깊은 산중에 자리잡은 양덕군의 자그만한 산간마을을 찾으시였다.

자동차길도 없는 험한 오솔길을 밟으시며 마을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아직 살림이 펴이지 못한 마을농민들의 생활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산골사람들에게 산을 잘 리용하여 생활수준을 높일데 대한 방도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길없는 깊은 산골의 첫새벽이슬을 밟으시며 산등판에도 오르시였고 어디에 어떤 산열매와 산나물이 있으며 어떤 약초가 있는가도 자세히 알아보셨으며 평퍼짐한 둔덕에 집짐승을 기를 자리가 없는가도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험한 산길을 걸으시였다.

이때 같이 동행하던 한 일군이 수령님께서 피곤하실것이 념려되여 그만 내려가시자는것을 의견올리자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좀더 올라가봅시다.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슬도 차야하고 덤불길도 먼저 걸어야 합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이 고장 농민들에게 산나물과 산과실을 많이 따다가 나라에 팔면 밑천을 들이지않고 큰 수입을 얻어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또 국가에서도 그것을 공업원료로 아주 리롭게 쓴다는것을 밝혀주시였으며 산을 리용하여 소, 양, 돼지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길러 수입을 높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성땅도 수십차에 걸쳐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이 군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산간지대 농촌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하시고 1962년 8월에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여시고 우리 나라 농촌 특히 산간지대농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오늘 평북도의 창성과 벽동, 량강도의 삼수, 갑산, 자강도의 초산과 강원도의 법동, 황북도의 신평과 평남도의 양덕, 맹산 등을 비롯한 우리 나라 산간지대 농민들은 산의 부원을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모든 산을 황금산, 비단산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온나라가 농촌을 도와주게하시여;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철따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학생, 사회안전원들과 지어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있는 인민군군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로력을 동원하여 농촌을 도와주게하시였다.

1947년 4월 10일 그이께서는 평남도 개천군 준혁리농민들을 찾으시였다.

이때 그곳 농민들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아직 누구도 넘을 못했던《피앗골》앞재로 청천강물을 넘겨서 메말랐던 땅을 논으로 푸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흙묻은 손을 잡아주시고 공사일을 함께 의논해주시면서 나라에서 도와줄테니 공사를 다그쳐서 모내기전에는 꼭 끝내도록 하라고 농민들을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개천보안간부학교학생들과 다른도의 기술자, 로동자들까지 이 공사를 도와주게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농촌의 청장년들이 전선에 나간 조건에서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하여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로서 농촌로력협조대를 조직하여 농촌에 파견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시였다.

1950년말경 그이께서는 한동안 고산진에 계시였다.

재진격작전을 몸소 계획하시고 전선을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시기에도 항상 틈을 내시여 농민들과 담화하시였고 도리깨질을 하시면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력사정을 세세히 료해하시고나서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도 인민군대들이 탈곡을 도와주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로동계급이 농민을 지도하고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할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마다 많은 국가적혜택을 돌려주시여;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일제와 지주로부터 빼앗은 집과 수많은 부림소, 종자, 종축을 빈고농들에게 나누어주시였으며 지주놈들에게서 짊어졌던 고리대부채를 일체 무효로 선포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60억원(구화폐)이상의 막대한 영농자금을 대부해주시였으며 그중 많은 부분의 상환을 면제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빈농민들과 전재민들에게 수만톤의 식량과 수백만메터의 천 등 각종 구호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였으며 모자라는 씨앗과 식량을 대여해주시였고 집잃은 사람들에게는 장기대부를 주시였으며 막대한 농업현물세를 면제해주시였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한시바삐 가시고 전후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자면 수많은 자금이 요구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후부터 1958년까지만도 30여만톤의 식량과 씨앗, 무려 243억원(구화폐)이상에 달하는 영농자금을 대부해주었으며 막대한 량의 현물세 및 대여곡 납부와 거액의 은행대부금상환을 면제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7개년계획기간에만 하여도 농촌문화주택을 60만세대나 거저지어주도록 하시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는 해마다 15만~20만세대씩 지어줄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1961년 11월 청산리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굴뚝에서 연기나는 한 문화주택으로 들어가시여 방바닥에 손도 대보시고 밖에 나오시여 집터와 굴뚝을 낸 방향까지 일일이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사람은 원래부터 집모양보다 방아래 목이 더운것을 좋아하니 구들을 뜯어고치고 굴뚝을 높이하는것이 좋겠다고 관계부문일군들에게 타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낮은 비률의 농업현물세마저 두차례에 걸쳐 대폭 낮추어주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의 부업소득세도 폐지하여주시였고 1966년에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시켜주시였으며 농민들을 온갖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려고 일찍부터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46년 4월, 문덕군의 한 마을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농민들을 만나시여 앞으로 기계로 농사짓는 좋은 세상이 꼭 오게될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으며 1950년 2월에는 재령, 안주, 정주, 룡천, 함주에 각각 농기계임경소를 내오시고 기계가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해주게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8년 10월 당시 강냉이탈곡기와 같은 중소농기계를 만들어내던 기양농기구공장을 찾으시여 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계급적동맹자인 농민을 하루속히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뜨락또르를 생산해야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기양의 로동자들은 그이께서 다녀가신지 단 95일만에《천리마》호 첫 뜨락또르를 만들어 냈으며 이공장은 뜨락또르공장으로 되였다.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이처럼 심려해주시는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아래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마다에는 농촌기계화의 거점인 농기계작업소가 꾸려졌고 협동농장마다에는 수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이 있어 농민들의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있다.

1967년 9월에 청산벌에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살초제의 리용정형을 알아보시고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화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농민들과 의논하시였으며 앞으로 농민들이 김매는 중로동을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로 해결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실로 조선혁명의 전반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달남짓한 사이에 여러차례나 청산벌에 나오시여 살초제의 리용정형을 알아보시고 전국의 모든 농민들을 김매는 중로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앞날을 구상하여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으로하여 오늘 우리 농민들은 화학의 힘으로 김을 매게 되였으며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새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내닫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고도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또다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간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이 무병장수하며 문명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생각할 때마다 해방직후 문맹퇴치를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리시는 한편 강원도에서도 하늘아래 첫동네라는 평강군 옥동리에 살던 한 농민녀성을 그의 선구자로 만드시여 광명의 길로 이끄신 일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게된다.

일제시기 지주집 부엌데기노릇을 하다가 토지개혁의 은덕으로 난생처음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된 이 녀성농민이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라도 드리려고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을 때 그이께서는 어버이사랑으로 글을 알아야 나라일도 잘할수 있다고 타이르시며 석달후에 문맹을 퇴치하고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할것을 재삼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뜨거운 어버이사랑속에서 그 녀성농민은 문맹으로부터 광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갔으며 마침내 전국에 문맹퇴치를 호소하는 선구자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이 문맹퇴치운동은 훌륭한 열매를 맺어 우리 나라는 1947년 3월에 이르러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문맹을 완전히 가신 나라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농촌마다 근로자학교와 근로자중학교를 세워 일반지식을 배울수 있게 하여주시였으며 대학과 전문학교, 통신교육과 영농기술학습반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지식과 선진영농법을 배울수 있게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50년 1월 평양근방의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민주선전실에 비치되여있는 도서대장을 손수 펼쳐드시고 어떤 책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직도 농업기술도서가 적다는것을 일깨워주시면서 책을 내줄 때에는 그냥 주지 말고 본 내용을 쓰도록 책뒤에 백지를 한장씩 붙여주라는것까지 일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을을 떠나신지 얼마후 자신께서 친히 보시면서 그으신 붉은 연필자국이 또렷또렷한 책들을 보내주시였는데 그 책들의 마지막장에는 백지 한장씩 끼여있었다.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어제날의 머슴군과 그의 아들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오늘은 기사, 기수, 과학자로, 농장의 관리일군으로 자라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농가에 전기를 들여보낼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전기화의 완성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1963년 11월 30일 해질무렵 대동군 덕촌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아직 전등불을 못보는 농가가 몇집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동행한 간부동지들을 돌아보시며 《하루종일 논벌에서 일하고 들어온 농민들이 아직 전등불도 못보고 라지오소리도 못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소.》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산비탈에 널려있는 몇집에 전기가 들어가지 못한것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전선이 얼마나 들겠는가를 타산해보시고는 전기를 놔줄 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음해에 다시 이 농장을 찾으시여 전기가 다 들어가고 유선방송도 집집마다 들어가 농민들이 매우 기뻐한다는것을 들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농촌전기화는 빠른속도로 진척되여 오늘 우리 나라는 모든 농촌에 전기가 다 들어갔으며 우리 농민들은 밝은 불빛 아래서 라지오와 유선방송을 듣고 텔레비죤을 보면서 현대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또다시 전국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고 빠스화, 수도화를 실현하며 매개 리에 고정영사시설을 갖추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고 우리 농민들이 도시부럽지 않게 현대문명의 혜택을 고루 받도록 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생각할 때 오수덕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한다.

오수덕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 서북지방에서도 맨 북쪽끝에 있는 해발 800여메터의 높은 고원이다. 해방전 이곳 사람들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이라고는 한방울도 없어서 여름에는 비물을 받아 마셨고 겨울이면 눈을 녹여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농민들이 당하는 사소한 아픔도 자신의 아픔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수령님께서는 이곳 200세대도 못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려 100만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들여 압록강의 그 맑은물을 수도로 끌어올려 물문제를 해결해 주시였다.

1958년 1월 한 농촌마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농가에 들리시여 이불장을 보시고는 이불솜이 얇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더 두텁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앓는 사람을 보시면 가시던 걸음도 멈추시고 의사를 부르시여 환자에게 보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군 하시였다.

1960년 8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맹인이 토론에 참가한 일이있었다. 그는 앞을 못보는 몸이면서도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농촌기계화의 앞장에 서서 모범적으로 싸운 우리 당의 충직한 농업근로자였다.

그 동무의 토론을 듣고 감격과 흥분을 참지 못해 대회참가자들이 모두 그를 주석단에 추대할것을 제의하자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오시여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시였는데 그이의 안색은 걱정과 괴로움으로 몹시 흐려여계시였다.

회의가 며칠 더 계속되는 동안에도 줄곧 그동무의 일이 가슴에 걸리시여 괴로워하시던 그이께서는 휴식시간에 한 의료일군을 부르시여 눈을 뜨게 해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으로하여 마침내 그 청년은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1962년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고 그곳 관리위원장이 지난날 일제와 지주놈들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시달리다 얻은 관절염이 도져서 다리를 저는것을 보시고는 주을온천에 보내시여 치료를 받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몇해가 지나도록 마음을 놓지 못하고계시다가 친히 부르시여 옆자리에 앉히시고 손수 다리를 만져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며 오래전에 한번 만나보신 일이 있는 평범한 한 당원을 놓고도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도 하시고 서운해도 하시며 친자식을 생각하시듯 그들을 몹시 그리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룡천군 장산리 세포총회에 친히 참가하시였던 일이 있었다.

그때로 말하면 시간도 매우 짧았을뿐아니라 희미한 불빛밑이여서 서로

얼굴조차 똑똑히 분간해보기 어려운 형편이였다.

그런데도 15년만에 다시 그곳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당시의 일을 하나하나 회상하시고는 지어 그때 민주선전실장을 하던 동무와 풍금을 타던 녀성동무의 안부까지도 물으시였다.

옆에 섰던 동무들이 그들이 신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좋은 동무들이였는데… 일찌 돌아갔구만. …당원들이 그 동무들 병을 못고쳐준단 말이요?》하시며 안색을 흐리시더니 몹시 가슴아프신듯 천천히 몇발자국거니시는것이였다.

이름없는 한 당원이 세상을 떠난데 대하여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는 수령님의 이 한없이 인자하고 뜨거운 심정앞에서 사람들은 걷잡을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수 없었다.

우리 농민들의 매 개인의 건강에 대하여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애지중지 여기시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훌륭한 인민보건시책을 베풀어주시고도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군병원을 더 잘 꾸리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모든 농촌리의 진료소를 병원화하고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두터운 배려를 거듭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려;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살을 에이는듯한 추운 겨울에 행군하시다가 농가에 들리시여 휴식하시는 그 잠간 사이에도 몸소 나무도 패시고 물도 길어다 주시면서 주인집 일을 도와주시던 그사랑 그대로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친부모의 사랑도 비길수 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심려하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전쟁이 한창 가렬처절했던 1951년 봄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부관을 부르시고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지금 인민들은 미국놈들과 전쟁을 하느라고 어려운 경제형편을 극복해나가고있소.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더욱 검박하게 조직하고 모든 부문에서 더 절약하며 식생활도 보다 검소하게 하여야겠소. 남새도 우리 자체로 심어먹고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하겠소!…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때는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하시면서 몸소 추리나무에 농약도 뿌리시고 남새밭을 가꾸시는 일을 거의 일과처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날밤에 아무리 늦게 주무셨다하시더라도 언제나와 같이 아침 일찌기 일어나시여 산보와 독서를 끝내시고는 포전으로 나가시군하시였다.

수령님께 드리기 위해 농민들이 가꾸는 남새가 무슨 큰부담으로되며 큰일로되랴.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민들에게 적은 부담이라도 덜어주시려 손수 남새밭을 가꾸시였다.

생활의 구석구석까지에도;

1948년 1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강도 시중군 안찬리에 있는 한 농가에 들리시여 이집 주인에게 식량은 부족하지 않은가, 옷은 넉넉한가, 이부자리는 있는가, 지어는 바깥출입할 때 입을 두루마기가 있는가 하는것까지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집안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것을 아시게 된 그이께서는 몹시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살림을 펴나갈 방도를 차근차근 일러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방안을 찬찬히 살피시다가 방구석에 있는 새장에서 메새들이 놀고있는것을 보시더니 참 좋은 새라고 하시면서 몇마리 줄수 없겠는가고 물으시고는 메새값으로 많은 돈을 남기시고 떠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에게서 신세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 농민들의 소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렇게 새를 평계로 많은 돈을 남기고 떠나시였던것이다.

전쟁의 일시적후퇴를 겪고난 1951년 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남도 대동군 팔청리 오서기마을을 찾으시여 이고장 농민들의 생활형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녀성이 헌 무명저고리에 넙적고무신을 신고있는것을 보시자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메주는 다 쑤었는가, 신발들이 상점에 오는가, 입을 옷들은 제대로 장만하였는가 하는것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알아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원쑤놈들이 장독까지 다 깨뜨려버렸기때문에 농민들이 메주를 다시 쑤어야 하겠는데 소금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아시게되였다.

수령님께서 오서기마을을 다녀가신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아침에 여섯대의 화물자동차가 한꺼번에 이 마을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수령님께서 매집에 한가마니씩의 소금과 매 녀성에게 한컬레씩의 코고무신이 돌아가게 보내주신 짐이 가득히 실려있었다.

마음속깊이까지 헤아리시고;

1960년 가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농촌을 찾으시고 농민들의 먹을 식량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때 농민들은 량식을 한사람앞에 300키로그람씩만 남겨놓으면 넉넉하겠다고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군대에 나갔던 아들이 제대되여 오는 집도 있겠고, 공장에 가있는 딸이 휴가를 받고 놀려올수도 있고, 시집갔던 딸이 친정집에 나들이올수도 있으니 300키로는 적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사돈님을 만나도 쌀판 돈으로 술 한잔 대접해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사돈님이 찾아오면 대접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아이어른 할것없이 한사람앞에 400키로씩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농민들의 마음속깊이까지를 살살이 헤아리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살뜰히 돌봐주고계신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를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흘러간 인류의 력사는 길고 길지만 그 어느때에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같이 우리 농민들을 낡은 사회의 온갖 구속과 잔재로부터 철두철미 해방시키는 문제로부터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시기 위하여 그렇듯 뜨거운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주신 혁명의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참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처럼 우리 농민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소박하시며 혁명적의리를 귀중히 여기시며 크나큰 포용력과 감화력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을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우리 농민들과 인민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테리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테리는 새 사회의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인테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만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인테리대렬을 꾸리는 문제는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에서 특히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자체의 과학기술간부를 키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하시였으며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이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는 국내반동세력을 규합하고 오랜 인테리들을 저들의 편에 끌어당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반당종파분자들은 오랜 인테리들의 출신과 경력을 따지며 배척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시기 인테리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혁명의 편에 적극 끌어 들일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따뜻이 키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이 대부분 자산계급의 출신으로서 지난날 일제의 교육을 받았으며 일제와 자본가들을 위하여 복무하여 왔지만 식민지나라의 인테리로서 일제로부터 민족적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사상과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혁명성을 믿어주시고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인테리들의 사상개조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들에게 커다란 신임과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과학자, 기술자, 문학예술인 등 모든 인테리들을 일일이 부르시여 몸소 만나보시면서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켜주셨으며 우리 나라 과학문화의 발전방향과 인테리들이 놀아야할 사명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너그럽게 포섭하시는 한편 근로대중속에서 새 인테리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시고 그에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테리들이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혁명과 건설에 남김없이 바쳐 일할수 있도록 그들의 연구사업과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육친적인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우리 나라 과학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으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심량면으로 되는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방직후 우리에게 고등교육기관이나 과학연구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도 갖추고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인 1946년 7월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과학자들을 만나시여 제기된 모든 애로들을 친히 해결해주시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의 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여주시였으며 실험기구들을 해결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대학이 창설된지 몇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종합대학에 8개의 과학연구소와 연구원, 박사원을 설치하여주시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1952년 4월 12일,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 평남도 순천군 깊은 산골에 소개해있던 종합대학에 찾아오시여 과학자들과 함께 하루밤을 묵으시면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을 조사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연구방향,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적극 개척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52년 4월 27일,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국과학자대회가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열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한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밤을 지새우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회의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참석하여주시고 과학자들이 나아가야할 길을 밝혀주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회의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집체적으로 조직실시하기 위하여 과학원을 창설할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사실 그때까지만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과학연구사업에서 통일적인 체계가 없었고 과학연구사업이 계획적이며 계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당시 반당종파분자들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독립국가로 된후 수십년을 지나서야 과학원을 창설했는데 해방된지 얼마안되여 전쟁을 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과학원을 본의할수 있겠는가고하면서 과학원창설을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

라 과학을 전망성있게 계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시 나라의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창설을 발기하시고 1952년 12월,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 과학의 전당인 과학원을 창설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외국에 사람을 띄워서까지 수많은 서적과 실험기구, 시약 등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충분히 보장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늘 사회과학원, 공학과학원,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도처에 과학연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주시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보장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그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동무들의 연구사업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는것이 없소.》;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현대적이고 자립적인 화학공업의 창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비날론연구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였다.

비날론연구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험실의 설비는 매우 불충분하였으며 지어는 실험용 유리관마저 변변한것이 없었으며 시약도 부족하였다.

이러한것을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952년 6월 초순경 직접 외국에 사람을 보내여 실험기구와 시약을 비롯하여 비날론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실로 그이께서는 비날론연구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비날론연구사업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드디여 1956년에 첫 비날론을 세상에 내놓았다.

1958년 6월 24일, 비날론연구집단성원들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사업정형을 일일이 물어보시고 **《당중앙은 동무들의 연구사업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끼는것이 없소, 자재도 자금도 요구하는대로 해결해주도록 하겠소, 그러니까 아무걱정도 하지 말고 대담하게 해보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연구사업을 극진히 돌봐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비날론옷감은 이렇게하여 나왔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비날론옷감이 차례질 때마다 그것을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그 비날론에는 자식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싶어하시는 어버이심정 그대로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은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그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전선사령관앞으로 친히 편지를 쓰시여; 전쟁의 가렬한 불길이 온 강토에 번져가던 조국해방전쟁 초시기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미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작전지휘에 다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무렵 한 력사학자로부터 서울에 있는 력사문헌자료를 가져오게 해주실것을 바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이때 수령님께서는 친히 붓을 드시여 전선사령관앞으로 명령서를 쓰시였다. 그것은 순수 군사행동상 제기되는 긴급 전투명령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력사학자가 요구하던 문헌자료를 가져오도록 방조하라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서였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가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여 있을 때, 모든것이 전쟁을 위하여 동원되고있을 때, 하물며 그다지 긴급하지도 않은, 더구나 전쟁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력사문헌자료를 요구하는 한 과학자의 희망을 풀어주시려고 명령을 내리시였던것이다.

《동무들이야말로 박사며 영웅이요.》; 수령님께서 1958년 6월 어느날, 화학섬유공장의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고 풍랑 사나운 서해의 배길을 헤치시며 화학섬유생산의 믿음직한 원료기지를 조성하도록 가르쳐주신것은 갈섬유연구집단성원들에게 실로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갈섬유연구집단성원들은 건설자들과 같이 생산적규모를 가진 큰 중간공장건설에 착수하는 과정에 그들앞에 부닥친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60년 6월 10일, 수령님께서는 연구집단성원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갈섬유연구집단성원들의 그간 연구정형을 들으시고나서 갈에서 반드시 섬유를 뽑을수 있다고하시면서 그들의 가슴에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연구소에 돌아온 연구성원들은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명심하고 갈섬유연구사업에서 중첩되는 난관을 뚫고나가 압록강반의 《비단궁전》—대화학섬유공장에서 《갈비단》을 생산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공장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갈솜을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고 바라보시다가 한 과학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동무들이야말로 박사며 영웅이요.》**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자신께서 쓰시던 사냥총까지 보내주시며;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할수 있도록 손수 수만권의 서적을 해결하여주시였으며 전국의 공장, 기업소에 호소하시여 실험기구들을 만들어주도록 대책을 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손수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표본까지 보내주시였다.

1955년 5월,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손수 쓰시던 최신식사냥총과 탄알 수십발, 사냥개를 한 생물학자의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선물로 보내주시였으며 그후 이 한 생물학자가 자전거를 타고 동물채집을 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자동차까지 보내주시였다.

1959년 7월 22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물학자들에게 종합대학 생물과학관에 진렬된 담수어표본목록과 이제부터 수집하여야 할 물고기이름들을 써보낼것을 요구하시였다. 생물학자들은 그이께서 품고계신 참뜻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목록을 보내드리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며칠후 손수 낚으신 아무데서나 흔히 볼수 없는 크고도 희귀한 물고기 16점을 보내주시면서 연구사업에 쓰라고 낚은날까지 기록해 보내주시였다.

1958년 7월 1일, 수령님께서는 그 전날저녁에 손수 잡으신 희귀한 물고기를 밤중으로 한 생물학자에게 보내시면서 학자들이 이름을 알아보며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서부태평양어업위원회 조선어류학자집단과 기타 생물학자들은 그이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이 물고기를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토론하다가 이 물고기를 《기념어》라고 이름지었다.

맛도 좋으며 생산적가치도 있는 이

《기념어》는 지금 우리 나라 양어장들에서 자라고있다.

한 과학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입원중에 있는 과학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문의하시면서 병원의사들에게 90살까지는 꼭 앓게하라고 당부하시는가하면 어떤 과학자에게는 병치료에 더 좋은 료양지를 정해주시기도 하시며 환자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라고 간부들에게 당부까지 하시는 등 과학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그 언제나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1960년 가을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한 과학자가 건강이 그다지 좋지못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나 못내 마음을 놓지못하시여 강원도내 농민들이 그이께 선물로 보내온 산삼을 그 과학자에게 보내시면서 손수 위로의 편지까지 써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 편지와 산삼을 받은후부터 이 한 과학자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여갔을뿐만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원기가 솟구쳐 사람들은 그를 보고 되젊어간다고들 말하였다.

이럴때면 이 한 과학자는 자기가 되젊어지고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자기에게 되젊어지는 원기를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군 하였다.

1950년 10월 15일, 한 과학자가 연구집단성원들과 함께 올망졸망한 어린것들을 데리고 후퇴하고있다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동차를 타고 큰길로 오기보다는 아이들을 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산길로 오는것이 더 안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달구지에 농민 한사람까지 부쳐 보내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과학자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돌려주신 배려는 그 얼마나 되며 과학자 한사람의 신변을 념려하시여 돌려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있다.

《당중앙은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믿고 있소.》; 수령님께서는 복잡하고 떳떳하지 못한 생활경로를 가졌던 사람들도 모두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이 자기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도록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주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벅찬 투쟁이 전개되고있을 때에 청진제강소의 기사장의 직책을 담당하고있던 한 기술자는 당시 오랜 인테리근성으로 하여 보잘것없는 기술을 가지고도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신비화하였으며 모든 문제를 기술에 빙자하여 독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선진적인 의견들을 적지않게 눌러버렸다.

이 한 기술자가 늦게야 자기의 죄과를 깨닫고 고민하고있다는것을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간부동무를 직접 그에게 내려보내시여 관대히 용서해주기로 하시였다.

1959년 3월 10일 이 제철소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협의회석상에서 이 한 기술자가 악성감모에 걸려 앓고있다는것을 아시자 매우 걱정하시면서 그의 과오는 고의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리고 단련되지 못한데서 생긴것이기때문에 제강소에서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한 기술자는 이불을 밀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찬바람이 살을 에이는것도 마다하지않고 회전로앞으로 달려나갔다.

1957년 5월 8일 아침, 김책제철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과오를 범하였던 용광로직장장인 한 기술자도 아량있게 포섭하시여 《…당중앙은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믿고 있소.》라고 하시며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한 기술자에 대한 믿음, 그 뜨거운 사랑은 폭풍보다 더 세찬 힘이되여 그를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나갈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교원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교육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교원들을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을 혁명의 승패와 그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헤쳐나가시는 그 바쁘시고 어려운 나날에도 몸소 혁명적교육의 실천적모범을 보이시면서 교원들을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길림을 중심으로 초기혁명활동을 전개하시던 그때에 친히 교양육성하신 수많은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여러 지역에 교원으로 파견하시여 그들로하여금 조선혁명의 새세대를 키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혁명근거지에 아동단학교들을 수많이 세워주시고 우수한 혁명가—공산주의자들을 선발하시여 그들이 학교교단에 서서 후대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 몸소 설립운영하신 진명학교와 삼광학교, 삼성소학교 등 광범한 농촌지역 학교들의 차광수를 비롯한 여러교원들 그리고 리순희동지를 비롯하여 혁명근거지 아동단학교들에서 교육교양사업을 담당수행한 투사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조선혁명의 새 세대를 키워온 우리 나라 교원—혁명가의 영광스러운 첫 대오였다.

진정 김일성동지께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교육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그이께서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교원들을 이끄심으로써만이 그들은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조국에 개선하신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식인들을 개조하여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도록 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것을 몸소 구현하시여 우리 교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이끌어주시였다.

1945년 10월 28일, 이날 유서깊은 창덕학교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대동군인민들의 성대한 군중대회가 열렸다.

수령님께서는 이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바치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많은 인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중대회가 끝난다음 학교교실안에서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하시는 가운데서도 친히 한 교원을 찾으시여 만나주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원이 교실로 들어와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

는 평범한 교원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아, 강선생 어서 오시오.》라고 하시며 몸소 자리까지 권하시였다.

온 겨레가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 모시는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선생》이라 높이 불러주시였을 때 그 교원도, 자리를 같이 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눈시울이 뜨거워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교원의 심중을 환히 꿰뚫어 보신듯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제놈들의 멸시를 받으며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는 우리가 나라를 찾았으니 한번 본때있게 일해봅시다. 그래 강선생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수령님께서는 후대교육을 위해 자기의 힘을 다바쳐 일해보겠다는 교원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생각을 치하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있으니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말라고 격려해주시였다.

그리고 오랜 교원들을 재교양할데 대하여서와 일제의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 뽑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새나라 민족교육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고 교원들이 할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혁명적인 교육사상과 교육리론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참다운 혁명적 교육의 새 력사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교육사업은 혁명사업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교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기에 그 언제나 심려하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교원들의 생활을 육친적인 사랑으로 돌봐주고계신다

누구보다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복잡한 정치정세를 바로잡아 나가시기에 그 바쁘신 나날에도 1946년 10월 17일 평남도 대동군 원장리를 찾으시여 금제인민학교(현재 대동녀자중학교)교원들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을 선생님들이라고 부르시며 당에는 입당하였는가, 교육조건이며 생활조건은 어떠한가, 《정로》신문 (《로동신문》의 전신)은 보는가 물어보시면서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 주기 위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1948년 5월 9일, 평양교원대학 교원, 학생들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원의 손을 거치게 될것이며 후대들이 어떻게 육성되는가 하는것은 사실상 교원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이 하는일이 참으로 영예롭고도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교원, 인테리들을 대단히 귀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때 우리 당의 표식에는 마치와 낫과 붓이 있음을 친히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이 인테리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것을 말해준다고 일깨워주시였으며 그러니 교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후대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인민학교 선생으로부터 대학선생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한마음 한뜻이 되여 힘써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1948년 8월 7일, 새 학년도 준비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평남도 순안군 재경중학교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린학생들에게 유리 한장, 책상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일상생활과 교수과정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책상을 칼로 깎지도 째지도 않으며 올라가 타고 놀지도 않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교원들의 교수교양방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실뿐만아니라 어느 군당대표회를 지도하실 때에는 주석단구성에 교육부문대표가 없다고하시면서 군에서 제일 일잘하는 어느 중학교 교원을 주석단에 올려주시고 친히 자신의 가까이에 앉도록 하여주시였다.

몸소 교수참관도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쟁환경속에서도 후대교육을 위하여 일시 다른부문에 옮겨가 사업하던 교원들과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있던 교원들까지 교단으로 부르시였으며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교원들에게 휴양도 보장해주시고 수많은 교원들을 관광단으로 외국에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기에 그 바쁘신 나날에도 어느 하루는 한 교원의 교수안도 보아주시며 어느 하루는 몸소 교수에도 참관하시며 교원들을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1956년 7월 어느날, 창성군 약수중학교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수중인 한 학급에 들어가시였다.

학생들이 막 환성을 올리며 수령님한테로 달려가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교원의 교수에 지장이 될세라 학생들을 그냥 앉아 공부를 하라고하시면서 교실 맨뒤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여 교수하는것을 참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교수를 봐주시였다.

상학을 끝마치고 나온 교장이 이때에야 수령님께서 오시였다는것을 알고 그이앞으로 달려가자 수령님께서는 **《모두들 교수를 하고있기에 교수를 참관했소.》**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린이들의 어깨우에 두손을 얹으신채 웃음을 지으시고계시였다.

한 교원에 대한 크나큰 신임; 1964년 5월 1일, 강계청년발전소조업을 경축하던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석단휴게실에 계시는 그 짧은 시간에, 마저 외서중학교의 한 녀교원을 만나시여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형제는 몇이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교육자의 가정이라고 기뻐도 하시며 그 한 녀교원을 공산주의자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름없는 이 한 녀교원을 친히 주석단에까지 데리고 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저녁 축하연회에서 이 교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영웅교원이라고 소개해주시였다.

로력영웅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름없는 이 한 녀교원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시였다.

《이 동무가 앉은뱅이 학생을 2년반 동안이나 업고다니면서 공부를 시킨 외서중학교 박관옥동무요.

가극〈독로강반에 핀 꽃〉의 주인공이 바로 이 동무요! 정말 영웅이요.

박관옥동무의 건강을 위하여 한잔 들것을 제의합니다.》

잔을 든채 서있는 그를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며 빨리 들것을 몇번이나 권하시였다.

이것이 어찌 이 한 교원에 대한 믿음과 신임이라고만 하랴, 이것은 그대

로 우리 교원들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나라 모든 교원들에 대한 크나큰 신임이였으며 크나큰 믿음이였다.

새집들이하는 한 교원의 집을 찾으시여;

수령님께서는 실로 친부모도,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교육일군들도 미처 보지못하는 교원들의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것을 남김없이 살펴보시면서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9년 4월하순 어느 일요일, 대동강기슭 청암동에서 새집들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 한 교원의 집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집들이하는 경사를 함께 기뻐해주시면서 좀 들어가봐도 좋겠는가고 하시자 교원은 방금 이사짐을 날라온채 아직 짐들도 챙겨놓지 못하고 집안을 말끔히 거두지 못한것으로 하여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송구스러워하는 교원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동행한 간부들을 돌아보시며 집안이 어지러운거야 선생님의 탓이 아니라 집을 잘 꾸려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시였다.

그해 1월 맵짠 겨울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택건설장에 나오시여 어느 방은 교원들의 학습과 연구사업에 편리하도록 서재로 잘 꾸려주고 어느 방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으로 하고 어느방은 살림방으로 하라고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신 수령님! 이렇게 처음부터 마감까지 그이의 세심한 배려와 직접적인 보살피심속에서 훌륭히 세워졌고 꾸려진 집이 였으나 수령님께서는 집이 어지러운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까지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렇듯 이름없는 한 교원의 생활을 돌봐주시기 위하여 찾아다니신 곳이 그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있다.

그이께서 1969년 12월 21일 천리마창전중학교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교원들의 생활수준이 높은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교원들은 그런 높은 대우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교원들을 높이 대우하고 존경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학교에 녀성교원들이 많고 그들이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게되면 맡아가르치던 학급이 곤난하지 않을가 념려되시여 교원들을 더 늘여주고 유치원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교원들을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교수와 과학연구사업에 조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 언제나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보건일군들을 만나시고 보건사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무려 2천여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험한 길도, 무덥고 추운 날씨도 가리지 않으시고 병원, 진료소, 료양소, 탁아소, 인민약국, 제약공장, 약초농장 등을 헤아릴수 없이 수많이 찾으시고 현지에서 사업을 친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인민보건사업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치시고 보건사업에 대한 전당적,전국가적,전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나라의 형편이 가장 어렵고 긴장된 때에도 보건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방후 제일 처음으로 방역연구소를 조직하여주시였으며 친히 현지에 나가시여 병원과 료양소, 진료소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설계도면도 보아주시면서 언제나 1차적인 건설대상에 넣어 제일 좋게 짓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아끼지 말고 돌려주도록 하여주시였고 닭알, 고기, 우유 등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우선 병원과 료양소,탁아소들에 공급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일부지방에 남아있던 토질병을 없애기 위하여 토질병토착지들을 친히 찾으시고 지스토마를 비롯한 토질병을 청산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세기를 두고 당해온 고통을 영원히 가셔주시였으며 유급산전산후휴가제와 100%해산방조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을 태내에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녀성들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인류력사는 수천 수만년이 흘러가고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여 친어버이 심정으로 건강을 보살펴주시며 의사들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우러러 모시고 혁명하고있는 우리 의사들처럼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 언제나 심려하시며 우리 의사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이 땅우에 인민적보건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민보건사업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보건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인민보건사업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적보건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천명하시고 유격근거지에서 인민적인 보건시책을 실시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인민보건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인민보건문제해결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위하여 력사적인 민주개혁의 한고리로서 일제식민지보건제도를 철저히 청산하고 인민적보건제도를 수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전후에는 전쟁이 인명에 끼친 피해를 빨리 가시며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의사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축하편지;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그이를 위하여 마련해놓은 단 한대의 강심제주사약과 한뿌리의 산삼마저 대원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사랑 그대로 우리 의사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건일군들에게 《공훈의사》, 《공훈약제사》, 《공훈조산원》, 《공훈간호원》, 《공훈보육원》의 영예칭호까지 제정하여주시였으며 오랜 간호원들에게는 년봉금까지 주도록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나날에도 어느 하루는 한 의사의 병문안도 해주시고 어느 하루는 의사들의 적은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여 친히 축하편지까지 보내주시였다.

흥남비료공장병원에서 3도화상이 전신 48프로를 차지하여 살수도 없으며 살아도 불구자밖에 될수 없다던 한 소년이 1차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로써 죽음의 고비를 벗어나고있던 1961년 2월 15일 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공장병원 일군들에게 친서로 된 축하편지를 보내주시였다.

《…여러 동무들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며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며 어디까지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사상을 실지행동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에 의하여 육성된 붉은 보건일군들속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흥남비료공장병원에서 한 소년을 살리기 위하여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신문《민주청년》지상에서 읽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즉시에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시고 그 기사를 꼭 읽어볼것을 거듭 말씀하시였으며 이 사실을 《로동신문》에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실을것인가에 대하여 직접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병원일군들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여 이처럼 친서로 된 편지까지 보내주시였던것이다.

1961 3월 7일,전국로동통신원열성자대회를 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대회에 참가한 함흥의학대학병원 간호원동무를 부르시여 소년의 건강과 이식수술에 참가한 동무들 그리고 의사들의 건강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시였다.

그이의 이 거듭되는 뜨거운 보살피심은 그들에게 형언할수 없이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드디여 그 한 소년은 소생했으며 제발로 걷게 되였다.

《이런 동무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요!》; 1961년 5월 7일, 2.8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근로자들의 력사적인 시위가 진행되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름없는 한 어린 생명의 소생을 그처럼 기뻐하시며 사열대 뒤에 서있던 한 외과과장을 사열대앞으로 더 가깝게 나서게 하시고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과장동무랑 자기 살을 떼여붙여주었소. 이 애가 공산주의자들의 살을 떼여받았소! 이런 동무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요!》

수령님의 이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은 이 한 외과과장만이 아닌 이나라 모든 의사들에 대한 높은 치하의 말씀이였다.

이처럼 우리 의사들을 공산주의자들이라고하시면서 그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량옆에 서있는 외과과장과 함흥의학대학 한 학생의 손을 잡아 버쩍 추켜들어주시였으며 그날 저녁 가극《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시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거듭 치하해 주시였다.

우리 시대의 의사들치고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사실을 놓고도 그처럼 높이 평가하시며 한 어린생명의 소생을 놓고도 그처럼 기뻐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의사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맹인들의 눈을 띄워줍시다!》; 1960년 8월, 평양대극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한 안과의사가 토론한적이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안과의사가 자기가 일하는 병원 안과성원들이 일한 정형을 들으시고 회의 휴식시간에 그를 부르시여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동무는 일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였소. 동무의 토론이 옳았소.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기술혁신을 일으킨것은 옳았소.동무가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의 심청이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였소!》

이름없는 한 안과의사를 《심청》이라고 불러주시는 수령님의 이 말씀속에는 모든 맹인들에게 광명이 안겨질것을 바라시는 그이의 크고도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으며 그렇게 지성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고 전체 보건일군들을 고무격려해주시는 어버이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수령님께서는 500여명의 맹인들의 눈을 뜨게한 이 한 안과의사집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손수건으로 눈물도 닦으시였다.

전체 인민들의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고통과 기쁨으로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사랑의 품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의사들은 아직 다 모르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맹인들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맹인동맹도 없어야 한다고하시면서 **《…모든 맹인들의 눈을 띄워줍시다!》**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시였다.

앞못보는 한 사람의 심정에서 전체 앞못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시며 아니 그들을 낳아기른 친부모보다도 더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이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단순히 환자의 병을 고치는 직업이 의사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투사로 되여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였다.

흘러간 인류의 력사는 길고 길지만 그 어느때에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이 우리 의사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듯 뜨거운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주신 혁명의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하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의사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훌륭한 창작조건을 보장해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문학예술의 창작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손수 수많은 문예작품들을 창작하시고 지도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1936년초에 남호두를 떠나서 만강에 이르는 그 어느때보다도 분망한 몇달동안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형상한 각본을 쓰시여 그해 여름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무송현 만강부락에 며칠동안 머물러있는 사이에 연기를 지도하시여 그곳에서 공연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6년 8월하순경 무송현성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또다시 만강부락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자신께서 몸소 각본을 쓰시고 연기련습을 지도하신 연극 《피바다》(2막 3장), 《성황당》 (1막), 《경축대회》 (2막) 등을 부락민들앞에서 공연하게하시였다.

1938년 4월 27일,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림강현 6도구의 적을 치고 탐의탕부락 앞산인 라즈거우강상에 이르러 뒤따르는 적들을 물리치는 격렬한 전투의 마지막결전을 앞에두고 수령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혁명의 노래를 부르시여 대원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힘을 주었으며 원쑤들에게는 전률과 공포, 죽음을 주었다.

1938년 1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할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원들과 함께 혁명가요도 부르시고 같이 춤도 추시였다.

바로 이 소탈하고 자애로우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하나의 강철의 대오로 결속케하였으며 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떨굴수 없는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여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대오를 꾸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대오를 꾸려주시고 독립된 조국에 건설하여야 할 새로운 민족문화예술의 방향과 작가, 예술인들의 사명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청진, 신의주, 해주, 원산 할것없이 전국각지에 분산되여있던 작가, 예술인들을 친히 한사람한사람 찾아서 만나보시고 그들의 생활부터 안착시켜주시였다.

강원도 내금강에 가족을 둔 한 작가를 만나시고는 속히 가족을 데려오도록 손수 집까지 마련해주시였으며 수령님의 품을 찾아 남조선에서 넘어온 작가, 예술인들도 다 만나보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근심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보살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넓으신 품에 안긴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1946년 3월 25일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첫 조직인 북조선예술총동맹을 결성하고 그이께서 발표하신 20개조정강의 위대한 사상을 문예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한 강령을 채택하였다.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하에 1946년 2월에는 국립영화촬영소가, 8월에는 《중앙교향악단》과 《중앙합창단》이 창립되였다.

그리하여 그해 1946년 8월 8일에 우리 예술인들은 《중앙교향악단》과 《중앙합창단》의 창립을 경축하는 첫 공연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지였는데 그날 우리 예술인들이 연주한 첫 곡목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활동은 활발히 전개되여 1946년에는 무성영화《민주선거》가, 1947년 8월에는 첫 조선말 발성영화 《인민위원회》가 나왔으며 1947년 9월에는 수령님을 모시고 첫 가극 《금강산 팔선녀》를 무대에 올렸다.

얼마후에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첫 예술영화들인 《내고향》과 《용광로》를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인대렬을 하나하나 무어주시고 첫 국제무대로 진출시켜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47년 7월 쁘라하에서 열린 제1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네차례나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으며 떠나기 전날 그이께서는 예술인들을 친히 자신의 방으로 부르시여 출발준비정형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신발과 려행에 소용되는 모든것을 갖추어주시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의 길에 올랐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락동강에서부터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만리장정의 험한길을 걸어 수령님품으로 찾아오자 그이께서는 포연에 그슬린 옷도 하나하나 만져 보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 대오를 더욱 장성시키시여 1951년 3월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작가, 예술인들의 조직을 더욱 발전시켜주시였다.

그후에도 수령님께서는 후비를 육성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부대를 더욱 보충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 양성기관을 세워주시고 훌륭한 설비를 갖추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지어 저택에서 사용하시던 피아노까지 음악대학에 보내주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문학예술의 창조자로, 향유자로 되게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대부대로 키워주시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발전시켜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이 사람들을 혁명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온사회의 혁명화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일군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활동과 생활의 모든 부문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고계신다

5만원예산서를 손수 10만원으로 고치시며;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영화촬영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친히 수표를 하신 신임장을 한 영화연출가에게 주시면서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 영화촬영소의 터전을 잡으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하당리의 자그마한 다층벽돌집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자리잡게 되였으나 이번에는 또 영화현상설비가 없었다. 영화현상설비를 갖추자면 적어도 5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없었던것이다.

정말 한푼을 천금같이 여기고 그것을 쪼개 써야 할 때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기도 못하고 안타깝게 나날을 보내다가 아무래도 영화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들은 크게 마음먹고 한번 대담하게 제기해볼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수령님께서는 영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온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고나서 영화를 만드는 공정이 그렇게 단순할것 같지 않은데 5만원이 너무 적다고 하시면서 5만원이라는 수자를 지우시고 그자리에 10만이라는 수자를 적어넣으시였다.

수령님께서 그때 나라에 돈이 많아 그처럼 거액의 자금을 해결하여주셨으랴, 그이께서 손수 써넣으신 그 한자 한자에는 천만단위, 억만단위로도 헤아릴수 없는 깊고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리하여 단시일내에 영화현상설비를 만들어놓고 그때까지 찍어만 놓았던 필림들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첫 장편기록영화인《우리의 건설》을 제작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그 어렵던 시기에 우리 예술인들이 가지고온 예산서에 친히 수자를 고쳐 써넣어주시던 그 심정으로 조국해방전쟁의 그 엄혹한 시기에도 계속 예술활동을 할수 있도록 모란봉지하극장을 지어주시였으며 전후에는 평양대극장과 현대적인 교예극장을 지어주시였다.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촬영소에서 여시고; 일찌기 해방직후에 음악가들에게 더 좋은 노래를 지으라고 여러대의 피아노를 선물하신 수령님께서는 미술가들에게 값비싼화구들이 필요할 때면 그것을 요구대로 다 해결해주시였고 촬영가들이 가지고 다니는 촬영기재를 손수 들어보시고는 무겁다고하시면서 가벼운것으로 해결해주시기도 하시였다.

1964년 12월 8일, 수령님께서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하기로 되여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중단하시고 정치위원동지들과 함께 예술영화촬영소에 여섯번째로 찾아오시여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영화인들과 같이 하자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영화제작사업에서와 배우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가 있으면 외교식으로 말하지 말고 서슴없이 제기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예술인들은 너그럽고 소탈하신 수령님앞에서 많은 문제들을 허물없이 제기하여 해결받게 되였다.

수령님께 수행한 간부동지가 두번씩이나 이제는 밤이 깊었으니 가셔야 하겠다고 의견을 드리자 그이께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요구되는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줄터이니 좋은 영화만 만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치고 수령님의 이러한 배려를 받지않는 사람이 없다.

실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을 지도해주신 교시만도 무려 1,200여차나 된다.

창작소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고 바쁘신 나날에도 한 미술가에게 창작소재를 제공해주시기 위하여 오랜시간에 걸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동녕현성전투며 보천보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으며 또 한번은 두세명의 작가를 만나시여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저녁 여덟시부터 새벽 다섯시까지 무려 아홉시간에 걸쳐 새 조국건설에서 작가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서사시《백두산》과 유화《보천보의 홰불》은 이렇게하여 세상에 나왔다.

해방 첫돐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전통주제의 연극《뢰성》을 처음으로 창조하였을 때의 일이다. 당시 반당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이 연극을 헐뜯고 시비하면서 상연중지까지 시켰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수령님께서는 그때 직접 극장에 나오시여 이 작품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보아주시고 긍정적인 싹들을 찾아내시여 창조자들을 고무해주시면서 자료와 작품의 구성까지 보충해주심으로써 사기를 잃었던 창조성원들이 다시 용기를 내여 연극을 살려낼수 있게 하시였다.

그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 제2차대회 경축작품으로 연극《백두산》을 준비하고있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당대회준비에 그처럼 바쁘신 시간에도 친히 극장에 찾아오시여 창작가들로부터 연극의 줄거리를 장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들어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시면서 보충해야 할 자료들까지 이야기해주시고 새로 넣어야 할 장면들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중요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친히 창작조직에서부터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1946년 가을에 수령님께서는 몸소 시인과 작곡가들을 부르시여《애국가》창작의 시상과 시 구절까지 가르쳐주시였으며 1947년 6월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애국가》시청회에서는 노래가 잘되였다고 창작가들을 고무하여주신 다음《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에서부터 마지막부분을 후렴처럼 반복해서 부르면 노래의 사상성도 강조되고 음악적인 장중성도 높아질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1948년 봄, 우리 미술가들이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새로 창건될 공화국의 기발과 국장의 도안을 만들 때의 일이였다. 우리 미술가들이 국기가운데 있는 흰 동그라미안에 아무것도 그려넣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장가운데는 용광로를 그려넣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원만치 못한 도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국기가운데의 흰 동그라미안에는 오각별을 넣고 국장가운데는 사회주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전력은 동력으로되며 공업도 농업도 인민생활도 전력이 없으면 발전할수 없으니 용광로대신에 수력발전소를 넣으면 색조에 좋을것 같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국장도 국기도 드디여 성과적으로 완성되였다.

우리 미술가들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구상할 때였다. 우리 미술가들은 거대한 작품의 탑신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좋은안을 생각해내지못하여 안타까이 모대기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수령님께서는 탑신을 세계조각사상에 아직 없는 기발로 된 탑신으로 하되 그 기발은 펄럭이는것처럼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축소판모형때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이리하여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세계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천리마동상에 깃든 어버이사랑;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있던 천리마동상을 세울데 대한 착상까지 하시고 우리 조각가들에게 과업을 주시였다. 우리 조각가들은 그이의 교시를 받들고 곧 천리마동상의 창작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조각가들은 세필의 말로도 구상해보고 말우에는 세사람을 앉혀보기도 하고 한사람을 앉혀보기도 하면서 구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1958년 11월 17일, 친히 조각가들의 천리마동상초안을 보아주시였으며 1960년봄에는 또다시 천리마동상축소형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필의 말우에 로동자, 농민을 태울데 대한 구상을 완성시켜주시였으며 앞에 앉은 로동자가 붉은 편지를 쳐들게 하심으로써 조각의 사상성과 함께 조형성을 심화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있게하여주시였다. 그리고 말에 날개를 달게 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적의의도 더욱 높이게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각가들의 동상제작에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새로 건설한 큰 건물을 제작실로 제공해주시였으며 식사조건이며 잠자리며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조각가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직접 의사들까지 보내주시였다.

수령님의 탄생 마흔아홉돐인 1961년 4월 15일,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천리마동상제막식을 하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테프를 끊으시는것을 굳이 사양하시면서

동무들이 천리마동상을 만드느라고 수고했는데 내가 테프를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동무들이 끊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제막식의 테프를 수령님께서 끊으셨으면 하는것은 전체 동상건설자들의 한결같은 희망이였으며 그것은 전체 우리 인민의 하나같은 소원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만사람의 의사를 담아 제막식테프를 끊으시였다.

한 영화를 아홉번이나 보아주시며; 예술영화 《한 지대장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는 제목도 너무 크게 《혁명의 길에서》로 되여있었고 내용과 작품의 흐름에서도 적지않은 부족점들을 가지고있었다.

그때 이 영화를 보신 수령님께서는 내용에 알맞게 제목부터 《한 지대장의 이야기》로 고쳐주시고 작품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이 작품의 매 장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수정방향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이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영화를 보아주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교시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 우리 혁명의 전반문제를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던 우리 영화창작가들은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작품을 원만히 고쳐놓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 2월 23일, 수령님께서는 이 영화를 아홉번째로 보아주시였다. 영화를 다 보신 그이께서는 저녁 여섯시부터 밤 열두시까지 영화 창작가자신들보다 더 애쓰시면서 영화의 매 장면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이리하여 영화는 마침내 성과적으로 완성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화 《최학신의 일가》에도 깃들어있다.

본래 이 작품은 1955년에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연극무대에 올랐으나 반당종파분자들과 그에 추종한자들에 의하여 상연이 중지되고 반동적작품으로까지 론의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있던 작가, 연출가는 10년이 지난후에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보려고 영화문학작품을 쓰게 되였는데 그들이 이 작품을 기어코 살려보자는 각오를 가지게 된것은 원장목사가 후퇴시기에 개조된 이야기도 작품으로 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다음이였다.

이러한 사정을 수령님께서 아시게 되였다.

한 작가의 작품과 그의 고심을 깊이 생각하신 수령님께서는 그때 작품의 줄거리를 장시간에 걸쳐 다 들으신 다음 수정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영화가 잘 될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고무된 작가와 연출가, 배우집단은 용기를 내여 이 영화를 만드는데 착수하였으며 수령님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지도를 받으면서 작품을 걸작으로 완성시켰다.

어찌 이런 작품들뿐이랴, 인민상계관작품인 천연색기록영화 《공화국기치 만세!》에 대해서도 수령님께서는 일곱번이나 지도해주시였으며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도 영화의 줄거리로부터 매 장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셨기때문에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사 생활에 이르기까지; 진정 끼니를 에울 쌀 한봉지가 없고 한목숨을 깃들일 보금자리가 없어 명이 길어 죽지 못해 살아온것이 해방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신세였다.

그러나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식량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아시고 자신께서는 몸소 검소한 식사를 하시며 그 귀중한 나라의 식량창고를 서슴없이 열게 하시여 수백가마니의 쌀을 그때 문수리의 작가, 예술인들의 집에 보내주시였다. 이 쌀가마니를 받아안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붙안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1951년, 그때는 후퇴에서 방금 돌아온뒤여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합숙에는 이불이 없어서 곤난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전쟁시기였으므로 두툼하게 솜을 넣은 이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아시였는지 솜을 자동차에 가득 실어 보내주시였다. 솜으로 말하면 인민군전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전선에 더 급히 필요됐지 후방에 있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무엇이 그리 급했으랴,

그런데도 수령님께서는 그 귀중한 솜을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보내주시였다. 자동차는 단순히 솜을 싣고온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싣고왔던것이다.

1953년 봄, 당시 작가동맹은 강동군 시족면 대천리에 있었는데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이곳에 찾아오시여 작가들의 창작정형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작가들에게 솜동복과 내의류, 와이샤쯔와 라지오까지도 무료로 공급해주시였다.

예술인들이 있는 방공호까지 찾으시여; 1950년 11월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적에 대한 결정적반공격을 직접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우리 영화인들이 있던 방공호에 까지 몸소 찾아오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모두 무사히 후퇴해왔는가, 희생된 동무들은 없는가, 밥은 무슨 밥을 먹으며 부식물은 부족하지 않는가, 앓는 동무들은 없는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예술인들을 최고사령부에서 직접 돌보아주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예술인들은 그후부터 수령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이의 직접적인 보살피심을 받게되였다.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 교예공연을 보아주실 때였다.

몇 종목이 지난 다음에 무대에는 키가 매우 작은 기형적인 배우가 나타났다.

수령님께서는 왜정때 곡마단주인놈이 돈벌이를 하려고 어린 그에게 키가 크지 못하도록 일부러 수술을 하여 그렇게 기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것을 아시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웃는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하시면서 그 배우를 무대에 출연시키지 말고 이때까지의 대우를 그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한 수예예술가의 건강까지 헤아려보시고; 수령님께서는 25년전에 만났던 한 녀류시인을 찾으시여 머리가 세였다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좋은 글을 써서 젊어지라고 격려하시고 지어 한 작가의 진갑날과 한 작곡가의 환갑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예로부터 장수하는것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학을 수놓은 수예품과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1962년 4월, 수령님께서는 자수가들이 만든 자수작품 《공작》과 《백평》을 보시고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며 이 자수가를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공훈예술인의 칭호까지 주도록하여주시였다.

1966년 10월 16일,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참관하신 수령님께서는 한 자수가가 창조한 자수작품 《선녀》를 보시고 매우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그 작품을 더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자수가는 그이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밤에 낮을 이어가면서 긴장된 투쟁을 벌리였다.

그런데 원래 건강이 좋지못한 그는 두점의 자수작품을 끝낼무렵 그만 앓아 눕게 되여 할수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병원생활을 끝마치고 퇴원했을 때 그의 병은 많이 나았으나 몸은 몹시 허약했다.

이러한 사정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수예예술가의 건강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시며 그에게 보약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보약! 그것은 진정 생명수가 되여 그에게 영원한 청춘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대양과 대륙을 넘어 날아온 전보; 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단이 세계각국으로 공연을 떠날 때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접견하시고 길떠날 준비는 어떻게 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돌아온 다음에도 꼭 만나시여 그들의 공연성과를 치하해주시군하시였다.

평양가무단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순회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3개월동안이나 더위와 싸움을 하다나니 그곳 기후에 익숙되지 못한 일부 우리 예술인들은 지치게 되고 몸도 쇠약해졌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세계지도를 펼치시고 우리 가무단이 지금은 어디에 가있는가,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고 물어보시군 하시던 수령님께서 멀리 아프리카땅에 가있는 가무단앞으로 격려의 전보문을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전보가 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해지자 앓아누웠던 동무들도 자리를 차고일어나 달려나왔고 조국생각을 하던 동무들도, 지쳐있던 동무들도 눈물을 머금고 달려나왔다.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치하하시고 건강을 념려하시며 더 큰 성과를 거두라고 고무해주신 수령님의 전보문!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사랑의 생명수가 되여 우리 예술인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공연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모두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올수 있게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인간정신의 기사》, 《문화전선의 투사》, 《혁명적인 예술인》이라고 불러주시였으며 창작성과에 대한 분에 넘치는 표창과 치하까지 해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기자들에게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

△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라고하시면서 손수 전투적인 혁명적출판물을 만들어내시였을뿐만아니라 대원들의 집필사업을 세심히 보살피시여 그들을 훌륭한 문필전사로 키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려운 전투의 나날에도 출판소일군들에게 끊임없이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 바쁘신 나날에도 대원들이 쓴 원고내용을 직접 검토하시고 글쓰는 방법에 대해서뿐아니라 출판물의 편집형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한번은 대내신문 《종소리》에 《나는 왜 유격대에 입대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쓴 한 대원의 글이 실리였는데 국문을 겨우 해득한 대원이 썼던만큼 시실 부족한 점들이 적지않았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이 원고를 다 읽어보시고 아주 만족해하시면서 대중들에게 평범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솔직한 감정으로 글을 써야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비서처에 있는 한 대원이 《서광》에 싣기 위하여 《관내의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을 때에도 원고에 직접 손을 대시여 호소성이 강한 기사로 고쳐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신문 《종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내의 보통대원들이 쓴 글들로 편집출판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마당거우밀영에 있던 출판소에만도 좋은 등사기 두대를 비롯하여 원지, 종이, 등사잉크 등 필요한 일체 인쇄기자재들을 다 마련해주시였으며 출판일군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등사기를 구입해 보내도록 하시였다.

1940년 8월, 수령님께서는 출판소일군들과 경위중대를 데리고 안도현 스팡런즈에 머무르고계시다가 숙영지를 옮기게 되던 어느날 적들이 은밀히 밀영을 포위하고 죄여드는것을 발견하시자 몸소 등사기를 메시고 덤벼드는 적들을 소멸하는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출판물을 배포리용하는데 이르기까지 커다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출판물이 혁명투쟁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기자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복잡한 정치정세를 바로 잡아 나가시기에 그처럼 바쁜 나날에도 우리 기자들의 통일적인 대중적조직을 가지게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활동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여 1946년 3월 10일 조선기자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기자대렬을 장성시켜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을 혁명가로 굳게 믿어주시고 그 대렬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61년에 전국로농통신원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독자—통신원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모든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출판물에 글을 쓸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8년에 제2차 전국기자대회에 참석하시여 동맹원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주시였다.

1968년에 열린 제3차전국기자대회를 계기로 기자, 편집원 대렬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붉은 문필전사들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오늘 기자들의 대렬은 수천명의 대집단으로 자라났으며 1969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반미세계기자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세계진보적기자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국제민주기자운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우리의 당출판물은 백만대군에 못지 않은 위력을 나타낼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글쓰는 일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기자들의 취재집필활동으로부터 출판활동의 모든 부문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6년 9월 중순의 어느날, 당시 7～8명의 인원으로 출판물을 편집하고있던 당출판사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강은 어떠하며 생활에 불편한것은 없는가고 일일이 물어보시고나서 사무실이 비좁은것 같은데 일하기에 불편하겠다고 하시며 제때에 도와주지 못해서 안되였다고 몇번이고 말씀해주시였다.

1948년 8월중순 어느날, 동평양 문수리의 당출판사건설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건물의 향좌가 바로 놓였는지, 글을 쓰는 기자들의 방에 해빛은 잘 들겠는지 념려하시며 공사를 빨리 추진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당출판물은 백만대군에 못지 않은 위력을 나타낼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건물을 오래오래 쓸수있도록 잘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49년 새해를 며칠앞둔 어느날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청사로 새집들이를 하였다.

자신께서 쓰시던 사진기까지 보내주시며; 수령님께서는 통신사는 나라의 귀와 눈이 되여야 할 날카로운 보도선전의 초소이기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하시면서 통신사청사를 좋은것으로 해결하며 무전, 사진, 발행설비들을 훌륭한것으로 보장해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통신사에 무선송신시설들을 훌륭히 갖추어주시였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계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사진설비들을 현대화하도록 하는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66년에 통신사에 최신형사진촬영기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1968년에는 자신께서 몸소 쓰시던 사진기까지 보내주시였다.

《기자동무들은 우리의 한 집안식구들이요.》; 1947년 여름, 당시 간리에 자리잡고있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이곳 학원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다음 학원내 교직원, 학생들과 오찬을 같이 하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오찬을 드시려다가 취재나온 한 기자를 찾으시여 기자동무들은 우리의 한 집안식구들이며 다같이 혁명하는 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소개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기자들에게 베풀어주신 지극한 사랑과 크나큰 신임은 이뿐이 아니였다.

1950년 11월 30일, 기자활동을 하면서 최고사령부에 통신을 나르는 련락군관의 임무를 맡은 한 동무가 통신을 가지고 해질무렵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에 다달으자 그이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통신을 기다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기자들이 큰일을 한다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속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기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이세상에 더는 없다.

호위병까지 보장해주시며; 우리 조국이 일대 시련을 겪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신문은 전선에 보내는 탄알과 같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당적출판물과 기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바치는 그 긴장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기자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종군기자들의 활동정형으로부터 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직접 최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인민군장병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하시면서 종군기자들이 전선에서 기동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군복도 입혀주시고 승용차와 운전수, 호위병까지 보장해주시였으며 사진기와 무전기를 포함한 온갖 보도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전선의 모든 지휘관들과 국가기관 책임일군들에게 종군기자들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것을 다 보장해줄데 대해 친필로 수표하신 신임장까지

우리 종군기자들에게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기자들에게 군복이며 외투, 모자, 신발, 장갑, 양말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1953년초에 로동신문사가 폭격당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기자들이 다치지나 않았는지 매우 걱정하시면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공호를 건설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전시조건에서도 로동신문사를 비롯한 전체 출판보도기관의 기자들은 지하에서 회의도 하고 영화도 보고 목욕도하는 전시하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아주 훌륭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신문을 편집하게 되였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한가마니의 햇입쌀; 1950년 11월 상순 어느날, 당시 고산진 림성골에 계시던 수령님께서는 선전부문책임일군들에게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후퇴정형과 생활형편을 물으시면서 옷이나 변변히 입고 식사도 제대로 하는지 안색을 흐리시며 몹시 걱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시련의 시기에 통신사동무들이 혁명가답게 일을 잘한다고 하시면서 림성골의 정승하로인이 마을농민들과 함께 정성껏 마련하여 수령님께 드린 햇입쌀 한가마니를 부관을 시켜 만포에 있는 통신사일군들에게 보내주시였다.

사실 수령님의 일상적인 보살피심속에서 생활한 통신사일군들은 당시의 형편에서도 잡곡밥이나마 먹고있었으며 밤일하는 일부 무전수들에게는 야식까지도 계속 공급되고있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자식에게 하나를 먹이면 둘을 먹이고 싶어하는 어버이심정 그대로 자신께서는 검소한 식사를 하시면서도 그 햇입쌀 한가마니를 통신사일군들에게 보내주시였다. 그것은 하늘에 닿도록 몇만섬을 쌓아올린다하여도 정녕 비길수 없는 햇입쌀이였다.

끝없는 배려, 크나큰 혜택;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그곳에 취재나온 한 기자의 취재조건과 잠자리에 대해서까지 친히 념려하여주시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새벽 4시에 직접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늦게까지 글쓰는 기자들의 수고에 대해 걱정해주시고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기사의 제목과 집필체계까지 다 세워가지고 기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기자들이 쓴 글을 직접 보시고 손수 가필까지 하여주는것이 그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직도 다 모르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는가에 대하여 그 언제나 심려하시며 친히 기자들이 사는 살림집까지 찾아보시고 두간짜리 기자아빠트를 지어주시였으며 글쓰는 일이 힘든 일이니 푹 쉬게하라고 대동강기슭에 기자야간휴양소까지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하여 그들이 입고쓰는 모든 생활형편에 대하여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며 출판절과 방송절을 제정해주시고 《공훈기자》, 《인민기자》칭호까지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테리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크나큰 배려와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력한 필봉이 있다하더라도 붓으로는 다 표현할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심장에 끓어넘치는 감사의 정을 한데모아 만척금탑을 세운다하여도 그 사랑을 결코 다 새겨넣을수는 없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워주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군대의 사업과 군인들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여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을 넓으신 한품에 안으시여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신 그 사랑으로 해방후에는 지난날 착취받고 억압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에게 혁명의 총을 메워주시고 그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초병으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인민군대가 나아갈 길을 해빛처럼 환히 밝혀주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인민무력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적무장력건설문제를 혁명의 승패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무력건설문제를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대초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선행시기 혁명운동의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혁명적폭력에는 오직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체적인 항

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고 선진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15성상에 걸친 영웅적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유격대원들의 정치군사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에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도 동강밀영, 마당거우밀영, 백석탄밀영 등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군정학습을 조직하시여 대원들의 사상정치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대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애로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그를 해결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유격대원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춥고 배고플때뿐만아니라 자신이 덥고 배부를 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원들이 있는곳이면 적후의 험한 길도, 천고의 밀림속도 헤아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주시고 보살펴주시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이 그이의 건강을 념려하여 드린 산삼을 2년이상이나 전령병의 배낭에 건사해가지고 다니다가 앓는 한 대원에게 보내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고산지대에서 밥짓는 법도 가르쳐주시고 산나물김치까지 친히 담가주시였으며 사나운 눈보라를 헤칠때에는 숫눈길에 빠지지 않도록 다져도 주시였고 도로기를 친히 손질하여 신기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련락이 끊어진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어쩌다 얻은 사슴고기를 정성껏 말려서 가루를 내여 모진 고통을 겪고있을 50여명의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리시며 선개의 봉지에 나누어넣으시고 손수 이름까지 적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식량사정이 어려운 때 사령관동지께 저녁식사로 드린 얼마안되는 미시가루마저 잡수지 않으시고 부락에 파견하였던 두 대원에게 먹이고 자신께서는 맹물로 끼니를 에우시였다.

간고한 혁명투쟁의 나날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이 시래기국을 끓여먹고있다는것을 아시자 자신께 차례진 죽마저 드시지 않으시고 국그릇에 부어 같이 잡수시였으며 부대가 숙영할 때면 의례히 대원들을 먼저 재우고 밤늦게까지 일을 보시다가도 대원들의 잠자리를 일일이 돌아보신 다음 자리에 누우셨고 아침에는 남먼저 일어나시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깊은 밤에도 대원들의 젖은 신발을 벗기여 우등불에 말리시느라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는때가 한두번만이아니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마저 대원들에게 덮어주시였으며 나쁜놈들에게 버림받은 대원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모범중대원으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어버이심정으로 유격대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앞으로 창건할 정규군의 튼튼한 골간으로 교양육성하시였으며 인민무력건설의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해방후 어느 부문에서나 절실하게 요구된것은 간부였지만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친히키워내신 혁명투사들을 먼저 인민군대를 창건하는 사업에 파견하여주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군사정치간부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을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사정이 어려웠으나 인민군창건을 준비하시던 시기인 1945년 11월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의 첫 군사정치학교인 평양학원을, 1946년 7월에는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여주시였으며 뒤이어 정규군의 골간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를 직접 조직하여주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집단생활을 할만한 병영도 없었으며 여러가지 곤난이 수없이 겹쳐졌다. 우리 군인들은 대다수가 집에서 입고온 옷차림 그대로였으며 그 가운데는 잠뱅이에 적삼을 걸친 동무들도 있었으며 고무신을 신고 훈련에 참가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복잡한 정치정세를 바로 잡아나가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학원과 훈련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장에 자주 찾아오시여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세세히 가르쳐주시고 몸소 풀어주시였다.

1945년 11월 어느날 아침, 남포지구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원으로 쓸 건물들의 매 방들을 빠짐없이 돌아보시며 침실과 식당, 세면장을 만들자리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시였고 높고낮은 언덕과 골짜기들의 가시덤불을 몸소 헤치시며 전술훈련장과 사격장, 체육훈련장을 일일이 정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같이 나온 간부들에게 나라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혁명의 기둥감을 키워낼곳인것만큼 학원을 잘 꾸려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며칠후에는 학원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이렇게 학원의 터전과 훈련장까지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여러도에 간부들을 보내시여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혁명가 유자녀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국보위초소에로 부르시여 인민군대의 골간으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당의 강력한 혁명무력인 우리 인민군을 창건하여주시였다

해방후 항일투사들을거느리시고 20년만에 조국땅에 개선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들리셔야 하실곳도 많았고 만나보셔야 할사람도 많으셨으나 다 뒤로 미루시고 당을 창건하시고 정권을 세우시며 새 조선의 터전을 닦는 일과 함께 온갖 난관과 애로를 타개하시며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8월 20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로작《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광복된 조국에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불패의 인민무력, 정규화된 혁명의 군대를 하루속히 창건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의 력사도 수령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시작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국각지에 있는 항공기술자들을 찾아내시여 1945년 11월 조선항공협회에 묶어세워주시고 1946년 봄에는 평양학원에 인민군항공대의 모체인 항공과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원에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과 항공기술을 가진 애국청년들을 보내시여 배우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이 학원을 마치자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첫 공군부대를 편성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1946년에는 수상보안대를, 1947년 7월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를 내오시여 항해, 기관, 함선포와 같은 전문기술에 정통한 유능한 수많은 해군간부들을 키워주시였다.

이러한 제반 준비사업밑에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한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여 1948년 2월 8일 우리 인민군대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을 불러일으켜주시고 래일의 희망을 안겨주시던 그 나날들은 우리 모든 인민군군인들을 불굴의 혁명가로, 영웅으로 길러주신 자랑찬 나날이였다.

1960년 8월 어느날, 한 땅크부대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운동인 붉은기중대운동을 친히 발기하시고 그 불길을 지펴주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공산주의 붉은 집단으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불굴의 혁명가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워주고계신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특성으로 보아 누구보다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는 혁명정신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대안의 정치사업과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창건초기에 군대안에 문화부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정치기관, 당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그 준엄한 시기에도 각급 군사학교들에서 수많은 군사, 정치, 기술 일군들을 양성하도록 하시였으며 재직간부들에 대한 재교양사업을 널리 조직하시여 그들을 훌륭한 군사, 정치, 기술일군으로 자라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전후에는 군사과학의 전당인 군사대학을 비롯하여 군종, 병종에 따르는 각급 군사학교들을 세워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쟁에서 단련된 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모든 군인들이 간부적자질을 훌륭히 갖추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주시였다.

1963년 2월, 조선인민군창건 열다섯돐을 앞두고 전연의 한 구분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전사들의 나이며 가정형편, 학습과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면서 그들이 미제와 일제, 지주, 자본가도 보지 못하고 자라난데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시고 그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감시초소에 올라가시여서는 몸소 포대경으로 남녘땅을 바라보시면서 초병의 심장은 언제나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야 하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남녘땅 인민들을 꼭 해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마련하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싸우는 우리 전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불굴의 투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싸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1950년 10월 어느날 새벽,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고산진으로 가시던 수령님께서는 미제공중비적들의 야간폭격이 심한 큰 길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행군해가는 한 구분대대렬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머나먼 락동강을 떠나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기 위해 최고사령부로 찾아가는 동무들이라는것을 아시고 전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미제는 반드시 멸망하며 우리는 전쟁에서 꼭 승리한다고 하시면서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어느 하루는 남진하는 련합부대전투원들을 찾으시고 또 어느 하루는 적진으로 출격할 비행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워주시려; 수령님께서는 몸소 부대와 구분대를 찾으시여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강철의 혁명전사로 자라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1947년 4월 어느날, 보안간부훈련소 어느 한 구분대훈련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의 사격자세를 바로잡아주시기도 하시고 몸소 총을 잡으시고 누기찬 땅도 가리지 않으시고 조준동작을 하며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시였다.

1961년 10월 어느날, 강원도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시간을 내시여 몸소 한 해안포구분대를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포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기술수준을 높여 포탄을 적게 쓰면서도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포탄 한발에 적함 하나씩 마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오늘은 어느 비행부대와 해군함선을 찾으시고 또 래일은 공병구분대와 땅크부대 훈련장을 찾으시여 몸소 훈련제강도 봐주시고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살뜰히 지도하여주시였다.

1948년 11월 어느날, 눈길을 밟으시며 땅크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땅크의 습지대 통과훈련을 지도하여주시였으며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1950년 11월 어느날에는 전사들의 위장상태와 전투준비상태도 세세히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2년 6월, 어느 한 정찰소대를 찾으셨을 때에는 몸소 훈련을 지도해주시였다. 종일토록 정찰병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루일과와 체육훈련, 비상소집훈련, 정찰조훈련 등을 일일이 지도하여주시면서 구체적인 문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불비쏟아지는 전선길과 험한 령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대와 구분대들을 찾으시며 우리 군인들에게 장수힘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그 언제나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1950년 11월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고사포구분대진지를 몸소 찾으시였다.

이날 적기편대가 포진지상공에 오만하게 달려들었으나 자신의 신변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사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시며 대공전투를 몸소 지휘하여주시였다. 그이의 보살피심에 고무된 고사포병들은 이날 대공전투에서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여 2대의 적기를 박산냈다.

수령님의 크나큰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날에 날마다 전투훈련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갔으며 백발백중의 명사수,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후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에 맞게 전군을 간부화, 현대화하고 진지를 요새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의 관철을 몸소 조직령도하여주시였다.

1954년 12월 분계선가까운 어느 한 초소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전술훈련을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분대장이 작성한 방어략도를 보시면서 분대장에게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을 조성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는 분대지휘를 잘한다고 치하하여주시고 백두밀림에서 일제를 족치던 전투경험도 알려주시였다.

1966년 3월, 어느 한 녀성고사포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몸소 험한 고지의 포진지에 오르시여 그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으셨을 때에는 비행기에 친히 올라앉아보시고 우리 나라 령공에 기여든 적기를 쏴떨군 영웅들의 전투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비행훈련의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해군부대를 찾으시여서는 친히 함선에 올라가시여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참말로 우리 인민군대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한등급 이상의 직무를 맡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최신군사과학과 현대적군사기술로 무장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육친적인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전선에 세워진 《화선휴양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신보다 우리 군인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군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것은 무엇이나 아끼지 않으시고 선참으로 해결하여주시였으며 군인들의 가슴속 깊은곳까지 헤아려보시면서 위대하고 고매한 사랑으로 군인들 한사람한사람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1,211고지전투가 한창 가렬하던 1951년 9월말, 수령님께서는 자정도 훨씬 넘은 깊은 한밤중에 전선의 한 지휘관에게 전화를 거시여 전투원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념려하시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모두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요. 그 전투원 한사람한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전우들이요.

그전에 우리가 일제군경놈들과 싸울때 혁명전우가 적은것이 얼마나 안타까왔소.

우리는 그 귀중한 보배들을 힘껏 돌봐줘야 하오.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도록 해주고 잠자리도 춥지않게 해줘야 하오. 그리고 전투원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살펴주도록 하시오.》

참으로 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은 끝이 없다.

1951년 적들이 미친듯이 《추기공세》를 감행해오던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돌아온 한 지휘관으로부터 전선형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다가 전투원들가운데 야맹증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야맹증은 영양상태가 나쁜데서 오는것이라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튿날 지휘관들을 부르시여 자신께서는 어제 저녁에 전사들을 걱정하시여 잠을 이루시지 못했다고 하시며 아무리 전쟁을 하는 어려운 때이지만 전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며 전선에 영양상태가 나빠진 전투원들을 휴식시킬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고기를 비롯한 영양가높은 부식물들과 찹쌀을 보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선에서는 세계전쟁력사에서 있어보지못한 《화선휴양소》가 생겨났다.

사실 그때의 전선형편은 몹시 어려웠다. 식량도, 총탄도 모든것이 모자랐다.

이러한 때이지만 우리 군인들은 영양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전사들을 극진히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배려로 《화선휴양소》에 가서 영양가높은 음식과 찰떡까지 먹으며 푹쉬다가 다시금 싸움터로 달려나가군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느날, 한 전사가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중태에 빠져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그 전사의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깊이 심려하시면서 유능한 군의들이 그 전사를 책임적으로 치료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대표단이 전선으로 가는 편에 친히 환약과 인삼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지극한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그 전사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여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 전사에게 차를 보내여 그를 부르시고는 전사의 부상당한 자리를 조심히 쓸어보시며 아직도 괴롭지 않는가고 몹시 걱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이만 가서 몸을 더 안정하는게 좋겠소. …몸이 건강해야지, 조급한 마음만 가지군 안되는 법이야!

원쑤를 치고 혁명을 하는것은 오늘래일만하는게 아니니까. 앞으로 더 무거운 임무가 있고 더 어려운 싸움이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하오. 몸조리를 더 잘하고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구…》

그는 그후 건강이 회복된 어느날 또다시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위훈을 높이 찬양해 주시였으며 점심까지 같이 하시면서 사양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몇번이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가는 그에게 거듭 건강하여 학교에서 공부 잘 하라고 타일러주시였으며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자신께서는 잡곡밥을 잡수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디에

가시거나 우리 군인들부터 먼저 찾으시여 그들이 배불러 먹는지, 춥게는 지내지 않는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살뜰히 보살펴주시였고 전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가를 념려하시여 몸소 발싸개를 풀어보기도 하시였다.

전쟁의 일시적후퇴를 겪던 1950년 10월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몸가까이 데리고다니던 친위중대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던중에 강냉이에 입쌀을 섞어먹는다는것을 아시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자신께서 강냉이밥을 해잡수더라도 전사들에게는 이밥을 먹여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목숨걸고 판가리싸움을 하는 전쟁때에, 더우기 조국과 인민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 준엄한 일시적후퇴시기에 우리 전사들이 강냉이밥이라도 매끼 먹는것만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이께서는 전사들이 밥에 강냉이를 조금씩 섞어 먹는것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였다.

전사들을 극진히 아끼시는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잡곡밥을 잡수시면서도 이튿날 옥백미 다섯가마니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였다.

이처럼 언제나 자신보다 우리 군인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수령님께서는 1951년봄에는 어느 한 공병구분대작업장을 찾으시여 군인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것을 보시고는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지 못해 안됐다고 하시면서 서해의 어로공들이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여 그 전날밤 바다에 나가 잡아온 생선을 보내주시였다.

음식과 장맛까지 친히 보아주시며;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충분히 갖추어주시고 언제나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수있게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군인들이 배고파하지 않는지, 고기와 기름, 남새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음식을 맛있게 해먹는지 항상 걱정하시면서 부대와 구분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식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52년 4월 25일, 어느 한 통신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한 전사가 콩장을 만드는것을 보시고 《콩으로는 콩장을 해먹는것보다 두부를 만들거나 콩나물을 길러먹어야 영양가도 높고 맛도 있소.》라고 일깨워주시면서 야외에서 콩나물을 손쉽게 기르는 방법까지 친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52년 6월 평북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여 몸소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비행사들이 먹고있는 식찬을 살펴보시고 조선사람은 김치가 있어야 밥먹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김치와 생선, 닭알과 사과를 비롯하여 비행사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더 많이 공급해주라고 거듭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부모와 지휘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군인들의 가슴속 깊은곳까지 다 헤아리시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60년 8월, 어느 한 해안포병구분대를 몸소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의 식생활을 깊이 료해하시고 지휘관들에게 아무리 영양가높은 음식이라도 늘 같은것만 만들어주면 전사들의 입맛을 돋굴수 없고 궁금증을 덜수 없으니 지짐도 지져주고 기름떡도 만들어주며 명절때는 색다른 음식도 갖추어주라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3년 8월, 동해의 어느 한 해군함정구분대를 찾으시여서는 파도치는 바다에서는 음식을 만들기 힘들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병들에게 바다에 나가 먹을수 있도록 영양가높은 갖가지 통졸임을 잘 만들어주라고 간부들에게 말씀하시고는 친히 밥통졸임을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해병들의 가슴속 깊은곳까지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바다에 나가면 시원한 음식이 제일 그립다고 하시면서 해병들에게 무우동치미와 갓김치 같은것을 많이 만들어주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을 찾으시여 전사들이 먹는 음식과 장맛까지 친히 보아주시고 조금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곡곡 풀어주시면서 온갖 육친적인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에게 고기를 얼궈두고 먹으라고 랭동고까지 보내주시고도 1971년에는 또다시 거액에 달하는 국가자금으로 군대의 육류공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을 여러곳에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수 있게 여러 지방에 남새생산을 전문화하는 농장들과 이 사업을 담당지도하는 전문기관까지 새로 꾸려주시였으며 여기에 수백명의 기술자들을 뽑아보내주시였다.

군복과 신발에 이르기까지도;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더 잘 입히시고 더 좋은 신발을 신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계신다.

1963년 2월 6일,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끌끌한 우리 전사들에게 훈련하는데서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도록 군복을 더 잘 해입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겨울옷은 비날론천을 가지고 겹으로 지어입히며 외투는 솜을 넣어서 모양있게 해주고 신발도 더 보기좋게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1963년 3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군인들이 입을 비날론겹동복과 솜외투의 시제품들을 보아주시던 때의 일이다.

한 후방일군이 새로 만든 외투를 보여드리자 그이께서는 그 외투를 전사에게 입혀보라고 말씀하신 다음 외투모양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아무리 보아도 모양이 없고 전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겠다고 걱정하시면서 자신의 외투를 친히 전사에게 입혀주시며 소매도 끼워주시고 단추까지 채워주시였다.

우리 군인들을 금싸라기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신발이 나쁘면 산고지에 있는 군인들이 발을 얼굴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사들에게 신발을 잘 만들어주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극진한 사랑이 담긴 겨울신과 여름신을 해마다 내주실뿐아니라 수행하는 임무와 생활조건에 따라 털신이며 장화, 단화, 운동화들을 신겨주시고 매개 군인들에게 외출용 가죽구두까지 공급하여주시였다.

녀성군인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녀성대원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녀성군인들을 살뜰히 보살펴주시였다.

1963년 3월 어느날, 한 녀성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춥지 않는가, 양말이며 화장품들이 모자라지 않는가고 일일이 물으시며 그들의 생활과 옷차림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군인들이 다 똑똑하고 훈련도 잘하는데 좋은 천으로 군복을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자는 빨찌산때 쓰던것과 같이 만들고 군복치마는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이 입던것처럼 주름도 잡고 아래도 퍼지게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을 형상한 영화를 보시면서 그들의 차림새처럼 보기 좋게 우리 녀성군인들을 더 잘 입힐수 없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시였으며 회의중의 짧은 휴식시간에도 녀성군인들의 복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녀성군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사랑이 담긴 모직으로 만든 군복과 외투, 모자를 공급받고있을뿐아니라 신발도 운동화, 단화, 장화, 털신 등을 골라가면서 신고있다.

일상생활의 가장 작은 부문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는 바늘과 실, 비누, 치약, 치솔, 학습장, 지어 손톱깎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공급되는가 그 언제나 살펴주시고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1960년 8월 어느날,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군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고향은 어디며 집에는 누구누구 있는가, 고향에서 편지는 자주 오는가 물어보시고 군인들이 목달개를 한주일에 세번씩 갈아다는데 지금 실을 가지고 모자랄수 있으니 넉넉히 주어야 하겠다고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동해의 어느 한 해군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함선기관에서 내뿜는 고열의 뜨거움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헤아려보시며 어떻게 하면 해병들이 뜨거운 열을 덜 받으며 작업할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하여 심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시면서 함선의 기관과 관련한 기술서적들을 몸소 연구하시였으며 과학자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상론도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며 작업하는 해병들에게 갖가지 보약과 과실 그리고 과실즙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63년 2월 어느날, 한 전연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고지에 물이 넉넉하지 못하다는것을 아시자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자재를 아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양수기를 놓을 자리까지 보아주시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보내주시였다.

또한 어느 한 녀성구분대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녀성군인들의 방에는 큰 거울이 있어야 녀성들이 늘 거울에 자기의 옷차림을 비쳐보면서 몸가짐을 단정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며 지휘관들에게 큰 거울을 마련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군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것은 무엇이나 다 해결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머리를 기르는것을 좋아한다는것을 들으시고는 머리를 기르는데 필요한 리발도구를 보내주시였고 후방견학도, 휴가도 꼭꼭 보내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군인들이 사진을 찍어 고향에 보내주고 싶어하는 심정을 헤아리시고 부대들에 값비싼 사진기까지 갖추어주시였다.

군인들의 락천적인 생활을 위하여; 우리 군인들을 친자식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휴식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싸움도 잘하고 훈련도 잘해야 하지만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출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분대마다 손풍금과 하모니카를 비롯한 갖가지 악기들과 오락기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으며 영사기, 사진기, 체육기재 그밖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과 수단들을 넉넉히 마련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구분대 지휘관, 정치일군대회에 몸소 참가하시여 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군인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구분대와 초소를 찾으실 때마다 텔레비죤을 보는가, 영화를 제때에 보는가, 손풍금이 모자라지 않는가를 알아보시면서 우리 군인들의 문화생활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는 인민군협주단을 비롯한 중앙전문예술단체들을 싸우는 화선의 전호속에 보내시여 전사들이 훌륭한 공연을 보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시는 그 바쁘신 때에도 시간을 내시여 전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의 생활이 랑만이 넘치도록 보살펴주시면서 화선악기를 만들어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구분대를 찾으실 때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모든 군인들이 예술소조활동에 참가하여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66년 2월 8일,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며 군대맛이 나게 전투적으로 잘 한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한 전사의 독창을 들으시고는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한번 더 부르라고 먼저 박수를 쳐주시였다.

전문가도 아닌 그 전사가 노래를 불렀으면 얼마나 잘 불렀으랴, 한 전사의 소박한 노래를 들으시고 찬사를 보내주시고 고무해주시는 그이의 말씀가운데는 인민군대의 예술소조활동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워 모든 군인들이 언제나 문화적으로,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시려는 크나큰 사랑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후방가족들과 군관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공장과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초병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살림형편을 세세히 알아보시였으며 지방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사업을 의논하실 때에도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간곡히 타이르시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연군관가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활보조금과 고기, 콩기름을 비롯한 영양가높은 갖가지 부식물들을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교통수단도 특별히 마련하여 주시고 군인들과 꼭같이 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63년 2월 어느날, 어느 한 전연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연군관가족들의 생활형편을 념려하시여 몸소 사택마을에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족들이 문화주택을 알뜰히 꾸리고 사는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여름에는 그늘도 지고 참 좋다고 하시면서 매 집마다 살구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들을 두서너그루씩 심으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상품공급으로부터 사택마을을 알뜰히 꾸리는데 이르기까지 전연군관가족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며 휴식도 밤잠도 잊으시고 뜨거운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극진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

민군군인들은 삶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성장발전으로부터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언제나 육친의 정으로 우리 군인들을 아끼시고 사랑해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높고도 깊은 은덕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처럼 우리 군인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그이처럼 인자하시고 녀그러우시며 겸손하고 소박하시며 그이처럼 혁명적의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크나큰 포옹력과 감화력을 가지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을 우리는 아직 알지못하고있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그이처럼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진정한 인민의 수령을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더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고계실뿐아니라 공산주의적덕성의 가장 높은 전형을 체현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군대이며 그이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을 받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군대이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사는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운것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언제나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 나아갈 우리 녀성들과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봉건적 및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 온갖 인신적예속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여주시였으며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우리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키워주고 보살펴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자식에게 하나를 먹이면 둘을 먹이고 싶어하고 하나를 입히면 둘을 입히고 싶어하는 어버이심정 그대로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녀성해방문제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지난날 우리 녀성들은 녀자를 업수히여기는 봉건적유교도덕에 얽매여 바깥에도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하였으며 지어는 사람으로 태여나면 누구나 다 가지는 이름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

뼈도 굵기전에 돈 몇푼에 팔리여 부자집 종살이를 하여야 했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매달려 응석부릴 나이에 민며느리로 끌려가 쓰디쓴 시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듯 갖은 착취와 억압, 굴욕과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녀성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누릴수 있었고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녀성들의 처지를 가슴아파하시면서 녀성의 권리에 대한 모독은 전체 인류사회와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녀성문제를 혁명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보시고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간고한 싸움의 나날 우둥불곁에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남녀…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해방운동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제쳐놓고는 승리할수 없다고하시면서 녀성운동을 사회혁명의 중요한 한 고리로 여기시고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그들의 참다운 계급적 및 사회적 해방의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이 자기의 계급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정치적 조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녀회를 조직하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지도밑에 1928년부터 백산지구에서 부녀회 회장으로 일하시면서 광범한 녀성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30년 겨울, 오가자에서 부녀회를 무으시고 녀성들을 혁명화하시면서 부녀회는 어떤 조직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 조직으로 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에게 혁명투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손수 혁명적인 노래도 지으시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손수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가르쳐주신 노래가운데는 《부녀해방가》라는 노래가 있다.

> 넓고넓은 지구상에 많고많은 녀성들
> 하나둘씩 손목잡고 녀자대회 나오라
> 녀자들아 동무들아 단합하여 싸우자
> 계급사회 깨뜨리고 평등사회 이루세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모든 난관을 뚫고 부녀회를 비롯한 반일녀성단체들을 더 높은 단계에로 널리 조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3년 봄, 왕청제2지구 부녀회열성자회의에 참가하시여 부녀회는 유격대활동을 직접 돕는 동시에 군복과 일용품을 장만하고 농사를 지어 식량을 보내며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성심성의로 돌보아주고 유자녀들을 키우는 등 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근거지의 살림살이를 혁명의 요구에 맞게 꾸려나가는것이

당면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부녀회회원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을뿐아니라 녀성들을 조선인민혁명군에 광범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녀대원들은 어디에 가나 특별히 잘 뜨인다고 하시면서 군복도 여러벌 가지고 다니게 하시였으며 전투에서 빼앗은 물품가운데서 일용품같은것이 있으면 먼저 녀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배려하시였다. 수령님의 이러한 깊은 배려와 살뜰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녀대원들은 전투와 행군, 숙영생활과 지하공작 등 모든 생활과 투쟁에서 언제나 무비의 강의성과 용감성,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생활하였으며 열렬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났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녀성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녀성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복잡한 정치정세를 바로잡아나가시기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우리 녀성들이 아직 봉건적구속과 낡은 사회의 인습에서 벗어나지못한것을 언제나 심려하시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녀성문제해결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여 1945년 11월 18일 녀성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으며 1946년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주시였다.

실로 수령님께서 발포하여주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녀성들은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온갖 창조적 적극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광활한 길에 들어서게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녀맹이 광범한 녀성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조직으로서 녀성들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단체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녀맹의 사업방향과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녀성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앙에서 진행되는 회의때마다 녀맹을 잊지 않으시고 적은 성과도 크게 치하해주시면서 앞으로 할 일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녀맹의 크고작은 모든 회의를 발기하시고 아무리 바쁘시여도 회의준비를 몸소 보살펴주시였으며 친히 회의들에 참석하시여 녀맹이 나아갈길을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녀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녀맹일군들을 만나시여 사업형편을 물으시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을 알뜰히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녀맹사업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지극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51년 3월, 전쟁의 일시적후퇴가 끝난후의 그 바쁘신 나날에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리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을 찾아주시였다.

녀맹일군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녀맹단체가 해야 할 일과 피살자가족들이 놀아야할 핵심적역할 등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으며 녀맹일군들의 생활형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 녀성일군이 헌 무명저고리에 남자고무신을 신고있는것을 몸시 가슴아파하시면서 신발이 상점에 오는가, 입을 옷들은 제대로 장만되였는가 등 생활의 이모저모를 친어버이심정으로 알아보시고 곤난한 점들을 다 해결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처럼 뜨거운 육친의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녀맹원들은 가렬한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녀맹사업을 꿋꿋이 밀고나갔으며 녀맹은 그어떤 사나운 바람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전후에도 수령님께서는 녀맹단체가 우리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지도해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녀맹일군들을 만나시여 녀맹사업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며 녀맹원들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녀맹단체가 녀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지도사업을 더 잘할수 있도록 읍, 구, 동 녀맹위원장들을 유급으로 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혁명가로 키워주고계신다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하여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에게 지난날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가하게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에게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안겨주심으로써 나라일을 의논하는데 직접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1946년 11월 3일, 해방후 첫 민주선거가 있을 때였다.

이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녀성들을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는것을 반대하여나섰으며 지어 녀성들을 선거에도 참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기까지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첫 민주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들속에 녀성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선거를 이틀앞둔 11월 1일에 평양시 민주선거경축대회를 여시고 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데 정권기관선거에 인민의 반수가 참가하지않는다고하면 그 정권은 참된 인민정권이라고는 도저히 말할수 없다고하시면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도 전적으로 구현되여야하며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선거로 될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때 수령님의 말씀을 들은 녀성들은 일제시기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자기들을 나

라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해주시려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너무나 커서 북받쳐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우리 녀성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밑에 각급주권기관선거에 떳떳이 참가하였으며 선거결과 얼마전까지만해도 착취와 억압, 무권리속에서 헤매던 많은 녀성들이 국가주권기관에 참여하여 나라일을 의논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우리 녀성들을 끊임없이 교양육성하시여 국가, 경제기관의 중요간부로, 관리일군으로 일하게 하여주시였으며 그들 모두가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에 자기들의 모든 창조적 지혜와 열성을 마음껏 바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1963년 9월말 어느날, 어느 한 협동농장 처녀관리위원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아주시며 관리위원장이 됐으니 대단하다고하시면서 기뻐하시였다.

《이젠 농장의 주부가 됐으니까 살림살이도 더 잘해야지!》

그이께서는 다 자란 딸을 보고 대견해하는 아버지처럼 그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1964년에 이 농장을 다시 찾으시였을때에는 이 처녀관리위원장이 공산대학에 공부하러갔다는것을 아시자 리내 간부들에게 그를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시며 이제는 나이도 들었는데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하시며 신랑감도 구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녀성관리위원장이 1968년 9월에 평양에서 있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수령님께서는 5년전인 1963년에 보시고는 처음보는 그를 잘 알아보시며 그가 공산대학을 나온후 농장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어머니로 되였다는것을 아시고 몹시 기뻐하시였다.

문명한 녀성으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질곡과 왜놈들의 악독한 식민지우매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지와 몽매의 암흑세계에서 헤매이던 우리 녀성들을 문명한 녀성으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그 언제나 심려하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지주집 아이보개로, 눈픈 소경으로 천대와 구박을 받으며 고생만 해오던 우리 녀성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유능한 경제관리일군으로,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황남도의 어느한 성인학교에 다니던 한 녀성을 부르신 일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시여 그 녀성의 손에 쥐여주시며 우리 나라 글을 한자두자 가르쳐주시였다.

1948년 5월, 문맹퇴치전람관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문맹에서 벗어난 녀성들의 그 기쁨은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문맹을 퇴치했으니 녀성들도 더 많이 공부하여 일반지식수준을 훨씬 더 높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곳곳에 근로자학교와 근로자중학교를 세우시여 녀성들이 일하면서도 공부를 할수있게 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녀성간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앙당학교와 공산대학, 인민경제대학을 비롯한 간부양성기관과 공장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 녀성들을 많이 보내주시였으며 그 비률을 높이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녀성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경제관리에 유능한 일군은 경제관리일군으로, 예술에 소질이 있는 녀성은 예술인으로 키워주시였다.

1963년 2월 어느날, 평양시 삼석마을 축산분조의 한 녀성양관리공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양들은 잘 자라는가, 털은 얼마나 깎았는가, 털깎는 기계는 있는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양을 잘 기르자면 양의 특성과 기르는 법을 부모가 자식들을 아듯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자신께서 중요한 대목에 붉은 연필로 손수 줄을 그으시며 보시던 축산교재를 보내주시였다.

량강도의 어느 한 산골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였다.

한 녀성이 노래에 소질이 있는것을 발견하신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 그를 만나시여 그의 전도문제를 놓고 친어버이가 딸을 대하듯이 의논해주시였으며 그를 음악대학에 보내시여 훌륭한 음악가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의 커다란 력량으로 보시고 그들을 혁명가로 새조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워주시기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은 누구나 글을 보고 쓸수 있게되였을뿐만아니라 일반지식과 높은 과학기술문화지식을 가진 문명하고 발전된 녀성으로 되였으며 그들가운데서 많은 녀성들이 당과 정권기관, 사회단체, 경제, 과학, 문화, 교육, 보건 등 여러분야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맡은 혁명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 나가고있다.

녀성해방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우리 녀성들이 사회에 광범히 진출하여 자기의 창조적지혜를 마음껏 꽃피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언제나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녀성해방문제의 종국적해결의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일뿐아니라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가장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녀성해방의 력사적과업이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들이지 않고 부엌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아이를 업고 일하는것을 몹시 걱정하시여; 수령님께서는 1947년 초가을, 산간마을인 양덕군 온하리에 찾아오시여 몸소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추세워주시기 위하여 이곳 농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던 때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구지골 리로인네집에서 리녀맹부위원장이 아이를 업고

있는것을 보시자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사업하느라고 수고가 많겠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을 맞이하려 너무도 급히 오다나니 아이의 옷도 갈아입히지 못하여 아이를 내려놓기 거북스러워하는 이 녀성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를 어서 내려놓으라고 몇번이고 타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어린것을 안고 볼도 만져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주시며 한동안 애무해주시다가 그 녀성에게 가족은 몇이며 땅은 얼마나 분여받았는가, 살아가는데 곤난한것이 없는가고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녀성에게서 배운것이 없어서 녀맹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것을 들으시자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사업하자니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배우면서 일하면 더 발전할수 있으니 학습을 잘하라고 그에게 크나큰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전국 도처에 육아원과 애육원을 세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키울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원쑤들에게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유격근거지에서 보호양육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전시에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줄데 대한 구체적조치를 취해주시고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애육원, 유자녀학원, 초등학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였으며 1952년 3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여시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바쁘신 나날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는다고 하시면서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자라는 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곳곳에 간부들을 보내시고 차에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주시였으며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들이 자라는 형편을 늘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벽돌한장 성한것이 없고 한 그람의 세멘트가 귀하던 그때에 제일 먼저 어린이들을 위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을 지어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맞게 어린이들에 대한 집단적인 양육사업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시려; 수령님께서는 당과 정권기관의 일군들을 만나시면 녀성들에게는 가정적부담이 많고 또한 남자에 비해 체질이 약한것만큼 도시와 로동자구에 경공업제품을 만드는 지방공업공장과 분공장을 꾸려주어 힘에 맞게 적당한 시간의 일을 시키도록 신신당부하시였으며 그 집행정형을 늘 알아보시였다. 그리고 공장도 잘 꾸리고 녀성들이 기술기능수준도 높이고 기술혁신을 해서 힘들지 않게 일하도록 해주라고 일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를 지도하시거나 지방에 현지지도로 나가실 때마다 녀성들을 만나면 일하기 힘들지 않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생활에서 걸리는 점은 없는가, 출근은 몇시에 하고 퇴근은 몇시에 하는가, 저녁밥을 짓을 시간과 빨래할 시간은 있는가 등 사업과 생활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시고는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5년 9월, 어느 한 방직공장의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불가피하게 공장과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심정을 헤아리시고 공장 가까운 곳에 남자들이 많이 일하는 큰 공장을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장은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으로 되여야 하겠는데 탁아소, 유치원도 크게 잘 지으라고 타이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시는곳마다에서 지도일군들을 만나시여 가장 훌륭한 건물을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돌리게하시고 폭신폭신한 이불과 영양가 높은 간식을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도록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지극한 배려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녀성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세워져있는데 년간 어린이 한사람당 870여원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의 유급휴가제를 보장해주심과 함께 아이가 셋이상 되는 녀성들에게는 휴식과 문화생활을 넉넉히 하면서 가정일도 돌보고 아이들교양도 잘 할수 있도록 그들의 실정에 맞게 하루의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도 8시간 일한것과 같은 보수를 받게하시는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지어 휴양소에 까지 탁아소를 설치하여 아이가 있는 녀성들이 마음껏 휴양생활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9년 1월, 평안남도 순안군 원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우리 녀성들은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옷가지도 기워주고 빨아도 주느라고 남자들보다 하는일이 더 많다고하시면서 녀성들을 부엌에서 해방되게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이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덜어주기 위하여 곳곳에 옥쌀내는 공장, 장공장과 같은 식료가공공장들을 마련해주시였고 옷수리소와 빨래집, 직장상점, 밥공장, 가족식당 등 편의봉사시설들을 많이 내오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의 세간살이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였다.

1958년 5월, 수령님께서 어느 한 림산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였다.

마을어구의 한 가정의 부엌에 들어선 그이께서는 가마속에 흰쌀밥이 담긴 점심그릇이 놓여있는것을 보시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이 집 아주머니에게 간장, 된장맛이 어떤가를 알아보시기도 하고 방안에 들어가시여서는 이불을 만져보시며 이 고장의 추운 날씨에 이부자리가 얇지않는가고 못내 걱정하시였다. 그리고 주인의 한달 수입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보시면서 세간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 방도를 차근차근 일러주시였다.

이렇듯 수령님의 세심하고 따사로운 보살핌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우리 녀성들은 오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수령님께서는 도시와 로동자구는 물론 농촌과 어촌,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탁아소와 유치원부터 먼저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않으시여 자주 탁아소와 유치원을 찾으시여 해빛은 잘 드는가, 아이들이 건강한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물질은 넉넉히 공급되는가, 놀이감의 색갈이 어떤가 등 세심히 물어보시면서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1956년 2월, 평안남도 개천군 천동

광산을 현지지도하신 수령님께서는 광부들의 아들딸들이 자라는 광산탁아소를 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잘 자라는가고 물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시였을 때 어린이들은 그이께 달려가 조롱조롱 매달렸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스물여섯명의 어린이들을 하나하나다 품에 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탁아소일군들에게 어린이들이 잘 노는가, 어린이들에게 간식은 어떻게 먹이고있는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나서 어린이들에게는 영양가도 높고 소화가 잘 되는 록두도 볶구지말고 먹이며 간식을 구미에 맞게 만들어주어야 겠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직접 키우고있는 어머니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고나서 이날 양지바른 곳에다 탁아소를 새로 하나 더 지으라고 친히 터까지 잡아주시였다.

1962년 1월, 황남도 신천군 석봉리 새날협동농장 (당시는 협동조합)유치원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고나서 아이들은 발이 뜨뜻해야 잘 놀기때문에 온돌방이 좋다고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병없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실로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잘 자라고있다.

친히 수첩에 이름까지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판매원녀성들을 친히 찾으시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58년 1월 어느날, 보통문상점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친히 수첩에 판매원녀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고향은 어디며 지금은 상점에서 무슨 일을 하고있으며 상점에 오기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고 하나하나 물으시면서 그들의 가정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판매원녀성들이 추워할세라 념려되시여 보이라를 놓아주라고 하시면서 발이 시리지 않게 솜을 둔 신과 버선도 두컬레씩 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지어 수령님께서는 그 신을 인민군대 겨울신처럼 앞끈을 매지 않고 옆에 단추를 달아 신기 헐하고도 뜨뜻하게 만들어줄데 대하여까지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판매원녀성들의 겨울작업복을 만들어줄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작업복은 뚱뚱하게만 하면 처녀들이 좋아하지 않을터이니 등에 솜을 두툼하게 두고 앞은 솜을 얇게 놓아 맵시있게 만들어주는것이 좋겠다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우리 상업부문녀성들에게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후에도 여러번 상점매대를 찾으시여 판매원들이 입은 솜옷을 몸소 만져도보시며 판매원들이 신던 신발도 만져보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였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1967년 12월 19일 저녁, 평양시 대동문식료상점 판매원녀성들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산 닭을 파는것을 보시자 산 닭을 파는것은 닭의 무게가 줄어들게하고 상점의 녀성들에게 고생이나 시켰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하시면서 매가정에서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고 집집마다 할머니들이 다 있는것도 아닌데 누가 잡겠는가, 그러니 산 닭을 파는 락후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타일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산 닭을 고기가공공장에서 말끔히 가공하여 얼군 다음에 그것을 상점에 가져다 걸어놓고 시민들이 사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면서 그 처리방도에 대해서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상점을 지도하신후 수령님께서는 통성고기가공공장에 현대적인 닭고기가공직장을 새로 내오게 하시고 닭고기와 내장을 깨끗이 씻어 비닐주머니에 한마리씩 넣어서 상점들에 내보내도록 하시였으며 고기 파는 상점들에 랭동기까지 보내주시여 언제나 시민들에게 신선한 닭고기를 공급할수 있게하여주시였다.

1964년 봄, 강계연필공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연필에 2중도색을 하는 한 녀성도색공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한동안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더니 냄새가 나는데 마스크를 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에게 마스크와 앞치마를 꼭 해주도록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1966년 12월 31일, 평양방직공장로력영웅인 한정방공이 수령님을 모시고 설을 쇠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들의 설맞이모임에 참가했을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을 오시면서 차창밖으로 스친 녀성들의 신발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이 정방공을 만나시더니 먼저 신발형편부터 물어보시면서 지금 무슨 신발을 신는가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름비닐편리화를 신었다고 말씀드리는 그의 신발을 눈여겨보시며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왜 지금까지 겨울신발을 신지 못했는가고 물으시고는 빨리 겨울신발을 만들어서 두달안으로 시내녀성들에게 모두 신기도록 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느 한 가정을 친히 방문하시여;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1967년 6월 13일, 함흥시 흥남구역 서호동에 사는 어느 한 녀성로동자의 가정을 친히 찾으시였다.

그때 그 녀성로동자는 산전휴가를 받고있는 때여서 집에서 어린애옷을 손질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한 녀성로동자에게 안주인인가고 물으시면서 허물없이 부엌에 들어서시여 막내 딸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듯 손수 솥뚜껑도 열어보시고 찬장안의 갖가지 그릇들과 부엌아궁도 찬찬히 살펴보시고나서 방바닥을 짚어보시며 구들은 더운가, 불은 잘 드는가 무더운 여름날에 벌써 겨울걱정까지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불보의 량끝을 들어올리시고 이불의 색갈과 무늬들을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얇지않는가를 아시고저 눌러도 보시며 덮는데 무겁지않는가고 물어도 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녀성에게 식구는 몇이며 주인은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월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음식은 어떻게 해먹으며 기름은 얼마씩 공급받는가, 그밖에도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이 녀성이 이제는 정말 부러운것을 모르고 산다고 말씀올렸으나 아직 기름이 적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녀성들의 생활형편을 돌봐주시기 위하여 친히 찾으신 가정이 그 얼마나 되며 그 몇날이나 되는지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있다.

그이께서 보내주신 보약; 력사적인 우리 당 제4차대회를 앞둔 1961년 9월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당대회대표들인 함흥시 녀성대표들이 든 려관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룡성기계공장 2주물직장의 한 녀성작업반장을 만나시여 작업반성원들은 몇명이고 룡성기계공장에서 일하는 녀성동무들은 몇명이나 되는가고 하나하나 물으시고나서 안색을 흐리시면서 어째서 얼굴색이 그런가, 어디 아픈데는 없는가고 몹시 걱정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녀성동무가 스물아홉살인데 어린애가 없는것까지도 걱정하시며 얼굴에 병색이 나타난다고 안색을 흐리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다녀가신후 그 녀성동무에게 병이 있으니 잘 치료해주라고 친히 의사까지 보내주시였다.

한 평범한 녀성로동자의 얼굴색을 보시고도 그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그처럼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을 온몸에 느끼며 청진기를 대는 의사의 눈시울에도, 진찰을 받는 그 녀성의 눈시울에도 감격의 이슬이 맺혔다.

수령님께서는 이름없는 한 녀성작업반장의 병을 고쳐주라고 이 의사에게 친히 보약까지 보내주시였다. 룡성의 한 평범한 녀성로동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유능한 의료일군을 보내주시고 치료까지 받게 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않으시여 결혼한후 어린애없이 살아온 그의 안타까움을 깊이 헤아리시여 친히 귀중한 보약까지 보내주신것이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1963년 1월 어느날, 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그 녀성에게 새 생명의 출생을 알리였다. 그들 부부는 태산보다 높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잊지말자고 어린애의 이름을 <은덕>이라고 지었다.

이것이 어찌 룡성의 녀성작업반장 한사람에게만 돌려주시는 사랑이며 배려이랴, 이것은 이나라의 모든 녀성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이며 사랑인것이다.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나라의 정사를 보살피시기에도 바쁘신 그이께서 이름없는 한 녀성작업반장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것만도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극진한 배려까지 돌려주시니 그가 어찌 아니 이나라 모든 녀성들이 눈물없이 그냥 지나칠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사는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사회혁명에서 청소년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직접 조직지도하시여 공산주의청소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사로청과 소년단을 창립하시고 그를 오늘과 같은 불패의 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후비대로, 근위대, 결사대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에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고 있다.

진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혁명의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조선의 청소년학생들처럼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세대들은 이 세상에 없다.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청소년사업발전과 후대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육친적배려의 력사이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청소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소년들을 사회혁명과 새 사회건설에서 가장 생기있고 적극적인 부대로 보시고 청소년운동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청년운동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친히 교양육성하신 청년전위들을 핵심으로 하여 첫맑스-레닌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투쟁목적인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시는 한편 1926년 12월 15일 무송에서 우리 나라의 첫 공산주의적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신문《새날》을 창간하시고 문풍지우는 추운 겨울날에도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새날》신문 발간에 정력을 쏟아 부으시며 수없이 밤을 지새우군 하시였다.

어느날 밤 무송에 오셨던 할머님께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시는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좀 쉬라고 권하시였을 때 그이께서는 조선을 독립시킨 뒤에 쉬겠다고 하시며 다시 그밤을 새우시였다.

이처럼 수령님의 직접적인 이끄심밑에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가지고 공산주의청소년운동의 길을 걷게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그의 확대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몸소 다년간 육성하신 조선혁명군대원들과 공산주의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에 선참으로 불러주시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이후에도 무장투쟁의 조건에 맞게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및 적통치구역안에 공청조직들을 무어주시고 그를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1933년 3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왕청공청확대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공산주의청년운동의 목적과 조직원칙, 군중공작방법, 청년군중속에서의 선전선동사업의 내용과 방법, 학생소년사업 등 혁명적청년운동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공청조직들과 청년공작원들에게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왕청공청확대회의를 비롯한 매 단계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는 청년공작원들과 공청원들의 뼈와 살로 되였으며 공청의 모든 활동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밑에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되였으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혁명적청년동맹 건설과 활동에서 이룩한 풍부한 업적과 경험, 청년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청년적인 사업방법 등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체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공산주의적소년운동발전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 혁명의 새세대들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사업방법과 혁명적사업작풍으로 일관된 우리 나라 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의 통일적조직인 민청과 소년단을 무어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과 청소년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 새 민주조선건설의 주요 역군이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광범한 통일적조직인 민청과 소년단을 무어주시였다.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당의 전투적후비대인 민청을 조직하는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해방직후 각 정당들이 제각기 자기 산하에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으며 국내반동들은 각종 반동단체들을 조직하고 청년운동을 분렬파괴하려고 책동함으로써 청년운동은 매우 복잡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간파하시고 《민주주의 기발아래 민주청년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대중적인 청년조직인 민청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이 방침을 무턱대고 《우경화》라느니, 《청년운동의 퇴보》라느니 하면서 그 실현을 방해하여나섰다.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육성하신 혁명투사들을 청년조직에 파견하시고 민청창건을 위한 투쟁을 몸소 령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민청창건을 위한 10여차례의 각종 회합을 조직지도하시였으며 청년학생들의 여러가지 모임에도 꼭꼭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도 해주시면서 청년들이 하루빨리 각성되고 새 조국건설에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하여 일떠서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다.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하여 민청창건의 방침이 함남도와 황해도의 광범한 청년들속에는 알려지지도 않고있을 때 수령님께서는 손수 강연제강을 작성하시고 멀리 해주에까지 내려가시여 도내 청년일군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다.

또한 민청창건준비를 늘 검토하고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였으며 민청의 강령규약과 동맹창립선언서를 친히 가필도 하여주시면서 대회의 진행절차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이처럼 세세한 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1946년 1월 17일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창건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까지 손수 친필하여주시였다.

《…신국가건설에 가장 중견이 될 조선청년남녀들이여!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자각하라! 우리는 총력량을 집중하여 전조선인민의 복리를 보장할수 있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루바삐 건설해야 할것이다.

화려한 삼천리강산의 주인인 조선청년남녀들이여! 세계에 자랑할만한 민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자!…민족단결을 방해하고 분렬책동을 꾀하는 일체의 반동분자들과 용감히 싸우자! 피끓는 이 땅의 청년들이여! 오라! 모이라! 단결은 힘이다. 그리하여 그 단결된 힘과 끓는 정열로써 이 거룩한 사업을 완수하자!》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수령님께서는 민청을 창건해주신데 뒤이어 1946년 6월 6일 조선소년단을 창립하여주시였다.

조선소년단은 《김일성장군의 기발아래 뭉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서 해방된 조선소년들을 자기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수령님께서는 선거선전을 잘하여 새 민주조선건설에 큰 도움을 준 강원도 문천군 소년단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여 앞으로 소년단사업과 학습을 더잘하며 몸을 튼튼히 다져 훌륭한 일군이 되라는내용의 편지를 친히 보내주시였다.

조선소년단창립 첫돐을 앞둔 1947년 어느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평양종로인민학교와 기림인민학교를 비롯한 시내 인민학교의 소년단대표들을 친히 부르시였다.

소년단원들과 다정하게 자리를 같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교들에서의 소년단조직형편과 소년단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초기혁명활동의 나날 무송과 길림, 카륜과 오가자에서 우리 나라 첫공산주의적소년조직을 무어주시고 지도해주시던 나날을 돌이켜보시는듯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을 잘해야 새 민주조선의 훌륭한 일군이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는 나라만이 강한 나라라고 하시면서 아동단원들처럼 소년단조직을 튼튼히 꾸려 나갈데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47년 8월하순 어느날, 금강산야영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3명의 소년들을 친히 만나시여 그들과 담화까지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산업국과 교

통국에 전화를 거시여 그들의 생활에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48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에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배우며 준비하자!》라는 새 구호를 주시였다.

이 구호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를 다지던 이 시기 조선소년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 투쟁목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자 우리 민청원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제일 먼저 불러주시였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전쟁이 시작된지 불과 수주일동안에 약 85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을 탄원하여 나섰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고지의 병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피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은 리수복, 신기철, 박원진 김창걸 영웅들, 두팔과 두다리를 잃고 육탄이 되여 적진에 뛰여든 강호영, 두팔을 잃고도 이발로 중기의 압철을 눌러 원쑤미제를 전률시킨 조군실영웅,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전우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킨 한계렬영웅 등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수많은 청년영웅들과 수십만의 젊은 전투위훈자들이 나왔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돌려주시였으며 그들이 한 자그마한 성과라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피끓는 애국의 열정과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1년 1월중순 어느날, 《안주탄광소년근위대》에서 용감히 싸운 안주군 립석중학교 단위원장을 친히 만나시여 그들의 투쟁이야기를 다들으시고나서 다른 나라에는 청년근위대는 있었지만 소년근위대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야말로 영웅조선의 아들딸들이요.》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친필로 된 감사문과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황해도 소년단원들이 미제를 족치는 마음으로 소년호 비행기, 땅크, 함선 헌납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쇠붙이와 벼이삭을 주어 모은 돈 550만원을 전선원호금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잘 싸우라는 내용의 편지를 친히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육친적사랑파 고무적 힘과 용기는 소년단원들로하여금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하였다.

소년단원들은 일시적후퇴시기 전선과 후방을 도와 안주, 옹진, 선천, 고성, 린제, 영흥, 벽성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소년근위대》, 《소년빨찌산》, 《소년자위대》를 무어 미제원쑤들과 용감히 싸웠다.

이시기 대표적인 소년단원들의 투쟁집단만 보더라도 《안주탄광소년근위대》, 《선천애육원소년빨찌산》, 《국사소년빨찌산》, 《린제피끓새소년빨찌산》, 《금강소년근위대》, 《조옥희소년자위대》 등 50여개나 된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기대와 신임을 어길줄 모르는 혁명전사로 단련되였으며 청소년조직은 보다 위력한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너희들이 잘 자라는것을 볼때마다 우리는 기운이 솟는다.》; 1958년 12월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우리 나라 혁명의 요구에 맞게 조선소년단에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영예로운 구호를 주시였으며 소년단사업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열다섯돐을 맞던 1961년 6월 6일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시였으며 《조선소년의 영예상》표창까지 정해주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시련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소년단원들과 있는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날 소년단원들의 행사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참가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날 각도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주석단에 오르실때였다.

주석단뒤 층층대로 몇걸음 옮기시던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오늘은 소년단원들의 명절이니 너희들이 앞장서야지》라고 하시며 그들더러 먼저 주석단으로 오르라고하시면서 머뭇거리는 그들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자애로운 웃음을 띄우시고 아이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면서 《오늘은 대단히 기쁜날이다.… 너희들이 잘 자라는것을 볼때마다 우리는 기운이 솟는다.》라고 하시면서 소년단대표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사열행진이 나갈때는 옆에 선 간부들에게 《우리 소년단원들이 군대를 못지않소.…규률이 있습니다. 아주 잘합니다.》라고 치하해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지덕체를 상징하는 가장물이 나가는것을 보시고서는 《…저렇게 지덕체를 갖추고 너희들이 자라서 우리 조국의 역군이 될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발전할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보다 큰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전행사를 다 보시고나서 간부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소년단원들과 같이 지냅시다. 오후에는 경기장에서 소년단원들의 집단체조가 있고 저녁에는 극장에서 공연이 있다는데 다 같이 갑시다.…

1966년 6월 5일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조선소년단창립 스무돐기념전국련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해주시였고 사진전람회와 소년예술축전종합공연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조선소년단이 지난 스무해동안 해놓은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앞으로 할 일들과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소년단사업에 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파 크나큰 배려, 높은 기대는 끝이 없다.

수령님께서는 소년단열성자들의 원팔에 다는 열성자표식에 이르기까지 직접 보아주시였으며 1969년 12월 21일 평양서문인민학교단의 한 소년단반장을 만나시여 그가 쓰던 반일지를 한페지한페지 번지시며 보아주시고는 반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으며 평양남산고등학교 어느한 분단의 벽보를 친히 보아주시고는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써야한다고 하시였다.

1970년 7월 4일 현지지도로 가시는 길가에서 꽃밭을 가꾸고있는 평양시 룡성구역 청계중학교 학생문화위생근위대원들을 보신 그이께서의 차를 멈추시고 …소년단원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면서 좋은일을 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사로청은 당 다음가는 중요한 정치적조직; 참말로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청소년사업에 돌려주시는 극진한 사랑과 배려, 크나큰 기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고인들이 도랑을 치면 치는대로 흐르는것과 같이 청년들은 이끌면 이끄는대로 따라갑니다.…**라고 하시며 직접 청년운동을 조직지도하시여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힘이 있어야 나라가 힘있고 청년동맹이 사업을 잘해야 당이 튼튼하고 혁명과 건설이 잘되여간다고하시면서 사로청을 당 다음가는 중요한 정치적조직으로 내세우시고 사로청사업에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우리 혁명의 특성과 청년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1964년 5월에 열렸던 민청제5차대회에서 민청을 공산주의적 대중적조직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쳐주시였다.

이리하여 당의 전투적후비대인 청년동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청년들의 위력한 혁명적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청년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로청창립이후 무려 200여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직접 주시였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1967년 9월 15일교시와 1968년 10월 11일교시, 1971년 6월 24일교시를 비롯한 일련의 교시들에서 사로청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청소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것이 우리 당을 강화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쳐 주시였으며 사로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62년 5월 3일교시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가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사로청조직들이 절반이상의 힘을 학생사업에 돌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미제무장간첩선 《프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을때에는 전국청년총동원대회를 마련하시여 전체 청년들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선동에 서서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가르쳐주시였다.

1969년 1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로청사업을 전면적으로 토의하게 하여주시고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70년 11월 24일교시에서 **《청년사업을 잘하고 못하는것은 사회주의에로 가는 과도기에 사회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로청조직들이 핵심을 소년단생활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워서 넘겨 받아 그들을 다시 키워서 당에 보내는 식으로 핵심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소년단, 사로청, 당—3대동맹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간부대렬을 젊고 지식있고 진취성이 있으며 청년다운 기질을 가진 일군들로 꾸림으로써 청년조직을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등 현시기 사로청사업에서 나서는 중심문제들에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0년 11월 30일 중앙의 한 행사에서와 며칠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는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여 주시면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 사로청사업에 대하여 많이 실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다음날 석탄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에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청년들에게 영웅칭호를 많이 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12월 5일교시에서 사로청은 한일이 많기때문에 기념보고회를 크게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사로청창립 스물다섯돐기념회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주시였다.

이처럼 매일과 같이 청년사업을 조직지도하여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2월 3일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및 사로청위원장협의회에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의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6월 24일 사로청제6차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청년운동의 위대한 강령으로 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로청사업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사로청조직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는것은 한두가지 사실만 놓고도 잘 알수있다.

1969년 11월 5일 수령님께서는 강선제강소의 직장장이상 간부들을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부르신바 있었다.

그이께서는 회의가 시작되여 어느한 직장초급당비서에게 사로청원은 몇명이며 직장사로청위원장도 회의에 참가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사로청위원장이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게 된 수령님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비서가 회의에 가는데는 사로청위원장도 꼭같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과거 유격대에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로청의 역할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사로청은 당조직 다음가는 조직입니다. 오늘 같은 회의에 응당 직장사로청위원장들도 참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각각 내밀고나가야 합니다.

그전에 혁명활동할 때에는 공청원이 …잘 싸웠습니다. 투쟁도 잘하였고 규률도 잘 지키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의 힘을 크게 믿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가 끝난 다음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포치하는 석상에서 당이 내놓은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이 먼저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로청대회를 제일 먼저 소집하고 대축전형식으로 조직할것을 몸소 발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요일에도 쉬시지 않으시고 두번씩이나 사로청 제6차대회 보고초안을 보아주시고 청년들의 성과를 보고에 많이 담으라고 하시면서 혁신자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와 지방당, 내각과 각 성, 행정기관들이 모두 달라붙어 사로청 제6차대회준비사업을 도와주도록하여주시였다.

대회는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 청년대표들은 물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5대륙의 110개의 나라들에서 온 94개의 청년, 학생대표단과 51개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 기타 민주인사를 모두 300여명의 외국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소년사업을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모든 조건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주고계신다

훌륭한 교양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로청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언제나 훌륭한 교양조건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해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일군들은 비할개를 치고다니며 일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있습니다. 소년단사업도 정말 하기 좋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준비된 간부에 대한 요구가 절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키우신 젊은 공산주의자들을 청년사업간부로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을 골간으로 로동자, 고농, 빈농 출신의 청년들과 혁명가유자녀들로 사로청일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사로청일군양성체계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로청대학을 세우시고 각 도 공산대학과 시, 군 당학교에 사로청일군반을 내오게 하시였으며 사로청일군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울수 있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금성정치대학도 새로 내오게 하시여 수많은 소년단지도원들을 훌륭히 키울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기 위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완성하시고 온 나라를 조밀한 학교의 그물로 뒤덥게 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다시 공장, 기업소와 농촌의 근로청년들이 일하면서 체계적인 교육교양을 받을수 있게 정연한 청년학교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특히 청소년사업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일찌기 《로동청년》신문의 창간에 즈음한 력사적교시에서 청소년출판물의 혁명적임무를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로동청년》, 《소년신문》, 《청년생활》, 《새세대》, 《새희망》, 《우리 동무》등 수십종의 잡지와 도서들을 발간하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해마다 그의 부수를 훨씬 늘이고 사로청출판사와 인쇄공장도 따로 짓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4월부터 중학교소년단원들을 위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간하신 신문의 이름을 그대로 지닌 신문《새날》을 발간하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종류가 가장 많고 부수도 제일 많으며 종이도 제일 좋은것으로 값도 눅게 출판배포되는것이 바로 청소년출판물이다.

《모든것은 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재부와 우리가 생산하고 건설하는 모든것은 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집들과 극장, 문화시설들도 다 후대들을 위한것이며 우리가 절약하고 증산하기 위하여 애쓰며 과수원을 잘 가꾸고 논밭을 알뜰히 거두는것도 다 우리의 후대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것입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해방직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청소년교양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전후 재더미만 남은 그 곤란한 시기에도 제일 먼저 평양시가 한눈에 안겨오는 언덕우에 청년회관부터 지어주시였으며 그후 련이어 세상에서 제일 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청년회관, 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등 수많은 문화시설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가운데서 장재대우에 웅장하게 솟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동해의 항구도시 원산시에 일떠선 청년회관에 깃든 이야기만 놓고도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교양시설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를 가슴 뜨거이 느끼게된다.

우리 나라에서 《왕》은 어린이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경치 좋고 사방이 환히 트인 평양 장재대언덕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의 배움터로,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보시고 이 보금자리를 내주도록하시였다. 그리하여 1950년 이른봄부터 궁전이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미제가 이땅에 전쟁의 불을 질러 궁전은 완공을 보지못한채 불타고 말았다.

전후 돌마저 타버린 재더미우에서도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더 좋고 더 큰 궁전을 세워주실 구상을 하시고 아직 나라형편이 어려웠던 1956년에 오늘의 평양학생소년궁전건설을 발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궁전의 설계와 건설을 놓고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일군들과 건설일군들을 직접 만나주시였으며 궁전을 잘 지어줄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1년 4월, 궁전책임일군들을 댁에까지 친히 부르시여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나서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빨리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줍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꽃봉오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잘 지어줍시다.》

그후에도 수령님께서는 1961년 10월 13일에는 몸소 학생소년궁전건설장에 나오시여 본관의 옥상에까지 올라가보시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갈데가 없으니 어서 빨리 지어주자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관이나 홀들은 바닥이건 벽체이건 다 대리석을 붙이는것이 좋겠소. 좋은 대리석을 두었다가 어디에 쓰겠소. 아이들을 위해서 씁시다.…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하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처음에는 8,200평방메터로 설계되였던 궁전이 그의 5배도 넘는 5만평방메터의 건물로 수도의 푸른 하늘높이 솟아올랐으며 1963년 9월 30일,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평양학생소년궁전창립행사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1층 자동차연구실로부터 시작하여 궁전의 연구실들과 활동실마다에 들리시여 해빛은 잘 드는가, 실험기구와 시약들은 다 갖추어져있는가, 악기와 체육기자재들은 모자라지 않는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왕》은 어린이들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건평이 5만평방메터라면 대단하오. 그러나 아무리 커도 아까울것이 없소.…우리는 어려서 천대받고 못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야 잘 길러야 하지않겠소！…》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몇차례씩 궁전에 찾아오시여 항일의 나날 하모니카를 불고싶어하는 아동단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 소원을 풀어주시던 친어버이심정으로 궁전소조활동에 필요한 모든것을 선참으로 돌려주시고 학생들이 만든 제품 하나, 체육기자재와 악기 하나를 다루는것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차를 타고 궁전앞을 지나시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궁전으로 들어가는것을 보시면 못내 기뻐하시고 당중앙의 높은 창가에서도 궁전을 바라보실 때면 새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학생소년들에게 높은 기대와 신임을 표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는 수령님의 배려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 깃든 이야기뿐이 아니다. 원래 원산시에는 로동회관을 짓기로 되여있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는 청년교양을 위한 집결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자리에 국제회의도 할수 있는 현대적인 청년회관을 짓도록 설계도 보아주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밤중에 전화를 거시여 공사진행정형을 알아보시고 원산—금강산간 도로포장공사에 쓸 세멘트까지 돌려주시고 모내기철에 농촌지원으로 나가게된 대학생들을 모두 청년회관건설에 동원시켜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처럼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원산시에는 동해에 금빛해살을 뿌리며 세계1등급의 현대적청년회관이 일떠서게 되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평양시에 3,000명을 수용할수 있는 청년학생려관을 지어줄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청소년학생들의 견학려행문제를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서까지 채택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내각결정 제1호로 《김일성청년영예상》까지 제정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미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6년 1월 17일 민청창립열돐을 기념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로 되는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제정하여주시고 해마다 수많은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일군들을 표창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긴 수많은 우리 나라 청년들이 영예로운 조선로동당원으로, 공화국영웅으로, 공훈배우와 인민배우로 체육명수들과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났다.

서 지도하시는 혁명군대원들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소년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라는것과 학습을 하여도 조선혁명을 위해 써먹을수 있게 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밤이면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시면서 손수 교재원고도 쓰시고 교과서 등사까지 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고유수에서 삼광학교, 오가자에서 삼성학교 등 가시는 곳마다에서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자제를 위한 학교와 야학을 세워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자주 소년들을 찾으시여 이야기모임, 웅변대회 등도 조직하여주시였으며 소년들로 연예선전대를 무으시고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혁명적인 노래들과 《단심줄》춤, 《혁명군을 따라》, 《게다짝이 운다》 등의 짧은 극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아동단원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넓고 깊게 다지도록 유격근거지마다에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1933년 겨울, 소왕청유격근거지의 아동단학교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자신은 피수구골안에 있는 작은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고 지내시면서도 아동단학교는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집으로 정해주시였고 깊은 밤에도 아동단학교를 찾으시여 아이들이 잠결에 이불을 차던지지 않았는가, 손발은 깨끗이 씻고 자는가, 오늘 전투때 아이들이 놀라지는 않았는가 아동단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며 모포를 손수 덮어주시고 베개도 바로 잡아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아동단원들을 무릎에 앉히고 연필을 꼭 잡아주시며 틀린 글자를 고쳐주시기도하고 저녁이면 때때로 아동단원들을 우등불결에 모여놓고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인민의 투쟁이며 우리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글뒤주》가 되지 말고 혁명에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주로 오전에 리론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사격훈련, 전술훈련과 비밀통신련락, 정찰, 보초임무수행, 간첩 잡아내는 일 등 항일유격대를 돕는 일을 하도록하시였다.

이와 같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미래의 조선혁명의 담당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청소년학생들에게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이 누구나 다 지덕체를 갖춘 새형의 인재로, 열렬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자라나도록 크나큰 관심을 돌려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의 위대한 강령을 손수 작성하시면서《…**노예교육의 철폐,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실시할것.**》이라고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후대교육교양문제를 혁명운동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활동의 매 시기마다 후대교육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어린이들을 미래의 조선혁명의 담당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진명학교와 삼광학교, 삼성소학교를 세우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그 간고한 불길속에서도 아동단학교를 세우시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키워주시였다.

1930년 여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쟈쟈둔에 오시여 이곳에 4년제진명학교를 세우시고 가난한 농민들의 아들딸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당시 진명학교의 교원으로는 그이께

지, 덕, 체를 갖춘 새형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세상에서 으뜸가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청소년학생들에게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방후 수령님께서는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인민적교육제도를 세워주시는 한편 성인교육체계, 통신 및 야간교육, 로동학원과 산업간부학교, 대학예비과, 단기강습 등 각종형태와 방법으로 배울수 있게 해주시였으며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과 각급 학교들을 세워주시였다.

1945년 10월 28일,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 대동군내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마을에 학교를 짓는 일을 의논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달렸으니 후대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곳곳에 중학교를 세우고 대학도 세워 우리 나라를 떠메고 나갈 민족간부를 빠른 시일내에 길러내자고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풀밭을 헤치시고 학교를 지을자리, 우물을 팔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터전에 중학교가 섰다.

그이께서는 이 학교의 개학을 앞둔 어느날 학교 교직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교과서를 쓰는 일에서부터 운동장에 학생들의 씨름터를 마련해주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학교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자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삼흥중학교》라고 하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새형의 인재를 양성해야 나라가 흥할수 있다는 그이의 위대한 교육사상이 담긴 고귀한 이름이였다.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겠소.》;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하여 따로 학원을 세워주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시였다.

1947년 3월 24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붉은기 만경대혁명학원(당시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을 세울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곧 학생모집위원회를 내오게 하시고 학생들을 데려오는 사업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동북으로 떠나는 항일투사의 한분을 친히 만나시여 왕청에 가면 어느 때 희생된 누구의 아들이 있을것이고 또 어디에 가면 어느 전투에서 전사한 누구누구의 자녀가 있을것이니 꼭 찾아오라고 일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7년 8월 3일, 또다시 학원에 찾아오시여 학생들과 따뜻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그들은 모두다 자기의 마지막 유언에서 앞으로 조국이 해방되면 자기들의 어린 자식들을 공부시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 나는 그들의 이 유언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이 해방되면 학원을 세워서 혁명가의 자제들을 나라에서 공부시킬것을 생각해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학원을 세우게 되였다.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들의 뜻을 이어 훌륭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학원을 다녀가신지 보름이 지난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몸소 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시려고 또다시 찾아오시였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때는 마음은 컸어도 부족한것이 많아서 아이들을 마음껏 공부시키지 못했지만 오늘에야 왜 못하겠소.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겠소.…

수령님께서 몸소 학원일군들과 건설일군들을 데리고 무성한 잡초밭을 앞장서 헤치시며 앞에는 만경봉이 보이고 옆으로는 대동강을 끼고 또 앞이 환히 트인 양지바른 언덕우에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이 나라 청소년학생들을 자주 찾아가시여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시면서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학생들의 학습장을 한장한장 펼쳐 보시며; 1947년 7월초 어느날 평양 제2인민학교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한 학생의 답안지를 자세히 보아주시고 치하하시면서 그의 희망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 학생이 건축가가 되겠다고 대답하자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공부를 잘해서 평양의 훌륭한 학교와 궁전들을 너의 손으로 지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1948년 8월, 수령님께서는 삼신탄광마을을 현지지도하시다가 마음껏 뛰놀고 희망에 넘쳐 제나라말과 글을 배우고있는 탄부들의 아들딸들이 못내 보고싶다고 하시면서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천리마안악중학교(당시 평양 제6중학교)를 찾으시였다.

교직원,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는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였으며 앞으로 할일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때에는 일본놈자식만 공부하던 이 학교에서 오늘 탄부들의 아들딸이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학교로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이것은 다 자기 나라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공부도 더 잘하고 민청, 소년단 사업도 충실히 하여 새 조선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학생의 책가방을 여시고 손수 학습장을 꺼내시여 한장한장 다 펼쳐보시고는 …글을 잘썼는데 학습장에 표지가 없어서 안되였습니다. 앞으로는 표지를 곱게 만들어 씌우고 잘 거두어야 합니다…라고 따뜻이 타일러주시였다.

그리고 한교원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상태를 들으시고는 학교의 절대다수가 로동계급의 자녀들이고 나머지는 고농, 빈농의 자녀들인만큼 그들을 잘 가르쳐주어 과학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체육과 써클사업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운동장도 넓히고 직관물도 충분히 갖추어놓으라고 가르쳐주시였다.

1950년 4월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천리마송림중학교를 찾아주시여 강철전사자녀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동물수업을 받고있는 3학년 5반교실에 들어서시자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아버지원수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을 앉으라고 하시면서 수업을 계속하라고 하시며 수원과 함께 가볍게 바닥을 밟으시며 조용히 뒤켠으로 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꽃봉오리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뒤에 앉은 학생들의 학습장을 하나하나 펼쳐보시며 깨끗이 거두고 잘 정리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잠시후 수령님께서는 한 학생앞으로 다가가시여 긴장해서 토끼심장을 그리고있는 그를 말없이 지켜보시다가 자애로운 음성으로 …토끼의 심장이 자기 위치에 그려 지지못했구만…라고 하시며 그 학생의 연필을 손수 잡으시고 토끼심장을 고쳐그려주시였다.

《학습도 전투요!》;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겼던 조국해방전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고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진격작전을 몸소 계획하시고 전선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고산진 정로인의 집에 한동안 머무르고 계시던 1950년 12월 16일 밤, 그이께서는 떠나기 직전 이로인네 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간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책과 연필을 선물로 남겨주시였다.

이때 수령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기념으로 책을 주시면서 그안에《…공부를 잘하라고 이 책을 줌》이라고 쓰시고는 그밑에 친히 날자와 자신의 이름까지 써주시였다.

1950년 겨울, 수령님께서는 고산진의 어느 한 농민의 집에 계시면서 원쑤놈들을 쓸어눕힐 위대한 전략전술을 세우시고 전선을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틈을 내시여 학생소년들의 학습생활까지 친히 보살펴주시였으며 한 학생을 친히 만나시여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까지 안겨주시였다.

전쟁이 가렬하던 1951년 4월 하순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최전선이 바라보이는 강원도 이천군 방장면의 한 마을에 찾아가시여 면인민위원회 서기장에게 학교를 안전한 곳에다 짓고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며 학용품도 잘 보장해주라고 가르치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치렬한 격전들로 하루해가 저물군하던 1952년 4월 12일 저녁,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멀리 순천군 백송리 깊은 자모산성기슭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예군인학생들의 이불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학생들의 학습정형과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울수 있도록 주체성있게 학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신문, 잡지들에서 조국해방전쟁에 대하여 쓴 글들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작업복이 한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심중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작업복이라….일을 하자면 작업복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사실은 교복이 필요하단 말이겠지… 이왕이면 전쟁전 그대로 교복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전쟁을 하는 때이니까 차림새부터 전투적인게 좋소. 그래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어떻소?…라고 하시며 자신이 입고 계신 소박하고 간편한 옷모양대로 해주도록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쓰는 종이를 학년수에 따라 충분히 주도록 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떠나시기전 한 영예군인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부를 잘해야 하오. 공부도 미국놈을 족치는것이요. 전선에서 돌아오지못한 동무들이 얼마나 많소. 그들의 몫까지 배워야하오.…이제부터는 학습전선에서 잘 싸우시오.…학습도 전투요!…

세계 그 어느 나라 력사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 후대들을 후방깊이 안아들여 학비를 대주며 이불, 지어 학습장까지 헤아리시는 수령이 있었던가!

오직 우리의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만이 전쟁승리를 그리도 환히 내다보시기에 전투에 참가한 청년학생들을 친히 부르시여 대학에로 보내주시고 멀리 외국에 류학도 보내주시며 고지우에 선 교원들을 불러 다시 교단에 세워주시였다.

1952년 5월 10일 이른새벽, 평남도 대동군 동암인민학교의 한 분교를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키낮은 학생책상에 몸소 마주 앉아보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여도 어린이들의 연한 등뼈가 휘지 않도록 맞춤한 책상과 걸상을 짜주어야 하겠다고 거듭 타일러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방바닥에 깔려있는 삿자리도 들어보시고 군데군데 흙이 떨어진 바람벽도 둘러보시면서…어린이들은 장차 우리의 사업을 이어받을 미래의 주인공들이며 우리 나라에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들을 이런데서 공부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벽도 잘 매질하고 더 깨끗이 꾸려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며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였다.

1952년 6월 16일, 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숙천군 검산중학교를 찾으시여 학생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주시면서 공부는 잘하는가? 앓지 않는가? 일일이 물으시며 미제승냥이들을 하루속히 몰아내기 위하여 학업에 정력을 기울이며 나무 한그루, 풀한포기, 돌하나라도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이곳에 더 훌륭한 학교를 크게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1952년 9월 9일, 인민군후방가족들을 만나 보시기 위해 폭탄의 불비속을 뚫고 마산리 장백마을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한 소년을 부르시여 날이 흐리면 교실안이 어둡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제 전쟁을 이길 날도 멀지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한후에 학교부터 지어주겠다.…라고 하시였다.

돈 한푼 안들이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여; 전후 벽돌한장, 세멘트 한포대가 천금보다더 귀중하였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교부터 세워주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학교를 짓는것입니다. 만일 학생들을 한해동안 공부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대가 그만큼 전진을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은 당중앙위원회와 적지 않은 중앙기관들이 아직 땅굴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은 해빛이 환하게 비치는 학교에서 공부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수령님께서 하신 이 교시에는 우리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고매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아직 전쟁의 상처가 채 가셔지지 못했던 1956년에 벌써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해주셨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터전을 닦던 1958년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중등의무교육의 길을 열어주시고 1959년에는 얼마되지 않던 수업료마저 영영 없애주시였다.

미제가 또다시 전쟁의 포성을 터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큰힘을 넣어야 했던 1967년 4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나라의 모든 새세대들이 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돈 한푼 안들이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주시였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세심하다 해도 우리 새세대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그처럼 높고 깊으신 사랑에 비할수 없다.

연필에 깃든 이야기; 우리는 연필을 손에 쥘때마다 후대들을 위해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4년 4월, 조국의 북방 한 연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날 해방직후를 감회깊게 돌이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해방직후 내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위원장을 할 때 해방은 되였지, 어린이들을 공부시키자니 연필은 없지, 아주 곤란했소. 그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째 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하고 토의했소.…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연필공장하나 없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몽다리연필마저 쥐여보지 못하였다.

오직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째 의정에 연필문제를 내놓고 풀어주신 이후에야 아이들은 제 나라 글을 제 나라 연필로 마음껏 쓸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로 공장들은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이 준엄한 시기에도 수령님께서는 연필공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다놓고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시였으며 실습생들을 외국에 보내여 선진기술을 배워오게 하시였다.

전쟁이 끝나자 수령님께서는 원료가 나오는 가까운 곳에 연필공장을 크게 지어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나날에도 상점에 들리시면 먼저 연필매대부터 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평양제2백화점에서만도 연필문제와 관련하여 다섯차례나 교시를 주시였다.

1955년 8월 20일, 평양제2백화점에 들리신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이 쓰는 연필이 좀 나아졌는가고 물으시고 손수 연필을 깎아도 보시고 써도 보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이 연필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연필이 나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로동자들에게 기술을 배워주어 여러가지 색갈의 연필도 만들고 설계가들이 쓰는 제도연필도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연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향나무도 더 많이 심으며 연필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정목사업소도 내올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수령님께서는 일부 좋은 나무는 외국에서 사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좋은 연필을 만들어주자고 하시였다.

바로 이처럼 친어버이의 사랑이 담긴 그 연필로 우리 청소년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웠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 불타는 고지우에서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썼으며 전후 재더미우에 새율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열아홉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신 통학렬차; 후대들을 위해 항상 심려하시는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하많은 이야기가운데서 열아홉아이들을 위한 그이의 뜨거운 친어버이사랑을 우리는 만대를 두고 길이 전할것이다.

혜산에서 후창쪽으로 380리가량 가면 압록강에 흘러드는 자그마한 후주천이 있다.

후주천을 끼고 시오리 남짓하게 거슬러올라가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련하마을이 있고 또 이십리를 더 가면 드렁골, 독림마을이 오붓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이 세 마을의 열아홉명 어린이들이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통학렬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있다.

이 지구우에 경위도를 가로세로 지나간 철길이 수없이 많고 많지만 그 철길우로 달리는 렬차는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허나 이 열아홉명의 어린이를 태우고 달리는 사랑의 꽃렬차만은 시간표가 따로없이 그애들이 타면 떠나고 내리자면 멈춰선다.

1969년 여름 어느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이 이름없는 두메산골 어린이들의 통학조건을 념려하시여 도에 몸소 전화를 거시고 통학렬차를 만들어주라고하시였다.

그리하여 열아홉명을 위해 기관차와 려객차를 따로 만들고 정거장도 새로 짓고 거기에 역장을 비롯한 역종업원들이 배치되였다.

언제 이곳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길이 멀다고 생각해본적이 있으며 그들을 낳아키운 부모들도 언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기쁨만을 알았지 시오리학교길이 멀다고 마음을 써본적이 있었던가.

오직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친부모도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시오리 길걸음을 못내 걱정하시며 이렇듯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강도 시중군 산간마을에서 독로강나루를 건너 학교로 가는 열다섯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따로 세워주시였으며 미술전람회에 나붙은 한장의 유화를 보시다가도 학생들의 교수에 리용했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시며 신기한 물고기 한마리를 보시고도 학교에 보내주시며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댁에 하나밖에 없는 악기까지 보내주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어디에 비길수 있겠는가

수령님께서 이처럼 돌려주시는 그 육친적사랑과 두터운 배려가 있기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나라에서부터 무려 1만여원의 혜택을 받고있다.

이것은 실로 인구 1인당 교육비지출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백장의 모포를 덮는다고 한들 내가 더워질수 있겠소?!》;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의 생활을 육친적인 사랑으로 돌봐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인 까닭에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단순한 인간성에서만 출발하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우리의 투쟁목적이 앞으로 착취와 압박이 없는 행복한 사회에서 그들을 잘살게 하자는데 있는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양양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특히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우리의 후대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였으며 그들을 조선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추운 겨울날에 홑옷을 입고 지내시면서도 아동단원들에게는 두툼한 솜옷과 이불, 털모자가 차레지도록 하시였으며 자신께서는 근거지인민들과 함께 나무껍질, 풀뿌리로 끼니를 이으시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크고 넓은 집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지내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아동단원들의 학용품을 마련하여 주도록 하시였으며 준엄한 싸움의 나날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1936년 3월, 수령님께서는 북만원정을 마치시고 조국으로 진군하던 길에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찾아주시였다.

당시 이곳에서는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하여 조선혁명의 피줄을 이어갈 후비대육성에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고있었다.

이자들은 유격투쟁에서 아동단원들이 큰 《부담》으로 된다고 전혀 돌보지도 않았으며 지어는 천진란만한 그들을 《민생단》련루자라는 감투를 씌우고 갖은 행패를 다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오시여 사랑의 넓은 품에 그들을 모두 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내가 백장의 모포를 덮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소?!… 라고 하시며 자신께 가져온 단 한장밖에 없는 모포마저 앓아누운 아이에게 덮어주시였으며 항일무장대오의 조직을 위하여 집을 떠나실 때 강반석어머님께서 남자의 주머니에는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쥐여주신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20원, 그돈으로 아동단원들의 옷을 해입히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이 아이들을 혁명의 폭풍우속을 뚫고나갈 미래의 조선공산주의자로 키워나가자고 하시며 함께 데리고 떠나시였다.

실로 이 땅우에는 인민의 원쑤를 반대하여 총칼을 들고 싸운 실례가 많지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처럼 그토록 류례없이 간고한 환경속에서 나어린 세대로 조직한 소년중대를 거느리시고 적의 포위와 사선을 헤치며 투쟁한 사실은 없다.

수령님께서는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항일의 그 간고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의 새세대들을 한품에 안아주시였고 강의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대하여 친부모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1964년 겨울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새벽 두시에 만경대혁명학원에 전화로 날씨가 추워지니 아이들이 자는 방에 증기를 더 많이 보내주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돌봐주라고 몇번이고 신신 당부하시였다.

1965년 5월,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던 때 수령님께서는 아침에 학교로 줄지어 가는 열한명의 소년단원들을 길가에서 만나시여 나이는 몇살인가, 부모들은 어디에 다니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나이에 비해 키가 좀 작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맥박까지 친히 잡아보시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황철로동계급의 열한명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귀중한 인삼까지 보내주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소.》;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전쟁의 상처가 아직 가셔지지 않은 창성에 가셨을때 그이께서는 길가에서 신발을 온전히 신지 못한 한 어린 학생의 인사를 받으시고는 《이거 보오, 이 애에게 신발하나 신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애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오.》라고 하시며 그 아이의 집에까지 찾아가시여 집살림을 의논해주시고 그 애에게 새 신발까지 사다가 신기였으며 그 애가 전사자 아들이라는것을 아시고는 그후 그를 만경대학원에 보내여 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소.》라고 하시며 전재고아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최영옥이네형제에게 돌려주신 친어버이사랑은 또 얼마나 뜨거운가!

1960년 5.1절을 앞둔 어느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새교복을 타입은 학생들의 옷차림을 보시기 위하여 친히 차를 보내여 몇명의 학생들을 데려오게 하시였다. 공원에서 뛰놀고있던 남학생들과 녀학생 둘이 승용차를 타고 원수님댁 정원으로 갔다.

그런데 그속에는 전쟁시기에 아버지를 잃은 열네살난 최영옥이라는 녀학생이 있었다. 그에게는 어머니도 없었다.

영옥이의 부모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물으시고난 수령님께서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며 또 물으시였다.

《영옥아,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되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영옥이는 자기보다 두살맏이인 언니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면서 살고있지만 부모없는 자기들에게 아담한 문화주택도 주시고 매달 보조금도 원수님께서 주시기때문에 아무 근심걱정없이 산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이나 바람세사나운 날이면 탄불이 죽을가봐 이웃집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돌봐준다고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들을 돌려보내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부관을 시켜 영옥이네 살림살이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날 밤 다시 영옥이네 3형제를 댁으로 부르시였다.

3형제를 태운 자동차가 수령님댁앞에서 멎자 그이의 가족들이 모두 마중나오시였다.

영옥이네 형제가 수령님을 뵈오려 층계로 올라가는데 벌써 그이께서는 온다는것을 아시고 부드러운 웃음을 띄우시며 내려오시더니 맨먼저 영숙이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으시였다.

《네가 영숙이구나…동생들 데리고 살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느라고…힘들었지?!…이거 손이 좀 텄구나…》

영숙이는 부끄럼도 잊고 수령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숙아, 우지말아, 우지말아…세대주가 울면 되나…어서 그쳐…우지 말아…》

아무리 달래도 그는 울음을 그칠줄 몰랐다.

그날밤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저녁식사도 같이하시며 그림책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하여 밤늦도록 말씀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5.1절날에도 그들이 명절을 섭섭하게 보낼것을 걱정하시여 또다시 댁에 불러다가 명절을 즐기게 하시였으며 멀리 원산에 가있는 영옥이의 맨 아래동생 영희까지 데려다가 그들 4형제를 모두 학원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그이튿날 아침 그들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과, 닭알, 과자 등을 정히 싸들고 부모의 묘를 찾았다.

묘앞에 보자기를 풀어놓으면서 영숙이는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형제는 김일성원수님한테 두번이나 갔댔어요.…원수님께서는 우리를 학원으로 보내주시겠대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토록 불쌍히 여기던 이딸들이 원수님품에 안겨 살아간답니다. 우리 4형제는 고아가 아니예요.…》

그들 형제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긴 크나큰 행복에 겨워 흐르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할수가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 4형제를 학원에 보내주신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자라는가를 친히 보살펴주시였으며 1968년 11월 30일 또다시 영옥이네 4형제를 모두 댁으로 부르시여 그들의 장래발전문제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러기에 얼마전 우리 나라에 왔던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는 최영옥학생을 2일간이나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못해하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사는 조선의 청소년들처럼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소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 남녘땅아이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다.그들도 하루빨리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 안겨야된다》고 자기 소감을 말하였다.

청년들의 생활을 념려하시는 친어버이사랑;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언제나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몸소 공청위원회들을 찾으시여 공청원들과

공청일군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시던 심정 그대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함박눈 내리는 밤길을 헤치시고 평양공청사무실을 찾아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사의 불빛을 보시다가 **《청년들이란 밝고 환하고 명랑한것을 좋아하는데 청년기관의 현관전등이 이렇게 어두워서야 되겠소.…》**라고 하시며 그것을 갈아달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정문을 보시고는 **《…희망과 포부가 큰 청년들이 앞가슴을 쩍 벌리고 네활개를 치며 들어갈수 있게 문을 넓혀주어야 하겠소.》**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날밤 시공청사무실에는 한 청년일군이 밤늦도록 일하다가 책상우에 엎딘채 잠들고있었다.

이것을 본 부관이 당황해하며 깨우자고 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벼이 손을 흔드시며 그냥 두라고 하시고는 조용히 다가가시여 대견한 심정으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손도 다정히 만져보시며 자신께서 입으셨던 외투를 벗으시여 그 청년일군을 포근히 감싸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꺼져가는 난로불까지 지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년일군들의 합숙에까지 찾아오시여 식당과 잠자리들을 일일이 돌보아주시였으며 합숙식모들을 만나시고는 밥은 어떤 밥을 하며 국은 무엇으로 끓이는가를 알아보시고 청년들은 콩나물 같은것을 좋아하는데 그런것을 많이 길러서 먹이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1967년 9월 17일 저녁, 수령님께서는 수해복구를 위하여 동원되였던 청년돌격대원들의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안색을 흐리시며 받으셨던 진지상까지 밀어놓으시고 몸소 돌격대원들의 숙소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수 이불속에 손을 넣어보시며 방은 춥지 않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일일이 물으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고 새이부자리도 보내주시고 아직 겨울도 되기전에 그들을 위하여 난방도 돌리게 하여주시였다. 그날밤 청년돌격대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목이메여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잠을 이루지못하였다.

사로청원들과 사로청일군들의 장래발전문제까지 언제나 념려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10월 만경대혁명학원창립 스무돐을 맞는 날 학원졸업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과 담화하시던 도중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온 한 녀성사로청일군의 사업과 생활정형에 대하여 세세히 료해하시고 앞으로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후 이 녀성사로청일군이 자기 군에 돌아와서 사업하던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한 녀성일군에 대해서 두고두고 잊지않고계시다가 자정도 훨씬 넘은 깊은 밤에 몸소 전화를 거시여 그의 사업형편과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그의 장래문제까지 념려하여주시였다.

《동무들이야말로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을 떨치는 훌륭한 일을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언제나 굳게 믿으시고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배려를 베풀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에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을 해주—하성으로, 송남으로, 독로강발전소건설장으로, 황철건설장으로, 청춘의 활무대인 바다와 천고밀림으로 불러주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벅찬 투쟁속에서 조선청소년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였다.

혁명의 매 시기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서부를 련결하는 이천—세포간 새 철도공사를 전적으로 청년들에게 맡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깊이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이곳 청년철도건설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한해도 채못되는 사이에만도 30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한밤중에 공사현장에까지 자주 전화를 거시여 잠자리와 식생활, 옷차림과 신발 지어 간식에 이르기까지 이곳 청년건설자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안 놓이시여 청년들이 겨울에 세포등판에서 일 하려면 춥겠다고 하시면서 초가을에 푹신한 솜옷과 털모자, 신발을 보내주시였고 1972년 설명절 때에는 많은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도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는이곳 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대원들을 만나시여 그들을 축하하시고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웅청년철도건설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알아보시였으며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천하만물을 다 비친다는 태양도 어느 한구석에는 그늘을 남기지만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해발은 이땅우의 그 어느곳이나 속속들이 비쳐주신다.

그러기에 오늘 조선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고있으며 그이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대를 이어 가며 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고마움에 가슴뜨거워움을 금치 못하여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천년만년 길이 빛날 수령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있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어버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피였습니다.
하늘땅에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행복의 노래이며 대를 이어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충성의 노래이다.

그렇듯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민이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영재》로 우러러 받들고 충심으로부터 그이를 흠모하여 마지않고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고 성대히 경축한 우리 인민은 이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치시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의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며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할 오직 한마음으로 한가슴불태우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 그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

△남반부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면서 미제강점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지가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장구한 나날에 조국을 광복하고 삼천리강토에서 착취와 압박의 모든 질곡을 청산하고 전체 인민이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노래하며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조선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남반부에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둥지를 틀고있고 그들이 조국통일의 위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 조건에서 해방직후부터 공화국북반부에 혁명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몸소 앞장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끌어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웠으며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려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보루로 꾸리시여 남조선인민들에게 혁명의 강력한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북반부 인민들에게 한시도 남조선을 잊지 말며 조국통일후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을 복구하고 그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나 북반부에 하나의 공장을 짓고 농촌에 관개공사를 추진시킴에 있어서나 강철과 옷감의 생산지표 하나를 설정함에 있어서나를 불문하고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잊지않고계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공장 하나,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데서도 하나의 관개공사를 하는데서도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래일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속에는 남조선인민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몫이 들어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고 세멘트공장 하나를 세우실 때에도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할것을 예견하시고 그 규모를 정하시였으며 방직공장 하나를 짓고 농촌마을 하나를 설계하실 때에도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몫을 잊지 않으시고 그 지표를 세우시였고 병원 하나를 건설하고 학교 하나를 더 세우실 때에도 병마에 신음하는 남녘형제들과 배움에 주린 청년학생들을 생각하시며 그 터전까지 손수 잡아주시였다.

1956년 어느날 김일성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던 때의 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해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이 공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시면서 남반부에는 배수리공장 하나없으니 통일된후 남반부의 어업발전에 이바지할 기능공들을 지금부터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59년 10월 기양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통일된후 호남, 평남벌에 뜨락또르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생산을 더 높이도록 하시였고 비날론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관계부문일군들이 1만톤짜리공장건설안을 세우고 그것도 파한것 같이 생각하는것을 보시고 1만톤이 아니라 2만톤능력의 비날론공장을 세워야 조국을 통일한후 헐벗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값싸고 질좋은 옷감을 많이 안겨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후 파산몰락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부흥발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육친적배려는 그이께서 설계하시고 찾으시는 공화국북반부의 공장, 농촌, 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1959년 6월 18일 세번째로 어지돈관개공사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이 공사야말로 한개의 관개대학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우리는 남반부도 북반부와 같이 관개망으로 뒤덮어야 하오. 그러자면 이 훌륭한 관개대학을 통하여 더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해야 하오. 그리고 준비된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하**

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해 11월 어느날 수령님께서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해주승마중학교 소년단원들의 예술소조가 출현한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던 때였다.

그이께서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신후 예술소조원들을 치하하시고 그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던 과정에 그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부모들을 원쑤놈들에게 빼앗겼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을 창문가로 이끌고 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을 들어 해주 앞바다쪽을 가리키시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너희들 저기 남쪽이 보이지?》

어린이들이 일제히 《네, 보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남쪽으로 시선을 모았을때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남조선에서는 지금 미제승냥이놈들이 우리 땅 절반을 차지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때문에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이 책가방대신 깡통을 들고 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있다.

그애들도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고운 옷 입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춤도 추고 가야금도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니…

남조선아이들도 너희들처럼 되려면 어서 날강도 미제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그리구 너희들의 공연을 남반부인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사랑의 품에는, 그이의 깊으신 심중에는 이렇듯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만아니라 남녘의 인민들도 언제나 함께 있다.

실로 미제강점하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누리고 있는것과 같은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는 한없이 뜨겁고 비길데 없이 깊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된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면서 북반부형제들의 동포애적지원의 손길이 지체없이 남조선에 가 닿음으로써 남녘형제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속히 덜어주시려고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남조선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손길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인민들을 빈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모든 귀중한 재부들이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리용될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말씀속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략탈과 파쑈적폭압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시려는 그이의 육친적사랑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파탄몰락되고있는 남조선경제와 놈들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거듭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벌써 8.15직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쫓겨가면서 다른 모든것과 마찬가지로 발전소와 변전소들을 파괴해버린 관계로 전기가 없어 문을 닫게 된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을 생각하시여 그들에게 전기를 보내주시였으며 황해도지구저수지들의 물을 남조선농촌에서도 함께 쓰도록 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후에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온갖 동포애에 넘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55년 5월 26일 수산상으로 하여금 남조선어민들이 자유로이 공화국북반부서해어장에 들어와 고기 잡이를 하도록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킬데 대한 대책을 취하게 하시였으며 1958년 12월 29일에는 수산상과 내무상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하시여 남조선어민들에게 명태성어기에 북반부동해의 일정한 어로구역에서 고기잡이할것을 허락하도록 대책을 취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1955년 11월 8일에 전기상의 성명을 통하여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과 인민들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북반부의 풍부한 전력을 남반부에도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건져내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배려는 1960년 11월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강구하신 대책들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황폐화된 남조선농촌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간공사에 요구되는 불도젤, 엑스까와또르, 기타 기계설비들,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에 필요한 세멘트, 철재, 목재 기타 자재들, 농업기계화에 요구되는 뜨락또르, 화물자동차와 기타 농기계들을 공급할것을 제기하시였다.

또한 남조선농촌의 축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농촌에서 기계화의 완성에 따라 남게되는 역축을 매년 4만~5만두씩 보내줄 대책을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파괴된 남조선어업을 부흥발전시키며 어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3천500톤급 가공모선과 400~500톤급 중형철조선을 포함한 700척의 기관선을 년차별로 공급하여주며 어선들의 동력화에 필요한 열구엔진과 디젤엔진, 그리고 어항들의 수축에 필요한 자재도 보내줄데 대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20만톤능력의 제철 20만톤능력의 제강, 15만톤능력의 압연흑색야금종합공장을 비롯하여 수력발전소, 세멘트공장, 공작기계공장, 농기계공장과 광산기계공장, 비료공장, 판유리공장, 인조섬유공장 등을 우리의 설비와 기술로 건설하여줄 대책을 강구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남조선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전력, 석탄, 선철, 압연강재, 세멘트, 목재, 판유리, 공작기계, 비날론, 인조섬유, 합성수지, 가성소다 등을 해마다 공급하며 수년내에 10만세대분의 다층주택을 건설하여 남조선의 도시극빈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데 대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은 실로 끝이 없다.

수령님께서는 1964년 3월에도 단절된 남북간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남북간의 경제적합작을 실현하며 전민족적력량으로 남조선에 조성된 위기를 타개할것을 제의하시면서 다시금 매년 30만톤의 쌀, 10만톤의 강재, 10억키로와트시의 전기, 1만톤의 화학섬유를 비롯하여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보내줄 조치를 취하도록 하

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취하신 이 모든 조치들은 바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파산몰락하고있는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추켜세우며 그리하여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며 기아와 절량에 허덕이는 농민들과 어민들이 더는 정처없는 류랑의 길에서 헤매게 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높고 깊은 은덕과 심려와 사랑의 표시인것이다.

수령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경제적지원이 실현되였더라면 침체에 빠진 남조선 공장마을과 광산거리들은 흥성거리게 되였을것이며 메마른 들판에 관개수가 흘러넘치며 일자리가 없이 헤매는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였을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남반부인민들을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어버이사랑;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재난과 불행을 자신의 고통으로 가슴아파하시면서 그들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언제나 뜨거운 손길로 살뜰히 보살펴주시며 크나큰 배려를 아낌없이 베풀어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8.15직후에 벌써 일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집도, 일자리도, 먹을것도 없이 짓밟히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걱정하시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방직후 북반부에는 일제침략군대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인 의복, 천, 모포 등 각종 물품들이 놈들이 쓰던 창고와 병영, 정거장 들에 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간부동지를 부르시여 그것들을 모두 한곳에 잘 보관하라고 지시를 주시고 남녘땅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려울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우선 전리품들을 남조선에 실어보내여 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과학자, 교육자 등 저명한 지식인들이 민족적량심을 가졌다하여 교단과 연구실에서 쫓겨나 거지신세가 되여 고생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도 친히 한 간부동지를 부르시여 그들을 데려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서울에 보내시였다.

1946년 8월 초순 어느날 남조선의 과학자, 교육자들은 파견되여간 그 일군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울의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를 데려오라고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당부하시더라는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끝없이 흘리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선을 헤치고 북반부에 들어온 그들을 직접 만나시여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걱정도 하시였고 그들의 가족이 남반부에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일부러 사람을 보내시여 가족들을 무사히 데려오도록 하시였고 그들의 생활을 걱정하시여 건국사업에 푼전을 아껴가며 쓰던 때에 많은 쌀을 매집에 보내주기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남조선인민들에게 각 방면에 걸쳐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남반부의 광범한 지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의 크나큰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지역들에 우수한 간부들과 선전일군들을 파견하시여 대중정치사업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및 문화기관들을 복구하여주시였으며 사회질서를 정돈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함으로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새생활 창조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 준엄한 나날 해방지구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것은 세상에 아직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발기이며 독창적인 사업이다.

이것은 오직 원쑤의 멸망을 명확히 내다보시고 승리를 확고히 믿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에 의하여 남조선 농촌에서는 116만 3천여호의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받아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지주의 착취와 압박, 기아와 빈궁 등 봉건적질곡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본의 노예로 억압받고 착취받으며 기아와 빈궁, 고역에 시달리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도 북반부의 로동계급과 똑 같이 로동법령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공장과 기업소의 떳떳한 주인으로 선포하시였으며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등 온갖 국가적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련이어 사회, 문화, 보건,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화를 위한 대책들과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반부인민들에게 북반부형제들과 꼭 같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의료혜택을 받게 하시였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던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주시였다.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인민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여 《미국식생활양식》에 짓눌리던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게 하시였고 과학기술자들도 인민을 위하여 재능껏 일할수 있게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봉건적질곡에 얽매여 자유와 권리를 여지없이 유린당한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던 녀성들에게도 남자와 같은 권리를 주시였다. 이것은 남조선녀성들의 심장을 더없는 감격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사랑과 보살피심은 우리의 형편이 넉넉할 때나 곤난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뜨겁게 베풀어지고있다.

전쟁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미제침략자들의 무차별적인 야수적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고 우리의 형편이 극히 어려웠던 전후에도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지가지의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9년 1월 리승만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가난한 주민들과 실업자들이 브라질, 빠라과이 등 중남미 여러나라의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종신노예로 팔려가게 되였을 때에도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 받아들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줄뿐만아니라 그들의 기능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생활안정을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주도록 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것을 보실때마다 헐벗고 굶주리고있는 남녘땅겨레들을 생각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북반부어린이들을 보실때마다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는 남녘땅어린이들을 생각하시여 잠못이루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8년 8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을 맞으면서 남녘땅겨레들에게 또다시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먹을것을 구하려 남조선거리를 방황하고있는 수십만의 고아들과 걸식아동들, 청년학생들과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백미 15만석, 직물 500만메터, 수산물 1만톤 및 신발 400만컬레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남조선거리에서 의지할곳없이 류랑하는 고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양육하며 곤난한 처지에 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그 일부라도 방조하기 위하여 임의의 남반부대학들에서 취학하거나 또는 앞으로 취학할 대학생 3천명에게 항구적으로 매달 1천원의 장학금을 제공할데 대한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연재해를 입어 더욱 혹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그때마다 리재민들의 신상을 념려하시여 그들에게 막대한 구호물자를 제공할데 대한 대책을 여러차례에 걸쳐 취하시였다.

1957년 5월 남조선에 극심한 식량위기가 조성되여 남조선 총농가 225만여호의 43.5%인 98만여호가 절량상태에 빠져 기아선상에 있는 절량농민들이 나무뿌리와 풀뿌리로 연명하다 못해 굶어쓰러지는 등의 참극이 수없이 빚어지고 있음을 가슴아파하신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절량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막대한 식량을 공급할 대책을 취하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공화국북반부에서 식량이 풍족한 형편이 못되였으나 수령님께서는 절량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남조선농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 식량의 일부를 나누어주는것이 같은 동포로서의 고상한 민족적의무라고 하시면서 10만석의 구호미와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깊은 배려를 돌리시였다.

1959년 9월 남조선일대를 휩쓴 풍수해로 인하여 수천명의 남조선인민들이 희생되고 근 60만명의 리재민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급한 처지에 빠진 남조선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 백미 3만석, 천 100만마, 신발 10만컬레, 세멘트 10만포대, 목재 150만재를 구제물자로 남조선리재민들에게 보내주기로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리재민구제위원회를 조직케 하시였으며 구제물자들을 전달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것을 그에 위임하였다.

남조선에서의 절량과 기근상태가 항시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 형편에서 수령님께서는 1961년 3월과 1963년 6월에도 남조선의 절량농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혈육의 정을 담아 각각 백미 10만석을 무상으로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1965년 5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 1971년 4월에 있은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배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당의 부름을 받들고 고향을 떠나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혁명전사들과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살뜰히 보살피시면서 끊임없는 배려와 두터운 신임을 돌려주고계신다.

1964년 8월 19일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의 고향이 남반부란것을 아시고 친히 그를 부르시였다.

그 녀성동무가 수령님께서 계시는 숙소앞마당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오래간만에 친정에 온 딸을 대하듯 《…오느라고 수고했소》라고 하시면서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친히 의자를 권하시면서 《동무가 남반부에서 왔다고 하기에 내가 좀 만나서 사업정형을 들고싶어서 오라고 했소.》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기사장의 지나온 경로와 부모와 친척들이 있는 곳 등을 알아보신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와 같이 남반부에서 온 동무들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도 그렇고 통일후에 남반부인민들을 묶어세우는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귀중한 동무들이요.

전라도에는 전라도동무들이 가고 경상도에는 경상도동무들이 가서 일해야지 함경도사람이 가서는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할수 없소. 함경도사람이 열마디하는것보다 동무가 하는 한마디 말이 더 감동되고 더 잘 따라올수있소.

그러므로 동무는 언제든지 남반부에 나가서 일할수 있게 계속 더 배우고 준비해야 하오!》

이어 수령님께서는 그가 일하면서 연구원으로 공부를 계속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의 연구제목을 알아보신후 아주 중요한 연구제목이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호남평야의 토양관리체계도 연구하고 벼재배방법도 연구해서 통일이 된후 그곳에 나가서 농사를 지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혁명동지에 대한 그이의 육친적사랑은 특히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신념과 투지를 안겨주고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찾아 볼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 김종태동지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지하와 산중에서, 거리와 마을에서 지어 원쑤들의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영용하게 싸우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기뻐하시였으며 원쑤들의 악독한 고문을 당하고있는 그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고 몹시 가슴아파하신것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그처럼 뜨겁고 자애로왔기 때문이다.

1969년 7월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종태동지가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다가 원쑤들에게 야수적으로 학살되였다는 비보에 접하였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아파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비분을 금치 못하시고 그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9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를 전국적인 추도기간으로 하여 고 김종태동지에 대한 추도모임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 김종태동지의 혁명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조선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으며 그의 혁명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평양전기기관차공장과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동지의 이름을 붙여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김종태사범대학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고 김종태동지가 희생되기에 몇달 앞서 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고 최영도동지가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되였다는 비보에 접하였을때에도 그이께서는 귀중한 혁명전사를 잃은 비분으로 하여 잠못이루시고 가슴아파하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던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고 김종태, 최영도동지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 그 배려는 남조선혁명가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높은 표창으로서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혁명동지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이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크나큰 사랑은 그들에게 끝없는 새힘과 희망을 안겨주고있으며 불굴의 투지와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충성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끝없이 높아가고 있다.

그이를 수령님으로 모시는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도 드높이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의탁한 해방의 구성, 민족통일의 유일중심으로, 후손만대를 보다 좋고 번영할 휘황한 락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로 조선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으로 우러러 경모하고있다.

△원수님을 전설적영웅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해방직후 남조선출판물들은 앞을 다투어 민족의 태양이신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업적을 소개하였다. 서울에서 발간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김일성은 오래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동천에 높이 솟은 새별과도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근본적타도와 동방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선명히 하고 나타났다…

무송, 장백은 워낙 산악지대요 산림이 무성하여 천험의 요새로 이름이 있지만 김일성유격대를 공격목표로 서뿔리 밀려들었던자는 일군이고 만군이고간에 넋이 떨어지고 혀를 빼물게 되였다. 남으로 가면 남남이 흩어지고 북으로 가면 북녘이 물러났다.

김일성의 활약은 그야말로 종횡무쌍하였으며 혁명도상에 쌓아올린 공적이 허다하여 금일의 그 이름은 세계사에 한자리를 잡아도 손색이 없게 되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처지에서 허덕일때 사람들은 이땅을 구원할수 있는 위대한 수령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나서시였으며 마침내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에게 해방의 찬연한 새 아침을 안아오시였던것이다.

그때를 회상하여 한때 서울에서 살았던 한 필자는 이렇게 썼다.

《8.15후에 나는 김일성장군님이 대부대를 거느리시고 평양에 개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과연 김일성장군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년세는 얼마나 되시며 고향은 어디에 두셨는가?

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속에 그 어떤 전설적인 거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천하를 한손에 틀어쥐고 뒤흔드시던분이시니 아마 50대는 훨씬 지나셨으리라, 무인답게 수염도 기르시고 위엄있는 체격을 가지셨으리라, 인민에게 축지법이라는 신화적인 전법의 소유자로 알려졌고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때려이기신분이시니 그이께서는 용모에서부터 보통인물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했다.

허나 그이께서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의 험난한 길을 거쳐 평양에 개선하셨을때에는 30대의 젊으신 장군이시였다. 그러니 백두산에서 일제의 대군을 무찌르시던때는 20대의 청년이 아니시였던가!

나는 인류가 낳은 고금의 영웅호걸들의 전기도 많이 읽었지만 김일성장군님과 같으신 위대하신분을 알지 못한다. 세계의 빨찌산력사도 보았지만 15년동안이나 백두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가 무적의 황군이라고 자랑하던 100만관동군을 때려눕힌 그런 실례를 알지 못한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일제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대오의 진군이였다. 그러므로 그이께서 계신다는 그자체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었고 인민들에게는 끝없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남조선주민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이 조선독립을 위해서 만주밀림에서 왜적과 영용하게 싸우신 이야기는 일제시기 남조선각지에 널리 전해져있었습니다. 특히 그이께서는 축지법을 써서 동에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일본놈을 족치고 승리하시여 조선민족에게 해방의 서광을 비춰주시였습니다.》

《내가 살던 농촌마을에서만 하더라도 김일성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백두산에 진을 치고 조선독립을 위하여 싸운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유격전술은 신출귀몰한것으로서 아무리 전술이 유능하다는 일본장교놈들도 그이의 전술을 당해내지 못하여 백골이 되여서야 돌아왔지요. 김일성장군님부대는 총도 일본군창고에서 빼앗아서 썼으며 일본놈들에게 총을 가지러간다고 미리 알려주고 기습하여도 일본놈들은 꼼짝 못하였답니다.》

또한 한 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일제에 억눌려 기를 펴지 못하였다. 이때 보천보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를 격멸하시였다는 소문이 남조선의 우리 마을에도 전해왔다.

마을사람들속에서는 축지법을 쓰신다는 김일성장군님은 조국광복의 별이라고 말하였다. 그말에서 모두 용기를 가졌고 조선독립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당시 우리들은 김일성장군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하였다.》

한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서른명에 가까

운 남녀청년들이 일제의 눈을 피하면서 서당에서 야학공부를 하고있었다.

그때부터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님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말을, 하루는 야학에 나가서 어떤 청년이 김일성장군님이 보천보에서 왜놈들을 몽땅 죽였다는 연설을 하였다. 그 순간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다. 가슴이 시원하고 앞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야만적폭격이 절정에 이른 엄혹한 수난의 시기에도 그이를 우러러 새힘과 용기를 얻었고 원쑤와의 싸움에 용감히 나섰다.

서울, 인천, 부산의 로동자들은 반일투쟁에 일떠섰고 호남, 령남의 농민들도 싸웠다. 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은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특히 일제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키려는 기운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속에서 더욱 드높아갔으며 김일성장군님의 조선인민혁명군에 들어가 싸울것을 기도해나서는 일이 빈번해졌다. 경상남도 진주와 진해, 부산, 전라북도 전주등지의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가하려고도 하였고 부산에서 시모노세끼로 가는 관부련락선 《고안마루》의 3등침실 천장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고 크게 쓴 글발이 나붙은것도 이 무렵의 일이였다.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뜯기우는 농민들도, 고역장에서 피땀을 착취당하며 시달리는 로동자들도, 어린이와 늙은이, 아낙네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왜적을 쳐물리치시고 나라를 찾아주실 날이 림박하였다는 전민족적기대속에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새날이 동터오기를 고대하였다. 이 시기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설들이 더욱 널리 퍼지고 자주 이야기되였다. 그이의 위대한 영상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이였으며 힘의 원천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있는 어용학자 가마다사와 이찌로라는 일본인 교원은 자기의 저서 《조선신화》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7년전 (1944년)에 나는 남부조선의 어느 지방 소학교의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후 〈너희들은 현재 일본사람으로서(조선사람을 포함하여)누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있는가? 정직하게 무기명투표를 해보라. 결코 무서워한다든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을 푹놓게 하고 무기명투표를 시켜본즉 놀라울 정도로 그의 67%에 〈김일성〉이라고 씌여있었다.》

이렇듯 조선인민이 그처럼 흠모하여 우러러모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를 때려눕히시고 나라의 해방을 가져오신것이다. 그이께서는 동서고금의 그 어느 영웅도 가져보지 못한 위대한 전설을 낳게하시였으며 세계빨찌산력사에서 류례가 없는 오랜 세월 불멸의 위훈을 쌓아올리시고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조직을 내오고 인민위원회를 세웠으며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를 무었다.

이무렵 남조선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서울에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다. 수령님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은 꽹과리를 두드리며 개성, 려현쪽으로 몰려가기도 했고 수십만군중이 몇번이고 서울역광장에모이여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참으로 기다리고기다리던 수령님이시였다. 오랜 세월 전설로만 들어오던 김일성장군님이시였으며 민족재생의 기쁨과 끝없는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가져다주신 민족의 태양이시였다. 하기에 인민들은 붉은기와 프랑카트를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밀려들어 물결처럼 차고넘치였다. 어떤 할아버지는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축원하는 글발을 새겨넣은 돗자리와 은수저를 그이께 올리려고 정성들여 들고나왔고 어떤 녀인은 시집올때 가지고 온 비단폭에 장군님의 성함을 수놓아 품에 안고나왔다.

여기저기서 춤판이 벌어지고 농악이 울렸으며 감격과 환희의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사람들은 감격과 흥분속에서 장군님을 기다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도 남행렬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뜬소문이였다. 그것은 장군님을 애타게 기다려온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고 엉키여서 이루어진 민족의 념원, 인민의 소망이였다.

이 념원, 이 소망은 오늘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남녘동포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8.15전 기쁠때나 슬플때나 주고받고하던것처럼 일제를 대신한 미제 식민지멍에밑에서의 26년간 그 위대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되뇌여왔으며 되뇌이면서 그에서 신심과 힘을 얻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살며 싸우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민의 수령이신 그이께서는 기어이 오시고야말리라,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마음이며 변할수 없는 신념으로 되고있다.

△원수님을 민족통일의 유일중심으로, 위대한 령도자로, 어버이수령으로 흠모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일제를 대신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우리 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은 남조선인민을 원쑤격멸에로 불러일으키는 홰불로되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필승의 무기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어떻게 살며 싸워나갈것인가하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마음속깊이에 안고 그이에 대한 열화와 같은 경모의 정으로 가슴설레이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있다

전라남도에 사는 한 로동청년은 300여명이 모인 대중집합장소에서 남조선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열렬히 지지하여 이렇게 호소하였다.

《김일성수상님은 우리 남반부동포들에게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수상님의 가르치심은 십분 정당합니다. 사실 박정희는 집권 10년간에 수십만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고 동족을 노예로 팔아 배를 채운자입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다 들고일어나 미제와 박정희매국정권을 타도합시다》

남조선의 한 혁명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우리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

고를 듣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세계에 울려퍼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고를 들으니 새 힘과 용기가 막 솟구친다. 수령님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발전로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금후 우리들의 혁명투쟁방향을 천재적으로 명시하여 주시였다. 우리는 지금 수령님의 이 보고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한 축하연설에서 통일혁명당대표단 단장은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유와 해방의 구성이시고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의 휘황한 등대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투쟁할때만이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통일된 조국에서 그이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통일된 조국땅우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있는가는 많은 사실들을 통해 잘 알수있다.

남조선에서는 70년대에 수령님께서 남녘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오매에도 그리던 그이를 직접 만나뵈옵게 된다는 이야기가 광범히 떠돌고있다.

이런 이야기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광범히 떠돌고있다. 농민들은 고통스럽고 고달픈 일이 있을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위로하고있다.

《70년대에는 김일성수상님이 오신다는데 뭐 그때까지 참지…》

어버이수령님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보여주는 실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있다.

남반부 한 혁명가가 남해안의 한 마을에 찾아갔을때의 일이다. 이 혁명가는 칠순에 가까운 로인을 만나 《나는 김장군님의 높은뜻을 받들고 싸우는 혁명가입니다.》라고 말하자 그 로인은 두손으로 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김일성장군님께서 건강하신지…》라고 그이의 안부를 묻고는 수령님께서 건강하시다는 대답이 있자 《그분께서 건강하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정말 그분을 한번만이라도 뵙고싶소. 그분의 사진이라도 있으면 좀 보여주시오.》라고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혁명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히 모셨던 수령님의 사진을 꺼내보이자 그 로인은 감격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리면서 《장군님, 언제 우리들에게 오시겠습니까, 우리집 식구들, 아니 온 남조선백성들은 오직 수상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하루빨리 이 섬마을에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충성을 토로하였다.

바로 이처럼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온 몸과 마음은 김일성원수님께 향하고있다.

지어 남조선 지배층의 일부계층들속에서까지 서로 속을 털어놓고 말할수 있는 사이이면 《통일은 북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서 술렁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 그이를 유일중심으로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생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데 대한 지향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사실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에 사는 한 청년은 군중이 모인 어느 한 장소에서 《나는 김일성수상님의 충직한 전사이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면서 일편단심 그이께 충실할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는 감옥에 끌려가서도 파쑈교형리들의 야수적인 고문에 굴하지 않고 피투성이의 몸을 추켜세우면서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네놈들이 제아무리 이것을 지워버리려고 하여도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상같이 악당들을 규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심장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만이 자유와 해방의 구성이시며 민족통일의 유일중심이시라는 억센 신념의 뿌리가 내리고있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기치하에서만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룩되고 그이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게 될것이라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을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락원에로 이끌어주실 위대한 령도자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표시하고있다.

그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가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오른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는데 대하여 경탄해마지않고있으며 그에서 희망을 얻고 자기들의 행복한 래일을 보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 락원에로 이끌어주시는 영명하신 수령님의 자애로운품에 안길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념원하며 북반부인민들처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날을 고대하고있다.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에 있는 한 중고등학교 교원 성아무개는 박정희도당이 2천여명의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놓은 군중집회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중상비방하는 허위와 날조로 엮어진 흉악한 문건을 읽을것을 강요하자 그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반공》연단을 공화국북반부의 휘황찬란한 현실을 소개선전하는 혁명적연단으로 전변시켰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장엄한 현실을 소개선전하면서 《영명하신 수령의 품에 안겨야 남조선인민들도 행복하게 잘 살수있다》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청중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열렬한 공감을 샀다.

그의 이 대담한 선전활동은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북반부와 같은 사회제도에서 살기를 얼마나 바라고있는가를 잘 말하여준다.

풍랑을 만나 공화국북반부에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간 남조선어민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와 같은 인민을 위한 제도하에서 살고싶다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고있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무한히 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참으로 좋다.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서 살고싶고 공장에 가보면 공장에서 살고싶고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싶다. 이것은 천사람 만사람이 보아도 일치하게 느끼는 마음이다.》

《김일성수상님이 정치를 하시는 북조선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나는 난생처음 그렇게 좋은 세상을 보았다. 김일성수상님의 령도를 받는 북반부인민들은 먹을걱정, 입을걱정, 자식을 공부시킬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아무러한 근심걱정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있다.

…모든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거리에서 거지하나 보지못했다. 옷을 기워입고 다니는 사람하나 없다. 농촌에 가보아도 모두 기와집이다. 참으로 휘황한 세상이다.

건설도 굉장히 했다. 평양에는 고층건물이 꽉들어찼는데 처음엔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였다. 그런데 모란봉이 있는것보니 평양이 확

실하더라. 서울같은것은 거기에 대비할바도 못된다.

나는 그 모든것이 바로 김일성수상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북조선에서 해놓은 그 많은 일에는 참으로 김일성수상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 잘살게 되자면 하루빨리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에서 희망과 신념을 믿고있으며 착취없고 압박없는 락원에로 인도하여주실분은 오직 수령님뿐이시라고 확신하고있는 남조선각계각층 인민들의 심중을 말해주는 수많은 사실들의 일부이다. 이처럼 그들은 날이 갈수록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북반부인민들처럼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릴날을 간절히 기다리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절절한 심정을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 이북은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활짝 꽃피여 정치적으로 자주, 경제적으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나라로, 지상락원으로 되였다.

우리 남조선사람들도 수상님의 넓고 자애로운 품속에 안겨 북반부인민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무리 사회주의제도가 좋다한들 인민을 옳게 령도하시는 수령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북조선을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나는 김일성수상님의 그 위대하고 현명한 령도에 감복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령도자로서 그분이 계심을 무한한 민족의 자랑으로 생각하게 되였다.》

이와같이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깊이감명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길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무한히 동경하고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더욱 가슴불태우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남녘땅에도 반드시 북반부에서와 같은 사회제도가 세워진다는것을 굳게 믿고 살며 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남반부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배려와 사랑이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도 더 뜨겁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어버이사랑과 높은 덕성에 무한히 감동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인민들을 사랑하시는 김일성수상님의 깊은 마음은 한없이 크고 따사롭다. 우리는 북반부로동자들이 김일성수상님의 말씀을 받들고 굶주리는 남반부동포들을 위하여 더 많은 천과 기계와 비료를 생산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모두가 김일성수상님의 크나큰 고마움과 높은 은덕에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만아니라 남녘의 동포들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니 우리가 어찌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일성수상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도, 태양의 따사로움에도 비길수 없다.》

특히 그들은 수령님께서 피흘리며 싸우는 남반부혁명가들을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며 아끼고 사랑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감격과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있다.

남반부의 한 혁명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개막하는 개회사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 장렬하게 희생된 남조선혁명동지를 추모하여 엄숙히 묵상하여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곁을 떠난 전우들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는 수령님의 전사된몸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을 언제나 몸가까이 느끼는 저희들은 무한히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혁명의 한길에서 그이의 혁명전사된 긍지와 영광을 항상 깊이 간직하여 피흘린 동지들의 뜻을 이어 더욱 보람있게 싸울 결의를 굳게 다집니다.》

남반부의 다른 한 혁명가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천만자루의 붓이 닳도록 쓴다한들 다 적을수 있겠는가! 김일성수상님의 뜨거운 사랑, 크나큰 배려를 태산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이것은 온 남녘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덕성에 남조선인민들이 무한히 감격하고있음을 보여주는 한두 실례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코 어느 일부국한된 사람들만의 심정인것이 아니라 남반부 수백만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을 그리면서 만사람을 감복시키는 그이의 비범하신 감화력과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한 그이의 높으신 인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군한다고한다.

《수상님은 세계에서 제일 인품이 높으신 분이시란다》

《세계 어느 나라 수령도 김일성장군님의 높으신 인품앞에서는 머리를 숙인다더라.》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덕성에 무한히 감명하여 남반부인민들이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과 충성심을 더욱 두터이하고있다는것은 그이께 드리는 그들의 선물들에도 력력히 반영되여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최대의 경사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그이께 삼가 보내온 선물진렬실에는 축기, 축하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성어린 귀중한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례컨대 남반부의 한 혁명가부부는 작디작은 같은 크기의 한모양의 구슬로 축하문 글자들의 획을 엮어갔다. 그러나 처음 요량했던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구슬이 요구되였는데 그 많은 구슬들을 한부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다 얻어들일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 부부와 한 전선에서 싸우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떨쳐나섰고 혁명조직이 뒤받침하였다. 그리하여 끝내 구슬은 모이고 모여 축하문은 실로 5만개의 구슬로 엮어졌다. 이와 류사한 사연이 깃든 수많은 선물들이 전시되여 있다.

이처럼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오늘의 고난에찬 처지를 가슴아파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덕성앞에 경탄을 금치못해하면서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며 그이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다.

△수령님의 품에 안길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불타는 지향을 안고 남조선인민들은 억세게 싸우고 있다

한 혁명가는 조국이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통일되지못하고 남녘동포들이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쓰고 온갖 모욕과 착취, 불행을 겪고있는 민족적수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통일조선의 미래를 희망과 기쁨속에 내다보고있음을 말하면서 무엇이 이러한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하여 격동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15성상을 하루같이 애국과 혁명의 일념으로 간고한 투쟁과 승리로 수놓은 항일빨찌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몸소 창조하시고 그 반석같은 터전우에 영광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신 수령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도 굳건한 혁명의 신심을 안고 기쁨과 희망에 싸여 투쟁을 계속할수 있는것은 불세출의 영웅을 우리의 수령으로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한 혁명가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다. 그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총칼밑에서도 오직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수령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원쑤놈들과 싸워나가는 남반부 혁명가들과 인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혁명가들에 의해 뿌려진 투쟁의 불씨는 각계각층인민들속에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각종 투쟁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그들의 투쟁결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는 김일성수상님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우리와 같은 로동자와 농민을 각성시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처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내가 살아온 길, 나의 부모들이 살아온 길은 천대와 멸시에 가득찬 길이였다.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혁명을 해야 한다. 나의 아들딸도 북조선사람들처럼 희망에 찬 생활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뒤집어 엎고 로동자, 농민이 주인으로 되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껏 싸울것이다.》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의 하나인 남조선농민들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무한히 흠모하면서 식민지적 및 봉건적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야말려는 지향을 안고 삶을 위한 투쟁,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나서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정치를 잘하시여 북조선에는 백성들이 먹을걱정, 자식을 공부시킬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아무 걱정없는 희한한 세상이 이루어졌다.》

남조선농민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면서 그들도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북반부농민들처럼 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결의를 더욱 다지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 지식인들도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면서 자기들의 처지의 개선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실현을 위해 싸우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수령님의 령도와 은덕아래 전체 인민이 공부하며 《문명을 꽃피워가는 배움의 나라》로 전변된, 특히 모든 청소년학생들에게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배움과 과학탐구의 길이 활짝 열려진 공화국북반부를 《희한한 세상》,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무한한 동경을 표시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반부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기다리고있다. 그이의 높고 깊은 사랑의 손길로 남녘의 암운을 휘몰아치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약한 힘이나마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오직 내 한몸 바침을 다시없는 영예로 간주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려는 지향은 남조선의 소상인, 기업가들속에서도, 《공무원》들속에서도 높아가고있다. 그들은 《김일성수상님의 령도하에서만 조선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살며 싸워나가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각계각층인민들의 대오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릴 정치적 력량으로 더욱 결속되여가고있다.

미제의 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인민투쟁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는 남조선녀성들도 김일성원수님을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투쟁과 승리의 한길을 따라 굴함없이 나아가고있다.

남조선녀성들이 《수상님의 은혜로운 품에서 사람답게 그 보람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저희들도 싸워나갑니다》라고 하면서 《남북통일》, 《김일성원수님 만세!》,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글발들을 수놓은 지성어린 선물들을 어버이수령님께 삼가보내오고있는 사실은 그들의 이런 충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남조선인민 모두의 가슴마다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남조선혁명을 추동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결정적인 힘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기발이 한나산마루에 휘날릴 그날까지, 우리의 삼천리 온 강토가 통일을 경축하는 승리의 축포소리로 들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환호와 만세소리로 뒤덮일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결코 투쟁의 기발을 내리우지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투쟁결의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될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육친적배려,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

민족의 태양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못잊어하는 친어버이 심정으로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않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고 계시며 그들에게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저주로운 멍에를 쓰고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서 신음하던 재일동포들이 오늘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주체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떳떳이 살아가고있는것은 오직 재일동포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와 사랑의 결과이다.

하기에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는 자기들에게 온갖 육친적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으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철석같은 의지로 차넘치고있다.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육친적배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해외동포들의 불행과 고통을 못내 가슴아파하시고 그들을 도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여 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때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식민지적인종차별대우를 받으며 어디 가서 쓰러져도 누구하나 돌보지않던 지난날의 참혹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공화국공민된 긍지드높이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에게 주권국가공민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해방후 그들로 하여금 공화국공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49년 미일반동들이 공모결탁하여 재일본조선인련맹을 강제해산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여 나섰을때 그를 분쇄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1953년, 조선정전축하일본인민평화친선사절단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재일동포들이 발휘하고있는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치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일본대표들에게 재일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여줄것을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4년 재일동포들의 생활권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내외반동들의 탄압이 극도에 이르러 재일동포들의 투쟁이 일대 시련을 겪고있을때 재일조선인운동을 바로잡아주시고 1955년 5월 25일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총련을 무어주시였다.

총련이 결성된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는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의 구석구석에까지 더욱 힘있게 미치게 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매시기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계시며 해마다 새해축전을 보내시여 총련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뚜렷이 제시해 주신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63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법을 제정공포하도록 하시여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재일동포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여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한 이국땅에서 자란 재일동포자녀들을 조국의 새세대들과 같이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구상밑에 매시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온갖 물질적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전후복구건설에 나서고있던 1957년 4월에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억 2109만 9,086원을 보내주심으로써 후대교육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소원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57년부터 1972년 4월까지 열다섯해동안에 마흔네번에 걸쳐 일본돈으로 118억 3천 522만 5천 433원에 달하는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이해에만도 다섯번에 걸쳐 14억 9천 839만 2,800원을 보내주시였다.

1972년 4월 1일에는 가정생활이 곤난한 총련의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취학장려금을, 일본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는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학기와 학년이 갈릴때마다 훌륭한 교과서들과 교구비품들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일본땅에서 나서 자라 조국강산을 한번도 보지 못한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조국의 뭇새들과 짐승들의 박제품들, 조국의 향기로운 사과와 아름다운 꽃씨들, 우리 인민의 슬기가 깃들어있는 민족악기를 보내주시였다. 1972년 4월 1일에는 총련의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시는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각종 교과서와 도서들, 24종 433점에 달하는 귀중한 민족악기를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뜨거운 배려로하여 도꾜의 무사시노의 풍치좋은 벌판, 2만평의 대지우에 철근 4층의 제1, 제2, 연구당과 1천 5백여개의 좌석을 가진 대강당, 수십만권의 귀중한 서적을 갖춘 도서관과 아담한 기숙사 등 문화적인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조선대학교가 일떠서게 되였으며 해방후에는 손바닥만한 골방에서 18명의 동포자녀들이 우리 글을 배우던 초라한 《국어강습소》가 오늘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교사에서 1천 9백여명의 조선학생들을 교양육성하는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로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였다.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현대문명에서 버림받아온 외딴섬 이에지마에도, 다섯집 동포들이 사는 돗도리현의 심심산골 쯔노이에도 조선학교를 세우고 동포자녀들에게 우리글을 배워주고 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국내인민들과 똑같이 자기 대표들을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에 참가시킬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여 주시며 국가적표창의 영예를 안겨주고계신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2년 2월 7일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면서 일편단심 그이께 충실하였으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총련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크나큰 공헌을 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동지에게 공화국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높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 최고훈장으로 되는 《김일성훈장》을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간부들에게 수여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재일조선청소년들에게도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여 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해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결성 스물다섯돐과 조선대학교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동포상공인들과 대학교일군들에게 친히 표창장과 선물을 보내주시고 대학교 교원들에게 교수, 부교수의 학직을 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재일동포들의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총련의 8개학교와 21명의 학생들을 친히 표창하여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8년에 총련의 6개의 분회와 5개의 학교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0주년청호》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친히 축하문까지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속에는 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있다. 또한 수많은 국가수훈자들이 있으며 교수, 부교수, 공훈교원, 공훈배우, 체육명수들이 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설음많은 이국살이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조국의 따뜻한 품안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오매에도 그리운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는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 조국에로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로 1959년 12월 16일 975명의 귀국동포들을 태운 첫귀국선이 청진항에 와 닿았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때로부터 8년동안에 8만 8천 6백여명의 재일조선공민들이 귀국하였으며 미일반동들의 탄압책동으로 1967년 12월부터 3년반동안이나 중단되였던 귀국의 길이 1971년 5월부터 다시 열려 도합 162차에 걸쳐 근 9만명의 동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안에 안기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공민중앙영접위원회를 뭇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귀국공민들을 환대하도록 하시였으며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육친의 정으로 그들을 뜨겁게 안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제1차, 제2차로 귀국한 공민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귀국공민들을 자주 접견하시고 귀국도중 배멀미는 안했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그들을 따뜻이 위로하여주시였으며 귀국동포들은 우리 나라의 훌륭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기능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보장받고 소원대로 병을 고치며 마음껏 배울수 있다는데 대하여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귀국공민들이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아무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건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그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합숙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귀국동포들에게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신다.

1964년 12월 5일, 평양에 있는 귀국학생들의 기숙사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그들의 생활과 학습정형을 구석구석까지 알아보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무엇이나 곤난한것이 있으면 내게 편지를 하거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지말고…그렇지 않아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 너희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는 아들딸들인데 해결받아야할 일이 생기면 어려워말고 내게 편지를 써보내라구…》

이 말씀속에는 슬하에서 떠나보낸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보다 더 극진한 심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주시며 그 부모에게 걱정이 미치지 않도록 그 자식을 더욱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한없는 육친의 정이 그대로 스며있다.

한 로인을 온천에서 료양하며 여생을 즐기도록 하시고 그의 딸이 직장에 나가게 된것을 기뻐하시면서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였으며 귀국공민들을 국가적인 연회에 초청하시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까지 들어주시며 귀국청년들의 결혼문제까지 심려하여주시는 그이의 끝없이 자애로운 손길은 모든 귀국공민들에게 닿고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귀국공민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믿음직한 민족간부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총련과 산하단체들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일군들을 접견하시고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는 동지들이 조국에서 계속 훌륭히 일할수 있는 정치간부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당학교 또는 인민경제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수있게끔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였으며 귀국한 청년학생들에게 **《부모는 일본에 계시지만 너희들은 당의 딸, 당의 아들로 생각하고 모든 생활을 잘해야 한다. 모두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야 한다. 일본에서 일하고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아들딸답게 학습과 생활을 잘해서 모**

두 좋은 일군으로, 민족간부로 되여야 한다!》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귀국공민들을 훌륭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민족간부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온갖 당적 및 국가적 대책을 취하도록 하고계시며 그들이 이룩한 적은 성과도 기뻐하여주시고 높이 평가하여 주신다.

수령님께서는 일본에서 귀국한 과학자를 친히 만나시고 그가 거둔 자그만한 성과를 기뻐하시며 그의 입당보증을 친히 서주시는 높은 신임을 보내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귀국공민들뿐만아니라 오매에도 그립던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을 따뜻히 보살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이해에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가운데서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위대한 수령님께서 100억 2천여만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재일동포들의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감사드리는 재일조선교육자대표단, 사로청제6차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축하단, 녀맹제4차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녀성축하단, 직총제5차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제4차와 제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친히접견하시고 간곡한 말씀까지 하여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옹호단체인 총련이 결성된 후에도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강화하고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유린하며 총련을 파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내외원쑤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할수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계신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이 있을때마다 발표되는 공화국외무성성명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이해 3월 22일 공화국외무성은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모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날로 강화하며 파쑈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기어코 조작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 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4일, 9월 27일에도 일본반동들이 총련산하 조직들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살인만행을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파괴책동과 박해가 있는때마다 조국인민들이 진행하는 군중집회들에서도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입고 오갈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재일동포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59년 9월 일본각지를 휩쓴 《이세왕태풍》의 피해를 입은 3천 800여명의 동포들이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을때 백미 2천석과 직물 20만메터를 보내줄데 대하여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리재동포들이 귀국차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자 그들에게 의복을 해입으라고 30만원(조국돈)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53년 여름 규슈를 비롯한 서일본지대를 휩쓴 큰물, 1956년 7월 노도강일대의 큰물, 1964년 봄의 니이가다지방의 대지진으로 재일동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을때에도 그들을 극진하게 보살펴주시였으며 특히 1967년 7월 일본의 서부 및 중부지방을 휩쓴 폭풍때에는 리재동포들에게 500만원(일본돈)의 원호금을 보내주시였다.

수령님의 따뜻한 배려밑에 큰물피해를 가시고 새로 지은 집에서 안착된 생활을 누리게 된 한 동포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기둥은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기둥입니다.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조국의 집입니다.》

이것은 한 리재동포만의 심정이 아닙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배려는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육친적배려는 생존의 권리와 민족적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인류의 력사는 유구하며 세계에는 나라도 많지만 해외동포들을 그토록 뜨겁게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정당한 생활과 투쟁의 앞길을 그처럼 환히 밝혀주시는 수령님과 같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은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재일동포들에 대한 김일성원수님의 육친적배려에 감격하여 한 일본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지도자두리에 하나로 뭉친 조선인민의 당당한 모습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세계에는 지도자도 많지만 해외에 있는 자기 공민들에게 이처럼 가지가지의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며 그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시켜 조국애에 불타도록 하시는 지도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수상뿐이시다》

실로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밑에 살며 싸우는 재일동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해외공민이다.

그러기에 오늘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에게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는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고있으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

재일동포들은 조국강토에 망국노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로부터 김일성장군님을 희망의 등대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경모하여 마지않았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타향에서 강도 일제의 총칼과 채찍밑에 중세기적인 고역을 당하던 재일동포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련봉에 지펴올리신 조국광복의 불멸의 홰불에서 자유와 해방의 서광을 보았으며 일제야수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전하여지는 김일성장군님의 명성에 접할때마다 천길암흑속에서 해빛을 만난 사람처럼 그이를 우러러 힘과 용기를 얻고 민족적지조를 굽힘이 없이 꿋꿋이 살아왔다.

그때를 회상하여 한 재일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것은 백두산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이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현해탄을 건너 이역땅 이곳에까지 들려온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의 이름…

김일성장군의 항일무장투쟁의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격동케 하였는지 모른다.

《왜놈들은 반드시 망할때가 온다》우리는 천길 암흑속에서 한줄기 해빛을 만난 사람처럼 둘이 모여앉아도 그분을 두고 신이나서 이야기했고 셋이 모여앉아도 희망을 키우며 살아왔다.》

재일동포들은 포악한 일제야수들의 탄압이 우심한 조건하에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지펴올리신 조국광복의 불멸의 홰불에 끝없이 고무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섰다.

10여명의 조선학생들은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간도로 떠났으며 애국적인 조선동포들은 등사판을 비롯한 원조물자를 항일유격대에 보냈다.

조국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신음하던 재일동포들이 수령님을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보며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한 실례는 1944년 3월 26일 현해탄을 건느는 동포들이 탄 관부련락선 객실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란 숭엄한 아홉자의 글발이 새겨져 일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 재일동포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오사까부 사까이시에 있는 야마도방직공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내가 스무살의 처녀의 몸으로 이 공장에 끌려온 300여명의 녀직공들을 선동하여 파업에로 이끌수 있었던것은 이 공장에 왔던 조선인 로동자에게서 김일성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들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강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자기들에게 주권국가공민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신 수령님을 재생의 은인으로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1948년 9월 9일,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나는 그 저주로운 종살이에서 영원히 해방되였던것입니다…

이젠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제감독놈에게 맞은 상처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아홉살의 어린몸으로 남의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했던 한 동포만이 한 말이 아니다.

도꾜에서 사는 한 동포는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있음으로 하여 이국땅에서 고역에 시달린 할아버지의 주름깊은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아직 조국을 본적이 없는 어린것들의 눈망울에도 류달리 영채가 돕니다.

공화국기는 바로 우리의 가슴속에 재생의 기쁨과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며 얼음장같이 싸늘한 현실속에서 억눌렸던 우리의 민족적정기를 활짝 소생시켜주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한 재일동포는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외지에서도 튼튼한 총련조직을 가지고 학교도 짓고 신문도 내고 자기 권리를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지 지난날 같으면 어디서 개죽음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산이 높다한들 수령님의 은덕에 비기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고마울뿐입니다.》

실로 재일동포들은 지난날 살아서 살곳이 없고 죽어서 묻힐곳이 없던 자기들에게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조국이 있다》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귀한 민족적자부심과 영예를 지니게 하여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목메이며 그이를 재생의 은인으로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은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참혹한 처지에서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던 재일동포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소원을 풀어주시였으며 이국땅에서 나서 자라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시지 않고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는 수령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첫 교육원조비를 받았을때의 격동된 심정을 한 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7년 4월초순의 어느날이였다. 당시 총련 우사분회장으로서 회의에 참가했던 나는 회의석상에서 감격적인 이 소식에 접하였다. 보고를 듣는 순간 나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얼마나 그리워하고 동경하던 조국이며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경모하여 우러러 받들어온 수령님이신가.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외화를 아끼시지 않고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니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시며 배려이신가…

해방이 되였건만 일본땅에 감금된것이나 다름없는상태에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오던 우리들이였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인자하신 수령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온 몸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솟았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김동포녀성은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않으면서 자식들의 학비를 구하기 위하여 고역에 시달리던 자기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아들 삼형제를 학비걱정없이 조선대학교에서 배우게 하여 어엿한 총련일군으로 길러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목메여 《우리 집 애들은 모두 어버이 수령님께서 키워주시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아들이 조선대학교를 졸업하던 그날 조동포는 행복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던것이다.

《정말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배려를 떠나서야 오늘의 이 기쁨을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일제에게 짓기고 얻어맞던 그 옛날같으면 우리가 자식들을 대학공부까지 시킨다는것을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수령님의 은덕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만 합니다…수령님께 영원토록 충성을 다할 일념으로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실로 오늘 재일동포들은 수령님의 배려로 돈이 판을 치고 반동교육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이역땅에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과정을 끝마치고 어엿한 총련일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하는 수많은 후대들의 모습을 접할때마다, 일본각지에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곳곳이 서있는 158개의 조선학교들을 바라볼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심장으로 웨치고 또 웨치고 있다.

오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속에서 보람차게 살며 투쟁하고있는 끝없는 행복과 영예와 드높은 민족적자랑으로 한없이 격동되고있으며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총련 도꾜도 기다지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 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이름,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김일성원수님의 배려를 떠나서 재일동포들의 오늘의 이 영광, 이 영예를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총련 메이또지부 미조끼리분회의 한 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음으로하여,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친어버이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조국멀리 이국땅에 살면서도 사회주의국가의 공민된 자랑과 긍지를 안고 영광스런 혁명전통계승자된 영예도 드높이 떳떳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더없는 사랑과 뜨거운 보살피심속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는 재일동포들은 지난날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조국과 민족의 번영도, 찬란한 미래도, 자기들의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그러기에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이 계시고 그이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수령님의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하는것을 생활상 신조로 삼고있다.

오늘 재일동포들은 《참으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입니다. 수령님을 따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나갈때만이 승리와 영광이 차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꽃피워오신 빛나는 력사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력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등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있다.

당대회보고를 깊이 학습하고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총련 도꾜도 아라까와지부 닛뽀리 3분회 한 동포는 《나는 보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 조국땅에 이루어진 그 모든 창조와 찬란한 성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결실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알게 되였다. 실로 어버이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확고한 담보이다》라고 하면서 《지난날 나라없는 망국노로서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던 우리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들은 그 어느 하나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조청 아이찌현 메이또지부의 한 위원은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애국위업의 직접적계승자들입니다. 수령님의 불패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나는 관하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 모든것을 다바치려는 60만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재일동포들은 오직 어버이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수령님을 열화같이 흠모하고 신뢰하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축원하고있다.

수령님의 초상을 항상 자기 앞가슴에 소중히 모시고 다니면서 총련과업실천에 헌신하다가 《원수님을 한번 만나뵈였으면 이 늙은것의 소원이 풀리겠는데… 너희들은 수령님을 잘 모시고 떳떳이 살아야 한다.》라는 고결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동포로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나운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 뛰여들어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나와 안전한 곳에 모신 나어린 조선학생들, 수령님께 드리는 불같이 뜨거운 충성의 한마음으로 자기의 살림집을 《김일성원수연구실》을 꾸리는데 자진하여 내놓은 산따마의 한 동포, 실로 60만재일동포들 모두가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과 충성의 마음을 안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축원하고있다.

총련 도꾜도 아라까와지부 마찌야분회사무실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언제나 향기그윽한 생화를 드려온 한 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있는 행복이 모두 수령님의 덕분입니다. 조국과 수령님의 배려를 떠나서 오늘의 행복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끝이 없습니다.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령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며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는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는 그이께 드리는 경모와 충성의 격정으로 더욱 부풀어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일본의 북단 홋가이도로부터 남단 규슈에 이르는 7천 5백여리를 자전거로 달린 수만명의 재일조선청년들과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한 10여만 각계각층동포들도 수령님에 대한 경모와 충성심에 휩싸였으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합니다.》라는 영롱한 글발을 정성드려 수놓은 충성의 기를 마련한 재일동포들의 심정 또한 그러하다.

6천만개의 명주실오리를 60만개의 실묶음으로 만들고 그 실묶음을 손으로 하나하나 짧게 끊어서 붙여 수령님탄생 예순돐축하선물을 마련한 재일조선녀성들과 《150일간혁신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그들의 심정역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그이께 충직하려는 오직 한마음으로 가득차있다.

《오직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자》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들인 재일동포들의 혈맥을 관통하고있는 심장의 구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붉은 태양이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을 무한히 존경하며 흠모하고있다—

1972년!

이해에 우리 인민들과 함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는 이해에 즈음하여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실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자부심과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며 신뢰하고있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목소리를 되새겨본다.

《김일성동지는 20세기영웅이실뿐아니라 만고의 영웅이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과 거대한 공헌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로 흘러드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것은 오늘 력사의 한복판을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장엄한 추세로 되고있다.

우리의 심장을 밝혀주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광휘로운 태양이 비치여
메말랐던 가슴들에도 무한한 긍지,
밝은 미래가 용솟음칩니다.
그이는 바로 김일성원수!
온세계에 힘과 용기의 빛발을 뿌리는
혁명의 붉은 태양
그이는 바로 김일성원수!

인민은 큰 힘을 가지고있건만
이끄시는 수령이 없으면 무력합니다.

모든 인민이 우러르는 분
착취받는 모든 인민이 굳게 의지하는 분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에로
인민을 용맹히 이끌어주시는 분—
그이는 바로 김일성원수!

아!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원수!
그이를 희망의 등대로, 투쟁의 기치로 우러러보는
온세계 인민의 가슴들엔 신심과 용맹이 넘쳐납니다.
…

모리따니 누악쇼뜨시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 책임자 이완 아브둘 아지즈는 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노래》에서 수령님을 흠모하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물론 이것은 이완 아브둘 아지즈 한 사람의 심정만이 아니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대양주할것 없이 세계도처에서 혁명적인민들은 한결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우러러 보면서 《20세기의 영웅》으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면서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4월 15일은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조선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왜냐하면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고계실뿐만아니라 세계혁명에도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시기 때문이다.》(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지도부 성원 페르난도 삐떼이라 싼또스)

《1912년 4월 15일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시대의 페지우에 휘몰아쳐
모든것이 지워진다하여도
1912년 4월 15일 오직 그 한페지만은
우리 시대의 우주에 황금글자로 아로새겨지리라.》
(오스트랄리아 평화인사이며 작가 스탠리 무어)

《김일성동지는 세계의 가장 걸출하고 탁월하고 영웅적인 사회주의지도자들중의 한분으로서 그이의 력사는 사회주의위업에 복무하는 한 혁명가가 쓸수있는 가장 아름다운 력사의 하나이다.》
(꾸바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김일성수상은 폭풍시대에 국제혁명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계시는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프랑스공산당 정치국 위원 브노와프라송)

《김일성수상은 혁명의 세찬 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폭풍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온갖 낡은것들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태양이시며 암운과 비운이 드리운 가슴마다에 서광을 안겨주며 용기와 신심을 북

돌아주는 등대이시다.

그 붉은 태양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곳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만약 력사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사람을 센다면 김일성수상은 세계에서 이러한 영웅적 지도자의 맨 첫자리에 계실 분이시다.》(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 단원 샤피크엘호우트)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언제나 반제반미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제국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결사전을 몸소 령도하고계시며 세계피압박피착취인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시여 그들에게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에로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시며 성심성의로 도와주고계시는 세계혁명의 붉은 태양이시며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기수이십니다.》(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나라 과학자 지식인 일동의 편지에서)

《진정 김일성원수님이야말로 세계에 더없는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사상가이시며 세계에서 가장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시다.》(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시톤 콤마담)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은 최근 200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분이시다.》(수리아아랍공화국 파예즈 이스마일)

《우리는 당신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실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은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더욱 발전시키시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모든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시였습니다.》(단마르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크누트 에스페르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혁명적가정의 력사는 조선인민의 영웅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래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오스트랄리아 기자 월프레드 버체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민족주의도, 공산주의운동내의 종파주의도 다 분쇄하고 교조주의, 사대주의도, 온갖 기회주의도 다 극복하면서 오직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원리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확립하시였으며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는데 이것은 벌써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원칙적문제로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930년대초부터 조선혁명운동의 위대한 수령으로서만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의 당당한 권위를 지니시게 되였다.》(독일사회통일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쿠르트 하게르)

《그이께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스승이시며 수령이시며 세계혁명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지도우에 빛내이신 분으로 인류에 알려졌다.》(시에라 레온 조선친선협회 성원 모함메드 에스코로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상이신 김일성동지는 현존한 력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의 리론실천가이시며 세계혁명의 가장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실로 친근하고 고상하며 령감을 불어넣어주는 인격자이시다.

세계력사에서 미래에 대한 인간의 사상에 김일성동지보다 더 큰 신심을 안겨준 분은 일찌기 없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처럼 거대한 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그이는 가장 세련되고 고상한 덕성을 지니시였으며 가장 출중하고 능력있는 정치가, 가장 탁월한 혁명가이시며 군사지휘관, 그리고 가장 천재적인 사상을 대표하신다. 력사는 이제껏 그이보다 더 위대하고 집대성된 인물을 알지 못하였다.

그이는 비단 20세기의 영웅이실뿐만아니라 만고의 영웅이시다…

오늘 최초의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세운 공적은 전적으로 그이께 있다.

1969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기자들의 파업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던 세계 90개국으로부터 모인 혁명적작가들과 기자들, 그리고 내가 인도로 돌아오기전에 쏘련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희랍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들 모두가 일치하게 김일성동지는 비단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혁명적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가장 경애하는 수령이시라고 말하였다. 그이는 한 나라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그의 영향력이 한 특정한 시기만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히 미칠 력사에 보기드문 지도자들중의 한분이시다.》(전인도민주당 위원장 피. 엠. 라칸팔)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이 세계만물의 생존을 위해 빛을 뿌리듯 동방에서 솟아오르신 인민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온 지구상의 비렬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였습니다.》(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연구하는 애급아랍공화국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모임참가자일동)

《김일성수상님은 현시대의 영웅이시며 탁월한 수령이시다.

그이의 이름은 태양의 황금빛발처럼 영원히 빛날것이다.》(애급신문 《알 굼후리아》)

《우리들은 김일성수상님을 인민의 상징으로, 항일유격대와 사회주의건설의 상징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전투에서의 영웅으로, 양키침략자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열렬히 축하한다.》(칠레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

《참으로 그이께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실뿐만아니라 인류력사가 처음으로 낳은 위대하고 탁월한 문예사상가이시다.》(애급음악대학 총장이며 지중해지구 음악단 책임자 아호마드 샤끼그)

《참으로 김일성수상각하는 인류력사가 처음으로 낳은 위대한 분이시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빛나는 영광을 지닌 자랑스러운 인민이라고 생각한다.》(까히라 바드란청년구락부 대외관계국장 좌비르 아브델 라흐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이의 명함으로 불리우는 시대에 태여나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먼 아프리카대륙에서 투쟁하는 우리도 긍지와 영예감을 금할수 없다.》(서남아프리카인민해방운동대표부 성원 류까스 뽀함바)

《…

김일성동지이시여

당신의 혁명사상으로 가슴불태우는 전세계인민들은 당신의 탄생일에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축원하고있습니다.》(콩고 8.15광장학교 부교장 쟌 크리스또필 무이쑤)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사상은 전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온누리를 찬연히 비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고있는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날이 갈수록 강력한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출판보급되고있다.

수령님의 전기와 혁명활동략력은 일본, 프랑스, 애급, 칠레를 비롯한 여러나라들에서 출판되여 광범한 계층들속에서 투쟁과 생활의 교과서로서 열독되고있으며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은 버마,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를 비롯한 아세아의 여러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구라파, 알제리, 말리, 수단, 칠레, 뻬루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에서 광범히 번역출판되였다.

그이의 력사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발표된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20여개의 민족어로 번역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였으며 50여개 나라의 100여종 5천 500여만부에 달하는 각종 출판물에 실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전기는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30여개 나라의 민족어로 460여만부의 단행본과 문헌집으로 나오고 500여종, 1억 2천여만부에 달하는 각종 출판물에 실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높은 연구열의에 의하여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수없이 무어지고 있는데 1971년에는 50여개 나라에서 120여개나 조직되였다.

이해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는 《김일성도서관》이 정중히 꾸려졌으며 여기에서 사람들은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에로의 길을 가르쳐주고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배우고있다.

《연구소조》, 《연구위원회》들에 망라되여있는 성원들은 수령님의 로작을 더 깊이 연구하며 호상 연구사업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1971년 7월 평양에서, 12월에는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국제회의들을 진행하였다.

바이루트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토론회》에는 사회과학자, 정치활동가, 교수, 박사, 출판일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주체사상의 심오한 내용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찬양하면서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힘있게 불렀다.

실로 주체사상은 세계적규모에서 광범한 사람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연구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사상적조류로, 20세기의 사조로 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영생불멸의 기치, 주체사상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기다리고있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있으며 자기들이 나아갈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파키스탄전국해운회사 선박 《젤룸》호 《김일성수상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비. 하싼은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은 전세계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라는 제목의 인상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나의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바다건너 대양건너 여러대륙의 많은 항구들에 들린다. 그때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인가 가깝고 친근하고 따뜻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등대의 밝은 불빛이였다. 그러나 나는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나의 심장을 밝혀주는 등대, 전세계 인민이 우러러보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등대의 밝은 빛을 찾았으며 그것을 심장속 깊이 간직하고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사상이다…

오늘 조선인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도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김일성수상을 우러러 보고있다.

나도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선박인 〈젤룸〉호와 나의 선실에 정중히 모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만세!》

《김일성수상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인민뿐만 아니라 세계근로인민들의 행동의 지침이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만 요구되는것이 아니다.

물론 주체사상이 구현되는 방식은 조선과 일본의 경우에 서로 다를수 있으나 나는 조선의 구체적현실속에서 김일성수상님께서 정식화하신 주체사상은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확고한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할 근본사상이라고 말하고 싶다.》(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구속하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로부터의 정신적해방이 이룩되였으며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주로 자기의 힘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시대,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혁명운동이 진행되는 시대, 제국주의가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세계적규모에서 앙양되고있는 혁명적폭풍우의 시대가 열리였습니다.》(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조선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나라 과학자지식인 일동의 편지에서)

《현시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각하의 천재적사상과 독창적리론이 없이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까히라종합대학 교원 무하메드 헤이샤만)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일성수상의 리론과 사상은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의 최고봉이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 세계민족해방투쟁,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일본와세다대학 교수 후꾸시마 마사오)

《혁명의 새로운 폭풍의 시대는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요구한다.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사상은 바로 20세기 후반기 새시대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은 피어린 혁명투쟁속에서 창시되였으며 력사의 시련속에서 검증된 사상이다. 그렇기때문에 김일성수상님의 사상은 더없이 귀중한 사상인것이다.》(일본학술회의 회원, 리쇼대학 마쯔모도교수)

《주체, 이것은 5대륙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제국주의 진지를 때려부시고 최후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주체의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사상을 따른다면 모든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을 타승할수 있을것이다.

19세기에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고한것처럼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고한 위대한 사상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자》(레바논 《알욤》신문사 사장 워피크 티이비)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천금보다 더 귀중한 기치로 된다.》(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칠레대표 윌페러오피예로)

《김일성수상의 혁명사상과 리론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리론이며 전세계 피착취,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시대적사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전세계 인민들은 김일성수상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있다.》(버마신문 《가디언》)

《나는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는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에서 김일성동지의 리론과 사상이 더욱더 큰 파문을 일으키며 싸우는 인민들속에서 그이의 권위와 위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되기때문이다.

경제건설에서나 조국보위에서나 문화예술부문에서나 주체사상은 백과전서적이며 만능적인 역할을 한다》(이라크 변호사 팔랍 탈라바이)

《우리 당 지도부는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드디여 옳은 로선에 들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의 투쟁에서 그처럼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혁명가들은 그것을 체득해야한다.》(흑인표범당기관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가들로 하여금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주적립장에 서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이끌어 나갈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에 떨쳐나선 세계인민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다.》(아바나주재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대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 되였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레바논국회의원 알리 암두호 아브달라호)

《영명하신 수상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일떠선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과 수억만 대중의 힘의 원천으로,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생명으로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적도기네에 있는 싼또메 및 쁘렝씨쁘해방지도위원회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천재적로작들을 전세계인민들에게 보급선전하는것은 우리 출판사의 기본임무이며 영광이고 행복이다.

그이의 현명하고 심오한 사상은 수천수만리 떨어진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되고있다.》(프랑스의 《아프리끄아지아》출판사 총사장 씨몽말레이)

《이 저작집을 통하여 전세계에 울려퍼지는 김일성수상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 그것은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인류의 영재의 목소리이며 인류력사의 새 아침을 고하는 걸출한 령도자의 선언이다.》(화란의 스미츠인쇄소 사장 크쟈크 루그리)

《오늘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와 불후의 로작들에서 국제주의정신, 위대한 혁명사상, 그리고 반제반미투쟁의 리론실천적경험들을 배워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를 무었습니다.》(에꽈도르의 혁명적청년들의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제반미투쟁과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고무하는 강령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인 우리들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식으로서 연구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사상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개조하며 앞으로 주체사상을 실천에 옮길것을 엄숙히 결심하였습니다.》(분룬디에 거주하고있는 아랍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

《현시대의 투쟁전략과 방침들은 세계혁명의 천재이신 김일성수상각하께서만이 명확히 제시하시고 계신다. 때문에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그이의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김일성수상각하의 고귀한 혁명사상은 아랍인민들을 위대한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등대로 되고있다.

나는 김일성수상각하의 말씀을 일생을 두고 잊지않고 혁명을 하려고한다.

나의 아들도 자라서 반드시 혁명적으로 살게 하겠다.》(애급 《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 총국장 아브델 하미드 아흐메드 하므루쉬)

《우리는 혁명의 빛나는 태양이신 김일성수상님의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착취와 압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갈것입니다.》(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성원일동)

《존경하는 김일성수상각하

우리들은 우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준엄한 싸움에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심장에 아로새기고 당신께서 밝혀주신 천재적인 혁명전략을 등대로 삼으면서 총창을 높이들고 정의의 싸움에로 우리들은 나아갑니다.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총탄보다도 더 위력한 우리 투쟁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싸우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생명수입니다.

위대한 수령이신 각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도상에는 난관도 있을수 있으나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가들의 태양이시며 투사들의 기수이신 당신께서 계시고 당신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반제혁명력량이 있는 한 우리들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낼것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싸움에서 승리할것입니다.》(에리트리아해방전선 전투원들)

《현시대는 우리 시대의 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이 제국주의를 종국적멸망에로 쓸어넣는 장엄한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 혁명가들은 그어디에서 투쟁하던 김일성사상을 연구하고 그를 자기 혁명투쟁에 구현하는것을 필수불가결의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 팔레스티나 혁명가들은 전선의 전호속에서나 유격투쟁의 휴식참에도 그리고 지하투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함께 살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고있습니다…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인 김일성사상 주체사상 만세!》(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 《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 책임자 아브 파헤드)

《력사와 더불어 영생불멸할 김일성동지의 명함은 맑스, 엥겔스, 레닌이 창시한 사상의 보편적원리처럼 맑스-레닌주의과학을 발전시킨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결부되여있게 될것입니다.》(알제리에 있는 프랑스 교수 제름 리아르의 연설)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고매한 인품과 덕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이는 고매한 공산주의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인민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나의 인상은 류달리 깊은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이에 대한 나의 인상에 대하여 묻는다면 나는 떳떳이 이렇게 말할것이다.

풍채가 좋고 름름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언제나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는 그이는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소박한 옷차림에 허식이 없으며 겸손하고 자애로우신 그이의 고매한 덕성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높은 권위, 불굴의 애국정신을 련상시켜준다

부드러우시면서도 활달하신 그이의 높은 풍모는 한 지도자의 위대성이 요란한 옷차림이나 틀을 차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고매한 덕성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하여준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높은 권위와 위대성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 찬연히 빛나고있다.》(인도네시아 기자 아마니 웨메르야)

《김일성동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고매한 인품과 덕성을 지니신분이시라는것을 알수있었다.

그이는 실로 혁명적락관주의와 겸손성, 소박성을 겸비하신분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마다에서 자신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반영하시였으며 전세계의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와 맑스-레닌주의의 영원한 생활력에 대한 확신을 표시하시였다.》(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꾸바혁명정부 대표단 단원 호세 마누엘)

《그이의 접견을 받기에 앞서 나는 생각하였다.

김일성수상은 항일빨찌산시기에 〈백두산의 호랑이〉라고 불리울만치 용맹했으며 조선전쟁에서 미국과 싸워이긴 분이시니까 굉장히 강의하고 무인다운 지도자가 아닐가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생각한바와 달리 그분은 침착하고 부드러우며 너그럽고 포용력이있고 친근한 태도로 우리들을 맞이하여 주시였다. 그러나 담화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어조를 높이며 명확하게 지적하시는것이였다.》(일본국회의원 우쯔노미야 도꾸마)

《우리는 김일성수상이 진정으로 인민적인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똑똑히 알수있었다.

현지에 내려가 인민들과 상론하시여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그 집행대책을 토의하신 다음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 내려가시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시는 김일성수상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동원하는 진정한 인민적령도방법이다.

인민대중을 력사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시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의 조선 인민은 천리마의 나라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는 김일성수상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고계시는 현지지도방법을 통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고 계시는 그이의 고결한 정신과 높은 덕성을 배웠으며 관료주의와 정반대되는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을 보았다.》(알제리 주간잡지 편집원 까멜끄 투위)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맡아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 나라의 수상이 자그마한 협동농장을 무려 50여차례씩이나 찾아가서 직접지도하신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할수 없는 일이다.》(일본신문 로동조합련합 중앙위원 우리우죠 자부로)

《우리는 평양에서 멀지않은곳에 있는 한 농촌마을인 청산리를 방문하였다. 이 자그마한 농촌마을에서 김일성원수께서는 15일간이나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농촌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나라의 농업발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농민들과 함께 토의하시였다.

한 나라의 수령이 이토록 한 농촌마을에 15일동안이나 계시면서 농민들과 나라일을 토의한 실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김일성원수님이 인민적이고 훌륭한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알제리민족해방전선 청년단체 전국비서국 성원 부세마 까멜)

《김일성수상님은 20세기가 낳은 실로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김일성수상님께서는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지도자이시다.

김일성수상님은 참으로 인민들과 함께 숨쉬시는 진정한 인민의 지도자이시다》(도꾜에 사는 회사원 다까야마 미꼬하루)

《인민에 대한 끓어넘치는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명확하고도 확고하게 앞날에 제기할 문제들을 구상하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지새우신 밤인들 얼마였던가.

전후 그이께서는 피곤도 모르시고 인민들을 찾아 다니시면서 그들과 의논하시고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인민은 그이의 가르치심에 항상 충실하였다.》(아르헨띠나의 저명한 사회활동가 아벨라르도 길레모)

《조선인민은 언제나 자기 인민과 함께 계시며 기쁨이 있을 때나 희생이 있을때나 그 어느 시각에도 항상 인민의 진두에 서계시며 40여년간의 혁명투쟁의 나날에 언제나 인민들을 독창적으로 정확하게 령도하시며 인민의것이라면 무심히 보지않으시고 자그마한 것까지 풀어주시려고 언제나 심려하고 계시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을 모시고 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수상께서는 자기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사시절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다니시면서 대중들과 의논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알아보시며 그들의 의견과 애로를 풀어주시며 그들이 제기한 창조적의견들을 고무하여주시며 공장과 협동농장, 교육문화기관들과 병사들의 병실을 찾으시고는 매일과 같이 대중을 로동속에서 지도하고 교양하고 계신다.》(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 위원장 엘리아쓰마누이뜨 까메르)

《김일성수상님과 한시간이나 자리를 같이 한것을 나는 더없는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이는 위대한 인물만이 가지고있는 품성을 지니시고 계신분이시다. 그이는 툭툭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신분으로 어떤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고 쉽게 리해되는 말로써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이께서 나의 생활과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을 때 대뜸 나의 머리속에는 나무밑이나 공장의 긴 의자에 앉아서 농민들이나 로동자들과 담화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생활과 사업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게 하는 그이의 모습이 안겨왔다.》(오스트랄리아의 작가이며 기자인 윌프레드 버체트)

《한곳에서 우리는 수상님께서 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설맞이 축하모임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곳에서 우리는 로동자들의 합숙부터 찾으시고 그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수령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배려에 대한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몹시 감동시켜준다.》(쎄일론의 한 사회활동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공민이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향상시켜준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과 한덩어리가 되여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한몸을 바친다는 고상한 기백으로 생기발랄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고있다.》(일본 국회 중의원 의원 하세가와 쇼조)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뭉친 조선인민의 불패의 단결,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투쟁정신, 잘교양된 근로자들과 소년들, 어린이들의 행복하고 희망에 넘친 생활, 정의의 위업을 위해서 승리의 신심 드높이 전진하는 인민들의 힘찬 모습—이 모든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았다.》(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기네군사대표단단장)

《김일성수상님을 만나 뵈옵고 매우 친절하고 소박하며 인민적인 분이시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그 덕성만 보아도 그이가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세계의 지도자들의 모범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충심으로부터 김일성수상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마지 않는다.》(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 아흐메드 벤멘구다.

× ×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과 그이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 고매한 덕성을 가슴깊이 새겨보면서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열렬히 축하하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노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나는 부릅니다. 황금의 나팔을
나는 탑니다. 사랑하는 가야금을
그리고 풀피리 만들어 노래합니다.
허나 내 어찌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간직한 모든 사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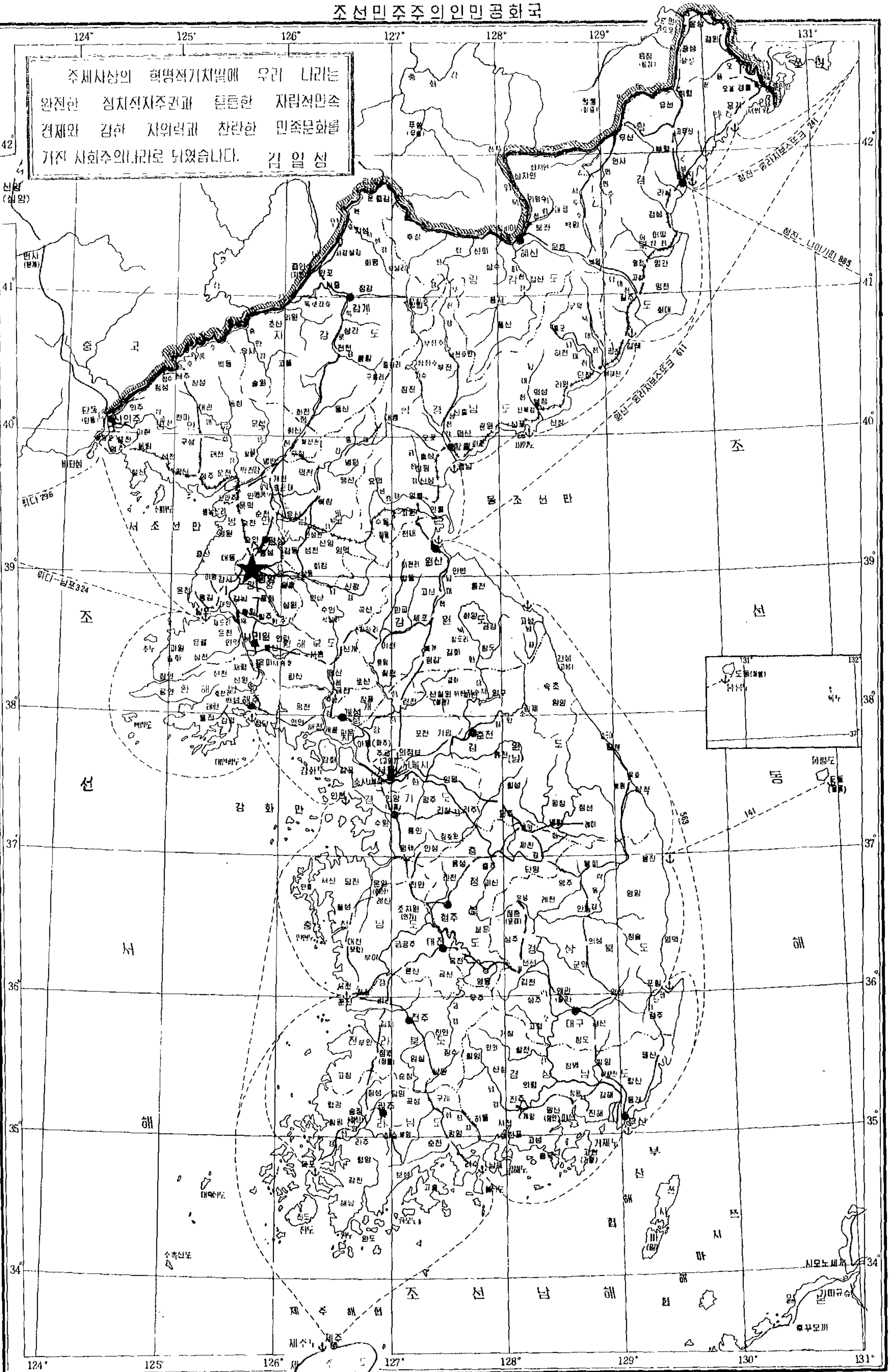
돌이켜봅니다. 일본놈 강점시기를
그때엔 사람마다 피눈물 흘렸습니다.
많고많은 파일동산 놈들이 빼앗거니
인민들은 파일나무 한그루 제것이 없었습니다.
집은 집마다 놈들이 독차지 했거니
인민들은 머리가리울 기와 한장 없었습니다.

허나 만경대의 붉은 태양 얼어붙은 산들을 녹여버렸거니
오늘 강철의 나무는 꽃피고 열매맺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로 해방된 조선
김일성사상의 빛발을 온몸에 받고있습니다.
파일동산은 인민들이 가꾸고
집들은 해바라기꽃구름속에 웃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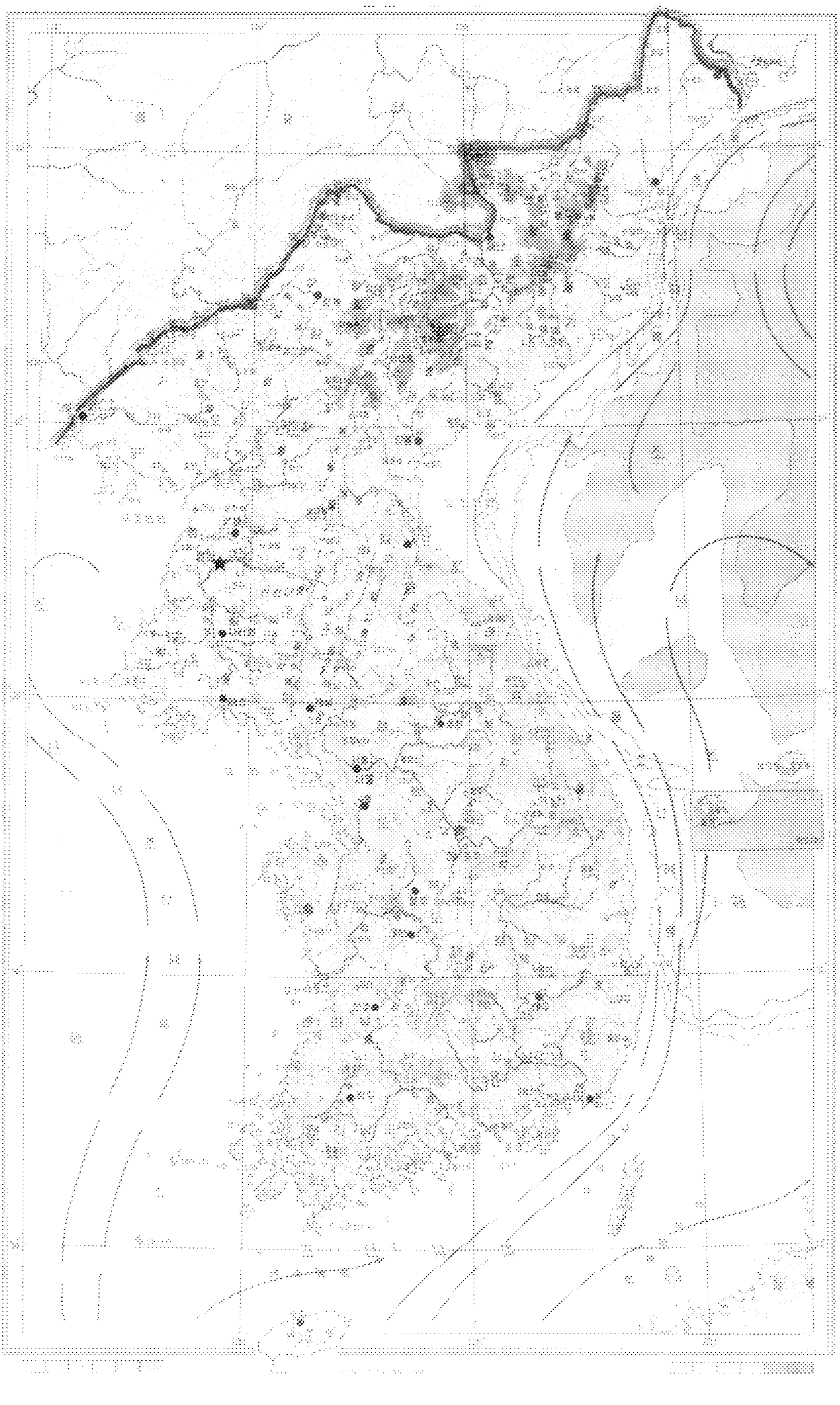
우리의 가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민들은 마을마다 무르익는 사과에
깨끗한 구룡연폭포수로 축수를 드리나니
오, 김일성동지이시여, 어서 받으시옵소서
부디 만년장수하실것을 바라는 이 축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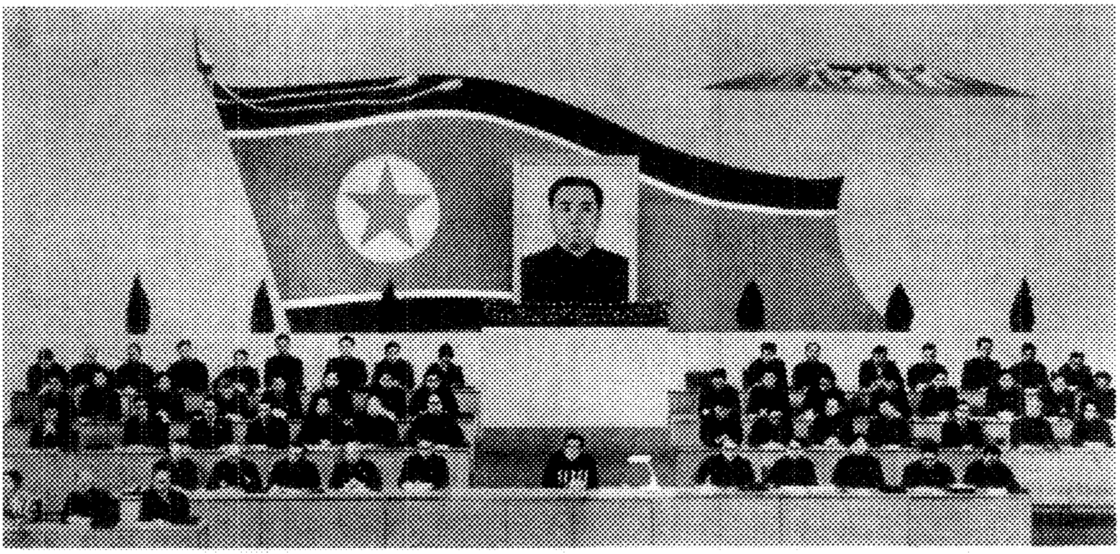
(나이제리아) 이제 아이에 오모레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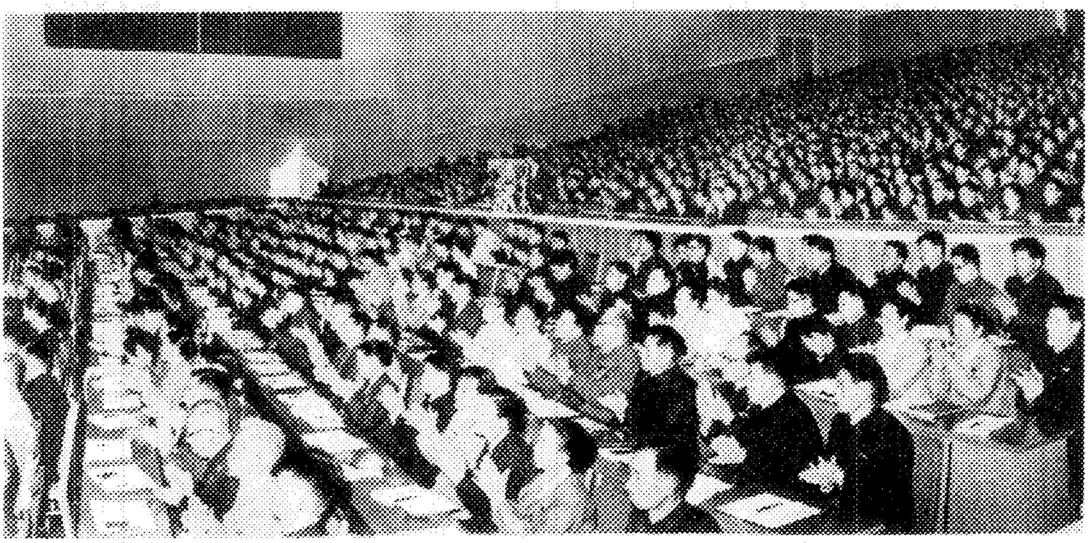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척 1:5,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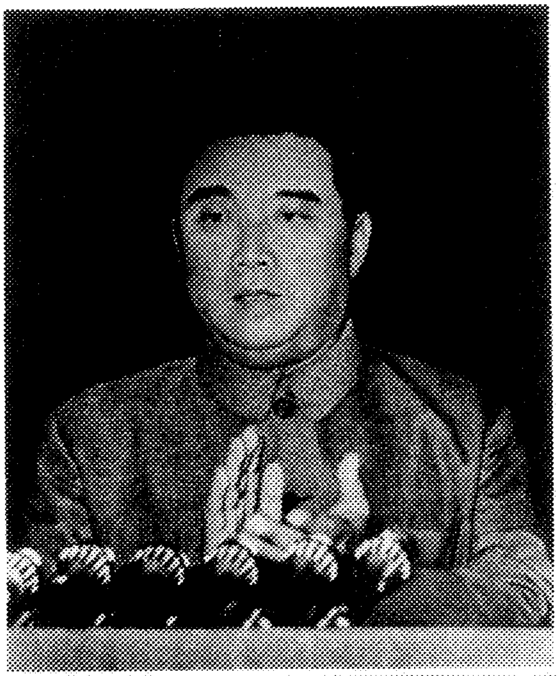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주석단과 회의참가자들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돐 기념 보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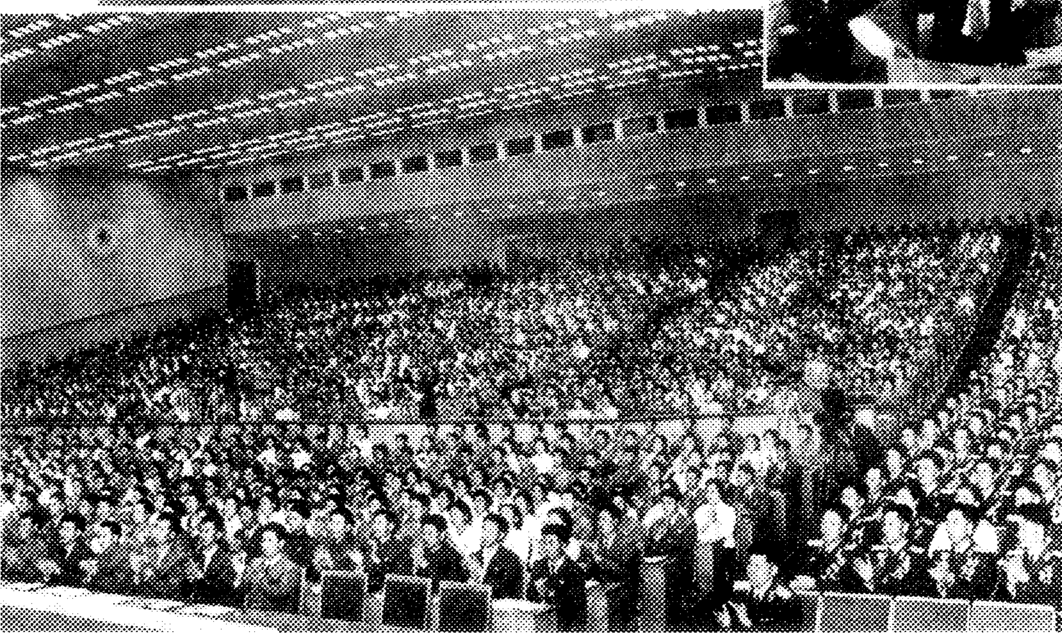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사로청 제6차대회 대표

들과 외국의 벗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대표들을 환영하는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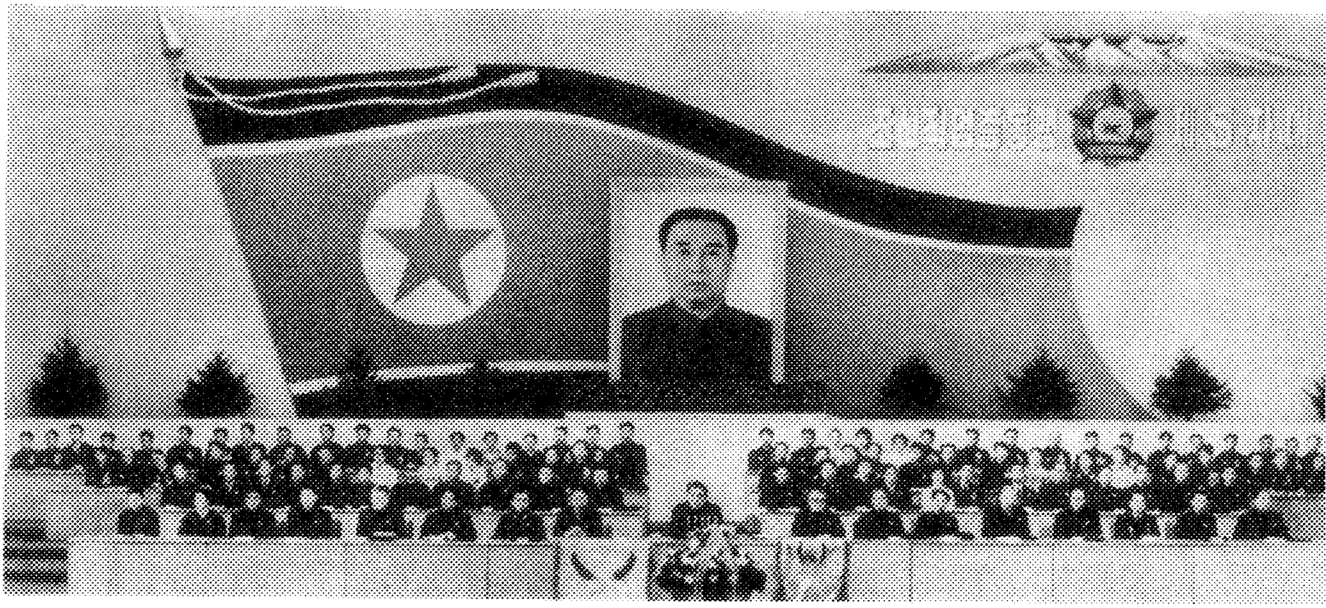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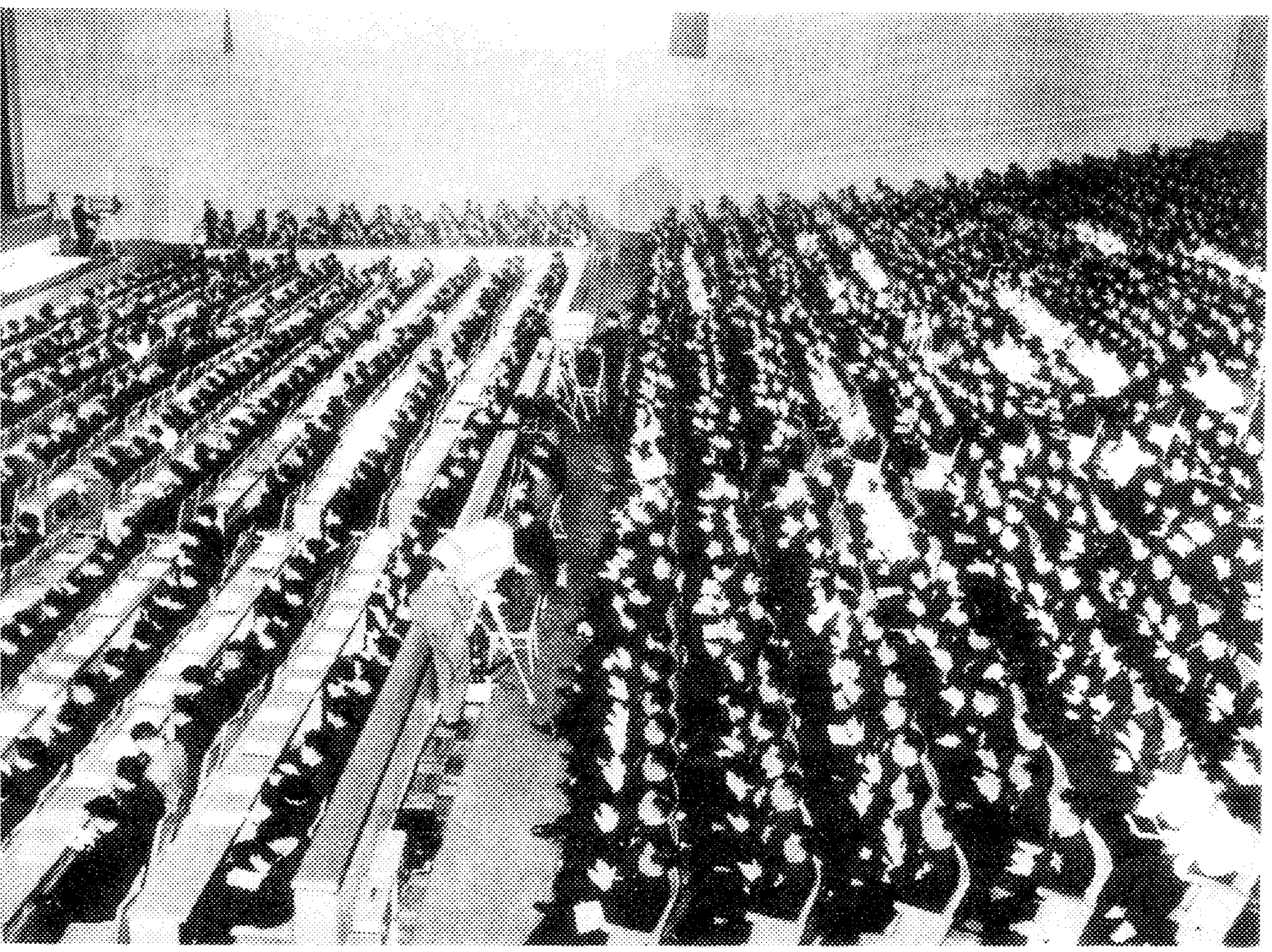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진행된 녀맹 제4차대회 주석단과 대회참가자들

녀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김성애동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진행된 직총 제5차대회 주석단과 대회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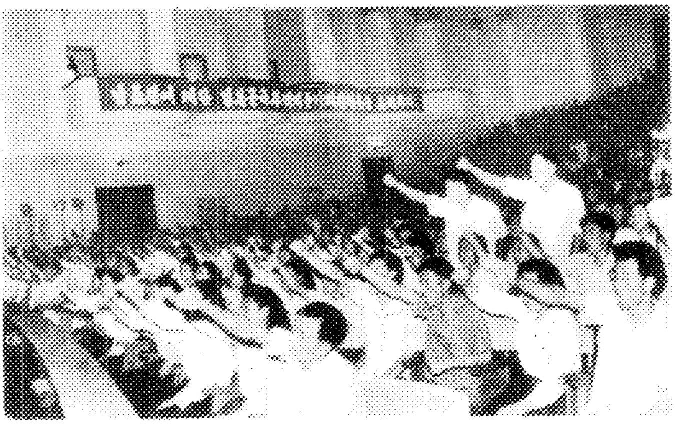


귀국재개 제1차선(156차)으로 청진항에 도착한 동포들을 혈육의 정으로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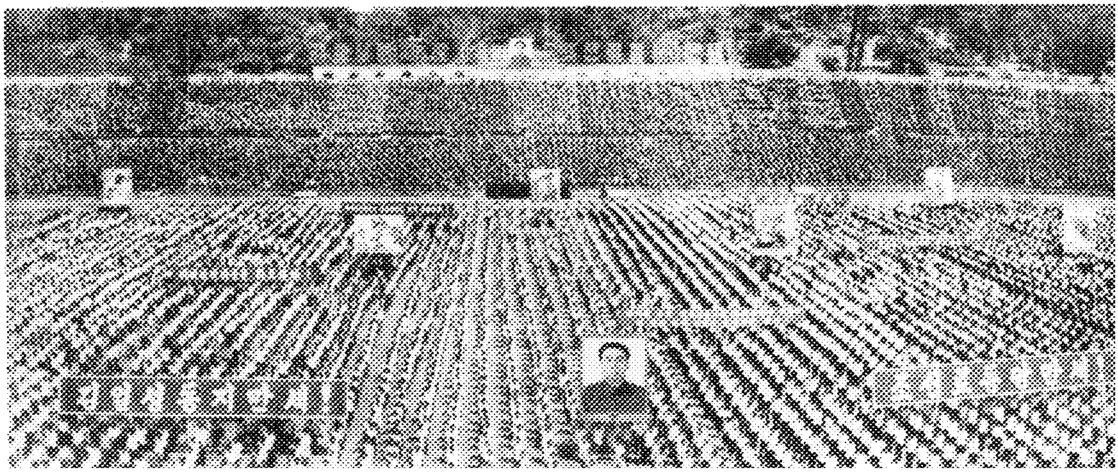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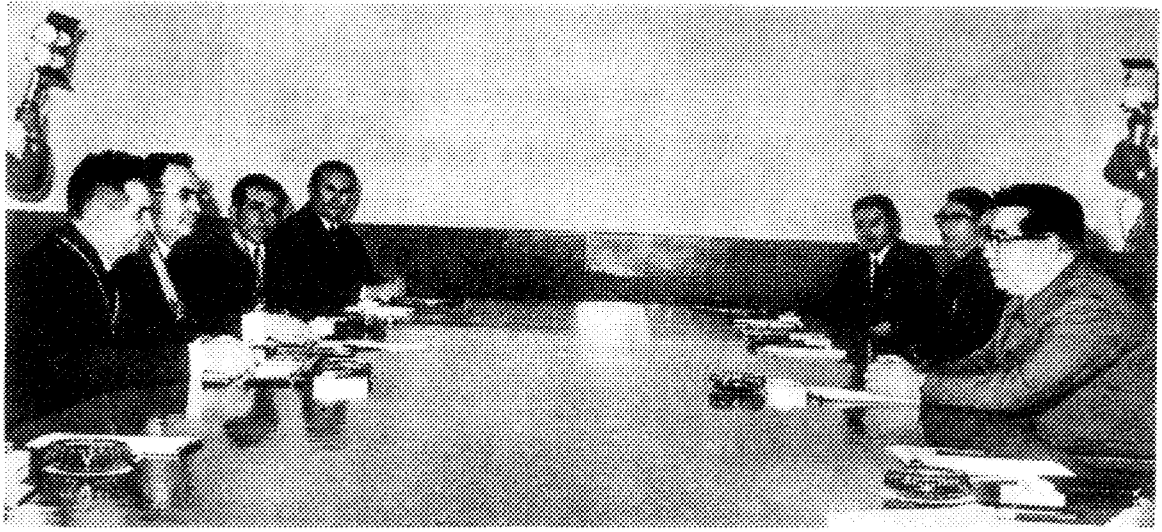
제 6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돌아보았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 성토대회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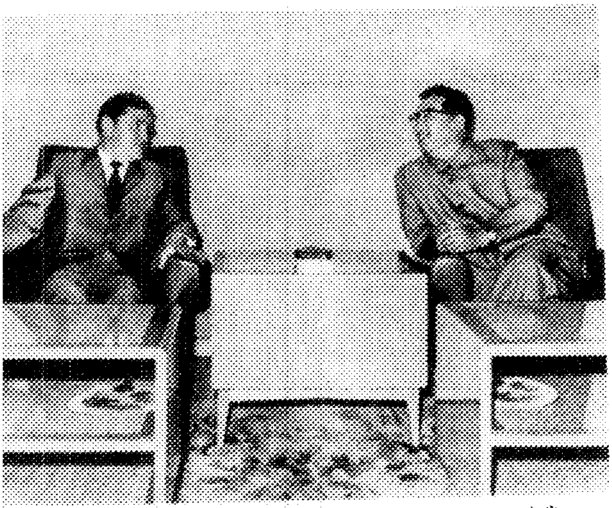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간의 회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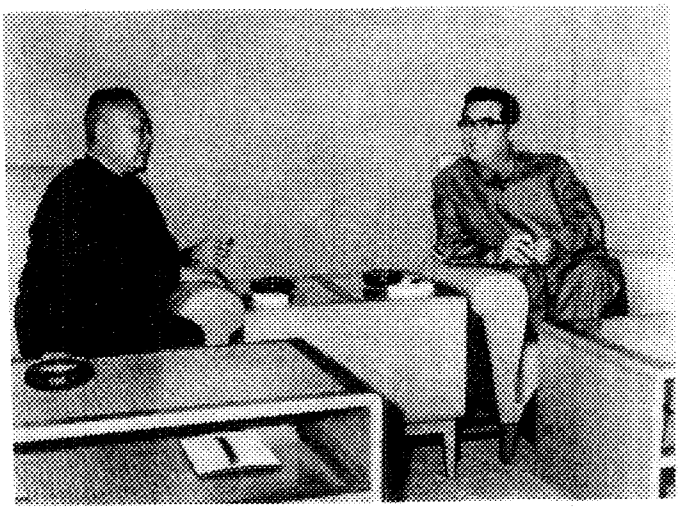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연도에서 소년단원들이 그에게 진심어린 꽃묶음을 드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칠레 사회당대표단은 비행장에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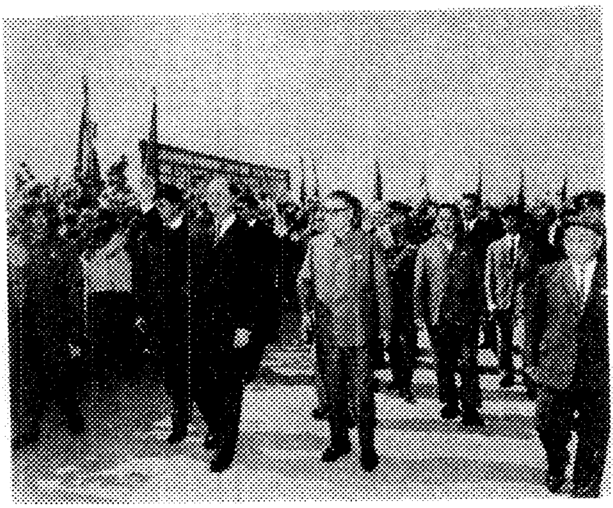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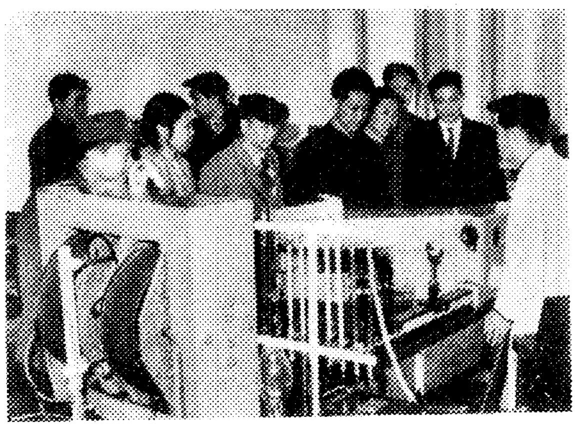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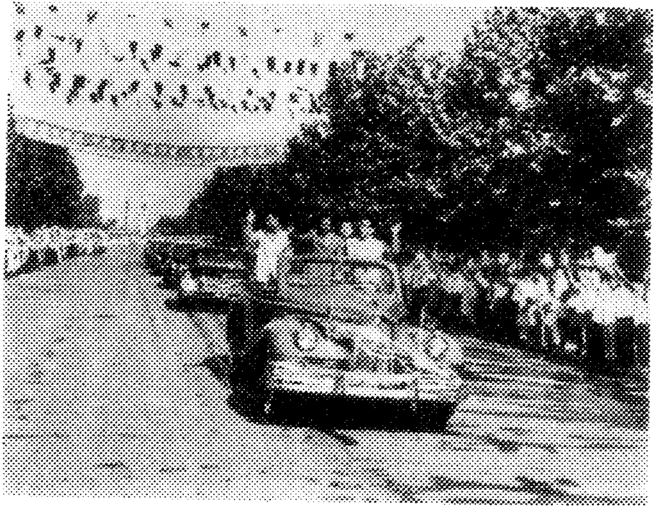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헝가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평양에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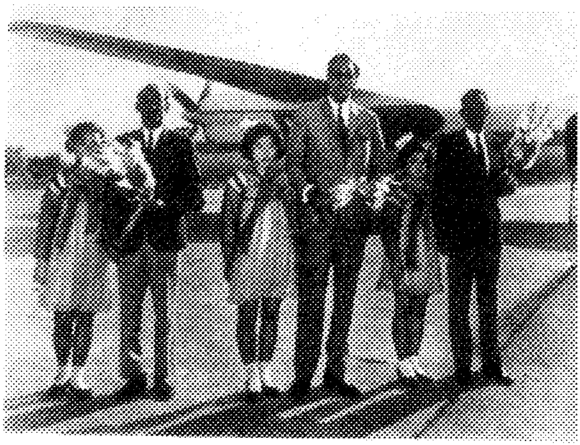
월남인민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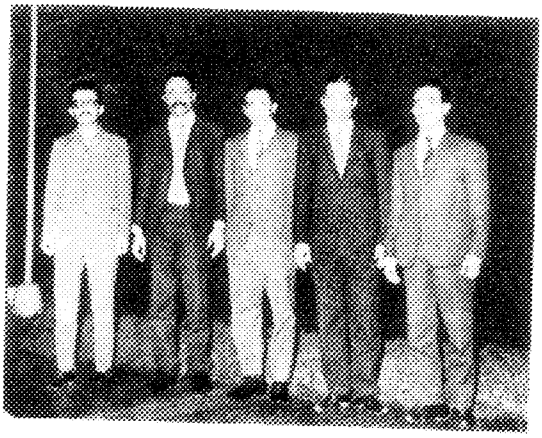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대표단



알제리정부대표단 연도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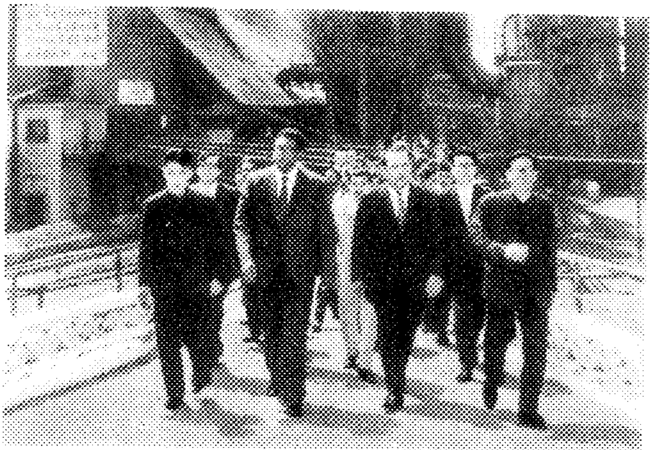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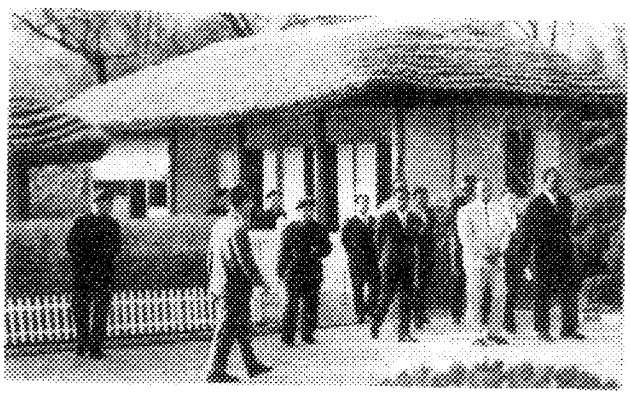
민주예멘대표단



예멘아랍공화국 친선대표단이 평양에 왔다



아랍사회부흥당 및 이라크정부대표단



말리정부대표단

정 치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해온 위대한 승리의 해, 충성의 1971년

1971년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필승불패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된 해였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충성의 붉은 마음 다하여 당 제5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 첫 진군길우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친 승리의 해, 충성의 한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972년 《신년사》, 단행본, 1페지)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아갈 넓은길을 활짝열어주시였으며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여시여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승리의 대로우에 이끌어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혁명력량을 꾸리는것, 다시말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287페지)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와 전원회의들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으며 함남도와 평남도, 평북도, 황남도당전원회의들을 조직하여주시고 현시기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무엇보다 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일군들의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고 끊임없이 장성발전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로청과 녀맹, 직총 등 근로단체 대회들을 마련하여 주시였으며 친히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교시들을 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대회, 뜨락또르운전수대회, 교원대회, 보건일군대회, 상업일군대회등을 소집하여주시고 몸소 참석하여 주시였으며 회천과 구성지구, 신의주, 신포, 함흥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지구의 공장과 농촌, 어촌들을 찾으시여 당의 결정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가장 곧바른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와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기들의 제일 생명으로,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꾸준히 연구학습하였으며 그를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였다.

1971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그이의 은혜로운 사랑의 빛발아래 하늘땅의 끝까지 그이를 따르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를 모시려는 억년드놀지 않는 신념을 키워온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통일단결의 해였다.

또한 이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따라 이땅우에 자동화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전환의 해,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수행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예순돐인 1972년 4월 15일전으로 그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함에 있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충성의 한해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이 그 수행을 위한 중심고리이며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 자동화의 새 시대에로의 혁명적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몸소 이 사업을 지도하여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2월 20일 희천땅을 찾으시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였으며 동서해의 기계전사들과 용해공들, 탄부들과 광부들, 농민들과 어로전사들을 찾으시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3대기술혁명의 거세찬 불길이 타번지가도록 하시였으며 자동화, 반자동화, 종합적기계화에로의 대중적대진군이 온 나라에서 지속을 울리도록 이끄시고 고무하여주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그이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가득히 안고 애로와 난관을 이겨

내면서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희천과 구성, 만경대와 청진, 함흥을 비롯한 공작기계공장과 온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료원의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졌다.

6개년계획수행의 중심고리이며 심장인 공작기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수많은 능률적인 기계들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수행을 빨리 다그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졌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화학공업과 건재공업부문, 철도운수부문의 힘든 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와 현지지도하신 지방의 도당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회의들에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공업에서 생산능력이 새롭게 조성되고 생산량이 장성되였으며 그 가지수가 훨씬 늘어나고 제품의 질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게하는 여러가지 질좋은 가정용품과 부엌세간들이 대량적으로 생산되였으며 수산업에서는 물고기 랭동체계가 마련되는 등 새로운 획기적 발전들이 이루어졌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6개년계획의 첫해를 만풍년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농업 전선에서도 실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3만여정보의 분수식발관개가 끝났으며 논과 밭이 기계화에 유리하게 새로 정리되고 도처에서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를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이 전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졌다.

농업생산에서 농촌기계화초병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농사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가 강화되여 5월 25일전으로 모내기를 끝내는 기적을 낳았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지가 비교적 적고 산지가 우세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중간지대농업에 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중간지대군들을 몸소 현지지도하시여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열두삼천리벌을 비롯한 평야지대에서는 물론 녕변군을 비롯한 중간지대 농사에서도 례년에 없는 만풍년이 들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큰 걸음을 내 디디였다.

먹을걱정 입을걱정 모르는 우리 인민은 더 잘 먹고 더 좋은것을 입고 훌륭한 문화주택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살고있다.

이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대회와 보건일군대회, 상업일군대회들을 소집하여 주시고 친히 참석하시여 교육, 보건, 상업 부문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교육, 보건, 상업은 더욱 인민적인것으로 되였고 인민들은 아무런 근심걱정, 불편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농촌의 뻐스화와 수도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조건과 수준은 골고루 더욱더 높아졌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더욱 격화되는 새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군 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 요새화의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도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 불패의 혁명대오로 억세여졌으며 로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원들도 공장과 농촌, 자기들의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우리의 국방력은 더욱 공고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안받침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말 그대로 전국이 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이 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를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8월 6일연설과 일본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뚜렷이 천명하여주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더욱더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투쟁과 승리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웠으며 특히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형성하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지난날에는 평화통일이란 말조차 할수 없었던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할수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남북간의 접촉을 그처럼 완고하게 반대하던 남조선당국자들도 늦게나마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되였다.

참으로 1971년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벌려온 투쟁의 해였으며 그 길우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승리의 해였다

이해에 총련과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재일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은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확히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8월 6일에 복잡한 현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시고 세계 반제혁명력량이 취할 행동강령을 명백히 제시하신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연설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추를 안기였다.

이 해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정은 더욱더 두터워졌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1971년 한해에 그이의 혁명력사와 위대한 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연구소조와 출판위원회들이 더 많이 조직되였으며 수령님의 로작들과 전기가 수백만부의 단행본과 문헌집으로 나오고 1억 2천여만부에 달하는 각국 출판물들에 실리였다.

이해에 우리는 시에라 레온, 말따와 외교관계를 맺고 모리셔스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관계와 무역 및 문화적교류를 더욱더 활발히 진행하여왔다.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캄보쟈국가원수,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여러나

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사회단체 일군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대렬이 더욱 늘어났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여왔다.

참으로 1971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 제5차대회가 가리킨 길에서 세인을 경탄시킨 자랑찬 승리, 눈부신 전변을 일으킨 영광스러운 해였으며 수령님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반제반미투쟁방침에 의하여 남조선을 비롯한 미제가 발붙이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킨 폭풍의해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혁명과 건설에서의 혁신적 성과로 맞이한 충성의 열정을 그대로 안고 슬기와 용맹과 위훈을 펼치며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의 확대회의가 1971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중앙위원회, 성, 중앙 기관의 일군들, 지방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농업부문과 보건부문 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집행총화와 당 제5차대회에서 과수부문앞에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서와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인 대외정책과 조국통일방침이 전적으로 정당함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긴장된정세 특히 인도지나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전원회의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더욱 포악하고 교활하게 감행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인도지나에 대한 침략전쟁확대책동을 이지역인민들의 독립과 자주권 그리고 령토완정에 대한 가장 범죄적인 침해로서 준렬히 규탄하였다.

전원회의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이 달성하고있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그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굳은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영웅적 반미구국항전이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여 그를 적극 지원할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인민이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웰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이 피묻은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라는것이 강조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및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매우 첨예하고 긴장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다.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 및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며 미일침략자들의 2중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새 전쟁의 위험도 가실수 없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운명과 장래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현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의 모든 애국적력량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가 제기한 8개항목의 구국방안에 천명된 우리 당의 자주적 조국통일방침이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와 투지, 한결같은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방침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사회단체들이 이 호소문에 지적된 방침에 따라 모든 조치들을 취할 과업들이 토의되였다.

그리고 지금 남조선에서 앙양되고있는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투쟁을 각 방면에서 벌릴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집행총화와 당 제5차대회에서 과수부문앞에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북청회의 이후 나라의 과수업발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이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제시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소집하시고 지도하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북청에서 타오른 창조의 홰불은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여 강산의 면모는 일신되고 지난날 버림받아오던 모든 야산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과 재부를 안겨주는 황금산, 파일동산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과수면적은 해방전에 비하여 실로 33.3배로 비약적인 장성을 하였다.

근 8,000정보의 과수면적을 가진 세계 1등급의 파일군, 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수농장들이 1,000정보이상의 과수면적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수십, 수백정보씩의 과수원을 가지게 되였다.

토론자들은 자기 지방의 구체적사실을 들어 말하면서 북청회의이후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많은 과수원들은 벌써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있으며 바야흐로 전국의 모든 과수원들이 수세왕성한 청춘기에 들어섰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 토론된바와 같이 과수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 과수원의 기술경영관리가 심화발전됨으로써 파일생산량은 해마다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오늘 우리의 과수업은 농업생산에서 주도적부문의 하나로 전환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북청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영예롭게 실천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으며 후대들에게 넘겨줄 커다란 재부를 이루어놓았다는것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총화하면서 이 빛나는 승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또하나의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을 동원하여 달성한 승리로서 이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적밑천을 어떻게 마련하며 생활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 하는가를 실천을 통하여 온 세상에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대자연을 개조하여 과수업의 공고한 토대를 쌓고 온 나라를 파일동산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승리는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과수업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야산을 개발하여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본보기를 몸소 꾸리시고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시면서 이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을 진두에서 직접 지휘하시였으며 과수면적이 확장되는데 상응하게 주체적인 기술관리체계와 경영관리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오늘과 같은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고 흥분된 심정으로 한결같이 말하였다.

북청회의결정 관철에서 달성한 빛나는 승리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제시하면서 전원회의는 먼저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잘 꾸리고 알뜰히 가꾸는데 힘을 집중하여 과수원토지를 적극 보호하며 과수업과 현대적축산업을 밀접히 배합하여 발전시켜 토지를 개량하며 파일생산량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과수업의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빨리 실현하며 과수원들에 관수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파일생산량이 해마다 빨리 늘어나는데 상응하게 그의 저장능력을 더욱 늘이고 파일가공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파일저장고건설과 가공공장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이르는곳마다에 빨리 자라는 수종들로 파일포장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포장용기공장건설을 널리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과수원을 잘 가꾸는것과 함께 과수면적을 새로 늘이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전원회의는 사과를 위주로 하면서 올과일과 늦과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빨리 자라고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파일나무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토의하면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첫돌파구를 여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100일 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희천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전국에 타번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으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는것을 전원회의는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6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데 대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탐구된 커다란 예비를 실현화하며 계속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과의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실제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있는데 따라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해서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고 제품의 질을 더 한층 높이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을 문화혁명의 주요한 과업으로 삼고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중앙이 지방을 돕고 중앙공업이 지방공업을 도우며 중공업이 경공업을 돕고 공업이 농업을 도움으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는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하면서 우리 당의 정확한 보건정책이 관철되고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잘 차례지게 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이 더욱 증진되게 되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앞으로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의학기술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의학과학사업의 연구기지를 더 잘 꾸리며 의학부문간부들을 더 많이, 더 잘 양성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근로자들속에서 군중적운동으로 위생문화사업을 강화하며 전문병원과 병동을 더 많이 건설하며 농촌진료소들의 병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탁아소사업을 한층 더 개선할데 대해서와 의약품생산과 의료기구생산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

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결론과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 보고와 올해의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는 1971년 11월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의정 첫째문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였다.

의정 둘째문제《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와 의정 셋째문제 《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하여》의 보고가 있은 다음 매개 의정에 따라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첫째문제를 토의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관통되고있는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착잡한 현국제정세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준것으로써 우리 당과 모든 일군들이 국제정세를 주체적인 립장에서 옳게 평가하고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에서 제시하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당의 활동방침은 현시기 조성된 국내외정세밑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정확한 방침이라고 일치하게 지적하면서 지지찬동하였다.

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대외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동정은 더욱더 높아지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도 곤경에 처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괴뢰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뒤흔들리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은 궁지에 빠지고있다.

전원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한층 더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미제를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저지시키며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밑에서 김일성동지께서 금번 제시하신 당의 활동 방침을 관철할 때 우리의 혁명위업에서 새로운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둘째문제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먼저 실생활을 통하여 이미 뚜렷이 증시된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강조된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할데대한 방침은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이후시기 기술혁명의 총적목표와 내용 및 방도를 새롭게 천명한 가장 정확한 기술혁명로선이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이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기술혁명의 과업을 가장 명백히 제시한 방침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길을 밝혀준 기술혁명강령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의 기치로 된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이후 3대기술혁명의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첫해의 투쟁을 총화하면서 전원회의는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있고 그 승리를 위한 길이 완전히 열리였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며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 생산수준을 훌륭히 돌파한 회천과 구성 그리고 만경대 기계전사들의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전하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첫돌파구를 뚫는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승리는 우리 당의 기술혁명로선과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투쟁방침의 정당성을 더욱 증시하였다고 일치하게 지적하면서 전원회의는 수령께서 가르키시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때 3대기술혁명의 높은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3대기술혁명과업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그 중심고리이며 기본열쇠인 공작기계공업발전에 계속 주되는 힘을 넣으며 거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공작기계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맞게 그 품종을 늘임으로써 공업에서의 기술혁명, 농촌기술혁명,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것을 강조하면서 공작기계생산과 함께 자동차와 뜨락또르 그리고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며 해마다 더 많이 농촌에 공급할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는 사업일뿐만아니라 현시기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전원회의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목을 돌리면서 이미 꾸려진 전자공업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전자공학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널리 진행하며 특히 지난날 중소규모화학공장을 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한것처럼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중소규모의 자동화계기기구 분공장을 이르는곳마다에 꾸릴것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기계공업이 그 선구자가 되여 자체의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며 설계사업,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여 기계공업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울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소극파 보수, 침체와 락후를 불사르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혁신하며 대담하게 전진하는 생기발랄한 창조적기풍,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이 도처에서 높이 발양되도록 할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도일군들이 높은 당적책임감과 혁명적열의밑에 조직사업, 지도사업을 면밀히 따라세우며 앞장서서 대중을 기술혁신의 길, 자동화의 길로 이끌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의정 셋째문제 《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하여》토의하면서 전원회의는 인민소비품생산분야에서 지난 기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질좋고 다양한 인민소비품생산을 한층 더 늘이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옳바른 방침에 의하여 이미 마련된 힘있는 경공업기지를 잘 운영한다면 인민생활을 더 한층 유족하게 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인민소비품생산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현존 경공업공장, 기업소들을 잘 관리운영하며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 계속 새로운 공장들을 더 잘 건설할것을 제시하였다. 나라의 소비품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지방공업을 가일층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전원회의는 온갖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는 한편 중앙공업으로부터 지방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오늘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그 가지수와 량을 늘이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전원회의는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하루속히 선진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생산자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성의를 다하여 알뜰하게 만들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기술관리에 대한 질서를 철저히 세울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재산, 공동재산을 주인답게 알뜰히 다루고 적극 보호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당 및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진실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깐지고 실속있게 하며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이상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부들과 일군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할것을 강조하면서 3대기술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실생활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제반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실증하였으며 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의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가 1971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로서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 순위에 따라 첫째의안인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보고가 있은 다음 뒤이어 토론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견결한 반제반미사상과 그이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 통일방침에 립각하여 제출된 보고는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일관된 립장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옳게 반영하였다.

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 공격의 화살을 돌려 악명높은 《새아세아정책》을 떠벌이면서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 괴뢰들을 동원하여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고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영웅적 반미구국투쟁을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여 끝까지 견결히 지지성원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재생재무장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공동전선을 강화하여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또한 미제가 남조선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는데 대해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재침책동을 강화하는데 대하여 폭로함과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1페지)

회의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장기집권책동을 짓부시고 그의 군사파쑈독재를 끝장내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걷어버리기 위한 공동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설것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와 민족적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영웅적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전체 애국적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박정희매국역적의 무리들을 쓸어버리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공동투쟁에 한결같이 펼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에 기초하여 8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과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문제를 협상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의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오랜기간의 투쟁에서 단련된 남북조선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의와 단합된 힘이 있는한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과 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인도지나 정세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성명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의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0년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1년국가예산에 대하여》의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회의는 1970년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혁명적사변들로 가득찬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다고 하면서 이해 국가예산이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확고히 보장하고도 많은 수입초과를 가지고 결산하게 되였다고 지적하고 우리 나라 국가 예산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회의는 1970년도 국가예산집행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면서 그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고귀한 열매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1971년국가예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이미 이룩하여놓은 사회주의공업의 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게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심의에 제출된 국가예산안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에 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0년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1년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미제의 전쟁정책과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천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월현지지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회천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와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100일전투》에 힘차게 펼쳐나서고있는 회천지구 로동계급의 영웅적로력투쟁정형을 료해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회천지구를 오늘과 같은 현대적기계제작공업기지로 전변시키고 그이의 따뜻한 품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령도계급으로 자라난 이곳 로동계급은 항상 무한히 신뢰하며 흠모하여마지않는 어버이수령님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속에서 맞이하였다.

회천지구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은 지난날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이 땅우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가렬처절하던 시기에 승리후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려는 위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전쟁의 불길을 헤치시면서 몸소 여기 회천지구에 찾아오시여 우리 나라의 첫 기계제작공업기지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시였으며 친히 10여차례나 회천지구를 찾으시여 현대적기계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회천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수령님에 대한 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충직성을 본받아 그이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 바위를 까내고 터전을 닦아 공장들을 일떠세웠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짓부시며 새로운 기술의 고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힘차게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한적한

산간벽촌이던 희천지구는 오늘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필요한 공작기계들과 각종 기계들을 훌륭히 생산보장하는 강력한 기계제작공업기지로 꾸려졌으며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희천지구의 자랑찬 력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일편단심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찬란히 꽃피워온 영광스러운 투쟁의 로정이며 기술혁명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고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온 빛나는 기록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력사적과업이 당면하게 나서고있는 시기에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부대가 있는 희천지구를 또다시 찾으시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며 특히 생산공정 전반을 자동화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친히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고 협의회들을 지도하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손수 풀어주시였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생산현장에 들리시여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름묻은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세히 알아보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과 지혜를 모아 창안제작한 여러가지 능률높은 기계들과 자동선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으며 그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 기술자들과 담화하시면서 그들이 보수나 공명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는 높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장들을 돌아보신 다음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로동자, 기술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계속 힘있게 전개하며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에서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데서 지난 기간에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계속 힘있게 전개하라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가공직장들의 생산조직을 대담하게 개편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혁명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법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전기기계생산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하여 공작기계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모든 부문들에서 협동생산품과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는데 보조를 맞추어 대담하게 현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의 리익밖에는 그 어떤 리익에 대하여서도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정신을 가져야 하며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희천지구의 다른 공장들에도 들리시여 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실정을 깊이 료해하시고 공장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희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지구의 공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도록 후방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몸소 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좋은 주택을 더 많이 지어주며 학교, 유치원, 탁아소들과 각종편의시설들을 더잘 마련하여주며 남새, 고기, 닭알, 물고기 등 부식물들을 더 풍족하게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후방공급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데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고 손수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자애로운 어버이심정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피시면서 극진한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굳게 믿으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희천지구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금 새로운 거세찬 혁명적불길이 타번지고있다.

희천지구의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나라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자기들을 찾으시여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여주시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새로운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안고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기어이 빛나게 실천하여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불같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며 6개년계획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완수하려는 드높은 혁명적기세로 생산공정의 전면적자동화와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희천지구 현지지도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위대한 비약을 일으킴에 있어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환으로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10월현지지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10월 9일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희천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희천의 붉은 기계전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힘있게 내밀며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뛰여넘은데 뒤이어 9월에는 1천대고지를 점령하고 드디어 당창건 스물여섯돐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였다.

당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이때에 영광스럽게도 어버이 수령님을 또다시 몸가까이 뵈옵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게 된 회천의 로동계급은 이날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불같은 충성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회천의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인민을 항상 새로운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때에 룡성발전하는 조국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며 전쟁의 불길속을 헤치시고 한적한 이곳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 공작기계공업의 첫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이곳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공작기계생산의 강력한 기지를 꾸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지난 2월 또다시 회천땅을 찾으시여 이 공장 기계전사들의 심장속에 창조의 불씨를 안겨주시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올리도록 몸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가슴마다에 새기고 그이께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회천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친 난관들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달리고 또 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을 또다시 찾으시여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생산현장들에 들리시여 이 공장 기계전사들이 충성의 열정을 안고 만들어놓은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름묻은 손을 하나하나 굳게 잡아주시고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축하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공장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담화를 하시였으며 회천지구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도 지도하여주시였다.

이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8월에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있는 수준을 훨씬 릉가한데 뒤이어 9월에는 1천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그 기세로 계속 힘있게 달려 년간계획을 근 석달이나 앞당겨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낸 회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그 가족들, 협동생산을 잘 보장하고 지원해준 각지 근로자들,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회천지구의 모든 공장들과 건설사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력사적인 당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기 위하여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력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더잘 지어주고 녀성해방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더 나아가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업에서의 기술혁명, 농업에서의 기술혁명,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5차대회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내세운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중요한 투쟁목표와 과업,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준것으로서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공작기계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가 6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업과 농촌경리 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가일층 높이는 문제도,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도 모두 중요하게는 기계공업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기계공장들을 더 차려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작기계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작기계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중심고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회천공작기계공장과 기계공업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천공작기계공장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미 점령한 진지를 공고히 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고 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공작기계의 질을 높이며 품종을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공작기계들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품종을 늘여 기종간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다 능력에 맞게 한가지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기술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하고 기계공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대형공작기계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형공작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알뜰하고 편리한 문화주택을 더 많이 짓고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회천시 건설자들이 도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합숙,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들을 계속 더 많이 짓고 앞으로 회천시를 현대적으로 알뜰히 꾸려진 공산주의 도시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도시건설과 도시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남새와 닭알, 고기, 물고기 등 부식물공급정형을 구체

적으로 료해하시고 로동자들에 대한 부식물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도시경영사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지방정권기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국내외정세가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하루빨리 남녘땅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공작기계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몸가까이 뵈옵고 끝없는 감격과 흥분속에서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직접 받은 희천공작기계공장의 붉은 기계전사들을 비롯한 희천지구의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그이의 두터운 신임과 깊은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희천지구현지지도는 그이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받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이미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하였으며 올해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훨씬넘쳐끝낸 희천공작기계공장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이 지구 전체 근로자들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에서 새로운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은 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희천지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기술혁명수행에 더잘 이바지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불타는 혁명적열의로 들끓고있었으며 충천한 기세로 새 전투에 돌입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의 사업과 함경남도 당위원회및 함흥시당위원회련합 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4월 함경남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으며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에걸쳐 함경남도 당위원회 및 함흥시당위원회 련합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흥시, 신포시, 북청군을 비롯한 함경남도내 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경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첫해인 1971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희천땅에서 타오른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높은 정치적열의로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빛나는 로력적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남도 당위원회및 함흥시당 위원회 련합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함경남도 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당, 행정, 경제 기관 간부들과 여러 공장 당비서, 지배인들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희천땅에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도내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많은 증산예비를 탐구동원하고있는데 대하여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특히 룡성기계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 대상설비를 배이상 생산할데 대한 높은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회의에서는 비날론생산과 염화비닐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비료생산을 장성시키고 합성고무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도내 공업건설과 주택건설에 많이 요구되는 건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건재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또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함흥지구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기, 닭알, 남새 등 부식물을 더 풍부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 제5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함경남도내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 도내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당 및 행정, 경제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여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와 불같은 혁명적열의로 들끓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신포시 수산부문공장, 기업소들과 동해지구 수산부문일군들의 협의회를 지도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4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신포에서 동해지구 수산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으며 신포시내 수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끝내며 희천에서 타오른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전국이 《100일전투》로 들끓고 있는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산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 대수산기지—신포지구를 몸소 찾으시여 수산부문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산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어엿한 주인으로 당의 붉은 수산전사로 자라났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곳 수산부문일군들은 항상 무한히 신뢰하며 흠모하여마지않는 어버이수령님을 한없는 감격과 흥분속에서 맞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산업이 인민생활의 향상과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사회주의적수산업을 창설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수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침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불과 석달후인 1953년 10월, 여기 신포지구에 찾아오시여 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이곳을 나라의 대수산업기지로 꾸릴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믿음직한 배건조기지와 기관생산기지, 어구기자재공장들을 꾸리시였으며 친히 7차례나 신포지구를 찾으시여 수산부문일군들을 영광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로작업이 힘들다하시며 어로공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게 모든것을 보장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강력한 기지의 하나인 희천지구를 찾으시여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신데 뒤이어 이날 또다시 신포지구 수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신의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아침부터 밤늦도록 배에 오르시고 어로공들의 가정도 방문하시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일일이 료해하시였으며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어로공들이 당이 제시한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수산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비약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포시내 수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동해지구 수산부문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배를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가공을 공업화함으로써 물고기의 생산과 가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며 수산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먼바다고기잡이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바다어로공들이 헐하게 일하며 문화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고기배들이 잘 꾸려진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시면서 고기배들을 현대화, 만능화할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어구들과 선진적인 설비들을 갖출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그물을 갖추어줌으로써 모든 고기배들에서 건착, 자망, 트랄, 어로작업을 다하여 여러가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고기배마다에 더욱 성능이 높은 어군탐지기와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어 어로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는데 필요한 어구들과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해서는 약전설비생산기지와 그물공장, 고기잡이에 필요한 기계생산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바다고기잡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소들에서 대형가공모선, 대형랭동운반선과 작업선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바다고기잡이에 필요한 배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배의 건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기술장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소들에서 큰 배를 잘 만들수 있도록 기술장비를 튼튼히 꾸리고 어항을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선박수리공장들과 조선소들의 공무동력직장을 더욱 보강하여 부속품생산능력을 높이며 부속품의 예비를 넉넉히 마련해야 배의 가동률을 훨씬 높일수 있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가공모선과 랭동운반선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필요한 부속품들을 수산부문자체에서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먼바다에서 일하는 고기배들의 수리를 직접 가공모선에서 해주는 선박수리체계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바다에서 물고기를 싣고 돌아온 배들이 제때에 물고기를 부리고 바다에 나갈수 있도록 어항들에 고기배붙이는 다리를 대대적으로 증설확장하고 물고기를 퍼올리는 설비들을 보강하며 기름과 물, 남새 등을 지체없이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다음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만톤씩 잡는 명태를 넉넉하게 저장하며 명태가공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명태를 인민들에게 분한있게 골고루 공급하며 명태잡이철이 지난 다음에도 오래 두고 생신한 명태와 맛좋은 가공품을 풍족하게 먹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마다에 랭동고와 랭장고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짧은 시일내에 방대한 면적의 건물을 짓고 많은 설비를 갖추는 이 사업은 쉬운일이 아니나 당에서 한번 결정한 이상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높은 당성과 인민성을 발양하여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짧은 기간내에 많이 잡히는 명태를 잡는 때에 집중적으로 얼구어 물좋게 오래동안 보관할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랭동고와 랭장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광범한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명태잡이중심지의 하나인 신포시에 급동시설과 저장고를 갖춘 랭동공장들을 잘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평양시, 개성시와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 인민들에게 물좋은 물고기를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

할수 있도록 명태 생산지와 소비지들마다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랭동고와 랭장고들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허실함이 없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송조직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이 명태잡이철에는 그의 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랭동차와 랭장차를 더 많이 만들며 특별화차의 운행을 조직하는 등으로 물좋은 생선이 지체없이 인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물고기가공을 「공업화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가공설비들을 대량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또한 먼바다고기잡이, 가까운바다고기잡이와 함께 깊은바다고기잡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필요한 고기배와 기술장비들을 잘 갖추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로대우에서 깊은바다고기잡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산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문내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여 어로공들에 대한 정치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산부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해지구 수산부문일군협의회에 대한 지도와 신포시내 수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물고기잡이와 물고기가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협의회참가자들과 수산부문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끝까지 관철하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잘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함으로써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주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지난 기간 평남도에서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거대한 전변이 이룩되였으며 인민생활이 계통적으로 빨리 향상되였음을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생산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입이 급속히 증대되였다. 살림집이 수많이 건설되였으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빨리 늘어났다.

분수식관수체계를 받아들인 남새생산기지가 마련되고 현대적설비를 갖춘 닭알목장, 오리목장들이 건설된것을 비롯하여 튼튼한 부식물생산기지가 꾸려졌다.

과수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더욱 향상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시기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업을 빠른 시일내에 수행할데 대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와 회의진행과정에 하신 교시에서 인민생활을 한층 더 높임에 있어서 평남도당위원회와 도내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몸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조직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남도가 공업비중과 알곡생산비중이 높으며 특히 최근년간 새로운 큰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주민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되므로 인민생활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부식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의 경험을 본받아 남새발을 배수가 잘되는 등성이에 옮게 정한후 분수식관수를 잘하고 거름을 잘 주어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며 치밀한 계획밑에 남새를 계단식으로 잘 가꿈으로써 사철 여러가지 남새를 근로자들에게 더욱 풍족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이미 건설된 현대적인 국영닭공장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더 많은 닭알을 생산할뿐아니라 전인민적운동으로 군, 리 정미소와 협동농장 작업반과 농촌지대 집집마다에서 닭을 침으로써 닭알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인민적운동으로 닭을 쳐서 닭알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대담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닭치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광범히 보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좋은 어장을 가지고있는 평남도에서 근해어업과 세소어업을 계속 발전시켜 여러가지 물고기들과 새우, 게, 조개들을 비롯한 수산물을 많이 잡아 근로자들에게 넉넉히 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랭동공장을 로동자구와 각 군에 속히 건설하여 생선을 사철 로동자, 농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목축업보다 투자가 적게들고 주민들에게 영양가높은 부식물을 많이 공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이미 있는 조선소들을 더 확장하며 새로 더 많은 조선소와 어구공장을 꾸려 기계배들과 여러가지 어구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서해안의 간석지를 막아 큰 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여 숭어, 뱀장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많이 기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음으로 해바라기를 비롯한 유지작물을 많이 심어 기름을 더 원만히 공급하며 과수원을 더잘 관리

하며 과실을 잘 가공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데 대해서와 딸기, 양벗을 비롯한 올과실과 평안남도의 명산인 밤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켜 더 많은 고기를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현대적인 돼지목장들을 빨리 완공하며 각 지방에서는 알곡이 증산되여 사료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현대적인 돼지목장으로 건설확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야 축산업도 발전시킬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분수식밭관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 많은 밭에 관수를 하며 다수확작물 품종으로 2모작농사를 잘하여 밭에서 알곡수확고를 정당 10톤까지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원만히 공급하기 위해서 그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식료품상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해결에서 전변을 일으킬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등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지을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강선, 기양, 북창, 덕천, 개천 남포를 비롯하여 로동자들이 집중된 지대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등 문화후생시설들을 더많이 짓기 위해서는 지방건재공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하시면서 벽돌공장, 기와공장, 유리공장, 종이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한 건재공장들을 더잘 꾸리고 새로 일떠세우며 지방건설에 쓸 목재와 종이원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협동농장마다 100정보씩 포플라, 플라타나스를 비롯한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심어륜환식으로 채벌하여 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또한 농촌살림집건설에서는 부락을 새롭게 꾸리는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 수도화를 동시에 밀고나가며 살림집을 현대적으로 아름답게 지을데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수도화는 농촌녀성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평남도가 농촌수도화에서 앞장서라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이께서는 농촌수도화에 쓸 선철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선철공장을 잘 꾸리여 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튼튼히 꾸리고 잘 관리운영하면 일용품생산을 많이 늘일수 있고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끝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산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제5차대회를 맞으면서 대대적으로 건설하여놓은 수많은 지방산업공장을 더잘 꾸리고 알뜰히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지방산업원료기지와 이 부문 일군들을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중앙공업이 지방산업공장들 및 지방건재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과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늘이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면서 이와 함께 도와 군소재지, 탄광, 광산 마을 등 로력원천이 있는곳들에 녀성옷공장, 어린이옷공장, 양말공장, 편직물공장, 신발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여 일용품생산을 늘이고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며 모든 지방들에 대중소비품을 자급자족할수 있는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국토건설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하천제방공사를 계속 밀고나가며 경사 낮은 지대에 뽕나무도 심고 비물에 흙이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밭머리에 버드나무를 심는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농사지을 땅도 더 얻어내고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토지건설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남도에는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힘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당의 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먼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의 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섰다는것은 당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결정과 지시들을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는 인민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하게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다음으로 그이께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정확한 전략적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도당위원회들이 전술적지도를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한문제씩 해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내 일군들이 당적으로 분공된 자기의 혁명임무를 성실히 집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뼈와 살로 만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올려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으신 뜻을 빛나게 실현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서들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전원회의 확대회의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동안에 걸쳐 진행되였다.

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에 평안북도에 친히 찾아오시여 주신 교시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전투적강령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도앞에 나서는 새로운 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요발언이 있었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회의를 진행할뿐 아니라 그이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투쟁과업을 토의하는 커다란 감격에 휩싸여있었으며 드높은 긍지감에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안북도에 자주 찾아오시여 도가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였으며 이번에 또다시 도내 많은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과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고 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친히 참석하시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것은 도내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에 대한 그이의 두터운 신임의 표시이며 전체 도내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도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특히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 밑에 지난 한해동안에 경제건설사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난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현지지도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대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총화하였다.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데서 평안북도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의 하나는 여러가지 공작기계와 대형기계들을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전반적기계공업부문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것이라는데 대하여 전원회의는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회의는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붉은 기계전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희천땅에 지펴올려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한것은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혁신으로 되며 이것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주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성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8월8일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 형의 2,500마력 내연기관과 45만 키로카로리시 땡동기 생산과제를 훌륭히 집행하였으며 룡암포 조선소에서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또하나의 조선공업기지를 믿음직하게 꾸리고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천톤급이상의 배를 자체로 무었을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광산기계, 방직기계, 대형굴착기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해내는것을 비롯하여 도내 기계공업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회의에서는 생산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여 더 많은 쇠돌을 생산해내고있는 덕현광산과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화학비료를 만들어 농촌에 공급하고있는 청수화학공장을 비롯하여 도내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맡겨진생산과제를 잘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총화된 중요한 성과의 또하나는 건설운수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은것이다. 회의에서는 남신의주-덕현간, 북중-다사도간의 방대한 철도부설공사를 단시일내에 끝냈으며 신의주시를 비롯하여 도내 중요 공업지구들과 농촌들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건설과 교육, 문화 시설건설에서 큰 성과를 이룩한 사실에 대하여서도 총화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여 바다를 막아 1천정보이상의 새 땅을 얻어내고 중앙경공업과 지방공업을 튼튼히 꾸리고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 특별히 지적된 다른 하나의 성과는 평안북도에서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잘 지은것이다. 회의는 올해에 평안북도가 농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내민결과에 농촌경리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고 풍년가을을 마련한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기간 도내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는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진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경제리론의 정당성을 물질적으로 확증하는것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도내에서 이룩된 이 성과들은 나라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것으로서 이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며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보면서 영웅적으로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로 된다고 전원회의는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평안북도가 지난 한해동안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도내 전체 당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당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에 넘치여 일편단심 당을 따라 용감히 나가고있는것을 힘있게 보여주는것이라고 만족스럽게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평안북도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 높이기 위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도내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 협동농민,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도내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실현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한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로력투쟁의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기간 도내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데서 평안북도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당정치군중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도내 당조직들이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중요한 과업들을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민주주의혁명

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겪는 과정에 전체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오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그들이 자신의 모든것을 당에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혁명적결의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현 시기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든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당사업에서 일을 세밀히 파고들어 깊이 알고 심도있게 조직전개하는 공산주의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현실에 나가서 당세포회의와 근로단체회의에도 참가해보고 근로자들과 담화도 하는 등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리와 희망을 잘 알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해결하는 기풍을 더욱 전면적으로 세워야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오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특히 간부들이 학습을 강화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인민경제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평안북도 당조직들이 힘을 넣어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교시에서 도내 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과업들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내 기계공업이 2,500마력내연기관과 여러가지 랭동기 그리고 대형선박과 대형굴착기등 중요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고 도내의 기계공장들이 이를 위한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공업제품생산에서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특히 희천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이미 결의한 대로 1만대의 공작기계를 반드시 생산해내야 하며 생산된 공작기계들을 받아서 자동차, 뜨락또르 수리기지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식료 및 일용품 생산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단능설비공장을 튼튼히 꾸리는데 효과있게 써먹을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힘을 집중하여 신의주시와 구성시를 더욱 아름답고 인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서와 전인민적운동으로 로동자구건설사업을 다그치고 농촌문화주택과 학교들을 더 지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이에 필요한 여러가지 건재를 충분히 대줄수 있도록 자체의 건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북도내 당조직들이 당면하게 주의를 돌려야 할 경제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올해에 이룩한 농업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가을걷이와 마당질을 허실없이 제때에 하도록 조직사업을 잘 하며 농작물 특히 벼와 강냉이의 품종을 더욱 개량하고 벼랭상모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갖추는 등 래년도 농사차비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도내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서 겨울나이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하여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도내당조직들과 모든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의식주문제를 일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볼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인민들에게 남새와 기름과 물고기, 닭알을 더 많이 공급해주기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과 녀성들과 어린이옷공장을 건설하고 다양하고 더 좋은 옷을 만들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북도당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며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전투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위대한 고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은 끝없는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한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과 금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6개년 인민경제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려는 한결같은 결의를 굳게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성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3일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구성지구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제5차대회가 내세운 전투적강령과 희천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다그치고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 명년 4월 15일까지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미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훨씬 돌파한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구성지구 로동자들의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몸가까이에 뫼옵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게 된 구성지구의 로동계급은 이날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에 차 넘치고 있었다.

구성지구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지난날 현대적기술문명에서 멀

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실 위대한 전망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지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열망에 끓어넘치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영웅적로력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여기 구성지구에 친히 터전을 잡으시고 강력한 기계공업기지를 꾸려주시고 몸소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이 지구의 공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지난 2월에는 손수 희천땅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심으로써 나라의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끄시여 구성땅에서도 새로운 비약이 나래치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희천의 새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받들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여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구성공작기계 공장의 붉은 기계전사들을 이번에 또다시 찾으시고 그들을 새로운 더 큰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이 공장 생산현장에 먼저 들리시여 로동자들과 장시간에 걸쳐 담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친어버이 심정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으며 공장의 생산형편과 그들의 투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실생활에 훌륭히 구현하고있으며 자신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여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집단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이미 6개년계획과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혁신자들과 담화하시고 치하하여주시였으며 이 공장 로동자들이 6개년계획수행에서 중심고리이며 심장인 공작기계를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는데서 이룩한 자랑찬 로력적열매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특히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붉은 기계전사들이 새 기술혁신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희천로동계급의 호소에 힘차게 호응하여 나서서 불꽃튀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림으로써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한 로력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희천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따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고 생산공정에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였으며 자체로 단능설비를 많이 만들어 설치하여 생산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공작기계의 질을 훨씬높이고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희천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1만대의 공작기계생산에 떨쳐나선 구성의 기계전사들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불요불굴의 투쟁을 벌림으로써 지난 8월에 85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년간 1만대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돕고 이끌면서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최근 4~5개월동안에 주물직장의 종합적기계화와 여러가지 가공자동흐름선들을 비롯한 7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공정들에서 로동생산능률을 3배, 5배, 최고 20배이상으로 올리는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였다.

공작기계 1만대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 공장 로동자들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생산조직을 대담하게 개편한것이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구성의 붉은기계전사들은 결단성있게 가공품생산을 품종별, 제품별로 전문화하는데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가공직장들에서 반복공정을 완전히 없애고 생산주기를 결정적으로 줄여 치차와 축류를 비롯한 일련의 가공품생산을 4~5배로 높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는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영웅적인 구성의 기계전사들은 수령님께 올린 자기들의 충성의 맹세를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생산공정들에 자동흐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 속도함가공과 축가공 자동흐름선을 완성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주물소재생산을 가공에 결정적으로 앞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구성의 로동계급은 분사식 조형기에 의한 밀차식대형물흐름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조형능력을 7~8배로 높였으며 자체로 수압사락기를 만들어 모래떨기작업능률을 최고 18배까지 높이는 기록적성과를 올리였다.

구성의 로동계급이 이룩한 이 자랑찬성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설된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는것이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를 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이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데 대하여 거듭치하하여주시면서 이것은 전반적인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데서 커다란 승리로 되며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다그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늘 질좋은 공작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것은 새로운 공장들을 더 건설하며 이미 있는 설비들을 더잘 돌리고 더욱 보강하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전진, 계속투쟁, 계속혁신하여 1만대의 공작기계를 반드시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생산조직을 개편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성능높은 공작기계를 더 넉넉히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이 공장 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구성지구의 다른 공장, 기업소들도 현지지도하시고 이 지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편리하게 꾸려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공장들 앞에 나선 과업들과 그 해결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구성지구의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수령님탄생 예순돐 전으로 기어이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어버이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려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으며 드높은 혁명적기백과 불같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의주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신의주방적기계공장과 천리마락원기계공장, 룡암포조선소와 8월 8일공장, 그리고 평북도간석지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신의주지구 여러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과업과 그이께서 지난해에 평북도를 찾으시고 주신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대비약을 이룩하여놓은 신의주지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자기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항상 새로운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을 또다시 뵙게 된 신의주지구 전체 근로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불같이 뜨거운 충성심에 가득차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신의주지구에 주체공업의 터전을 마련하여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구에 찾아오시여 공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생산과 건설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지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지난 한해동안에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힘있는 기계공업기지의 하나로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신의주지구 기계공장들은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지구의 기계전사들은 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고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려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이 지구는 또한 나라의 중요한 경공업기지로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화학공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또한 방대한 건설사업을 훌륭히 해냈으며 간석지개간을 비롯하여 대자연개조사업도 힘있게 내밀었다. 특히 철도 운수부문에서는 남신의주—덕현간, 북중—다사도간 철도건설공사를 매우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활히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신의주지구 근로자들이 이룩한 이 빛나는 성과는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주체공업건설의 터전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으며 천리마의 속도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배려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이 지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과 영웅적로력투쟁의 빛나는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의주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지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당이 준 과업을 훌륭히 실천하여 공업, 농업, 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비약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력사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구내 공장, 기업소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8월 8일공장 로동계급이 불과 몇달사이에 2, 500마력디젤기관을 만든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앞으로 원해어업을 더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속도가 빠른 대형디젤기관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랭동기직장에 들리시여 40만 키로카로리 랭동기를 훌륭히 만든 이 공장 기계전사들의 로력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지난날 헐벗고 못살던 우리 인민이 남보다 더 유족하고 더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랭동기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앞으로 대형랭동기와 함께 2만키로카로리랭동기를 계속 많이 만들어 랭동시설을 도시와 로동자구뿐만아니라 농촌의 모든 리들에 다 갖추어주며 도시주민들만이 아니라 농촌주민들의 부엌에도 다 골고루 랭동기를 놓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천리마락원기계공장 기계전사들의 굴착기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앞으로 대자연개조사업을 더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대형굴착기를 더 많이 만들것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이 지구 로동계급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서로 돕고 이끌면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신의주방적기계공장 기계전사들이 련조와 방적, 권사에 이르는 여러가지 작업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공기식정방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높이 치하하시면서 계속 창발성을 내여 성능높은 방적설비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암포조선소를 찾으시고 공장을 알뜰하게 꾸려놓았으며 한쪽으로 공장을 확장하면서 이미 1천톤급이상의 배를 건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조선업발전의 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송선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크고 빠

른 선박들을 만들어낼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조선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석지건설현장을 돌아보시고 이곳 건설자들이 밀려드는 조수와 싸우면서 이미 1,000정보이상의 간석지를 개간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계속 대자연개조사업에 큰 힘을 넣어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밖에도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공작기계를 많이 생산하여야 새로운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할수 있고 현존공장들의 설비도 더욱 보강할수 있으며 지방공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식료품가공과 일용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종류의 단능기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각종 공작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각 도마다에 여러개의 단능기계공장들을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단능기계공장들을 많이 꾸리기 위하여서는 어느 한 품종의 공작기계만 많이 만들어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공작기계를 기종간의 균형이 맞게 질적으로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입는 문제를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방적기계 및 방적기계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서와 현대적인 질좋은 재봉기들, 옷짓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매개 시, 군에 옷공장을 꾸리고 가정들에도 재봉기를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시면서 그들이 아담하고 쓸모있는 주택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도록 지방자재를 적극적으로 탐구동원하여 현대적 살림집들을 더잘, 더 많이 지으며 출퇴근을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할수 있게 통근렬차를 늘이는것과 함께 뻐스의 대수를 늘구고 그 운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많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더 지어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보다 훌륭히 키우고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로동자들에게 물고기, 고기, 닭알, 기름, 남새 등을 더 원만히 공급하여 그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도록 또다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관점을 똑똑히 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일하며 특히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며 녀성로동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백방으로 도모해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미리 겨울나이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겨울에도 절대로 생산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서와 근로대중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과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이 또다시 명백히 실증한 바와 같이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의주지구 현지지도는 이곳 로동계급과 전체 로동자들의 앞길을 더욱 환히 밝혀주었으며 그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8월 8일공장, 천리마락원기계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 룡암포조선소, 평북도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을 비롯한 신의주지구의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몸가까이 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받은 무한한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충천한 기세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 탄생 예순돐 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기어이 끝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려는 불타는 충성의 결의를 안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있으며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우리 당의 창건자이며 령도자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동안에 걸쳐 진행되였다.

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에 황해남도에 친히 찾아오시여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도내 전반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우신 전투적강령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도앞에 나서는 새로운 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회의를 진행할뿐아니라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지난 한해동안의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앞으로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한 전투적과업을 토의하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있었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황해남도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특히 지난 한해동안에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도내 경제건설사업에서 큰 전진을 가져오도록 친히 지도하시고 배려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현지지도에서 6개년계획기간 황해남도앞에 나선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신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였다.

회의는 지난 한해동안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황해남도가 이룩한 제일 큰 성과는 농사를 썩 잘 지어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농촌경리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계화와 화학화 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을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온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 분수식발관개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장차 더 많은 현대적발관개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주철관, 비닐관, 부속관 등의 생산기지가 꾸려졌을뿐만아니라 도내 농촌들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현대적농기계들이 공급되고 련결농기계와 부속품생산기지 및 농기계 수리기지가 튼튼히 마련된 사실들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총화하였다.

회의는 수령님의 교시대로 알곡작물의 품종배치로 부터 씨뿌리기, 김매기, 병해충과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농사일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잘하였으며 특히 례년에 비하여 봄철기온이 낮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벼모를 일찍 부어 랭상모를 튼튼히 길러내고 준비사업을 철저히 갖춤으로써 황해남도가 전국에서 제일선참으로 모내기를 일찍 끝낸것은 영농사업에서 일으킨 일대 혁신적성과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훌륭히 관철하여 벌방지대나 산간지대나 할것없이 도내 전반적지역에서 논농사는 물론 밭농사에서까지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황해남도가 올해에 지난 시기의 최고수확년도에 비하여 무려 122%나 되는 알곡생산을 확고히 예견할수 있게 된 사실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회의는 또한 황해남도를 장차 발전된 공업, 농업 도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광업, 건재공업, 화학공업, 철도운수, 식료및일용품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성과들과 도시건설 및 농촌문화주택건설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였다.

전원회의는 남새와 기름, 닭알, 과일 생산을 훨씬 늘이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서도 총화하였다.

황해남도가 이룩한 이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증시하여준다는데 대하여 전원회의는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회의는 농업생산을 비롯한 도내 전반적인 경제건설사업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수령님께서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친히 찾아오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와 단계 마다 황해남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신데있다고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이 성과들은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충실히 투쟁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올해에 황해남도가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내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에 무한히 충실했고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기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성과의 중요한 요인들에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도내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장성을 이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도내 각급 당조직들이 당의 방침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 사업을 가일층 심화시킨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내 각급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깊이있게 짜고들어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지도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갔으며 특히 농촌기술혁명의 초병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농업생산에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데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성과의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도내 각급 당조직들과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랭상모를 100% 도입하고 모를 튼튼히 길러내여 모내기를 5월 20일전으로 끝낼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연기후조건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모내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으며 모를 5월 20일까지 내는것은 벼의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시면서 황해남도가 올해에 모내기를 선참으로 제때에 끝냈기때문에 벼농사에서 대풍작을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가 농사를 잘 지은 다른 하나의 요인은 영농사업을 세밀하게 짜고들어 빈틈없이 조직하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지원사업을 조직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농물자들과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공급해주고 공업이 농업을 도와주었으며 특히 도내에서 인민들과 인민군대와의 혈연적련계가 날을 따라 더욱 깊어지고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이 활짝 꽃피여 인민군군인들이 농민들의 농사일을 성심성의로 잘 도와준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내 각급 당조직들이 당중앙이 준 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를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올해농사에서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전원회의참가자들과 도내 각급 당조직들과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군중정치사업과 경제건설분야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황해남도내 당조직들이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의 농촌경리부문 앞에 나서는 주요한 과업을 밝혀주시면서 특히 6개년계획기간에 도의 알곡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한 전투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과제를 내세우는데서 소극성을 없애고 알곡증산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며 필요한 조건들을 혁명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도록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계속혁신하고 계속전진하여 황해남도를 우리 나라의 더욱 튼튼한 알곡 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황해남도에서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국가적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서는 첫째 과업은 황해남도에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완성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황해남도에 뜨락또르 부속품공장과 련결농기계공장들을 더 짓고 농기계 수리공장들을 더 꾸려주며 규격화된 련결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더 잘 수리하여 그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농촌전기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동기수리기지를 더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도내의 철도건설을 다그치며 자동차수송과 수상운수를 더욱 발전시켜 화학비료를 비롯한 영농기자재들과 쌀과 과실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더많은 비료를 생산공급하며 과학적시비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비료의 3대요소와 미량원소비료를 잘 배합하여주어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또하나의 문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며 알곡 2모작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분수식발관수체계를 계획적으로 도입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단위당수확고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인민생활을 더욱 급속히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여러가지 경제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탄산소다와 유리병 그리고 여러가지 식료가공설비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도처에 농산물가공공장들을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가공된 식료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하여서와 로력원천을 따져 알맞춤한 규모로 메리야스공장, 양말공장, 신발공장들을 건설하여 경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자체 생산으로 일용품에 대한 도내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주시를 공업도시로 더 잘 건설할데 대하여서와 도시와 농촌에 많은 문화주택들을 짓기 위하여 도자체의 튼튼한 건재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수도화를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수삼나무를 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플라타나스, 포플라 등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간석지를 더 개간하며 갈과 뽕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농업과학을 더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조직들이 도내 농업과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바로 주고 연구조건을 더 잘 보장해주며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연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함으로써 황해남도의 기후풍토에 더잘 맞으며 수확고가 높은 농작물의 품종들과 2모작품종들을 키워내며 토지개량과 과학적시비체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물고기, 남새, 기름, 닭알 등 부식물들을 더 넉넉히 공급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특히 인민들에게 사철 생선을 공급해주기 위하여 랭동공장과 랭동고 등 도처에 랭동시설을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으며 닭알을 군중적운동으로 더 많이 생산하며 돼지목장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서와 식료상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도시경영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학교건설사업을 더욱 추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내 당조직들과 도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명년도의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달성하며 전반사업앞에 나서는 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서 다시한번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황해남도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배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혼자서 건설할수 없으며 오직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켜야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며 대중의 기세를 돋구고 대중을 발동하는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며 간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면서 그들을 제기된 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남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우리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실행하는데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명적앙양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켜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과 도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높이 받들고 그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도내 전반사업에서 새로운 일대 혁신을 가져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려는 한결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가 1971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사로청의 창건자이시며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이 대회에는 사로청 각도(직할시)대표회들에서 선발된 1천 5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인민군대와 과학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젊은 혁명투사들과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온 남조선청년혁명조직대표들, 이국땅에서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온 재일본조선청년학생축하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5대륙의 111개의 나라들에서 온 145개의 청년단체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나라 청년동맹 대표단,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의 청년동맹대표단과 학생동맹대표단, 세계 여러 나라 투쟁단체대표단,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자본주의나라 진보적인 청년단체들과 학생동맹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세계민주청년련맹위원장을 단장으로하는 대표단과 국제학생동맹위원장을 단장으로하는 세계 여러지역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과 민주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를 축하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외국기자들도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이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청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세운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당제5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대회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투지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진행된 대회는 맑스-레닌주의적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로청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당 제5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특히 6월 24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대회에 참석하시여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강령적연설에서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전투적로정을 총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청년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조직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거의 반세기동안 조선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청년들은 대를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단행본, 2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쌓아올린 영웅적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혁명의 대를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단행본, 5페지)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연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청년동맹의 투쟁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히신 또 하나의 불후의 천재적문헌으로서 청년운동의 위대한 강령이며 사로청사업의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청년들이 확고히 틀어 쥐고 나아가야 할 투쟁의 무기이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청년혁명조직대표단과 재일본조선청년학생축하단들이 전체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이 어린축기를 어버이수령님께 전해드리고 대회에 열렬한 축하와 형제적인사를 전하였다.

대회를 축하하여 들어온 조선소년단과 붉은 청년근위대축하단도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송가를 올리였으며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로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또한 외국의 청년단체 대표단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연구소조대표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그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살며 싸우고있는 우리 조선청년들을 충심으로 축하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모든 나라 청년들의 전투적단결과 친선의 정으로 들끓고, 투쟁하며 전진하는 청춘의 기백으로 차고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온세상에 시위한 력사적인 대회였으며 세계 혁명적청년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새로운 진군의 신호를 올린 영광

스러운 국제적축전이였다.

우리 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 아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과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 금성철벽의 국방력을 가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 전체 인민이 다같이 배우며 발전하는 교육의 나라, 누구나 다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며 무병장수하는 나라, 과학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활짝 꽃피는 황금예술의 나라,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있으며 혁명의 기치, 투쟁의 무기로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하기에 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벗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변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홰불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목적으로, 리념으로 되였다》고하면서 우리 말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세!》,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대회에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 해방을 위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고 그 뿌리우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창건하시고 그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조선청년운동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우리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맹세문에는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가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여나갈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의 혁명적결의와 불타는 심정을 담았다.

대회에서는 의정첫째문제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많은 대표들의 토론이 있은후 해당한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세계청년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지지하는 사로청 제6차대회성명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규약을 새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보충할데 대한 제의를 토의승인하였으며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회기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사진전람회가 열리였으며 세계에 전례없는 대규모의 종합예술공연인 5천명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대음악무용 시극《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노래》와 3천명 예술인들의 대음악무용서사시《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7만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진행하였다.

특히 6월 29일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사로청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20만 평양시청년학생들의 군중대회와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군중대회와 시위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보여주었으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청년학생들의 불패의 전투력을 과시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근위대, 결사대가 될 불같은 투지가 넘쳐 흘렀다.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청년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청년들과 단결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청년들과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승리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확고한 혁명적립장과 불같은 결의를 시위하였다.

또한 대회를 경축하여 수만청년들의 대동강배놀이와 수도 청년학생들의 대경축야회도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배려, 그이의 지도밑에 진행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는 조선청년운동력사에 찬연히 빛날 업적을 남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는 우리의 모든 남녀청년들과 우리 나라 전체 인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단행본, 1페지)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청년운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청년운동의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실현된 자랑찬 승리의 대회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영원히 꽃피워나갈 조선청년들의 열화같은 신념과 결의를 온 세상에 시위한 충성의 대회이다.

대회는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사로청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대회는 또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남조선청년학생운동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

대회는 또한 반제반미투쟁에서 전세계진보적청년들의 국제적련대성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세계청년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주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가 1971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녀성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

며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진행된 이 대회에는 각도(직할시) 녀맹대표회들에서 선출된 1천 561명의 대표자들과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사업하고있는 녀맹일군들과 녀성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남조선녀성대표단과 재일본조선녀성축하단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제3차대회, 전국어머니대회,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뼈와 살로 만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녀성의 강의한 의지와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한 전체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불멸의 업적과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고 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7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과 녀성운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될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두요새,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 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호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고있는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가지는 위치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과 가정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정치실무수준을 한층 높여 맡은바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야하며 녀성조직들은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녀성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회에서 주신 수령님의 력사적교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녀성동맹과 녀성들의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가르쳐주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위대한 강령이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녀성해방의 빛나는 홰불로 된다.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는 대회참가자들을 끝없이 격동시켰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무한히 고무하여 주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 녀성문제를 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녀성운동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룩하시고 해방후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건하시여 조선녀성이 나갈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주시였다.

특히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새로운 조건에서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여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휘황한 전망과 확고한 방도를 열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맹 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20페지)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총결기간 새로운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세웠으며 녀맹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동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이룩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녀성동맹은 오늘 위력한 대중적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생활에서는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존경하는 김성애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혁명의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실천적으로 심오히 전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녀성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녀맹조직이 놀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을 준 녀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 뒤이어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근로단체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20페지)

대회에서는 녀맹조직들이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틀어쥐고 힘차게 밀고 나가 모든 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며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하고 교양개조할데 대해서와 그들속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특히 사상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녀성혁명화의 거점인 어머니학교를 통하여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녀성혁명가의 귀감인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모든 녀성들이 혁명을 위하여 자기 한목숨 바쳐 싸우는 열렬한 혁명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지적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과 모든 녀성들이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동맹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산조직으로 되게할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싸우는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녀성들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며 전세계 진보적녀성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것을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파쑈적폭압책동을 짓부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는 남조선녀성들의 뜨거운 마음을 안은 남조선녀성대표단 단장의 연설이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는 60만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녀성들의 마음을 대표한 재일본조선녀성축하단 단장의 연설이 있었다.

이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남조선녀성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축기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의 축기를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각각 전달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축하단과 조선인민군 녀성근무자축하단의 열렬한 축하가 있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온 축전, 축하편지들의 소개도 있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맹세문에는 전동맹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영원히 김일성수상님의 당의 인전대로, 수령님의 녀성동맹으로 대를 이어 빛내여 갈 불같은 결의가 담겨져있었다.

대회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다함없는 신뢰의 정으로 차넘치였으며 어떠한 사나운 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높이 고동쳤다.

대회에서는 의정 첫째문제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를 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 명의로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재일본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각각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존경하는 김성애동지께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시였다.

녀맹제4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녀성동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으며 녀성운동발전과 녀성문제해결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한 대회였다.

또한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휘황히 밝혀주신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려는 우리의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 충성의 대회였다.

대회는 녀성동맹이 자기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당과 녀성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옹호관철하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될것이며 녀성혁명화의 대회로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녀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전국녀성예술소조원들의 음악서사시극 《조선녀성의 노래》공연이 10월 8일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있었다.

특히 10월 14일에는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녀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전국 녀성국방체육대회가 모란봉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정문앞에 정렬한 녀성명예위병대를 사열하고 전국각지의 선수들과 함께 녀맹 제4차대회를 경축하기 위하여 모인 10여만 녀성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는 선수들의 분렬행진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를 앞에 모시고 각 도 (직할시)선수대렬, 녀성군관들과 혁명학원 녀학생, 군인가족대렬, 녀성교원, 의사, 간호원들과 녀성기술일군대렬, 어머니학교강사들과 탁아소보육원대렬, 녀성고사기관총수들과 통신병대렬, 락하산선수들과 해양선수대렬, 뜨락또르대렬 등 각종 부문별 대렬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주석단앞을 행진하는 녀성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흘러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 도(직할시)선수들이 출연하는 활공기견인편대비행, 모형항공기비행, 무선조종식모형항공기비행, 활공기라선강하비행, 락하산강하, 활공기특수비행, 박격포화력복무경기, 위생경기, 재봉기분해결합경기, 장애물이겨내기, 독해물이겨내기경기, 무기분해결합경기 등 모범경기들과 도(직할시)대항경기들을 보시였다.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체육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떠밀고나가는 조선녀성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불패의 통일단결을 잘보여주었다.

또한 대회는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 일당백으로 준비된 우리 녀성들의 억센모습과 불같은 결의와 혁명적열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또한 대회장인 만수대의사당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불후의로작전시회가 열리였으며 사진전람회가 있었다.

그리고 대회를 경축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공연도 있었다.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

조선직업총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로동계급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직접적인 지도밑에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가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우리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 세계 많은 나라 직맹조직과 친선단체들, 많은 국제적 벗들의 열렬한 축하와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이 대회에는 각 도(직할시)직맹대표회들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일군들과 인민경제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남조선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달려온 남조선로동자대표단과 60만 재일본조선공민들을 대표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참가하였다.

대회대표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반세기동안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며 우리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주력군으로 믿으시고 키워주신 자애로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일편단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곧곧이 싸워나가려는 불같은 충성의 결의가 끓어넘치였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남조선로동계급과 60만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성심과 경모의 정을 수놓은 지성어린 축기들을 남조선로동자대표단과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그이께 각각 드렸다.

대회에서는 먼저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이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직맹조직과 직맹원들을 앞에 나서는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력사적단계에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히시고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명시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혁명발전의 매단계의 요구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깊이 분석해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낡은 경제관리형태인 지배인유일관리제가 없어지고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하는 새로운 집체적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조건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기업관리에서 아직 자본주의적잔재가 남아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을 어느정도 감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와는 전혀 달리 당의 외곽단체이며 사상교양단체로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교양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두어야한다는것을 우리 나라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다시금 뚜렷이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야할 필요성과 그 본질적내용, 그리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6개년계획과 그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전투적과업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제도 수립이후시기에 직업동맹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확하고 혁명적인 길을 밝혀준 직업동맹운동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강령이며 우리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잘 수행할수 있게하는 강령적지침이며 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을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장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다.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직업동맹건설과 직업동맹사업에서 총화기간 이룩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는 오직 수령님의 맑스-레닌주의적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직맹사업에 구현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현명한 령도,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열매이라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운동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비로소 주체적인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로동계급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억센뿌리가 있음으로하여 해방후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이 날뛰던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자기의 참다운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한데 뒤이어 대중정치조직인 조선직업총동맹을 가질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직업동맹의 임무와 활동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있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처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의성격과 임무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33페지)

직업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교양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을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왔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감으로써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5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본주의 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행하였다.

직업동맹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고히 틀어쥐고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공산주의교양의 학교로서 로동계급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교양육성할수 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다시 한번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떨치고야말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는것과 함께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남조선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며 국제적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축하단과 농업근로자동맹축하단의 열렬한 축하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그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영광의 대회장으로 달려온 남조선로동자대표단 단장이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축하연설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

잡이들을 반대해서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전한다음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그처럼 마음속으로 불러오면서도 아직 한번도 마음놓고 소리높이 웨치지 못한《민족의 태양 김일성수상님 만세!》를 대표단이 합창하여 소리 높이 부르자 장내에는 폭풍같은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은 재일본60만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이밖에도 대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직맹단체들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전달되였다.

14일, 전체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과 불타는 심정을 담아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규약을 일부 수정 및 보충할데 대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의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 의정 첫째문제《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으며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재일본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있었다.

대회를 기념하여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전시회가 열리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피바다》와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공연이 있었다.

직맹 제5차대회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는것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대회의 전 과정은 직업동맹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참으로 대회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나라 직맹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된 자랑찬 승리자의 대회였다.

대회의 전과정은 자기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오늘의 보람찬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의 열화 같은 충성심과 끝없는 신뢰의 정으로 차고넘쳐 있었으며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수령의 친위대, 결사대답게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일편단심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충직할 확고한 신념으로 충만되여 있었다.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대회에서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실현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라는 보고가 있은 다음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간고하고도 피어린투쟁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의 깊은 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광복하신후 그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여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중정치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그 내용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당 사상전선의 초병들인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로농통신원들은 지난기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관철자, 대중의 붉은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지난기간 대중정치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온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서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요구를 알아주고 그것을 제때에 풀어주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하고 동원할줄 아는 선전원이라야 우리 당의 진정한 선전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70페지)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 로농통신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선동사업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극복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고무추동하여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경험들을 긍지높이 토론하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공작기계생산에서 자동화를 실현한 경험, 녀성들을 공장의 주인으로서 공장에 고착시키며 많은 기능공을 양성한 경험, 대를 이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원쑤들에게 희생된 아버지가 지켜섰던 초소에서 광물생산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싸우면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열성자대회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급 당일군들과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초소에서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들인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로농통신원들, 근로단체일군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로농통신원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초병들이 지난 기간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 로농통신원들앞에 나서는 전투적임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무한한 감격과 흥분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은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서 실지 행동으로 군중의 모범이 된 경험, 가정을 혁명화한 경험, 협동농장을 《공산주의모범농장》으로 꾸린 경험, 구분대군인들을 붉은 혁명대오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굳건히 꾸리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한 생동한 경험들이 토론되였다.

대회에서는 한결같이 우리 당의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이룩한 그 모든 성과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과 이번 대회에서 주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어김없이 실천함으로써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옹호관철자, 대중의 붉은 교양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15전에 완수하며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것을 결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맹세문에서는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축원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스물다섯돐 기념보고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청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2월 5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사로청일군들,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초소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각계층청년들과 사로청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힘있게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조직지도사업을 비롯한 초기혁명활동과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시고 그로 하여금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밑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을 걸어오면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으며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 해방후 평화적건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어느 시기, 어느 초소에서나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청춘의 힘과 지혜,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오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들어찬 강유력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후비대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우리의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근위대, 결사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모임을 가진 전체 참가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우신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성대히기념

조선인민들은 1971년 3월 5일에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평양대극장에서는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전의 그날 유격근거지 해방지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땅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였으며 일제와 친일지주들의 토지와 영농시설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며 일체 가렴잡세와 고리부채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독창적인 토지개혁방침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 토지문제 해결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39～140페지)

수령님께서는 전반적건국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여러 농촌에 나가시여 구체적형편을 료해하시면서 《토지는 밭갈이하는 자만이 가질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시고 손수 토지개혁법령을 작성발포하시였다.

법령에는 일본인 및 조선인민족반역자들의 소유토지전부와 계속 소작주는 토지 5정보이상의 조선인지주 및 종교단체들의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고용농민, 토지없는농민, 토지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며 분여된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법령에는 또한 지주로부터 채용한 농민들의 일체 채무를 취소하고 지주의 건축물, 축력, 농기구 및 시설물 등 일체 재산을 몰수하여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들에게 전부 나누어줄것을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작성발포하신 토지개혁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진정한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토지강령이다.

그이께서는 고농과 빈농들로써 농촌위원회를 조직하시고 토지개혁을 직접 담당하게하신 동시에 우수한 당원들과 로동계급들을 파견하시여 적극 도와주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친히 여러 농촌에 나가시여 나타나는 좌우경적편향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였다.

당시 평남도의 한 농촌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지주놈에게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농민들의 피맺힌 이야기를 들으시고나서 지주집에서 제일 고생한 로인의 문패를 친필로 쓰시여 그 집 대문기둥에 손수붙여주시였으며 지주놈의 방을 그 집에서 종살이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시고 친히 말뚝에 그 농민의 이름을 써서 밭머리에 박아주시기까지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단 20여일간에 진행된 토지개혁을 통하여 100만정보이상에 달하는 일제 및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토지와 그에 따르는 영농시설, 농기구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72만 4천여호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그이께서는 토지개혁에 뒤이어 단일한 농업현물세제를 실시하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뿐만아니라 온갖 가렴잡세로부터도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농업협동화의 실현, 새로운 농업관리체계의 수립,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어제날의 소소유자들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이끌어 주시였으며 오늘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진군에로 이끌어주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영광을 지닌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여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영명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과 농민들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보고와 그이의 천재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불같은 혁명적 열정으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으며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수령님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또한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통일혁명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농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과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박해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든 세계 혁명적인 민들, 특히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종속적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려는 혁명적각오를 더욱 굳게 하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법령발포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북청확대회의 열돐을 성대히 기념

조선인민들은 1971년 4월 6일에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찬란히 빛나는 북청확대회의의 열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이날 북청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석단에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열돐을 기념하는 함경남도 기념보고대회를 가지였다.

김성애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대회에는 도내 과수부문일군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함남도내 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수업부문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축하하시고 과수업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적과의 싸움에서 얻은 조선의 사과를 유격근거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삼천리금수강산에 과일동산을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수령님께서는 건국초기의 어려운 나날에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생활을 빨리 부유하게 만들고 나라의 부를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수업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놀 국영과수농장들을 창설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와의 가렬한 싸움의 나날에 불타는 조국의 야산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다가 이제부터 모든 야산마다 과수원을 일구어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과실을 선물하자고 말씀하시며 송화, 평양 등지에 세계굴지의 국영과수농장들을 친히 조직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벌판이 적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많은 과수원을 가지려면 산을 리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산을 리용한다는것을 단순히 산열매를 따고 산나물을 뜯어 먹는것으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산을 일구어 과수원을 만들고 또 원료림도 조성하여 많은 과실과 공업원료를 얻어내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28페지)

수령님께서는 내외의 원쑤들이 안팎에서 준동하던 1957년 3월에 친히 북청일대의 높고낮은 산경사지들을 돌아보시고 산경사지과수원의 시범, 계단식과수원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공업화의 토대가 강화되여 공업이 농업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게 되였던 시기인 1961년 4월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교시에서 전국의 야산들과 산경사지들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대자연개조사업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인민생활향상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위력한 생산부문이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인 과수업을 가지게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청확대회의 이후에도 동서해안의 과수원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날 과수원관리에서 커다란 피해를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우리 나라 자연조건과 기후풍토에 맞는 북청식가지자르기방법을 창조하시고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였다.

우리 나라 과수업을 강력한 과일생산기지와 함께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 과일저장기지와 기술일군양성기지를 가진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적과수업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시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남도 내 과수부문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북청군중문화회관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열돐기념 사진전시회와 북청군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 중앙보고대회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7월 30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대회는 조선녀성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진행되였다.

보고대회에는 녀성항일혁명투사들, 렬사가족들, 중앙과 지방의 녀성간부들, 녀성로력혁신자들을 비롯한 시내 녀성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김성애동지께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조선혁명과 녀성운동 발전에 훌륭히 구현하시여 수세기동안 봉건적질곡과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오던 우리 인민과 녀성들을 해방시켜주시고 녀성들을 사회정치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여기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녀성해방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혁명가이신 강반석어머님을 지도방조하시여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그 활동을 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우리 녀성들의 혁명적대중조직인 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여주시고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서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가정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녀성조직을 튼튼히 꾸려주시고 녀성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정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전국도처에 탁아소, 유치원, 각종 편의시설들을 꾸려주시였으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강력히 추진시켜 녀성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사회정치생활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고 각별히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그리하여 지난날 암흑의 긴긴밤을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며 살아오던 우리 녀성들이 오늘은 당 및 국가기관의 간부로,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능한 관리일군으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예술인으로 자라나 모든 초소들에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감사문이 우뢰와 같은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보고회참가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강반석어머님을 따라배우면서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강령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경축대회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전례없는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9월 8일과 9일사이에 평양시와 평북도를 비롯한 각도들에서 경축대회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9월 8일 신의주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평북도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희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한 구성의 기계공들을 비롯한 도내 인민경제 각부문의 혁신자들과 신의주시내 근로자들, 조선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경축대회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짧은기간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경제와 불패의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밑에 지난날에는 농기구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평안북도도 공작기계공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공업기지들과 경공업기지들을 가진 위력한 공업지대로, 나라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도내 교육, 문화, 보건 사업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이 모든 세기적변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승리적결실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빛나는 열매이다.

경축대회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의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와 불같은 충성심이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도내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과 평북도에 주신 교시들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그이의 높은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창립 열돐을 성대히 기념

온나라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대안전기공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창립 열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12월 16일 천리마대안전기공장에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창립열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 불패의 생활력이 깊이있게 론증되였으며 이 사업체계의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면서 그 위력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업을 결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2월 6일 대안전기공장을 찾으시고 지난기간 공장지도체계내에 행정지도, 기술지도만이 있고 당적지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결함을 밝히시고 친히 공장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하는 공장지도체계를 짜주시였으며 생산을 지도하는 각부서들의 직능과 구체적실태를 알아보시고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 행정지도가 통일적이며 집중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생산지도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또한 오직 생산에만 힘써야 할 직장일군들이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뛰여다니던 종전의 결함을 퇴치하고 우에서 아래로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와 새로운 후방공급체계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이는 낡은 자본주의적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이며 웃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사이에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단결하며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기업관리체계이다.

수령님께서는 대안전기공장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전형을 창조하신데 뒤이어 경제기관들과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커다란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당위원회의 령도밑에 공장관리에서 집체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당위원회가 공장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공장의 모든사정을 다 참작한 기초우에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다 움직여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적극성으로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화사업을 생산자들과 직접 토론하며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직접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 것으로 되게함으로써 지난날 책상머리에서 수자만 가지고 계산하던 주관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결함이 극복되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계획과 생산 및 기술이 서로 동떨어져 진행되던 종전의 결함을 극복하고 생산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였으며 현대공업의 요구에 맞게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자재를 우에서 아래에 날라다주는 체계가 서고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후방공급체계가 나오게됨으로써 직장일군들은 생산지도사업, 설비점검사업, 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생산자대중은 생활상조건의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오직 생산에만 몰두할수 있게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된이후 우리 나라에서 생산은 비상히 높은 속도로 늘어났으며 공업생산은 그 규모가 비상히 커진 조건에서도 공업화의 전기간에 매해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천리마대안전기공장에서만도 지난기간 매해 평균 20~25%이상씩 생산이 장성되였으며 생산규모와 기술장비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는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커다란 변

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이 활짝 꽃피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그 어떤 공명과 사리도 모르며 보수에 구애됨이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실천적경험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히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갈수 있게하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하기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굳은 결의들을 담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창립 열돐을 성대히 기념

우리 인민들은 1971년 12월 18일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창립 열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숙천군내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시였다.

숙천군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창립열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기념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설하신데 뒤이어 1961년 12월 18일에 직접 평남도 숙천군에 나오시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몸소 조직하여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갈라내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시고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휘성원들과 매개 부서들의 임무와 직능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종자관리소, 자재공급소 등 국가농업기업소들을 직속시켜 경영위원회가 그를 직접 틀어쥐고 군내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숙천군의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전국의 모든 시, 군에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도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새로 내오시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시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전면적으로 세워주시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기본으로 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은 자기에게 소속된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기업적방법으로 직접 조직지도하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직접 실현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의 조직지도기능과 물질기술적방조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각도마다에 농업대학과 농업과학원 분원들을, 모든 시, 군, 지구마다 고등농업기술학교와 농사시험장들을 비롯한 농업일군양성기지와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주심으로써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술자, 전문가 수는 지난 10년간 9.6배로 늘어났다.

그이께서는 또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면서 최근년간에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물질기술적방조를 더욱 폭넓고 더욱 깊이있게 실현할수있는 토지건설사업소, 발관개건설사업소, 농촌건설대들을 조직해주시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우선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훌륭히 보장한데서 나타났다.

기업적지도에서는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가 기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물공급체계, 뜨락또르리용체계, 화학비료시비체계들을 세우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영농작업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숙천군에서는 1971년에 처음으로 11만 5천톤의 황금로적가리를 쌓아 알곡 호당 분배량이 1961년의 3.2톤으로부터 6.6톤으로 껑충 치달아 올랐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는 또한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로력적, 재정적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유기적결합과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숙천군에서는 개편된 뜨락또르운영체계와 현대적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고려하여 군내 6만여개의 뙈지들을 대담하게 1만 7천여개의 포전으로 정리하고 420여대의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전면적으로 들여왔다.

그리하여 숙천군의 농업생산에서 전인민적소유의 비중이 압도적자리를 차지하게되였으며 숙천군의 농촌경리는 전적으로 전인민적소유를 떠나서는 농업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

그러기에 중앙보고대회의 참가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수상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에서 창립 스물다섯돐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

조선로동당중앙당학교창립 스물다섯돐 기념보고회

6월 1일에 진행된 기념보고회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보내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 전달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지난 25년동안 중앙당학교 전체 교

직원, 학생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간부양성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빛나는 업적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를 깊이 통찰하시고 몸소 1946년 6월 1일 세워주신 중앙당학교는 그이께서 간고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간부양성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직접계승한 우리 당의 상설적인 간부양성기지이다.

중앙당학교는 지난 25년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중앙당학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리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데 언제나 앞장에 서왔으며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제시하신 간부양성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실무적으로 준비된 산 당일군을 수많이 길러냄으로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중앙당학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보살핌으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대학으로, 우리 당간부양성의 최고 전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맹세문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가, 공산주의자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그들은 맹세문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였다.

인민경제대학창립 스물다섯돐 기념보고회

7월 3일 진행된 기념보고회에서는 먼저 인민경제대학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의 자랑찬 성과와 빛나는 업적들을 높이 평가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축하문전달이 있었다.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간부양성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직접 계승하여 상설적인 간부양성기지로 인민경제대학을 세워주시였다.

인민경제대학은 지난 25년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빛나는 자랑찬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인민경제대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간부양성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국가 및 경제관리간부들을 수많이 키워냄으로써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맹세문에서 교직원,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며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인 수령님의 불후의천재적 로작과 교시들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이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된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될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맹세문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들을 환영하는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가 7월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집회에는 평양시내의 청년학생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 부문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집회에는 사로청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세계여러나라에서 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이 초대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대륙에 떨어져있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선진투사로서 우리와 하나의 공통된 사상과 리념으로 굳게 결합되여있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전우로, 벗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각국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소개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운동을 확대강화하고있으며 자기나라 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 있다.

오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은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되여 그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연설자들은 끝으로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적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

를 위하여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집회에서는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의 많은 대표들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연설하였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본질과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으며 주체사상이 혁명발전의 근본원칙과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민족해방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국제공산주의 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이며 혁명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힘주어 말하면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불패의 혁명력량의 출현이였으며 백전백승하는 혁명로정의 개척이였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서광이였으며 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담보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고 원칙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대표단성원들은 민족적 해방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 가지는 세계사적의의를 말하면서 오늘 주체사상은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것은 세계 혁명적조직들과 진보적 청년들의 의무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시된 8개 항목의 구국방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진행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 괴뢰도당을 타도하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집회에서 연설한 모든 대표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구라파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동맹자들을 종국적으로 매장할데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또한 그들은 오늘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견결히 싸우면서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성심성의로 그리고 견결하게 지지성원하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연설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조선의 통일과 혁명의 자주적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의 무궁한 번영과 새세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연설을 끝마치면서 모든 대표들은 조선말로 《김일성동지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대표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조선말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다같이 불렀다.

모임은 시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집회참가자들의 무한한 경모와 신뢰의 정이 충만된 가운데 진행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 및 청년들과 굳게 단결하여 지구상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아갈 결의를 다지었다.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스물한해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은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의 추악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력사상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놈들은 오늘도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참을수 없는 고통과 온갖 불행을 강요하고있으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끌어들여 또다시 이땅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미쳐날뛰고있다.

6월 25일 모란봉경기장에서는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장에는 10여만의 혁명의 수도 근로자들이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제를 치솟는 격분으로 단죄규탄하면서 밀려들었다.

군중대회에는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고있는 각국 청년조직대표단과 대표들, 여러 나라에서 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단과 대표들, 외국의 벗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인 내각제2부수상동지가 먼저 연설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군중들은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여 천만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5페지)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사수하는 성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제대군인들과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일당백의 전투기술을 소유한 인민군군인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 근위대원들을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은 원쑤 미제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침략의 불을 다시 지른다면 놈들을 이땅에서 영영 격멸소탕할 혁명적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청년혁명조직대표단단장이 연설하였다.

대회군중들은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굳은 결의를 시위하였으며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

을 단호히 규탄하는 분노의 웨침소리 또한 세차게 울려나왔다.

대회장에 모인 군중들은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보내였다.

대회에서는 전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국제학생동맹 위원장, 중국청년대표단 단장, 남부웰남해방청년대표단 단장,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대표단 단장, 칠레사회주의청년련맹대표단 단장들이 연설하였다.

대회에서 연설한 외국의 벗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이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북조선인민이 단합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이룩하고야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외국의 벗들은 연설을 마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대회에서는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군중대회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인류의 극악한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준렬히 단죄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말 억센투지를 시위하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와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각을 떼넘으로써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킬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여주었다.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

6월 27일 미제의 대만강점과 놈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며 자기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해방하기 위한 형제적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가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시내 근로자들과 일당백의 영웅적조선인민군군인들은 개회전부터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들의 정의의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미제는 대만에서 당장 물러가라!》, 《아세아인민들은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미일침략자들을 단죄하고 규탄하였다.

집회에는 우리 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와 대사관 관원들, 기술자들, 웰남민주공화국 대사, 남부웰남공화대사관 1등서기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림시대리대사가 초대되였다.

집회에는 또한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중국청년대표단을 비롯한 웰남, 남부웰남, 라오스, 캄보쟈 청년대표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우리 나라에 와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연설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보다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어떠한 침공도 결정적으로 물리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갖출 한결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문화대혁명을 거쳐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형제적 중국인민이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자기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고야 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시하였다.

이날 집회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시위하였으며 조선, 중국, 웰남,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를 멸망시키고야말 전투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전투적련대성의 시위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6월 25일부터 놈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7월 27일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가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 월간에 특히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애급아랍공화국대통령 안워르앗사다트,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인 후아리부메디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투레,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모하메드 니메리소장,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팔레스티나해방조직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인 야씨르 아라파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련대성 전문을 보내왔다. 또한 국제기구들과 싸우는 나라들의 여러민족해방조직지도자들, 각국의 진보적인사들, 각계각층 군중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전문과 편지들을 수없이 보내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각국의 사회단체들에서도 우리나라의 해당단체들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여러 대중조직들과 단체들, 그리고 정치및 사회계 인사들과 혁명가들, 로동자, 농민, 과학문화예술인,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들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매

일과 같이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벌리였으며 강연회,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기자회견 등 다채로운 련대성행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이월간에 세계직련,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국제기자동맹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은 성명, 결의문, 호소문, 담화, 서한등을 발표하여 미제의 조선강점과 침략행위를 항의규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구라파나라 청년단체대표단들과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필리핀, 파키스탄, 미국, 스웨리예, 이딸리아, 살바도르, 아련,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 민주인사들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중국신문《인민일보》, 쏘련신문 《쁘라우다》를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과 각국의 수많은 출판물, 방송 텔레비존들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세계 각국 혁명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를 거듭 높이 찬양하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 주시며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격파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있은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적군사로선》, 《천재적군사전략》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전세계 혁명적벗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조선인민의 《영웅서사시》로서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고 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주었으며 반제반미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시기》를 열어놓았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함부로 날뛰지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응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놈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구상 방방곡곡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에서는 한결같이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면서 《미제를 타도하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라!》,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견결히 반대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이와같이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에서 표시된 우리 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시위로 된다.

조쏘우호, 협조및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

조쏘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완전한 평등,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조쏘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해로부터 두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두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의 표시로 된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맺어진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호상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사변으로 된 이 조약체결 열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 제1부수상인 끼릴 뜨로피모비치 마주로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있은 조쏘우호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 평양시기념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각지에서 기념회들이 진행되였다.

7월 6일진행된 평양시기념대회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시내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문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당 및 정부지도간부동지들과 쏘련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쏘련국가 주악으로 시작된 이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 쏘련측의 연설이 각각 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쏘련인민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조쏘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의하여 지닌 의무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다짐하면서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굳게 믿었다.

조중우호, 협조및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

조중우호, 협조및호상원조조약이 체결된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이 조약의 체결은 공동의 원쑤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오랜기간에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호상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획기적사변이였다.

지난 10년간 이 조약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조중 두 나라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지키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조중 두 나라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에 참가하

기 위하여 우리 나라 당 및정부대표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대표단은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있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 평양시기념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각지에서 기념회와 친선모임들이 진행되였다.

7월 11일 진행된 평양시 기념대회에는 시내 많은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문화,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동지들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리선념동지를 단장으로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리나라 애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으로시작된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측의 연설이 각각 있었다.

이미 대회에서는 기념대회의 명의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들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단결 만세!》 라고 수놓은 축기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선념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께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는 장면을 정성들여 수놓은 초상을 기념대회에 전달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공동의 원쑤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굳게 맺어진 조중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전통적친선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 및 그 주구들을 아세아와 세계전역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빠리콤뮨 백돐 평양시기념대회

3월 17일 빠리콤뮨 백돐 평양시기념대회가 평양대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 및정부 지도간부동지들을 비롯한 근로단체, 과학 및 교육, 문화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군인들이 시내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나라 외교대표들과 외국기자들이 초대되였다.

인터나쇼날주악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인류력사상 첫 프로레타리아혁명으로서 국제로동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겨놓은 빠리콤뮨선포백돐 기념보고가 있었다.

콤뮨투사들이 자본주의의 《영원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린 때로부터 한세기동안 프로레타리아혁명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 세계에 타번져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적인 체계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다.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은 현시기에 이르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고수발전되였으며 풍부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정확히 령도하시면서 우리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적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인민정권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시고 령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상혁명과 경제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감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식민주의를 소멸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쉰네돐 평양시기념회

11월 5일 저녁 모란봉극장에서는 조선로동당 평양시 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쏘친선협회 중앙위원회의 공동이름으로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쉰네돐 평양시기념회가 있었다.

기념회에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과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쏘련대사와 대사관 관원들, 쏘조친선협회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쏘련손님들이 초대되였다.

기념회에서는 조쏘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와 쏘련대사의 연설이 있었다.

10월혁명은 위대한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영웅적로씨야로동계급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창건함으로써 인류해방의 새로운 시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근본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10월혁명의 승리는 세계자본주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으며 피착취피압박인민들을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10월혁명의 승리는 자본주의제도의 멸망에 대한 준엄한 선고였으며 제국주의의 전반적붕괴의 발단이였다.

레닌에 의하여 창건된 쏘련공산당의 령도밑에 쏘련인민은 쏘베트정권을 그 요람기에 없애치우려던 국내외원쑤들의 극악한 무력침공을 때려부시고 10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으며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

집단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았다.

10월혁명의 승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래동안 봉건적압박과 일제의 강점을 반대하여 싸우던 우리 인민은 10월혁명의 승리에서 커다란 충격과 고무를 받았으며 비로소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8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 위대한 새 시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이 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해방후 그이께서는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로선과 혁명적민주기지창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한편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였으며 그이의 독창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위한 투쟁을 벌려 이땅우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도 커다란전진이 이루어졌다.

조선인민과 쏘련인민들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길것이며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고 일당백의 초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와 그이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100일전투》에 떨쳐나서서 6개년계획의 첫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경축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일 조선인민군 권성린동무소속구분대를 찾으시고 명절을 맞는 일당백의 초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구분대군인들은 이날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군인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분대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병영을 뒤흔들며 린근 산발에 힘차게 메아리쳤다.

구분대군인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꽃묶음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이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신 다음 연도에 줄지어 서서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면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일일이 답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구분대군인들의 가슴마다에는 15성상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무력의 깊고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위대한 자위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군대를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여 우리 나라를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고히 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끓어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구분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군인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구분대장병들과 담화하시였으며 그들의 전투정치훈련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구분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경축하는 구분대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 자리에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스물세돐을 뜻깊게 경축한 구분대군인들은 구분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자신들을 혁명화하며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우신 전투적강령과 그이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구분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최근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경각성있게 살피며 만일 원쑤들이 무모한 침

략전쟁을 일으킨다면 놈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혁명의 전취물을 철벽으로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울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 평양시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세돐기념 평양시 경축대회가 2월 7일 평양대극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장은 항일혁명투사들,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원들을 비롯한 시내 근로자들, 렬사가족들, 인민군후방가족들, 영예군인들로 꽉 들어찼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무관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경축대회시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군사사상의 승리의 력사, 그이에 대한 인민군장병들의 충실성의 력사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23년간의 영광스러운 전투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전당과 전체 인민, 인민군군인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켰으며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시고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방침, 독창적인 전법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천재적인 군사전략적령도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가장 혁명적이고 천재적인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시고 그를 핵심으로 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워주시여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소탕할수 있는 철벽의 방위력을 가질수 있게 해주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해나가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을 온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충동을 대회참가자들은 억제하지 못해하고 있었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경축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기념보고를 듣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덤벼든다면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놈들을 이땅에서 영영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말 철석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계속되는 조선정전협정 위반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53년 7월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서기도 바쁘게 제놈들의 강도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정한 정전협정의 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1953년 8월에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소위 《한미호상방위조약》을 꾸며냈다.

또한 이놈들은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장비 및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있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여러가지 새로운 무기와 작전물자들을 계속비법적으로 끌어들였다.

놈들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하여 저들의 범죄행위가 계속 적발폭로되게 되자 중립국시찰소조의 감독과 시찰활동을 각방으로 저애하며 그들에게 살인과 폭행을 가하던 끝에 1956년 6월에는 그들을 남조선에서 강제로 축출하였으며 1957년 6월에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 준수의 일방적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 선언이후 일본에 있던 미제침략군사령부를 남조선으로 이동하였으며 일본에있던 미제1기갑사단까지남조선에 끌어들이여 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남조선을 각종 원자 및 유도탄기지로 전변시켰다.

한편 이놈들은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현대화를 다그치고있으며 이미 남조선괴뢰군을 70만으로까지 늘이고도 성차지않아 250만의 《향토예비군》이라는것을 조작하고 그 완전무장과 《전력화》를 다그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정전협정의 제반요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지 20분만에 우리측에 도발적인 총포사격을 감행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1967년 1월과 1968년 1월에 우리측 연해깊이에 침입했던 《경호함56》호와 《푸에블로》호 사건, 1969년 4월 15일 우리측 령공 깊이에 침입하였던 대형간첩비행기《이씨—121》사건등 우리측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정탐행위와 각종 무장도발책동은 계속 증대되고있다.

우리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1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1971년에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역시 긴장성을 띠고 흘렀다.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걸고 남조선강점 《미군감축》이란 모략적책동의 연막뒤에서 남조선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의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끊임없이 무장도발을 감행하고 무장간첩과 무장간첩선들을 침입시키며 더욱 빈번히 고공정찰기를 공화국북반부의 령공에 침입시키는 등 미제의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71년만하여도 무려 1만 2천 130여건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을 위한 발광적준비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

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7페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을 지배하고 그를 발판으로하여 아세아를 침공하려는 저들의 변함없는 침략야망을 이룩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전쟁도발책동에 매여달려왔으며 그것은 1971년도에 들어와서 더욱 악랄해졌다.

미제침략자들은 새 전쟁 도발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미부대통령 애그뉴와 미국방장관 레어드를 비롯하여 미륙군장관, 미공군장관, 미합동참모회의장, 미태평양지구사령관, 미태평양함대사령관, 미해병대사령관 등 수급전쟁사환군들을 련이어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한미안보회의》요 《한미군수뇌회담》이요 하는것들을 벌리고 전쟁모의를 벌리였다.

이에따라 남조선에서는 신형무기와 군사 장비가 계속 도입되여 미제침략군무력이 강화되고 괴뢰군의 《현대화》와 《향토예비군》의 전투화가 추진되였으며 군사시설들이 신설확장되고 전쟁연습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이 쉴새없이 벌어졌다.

이놈들은 3월 15일 일본의 미자와공군기지로부터 《에프—4디》팬톰전투폭격기 3개 대대를 끌어들여 《미공군제3전술전투비행단》이라는것을 만들어낸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이다즈께공군기지로부터는 《이씨—121》정찰기로 편성된 항공대, 대형수송기, 신형땅크를 비롯한 현대적군사장비를 끌어들여 괴뢰군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이놈들은 4월 1일 미국본토에 기지를 두고있던 《채파랄》유도탄 및 20미리 《벌칸》포체계를 장비하고있는 제61포병대 제8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배치하였고 대함미싸일을 발사할수있는 미해군의 쾌속도함《베니씨야》호를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계속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여러대의 《에프—5스타이터》전투제트기를, 11월 8일에는 윁남전쟁에 참가하였던 해군함정을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었으며 남조선괴뢰군은 11월 12일 다른 한척의 해군함정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였다.

미제침략자들은 7월에 남조선괴뢰군을 끌어넣어 《한미혼성군단》이란것까지 새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가 《미군감축》의 기만적인 간판밑에서 남조선에서 저들의 무력을 보강하는 한편 《닉슨주의》의 침략적요구에따라 괴뢰군을 전쟁대포밥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써먹기 위한 책동의 하나였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은 《립전태세확립》이니 뭐니하면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끌어내여 공화국북반부를 《가상점》으로하는 《상륙작전》, 《기습작전》, 《도하훈련》, 《합동사격훈련》, 《종합훈련》, 《도상연습》등 도발적인 각종 군사훈련련습소동을 뻔질나게 벌려 남조선전역을 화약내 자욱한 전쟁연습마당으로 전변시켰다.

지난 3월초에는 저들의 공수무력과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신속히 공수하는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 미국본토로부터 사단규모의 중장비와 병력을 남조선현지에 실어나르는 대규모적인 《공수작전》을 벌렸으며 새전쟁도발에 대처한 해상수송체계와 공수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한미합동기동훈련》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공능력을 《련마》하기 위한 괴뢰해군의 《상륙작전》등을 벌리였다.

또한 이놈들은 포항근방에서 《독수리작전》을 벌린데 뒤이어 11월중순에는 남조선괴뢰군 보병, 포병, 기갑부대들을 망라한 이른바 《상호협동공격전투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벌렸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기간에는 비무장지대가까이에서 포병, 기계화부대, 공수보병사단 《특수유격대》들이 참가한 이른바 《승전71》이라는 대규모의 전쟁련습을 벌렸다.

뿐만아니라 이른바《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효과적으로 써먹기위해 아세아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면서 특히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그어느때보다도 적극 부추기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사또와 박정희도당은 《제5차한일각료회》니 《한일협력위원회》니하는것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모의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입만벌리면 《남조선은 일본방위의 제1선》이니 《생명선》이니 뭐니하고 짖어대면서 남조선침투를 본격화하고있다. 이것은 1971년에들어와서 9월말까지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군국주의 패거리가 5년전에 비하여 무려 10배나되는 6만 8천여명에 이르고있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주고있다.

또한 이놈들은 《미일한공동작전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책동으로서 《미일한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5월에는 우리 나라 문력가까이에서 《미일해군합동연습》을 벌렸으며 그에 뒤이어 괴뢰군해군을 끌어내여 동해안에서 《금성상륙작전훈련》이라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함들로 《함대훈련》이란것을 벌렸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있다는것을 충분히 실증하여준다.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각종 군사적도발

미제침략자들은 올해에도 남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지상과 공중, 바다에서 각종군사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왔다.

미제침략자들은 12만 900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는 550여차의 사격행위와 79차에 걸쳐 330여놈의 무장간첩들을 침입시키고 21차에 걸쳐공중침범행위를 감행하는등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71년도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갖은 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하여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이 폭로규탄한 자료의 일부만도 다음과 같다.

【지상에서】 미제침략자들은 1월 20일 비무장지대안에서 수백놈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여러시간에 걸쳐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수천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였으며 2월 3일에는 100여놈의 무장악당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였고 2월 5일에도 비무장지대안에 수많은 무장악당들을 끌어들여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수백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의 이무모한 무장도발행위는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즉시적인 강력한 대응조치에 의하여 그때마다 여지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이놈들은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사이에 10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을 반대하여 연80차에 걸쳐 도합 6천 88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2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312차회의)

3월 8일, 비무장지대안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그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 인민군초병들을 향하여 방송기로 《얼마후 너희들의 초소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여댄데 뒤이어 여러가지 구경의 포들과 대구경기관총을 비롯한 자동무기들로 우리인민군초소에 악랄한 총포사격을 가하여나섰다.

이놈들은 이날오후 3시경부터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제놈들의 초소에서 12.7미리 대구경기관총으로 수백발의 총탄을 우리 인민군초소에 쏘아댄데 뒤이어 57미리무반동포로 수십발의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얼마후이놈들은 같은 장소에서 57미리무반동포와 81미리 및 60미리 박격포, 105미리곡사포와 7.62미리기관총을 비롯한 수많은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 인민군초소에 수천발의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제놈들의 다른 초소에서 57미리무반동포와 60미리 및 81미리 박격포 12.7미리 대구경기관총을 비롯한 수십정의 자동무기들로 우리 인민군초소에 각각300여발의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105미리곡사포로 수십발의 포탄을 우리측 초소에 쏘아대는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이놈들은 지난 3월 1일 비무장지대안에서 수많은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여러정의 12.7미리대구경기관총으로 우리 인민군 초소를 향하여 수백발의 총탄을 쏘아댔으며 2월 25일에는 105미리곡사포로 9발의 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는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밖에도 미제침략자들은 2월 16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사이에 우리측을 반대하여 40여차에걸쳐 5천 26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적대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놈들은 또한 2월 21일, 22일, 28일에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제놈들의 한개 초소에 4차례에 걸쳐 4문의 57미리무반동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설치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중무기를 을 비무장지대안의 제놈들의 초소에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3월 15일, 군사정전위원회 31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3월 24일 저녁 7시 30분경부터 25일 아침 8시 15분경까지의 사이에 서해 교동도로부터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의 평화적주민지역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발의 대구경기관총사격을 가하는 극히 악랄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3월 18일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81미리박격포로 여러발의 포탄을 쏘아댔으며 3월 17일에는 여러정의 경기관총으로 450여발의 총탄을 비무장지대 우리측지역에 쏘아댄것을 비롯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사이에 29차에 걸쳐 500여발의 총포탄을 우리측지역에 쏘아대는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3월 21일 새벽에 한놈의 무장간첩을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근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무장간첩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사살당하고말았다. (4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 31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4월 30일 밤 9시 10분경부터 강화도에서 우리의 평화적 주민지역들에 1만여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였으며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40여차에 걸쳐 1만 2천 200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쏘아대는 적대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4월 9일, 18일, 21일에 련이어 우리의 국가 및 군사 기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계속 침입시키는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무장간첩들은 우리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즉시로 사살당하고 말았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장갑차, 106.7미리박격포,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놈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지난 4월 1일 미국본토에 기지를 두고있던 《채과랄》유도탄 및 20미리 《벌칸》포체계를 장비하고있는 제61포병대제8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배치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5월 6일, 군사정전위원회 31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5월 21일 21시 30분경에 수많은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한강하구 조강리로부터 144고지사이의 강안일대에 이미 설치해놓고있던 여러정의 12.7미리대구경기관총과 고사기관총으로 그 맞은편 68.4고지와 한터사이에 있는 우리의 평화적주민지역을 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500여발의 총탄을 퍼부어대는 극히 악랄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5월 30일 8시 20분경에는 근 30명에 달하는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근을 향하여 자동무기들로 수백발의 총탄을 쏘아댔으며 5월 23일 11시 59분경 81미리박격포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여러발의 포사격을 가한것을 비롯하여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40여차에 총포사격을 감행하였다.

이놈들은 5월 19일, 27일, 28일에 각각 한놈씩의 무장간첩들을 침입시켰다.

그러나 이 무장간첩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물샐틈없는 경계앞에서 미제침략자들로부터 받은 간첩임무수행을 포기하고 우리측에 자수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5월 22일과 26일에 각각 한놈씩의 무장간첩들을 우리측지역에 침입시켰는바 이 무장간첩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말았다. (6월 2일 군사정전위원회 316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6월 1일, 6일, 8일에 비무장지대안에 각각 1문씩의 57미리무반동포를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10일에는 1대의 땅크를, 5월 27에는 1문의 12. 7미리대구경기관총과 2문의 브로닝기관총을, 5월 28일에는 1문의 57미리무반동포를, 5월 30일에는 2문의 57미리무반동포와 1문의 12.7미리대구경기관총을 끌어들이였다.

뿐만아니라 6월 7일에 10여놈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여러정의 12.7미리대구경기관총으로 수백발에 달하는 총탄을, 6월 6일에는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106.7미리박격포로 10여발의 포탄을 비무장지대 우리측지역에 쏘아대는등 여러차례에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6월 8일 19시 50분경 회의장구역으로부터 가까운곳에서 여러놈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공동경비구역안에 있는 우리측 초소부근에 여러발의 자동무기사격을 가하는 극히 엄중한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6월 12일, 군사정전위원회 317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6월 14일, 18일, 20일에 각각 한놈씩의 무장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이 간첩들은 우리측에 자수하였거나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말았다.

또한 이놈들은 6월 19일에 두번에 걸쳐 우리인민군초소에 1천 100여발의 총탄을 쏘아댔으며 6월 29일에 7발의 60미리박격포탄을 쏘아댄것을 비롯하여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의 사이

에 35차에 걸쳐 3천300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는 적대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7월 9일, 군사정전위원회 318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8월 16일 전선동부 간무봉 동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수십명의 무장악당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에 수천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는 극히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미제침략자들은 14시경부터 제놈들의 초소에서 카빙총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에 도발적인 총사격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뒤이어 비무장지대밖에 은밀히 대기시켜놓았던 직승비행기와 여러대의 전투차량 그리고 수많은 전투인원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끌어들이면서 무장도발행위를 확대하려고 기도하였다.

이놈들은 16시 30분경에 57미리 무반동포를 끌어내여 우리측에 사격태세를 취하는 한편 브로닝경기관총을 비롯한 여러정의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에 수많은 총탄을 쏘아댔다.

미제침략자들의 이 무장도발행위는 이날 14시경부터 17시경까지의 사이에 계속되였는바 우리측에 쏘아댄 총탄은 수천발에 달한다.

우리측을 반대하여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여 나선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강력한 보복타격을 받고 여러놈이 너부러진후에야 무장도발행위를 중지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8월 7일에 57미리무반동포를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계속 이와같은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측을 반대하는 포사격행위도 계속 감행하였다. (8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 32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8월 27일 아침 6시 30분경부터 우리측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7시 45분경에는 비무장지대 적측 부분인 고루리일대에서 그 맞은편 비무장지대 우리측 부분인 50.4고지일대를 향하여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총탄을 쏘아댔으며 이와 때를같이하여 림진강하류 남쪽강안에 있는 오금리, 마우리 계선의 넓은 지역의 각이한 지점들에서 역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총탄을 쏘아댔을뿐만아니라 림진강하류에 끌어들였던 무장선박을 동원하여 우리측에 총사격을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도발행위는 우리 인민군 초병들의 강력한 보복타격을 받고 12시경에 가서 일단 중지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13시경부터 또다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 우리측지역에 수천발의 총탄을 퍼부어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원쑤들의 무장도발행위는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강력한 보복타격을 받고 여러놈이 꺼꾸러진 다음인 16시경에야 중지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악당놈들은 8월 28일새벽 2시경부터 4시 30분까지의 사이에 또다시 이 지역에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로우리측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총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놈들이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사이에 우리측에 쏘아댄 총탄수는 무려 수만발에 달한다. (9월 1일, 군사정전위원회 321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의 사촉밑에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비무장지대안에 57미리 무반동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사이에 30여차에 걸쳐 3천 690여발의 총탄과 포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들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 9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우리측이 항의한것만하여도 군사분계선일대에서 1천 240여건이상이나 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9월 25일, 군사정전위원회 322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9월 28일과 10월 3일, 20일에 무장간첩을 우리측 지역에 련이어 침투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무장간첩들은 우리측에 자수하였거나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말았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57미리무반동포와 고사기관총을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사이에 우리측을 반대하여 도합 20여차의 무모한 포사격행위를 감행하였다. (10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32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의 사촉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10월 20일과 11월 3일, 13일, 16일에 다섯놈의 무장간첩들에게 카빙총기관단총, 수류탄, 무전기, 사진기 등 여러가지 살인흉기들과 정탐 장구류들을 휴대시켜 우리 인민군대의 무력배치와 군사시설들을 정탐하고 촬영하며 우리 인민군 초소와 당, 정권기관들을 습격파괴하며 인원들을 살해 랍치 할데 대한 정탐, 파괴, 살인 임무를 주어 우리측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이 무장간첩들은 우리측에 투항하였거나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사살당하고 말았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11월 16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에 12.7미리대구경기관총과 경기관총으로 수백발의 총탄을 쏘아댄것을 비롯하여 또다시 우리측을 반대하여 30여건의 총사격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비무장지대안에 106미리무반동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이였고 또다시 여러문의 57미리무반동포와 12.7미리대구경기관총을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11월 18일, 군사정전위원회 32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12월 7일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69호 남쪽에서 22차례에 걸쳐 우리측 지역에 105미리곡사포사격을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비무장지대안에 중무기들을 끌어들이고 군사소동을 벌리며 우리측을 반대하는 총사격을 감행하는 등 18차에 달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12월 11일, 군사정전위원회 325차회의)

박정희괴뢰도당은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이였으며 12월 25일 낮12시경에 여러놈의 괴뢰군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군 초소를 향하여 수백발의 12.7미리대구경기관총사격을 가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2월 24일 새벽 5시 30분경 전선중부 승양리계선 비무장지대 우리측에 10여발의 포사격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수많은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2월 17일 남북조선적십자단체 제13차예비회담이 열리고 있을때 공동경비구역안에 지정된 수보다 더 많은 무장인원을 끌어들였을뿐만아니라 미제침략군불한당놈과 보도인원으로 가장한 깡패들을 내몰아 우리측 경비인원과 보도인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5건의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2월 30일 새벽 전선서부 동창리 동남쪽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인민군복장으로 가장시키고 독약을 비롯한 각종살인흉기들과 정탐기재들을 휴대시킨 한놈의 무장간첩을 침입시켰다.

우리 인민군초병들은 이 무장간첩을 투항시켰다. (1월 4일, 군사정전위원회 326차회의)

【공중에서】 미제침략자들은 3월 8일 우리측에 대한 총포사격과 함께 1대의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 우리측부근의 상공에 불법침입시켜 계속 선회하면서 제놈들이 포사격을 직접지휘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3월 14일 12시 15분경부터 14시경까지의 사이에 2차에 걸쳐 고속도고공정찰기 《에스아르—71》을 고성 동쪽 동해상공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 평공깊이에까지 침입시켜 공중정찰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3월 15일, 군사정전위원회 313차회의)

이놈들은 4월 29일 12시 40분경에 《에스아르—71》고속도 고공정찰기를 공화국북반부지역 상공깊이에 침입시켰으며 4월 30일 21시 10분경에는 3대의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상공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5월 6일, 군사정전위원회 315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5월 17일 12시 34분경부터 14시 6분경사이에 두번에 걸쳐 고속도 고공정찰기 《에스아르—71》을 공화국북반부지역 상공깊이에 침입시켜 우리의 군사대상물들을 정탐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5월 18일 11시 29분경에 또다시 고속도 고공정찰기 《에스아르—71》을 공화국북반부 양덕계선상공에까지 침입시켜 정찰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6월 2일, 군사정전위원회 316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0월 12일과 19일에 세차례에 걸쳐 고속도 고공정찰기 《에스아르—71》을 공화국북반부 평공깊이까지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0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323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및 3일에 도합 4차례에 걸쳐 고속도고공정찰기 《에스아르—01》을 공화국북반부지역상공에 침입시키는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11월 18일, 군사정전위원회 324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날인 12월 7일 단하루동안에 만도 4차례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지역상공에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일으켰다. (12월 11일, 군사정전위원회 325차회의)

또한 이놈들은 12월 17일 두차례에걸쳐 오끼나와에 기지를 두고있는 《에스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공화국북반부평공깊이에 침입시켜 침략적인 공중정찰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월 4일, 군사정전위원회 326차회의)

【바다에서】 미제침략자들은 1월 6일 19시경에 어둠을 리용하여 무장간첩선들을 서해의 장산반도 북쪽 남대천하류 우리측 연해깊이에 침입시키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측 연해에서 정상적인 경비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해군초병들은 현장에서 미제무장간첩선들을 발견하자 즉시 정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측 연해깊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무장악당들은 우리 해군초병들의 요구에 응할대신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에 총탄을 쏘아대면서 남쪽으로 도망치려고했다.

조선인민군 해군초병들은 무모하게 저항하면서 도망치려는 미제의 무장간첩들에 즉시 자위적인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한척은 거기에 타고있던 무장악당들과 함께 현장의 바다속에 처박았으며 다른 한척은 격상시켰다. (1월 2일, 군사정전위원회, 311차회의)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외정책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합법칙적발전과정을 명철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활동방침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확고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과 연설들에서 우리 당 대외정책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02페지)

그이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및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강령적지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맑스-레닌주의적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3년 인민혁명정부 정강에서 《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피압박민족과의 공동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시였으며 그후 1936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이 더 구체화하시였다.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우리 혁명발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자주적립장을 여러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결코 남의 풍에 놀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국

제활동분야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51~352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기에 지난시기 대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당당히 세워나갈수 있었다.

우리당의 대외정책은 또한 견결한 반제적립장으로 일관된 확고한 혁명적원칙성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결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65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혁명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았으며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태도와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온갖 그릇된 태도와 경향들을 단호히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와함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계급적형제들,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호상 지지하고 협조하는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면서 이를 약화시키는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활동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로 하여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국제적벗들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조선을 오늘과 같은 강력한 《주체의 나라》로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반제반미투쟁의 기수로, 국제혁명운동의 선봉대로 일떠세우시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끊임없이 흠모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결같이 《세계에 더없는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사상가》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으로, 《한나라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그의 영향력이 한 특정한시기만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히 비칠 력사상 보기드문 지도자》로 높이 우러러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표시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 진보적인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이 반드시 따라 배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구현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중근동지역의 한 국가 지도자는 《김일성수상이 내놓은 주체사상은 참말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고하였으며 다른 한 지도자는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였다.

푸에르또 리꼬의 한 혁명가는 《우리가 봉건주의, 자본주의의 온갖 탄압기구가 남겨놓은 락후의 길에서 벗어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한다. 이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에서 자기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주적인 사상인바 이 사상에 철저히 립각할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향하여 전진할수 있다.》고 하였다. 구라파 사회주의나라의 한 지도자는 《오늘의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맑스-레닌주의적 변증법적 리론과 명제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고 계실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탁월한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였다고 우리는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김일성수상동지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이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상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아프리카지역의 한 지도자는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경탄을 표시하고 《주체사상의 승리에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였으며 《조선인민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을 배우고 잘인식할수있도록 제3세계인민들이 조선을 방문할것》을 호소하였다.

지난해 6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111개나라에서 온 145개대표단과 대표들이 자기들이 한 연설들에서 일치하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감동된 어조로 높이 평가하면서 열렬히 지지하여나선것은 이것을 또한 잘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가 제기하고있는 모든 근본문제들에 해답을 주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20세기 중엽의 공산당선언》, 《오늘과 미래를 밝혀주는 진리의 보물고》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며 자기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의 귀중한 량식으로 삼고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수록한 전기와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여 광범히 보급하고있다.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이 30여개 나라의 민족어로 460만부이상 번역출판배포되였으며 세계 여러나라 5백여종의 출판물들에는 그이의 전기, 혁명활동략력을 비롯한 불후의 로작들이 1억2천여만부이상 게재되였다.

특히 이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을 광범히 출판하고 신문, 잡지들은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이 전기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력사이며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감격적인 위대한 서사시이며 현대 조선혁명운동에서의 승리와 영광의 기록》이라고 크게 소개선전하였다.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불후의 로작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높은 연구열의에 의하여 이해만하여도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이 50여개 나라들에서 120여개 조직되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등에 망라되여있는 소조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더 깊이 연구하여 호상 연구사업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1971년 7월에는 평양에서, 12월 20일부터 22일사이에는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연구토론회를 조직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는 여러나라 사회과학자들, 정치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로작연구소조대표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 되였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19세기에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고한것처럼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제국주의 종말을 선고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갈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면서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갈것》을 호소하였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세계적규모에서 광범한 사람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연구되고있으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하여 그이께서 밝혀주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억센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으신 국제적권위로하여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온세상 사람들이 동경과 경탄으로 우러러보는 그러한 높이에까지 제고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도처에 수많은 국제적벗들을 가지고 세계혁명운동의 발전과 국제관계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이해에 우리 나라는 말따, 시에라 레온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모리셔스와는 령사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리비아, 영국과는 무역관계를 맺었으며 노르웨이와는 공보관계를 새로 맺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나라는 12개의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40개의 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으며 6개의 나라들과는 총령사관계를, 13개의나라들에는 무역대표부와 공보부를 두고있다.

우리 나라는 또한 세계의 80여개나라들과 무역 및 통상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공화국의 각기관, 단체들은 110개의 국제기구들에 참가하여 활동하고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등 여러분야에 걸치는 교류와 협조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발전되고있다.

이해에 우리 나라와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480여개이상의 외국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당 및 정부대표단, 여러사회단체대표단들이 수많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와 인민들로부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이 더욱 강화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아사히 신붕》 편집국장과 교도통신사기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다시금 천명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반향들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아사히 신붕》 편집국장과 교도통신사기자를 만나시고하신 말씀은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중립국 나라들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일본에서는 90여개의 신문, 통신들이 보도하였으며 일본의 각당들과 사회계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일조친선련맹》,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을 새로 뭇고 조일량국간의 우호촉진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 10월 26일 일조협회 제 16차 정기전국대회에서는 일본정부에 요청서를 보내여 《일한조약》과 《일한경제협조협정》을 페기하고 일본반동세력의 조선재침책동을 분쇄하며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부당한 결정을 페기하고 미제침략군을 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조선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평화통일을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해 이딸리아, 모리셔스를 비롯한 여러나라들에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조직되였으며 많은 국제기구, 여러나라의 의회그루빠,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 호소문등을 발표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웽그리아직업동맹 제22차대회, 칠레사회당 제23차대회, 제17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국제학생동맹제10차대회, 세계직련뷰로 제3차회의, 가이아나(프랑스령)학생련맹 제6차대회 국제학생동맹서기국 등 많은 국제기구들과 국제회의 및 대회들에서는 조선에관한 결의 성명들을 채택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및 남조선괴뢰도당을 반대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이해 6월 25~7월 27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는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투쟁단체들, 련대성조직들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160건의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왔으며 세계여러나라들에서 170회이상에 달하는 련대성 집회와 시위들을 벌리고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규탄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반제반미투쟁의 강화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33페지)

그이께서는 최근년간에만도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1971년 8월 6일 연설을 비롯하여 여러기회들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우

리당과 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혁명을 더욱 촉진시킴에 대한 일련의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연설에서 조성된 국제정세와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 미제의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흉악한 본질과 그 특성에 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미제의 직접적침략을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할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또다시 제시하여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9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적방침은 현시대에 대한 옳은 평가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오랜 반제투쟁의 경험에 기초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으로서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있다.

이해에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가장 치렬한 전선을 이룬것은 아세아였으며 또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도 바로 아세아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신년사에서 1971년에 아세아인민들이 이룩한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을 비롯하여 중국인민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아세아에서 《닉슨주의》가 실패의 운명에 빠져들어가게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해외침략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6페지)

특히 가렬한 반제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 중국, 윁남,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한 미제의 침략을 직접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하는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이 더욱 강화되고 반미공동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이해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주의적략탈을 반대하는 중근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도 새로운 앙양을 가져왔다.

이해에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며 놈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여왔다.

이해에 우리 나라는 90여개의 대표단을 각종 국제회의들에 파견하여 조선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폭로규탄하였으며 반제혁명력량의 단결과 공동행동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다른한편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반제반미투쟁의 동방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1970년 6월과 1971년 1월초에 침입하였던 무장간첩선들에 대한 징벌은 세계의 면전에서 다시금 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뚜렷한 실례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제의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9페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침략을 일삼아왔으며 오늘 미제의 부추김밑에 재생되여 또다시 아세아인민들의 흉악한 원쑤로 등장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특히 조선을 첫 공격대상으로 삼고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모험적인 전쟁계획까지 짜놓고 우리 나라를 작전지역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미부터 미제에 의한 일본군국주의재생과 일미간의 정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을 경고하여왔으며 놈들의 해외침략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와함께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미제의 아세아 침략, 그리고 일미반동들의 침략적공모결탁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과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또한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복수주의적야망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또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 세계의 모든 나라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기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스미스도당을 반대하는 남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손에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를 비롯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새 사회건설에 일떠선 칠레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으며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페루,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르헨띠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조선인민은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였다.

윁남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어려운 정세에서도 윁남인민의 투쟁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다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윁남에서 미제침략과 야만적인 전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공화국성명과 7건의 외무성성명과 외무성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 4월에 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으로말미암아 인도지나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웰남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또한 197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웰남민주공화국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웰남로동당의 령도밑에 남부를 해방하며 사회주의북반부를 수호하고 건설하며 반미구국항전을 강력히 전개하려는 웰남 당과 정부의 견결한 립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웰남체류기간 우리 당, 정부대표단과 웰남로동당 및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간에는 우리 나라가 1972년에 웰남민주공화국에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할데대한 협정들을 조인하였다.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직총중앙위원회, 농근맹중앙위원회, 사로청중앙위원회, 녀맹중앙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웰남친선협회, 웰남지지반미투쟁조선위원회, 조선남부웰남인민투쟁지지위원회, 웰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조선위원회는 웰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스물한돐에 즈음하여 1971년 3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을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웰남인민의 투쟁에 전투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평양시와 여러지방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련대성집회들을 조직하였다.

또한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열일곱돐에 즈음하여7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웰남인민의 반미국투쟁지지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주간에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확대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형제적 웰남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라오스애국전선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위원장 수파누봉친왕에게 친히 축전을 보내시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이해 10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공동주최로 라오스독립 스물 여섯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고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외무성은 라오스문제의 옳은 해결을 위한라오스인민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며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행위를 규탄하여 대변인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캄보쟈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캄보쟈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해 1월 22일 공화국정부는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큰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정치국 및 왕국민족련합정부의 1월 18일부 호소문과 1월 19일부 노로돔시하누크친왕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해 8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방문은 조선과 캄보쟈 두나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미제와 그 주구 론놀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전투적인 인사를 보내시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올바른 령도밑에 캄보쟈인민이 거둔 빛나는승리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캄보쟈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다시금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또한 정부성명과 외무성 및 외무성대변인성명들을 발표하여 캄보쟈인민을 포함한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제때에 폭로규탄하였다.

꾸바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그를 적극 지지성원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혁명의 기치를 높이든 꾸바공산당과 꾸바혁명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은 꾸바혁명승리 열두돐에 즈음하여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올바른 령도밑에 미제를 반대하며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하고있는 꾸바인민의 빛나는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971년 4월 19일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열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혁명정부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친히 축전을 보내시여 미제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꾸바인민과의 전투적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꾸바인민의 혁명승리열두돐, 쁠라야 히론전투승리 열돐, 꾸바인민의 무장봉기열여덟돐을 기념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지방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련대성집회들이 조직진행되였으며 직총, 농근맹, 사로청, 녀맹중앙위원회들과 대외문화련락위원회등 여러기관 사회단체들은 피델 까스뜨로 수상동지에게 전문과 편지를 보내였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또한 7월 26일 무장봉기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사들을 조직진행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83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시종일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이 의연복잡한 조건하에서 오직 확고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을 다 옹호하며 자주성의 원칙과 형제당, 형제 나라들간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에서 의견상이를 내부문제로서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받들고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원칙적인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수많은 협정을 체결하고 의정서들을 조인하였으며 이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경제문화적교류를 확대발전시키였다.

1971년 7월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 기념행사들은 우리 나라와 쏘련, 중국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쏘련에서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쏘련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방문기간 진행된 많은 기념행사들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쏘 두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일층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려는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한결같은 지향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중국에서는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기간 우리 나라 당및 정부대표단이 또한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당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방문기간 진행된 모든 행사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전쟁도발책동이 날로 격화되는 환경속에서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서로 적극 지지협조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두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불패의 단결을 다시금 시위하였으며 공동의 원쑤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오랜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나라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과 호상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미제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한 스물한해가 되는것과 관련하여 6월 27일에는 평양시군중집회를 조직하고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형제적 중국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형제적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당 및 정부대표단, 경제문화대표단, 군사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들을 호상교환하였다.

우리 나라와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여러분야에 걸친 끊임없는 래왕과 경제문화교류의 발전은 이미 맺어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뿐 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971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로므니아당및 정부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평양시와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 교육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우리 나라 당및 정부대표단과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당및 정부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친선적이며 진지하고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과 로므니아 두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두나라사이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관계를 발전시키고 형제적친선을 강화하여 심화시킬 굳은 결의를 재천명하였다.

로므니아측은 형제적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관철하여 자기나라를 짧은기간에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은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로므니아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사변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로숀찌 빨위원장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로숀찌 빨위원장이 1971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로숀찌 빨위원장은 평양시와 함흥시의 여러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교육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로숀찌 빨위원장을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로숀찌 빨위원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로숀찌 빨위원장의 우리 나라방문기간 조선웽그리아정부간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창설에 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협정이 조인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과 우호적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한 고리로 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95페지)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그들을 성의껏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새로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신생독립국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들을 배우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서, 반제반미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견지하고있는 견결한 립장에서 큰 신심과 용기를 얻고있다.

그러기에 신생독립국가들의 많은 지도자들과 집권당들, 혁명조직들과 국가사회활동가들,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세계인민이 다 구현하고 투쟁하여야 할 무기》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으며 그이의 로작들을 광범히 연구선전하고있다.

1971년에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확대발전되였다.

공화국정부는 말따, 시에라 레온과 새로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모리셔스와는 령사관계를, 리비아와는 무역관계를 맺었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나라들과의 호상 래왕과 접촉을 강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당및 정부대표단, 친선대표단, 경제문화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들이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을 친선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대표단들은 방문한 이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친선적인 인사를 전하였으며 반제투쟁의 기치를 들고 새사회건설에 일떠선 이나라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표단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이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수백개의 정부대표단, 친선대표단, 경제대표단, 교육문화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들이 우리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특히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은 정부대표단과 정부교육대표단외에도 전체 도 장관들과 군장관대표단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대표단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이 나라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 1월 3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는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주최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 주간》이 광범히 조직진행되였다.

오늘 반제반미투쟁에서 조선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사이의 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호상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친선협조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등 여러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시하누크친왕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197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동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은 평양시와 강원도의 공장,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동지와 캄보쟈국가원수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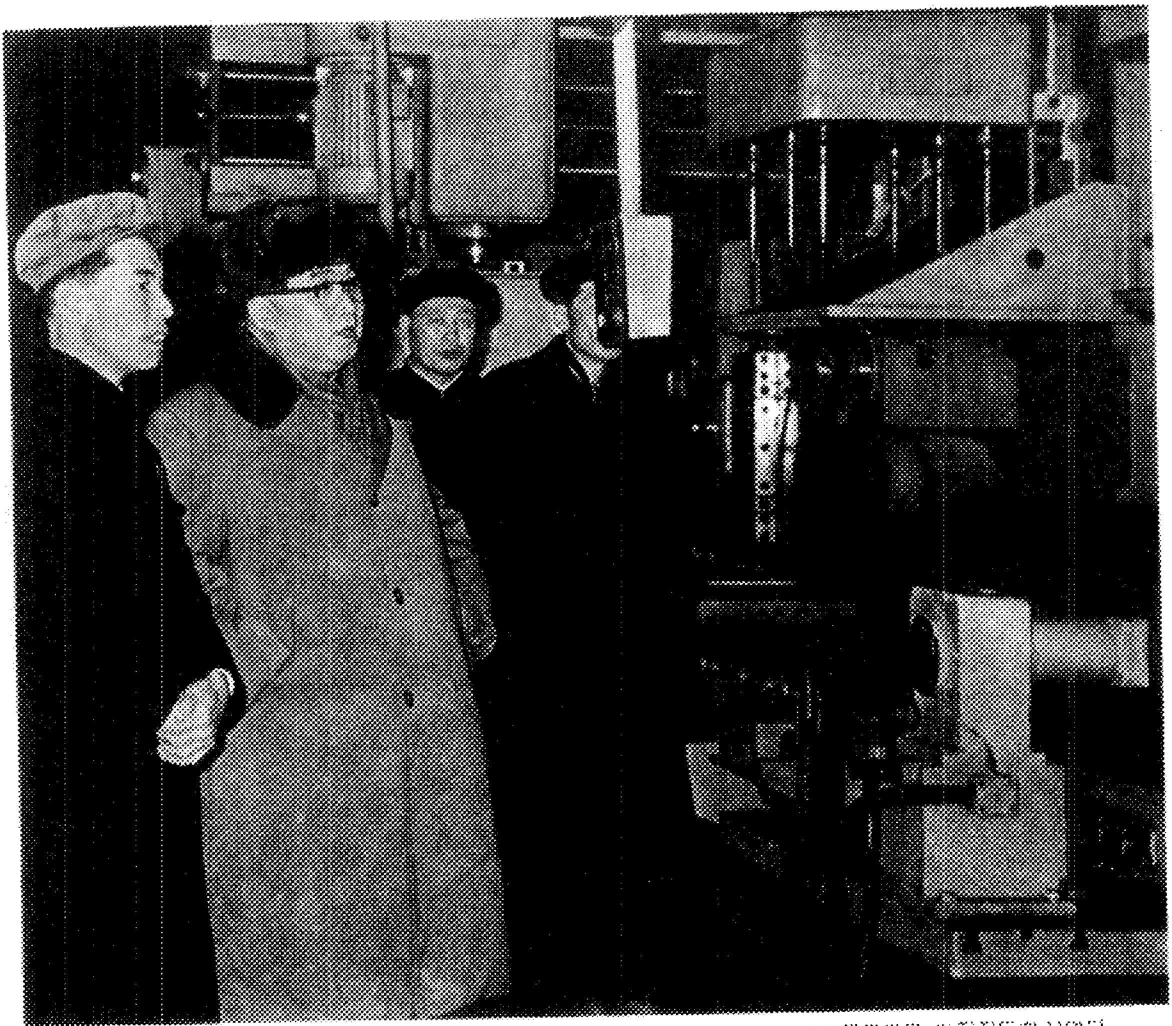
형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1970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이후의 전반적정세발전에 대하여서와 이에 대처하여 두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8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이 조인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전반적정세발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주어져있으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두나라인민들의 친선단결과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모결탁과 그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아세아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반미반일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문제 등 두나라인민들의 반미공동위업과 아세아와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천명되였다.

공동성명은 조선, 캄보쟈 두나라인민들의 견결한 반제적립장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분쇄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위하여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두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외정책적 방침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외활동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동지들과 국제적벗들을 가지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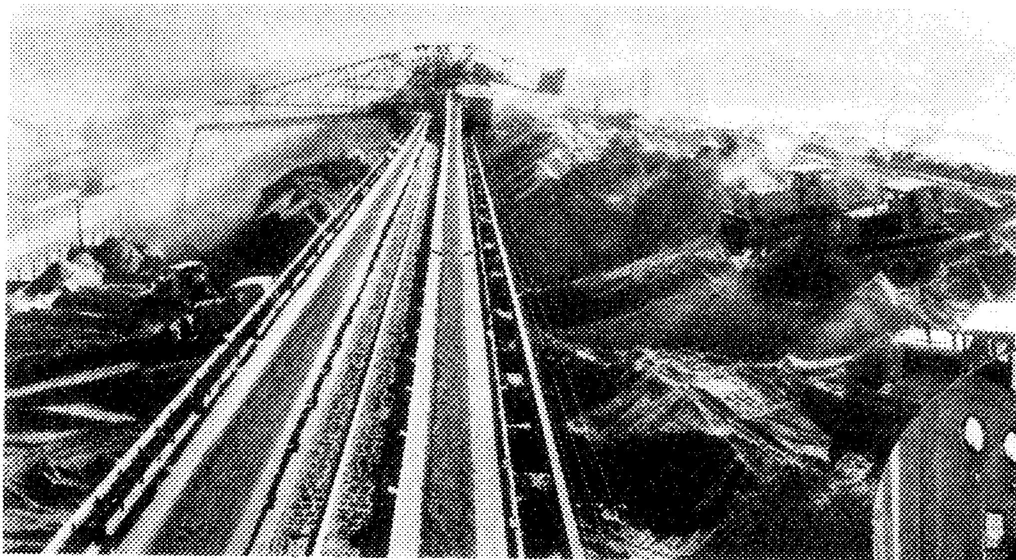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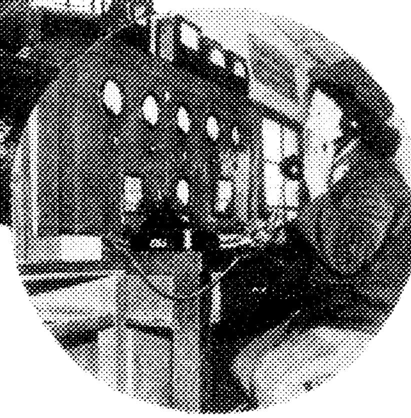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된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국가들과 피뢰들을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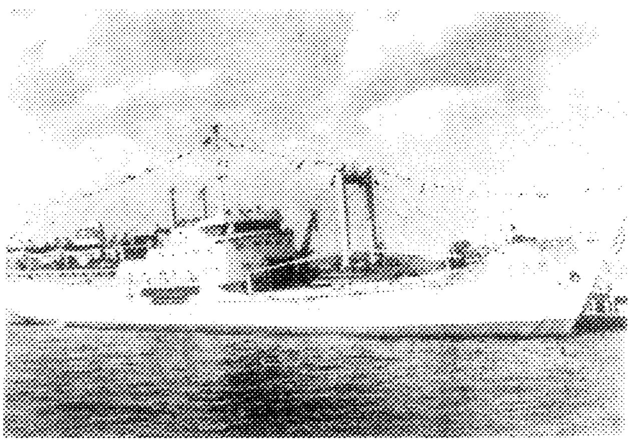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천땅에 지펴올리
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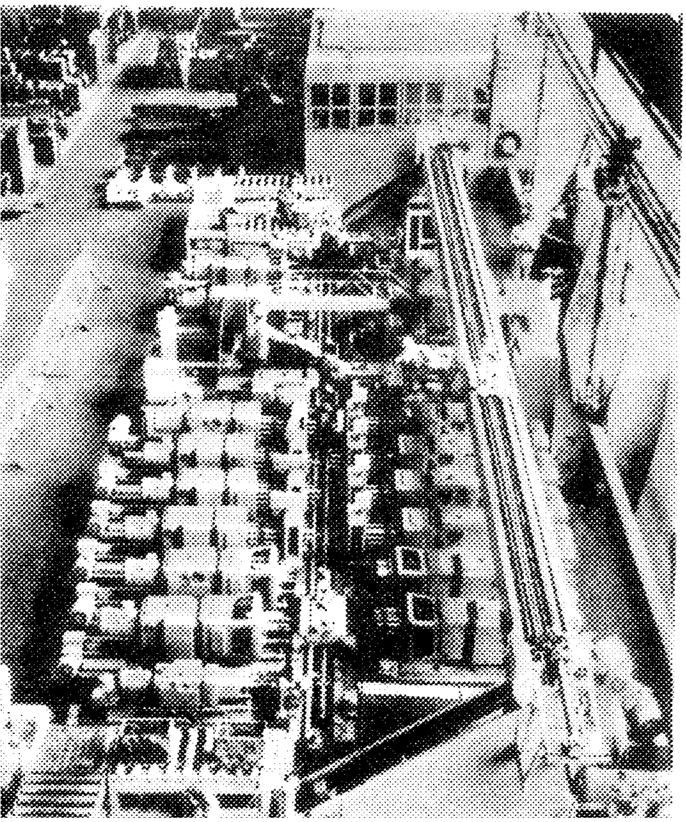



석탄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자동화한 신창탄광 배탄장과 운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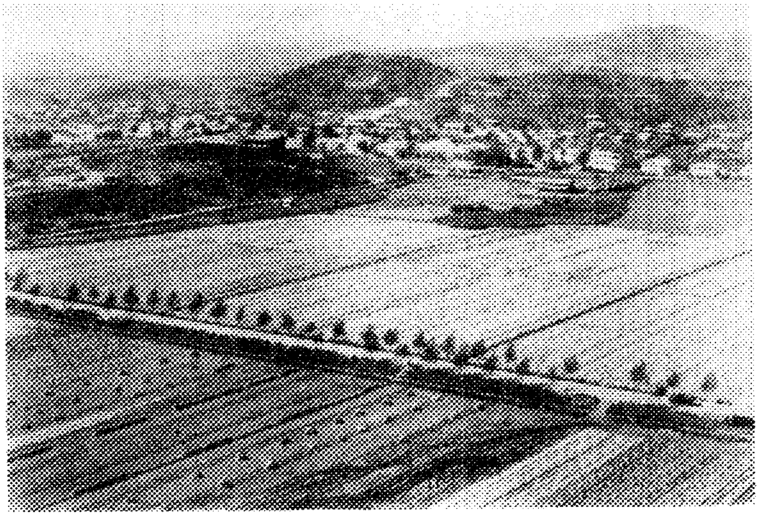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이 무어낸 5천톤급려객선 《만경봉》호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의 속도함가공자동흐름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문화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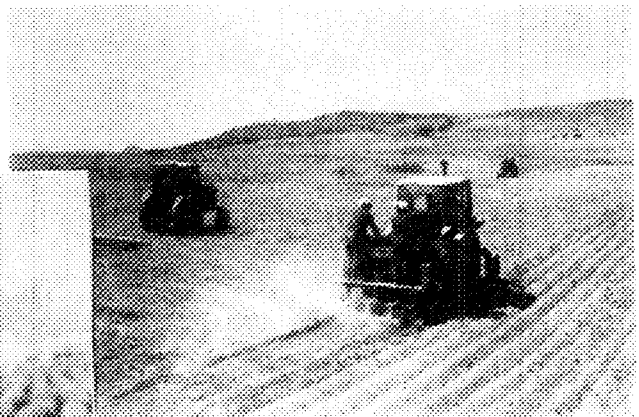


농약으로 병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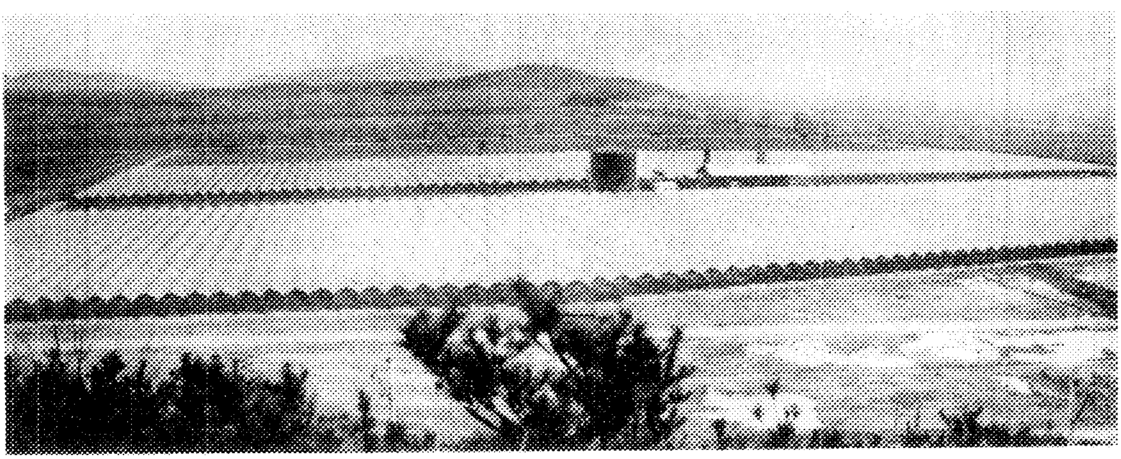


분수식밭에 밀보리파도가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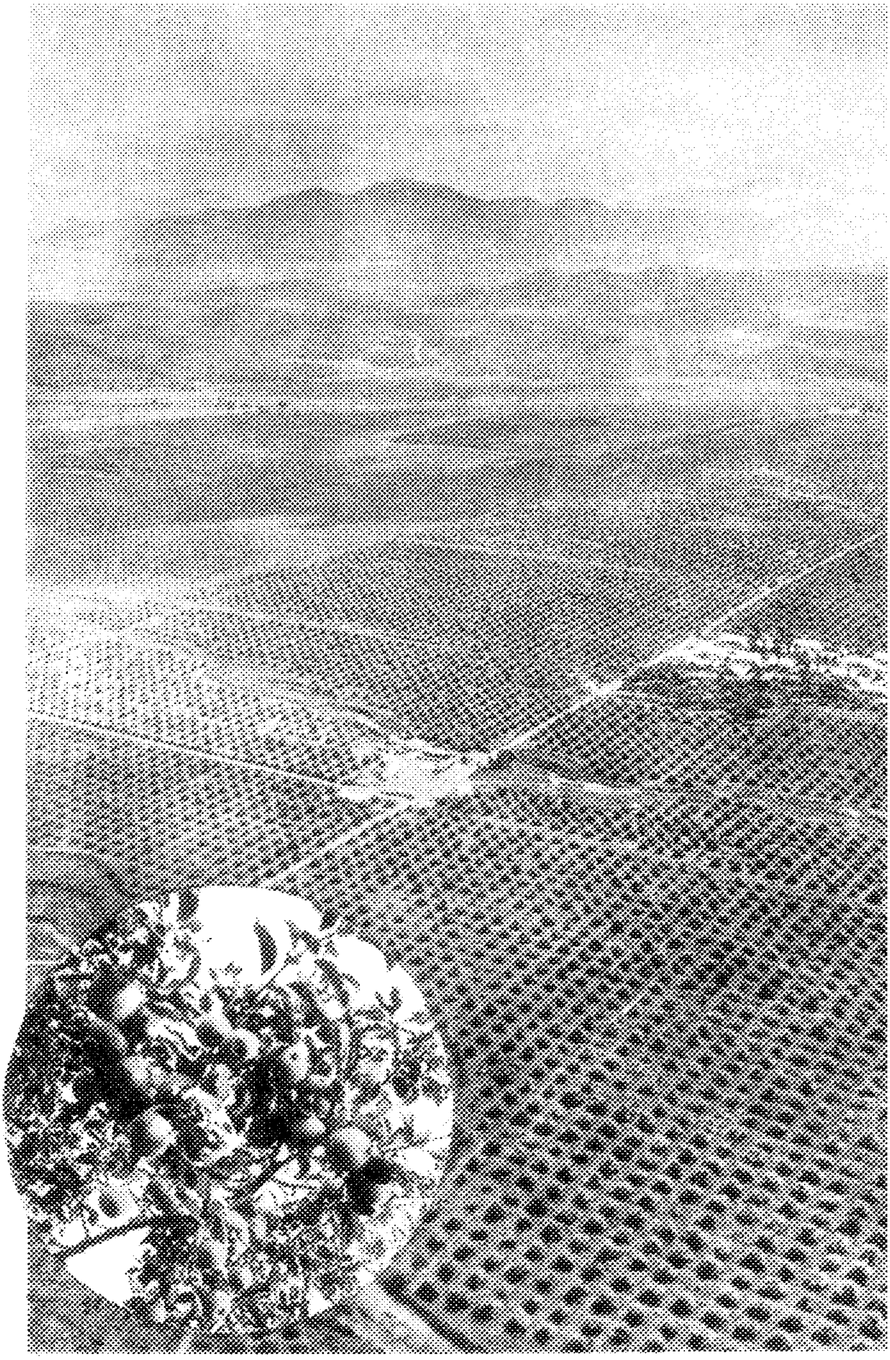


기계씨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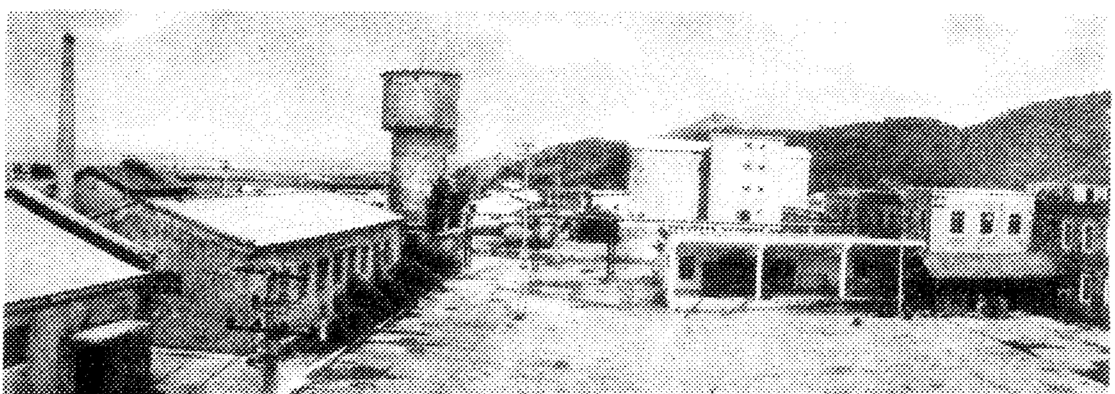
평양교외에 있는 룡성남새온실농장의 일부



과일군의 백리과원



과실가공공장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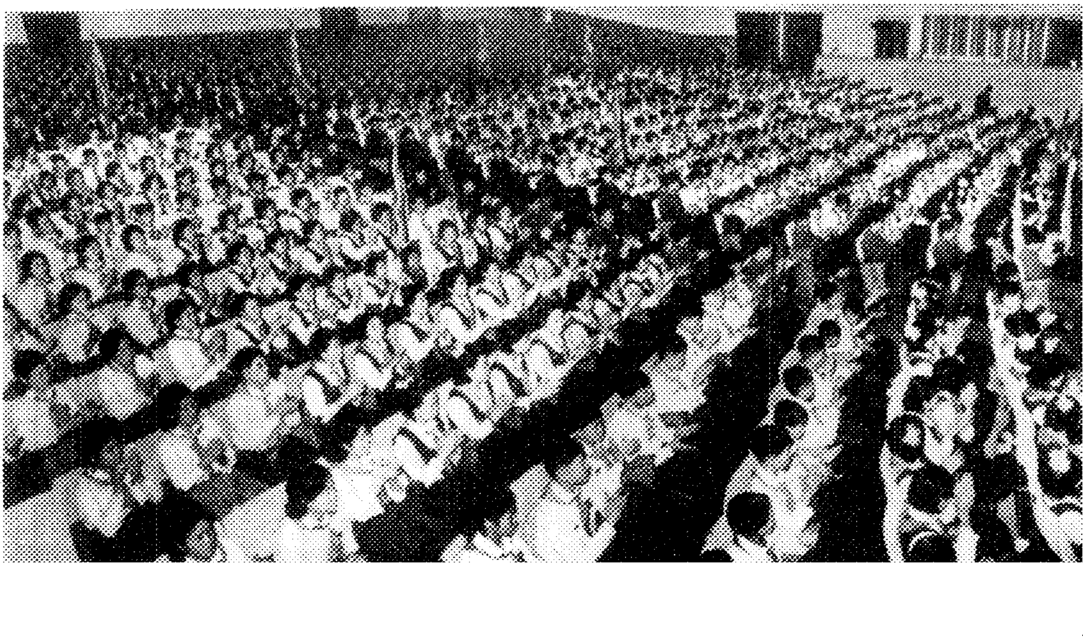


《소년신문》을 친히 펼쳐보시며 신문 《새날》을 새로 내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신문 《새날》 창간호가 나왔다

새날소년동맹창립 마흔다섯돐기념 중앙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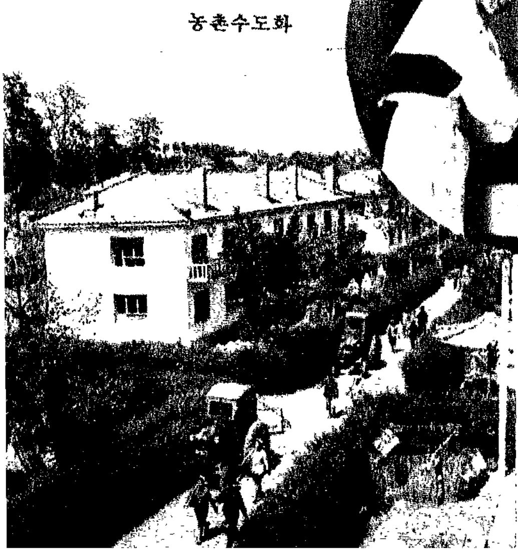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새로 꾸려진 어머니학교에서 학습하고있는 농촌녀성들



농촌뻐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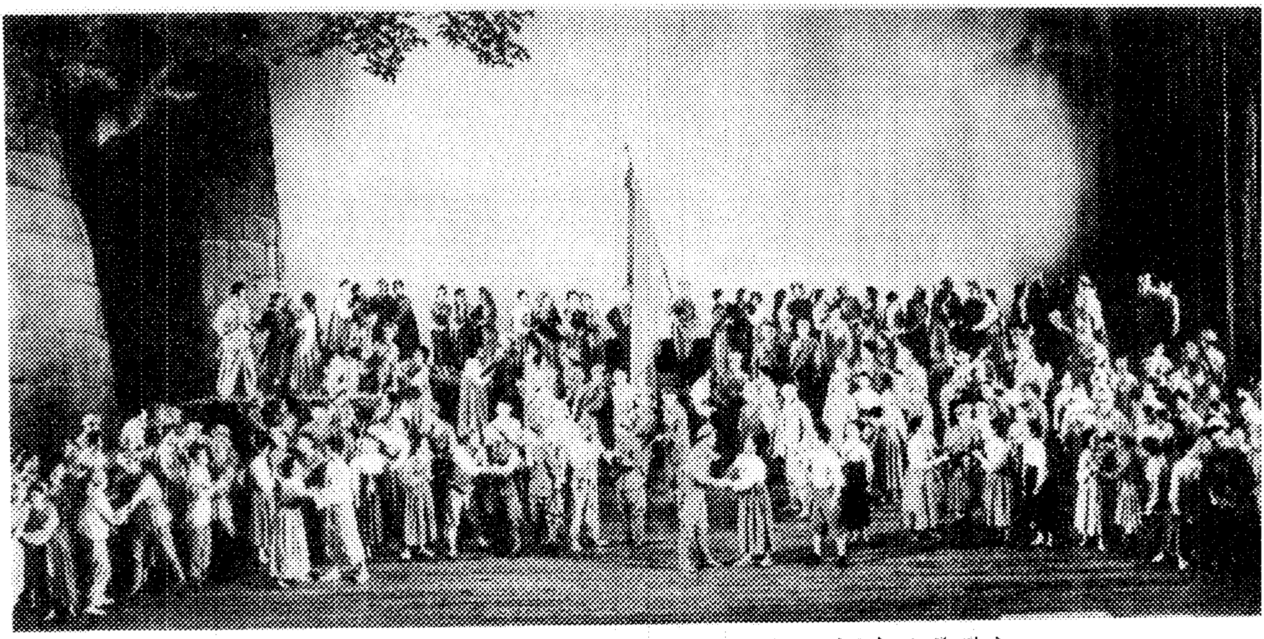


농촌수도화



농촌리진료소가 병원화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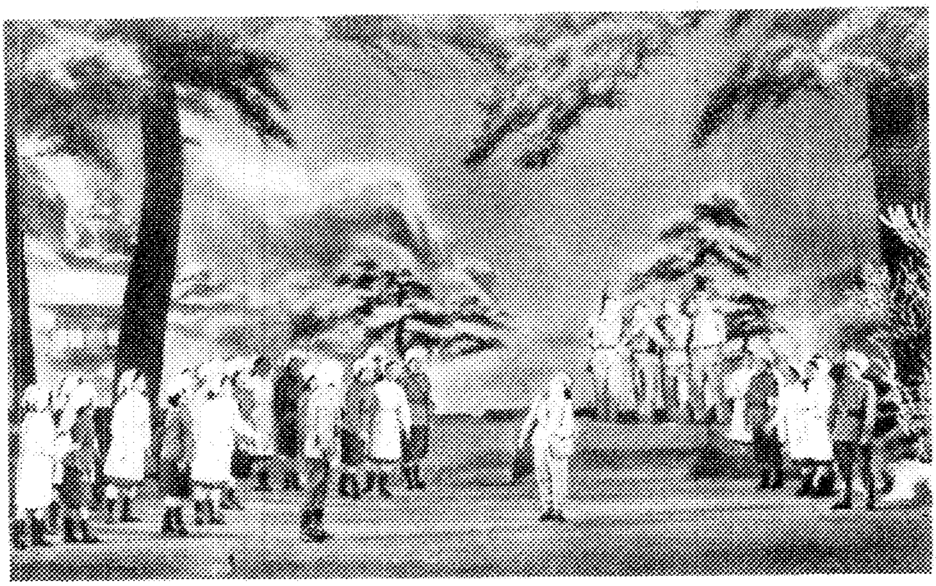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의 한 장면

인민상계관작품 광폭예술영화 《로동가정》중에서



인민상계관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한 장면





창립 25돐을 맞은 [illegible]

사회주의경제건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드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충성의 선물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가장 뜻깊고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경사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돐전으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1년여의 장엄한 로력투쟁은 빛나는 창조적열매를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의 첫해 전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해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이며 우리는 올해부터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전반적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첫전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1971년《신년사》, 단행본, 6페지)

그이께서는 1971년 2월 20일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1972년 1월 4—8일)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1971년 4월 19—23일), 제3차(1971년 11월 15—23일)전원회의들, 함남도 및 함흥시당련합확대집행위원회(1971년 4월 1—9일까지의 6일간), 평남도당전원회의(1971년 6월 16—18일), 황남도당전원회의 확대회의(1971년 9월 20—22일)들과 직총제5차대회, 농근맹제2차대회, 사로청제6차대회, 녀맹제4차대회,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1971년 2월 12—14일), 전국상업일군대회 (1971년 9월 13—15일)들을 지도하시고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신포지구(4월), 구성지구(9월), 신의주지구(9월) 현지지도들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틀어쥐고나갈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현지교시에 접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들은 1971년 3월 3일 종업원회의를 열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전으로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뿐만아니라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까지 완수하여 수령님께 충성의 선물을 드리자고 전국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하였다.

단 20여일동안에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이 이 호소에 호응해 나섰다.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15만톤군》, 《10만톤군》, 《7만톤군》의 영예를 쟁취하는 풍작의 성과로 맞이할것을 결의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온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이 뜻깊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값있게 맞기 위해 온갖 힘과 지혜를 다하여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여왔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은 수령님에 대한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으로 충만된 나날이였으며 그이께서 희천땅을 찾으시고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가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져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진 승리의 나날이였다.

이 투쟁에서 우리 로동계급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를 점령하였으며 3,0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한 충성의 보고를 올리였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을 돌파하였으며 3,950여개의 공장, 기업소건설대상들을 완공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투쟁에서 또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정보당수확고를 2~3배로 높일수 있는 3만정보의 분수식밭관개를 완성하고 공산주의농법인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실현할수 있는 7만정보의 현대적규격포전들을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거두어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이로써 공업부문의 내부구조를 완비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할데 대한 공업부문의 중심과업,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농업부문의 중심과업,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보관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전투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1972년《신년사》, 단행본, 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따라 우선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은 빠진 부문, 약한 부문들을 갖추고 보강하여 우리 공업을 완비하는데 힘을 넣어 전력공업, 기계공업, 선박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서두수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웅유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계획한 부문 조업들을 보장함으로써 발전능력상 배치구성을 개선하였으며 석탄에 의한 전력생산 비중을 높이고 원유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천리마희천, 천리마구성, 천리마만경대 공작기계공장들의 새형의 공작기계직장들, 천리마룡성, 천리마락원, 만경대건설 기계공장들의 대형설비생산계통들, 수많은 자동화계기분공장들을 새로 꾸림으로써 새형의 공작기계생산부문들, 대형설비생산부문들, 자동화공업부문들을 창설완비하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청진, 신포, 원산, 룡암포, 6월 24일 조선소들과 김책, 남포, 신의주선박공장들의 건조기지, 의장품생산기지들을 보강신설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여러가지 대형선박들을 대량적으로 만들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았다.

로동계급들은 또한 우리 나라 원료에 철저히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 금속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천리마황해제철소의 련속식소결로, 김책제철소의 주기식소성로, 청진제강소의 해면철로, 4월 13일제철소의 조강로들을 완성하여 수입콕스를 적게 쓰면서도 선철생산을 높이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키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날론생산능력

확장공사, 합성수지생산능력확장공사, 승리화학공장 제1계단공사를 비롯한 일련의 공장 보강공사, 확장공사, 신설공사들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 원료원천에 기초한 비날론공업, 합성수지공업, 염료공업들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그 지원자들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우선 농업생산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며 전면적으로 화학화하는 공업화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현대적규격포전과 분수식밭관개의 건설에 힘을 넣었다.

각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토지건설사업소와 밭관개건설사업소,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계수리공장들의 역할과 책임성,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이게 하여 단 두달동안에 2모작면적을 기본으로 하는 3만정보의 분수식밭관개를 건설하였으며 현대적규격포전을 7만정보로 늘이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지도밑에 녕변, 향산, 구장 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골짜기와 필지마다 토질과 기후가 다른 중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1~1.5톤씩의 알곡을 증수하였다. 이것은 수십만정보의 농토를 가지고있는 중간지대농업을 한계단 추켜 세울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과수업부문에서는 140여개의 물탕크, 760여개의 소독탕크, 수만리의 간선도로들을 건설하여 과수원의 물주기, 약치기, 물동나르기 등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였으며 축산부문에서는 닭공장, 오리공장들과 함께 전후에 조성한 생산능력보다 더큰 현대적돼지공장, 젖소공장들을 단 한해동안에 건설하여 닭알, 오리알 외에도 고기와 우유생산을 공업화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과 근로자들은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집약화하여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공업, 농산물의 가공, 포장, 저장 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공업생산물의 가공, 포장, 저장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전당적,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져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우선 인민경제여러부문과 각도들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마다에 1만톤씩의 저장능력을 가진 신포와 룡대의 현대적수산물랭동공장들을 비롯한 대형랭장고들과 440여개의 과일저장창고, 550여개의 건과장들, 매개 시군마다 2개이상씩되는 과일남새가공공장과 고기, 물고기가공공장들을 각각 건설하여 다량 식료품의 가공, 포장, 저장, 공급 사업들을 훨씬 개선하였다.

또한 은파주름판지공장건설과 혜산크라프트지공장정비공사, 각지 목통공장 확장공사와 폴리염화비닐 포장도입공사, 각지 공장, 기업소의 구내창고와 중요역들의 창고건설공사들을 통하여 세멘트와 화학비료, 문화용품과 생활필수품, 식료품과 의약품의 포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는 이 장엄한 투쟁에서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기술문화, 사상의식 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7만여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칭호를, 417개의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들이 천리마칭호를, 수많은 천리마작업반, 직장, 학교들이 2중천리마의 영예와 천리마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때마다 높이 치하하시였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완수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3월 2일),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3월 6일),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3월 6일),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4월 1일), 서두수발전소건설기업소(8월 7일)들에 축하전보문과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으며 4월 11일에는 몸소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고 새로운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하시였으며 로동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자신의 보증으로 6명의 기술자들을 입당시키는 등으로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예지, 현명한 령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이 현대공업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2년분과제를 단 14개월동안에 완수하는 기적을 기록할수 있었으며 한개 공장에서 1만대씩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충심으로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3대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개년계획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것은 3대기술혁명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은 첫째로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둘째로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셋째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 이후시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내용, 그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독창적인 기술혁명로선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기술혁명강령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이 강령을 받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6개년계획의 수행과 3대기술혁명 수행에서 중요한 돌파구로 되는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우에 충성의 개가,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기본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으시고 1971년 2월 20일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몸소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10여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어머니공장》, 《기계공업의 선발대》로 키워오신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을 만나시였다.

수상님께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생산공정을 계속 힘있게 자동화하며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데 대

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수상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2월 21일에는 종업원회의를 열고 1972년 4월 15일까지의 단1년동안에 1970년생산수준의 4배, 6개년계획말의 1.3배에 해당하는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데 대한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공정을 전반적으로 자동화하며 생산조직의 혁명적개편에 기초하여 공작기계생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데 대한 새 기술혁신의 봉화는 기술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 자동화의 새시대를 펼쳐놓았으며 6개년계획수행과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땅에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는 비범한 통찰력과 과학적 예견성을 지니시고 오늘의 혁명적비약을 위하여 이미 7개년계획을 수행하던 나날들에 친히 심어주시였고 계획적으로 키워오신 자동화의 불씨에서 타올랐다.

1963년 5월 7일 수상님께서는 희천과 구성의 공작기계공장 지도일군들을 만나시고 지금은 기계화가 중심과업이지만 멀지않아 자동화가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될 앞날을 그려주시면서 자동공작기계를 많이 만들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새로 자동화직장인 5.7직장을 꾸리고 자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유압모사자동선반과 유압모사후라이스 등의 자동공작기계들을 만들었으며 대담하게 유압모사자동선반을 중심으로 축가공자동선을 형성하였다.

1964년 4월 23일 수상님께서는 종전에 4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하면서도 15배의 능률을 내고있는 이 축가공자동선을 보시고 부문자동화로부터 완전자동화에로 넘어갈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당 제5차대회때는 자동화구호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그후 베트가공자동흐름선과 변속함가공자동선을 만들어 공작기계생산의 전면적자동화에서 제일 어려운 중형물가공의 고리들을 풀어놓았으며 공작기계생산의 방대한 증산예비를 조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기술혁신의 기운이 이처럼 무르익어가던 시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우리 나라가 전면적기술개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선포하시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1970년 11월 2일 수상님께서 밝혀주신 위대하고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은 우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필요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데 있어서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수리리용하는데있어서나 모두 공작기계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 12월에 강선땅에서 천리마대진군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으며 1967년 6월에는 룡성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시였던것처럼 1971년 2월에 랑림산맥기슭의 희천땅에 찾아가시여 이미 심어주신 자동화의 불씨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였으며 그후 우리 근로자들을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에로 힘차게 부르시였다.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1만대,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에서는 2천 500대의 공작기계들을 생산하며 함흥, 김책, 청진의 공작기계공장들과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들에서는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1972년 4월 15일전으로 각각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9월 3일),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10월 9일)을 찾으시고 이미 8월에 1만대씩의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돌파한 두공장 로동계급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고 3대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각지 공작기계공장들에서는 희천과 구성의 로동계급들에게 주신 수령님의 현지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11월 15—23일)결정을 받들고 공작기계생산이 전문이 아닌 기계공장들에서는 1~2종의 새형의 공작기계, 일반기계공장들에서는 새 설비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앞세우면서 새로운 기계생산에 나섰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현대적기술수단 생산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광범하게 벌어졌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드린 우리 근로자들의 충성의 선물

우리 나라의 붉은 기계전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최대의 민족적명절을 앞두고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1만 125대(4월 9일까지),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1만 20대(4월 10일까지),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에서는 2,518대(4월 11일까지)를 생산하였으며 각지 공작기계공장들과 일반기계공장들에서도 자기의 결의들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는 훌륭히 점령되였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의 기본고리이며 심장인 공작기계생산량이 6개년계획말의 수준을 훨씬 돌파하였으며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량도 급격히 장성하여 뜨락또르만 하여도 경지 100정보당 1.8대에 이르렀다.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부문에 오른 충성의 개가, 승리의 개가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위대하고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로선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인 지름길을 천재적으로 가르쳐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면서 그이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한데있다.

각지 로동계급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는 일을 강력히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이 달성한 다른 중요한 성과는 생산공정의 전면적자동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품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새로 튼튼히 꾸린데 있다.

우선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주물대차흐름선들과 베트, 변속함, 앞치마 자동흐름선들,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의 분사식조형기를 기본으로 하는 주물흐름선들, 치차 및 속도함가공자동흐름선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자주호자동차생산의 자동흐름선들, 기양뜨락또르공장의 풍년호뜨락또르생산의 반자동흐름선들이 커다란 은을 번 결

과 공작기계, 풍년호, 전진호, 천리마호 뜨락또르, 자주호, 승리호 자동차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났다.

승리종합자동차공장에서는 100여메터되는 자주호 기관본체가공 자동흐름선을 단 석달동안에 완성한데 뒤이어 차체가공흐름선, 열처리공정의 자동화, 주물직장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반년 남짓한 기간에 자주호자동차생산을 2배이상으로, 승리호자동차는 일약 4배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신형공작기계직장,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의 치절반분공장,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후라이스직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작기계생산계통들이 위력한 힘을 발휘하여 공작기계의 품종만해도 수십종이 늘어났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이 거둔 또 다른 하나의 성과는 공작기계공장들과 각지 기계공장들의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협동생산조직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앙양된 로동자들의 열의에 설비자재보장사업, 생산기술지도체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킨데있다.

우선 각지 기계공장들에서는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종전의 가공공정별 전문화생산체계를 부속품형태별 전문화체계로 개편하고 모든 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에서만도 생산을 1.6~2배로 높이였다.

또한 각성, 중앙 경제기관들에서는 협동생산기업소들에 대한 설비자재보장사업과 생산기술지도사업을 강화하여 협동생산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면서 협동생산제품들을 완제품생산에 1개월이상씩 앞세워 생산공정의 전반적자동화와 생산조직의 혁명적개편이 커다란 은을 내게 뒤받침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은 또한 대규모의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수많은 중소규모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을 꾸리고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자동화, 반자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대로 우리 근로자들을 생산령역에서의 힘든 로동과 생활령역에서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성스러운 3대기술혁명과업이 빠른속도로 추진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생산과 생활 령역의 힘든 로동과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한해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게되면 중요한 기계공장들을 더 늘일수 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여러부문의 수리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될것입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2페지)

1971년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속에서 쏟아져 나온 현대적기계설비들은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보충완비설비로, 새로 창설되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본설비들로 공급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3대기술혁명에 직접 종사하는 전자관공장과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 탄광광산기계공장과 탄광광산설비부속품공장, 토지건설사업소들과 밭관개건설사업소, 식료단능기계공장과 과일, 남새, 고기가공공장들이 도처에 새로 일어나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사회와 가정의 2중적로력부담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1971년에 우선 그 어느부문보다도 힘든 로동이 많은 채굴부문의 막장작업, 림업부문의 산판작업, 수산부문의 어로작업, 건설운수부문의 상하차작업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채굴, 금속, 화학, 건재 공업부문의 고열 및 유해 작업을 하루속히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을 6개년계획의 첫 돌파구로, 6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고리로 규정하시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이후 소집된 첫 정치위원회(1970년 12월)에서 전당이 달라붙어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지원할데 대한 강령적 교시를 주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수령님의 1971년 12월 1일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탄광작업의 현대화계획을 세웠으며 전국이 달라붙어 만들어보낸 현대적채굴설비들과 자체로 만든 선진기계기술을 도입하여 적재작업의 기계화수준은 17%, 채탄막장작업기계화수준은 25% 각각 더 높였다.

막장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높아진 결과 채굴작업중에서 가장 힘든 일들인 굴진, 채탄, 운반 작업이 한결 헐해졌을뿐만아니라 마구리당 굴진속도와 채탄공 1인당생산성이 부쩍 올라갔다.

교통운수부문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1~2년내에 상하차작업의 기계화를 완성할데 대한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고 전당적, 전군중적 투쟁을 벌려 이동식기중기, 그라브기중기, 철도기중기, 자동적재기 등을 140여대를 도입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많이 기계화하였다.

또한 석탄, 쇠돌, 골재 등 산적화물을 다루는 중요역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단꺼번에 짐을 싣고부리는 언덕선들과 잔교식하차시설들을 건설하여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였을뿐만아니라 상하차작업의 기계화수준을 1.8% 더 높이였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우리 로동계급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분수식밭과 현대적 규격포전들을 건설하는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각지 토지건설사업소와 밭관개건설사업소, 농기계작업소의 기계화초병들은 농촌에 파견된 첫 로동계급이며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혁명가라는 높은 영예를 안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앞장에 서서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쳤다.

그리하여 알곡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정보당 수확고를 2~3배로 높일수 있는 3만정보의 분수식밭이 새로 생겨났으며 논에서는 정보마다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의 로력으로 알곡수확을 높일수 있는 현대적 규격포전이 7만여정보에 이르렀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1971년에 특히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일 기술혁명에 커다란 주목이 돌려졌다.

우선 현대적부엌세간 생산량과 주부식물가공공장망이 빨리 늘어난 결과 전기가마, 세탁기, 가정용랭동고, 빵, 밥, 마른국수의 공급량이 훨씬 장성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게 되였으며 더 많은 시간을 집단생활, 문화생활, 자녀교양에 돌려 자신과 자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녀성투사, 혁명의 후비대로 더 빨리 준비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많은 정수기와 관류들을 농촌에 돌려 1971년에 물이 먼곳, 물이 적

은곳부터 시작하여 540여개의 농촌부락들을 수도화하였다. 그중에서 평양시 만경대구역, 평남도 양덕군에서는 세기적숙망이던 농촌수도화를 완성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녀성들이 물을 이고지고 다니는 현상들이 없어지고 위생처리한 물을 공급받기 시작함으로써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는 날을 따라 없어지고 있다.

어제날 남의 나라 기계들을 부럽게 바라보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온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기계들을 수많이 만들어내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생산평역의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눈부신 속도로 해방되여가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그날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2월 20일을 기계절(1972년 1월 13일부 정령)로 제정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뜨락또르 운전수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배려에 의하여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이 대회에 참석하시여 2월 12일 3대기술혁명의 강령에 따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는 혁명가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앞에 나서는 전투적 임무들을 밝혀주시면서 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된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에서는 지난기간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당 제5차대회와 이번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수행하여야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보고와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로 우리 농촌의 현대화될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고 토지개혁에 뒤이어 재령, 룡천, 정주, 안주, 함주 등 다섯개지구에 첫 농기계임경소들을 조직하시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농촌경리기계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농촌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완전히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농업협동화를 완성하신후 곧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뜨락또르와 자동차공업을 창설하심으로써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7개년계획기간에 3.5배, 화물자동차대수는 7배로 늘어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뜨락또르에 대한 전인민적소유는 그대로 두고 그의 리용권만 협동농장들에 넘겨주어 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일뿐만아니라 현대적기계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뜨락또르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심으로써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특히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농촌에 파견된 첫 로동계급이며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선구자들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는 혁명가들이라는 가장 영예롭고 고상한 칭호를 안겨주심으로써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들의 사상성과 문화성, 조직성을 더욱 발휘하여 모내기에서 31개공정, 건직파에서 28개공정, 수직파에서 21개공정을 기계화하는 성과를 거두게 하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농촌기계화선구자들을 표창하시였으며 많은 농촌기계화초병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공훈뜨락또르운전수칭호, 훈장과 메달을 수여하게 배려하여주시였다.

이 영예, 이 기쁨을 간직한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에게 기계농사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앞당기는것으로서 보답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6개년전망계획기간에 알곡은 700～750만톤, 고기는 40만톤, 과일은 80～100만톤, 고치는 4만톤을 생산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여 가까운 앞날에 정보마다 투하되는 로력을 논에서는 평균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며 농촌에서도 점차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데 대한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화작업의 종류를 11종으로부터 47종으로, 총기계화작업량은 2.2배로 높인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기계화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적으로 늘일 대담한 목표들을 내세웠다.

농촌기술혁명의 기본수단인 뜨락또르의 가동률은 85%이상 높이며 뜨락또르 대당 년간 총작업량은 《천리마》호 뜨락또르는 900정보이상, 《풍년》호 뜨락또르는 2천 200정보이상 보장하며 직파재배에 의한 종합적기계화는 전체 논면적의 50%에 이르게 할것이다.

대회참가자들은 기계화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영농작업의 시기성과 질을 보장하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할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모내기는 5월 25일전에, 논갈이는 18센치메터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정리사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우되 직파재배논과 2모작밭부터 먼저 시작하여 논밭을 기계화에 유리하게 정리할것을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1년에 평야지대의 종합적기계화와 중간지대의 전면적기계화에 힘을 넣기 시작한 첫해에 벌써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거둠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인 농촌기술혁명 특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전력공업

6개년계획기간 전력공업부문앞에는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하여 새로 220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더 조성함으로써 1976년말에 전력 생산량을 280억~300억키로와트시에 이르게 해야할 전투적과업이 나섰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첫해인 1971년에 계획한 서두수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웅기화력발전소 수많은 중소규모발전소들의 완전조업과 부분적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1972년 4월 15일전으로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 결기한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켰다.

이해에 전력공업부문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은 당이 푼전을 아껴가며 마련하여놓은 현존 동력기지들을 잘 정비하고 그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였다.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들에서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허실하지 않게 수력구조물들을 정비보강한데 기초하여 보다 새형의 수차들을 도입하거나 낡은 수차들을 새로운 기술로 보수하는 일들을 동시에 내밀어 수차효률을 더 높이였다.

대규모의 화력발전소들과 공장내 중소규모화력발전기직장들에서는 장마철에 타빈과 열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보수하였다가 봄, 가을, 겨울철에 만부하운전에 들어간 결과 인민경제의 동력구성에서 화력의 비중을 공화국창건이래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였다.

관개용저수지와 강줄기마다에 세워진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에서는 가물때에 미리 새로운 설비들로 발전기들을 정비하면서 관수시기부터 시작하여 초가을까지 전기에 대한 지방의 보충적수요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이 전기를 절약하는 운동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따라서 이해에 근로자들속에 전기절약이 가지는 의의와 방도를 해설선전하면서 전력절약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과업이였다.

우선 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이 높은 공장, 기업소들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절약방도들을 탐구하고 그 실천투쟁을 도와주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전력배전량의 3~5%를 절약하였다.

또한 지역별, 분기별, 교대별로 전력소비를 균형적으로 분배하고 그에 따라 생산조직과 설비운전을 개편한결과 생산된 전력을 어느때보다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의 전력보수계획을 장악하고 보수기에 전력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일별, 순별 전력소비정형을 총화하고 초과소비한 경우 다음날, 다음순에 보상하는 제도를 세우는 등으로 전력소비를 계통적으로 통제하였다.

그리하여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동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충실히 집행하였다.

석 탄 공 업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1년도 계획수행에서 첫 돌파구를 열어제낄 영예를 안고 인민경제 각 부문의 지원밑에 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면서 탄광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였으며 석탄생산량을 훨씬 높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이 부문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일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기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1971년《신년사》, 단행본, 7페지)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공화국정부에서는 수많은 공작기계를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과 강재를 비롯한 원료자재들을 각지의 탄광기계공장들, 탄광부속품공장들, 탄광공무동력직장들에 우선적으로 돌리며 석탄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보내온 전차, 자동차, 종합굴진기, 콘베아, 쇠동발을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과 자체로 만든 갖가지 선진기계기술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힘차게 밀고 나갔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탄광별 현대화계획을 세우고 유연탄전에서는 안주, 학포탄광들에, 무연탄전에서는 룡등, 룡문, 천성탄광들에 탄광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들을 꾸려놓고 일반화하였다.

안주탄광에서는 종합적기계화에 유리하게 장벽식채탄장들을 꾸리고 탄발마다 유압식종합기계동발, 원통형채탄기, 800메터콘베아를 넣어 탄캐기, 탄싣기, 운반작업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함으로써 힘든 막장작업을 헐하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채탄공 1인당 생산성을 최고 10배까지 높이였다.

이렇듯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비교적 힘든 막장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에 힘을 넣은 결과 1970년에 비하여 이해에 적재작업의 기계화수준은 17%, 채탄작업은 25% 더 높이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또한 굴진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굴진, 박토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마구리당 굴진속도와 굴착기대당 박토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매개 탄광의 앞장을 열어줌에 있어서나 석탄생산을 급격히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 굴진마구리들과 박토계단들을 직접 틀어쥐고 여기에 새형의 착암기들과 착암대차, 종합굴진기, 중형자동차들을 비롯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고속도굴진운동과 고속도박토운동에 불러 일으켰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중요마구리, 중요박토계단 내의 굴진공들, 박토공들에 대한 정치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당이 요구하는대로 계속 고속도굴진비중과 고속도박토비중을 최고 60%, 평균 50% 가까이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7개년계획의 석탄고지우에 맨처음 승리의 개가를 올린 영예드높이 6개년계획수행에서도 첫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탄부들에게 그 어느해보다 많은 채탄장들을 앞세워주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중소탄광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확장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이해에도 40여개의 중소탄광들을 튼튼히 꾸리면서 석탄생산을 높이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탄광과 중소규모탄광, 로천채굴과 갱내채굴을 병진하여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광 업

광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광산들을 더욱 개건 확장하고 새로운 광산들을 더 많이 개발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여러가지 광물에 대한 수요를 우리의 자원으로 원만히 해결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이해에도 우선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첫 공정으로 나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지질탐사일군들은 이미 있는 광산의 깊은 곳과 그 주변에 대한 탐사, 특히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현행탐사대렬을 늘이고 탐사작업을 현대화하고 선진탐사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탐사속도와 탐사효률을 높이였다.

지질탐사일군들은 매장량이 많고 투자의 효과성이 높은 갱들과 구역들을 찾아 광산들의 앞길을 전망성있게 열어줌으로써 공업의 《척후병》이된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4페지)

이 방침에 따라 광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말에 로동생산능률을 2배로 높일 전투적목표를 내세우고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채굴작업과 운반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며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혁명을 강력히 진행하였다.

각지 광산들에서는 굴진기와 채굴작업의 기계화, 적재작업과 운반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선광작업의 반자동화, 자동화에 힘을 넣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갱내주요운반갱도들에서는 운반작업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굴진막장에서의 적재작업의 기계화비중은 3배이상, 운반작업의 기계화비중은 2배이상 늘이였으며 선광계통의 부분적자동화를 적지않게 실현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주요광산지구들에 광산기계수리기지와 부속품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광산공무동력직장들을 현대적인 설비들로 보강하여 예비부속품생산을 앞세워나감으로써 설비리용률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흑색야금공업의 장성하는 자철정광수요와 유색야금공업의 유색광물수요를 품위 높은것으로 앞세워 원만히 보장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또한 6개년계획기간에 급격히 장성하는 광물수요에 상응하게 중요광물생산량의 증가와 새로운 광물생산에 복무할 대규모의 광산들과 중소규모의 광산들을 성과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그 일부를 조업시켰다.

6개년계획기간 철광석생산량은 1.8배, 동은 1.7배, 연, 아연은 1.8배, 중석은 1.9배, 수연은 4.4배로 장성할것이다.

금 속 공 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첫돌파구를 여는 1971년계획을 수행하는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에 흑색야금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광석생산을 더 빨리 늘이고 원료예비처리를 개선하여 지금 있는 용광로들에서 선철생산을 훨씬 늘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971년 《신년사》, 단행본, 7페지)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료의 예비처리를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이미있는 예비처리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이해에 새로운 예비처리시설들을 건설하여 용광로의 장입광석중에서 예비처리광석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였으며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황해제철소의 련속식 소결로, 김책제강소의 주기식소결로, 청진제강소의해면철로들을 새로 건설하여 조업시킨 결과 선철, 립철 생산이 급속히 장성하였을뿐만아니라 귀중한 콕스를 절약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또한 황해제철소의 환원단광로직장, 4월13일제철소의 조강로직장들을 건설하여 주체적인 강철원료생산을 공업화함으로써 강철생산이 높아지고 야금공업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내화물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내화벽돌생산의 기술적장비를 튼튼히 꾸렸으며 야금로들의 수명과 보수주기를 늘이여 많은 강철을 생산하였다.

우선 내화물원료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성형공정들에 높은 능력의 프레스들과 고압, 고온 소성법들을 받아들여 내화벽돌의 질을 높였으며 성진내화물공장의 신규석직장과 장산광산의 내화물직장 건설을 다그쳐 내화벽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켰다.

각지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개선된 원료조건과 좋아진 내화물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들을 잘지킴으로써 강철생산을 높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압연강재의 생산을 높이고 그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여 날로 장성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수요를 재질별, 규격별로 원만히 보장하였다.

각지 제철, 제강소 들에서는 분괴직장, 대형조강압연직장, 후판압연직장들을 개건하면서 분괴압연기들의 가열능력과 강괴처리압연기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투쟁을 통하여 압연강재의 생산을 증대시켰다.

또한 박판압연기의 증설공사, 강삭직장확장공사, 박벽관설비설치공사, 랭간압연강관생산준비공사들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와이야로쁘, 인발강관, 랭간압연강관, 박강판을 비롯한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질을 더욱 높였다.

그리하여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공업, 3대기술혁명,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하여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에 필요한 재질별, 규격별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강재들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화 학 공 업

이해에 화학공업의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화학비료, 농약, 화학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료와 농약 생산이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촉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 영예로운 과업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

고 화학비료생산능력을 높이고 비료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청수, 순천, 본궁 화학공장들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질화로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석질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생산공정전반에 대한 정비보강사업을 강화하여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석회질소비료생산을 높였다.

각지 화학공장들에서는 개선된 린회석공급조건과 류산공급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국내원료에 의한 파린산비료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붕소, 류산마그네시움을 비롯한 미량원소비료생산을 늘이였다.

또한 인민들에게 더많은 옷감과 일용품들을 마련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생산능력을 높이는 확장공사를 힘차게 다그쳤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49페지)

화학섬유부문에서는 이미 조성된 비날론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검화기계통, 정류계통을 비롯한 생산적건설을 강화하여 2만톤능력의 생산을 정상화하였으며 비날론 5만톤능력으로의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합성수지부문에서는 폴리염화비닐생산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이미 있는 공정들을 정비하면서 합성탑증설공사를 진행하여 합성수지생산능력을 근2배로 높였으며 폴리에틸렌 생산준비를 갖추어 가까운 년간에 공업품과 농산물 포장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합성고무공장, 석유가공공장들을 건설한 결과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이해에 공업의 원료기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 3대기술혁명을 힘차게 다그쳤다.

각지 화학공장들에서는 우선 혜사클로란, 페놀포르말린을 비롯한 기본생산공정의 자동화, 화학비료의 포장, 카바이트로의 원료투입, 나무껍질을 벗기는 일을 비롯한 일부공정들의 기계화, 전기로, 회전로, 보이라를 비롯한 고열작업과 염소가스, 아류산가스, 이류화탄소를 비롯한 유해작업의 자동화, 원격조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생산장비와 본보기들을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 토질, 작물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새로운 살초제들인 시마진, 니프 등의 공업화실험과 중간시험공장건설을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갖추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식료공업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플음제, 전기랭동기와 세탁기에 필요한 랭동제와 합성세탁제 생산을 강화하여 녀성들을 가정과 부엌일의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이였다.

기계공업

기계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 갖가지 공작기계와 채굴설비, 수많은 농기계와 단능설비,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기술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기계공업부문에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공작기계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각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더 많이, 더 잘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1971년 《신년사》, 단행본, 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을 3대기술혁명의 기본고리로 규정하시고 회천의 로동계급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생산공정을 전반적으로 자동화하며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데 기초하여 공작기계생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데 대한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새 기술혁신의 봉화따라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1972년 4월 15일전으로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며 채굴기계, 농업기계, 단능설비, 대상설비들을 포함한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할것을 결의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수령님께 다진 충성의 결의 드높이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힘을 넣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각지 공작기계공장들에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그 생산을 일약 2.3배로 늘였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생산은 1.7배, 랭동기는 1.6배, 파종기는 4.5배, 계전기류는 2배로 늘어났으며 기계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부쩍 올라갔다.

또한 원통형채탄기, 종합굴진기, 쇠동발을 비롯한 탄광광산설비들을 수많이 생산하여 탄광광산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에 이바지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리 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환원단광로설비, 해면철로설비, 비날론공장설비, 화학섬유공장설비들을 비롯한 대상설비생산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일으켰다.

기계공업부문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생산공정을 적극 반자동화, 자동화하고 약한 부문들을 보충완비한데서 이루어졌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선 희천과 구성의 공작기계공장들이 벨트, 변속함, 앞치마, 치차, 속도함의 가공공정을 자동화하고 주물생산공정에 주물흐름선들을 도입하는 한편 희천공작기계공장의 단조직장,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주물직장과 소재직장, 청진공작기계공장의 가공직장과 열처리직장을 건설하여 공작기계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기양뜨락또르공장의 풍년호뜨락또르생산공정,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자주호자동차생산공정들에 흐름선, 자동선들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양뜨락또르공장의 주강직장과 단조직장, 9월 25일뜨락또르공장의 공구직장과 공무직장들을 건설하여 자동차, 뜨락또르의 생산토대를 더 한층 강화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전력공업, 야금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에 복무하는 대상설비생산계통의 기술적장비도를 부단히 높이면서 8월 8일공장의 대상설비직장, 8월 28일공장의 조립직장, 대안전기공장의 대형변압기직장을 비롯한 대형기계생산기지를 더 잘 꾸렸다.

이해에 특히 탄광광산설비와 련결농기계의 생산기지, 농기계의 부속품생산기지, 농기계의 수리기지들을 도처에 광범히 전개하여 3대기술혁명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였다.

선박공업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의 하나인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이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과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해에도 많은 대중형선박들과 기술선박들을 만들었다.

우선 《봉화산》호, 《은파산》호와 같은 대형랭장운반선들을 만든 경험에 기초하여 이해에 서해원양어로선박인 《백마산》호를 비롯한 대형랭장운반선들과 선미트랄선들을 많이 건조하였다.

특히 현측트랄선들에 비하여 매우 우월한 선미트랄선《대덕산》호 (1천톤)를 무어낸 뒤를 이어 많은 대중형선미트랄선들과 건착선들을 만듦으로써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가공모선, 운반선들에 맞게 어로작업선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였다.

그리하여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수산부문에서 원해어업과 근해어업을 더 강력히 병진하게 하였으며 동서해의 원양어선단들이 례년보다 20여일 일찌기 먼바다에 나가게 하였으며 근해회유성어족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들을 공급하게 하였다.

또한 이해에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강하천운수수요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려객선들과 화물선(끌배, 끌림배)들을 만들어 수상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결과 수상운수부문에서 강하천 및 연해 수송망이 더욱 늘어나게 되였으며 철도운수와 수상운수간의 련대수송이 더 강화되였으며 철도의 긴장성을 한층 덜어주게 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이 단 석달동안에 무어낸 5천톤급 대형려객선 《만경봉》호(1971년 5월 18일 완공)는 300여명의 려객과 1천 700여톤의 짐을 싣는 배로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연구실》, 영화관, 식당, 목욕탕 등이 충분히 갖추어졌으며 지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우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에 리용되고있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더 많은 배들을 무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있는 조선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으며 대외무역의 전망성을 고려하여 대형무역선들을 만들 기술준비와 건조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협동생산에 의거하던 선박의장품생산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만들수 있게 조선소단위로 의장품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거나 이미 있는 의장품생산기지들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선박건조속도를 높이게 하였다.

이해에 선박공업과 수산, 수상운수, 국토건설 등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는 배가 무어져 나오는 차제로 커다란 은을 낼수 있게 선장, 기관장, 무전수들을 비롯한 선박운영기술자들의 양성사업도 병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약및의료기구공업

우리 나라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는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대규모의 제약의료기구공업과 중소규모의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힘있게 병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의약품생산은 5.5배, 의료기구생산은 7.4배로 높인 이 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첫해에 또다시 의약품생산계획을 106.5%, 의료기구생산계획을 114.7%, 생약품생산계획은 128.4%로 각각 넘쳐하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에 희천의 로동계급속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현존 경제기술적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힘을 넣었다.

라남, 흥남, 강계 제약공장들에서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로력, 설비의 증가없이 새로운 기술혁신의 도입으로 의약품생산량을 1.5~2배이상씩 높이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해에 제약의료기구공업 총국적으로 피라미돈, 산토닌, 베니시링, 마이시링, 이소니지드, 주사바늘 생산능력들이 공장조업이래 최고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생산량이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해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현대적인 제약의료기구공업과 함께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에 풍부한 원천과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1971년에 32개의 중소규모 의약품공장과 의료기구공장들을 새로 꾸림으로써 적지않은 제약 및 의료기구들을 지방자체로 해결하였다.

한편 중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한가지이상의 의료기구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하며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각지 중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전기의료기구, 금속제의료기구, 일반의료기구들을 만드는직장, 작업반원들을 꾸리고 심장의 고동을 들여다보는 예까게, 구강유니트를 비롯한 의료기구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 부문 일군들은 이해에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질을 높이는 투쟁에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각지 제약공장들에서는 약품포장을 개선하는 문제가 약품의 효과를 오래 보존하며 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본고리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알약류, 가루약류들을 수지박막, 세로판지로 포장하였으며 약품의 모양과 포장형태를 개선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기구들을 불수강으로 만들어 그것의 질을 더욱 높였다.

이처럼 이미 만들던 약품과 의료기구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효능이 높은 새로운 항생소제, 호르몬제를 비롯한 의약품들과 의료기구들도 만들었으며 그 생산을 공업화하였다.

1971년에 새로 나온 의약품은 32종이다.

림 업

림업부문에서는 희천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통나무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목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4페지)

림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우선 림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각지 림산사업소들에서는 나무베기, 나무실어나르기 작업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끝내면서 나무모으기, 나무싣고부리기, 토장작업, 류벌작업의 전공정을 기계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림업부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의 하나로 남았던 산판길닦기와 산판나무모으기에 불도젤, 삭도,

장대목운재를 비롯한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기계수단들과 작업방법들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또한 림업기계공장들에서 이해에 새로 만들어보낸 상하차기계들과 천리마상하차기중기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역토장과 산판중계점들에서의 작업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였다. 그리고 류벌장에서 통나무를 물에 처넣는 일도 기계화하였다.

어렵고 힘든 산판작업을 기계화한데 기초하여 순환식채벌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림산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켰으며 통나무생산을 끊임없이 증대시켰다.

각지 림산사업소들에서는 순환식채벌방법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산림탐사를 앞세우고 그 과정에 얻어진 탐사자료에 근거하여 미개발지역을 개척해 들어갔으며 순환주기에 따라 계획적으로 채벌해 들어갔다.

각지 림산사업소들에서는 또한 통나무생산을 계속 늘이면서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 림산작업소들의 순환식채벌의 공고한 림산기지를 마련하였다.

림업부문에서는 목재의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림산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각지 제재공장들과 목재가공공장들에서는 이미 있는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새로운 설비들을 증설하여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높였다.

림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아담하고 든든하고 쓸모있는 가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림산사업소마다 생필직장들을 꾸리고 옷장, 식장, 책장을 비롯한 가구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특히 양덕과 본궁에 자체의 탁카생산기지와 도처에 못생산기지를 꾸리여 가구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건재공업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중앙건재공업과 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멘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생산을 훨씬 늘임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건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우선 회천의 로동계급들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새로운 소성법을 도입하여 현존경제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정에 나오는 먼지, 가스들을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힘을 넣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8년 5월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소성법을 도입하는데서만도 소성로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1.8배로 높인 천내리세멘트공장의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해주, 부래산을 비롯한 각지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새 소성법과 새로운 랭각장치를 받아들여 시간당 생산능력을 평균 1.6배로 높였으며 원료저장고에는 원료교반장치를, 세멘트분쇄기에는 제진장치들을 넣어 세멘트생산량을 높이고 먼지를 상당히 없앴다.

또한 지방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에 의거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각도마다 1~3개의 중소규모 세멘트공장들을 건설하며 지방건설과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수요를 보장하였다.

중앙건재공업과 지방건재공업을 병진하여 3대기술혁명, 10대도시건설, 농촌건설에 필요한 요업건재, 일반건재, 목질건재, 금속건재, 화학건재 생산을 높였으며 그 품종을 확대하였다.

중앙 금속, 화학 건재공장들과 지방금속, 화학 건재공장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농촌에서 3만정보에 밭관개를 실현할수 있는 주철관, 단접관, 염화비닐관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중앙 요업, 일반건재 공장들과 지방요업, 일반건재 공장들에서는 중요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여 평천식(송림식)주택건설과 농촌건설에 필요한 벽돌, 타일, 색기와, 위생자기 생산을 2배, 최고 10배이상씩 높였다.

그중에서 대성, 안변, 박충 요업공장들에서는 타일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 그 생산과 질을 국제적수준으로 높였으며 평남, 평북, 함남도내 지방벽돌공장들에서는 텐넬소성로를 건설하여 생산토대를 현대화하였다.

이해에 특히 지방에 풍부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매개 시군마다 2~3개씩의 지방건재생산기지들을 꾸렸으며 첫해에 벌써 농촌수도화와 농촌빠스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중앙건재기지들과 함께 새로 꾸려진 석재(돌포장)공장, 오지관공장, 위생자기공장, 타일공장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농촌수도화와 군소재지의 건설에서 건재의 중요한 생산공급기지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건재공업은 1971년에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줄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경공업

경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또다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방직, 신발, 종이, 식료, 일용품 공업을 창설한데 기초하여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첫해 1971년에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경공업제품의 품종확대와 제품의 질제고에 중심을 두고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에 경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들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새로운 외투감과 주름치마, 긴양말달린 나이론바지와 사출장화,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비롯하여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방직공업】 7개년계획기간에 면직물, 견직물, 스프직물, 비날론직물, 모직물 생산토대를 꾸린 방직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는 나이론, 떼트론, 아닐론까지 포함하여 섬유의 배합구성과 전후처리를 개선하여 질기고 탁탁하고 색이 선명한 여러가지 양복감, 외투감, 샤쯔감을 많이 생산하며 특히 겨울천의 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방직부문에서 1971년에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비날론, 스프로서 질기고 아름다운 양복감을 많이 생산할수 있는 긴섬유방적계렬을 새로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한것이다.

긴섬유방적계렬을 세우기 위하여 해모기를 비롯한 기계설비와 부속품생산을 다그치였으며 이미 있는 계렬을 정리하면서 새 계렬을 집중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선염비날론양복천과 줄무늬양복천을 비롯한 양복감생산량을 1970년에 비하여 108%, 면비날론혼방직은 2.5배로 높이였다.

다른 중요한 성과는 모방직의 염색기술을 개선하여 색이 날지않을뿐만 아니라 선명한 외투감생산량을 113% 그중 모직외투천을 114%로 높인것이며 새로 고번수의 샤쯔감을 생산하는 방직계렬을 꾸린것이다.

편직부문에서는 우선 편직화를 실현할데 대한 수상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각도마다 건설되는 편직물공장들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면서 일련의 기술준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

다.

또한 강서, 탁랑을 비롯한 많은 편직물공장들에 긴양말이 달린 나이론바지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적지않은 녀성들과 녀학생들에게 공급하였다.

특히 편직부문에서는 섬유의 배합구성과 가공기술을 개선하여 내의, 세타, 쟈케트, 목수건, 양말 등의 질을 높이였으며 특히 겨울아동편직물생산비중을 높이였다. 그중 겨울내의류는 120%, 아동내의류는 139%로 장성하였다.

피복부문에서는 겨울남자양복을 위주로하면서 어린이옷, 녀자옷생산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중앙피복공장들의 설비들을 고속도재봉기들로 개선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봉기들을 다른 피복공장들에 돌려 피복생산능력을 급격히 높이였다.

또한 지대별, 계절별, 계층별, 직업별로 피복형태들을 조사연구하고 조선사람들의 몸매에 맞는 본보기형태에 따라 피복생산을 조직한 결과 양복생산량이 3.4배, 그중에서 남자양복생산량이 4.3배로 늘어났다.

【신발공업】 이 부문에서는 1971년에 가죽구두, 의혁구두 생산을 높이며 특히 겨울신발, 아동신발, 녀성신발 생산비중을 높이는 투쟁을 벌리였다.

결과 1970년에 비하여 신발생산량이 110%로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겨울신발은 127%, 가죽구두는 1.6배로 장성하였으며 이해부터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신는 사출장화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 이해에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라 장성하는 수요에 맞게 새로운 신발생산능력을 조성하고 그 생산을 정상화한것이다.

우선 가죽구두, 의혁구두 생산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에 따라 이해에 년간 100만켤레의 생산능력을 가진 가죽구두공장을 새로 꾸리고 신발생산을 개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신발과 녀성들의 신발생산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180만켤레의 생산능력을 가진 사출장화생산계렬을 증설하였으며 대대적으로 생산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질기고 맵시있는 여러가지 신발을 만들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신발모양과 광택을 개선하는데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각지 신발공장들에서는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염화비닐광택신발과 비닐천신발생산에 성공하였으며 그 생산을 공업화하여 질좋은 염화비닐신발과 천신발을 많이 만들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과 근로자들의 발의 생김새에 맞게 계절별, 남녀별, 호수별 신발의 본보기들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신골형과 신발창, 부속품들을 만드는 전문 신발창공장, 형타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꾸리였다.

【종이공업】 1971년에 종이공업부문앞에는 신문지, 필기지 생산을 급속히 높이면서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요에 맞게 크라프트지, 주름판지, 특수지생산을 강화할 전투적과업이 나섰다.

종이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신문지, 필기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목적으로 종이원료인 통나무, 강냉이짚, 벼짚예비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원료의 전처리능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각지 종이공장들에서는 종이원료의 전처리공정들에 나무껍질 벗기는 여러가지 성능높은 피박기들과 강냉이속을 없애는 이동식속제거기(협동농장들)를 받아들여 원료의 전처리능력을 높였으며 원료예비를 조성하여 신문지와 필기지생산을 정상화하였다.

종이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최대생산공정의 능력에 맞게 모든 공정의 약한 부분들을 보강완비하여 전반적종이생산공정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원질능력과 초질능력을 높이였다.

우리 나라 신문지생산의 중심을 이루고있는 길주팔프공장에서는 전후생산공정의 능력에 맞게 새로운 초지생산능력을 조성하는 투쟁을 벌려 완공단계에 들어갔다.

종이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여러가지 질좋은 포장지와 특수지 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여 3대기술혁명을 촉진하며 포장사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은파주름판지공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벼짚원료로서 여러가지 주름판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계렬을 조성하고 그 생산에 들어갔으며 회령종이공장에서는 새로운 특수지생산계렬을 증설하여 절연지, 사도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용지들을 만들어냈다.

대규모의 중앙종이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종이공장들에서는 지방의 유휴자재와 종이원료를 동원처리하고 원료처리, 구내운반, 완성공정들을 적극 기계화하여 창호지, 천정지를 비롯한 지방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식료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7페지)

이미 간장, 된장 생산을 공업화한 식료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남새, 과일, 고기, 물고기 가공을 공업화할 목적으로 매개 시, 군에 중요 부식물의 반제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식물가공공장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이미 3개이상씩의 식료공장들이 있는 우리 나라의 매개 시, 군에는 이해에 남새, 과실가공공장, 고기, 물고기 가공공장들이 또다시 일떠섰으며 이에 알맞는 저장시설, 랭동시설이 갖추어져 부식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공업화할수 있는 토대들이 튼튼히 닦아졌다.

특히 이해부터 평양시, 함흥시를 비롯한 주요도시의 고층건물구역들에 1~2천세대를 단위로하여 김치공장을 세우고 맛좋은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공급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 모든 도시들에 일반화할수 있는 기술적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맛내기,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양념감생산을 빨리 늘이여 부식물의 질과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이미 얻은 맛내기, 아미노산의 생산경험에 기초하여 각도마다 중소맛내기공장, 맛내기직장을 꾸려 양념감생산을 완전히 공업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중요도시와 로동자구들에서 옥쌀공장, 밥공장, 빵공장, 국수공장을 건설운영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해에는 일정한 기간의 주식물과 부식물을 단번에 공급하여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해 먹을수 있는 말린밥, 말린국수, 마른국거리(양념감포함)생산을 공업화하는 준비를 갖추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지방공업성에서는 본보기공장을 꾸리고 시제품들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였으며 생산기술경험과 자재원료보장경험을 쌓았다.

【일용품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

다.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7페지)

이 방침에 따라 일용공업에서는 현대적부엌세간들을 위주로하고 고급문화철제용품과 세소철제품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우선 일용공업부문에서는 철제일용품공장과 중앙공업의 생필직장들에 질좋은 여러가지 공작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철제일용품 생산능력을 급격히 높이였다.

또한 철제일용품의 기술규격에 맞게 소재를 공급하며 제품의 겉면가공과 도금을 개선할수 있게 강서, 함흥, 김책을 비롯한 여러지구들에 소형 압연, 연신, 절단기지들과 연마, 도금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가정용랭동고와 세탁기, 전기밥가마와 국수기계, 조미료분쇄기와 경금속그릇류의 생산이 1970년에 비하여 2~3배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가정용 정밀기계와 사무용 기계, 가정용공구와 소지품류, 위생도구와 의료기구 생산도 또한 늘어났다.

또한 철제일용품과 수지일용품, 도자기와 유리제품, 문화용품의 질을 한계단 높여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데 힘을 넣었다.

지방공업성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기술력량을 집중하여 철제일용품과 수지일용품, 도자기와 유리제품 등 부문별로 본보기공장, 직장들을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하였으며 그 과정에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 전반적인 제품의 질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전기밥가마와 알루미니움그릇, 다리미와 벽시계, 합성수지 일용품과 일부 놀이감, 백자기와 유리그릇, 전적지상품들과 지방특산물의 모양, 강도, 성능이 좋아졌다.

【지방공업】 전당적,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공업은 급속히 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불과 3개월동안 1천여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섰다.

그이께서는 몸소 창성군과 삭주군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모범을 창조하시고 곧 1962년 8월 지방 당 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일이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지방공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중앙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기지도 더욱 확장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2월에 소집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결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500여개의 선물공장을 비롯하여 1천 760여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일어섰으며 이로써 매개 시,군에는 2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돌아가게 되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희천의 로동계급들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다그치였으며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공급받아 식료단능기계공장, 지방공업기계공장들을 새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강서, 김책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의 중심지구들에 압연, 연신, 절단기지와 도금, 연마 기지들, 탄산소다, 가성소다, 유리병 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림으로써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기지를 더욱 현대화, 공업화하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지방공업성을 내오고 경공업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 기술지도와 보장사업을 더욱 개선하였다.

수 산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신포시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동해지구 수산부문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여 수산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수산부문전사들은 수상님의 강령적 교시를 받들고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한층 튼튼히 다지였으며 물고기잡이와 가공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1971년도 수산업계획을 105%로 초과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12월 26일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산부문일군들에게 축하문과 많은 선물을 보내시였다.

【원양어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바다에 나가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길을 가르쳐주시였을뿐만아니라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원양어업발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주시였다.

1971년에 원양어선단들에서는 작업선들인 3천 750톤급 선미트랄선 《은파산》호와 1천톤급 선미트랄선 《대덕산》호를 비롯하여 수많은 450톤급 트랄선들을 받아 원양어업의 토대를 강화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1만톤급 가공모선들과 5천톤급 운반선들에 상응하게 작업선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였다.

원양어선대들에서는 먼바다탐색대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새 어장들을 적극 개척하여 원양어로공들의 드높은 혁명적기세와 어선대들의 폭넓은 활동에 상응하게 중심어장들을 적극 앞세워주었다.

원양어선대들에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어장과 어황조건에 따라 트랄과 건착, 건착과 자망을 능숙하게 들이대여 청어, 대구, 가재미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물고기들을 수많이 잡았다.

특히 원양어선대들에서는 예비부속품과 예비기관들을 가지고 나가 먼바다에서 들어올때 중소수리를 자체로 함으로써 제2차원양출어를 앞당기였으며 그 기세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사철 여러가지 물고기를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근해어업】 수산부문에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쉴새없이 잡을데 대한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고 대형어업과 중소어업, 세소어업을 배합하여 가까운 바다에 밀려오는 까나리, 멸치, 조기, 청어, 낙지, 은어, 명태 등의 회유성어족과 여러가지 정착성어족들을 많이 잡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수산부문에서는 1971년 중심어장과 가까운 수산기지마다에 잔교들을 증설하고 하륙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벌리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신포, 홍원, 경포지구에 여러척의 배들을 단번에 부칠수 있는 세멘트잔교와 수많은 콘베아, 어류펌프들을 설치하여 만선한 고기배들이 들이닫는 차제로 기계로 부리움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

하였으며 더 많은 어로시간들을 얻어냈다.

수산부문에서는 또한 선박수리, 그물꾸미기, 기술학습들을 중요 물고기잡이철마다 앞세워 추진하다가 멸치, 낙지, 은어, 명태떼들이 밀려오면 맞받아 나가 집단적인 어로전과 분산어로전을 힘차게 벌려 만선의 개가를 올렸다.

특히 로동자와 기술자, 동해어로공들과 서해어로공들간의 창조적협동을 강화하여 서해의 건착어업과 트랄어업을 발전된 동해어업의 수준에 끌어올리였을뿐만아니라 서해수산물생산년간계획을 11월말까지 앞당겨 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수산부문에서는 수산협동조합과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수산작업반(수산분조)들을 더욱 강화하여 물고기잡이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산물에 대한 해안연선인민들의 보충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으며 더 많은 물고기들이 북부내륙지대를 비롯한 인민경제 각부문에 공급되게 하였다.

【천해양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일군들은 양식사업을 널리 조직하며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같은것을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천해양식부문에서는 이해에 미역, 곤포, 김의 씨받이와 모내기를 강화하여 양식자원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그 생산량을 높이는 투쟁을 벌리였다.

각지 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는 우선 회천의 로동계급들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참미역증산의 예비를 그의 육성기일을 연장하는데서 찾고 참미역의 씨받이와 모내기방법을 개선하였다.

홍원, 서호, 퇴조, 신창, 단천 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는 경포천해양식사업소의 경험을 본받아 100~200평방메터짜리 양식탕크들을 건설하고 이 안에서 5~6월에 참미역의 씨를 받아 키우다가 가을에 모내기하는 방법으로 참미역의 생육기일을 3~4개월 더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동해안연안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참미역자원이 조성되였으며 참미역생산량이 1970년에 비하여 1.4배 이상 높아졌다.

서해안의 부포, 옹진, 평화, 동해안의 신창, 단천, 리원, 룡대 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는 찬물에서만 자라는 곤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랭동공장들이 있는 수산기지마다에 양식탕크들을 건설하고 랭동기의 찬물을 리용하여 곤포씨받이와 키우기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해마다 10월경부터 자라던 곤포는 1971년에 여름부터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서해 남부에서만 보이던 곤포는 동해연안에서도 자라고있을뿐만아니라 때당 곤포생산량이 례년의 2배에 달하였다.

천해양식부문에서는 동해의 참굴과 서해의 민어굴양식도 개선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굴생산량을 급격히 높일수 있는 자원을 조성하였다.

【담수양어】 이 부문에서는 국영양어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양어를 배합하여 물이 있는 모든 곳에 물고기들이 욱실거리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종일관한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영양어부문에서는 우선 간석지양어를 대담하게 전개할데 대한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고 자연사료가 풍부하며 새끼고기확보에 유리하며 간석지의 비옥도를 높이는데 유리한 간석지양어장을 광범히 건설하였다.

평북도, 평남도, 황남도들에서는 숭어를 중심어족으로하고 이에 뱀장어, 백년어, 화련어를 배합하여 키울 양어장들을 1천정보씩 구릴 목표를 내세우고 간석지비육못을 만들었다.

국영담수양어부문에서는 또한 새끼고기생존률을 높이고 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칠색송어의 생산계획을 163.7%로 초과완수하였으며 해마다 그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양어부문에서는 우선 1명의 관리공이 1정보의 양어장에서 6톤의 물고기를 키워낸 평원군 평원협동농장의 경험을 본받아 전군중적운동으로 양어장들을 건설하고 선진적인 립체양어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숙천군 통덕, 력포구역 양금, 순안군 택암협동농장의 양어장을 비롯한 많은 양어장들에서는 정보당 민물고기 생산량을 3~4톤씩 높이였으며 립체양어의 우월성과 그 경험을 체득하였다.

또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양어부문에서는 40리 샘소강에 칠색송어를 놓아길러 해안연선인민들 부럽지 않게 부식물을 해결한 초산군 구평협동농장의 경험에 따라 무인지경 강하천들에 많은 물고기새끼들을 넣었다.

창성군 달산천, 양덕군 은하천의 칠색송어들은 1년만에 한키로그람씩 자랐다.

담수양어부문에서는 1971년에 동해연선의 강하천에서 자라던 빙어들을 서해 연선의 강하천에 옮겨길러 첫해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산물가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가공시설들을 건설하면서 랭동품과 절임품의 가공비중을 높이였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우선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들을 사철 떨구지 않고 원활히 공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1만톤씩의 랭동능력을 가진 신포와 룡대의 랭동공장들을 비롯하여 수산기지마다에 대형랭장고들을 건설하였다.

기계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각도별로 맡아 건설한 랭동공장들은 종전의 열풍식랭동공장들에 비하여 기계화수준이 높기때문에 10분의 1로력을 가지고도 단번에 많은 수산물을 랭동할수 있게 현대화되였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또한 동서해의 수산기지마다에 현대적인 절임탕크들을 건설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수산물을 더 분한이 있게 공급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물고기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태가공에 자동활복기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명태가공의 기계화, 자동화수준을 급격히 높이였으며 명란, 창란젓과 어분, 간유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명태내장물을 기본원료로 하는 여러가지 젓갈품생산량이 계통적으로 늘어났으며 조개, 백하, 새우 가공품도 비교적 많아졌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간유직장, 간유알사탕직장, 물고기가루직장들을" 더 튼튼히 꾸리고 기술관리체계도 개선하여 여러가지 수산물영양제와 공업원료, 단백질먹이와 광물질먹이를 대대적으로 생산공급하였다.

기본건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1971년에는 중요한 건설대상의 조업개시를 촉진하였으며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
(1971년 《신년사》, 단행본, 11페지)

1971년에 우리 나라의 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 15대건설대상과 10대도시건설,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15대건설부문에 력량을 집중한 산업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 서두수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6호발전기, 황해제철소의 소결로직장, 택인선광장, 해주—배천간 철길부설공사를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완공하였다.

산업건설부문에서는 우선 전력공업부문에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들의 운영을 병진하는데 필요한 서두수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웅기화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동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우게 하였다.

또한 산업건설부문에서는 황해제철소의 소결로직장과 환원단광직장, 김책제철소의 련속식소결로와 3호해탄로를 비롯한 새 직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1971년에 새로운 화학공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원유가공공장, 합성고무공장들을 비롯한 일련의 새 공장건설과 비날론공장, 염화비닐공장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1971년에 해주—배천간, 세포—이천간, 강계—혜산—무산간 철도건설이 강력히 추진되고 그중 해주—배천간 철도를 완공하였다.

도시건설에서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해마다 10만세대씩의 살림집을 짓기 위한 운동이 전군중적으로 벌어져 도시의 면모를 완전히 변모시켰다.

도시건설에서도 우선 혁명의 수도 평양시 비파거리, 각도 소재지들인 신의주시, 평성시, 해주시건설과 항구도시들인 남포시, 라진시 건설에 힘을 넣어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들을 훌륭히 꾸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 도시들에는 탑식고층건물들과 함께 주민지구의 위치와 자연지리적조건에 조화되는 아름다운 평천식주택(2~3층) 건설이 도처에서 벌어져 도시건설을 군중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도시의 건설속도를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도시건설에서도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공업지구의 건설과 주민지구의 건설을 배합할데 대한 수상님의 독창적인 구상에 따라 강서군 기양지구, 희천시의 여러지구, 청진시 라남지구 함흥시 사포지구에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고층건물구역이 일떠섰다.

특히 1971년에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건물인 만수대혁명박물관,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와 남포극장을 비롯한 수많은 건물들이 솟아났다.

산업건설, 도시건설과 함께 농촌건설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이미 7개년계획기간에 65만세대의 문화농촌주택을 건설한 농촌건설대들과 농장원들은 6개년계획기간에는 해마다 15~20만세대씩의 살림집을 짓기 위한 전군중적투쟁을 벌려 모자라는 살림집과 인구증가에 따르는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또한 농촌건설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수도화를 시작하여 이미 540여개의 농촌부락들을 수도화하였으며 그중 평남도 양덕군과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는 완성하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 산업건물, 공공건물, 다층주택건설에서 미끄럼식건설방법을 비롯한 선진적건설방법과 선진기계기술을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훨씬 높이였다.

또한 중앙건재공업과 지방건재공업을 병진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새로 꾸려진 지방건재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여 산업건설, 도시건설과 함께 지방건설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교통운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운수의 긴장성을 푸는데 계속 큰 힘을넣어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적, 전인민적인 관심을 돌려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를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1971년《신년사》, 단행본, 10페지)

당과 정부에서는 석탄과 함께 운수의 긴장성을 푸는 문제를 1971년경제계획수행의 기본고리로 규정하고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을 전당적, 전군중적운동으로 지원하는 투쟁을 조직령도하였다.

【철도운수】 이 부문에서는 이해에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며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여 지금있는 철도의 통과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철도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우선 이미 7개년계획기간에 기본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데 기초하여 6개년계획의 첫해인 1971년에는 철도전기화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였다.

각 철도관리국들에서는 우선 전기화구간들에서 나쁜 침목은 새로운 침목으로, 경량레루는 중량레루로 바꾸었으며 짧은 구내는 길게, 부족한 조차장들은 더 건설하면서 60톤급중량화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도입하였다.

또한 이미 생활에서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렬차편성전문화와 집단적기다림상하차방법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순환집결수송과 직통렬차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화차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의 기계화, 철길작업의 기계화, 철도운영의 자동화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각 철도관리국들에서는 우선 《공장이 철도를 돕고 철도가 공장을 돕자!》는 혁명적구호를 들고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절반이나 줄인 강선역과 천리마강선제강소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 합리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우선 철도성과 중량화물을 다루는 인민경제 각 성, 큰 역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전당적, 전군중적투쟁을 벌려 이동식기중기, 그라브기중기 철도기중기, 자동적재기 등 140여대를 도입하여 큰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상당히 기계화, 합리화하였다.

또한 석탄, 쇠돌, 골재 등 산적화물을 다루는 중요역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단꺼번에 짐을 싣고부리는 언덕선들과 잔교식하차시설들을 전군중적으로 건설하여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결정적으로 줄이였다.

각 철도관리국들에서는 또한 철도작업과 철도운영의 기계화, 자동화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내에 전국에 실현할 수 있는 본보기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조직기술적대책을 강구하였다.

평양철길대에서는 30배의 능률을 내

는 철길부설기를 비롯하여 레루작업종합기계, 레루교환기, 콩크리트침목운반배렬교환기, 자갈다짐기, 자갈청소기 등 많은 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철길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 경험을 창조하였다.

또한 철길운영의 자동화를 실현한 서포—간리사이의 경험을 본받아 각 철도관리국들에서는 한개단위씩 다시 본보기를 꾸리는 과정에 그를 일반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준비와 물질적준비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해차량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외륜을 자체로 생산하는 토대를 닦았으며 랭동차량생산토대를 꾸리였으며 60톤급화차생산의 흐름선(6월 4일차량공장)을 도입하였으며 수리기지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덕현선, 다사도선, 해주—배천간 광궤를 완성하였으며 동서해안의 통과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이천—세포간, 강계—혜산—무산간 철도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였다.

【자동차운수】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잘하고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여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 자동차사업소들에서는 수송조직을 합리화하고 집중수송을 널리 조직하기 위하여 순천, 평성 방면과 안주, 녕변 방면에 공급되는 석탄을 대형자동차로 실어나름으로써 이 구간의 철도의 긴장성을 풀었다.

또한 중심군들에 자동차수송소대를 조직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의 원료, 자재, 제품 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공업의 발전뿐만아니라 자동차운수의 원활성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하루속히 없앨데 대한 수상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자동차려객수송 특히 농촌뻐스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잘 닦고 아직 뻐스가 들어가지 못한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7페지)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수상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지방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뻐스화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매개 도마다 한개군씩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였다.

우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회천의 로동계급이 추켜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개편하면서 뻐스로 쓰일 자동차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냈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수많은 뻐스운전사들을 새로 양성보충하는 한편 각도 자동차수리공장들에 뻐스직장들을 내오고 점차 뻐스공장으로 전환시키면서 수백대의 뻐스를 자체로 생산하였으며 자동차부속품재생공장과 부속품공장들을 꾸려 수리기지들도 튼튼히 꾸리였다.

특히 협동농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고도 이제 또다시 뻐스까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길닦기에 달라붙어 수천키로메터의 도로를 보수정비하였으며 수많은 다리들과 구조물, 정류소들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천 200여개 리를 련결하는 농촌뻐스화를 실현함으로써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차를 멈추시고 나들이가는 할머니를 태워주시던 재령군 부덕리 벌판길로부터 개마고원의 풍서군 내포리의 산골길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농촌길에서 농민들의 행복의 노래를 담아싣고 뻐스들이 달리고있다.

【수상운수】 이 부문에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화물수요에 맞게 수상운수망을 늘이고 운수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선박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각지 해운사업소들과 선박수리공장들에서는 선박수리기지를 정비보강하고 부속품생산을 더욱 늘여 겨울기간에 선박수리와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선박가동률을 더욱 높이였다.

또한 4월 13일제철소,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은률광산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상하선설비들을 더욱 개조하여 화물선박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물동을 날랐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만포—수풍사이를 비롯한 일련의 새로운 배길들을 개척하여 수상운수망을 더욱 늘이였다.

체 신

체신부문에서는 1971년에도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자기 앞에 부과된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체신부문에서는 1971년에 텔레비죤방송포괄지역을 넓히며 방송국들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며 통신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세대별 출판물전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심을 두고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미 7개년계획기간에 각도 소재지를 비롯하여 중요도시와 농촌에 텔레비죤방송을 개시한 체신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첫해 1971년에는 그 성과를 더욱 넓히는데 힘을 넣었다.

각지 통신기계공장들에서는 회천의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중계기생산능력을 급격히 높이는 동시에 소재기지들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중계기생산량을 계획의 2배이상으로 부쩍 높이였다.

이에 발맞추어 각도들에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도처에 중계소를 건설하여 텔레비죤방송의 포괄지역을 결정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7개도들에서는 모든 군들이 텔레비죤을 다 볼수 있게 되였으며 그중 평북도에서는 도내 주민지대의 96%가 텔레비죤포괄지역에 들어갔다.

체신부문에서는 이미 7개년계획기간에 유선방송화를 완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이해에는 방송국들의 출력을 더욱 높이면서 그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각지 통신기계공장들에서는 여러가지 통신설비들을, 각지 기계공장들에서는 여러가지 능력의 발전기들을 각각 생산보장함으로써 방송출력을 높이는 기계실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우리 나라 방송국들의 출력이 더욱 높아졌을뿐만아니라 특히 어떤 정황속에서도 방송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자립적토대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체신부문에서는 특히 매 세대에 출판물을 배포할데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1968년 7월 4일 교시를 받들고 평양시에서 그 모범을 창조하고 전국

에 일반화하는 과정에 걸린 고리들을 풀므로써 출판물전달체계를 공고발전시켰다.

이해에 산간지대 출판물보급원대렬을 늘이고 기동수단을 더 공급하였으며 그에 맞게 출판물보급사업을 개선하여 량강도, 자강도를 비롯한 산간지대 농촌들에서도 신문, 잡지들을 매 세대별로 배포받을수 있게 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이해에 시외통신선을 늘이고 산업통신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통신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각지 전신전화국들에서는 산업전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1970년 3월 16일교시를 받들고 관리국들과 기업소들간에 통신체계를 더잘 세우고 방송전화기들을 증설하여 산업전화를 질량적으로 보장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우편통신의 모든 공정들을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에 맞게 작업을 조직하여 편지, 전보, 송금, 소포를 신속정확히 날라줌으로써 체신계획을 110.9%로 넘쳐 수행하였다.

농 산 업

농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의 첫해인 1971년을 만풍년의 자랑찬 성과로 빛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에 황남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알곡증산의 커다란 예비가 모를 일찍내는데 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그후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가시여 거듭 확인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곡증산의 커다란 예비는 밭관개를 실시하며 모를 일찍 내는데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밭관개면적을 빨리 늘이며 랭상모를 더 많이 내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을 높여 5월 25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1971년《신년사》, 단행본, 10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알곡을 증산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진두에 서시여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그 실현에로 힘차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밭관개면적을 늘이며 모를 일찍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1971년 2월)를 마련하시고 농촌기계화초병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국가에서는 뜨락또르와 현대적농기계, 례년보다 1억메터나 더 많은 비닐박막과 각종 영농물자,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철을 앞당겨 공급하였다.

또한 《농촌지원 60일전투》를 조직하고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그 어느해보다도 강화하였다.

대규모의 밭관개건설에 떨쳐나선 기계화초병들과 농업근로자들, 각지의 근로자들은 중요 2모작지대부터 힘을 넣어 1만 600여리의 구간에 주철관과 비닐관을 묻었으며 3천여개의 양수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3만정보의 밭관개건설, 이는 농업생산의 공업화를 촉진하며 단위당 수확고를 2배이상 높이는 기본고리이므로 사실상 3만정보의 새땅을 얻어낸 발농사의 일대 혁명이며 천리마시대의 또하나의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다.

농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밭관개건설과 함께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였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례년보다 늦도록 추위가 계속되는 불리한 기후조건하에서도 3월초순부터 랭상모붓기를 내밀었으며 논갈이도 2배의 속도로 다그치였다.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일단 모내기전투에 들어가자 로력적혁신을 일으켜 5월 25일까지는 일부 산간지대논을 제외한 전반적농촌들에서 모내기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례년에 비하여 모내기를 근 20일이나 앞당겨 끝낸것으로서 실로 우리 나라 농업발전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승리였으며 이해의 풍작을 마련하는데서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그것은 우선 모내기를 앞당겨 끝낸 결과에 알곡증산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벼의 생육기일이 훨씬 늘어남으로써 아지를 많이 치게하였으며 가지마다 이삭이 잘 영글게 하였다.

곡창지대인 황남도, 평남도, 평북도의 알곡수확고가 급격히 높아지고 10만톤군대렬이 늘어난것은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는 차제로 김매기를 뒤따라세워 어느해보다도 유리한 생육조건과 충분한 생육기일을 보장한데 있다.

그것은 또한 모내기를 앞당겨 끝낸 결과에 강냉이를 포함한 밭작물도 그만큼 알뜰히 가꾸게 되여 수확고를 높이게 되였다.

분수식관수를 도입한 2모작밭에서 알곡수확고를 2배이상 높인것은 황주군 석정, 룡천협동농장들만이 아니며 밭관개를 건설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거둔 성과이다.

이해에 거둔 풍작성과는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성숙된 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포착하시고 몸소 진두에 서시여 대담하게 풀어나가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과 수 업

과수부문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북청확대회의열돐기념 함남도보고대회, 과일군현지지도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1971년에 과일생산량을 우리 나라의 최고수확년도수준보다 더높였으며 밤도 례년의 3배로 끌어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수원의 비배관리를 잘하여 과일생산을 늘이고 그 저장과 가공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1971년《신년사》, 단행본, 10페지)

《과수원비배관리를 기계화, 현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수부문에서는 수령님의 이 교시를 받들고 이해에 모든 물동운반과 약뿌리기, 토양관리, 과일수확 등 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수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넣었다.

특히 경사지과수원들이 많은 우리나라 과수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단만들기, 풀떠조성, 돌쌓기와 같은 토지보호사업, 과수원울타리, 방풍림조성과 같은 국토건설을 앞세우면서 과수원물동운반을 기계화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각지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북청군 룡전리, 덕성군 니망지리의 경험을 본받아 연 5만 5천리의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닦음으로써 평야지대는 물론 산간지대과수원의 물동운반을 기본적으로 기계화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또한 물주기, 약뿌리기에 필요한 비닐관, 분무기 등의 설비생산을 다그치면서 물탕크, 시약탕크, 배수로, 송수로 치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였다.

각지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2~3년내에 기계화에 의한 관수체계와 약제산포체계를 세울 목표를 내걸고 3~4월과 9~10월에 걸쳐 이 사업을 다그침으로써 과수원의 지대적특

성과 과수작업의 특성에 맞는 기계화체계를 세워나갔다.

특히 해마다 봄에 주던 밑거름을 가을에 주는 선진적인 거름주기체계를 세우고 이해에 전체 과수면적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에 정당 20톤씩 주는 혁신을 일으켰다.

과수부문에서는 또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적인 북청식가지자르기방법을 온나라에 일반화하여 과일나무의 모양을 바로 잡음으로써 과일생산과 과일나무의 수명을 늘이게 하였다.

과수총국에서는 북청식가지자르기에 대한 방식상학을 조직한 뒤를 이어 북청기술자들을 서해안일대의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여 과일나무의 모양을 바로 잡는 일들을 도와 주었다.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과일생산이 급격히 장성하는데 상응하게 과일저장과 가공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였다.

매개 시, 군마다에 과일가공공장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매개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에 400여개의 건과장을 꾸리고 떨어졌거나 상한 과일들로 과일식료품들을 만들었다.

각지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과일생산규모와 지리적조건에 따라 지상식저장고, 랭동식저장고를 비롯하여 1970년의 1.5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저장고를 건설하여 사철 과일들을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늦과실과 올과실, 다수확종과 고급과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과실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2만여정보의 새 과수원을 더 조성하였다.

축 산 업

축산업을 집약화, 현대화하여 축산물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이 부문에서는 1971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부문에서는 이해에 현대적 돼지공장, 젖소공장들을 건설하며 이미 있는 목장들을 개건하며 전군중적운동으로 축산물을 생산하는 투쟁을 벌려 고기, 젖, 양털 생산을 높이였다. 그중에서 축산총국만하여도 1970년에 비하여 고기, 젖, 양털 생산량을 1.1~1.2배로 높이였다.

축산부문에서는 1971년에 우선 현대적돼지공장, 젖소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현대화, 집약화하였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돼지공장의 터전들을 몸소 잡아주시였으며 특히 설계도와 설비들을 보아주시였으며 건설과정에 걸린고리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중요도시에는 2천~5천톤짜리, 매개군에는 500톤짜리 현대적돼지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결정에 따라 그 시범들을 꾸리는 여러가지 능력의 본보기공장건설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중에서 축산도시를 련상케하는1만톤능력의 평양돼지공장이 이미 조업하였으며 5천톤짜리의 사리원, 고산, 해주, 강서 돼지공장들과 2천톤짜리의 송림, 위연 돼지공장들, 500톤짜리의 남포, 안주 돼지공장들과 상원젖소공장 건설이 완공단계에 들어갔다.

축산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이미 마련된 축사를 개건하여 집약화하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 목장들에서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설비자재와 내부에서 탐구한 예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새로 건설하는 돼지공장, 젖소공장의 축사와 같은 80여개의 돼지우리, 젖소우리, 양우리들을 새로 꾸리기 시작하여 수많이 완공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이해에 먹이나르기, 우리씻어내기를 비롯한 중요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총국에서는 력포목장과 평양목장에서 돼지는 1인당 2천마리, 사료기지는 1인당 10정보를 관리하는 경험을 창조하면서 이것을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는 기술적조치를 취해왔다.

축산부문에서는 1971년에 종축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선진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종자돼지새끼, 양새끼 젖소새끼들을 내였으며 그것을 협동농장들에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협동농장 작업반마다 고기는 2톤, 농가마다, 농촌지구 세대마다 고기 100키로그람이상 생산하는 운동이 더욱 심화되여 여러가지 축산물생산이 빨리 늘어났다.

가 금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가금업일군대회(1970년 3월)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가금부문에서는 국영가금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협동농장과 농촌지대의 매개 가정들에서 닭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쳤다.

이미 7개년계획기간에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가금토대를 쌓아놓은 국영가금 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이해에 이미 마련된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알낳이률과 살찌우기속도를 높이며 먹이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국영가금부문에서는 알생산량을 1970년에 비하여 1.5배, 고기생산량을 1.4배로 높이면서도 알 개당 먹이소비량은 5.5% 더 낮추었다.

각지 닭공장, 오리공장들에서는 이해에 560대의 닭상자, 230여평방메터의 판유리를 비롯한 설비자재들을 리용하여 지금 있는 면적에서 더많은 닭과 오리들을 기르므로써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였다.

각지 닭공장, 오리공장들에서는 가금의 나이에 따르는 수용밀도와 배합먹이구성을 정확히 보장하였으며 닭, 오리 우리에 대한 환기,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동화하기 시작하였다.

결과 큰암닭 한마리당 평균 알낳이수는 1970년에 비하여 110%, 잡을때 한마리당 평균 무게는 112% 높아졌다. 그중에서 닭 한마리에서 년간 250개의 알을 생산하는 투쟁에서 회령, 중화, 장흥, 만경대, 서포닭공장들이 모범적이였다.

국영가금부문에서는 이해에 가금업발전의 첫공정인 배합먹이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완전가배합먹이생산을 높이는 동시에 먹이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각지 배합먹이공장들에서는 우리 나라에 있는 먹이원천에 맞게 그리고 닭, 오리들의 생리적요구에 맞게 배합먹이의 질적구성을 개선하였으며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여 배합먹이생산량을 1970년에 비하여 1.4배로 높이였다.

배합먹이생산량이 높아지고 먹이의 질이 높아진 결과 알 개당 먹이소비량뿐만아니라 오리고기 증체 한키로그람당 소비량도 1970년에 비하여 4% 더 낮아졌다.

가금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1년 5월 21일교시를 받들고 군량곡가공공장마다 1천마리, 협동농장정미소마다 200마리, 협동농장 작업반탈곡장마다 100마리, 농촌지대의 집집마다 5마리이상의 암닭을 마련하고 한마리에서 년간 200개이상의 알을 내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각지 량곡가공공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106만평방메터의 닭우리를 건

설하고 2천 800여대의 알깨우는 기계를 받아 자체의 종금생산기지와 공동가금사육장들을 튼튼히 꾸리였으며 닭알생산량을 1970년에 비하여 110% 높이였다.

잠 업

잠업부문에서는 뽕밭과 가둑나무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아주까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심어 뽕누에고치생산을 기본으로하면서 가둑누에고치와 아주까리누에고치생산을 훨씬 늘이였다.

누에고치생산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진 결과 1971년에 누에고치생산량이 1970년에 비하여 8배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에치기는 산간지대 협동농장들 뿐아니라 벌방지대 협동농장들과 군소재지 로동자구들에서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잠업부문에서는 우선 봄과 가을에 걸쳐 새로운 뽕밭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이미 심어놓은 뽕밭을 잘 가꾸어 우리 나라 견방직공업의 비단실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김성애동지께서는 11월 4일 평양시 대성구역 녀맹원들을 찾으시고 뽕밭조성의 정치경제적의의와 나무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뽕나무심기를 지도하시였다.

각지 녀맹원들은 설계를 앞세우고 길닦기, 계단 만들기, 배수로치기 등을 잘하여 앞으로 뽕나무비배관리를 기계화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뽕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었다. 여기에서 평양시, 해주시, 강계시, 구성시 녀맹단체들과 성천, 옹진, 화성, 락연광산 로동자구의 녀맹원들이 모범적이였다.

잠업부문에서는 또한 뽕밭에 관수체계를 도입하고 시비체계를 잘세워 뽕밭 정보당 평균 7톤, 최고 10톤의 뽕잎을 딴 개천군 봉화협동농장의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각지 잠업농장들과 잠업육종장들에는 선진적인 뽕나무모생산방법을 도입하여 나무모 생산량을 1.5배로 높임으로써 협동농장, 탄광, 광산마을, 도시주변 뽕나무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잠업농장들과 잠업육종장들에는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유리와 산형강을 잘 리용하여 도합 2만 5천평방메터의 온실을 꾸려 누에알을 많이 키웠으며 전국에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의 잠업농장, 협동농장 녀맹단체들에서는 선진적인 누에치기방법을 광범히 받아들여 누에고치생산량과 누에치기공 한사람당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었다.

선진적인 누에치기방법중에서 로력과 뽕잎을 절약하면서도 1인당 고치생산을 10배이상 높이는 비닐집치기와 1년에 두번하던 집누에 대신 네번이상 치는 가지뽕에 의한 큰누에치기방법이 가장 널리 보급되였고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1년에 녀맹단체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1970년에 비하여 누에고치생산량을 2.2배로 높이였다.

경제림조성

산림부문에서는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산야에 록음이 우거지게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면서 몸소 나무를 심으시던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군중적운동으로 경제림을 조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또한 쓸모없는 산림들을 섬유원료림, 유지림과 같은 경제적으로 쓸모있는 산림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3페지)

산림부문에서는 수상님의 이 강령적 교시에 따라 1971년에 섬유제지림과 유지림조성에 기본을 두면서 산과실림, 용재림, 보호림, 화목림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꾸려나갔다.

각지 인민들은 7개년계획기간에 91만 4천정보의 경제림, 그중에서 섬유제지림은 48만정보, 유지림은 36만정보를 조성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1971년에는 림업부문을 제외한 경제림조성계획을 116%, 그중 섬유제지림은 103.8%, 유지림은 125%로 각각 넘쳐하였다.

산림부문에서는 우선 가까운장래에 벌방지대의 산림자원을 산간지대 산림자원의 수준에로 따라 세울 목적으로 평야지대의 야산들을 중심으로하여 수삼나무, 황철나무, 평양포플라, 플라타나스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많이 심음으로써 나라의 지역적 림상구조를 개조해 나갔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사회주의건설의 오랜세월에 걸쳐 몸소 화분과 정원에서 키우시고 번식시키신 수삼나무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심기 위하여 어린 나무모생산을 강화하였으며 전문적인 수삼나무재배사업소를 내왔다.

산림부문에서는 또한 국토건설에 나무심기를 따라세워 농작물과 시설물들을 보호할뿐만아니라 국토의 풍치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방풍림과 사방림을 많이 꾸리였다.

동서해안과 강류역의 인민들은 7개년계획기간에 계획의 3.7배, 3.2배에 달하는 사방공사와 야계공사를 진행한 기세드높이 이해에 계획의 1.5배에 가까운 보호림을 조성하였다.

그중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대동강과 청천강을 비롯한 6대강 부근의 인민들은 나무모운반, 구덩이파기, 거름준비 등을 깐지게 짜고 봄과 가을에 걸쳐 계획의 2.7배에 해당하는 사방림을 꾸리였다.

산림부문에서는 갱목, 침목, 화목 자원을 자체로 조성할데 대한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고 이해에 기관, 기업소, 농장별로 갱목림, 침목림, 화목림도 광범히 조성하였다.

탄광, 광산, 협동농장들에서는 갱구별, 작업반별 책임제를 강화하고 조림작업반의 역할을 높여 갱목림계획은 109%, 화목림계획은 160%로 각각 넘쳐하였다.

재 정

재정부문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함으로써 1971년도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

이해에 도매가격이 전반적으로 고쳐지고 그에 따라 국가예산수입지출항목들을 규정하는데서 일부 변동이 있은것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을 1971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대로 재계산하여 집행하였다.

1971년 국가예산수입실적은 63억 5천 735만원으로서 재계산된 예산액에 대하여 103%로 넘쳐 수행되였으며 1970년에 비하여 119%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국가예산수입은 6개년계획에 예견되여있는 예산수입의 년평균 증가속도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늘어났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예산이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예산으로서 해마다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의 내부축적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고히 보장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6개년계획을 첫해부터 앞당겨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며 6개년계획의 전반적과제를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다.

빨리 늘어나는 국가예산수입에 기초하여 1971년국가예산지출은 63억 168만원으로서 1970년에 비하여 124%로 장성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우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재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70년의 127%에 달하는 방대한 자금을 인민경제발전에 돌렸으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기본건설과 3대기술혁명수행에 돌렸다.

그리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3천 935개의 건설대상이 완공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개선에 절실한 공작기계생산이 2.3배, 뜨락또르생산이 1.7배, 계전기생산이 2배로 장성하였다.

재정부문에서는 농촌경리부문에 국가기본건설투자의 21.9%를 돌려 밭관개를 비롯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갔으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게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또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이해에 국가예산지출의 31.1%를 국방비에 돌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국방건설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는데서 또다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와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큰힘을 돌려왔다.

이해에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1970년의 121%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시책비를 지출하였으며 이밖에도 많은 자금을 인민생활향상에 돌리였다.

이해 국가예산집행에서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시고 튼튼한 자립적재정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6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그 성과적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확고하게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나가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로동행정

로동행정부문에서는 1971년 신년사와 이 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이해에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을 원만히 풀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긴장된 로력사정을 푸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로력배치를 잘하며 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엄격한 질서를 세워 로력을 극력 절약하며 한사람의 로력도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971년《신년사》, 단행본, 14폐지)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생산부문 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일군수를 규정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관철하여 나라의 긴장된 로력사정들을 풀어나갔다.

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71년 9월 28일과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관리로력, 비생산로력, 간접로력을 대담하게 줄이였으며 비생산부문과 경로동부문의 청장년로력들을 녀성로력으로 바꾸었다.

각지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사무를 간소화하고 계산사무를 최대한으로 기계화, 자동화하였으며 일군들의 정치사상적, 기술실무적자질을 높임으로써 기구정원로력을 최대한으로 생산부문에 돌리였다.

또한 비생산부문, 간접부문의 작업을 적극 합리화, 기계화하였으며 녀성들을 광범히 인입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 이에서만도 수많은 청장년로력들을 얻어냈다.

로동행정기관에서는 간접부문에서 얻어진 로력과 비생산부문, 경로동부문에서 탑구한 청장년로력들중에서 3만 5천여명을 새로조업하는 공장, 기업소들과 중공업과 기본건설에 돌려 생산부문로력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1970년 10월 30일 황남도당전원회의와 1970년 12월 19일 도시군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하신 수상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여 로력배치를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앞서 농장들의 자연조건과 발전수준에 따라 여러 경우에 처해있는 1천 537개 협동농장로력배치정형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한데 기초하여 도시군농업지도기관로동행정일군 협의회에서 비판적으로 총화분석하고 선진적인 농촌로력배치안을 철저히 인식시키였다.

각지 농업기관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동행정일군들의 도움을 받아 비생산부문로력을 적극 줄이는 동시에 파수, 축산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여 실로 5만 5천명이상의 로력을 농산작업에 돌리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특수직종을 제외한 기능공학교체계를 없애고 중학교졸업생들을 인민경제부문에 직접 배치할데 대한 1971년 2월 13일교시를 관철하여 실로 수많은 로력예비를 얻어냈다.

1967년부터 시작된 9년제기술의무교육제의 커다란 우월성에 의하여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 능력있는 새 사회의 건설자들인 중학교졸업생들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진출하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나라의 긴장된 로력사정을 푸는 한편 이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로동성에서는 로동행정사업의 부문별로 가장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천리마대안전기공장과 천리마검산협동농장들에 파견하고 여기에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 로력의 합리적배치와 리용, 로동계획화와 로동규률의 강화, 로동정량제정과 사회주의분배원칙, 후방공급과 보장사업을 더욱 폭넓게, 더욱 심화시킬수있는 정규화, 규범화의 본보기를 꾸렸다.

로동성에서는 이 정규화, 규범화의 본보기에 근거하여 규범들을 만들고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제반 준비사업을 진행하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이해에 기술기능향상, 사회보험과 정휴양조직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둠으로써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줄기찬 투쟁을 로동행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강령적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주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문화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원칙과 립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9페지)

수령님께서는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리며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6개년계획의 첫해인 1971년에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당적사업으로 끝고나갔다.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부패한 반동문화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였다.

반동적문화침투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며 썩어빠진 《양키문화》, 부르죠아생활양식의 반동적본질과 반혁명적해독성을 철저히 폭로하였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우리 당은 이 사업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관철시켰다.

이와 함께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 투쟁도 강하게 벌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 2월 17일에 있은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부르죠아사상의 침투를 반대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1971년에 우리 당은 지난날의 문화유산가운데서 어느것이반동적인것이고 어느것이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인가를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워 가려내기 위한 사상투쟁과 함께 일련의 실무적조치를 취하였다.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이라도 어디까지나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오직 온갖 낡은 문화와 반동적부르죠아문화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서 발전되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적선과 맑스-레닌주의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할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부문이 건전한 토대우에서 찬란히 개화발전될수 있었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문화, 부르죠아반동문화를 철저히 뿌리빼고 민족문화의 모든 내용이 공산주의사상,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일관되였다.

교육부문에서만 하더라도 소위 《순수교육》, 《기술만능주의》와 같은 부르죠아적교육관점과 온갖 그릇된 주장을 밑뿌리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적교육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발전시키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전국교원대회에서 또다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설하여 혁명의 대를 이을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여야 할 필요성과 사회주의적교육학의 본질적내용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해명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교육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의 130여개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는 혁명적인 교육, 가장 정확한 사회주의적교육을 주고있다. 사회주의적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리론적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여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가까운 시일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고 로동계급을 위해 복무한다는 계급적관점이 똑바로 서게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의 해결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으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개화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말을 지켜내며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또한《세계 최고봉의 예술》로 세상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체육사업도 발전하였다.

1971년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이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복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경향을 철저히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결과 우리의 문학예술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대리인들이 떠벌이는 계급을 초월한 《전인류적문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참으로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조선혁명발전에 철저히 복무하는 당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출판보도분야에서 신문, 잡지의 종수와 부수가 현저히 늘어남으로써 모든 주민세대에 신문과 잡지가 다 한부이상씩 차례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력사적락후성을 영원히 씻어버리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된 오늘의 현실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화건설분야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하여 사회주의적문화의 모든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국교원대회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교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전국교원대회가 1971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에 걸쳐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리였다.

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와 중앙기관일군들, 각급 학교교원들과 교육 과학연구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교육사상, 혁명적교육전통을 창시하시고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주시였을뿐아니라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반세기동안 교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그이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27일회의에서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설하고 그 원리에 따라 청소년학생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할 필요성과 사회주의교육학의 본질적내용을 다시금 심오하게 해명하시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교육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교원들이 해야 할 임무와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는 력사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교육부문앞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며 사회주의적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보고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당정책화하고 모든 과목교수를 우리 혁명의 요구, 당의 정책적요구에 철저히 복종시킬것을 한결같이 강조하면서 그를 위하여 교원들자신이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교수와 교양을 일원화하며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후대들을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줄 아는 공산주의적풍모를 갖춘 혁명전사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수행에 복무할 쓸모있는 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킬 결의를 다시금 다지였다.

토론자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진지하게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높여 후대들에게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워줄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며 가까운 시일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는 한편 인민교원양성을 이에 따라세울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심을 담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남조선교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재일조선인교육일군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우리 교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27일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학생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교원들을 표창하시였다.

교 육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회주의교육학의 대상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를 다시 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데 있습니다.》(《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단행본, 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안을 보시고 1970년 9월 22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에서 보통교육부문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하는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완성하며 이 부문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보통교육부문에서는 1971년에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또한 이해에 교육부문에서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수행을 위하여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가까운 시일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이기 위한 모든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1971년에 원산, 혜산 의학대학과 평양기술사범대학, 공장대학들인 성천, 단천, 혜산 공업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과 함흥고등철도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고등기술학교들 그리고 160여개의 보통교육부문학교들이 신설되였다.

이미 있는 대학과 학교들은 학부, 학과와 학급들을 늘이고 197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신입생들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해방전에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이 땅우에 1971년현재 130여개의 대학과 500여개의 고등기술학교들이 일떠섰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매 군에 한개이상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요한 공업지구들에 공장고등기술학교와 공장대학,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 공산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설치되여 간부들에 대한 지방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을뿐아니라 지방들에 현대적기술문명을 보급하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며 높은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50여만명의 기사, 기수,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창조적힘에 의하여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농장마다에 평균 17.6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배치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과학기술적으로 훌륭히 발전시키고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학교들에서는 모든 과목교수를 적극 당정책화하며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과목교수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 운영을 통하여 후대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키는 한편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그들을 《글뒤주》로가 아니라 산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하여 당정책해설사업과 위생선전 등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한편 지덕체를 다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사업도 활발히 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혁명적교육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적교육으로 되였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모범교육군(구역)》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1971년에 함남도 북청군과 부전군, 평남도 룡강군, 황남도 청단군이 모범교육군칭호를 받았다.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천리마운동을 활발히 벌린 결과 1971년에 함흥의학대학과 원산농업대학이 천리마대학칭호를 받았으며 봉화리에 있는 명신학교가 천리마학교로 된것을 비롯하여 길주초등학원, 류포중학교, 련부평중학교, 은천인민학교, 고산고등농업학교, 청수고등농업학교가 천리마학교의 영예를 지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이름을 지닌 우리 나라 과학의 최고전당인 종합대학은 1971년에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였다.

수령님께서는 1946년 10월 1일에 종합대학을 창립하여주시고 오늘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대학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83차의 현지지도와 225차의 직접적인 교시를 통하여 종합대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지극한 보살핌속에서 종합대학은 창립당시에 비하여 1971년에 이르러 학생수는 7배로, 교원수는 13배로 늘어났으며 첫 천리마대학으로, 공산주의대학의 본보기로 발전하였다.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에서는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한 종합대학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발을 수여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화국내각에서는 공동축하문을 보내였다.

1971년에 함흥공산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은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받았으며 천리마함흥의학대학과 청진교원대학은 창립 스물다섯돐, 평양교원대학은 창립 스무돐, 청진의학대학은 창립 열다섯돐, 김종태, 청진, 신의주, 신포, 원산, 개성 사범대학과 평성, 혜산, 북청 교원대학, 공장대학들인 순천, 룡성, 본궁, 검덕, 승호, 신창, 수풍, 마동, 전천, 주을, 라진, 운산, 해주공업대학들이 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각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을 받았다. 또한 2중천리마원산중등학원, 길주초등학원, 천리마혜산중등학원, 천리마동림중등학원이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았으며 라남영예군인설계학교는 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을 받았다.

【9년제기술의무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새세대들이 모두다 기술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조건에서 기술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0페지)

보통교육부문에서는 1970년 9월 22일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 하신 교시에 근거하여 과정안을 고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되고 기술혁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기술의무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의무교육기간에 일반지식과 현대기술의 원리를 소유할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가지게 할데 대한 혁명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더욱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한 현명한 방도였다.

그이께서 친히 발기하신 새로운 혁명적인 교육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의 후대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나라와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되여갔다. 농촌지역의 중학교학생들은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발동기의 기본원리와 그에 대한 운전 및 조작기술을, 도시중학교학생들은 전기와 약전기술을 비롯하여 해당지역의 인민경제발전전망과 관련되는 기술을 더 잘 배워주어 마음대로 다룰수 있게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 300만명의 학생청소년들이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풍부한 일반지식과 함께 현대적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질을 계속 높이면서 가까운 시일에 10년제의무교육에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10년제의무교육은 현재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서 주고있는 높은 단계의 중등일반교육을 의무교육단계에서 줄것을 예견하고있는 우월한 교육제도로서 그의 실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현실의 요구에 맞게 학교교육사업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10년제의무교육의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71—1972학년도부터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각 도(직할시)의 몇개씩의 학교들에서 시험적단계에서 그것을 실시하고있다.

한편 1971년에 건설력량을 집중시켜 학교짓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였으며 교원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는 등 모든 준비사업을 철저히 앞세워 나갔다.

【고등기술교육】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여주기 위한 사상정치과목들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한편 높은 단계의 중등일반

교육의 질을 높이였다.

고등기술학교들에서는 전문기술과목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기초과학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정안에 실험과 실습 시간수를 더 늘여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생산현장에서 긴절히 필요한 산지식을 습득시켰다.

특히 이 부문학교들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의 고지를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기계공학을 비롯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해당 지방의 경제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쓸모있는 기술인재를 더 많이 길러내였다.

고등기술학교들에서는 전공학과가 생산현장과 밀접히 접근하여 있으므로 학생들은 실천속에서 리론을 체득하고 기술을 공고히 하게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은 리론을 잘 알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과 사회주의기업관리운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졸업하게 되여 생산현장에 나간 첫날부터 기수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사범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교양과 간부양성에서의 성과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교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전문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교수교양사업을 더욱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71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들에서 교수교양수준을 더욱 높이는 한편 재직 교원들을 야간 및 통신교육망에 망라시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여러가지 참고도서, 과학기술자료들을 더 많이 출판배포하는 등 교원들의 자질을 높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들은 우리 혁명의 후비대를 길러내기 위한 《원종장》이라고 하신 교시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교육부문에서는 보다 좋은 《원종》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사범교육부문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보내고 이 부문 교원, 학생들을 당에 가장 충실하며 누구보다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사상정치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현대기술기능교육을 잘 주기 위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과목들의 수업을 질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사범교육부문에서는 기초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생산현장에 침투하여 현실을 깊이 연구하고 교육적의의가 있는 가치있는 경험과 자료들을 교수행정에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분과의 역할을 높이고 교육연구토론회, 교수참관, 경험교환회, 방식상학 등을 수시로 조직하여 그의 내용과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교원수요를 정확히 장악한데 기초하여 각급 학교들의 전공학과지표에 따라 경험이 오랜 교원과 새로 자라난 교원들, 남자와 녀자 교원들을 옳게 배합하여 교원들을 고착시키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정치사상적으로, 교육실무적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된 10여만의 교원대렬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의 사상생활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고등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9페지)

수령님께서는 또한 6개년계획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의 로력구성에서 기술자, 전문가들이 10%이상에 이르도록하며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고등교육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첫해인 1971년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키우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원산의학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을 새로 더 내오고 이미 있는 대학은 물질적토대와 실험실습토대를 더 잘 완비하였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로작,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 조선로동당정책사 과목을 비롯한 정치과목의 강의를 더욱 강화하고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높은 수준에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도록 하였다.

대학의 기술교육분야에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는데 큰 힘을 넣었다.

대학들에서는 한계단 높은 기술혁명을 맡아할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모든 기술과목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기초과목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쓸모있는 기술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연기초과목의 교수수준과 모든 과목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실험과 생산실습, 설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대학들을 리론과 실천능력, 설계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기술인재로 육성하였다.

【일하며 배우는 교육】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야간 및 통신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0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1년에 교육부문에서는 성천, 단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통신 및 야간 학부사업을 개선강화하였으며 로동자지구들을 비롯한 여러곳에 도서관들을 설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배울수 있게 하였다.

덕성군 니망지협동농장 하나만 보아도 상설적인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야간 및 통신 교육체계, 기사, 기수 검정시험체계에서 310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하고 기술학습을 강화하며 120명의 과수기능공들을 길러냄으로써 로력자의 근 3분의 1에 해당하는 농업근로자들이 기사, 기수이거나 과수기능공으로 일하고있으며 신천군 천리마백석협동농장 또한 농업대학, 고등기술학교의 통신교육망을 통하여 작업반마다 평균 8명에 해당하는 기수를 양성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들에서는 교수를 당정책화하기 위하여 모든 과목 교수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당 정책의 진수를 똑똑히 알려주며 한가지를 가르쳐도 반드시

당정책관철에 필요한 산지식을 줄수 있도록 모든 과목교수의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편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 부문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과정안에 생산실습시간보다 과학리론과목시간을 더 늘이고 실천속에서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공고히 하게 하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공장과 농촌 지대들에 통신 및 야간 기술학교들을 설치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신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여나갈수 있도록 성인교육사업도 더욱 강화되였다.

어린이보육교양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우리 나라에는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을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의하여 조직운영되는 시(구역), 군 탁아소와 유치원, 기관, 기업소 탁아소와 유치원이 도시 및 로동자구들에 있으며 협동농민들의 어린이들에게는 협동단체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단체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있다. 이 탁아소, 유치원들은 근로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주민지구 또는 근무지역에 분탁아소, 분유치원들을 광범하게 두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후계자, 공산주의자를 길러내는데서 첫과정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촉진하며 온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71년에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탁아소, 유치원 건설사업과 설비비품 갖추기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당 제5차대회가 있은후 1년 남짓한 기간에 2,500개소의 탁아소, 유치원들을 새로 건설하여 유치원에 망라되여있는 어린이수만하여도 전해의 1.3배로 장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어 공화국정부에서는 삼태자를 낳아기르는 가정들에 그이의 직접적으로 되는 선물을 보내며 어린이들이 인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양육비를 주어 키우며 어머니와 어린이에게는 의료일군을 붙이여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고있다. 또한 산모에게는 산후휴가를 14일간 더 주고있다.

어린이보육교양을 위한 훌륭한 시설: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보육교양시설을 갖추어줄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1971년에 도시와 농촌들에서는 새로 수많은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지었으며 위생문화적으로 설계된 2층침대가 도입되여 어린이들의 수용능력을 더욱 높이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8~9월의 탁아소, 유치원 지원월간에 전군중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충분히 갖추어주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8,600여개소의 탁아소와 6,800여개소의 유치원에서 250만명에 이르는 귀여운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보육교양되고있다.

중요도시들에서는 주탁아소와 주유치원이 널리 운영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유치원수에 있어서나 어린이보육교양의 질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되고있다.

탁아소, 유치원들에는 유희실과 체육실, 일광욕과 자외선실, 환등 및 텔레비존실 등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수많은 교양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으며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놀이감들과 각종 교구비품, 운동기구들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비품, 놀이시설, 식료품들을 생산보장하는 전문공장과 직장, 작업반들이 운영되고있으며 평양시와 매개 도에는 탁아소, 유치원 공급소들이 있다. 상점들마다에는 어린이매대가 설치되여있어 어린이들에 대한 후방공급체계가 정연하게 서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정서교양: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후대들을 어릴때부터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전면적으로 갖추도록 보육교양하기 위하여 지능정서교양의 내용에서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였다. 유치원에서는 과정안과 교수요강, 탁아소에서의 하루생활표가 새로 작성되고 어린이들의 보육교양과정이 당정책화되였다.

보통교육성유치원지도국에서는 중화군 중화읍유치원과 신천군 새날협동농장유치원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어린이들을 교육교양하는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유치원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원수님을 따라배우는 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생동하게 리해시키는데 중심을 두었다.

김일성원수님을 따라배우는 교양실에는 《어리셨을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신 김일성원수님》, 《어리셨을 때부터 동무들을 사랑하신 김일성원수님》, 《어리셨을 때부터 원쑤놈들을 미워하신 김일성원수님》 등의 자료집과 만경대의 고향집, 군함바위, 낚시터, 학습터 등 만경대의 모든 사적들을 보여주는 사판을 갖추어놓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동하고 실감있게 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배울수 있게하였다.

또한 우리 말을 비롯한 각 과목교수의 질을 더욱 높이는 한편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견학과 관찰, 놀이, 노래와 춤, 그림극과 환등극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수단들을 통하여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탁아소,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단순히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 혁명의 후계자들을 길러내는 공산주의교양의 첫장소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건강증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에 나가실 때면 언제나 맨 먼저 탁아소와 유치원에 들리시여 어린이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고 제일 좋은것을 우선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도록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지극한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전국도처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아동병동이 꾸려져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복무하고있다.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배치되여있는 준의의 일상적인 의학적감시밑에서 어린이보육교양의 위생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영양공급사업을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유치원들에서는 매 반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리여 모든 어린이들의 키를 크게하며 신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이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강의한 의지를 키워주고 어떤 일이건 대담하게 해제끼는 적극성과 대담성을 길러주고있다.

보육원, 교양원 양성: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보육원, 교양원들의 사업은 남의 집 아이보개일이 아니라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을 길러내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우리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43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혁명사업의 담당자들인 보육원, 교양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기를수 있는 지식을 체득시키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각도마다 교양원대학이 있고 도처에 교양원양성소, 유치원간부양성반들이 꾸려져 모든 교양원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일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정연한 교육체계가 세워졌다.

이와 함께 방식상학, 시범상학, 보통교육방법연구회들을 통하여 보육원, 교양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이밖에 보육원, 교양원들을 위한 전국적인 강습과 순회강습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기르며 과학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을 위한 참고자료를 비롯하여 《보육원》, 《유치원》 등 각종 출판물들이 출판배포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어린이보육교양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14만명이상의 보육원들과 수많은 교양원들이 어린이보육교양에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있다.

과 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 특히 새로운 기술혁명의 과업은 과학연구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과학부문앞에 제시하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1년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제27차상무위원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상무위원회에서는 과학부문의12개부문위원회들과 8개의 부문과학위원회 및 부문과학원들에서 6개년계획기간에 과학력량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상무위원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히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광산과 유연탄광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 등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과학연구문제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연구문제들,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여러가지 부엌세간을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연구문제 등을 해결할데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결과 기계, 전기, 경공업 부문들에 과학연구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또한 모든 과학부문들에서는 과학을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키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리하여 과학연구사업의 모든 분야들에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요소도 철저히 뿌리빼고 우리의 현실에 맞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체가 선 과학을 힘차게 발전시켜나갔다.

【자연과학】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도 적극 개척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자연과학부문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공업로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서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내화물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기 위한 연구와 우리 나라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전기제철과 그 자동화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의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알루미니움제조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합성섬유에 관한 연구, 전기제철에 관한 연구 등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실현성이 검증되였거나 이미 생산에 도입되는 단계에 있다.

자연과학부문에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진행하였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제일 많은 채취공업부문의 기술혁신에 이바지할 탄광작업의 기계화, 자동화에 관한 연구,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동위원소를 널리 도입할데 대한 연구 그리고 살초제인 프로메트린제조에 관한 연구, 카리비료제조와 관련한 연구 등에서 얻은 성과들은 이미 생산에 도입되고 있거나 실천에서 실현성이 확증되였다.

이밖에 과학자, 기술자들은 알탄과 열처리갈탄 배합가스화에 대한 연구, 분자체제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3대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 밑천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과학부문에서는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자동화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소형계산기생산과 조립, 각종 특수전자재료와 전자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철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련속조괴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있다. 련속조괴생산공정이 완성되고 그 자동화가 실현되면 강철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뿐만

아니라 이 부문 로동자들은 중로동과 고열로동 그리고 유해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된다.

건설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만수대의사당을 비롯한 공공건물의 음향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건축색소, 내진구조, 내부철조콩크리트 등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토양부문과학자들은 전국적인 농경지토양에 대한 실태조사와 포전들에 대한 필지별산도, 다량원소 및 미량원소 분석사업을 끝냄으로써 모든 포전들의 류형을 규정하고 그 매력을 밝혀놓았다. 또한 4,000여개의 생산단위와 200여개의 군급농업지도기관 및 13개의 도농촌경리위원회들에 농업토양도와 농업화학표시도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과학자들은 식료공장들의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며 가정용펑동고생산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며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사회과학】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게 론증하고 광범히 해설선전하는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와 전국교육과학토론회, 수령님의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 열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그리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을 연구체득하기 위한 전국당간부양성부문과학토론회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과학토론회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전 과정에서 불멸의 업적과 경험을 이룩하신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수령님의 대안전기공장현지지도 열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내놓은 해설론문《김일성동지에 의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창조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발전에서 혁명적전환》, 중요산업국유화법령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내놓은 해설론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산업국유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우리 나라에서의 그 빛나는 승리》,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전국녀성사회과학토론회에 내놓는 론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구현한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는 녀성문제해결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을 비롯한 수많은 론문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혁명리론의 독창성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전국당간부양성부문과학토론회를 비롯한 여러토론회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또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해설선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력사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발표 서른네돐기념 전국 사회과학토론회와 무송현성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론증하면서 오늘 그이의 주체사상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그 위대성과 창조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데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있게 론증하기 위하여 그이의 로작발표기념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한 과학토론회들에서 연구성과를 종합발표하였다.

1971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발표 네돐,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발표 두돐,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발표 다섯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일곱돐, 《보건일군들의 당면과업》 발표 스무돐,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발표 다섯돐, 《보건일군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한다》발표 열돐,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임무》 그리고 《소년단사업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발표 다섯돐을 기념하여 전국사회과학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고유한 우리말을 살리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되는 어휘정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우리 말 다듬기》토론에서 종합된 의견들은 한자 말이나 외래어의 용어들을 고유한 우리말로 다듬는 훌륭한 밑천으로 되여 상당한 량의 학술용어와 일반용어들을 《표준말 초고(2)》로 묶는데서와 《표준말 초고(3), (4)》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였다.

문 학 예 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문학예술이 수행해야 할 사명과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값있게 맞이하기 위해 1971년에 온갖 힘과 지혜를 다바쳐 빛나는 충성의 창작적선물을 마련하여 왔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였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올리신 봉화따라 3대기술혁명과업과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기념일전으로 끝내기 위하여 혁명적정열로 들끓는 위대한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 훌륭히 구현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형상한 작품창작에 정열을 기울이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1964년 11월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으며 그 어느 해보다 집체적창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해에 우리의 예술인들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를 무대에 올림으로써 사회주의적가극예술창작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혁명적가극창작의 본보기를 만들어냈다.

1971년말~1972년초에 걸쳐 평양피바다가극단은 중국, 알제리, 로므니아, 쏘련을, 평양만수대예술단은 싱가포르, 버마, 인도, 프랑스를, 우리 나라 교예단은 벌가리아,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여 예술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금의 예술》, 《세계최고봉의 예술》의 명성을 다시금 온세상에 유감없이 떨치였으며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과시하였다.

평양피바다가극단은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를 가지고 중국에서만 하여도 두달이 넘는 방문기간 심양, 남경, 상해, 광주, 무한 등 도시들에서 50여차에 걸쳐 18만명이나되는 관중들앞에서 공연하였다.

평양피바다가극단의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를 본 모든 나라 사람들은 《혁명적인민, 혁명적예술》, 《조선민족문화예술의 꽃밭속에 솟아난 눈부신 아름다운 예술》(중국)로,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의 시발점, 본보기》, 《영생불멸할 대기념비적인 화폭》(알제리)으로, 《음악과 무용이 완전히 조화되여있는 훌륭한 종합예술》, 《상상을 초월하는 걸작》, 《가극분야에서의 일대 혁명》(로므니아)으로, 《혁명적내용의 주제를 가극의 쟌르에 훌륭히 구현한 《사회주의사실주의작품의 모범이며 모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완전무결한 예술작품》(쏘련)으로 절찬을 보내였다.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아세아의 커다란 영예》로 되는 조선예술, 《싱가포르력사에서 처음보는 큰 사변》으로,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사상예술성이 높으며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교양적인것으로서 세계예술의 표본》(버마),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민족적형식을 갖춘 그리고 자랑과 긍지로 충만된 훌륭한예술》(인도)로,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며 타락시키고있는 상품화된 예술에 대한 타격으로되며 예술이 나아갈 길을 가리켜주는 사변》(프랑스)으로 찬양하였다.

우리 나라 교예단은 또한 《독특하고 특출한 교예》, 《예술성과 사상성이 높은 교예》, 《힘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교예》로 명성을 떨치였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 예술에 대하여 일치하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의 가르치심밑에 창조된 아름다운 예술의 꽃》(중국)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불후의 걸작》(알제리)으로 부르면서 《예술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예술의 승리》(로므니아)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천금보다 귀중한 예술의 보물》을 보여주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심장으로부터의 사의를 표시》(쏘련의 로볼쉐비크)하여,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이 혁명과 번영에 대한 송가》(인도),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음으로하여 찬란한 빛발을 뿌리고있는 조선예술》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위대한 주체예술 만세, 혁명적예술 만세》를 웨치고있다.

평양피바다가극단은 쏘련으로부터 재초청을 받아, 평양만수대예술단은 영국공연협회를 비롯한 구라파의 여러나라의 초청을 받아 1972년에 또다시 국제공연의 무대에 오르게 되였다.

또한 1971년 12월 1~6일 꽁고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화상영주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를 원작대로 옮긴 영화 《피바다》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영화 《피바다》를 감상한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클로드 에르네스트 느달라는 《대를 이어가면서 두고두고 돌려야 할 훌륭한 대작》이라고 감명깊게 말하였다.

【문학 】소설문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11월 7일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소설부문에서는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소설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1971년에 우리의 소설분야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는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내놓은것이다.

이 소설은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안해이시고 가장 친근한 전우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시며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신 열렬한 공산주의투사이신 강반석녀사의 영광스럽고도 애국적인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통하여 우리 독자들에게 사람이란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분야에서는 1970년에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 《불타는 시절》을 비롯한 혁명적작품들을 내놓은데 이어 1971년에 장편소설 《준엄한 겨울》, 《투쟁의 노래》, 《불타는 항구》 등 수많은 혁명적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준엄한 겨울》은 일시적후퇴시기에 적후에 남게된 조선인민군 세 정찰병이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신 영용한 투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편소설《락동강》은 전쟁초기 원쑤놈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신속히 반공격에로 넘어가 짧은 기간에 락동강계선까지 진격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담고있다.

작가들은 이 작품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업적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묘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후 강철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 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을 형상한 장편소설《백양나무》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배려밑에 일본으로부터 조국에 돌아와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동포들의 생활을 내용으로한 중편소설 《조국의 품속에서》 그리고 중편소설인 《종소리》, 《새생활》, 《빛나는 세대》를 비롯

하여 천리마기수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도 1971년에 수많이 창작발표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도 많이 나왔다.

그 가운데는 1960년 4월 인민봉기로부터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남조선교원가정 출신의 녀대학생이 점차 각성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는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 《투쟁의 노래》와 남조선부두로동자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내용으로한 장편소설 《불타는 항구》가 들어있다.

시문학: 1971년에 시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도록해설가사 64편을 집체적으로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중요단계별 력사적사실을 시에 담아 집체작들인 《혁명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 《포평나루가에》, 《새날의 서곡이 울려퍼진다.》, 《불패의 무장대오》, 《조국광복의 기치》, 《보천보의 불길》, 《대사변을 앞에 두고》, 《민족재생의 봄》, 《성스러운 당의 기치여》, 《전승의 날 아침》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또한 시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올리신 회천의 봉화따라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기념일전으로 끝내기 위하여 떨쳐나선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현지창작을 조직진행하였다.

아동문학: 1971년에 아동문학부문에서는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 서사시《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인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로하여금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장편소설 《배움의 천리길》에서는 어린시절 수령님께서 홀몸으로 팔도구로부터 만경대까지 걸어나오신 로정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였으며 서사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조선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집체창작, 4장 맺음시로 구성)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키워주고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의 고매한 덕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경모의 정을 담아 노래하였다.

아동문학부문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성장한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형상한 중편소설 《유격근거지 소년들》, 항일무장투쟁시기 강도일제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밀영으로 찾아가 그이의 품속에서 용감한 아동단원으로 자라는 과정을 형상한 중편소설 《밀영으로 가는길》을 비롯하여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도 수많이 내놓았다.

작은 형식의 가치있는 아동문학작품들중에는 한유자녀에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를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함박눈 내리는 날》과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 새날소년동맹원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그린 단편소설 《빛나는 아침》이 들어있다.

조선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어린시절을 내용으로 한 가사 20여편을 집체창작하여 가요집《만경대》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으며 《황철나무아래에서》, 《다락방의 불빛》, 《봉화리로 가는 길》등의 동시들도 1971년에 창작발표된 작품들중에서 가치있는것으로 우리 아동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하였다.

평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와 발전에서 혁명적평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평론의 당성원칙을 지키는것은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높이며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따라 이 부문일군들은 평론의 당성원칙을 고수하며 선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그이의 혁명적문예사상을 깊이있게 연구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사상》,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에 이바지할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의 전형창조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민족문화유산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비롯한 수많은 가치있는 글들을 내놓았다.

그밖에 평론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성격》, 《혁명화과정의 형상과 생활묘사》,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묘사》 등 작품평을 통하여 작가들의 작품창작에 선도적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음악】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것이 바탕으로 되여야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52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1년에 우리 음악가들이 작곡한 수많은 가요들은 모두 그 주제사상이 혁명적일뿐만아니라 곡조가 우리의 고유한 민족음악을 바탕으로하고 오늘의 시대 감정과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수령님께서 1966년 4월 30일 작곡가들을 만나시여 가요창작과 관련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신때로부터 1971년에 이르는 5년간 우리의 작곡가들은 가요 《김일성원수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수령님 손길따라 승리하리라》,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충성의 마음 수놓아갑니다》, 《오직 한마음》,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올기강기슭에서》, 《10대정강의 노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한없이 좋네》를 비롯한 수많은 성과작들을 내놓았다.

우리의 작곡가들은 1971년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도록해설가요 64편과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해설가요 100편을 창작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음악부문에서는 혁명적인 가요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며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구현할데 대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께 충성다하리》, 《영원히 받들어 충성하리라》, 《회천의 봉화따라 힘차게 달리자》, 《모두다 석탄고지점령에로》, 《지방산업 꽃피우세》를 비롯한 수많은 가요들을 창작하였다.

작곡가들은 1971년에 《영화주제가집》, 《양악기악곡집》, 《민족성악교측본》 등 수많은 악곡집들과 가요집들을 내놓았다.

【미술】 미술가들은 1971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미학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조선화, 유화, 출판화들과 공예, 산업미술, 무대 및 영화 미술 등 우리의 모든 미술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미술의 당성, 로동계

급성, 인민성의 원칙과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의 요구를 옳게 살리면서 혁명적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1971년에 창작된 조선화와 유화 작품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미술작품들은 밝은 색채의 대비와 조화, 풍부한 명암의 변화와 통일, 간결하고 힘있는 형태묘사, 함축성있는 구도들을 조성하려는 미술가들의 한결같은 기도를 찾아볼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오는 간결하고 선명한 특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반영한 작품들중에서 조선화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부모님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수력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이 차를 〈자주호〉라고 합시다》, 《예술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당은 동무들을 믿소》,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소》, 《이른 새벽 조선소에 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붉은기중대칭호를 받은 군인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한전사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인민군장병들속에 계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유화 《장군님의 품에 안긴 마안산아동단원들》, 《저수지터전을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출판화 《길림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공예 《파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같은 작품들은 특히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용하게 싸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화한 미술작품들중에는 조선화《진격의 나루터》, 《난관을 뚫고》, 《습격》, 유화 《해방된 거리에서》, 《10월인민항쟁》등이 들어있다.

이해에 창작된 미술작품들중에는 조선화 《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진단》, 《남새밭》, 유화 《농장벌의 저녁》등 사회주의제도하의 우리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함께 유화 《백두산천지》, 《보통강의 초여름》,《삼지연의 가을》을 비롯한 풍경화들도 적지 않다.

1971년에 조형미술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두돐을 기념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담아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대홍단벌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건립하였다.

높이 35메터의 이 대기념비적창조물은 통일적으로 조화된 여러가지 구조물과 화강석으로 높이 쌓아올린 탑의 정갈한 모습이며 붉은 돌기단벽이 초록색 숲과 대조되면서 보다 아름다운 예술적조화를 이루어 만사람의 눈길을 집중시키고 숭고한 사상감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아하고 독창적인 예술적형식을 갖춘 기념탑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땅에 또다시 승리의 홰불을 높이 올리신 거대한 력사적사변을 주제로 하고있으며 국내 깊이에 진공하시여 적들을 제압하시고 인민들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청사에 길이 빛날 투쟁업적, 고매한 덕성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선렬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영웅적투쟁모습과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종합적으로 보이고있다.

산업미술부문에서 창작한 《텔레비죤중계차》, 《대형불도젤형태도안》 등은 참신한 구성과 세련된 형태미와 색채의 아름다움으로하여 사상예술적가치를 더욱 돋구었으며 공예작품 《항일빨찌산 무늬꽃병》, 《황금산》등에서는 형상성과 기능적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공예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무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를 경축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고 혁명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바람에 큰것부터 먹자고 했는데 대작을 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작은 작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무용부문에서는 1970～1971년에 이르는기간 군무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5인무 《샘물터에서》, 군무 《전사와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무용소품들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군무 《눈이 내린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안고 울부짖는 눈보라를 헤쳐나아가는 항일유격대원의 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나서도 그를 뚫고 나아가는 그길이 바로 조국광복과 잇닿은 길이라는 거대한 사상을 주고있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지상락원이 어떻게 이룩되였는가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7월 21일 예술영화《우리가 부르는 노래》(《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고 주신 교시에서 군무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와 같은 작품들은 혁명적인 내용에 예술적품위를 가진 고상하고도 우아한 무용으로서 전형적으로 아주 잘된 작품들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무용분야에서는 혁명적인 소품창작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하면서 1971년에 군무 《백두산에 장군별이 솟는다》,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였네》, 가무 《3대기술혁명 꽃피워가네》, 무용 《협동벌의 풍년맞이》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무용작품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하였다.

【무대예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품을 써야 사람들에게 과연 혁명이란 파란곡절이 많구나 하는것을 깨닫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랑만주의정신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감옥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4권, 149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예술인들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를 1971년에 무대에 올렸다.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는 일제침략자들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위대성과 정당성, 이 로선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 그리고 우리 인민과 혁명투사들의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거대한 예술적일반화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확증한 불후의 명작이다.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는 원작의 이 모든 거대한 사상들을 훌륭하게 째인 극적구성과 우아하고 고상하며 아름답고도 혁명적인 민족적음악형상과 위력한 사실주의적일반화의 힘으로 훌륭히 구현되였다.

이 작품은 계급사회의 산물인 종래

의 가극이 가지고있던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형식들을 철저히 없애고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음악형식, 무용형식과 미술형식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오늘의 우리 인민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현대화함으로써 가극창작에서 종래의 가극과는 전혀 다른 우리식의 가극형식을 완성하였다.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는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혁명적세계관형성발전과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예술적일반화의 면에서나 가극의 구성과 극작술면에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였다.

가극은 대화체를 가사화하고 대화창을 절가화함으로써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선명하게 표현할수 있으며 부르기도 쉽고 혁명하는 시대의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가극을 창작할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있다.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는 원작에 담겨진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나 예술적형식의 독창성에 있어서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전무결하게 결합된 점에있어서 사회주의적가극예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혁명적가극의 시발점으로 되며 그의 빛나는 본보기로 된다.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조집단은 1971년에 인민상계관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창조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 가극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 간호원이 헤아릴수 없이 엄혹한 시련과 고난을 뚫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가극은 한 간호원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원이란 경애하는 수령님과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 지어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이라는 것을 감명깊게 밝히고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에 의하여 개척된 새형의 혁명적가극창작원칙 즉 우리의 절가, 우리의 방창, 우리의 무대예술과 무용에 의한 가극창작원칙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형상의 심도와 폭을 더욱 높은 경지에 끌어올린 혁명적대작이다.

또한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학생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스물다섯돐이 되는날을 맞이하여 인민상계관작품 장막시극《보통강의 서사시》를 무대에 올렸다.

【영화】 김일성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이 인민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이바지하려면 그들에게 혁명투쟁방법을 가르쳐주며 혁명적정열과 계급적각성을 높여주도록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의 주인공은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사람이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으로, 헌신적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하고야 마는 그런 생활과정을 잘 그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575페지)

영화예술부문에서는 1971년에 예술영화 《로동가정》(전후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영화들과 기록영화들을 만들었다.

인민상계관작품 광폭예술영화《로동가정》(조선예술영화촬영소제작)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현실주제작품창작에 관한 그이의 주체적미학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기념비적작품이다.

영화는 대를 이어 광산로동을 하여왔으며 오늘도 온 집안이 한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한 가정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사상혁명이 어찌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심오한 예술적대답을 줌으로써 시대와 인민이 문학예술앞에 맡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작품은 사회주의현실주제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 로동계급의 전형창조문제를 사회혁명화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해결한 높은 사상주제적내용과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의 사회관계의 본질에 맞게 인간관계를 새롭게 반영한 독창적인 극작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본성에 맞게 생활을 진실하고 심오하게 구현한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영화예술발전에서는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 크게 공헌하였다.

1971년에 나온 혁명전통주제분야의 작품으로서는 예술영화 《빨간댕기를 찾는 소녀》(조선예술영화촬영소제작)를 들수 있다.

이 영화는 모든 난관을 뚫고 조직에서 주는 통신련락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야마는 주인공 순옥이의 용감한 모습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원들이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피어린 싸움속에서 어떻게 혁명의 불사조로, 미래의 새 조국을 떠메고 나갈 기둥으로 자라났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조국해방전쟁주제분야에서 예술영화 《태백산에 봄이 온다》(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제작)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 적후에서 활동하는 인민군부대전사들에게 솜동복을 보내주신 실제 있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으로서는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 《목란꽃》(전후편), 《빛나는 별들》, 《종소리 울린다》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기관사의 아들》 등 수많은 예술영화들이 나왔다.

1971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창조집단은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북청확대회의 열돐에 바치는 천연색예술영화《사과딸때》를 만들어 내놓았다. 이 영화에는 나라의 과수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북청확대회의의 거대한 생활력이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또한 영화에는 현시기 과수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파실의 가공문제가 잘 반영되고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이 생동하고도 진실한 형상에 의하여 정확히 밝혀지고있다.

이 해에 나온 천리마현실주제의 작품들중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 《포구의 처녀들》,《밀림의 청춘》, 《학부형》 등과 함께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두 작업반장과 두 전사》, 《누구의 탓인가?》 등이 들어있다.

기록영화부문에서는 1971년에 《오늘의 대안》(천연색), 《가금업에 깃든 어버이사랑》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오늘의 대안》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감명깊게 보여주었으며 《가금업에 깃든 어버이사랑》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고기와 닭알을 풍족히 먹이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오늘의 발전된 가금업을 일떠세우신 불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근로대중속에서 문학예술활동】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분야에서는 근로대중속에서 각종 문학예술소조들을 광범히 조직지도하는 한편 문학, 음악, 미술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신인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사업을 널리 진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작가동맹에서는 신인문학작품현상모집을, 영화문학창작사에서는 신인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을, 연극인동맹에서는 신인극문학작품현상모집을, 음악가동맹에서는 신인음악작품현상모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는 사로청 제6차대회를 기념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속에서 문예작품현상모집을 진행하였다.

작가동맹에서 조직한 신인문학작품현상모집에는 4천여편의 문학작품들이 응모되여 단편소설 《크레용화》를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70여편의 작품들이, 사로청에서 조직한 청소년문예작품현상모집에서는 60여편의 문학작품들과 50여편의 미술작품들이 당선되였다.

연극인동맹에서 조직한 극문학작품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들중에서도 희곡《새벽에 온 사람》, 《동트는 방목지》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가치있는것으로 높이 평가되였다.

작가동맹에서는 신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묶어 《심장의 노래》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집들을 내놓았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문예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은 전국예술축전무대를 장식한 수많은 예술작품들에서도 힘있게 보여주었다.

군중문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근로대중속에서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군중문화사업은 당사상사업의 한부분으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박물관, 전람관, 기념관들과 극장, 영화관, 군중문화회관들은 근로대중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박물관】 조선혁명박물관: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된 조선혁명박물관은 평양만수대에 새로 건립되여 1972년 4월 24일 개관하였다.

보천보혁명박물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난공불락》,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일제의 군사정치적요새를 쳐부시고 암운이 드리운 조국땅우에 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신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 자리잡고있다. 이 박물관은 1955년 8월 7일 이곳에 모신 김일성동지의 동상제막식을 계기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친히 이끄시여 일제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준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를 비롯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중요한 국내작전과 소부대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에 개선하실 때까지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면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원쑤 일제와 싸워이기신 불멸의 투쟁업적들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은 개관후 여러차례에 걸쳐 새로 발굴된 귀중한 자료들로 보충진렬되였다. 1963년 보천보전투승리 스물여섯돐을 계기로 현대적인 새 건물이 세워지고 사적과 유물 자료들이 보충정비되였다.

보천보혁명박물관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투쟁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항일빨찌산투사들의 충실성으로 우리의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교양하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움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민속박물관: 1956년 2월에 창립되였다.

이 박물관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전람관을 1970년에 새로 꾸리고 개관하였다.

전람관 진렬실의 첫부분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병영과 행군, 숙영조직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신 초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변화발전된 유격대원들의 병영형태, 마당거우밀영의 내부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갖추어져있으며 대원들의 규률생활, 학습과 군사훈련의 형식과 방법, 숙영조직의 형태와 방법 그리고 유격대에서 조직한 여러가지 행사의 형식과 방법, 례절형식을 보여주는 모형들과 사진, 그림 등 자료가 전시되여있다.

진렬실의 다음부분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음식과 작식대원들의 생활, 병원과 병상자치료에 관한 경험자료들이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전람관의 전시품들은 우리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생활기풍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미술박물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된 이 박물관에는 기원전 3~4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사이의 우리 나라 미술유산들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형예술작품들이 시대별, 종류별로 나뉘여 전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5년 8월 11일에 주신 현지교시와 1966년 10월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보시고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1년에 이 박물관에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선화, 유화, 선전화, 출판화, 공예품, 산업미술 등 현대미술작품들을 수많이 보충전시하였다.

박물관에서는 1971년에 제11차 국가미술전람회를 열어 조선화를 비롯하여 유화, 출판화, 공예, 산업미술, 무대및 영화 미술 등 650여점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하였다.

전시된 미술작품의 화폭들은 근로자들로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며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사회

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한다.

신천박물관: 1958년 8월에 창립된 이 박물관에는 미제침략자들이 100여년전부터 감행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와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는 자료들,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신천군에서 수만명의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폭로하는 실물과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전시된 모든 자료들은 미제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을뿐아니라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박물관에 있는 모든 실물과 자료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하며 세계 각국에서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싸울 투쟁정신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력사박물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된 이 박물관에는 원시사회로부터 19세기까지의 기간의 력사적유물들과 자료들이 원시사회(원시군, 모계씨족사회, 부계씨족사회), 노예사회(고조선), 봉건사회(세나라시기, 신라와 발해시기, 고려시기, 리조시기)의 순서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기념관】당창건기념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에 개선하신후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집, 우리 당중앙이 처음으로 자리잡고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신 력사의 집에 꾸려져 1970년에 개관하였다.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당 및 국가 건설의 복잡한 사업들을 조직지도하신 사무실들, 그이께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인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여 혁명의 앞길을 가리켜주시고 나라일을 상론하신 응접실과 회의실 그리고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계시며 검소한 생활을 하신 숙소 등 유서깊은 사적들이 기념관에 자리잡고있다.

기념관에는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으시던 때로부터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때까지의 그이의 혁명활동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보여주는 수백점의 자료들이 7개의 진렬실들에 체계적으로 전시되여있다.

1~3호실에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몸소 조직령도하신 전행정을 통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와 대중적지반을 마련하며 당창건구상을 어떻게 실현하시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들과 그이께서 조국에 개선하신후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신데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4~7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한 자료들과 함께 그이께서 당을 창건하신후 당을 더한층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귀중한 자료들이였다.

기념관의 2층에는 수령님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하시던 당시에 쓰시던 사무실, 응접실, 서재와 회의실이 옛그대로 있다. 이 회의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하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회의도 가지시고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에도 자주 출연하시였다.

기념관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시킬뿐만아니라 우리 당 건설의 빛나는 력사와 고귀한 경험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조국해방전쟁기념관: 1953년 8월에 창립되였다. 기념관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1950—1953)에 거둔 위대한 승리와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기념관의 첫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그것을 직접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창건 및 그 강화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를 비롯한 수많은 실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다음부분에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 전략전술,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자료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전시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 대한 자료들이있다.

기념관의 셋째부분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별, 병종별 군인들의 영웅적투쟁자료들과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력사상 류례없는 야수적만행과 그 패망상을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기념관은 우리 인민들과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사람들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을 따라 배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군중문화회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문화휴식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군중문화회관과 영화관은 중앙과 각도, 시(구역), 군들에 그리고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마다에 설치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군중교양에서 영화가 노는 위치와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영화보급방법의 구체적인 방도와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1968년 7월 4일 또다시 영화관과 문화회관을 통한 사상교양과 군중문화사업에서 리정표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중문화회관들에서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학술강연, 위생강연, 시사강연 등을 30~40분씩하고 그 뒤에 예술소조들의 공연도 하고 명배우도 출연시키며 영화도 돌리면 매우 흥미있어 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평양시에만도 전문 극장, 영화관외에 180여개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문화회관이 있으며 수도시민 한사람당 극장, 영화관 관람석수와 관람회수에 있어서 당당히 세계적수준에 올라있다.

대중정치문화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문화회관들에서는 강연회, 전시회, 전람회, 영화상영과 감상모임, 독서발표회, 독주회, 독창회, 시랑송회, 명배우출연, 예술소조운영과 공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전국의 문화회관일군들은 회관에서 여러가지 정치문화사업을 끊임없이 벌리는 한편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와 가두 인민반들에서 예술소조활동

을 활발히 벌리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4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열돐기념 북청군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시고 공연을 잘한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다.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이 도서관은 관내에서의 도서열람과 함께 대출, 독자모임, 참고문헌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여 독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문화수준제고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전국의 시, 군 도서관들에 대한 도서관운영에 대한 방법적인 지도사업도 조직진행한다.

이 도서관에는 1971년말현재 227만부의 도서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1971년말현재 3만 2천여부나 장서하고 열람, 대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도서관은 세계 100여개의 나라 출판기관 및 도서관들과 도서관계분야에서의 런계를 가지고 있다.

1971년에 이 도서관은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였다.

창립이래 25년동안 이 도서관은 수령님의 로작을 안내하는 사업, 로작해제사업, 로작전시회, 혁명전통교양자료연구발표회, 읽은책감상발표회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1년에 이 도서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열렬한 녀성혁명투사이신 강반석녀사탄생 일흔아홉돐을 맞이하여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읽은 독자모임과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돐기념독자모임을 진행하였다.

시(구역), 군 도서관: 우리 나라에는 모든 시, 군들에 도서관들이 있으며 동, 리들에도 도서 열람실이있다. 또한 도시내 매 구역들에는 어린이 도서관들이있다.

이 도서관, 열람실들에서는 관내에서의 도서열람과 함께 대출사업 그리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찾아가 수령님의 로작을 비롯하여 독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책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기술, 문화수준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전람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1956년 5월에 창립되였다. 전람관은 당의 강유력한 대중교양기관으로, 경제선전기관으로, 현대기술문명과 과학지식의 보급기지로 전국의 경제전람관들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1971년에 이 전람관은 창립 열다섯돐을 맞이하였다.

하루에도 2천여명이 찾아오는 이 전람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전시물에 종합적이며 집약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전람관의 중공업부문에는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반자동나사연마반, 고속도만능선반, 프로그람 선반을 비롯한 최신공작기계들과 발전설비들, 채취공업설비들, 여러가지 강종과 강재들이 진렬되여있다.

또한 양수설비들과 디젤기관, 전기기계공업의 창설과 그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실물들, 기본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상화,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산업, 도시, 농촌 건설을 력사상 류례없는 빠른속도로 진행한데 대한 실물과 자료들이 있다.

경공업부문에는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만든 여러가지 옷감과 일용품, 식료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전람관에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실물과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전시되여있다.

어머니전람관: 1961년 11월 17일에 창립된 이 전람관은 우리 어머니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자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얻은 경험과 방법들을 어머니들에게 배워주는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1971년에 전람관에서는 관내에서의 사업과 함께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공산주의자이시며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각자이신 강반석녀사의 생애와 혁명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들에 찾아가 이동전람회를 널리 조직진행함으로써 우리 어머니들로하여금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워 자녀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일군으로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평양학생소년궁전】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63년 9월 10일에 창립되였다. 이 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종합적인 학교로, 과외교양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궁전에는 500여개의 연구실과 활동실들, 100여개의 연습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그리고 1,300개의 관람석을 가진 극장, 1천여명의 관람군중이 들어가며 계절에 관계없이 종합체육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관, 수십만권의 책이 갖추어져있는 도서관, 1천여명을 수용하는 유희오락실이 있으며 궁전밖에는 체육경기장, 기상관측장, 자동차운전실습장, 작은 동물사, 실습포전들이 갖추어져있다.

궁전에서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소조를 비롯한 사상정치교양부문연구소조들과 물리, 화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연구소조들 그리고 문화교양부문연구소조를 비롯한 100여개의 소조가 박사, 학사, 기사, 전문가, 예술인들의 지도밑에 활동하고있다. 이 소조들에는 1만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매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예술 등 각 부문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궁전창립 이래 자동차, 뜨락또르를 훌륭히 운전할수 있게된 학생들만보더라도 매해 1천명이 넘는다.

1971년에 궁전의 대중정치활동실과 군중문화부일군들은 여러학교 학생들로 《소년선전예술대》를 조직하여 천리마강선제강소, 신창탄광, 삼신탄광, 시내건설장들을 순회하면서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게 하였다.

궁전일군들은 창립이래 1971년에 이르는 기간 《학생소년무용기본》, 《학생탁구리론》 등 400여건의 경험집과 론문, 창작품들을 써서 전국에 보급일반화하였으며 각종형태의 강습, 방식상학, 모범경기들을 200여차에 걸쳐 조직진행하여 궁전을 전국의 과외교양기지, 과외활동의 보급기지로, 거점으로 되게하였다.

궁전이 개관된 이후 수백만명에 달하는 학생소년들이 이곳에서 한가지이상의 전공기술과 일반지식을 배웠고 각종 대중정치활동에 참가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났다.

【극장】 평양대극장: 1960년 8월에 준공되였다. 이 극장은 아름다운 민족적형식과 사회주의적내용에 현대적건축기술을 잘 배합한 웅장한 건축물로

서 인민을 위한 문화의 대전당이다.

여기에는 2천 300여석의 관람석 772평방메터의 기본무대와 3개의 보조무대, 260개의 배우실을 비롯한 각종 무대시설과 기술설비들이 완비되여있으며 현대적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2월 5일 사로청창립 스물다섯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예술소조종합공연과 3월 4일 토지개혁법령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종합공연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공연들을 이 극장에서 보시였다.

1971년에 이 극장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피바다》와 조선인민군협주단 창조집단이 출연한 인민상계관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딸》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공연되였다.

천리마국립연극극장: 연극창조에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이 극장에서는 천리마국립연극단이 배속되여 사업하고있으며 혁명연극창조를 위하여 만경대창작단이 사업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극장에 열여덟차례나 나오시여 현지지도를 하여주시였으며 그때마다 작품, 연출, 연기, 지어는 배우들의 의상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였다.

이 극장의 천리마국립연극단은 1971년 10월 14일에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공동축하문을 받았다.

이 극장의 만경대창작단은 1971년에 인민상계관작품들인 혁명연극 《푸른소나무》와 혁명연극《혁명의 새아침》을 무대에 올려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립교예극장: 이 극장에는 교예예술의 특성에 맞게 어떤 종목의 교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원형무대, 일면무대, 공중무대가 합리적으로 배치되여있으며 원형무대에서는 계절을 가리지않고 수중교예, 빙상교예도 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 극장에는 국립교예단이 배속되여 사업하고있다.

1971년에 교예단은 새로운 교예종목들을 수많이 창조하여 《종합교예》공연을 진행하였다.

【예술축전】 1971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아홉돐을 기념하는 전국음악무용소품축전,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 조선소년단창립스물다섯돐기념 제10차 전국학생소년방송예술축전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축전들이 진행되였다.

축전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찬란히 꽃피고있는 우리의 혁명적예술의 급속한 발전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1년 5월 14일 영예군인 모범무대공연을 직접 보아주시고 공연에 출연한 영예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녀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전국녀맹예술소조원들의 음악서사시극《조선녀성의 노래》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공연을 보시였다.

전국음악무용소품축전(1971년 4월): 중앙예술단체와 각도 가무단들이 참가한 이 축전에는 합창, 중창, 독창과 군무, 쌍무, 독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음악과 무용 소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축전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우리의 음악과 무용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1971년 2월): 축전에는 11개의 도(직할시)농업근로자종합예술소조가 참가하였다.

심사결과 단체 1등으로 평북도농업근로자종합예술소조, 작품 특등으로 가무《수령님동상앞에 붉게 핀 진달래》(자강도 희천시 역평협동농장예술소조), 작품 1등으로 13개종목, 2등으로 17개종목, 3등으로 24개종목이 당선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기념 제10차 전국학생소년방송예술축전(3월～7월): 축전에는 1천 680개의 인민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소년들 3만 4천여명이 2천 686종목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심사결과 1등에 26종목, 2등에 52종목, 3등에 82종목의 작품이 당선되였으며 5명이 소개, 연기, 지휘상을 그리고 50명이 창작 및 로력상을 받았다.

【전람회】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기념 사진전람회(1971년 10월, 만수대의사당): 전람회장에는 어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이 걸어온 자랑찬 투쟁로정과 그들의 행복한 생활모습들을 보여주는 근 400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기념 사진전람회(1971년 12월, 만수대의사당): 조선직업총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로동계급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직업동맹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과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밑에 우리 근로자들이 누리고있는 보람찬 생활을 보여주는 40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체 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건장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1969년 11월 4일 체육인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것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힘있게 벌려야 할 문화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시였다. 뿐만아니라 특히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의 견지에서도 인민들의 체력을 전반적으로 증진시켜야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체육을 대중화하고 전체 인민의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문체육인 대렬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체육의 모든 종목에 걸쳐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문화발전을 위하여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적인 지도를 하여주시였으며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고 체육선수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1971년에 체육부문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전체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주체적인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아침체조, 생산체육】 각급 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장, 기업소, 농촌, 학교, 사무기관 그리고 합숙, 인민반들에 이르기까지 아침체조와 업간체조를 정상화하는 기풍을 확립하였다. 아

침체조는 달리기와 아령, 곤봉 등 여러가지 아침운동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면서 점차 그 수준을 높여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체력검정에 합격하도록 하였으며 업간체조에서는 직업적특성에 따라 피곤을 푸는 여러가지 운동들을 조직진행하였다.

인민경제 각부문들에서는 수령님께서 직접 발기하신 독창적인 체육형태인 뜨락또르경기, 절삭경기, 굴착기경기, 모내기경기, 김매기경기, 가을걷이경기 등 생산경기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천리마시대의 새 기준, 새 기록을 낳았다.

각급 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특히 로동계급속에서 군중체육활동을 생활화, 제도화하면서 생산경기를 널리 벌리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경기는 채취공업부문 특히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중로동부문과 기계화수준이 낮은 부문들에서, 그밖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널리 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창의고안을 촉진시키고 로동을 보다 흥겹게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높은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였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도 농업생산의 계절적 및 생산조직의 특성에 맞게 생산체조를 널리 보급하고 생산경기를 힘있게 벌리여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 하였다.

【국방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각급체육기관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및 기후적 조건과 현대전을 이겨낼수 있는 신변기재에 의한 대중국방체육을 부단히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모형항공, 무선통신, 자동차, 뜨락또르 등 군사기술기재에 의한 국방실용체육을 널리 보급하였다.

공장, 기업소, 사무직장들에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장, 작업반 단위로 달리기, 등반봉오르내리기, 바줄오르내리기, 장애물이겨내기, 수류탄던지기, 강건느기 등 국방체육훈련을 조직진행하였으며 학교들에서는 등산, 행군, 헤염치기, 배타기 등 국방체육과 해양체육을 널리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험악한 산악과 강하천습지와 같은 자연장애물을 능숙하게 극복하며 현대전의 어떠한 정황속에서도 민첩하게 행동할수 있는 체질과 강의한 혁명적기질을 키워나갔다.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1967년 9월에 각도마다 3~5개씩 조직된 국방체육구락부들에서는 1971년에 1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사격, 격검, 모터찌클, 자동차, 뜨락또르, 무선통신 등 국방체육훈련을 적극 진행하여 그 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였다.

【인민체력검정】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협동농장과 학교들에서는 1971년에 인민체력검정대상자들을 재등록하고 훈련조를 무어 《인민체력검정에 관한 규정》에 있는 종목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여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파견한 인민체력검정원의 참가밑에 자기 기관단위로 판정사업을 진행하였다.

각급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의 정치조직적수준을 더욱 높여 인민체력검정참가자대렬을 해마다 장성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력지수를 체계적으로 높이였다. 이와 함께 인민체력검정국가판정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시, 군 및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협동농장, 학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로동계급속에서 인민체력검정합격자대렬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이해에 교육부문에서는 2중천리마북청고등원예전문학교가 10여년간 모든 학생이 100% 합격하였으며 세번에 걸쳐 전국적으로 제1위를 하였다.

【학교체육】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지덕체교양의 현명한 교육방침에 따라 각급학교들에서는 과정안에 의한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외체육활동을 정상화하여 청소년학생들속에 체육을 하나의 과학지식으로 되도록 체계화, 제도화하여 학교체육사업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켰다.

학교체육사업에서의 중심은 학생들의 키를 빨리 자라게하는 축구, 평행봉, 줄넘기, 헤염 등 체육종목과 탁구 그리고 국방체육, 교육과 결부된 체육들을 청소년학생들의 체질적 및 심리적 특성에 맞게,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진행하였다. 일요일과 기념일, 방학기간에는 등산, 행군 등 자체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공장, 기업소 등 각 기관들에서는 자기 시(구역), 군들에 있는 학교들을 분담하여 탁구장, 수영장 등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훌륭히 꾸려주었다.

우리 인민의 체질을 가장 우월한 민족적체질로 향상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속에서 키크기운동이 전국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진 결과 청소년들의 키는 평균키에 비하여 훨씬 높은 지표에 이르고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탁구선수후비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체육소조】 우리 나라에서는 군중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큰 공장, 기업소는 직장단위로, 협동농장은 작업반단위로, 대학은 학부단위로 체육소조를 광범히 조직운영하고있다.

천리마강선제강소의 경우 하나만 놓고보아도 3만여명의 관람석을 가진 종합운동장과 40여개의 직장 운동장에 수천점의 체육기자재를 갖추어놓고 수백개의 체육소조를 조직운영하고있다.

체육지도기관들에서는 소조책임자들을 위한 강습, 방식상학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그의 정치실무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군중체육에 대한 기술방법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자기의 체질과 취미에 따라 어느 한 체육종목소조에 망라되여 체력을 단련하고 한가지 이상의 체육종목기술을 가지게 하였으며 군중체육활동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도, 시, 군 체육구락부생대렬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체육훈련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며 구락부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한편 구락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하여 구락부생들을 모두 선수등급 5급이상의 수준에 도달시킴으로써 선수후비를 수많이 육성하였다.

【체육행사】 **집단달리기:** 1971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사로청 6차대회와 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전체 청소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편지전달이어달리기를 비롯하여 만경대, 봉화리, 보천보, 백두산 등 혁명전적지, 사적지에로의 달리기와 같은 많은 집단달리기가 진행되였다. 이러한 집단적체육활동은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과 당정책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였다. 각급 체육기관들에서는 집단달리기를 더욱 조직화하고 이에 광범한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참가시켜 그것이 점차 대집단적인 체육활동으로 되도록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사로청제6차대회와 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전체 청소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렬은 4월 1일 혁명전적지 보천보, 혁명사적지 웅기군, 영웅고지 1211고지를 비롯하여 판문점, 창성 등 5개지점에서 일제히 떠나 수령님께 각도(직할시)청소년들과 조선인민군 청년군인들, 청년사회안전원들 및 인민경비대내의 청년군인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편지를 이

어달리기대렬대표들이 6월 2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전달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기념하여 4월 11일에 열린 제11차 《만경대, 봉화리이어 달리기》경기대회는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및 체육인들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개구간을 이어달리였다.

집단체조: 해마다 중앙과 도, 시, 군, 각급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집단체조에는 100여만명에 달하는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는 광범한 규모로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여차례나 집단체조를 직접 지도해주시였으며 그때마다 작품의 정치사상적내용으로부터 체육예술적기교문제와 훈련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집단체조는 급속히 발전하여 인민상계관작품 집단체조《천리마조선》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로동당시대》 그리고 《독로강반의 새노래》, 《압록강반의 새노래》를 창조한데 뒤이어 1971년에 또다시 대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내놓았다.

사로청 제6차대회를 경축하여 진행된 대집단체조《로동당의 기치따라》(서막과 7장, 종막으로 구성)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청년운동이 승리적으로 발전하여온 자랑찬 로정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그 한길우에 충성의 꽃을 피워온 우리 나라 청년들의 빛나는 위훈을 높은 체육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였다.

우리 나라 집단체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나라들에 광범히 보급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일성수상님이 령도하시는 시대에 낳을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작품》으로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최대의 찬사를 받고있다.

【체육기술향상】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선수들은 우리 인민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기술전술을 완성하기 위해 육체훈련과 기술훈련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맹훈련을 진행하였다.

체육과학부문에서는 체육과학연구사업체계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우고 광범한 사회적열성자들과 린접부문과학자들도 광범히 참가시켜 우리 나라 체육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새로 포치하는 종목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체육기술발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조선사람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기술과 전술을 창조하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녀자배구와 축구, 탁구, 빙상, 궁술, 중경기의 경량급을 비롯한 많은 종목이 세계적수준에 확고히 도달하였다.

1969년에 평양에서 열렸던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축구경기대회에서 단연 제1위의 성적을 쟁취한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은 1971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20차 하기올림픽 아세아지역3조 축구예선경기 대회에서도 수리아아랍공화국 축구선수단과 대전하여 적극적인 대기동과 경기중심을 크게 변화시키는 전면공격에 의하여 상대방의 밀집방어체계를 허물어버리고 1대 0으로 승리하였다.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들은 1969년 8월 벌가리아에서 열렸던 국제녀자배구경기에서도 단연 1위를 쟁취함으로써 세계녀자배구계의 패권자로 등장하였다.

탁구기술도 급속히 발전하여 197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제31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녀단체 제1차예선련맹전 《지》조에서 우리 나라 탁구선수들은 싱가포르와 애급 선수단을 물리치고 제1위를 쟁취하였다. 1971년 5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군대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 나라선수는 52키로그람급 경기에 출전하여 단연 제1위를 하였다.

【주요체육경기】 국내경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녀맹 제4차대회경축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가 1971년 10월 14일 모란봉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각 도(직할시)선수들이 출연하는 활공기견인편대비행, 모형항공기교예비행, 무선조종식모형항공기비행, 활공기라선강하비행, 락하산강하활공기특수비행, 박격포화력복무경기, 위생경기, 재봉기분해결합경기, 장애물이겨내기경기, 독해물이겨내기경기, 무기분해결합경기 등 모범경기들과 도(직할시)대항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수령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기념하는 1971년도《만경대컵》 체육경기대회(4월, 평양), 1971년도 전국스키선수권대회(12월 21~26일, 삼지연), 1971년도 체육선수단빙상혹케이선수권대회 (12월 19~22일, 강계), 제10차 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8월 22~25일, 원산),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세돐기념《일당백상》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2월,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 《9.9절우승기》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9월, 평양, 신의주, 신천), 《조국통일 마라손》경기대회(4월, 평양), 체육선수단 빙상혹케이경기대회(1월 16~18일, 평양)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전국학생스케트경기대회(1월 24~30일, 강서군 청산리), 전국중학생수영경기대회(8월 15~19일, 평남도 문덕군),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 전국대학생 스케트및 스키경기대회 (2월 7~22일, 혜산) 등 수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였다.

국제경기: 1971년에 진행된 삿뽀로준동기올림픽경기대회 녀자속도빙상경기(2월 13~14일, 삿뽀로시 마꼬마나이빙상경기장)에는 우리 선수단을 비롯한 6개선수단에서 14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는 내외반동들의 온갖 정치적모략책동을 극복하고 3천메터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제3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3월, 일본나고야시 아이찌현체육관),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체조경기대회(뽈스까, 2개금메달, 2개은메달, 1개동메달받음),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력기경기대회 (벌가리아, 3개금메달, 4개은메달, 2개동메달받음),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속도빙상경기대회(베를린, 2개금메달, 3개은메달, 2개동메달받음, 남자1천 500메터경기에서 제1위)에 참가하여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1971년에 진행된 제5차 세계예술체조선수권대회(11월 11~14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는 세계의 17개나라들에서 온 150여명의 예술체조선수들이 참가하였는데 우리 나라 선수들은 단연 제1위를 차지하여 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이밖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사회주의나라군대 유술선수권대회(9월 24~27일, 평양, 2개금메달, 3개은메달, 4개동메달받음), 사회주의나라군대 력기선수권대회(5월 19~22일, 모스크바), 사회주의나라군대 페스링선수권대회(2월 26~28일 몽골인민공화국의 수도 울란바따르), 사회주의나라 군대들간의 제10차 군사3종경기 선수권대회(베닌그라드, 1개금메달, 2개은메달, 3개동메달받음, 단체종합성적에서 제1위)들에 참가하여 각각 우수한 성적을 올리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아세아, 아프리카탁구친선초청경기대회 (11월 2~14일, 베이징, 남녀혼성복식

경기와 소년남녀단식경기, 로선수들의 남자단식경기결승전에서 각각 제1위를 쟁취)와 제20차하기올림픽 아세아지역 제3조축구예선(5월 28~6월 1일 평양)을 비롯한 수많은 경기들에 참가하여 자기의 우수한 체육기술을 시위하였다.

출판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출판보도사상과 혁명적출판물발간에서 이룩하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업적 그리고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 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당적출판보도물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과 기능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시고 출판물에서 주체를 세우고 출판활동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진실성을 높일데 대한 원칙들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 혁명과 건설에서 기자들이 노는 역할과 전투적사명, 출판보도사업발전을 위한 자립적인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과 인쇄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 등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당적출판보도물과 인쇄공업이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집단적선전자로, 집단적조직자로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기간에 수행해야 할 기술혁명과업을 밝히시고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출판보도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는 물론 농촌과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한가정에 한가지이상의 출판물이 들어가고있다. 1971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계탑건설이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져 당 제5차대회가 있은지 불과 1년남짓한 동안에 텔레비죤봉사지역은 전국적으로 주민세대의 76%에 이르렀다. 체신부문에서는 3년안으로 텔레비죤봉사지역을 주민세대의 100%에 이르게 할 목표밑에 중계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 해에 출판보도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당시에 창간하시고 발간하신 《새날》신문의 이름을 단 중학교학생소년을 위한 신문, 사로청중앙위원회기관지 《새날》이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창간 (4월 1일 첫호발간)되였다.

출판보도부문에서는 1971년에 조선중앙통신사창립 스물다섯돐(12월 5일)을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기관지《근로자》(12월 20일), 조선로동당출판사(2월 18일),《로동자신문》(2월 9일), 신문《로동청년》(4월 28일), 사로청출판사(5월 27일), 문예출판사(9월 6일), 신문《민주조선》(6월 3일), 교원선전수첩출판사(11월 24일)들이 창간 또는 창립 스물다섯돐을, 교통출판사 (12월 26일), 무역출판사(11월 29일)들이 창립열돐을 맞이하여 각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을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1971년 11월 29일 출판보도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기자, 편집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 공훈기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중앙통신사창립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기념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기자, 편집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11월 5일 평양대극장에서 조선중앙통신사 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과학, 교육,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로농통신원들, 시내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중앙통신사를 몸소 세워주시고 통신사가 나아갈 방향을 명시하시면서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 나라를 대변하는 중요한 국제적인 언론기관입니다. 통신은 우리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보도선전하는 동시에 국제적범위에서 일어나는 주요사변들과 국제생활들을 국내에 소개선전하여야 합니다.…

통신사의 사명을 밝혀주신 수령님께서는 통신사가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선전수단들가운데서도 예리한 중추신경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신보도의 정치사상성과 전투성, 신속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통신사창립이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750여차례의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모임참가자들은 1946년 11월 5일 그이께서 초기 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보도물의 빛나는 전통과 통신보도활동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맑스-레닌주의적통신보도기관인 조선중앙통신사를 창립하여주시고 그를 우리 당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위력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춘 가장 예리하고 민감한 보도선전의 초소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이날 모임참가자들은 우리기자, 편집원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편집원, 번역원,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의 축하문이 전달된 다음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국내의 많은기관, 기업소, 출판보도기관들에서와 외국의 많은 통신사들에서 보내온 축하문과 축전들이 전달되였다.

보고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편집원, 번역원, 통신보도사업에 복무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모임 참가자들은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출판보도일군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영원히 당의 기치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나갈것이며 우리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의 실현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11페지)

우리의 혁명적출판보도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언제나 자기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당출판사에서 1971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9년 7월 2일 계획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일원화계획화체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 5월 27일 도당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 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철할데 대하여》, 1968년 10월 2일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1964년 2월 20일 전국모범뜨락또르운전수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뜨락또르 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다》와 1962년 9월 24일 광산, 탄광 당위원장들과 지배인들앞에서 하신 연설《채취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당출판사에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회상실기들을 묶어 《인민들속에서》 9권과 10권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사로청출판사에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크게 11개부분으로 나누어 수록한 《위대한 수령을 따라 배우자》(5권)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통신】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 직속하는 유일한 통신보도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외선전사업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외통신으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방향 영문통신방송,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 방향 프랑스문통신방송, 라틴아메리카방향 에스빠냐문통신방송, 구라파방향 로문통신방송을 하고있다.

【방송】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 직속하는 방송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제1방송, 텔레비죤방송, 제2방송, 대외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이해 개성텔레비죤방송이 새로 시작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64년 11월 29일에 국제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기구에 가입하였다.

1971년 10월 15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방송사업국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신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몸소 사로청중앙위원회를 찾으시여 친히 《소년신문》을 한장한장 펼쳐보시며 신문발간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다음 중학교소년단원들을 위한 신문을 따로 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문의 이름을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친히 발간하시던 《새날》의 이름을 그대로 달게하라고 하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간하시고 발간하신 혁명적출판물의 이름을 지닌 신문《새날》이 1971년부터 새로 발간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로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기관지들, 각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신문들, 평양시와 각도, 개성시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공장, 기업소와 국영농목장 및 대학들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이 있다.

【잡지】 우리 나라에서는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를 비롯한 정치리론잡지, 《조선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새세대》를 비롯한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수많은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있다.

인 민 생 활 향 상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간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을 3대기술혁명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힘차게 밀고나가는 한편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에서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6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1971년에 행정적말단지도단위인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거점인 군, 특히는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기울였다. 모든 군들에서는 1971년에 전군중적운동으로 빵동공장, 파일, 남새 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과 이동가공설비들이 새로 건설되고 확장되였다. 그에 따라 농산물의 수매가공사업이 더욱 활발해져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높이였으며 생산의욕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한편 농촌상점망들을 확장정비, 조절배치하여 농민생활에 더욱 접근시킴으로써 식료품과 일용필수품을 비롯한 수요를 더잘 충족시키였다.

우리 나라에는 농촌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된 조건에서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해 농촌의 뻐스화를 다그쳐 당 제5차대회가 있은후 1년남짓한 기간에 2천 200여개 리에 뻐스가 들어갔다. 이리하여 군과 리간 교통이 편리해졌을뿐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가 더욱 밀접해짐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과 그 수준을 더욱 편리하고 유족하며 문화적으로 꾸리게 하였다. 농촌수도화는 같은 기간에 540여개 농촌마을과 부락들에서 실현되여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위생문화적인것으로 개선하였다. 농촌리진료소를 병원화하는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 500여개의 농촌진료소들이 전문과들을 갖추고 입원방조를 할수있는 아담하고 현대적인 병원으로 꾸려졌다.

그리하여 농촌주민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욱 충분히 받을수 있게 되였다.

또한 당과 정부에서는 1972년까지 모든 협동농장들에 고정영사기를 갖추어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밀어나가고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농촌의 뻐스화, 수도화, 진료소의 병원화와 더불어 농촌문화혁명을 촉진함에 크게 기여할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보다 문화적이며 문명한 농촌으로 꾸려질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협동농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70년에만 하여도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655개소의 창고, 2천 292동의 축사, 174동의 정미소를 비롯한 수많은 생산시설들을 건설하여 협동농장들에 넘겨주었다. 또한 여러가지 농기계, 농기구들과 영농자재들을 거저 주거나 눅은 값으로 대주었다.

우리 농민들은 1961~1969년동안에 국가로부터 거의 17억원의 추가적혜택을 받았으며 1970년에는 2억 216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추가적혜택을 받았는데 1971년에 그것은 더욱 더 많아졌다.

이리하여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빨리 장성시켰으며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교육, 문화보건후생시설, 문화주택과 국영상업망들을 리용하여 자기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77페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하여 살림집을 계속 많이 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1971년에 10대도시건설사업과 아울러 농촌들에서는 2세대가 한동짓기운동을 벌렸다.

그리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도시들과 농촌들에 문화적인 살림집들이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되였다. 최근년간 농촌주민들을 위하여 공화국정부에서는 52만세대의 문화주택을 나라의 돈으로 지어주었다.

중요도시들에서는 인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앙난방공사도 빨리 추진되였다.

우리 당은 축적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켜나갈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생활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결합하여 해결할수 있게하였다.

국민소득의 장성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로임을 계속 올리면서 물가는 계통적으로 낮추었다.

전후에 벌써 네차례에 걸쳐 로임을 올리도록 배려를 돌려주신 수령님께서는 1970년에 또다시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나 올려 월평균 로임을 70원에 이르게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10여차례에 걸치는 대폭적인 물가인하를 실시하시여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50여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71년에 또다시 어린이들의 옷과 신발의 값을 평균 50%나 대폭적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는 1971년에도 유치원나이의 전체 어린이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여름옷과 겨울옷을 공급하여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평양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모직외투를 공급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특히 낮은 로임을 받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훨씬 올리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사회문화적복리증진을 위하여 1971년에 1970년의 121%에 달하는 자금을 사회문화

시책비로 돌렸다. 기타 거액의 인민생활향상비가 지출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의 혜택, 유급휴가, 휴양과 료양, 사회보장 등의 국가적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였으며 막대한 국가부담에 의하여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과 연료, 주택과 기타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교육비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되여있다.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당과 정부에서는 거액의 교육사업비와 학교건설비를 돌리여 여러개의 대학을 새로 내오는 동시에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의 교사, 기숙사, 실습공장들 그리고 현대적시설을 갖춘 수많은 탁아소, 유치원들을 건설하였다. 또한 대학생들과 많은 고등기술학교학생들에게 계속 장학금을 주었으며 눅은 값으로 일체 학용품과 교과서, 피복들이 공급되였고 국가부담에 의한 견학과 야영생활을 시켰다.

근로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1971년에 1970년의 119%에 달하는 보건사업비를 지출하였다.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면서 전문병원과 병동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특히 농촌보건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하며 아동병동과 산원들을 적극 늘임으로써 농촌녀성들도 입원해산방조를 더 많이 받을수 있게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식물뿐만아니라 물고기, 남새, 고기, 알,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부식물과 과일 등이 공급되였다.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밥가마, 재봉기 등 기계일용품, 여러가지 부엌세간, 문화적인 가정용품 생산을 빨리 늘이고 주식물과 부식물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편의봉사시설을 더 잘 갖춤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더 잘 해결하였으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들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함께 유급휴가와 휴양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농촌 녀성들도 77일간 산전산후유급휴가의 혜택을 받고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나라에서부터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을 통하여서와 거저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과 연료, 기타 거주조건을 보장받는 등으로 국가로부터 받고있는 추가적혜택은 로동자, 사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받는 로임총액과 거의 맞먹으며 농민인 경우에는 그들이 번 화폐수입의 거의 절반이나 된다.

우리 당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여나감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의 점령을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이 모든 획기적인 조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의 구현으로서 그이의 령도밑에 마련되고 공고화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국상업일군대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전국상업일군대회가 1971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에 걸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 및 정권기관일군들, 상업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전국 각지의 상점 및 편의봉사망들에서 사업하고있는 로력혁신자들, 상업부문 과학 및 교육기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일 회의에서 당 제5차대회결정을 관철하며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상업일군들앞에 나서는 전투적임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지난기간 상업부문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대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뒤이어 토론이 진행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항상 인민들에게 보다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상업을 세워주시고 그를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공급기관으로 주체성있고 자립적인 상업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상업일군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전망에 한없이 고무되여 무엇보다 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모두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상업전사 인민의 충복으로 더 잘 준비할 결의를 새롭게 다졌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에서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것을 맹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식료상업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식료상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며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군상업기관들의 역할을 더한층 높이며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상업부문앞에 나서는 일련의 과업해결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또한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선진적인 상품공급방법인 주문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려 류통비수준을 해마다 15%이상 낮추며 상품회전속도를 높여 류동자금을 보다 빨리 회전시켜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것을 다짐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상업일군들에게 주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실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같은 결의를 다시한번 엄숙히 다지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 상업일군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5일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인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상업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전국보건일군대회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보건 일군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전국보건일군대회가 1971년 6월 1일부

터 2일까지에 걸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각급 당 및 정권기관일군들, 치료예방기관 일군들과 제약 및 의료기구 공업부문 일군들, 보건부문 과학, 교육기관 일군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인민보건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자》의 보고가 있었다.

2일회의에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건일군들앞에 나서는 전투적임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보건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이땅우에 누구나 다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무병장수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세워주시였을뿐 아니라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인민보건사업이 나갈길을 명확히 밝혀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토론자들은 오늘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상응하게 인민보건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증진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천리마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면서 정성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간생명의 붉은 기사로, 철저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당 제5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병원들을 대대적으로 새로 짓고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리며 기술력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농촌리의 진료소를 병원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들을 더 잘 꾸려 모든 임신부들에게 입원해산방조를 주도록하며 군소아과 병동과 리아동병동을 잘 꾸려 농촌어린이들이 다 입원치료를 할수 있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 동시에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위생학적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특히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로동위생사업을 강화하며 식료가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식료위생사업을 따라세우며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기를수 있도록 주, 월 탁아소를 비롯한 각종 탁아소를 더 많이 짓고 아담하게 꾸리는 동시에 보육원들의 자질을 높일것을 다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의학과학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의학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의학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건일군들을 더 많이 길러내며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는 전체 보건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 보건부문앞에 제시하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것을 결의다지였다.

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 찬동속에 남조선 의료일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2일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보건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상 품 공 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후방공급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항일유격대안의 후방사업과 유격근거지내 인민혁명정부의 류통사업을 몸소 조직지도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의 상업은 인민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물질문화적생활수준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상응하게 균형적으로 높여나가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1971년 9월에 전국상업일군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이 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또다시 자본주의상업에 비한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과 본질적차이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사회주의상업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는데 복무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천 800여차례에 걸치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전국각지에 널려있는 상업망들을 450여차례나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상업망의 확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7폐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받들고 1971년에 상업부문에서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상업체계를 더욱 개선강화하였다.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리상점을 더 잘 꾸리는 방향에서 농촌상업체계를 더욱더 완성시켜나갔다.

평북도 태천군과 황남도 신원군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상점들을 건설한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며 상점망들을 주민지구에 최대한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건설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농촌상점망을 계획적으로 늘였으며 식료품상점과 일용잡화상점, 건재상점들을 잘 꾸리고 현존 상업망분포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기초우에서 그것을 주민지구에 고르롭게 조절포치하였다.

상점망을 늘이는것과 함께 농촌에 대한 상품원천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공급시설로서 시, 군소재지들에 고기, 물고기 등의 랭동 및 랭장 창고와 남새 과실의 저장고, 부식물가공시설

동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농산물수매기관 사업을 한층 더 개선강화하였다.

또한 탄광, 광산을 비롯한 산간오지에 대한 상품공급체계를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바로잡고 랭동 및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잘 갖추어주어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로동계급과 산간지대인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상품들이 신속정확히 공급되도록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상업망배치에서는 전문, 혼합형태의 상업망들을 옳게 배합하여 조직하는데 주목을 돌리면서 주택구획단위로 식료품종합상점과 부식물가공시설을 조직하며 부식물분점과 남새과실분점을 세분포치하는 방향에서 상업망을 더욱 늘이였다.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상업망과 그 시설을 늘이며 그를 규격화, 표준화하고 현대적기술장비로 갖추는 사업도 적극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에 대한 소비품의 공급사업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편리하게 문화적으로 조직전개할수 있도록 상업망을 정비확장하는것으로부터 그 내부 구조와 시설, 설비, 비품, 도구 등 상업의 물질기술적장비들을 가장 선진적이고 현대적인것으로 만들었다.

상업망이 확장되고 상품공급사업이 개선강화된 결과 전국상업일군열성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971년에 이르는 10년간에 우리 나라의 상품류통은 근2배로 장성하였다.

【주문제확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년 9월 3~4일 상업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비롯하여 상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에서 상업에서 주문제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하시면서 주문제의 수행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상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립장에 서서 상업활동을 부단히 개선하여 주문에 의한 상품공급체계를 더욱더 정비완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상품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분배하는 방법과 원칙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는 동시에 주문받은 상품은 반드시 책임적으로 날라다주는 송달공급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도매상업부문 일군들은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 지방 근로자들의 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주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여 생산된 상품을 소매망들에까지 책임적으로 빨리 날라다주는것을 정상화하였다.

도시 및 로동자지구들에서 식료품을 자급자족할수 있도록 공급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시기별, 품종별로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여 주문에 의한 식료품의 계획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주문상품공급에서는 녀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현대적인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밥가마 등 가정살림도구들이 더욱 늘어났다.

김일성동지께서 특히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식료상업이라고 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업부문에서는 식료상업에 중점을 두고 식료품생산과 수요의 특성에 맞게 전국적규모에서의 공급조직을 개선하였다.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 벌방과 산간지대 할것없이 모든 지역에서 갖가지 식료품을 사철 떨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남새, 과실 등을 일찍 나는 지역에서 그것이 늦게 나거나 적게 나는 지역들에, 반대로 늦게 나는 지역에서 일찍 나는 지역들에 계획적으로 교류하여 공급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식료품공급원천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식료품수매사업을 활발히 벌려 식료품의 자원과 가지수를 끊임없이 늘였으며 근로자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기호품들과 식료품들을 더 잘 보장받을수 있게 하였다.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류, 기름류 등의 2차가공품과 남새와 물고기 절임, 젓갈품, 말린 제품, 반제품, 양념감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주민지구와 작업장들에 배달, 야간, 이동 판매를 조직해 주어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었다.

평양시내 식료품상점들에서만하여도 1971년에 1970년보다 2배나 더 많은 닭알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주문에 의한 상품공급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공급사업이 강화발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의 상품류통분야에서는 벌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졌다.

【편의봉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지어주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세탁소, 의복수리소 같은 편의봉사망도 더 늘여 녀성들의 부담을 극력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40~41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폰트에 편의망건설을 포함시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편의시설망을 계획적으로 확장하였다.

우리 당은 도시 및 농촌 주택건설에 편의망건설을 따라세우도록 하며 편의시설망을 주민지구에 최대한 접근시키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지난 7개년계획기간에 이미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평양과 강서 등지에서 부식물가공공장과 식료품상점들을 꾸리는 시범을 조직하여 마련한 밑천에 기초하여 이해에 1,000세대를 기준으로 부식물가공공장과 가족식당들과 함께 화학빨래집을 비롯한 양복점, 목욕탕, 리발소 등 각종 편의봉사망들을 조밀하게 포치해나갔다.

특히 농촌의 매개 리를 중심으로 리발소, 목욕탕을 비롯하여 재봉기, 라지오, 자전거 등 여러가지 일용품수리소들을 늘이며 점차 자연부락단위에까지 필요한 모든 봉사망들을 조직하고 각종 편의 자재와 부속품 공급을 잘 조직하여 편의시설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사회급양망으로서는 일반식당과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식당을 옳게 배합하여 합리적으로 늘임으로써 녀성들의 부엌일을 대신하여 식생활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다.

편의봉사시설과 사회급양망이 급속히 늘어나고 봉사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을 훨씬 덜게되였으며 그들은 마음놓고 사회에 널리 진출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더욱 촉진할수 있게 되였다.

【상업일군양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상업문제해결에서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상업일군들의 높은 사상의식이 노는 거대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시여 상업부문에 당에 충실한 녀성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으며 매개 상업기업소 단위에 정치부지배인을 배치하고 《상업신문》, 잡지 《사회주의 상업》을 비롯하여 혁명적인 교양수단들을 수다히 마련하여주시였다.

당은 상업부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평양상업대학의 교육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및 통신 대학들에서 상업부문 재직간부들을 재교양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상업일군대렬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녀성상업전사, 인민의 참된 봉사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장성되였으며 우리의 모든 상점, 식당들은 전적으로 녀성들의 대부대에 의하여 훌륭히 관리운영되고 있다.

당은 편의봉사부문일군들의 기능급수를 제정하여주며 사회적대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특히 편의봉사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공훈리발사, 공훈료리사, 공훈재봉공, 공훈재단사, 공훈판매원, 공훈편의수리공, 공훈접대원 칭호를 새로 내오는 동시에 고급리발사, 고급재단사대렬을 확대함으로써 편의봉사부문일군들의 사회적대우를 높이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상업일군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교시를 하신 1971년 9월 15일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마다 이날을 상업절로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시경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6월 30일 도시와 건물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되고있는 조건하에서 그에 맞게 도시경영사업을 따라세우며 거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1962년 9월 5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주신 교시에서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도시경영사업은 도시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흥겹게 하기 위한 봉사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으며 1966년 7월 6일에는 몸소 평양시 모란봉구역 천리마 북새동을 현지지도하시고 도시와 마을을 꾸리는데서 모범을 창시하시였다. 이 과정에서 그이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잘 꾸리는것을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끌고나가게 하시였다.

【건물관리 및 구획정리】 1971년에 각급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서들과 도시경영기업소들에서는 매개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과의 밀접한 련계하에 주민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건물관리에서는 근로자들의 살림집을 비롯하여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등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기타 공공건물에 대한 정상보수와 주기보수체계를 세워 계획적으로 보수관리하였으며 그 질적상태도 더욱 개선하였다.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문명한것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군을 잘 꾸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먼저 각도에서 1~2개군을 시범적으로 꾸리고 그를 본보기로하여 전국의 모든 군소재지들을 꾸리는식으로 사회주의공업국가에 상응하게 도시와 마을들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와 함께 군소재지들과 로동자구의 모든 주택구획들에 건물의 특성과 그의 크기, 그 형태에 따라 울타리를 질서정연하게 생활단위에 편리하게 꾸렸으며 수도와 샤와장, 어린이놀이터를 알뜰하게 꾸리였다.

주택구획내의 김치움 창고 등 시설물도 전부 보수정비하고 그 관리사업도 철저히 개선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은 위생문화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졌다.

【도로 정비 및 관리】 아직 뻐스가 들어가지 못한 농촌리들에 뻐스가 다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 간선도로와 군과 리를 련결하는 길을 포장하고 뒤골목길들은 지방원료원천을 동원하여 돌포장을 하는 등 전군중적운동으로 길닦기공사를 힘있게 벌렸다. 이를 위하여 자체 지방건재기지를 늘이는 한편 채석장능력과 그 생산을 늘였다. 이와 함께 도로와 련결되는 다리들을 더욱 튼튼히 보강하여 그의 통과능력을 높이였다.

평양시를 중심으로 반경 80키로메터,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40키로메터 구간의 도로들과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잘 닦게되는 6개년계획의 첫해 1971년도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문명하게 되였다.

【상하수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 5차대회에서 아직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군소재지들은 물론 모든 농촌부락들에까지 수도를 놓아 농촌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모든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살수 있도록 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상수도시설이 없는 일부 군소재지와 로동자구들에 상수도시설을 갖추기 위한 년차별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물이 적고 수질이 나쁜 지역과 먹을물이 먼데 있는 부락들에 먼저 수도를 놓으며 점차 모든 부락들에 수도를 놓도록 하는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당 제 5차대회가 있은 이후 1년남짓한 기간에 540여개 농촌마을과 부락, 3만 6천여세대들에 수도가 들어갔다. 한편 불합리하거나 분산적으로 설치된 수도시설들을 조사장악하여 집중시키는 원칙에서 수도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으며 낡고 부식된 관들을 보수보강하여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한방울의 물도 허실되지 않게 하였다.

이와 함께 수원탐사사업을 적극 추진시켰으며 수원지건설에 힘을 넣어 수원능력을 더욱 늘이였으며 수질검사사업을 질적으로 하여 질좋은 물을 주민들에게 원만히 공급하고있다.

【열 및 온수 난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중앙난방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8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난방부문에서는 평양시 중앙난방공사를 빨리 끝내고 청진시와 송림시, 라진시를 비롯한 중요도시들에 빨리 중앙난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한편 보이라 물때제거작업을 비롯하여 탄퍼넣기, 보이라의 해체작업 등 보이라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의 연소효률을 높이는 사업, 보이라의 보수정비를 정상화하는 사업 석탄랑비현상을 없애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난방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였으며 보이라난방관리운영체계가 확립되여 도시근로자들은 물론 농촌주민들도 더욱 문화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있다.

평양시에서는 1971년 현재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에 늘어선 현대적인 고층주택들을 비롯하여 시내 수많은 주택들에 중앙난방이 들어가고 더운물 찬물을 마음대로 쓰고있으며 열두삼천협동농장 아빠트들에서도 중앙난방으로 방을 덥히는 문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원림화】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원과

유원지를 근로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산 지식을 주며 그들에게 자기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 주는 훌륭한 학교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원과 유원지를 주체성있게 우리 나라 나무와 꽃으로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게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공원과 유원지건설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그의 건설방향과 방도들을 명시하여 주시였다.

원림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향에 따라 혁명사적지와 기념비적 대건축물과 구조물주변의 원림조성사업에 일차적력량을 집중하여 꾸렸으며 도처에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 동식물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동식물의 조성을 더욱 늘임으로써 도시를 공원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는 가장 훌륭한 공원시설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록지면적을 가진 나라로 전변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록지가 넓은 띠를 이루어 도시 중심으로부터 주변까지 방사식으로 펴져있다. 모란봉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대동강과 보통강유원지를 따라 만경대까지, 서북쪽으로는 장산, 아미산을 거쳐 대성산까지, 동으로는 문수산을 거쳐 사동공원까지 무수한 대통로의 가로수를 곁가지로 두른 록지의 띠가 해살처럼 펴졌는데 그것은 다시 멀리 변두리의 대공원 유원지와 산록의 환속에 놓여있다.

보 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병원들을 잘 꾸리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8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1971년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발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6월에는 전국보건일군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이 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또다시 사회주의보건사업의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주시고 인민보건사업을 한층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1971년에 보건부문에서는 의학과학사업, 의학교육사업, 림상 등을 갖춘 종합적의학과학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과 예방치료기관들을 계획화 전문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각도 의학대학과 대학병원들 모든 군병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들이 힘차게 벌어졌다. 의학과학연구사업분야에서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3대기술혁명수행에 기여하였다.

특히 농촌리진료소들을 병원화하기 위하여 전군중적힘을 기울인 결과 농촌주민들에게 의료상방조의 국가적혜택을 더욱 충분하게 줄수있게 되였을뿐아니라 도시주민들에 비한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더욱 좁히고 농촌문화혁명을 촉진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

【위생방역】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71년에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위생학적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위생상태를 전반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로동위생시설과 로동보호용구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더 잘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로동위생부문에서 이미 달성한 과학기술적성과와 유해로동을 없애는데서 거둔 경험들을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널리 실시되고있는 조건에서 농약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위생학적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농촌수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급수원에 대한 위생학적평가를 정확히 하고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농촌수도시설의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식료가공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식료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식료품을 다루는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위생상태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식료품의 위생성과 문화성을 더한층 높이도록 하였다.

위생사업과 함께 소독, 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한 방역대책도 더욱 철저히 세웠다.

정권기관과 근로단체, 《학생문화위생근위대》의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로동과 생활에 필요한 위생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위생문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며 위생방역사업과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위생검열기관과 위생방역소들을 튼튼히 꾸리고 위생방역사업체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웠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위생방역사업이 개선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전염병도 믿음직하게 막아낼수 있는 강력한 예방수단과 발전된 위생방역망을 가진 나라로 되였으며 인민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보다 26년이상이나 늘어났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특히 3~4월, 9~10월 위생문화월간에 모든 단위와 초소들에서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범위생군(시, 구역) 창조운동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1971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군들이 《모범위생군》으로 되였다. 1971년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을 비롯하여 향산군, 양덕군등 10여개의 군, 구역들이 《2중모범위생군》으로 되였다

【예방치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입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폐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시, 군 병원과 산업진료소들을 더 잘 꾸리며 의사담당구역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조직과 방법을 개선하고 담당구역내 주민들의 건강관리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군병원건설을 대대적으로 하여 그 규모를 늘이였으며 전문과와 보조진료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농촌주민들에게 더 잘 봉사하도록 하였다.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이해에 500여개소의 농촌리진료소들이 병원화되였다. 그리하여 농촌진료소들

에 내과, 외과, 소아과, 구강과 등 기본적인 전문과들이 조직되여 리내 주민들에 대한 전문과적인 외래방조와 구급입원방조를 보다 원만히 주게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있는 주요 온천, 약수 지대의 료양소들의 규모를 늘이는 한편 모든 온천과 약수 지대에 중소규모의 료양소들을 아담하게 꾸리며 온천, 약수의 적응증을 과학적으로 확증하고 그에 맞게 료양소들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료양봉사사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치료효능이 높은 감탕찜질과 모래찜질, 바다가와 고산지대를 리용하는 기후치료를 널리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전염병과 악성질병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특히 어린이들의 전염병중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였던 홍역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수천년을 두고 내려오면서도 해결하지 못한채 남아있던 이 전염병을 로동당시대에 와서 영영 없애버리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병없는 리 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6개년계획말에 가서 예방치료집단수가 1만개, 병원침대수가 1.4배로 늘어나고 의사 및 준의수가 훨씬 장성되면 근로자들의 건강은 더욱 증진되며 우리의 인민보건사업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된다.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건강보호증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그리고 전국보건일군대회에서 인민보건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면서 특히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에게 77일간의 유급산전산후휴가제와 100%해산방조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을 태내에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녀성들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고있다. 또한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에게는 6시간로동을 하게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더욱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하였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도시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특히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더 잘 꾸리고 조산원을 더 많이 양성배치하여 모든 농촌녀성들에게 해산방조를 주도록 하였으며 군소아과병동과 리아동병동을 잘 꾸려 농촌어린이들의 입원치료를 더많이 보장하게 하하였다.

보건부문일군들은 탁아소어린이들의 합리적인 일과조직에 대한 연구, 어린이들의 신체발육을 개선할데 대한 연구사업과 어린이들에게서 있을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막으며 제때에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히 치료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어린이보육사업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질병을 제때에 예방하며 치료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국가적부담에 의하여 탁아소에서 양육되는 조건에서 탁아소에 대한 영양공급사업을 더 잘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게된 결과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은 체계적으로 증진되고있다.

【보건일군양성 및 의학기술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평양의학대학과 의학대학병원 및 의학과학원을 망라한 의학과학의 종합적인 기지를 최신설비로 튼튼히 꾸리도록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1971년에 의학과학의 종합적인 기지가 튼튼히 꾸려지는 한편 혜산의학대학을 비롯한 보건일군양성기관들을 더많이 내왔으며 단기양성사업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의사, 준의, 조산원, 간호원 등 보건부문일군들을 더많이 양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의료망이 조밀한 그물로 뒤덮이고 25만의 보건일군대부대와 항생제를 비롯한 현대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립적인 제약의료기구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선진적인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인구당 의사수와 의료시설수 및 그 침대수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섰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학과학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의학부문연구소들에 수천명의 연구성원을 망라한 튼튼한 연구기지가 꾸려져있으며 보건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의학부문과학자들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적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림상의전》을 비롯한 수많은 의학서적들도 내놓았다. 의학부문의 과학자들은 비루스조직배양에 의한 홍역 및 일본뇌염 예방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여 홍역과 일본뇌염을 퇴치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식도성형술을 비롯한 흉부외과분야에서 어렵게 제기되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였고 끊어진 손과 팔, 다리를 잇는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훌륭히하여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원유가공공업이 없이는 감마피콜린을 생산할수 없다고 한 기존관념을 깃부시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로 합성해내는 연구에 성공함으로써 여러가지 유기합성의 약품생산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71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4폐지)

남조선애국자들은 통일혁명당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광범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더욱 강화되는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에 더는 살래야 살수없고 참을래야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여 년초부터 남조선도처에서 억센 투쟁을 벌리였다.

이해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의 급속한 앙양은 우선 투쟁규모가 커지고 참가수가 훨씬 늘어난데서 표현되였다.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각종형태의 대중투쟁건수는 1천 695건에 달하며 이에 망라된 인원수는 108만 6천여명을 헤아리고있다.

이것은 투쟁건수에서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1%,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는 138%의 장성으로 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중투쟁은 규모가 커지고 량적으로 증대되였을뿐만아니라 부문내부의 단결과 산별호상간의 련대성이 강화되고 폭력적투쟁이 전례없이 늘어났다.

농민들의 투쟁도 확대강화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원수들의 세금수탈과 토지 및 량곡 략탈책동을 반대하는 경제투쟁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 및 반동적농업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년초부터 계속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가장 특기할만한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협잡《선거》놀음을 전후하여 거세차게 전개된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였다.

학원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화책동을 반대하여,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대중적시위항쟁을 벌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은 남조선사회를 더욱 파쑈화하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참을수 없는 질식상태에 빠뜨리려고 발광하여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행정에서 규모를 확대하고 투쟁조직과 구호를 새로 내오며 대학호상간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로동자, 농민들과의 련대적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자기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점차 심화발전시켜나아갔다. 특히 지난해에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형성하고 반파쑈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뿐만아니라 괴뢰군내에서까지 일어남으로써 괴뢰지배층내부에 심한 불안을 조성하고있다.

생존의 권리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것이 의식화, 조직화됨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발전하여갔다.

이에 있어서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에서 제시하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8개항목의 제안은 남조선인민들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열매로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열린것을 계기로 하여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끊어진 겨레의 피줄을 잇고 남북의 교류를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지향이 불길처럼 솟구쳐올랐다. 남조선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남북통일은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오직 조선 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주체적힘을 키워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썼다.

남조선인민들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간의 접촉과 대화가 민족분렬의 장벽을 마스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계기로 되기를 바라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기세를 일층 높이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대중적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완강하게 벌리였으며 이 투쟁행정에서 자체의 력량을 한층더 확대강화하여 나아갔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4폐지)

이해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과 가혹한 착취밑에서 그 어느 계급보다도 정치적무권리와 형언할수 없는 생활고를 겪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임금인상, 밀린임금의 지불, 로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끊임없이 벌린 로동자들의 파업, 시위, 롱성 등 여러가지 투쟁은 10월말현재까지에만 하여도 400여건에 이르렀으며 투쟁에서 적극성과, 조직성, 완강성이 보다 강화되였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의 대중투쟁은 규모가 커지고 량적으로 증대되였을뿐만아니라 부문내부의 단결과 산별호상간의 련대성이 강화되고 폭력적투쟁이 전례없이 늘어났다.

경기도 부평에 있는 《신진자동차부평공장》로동자들 1천여명은 악질기업주놈의 집단해고책동을 반대하여 로조운동의 자유등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이 공장 로동자들은 악질기업주놈이 미일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밑에 로동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박해를 일삼고있을뿐만아니라 괴뢰도당과 한짝이 되여 로동

자들의 로조조직을 파괴하며 300여명의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집단적으로 내쫓으려는데 격분하여 단호히 들고 일어났다.

전라북도내 운수로동자 140여명은 임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에 펼쳐나섰으며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4천여명의 로동자들도 미제침략군 8군사령관놈에게 집단적항의를 들이대고 잘라먹은 임금을 당장 내놓을것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 밖에도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남조선 강원도 《유림기업사》의 500여명 로동자들의 투쟁, 경상남도 부산의 《비닐회사》 로동자들의 9개월간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비롯하여 《외기로조》 서울지부산하 800여명 로동자들의 집단해고를 반대하는 롱성투쟁, 충청남도 서천에 있는 《장항제련소》의 700여명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개선을 위한 대중적투쟁이 련이어 치렬하게 벌어졌다.

이와 같이 남조선로동자들은 밀린임금의 즉시지불,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강력히 벌리는것과 함께 《로조결성》을 위한 투쟁, 단체협약체결과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녀성, 소년로동의 보호 등 정치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세차게 전개하였다.

전라남도 광주시에 30여개의 음식점로동자 200여명이 정기유급휴가제실시, 단체협약체결, 신분보장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일제히 파업을 단행한 사실은 그 단적 실례로 된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것은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악화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감옥과 같은 공장과 일터에서 놈들의 살기어린 채찍아래 최저생계비의 5분의 1~8분의 1도 되나마나한 로임을 받고있으며 이것마저 몇달씩 밀리고있을뿐아니라 새발의 피만도못한 임금을 《전표제》, 《현물임금제》, 《덕대제도》 등 중간착취로 인하여 실제수입은 말이 아니다.

여기에다 각종 세금 《공공료금》의 인상과 물가의 폭등으로 그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악명높은 《로동쟁의법》, 《로동조합법》, 《근로기준법》등의 파쑈적악법들을 더욱 개악하여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착취와 략탈, 무권리와 빈궁, 혹사와 불구,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내는 살인로동을 강요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으로 로동자들의 조직적투쟁을 극력 탄압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해 억세게 싸우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호상 련대성이 강화되고 그들의 투쟁이 더욱더 조직화되여가고 있는것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도처에서 임금인상, 해고반대, 밀린임금의 즉시 지불 등 요구를 내걸고 호상 굳은 련계밑에 전공장적으로 또는 남조선 전지역적범위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8월 6일 임금을 25%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남조선면방업체를 상대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에 궐기한 남조선전역의 섬유부문로동자들은 계속 줄기차게 쟁의를 벌리며 전면적인 파업을 단행할 태세를 갖추고 견결히 싸움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였다.

12월 15일 남조선각지의 미제침략군기관들에 고용되여 갖은 민족적멸시와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는 3만 2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려 받기 위하여 무기한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미제의 더욱 악랄해진 식민지략탈책동으로 생활난이 날로 더 심해지는데 참을수 없었던 로동자들은 11월 26일 임금을 30% 더 올릴데 대한 요구를 미제침략군우두머리놈들에게 들이대고 이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않을 때에는 강력한 대중적투쟁을 벌릴것을 선언하였으나 놈들이 듣지않음으로 파업투쟁을 벌린것이다.

남조선전지역의 철도, 전매, 체신, 운수, 부두 등 6개 부문의 로동자 5만 4천여명이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각 부문별《로조》에 압력을 가하여 이러한 공동투쟁을 벌리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선언케 함과 함께 임금을 올릴데 대한 요구서를 괴뢰도당에게 들이대게 하였다.

요구서에서 그들은 《각종 물가의 상승률에 비해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어 현행임금으로는 더이상 생활을 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새해부터 우선 임금의 30%를 올릴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제대사관에 고용된 경비원들은 로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체계약체결을 거부한데 격분하여 파업과 더불어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외국기관로조》 서울지부에서는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운영회의》를 열고 제기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외국기관로조》 서울지부 종업원들을 총동원하여 동정시위를 벌릴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호상 련대성을 표시하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더욱더 조직화되여가고있다.

경기도 부평지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기관에 얽매인 4천여명의 로동자들은 아무러한 사전대책도 없이 340여명의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처사를 반대하여 결성한 《투쟁위원회》와 섬유부문 로동자들속에서의 《미국섬유류수입제한대책추진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투쟁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또한 경상북도 대구시 《삼호방직회사》 1천 500여명의 로동자들은 악질기업주놈이 아무런 사전대책도 없이 2개월여에 걸쳐 공장문을 닫고 수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군중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투쟁위원회를 뭇고 완강히 투쟁하였다.

9월 15일 서울시내에 있는 《방림방적회사》 녀직공 1천여명이 밀린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롱성투쟁을 벌렸으며 이에 앞서 서울 《시민아빠트》신축공사장에 고용된 로동자 320여명이 밀린로임의 즉시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렸다.

또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적극성과 견결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것이다.

경기도 부평에 있는 자동차조립공장의 1천여명로동자들은 악질기업주놈의 집단해고책동을 반대하며 로조운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이 공장 로동자들은 악질기업주놈이 미일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밑에 로동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박해를 일삼고있을 뿐만아니라 박정희도당과 한짝이 되여 로동자들의 로조조직을 파괴하며 300여명의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집단적으로 내쫓으려는데 격분하여 단호히 들고일어난것이다.

그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과 악질기업주놈의 위협공갈에도 불구하고 투쟁기세를 늦추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부 로동자들의 복직과 퇴직금지불로 이 투쟁을 가로막아보려는 놈들의 회유기만책동을 박차고 자기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할 굳은 결의밑에 계속 힘차게 싸우고있으며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투쟁에 합세해나섰다.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남부윁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갔던 1천여명의 남

조선로동자들이 미제의 앞잡이인 악질매판자본가놈의 가혹한 착취행위에 항거하여 대중적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에 궐기한 《한진상사》에 고용된 1천여명의 로동자들은 머리에 《피와 땀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쓴 띠를 두르고 밀린로임지불을 요구하여 악질기업주놈의 사무실에 몰려가 놈들의 간악한 죄행을 규탄하면서 몽둥이와 쇠불이 등으로 유리창을 모조리 들부시고 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달려드는 피뢰경찰놈들을 까눕히면서 그 일대를 거세찬 폭동의 도가니로 전변시켰다.

이들 로동자들의 대중적폭동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악정과 학정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며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판자본가들의 간악하고 악랄한 략탈만행에 대한 단호한 항거이다.

서울 중구의 로동자들과 영등포구의 녀성로동자들이 또한 집단적인 폭동과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중적항거에 당황망조한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놈들은 괴뢰내무부장관이란놈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수백명의 괴뢰기동경찰대놈들을 내몰아 폭동자들을 백수십명씩이나 잡아가두고 주동자 《색출》소동을 벌리면서 정당한 투쟁에 궐기한 로동자들에게 이른바 집단적폭력행위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얼토당토않는 죄명을 들씌우는 등 파쑈적폭압에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놈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남조선로동자들의 억센 투쟁기세를 억누를수 없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차게 일어났다.

이것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그 어떤 폭압으로서도 억누를수 없다는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생존과 민주주의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였으며 그 투쟁은 더욱 목적의식화되고 조직화되였다.

농어민들의 투쟁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불러 일으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8페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생활고와 무권리에 신음하고있는 남조선농어민들은 땅과 알곡징발 등 갖가지 수탈을 반대하고 땅값보상을 비롯한 각종 피해보상과 영농조건, 어로조건 등의 보장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10월말 현재 농어민들의 투쟁은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근 400건에 36만여명이 망라되였는데 이것은 4.19인민봉기후 농어민투쟁이 가장 활발히 벌어졌던 1968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것이다.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과 서탄면내 24개 마을 1천여명의 농민대표들은 미제침략군부대에 몰려가 놈들이 《군용지》니 뭐니하면서 그 일대의 수리시설을 파괴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게 만든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농민대표들은 미제침략군에게 관개시설을 당장 복구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면 서호리에 사는 400여명의 농민들이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피뢰도당과 악질기업주놈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피뢰군청에 들이댄 항의문에서 놈들의 죄행을 규탄하고 농토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제의 더러운 개 박정희피뢰도당이 수년전 한 악질기업주놈과 짜고 침략전쟁준비와 략탈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공장을 만들면서 논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막아버렸을뿐아니라 독이 있는 오물을 마구 버려 농사를 망치게 한데 격분하여 이곳 농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반대하여 완강히 싸워왔다.

그런데 피뢰도당이 침략과 략탈에만 미쳐날뛰면서 자기들의 거듭되는 요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데 대하여 농민들은 더 참을수 없어 들고일어난것이다.

경상남도 사천군 롱견면 선진리와 신촌리 등 4개 마을 농민들도 역시 범죄적전쟁준비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의 군용도로 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내의 190여명의 농민들이 미제침략군의 군용지로 빼앗긴 논밭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섰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투쟁이 적극화됨과 함께 그 투쟁규모도 더욱 확대되였다.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내 1천여명의 농민들이 박정희피뢰도당에게 농토피해방지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해마다 바다물이 밀려들어 300여정보의 농토를 묵이다싶이하고있는 그들은 바다물이 밀려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것을 피뢰도당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략탈을 반대하는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점차 조직화, 적극화되여갔으며 그것이 폭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피뢰도당의 학정과 략탈에 항거하여 대중적인 폭동을 일으킨 것은 그 단적 실례로 된다.

이날 이곳 가난한 농민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쓴 프랑카드를 들고 피뢰광주군청안에 있는 《광주대단지서울시사업소》에 몰려가 온갖 학정과 략탈을 일삼는 피뢰악당놈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면서 놈들의 사무소건물과 피뢰경찰파출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과 략탈문건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으며 파쑈폭압에 날뛰는 피뢰경찰놈들에게 보복의 징벌을 안기면서 놈들의 자동차들을 까부셨다.

억수로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8시간동안이나 계속된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폭동으로 온 광주땅은 항쟁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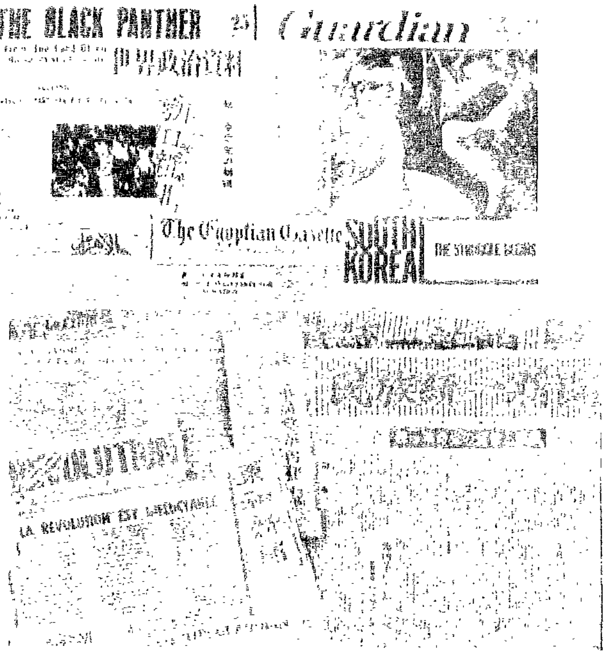
원쑤들의 사업소와 피뢰경찰파출소를 짓부시며 불을 지른후 몽둥이와 유리병, 돌멩이 등을 손에 든채 원쑤들에게서 빼앗은 뻐스와 화물자동차를 잡아타고 박정희피뢰도당이 도사리고있는 서울로 돌진하여간 폭동군중은 최루탄을 쏘아대며 달려드는 1천여명의 피뢰경찰들과 맞다들게 되자 놈들에게 세찬 돌벼락을 안기면서 싸웠으며 80여명의 피뢰경찰을 길바닥에 쓸어눕혔다.

이러한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모두 원쑤들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그들의 억센 투지와 단결된 위력을 과시한것으로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전쟁준비를 위한 무슨 공사를 벌려놓고 농민들을 강제동원하여 마음대로 부려먹고도 품삯한푼 내주지않는 략탈행위를



탄압하는 괴뢰경찰과 맞서 싸우는 《교련반대》 투쟁에 나선 남조선학생들



THE BLACK PANTHER

Guardian

世界政治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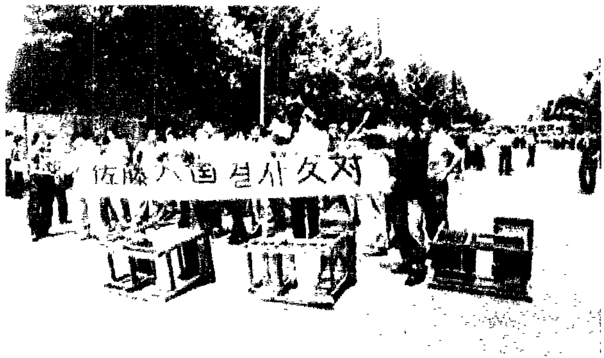
The Egyptian Gazette

SOUTH KOREA

통일혁명당의 선언과 강령을 크게 보도한 각국 출판물들



반미시위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의 남조선침입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



廣州大團地에 '零下村'

撤去民수용소서 凍死者발생

비닐로 하늘가린 1坪半에 7食口가

天幕속의 千餘世帶

맨바닥서 동동

경기도에 있는《광주대단지》에 강제 이주당한 가난한 주민들의 생활참상

고리채 및 고역에 시달리는 남조선 로동자들



勞務者울리는 高利債

勞賃滯拂에 골탕

生活에 쫓기거

作業證팔아



《한진상사》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체불로임을 지불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투쟁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충남 대전지구 철도로동자들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리고 있는 전남 광주시내 자동차운전수들



토지략탈을 반대하여 대중적폭력투쟁을 벌린 경기도 광주 5만명의 농민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는 재일조선인중앙경축대회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빛내이는 대회, 총련제9차전체대회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는 38번에 걸쳐 100억 2천여만원이나 되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조국왕래의 전면적실현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재일동포들



재일본조선청년들과 일본청년들과의 친선모임

계기로하여 이를 반대하며 밀린 품삯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진것이다.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내 300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도당에게 거듭 항의를 들이대고 밀린품삯을 받아내기 위해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달동안 품삯을 한푼도 지불하지않고있는 놈들의 악랄한 행위를 규탄하고 100여만원의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내 100여명의 농민들도 괴뢰악당놈들에게서 밀린 품삯을 받아내기 위하여 완강히 싸웠다.

이들의 대표는 괴뢰군청에 몰려가서 품삯 50만원을 2년이 지나도록 주지않고 잘라먹으려는 놈들의 악랄한 책동을 규탄하면서 밀린 품삯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련지리내 130여명의 농민들은 강제로 고역장에 끌어낸 박정희괴뢰도당과 괴뢰기관에 항의하고 몇달째 밀리고있는 품삯을 당장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항의문에서 그들은 6개월동안이나 한푼의 품삯도 주지않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밀린 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릴것을 선언하였다.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내 300여명의 농민들이 울진군 《토지조합》에 몰려가 밀린품삯을 받아내기 위하여 완강히 싸웠다.

그들은 토목공사장에 강제로 내몰아 부려먹고도 한푼의 품삯도 주지 않는 괴뢰도당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치솟는 분노로서 규탄하면서 밀린품삯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괴뢰도당이 벌려놓은 고역장에서 두달동안이나 혹사당한 경상남도 거창군내 1만 5천여명의 농민들은 놈들에게 품삯을 내놓으라고 강경히 요구하여 싸웠으며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내 300여명의 농민들도 울진군 《토지조합》에 몰려가 밀린품삯을 받아내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농민들이 생존의 권리와 생활개선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우고있음을 말해준다.

농민들과 함께 남조선어민들도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남조선어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더욱 발광적인 전쟁도발소동을 반대하고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였다. 그것은 범죄적인 전쟁연습으로 인한 어장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어장의 확보와 어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투쟁에서 잘 나타났다.

남조선 강원도 삼척지방의 1만여명의 어민들이 전쟁준비를 목적으로 어항시설을 파괴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대중적항의투쟁에 떨쳐 나섰다.

어민들은 자기들의 대표들을 통하여 괴뢰악당놈들에게 거듭 항의를 들이대고 어항시설을 파괴하려는것은 이곳 어민들의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으려는 악랄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어항파괴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목적수행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처에 벌려놓고 어항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

경상남도 하동군과 사천군 삼천포 등 남해안일대의 3만 5천여명의 어민들이 어장을 파괴한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에 항거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이곳 어민대표들은 박정희매국역적놈들에게 항의를 들이대고 이 지방의 수많은 어민들이 물고기잡이를 못하여 생활에 막심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피해보상금으로 2억 7천여만원을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몇해전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그 일대의 연해어장과 양식장을 몽땅 못쓰게 만든데 격분한 이곳 어민들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놈들에게 집단항의를 들이대는 등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던것이다.

경상남도 동래군 서생면내 1천여명의 어민들은 괴뢰도당에게 항의문을 들이대고 범죄적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물고기잡이를 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파도가 일때마다 배가 서로 부딪쳐 깨여지게 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는 놈들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어항시설을 당장 복구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어민들은 또한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내 3천여명의 어민들이 괴뢰국방부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고기잡이를 방해하는 괴뢰도당의 악랄한 행위를 반대하며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싸웠다.

그들은 항의문에서 제멋대로 바다에 《어로저지선》이라는 폭압망을 펴놓고 어민들로 하여금 어장에 마음대로 드나들수 없게 하는것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용서못할 범죄행위임을 확인하고 파쑈폭압망을 걷어치우고 어로조건을 보장하라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남조선 강원도 속초, 대진을 비롯한 동해안일대 1천여명 어민들이 《반공》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폭압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해나섰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워 배를 빼앗고 바다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괴뢰악당놈들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범죄적만행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들은 쪽배에 의지하여 동해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갖 재난을 다 당하던 중 공화국북반부어민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 구원된후 자기고향으로 돌아간 남조선의 가난한 어민들이다.

그런데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들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의 휘황한 사회주의건설성과와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파쑈탄압을 미친듯이 가하는 한편 어민들이 다시는 배를 타지못하게 하였다.

경상남도 창원군 웅동면내 3백여세대의 어민들이 어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괴뢰도당이 침략전쟁도발준비를 위하여 어항시설을 파괴한데 항의하여 일떠서 싸웠다.

남조선어민들은 적들의 어장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략탈책동을 반대하여 또한 줄기차게 싸웠다.

경상남도 통영군내 1천 500여명의 어민들을 비롯한 남해안일대의 어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렴치한 수탈책동을 반대하여 싸웠다.

그들은 괴뢰악당들이 어용수탈도구인 《어업조합》을 통해 강요하는 물고기판매에 절대로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히 물고기판매거부 투쟁을 벌렸다.

경상남도 통영군과 거제군내 400여명의 어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세금수탈책동에 항거하여 수탈기구인 《통영어업조합》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힘찬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가난에 시달리고있는 자기들에게 세금을 들씌우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있는 놈들의 강도적만행을 규탄하면서 악랄한 수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렸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등지의 1천 500여명의 어민들이 괴뢰군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박정희악당놈들의 물고기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렸다.

항의문에서 그들은 어민들의 등골을 짜내기에 미쳐날뛰는 괴뢰악당들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이른바 《물고기위탁판매장》을 설치하고 《위탁판매》라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물고기략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괴뢰악당은 고기배들이 제대로 드나들수 없는 곳에 《위탁판매장》을 만들어놓고는 잡아온 물고기를 제때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구실을 붙여 헐값으로 물고기를 빼앗는 악랄한 행위를 감행하여왔던것이다.

이 모든 투쟁에서 남조선어민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자기들의 투쟁을 정치적요구와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견결히 싸워나감으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 농민들과 어민들은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튼튼한 력량으로 자라갔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청년학생들의 투쟁】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모리화를 반대하며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파쑈통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하여 더욱 악랄해진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탄압과 학원의 군사화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4월 2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교련》반대시위투쟁을 발단으로하여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남조선전역에 급속히 파급된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원쑤들의 가혹한 폭압속에서도 10월까지 무려 연 14만 5천여명이 망라되여 여섯달동안이나 계속 격렬하게 싸웠다.

학원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 괴뢰도당의 군사화책동을 반대하며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대중적 시위항쟁을 벌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은 남조선사회를 더욱 파쑈화하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참을수 없는 질식상태에 빠뜨리려고 발광하여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행정에서 규모를 확대하고 투쟁조직과 구호를 새로 내오며 대학호상간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였을뿐만아니라 로동자, 농민들과의 련대적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자기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점차 심화발전시켜나아갔다.

투쟁기간에 적극적인 투쟁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투쟁의 60%를 차지하였고 그 중 시위투쟁이 64%를 차지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 2,000여명은 자기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막아나서는 악질교직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교문밖 200메터까지 진출하여 최루탄을 쏘아대는 300여명의 괴뢰기동경찰대놈들과 치렬한 투석전을 벌리였다.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생들도 체포된 학생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학원의 자유에 대한 괴뢰정부의 탄압에 항의하여 다섯차례나 시위를 하였으며 이 대학교 농파대학생 500여명은 완전무장한 괴뢰경찰놈들과 투석으로 맞서 20여명의 경찰놈들을 까눕히였다.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구속학생석방과 《휴업령》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에는 남조선전지역의 30여개 대학과 2개의 전문학교들에서 연 3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는데 이는 4.27부정선거반대투쟁기간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에 비하여 참가한 대학수에서 2배, 참가자수에 있어서는 10배로 늘어난것으로 된다.

청년학생들은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련맹》, 《민주수호투쟁위원회》, 《교련반대위원회》, 《학원수호위원회》,《구속학생석방추진위원회》, 《민주수호청년협의회》 등 투쟁조직을 뭇고 그의 지도밑에서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나아갔다.

학생들은 《교련》을 반대하는 구호뿐만 아니라 《학원사찰을 결사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정치권력을 이땅에서 송두리채 몰아내라》 등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국방부장관과 문교부 장관은 사임하라》, 《중앙정보부를 페지하라》, 《5.25부정선거를 반대한다》,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라》 그리고 《사또와 일본자위대장교단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 등의 구호도 제기하고 싸웠다.

고려대학교 300여명학생들은 성토대회를 열고 괴뢰대통령 《선거》를 《오도된 조국근대화와 외곡위기의식속에 진행》된 불법선거로 규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열고 《4.27선거》의 무효화를 주장하였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학생 200여명도 《공명선거보장》과 《4.27선거》의 무효화를 웨치며 가두시위를 벌렸다. 서울 대학교의 문리파대학학생 400여명은 4.19 기념탑 앞에 모여 4.27부정《선거》 성토대회와 《부정선거화형식》을 가지고 《원칙적인부정이 시정되지 않는한 5.25국회의원선거는 무의미하므로 재야당은 선거를 전면거부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박정희매국도당을 길잡이로하여 쓸어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치렬한 반일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문리파대학과 법파대학 110여명의 학생들은《사또와 일본자위대장교단의 방한을 결사반대한다》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였다.

성균관대학교학생들은 사또도당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1천 500여명이 서명한 《경고장》을,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경고문》을 《주한일본대사》놈에게 들이대였다.

서울대학교산하 여러 대학 학생들은 광주농민폭동과 《한진상사》 로동자들의 대중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체포구금된 폭동군중의 석방을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이 모든것은 이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그 규모와 성격,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 크게 전진하였으며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한계단 높이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식인들의 투쟁】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된 지식인들은 이해에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함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남조선의 각지 교원들이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과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서울대학교의 900여명의 교수들은 모임을 갖고 학문연구의 자유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5개항목으로 된 요구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요구서에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짓밟고 횡포한 간섭과 폭압을 일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에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면서 《대학의 자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수들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과 연구비를 올림으로

써 기본적 생활대책 및 연구조건을 당장 보장하라고 강경히 주장하였다.

부산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또한 각각 모임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지방대학들의 《운영개선》과 교수들의 생활조건개선 등을 요구하여나섰다.

이것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자기의 가장 절박한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서 자기들의 당면한 요구조건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남조선 대학교수들의 굳센 투지를 잘 보여주었다.

파쑈탄압을 반대하고 사회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은 언론인들속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은 박정희파쑈악당의 가혹한 언론탄압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언론의 자유가 유린말살되고있는데 대하여 신랄하게 폭로 규탄하였다.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남조선의 3대신문 기자들이 모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모임에서 오늘 남조선에는 《언론의 자유가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하게 위협받고있다》고 규탄하고 《정보원들을 주재시킴으로써 부당한 간섭을 하는것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남조선의 《기자들은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은 모두 보도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간섭과 압력을 당장 중지할것과 신문, 통신, 방송을 언론인의 량심과 자률에 맡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의 이와 같은 조직적인 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과 반파쑈민주세력들의 민주화운동과의 련대성이 강화된것으로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에 보다 심대한 타격으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것이 언론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한것이며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언론이 정부의 창녀노릇을 한다》고 규탄하면서 《언론은 비판의 칼을 뽑으라》, 《신문아 눈을 뜨라》, 《언론은 공동투쟁대렬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언론인에 대한 《경고장》이라고하면서 청년학생들의 요구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나섰다.

특히 남조선의 언론계를 비롯한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녀성계등 광범한 민주세력을 대표한 200여명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뭇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보정치와 경찰력에 의해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여있다》고하면서 《파괴된 민주질서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총궐기할것》을 촉구하는 《민주수호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출판물들은 적들의 파쑈적탄압속에서도 빈궁과 무권리가 지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남조선사회현실을 날날이 폭로규탄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이 쓴 《기사가 출판도중 륜전기를 세워놓고 깎기우는일, 또한 수많은 기사들이 말한마디없이 통채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일들》이 허다하고 몇년전만해도 정정해달라고 부탁하던것을 이제는 전화기로 호통을 치면서 통채로 기사를 빼고있으며》 지어 기사가 조금만 놈들의 비위에 거슬려도 《인사조치까지 되기가 일수》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조선출판물들에 실린 글의 대부분이 언론인《본의에 의한것이아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한》것이며 결국 적들의 조작에 불과하다고 날날이 까밝히였다.

언론인들은 언론출판에 대한 적들의 탄압책동의 악랄성을 폭로하는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발광적인 전쟁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남조선사회의 참상과 부패상을 대대적으로 폭로하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해에도 줄기차게 싸웠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투쟁대렬은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기타 계층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먼저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더욱 커질것입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10페지)

이해에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을 비롯한 소상인, 중소기업가들의 투쟁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남조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과 상인들은 괴뢰도당의 가혹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일대 3천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날강도적인 략탈행위를 규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이들은 괴뢰시청에 들이댄 항의문에서 무슨 《터세》라하여 자기들에게 많은 돈을 들씌워 빼앗아내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놈들이 강요하는 돈을 절대로 낼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였다.

충청남도 보령군 오천면에 있는 600여명의 주민들이 박정희도당의 교활하고 간악한 사기적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싸웠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조선의 도시와 농촌에서 살다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주택강제철거만행으로 집과 가장집물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이곳 섬에 쫓겨난 가난한 주민들이다.

그런데 괴뢰악당놈들은 이들의 살림살이를 파괴하고 황막한 섬에 내쫓은 것만도 부족하여 주민들이 섬에 쫓겨간후 피땀으로 개간한 땅마저 제놈들의 《소유》라고하면서 악질지주놈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먹고 팔아넘기는 용납할수 없는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곳 주민들은 들고일어난것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내 4천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읍사무소에 몰려가 놈들의 세금수탈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인민들의 살림살이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과세표준액》을 전해보다 100%나 더 끌어올려 많은 세금을 들씌운데 격분하여 그것을 규탄하고 가혹한 세금수탈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시내 1천 500여명의 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추악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이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단죄하는 글발이 씌여진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괴뢰시청앞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놈들의 날강도적인 략탈행위를 견결히 폭로규탄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이곳 주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제놈들이 관리하는 집에 시내 집없는 주민들이 들었다하여 그들에게까지 《입주비》라는 구실을 붙여 20만원의 돈을 빼앗아내려는데 항거하여 들고일어났다.

경기도 려주군 금사면 리포리일대 500여명의 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협잡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이들은 괴뢰군청에 항의하고 자기들의 집터를 강제로 빼앗아 지주놈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박정희도당의 략탈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대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집터를 절대로 내놓을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러운 협잡행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면내 주민 100여세대의 집터를 한 특권층놈의 《대지》인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가지고 수십년전부터 살아온 이들의 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며 그 터를 지주놈에게 팔아넘기려고 책동하였다. 이 략탈행위에 격분한 주민들은 들고일어난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조건의 개선과 삶을 위한 가난한 주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이 벌어졌다.

남조선의 소상인, 중소상공업자들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세금수탈을 반대하며 영업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경기도 인천시내에 있는 300여명의 음식업자들은 이곳 괴뢰시청과 《동인천세무소》에 각각 항의문을 들이대고 《소득세》, 《영업세》, 《음식세》 등 갖가지 《세금》을 들씌워 돈을 빼앗아내려는 놈들의 략탈행위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경상북도 대구시내 100여명의 가난한 상인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세금수탈기구인 괴뢰대구지방국세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종래보다 세금을 7배까지 끌어올린 놈들의 강도적략탈책동을 견결히 항의규탄하고 세금을 낮출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전라북도 남원군내 150여명의 상인들이 괴뢰도당의 략탈책동을 반대하며 영업조건보장을 요구하여 군청에 몰려가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렸다.

이들은《못살겠다, 밥을 달라》, 《공설시장은 누구의 것이냐》고 웨치면서 영업조건을 지어주지 않고 《입주금》이란 허울좋은 이름밑에 장사밑천까지 깡그리 빼앗아가는 괴뢰도당의 만행을 폭로 규탄하였다. 그들은 놈들에게 빼앗아 간 돈을 돌려주며 영업조건을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 《제일공설시장》안에 있는 소상인들이 시장을 빼앗아내려는 괴뢰악당놈들의 책동에 항거하여 완강히 싸웠다.

이곳 소상인들과 그 가족들 300여명은 일제히 가게문을 닫아매고 괴뢰도당의 시장강탈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이를 당장 그만두라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이 《공설시장》안에 광주리나 또는 가마니 널판자 등을 펴놓고 과일, 고구마 등을 조금씩 팔아 생계를 이어가거나 구멍가게를 만들어놓고 생활하고있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인조합을 뭇고 자체로 시장을 관리운영해왔다.

그런데 괴뢰악당놈들은 이 시장을 제놈들의 《직영》으로 만든다는 명목밑에 그것을 빼앗아 제놈들과 결탁된 몇몇 악질모리배놈들에게 넘겨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여 나선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상인들은 다시 들고일어났다.

서울시 남대문구내 500여명의 령세상인들이 략탈을 일삼는 괴뢰도당의 졸개에게 뭇매를 안겼다.

그들은 그 무슨 《외래품단속》이라는 허황한 구실밑에 이곳 시장에 달려들어 자기들의 보잘것 없는 물건들을 닥치는대로 강탈해가는 괴뢰악당의 졸개들에게 복수의 징벌을 안겼다.

이곳 가난한 상인들의 뭇매를 맞고 녀부러진 괴뢰악당의 졸개들은 수명이나 되는데 이에 악이바친 악당들은 괴뢰경찰까지 끌어내여 탄압해나섰다.

경상남도 진해시 《중앙시장》내 200여명의 령세상인들이 《시장사용료》를 끌어올린 박정희괴뢰도당의 수탈행위에 항거하여 나섰다.

그들은 괴뢰도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시장사용료》를 엄청나게 끌어올린것을 신랄히 규탄하고 《시장사용료》를 당장 낮추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한고리로서 살림살이를 마구 헐어버리는 박정희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싸웠다.

서울시 성동구내 5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살림집들을 마구 헐어버린 놈들의 죄행을 치솟는 분노로 준렬히 규탄하고 《갈곳이 없다. 생활대책을 세우라》고 웨치며 완강히 싸웠다.

박정희악당은 성동구에 있는 청계천주변에 군용도로 확장공사를 벌려놓고 주민들의 살림집을 닥치는대로 헐어버렸다.

이곳 주민들은 한데에 나앉아 밤을 지새울뿐만아니라 심한 굶주림과 무서운 전염병의 침습까지 받아 심한 고통을 겪어 오던 끝에 들고 일어난것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내의 가난한 주민 300여명은 괴뢰군청에 몰려가 원쑤들의 범죄행위를 격분에 넘쳐 규탄한 다음 《집터를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며 버티기투쟁을 벌리였다.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둔전리내 500여명 주민들이 《우리의 집터를 내놓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일제히 괴뢰리사무소에 몰려가 자기들의 살림집을 마구 헐어버린 원쑤들의 강제철거만행을 규탄하고 집터를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들은 서울시내에서 살다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주택강제철거만행으로 살림집을 헐리우고 경기도 광주지방에 쫓겨간 가난한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집한간 세울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가 더는 참을수 없어 들고 일어난것이다.

원쑤들의 강제철거반대투쟁은 생계의 밑천인 점포를 마구 헐리운 소상인들속에서도 치렬히 벌어졌다.

충청남도 대전시내 중동과 원동, 인동일대 50여명의 가난한 상인들과 주민들은 괴뢰시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자기들의 점포들과 살림집들을 강제로 헐어버린 박정희괴뢰악당놈들의 용서못할 범죄적만행을 견결히 단죄하면서 련일 세찬 투쟁을 벌렸다. 이들은 괴뢰도당의 악질졸개놈들을 족치는 한편 자기들의 투쟁을 탄압해나서는 괴뢰경찰놈들에게 몽둥이 세례를 안기면서 견결히 싸웠다.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내 상인들 500여명이 장터를 빼앗으려는 괴뢰악당놈들과 맞서 견결한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이날 무턱대고 시장을 철시하려고 덤벼드는 괴뢰도당의 악랄한 책동에 항거하여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괴뢰악당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워 족쳐대는 한편 그놈들이 타고온 화물차를 짓부셔버렸다.

남조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의 투쟁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을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멸시를 반대하는 반미투쟁과 결합하여 전개한것이다.

경기도 평택군 평성면내 2천여명의 주민들은 미제침략군 80여놈이 갑자기 안정리 마을에 뛰여들어 칼과 몽둥이

를 휘둘러 기물을 마스면서 7명의 주민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90여명에게 경상을 입히는 등으로 마을을 《류혈파비명》 속에 잠기게 한데 항거하여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이곳 주민들은 몽둥이를 들고 미제침략군부대 정문앞까지 몰려가 《란동자를 내놓아라》, 《미군은 물러가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놈들과 맞서 싸웠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침략군놈들은 부대정문 앞에 바리케트를 쌓고 15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경비병을 내몰아 최루탄을 쏘아대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포악한 탄압을 하였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완강한 항의로 사태가 더욱 험악해지자 외출나갔던 장병놈들은 헬리콥터로 실어날라 제놈들의 력량을 보강하는 한편 이 부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 400여명을 모두 병영밖으로 내쫓는 소동까지 벌렸다.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50여명의 주민들은 한 청년이 조선녀성을 희롱하는 미제침략군놈을 제지하려들자 이놈이 오히려 청년을 구타한데 격분하여 놈에게 주먹세례를 안겼으며 그후 미제침략군놈들이 조선녀성을 희롱한 미제침략군놈을 제지한 청년을 찾는다는 구실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우려들자 또다시 몽둥이를 휘둘러 헌병놈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내 150여명의 주민들은 미제침략군야수놈이 무고한 조선녀성을 잔인하게 때리고 달아나는것을 보고 이에 격분을 참지 못해 원쑤놈을 추격해갔다. 미제침략군병영정문앞까지 달려간 주민들은 80여명의 미제침략군헌병놈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탄압해나서자 놈들에게 복수의 돌벼락을 들씌우며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이리하여 미제침략군 여러놈을 까눕혔다.

미제침략군놈들의 만행을 반대하는 남조선주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투쟁구호가 보다높은 수준에서 제기된것이다.

주민들은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은 돌아가라》는 등으로 미제침략군을 반대하는 구호들을 제기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항거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벌린 군중적반미투쟁은 이해 5월부터 7월중순까지에 나타난 제한된 자료들을 초보적으로 종합한데 의하더라도 11건에 달하고 거기에 7천여명의 인민들이 군중적으로 참가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적성격을 띠고 벌어진 사실이다.

7월 10일에 벌어졌던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주민들의 치렬한 반미투쟁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8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이 불의에 마을에 뛰여 들어 칼과 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근 100명의 주민들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흉악한 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민족적격분을 참을수 없어 단호히 일떠선 이 면주민 2천여명은 《미군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쓴 프랑카드를 들고 놈들의 병영앞에 몰려가 일대 집단적항의를 들이대고 범죄자들을 당장 처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7월 16일 충청남도 대덕군내 녀성주민 200여명은 무고한 녀성을 잔인하게 때려죽인 미제침략군놈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에 격분하여 살인귀놈들의 병영에 몰려가 놈들에게 세찬 돌벼락을 들씌우며 오래동안 반미시위를 벌렸다.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의 주민 500여명은 7월 13일밤 미제승냥이놈이 제놈의 극악한 죄행을 규탄하였다하여 한 학생을 때려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여 나선데 일제히 들고일어나 그놈에게는 물론 그놈을 구원해보려고 미친듯이 달려나온 200여명의 미제승냥이들에게 단호한 복수의 돌벼락을 들씌우며 된매를 안겼다.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서 미제인간백정놈이 조선녀성을 희롱하는데 격분한 주민 50여명이 원쑤놈들에게 복수의 돌벼락을 들씌운 사실과 이에 앞서 이 도내 문산에서 제놈들이 타고간 자동차료금을 요구하는 한 남조선운전수에게 도리여 폭행을 가한 미제악당 다섯놈의 만행에 격분한 300여명의 운전수들이 미제침략군 1군단 사령부 정문앞에 몰려가 권총과 몽둥이로 위협하는 미제헌병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우며 용감히 싸운 사실등은 미제야수들에 대한 남조선주민들의 민족적울분의 표시이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애국적주민들속에는 미제침략군 탄약고와 무기고를 기습하여 탄약과 무기를 탈취하는 대담한 투쟁이 빈번히 일어났다.

서울의 애국적주민들이 8월 1일밤 시내 영등포구에 있는 미제침략군 8군단 탄약고에 들어가 30여개의 수류탄이든 상자를 통채로 빼앗아내오는 대담한 투쟁을 벌린사실과 20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애국적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자동총을 빼앗은 사실들은 그 단적실례들이다.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괴뢰군내에서까지 일어남으로써 괴뢰지배층내부에 심한 불안을 조성하였다.

8월 23일 인천 앞바다 신미도에 끌려가있던 괴뢰공군병사들은 집단적인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 무장폭동은 범죄적인 침략전쟁도발책동과 파쑈적폭압에 날로 더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놈들의 모진 멸시와 학대에 대한 단호한 항거로서 원쑤놈들을 더욱더 혼란과 공포속에 몰아 넣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이해 남조선 가난한 주민들과 소상인 중소기업가들은 적들의 파쑈적탄압과 략탈을 반대하며 삶의 권리를 위하여 세차게 싸우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 촉진의 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방침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내부문제인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8개항목의 구국방안과 8월6일연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침들을 다시금 밝히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이 이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8~29페지)

수령님의 조국통일에 대한 사상과 방침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이해에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들을 내놓았으며 이 공명정대한 방안들은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1971년 4월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및 1972년도 신년사에서 그리고 지난해 9월 25일과 10월 8일 일본 《아사히신붕》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기자와 하신 담화 또 1972년 1월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와 하신 담화에서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1971년 4월 13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긴박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전민족이 힘을 합쳐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 그리고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과 제정당사회단체인사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제기하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제기한 8개 항목의 구국방안에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민족내부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할데 대한 문제, 남조선에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협정과 조약을 페기하며 민주주의적 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 완전한 통일에로 접근할데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여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조치와 함께 분렬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구체적방안들이 제기되여있다. 이와 함께 구국방안에는 민족의 당면과업을 협의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 등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자주평화통일에 관한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을 다시한번 천명한것으로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이며 나라에 조성된 현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람들과 아무때나 접촉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월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과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제거하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내놓으시였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해방후 처음으로 조선사람끼리 모여앉아 민족내부문제를 론의하게 된 판문점 남북적십자회담도 남북간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기울여온 성의있는 노력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통일기운과 세계여론의 압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인민들은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거역하고 조국통일의 길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무분별하게 책동하였다.

남조선에서 급격히 앙양되는 통일기운에 질겁한 박정희도당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과적진행을 가로막기 위하여 책동하는 한편 남조선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온 남녘땅을 공포분위기속에 몰아넣고 그 막뒤에서 인민탄압을 위한 새로운 악법들을 조작하고 폭압망을 강화하며 괴뢰기구들과 사회정치생활을 《림전태세》로 개편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련일 대대적인 군사연습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이와 함께 괴뢰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더욱 본격적으로 끌어들여 조선에서 다시 전쟁을 도발하려고 날뛰고 있다.

이에 있어서 박정희도당은 있지도 않은 그 무슨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요 뭐요하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것으로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감싸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기만적책동의 정체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더욱더 깊은 궁지에 빠져들어갔을 뿐이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날을 따라 드높아가고있다.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4페지)

1971년에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촉진되고 우리의 혁명기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운이 급속히 높아졌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강령실현에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켰으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웠다. 사로청, 녀맹, 직맹, 농근맹 대회들을 통하여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근로단체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갔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 제5차대회결정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당은 선동원, 선전원들과 뜨락또르운전수들, 보건일군들과 상업일군들, 교원들의 전국적인 대회를 열어 그들이 당 제5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데서 자기 앞에 나선 임무와 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켰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투과업수행에 비상한 혁명적열의로 떨쳐나섰다.

이해에 우리 인민은 특히 당 제5차

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심고리인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수령님께서 몸소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 희천과 구성, 만경대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기계공장로동계급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1972년 4월 15일까지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뜨락또르와 자동차생산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이 대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석탄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의 기계화와 농촌기술혁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교통운수부문의 기술적장비가 강화되고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하여졌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이 발전하는데 발맞추어 경공업부문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로동계급의 힘있는 지원밑에 5만정보의 관개를 실시하였으며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고 모든 농사일을 제때에 실속있게하여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축산업의 토대도 더 튼튼히 닦아놓았다.

문예부문에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방공업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1971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다. 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않고 강압적인 군사훈련과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다. 특히 이해에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남조선혁명력량이 조직화되고 확대강화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해에 총련과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재일조선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특히 총련조직들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재일조선동포들은 일본인민들과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총련조직은 일층 강화되고 그 위신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이해 우리의 주체적력량은 한층 더 강화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성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선사람끼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9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 한층 앙양시켜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짐과 함께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이해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였으며 광범히 진행된 군중집회, 보고회들에서 남조선 각계층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호소문들을 채택하였다.

성명, 호소문, 담화, 편지들에서는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행위를 단호히 폭로규탄함과 함께 남반부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2월 27일, 6월 2일, 12월 7일의 성명과 6월 1일, 9월 27일의 대변인성명 그리고 민족보위성은 12월 25일의 대변인성명들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고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조선에서 또다시 새전쟁을 도발하는 군사적모험의 길에 들어선다면 놈들은 제놈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없어지고야 말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외무성은 7월 1일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전쟁상인의 우두머리의 하나인 애그뉴란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다그치기 위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뿐아니라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인 일본군국주의의 두목 사또가 미제의 전쟁정책에 따라 재침략의 앙심을 품고 우리조국 남녘땅에 기여드는것을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과 도전행위로서 준렬히 단죄하고 놈들의 전쟁행각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9월 28일 외무성 성명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이해 9월에 있은 유엔총회의정에서 삭제하게 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음모책동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가로 막으려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유엔이 미제의 침략도구로 더는 리용되지 않고 본래의 사명과 헌장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면 이때까지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작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결의》들을 취소하고 유엔에서의 《조선문제》의 부당한 토의를 올해뿐만아니라 영원히 그만두어야하며 《유엔군》의 간판을 뒤집어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외무성은 12월 7일부 성명에서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 나라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끝끝내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동족상쟁을 도발하는 길에 나선다면 그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며 자신의 비참한 멸망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근로단체들과 사회단체들에서는 미제의 지시밑에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와 전쟁도발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성토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재일동포를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가족과 안부편지를 주고 받은 최덕환에게 파쑈적인 《반공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들씌운데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서 채택한 남조선 로동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튼튼한 혁명기지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뜨거운 동포애적지지성원, 그리고 전세계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의 지지성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그에 따르는 강도적인 략탈을 반대하여 결사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대중적인 폭동에 분연히 일떠선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

6월 28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채택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지하와 산속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학교와 감방에서 반미반일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의 모든 청년학생들에게 이 대회와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성원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는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공화국북반부 전체 녀성들의 이름으로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을 전례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 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서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호소문은 북반부 전체 녀성들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총칼도 교수대도 두려움없이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녀성혁명가들과 애국적녀성들에게 가장 열렬한 지지와 뜨거운 동포애적성원을 보냈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학원을 강점하고 학생들에 대한 군사파쑈폭압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는 공화국북반부 각지 근로자들의 군중집회가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해에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여 나섰다.

재일동포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책동을 걸음마다 폭로하는 각종 군중집회와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이에서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반미구국투쟁에 동포애적지지성원을 보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괴뢰투쟁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국제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세계반제혁명력량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23~2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사회계의 지지를 받고있다.

김일성동지께 형제적인 사회주의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을 비롯한 반제적이며 혁명적인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여 보내오고있는 전문들,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광범히 진행되고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들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된다.

또한 아세아 혁명적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혁명조직들과 단체들, 수많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 그리고 평화애호적인 국제민주단체들과 기구들은 물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의 수많은 각계 인사들과 평화투사들 지어 자본주의나라 우익정계인사들속에서까지도 우리 당이 제기한 자주적이며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오고있다.

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3대륙청년학생들은 자기들의 집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우리들이 가장 흠모하고 경애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기초하여 8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재 천명하였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것처럼 조선은 오로지 이 8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에 철저히 의거하여 통일되여야 하며 그 어떤 다른 길은 없다.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나서고있는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재천명된 8개항목의 평화통일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꾸바국제정치연구소 소장 페르난도 알바레스는 자기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정부가 제시한 8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들은 세계각국의 전우들과 벗들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나라의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자신의 민족내부문제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제가 온갖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제 소굴로 돌아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현 남조선괴뢰통치자들과 체결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일체 매국적인 조약들을 페기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일본사회당출신 참의원 의원이며 일본방송로동조합위원장인 우에다 떼쯔는 일본언론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이번에 또다시 제기한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을 통일하려는 지극히 정당한 방안이다.

특히 미군을 철수시킨 기초우에서

같은 민족이 모여앉아 유무상통하자는 그 절절한 호소에 누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있겠는가.

나는 언론부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국방안에서 명백히 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제의들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흉악한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이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구라파나라 청년단체대표단들은 공동성명에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제를 다음과 같이 규탄하였다.

《우리는 치솟는 격분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고 그들이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견결히 단죄하며 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침략책동을 당장 그만둘것을 단호히 주장한다.…

우리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대가 당장물러가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로므니아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당신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통일방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념원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며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당신께서 제시하신 이 방안에는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의 힘으로 완수하려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맥박치고있으며 철천의 원쑤 미제를 몰아내고 암흑속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하려는 자애로운 어버이 사랑과 뜨거운 동지애가 차넘치고있습니다.》

말리 바마코지구 청년 및 체육지도국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커다란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은 누구나 할것없이 조국이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절실한 념원에 부합될뿐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는것이다.》

세계 진보적인인민들과 벗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자주적통일이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하며 필요하다면 조선인민과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일반동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고립되여있지않다. 중국인민, 인도지나 세나라인민, 아세아인민 및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은 조선인민의 편에 있으며 그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아름다운 삼천리강산이 통일될것이며 조선인민이 다시금 함께 살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편지에서 외국의 한 벗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영웅적조선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버마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임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분렬되여있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으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야 하며 조선의 통일은 조선사람자신의 힘에 의하여 하루속히 성취되여야 합니다.

전세계 수억만인민들은 각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안을 한결같이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편에 변함없이 서있을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련대성 다오메위원회주최로 진행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군중집회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이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통일의 기본장애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우리 다오메인민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지금까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전세계의 평화를 교란하고있는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합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고 있음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남북의 접촉과 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속에서는 평화적조국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해방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남북으로 갈라진 동포들의 불행을 덜어줄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있습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남북사이의 이러한 접촉이 늦게나마 실현된것을 매우 기뻐하고있으며 이 회담이 남북사이의 장벽을 허물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

로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15폐지)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에 기초하여 남북의 접촉과 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매시기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남북의 래왕과 서신거래를 비롯한 인도주의적조치를 취할데 대해서도 한두번만 제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그때마다 매번 반대하였으며 《승공통일》을 운운하면서 분렬을 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1971년 4월)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에서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토의하고 그 타개책으로서 8개항목의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방침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으며 그들속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이 또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였으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강력히 항의 규탄하였다.

바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도 마치 조국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가장하여 나서지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우리의 시종일관한 동포애적제의의 일부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1971년 8월 20일 남북조선 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의 첫 접촉이 있은후 5차례의 파견원들의 접촉에 이어 9월 20일부터 예비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은 판문점에서 1971년 9월 20일부터 시작되여 1972년 2월 17일까지에 19차례 진행되였다.

예비회담 제1차, 제2차회의에서는 예비회담의 운영절차상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우리측이 제안한 대로 본회담의 장소문제, 본회담의 개최시일문제, 본회담의 의정문제, 본회담의 대표단구성문제, 본회담의 기타 절차상문제들을 순차에 따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예비회담의 토의순차에 따라서 문제별로 회담진행정형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본회담의 장소문제에 대하여

본회담의 장소문제는 제1차회의에서 제기한 우리측제안에 기초하여 예비회담 제2차 (9월 29일), 제3차(10월 6일) 회의들에서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본회담장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미 예비회담 제1차회의에서 본회담을 판문점에서 할것을 제의하였고 그후 본회담을 하루속히 진행하려는 념원에서부터 본회담을 먼저 판문점에서 시작하여 진행하면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측은 본회담장소를 평양과 서울에서 할것을 제기해왔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본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는가고 묻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함으로 본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세상에 선포하였다.

—본회담의 개최날자 문제에 대하여

본회담개최날자문제는 예비회담 제3차회의부터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하여 4차(10월 13일), 5차 (10월 20일), 6차(10월 27일) 네차례나 토의를 거듭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측이 제의한 본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적문제에서만 합의를 이룩하고 의정자체가 요구하는대로 본회담날자를 구체적으로 찍어 정하는 문제는 합의를 보지못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남조선측이 구체적날자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본회담을 1971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열것을 주동적으로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던가 아니면 남조선측에서 필요한 날자를 제시할것을 다시금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적십자측은 온갖 생떼를 써가면서 본회담개최날자를 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남조선측은 예비회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때문에 본회담날자를 정하는것이 《불필요하다》느니 《본회담날자를 지금 정하는것은 예비회담 본연의 성격에 어긋난다》느니 하면서 네차례의 토의에서 본회담날자를 예비회담 종료회의에서 토의하자고 고집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측이 본회담날자를 찍어정하지않음으로써 예비회담을 무한정 질질 끌고 본회담을 묘원하게 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전민족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성사시키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단계>를 운운하면서 이것은 할수 있고 저것은 할수 없다느니, 어떤것만 먼저하고 다른것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느니 하고있는데 이것은 지연전술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9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본회담날자를 결정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한것이지만 우리측의 성의만으로는 합의에 도달할수 없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회의를 끌수 없기때문에 쌍방의 주장을 기록에 남기고 이를 우리 인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기로 하고 다음문제 토의에 들어갈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제6차회의부터는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제기한 의정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는데로 들어갔다.

—본회담 의정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이 본회담의정으로 내놓은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이다.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해주는 문제

우리측이 제안한 의정은 민족의 분렬이 4분의 1세기 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하며 또 해결할수 있는 인도적문제로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뿐만아니라 친척, 친우들의 문제까지 폭넓게 포함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적문제로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간의 자유로운 래왕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측은 우리측의 이 공명정대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대신 예비회담 제6차회의에 와서 우리측이

제기한 의정에다 포함되여있는 내용들의 일부만을 다섯가지로 갈라 본회담의 이른바 의정으로 내놓았다. 본회담의 의정문제에 관한 남조선측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서신교환문제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회알선 및 상호방문문제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문제

⑤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본회담의정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과 남조선측제안과의 본질적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측은 폭넓게 해결하자는것인데 남조선측은 어떻게하나 폭을 좁혀 가족찾기 하나에만 국한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측은 남북간의 자유로운 래왕을 원칙적으로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남조선측은 사실상 여러가지 제한과 통제속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남조선측은 본회담의 의정을 이처럼 남북조선인민들의 념원과 기대에 어긋나게 제기하고는 예비회담 제6차회의에서부터 7차 (11월 3일), 8차(11월 10일), 9차(11월 19일), 10차 (11월 24일), 11차 (12월 3일), 12차 (12월 10일), 13차 (12월 17일), 14차 (1972년 1월 10일), 제15차(1월 19일), 제16차 (1월 28일) 제17차(2월 3일) 회의까지 계속 생떼를 씀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남조선적십자측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회담에 계속 장애를 조성한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과 직접 관련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열렬한 지향을 반영하여 마련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파탄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남북접촉과 대화가 진행된 초기에 벌써 《남북접촉과 대화에 기대를 걸지 말라》느니, 《너무 흥분하지 말라》느니, 《성급한 통일론의는 경계되여야 한다》느니, 《통일을 위해 랭철해야 한다》느니하고 떠벌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정치적타결에는 10년이 걸리게 될것》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드는 한편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한 허위소동을 벌리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온갖 군사적 도발과 전쟁준비에만 미쳐날뛰였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빨리 성사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때에 터무니 없는 구실밑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류례없는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면서 남조선전역을 군사파쑈의 도가니속에 더욱 깊이 몰아넣고 우리 나라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킴으로써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회담진전을 방해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고 회담을 촉진시킴으로서 분렬로 인한 겨레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어주려는 일념으로부터 예비회담 제17차회의에서 남조선측의 주장도 참작하여 남조선측이 무서워 받아들일수 없다는 자유로운 래왕대신 자유로운 방문을 새롭게 제기하는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자유로운원칙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새《수정안》에 《자유》란 문구를 쓰기는하면서도 《호상방문을 위한 자유래왕》이라고 한다던가 조항마다에 불필요한 《알선이란》 문구를 붙여놓는 등 자유를 제한, 구속하겠다는것을 드러내보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측에 의하여 자기들의 《수정안》의 부당성이 여지없이 론박되자 18차회의에 와서야 의정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원칙을 관철할데 대한 우리의 일관한 주장에 동의하여 나서면서 자유로운 방문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환영동의한다고 하고 불필요한 《알선》이라는 문구를 의정에서 삭제하는것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19차회의(2월 17일)에서 우리측은 회담의 빠른 진척을 위하여 본회담의 의정을 갈라놓는 문제를 재고려할수 있으며 의정의 문구를 계속 토의하여 다듬을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면서 본회담의 의정문제 토의사업을 결속짓는데 보다 효과적인 실무적도움을 줄 쌍방의 각각 2~3명 대표들과 2~3명의 수원들로 구성되는 쌍방실무자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폭넓게 덜어주며 모든 사업을 자유로운 원칙에서 해나갈수 있도록 본회담의 의정을 설정할데 대한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를 남조선측이 받아들인 조건에서 우리측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되였던 쌍방실무자회의는 석달반동안 열세차례의 토의과정을 거쳐 6월 5일 예비회담 제13차실무자회의에서 마침내 본회담의 의정을 다듬는 사업을 성과리에 끝냈다. 이에 기초하여 6월 16일에 있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20차회의는 쌍방실무자회의에서 다듬은 본회담의 의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의정으로 합의확정하였다.

회의에서 합의된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미제강점하의 남조선형편

단말마적발악, 파멸적인 정치경제적위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이갈수록 더 큰 불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폭압소동을 벌림으로써 막다른골목에서 빠져나와보려고 꾀하지만 그것은 림종에 다달은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16폐지)

1971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준비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강화를 위한 지탱점으로서의 군사파쑈독재를 강화하려고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이와같은 책동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모순뿐만아니라 반동지배층 내부에서의 모순과 대립을 또한 격화시켰다.

이른바 《미군감축》의 기만적구호밑에 새 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년초부터 공화국북반부를 《속전속결》로 삼켜보려는 망상밑에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댔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전쟁준비를 강화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책동을 또한 더욱 적극화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매여달렸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재침의 길을 더욱 넓혀갔다.

또한 이해 남조선 정치정세발전의 중요 특징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려놓은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놀음을 계기로 놈들이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 반동지배층내부에서 개싸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져 더욱 더 혼란속에 빠져든것이다.

《선거》를 전후하여 반동지배층내부에서 치렬히 벌어진 권력다툼은 그놈들간의 모순과 대립을 더한층 격화시켰다. 그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크게 뒤흔들렸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범죄적인 새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으나 그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 한층 심화되였다.

미제와 주구들의 침략과 전쟁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진영을 침략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여왔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3폐지)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전변시키고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더 발악적으로 매여달렸다.

놈들은 군사깡패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침입》을 고아대게 하면서 남조선을 제놈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더욱 전변시키며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소동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군사침략기지 강화책동】 이해에 미제는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는 즉시로 미국본토로부터 병력과 군사장비를 실어나르는 《장거리공수작전》에 리용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새로 3개의 비행장건설공사를 벌려왔는데 12월 20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는 이 공사가 완공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행장들은 놈들이 앞으로 1974년까지 계속하여 건설할 10개의 비행장중의 일부인것이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이른바 《공개전진기지》라는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남조선 괴뢰함대 사령관이란자는 이 해군기지건설이 《유사시에 대비한 기지확장정책》의 하나로 추진된것이며 동서 량해안에서 작전중에 있는 함정들의 《출동능력을 신속하게 뒤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떠벌렸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로골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전쟁준비책동을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가지 신형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강화하며 괴뢰군무력의 《현대화》를 촉진시킨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무력증강책동】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 미자와공군기지에서 수많은 전투폭격기들을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전략무력과 신형무기 및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침략공군기지에 《에프―4》팬톰전투폭격기로 편성된 새로운 《전술비행단》을 설치하였다.

이른바 《미공군 제3전술비행단》으로 불리우는 이 침략무력은 3개 대대의 팬톰전투폭격기들로 편성된것으로서 그것은 남조선강점 미제공군의 《주력》을 이루는것이다.

또한 미제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침략군 61포병대 제8 유도탄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제2사단 지역에 배치하였으며 미국본토에 있던 《채파랄》유도탄 및 20미리 《벌칸》포체제를 장비하고있는 새로운 대공포병대를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강점 미침략군의 장비강화와 무력증강만이아니라 남조선괴뢰군 무력증강에도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그의 전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해마다 제공하는 수억딸라의 군사《원조》외에 추가적으로 10억 딸라에 이르는 막대한 군사《원조》를 주기로 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가지고있던 군사장비 1억딸라분을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신형전투폭격기 《에프—5—이》수십대를 괴뢰해군의 전투력증강을 위해 고속포함을 비롯한 병력수송선, 장비수송선, 유조선 등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남부월남침략전쟁터에 쓸어넣었던 살인장비중에서 《엠—16》자동무기와 통신장비, 차량 및 장갑차, 곡사포 등 수많은 작전장비들을 12월초부터 남조선에 실어들여 괴뢰군에 넘겨주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유격려단》을 비롯하여 전연지역 괴뢰군부대들의 병력을 대폭 늘이였으며 지어는 녀자들을 강제징집하여 《녀군단》까지 새로 편성하였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향토예비군》을 《정예화》한다는 표방밑에 《향토예비군》을 《엠—1》소총과 카빙총으로 무장시키며 그것을 괴뢰군의 지휘체계에 끌어넣고 그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다그쳤다.

즉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휘를 괴뢰군에 의한 유일적인 지휘체계로 《일원화》하고 현역괴뢰군이 직접 통솔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놈들은 각 지구에다 《상주감시반》까지 새로 내오고 거기에 현역괴뢰군 장교들을 고정배치하였으며 《향토예비군》대대장까지도 현역장교로 전부 교체하였다.

이렇게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향토예비군》의 《방위사단화》를 추진시키였고 그의 첫 조치로서 《향토예비군감호부대요원》들로 구성된 93개의 《향토예비군전투대대》를 편성하고 유사시에는 이를 《현역화》시킴으로써 괴뢰군대렬을 급격히 확장하려고 획책하였다.

새전쟁준비에 미쳐날뛰는 놈들은 괴뢰군병력을 크게 늘일 목적으로 이해를 《병무행정완성의 해》로 정하고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괴뢰군에 끌어내기 위한 《5대행정목표》를 세우고 현 괴뢰군징집신체검사규정을 또다시 뜯어고쳐 징집범위를 대폭확장하였으며 수십개의 《법무지청》을 새로 내오고 그에 망라된 졸개들에게 탄압《권한》을 주어 병신까지 포함한 모든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괴뢰군에 끌어내게 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군기피자들에 대한 폭압과 함께 《소집령장》까지 미리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있는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송환하기에 미쳐날뛰였으며 재일동포청년들까지 괴뢰군에 끌어넣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하였다.

또 괴뢰군의 기구들을 늘이였으며 각 병종참모부들이 가지고있는 《훈련대》, 《수사대》, 《병참기구》와 같은 기구들을 통합하였을 뿐만아니라 《륙군군수사령부》니, 《군수지원단》이니하는 보급체제를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비전투성원》의 《전투요원화》라는 이름밑에 괴뢰군의 후방병력들을 전연지대에 집중배치하여 전투병력을 급격히 증강하였다. 이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새전쟁도발준비를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를 잘 말해준다.

【발악적인 전쟁도발책동】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준비를 적극 추진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으며 군사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휘밑에 괴뢰정부 《각부처》의 《비상계획》에 따른 《1971년도 을지도상연습》이라는 전쟁소동을 벌렸다.

이른바《남침》을 가상한 《비상대응책》이란 구실밑에 《국무의원》이니 《안보위원》이니하는 졸개들을 《청와대》에 비상동원시켜놓고 《모의긴급안보합동회의》를 벌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한 이 전쟁연습소동에서는 박정희역도자신이 《도상훈련》, 《통제소》라는데 직접나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졸개들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후 《국가동원령》이니 《계엄령》이니 하는 80여건의 《전시법령》의 《선포》놀음을 벌리였다. 놈들은 지어 《서울공방가상전》이란 광란적인 전쟁소동까지 피웠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밑에 동해안일대에서 수많은 괴뢰해군병력과 해군함정 및 공군전투폭격기 등을 끌어내여 이른바 《합동상륙훈련》이라는 전쟁연습소동도 벌리였다. 놈들은 괴뢰해군, 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능력》을 높이고 게릴라전 등 소부대 《전투능력을 련마》하기 위한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면서 벌린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극히 무모한 불장난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상북도일대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 이른바 《향토예비군》에 망라된 수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대규모기동훈련》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소동을 벌렸다.

괴뢰들은 이 전례없는 《대규모기동훈련》의 목적이 유사시 괴뢰군후방사단을 즉각 전선에 투입하고 그 대신 《향토예비군》으로 《방위사단》을 창설하며 《후방지역경계임무》를 맡도록함에 대한 제놈들의 이른바 《방위계획》에 따라 방위사단창설을 위한 《동원소집체제》를 《점검》하고 《경계임무교대》 및 《작전수행능력》, 《인력동원위원회의운영》, 《민간차량징발능력》 등을 《검토》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렸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범죄적인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해에 놈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괴뢰군의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포항근방에서 이른바 《독수리상륙작전》을 감행한데 뒤이어 괴뢰군 보병, 포병, 기갑부대들을 동원하여 《상호협동공격전투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감행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기간에는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포병, 기계화부대, 공수보병사단, 《특수유격부대》들이 참가한 《승전71》이라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렸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여러도시들과 남조선전역에서 《비상시에 대비할 정전후 최대규모의 방공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어 《전시하에서의 국회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비책》을 취하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시에 림할 태세를 갖추려고 발악하였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미제7함대와 일본군국주의 해군무력을 동원하여 조선동해에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미일합동군사훈련》소동을 벌리였으며 뒤이어 남조선 괴뢰해군과 해병대를 끌어내여 《금성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도발적인 《합동상륙작전훈련》소동을 벌리고 《기습상륙 작전능력을 련마》한다느니 뭐니하면서 무모한 전쟁소동을 피웠다.

지어 장개석도당의 해군사관학교 《순양훈련단》이라는것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렸다.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놈들은 어떻게하나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화하면서 우리측에 대한 악랄하고 대규모적인 총포사격행위와 무장간첩들을 우리측지역에 침입시키는 적대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이해에 2천 840여차

에 걸쳐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 땅크, 장갑차, 106.7미리 박격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경의 포들, 그리고 중무기를 비롯하여 각종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무기들로 우리측을 반대하는 악랄한 총포사격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놈들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간의 회담이 시작된후 우리측을 반대하여 도합 140여차에 4만 6천 240여발의 총포탄을 쏘아대였다.

놈들이 이해에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총포사격행위는 무려 550여차나되며 놈들이 쏴댄 포탄과 총탄수는 도합 12만 7천 900여발에 이른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놈들의 전쟁소동이 극도로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또한 정탐, 파괴, 살인, 랍치 등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특수훈련을 준 무장간첩들을 79차에 걸쳐 330여놈이나 우리측지역에 계획적으로 침입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공동경비구역안에서도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12월 17일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간의 제13차예비회담이 열리고있을때 미제침략군놈들과 보도인원으로 가장한 깡패놈들을 내몰아 우리측 경비인원들과 보도인원들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극히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에 인위적인 긴박감을 조성시켜놓고 바로 그 막뒤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투쟁기세를 짓누르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남조선의 사회정치생활을 가일층 파쑈화하기에 피눈이되여 미쳐날뛰였다.

광란적인 파쑈폭압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을 뒤덮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할수 없고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91페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이 직면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인민탄압에 더욱더 매여달렸다.

놈들이 특히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데 파쑈폭압의 예봉을 돌렸다.

이해 원쑤들이 감행한 파쑈폭압만행은 그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이였다는것이 특징적이다.

파쑈악당들은 제놈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짓누르려고 한해동안 계속 《비상경계령》이요, 《위수령》이요 또한 《비상치안령》이요하고 남조선에 사실상의 상시적인 계엄상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책동에 피눈이되여 날뛰였다.

그러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허황한 《남침위협》을 떠벌이면서 12월 초에는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조선사회를 더욱더 무시무시한 총칼만능의 암흑속에 휘몰아 넣는 광란을 부렸다.

이것은 놈들이 종전의 통치방법으로서는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파쑈악법의 조작책동】 류례드문 악법인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완전히 얽어매여놓고 있는 박정희도당은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한후 《안전보장》을 위함이라는 구실밑에 파쑈악법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일련의 악법들을 련달아 조작해냈다.

박정희역도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할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조치법》은 괴뢰도당이 《비상사태하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라는 명목밑에 주민들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사소한 민주주의적자유까지도 모조리 짓밟고 일체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며 《언론 및 출판》활동을 억압하고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억제하는 등 파쑈적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또한 이 악법은 박정희역도가 남조선의 인적물적자원을 모조리 징발동원하기 위한 《국가동원령》을 내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른바 《군사상 목적을 위》한다는 구실밑에 《예산》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제멋대로 쓰며 인민들의 재산과 로동자들의 임금을 마구 략탈하고 물가를 마음대로 끌어올릴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박정희도당은 이 파쑈적인 악법을 통하여 제놈들의 전횡에 항거할 때에는 어느때나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겠다고 인민들을 위협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또한 파쑈적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더욱 《보완》하며 특히 대중조직과 언론활동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하며 그들의 활동을 더욱 악랄하게 억누르기 위하여 이른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란 딱지를 붙인 《법안》들을 조작하였다.

놈들은 이 《법안》들에서 《등록된 목적이외의 활동》을 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알수 없을 때 대중단체와 출판사 및 인쇄소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여놓았다. 이것은 이 악법들이 모든 진보적인 사회단체와 출판사, 인쇄소 및 그의 간행물들을 마음대로 탄압하며 페쇄, 페간시킬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놈들이 조작해낸 《특별조치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비상사태하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지역내에서의 이동과 철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시 《군사적목적》이라는 명목밑에 토지와 기타 인민의 재산을 징발동원하며 남조선인민들의 그 어떤 초보적인 집체행동도 탄압말살하고 주민들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마저 유린하는등 집단적폭압을 노린 파쑈악법들이다.

박정희역적은 이외에도 《경제안정법》 및 《량곡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과 《국가기밀보호법》등 수많은 각종 악법들을 새로 꾸며내거나 개악해놓고 그것들을 괴뢰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려고 광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처럼 수많은 각종 파쑈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그것들을 휘둘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과 전쟁도발 책동을 미친듯이 감행하여나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파쑈폭압기구를 대폭 늘이고 인민탄압을 위한 인원들을 증가시켰다. 놈들은 이른바 《민간방범단체》와 그 인원수를 그전에 비해 각각 2배로 늘구어 인민탄압을 더욱 강화하려고 날뛰였으며 지어는 《소년경찰》이요 뭐요 하면서 10대의 소년들까지 저들의 탄압도구로 리용하려 하였다.

【악랄한 파쑈폭압】 교활하고 흉악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파쑈적광

란을 합리화하고 인민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생간첩단사건》이요, 《내란음모사건》이요 하는것들을 꾸며내는 비렬한 수법도 썼다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이른바 《대학생간첩단사건》이라는것을 날조하여 50여명의 학생들과 로동자, 시민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폭압소동을 벌린데 뒤이어 또 하나의 《간첩단사건》을 꾸며내여 죄없는 주민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였다.

놈들은 4월 12일 무슨 《간첩단사건》이란것을 꾸며가지고 전라북도 남원, 김제 등지에서 사는 오아무개를 비롯한 14명의 로동자, 농민 등을 잡아가두고 그들이 전라북도일대와 그밖의 지역에서 《민중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그를 지원할 《유격거점을 구축》하며 《생산유격활동》을 하려하였으며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때 《민심의 교란 및 선동》을 시도했다고 터무니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괴뢰중앙정보부살인특무들은 또한 《내란음모사건》에 관련자로 몰려 구금되여있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인 리아무개를 비롯한 4명의 청년학생들에게 온갖 잔인무도한 고문을 가해오던 끝에 그들이 실신하여 쓰러진 기회를 리용하여 제놈들이 꾸며낸 《자백서》에다 손을 끌어다 손도장을 누르게 하여 《허위》 자백까지 꾸며내는 협잡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끝내 그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살인재판에 넘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11월 17일 그 무슨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황당한 《사건》을 꾸며내여 12명의 애국적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처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괴뢰악당들은 서울과 부산, 밀양, 울산, 의정부 등지에 살고있는 로동자, 대학강사, 부교수, 기자, 기업가, 회사원 등 이들 12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남조선의 정당, 《국회》, 학계, 언론계, 《군부》등에 《깊이 침투》하여 《기밀을 탐지》하고 《정계혼란》을 조성하며 《군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학생시위를 선동》 하였다느니,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느니 뭐니하면서 폭압소동을 일으켰다.

파쑈교형리들은 날조된 《사건》을 구실로 삼아 잡아가둔 애국적인사들을 처형하려고 야수적인 고문과 박해를 가하였을뿐만아니라 이들과 평소에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파쑈악당들이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행동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혁명가들을 야수적으로 학살, 탄압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함과 함께 학원의 자유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압만행을 거듭 감행하였다.

놈들은 괴뢰경찰을 내몰아 시위군중을 탄압하는 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완전무장한 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학교들을 점령하고 단 하루동안에만도 2천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잡아가며 학교문들을 몇달씩 닫아매는 세계력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미치광이짓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시 성북경찰서의 괴뢰경찰놈들은 《시위를 추동》 했다느니 뭐니하는 구실밑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인 김 아무개학생을 비롯한 학생회간부들을 체포하고 야수적박해를 가하던 끝에 살인재판에 넘기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15일에는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니 뭐니하면서 고려대학교의 《민족사상연구회》회장인 오아무개학생을 체포하였다.

학원탄압에 환장을 한 박정희괴뢰도당은 9개 항목으로된 파쑈적인 《특별명령》이란것을 조작하고 이를 방패로 장갑차와 포차의 호위하에 중무장한 괴뢰군경을 대량적으로 내몰아 학원을 포위점거케한후 학생들을 마구때리고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파쑈적인 《특별명령》을 발표한지 몇일동안에만도 23개의 대학에서 170여명의 애국적학생들을 부당하게 《제적처분》하고 학교에서 내쫓는 횡포를 부렸다. 지어 놈들은 저들의 앞잡이놈들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는 1만 2천 700여명의 학생들을 이른바 《축출대상》으로 《지목》하고 그중 우선 9천여명을 괴뢰군에 강제 《징집》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많은 학생들에게 황당한 《죄명》을 들씌우고 그들을 살인재판에 넘겨 처형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또한 6개 대학에서 70여개의 소조를 강제해산시켰으며 4개 대학에서 10여종의 출판물들을 폐간하는 악랄한 망동까지 감행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제놈들의 부정부패와 학원의 군사화, 파쑈화책동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강력한 대중적투쟁이 더욱 확대강화되고 식민지파쑈테로통치가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자 불안과 공포에 질린 나머지 10월 15일 《학원질서확립》이란 구실밑에 파쑈적 《위수령》을 발동하여 학생들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탄압을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서울대학교의 약학대학, 농과대학, 가정대학, 법과대학 등 5개의 단과대학의 학생회장들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제적처분》하고 그들을 괴뢰군에 강제로 끌어갈것을 획책하였다. 그 이튿날에는 이 대학교의 《제적된 학생들이 구제되지 않는한 수업을 거부하자》라는 내용의 선동적인 벽보를 붙인 학생 4명에게 또 징계처분을 내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고무한 연세대학교의 애국적인 강사 정아무개를 부당하게 체포하여 온갖 박해를 가하던 끝에 11월 27일에는 그에게 악명높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살인재판에 넘겼다. 그보다 앞서 11월 26일에는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신미도군인폭동》에 참가했던 김아무개를 비롯한 4명의 괴뢰군장병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흉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남북교류를 주장하였다하여 체포투옥한 남조선의 한 정계인사를 악명높은 《반공법》 위반죄로 몰아 징역을 《구형》하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파쑈악당들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저들이 선포한 《비상사태》에 대한 론평을 가했다 하여 남조선의 언론계인사들을 비밀특무의 소굴인 《중앙정보부》에 잡아가두고 온갖 박해를 가했으며 《당국의 언론탄압이 심하다》고 한 무고한 주민과 지어 제놈들의 악법조작책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여 정계인사까지 체포해가는 파쑈적인 폭거를 감행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또한 《지식계층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많다》고 고아대면서 《총력공보체제》를 강화하여 일체 《사이비언론을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악에 받쳐 날뛰였다.

놈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류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무고한 주민들을 무데기로 체포하여 《즉결심판》에 넘기였으며 서울같은데서는 《야간통행금지령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불과 몇시간 동안에만도 무려 800여명에 달하는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광태를 부렸다.

파쑈폭압의 악랄성은 광범한 농촌지대를 대상으로 한 전례없는 폭압조치를 꾸며 나선데서도 드러났다. 놈들은 중세기적《보갑제도》의 재판인 《집단부탁제도》를 조작하여 농촌주민들을 보다쉽게 《감시》, 《통제》 탄압하려 하

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박정회괴뢰도당이 망해가는 제놈들의 처지를 추세워보려고 얼마나 단말마적 발악을 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결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걸쳐 우리 나라 남반부에 대한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런달아 벌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사또 같은 사람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선제공격〉에 대해서까지 떠들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4페지)

남조선에서 심각한 정치적불안과 경제적위기를 겪고있는 괴뢰들은 파쑈폭압과 전쟁소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세력과 그의 독점자본에 더욱더 매달리는데서 출로를 찾으려고 책동하고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책동과 남조선의 파국적 상태를 기화로 하여 괴뢰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면서 남조선에 더욱 본격적으로 기여들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산물로서 그의 직접적인 조종밑에 감행되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교리에 의한 아세아정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이해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강화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를 좋은 기회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일층 로골적으로 감행하여 나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을 침략의 길잡이로 하여 《일한운명공동체》, 《일한안전일체》란 침략적구호까지 공공연히 줴치면서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재침을 본격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남조선재침야망에 사로잡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협력자》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경제, 문화적 침투를 앞세우며 이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는 악랄한 수법에 매여달리고있다.

바로 이러한 침략수법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재침책동에서 정치, 군사적 침략에 앞서 경제적침략에 미쳐날뛰고있다.

【경제적결탁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추동밑에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을 꾀하는 한편 남조선을 끌어넣어 침략적인 군사동맹을 꾸며내려고 꾀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92페지)

남조선침투의 기회만 노려오던 일본독점자본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경제협력》과 차관 등의 명목으로 본격적으로 쓸어들었으며 1968년부터는 직접 및 합작투자의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일본독점체들은 이미 200여개의 상사들과 대리점들을 남조선에 차려놓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독점자본의 80%는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부문과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공업부문에 집중됨으로써 남조선의 기간산업부문을 직접 장악함과 함께 침략적인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조성하는데 참가하고있다. 놈들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감축》소동을 배경으로 더욱 표면화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세멘트, 화학, 섬유, 철광 및 금속, 조선 공업부문에 깊이 침투하여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끌어들인 외국자본총액은 1971년 5월말 현재 32억 4천 300만딸라에 달하며 그중 공공차관, 상업차관, 직접 및 합작투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들어간 일본의 자본은 무려 10억딸라에 달하며 총액의 30%가 넘는다.

일본독점자본이 들이민 상업차관은 7월현재 6억 5천 800만 딸라로서 외국상업차관총액의 32%에 달함으로써 미제가 투자한것보다 1억 2천여만딸라나 더 통가하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두목들은 박정희도당과의 거듭되는 밀담에서 일본의 북규슈를 포함한 서부일본지역과 남조선의 포항, 울산, 부산, 삼천포, 려수, 목포를 련결한 남해안지대를 《한일경제협력권》지대로 정하고 이 지역을 완전히 먹으려고까지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이러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모하여 1970년 1월에 《마산수출업자유지역》을 설치한데 이어 수십개의 공장을 이 지역에 세우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관서지방과 남조선의 포항남부일대를 단일경제권으로 통합하자는 강도적제안마저 서슴없이 들고나오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까지도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일본자본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미명밑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일본자본의 진출은 대일의존도의 증가에 의한 일본경제와의 련관심화를 기정사실로 하여 일본관서지방과 포항남부일대를 단일경제권으로 통합하자는 〈대한경제협력방안〉을 제시케하였다.》

사실상 이 《수출자유지역》은 《조계지》나 다름없는것이다. 그것은 외국독점자본이 남조선에 기여들때 《입주신청》, 《외환 및 무역관리》등 수속을 최대한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수출자유지역》안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력과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였고 이 지역안에서는 온갖 활동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게 규제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해놓은 사실에서도 알수있다.

일본의 《한국산업경제연구소》는 남조선에 《공업단지실태조사단》을 들여보내여 마산, 대구, 대전, 서울등 중요도시 등을 비롯하여 《공업단지를 시찰》케하여 《조세》, 《투자환경》, 《립지조건》 등 일본독점자본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일본의 《자본투자조사단》이란것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제놈들의 《자본투자》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음모를 꾸미는 한편 《조사》의 명목밑에 남조선각지를 싸다니였다.

【정치, 문화적 결탁】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적침략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정치사상적침투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외교》적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예속을 실현하는 한편 군사적 및 경제적 침략과 략탈을 손쉽게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과 법적체제를 확립하려고 기를 쓰고있다.

《한일협정》조작후 서울과 부산, 인천 등지에 설치한 《주한일본대사관》과 《총령사관》, 《령사관》 등은 그러한 침략기구들이다.

여기에는 과거 우리 나라 침략에서 《경험》을 가졌거나 오늘 남조선재침에 미쳐날뛰고있는 교활한 군국주의사환군들이 선발배치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한 《총령사관》 및 《령사관》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정책을 일본반동정부의 지령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집행하는 도구로서 괴뢰정권에 대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활로를 열어놓는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일본《대사관》의 활동범위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대일추종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재침을 위한 총본부의 역할을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밖에도 박정희괴뢰도당과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이며 상설적인 침략기구들을 수많이 조작하였다.

《일한정기각료회》, 《일한국회의원간담회》, 《민간일한협력위원회》, 《일한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침략기구들의 주요사명은 남조선을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의 발판을 닦는데 있다.

이해에 있은 《한일협력위원회 제3차총회》(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5차한일정기각료회담》(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4차 한일국회의원간담회》(9월 9일부터 10일까지) 등에서는 이러저러한 구수한 말로써 침략적내막을 가리려하였으나 어느거나 례외없이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침투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함께 《미, 일, 한 공동작전체계》안에서 남조선괴뢰군과의 《공동행동》을 취할데 대한 모의들이 거듭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려고 책동하고있을 뿐만아니라 주종관계를 맺고 서로 감싸주며 추세워주고있다.

사또일파는 이해에 박정희도당이 사기협잡《선거》로 이른바 《3선》을 날조하는데 1억딸라의 《정치자금》을 대주었으며 《당선》이 날조되자 박정희역도의 계속 집권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느니, 《한일관계가 더 유리하게 전개될것》이라느니 하면서 《환성》을 올렸다.

또 전괴뢰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란 놈은 도꾜에서 한 모임에서 《일본과 남조선의 안전이 직접 련결》되여 있다느니 《공동의 문명에 대한 의식》이 제놈들간의 《관계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렸다.

남조선에서 마련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치적지반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함께 정치적지배자로 뻐젓이 행세하려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적결탁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의 결탁도 강화하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군국주의적사상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남조선에서 반미기세와 더불어 높아가는 반일기세를 무마하고 남조선괴뢰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적지반을 닦을뿐아니라 미제와 그 괴뢰들이 도발하려는 새로운 침략전쟁에 끼여들기 위한 준비를 촉진하려는 범죄적책동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왜색왜풍의 반동문화를 침투보급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감정을 무마하며 그들속에 《친일, 숭미》사상을 부식시키려고 출판물과 영화, 방송, 텔레비죤, 가요, 종교 등 각종 수단들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적극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군국주의사상, 친일사상, 허무주의, 색정주의를 고취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반동적인 출판물들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키고있다.

남조선에 들어오는 정기간행물 550여종 중 일본정기간행물이 484종(200만부이상)으로서 그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일본의 반동출판물을 남조선에 범람시키고있을 뿐만아니라 놈들은 오늘 남조선《청년들이 일본말을 더 많이 배워야한다》느니, 《일본어 교육을 더욱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느니하면서 서울에 374개소, 부산에 70여개소의 일본말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 침략에서 또한 종교를 중요한 침략수단으로, 그의 길잡이로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군국주의종교인 《창가학회》, 《천리교》를 비롯하여 《일본불교》를 대대적으로 침투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힌 반일감정을 무마시켜 재침의 길을 닦으려고 책동하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 침략에서 광범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영화와 음악을 중요한 침략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놈들은 허무주의, 색정주의, 패륜패덕 등을 내용으로한 반동적인 일본영화와 죽음을 례찬한 세기말적인 썩어빠진 일본류행가를 남조선에 수많이 침투시키고있다.

놈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각양각색의 《대표단》, 《친선사절단》, 《조사단》, 《교류단》, 《견학단》 등의 이름을 띤 수많은 《척후병》들을 련달아 들이밀어 《협력》과 《동맹》을 떠벌이게 하며 제놈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퍼뜨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략을 강화하면서 과거의 《동조동근》론, 《내선일체》론의 재판인 《한일운명공동체》론까지 내걸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가 정치경제적침략과 함께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옛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로골적인 군사적결탁】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 사상, 문화적 침투를 강화하여 침략의 발판을 다지면서 그 막뒤에서 박정희도당과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98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기지로 틀어쥐기 위하여 뻔뻔스럽게도 《한국은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드러내놓고 강도적인 폭언을 줴치면서 박정희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 위해 갖은 음모책동을 다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아세아의 안전문제의 주역을 담당하는 것은 일본》이라느니, 《일본은 자체적으로 한국을 방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느니 하고 침략적야망으로 가득찬 망발을 거듭하였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이 한국을 바

못한 아세아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였다》고 황당한 소리를 줴치면서 《아세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애걸까지 하였다.

미제의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정책에 적극 가담하여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70년대 본토밖의 어느 지역에서 작전하는 자위대를 상상할수 있다면 그곳은 곧 조선》일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놈들은 박정희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위한 밀담을 빈번히 거듭하고 있으며 《자위대》무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음모책동을 추진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결탁은 이미 《자위대》와 괴뢰군간의 《반항공조기경보체계》, 《군사정보교환체계》, 《군사보급체계》, 《군사통신망체계》 등 공동군사작전체계의 확립을 거쳐 오늘 《자위대》와 괴뢰군의 《교류근무》를 실시하며 미제침략군의 지휘밑에 《자위대》와 괴뢰군의 공동작전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침략적군사체계를 짜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량국의 군사제도와 군사시설을 익혀 공동방위체계에 기여한다》는 미명하에 1971년부터 일본《자위대》 고급장교들을 선발하여 남조선에 파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저들의 침략적골간부대를 남조선에 상주시키였다.

놈들은 또한 1970년 6월에 지난날 조선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시모노세끼간의 항로를 개설하고 그것을 부산—서울, 서울—군사분계선사이의 《고속도로》와 직결시킴으로써 일단 유사시 일본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최단시간내에 큰 병력을 밀어넣을수 있는 수송로를 확보하였으며 같은해 8월에는 일본항공기에 의한 《일한항공화물수송로》를 개설하여 남조선에 대한 《긴급수송체계》를 마련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기만적인 이른바 《오끼나와반환》놀음을 계기로 《자위대》무력을 강화하면서 그를 조선침략에 대비시키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지배층이 이른바 《제4차방위력정비계획》(1972~1976)기간에 《자위대》를 완전한 공격무력으로 강화하여 조선침략전쟁수행능력에 상응한 군사력으로 확보하려 하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을 위하여 남조선괴뢰들과 《군사동맹》을 조작하고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까지 미제로부터 넘겨받으려 하고있으며 통수권을 넘겨받기만 하면 《원조》를 3배로 늘이겠다고 뇌까려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도발하려는 조선에서의 새로운 침략전쟁수행에 끼여들기 위한 준비로서 이미 700여만의 징병대상자와 35만의 《자위대》제대자들을 장악하고 매해 10여만명에게 군사훈련을 주고있다. 또한 놈들은 침략전쟁체제에 상응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독점체들을 《무기협회》에 망라시키고있으며 대독점체들을 군수생산에 본격적으로 내몰았다.

특히 놈들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작전권내에 포함시키고 조선침략전쟁을 가상한 《내한훈련》, 《상륙전》, 《대유격전》 훈련 등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쉴새없이 벌렸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 주구인 박정희도당의 이른바 대통령취임식을 기화로하여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미국 부대통령 애그뉴놈과 일본 사또일파는 괴뢰도당과 공동작전태세를 완비하며 일본 《자위대》무력을 남조선에 직접 끌어들이기 위한 흉계를 꾸미였다. 사또놈은 서울에 기여들기가 바쁘게 괴뢰도당과 밀담을 벌리고 《오끼나와의 장래기능》문제, 《극동안보》문제, 《한일경제협력》문제에 대해 모의하였으며 특히 조선의 긴장상태에 대처하여 《한일협력의 강화》를 다짐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결탁은 갈수록 강화되고있는것이다.

《반공》 광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남조선에서의 《반공》, 이것은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실현하며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이 항상 되뇌이는 구호이다.

놈들은 이해에 들어와서도 《반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렸다. 이에있어서 특징적인것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허위선전과 비방중상을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으로 감행한것이다.

남조선에서 《반공》광란의 도수가 항상 놈들이 직면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해에 원쑤들이 《반공》소동을 광기를 떠고 일으킨것은 놈들이 직면한 정치, 경제적위기의 심각성과 관련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반인민적인 매국배족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집권을 위한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놀음을 계기로하여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지어 반동지배층내에서까지 철저히 고립배격당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해 공화국북반부를 중상비방하는 허황한 기만선전에 미쳐날뛰였다. 그 집중적표현은 남조선에서의 파쑈적인 《비상사태》선포소동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고아대면서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구실삼아 인민탄압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악명높은 파쑈악법인 《반공법》과 《국가보안법》등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여놓고 갖은 횡포를 다해온 괴뢰도당은 《비상사태》선포후 사회정치생활을 더욱 파쑈화할 목적으로 박정희역도에게 무제한한 전횡과 폭압조치를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한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무수한 악법들을 련달아 조작하여 인민탄압과 략탈에 광분하였다.

놈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계속 요란하게 떠들면서 《반공》소동의 연막뒤에서 범죄적인 군사도발책동에 또한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괴뢰도당은 그 누가 《금년겨울에 남침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미제가 남조선에 주는 《군사원조가 줄어든다면》 이 《가능성》은 《더욱 중대될것》이니 뭐니하고 나발을 불었다. 또한 놈들은 《유엔군의 계속 주둔》을 애걸복걸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떠들어대였다.

괴뢰국무총리란자는 남조선반동정계와 경제계 우두머리들 앞에서 위기감을 고취하고 제놈들의 《반공》소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누가 《200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남침》을 하려한다느니 《속전속결주의로 서울을 함락》시키려하고있다고 고아대였다.

또한 미제와 그의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기

세를 억누르기 위해 남조선 학원에서도 범죄적인 《반공》교육을 강요하면서 학원의 파쑈화에 광분하였다.

원쑤들은 우선 《반공》교육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방중상함으로써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지못하게 하고 그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의 정을 억누르려고 책동하였다.

매국역적들은 남조선학교들에서 《반공》교육을 강화하는것이 무슨 《교육지침》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반공과목》을 학교《과정안》에 선차적으로 박아넣고있을 뿐만아니라 그 시간활당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훨씬 많이 배정하고있으며 지어 대학들에는 《반공에 관한 특별강좌》까지 설치하였다.

또한 놈들은 교원들에게는 《반공교육지침서》라는것까지 강다짐으로 배포하고 《반공교육을 실시하라》고 강요하였으며 학교입학시험에까지 《반공》과목을 포함시켜 이의 《합격》여부에 따라 입학을 결정하는 등 《반공》교육에 미쳐날뛰였다.

남조선학교들에서 가지고있는 《반공》 서적이 다른 일반과목 교과서보다 10~20배나 더 많은 사실은 놈들이 《반공》교육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이해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반공6개방안》이라는 악법을 꾸며내고 이를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들에서 《반공과목》을 필수적과목으로 철저히 내세울것을 다시 밝히면서 《반공과목》시간을 종전보다 2배나 더 늘이며 더러운 《반공》책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내는가하면 이 《과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반공교육담당교원》이라는것을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 박아넣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학교《교육》에서 뿐만아니라 과외활동을 통해서까지 범죄적인 《반공》사상독소에 물젖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놈들은 《반공》교육을 통하여 숭미사상을 퍼뜨리고있다. 원쑤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무슨 《해방자》로 묘사하면서 미제침략군야수놈들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하려 할뿐만아니라 제놈들의 침략적인 전쟁준비책동과 온갖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하고있다.

괴뢰문교부장관이란자는 제놈들이 하고있는 《반공》교육을 《통일교육》 또는 《승공교육》으로 그 이름을 고칠것을 획책하였다.

이놈은 또한 《비상사태》하에서 교육도 《준전시체제하의 비상교육방식》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떠벌이면서 학원에서 반동적인 《안보교육》, 《반공교육》, 《교련교육》을 강화하고 학원의 소위《질서확립》을 골자로 하는 《비상교육계획》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이에 의하면 학원은 이른바 《안보교육체계로 전환》해야하고 학생들은 놈들이 강요하는 《학원질서》를 지켜야하며 모든 교육은 《안보의 가치관확립》에 중점을 둔다는것이다.

이것이 《반공》의 이름아래 남조선학원을 더욱 군사화, 파쑈화하고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보다 야만적으로 짓누르고 그들을 대포밥으로 내몰자는 수작이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른바 《반공》교육은 학원에서 뿐만아니라 괴뢰군내에서도 《정훈교육》이란 이름아래 강제로 실시하고있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선전을 위해 《반공선전》 기구의 대대적인 조작과 함께 허위와 날조로 꾸며진 《실물자료》에 의한 《직관선전》에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남조선도처에 꾸며놓은 《반공사진전시회》, 《반공관》, 《승공교육관》 등에 남조선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억지로 《참관》시키고있다.

괴뢰도당은 또한 별의별 이름을 단 《반공선전대》, 《문화선전대》, 《이동공보반》에 악질반동들과 종교인들을 망라시켜 농어촌지역과 산간지대 및 해안도서들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반공강연회》, 《반공좌담회》 등을 벌리게 하고 여기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 등 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고 범죄적인 《반공》소동을 발악적으로 벌렸으나 광범한 남조선인민들로부터는 물론 세계사회계의 배격을 받고 더욱더 국제적고아로서의 가련한 신세에 떨어졌을뿐이다.

미제식민지통치위기의 심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정치적혼란과 불안은 계속 커가고있으며 군사집단의 내부모순과 갈등이 몹시 격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8폐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통일혁명당의 령도밑에 전개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투쟁은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을 더욱 심한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군사파쑈통치체계의 심한 혼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에 겁을 집어먹은 괴뢰경찰들과 괴뢰공무원들속에서 공포와 불안, 동요와 혼란이 더욱더 증대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는 밑뿌리채 뒤흔들렸다.

남조선괴뢰하층경찰들속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목적으로 한 그 무슨 《작전》에 참가하라는 괴뢰상관놈들의 《명령》을 받고도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가면서 회피하고있으며 혁명가들의 출현을 보고도 못본척하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퍼지고있는 진보적여론이 공개적으로 나돌아도 못들은척 하고있다.

또한 괴뢰하층경찰들속에서는 잡담과 술놀이, 평사냥을 하거나 사사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지 않고있으며 퇴근시간만 기다리면서 직무를 로골적으로 태만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괴뢰하층관리들속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하층공무원들속에서는 《만약 인심이나 잃는 날이면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 알수 없다》, 《장차 정권교체의 희생물로 되지말아야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지않고 될수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괴뢰상관놈들의 명령지시집행과 자기 직무를 의식적으로 태공하고있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전역에 걸쳐 《상급》의 이른바 명령지시를 거부하였거나 불성실하게 대한 《비위》공무원수는 1968년에 7천 359명이였던것이 1969년에는 2천여명이나 더 많은 9천 302명으로 늘어났으며 1970년에는 1~10월말까지에만도 무려 1만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 그것이 1971년에는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세상에 대한 초조는 공무원들이 동요의 빛을 감추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그들의 현당국에 대한 복무감을 극히 쇠퇴시키고있다》고 쓰고있다.

괴뢰하층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괴뢰관리직을 그만두고 나오는데 대해 《스스로가 희망을 잃고 사회와 가정의 차거운 눈초리를 받고있기때문》이라고 말하고있다.

박정희역적놈들까지도 괴뢰공무원들속에서는 《요령주의, 적당주의가 심히

발로》되고있으며 적당히 처신해나가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물젖은 공무원들이 날로 늘어만 간다》고 비명을 질렀다.

괴뢰행정관리들의 무메기퇴직은 놈들의 괴뢰행정체계를 심한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고있으며 특히 동, 리의 말단행정을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식민지통치위기의 심화는 또한 괴뢰지배층내의 대립과 알륵이 보다 격화된데서 드러났다.

괴뢰지배층내에서의 대립과 알륵은 특히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집권》층과 비《집권》층 간의 모순과 대립은 특히 박정희역도를 반대하는 감정이 높은 김아무개가 《신민당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그가 서울과 지방에 다니면서 민심을 사기위해 현군사정권의 파쑈폭압책동과 반인민적시책들을 신랄히 폭로한데서부터 더욱 격렬하여졌다.

《신민당》은 《대통령후보》의 《정책연설》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환심을 얻어볼 목적으로 괴뢰《향토예비군의 전면폐지》, 《국민의 기본권보장》, 《대중경제체제의 실현》, 《민족외교실시》, 《사회개혁실시》, 《새교육제도실시》, 《남북간의 비정치적접촉의 실현》 등을 주장하면서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박정희도당은 《신민당》의 주장이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원시경제를 구상한것》이라느니, 《국위를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느니 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며 《신민당》의 《선거》활동을 로골적으로 억제하여 나섰다.

박정희파쑈일당은 《신민당대통령후보》 김 아무개가 강화에서 《선거》연설을 할때 연설내용을 몰래 록음하다가 들켰으며 김포에서는 연설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짜고들어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른바 《불심검문》을 들이댔다. 놈들은 그때 김 아무개의 경호원들이 비밀리에 록음하는 특무를 모여들어 때려주고 《불심검문》하는 괴뢰경찰의 총을 빼앗아버렸다하여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하는 한편 김 아무개에게는 오히려 《선거법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립건》하는 망동을 부렸다. 그리고도 부족하여 그의 집에 폭발물을 던져 폭파시키기까지 하였다. 놈들은 또한 《신민당선거대책본부장》으로 쓰고 있는 정 아무개의 집에 불을 놓아 주택의 일부와 그 안에 있던 《신민당》관계 서류들을 몽땅 불타버리게 하였으며 그 방화사건을 문제시한다고 하여 그의 집에 무기명 협박편지와 협박전화를 연거퍼 걸어댔다. 이리하여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하여 여, 야당간의 모순대립은 더욱 격화되였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당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류례드문 사기협잡으로 《당선》을 날조해냈다. 이를 계기로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지어 지배층내에서의 모순과 대립은 가일층 격화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부정《선거》에 격분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선거》협잡과 《당선》날조를 강력히 폭로규탄하고 《4. 27선거의 전면무효화》를 선언한후 그를 반대하여 거리로 떨쳐나와 억센 투쟁을 벌리였다.

야당계렬들도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박정희도당과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그들은 괴뢰국회를 《보이코트》하여 《국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박정희도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남조선괴뢰지배층내에서의 모순과 갈등은 《집권》세력과 비《집권》 세력사이에서 뿐만아니라 《집권》세력인 박정희군사파쑈집단내에서도 심화되였다.

《집권》세력내에서의 모순과 갈등은 박정희군사파쑈분자들로 꾸려진 《민주공화당》안에서 이른바 《청와대직계》세력으로 알려진 《신주류》파를 한편으로 하고 5. 16《군사정변》의 주동인물의 하나이던 김종필놈을 두목으로 한 《구주류》파를 다른편으로 하는 두 파들사이에서 《당내요직》과 《원내요직》 및 《대통령》계승권문제를 둘러싸고 표면화되였다.

김종필역도의 적수인 정일권놈을 《국무총리》자리에서 떼고 김종필놈을 《국무총리》자리에 앉히는 대가로 정일권을 《민주공화당》총재의 고문자리에 앉힘으로써 놈들의 대립이 표면상으로는 일단 해소된듯이 보이였으나 알륵이 《또다시 재연할 징조》들이 여러모로 드러나고있다.

이해에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과 함께 이와같이 반혁명세력내부에서의 심한 동요와 혼란 그리고 괴뢰반동지배층내에서의 모순과 대립의 격화로 말미암아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여갔다.

남조선경제의 전면적파탄

이해에도 남조선에서는 정치적위기와 함께 경제적위기가 심각화되였다.

경제의 군사화와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은 몰락하고있으며 농업도 쇠퇴하였다. 생산의 파탄은 류통과 신용, 분배와 소비 등 재생산의 매 환절에 혼란을 조성하고 민생을 최악의 지경에 빠뜨렸다.

특히 남조선경제의 파국적현상은 안으로는 경제를 군사화하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예속화에 내맡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정책의 산물이며 밖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경제위기, 딸라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직면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것으로 출로를 찾으려고 발악하였으나 그 위기는 전례없는 파국에로 줄달음쳤을 뿐이다.

【다그치는 경제의 군사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증대되는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고있습니다…〈근대화〉의 미명하에 촉진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공업부문들이 자라나고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이 확장되고있으며 군사경제적잠재력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5~386페지)

미제와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도당은 이해에도 범죄적인 전쟁정책을 강화하기에 미쳐날뛰면서 경제의 군사화를 더욱 다그쳤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의 지시대로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동원시키기에 급급하였다.

놈들은 1970년도보다 900억원이상이나 불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직접적 군사비와 군사경제적잠재력의 강화를 위한 부문에 돌리고 군수공장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신설확장을 서둘러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김포비행장시설의 확장을 비롯한 군용비행장공사와 부산, 군산, 목포 등 중요항구의 시설들을 크게 확장하여 군항으로 리용하기 위한 공사들을 다그쳤다. 또한 놈들은 새로 150여억원의 자금을 쏟아

넣어 1970년도보다 5배나 더 많은 군용도로공사를 도처에 벌려놓았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이른바 《방위산업육성》의 이름밑에 여러가지 탄약과 군사장비들의 부속품을 공급하기 위한 군수공장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적지않은 민간기업체들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수품생산을 계렬화하기에 날뛰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군수독점체의 하나인 《콜트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산지구에 《엠—16》소총과 탄약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 놀음을 벌렸다.

놈들은 이 저격무기생산공장의 건설을 제놈들의 이른바 군수산업의 《첫 단계》이라고하면서 앞으로 군수생산시설을 계속 늘일것이라고 떠벌렸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수십만의 로동력을 제놈들의 군사기지확장 및 건설공사에 강제동원시키였으며 10만명이상을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위한 군수기관에 고용하고있다.

경제의 군사화가 촉진됨에 따라 군사적수요를 위한 각종물자와 징발량도 증대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파쑈적인 《비상사태》 선포후 만들어낸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이른바 《국가동원령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토지사용과 수용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밑에 《군사상 긴절한 토지의 사용》과 그 결정권을 괴뢰군이 좌지우지할수 있게 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경제의 군사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인민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해에 4천 620억원의 막대한 세금수탈목표를 세워놓은 놈들은 인민들의 세간살이를 닥치는 대로 강탈하는 등의 강도적략탈만행을 남조선 이르는 곳마다에서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여러가지 공공료금과 협정료금들을 련달아 끌어 올리며 수백억원어치의 각종 채권을 찍어내여 인민들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등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하였다.

【매국적인 외국자본도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5페지)

박정희매국도당은 경제의 군사화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함과 함께 침략적인 외국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매국배족의 무리들인 박정희도당은 침략적인 외국독점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법안》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년초부터 《교섭단》을 미국과 일본에 보내며 동시에 《미국실업단》과 《일본민간투자조사단》들을 끌어들여 이른바 《투자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은 상전 미제의 옷자락에 매여달려 매일과 같이 딸라 《원조》를 더 달라고 애걸하였다.

괴뢰도당은 이해 년말경 몇주일동안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니,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이니 또한 《외무부장관》이니하는 제놈의 졸개들을 연방 워싱톤에 뛰워보내여 미제의 발등을 움켜쥐고 《차관》을 《증대》시켜주고 《원조》와 《지원》을 《계속》해줄데 대하여 하소연하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역도자신과 괴뢰국무총리란놈이 서울에 온 《미대통령특사》와 《미실업계대표단》에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되는 딸라 《원조》를 구걸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렇게 미제에게 딸라 《원조》를 애걸하면서 상전이 딸라를 더 쥐여주지 않는다면 제놈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박정희반역도당은 미일독점자본가들로부터 《합작투자》의 명목으로 146만 6천딸라를 남조선의 농업과 림업, 어업부문에 끌어들이였다.

또한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은 《세계은행》을 통하여 남조선의 군용도로건설에 5천 450만딸라의 《차관》을 들이밀었다.

이 《차관》은 부산과 전라북도 전주사이를 비롯하여 여러구간의 군용도로들을 신설확장하는데 씌여졌다.

서부독일군국주의독점체들은 이른바 《기술협력》, 《합작투자》, 《차관》 등의 명목으로 이미 남조선에 수억마르크의 자본을 들이밀었고 이해에도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놈들은 이를 통하여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이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사이에 박정희매국도당이 끌어들인 외국독점자본의 총액은 2억 5천 60만딸라인데 그 가운데서 미제독점자본 57%, 일본독점자본은 32%이다. 1971년 10월말까지 끌어들이기로 확정된 외국자본도입총액은 35억딸라에 이르고있다.

서부독일의 《코멘스뱅크》, 카나다의 《뱅크오브 몬트리올》, 프랑스의 《엔비피》 등 독점적금융기업체들이 박정희도당을 길잡이로하여 서울에 제놈들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영국과 오스트랄리아의 《산업은행》들도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으며 일본의 《미쯔비시은행》 등도 서울에 지점을 두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실지 《조계지》나 다름없는 이른바 《수출자유지역》이란것을 마산과 려수에 설치하고 35개의 침략적인 외국독점자본의 상사들을 끌어들이려고 서둘렀다.

소위 《수출자유지역》에 투자하는 외국독점자본가들은 관세, 소득세, 영업세 등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며 공장건물, 부지면적 등을 헐값으로 빌리도록 보장해주고있다.

이렇게 끌어들인 외국독점자본은 거의 군수부문에 《집중투자》하고있다. 1970년 4월말현재 남조선에 직접투자된 외래독점자본 1억 5천 748만딸라(남조선에 들어온 외래독점자본의 6.2%에 해당함)의 거의 전부는 휘발유, 군복, 화학, 세멘트생산부문과 전투수단의 생산 및 수리부문 그리고 동력공업부문에 돌려졌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에 의한 이와 같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책동과 외국독점자본도입책동은 파멸적인 후과를 가져오고있다.

남조선민족공업 및 농업의 전면적파탄과 그 식민지예속성의 강화는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쇠퇴몰락하는 남조선 민족공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남김없이 파피되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09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요, 《군수산업육성》이요하면서 민수공업을 희생시키고 군수공업에 치중함으로써 남조선민족공업의 파탄을 더욱 촉진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이해에도 침략과 전쟁정책을 이른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요구되는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마련하는데 필요한 일부 공업부문들과 저들의 침략기지를 유지하며 침략군의 기동력을 높이는데 절실한 시설들만을 늘일것을 강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같은 미제의 침략적요구에 따라 우선 괴뢰정부 《예산》에 반영된 《재정투융자》의 거의 전부를 군수산업의 육성과 그와 관련된 매판자본가놈들에게 돌리고 중소기업에 대하여서는 명목상 배정했던 얼마

안되는 자금마저 융자해주지 않았다.

이른바 《초긴축정책》의 표방밑에 감행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억제로 중소기업체들은 심한 자금난을 겪지않을수 없었다.

게다가 원료난과 판매난에 겹치고 세금수탈의 강화로 남조선중소기업체들의 파산몰락이 급격히 늘어났다.

미제와 그의 개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감행된 무모한 《외자도입》책동으로 기여든 외국독점자본과 이와 결탁된 매판자본가들에 의한 원료와 판로의 독점 등도 남조선중소기업체의 파산몰락을 촉진시킨 중요원인의 하나로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남조선에 침투한 외국의 대독점체들은 남조선의 여러 공업부문들과 시장들을 거머쥐고 독점적지배와 략탈을 강화함으로써 자본규모나 설비, 기술상으로 뒤떨어져있는 남조선의 중소기업체들의 원료난, 판매난을 격화시켜 그의 파산몰락을 촉진시켰다.

일본독점자본의 침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그 후과가 특히 심하였다. 비료와 화학섬유를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들에 침투하여 해당기업체들의 경영권까지 장악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가들은 그 부문의 원료와 자재를 독차지하고 이 부문의 생산활동을 좌지우지하면서 남조선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남조선에 설치해놓은 지점과 대리점들을 통하여 제놈들의 상품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의 상업류통부문까지 좌지우지하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있는 부문의 하나인 남조선섬유공업은 남조선에 팔아먹는 미국원면값의 대폭적인 인상과 남조선돈에 대한 딸라의 환률인상 그리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미국원면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반면에 남조선에서 끌어가는 섬유류에 대한 《관세》의 대폭적인 인상 등보다 악랄하게 감행된 미제의 식민지략탈책동으로 경영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리하여 이해 9월말까지 남조선 전체기업체의 37.6%가 파산 또는 휴업상태에 들어갔으며 외국독점자본의 차관으로 세워진 기업체들의 80%가 경영수지의 악화로 말미암아 조업을 중단하였다

중소기업체들의 파산몰락현상은 서울시 한곳에서만 보더라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조사대상 3천 17개의 기업체중 1천 593개 기업이 조업을 단축하였거나 휴업하였으며 수많은 기업체들이 폐업하였다.

휴업기업체수만도 1천 196개로서 매달 평균 150개에 달하였으며 완전히 폐업한 기업체는 400개이상으로 매달 평균 50개 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

남조선 중소기업의 파산은 지방도시일수록 더욱 심하였다. 같은 기간(1~8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574개의 기업이 휴업 혹은 폐업하였다. 이 수자는 1970년 같은 기간의 파산수에 비하여 50%이상이나 늘어난것이다.

광업의 경우에는 등록광구의 82.6%가 휴광 및 폐광하였다.

특히 파산이 심한 부문은 섬유제조업이다. 남조선섬유공업체수의 30.8%를 차지하고있는 대구시의 직물, 메리야스, 모직물 3개의 업종에서만도 31.4%에 이르는 388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

가동하고있는 기업체들의 가동률도 아주 떨어졌다. 대구시 섬유업체의 가동률의 저하현상을 보면 1970년도의 64.9%에서 이해에는 52.4%로 떨어져서 12.5%나 더 낮아졌다. 자기 자본구성도 1970년에 33.4%에서 1971년에는 27.5%로 5.9%나 줄어들었다.

외국차관으로 설치한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불실기업체》로 전락되고 그 가운데서 괴뢰정부은행이 직접 관리하고있는것만하여도 57개에 이르고있다. 이른바 《은행관리》, 《기업통합》의 방법으로 정리된 《불실기업체》수만하여도 1972년 1월말현재 123개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경영파탄상태는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남조선공업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다.

남조선제조업종 24개중 50%를 차지하는 화학방직업, 고무제품제조업, 금속제조업, 모방직업, 제지업, 화학섬유원료가공업 등 12개 업종이 아주 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더우기 세멘트업체에서는 대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

생산기업체의 계속되는 파산몰락으로 공업생산은 급격히 감소되여 남조선공업의 일련의 부문들에서의 생산은 30%까지 떨어졌다. 많은 산업기업체들이 문을 닫은 전라북도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만도 그 생산량이 3억원어치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약 70개의 기업체들의 생산량은 그 실태조차 파악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남조선중소기업체의 전면적파국사태에 대해서는 남조선출판물들과 경제계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중소기업의 불황은 더욱 심화되여가고있다》, 《중소기업체가 이해들어 자금부족, 판매부진, 세금과중 등으로 격심한 불경기에 빠져있다》, 《최근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있다》 등으로 묘사하면서 《현대기업이 직면하고있는 현실은 도산직전의 심각한 현상》으로서 그 《심각도가 더해만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민족공업의 전면적인 파국상태는 외국자본의 대대적침투로 인한 식민지적예속성과 기형성이 일층 심화된데서도 표현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예속화과정은 특히 일본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로 더욱 촉진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 침투한 외국자본총액에서 미국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놈들의 사독점자본은 남조선 비료부문의 90.2%, 화학섬유부문의 64.2%, 알루미니움부문같은것은 100%를 차지하고 해당부문기업체들의 경영권까지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그리하여 정유공업, 세멘트공업, 합성수지 및 팔프공업, 전자기구공업, 자동차조립공업 등은 100%, 전력공업과 비료는 80%, 세멘트공업은 65%를 외국독점자본가들이 지배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인 《외자도입》책동을 폭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미국독점자본가놈에게 완전히 넘겨준 《대한석유공사》, 《중앙제약회사》등과 같이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합작투자》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진 남조선기업체들은 《조만간 남의것이 되고 우리는 함께 일구어놓은 전답에서 남의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로 전락할것이 분명하다》고 쓴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경제적예속으로 인한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또한 더욱 증대되여 그 수입규모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총칼로 괴뢰정권을 가로타고 앉은 1961년에 1억 8천 600만딸라로부터 오늘은 그의 5.5배이상으로 늘어나 10억 2천 500여만딸라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제조공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식료공업, 섬유공업, 화학공업, 목재가공공업은 원료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공업의 예속의 강화는 경제구조상에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또한 심화시키였다.

남조선공업은 그 구조에 있어서 독자적인 재생산의 필수적인 전제조건들이 완전히 결여되였으며 극도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띠고있다. 그것은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의 심한 불균형, 공업부문내에서 종합

적인 일관한 생산체계의 결여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례컨대 오늘 남조선에서 생산수단생산부문은 공업에서 극히 부차적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것마저도 거의 소비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부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기계공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기술, 생산수준, 규모로 볼때 매우 락후한것으로서 부속품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으며 령세화될대로 령세화되여 수공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경제구조의 기형성은 부문내부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공업전반에서 원료생산과 처리부문이 극히 뒤떨어져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래 빈약한 가공공업마저 자체의 원료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는데서 알수 있다.

또한 남조선민족공업의 예속성과 기형성은 기술장비의 락후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미일독점자본가들은 《기술협조》 등의 명목밑에 제놈들의 낡은 설비를 남조선에 들여다 팔아먹으면서 남조선의 민족공업을 현대기술의 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지게 하여 그의 파산몰락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다.

실례로 이해에 남조선의 중소제재공장들의 가동률은 그 전해보다 20～25%나 더 떨어져 26%에 불과하였다. 그 중요원인은 공장설비의 90% 이상이 설비가 낡았거나 뒤떨어진데 있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경제의 군사화와 략탈의 강화로 남조선민족공업은 더욱더 쇠퇴몰락이 촉진되였으며 그의 식민지적예속화가 보다 심화되였다.

농촌경리의 혹심한 파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그 발전의 길이 막혔을뿐아니라 급시 황페화되였습니다.… 공업이 파산되고 농촌경리가 급시 령세한 조건에서 농업기술은 말할수 없이 뒤떨어진 형편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9페지)

1971년도에 남조선농업은 더욱 혹심하게 파탄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과 전쟁도발을 위한 경제의 군사화에 미쳐날뛰면서 농촌경리를 여지없이 황페화시켰다.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비롯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더 파괴되고 농업생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체제밑에서 농민대중은 더한층 령세화되였으며 수많은 농민들이 파산몰락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군용지략탈과 치산치수를 하지않아 농토가 황페화된 탓으로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8～1971년까지에 농경지면적은 무려 20만 6천정보나 줄었다. 이해에 10차례나 거듭된 큰물과 해일, 가물 등으로 피해가 혹심한데다가 병충으로 인한 피해면적도 전해에 비하여 8배나 늘어났다.

박정희도당은 또한 수많은 농촌청장년들을 괴뢰군에 강제징집하였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청장년로력들을 모조리 《향토예비군》의 강제적군사훈련과 군용도로를 비롯한 군사고역장들에 끌어내여 농사일을 못하게 하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리농으로 그렇지 않아도 로력이 형편없이 모자라는데다가 대부분의 청장년들이 농사일에서 떨어지고 또 부림소(1970년 5월 19일현재 영농사업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림소의 겨우 70%만 보유하고있었으며 1971년에는 그것이 더많이 줄었다)의 부족으로 농사를 변변히 짓지 못하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의 파괴, 농업로력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은 전반적으로 파탄되였다. 여름철에 걷어들인 밀보리수확량은 보잘것없었던 1970년에 비하여 또다시 113만석이나 줄어들었다. 적들자신도 벼농사의 한심한 상태를 인정하면서 《최소한 300만석이상 줄어들것》이라고 비명을 올렸다.

농업생산의 전반적파탄은 남조선을 더욱 무서운 식량기근지대로 전변시켰다. 남조선의 식량자급률은 1966년이후 1971년까지에 18.2%나 더 낮아졌으며 식량부족으로 인한 량곡도입량이 1971년도에 1966년도의 그것보다 260만 6천론이나 더 많은 313만론이였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은 군량미확보와 전쟁자금조달을 위한 농촌수탈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0년보다 70만섬이나 더많은 270만석의 밀보리수탈책동을 벌린데 이어 60만석의 벼를 《매상》등의 명목밑에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놈들은 또한 1억 580여만딸라어치의 각종 농산물을 《군납》의 이름밑에 헐값으로 략탈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켜준다는 구실을 붙여 고구마, 잎담배 등을 강제로 심게 하고는 그 대부분을 헐값으로 강제《매상》하였다.

농민들에 대한 세금수탈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1970년도에 비하여 23.5%, 1961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무려 18배로 불어난 4천 600여억원의 세금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 이의 많은 부분을 농민들에게서 빼앗아냈다. 놈들은 이른바 《농사자금》과 《비료값》 등을 《회수》한다는 구실밑에 412억 6천 800여만원의 돈을 농민들의 당장 먹을 식량이며 집짐승들과 가장집물들까지 《차압》하는 방법으로 강탈하였다. 이밖에 많은 《저축금》과 《공제금》 그리고 80～100종에 이르는 갖가지 《잡부금》들을 농민들에게 들씌워 빼앗아냈다.

괴뢰도당과 함께 지주놈들에 의한 봉건적착취와 략탈이 또한 악착스럽게 감행되였다. 악독한 지주놈들은 일정한 토지를 경작준 대가로 가혹한 소작료를 미리 받아내는 《전세제》를 비롯한 공개 또는 비공개적인 형형색색의 봉건적소작제도에 농민들을 얽매여놓고 수확물의 50～60%를 소작료로 략탈하였다. 이밖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식의 《장리쌀》을 비롯한 수십종의 고리대와 가을도 하지 않은 곡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폭리를 취하는 여러가지 《선매제》 그리고 부림소와 농기구들을 빌려주는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엄청나게 받아내는 등의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악착스럽게 짜내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수입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줄어들었다. 농가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높은 리자를 무는 고리채에 의지하여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이 더욱 늘어나 실제로 전체농가의 95%가 80～100%의 높은 리자를 물어야 하는 고리채에 얽매여있으며 호당 채무액은 3만원을 훨씬 넘고있다. 남조선강원도 삼척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들에서는 세대당 무려 5만원씩의 빚을 걸머지고 굶주리고있다.

농촌경리의 파탄과 농민생활의 령락상은 절량농가와 리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반영되고있다. 1954년에 45만호가 절량되였다면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정권을 가로타고 앉은 이후에는 해마다 160만호로, 특히 1970년에는 남조선 전체 농호수의 96%를 헤아리는 225만호로 늘어났으며 이해에는 지주놈들과 부농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절량되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거듭되는 흉년과 악랄하게 감행된 괴뢰도당과 지주놈들의 략탈과 착취행

위로 수많은 남조선농민들이 더는 고향땅에서 살수 없어 파산리농하였다. 1966년부터 1969년까지의 년평균리농호수가 4만 2천호였다면 1970년에는 30만명의 농민들이 리농하였으며 이해에는 그보다 더 많은 농민들이 살길을 잃고 고향땅을 등졌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남조선농촌경리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더욱 혹심하게 파탄되였다.

이것은 박정희도당이 입버릇처럼 떠벌이는 《농가소득증대》니 《근대화》니 하는것들이 한낱 빈나발이며 저들의 반인민적정체를 가리고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수작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쇠퇴몰락하는 수산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건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남김없이 파괴되였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09페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이해에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된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탄압책동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어장강탈과 해적행위 등으로 남조선수산업은 보다 전면적으로 파탄되였으며 어민들의 생활은 극심히 령락되였다.

남조선수산업의 파탄상은 우선 기본생산수단인 고기배의 락후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경상북도 동해안지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지방 전체어선의 근 80%는 아직 동력조차 갖추지 못한것들이며 그나마 무은지 30년이 넘는 낡은 배들이여서 《원시적인 어로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처럼 락후한 고기배마저 최소한 필요량의 6분의 1정도밖에 안되여 사실상 수많은 어민들이 바다에 나갈 엄두도 못내고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소동과 파쑈탄압으로 남조선어민들의 어로활동은 극도로 억제당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 동서남해안의 중요어항들과 어장들을 군사련습장으로 전변시켜놓고 매일과 같이 수많은 함선들을 끌어내여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을뿐만아니라 해안지방들에 전쟁준비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공사들을 벌려놓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어장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였다. 경상남도 울산 앞바다의 연해어장들은 원쑤들의 범죄적책동으로 극도로 황폐화되여 모든 수산물자원이 《멸종위기》에 처하였으며 제주도연안의 미역은 그 절반이상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어민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탄압과 어로방해책동이 특히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놈들은 괴뢰해양경찰대표들로 하여금 어민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하고 《해양경찰과 해군의 긴밀한 련계아래》 어민탄압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파쑈악법을 보다 반동적으로 《개악》하였다. 한편 서해안의 덕적도, 인천, 연평도 등 6군데와 동해안의 속초, 거진 등 5군데에 무슨《등록업무취급소》라는 탄압기구를 새로 만들어 놓고 어민들에 대한 폭압에 미쳐날뛰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남조선어민들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력이 남조선어민들속에 미치는것을 막아보려고 군사분계선근방에 처놓은 이른바 《어로저지선》근처에 얼씬만해도 어민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다 가두고 악명높은 《반공법》과 《수산업법》에 걸어 처벌하였다.

놈들은 4월부터 6월 24일까지의 약 두달사이에 남조선서해에서만도 30척의 어선을 억류하고 325명의 어민들을 붙잡아 가두고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동서해의 《어로저지선》근방에서 남조선어민들이 해마다 당하는 어획손실은 최소한 30억원을 헤아리며 이해에는 남조선동해안에서만도 무려 10만여명의 어민들이 물고기잡이를 거의나 하지못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연해에서 감행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적행위로 말미암은 피해 역시 극심하다. 일본해적의 무리들에 의한 만행건수는 《한일어업협정》이 조작된 이듬해인 1966년에 비하여 1969년에는 3.8배로, 이해에는 첫 10개월동안에만도 그의 8.3배로 대폭 늘어났다.

남조선동해안일대에 매일같이 밀려들어 판을 친 일본해적놈들은 같은 지역에서 남조선어민들이 잡은 물고기량에 비하여 10배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갔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발광적으로 감행된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폭압책동 그리고 일본해적선들의 해적행위와 그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 등으로 이해 남조선의 어획고는 보잘것없었던 그 전해에 비하여 또다시 줄어들었다. 남조선 강원도 동해안일대어민들이 1971년 상반년간에 잡은 오징어는 보잘것없었던 전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밖에 안되였으며 겨울철에 잡은 물고기량도 그 전해같은 시기의 1.5%에 불과하였다. 전라남도의 흑산도를 비롯한 남해안과 서해안일대에서의 어획고도 같은 형편이였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어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과 착취행위는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군납》, 《위탁판매》 등의 구실밑에 어민들이 잡아들인 물고기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냈다. 그리고 《면허세》, 《영업세》 등 수십종의 세금을 어민들에게 들씌워 수입의 75%를 략탈하였다. 여기에 선주들의 략탈행위까지 겹쳐 남조선어민들에게 실지 차례지는 몫은 어획고의 10분의 1밖에 안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어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으며 그들은 참을수 없는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다.

경상북도 울진군내 어민들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들은 이른봄부터 절량되여 먹을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였다.

남조선강원도 속초, 거진, 주문진, 전라남도 거문도를 비롯하여 동서남해안의 어촌들에서는 수많은 어민들이 세대마다 4~5만원 지어 10~20만원씩의 빚을 걸머지고있다.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어민들속에서는 살길을 찾아 헤매는 참상이 늘어만가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농촌경리와 마찬가지로 남조선어업도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반동적인 어업정책으로 이해에 더욱 혹심히 파탄되고 어민들의 생활은 일층 령락되였다.

재정금융의 파탄과 혼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부의 재정을 완전히 자기 손에 틀어쥐고 그 예산을 미국점령군과 방대한 괴뢰군대와 파쑈적통치기구를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돌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3~24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지시밑에 1970년 예산보다 21.1%(915억원)나 더 불어난 총규모 5천 242억원의 1971년도 《일반재정예산》을 조작해내였다.

1971년 괴뢰정부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는 특징은 군사비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것이다.

박정희도당은 《아세아인에 의한 아세아의 방위》라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교리에 따라 《한국은 방위비지출을 대폭증가하여 방위면에서 자주력을 이룩》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벌이면서 1971년도 예산에서 군사비를 230~250억원이나 더 늘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자주국방력체제확립》이니하면서 《국방비》(군사비지출의 한 항목)로 1970년의 그것보다 27.2%(273억원)나 더많은 1천 278억원을 책정하였다.

이 증가률은 1969년의 그것에 대비한 1970년의 《국방비》의 증가률 24%보다도 훨씬 더많은것이며 예산총규모의 증가률(21.1%)보다도 훨씬 더 높은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방대한 자금을 쏟아넣어 괴뢰군《장비의 현대화》와 《전장병의 전투요원화》, 《전후방방위지대의 요새화》, 《향토예비군의 전투력강화》등에 미쳐날뛰였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이해 예산에서 이밖에도 《재정투융자》의 명목밑에 방대한 군사비지출을 예견하였다.

놈들의 1971년도 예산에 반영된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예산총규모의 30.5%를 차지하는 1천 610억원에 달하고있다. 그 대부분이 군사적목적을 위한 지출 즉 《군수산업의 육성》과 군사적목적을 위한 시설들의 확장에 돌려지고있는데 이것을 합친다면 1971년 괴뢰정부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일례로 놈들은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운수부문에만도 500여억원의 자금을 쏟아넣음과 동시에 군사적의의가 큰 체신부문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넣어 군사기동력을 높이고 군수물자보급의 신속성을 보장하기에 미쳐날뛰였으며 비행장들을 수많이 신설확장하였다.

또한 박정희도당은 《엠—16소총공장》건설과 탄약공장건설 등에 방대한 자금을 집중투자하는것으로도 성차지않아 이른바 《민수산업을 토대로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유사시 전시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전투에 필요한 긴요한 물자를 비축》하기에 날뛰였다.

그러면서 놈들은 남조선공업기업체의 98%를 차지하고있는 중소기업체들의 극심한 자금난에는 아랑곳도 하지않고 형식에 불과한 이른바 《중소기업자금》마저 이해에도 1970년도의 그것보다 다시 3억원이나 더 줄이였다. 이리하여 《중소기업자금》은 《재정투융자》 총액의 1%도 안되는 보잘것없는 금액만이 책정되였다.

이것은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이 전쟁준비를 위한 예산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에는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의 장기집권을 재정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선거비용이 반영되고있다.

그것은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에서 사실상 괴뢰도당의 파쑈통치기구유지비의 지출항목인 《일반경비》가 1970년의 그것보다 22.9%(이것은 이해 괴뢰정부예산 총규모의 증가률보다 더높다)나 더많은 2천 348억원으로 불어난데서도 잘 말해주고있다.

놈들은 공개된 방대한 《선거경비》외에 《선거》를 위한 방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또한 《재정투융자》항목속에 포함시켜놓았다.

그러기에 괴뢰지배층내부에서까지도 이른바 《투융자가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리용》되고있으며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은 박정희도당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시키려는 《선거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것이다.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에서 나타난 또하나의 특징은 괴뢰도당이 미제상전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군사경찰비부담을 더많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넘겨씌워 강탈해내려 한데있다.

1971년도괴뢰정부예산에 책정된 조세총액은 1970년의 그것보다 23.5%(예산수입총액의 증가률 21.1%보다 훨씬 더높다)(878억원)나 더많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정권을 가로채기 이전 12년간(1949—1960년)에 력대괴뢰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서 짜낸 조세총액의 약 3배나 되는 4천 62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리하여 이해 예산수입총액가운데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의 86.5%로부터 1971년에는 88.1%로 높아졌으며 남조선의 세대마다에 이것을 고루 풍긴다면 무려 8만원씩이나 돌아가는 엄청난 금액에 이르렀다.

놈들은 괴뢰정부예산에서 《내국세》는 1970년의 그것보다도 27.6%, 간접세의 일종인《전매익금》은 26.2%나 더 끌어올리였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의 강화는 또한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출인 이른바 《방위지원원조》를 대폭축감하고 그 부담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넘겨씌운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괴뢰정부예산 수입항목들 가운데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규모가 전례없이 불어난 반면에 이른바《대충자금》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괴뢰정부예산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몫은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에 《대충자금》수입이 차지하는 몫은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이 괴뢰정권을 가로챈 해인 1961년의 39.2%(241억원)로부터 1970년에는 37%로, 1971년에는 다시 1.4%(65억원)로 줄어들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방대한 조세를 남조선인민들에게서 빼앗아내기 위하여 년초부터 수탈을 위한 모의들을 벌려놓고 이해 《세금수입목표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세수공세》를 벌리도록 졸개놈들을 몰아대였다.

놈들은 전남조선의 《세무공무원》들에게 한달에 1건이상의 《음성세원발굴을 의무화》하고 매달 15일을 《세원개발의 날》로 정하며 《체납세금정리기간》과 《세금징수강조기간》등을 정해놓고 졸개놈들에게 《비상동원령》을 내려 수탈에로 계속 내몰았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년중 계속 발광적인 수탈소동이 벌어졌다. 괴뢰경찰력까지 동원한 략탈 《기동반》, 《체납정리반》놈들은 무시로 《주인도 없는 빈집》에 뛰여들어 소나 돼지, 닭 등은 물론 세간살이까지 몽땅 빼앗아가지고 달아나는것과 같은 날강도적 수탈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처럼 세금수탈을 강화함과 함께 예산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17% 올린것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수업료》를 20~50%, 《입학금》을 25~100%, 철도료금, 수도료금 등 공공료금을 20~150%나 끌어올렸으며 《도로국채》를 비롯한 수많은 《국채》와 《공채》를 발행하여 강제로 내리먹임으로써 수백억원의 추가수탈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지시와 조종밑에 조작된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이 전쟁예산이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예산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1971년도 괴뢰정부예산의 특징은 또한 그것이 편성 당초부터 자체내에 막대한 적자요인을 내포하고있었을뿐아니라 집행행정에서 엄청난 적자를 내여 불안정한 적자예산으로서의 성격이 그 어느해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늘어나는 군사경찰비를 메우기 위해 여러가지 세금과 료금을 엄청나게 끌어올리였으나 이해 제놈들의 예산에 수백억원의 적자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

여 이해 괴뢰정부예산은 처음부터 막대한 적자를 내포한 불안정한 적자예산으로 생겨났다.

또한 박정희도당은 군사경찰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세금수탈에 미쳐날뛰였으나 인민들의 담세력 격감으로 결국 놈들의 수탈계획이 미달되였다. 괴뢰정부예산세입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내국세》수입은 85억원, 《관세》수입은 118억원이나 미달하여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였다. 괴뢰도당들 내부에서까지 이해 《내국세수입에 있어서 이러한 차질이 생긴것은 19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래 처음》이라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수 없었다.

예산적자의 격증으로 재정혼란뿐만아니라 금융체계도 극심한 혼란과 파탄의 진탕속에 빠져들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줄어든 은행자금융자의 대부분을 제놈들의 전쟁준비와 관련된 부문과 그에 종사하고있는 매판자본가놈들에게만 돌렸다. 이리하여 남조선 전체금융기관대출금의 4분의 3이 군수산업이 집중되여있는 서울과 부산에 융자되였으며 특히 서울은 금융기관대출금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중소상공업자들에 대하여서는 《긴축》의 구실밑에 은행자금의 대부를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그들을 극심한 자금난에 몰아넣었다. 놈들은 일반은행들의 자금대부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해 2월 한달동안에만도 25억 3천 300만원을 《류동성규제》라는 이름밑에 추가동결시켜 일반은행자금동결액이 2월말 현재 68억 1천 900만원에 이르게 하였다. 3월에는 또 58억 7천만원의 일반은행자금을 추가동결시키였다. 놈들은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이해 5월 10일에는 《군수산업과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매판자본가놈들에 대한 대부를 제외한 《신규대출을 일체 중지》하도록 하는 파쑈적조치까지 취하였다. 이로하여 은행자금 대출액 가운데서 중소상공업자들에 대한 자금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의 그것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기에 남조선출판물들은 《금융사상 류례가 없이 가혹한 긴축》으로 말미암아 《기업체들은 일찌기 없었던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고 전하였다.

이를 기화로 고리대금업은 더욱 성행하였다. 고리사채류통량은 전해의 그것에 비하여 16.2%, 5년전인 1967년의 그것에 비하여서는 무려 2.7배로 불어났다.

또한 중소기업가들의 자금난을 반영하여 부도수표가 격증하였는데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년평균부도액수는 1962년의 3배로 불어났으며 이해 9월부터는 전남조선의 금융체계가 류례없는 혼란과 파국의 《금융파동》속에 휘말려들어갔다.

남조선경제 특히 재정금융체계의 혼란과 파국적위기는 미제침략자들의 략탈적인 《환률인상조치》로하여 더욱 촉진되였다.

극심한 경제위기 특히 딸라위기에 빠진 미제침략자들은 세계자본주의시장에서 딸라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국제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를 보존해보려고 그의 평가인하를 단행하면서도 저들의 가장 철저한 식민지인 남조선에서만은 6월 28일 딸라와 남조선돈과의 교환비률을 인위적으로 13%나 더 끌어올리였다.

이것은 딸라에 대한 남조선돈의 가치를 더욱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남조선주둔미군유지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사독점자본침투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기 위한 략탈행위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 일방적인 《환률인상조치》로 외국차관에 대한 남조선의 원금및리자상환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남조선의 《차관기업체》들이 걸머지게 된 《원》에 의한 추가부담만도 무려 824억 1천만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놈들의 《환률인상조치》가 얼마나 가혹한 략탈적인 조치였는가를 더말할 여지없이 뚜렷이 보여준다.

보는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반역도당에 의한 세금과 공공료금의 인상,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과 환률인상 등으로 말미암아 이해 남조선재정금융의 파탄과 혼란은 일층 심하였다.

참담한 인민생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산,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져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1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후 10년간 이른바 《근대화》의 미명밑에 감행된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와 외국독점자본에 의한 예속의 가일층의 심화는 남조선에서 인민생활을 더욱더 심한 령락과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민족공업과 농업이 여지없이 파탄된 남조선은 국민소득생산에서도 세계적으로 최하층의 대렬에 속하는 지역이다. 례하면 1970년도에 남조선에서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은 사실에 있어서 아세아에서 가장 적은 겨우 100딸라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낮은 국민소득의 조건에서 인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나마의 국민소득마저도 압도적부분이 더욱더 착취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있으며 인민들에게는 극히 적은 몫만이 차례지고있다. 이른바 세금을 골간으로 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수탈은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령락시키고있다.

온갖 《특혜》와 치부의 조건을 보장받고있는 극소수의 착취배들은 하루저녁 료정에서 수백만원을 탕진하는 방탕한 생활과 부화사치를 일삼고있는 반면에 가난한 인민들속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자살참극, 공공연한 인신매매, 심지어 귀중한 눈알까지 팔겠다는 비통한 광고 등 차마눈뜨고 볼수 없는 참경이 벌어지고 있다.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시기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회상한다면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를 가히 알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일제때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89페지)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살인적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계급보다도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있다.

그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로동조건의 악화, 장시간의 노예로동과 살인적인 로동강도, 식민지적기아임금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우선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그들의 로동조건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그들은 아무런 로동안전시설과 보건후생시설도 없는 감옥과 같은 일터에

서 매일과 같이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하고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 6가에 있는 피복공장들에 얽매인 2만 7천여명의 로동자들은 조명과 환기장치도 되여있지 않은 높이 1.5메터밖에 안되는 3~4평정도의 비좁고 먼지와 소음이 가득찬 창고속에 15명씩 들어가 앉아 허리도 펴지 못하고 앉은 걸음으로 다니면서 하루 평균 16시간이상의 고역을 강요당하고있다. 때문에 로동자들의 거의 전체가 폐결핵, 기관지장애, 신경쇠약, 위장병, 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담배공장만 보아도 매판자본가놈들이 《온도습도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배기시설도 갖추지 않고 완전 밀폐시킨 작업장에서 온종일 혹사시킴으로써 하루에 170~200명씩의 로동자들이 질병으로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탄광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은 더욱 혹심하다. 이들은 안전보호시설이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고 전기시설도 없는 1메터도 되나마나한 높이의 키낮은 막장으로 겨우 기여들어가서 괭이로 탄을 긁어 내리고 다시 질통에 담아 수백메터씩 기여서 갱밖으로 나오는 등 처참한 형편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탄광들에서 매일 각종 로동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2월 15일 남조선 강원도 《혈암광업소》에서 갱이 무너져 13명의 로동자들이 생죽음을 당하였으며 부산시 부산지구 《태화고무공장》에서는 안전대책이 전혀 없고 낡은 설비를 보수조차 하지 않은데로부터 보이라가 터져 20여명의 로동자들이 무참히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남조선에서 매해 일어나는 로동재해 건수는 20~30만건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매월 2만 5천건, 매일 830건이상의 로동재해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또한 로동시간의 무제한한 연장과 함께 온갖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감행되고있는 로동강도의 부단한 제고에 의해서도 가혹하게 착취당하고있다.

괴뢰도당은 이해 방직부문 로동자들을 전해에 비해 하루 6시간이나 더 로동시간을 늘여 매일 18시간씩이나 혹사하였다. 남조선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뻐스차장들은 하루 20시간, 지어 운전수들은 23시간을 혹사당하고있다. 제조업부문로동자들이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은 불과 3시간밖에 안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 이후 남조선에서 로동시간은 평균 2시간이나 더 늘어났으며 하루 16~18시간로동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돈밖에 안중에 없는 악독한 매판자본가놈들은 지어 각성제(잠안오는약)까지 적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로동자들을 철야작업에 내몲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심한 피로끝에 생명까지 잃게 하고 있다. 9월 부산시 한 완구공장에서 13살의 소년이 련일 계속되는 중로동끝에 피를 토하면서 현장에서 숨진 사실은 결코 단편적인 실례가 아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또한 기업체와 작업장에 배치되여있는 비밀경찰과 정보원들의 감시와 채찍밑에서 혹사당하면서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생산책임량을 도저히 할수 없는 정도로 정해놓고 미달하면 임금을 깎는 착취제도)와 같은 식민지기아임금제도에 의해서 가혹하게 착취당하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이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당하고있는가는 매판자본가놈들의 잉여가치률이 1960년에 평균 180~250%였다면 1970년에는 300~350%에 달하고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1960~1970년 기간에 남조선공업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로동계급에게 차례진 몫은 31%에서 24.8%로 줄어든 반면에 자본가들에게 점유된 몫은 68.6%에서 75.2%로 증가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부가 극소수 착취자들에게 더욱더 집중되고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로동자들은 더욱더 빈궁의 심연속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이 받고있는 기아임금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도 못되는것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형편이다.

전라북도 리리시내의 69개의 중소기업체로동자 1천 500명중 65%는 최저생계비(2만 5천원)의 5분의 1도 안되는 기아임금보다도 절반이상이나 적은 9백원~2천 5백원 안팎의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고있다. 부두로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임금수준보다도 낮은 2천원 남짓하며 녀차장들의경우 1천 5백원을 넘지 못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일본로동자들의 임금보다 65%가 낮으며 홍콩, 필리핀, 타이 등과 같은 다른 아세아괴뢰국가로동자들의 임금보다 80%나 낮다.

로동자들은 얼마 안되는 기아임금마저 제대로 받지못하고있다.

단편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기업체들에서의 로임체불액만도 무려 100여억원을 헤아리며 이에 관련된 로동자수는 수십만을 넘고있다. 1972년 1월말현재 로동자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조사한 90여개 기업체에서만도 무려 5억 8백여만원에 달하고있다.

이와 같은 로임체불현상을 비롯하여 이해 로동자들에 대한 각종 부당한 략탈만행건수가 5천 8백여건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까지도 《꼬박꼬박 받아도 절대 생활비가 모자라는 보잘것없는 임금인데도 그것마저 몇달씩 밀리고있으니 근로자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라고 착취배들의 죄행에 격분을 표시하였다.

이해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60년에 비하여 40%이상 떨어졌다.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떨어지는것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인플레에 의한 착취의 강화에 있다. 인플레에 따른 물가등귀와 각종 료금의 인상은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그만큼 덜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후 10년간에 남조선에서 물가는 도매물가의 경우만 하더라도 평균 40%이상 올라갔으며 이해 다시 30~40%이상 뛰여올랐다. 따라서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남조선에서 실질수입의 감소는 로동자들을 항시적인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고있다.

그례를 찾아보기 드문 고된 로동과 험한 로동조건, 기아임금으로 말미암은 영양실조 등에 의한 질병과 직업병으로 신음하고있는 로동자들이 그 총수의 60%이상에 달하고있으며 녀성로동자의 경우 80%이상에 이르고있다.

서울시 당산동에 사는 한 로동자가 일자리와 먹을것을 얻으려 거리를 헤매다가 굶어죽은 사실은 남조선로동자들의 생활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의 처지는 더욱 처참하다. 이해에도 전반적인 기업체들에서 생산이 침체되고 파산몰락이 극심해짐에 따라 실업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 실례로 섬유부문 《의류수출조합》 산하에서만도 3만명중 1만명이 해고되였으며 《대명광업》은 종업원 5백명전원이 해고되였다.

해고당한 로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자기의 귀중한 피와 눈알까지 파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기막힌 참상이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출판물도 《밥벌이를 찾아 헤매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을 담아줄 직업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고 개탄하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속에서는 빈궁과 기

아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죽어가는 참상이 수없이 빚어지고있다.

【농민들의 암담한 생활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그들은 더욱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142페지)

교활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해보려고 이른바 《중농정책》이요, 《농업근대화》요, 《농민소득증대》요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계속 요란하게 불어대고있다.

그러나 1971년의 남조선농촌경리형편과 농민들의 생활처지는 더욱더 나빠졌으며 실태는 놈들의 선전이 전혀 거짓이라는것이 더할나위 없이 실증되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업생산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알곡수확량은 훨씬 감소되였다. 그리하여 무서운 식량기근이 남조선전역을 휩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군량미확보와 전쟁자금조달의 명목으로 농촌에 대한 수탈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밀보리수확량이 1971년에 113만 1천여섬이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보다 70만섬이나 더 많은 270만섬의 밀보리와 400만섬의 벼를 이른바 《매상》의 명목으로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또한 1억 580여만딸라어치의 각종 농산물을 《군납》의 명목밑에 헐값으로 략탈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 시켜준다고 속여넘기고 고구마, 잎담배 등을 억지로 심게 하고는 그 대부분을 강제 《매상》의 명목으로 빼앗아갔다.

이밖에도 놈들은 가을걷이가 끝나기도 전에 각종 《농사자금》, 《비료값》 등을 회수한다는 구실밑에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지어 《재산압류기동반》이라는것을 만들어 보잘것없는 세간살이와 농기구까지 마구 차압하였다.

실례로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 강원도 원성군내 1만 3천여명의 농민들로부터 《비료값》, 《농사자금》 등 1억 7천여만원에 대한 강제회수소동을 벌리는통에 이곳 농민들은 얼마 안되는 땅까지 팔지않으면 안되였다.

지주놈들의 착취도 례년에 비하여 더욱 극심하였다.

지주놈들은 일정한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가혹한 소작료를 미리 받아내는 《전세제》를 비롯하여 《수팔이제》, 《할논팔기제》, 《보리논제도》 등 형형색색의 봉건적소작제도를 통한 착취, 겨우 목숨이나 유지할 정도의 낮은 삯으로 사들인 고용로동과 품팔이로동에 대한 착취, 각종 고리채에 의한 착취 등 여러가지 악랄한 형태로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이와 같은 농촌수탈책동과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수백만 농민들이 이른 봄부터 절량에 허덕이거나 리농하며 굶어죽는 등 그들의 생활처지는 날을 따라 비참해져갔다.

농민들의 생활처지의 악화를 반영하고있는 절량농가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절량농가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 이후 매해 평균 160만호, 1970년에는 225만호에 달하였으며 이해 절량농가는 더욱 늘어났다.

1월 현재 경상북도 영천군의 각 읍, 면의 절량상태를 조사한데 의하더라도 대부분 농가가 전해 12월말부터 식량이 떨어졌으며 지어 영양군의 대부분 면들은 추수직후인 11월말에 벌써 식량이 떨어졌었다. 극심한 절량으로 충청남도 아산군내 농민들은 이른봄부터 풀뿌리를 캐러 산과 들을 헤매였다.

절량농가는 몇개지역, 몇개부락에 국한된 정도가 아니라 면, 군을 단위로 전체 농가가 절량되여 기아에 신음하였다.

전해 일찍부터 극심한 절량에 시달려온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내 농민들속에서 모진 주림에 지친 나머지 부황병에 걸려 자리에 쓰러진채 일어서지못하는 참상이 날을 따라 늘어난 사실이라든가 충청남도 대덕군 탄동면 도룡리와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에 사는 두 농민이 먹을것을 찾아 헤메다가 길가에 쓰러져 무참히 굶어죽은 사실은 절량된 남조선농민들의 기아상태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들이다. 농민들속에서는 심한 생활난으로 자살하는 참상까지 빚어졌다. 1970년 한해동안에 자살한 수가 9천 300여명이였다면 이해에는 더욱 늘어났다.

절량은 빈고농층은 말할것도 없고 대부분의 중농층도 식량이 떨어져 품팔이로 보충해야 하는 형편이였다.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그들의 부채액이 늘어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농호당 부채액은 1960년의 6천 973원으로부터 1971년에는 3만～4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어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경상남도 남해군 농민들은 5만여원의 빚을 지고 굶주리고있다.

오늘 남조선농민들의 90%이상이 년리 70～120%의 살인적고리채에 얽매여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비호밑에 감행되는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행위로 인하여 해마다 엄청난 빚을 걸머진 남조선농민들이 채무노예로 되여 지주놈들의 머슴으로 전락되고있다. 남조선에서 30여만의 머슴들이 노예와 같은 인간이하의 멸시와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갈수록 더해지는 착취와 략탈, 기아와 빈궁으로 할수없이 정든 고향땅을 등지는 리농민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 후 10년간 리농수는 해마다 4만호에 달하고있으며 이해에는 더욱 늘어났다.

경상북도 울진군내의 몇개면에서는 이해 첫 9달동안에만도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난 근 1천여세대의 농민들이 리농하였으며 충청남도 례산군내의 농촌마을들에서는 50%가 떠났다. 그리고 이 도의 서천지방에서는 늘어나는 리농으로 로력이 60%나 모자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는 형편이였다.

남조선출판물도 리농현상에 대하여 《리농은 결코 도시가 농촌인구를 끌어들이는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살다살다 못하여 밀려가는 현상이다. 그러나 도시의 생활여건을 재삼 말할 필요도 없이 리농인구를 수용할만한 환경이 못되기때문에 가두잠재실업군만 늘어나고》 있다고 쓰고있다.

리농민들은 리농첫날부터 류랑걸식하고있으며 도시빈민으로 전락되고있다.

농민들의 주택사정도 말이 아니며 그들은 전기불조차 없는 불결한 방에서 질병으로 신음하고있다.

놈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97%이상의 농가가 비좁고 불결한 오막살이에서 살아가고있으며 수십만의 농민들이 영양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질병에 걸려있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농가호수의 67%가 전기불을 보지못하고있다. 경상북도와 남조선강원도 일대의 농민들은 90%이상이 전기불을 보지못하고 암흑속에서 살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의 비참한 처지】 100여만 남조선어민들은 3면에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으로 빈궁과 무권리를 강요당하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처지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범죄적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

동을 벌림으로써 고기잡이를 마음대로 하지못하고있으며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는 구실밑에 황금어장을 마구 빼앗는 통에 어장에서 내쫓기우고있다.

또한 남조선어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으로 어로활동을 각방면으로 억제당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어민들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휘황찬란한 성과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전해지는것을 막기 위해 처놓은 이른바 《어로저지선》을 더욱 남하시킴으로써 서해의 18만어민들의 배길이 막혀버렸으며 속초, 거진, 묵호, 주문진 등에 살고 있는 12만 동해어민들도 년간 물고기잡이를 좌우하는 명태어장에서 쫓겨나고있다.

괴뢰들의 어민들에 대한 파쑈적전횡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은 이해 4월부터 6월 24일까지의 약 두달사이에 남조선서해안에서만도 고기잡이를 하던 무고한 어민들 325명을 이른바 《어로저지선》을 넘었다고 《반공법》에 걸어 구금한것을 비롯하여 그들의 배 30척을 억류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어민들은 놈들의 감시와 폭압속에서 근해어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기껏 연해어업에 그치고있으며 이것마저도 《단속》이요 뭐요하는 폭압소동으로 말미암아 빈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령락될대로 령락된 어민들은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자금조차 마련할수 없어 고기떼를 보고도 잡지못하는 형편에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남조선어민들이 해마다 당하는 어획손실은 30억원이나 되며 이해에는 남조선동해안에서만도 10여만명의 어민들이 물고기잡이를 거의다 하지못하였다.

또한 어민들은 일본해적선들의 격증되는 행패와 략탈로 하여 더욱더 피해를 입고있다.

일본해적선들의 날을 따라 더욱 심해지는 만행으로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고 심한 생활난에 신음하고있다. 전라남도내 수천명의 어민들은 놈들의 만행으로 물고기잡이를 더는 할수 없어 세대마다 200~300만원이상의 빚을 걸머진채 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다고 한다.

어민들의 생활처지는 박정희악당과 어업자본가, 선주들의 2중, 3중으로 되는 세금수탈과 현물수탈의 강화로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면허세》, 《부과세》, 《소득세》, 《영업세》, 《재산세》를 비롯한 수십종에 달하는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어민들에게 들씌우고 보잘것없는 수입에서 몽땅 빼앗아내고있다.

또한 잡아온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빼앗아내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고기들에 《전략어종》(수출용)이란 딱지를 붙이고 어획량의 절반이상을 빼앗아내고있다.

이밖에도 어민들은 다시 어업자본가, 선주들에게 빼앗기고 나면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이란 당일 어획량판매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이와같은 수탈로하여 어민들의 수입은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월 최저생활비의 6분의 1~10분의 1밖에 안되는것으로서 그들의 빈궁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있다.

이해초 남해안연안지역과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섬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어촌들에서 절량이 휩쓸었다.

실례로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라남도 려천, 고흥, 령광, 신안지역과 완도, 진도 등지의 농어민들중 1월말 현재 기근에 허덕이는 수는 무려 30만 8천여명에 달하였다. 려수지역 일대의 한섬에서는 주민의 80%인 7만여명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였으며 전라남도 려천군에서는 당장 굶어죽을 지경에 있는 어민이 수천명에 달하였다.

남조선출판물이 폭로하고있는바와 같이 《쌀밥이라곤 1년에 평균 3번, 고기는 20그람쯤 먹는것이 고작이고…아침밥 정도 굶는것은 일수이고 점심도 굶은 배살을 움켜쥐고 물밑으로 들어가는 해녀들의 모습》, 몇몰의 소라나 미역을 따기 위해 《자식들이 앓는것 죽는것》도 보지못하고 살아가는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은 남조선의 가난한 어민들의 생활처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있다.

어민들의 주택형편에 대해 남조선출판물은 《보수를 하지 못해 지붕에 잡초가 우거져 비가 새고있는 주민들의 집은 장마철이 닥치면 몸피할곳조차 없게 될 실정에 놓여있다》고 쓰고있다.

남조선에서 굶주림에 견디다못하여 얼마안되는 살림살이도구마저 팔아치우고 류랑의 길을 떠나는 어민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남조선도시빈민들의 참혹한 생활처지】 남조선 도시 주민구성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대부분 실업자들인 빈민들의 생활형편은 말할수 없이 참혹하다.

도시빈민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수 없으므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껌팔이, 담배팔이, 신문팔이, 구두닦기와 지게군, 리야까군 등으로 날품팔이를 하고있다. 이와 같은 날품팔이도 늘 차례지지 않아 새벽부터 온 가족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있다.

도시빈민들의 참혹한 생활처지는 그들의 의식주상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날품팔이를 하는 도시빈민가운데서 벌이가 좀 낫다는 리야까군이라야 월수입이 생계비(5명의 식구)의 15분의 1밖에 안되는 2천원정도에 불과하다.

도시빈민들이 먹는것이란 고작 시레기죽, 김치죽 등인데 이것마저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많다. 적들이 서울시 몇개동에서 526세대를 대상으로 빈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중 66.7%가 1년내내 초식만하는 원시상태의 식생활을 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도시들에서 굶주리다 못해 길가에 쓰러져 숨을 거두는 참사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실례로 서울시 한개도시에서만도 1968~1971년 4년동안에 1만 2천 400여명, 매일 8~9명이 거리에서 굶어죽었다.

도시빈민들은 쓰고 살 집이 없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적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주택부족수는 145만 6천여호에 달하고있다. 도시빈민들이 사는 집이란것은 다 무너져가는 움막, 판자집, 가마니집, 토굴집 등 《집아닌 집》들이다. 도시빈민들은 심지어 한데나 다리밑 등에서 헌 천막이나 거적을 치고 살고있는데 그 수는 무려 20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도시미화》니, 《무허가건물》이니 하면서 도시빈민들의 보잘것없는 집을 강제로 헐어버리고있다. 서울시에서만도 1968~1971년 사이에 4만 6천 700세대(32만 7천여명)를 할계획까지 세우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헐어버리는 강제철거소동을 벌렸다.

이해 6월 13일부터 단 3일동안에 걸쳐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일대에서만도 강제철거 당한 세대가 7천여세대에 달하고있는 사실은 놈들의 강제철거소동이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시빈민들은 또한 극심한 물기근으로도 고통을 겪고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시내수도관은 50년을 훨씬 지난 낡은 관들로서 전체 수도관의 40%가 터져 물이 도중에서 새없어지고있다. 그러므로 수도물의 공급량은 수요의 50%도 못되며 이것마저도 잘 려과되지 않아 불결하다. 이와 같이 불결한 물마저도 중심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얼마간 먹을수 있고 시변두리나 높은 지대에서 살고있는 빈민들의 경우에는 그런 물조차 먹지못하고있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시 서부지구의 성암동, 중동, 성신동의 4천 800여세대 2만 4천여명의 빈민들은 그 10%미만이 그것도 철도에서 쓰는 물을 받아먹을뿐 90%이상의 빈민들은 수도물구경조차 하지못하고있다.

부산시에는 2개구를 제외한 6개구에 물이 나오지 않고있으며 대전에서는 3일간에 겨우 2시간씩 물이 나오고있다. 광주시에서는 주민의 43%만이 물구경을 할뿐 57%가 수도물을 구경도 못하고있다. 빈민들가운데는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물을 동냥해다 먹는 참혹한 현상들도 있다.

혹심한 물기근에 대해 남조선출판물은 《갈증은 10년, 20년 시종여일한채 풀릴줄 모른다.》, 《…서울의 변두리는 사막처럼 되여버렸다.》고 쓰고있다.

남조선도시빈민들은 또한 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으며 전기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있다. 석탄생산량의 50%이상이 이른바 군사적수요로 돌려지므로 석탄을 사기도 힘들뿐더러 그 값이 비싸 5개월간의 겨울만 나자고 해도 련탄값이 세대당 9천여원이상이 있어야 함으로 그날의 끼니도 제대로 이어못가는 빈민들은 랭방에서 떨며지내고있다.

도시빈민들은 또한 전기불도 없는 암흑속에서 살고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빈민들이 살고있는 80여개의 주변지역에는 전기불이 전혀없으며 전기없는 세대는 2만호이상에 달하고있다. 기타 도시들의 사정은 더욱 혹심한데 원주시는 주민의 70%가 전기불없이 살고있다.

【학생 및 교원들의 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소년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남조선 청소년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가고싶은 학교에도 갈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에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는 학령아동들이 300여만명에 이르고있다. 그리고 한창 배워야할 나이에 문전걸식의 길로 떨어진 100여만의 어린 소년들이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서울시 한개도시에만도 이런 어린이들이 13만 4천여명에 달하고있다. 부산시에는 13살미만으로서 학교대신에 가혹한 로동에 시달리는 소년로동자가 3천 2백여명이나 된다.

학교에 가는 경우에도 올라만가는 《공납금》과 60여종에 이르는 《잡부금》에 짓눌리여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고 상급학교진학은 엄두도 못내고있는 형편에 있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학생들이 《국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나오자면 《공납금》만도 48만 5천 620원이 들어야 한다. 여기에다 60여종의 갖가지 《잡부금》까지 물어야 하니 그것은 실로 막대한 금액에 이르고있다.

그러므로 설사 학교에 입학한다고 하여도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학교에 다니지못하고 도중퇴학하거나 상급학교진학을 단념하지 않을수 없다.

이해 10월에 들어서만도 광주 《성남제2 국민학교》에서 무려 223명이나 학교를 그만둔 사실, 《국민학교》 졸업생의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진학을 그만둔 경상남도 통영군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청소년학생들은 박정희반역도당이 제멋대로 끌어올려 강요하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문배달, 구두닦기 등을 하거나 《혈액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피를 팔고있다.

뿐만아니라 학부형들도 자제들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있다.

4월 10일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한 녀인이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를 도저히 구할 길이 없어 머리태를 잘라 판 사실, 이보다 앞서 3월 10일 서울 룡산구에 사는 한 녀인이 딸이 학비를 물지 못하여 학교에서 쫓겨나게되자 일가족 4명과 함께 자살로 항거한 사실은 남조선학생들의 학비난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은 학비난으로 하여 배우지 못할뿐아니라 교육시설의 불비와 교원의 부족 등으로 해서도 제대로 배우지못하고있다.

우선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법정정원》이 한개 교실에 60명인데 평균 85명의 학생들이 수업하고있으며 심지어 학생이 350명인데 교실은 2개밖에 없는 학교까지 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콩나물수업》을 하고있다고 쓰고있다.

이렇게 하고도 교실이 모자라 5부제수업을 하고있으며 지어 하늘을 지붕삼아 《로천수업》까지 하고있다.

남조선교실의 50%이상이 지은지 40~50년이 지난 목조건물이다. 《국민학교》만 보아도 교실전체수의 90%가 목조건물이며 그중 43%가 무너질수 있는 위험한 건물들이다. 그러므로 장마철이면 비가 새고 물이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겨울이면 떨어진 벽과 유리없는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는데다가 난방시설까지 불비하여 《동태교실》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동상을 입는 형편이다. 또한 수업도중 교실이 무너져 불상사를 내는 일이 수없이 많다.

이해 7월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 《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교실이 무너져 깔리워 중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진것은 그 한 실례이다.

청소년학생들은 또한 교원의 절대부족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있다.

남조선 각 대학들의 교원부족수 44%, 중학교들에서 모자라는 교원수 52.6%, 고등학교는 67.8%, 《국민학교》 교원부족수는 그보다도 엄청난 수자이다.

학생들뿐만아니라 교원들의 생활처지도 형편이 없다.

남조선 《국민학교》 교원들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3분의 1도 안되는 기아임금을 받고있다. 그것마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세금과 학원모리배들의 중간착취로 말미암아 거의다 뜯기우거나 몇달씩 밀려우는 통에 교원들은 할수 없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가정교사나 신문팔이 등 부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대학교원들 가운데 62%가 다른학교에 출강하거나 외부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은 《현재 교원들의 92%가 생계비의 심한 부족으로 어려운 생활형편에 빠져있다.》고 쓰고있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날을 따라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가니 교원들은 몇푼 안되는 수입으로 하루 한두끼씩 굶는 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변변히 먹지도 못하는데다가 교수시간은 《법정교수시간》 보다 60%나 더 많고 각가지 잡무까지 부담시킴으로써 교원들속에서는 영양실조와 육체적 피로로 하여 교단에서 쓰러져 숨지는 참상들이 도처에서 빚어지고있다.

2월 15일 20여년간 교원생활을 해오던 서울시 효제 《국민학교》 한교원이 겹친 피로와 영양실조로 교단에서 쓰러져 숨진 사실은 그 한 실례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교원들의 90%이상이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있다.

교원들의 주택사정도 말이 아니다. 서울시내 교원들의 70%가 제집 한간

없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고있거나 거적집에서 살고있다. 교원직업으로는 더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된 교원들속에서는 퇴직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전해 1~8월까지에만도 7천 449명의 교원들이 퇴직하고 살길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이해에는 그수가 더욱 늘어났다.

【《이민》, 《로동력수출》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반역자들은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 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93페지)

만고역적 박정희매국도당은 괴뢰정권을 총칼로 가로챈 첫날부터 이른바 《실업구제》와 《기술습득》을 위한《이민》, 《인력수출》이라는 이름밑에 남조선주민들을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으로 1962~1971년까지에 12만여명의 남조선주민들이 미국, 일본, 서독, 브라질, 카나다, 아르헨띠나, 메히꼬, 빠라과이, 하와이, 남부윁남 등지에 팔려갔으며 수많은 청장년들이 미제침략군의 총알받이로 끌리워갔다.

박정희매국도당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은후 1972년 1월말까지에 순 《이민》의 명목밑에 노예로 팔리워간 수만도 7만 3천 500여명을 헤아리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기에 이골이 난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이해에도 수많은 남조선주민들을 외국의 탐욕적인 자본가와 농장주의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이해들어 다섯달동안에만도 2천 6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을 서독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노예로 팔아먹었으며 1974년까지는 현재 남조선의 간호원수보다 더 많은 1만 7천 550여명의 남조선녀성들을 《간호원》이라는 이름밑에 서독에 팔아넘기기로 범죄적인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

또한 브라질로동청국장이라는놈과 이미 체결한 《이민법정》을 재검토할것을 합의한데 이어 5월 한달남짓한 기간에만도 1천 460여명의 동포들을 브라질농장주들에게 팔아먹었다.

이른바 외국으로 가면 돈을 번다, 기술을 습득한다는 등 박정희괴뢰도당의 기만선전에 속히워 외국에 종신노예로 팔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이역만리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비참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 브라질, 카나다, 빠라과이 등 4개나라에만도 3만 7천 800여명이 팔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이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외부와의 일체접촉, 출입을 금지당하고있으며 《숙소에서 일터까지 왕래하는 일이외에는 자유로운 행동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일터로 나갈때는 노예주들이 사방에서 채찍을 들고》 몰고다닌다고 한다.

남미주로 끌려간 《이민》들의 처지를 놓고보더라도 그들은 찌는듯한 무더위에 진펄과 황무지를 헤매다가 독사와 짐승의 밥이 되거나 포악한 농장주놈들의 채찍아래 무참히 쓰러지고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살길이 막혀 도시로 흘러든 그들은 소제부와 접대부, 구두수리, 보따리장사, 식모살이 등이 고작이고 실업에 이리저리 몰려고 병마에 신음하다가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있다.

메히꼬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한 주민은 《낮이면 불같이 뜨거운 가시밭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일하고 밤이면 토굴에 들어와 밤을 지내며 매일 품값으로 받은 돈으로는 의복은 생각할 여지도 없고 겨우 죽이나 끓여서 연명할뿐 그 처지가 농장주인의 개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하루 12시간이상의 고된 일을 마치고나면 《손발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였다.》고 《이민》들의 노예적생활처지를 폭로하였다.

인종차별이 횡행하는 미국의 공업도시로 끌려간 남조선로동자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하여 갖은 민족적차별과 최저생계비도 못되는 기아임금을 받고있다.

서독에 광부로 끌려간 로동자들의 생활처지 역시 다른바 없다. 그들은 《기술습득》이나 《돈벌이》는 고사하고 로동조건과 침식조건의 불비로 심한 고통을 겪고있으며 지옥같은 굴속에서 생매장당하거나 불구로 되여 쫓겨나고있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서독에 광부로 끌려간 3천 516명중 1970년 8월말 현재 50%이상이 해고당하였다.

서독에 《간호원》으로 팔려간 4천여명의 남조선녀성들은 매일같이 서독자본가놈들의 잔등을 두드려주고 발목을 주물러주며 목욕탕에서 때를 벗겨주는 등 중세기적인 몸종노릇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심지어 놈들의 롱락물이 될것을 강요당하는 기막힌 처지에 빠져있다. 그들은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것은 물론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어야하며 환자가 죽으면 시체를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내며 시체까지 지켜야하는 그야말로 끔찍하고도 참을수 없는 일을 강요당하고있다.

미제의 《청부전쟁》 총알받이가 되여 남부윁남전쟁마당에 끌려간 남조선청장년들은 무시무시한 장글과 열대림속에서 개죽음을 당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온갖 허위와 기만으로 남조선인민들을 회유하고있지만 날이 갈수록 놈들의 매국배족행위의 죄상은 인민들앞에 여지없이 폭로되고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높아지고있다.

【한심한 보건실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무섭게 퍼지고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신음하고있으며 죽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보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문자그대로 《질병의 왕국》, 《병마의 소굴》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각종 질병에 걸려 신음하면서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못하고 약한첩 제대로 써보지 못한채 무참히 죽어가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보건부문에 새발의 피만도 못한 보잘것 없는 《보건예산》을 돌리고 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정부예산》의 대부분을 전쟁준비에 따르는 군사비와 파쑈폭압유지에 쓸어넣으면서도 보건부문에는 0.8%밖에 안되는 보잘것없는 《보건비》를 돌리고있으며 그것마저도 《보건행정기관유지비》, 《회계비》, 《잡부금》, 《수용비》 등 여러가지 이름을 내걸고 뜯어내고있어 사실상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는 거의 한푼도 돌려지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의료기관들은 자금과 예산의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못하고있으며 방역사업은 완전히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보건정책으로 의료기관들과 의료일군들의 부족은 말할것도 없고 그것마저도 도시에 집중되여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남조선의 읍, 면 중에서 의료기관이

나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읍, 면이 70%이상이나 된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무의읍》, 《무의면》이 1965년에 648개였다면 1966년에는 687개, 1967년도에는 793개, 1969년도에는 800개, 1970년도에 860여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실례로 전라북도의 경우 162개면중 72%에 해당하는 116개면이 무의면이며 특히 경상북도 월성군은 100%가 《무의읍》, 《무의면》이다. 지어 놈들이 이른바 《시범보건도》라고 떠들고있는 충청남도의 70여개의 섬에는 단 한명의 의사도 없어 3만여명의 주민들이 치료도 받지못하고있다. 이와 함께 12만명이 살고있는 거제도에는 단 2명의 의사가 있을뿐이다.

얼마안되는 의료기관들도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는 극히 령세한 형편에 있다. 또한 놈들의 치료비를 무한정 끌어올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있다.

남조선에서 편도수술비만도 1만원, 맹장수술비는 1만 2천원, 하루 입원비로서는 내과 800원, 외과 1천 200원을 물어야 하며 입원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1만원이상의 입원보증금을 먼저 바쳐야 한다. 이런 형편에서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걸려 신음하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못하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있다.

이해 2월 경기도 시흥군 라천면 문원구리에 사는 전모녀인이 남편의 병치료에 쓸돈이 없어 자기 눈을 팔겠다고 호소한 사실,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내기리에 사는 한 농민이 입원보증금때문에 수술을 거부당하고 병원문앞에서 숨진 사실은 그 한 실례들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 보건정책으로 남조선에 있다는 얼마안되는 의료기관들과 시설들이라는것이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인민들을 략탈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리용되고있고 보건사업에 대한 놈들의 범죄적무관심성으로 예방의학적치료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결핵, 지스토마 등의 만성질환과 코레라, 장티브스 등 악질전염병들이 상시적으로 만연되여 인민들의 생명을 무시로 빼앗아가고있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는 2천 200여만명의 결핵감염환자가 있으며 그중에서 당장 긴급치료를 요하는 결핵환자수만도 무려 300여만명이나 된다. 그리고 해마다 새로 생겨나고있는 결핵환자만도 13만명이상에 달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방송도 남조선은 결핵전염률이나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개탄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훨씬 넘는 830만명이상에 달하는 폐및 간 지스토마환자와 120여만명의 성병환자, 300만이상의 정신병환자, 30여만명의 문둥병환자, 10만여명의 암환자, 주민의 95%를 차지하는 각종 기생충병환자들이 있으며 특히 암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그리하여 해마다 결핵으로 인해서만도 10만명, 암으로 인해서도 5만명이 숨져가고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만성질병과 함께 여러가지 무서운 전염병이 해마다 걷잡을수 없이 퍼져 수많은 인민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있다.

이해 장티브스환자만도 례년에 비해 2~3배나 더 늘어났다. 경기도에서는 5월말현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이상에 달하는 장티브스환자가 발생하였고 충청남도의 사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8월초순현재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만도 1천여명의 장티브스환자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남조선출판물들까지도 《장티브스와 뇌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이 아니다할 정도로 전염병은 해마다 발생하고있다.…그만하면 전염병천국이란 별명도 얻을만 하다.》고 쓰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심화되는 사회적혼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은 참을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부패와 사회적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7페지)

【부정부패】 남조선에서 부정부패는 하나의 사회적고질로 되여있다. 박정희도당은 괴뢰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그 무슨 《개혁》이나 할듯이 고아대면서 《부정부패일소》를 되뇌여왔으나 기실 그놈자신이 력대괴뢰를 찜쪄먹을 정도로 갖은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의 부정부패행위는 직접 공개적으로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여러가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먹는 은밀한 방법으로도 감행되고있다.

례컨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은행 《규정》까지 짓밟고 남조선의 5개 재벌에게만 600억원의 《특혜융자》와 외국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주고 그 대가로 《관본재벌》을 비롯한 매판자본가놈들로부터 도합 1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긁어냈다. 놈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1963년부터 1968년사이에 걷어들인 돈만해도 무려 100억원이나 된다.

박정희역도가 부정부패행위로 얼마나 개인재산을 긁어모았는가 하는것은 제놈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에 돈을 물쓰듯이 뿌리는데서뿐만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리랑하우스》를 비롯하여 외국에 기업체까지 차려놓고 리권을 획득하고있으며 외국은행에 수많은 돈을 예금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해에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대통령 《선거관리비》만도 1천 수백만원, 《선거》 자금으로 무려 300억원을 탕진하였다. 놈들은 《지지표》를 긁어 모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1만원씩의 돈을 주는 등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인민들을 기만하며 금력과 강권을 동원하여 《당선》을 날조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물쓰듯 뿌리는 막대한 《정치자금》과 부화방탕한 생활에 써먹고있는 돈이 권력으로 《국고금》을 털어내거나 인민들을 착취략탈한것임은 다아는 사실이다.

박정희도당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해 서울에서만도 1명당 세금부담액을 1969년의 두배, 1961년도의 23배나 넘는 4천 500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른바 《3선개헌국민투표》 놀음때에는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당초예상계획의 2배가 넘는 680여억원의 지폐를 람발하여 무려 200여억원의 자금을 썼던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부정부패행위는 그 규모와 수법에 있어서나 포괄범위와 내용에 있어서나 력대괴뢰도당이 저지른것에 비할바가 안된다.

남조선정계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부패의 정도가 아주 광범》하며 《극도에 달했으며 이때문에 사회에는 부패풍조가 만연》하고있다고 하면서 박정희도당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은 지난 10년간은 《부정부패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부패상은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계인사가 폭로한데 의하면 오늘 남조선에서 2억원이상 350억원까지의 방대한 금액을 부정축재한자가 무려 3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박정희도당은 인민들로부터 략탈한

수많은 자금을 전쟁준비와 함께 제놈들의 사리사욕과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한동안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정녀인피살사건》은 놈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의 한 측면을 잘보여주고있다.

정녀인은 서울의 어느 초급대학에 다니던 도중 박정희역적놈을 비롯한 《청와대의 고위층》 몇놈만이 드나드는 《최고급비밀료정》에 끌려가 그놈들의 롱락물로 전락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녀인의 자가용차에 《청와대》 소속차들만이 다는 번호까지 달아주고 롱락해오다가 제놈들의 부정부패와 부화방탕한 생활이 세상에 드러날것이 두려워 교활한 수법으로 정녀인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에서 여론이 환기되자 박정희괴뢰도당은 《청와대 고위층비서진》을 시켜 그 녀인의 사건을 다루고있던 《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을 잘못 다루면 줄초상이 난다.》고 위협하였다.

이것은 정녀인의 학살사건이 제놈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이 폭로될가봐 두려워 조작한것이라는것을 바로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박정희도당의 이러한 부정부패행위에 뒤를 이어 반동관료배들 역시 사리사욕을 위하여 온갖 부정행위를 일삼고있다.

놈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괴뢰고급공무원수만 하여도 1969년에는 1961년에 비하여 근 3배나 되는 9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에서 부정부패가 《일소》 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각종범죄】 미, 일반동들과 박정희도당이 부식시키는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왜풍의 후과는 남조선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있다. 그것은 썩은 사회제도의 산물의 하나인 각종범죄의 격증에서도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적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1960년도에 범죄건수가 32만 6천건이였다면 1969년에 와서는 무려 90만 5천여건으로 격증하였다. 1970년에는 하루밤사이에만도 살인, 강도, 절도, 방화, 강간 등 기타 각종 범죄가 3천 748건 발생하였다.

이해에는 청소년범죄만도 1967년도에 비하여 131%로 증가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폭력단》을 비롯한 이른바 조직된 범죄단이 많아지고 그 범죄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깡패》가 활개치며 《조직범죄단》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여러가지 명칭을 붙인 《폭력단》을 직접 조종하고 비호하면서 인민탄압에 내몰거나 경찰과 합작시켜 진보적력량과 애국자들을 테로, 암살, 학살하는데 리용하고있다. 이로말미암아 인민들은 항시 불안과 공포속에서 재물을 략탈당하며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출판물까지도 《대낮에는 칼부림이나 주먹세례가 일어나고… 밤거리는 그야말로 깡패들의 세상이고 그들의 직할국가가 되여 버리는데까지》에 이르고있으며 범죄의 경향성도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 조직화, 기업화되고있다.》고 폭로하고있다.

남조선을 돌아본 외국의 한 기자는 남조선을 가리켜 《20세기의 복마전》(악마가 숨어있거나 비밀리에 나쁜짓을 꾸며내는 무리들이 모인 소굴), 《범죄의 무대》라고까지 폭로규탄하고있다.

【각종사고】 남조선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소동과 파쑈통치의 후과로 빚어지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급격한 증가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1971년에 교통사고만도 4만 7천 60건이나 발생하였다. 이것은 매일 평균 129건, 1970년에 비하여 24%, 1969년에 비해서는 무려 750%로 늘어난것으로 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12월 16일 현재 2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려 1만 8천여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사고건수는 136.2%, 피해자수에서는 172.6%로 각각 는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남조선통신들까지도 이해 남조선에서는 《교통사고의 해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동, 서, 남해의 바다우에서도 남조선연해에 밀고들어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적선들에 부딪쳐 배들이 바다속에 가라앉는 등의 해상사고가 11월까지에 850여건이나 일어났다.

화재사고는 10월말까지에만도 1천 120건에 달하였다. 이해 12월 25일 서울시 충무로에 있는 한 《호텔》에 불이 일어나 200여명이 생죽음을 당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반인민적시책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년중행사처럼 되풀이되고있는 여러차례의 큰물난리로 인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무려 100억 5천 270여만원, 즉 남조선에서 40여년간의 년평균 풍수해피해액 50여억원보다 50억 5천만원이 더많은 막대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8월 10일 현재 여러차례의 큰 물난리로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492명, 리재민은 무려 11만 2천 700여명이나 발생하였다.

1월 4일～7일간에 동해안과 남해안일대를 휩쓴 해일과 태풍으로 하여 수백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였으며 리재민만도 4천 600여명, 파손 및 침몰된 선박들은 1천 400척, 그 피해액은 2억 2천 400여만원에 달하고있다.

이해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말미암은 폭발물사고도 더욱 늘었다.

4월 12일 경상북도 영천군 태창면에 사는 16살나는 김경식학생과 15살의 정주열학생이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군의 금초면에 있는 최악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미제침략군 야수놈들의 로케트포탄에 목숨을 빼앗겼다. 12월 18일에는 남조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에서 박춘영소년을 비롯한 4명의 어린이들이 미제침략군 야수놈들의 로케트포탄에 의하여 참혹하게 목숨을 잃고 4명의 어린이들이 중상을 입은 참사가 빚어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구산리에서도 3명의 어린이들이 미제야수놈들이 묻어놓은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그자리에서 숨지는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이 밖에 가스사고, 식중독과 익사사고 등 갖가지 사고가 계속 늘어났다.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의 유린말살

미제와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남조선에서는 민족교육이 짓밟히고 학원은 군사화, 파쑈화, 모리화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는 여지없이 말살되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왜풍이 판을 치고있다.

【식민지노예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나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야수적인 탄압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116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다른 모든것과 마찬가지로 남조선교육도 제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실시하고있는 식민지노예교육은 바로 미제가 전조선을 지배하고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에 복종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제놈들의 이 범죄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해에 학원에 대한 군사교육체제를 강화하고 군사교육내용과 방법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범죄적인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우선 남조선 학원에 대한 군사교육체제를 더욱 파쑈적으로 개편하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 종전에 일부 대학들에서 실시해오던 《학도군사훈련단》을 해체하고 이해에 들어와서는 남조선의 전체 대학들은 말할것없고 지어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의 남녀학생들을 다 망라시키는 《교련교육》체제를 수립하고 학생들을 군사훈련에 강제로 내몰고있다.

또한 놈들은 종전에 괴뢰국방부가 전담하고 강요해오던 남조선대학들의 《학도군사훈련》을 괴뢰문교부와 괴뢰국방부가 같이 담당하도록 하고 여기에 각 대학 학장이 책임지고 군사훈련을 강요하도록함으로써 학원을 군사교육체제에로 더욱 철저히 얽매여놓았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이른바 《교련교육운영협의회》라는 반동적기구까지 조작해놓고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토의하는 한편 그를 철저히 통제감독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각 학교들의 《군사교관》들을 악질적인 괴뢰군현역장교들로 교체하여 군사교육을 직접 담당케하였다.

이와함께 놈들은 제놈들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의 요구에 맞게 군사훈련내용을 정비보강하고 일반과목시간을 줄이면서 군사훈련시간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대학들에서의 군사훈련시간만도 종전에 비해 2배나 더 늘이였으며 일반군사교육에 치우쳤던 군사훈련도 《실전훈련》에 더욱 접근시키면서 사격훈련과 화학무기, 세균무기, 원자무기 등에 대한 훈련을 일층 강화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학교들은 문자그대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정책수행을 위한 화약내풍기는 군사련병장으로 전변되고있으며 학생들은 배움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 치욕스러운 괴뢰군에 끌려나가 자기의 부모형제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다.

놈들은 학원에 대한 군사화책동과 함께 학생들에게 반동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피눈이되여 날뛰면서 악명높은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공》 교육에서 일관하게 노리는 중요한 목적은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의 정치적각성과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켜 제놈들의 온순한 식민지노예로 만드는 한편 제놈들의 침략과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려는데있다.

원쑤들은 《반공》 교육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방함으로써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지못하게 하고 그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동경의 정을 막으려고 책동하고있다.

추악한 매국배족의 무리들인 박정희괴뢰악당은 남조선학교들에서 《반공》교육을 강화하는것이 무슨 《교육지침》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반공과목》을 학교 《과정안》에 선차적으로 박아넣고있을뿐만아니라 지어 대학들에서는 《반공에 관한 특별강좌》까지 설치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학생들에게 《반공》, 《승미》 사상을 고취할것을 주요 목적으로하는 이른바 《통일교육시행방안》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반공교육》6개 방안》이란것을 꾸며내고 이해부터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의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교들에서 《반공과목》을 필수적과목으로 철저히 내세울것을 다시 밝히면서 《반공과목》 시간을 종전보다 2배나 더 늘이였으며 이 《과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반공교육담당교원》이라는것까지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 박아넣고있다.

미제와 그의 더러운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과목교재출판은 극력 적게 하면서도 《반공》 사상을 설교하는 《사회학》 과목과 《반공도덕생활》 등 과목들의 교재들은 대량적으로 출판배포하고있다.

원쑤들은 이와같이 범죄적인 《반공교육》 강화에 미쳐날뛰는한편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에 광분함으로써 청년학생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파쑈민주화기세를 억눌러보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놈들은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이 전개될때마다 파쑈적인 강제 《휴교령》을 내리는 등 탄압에 미쳐 날뛰였다.

이해에도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제놈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대중적투쟁이 더욱 거세게 전개되자 청년학생들에 대한 야수적탄압에 광분하는 한편 파쑈적 《휴교령》을 내리는 포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5월 27일 괴뢰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바쁘게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등 4개 단과대학에 류례드문 《휴업령》을 내리였으며 이어 6월초에는 5개 단과대학에 무기한 《휴강령》을 내리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같이 남조선학생들에 대한 로골적인 파쑈적폭압과 함께 제놈들의 악질졸개놈들과 특무놈들을 남조선대학들에 수없이 박아넣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며 탄압하는 횡포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학생들에 대한 이른바 정보사찰을 강화하는 한편 진보적인 학생조직들을 탄압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학원들에 대한 군사화, 파쑈화에 급급하는 한편 학원을 침략적인 전쟁준비의 군사비를 짜내기 위한 수탈의 마당으로, 제놈들의 더러운 배속을 채우기 위한 모리장으로 만들어놓고 학생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놈들은 남조선각급학교들의 《입학금》을 종전의 그것보다 25~100%, 《수업료》는 20~50%나 더 끌어올렸다.

이리하여 남조선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매학생당 놈들에게 빼앗기는 돈만도 무려 10만여원을 헤아리고있다.

이외에도 놈들은 수십종의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들씌워 많은 돈을 강다짐으로 빼앗아내고있다. 지어 놈들은 《학생육성회》라는 수탈기구까지 남조선학교들에 설치하여 학생들에 대한 수탈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도 신랄히 규탄하면서 《학교를 돈타령을 늘어놓기 위한 근거지로 여기는지 교육을 위주로하는 배움의 터전으로 여기는지 분간을 못할지경》이라고 폭로하였다.

놈들의 하원수탈행위로 말미암아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길이 막히고있는 남조선에서 또다시 수많은 청소년들이 무지와 몽매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 모든것은 바로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이 빚어낸 악독한 후과인것이다.

【짓밟힌 민족문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지)

미일반동들과 그 주구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무참히 짓밟히고 국도의 부패와 타락과 범죄가 모든 령역에 휩쓸고있으며 남조선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몰아넣었을뿐만아니라 민족문화와 고유한 미풍량속을 여지없이 짓밟고 온갖 패륜과 패덕만이 휩쓰는 범죄의 소굴로 암흑의 천지로 전락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테로통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저들의 중요한 침략정책의 하나로 삼고있다.

악명높은 《주한미공보원》이라는 사상문화적침략기구를 서울에 두고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끊임없이 강화해온 미제침략자들은 이해도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반동적인 《문화》와 더러운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기에 날뛰였다.

미제는 남조선의 일반과학도서의 출판은 억제하면서 저속하고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서적》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는 한편 《깽》, 《폭력》, 색정 등으로 일관된 썩어빠진 영화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퍼뜨리였다.

놈들이 퍼뜨린 이러한 출판물들과 영화들의 영향으로 오늘 남조선에는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인 황금만능과 인간증오, 살인과 략탈, 애수와 절망, 패륜패덕이 만연되고있다.

미제는 또한 썩어빠진 《양키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인사교류》이니, 《문화교류》 이니 하는 따위의 간판밑에 《의사》, 《교원》 등 이른바 《평화》의 너울을 뒤집어씌운 수많은 간첩, 특무놈들과 침략의 머슴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른바 《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하원을 비롯한 각 기관들과 지역들에 도사리고있는 이 침략의 머슴군들과 특무놈들은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의 현지지시를 받으면서 표면상 《교원》, 《의사》 등으로 가장하고 양키문화 침투와 정탐활동을 하고있다. 놈들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 《숭미》, 《반공》 사상을 불어넣고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며 썩어빠진 《양키식생활양식》과 패륜패덕을 퍼뜨리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부패타락케 하는 한편 정탐, 정보수집 등 비밀활동을 일삼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박정희매국도당을 길잡이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사상문화적침투의 마수를 더욱 로골적으로 뻗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략에서 노리는 중요한 목적은 남조선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힌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친일사대주의 사상과 《반공》사상을 류포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의식과 감정을 마비시켜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재침책동을 손쉽게 하려는데있다.

놈들은 이 흉악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해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저들의 군국주의사상을 미화분식한 썩어빠진 부르죠아반동문화와 왜색, 왜풍을 범람시키기에 미쳐날뛰였다.

이른바 《친선》과 《협조》의 미명밑에 남조선에 이미 50여개에 달하는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친일군국주의사상을 끊임없이 침투시켜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해 9월에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주한일본공보관》이라는 사상문화침략기구까지 서울에 설치하고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지휘감독케하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구슬려 《사절단》이요 《시찰단》이요 《견학단》이요 하는 명목으로 이해에도 수만명에 이르는 침략의 척후병들과 저들의 앞잡이들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친일분자들을 규합하고 이들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친일 《반공》 사상을 불어넣기에 급급하였다.

지난날 해외침략에서 종교를 침략의 중요수단으로 리용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남조선에 《창가학회》와 《천리교》, 《일본불교》 등의 침략적인 반동종교를 침투시켜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지와 몽매, 친일사상을 설교하려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는 알려진것만하여도 《천리교》에 망라된 《신도》는 40여만, 《창가학회》에는 무려 60여만명의 《신자》들이 망라되여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여러가지 반동출판물을 통하여 제놈들의 죄악에 찬 침략의 력사를 외곡하고 미화하면서 발광적으로 군국주의사상을 퍼뜨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번역출판되고있는 일본반동출판물들중에는 지어 피묻은 칼을 물고 조선침략의 첫길에 올랐던 간악한 일본 《사무라이》 두목들을 형상한 전형적인 군국주의소설까지 나돌고있다.

그러면서 미일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을 저들의 순수한 노예로 만들며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 남조선문학예술을 또한 리용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상전의 비위에 맞추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한다는 구실밑에 구미반동문학을 이른바 한국화하여 반동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내며 조선인민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민족문화유산들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의 문예작품들은 미일반동들의 퇴폐적이고 말세기적인것들을 번역출판하거나 모방한것으로서 그 태반이 색정과 음탕, 절망과 비애 등의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남조선의 음악역시 퇴폐적이고 저속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우아한 무용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미치광이 《춤》들이 추어지고있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거리와 시장들에 줄지어 늘어선 음식점들에서는 대낮에도 썩어빠진 《양곡》과 《왜곡》이 흘러나오는 등 구역질나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영화예술도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을 고취하는 도구로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해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미국 깽영화나 일본《사무라이》영화들은 남조선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다. 《깽》 영화를 모방하여 살인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있는 일이 날을 따라 늘어가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는 잡탕어로 변해가고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까지 외국식으로 변해가는 형편에 있다.

이와같이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더욱 로골화된 사상문화적 침략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과 민족문화는 여지없이 말살되고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양풍, 왜풍이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판을 치고있다.

재일조선공민

1971년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과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새해축전 및 총련 제9차전체대회 축하문에 제시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기 앞에 나선 애국적인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자랑찬 업적을 이룩하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으며 자기 조국을 더욱 튼튼히 꾸려놓았다.

또한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공화국공민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일본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였으며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을 더욱 높이였다.

이해 총련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그 권위와 영향력이 일층 높아졌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자기의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심화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잘 구현하여 각계각층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묶어세워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층 더 심화하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총련은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들을 대중적운동으로 보다 정중하게 꾸리였으며 1천 9백개의 강연구와 성인교육기관들을 잘 운영하였다. 그리고 집중 및 단기강습 등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교양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로작 및 혁명전통에 관한 서적출판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조선로동당제5차대회보고와 총련제9차전체대회축하문의 교시를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매시기 교시들에 대한 해설침투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였다.

5차당대회보고 해설을 위한 총련 초급일군들의 강습에만도 3만 5천여명의 분회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수령님의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 해설모임에는 10여만명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이해초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 충성을 다하자.》라는 구호밑에 비등된 열의속에서 5차당대회보고를 백번읽고 통달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2시간 자체학습을 어김없이 진행하는 등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총련 효고현 니시노미야지부 한분회장이 5차당대회보고를 100번읽고 거기에 담겨진 심오하고도 위대한 사상을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사실이라든가 니시고베지부 이께다분회의 한 동포가 당대회보고를 수십번 읽고 몇번이나 옮겨쓰며 통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사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총련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지부 가네히라 2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은 하루의 일과를 수령님께서 하신 당 제5차대회보고학습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보고를 백번읽고 전문을 옮겨쓰며 그를 통달하는것과 함께 조선로동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10대정강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결부하여 집체토론을 활발히 벌리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하였다. 총련훅가이도 도가찌지부 철북분회에서는 동포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사는 실정을 고려하여 여러곳에 학습장소를 꾸려놓고 보고해설을 록음하여가지고 분회강연도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2인조, 3인조를 무어 매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해설강의도 진행하였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로작학습은 총련의 지도밑에 단일단체, 사업체들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는 조청원들과 소년단원들속에서 당대회보고학습과 함께 수령님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소년단창립 25돐에 즈음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을 통달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에서는 녀맹원들속에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에 대한 연구학습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김일성원수님의 불후의 로작, 교시학습과 함께 동포들을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를 철저히 옹호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정중하게 꾸려진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반세기에 걸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100번읽기와 통달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 활발히 벌리였다. 그리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

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등을 자체의 실정과 준비정도에 맞게 집체학습과 개별학습, 연구발표모임, 토론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련 도꾜도 다이또지부 우에노 2분회에서는 주 2일간의 당대회보고학습날외에 화요일을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학습날로 정하고 이 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을 집체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리고 총련 아오모리현 남부지부 하찌노헤동분회에서는 주 1차씩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감상모임을 어김없이 진행하였다.

총련은 또한 동포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로 하여금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적자부심과 민족자주의식을 더욱 높여주며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그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구성상 변화와 관련하여 젊은 동포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일본 각지에서 강연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영주권신청》과 귀화국적을 강요당한 동포들과 상공인들 1만 2천여명을 망라시켜 그들로 하여금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공화국의 기치따라 나아가도록 교양한것을 비롯하여 조성된 정세와 재일동포들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였다.

총련은 조국상품전람회관람사업, 두번에 걸친 조국방문동포들의 귀환보고회, 귀국선환영사업, 조국체육선수단 환영, 환송사업, 강연회, 가무단공연, 조국영화상연사업, 조국방송청취모임 등을 통하여 수많은 동포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총련은 3월말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품전람회에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망라시켜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영광과 행복, 날로 부강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민족적자랑과 영예를 더욱 높여주었다. 또한 연 80만 가까운 동포들에게 조국영화와 중앙예술단, 지방가무단의 공연을 보여주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교양하였다. 이와 함께 성인학교 청년학교를 활발히 운영하여 동포들에게 우리 말을 더 잘 가르쳐주는 한편 조국에서 보내는 방송듣기운동을 힘차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조국을 더 잘 알고 총련애국사업에 헌신하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의 이와 같은 정력적인 노력에 의하여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는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충성심, 그이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의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혁명전통계승자로서의 자부심이 날로 높아갔으며 영원히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몸과 마음 다 바치겠다는 지향과 다짐이 더욱 높아갔다.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총련은 특히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의 파괴암해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때에 머리를 추켜들고 공공연히 도전하여나선 극소수 종파분자들과 변절자들을 반대하는 원칙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조직을 더욱 튼튼히 다지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의장동지를 중심으로 대렬의 통일단결을 더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총련은 이해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일군들의 원칙적단결을 강화하고 기층조직인 분회를 잘 꾸리여 총련조직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썼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오래동안 조직내부에 잠입하였던 불순분자들을 대렬안에서 숙청하고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킨 결과 대렬을 정비강화하고 조직을 튼튼히 다지였다.

총련은 조직안에 잠입하여 온갖 파괴행위를 다하여 온 김영근, 하수도, 김시형, 박원준 등 미일반동들의 앞잡이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이자들을 대렬에서 숙청해버렸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자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간고분투하여 이루어놓은 귀중한 성과들을 비방중상하였을뿐만아니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고있는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총련간부들을 터무니없이 헐뜯으려하였다.

총련중앙을 허물고 일군들과 동포들 사이에 쐐기를 박으며 나아가서 저들의 탐위욕을 채워보려고 음흉한 파괴행위를 다해온 종파분자들은 사실을 외곡하고 거짓을 꾸며대여 괴문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에 돌리는 등 온갖 비렬한 행동을 감행하였던것이다.

총련은 종파분자들의 이와같은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그자들을 대렬에서 제거하는 한편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재일동포들을 조국통일을 비롯한 제반 애국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조직정치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진행하였다.

총련은 제9차전체대회와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각급기관 및 산하단체대회사업을 통하여 각 현본부와 산하 단체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각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이기 위해 힘썼다.

그리하여 기층조직인 분회조직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늘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총련분회위원회는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보다 준비된 열성동포들로 꾸려졌으며 분회일군들과 열성동포들중 한가지이상의 분공을 맡아 발동된 수는 총련분회열성자 제10차대회전까지에만도 (10월초)《120일간혁신운동》 때의 2배에 달하였으며 젊은 분회일군수의 비률은 20%로부터 35%로 늘어났다.

총련분회총회사업은 지난시기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열성동포들을 교양단련하는 조직정치사업을 안받침함으로써 지난시기보다 1.5배나 더 많은 동포들의 참가밑에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들끓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이 조국선수단과 귀국선 환영, 환송사업, 조직실습 등에 연 4만 수천명의 열성동포들을 망라하였으며 각 현본부에서 조직한 학습을 통하여 연 10만 2천여명의 열성동포들을 교양단련한것은 총련사업에서 거둔 귀중한 성과로 된다.

이해 또한 조청, 녀맹, 상공회 등 각 단체들이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간

부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각 단체들이 자기 산하 동포들을 더욱 책임적으로 장악교양하여 나가게 되였다.

또한 총련은 아래기관과 일군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총련애국파업수행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그 어느때보다 개선강화하였다.

일군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분회에 내려가 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을 도와주었다.

아이찌지방조직에서 진행한 조직실습사업 과정에서 벌린 1만 수천명에 달하는 열성동포들에 대한 교양사업, 오사까부 이꾸노서지부 쯔루하시중1분회에 대한 시범총회사업, 산따마조직에 대한 료해방조사업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적극 일반화한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총련은 또한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많은 힘을 돌렸으며 이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간부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5호담당제를 비롯하여 2인조, 3인조를 무어 전호방문운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개별교양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각계각층 동포들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을 강연회, 성인학교 등 각종 교양망에 망라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교양하였다.

특히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경축하는 사업,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100억여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월간사업, 두번에 걸친 조국체육선수단 환영, 환송사업, 김일성원수님께서 8월 6일에 하신 연설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남북적십자회담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집회들과 사업들을 통하여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면서 각계각층의 더 많은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받아들였다.

총련 아이찌현본부관하의 모든 지부와 분회들에서는 내외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공화국공민된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전동포적으로 강력히 벌림으로써 종래의 2~3배나 더 많은《민단》영향하의 동포들과 미조직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묶어세웠다.

이와같은 성과는 총련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지부 나지마분회, 옹가지부 요시다분회, 야하라지부 오리오분회 등 수많은 분회들과 지부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와같이 총련은 각계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리여 교육망밖에 있던 수많은 미포착동포들을 찾아내고 미조직동포들을 총련대렬에 인입하여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가일층 확대하였으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켰다.

총련은 전체 재일동포들을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애국자로 교양하는 대중적학교이며 총련의 애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인 모범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총련의 모범창조운동은 1970년의 3800여개 단위로부터 이해에 4200여개 단위로 확대되였으며 새로 4개의 모범지부를 비롯한 300여개의 모범집단, 2중모범집단들을 창조하였다. 이리하여 총련의 모범분회는 전체 분회수의 56.1%의 높은 수준에 달하였으며 모범분회, 모범집단수는 2608개에 달하게 되였다.

총련은 오사까, 교도, 후꾸이, 구마모도, 미에현, 본부회관과 지부, 분회 사무소 등 근 200개의 회관을 일떠세움으로써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위력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총련이 일군들과 동포대중에 대한 조직자 교양자로서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결과 오늘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자기의 모든 조직들에 위대한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우고있는 강력하고도 권위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장성 발전하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지키면서 광범한 동포대중속에서 공화국공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교육의 발전과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조국에로의 귀국과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해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공화국공민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사업과 우리 말과 우리 글쓰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총련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큰 성과는 공화국공민권을 굳건히 지킨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한짝이 되여 악랄하게 벌려온 괴뢰《한국국적》과 《영주권신청》강요놀음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공화국공민권을 지키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44개 도, 도, 부, 현 183개시, 54개정, 1개촌에서 2천 248세대 4천 811명의 동포들이 치욕스러운 괴뢰국적을 차던지고 영예로운 공화국국적을 되찾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혹가이도에 사는 한 동포가 옹근 5년동안에 걸쳐 무려 500여차례나 일본반동당국에 찾아가 투쟁한결과 끝내 괴뢰국적을 지워버리고 공화국국적을 쟁취한 사실, 하루동안에만 하여도 야마구찌에서 800여명, 오사까에서 500여명, 효고에서 280여명 등 일본각지에서 수천명의 각계층동포들이《영주권신청》을 취소한 사실은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얼마나 완강하게 투쟁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총련은 항의요청투쟁, 서명운동,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전동포적인 투쟁을 완강히 벌려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사회활동과 민족적권리를 억압말살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파쑈적《출입국관리법안》립법화책동을 세번째로 저지시켰으며 악명높은《외국인학교법안》조작책동도 네번째로 파탄시켰다.

총련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사업에서 거둔 또하나의 성과는 내외반동들의 탄압책동으로 3년반이나 중단되였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이 5월에 다시 열리게 된것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귀국사업재개후 7차에 걸쳐 1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300여명의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온 것을 포함하여 162차에 걸쳐 근 9만여 명의 동포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이해에도 재일동포들은 오매에도 그리운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 1월과 9월 두번에 걸쳐 27명의 동포들이 조국에 다녀갈수 있게 되였으며 마음속으로 흠모하여마지않던 김일성원수님을 직접 만나 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지닐수 있게 되였다.

이해 또한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 기업권을 극력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내외반동들은 재일조선고급학교가 있는곳마다에 《조선고급학교를 때려부시는 회》를 조직하고 《조선고급학교를 때려부시자》,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이며 집단적폭행사건을 끊임없이 조작하였는바 그것은 이해 상반년기간에만도 40여건에 달하였고 10월 18~22일까지의 5일간에 도꾜에서만도 12건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대중적모국어신문인 《조선신보》의 발행부수와 배포정형, 구월서방의 사업내용을 알아내려고 공공연히 책동하는 등 그들의 언론출판활동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날뛰였으며 아무 까닭없이 재일조선공민들을 야수적인 수법으로 살상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기본인권을 횡포하게 짓밟는 이와같은 흉악한 범죄행위와 파쑈적폭압만행을 반대하여 그때마다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일본반동정부의 도꾜국세국당국은 《법인세》의 《탈세》 니뭐니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120여명의 무장경관과 세무국놈들을 동원하여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리부회장이 경영하고있는 공장과 사무소는 말할것도 없고 지어는 그의 주택까지 습격하는 폭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상공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당국의 만행은 9월초까지에만도 무려 700여건에 달하였다.

총련은 동포상공인들에 대한 이와같은 박해를 반대배격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그들이 기업활동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주었다. 또한 신용조합사업을 강화하여 수만건에 달하는 《세금 신고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며 조은시가신용조합을 비롯하여 모든 신용조합들에서 상공인들에게 많은 융자를 해주고 자금알선을 해주어 그들의 기업권을 적극 옹호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33개 도, 도, 부, 현과 271개시, 547개 정과 36개 촌에서 재일동포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포들의 생활권을 극력 옹호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상부상조운동의 결실인 신용조합은 지난해보다 4백 22억 5천백만원이나 더 많은 1천 585억원의 예금액과 34개의 조합과 116개의 점포, 12만 8천여명의 조합원을 망라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주적인 저축융자기관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총련이 이해에 달성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동포자녀들에 대한 민주주의민족교육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지킨것이다.

총련은 수령님의 혁명적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교원들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보장하며 민족교육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학생대렬을 계속 확대하며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동포들을 조직동원하였다.

2월에 진행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00억 2천여만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월간》사업, 뒤이어 진행된 학생들을 조선학교에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제5차통일행동, 10월에 진행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기념월간사업》 그리고 8월에 있은 제6차교육방법연구대회와 그에 이어 진행된 각종 교육일군강습회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총련은 학생들의 교육교양사업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였으며 교육일군들의 과학리론수준을 더 높이였다.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과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을 보다 정중히 꾸리고 그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케 하였다.

또한 학교내 조청, 소년단을 튼튼히 꾸리고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며 모범학급, 모범창조운동을 비롯하여 좋은 일하기운동, 사회실천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교양단련하였다.

총련은 《김일성원수혁명활동》 연구수업, 재일본 조선교육일군 제6차교육방법연구회, 간부교육일군단기강습회(5월초) 등 각 현본부 및 학과별 교육방법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목별강습과 방식상학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였으며 교육일군들을 통신교육을 비롯한 재교육망에 망라시켜 그들의 과학리론수준을 한층 높이였다.

이해에 또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학생대렬을 더욱 늘이였으며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리였다.

총련은 더욱더 악랄해진 내외반동들의 《외국인학교법》과 《전수학교법》 조작음모를 분쇄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파괴와해책동으로부터 조선학교를 튼튼히 지켜왔다.

이해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 설치인가와 교육회법인인가, 히로시마조선제2초급학교설치인가를 받아내였다. 그리하여 159개학교중 150개학교가 설치인가를, 28개현중 27개현이 교육회법인인가를 쟁취함으로써 민족교육의 합법성을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이와 함께 4월에 후꾸시마현에 초중급학교가 신설되고 가와사끼조선초급학교에 중급부가 병설되는 등 정규적인 조선학교수가 159개로 늘어남으로써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는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총련일군들과 교육일군들은 학생들을 조선학교에 받아들이는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하고 《민단》 산하동포들과 《영주권신청》을 한 동포들까지 꾸준히 교양하여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보내도록 하였으며 오후야간학교와 하기학교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운영하여 일본학교에 다니는 조선학생들의 교양사업도 강화하였다.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 월간사업기간에만도 1970년 1년동안에 조선학교에 받아들인 학생수보다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임으로써 학생대렬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실례로 총련 지바현 지바지부관하에서는 이 월간사업기간에 지난해의 3.5배나 되는 학생들을 조선학교에 받아들이였다. 이와같은 성과는 총련도꾜도 미나또지부, 교또부 우꾜지부와 후시미지부, 사가현 사가지부, 시가현 고가지부와 다까시마지부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총련은 10월까지에만도 도꾜조선중고급학교의 현대적인 조선문화회관을 비롯하여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 하마마쯔조선초중급학교, 히가시오사까조선제2초급학교와 제3초급학교, 시즈오

까조선초중급학교기숙사 및 강당 등, 13개의 새교사를 방대한 예산으로 일떠세워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물질적담보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총련은 김일성원수님의 언어사상을 높이 받들고 새세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쓰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또한 광범히 벌리였다.

고베조선중고급학교, 군마조선초중급학교를 비롯하여 총련의 각급학교들에서는 국어담당교원들을 잘 꾸리고 국어지도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높여 학생들의 국어학습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직관교육, 록음기를 통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글짓기 운동, 웅변대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말과 글을 똑똑히 쓰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평양문화어를 쓰도록 교양하였다.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쓰기 위한 운동은 성인학교, 청년학교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졌다.

총련각급기관과 분회 및 조청, 녀맹단체들은 《한분회, 한성인학교, 한조청반, 한청년학교꾸리기 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서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새로운 수강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동포들과 청년들속에서 우리 말, 우리 글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북은 홋가이도로부터 남은 규슈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이 사는곳마다에 159개 학교나 되는 아담한 학교들을 세워 4만여명의 재일청소년학생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아들딸로, 총련 애국사업과 조국통일위업의 역군들로 믿음직하게 키우고있다.

한 총련의 진지한 노력으로 수많은 《민단》 산하 동포들은 《김일성수상님은 천하에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은 멀지 않아 통일될것이다》, 《남북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8개 항목의 방안은 참으로 현실적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방안이며 이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갈 유일무이한 길이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더욱 넓혀나가야 하며 모든 우리 겨레들이 바라마지않는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실머리》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민단》 산하 《재일한국학생동맹》 동포학생들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간의 예비회담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민단》 산하 재일조선인 학생단체가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마구 체포하고 살인적인 재판놀음까지 벌린데 격분을 참을수 없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묻고 석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단합된 힘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1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14명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한 만행을 감행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견결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7월31일) 등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인 파쑈적폭압만행을 단죄규탄하는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억세게 전개하였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3월에 벌린 이른바 《한미련합대공수작전훈련》을 폭로규탄하는 가두선전 등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일본사또놈이 박정희매국역적의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기여드는것과 관련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당장 중지할데 대한 성명(6월 30일)을, 그리고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도쿄에서 이른바 《한일협력위원회 제3차 총회》를 열고 침략과 매국을 위한 모의를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담화(7월 30일)를 발표하는 등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

조국의 자주적통일촉진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총련은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고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현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의 호소문과 8개항목의 구국방안, 김일성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 등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일군들과 동포들속에 꾸준히 해설침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의 본질과 정당성, 그 실현방도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수령님의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에 무려 10만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한 사실에서만도 총련이 일군들과 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정력적으로 노력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총련은 이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 특히 《민단》 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는데 계속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총련은 《민단》에 삿뽀로에서 열린 준동기올림픽경기대회(2월)와 나고야에서 열린 제31차체육선수권대회(3월)에 참가한 남북조선 선수단을 공동으로 환영성원할데 대하여 그리고 《남북조선 적십자단체 대표들의 회담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대회》를 공동으로 가지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또한 민족권리옹호문제, 문화예술사업, 3.1인민봉기 선두돐기념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일의 공동기념 등 여러가지문제들을 가지고 《민단》 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북조선적십자단체간의 회담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켰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추동하였다. 민족단합을 위

민주화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4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강요하는 파쑈적군사교육제도를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성명을(4월 17일)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5월 30일) 등 일본각지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각종 대중적인투쟁을 벌리였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며 박정희괴뢰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일, 반괴뢰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군중대회, 강연회, 좌담회에 연 50만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와함께 내외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걸음마다 폭로규탄하면서 남조선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동포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였으며 그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리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였다.

이와 같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혁명투쟁에 합류되여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재난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보도사업

총련은 이해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문학예술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재일조선작가예술인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온갖 부르죠아문예사상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을 위한 동포들의 벅찬 투쟁과 생활을 문예창작에 옳게 반영하여 주체가 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 소설, 음악, 무용 등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이해 창작된 노래《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 가리라》, 노래이야기《혁신의 노래》, 무용극《무궁화꽃수건》, 연극《다시 찾은 국적》, 기록영화《삿뽀로준동기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공화국선수들》등은 그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총련의 11개 지방가무단들은 예술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집체창작을 활발히 벌리여 노래《충성을 다하리라》, 노래이야기《귀국동포환송의 노래》, 군무《인삼에 깃든 어버이 사랑》등 11월말까지에 합계 312편의 예술작품을 창작하였다.

재일조선중앙예술단, 재일조선연극단, 각 지방 11개의 조선가무단들은 공연활동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을 크게 고무 추동하였다.

예술단들은 10월초까지에만도 48만 2천여명의 동포들을, 특히 11개 지방가무단들은 11월말까지에 연 747회의 공연에 25만 8천 800여명의 동포들을 관람시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으로 교양하였으며 그들을 총련애국사업수행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켰다.

문학예술분야에서 거둔 또하나의 성과는 군중문화 예술이 더욱 발전개화된것이다.

총련은 1천여개의 각종 예술소조에 많은 군중을 참가시키고 수시로 예술경연대회, 문예작품현상모집 등을 조직하는 등 그들의 예술적재능을 일층 발양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이러한 실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예술축전을 위한 지방예선, 재일본조선인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기념 음악무용구성시《어버이 수령님께 충성 다하리라》의 공연이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 중앙예술축전 지방예선들에는 900여종목의 연예종목을 가지고 8천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총련은 또한《피바다》, 《마을사람들속에서》, 《꽃피는 마을》,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새조선》, 《세상에 부럼 없어라》 등 조국영화상영사업에 30여만명의 동포들을 관람시킨것을 비롯하여 조국의 문예작품보급사업을 강화하였다.

총련은 또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체육지도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체육을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 복무하는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체육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체육사업에서 거둔 성과의 하나는 체육인들속에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체육인대렬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주체적인 체육훈련을 통하여 체육기술이 높아진 재일조선체육인들은 재일본체육련합회결성열일곱돐이 되는 날인 6월 28일까지에 2천 600여회나 대외친선경기를 조직하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재일조선축구단은 결성후 이해 8월말까지 333번의 대외경기에서 310번을 이기고 17번을 비기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천여개의 체육소조활동과 각종 체육경기대회들을 통하여 군중체육사업이 더욱대중화되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선아홉돐을 축하하여 도꾜를 비롯한 4개소에서 진행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학습을 위한 재일조선과학자들의 과학연구토론회를 비롯하여 6월에 있은 재일조선과학자들의 과학학술보고회, 재일본조선학생 제16차 학과별 연구토론회 등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리론적으로 론증하는 과학연구토론회가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되였으며 주체가 서고 과학적수준이 높은 많은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총련의 출판보도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혁명전통에 관한 서적 출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총련의 각급 기관과 산하단체들의 출판물 배포리용사업을 적극 강화하여 동포들속에 수령님의 로작과 혁명전통에 관한 서적들을 더욱 실속있게 보급하였다.

《조선신보》, 《조선청년》, 《조선녀성》, 《조선상공인신문》, 《시대》, 《조선주보》 등을 비롯한 우리 말로 발간되는 신문잡지들과 외국어로된 《조선시보》, 《피플스코레아》 등 34종의 정기간행물들은 독자들이 더많이 늘어났으며 그 편집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총련의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출판물들이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통신은 조국에서 발신하는 《조선중앙통신》을 받아 우리 말로된 《조선통신》과 함께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로된 《조선통신》을 발간하고 있으며 전송사진에 대한 수신사업도 진행하고있다.

대 외 사 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총련은 또한 일본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총련은 이해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본의 각 당, 각 파와 각계각층 진보적인사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전세계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인민들속에 김일성원수님의 불후의 로작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부단히 소개선전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해에 5권으로된 《김일성저작집》의 번역출판이 끝나고 김일성원수님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1, 2, 3부, 조선로동당제5차대회문헌 등이 일문판, 영문판 및 프문판으로 출판되여 일본을 비롯한 세계 40개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이와함께 총련은 도꾜와 오사까에서 1970년 5월부터 1971년 3월까지 열렸던 조국상품전람회를 잘 운영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조국의 눈부신 발전모습을 재일동포들은 물론 66개 나라의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에게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을 보다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총련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일본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속에서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높아갔으며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체득하려는 기운이 그어느때보다 높아져갔다.

도꾜를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수많은 일본인 학자, 문화인, 학생들을 망라한 《김일성수상로작연구회》가 무어지고 김일성원수님의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된 사실이라던가 일본의 대학들에서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총련은 또한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광범한 일본인민들이 사또반동일파의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시정할것을 요구하는 대중적여론을 더욱 높이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연설과 일본사회당 아까마쯔이사무부위원장, 《아사히신붕》 편집국장, 교도통신사기자, 미노베도꾜도지사, 《요미우리신붕》 기자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널리 보도되는속에서 일본의 정계, 경제계, 언론출판, 예술, 체육계 등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사또반동일파의 적대시정책을 시정시키고 조일 두 나라 인민들간의 우호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이해 일본의 초당파적인 국회의원들로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결성되고 《일본과 조선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와 《일조기자구락부》도 무어졌다.

또한 10월 9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붕》의 국제정세조사회와 11월 24일 일본기자구락부 그리고 11월 27일 도꾜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이 조선문제에 대한 강연을 한 사실 등은 조선인민과 일본인민과의 친선과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의 대외적위신이 높아졌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해 일본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리였다.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재일동포들의 《출입국관리법안》 반대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으며 1천여명의 법률가들과 2천여명의 학자, 문화인들, 1천여명의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자기 정부당국에 파쑈적인 《출입국관리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계직업련맹서기국,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단체들과 인사들이 일본반동정부의 악법조작책동을 항의규탄하였으며 3대륙 인민단결기구는 매년 5월 25일을 《재일조선공민들과의 국제적련대의 날》로 정하였고 특히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재일조선인의 법적, 사회적지위에 관한 국제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해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외사업을 한층 높은 단계에로 올려 세움으로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에 대한 더많은 동정과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대외적위신은 보다 높아졌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였다.

총련은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김일성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정부두리에 결속시키는 유일한 민주주의적조직체이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공민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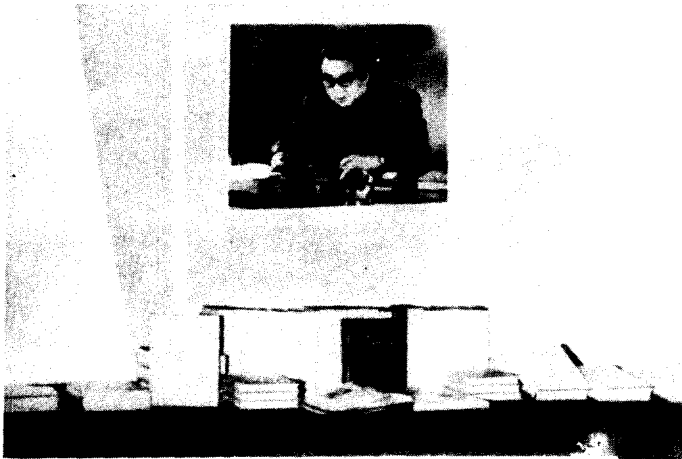
총련은 48개의 지방현본부들과 300여개의 지부 및 2천여개의 분회를 가지고있으며 그 산하에는 조청, 녀맹, 상공회를 비롯한 27개의 계층별 산하단체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구월서방
학우서방
조선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시대사
조선중앙예술단
조선연극단
조선총련중앙학원
동해상사주식회사
조선청년사
조일수출입상사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국제서술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열린 제17차아랍도서전람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람관의 일부와 조선전람관에 대한 반향



스웨리예의 수도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 도서 및 공예품전람회 회장을 돌아보고있는 스톡홀름시민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신 타보라혁명학원 교육설비를 돌아보는 니에레레대통령



페루—조선친선협회 결성모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 서명하고있는 모임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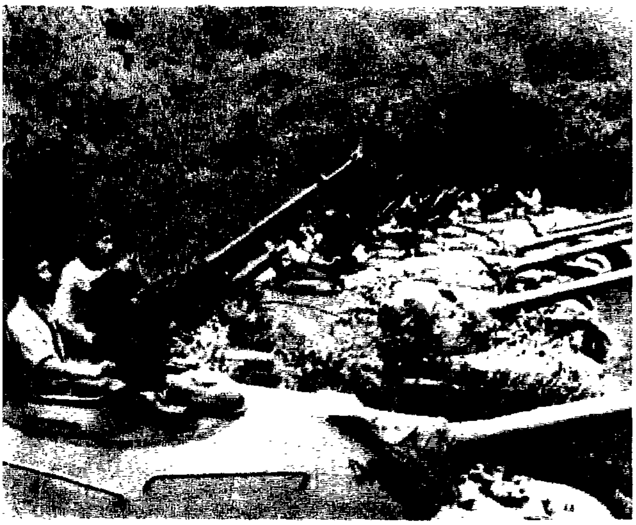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미시위를 벌리고있는 서부독일 시민들



새로 일떠선 베이징석유화학종합공장



9호도로전선에서 로획한 무기로 패주하는 적들을 계속 족치고있는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 전투원들



적들을 일격에 소멸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는 웰남인민군 전차부대 전투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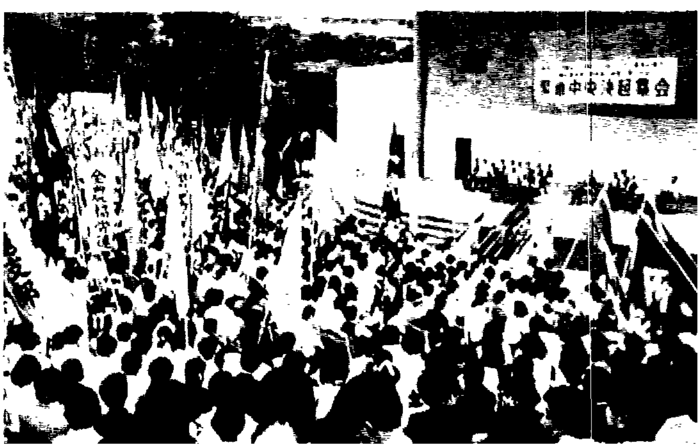


적들을 무찔러나가고있는 라오스애국전선 전투원들



미제와 론놀괴뢰도당을 소멸하기 위하여 싸움터로 나가는 캄보자민족해방인민무장력 전투원들

오끼나와《반환》협정을 반대하여 항의집회를 벌리고있는 도꾜의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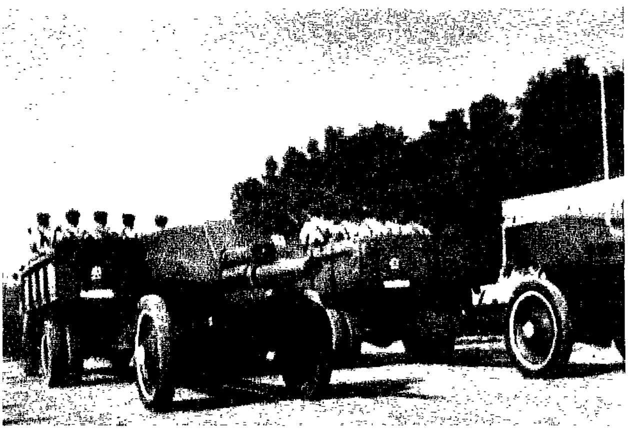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알제리의 무장력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반미공동투쟁월간군중집회



현대적무기로 장비된 민주예멘 무장력



모잠비끄애국적무장력 전투원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원들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전투원들에 의하여 전복된 렬차





어떠한 원수도 단매에 쳐부실 기세로 전투훈련을 강화하고있는 꾸바혁명군 포병들



알옌데대통령을 지지하여 시위를 벌리고있는 칠레인민들



반미구호를 웨치면서 5. 1절시위를 벌리고있는 스웨리예 수도시민들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을 반대하여 시위에 나선 빠리시민들



미국회의사당앞에서 닉슨도당의 인도지나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고있는 워싱톤시민들

1971년 국제정세 개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1년에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해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복잡한 사건들과 심각한 변화과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세계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진과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였다.

세계혁명의 거세찬 대조류속에서 우리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공고히 되였다.

인류의 흉악한 원쑤 미제를 우두머리로한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을 말살하고 그들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였으나 이르는곳마다에서 된매를 얻어맞고 파멸의 구렁텅이에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리하여 우리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의 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흠모와 경모의 정은 더욱 높아졌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반제혁명사상, 그이께서 밝히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 찬연한 빛을 뿌리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성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해에도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한다》, 《이타크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등 새로운 로작들과 문헌들을 내놓으시여 혁명발전이 제기하고있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에 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과 정치사회계에서 커다란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이께서는 특히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에서 현시기 세계혁명의 초미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고 이에 기초하시여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을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명확한 행동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가져오게 하는 전환점을 이룩하시였다.

세계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국제정세에 관한 천재적인 분석과 평가를 《복잡한 정세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 《가장 철저한 원칙적립장을 고수하시면서 일관하게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해오신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수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밝힐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커다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이해에도 세계 여러나라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 등 여러가지 연구단체들을 무었으며 《김일성도서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등을 정중하게 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심오히 연구학습하였다.

세계 수많은 진보적단체들과 출판사들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전기와 혁명활동략력,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문헌집 혹은 단행본으로 번역출판하였으며 각국의 수많은 출판물들과 방송들은 로작의 전문 혹은 그 요지들을 광범히 소개하였다.

이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제적권위는 이해에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으며 그이의 탁월한 혁명사상은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지구상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한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경모하면서 그이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대로를 따라 이해에도 승리적인 전진을 다그쳐나아갔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해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강화되고 국제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난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 대렬이 더욱 늘어났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8폐지)

이해에 우리 나라는 시에라 레온, 말따와 외교관계를 맺고 모리셔스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관계와 무역 및 문화적교류는 전반적으로 활발해졌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 우리 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친선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가지 단체들과 조직들, 혁명적벗들이 수많이 늘어났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 행사들이 광범히 벌어졌다.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는 111개 나라에서 온 145개의 청년조직대표단과 대표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과 대표들, 외국의 여러 혁명동지들과 벗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군중집회와 시위 등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 세계진보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킴데 대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내놓은 8개항목방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인민의 투쟁에 튼튼한 련대성을 보내주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용감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성원하였다.

1971년 국제정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의 현명성과 정당성,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현실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승리적인 전진

이해에도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반제혁명투쟁은 특히 아세아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는 혁명적폭풍이 가장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7페지)

제국주의와 혁명력량, 진보와 반동간의 격렬한 투쟁무대로 된 아세아에서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가 이 지역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쳐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간 사실은 이해 국제정세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의 하나였다.

투쟁에 떨쳐나선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평화》의 탈을 쓰고 침략과 전쟁모험을 일삼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모한 책동을 짓부시면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였다.

아세아에서 력량관계가 제국주의편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변되자 미제는 악명높은 《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더욱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비롯한 추종국들과 괴뢰들을 내몰아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출로를 찾으려고 발악하면서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날카롭게 조성하였다.

미제는 남조선강점침략군의 이른바 《감축》소동을 벌리면서 남조선에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며 새전쟁준비를 다그쳤다. 이해 군사분계선일대에서만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총포사격은 550여차, 놈들이 쏴댄 포탄과 총탄수는 도합 12만 7천 900여발, 공중침범행위는 21차에 달하였다.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거듭해온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남부웰남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2월에는 인도지나반도의 전략적요충지인 남부라오스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이 지역을 강점함으로써 인도지나 세나라의 애국력량을 반대하는 배후타격기지로 전변시켜 침략전쟁국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특히는 흉악한 전쟁의 《웰남화》계획의 성공여부를 시험하려고 무모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또한 타이, 남부웰남 등 고용군을 내몰아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략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남부웰남침략전쟁을 장기화하고 민주웰남을 반대하는 파괴전쟁을 강화하였다.

이해 미제는 《〈닉슨주의〉에 기초한 미일간의 호상협동관계의 강화》를 소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조선과 기타 아세아혁명적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내몰았다. 특히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적극 부추겼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의 재침책동을 본격화하고 특히 군사적재침책동을 강화하였다.

6월 17일 미일반동들은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꾸며내고 그에 대한 비법적인 《비준》놀음을 벌렸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하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저들의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전선에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까지 공공연히 추진시켰다.

5월말과 6월초에는 우리 나라 동해에서 미일《합동해군군사연습》이라는 도발책동을 벌렸다. 특히 미제는 《미, 일, 한 공동군사작전체제》를 보강완비하며 그 기초우에서 조선에서 새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였다.

중근동지역에서 미제는 년초부터 이른바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라는 간판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면서 놈들을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도발에로 내몰았다. 한편으로는 《중동문제의 평화적해결》이라는 막뒤에서 아랍나라들을 반목리간시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지역 인민들의 통일적인 진출을 가로막고 신식민주의지배권을 확립해보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의연히 전쟁의 원흉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침략성은 조금도 변하지않았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다.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은 미제의 발광에 대처하여 반미공동전선을 일층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원쑤들에 대한 공세를 적극화하여 패배로부터 출로를 열어보려던 미제의 망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인도지나인민들은 반미공동전선을 일층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악명높은《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벌려놓았던 적들의 모든 작전들을 파탄시키고 인도지나전역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웰남인민들은 미제의 침략행위를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쳤으며 남부웰남인민은 전쟁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공격을 들이댐으로써 놈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이리하여 미제반동지배층까지도 전쟁의 《〈웰남화〉계획은 명백히 실패》하였으며 남부웰남강점 미제침략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락되고있다》고 인정하지않을수 없게 되였다.

라오스애국군대는 2월 9호도로, 체폰을 비롯한 하부라오스에서 1만 6천명의 적을 살상하고 50대의 비행기, 318대의 땅크 및 장갑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적들이 그처럼 큰 기대를 걸었던 《람손—719》호 작전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렸다. 12월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르평원—무옹 수이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라오스침공작전의 패배—이것은 미제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인도지나침략전쟁의 주요교리로 내세웠던《웰남화》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책동이 전면적으로 파산되여 가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증시하였다.

령토의 10분의 8과 인구의 10분의 7을 해방한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해 근 8만명의 적군을 살상하고 600여대의 비행기를 격추파괴하고 프놈 펜까지 밀고들어감으로써 캄보쟈정세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특히 8월중순부터 6호도로일대에서 적들이 무려 2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벌려놓았던 《첸라—2》호 작전을 짓부심으로써 론놀괴뢰고용군의 총붕괴를 예고하고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조선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않고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력은 더욱 장성강화되고 국제적위신이 급격히 높아졌다.

세계많은 나라들의 지지밑에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고 장개석도당은 유엔

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났다. 이리하여 스무해이상이나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려던 미제의 중국 적대시정책은 완전히 파산되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일본에서는 11월 19일 1960년의 제1차 미일 《안보조약》반대투쟁이래 《최대규모》의 약 200만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으며 30일에는 전국각지에서 130만명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사또내각을 타도하라!》, 《오끼나와반환협정을 분쇄하라!》, 《미군은 일본과 아세아에서 당장 물러가라!》는 구호밑에 전개된 각계층인민들의 대중적인 진출로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멎고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았으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회적혼란이 일어났다.

이해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 중국, 웰남, 라오스, 캄보쟈 등 아세아혁명적인민들간의 전투적단결과 친선의 뉴대가 새롭게 강화발전된것은 아세아정세에서 뚜렷한 특징을 이루었다.

6월《미제반대투쟁의 날》과 미제의 대만성강점 21년에 즈음하여 그리고 조중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을 계기로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적인 전투적련대성행사들과 이에 뒤이은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대규모의 무력침공당시 아세아혁명적나라들의 강력한 지지밑에 인도지나 세나라의 애국적무장력이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적들에게 집단적반격을 가한 사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위험한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진출 등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려는 이 지역인민들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타이, 필리핀, 말라이를 비롯한 미제의 추종국가들에서는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이해 아랍인민들의 반미반이스라엘투쟁도 강화되였다.,

애급,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도발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아랍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은 대오를 더욱 결속하고 도처에서 대담무쌍한 군사작전을 벌려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4월 애급, 수리아, 리비아는 아랍공화국련방을 형성하고 서로 힘을 합쳐 자기의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철석같은 결의를 다졌다.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의 애국자들도 식민주의자들의 마지막 지반을 허물어제끼는 진공전을 강화하여 빛나는 전과를 달성하였다.

영웅적꾸바인민의 승리적인 전진에서 거대한 혁명적영향과 고무를 받고있는 우루과이, 파에말라, 꼴롬비아, 볼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유격대들은 무장대오를 강화하고 대중적지반을 더욱 확대공고화하면서 대담한 기습전을 전개하여 반동기관들과 적 병영을 들부시고 악질 친미주구들을 처단하며 제국주의나라 외교관놈들을 대낮에 사로잡는 등 눈부신 활동으로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미제의 세기적인 압제의 쇠사슬을 끊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칠레인민은 미제의 위협공갈과 국내반동들의 준동을 박차고 전진하였으며 뻬루와 기타 나라들에서도 역시 반미기운이 날로 높아갔다.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독립과 자유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기만적인《원조》와 예속적인 군사조약, 악랄한 전복음모와 사상문화침투 등으로 저들의 신식민주의 올가미에 얽어매려는 미제의 간악한 책동을 박차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나라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공세와 각계층인민들의 반미반정부진출이 그 폭과 심도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이면서 줄기차게 앙양되였다.

특히 서독의 80여개의 야금공장과 기계제작공장을 마비상태에 몰아넣은 38만근로자들의 총파업, 전국철도수송을 완전히 중단시킨 이딸리아의 20만로동자들의 총파업, 그리고 10만 영국근로자들의 전국적인 반정부시위 등은 피에 주린 제국주의 반동지배층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멸망하여가는 제국주의세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안에서 인민들의 반전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도 심하여지고있습니다. 경제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지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참패를 거듭하고있으며 제국주의동료들로부터는 물론 추종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2페지)

이해 미제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녹아났을뿐아니라 미국안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미국내부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수백만이 참가한 전국적인 반전반정부투쟁과 흑인투쟁, 로동운동을 비롯한 각계층인민들의 대중투쟁은 년중 행사처럼 벌어졌다.

4월에만도 전쟁광신자들이 도사리고있는 워싱톤에서 50만의 군중이 《범죄적인 인도지나전쟁을 당장 중지하라》고 웨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육박해들어갔으며 쌘프랜씨스코에서는 50만의 군중이 들고일어났다.

반전시위투쟁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있는가운데 워싱톤에서는 국회의사당건물이 점거당하고 《선발징병국》이 사면포위되였으며 백악관에 처박혔던 닉슨놈이 겁에 질려 캠프 데이비드로 창급히 내빼지않을수 없었다.

이 투쟁행정에서 《로동자학생투쟁동맹》, 《공동의 위업》, 《전쟁을 반대하는 웰남전쟁참가퇴역군인회》 등 반전단체들이 새로 무어졌다.

미국병사들속에서는 염전사상이 날로 높아갔다.

반전투쟁과 함께 흑인들의 폭력적진출이 또한 강화되였다.

독점자본의 지배와 착취를 반대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은 어느 한정된 지역과 분야뿐만아니라 전기, 석탄, 인쇄, 식료공업 등 경제생활의 여러분야들을 휩쓸었다.

특히 오래전부터 계속된 경제위기는 이해 더욱 심각화되여 닉슨도당의 발악적인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은 하강선을 그었으며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몰락하였다.,

물건값은 계속 뛰여오르고 1천만이상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웠다.

딸라의 시세는 《1949년래의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국제수지형편은 악화되고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났다. 만성적인 인플레는 《20년래 최악의 사태》

에 이르렀고 금보유고는 겨우 102억딸라로서 해외에 있는 딸라의 5분의 1도 보상할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미제의 군사적위기가 또한 격화되였다. 인도지나인민의 반미구국항전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거세찬 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수치스러운 군사정치도덕적패배를 당하였다.

미제는 《동맹국》들로부터도 더욱더 배척을 받았으며 그의 국제적고립은 더욱 커졌다.

8월 닉슨도당이 《딸라방위책》을 발표한것을 전후하여 서방제국주의세계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결국 《동맹국》들의 《새로운 강력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런던과 빠리, 로마와 워싱톤에서 벌어진 자본주의 《10개국재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합동회의》, 《카트회의》에서 《동맹국들은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제리속만 채우려는 미제의 강도적요구를 일치하게 거부해 나섰다.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특별조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라틴아메리카 20개 나라들이 미제의 이른바 《신경제조치》에 대처하여 공동전선을 펼데 대하여 합의하고 10% 수입부과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닉슨도당에게 들이댔다.

이렇게되자 닉슨놈은 하는수없이 12월 중순에 《성명》을 발표하여 37년간이나 고정시켜온 딸라의 공식가치를 인하하는데 동의하고 《10%수입부가세》를 철폐하지않을수 없었다.

1월 30일에 있은 《미주국가기구》외상특별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자기나라 령해를 제마음대로 제한하며 침범하는 미제의 해적행위를 일치하게 규탄하였으며 자기 나라 령해를 침범한 미제침략자들의 선박을 계속 나포하였다. 1971년에 에꽈도르는 자기령해에 침입한 미제해적선 20여척을 나포하고 벌금을 받아냈다.

꼬스따리까와 온두라스는 미제가 조작한 침략기구인 《중남미방위리사회》에서 탈퇴하였으며 빠나마는 《운하문제는 오직 우리 빠나마인들만이 해결할수 있다》고 미제에 반기를 들고나섰다.

이리하여 미제의 《명령체계》는 더는 통할수 없게 되였으며 추종국들과 괴뢰지배층내에서까지도 미제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공공연히 도전하는 경향이 로골화되였다.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 《미제야수들에게 죽음을 주라!》는 인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매일같이 울려퍼졌으며 미제대사관, 령사관, 공보원 등이 습격파괴당하고 미제의 《성조기》가 갈기갈기 찢기우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일어났다.

미제의 대내외적곤경이 심하여짐에 따라 대미추종정책을 일삼아온 사또일파는 앞뒤가 맞지않는 소리를 하면서 제놈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의 파산을 가리워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과 지배층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사또일파는 4분 5렬되고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한 사또일파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며 사또일파가 정권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11월에는 자유민주당내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망라한 234명의 여야출신국회의원들의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결성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불경기와 특히 미국에서의 경제위기는 일본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밖에도 미제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은 상전의 대내외적위기가 심각화됨에 따라 모두 갈팡질팡하고있으며 특히 장개석도당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아우성을 쳤다.

이 모든 사태발전은 닉슨을 두목으로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략탈과 간섭, 침략과 전쟁정책이 빚어낸 필연적후과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은 불가피하다.

1971년에 인도지나인민들이 달성한 빛나는 전과

웰남민주공화국

미제비행기 3천 427대 격추격파(전쟁시작후 1971년까지)

남부웰남

미제침략군 및 추종군 2만명 소멸
남부웰남괴뢰군 23만명 소멸
미제비행기 1천 800대 파괴
군용차 8천대 〃
포 650문 〃
함선 700척 〃
각종 무기 1만 5천정 로획

라오스

미제침략군 및 추종군, 라오스 괴뢰군 > 4만 2,300명 소멸
땅크및 군용차 > 800대 파괴
각종포 2천 400문 〃
미제비행기 700대 격추격파

캄보쟈

미제침략군 및 추종군 2만 8천 100명 소멸
캄보쟈 괴뢰군 5만 2천명 소멸
미제비행기 600여대 격추격파
함선 200척 파괴
군용차 2천 700대 파괴
휘발유창고, 군수품창고 > 150개 파괴
각종 포 300문 파괴

아 세 아 주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아세아대륙의 동쪽에 있다. 서북지방은 높은 산악지대이며 남서지방은 산출기름 이루고있다. 동부의 86%는 평야와 언덕지대이다.

기후는 지방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서부지대는 대륙성기후이며 동남지방의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며 기온의 차가 심하지 않다.

【면적】 959만 7,000km²(그중 대만의 면적은 3만 5,759km²)

【인구】 7억 5,900만명(그중 대만인구 1,496만명)

다민족국가이나 한족이 전인구의 93%를 차지하며 그밖에 60여개의 민족이 있다.

국어는 한어이나 여러개의 언어가 있다.

【수도】 베이징(주민 633만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현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주석】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무원】 최고집행기관

총리 주은래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창건

주석 모택동

국민당,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중국조선우호협회 1958년 9월 30일 결성

정치 4천년에 달하는 오랜 력사를 가진 중국은 19세기중엽에 이르러 1839~1842년의 제1차 아편전쟁으로부터 1857~1860년의 제2차 아편전쟁, 1884~1885년의 중프전쟁, 1894~1895년의 중일전쟁, 1900년의 8개국련합침략전쟁 등 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을 받았다. 1851~64년에는 태평천국농민전쟁이 일어났다.

1912년에 폭발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청나라 통치가 전복되고 2천여년간의 봉건제도가 붕괴되였으며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이 앙양되였다. 1919년에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든 5. 4운동이 있었으며 1921년 7월에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당인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제1차(1924~1927년북벌전쟁), 제2차(1927~1937년 토지혁명전쟁) 국내 혁명전쟁을 진행하였으며 1931년 《9. 18》사변이후 일제가 동북지방을 강점한 후부터 항일전쟁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항일전쟁승리후 중국인민은 미제의 졸개인 장개석도당을 반대하여 제3차(1945—1949년 인민해방전쟁)국내혁명전쟁을 진행하였다.

중국인민은 장개석도당의 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50년 6월 미제국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였다. 중국인민은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며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3년간의 복구기(1949—1952)를 거쳐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을 수행하였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프로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되였다.

1969년 4월 중국공산당 제9차대회에서는 문화대혁명의 경험을 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1970년 5월 20일 모택동주석은 《전세계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모든 주구들을 타승하자!》라는 력사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은래총리는 4월 15일과 19일 중국은 남조선과 대만을 도우려고하거나 대만과 남조선에 투자하며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본회사들과 일본에 있는 미국회사들과 통상하지 않는다는 대일무역에서의 4가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1971년에 중국의 각성, 시, 자치구(대만성제외)에서 당대표회를 열고 새로운 당위원회들을 선거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형제적린방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진것은 지난해에 세계정치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변의 하나입니다. 지난해에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고 장개석도당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승리일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제의 이른바 《두개중국》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합법적권리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장개석도당을 당장 내쫓을것을 요구하는 22개국 결의안이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라는 압도적다수표로 가결되였다.

이와관련하여 10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당한 결의는 전면적으로 당장 실현되여야 하며 장개석도당의 대표들을 유엔과 그의 모든 기구들에서 모조리 쫓아내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는 중국령토인 조어도를 비롯한 섬들을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사또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1년에 중국은 외교분야에서도 성과를 달성하였다. 3월에 주은래총리를 단장으로하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월남을 친선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범문동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월남로동당 및 정부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6월에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10월에는 에티오피아 황제가 중국을 친선방문하였다.

9월 26일 중국정부는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에 경제, 군사, 물질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1년에 중국정부는 15개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경제, 사회 1971년에 중국은 인민경제발전 제4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의 첫해에 예견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총생산액은 1971년에 전해에 비하여 10% 장성하였다.

중국의 중요농산물은 벼, 콩, 수수, 조, 목화, 밀, 차, 담배, 고구마, 감자 등이다. 서부고원지대에서는 면양과 산양, 중부고원지대에서는 돼지, 소, 말, 양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른다.

농업에서는 10년동안 계속 풍작을 거두고있으며 비교적 심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1971년 알곡수확은 2억 4천 600만t의 풍작을 거두었던 1970년 수준을 릉가하였다.

농민들은 《남쪽의 곡식을 북쪽에 가져가야만 되는 형편을 변경시킬》데 대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회하류역에서 가장 큰 관개공사를 진행하며 황하하류지대에서는 7천 500km의 관개수로와 배수로, 2천 500개의 우물을 건설하고있다. 또한 호북성, 강서성, 복건성에서도 관개공사를 진행하고있다.

중국에는 유용광물의 품종이 다양하며 그의 매장량도 많다. 지하자원으로는 쇠돌, 석탄, 원유, 동, 아연, 연, 안티몬, 석, 몰리브덴, 망간, 수은, 월프람 등이 있다.

산림면적은 약 1억 700만정보에 달한다.

1971년에 공업생산이 늘어났으며 제품의 질이 개선되고 그 품종이 확대되였다. 강철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18%나 늘어나 2천 100만t에 달하였다.

석탄과 소금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각각 8% 늘어났다.

1971년에 중공업의 선차적발전과 함께 경공업생산에서도 발전을 가져왔다. 상해시의 경공업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4.9%나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종이, 자전거, 담배, 재봉기, 시계, 손시계, 법랑제품, 보온병 등 일용제품들의 생산이 현저히 늘어났다.

상해시의 경공업제품은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 수출되고있는데 1971년에 수출총액은 1970년에 비하여 17% 장성하였다.

교육문화과학부문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많은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1971년 11월 18일 핵시험을 진행한것을 포함하여 1964년이래 12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과 1971년 3월 3일에는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 베이징일보

잡지 홍기(공산당기관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0년 10월 25일 형제적중국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피로써 돕기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1958년 10월까지 철거)

1953년 11월에 조중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 11일에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1년 1월 6일호 《인민일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를 하시고 5차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수행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시였다》라는 큰 표제밑에 신년사의 상세한 내용을 실었으며 《광명일보》, 《해방군보》도 그이께서 하신 신년사를 크게 실었다. 또한 통신과 방송도 크게 보도하였다.

8월 8일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전문을 일제히 실었으며 신화통신과 방송들도 크게 보도하였다.

1971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는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과 관련하여 《중조친선월간》을 설정하고 기념집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7월 3일 우리 나라 정부와 중국정부사이에 해안구조협조에 관한 협정을, 8월 15일에는 두나라사이의 경제적협조에 관한 협정을, 9월 6일에는 중국이 조선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인민출판사는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중국의 모든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죤들이 특별편집하였다. 또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및혁명활동사진전람회》가 성대히 열렸다.

1970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은래총리(4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6월), 인민친선대표단(10월), 1971년에는 기자대표단(6월), 당및정부대표단(7월), 로동자대표단과 베이징경극단(10월)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에 중국에서는 중조국경하천운항 협조위원회대표단(1월), 과학원대표단(4월), 교통부대표단과 연료화학대표단(10월), 정부통상대표단, 과학기술협조대표단, 국제려행사대표단(12월)을 비롯한 관광단, 체조선수단, 남자롱구 및 녀자배구선수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및정부대표단, 량강도대표단, 평남도대표단(7월), 직맹대표단(5월), 군사대표단, 경제대표단, 기자대표단(8월), 사로청대표단(9월)을 비롯하여 축구선수단, 조선인민군남자롱구 및 녀자배구선수단, 평양시바드민톤선수단, 탁구선수단이 중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 9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평양《피바다》가극단이 중국의 여러도시들에서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를 50여차례에 걸쳐 18만명이상의 관중들앞에서 공연하였다.

12월에 평양시인민위원회가 베이징혁명위원회에 진귀한 동물과 각종 식물종자를 보냈다.

홍 콩

(영직할식민지)

홍콩은 중국 광주로부터 동남쪽 140km떨어진 곳에 있는 홍콩섬(82 km²)과 구룡반도(7km²) 그리고 크고 작은 2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 동남아세아와 중국본토를 련결하는 국제적인 해상 및 공로의 중계지점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1,013km²

【인구】 409만명

인구의 약 97%는 중국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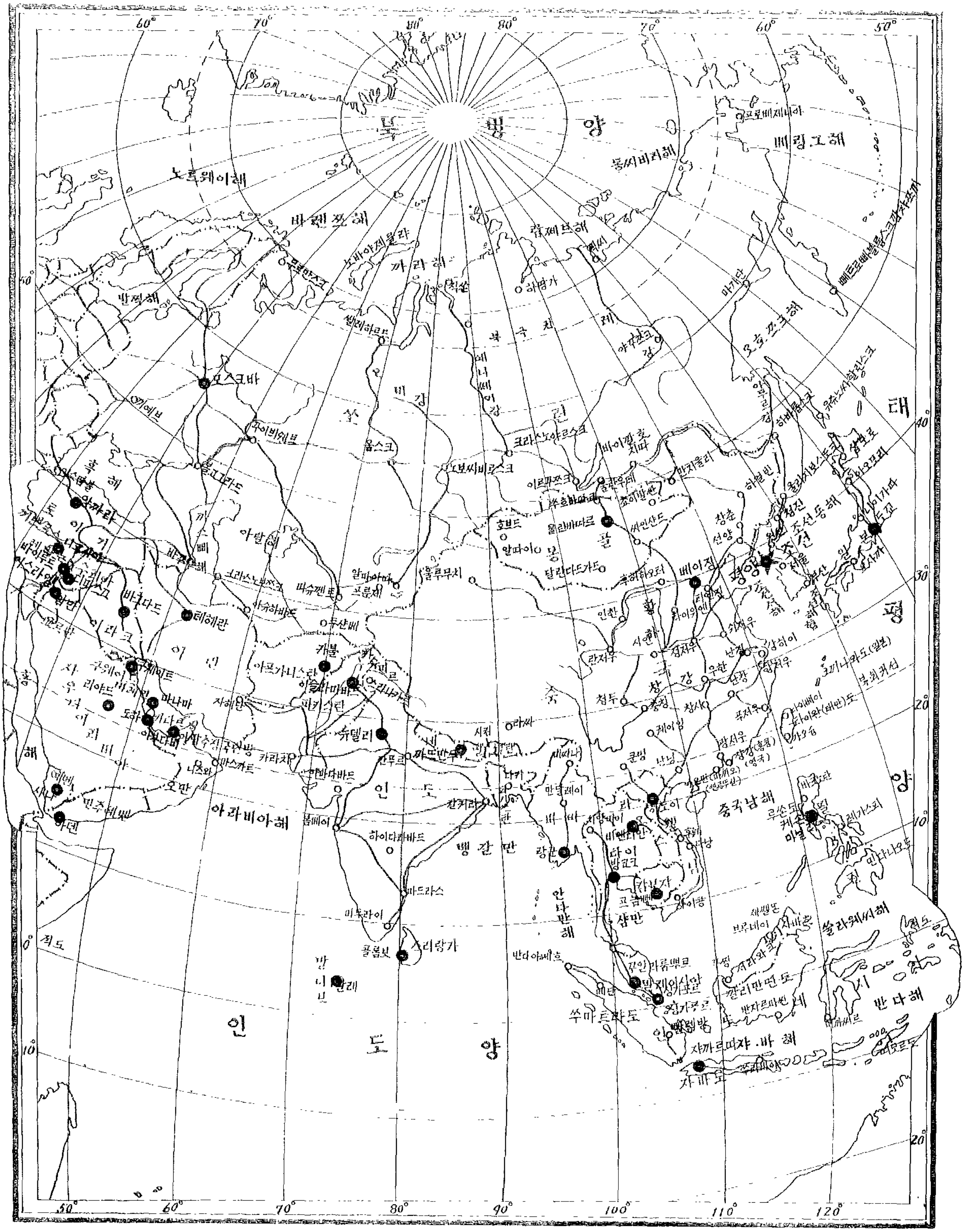
공용어는 중어와 영어

【행정중심지】 홍콩

【총독】 미레이 매클호소(영국인, 1971년 10월—), 총독을 보좌하는 《행정참사회》가 있다.

정치 1839—1842년기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제1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홍콩을 강점한후 1842년 10월 29일

아 세 아


북 빙 양
베링그해
동시비리해
노르웨이해
바렌쯔해
까 라 해
발찍해
모스크바
북 극 권
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꾸쯔크
울란바따르
몽 골
베이징
평양
서울
조선동해
도꾜
오호쯔크해
태 평 양
북회귀선
중국남해
테헤란
바그다드
카불
뉴델리
까라치
봄베이
아라비아해
인 도
벵갈만
마드라스
꼴롬보
스리랑가
랑군
쑤마트라도
쏠라웨시해
반다해
자바도
인 도 양
적도

아세아주 나라들의 면적, 인구, 수도 일람

나라이름	면적(km²)	인구(명)	년 도	수도(행정중심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 양
중 국	9,597000	700,005,000		베 이 징
홍 콩	1,017	3,990,000	1969	홍 콩
몽 골	1,565,000	1,301,300	1972	울란바따르
웰 남	330,500	40,000,000	1971	하 노 이
라 오 스	236,800	3,000,000	1970	비엔티안
캄 보 쟈	181,035	7,000,000	1971	프 놈 펜
일 본	369,662	104,539,600	1971. 3	도 쿄
필 리 핀	299,404	37,000,000	1971	케 손
브루네이	5,765	127,000	1970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1,904,345	124,240,000	1971	쟈까르따
말레이시아	329,067	10,600,000	1971.12	꾸알라 룸뿌르
싱가포르	585	2,100,000	1971	싱가포르
타 이	514,000	37,000,000	1971. 12	방 코 크
버 마	678,033	28,870,000	1971. 12	랑 군
네 팔	140,700	11,289,000	1971. 9	까뜨만두
부 탄	46,600	800,000	1970	팀 부
시 킴	7,109	190,000	1971	강 토 크
인 도	2,948,389	550,964,000	1971	뉴 델 리
파키스탄	947,695	128,000,000	1971	이슬라마바드
스리랑카	65,610	12,750,000	1971. 10	콜 롬 보
말디브제도	298	108,000	1970	말 레
아프가니스탄	655,000	16,510,000	1970	카 불
이 란	1,645,000	29,282,000	1971. 3	테 헤 란
이 라 크	444,442	9,749,000	1971. 9	바그다드
수 리 아	184,479	6,294,000	1970. 11	다마스끄
레 바 논	10,400	2,640,000	1970. 8	바이루트
요 르 단	96,610	2,347,900	1971	암 만
이스라엘	20,755	2,998,000	1971. 1	텔아비브
사우디아라비아	1,600,000	7,500,000		리 야 드
쿠웨이트	25,500	733,196	1970. 5	쿠웨이트
바 레 인	598	277,000	1971	마 나 마
까 타 르	22,000	100,000	1971	도 하
아랍추장국	83,600	200,000	1971	아부다비
오 만	212,380	750,000	1971	마스까트
예 멘	195,000	7,000,000		사 나
민주예멘	290,080	1,500,000		아 덴
토 이 기	776,980	34,375,000	1970	앙 까 라
끼쁘로스	9,250	633,000	1970	니코시아

에는 중국에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을 강요하여 홍콩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1860년 10월에는 구룡반도를(베이징조약으로) 강점하고 1898년에는 홍콩일대의 섬(신개지)들을 99년간 조차지로 략탈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홍콩을 직할식민지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경제, 사회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주로 재수출무역과 중개무역을 한다. 담배, 술, 약품을 제외한 상품들에는 관세를 붙이지않는다. 그러므로 홍콩시장은 세계상품의 집산지로 되고있다.

주로 비금속광물, 직물 및 그 제품, 의약품, 남새, 과실, 커피, 홍차, 기계류, 염료, 시계, 반도체라지오, 인삼 등이 재수출되는데 이것은 총무역액의 20~30%를 차지한다.

중개무역도 많이한다. 그러므로 비록 홍콩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또 없는 상품이지만 요구하면 어떤 상품도 다 살수있다.

홍콩은 영국의 《파운드지역》에 속하지만 무역 지대에서는 자유외화로 통용되는 홍콩딸라를 쓰고있다.

주요무역대상국들은 중국, 일본, 영국, 미국, 서독 등이다. 식료품과 섬유원료의 60%, 고기, 남새, 식량, 지어 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우리 나라는 인삼 및 그 제품, 약초류 등 해마다 상당한 량의 상품들을 홍콩시장에 팔고있는데 그 품종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홍콩에는 천연자원은 거의 없다. 주로 원료와 반제품을 수입하여 다시 파는데 이것은 수출의 70%이상 차지한다.

방적, 편직물, 직물 등 섬유공업을 위주로하는 경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92%를 이룬다. 그중 방직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2.9%나 된다.

공업총생산액에서 8%는 무역을 위한 중공업으로서 조선업, 선박수리공업, 세멘트공업, 약간의 제철공업 그리고 소형기계공업이 차지한다.

인구의 약 8.5%가 농업에 종사한다. 경지면적이 적으므로 주작물인 벼생산량은 수요의 10%밖에 안되며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한다.

1969년 3월현재 13만 8천명이 공부하는 2,632개의 각급학교가 있었다.

【출판보도】 신문 문회보, 대공보, 명보, 성도만보, 홍콩상보, 홍콩스탠다드, 스타

몽 골

(몽골인민공화국)

아세아대륙의 동부에 있으며 쏘련, 중국과 린접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중서부는 주로 산악지대이며 남쪽은 사막지대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해발 1천~2천m되는 높은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로서 춥고 메마르며 강수량이 매우 적다.

【면적】 156만 5,000km²

【인구】 130만 1,300명(1972년초)

주민은 할호족(70%)과 몽골어계통의 종족, 까자흐족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국어는 몽골어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26만 8,800명)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이다. 현대인민후랄은 7기로서 1969년 6월 22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쓰란긴 쌈부

【정부】 수상 윰좌긴 쩨덴발(1966년 7월—), 외무상 론돈긴 린친, 보위상 마르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인민당을 1924년 8월에 인민혁명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윰좌긴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몽골조선친선협회 1960년 8월 12일에 창설, 위원장 므. 르함쑤렌

정 치 몽골은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않고 직접 사회주의사회에로 넘어간 나라이다.

1206년 진기스한에 의하여 통일적봉건국가로 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몽골인민들은 인민당(현재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일본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몰리치고 1921년 7월 11일 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1924년 11월 8일 제1차 대인민후랄회의에서 몽골력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헌법을 채택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25년 몽골인민혁명당 제4차대회에서 채택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강령에 따라 1940년까지 일체 봉건적잔재를 청산하였다.

1939년 5월 몽골인민혁명군은 할힌골지구에 주타격방향을 두고 몽골에 대한 대규모적 침략을 시작한 일제침략자들의 마수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1946년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기초축성을 위한 주요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이해 6월 제8차 대인민후랄회의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1971년 2월 10일에 진행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2월 11일과 12일에 진행된 대인민후랄 제7기 제4차회의에서는 1971년도인민경제계획과 1971년도 국가예산, 1969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였다.

4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는 당 제16차대회 지시문초안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7일—11일까지 인민혁명당 제1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1971—1975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지시문초안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1월 29일과 30일에 있은 대인민후랄회의에서는 1972년도 인민경제계획과 예산 등을 토의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리이다. 주요집짐승은 양, 말, 염소, 탁타 등이다. 몽골은 집짐승의 한 사람당 분배몫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1971년초에 집짐승마리수는 2천 242만마리이며 제5차 5개년계획기간(1971—1975년)에 2천 500만마리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1970년에 32만 6천여t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연유, 쇠돌, 금, 은, 동, 망간, 탕그스텐 등이 있다.

1971년도 공업제품생산액은 1970년에 비하여 8.5% 장성하였다.

몽골에서는 7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1년말에 초급학교수는 503개, 학생수는 23만명이였다. 이해에 20개의 기술전문학교(1만 3천명)를 비롯한 대학들에서 2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1971년 현재 200개의 병원, 600여개의 진료소와 산원이 있다.

1971년에 근로자들의 평균로임은 전해에 비하여 2.3% 높아졌으며 소득세는 줄고 일부 일용품값이 내려갔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몽골통신)

신문 우넨(당 및 정부기관지), 허델머르(직맹기관지), 잘로쵸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나뮌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5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11월에 경제 및 문화협정, 1969년 6월 17일에 령사협약이 체결되였다.

1971년 11월 18일 두 나라간에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2월에 울란 바따르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0년에 몽골로부터 직맹대표단(9월), 과학기술대표단(9월), 작곡가동맹 중앙위원회대표단(10월), 남녀배구선수단, 집단체조대표단이, 1971년에는 정부통상대표단(3월), 탁구선수단(6월), 몽조친선대표단(7월), 유엔주재 몽골인민공화국상임대표부부(7월), 몽골작가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친선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군사대표단(3월), 당대표단(6월), 당및정부대표단(7월)이 몽골을 친선방문하였다.

웰 남

(웰남민주공화국)

인도지나반도의 동쪽에 자리잡고있다. 북부, 서북부 및 중부는 고원지대이며 동북부와 서남부는 평야지대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무더운 열대성기후에 속하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하노이의 년평균기온은 23.6°C이다.

【면적】 33만 500km²(그중 북부웰남 15만 8,800km²)

【인구】 4,000만명(그중 북부웰남주민 2,100만명, 1971년말)

주민은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경족(웰남족)과 소수민족인 태족, 묘족등 수십개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웰남어

【수도】 하노이(주민 110만명)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정

【주석】 손덕승(1969년 9월—)

【정부】 수상 범문동(1964년 7월—)

외교부장 원유정, 국방부장 무원갑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30년 2월 3일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이 1951년 2월 3일 제2차전국대표자회에서 당이름을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려 순

민주당, 사회당, 조국전선, 직업동맹, 호지명로동청년동맹, 청년련맹, 녀성동맹, 웰남조선친선협회 1965년 8월 12일 창설, 위원장 하휘갑

정 치 1858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기시작하여 188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인 1940년에 일제가 웰남을 강점하였다.

1945년 8월 19일 웰남인민은 호지명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동당(당시는 인도지나공산당)의 령도밑에 총봉기를 일으켜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을 타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하고 동남아세아에서 첫인민민주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46년 12월부터 프랑스침략자들과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웰남인민들은 호지명주석의 령도밑에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8년간의 항전에서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1954년 7월 20일 웰남인민의 독립, 자주권, 통일,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위 17°선을 경계로 남북이 림시적으로 갈라졌다. 제네바협정에는 1956년 7월 전국적인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웰남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규정되여 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1956년 6월 남부웰남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살륙전쟁을 감행하였다.

1964년 8월 5일에는 《바크보만 사건》을 날조하여 북부웰남에까지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웰남인민은 미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을 전개하여 원쑤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오늘 남부웰남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37페지)

웰남인민들은 북부를 수호하고 남부를 해방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1965년 1월에 정부는 격화되는 미제의 침략에 대처하여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반항공과 국경경비의 강화, 인민군의 강화 등 방침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1965년 4월 7일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정당한 제안인 4개항목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웰남침략전쟁 개시후 1971년까지에 2천억딸라이상을 소비하였으며 10만여회에 걸친 폭격을 감행하였다.

1971년에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을 1970년의 5배로 증가하였다.

웰남인민들과 반항공부대들은 북부웰남에 기여든 미제공중비적들을 1971년말까지 3천 427대를 쏴 떨굼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1971년 1월말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9차 전원회의에서는 반미구국항쟁과업과 북부웰남에서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인민회의 제3기 제7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회의상무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반미구국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4월 11일 웰남민주공화국 제4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420명의 대의원들을 선거하였다. 6월 7일—10일기간에는 제4기 제1차회의를 진행하여 일련의 문제를 토의하고 인민회의 상무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9개항목의 제안 1971년 6월 26일 웰남민주공화국 대표는 비밀회담에서 미국측에 9개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1972년 1월 25일과 26일 미제가 비밀회담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외곡공개함으로써 1972년 1월 31일 민주웰남은 이와관련한 공보를 발표).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1971년안으로 남부웰남과 인도지나에서 미제침략군과 모든 추종군대를 철거시킬것.

2항 포로병들의 석방을 제1항에서 제기된 군대철수와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끝낼것.

3항 미제는 남부웰남괴뢰도당에 대한 지지를 중지하며 남부웰남에서 새 정권을 수립할수 있게하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이 정권과 남부웰남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질것.

4항 미제는 전체 웰남인민에게 준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것.

5항 미제는 1954년과 1962년 제네바협정을 존중하며 인도지나에 대한 침략과 간섭을 중지할것.

6항 인도지나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는 독립과 자주권의 호상존중, 령토완정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인도지나인민들 자신이 해결할것.
7항 상기문제들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후 정화를 실시할것.
8항 국제적감시를 실시할것.
9항 인도지나인민의 민족적권리와 남부웰남, 라오스, 캄보쟈의 중립, 평화를 위한 국제적담보를 받을것.

경제, 사회

웰남은 석탄, 쇠돌, 주석, 망간, 탕그스텐, 금, 연, 린산염 등 지하자원이 많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이며 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카싸바(수박의 일종), 커피 등도 생산된다. 산림면적은 국토의 60%를 차지하며 질좋은 원목이 생산된다.

1971년에 미제의 계속되는 침략책동과 나쁜 일기조건하에서도 공업 및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협동조합원들은 자기들의 생산계획을 정보당생산에서나 총수확고에서 모두 초과수행하였는데 봄벼총수확고는 1970년보다 50만t이나 더 많았다.

공업 및 수공업분야에서는 1970년보다 14%나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중앙공업에서는 17.5%의 장성을 이룩하였다.

1971년에 석탄, 전력, 세멘트, 화학비료, 방직, 종이 등 주요공업부문들에서도 1970년에 비하여 17.5~50% 장성하였다.

기계제작부문에서는 농촌과 체신 및 수송분야에 필요한 많은 기계들을 생산하였으며 20여종의 새 기계들을 창의고안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1969—1970학년도에 학교수는 1만 1천 660여개였으며 교원수는 11만 1천 750명, 학생수는 460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웰남통신
신문 인민(로동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로동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7월 16일 하노이에서 두 나라간의 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10월 29일에는 우리 나라가 웰남민주공화국에 경제적원조를 제공할 데 관한 협정과 군사적원조를 제공할 데 관한 협정,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1971년 3월 9일 웰남민주공화국외교부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여 2월 27일 발표한 우리 나라 외무성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17일에는 우리 나라 정부의 9월 12일부 성명을 지지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철거하여야하며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사람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하며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함이 없이는 조선문제는 해결될수없다고 성명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과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1970년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1971년에,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웰남어로 각각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6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정부대표단과 1971년 3월에 방문한 인민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970년에 웰남으로부터 직맹대표단(6월), 웰조친선협회대표단(8월), 미술가대표단(10월), 정부경제대표단(11월)이, 1971년에는 웰남호지명로동청년동맹대표단(6월), 웰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대표단과 웰남모성및어린이건강보호연구단(8월), 기자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10월 24일—29일까지 웰남을 방문하였다. 29일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서 웰남정부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가고 조선인민이 자기의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할것을 견결히 요구하며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그리고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킴데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남부웰남

(남부웰남공화)

【면적】 17만 1,700km²
【인구】 1,900만명(1971년말)
【공화림시혁명정부】 1969년 6월 6일에 수립되였다.
주석 황떤팓, 외무상 웬 티 빙, 국방상 전남중
【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1969년 6월에 설치되였다.
위원장 원우수
【정당, 사회단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되였다. 남부웰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
인민혁명당 1962년 1월 1일에 창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 남부웰남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남부웰남민주당, 해방로동련맹, 해방청년동맹, 해방녀성동맹**

정 치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북위 17°선을 림시경계선으로하여 남북으로 갈라졌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남부웰남에 기여든 미제는 제네바협정을 파괴유린하고 1956년 3월에 제놈들의 졸개들을 부추겨 《단독선거》를 날조하여 6월 3일에는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을 위한 모든 운동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미제는 1961년에 시작한 《특수전쟁》이 실패하자 1965년부터는 《국부전쟁》으로 넘어가 남부웰남에 미제침략군과 타이, 남조선, 필리핀,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추종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미제는 침략마당에서 패배당하고 전반적위기에 빠지게되자 하는수없이 1968년 11월 1일 빠리회담에 동의하였다. 미제는 이른바 《평화발기》를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저들의 침략전쟁을 장기화하고 남부웰남에서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악랄하게 수행하는데 이르렀다.

1971년 4월 놈들은 라오스 및 캄보쟈와의 국경지역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1만여명을 투입하여 《람손—720》작전을, 5월중순부터는 도하밀림(중부고원)에 6천여명의 괴뢰군과 《비—52》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수백대의 공중비적들을 투입하여 이른바 《제3차 대군사작전》들을 벌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 전쟁의 《웰남화》계획은 파탄되였다.

남부웰남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4페지)

반미구국항전에 나선 남부웰남인민들은 1960년 12월 20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을 창건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1961년 2월 15일 남부웰남각지에서 활동하던 애국적무장력들을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으로 통합하여(3군 즉 해방군, 유격대, 민병)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남부웰남해방투쟁에 모든 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하였다.

남부웰남인민들은 미제의 《특수전쟁》을 격파시켰으며 미제의 두차례에 걸친 대규모적인 《건조기공세》(1965~1966년, 1966~1967년)를 짓부심으로써 《국부전쟁》전략을 크게 파탄시켰다.

1968년초에는 남부웰남 전역에서 총공세와 전면적인 봉기를 일으켜 전쟁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조성하였다.

1969년 6월 남부웰남인민의 합법적대표인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69년초부터 1971년까지만도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연 500만명의 학생들이 정치투쟁에 참가하였으며 평화확보를 위한 인민전선, 산권리를 위한 부인운동, 형무소제도개선위원회 등 정치사회조직들이 나왔다.

인민해방무장력은 혁명정부수립후 1969년 7월부터 1970년 7월까지만도 34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6만명의 적을 소멸하였다.

1971년 5월 30일 하루에만도 근 80차, 6월 3일에는 100여차에 걸치는 련속적인 공격전투를 벌려 4개의 적 《지휘처》와 비행장, 제5 및 제6화력기지를 비롯한 수다한 《군사기지》들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다. 이리하여 1971년에는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군 2만명을 포함한 근 25만명의 적을 쓸어버렸으며 비행기 1천 800대를 쏴떨구거나 지상에서 박산내고 군용차 근 8천대를 까부셨으며 각종 포 650문을 마사버렸다. 또한 각종함선 700척을 물속에 처넣고 각종 무기 1만 5천점을 빼앗았다.

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7개항목제안 1971년 7월 1일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 제119차회의에서 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는 1969년 5월 8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내놓은 10개항목의 남부웰남문제의 전면적해결책과 1970년 9월 17일의 8개항목제안, 1970년 12월 10일의 3개항목성명들에 기초하여 남부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7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미제는 남부웰남침략전쟁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제와 그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군사고문과 인원 및 무기와 전쟁수단들의 전부를 남부웰남으로부터 빨리 완전히 무조건 철수하여야하며 미군사기지를 철폐하고 남부웰남에서 미공군과 해군의 모든 활동과 사이공괴뢰정권에 대한 미제의 군사원조를 중지하여야 한다.

미제는 철수하는 마감날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도달되면 곧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미제와 그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들간에 정화가 실시될것이다.

2항 남부웰남에 평화, 독립, 중립 및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광범한 민족화해정부를 수립할 목적밑에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와의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는 새로운 정권을 사이공에 수립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미제가 남부웰남 괴뢰정권에 대한 지지를 중지하여야 한다.

민족화해정부가 구성되는 즉시로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남부웰남괴뢰군간에 정화가 실시될것이다.

이 정부는 총선거가 실시될때까지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3항 전후에 민족적화목, 평등 및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외국의 간섭없이 남부웰남에서의 웰남무장력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것이다.

4항 웰남의 통일은 《어느 일방의 구속이나 강압없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두 지대간의 토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점차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것이다.

5항 남부웰남은 《평화와 중립》의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평화공존의 5개원칙에 따라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수립할것이다.

6항 미제는 《두 지대의 웰남인민에게 준 손실과 파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7항 앞으로 체결될 협정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담보를 기하기 위한 형태에 관하여 각측은 합의를 볼것이다.

경제, 사회

혁명정부는 해방지역(44개 주와 6개시, 182개 군, 1천 500여개 리)에 대한 미제와 괴뢰도당의 경제봉쇄에 대처하여 해방지역지방간의 경제교류, 해방지역과 적강점지역간의 물자교류를 통제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점지역으로부터의 물자로 해방지역의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경제를 약화시키며 해방지역을 경제적으로 분단, 봉쇄하려는 적들의 시도를 파탄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호상협조반과 공동작업반을 무어 알곡생산량을 해마다 8~11%씩 높이고있다. 목재가공, 방직, 제당 등 수공업도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1971년에 7천 100여개의 중학 및 초등학교가 있으며 여기에서 100만명의 학생들이 배우고있다. 학령아동의 90~100%가 학교에 다니고있다. 남보서부지역, 고원지대, 꽝 느가이주, 빈딘주의 많은 마을들에서는 이미 문맹을 퇴치하였다.

1971년에 의사수는 1969년에 비하여 10배로, 같은 기간에 준의수는 20배로 늘어났다. 병원, 진료소, 의료초소들이 설치되고있으며 수천개의 기동의료대가 활동하고있다.

중앙영화촬영소만도 5개이며 각주에 촬영소가 있다. 《해방》영화촬영소와 《인민해방무장력》영화촬영소에서는 1969년 6월—1971년 6월까지만도 20편의 기록 및 시보 영화를 제작하였다. 5개의 중앙가무단과 각주의 가무단이 활동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해방통신(해방지역통신)

신문 기애퐁(민족해방전선기관지), 기애퐁쾅(인민해방무장력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5월에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였다.

1969년 6월 12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3월 8일 남부웰남공화외무성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이른바 《프리덤 볼트》라는 위험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린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17일에는 우리 나라 정부의 9월 12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성명하였다.

1970년 6월에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이, 1971년 6월에는 남부웰남해방청년대표단과 해방녀성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라 오 스

(라오스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중앙에 있는 내륙국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과 고원지대

이다. 년평균기온은 북부에서 15~28°C, 남부는 23~30°C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2천~3천mm이다.

【면적】 23만 6,800km²

【인구】 약 300만명

주민은 3분의 2가 라오족이며 그 밖에 카족, 묘족, 인니족이 있으며 중국인, 웰남인도 있다.

국어는 라오스어

【수도】 비엔티안(주민 13만명)

【국왕】 사방 바타나(1959년 11월—)

【정부】 수상 수반나 푸마

【정당, 사회단체】 애국전선 파테트라오전투부대(라오스인민해방군의 전신) 내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한 《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1956년 1월 6일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중립당, 평화중립민족저화목및통일옹호위원회, 청년련맹, 애국청년조직, 녀성동맹

정 치

1893년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에는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1945년 10월 12일 라오스인민은 림시항전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라오스를 강점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나 라오스인민들은 수파누봉의 령도밑에 구국항쟁으로 대답하였다.

1949년 1월 20일 라오스인민은 진정한 무장력인 인민해방군(1965년까지 파테트라오전투부대로 부름)을 창건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1954년 7월 20일 라오스의 독립, 주권,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조인됨으로써 프랑스식민주의자를 반대하는 항쟁은 승리로 끝났다.

1957년 11월에 3파련립정부(애국전선, 중립파, 우파)가 수립되여 라오스의 통일이 실현되였다.

1958년 5월 전국선거에서 애국전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미제는 친미도당을 사촉하여 1959년부터 애국력량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1961년 6월 쮸리히에서, 10월에는 힌호프에서, 1962년 6월에는 자르평원에서 진행된 세 관계측 회담에서 림시련립정부의 구성과 일치가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6월 24일 전국에 정화가 선포되였다.

1962년 7월 23일에는 라오스의 중립화에 관한 제2차 제네바협정이 성립되였다. 이에 따라 미제침략군은 1962년 10월 7일까지 철거하기로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1964년 4월 19일 라오스 반동들을 사촉하여 련립정부를 전복케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1964년 5월 라오스애국전선이 장악하고있는 지역을 야수적으로 폭격함으로써 라오스에 대한 《특수전쟁》을 시작하였다. 미제는 1969년 7월 이래 라오스에서 제놈들의 공군 및 후방의 지원하에 《라오스인민들끼리싸우게하는》가장 반동적인 반혁명전략인 《닉슨주의》를 집행하면서 《특수전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놈들은 라오스에서 《닉슨주의》를 대규모적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1969년 말과 1970년초 자르평원—히엥 쾅지역에서의 《쿠 키에트》작전, 1971년초 남부라오스의 9호도로에서의 《람 손 719》작전을 벌렸다.

미제는 이러한 살륙전쟁을 위하여 라오스에 1만 4천명(대부분이 미중앙정보국정보원인 공군 및 륙군장교)을 투입하고 20개대대의 타이고용병과 남부웰남, 장개석잔당까지 끌어들였으며 1971년에는 《특공대》를 1969년의 1만 5천명으로부터 3만명으로 증강하여 라오스전선에서 전략군으로 리용하였다. 미제는 《특공대》에만도 매해 2억 5천만딸라를 탕진하고있으며 1971—1972회계년도에 라오스괴뢰들에게 주는 《군사원조》는 4억딸라에 달하였다.

그러나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시험작전과 라오스 인민을 반대하는 그 모든 책동은 라오스의 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에 의하여 완전히 참패를 보았다.

라오스 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라오스인민들은 라오스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도지나와 동남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련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여 날에날마다 투쟁성과를 확대하고있다.》(《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단행본, 8페지)

라오스애국적 무장력과 인민들은 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다.

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은 미제가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1964년이래 1970년까지 20만명의 적을 소멸하고 라오스 전령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하였다. 1971년에는 남부라오스에서 감행한 미제의 《람손 719》작전을 완전히 분쇄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은 이 작전에서만도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괴뢰군 7천 200여명을 살상하고 적 비행기 근 350대를 쏴떨구거나 까부셨으며 땅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차 210여대를 박산냈다.

5월 중순에는 볼로벤스고원일대를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하부라오스의 해방지역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해방하였다.

또한 라오스애국군대는 장마철(6~10월)전투를 통하여 자르평원—히엥 쾅지역, 9호도로지역을 비롯한 여러지역들에서 미제가 길러낸 방 파오《특공대》 4천 100명을 포함한 7천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미제비행기 49대를 쏴떨구거나 파괴하였다. 이리하여 1971년에는 도합 4만 2천 300여명의 적을 소멸하였으며 군용차 800여대와 포 2천 400여문을 파괴하고 비행기 700여대를 쏴떨구거나 또는 파괴하였다.

라오스문제해결을 위한 애국전선의 새 제안 1971년 4월 27일과 6월 22일 두차례에 걸쳐 라오스애국전선은 라오스왕국정부《수상》 푸마에게 서한을 보내여 라오스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제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제는 라오스전령토에 대한 폭격을 무조건 중지하여야한다. 그후 라오스에 있는 군대들은 즉시 정화를 실현하며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대한 침입과 침식행위를 즉시 중지한다.

둘째, 정화가 이룩됨에 따라 라오스 관계측들은 림시련립정부구성문제를 비롯한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즉시 회담할것. 회담장소로는 자르평원과 비엔티안 순서로 할것.

경제, 사회

경지면적은 전국토의 8%이며 인구의 95%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땅콩, 담배, 목화, 커피, 아편, 고무 등이다.

벼(년산 약 50만t) 경지면적은 75만정보이다. 해방지역에서 1971년에 1천정보의 경지면적이 늘어났으며 1천 200개의 중소규모의 관개시설이 건설되였다.

새로 건설된 중소규모 공업기업소는 근 50개나 된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연, 동, 금, 망간, 무연탄 등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않고있으며 철도운수가 없다.

해방지역에서는 라오스애국전선의 올바른 교육보건시책에 의하여 1970—1971학년도에 학생수는 7만여명, 글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을수는 795개에 달하였다.

2천 250여명의 의사들과 1천 800명의 준의들 그리고 5천 400명의 제약일군들이 인민들의 건강을 돌보고있으며 2천 400개의 침대를 가진 88개의 각급 병원들이 있다.

또한 중앙예술단, 교예단, 영사대들이 매개주들과 많은 마을들에서 활동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라오스애국전선의 통신)

신문 라오 하크사트(애국전선기관지)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해방지역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6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971년 6월에는 라오스애국청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캄 보 쟈

(캄보쟈왕국)

인도지나반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있다. 북부는 고원지대이고 중남부는 평원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6°C이다. 년간을 통하여 기온의 변화는 비교적 적다.

【면적】 18만 1,035km²

【인구】 700만명

주민의 약 87%는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타이족, 라오족, 카족, 프논족 등 20여개의 종족들이 있으며 50만명의 웰남인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다. 프랑스어도 쓴다.

【수도】 프놈 펜(주민 약 150만명)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1960년 6월—)

【민족련합정부】 수상 펜 누트(1970년 5월—), 외무상 사린 챠크, 국방상 키예우 삼판(민족해방인민무장력총사령관)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전선 1970년 3월 23일 창건, 미제와 그 주구 론놀—시리크 마타크도당을 반대하는 캄보쟈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정치국위원장 펜 누트. 근로자동맹, 농민동맹, 민주녀성협회, 민주청년동맹

정 치 1863년 8월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보호국》으로 되였으며 1940년 9월에는 일제에게 강점당하였다. 1945년 8월에 일제가 패망하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침략하여왔다.

캄보쟈인민들은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1946년 크메르인민해방군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벌렸다. 이리하여 1949년 11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53년 11월 9일에는 완전독립을 선포하였다.

1954년 7월 인도지나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따라 캄보쟈의 독립, 자주및 중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1955년 9월 프랑스련방에서 탈퇴하였으며 1957년 9월에는 영구중립법을 채택하였다. 1963년 11월에는 미제의 경제《원조》를 배격하고 1965년 5월에는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6년 1월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세아기금》 프놈 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이해 12월에 미제의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관계를 끊고 그놈의 《총령사》를 내쫓았다.

1970년 3월 18일 미제는 론놀우익반동들을 사촉하여 합법적정부를 반대하는 정변을 일으키고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5월 1일 캄보쟈침공을 시작한 미제는 이해 11월 9일까지만도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 13만명을 투입하였다.

《무관》, 《고문》의 탈을 쓴 미국놈장교들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살륙전쟁을 직접 지휘하며 론놀고용군을 통제하고있으며 라오스, 남부웰남, 타이에서 론놀고용군을 훈련시키고있다.

론놀도당에 대한 미제의 《군사원조》는 해마다 3억 4천 100만딸라에 달하고있으며 1971년에 미제는 매일 300—500차의 공습을 감행하였다.

캄보쟈인민들의 투쟁 1970년 3월 23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가 조작한 반동적인 정변을 폭로규탄하고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한 《5개 항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5월 5일에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 발표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캄보쟈민족해방군이 창건되였다. 민족련합정부는 1971년 말까지 28개 나라의 승인을 받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애국적캄보쟈인민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종국적승리의 앞길이 환히 열려져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론놀—시리크 마타크 반역도당은 프놈펜의 좁은 지역에 포위되여 날로 심해지는 혼란과 절망속에서 허덕이고있으며 그들의 명줄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되였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4페지)

1970년에 17만의 원쑤들을 소멸하고 전령토의 70%와 400여만명의 인민을 미제와 론놀도당의 통치에서 해방시킨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971년에도 계속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1월 22일과 25일 새벽 캄보쟈민족해방군은 론놀도당의 심장부인 프놈 펜비행장을 공격하여 론놀놈의 전용비행기를 포함하여 괴뢰공군력의 95%를 파괴하고 750여명의 괴뢰군을 살상하였다.

2월 4일부터 28일까지에는 콤퐁 참주와 크라티주에서 200여차례에 걸쳐 놈들을 공격하여 약 5천 500명을 살상포로하고 군용차 500여대, 비행기 30여대, 포 50여문을 까부셨다.

5월 26일 민족해방무장력은 스눌지역에서 적들과의 3시간동안의 치렬한 공방전을 통하여 미제침략군 비행기와 대포의 엄호를 받으면서 기여든 남부웰남괴뢰군 1천 500여명을 소멸하고 적 300여명을 포로하고 땅크와 장갑차를 포함한 200여대의 군용차를 까부셨으며 500여점의 무기와 500톤의 탄약을 실은 50대의 군용차를 빼앗는 대전과를 올렸다.

8월중순에는 미제침략자들이 캄보쟈동북부의 6호전략도로를 《개통》하여보려고 벌린 《첸라—2》작전을 완전히 분쇄하였다.

11월에는 7호도로에서,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여보려고 미제공중비적들과 포화력의 엄호밑에 제2호전략도로에 기여든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1971년에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2만 8천여명의 남부웰남괴뢰군과 약 1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근 8만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였다.

또한 각종 비행기 600여대, 해적선 200여척, 군용차 근 2천 700대, 150여개의 휘발유창고와 군수품창고를 불태워버리거나 파괴하였으며 300문의 포를 포함한 각종 무기 수십만점을 까부시거나 빼앗았다.

1971년말까지 캄보쟈 령토의 80%와 500만명의 인민들이 해방되였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19개주중 이미 7개주(스퉁 트렝주, 크라티에주, 라타나키리주, 몬돌키리주, 콤퐁 톰주, 시엠레아프주, 프레아 비예아르주)가 완전

히 해방되고 8개주의 대부분 지역들에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나머지주들에서도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이 적극 활동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고무, 목화, 야자, 커피 등이다.

벼재배면적은 241만 4천정보이다. 산림면적은 약 7만 8천여km^2이며 매해 목재는 30만m^3 생산된다. 수산업은 담수어업이 기본이다.

캄보쟈에는 방직, 제지, 세멘트 등 공업기업소들이 있으며 질좋은 마대가 생산된다.

미제의 강점지역에서는 쌀생산이 정변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으며 공업생산과 수출도 50%나 줄었다. 물건값은 전반적으로 2배로 올랐다. 그중 쌀 및 식료품값은 2~3배로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 케이. 아이(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통신.1970년 8월시작)

문헌 불레찐

방송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에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3년 11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4년 4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12월 20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197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접견하시였으며 여러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970년 9월과 1971년 3월, 12월에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한 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과 민족통일전선 및 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8월에 캄보쟈로부터 왕국련합정부 인민교육 및 청년상, 경제 및 재정상, 사법 및 사법개혁상, 왕국련합정부 외무상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일 본

우리 나라와 조선동해를 사이(약 150km)에 두고 동남쪽에 널려있는 혼슈, 홋까이도, 큐슈, 시고꾸와 기타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우리 나라와 기후는 비슷하나 비교적 강우량이 많다.

【면적】 36만 9,662km^2

【인구】 1억 453만 9,680명(1971년 3월)

단일민족이며 주민의 99%가 일본인이다.

국어는 일본어

【수도】 도꾜(주민 1,145만 7,000명)

【천황】 히로히도

【국회】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정부】 수상 사또 에이사꾸(1964년 11월—), 외상 후꾸다 다께오, 방위청장관 니시무라 나오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의장 노사까 산조,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공명당** 위원장 다께이리 요시가즈. **민주사회당, 자유민주당**(집권당), **로동조합총평의회, 전일본로동총동맹,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신일본부인회, 일조협회** 1951년 6월 결성, 회장 나가노 구니스께,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일조무역협회** 1956년 3월 결성.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1971년 11월 16일 결성. **일조로련회의** 1972년 2월 8일 결성

정 치 일본은 1867~1868년에 신흥부르죠아세력이 일으킨 개혁 즉 《명치유신》후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은 처음부터 군사반봉건적특성과 함께 가장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침략성을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7페지)

《명치유신》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0여차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870년대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에 미제로부터 군함과 무기를 받아 무장한후 강화도에 침입하여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1902년 《영일동맹》과 1905년 7월에 《가쯔라—타프트비밀협정》을 통하여 미영으로부터 조선강점을 승인받은후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아냈으며 1910년에 《일한합병》을 강요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1894~1895년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배상금과 대만, 팽호렬도 등을 청국으로부터 략탈하였고 1904~1905년에는 로일전쟁을 일으켜 남부싸하린과 중국의 료동반도, 대련, 려순항을 략탈하였다. 또한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기간에는 태평양의 여러지역을 강점하였다.

1931년에는 중국동북지방을 침공하여 괴뢰 《만주국》을 조작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다.

1936~1937년에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맺고 이에 기초하여 1940년에 침략적인 3개국《군사동맹》을 조작한후 1941년에는 태평양지역에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대동아공영권》의 구호밑에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쏘련군대와 련합전선을 실현하여 결정적타격을 줌으로써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제는 제반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1951년 9월 8일에 일본반동지배층과 단독《강화조약》 및 《일미안보조약》을 조작하였으며 일본을 본격적인 군국화의 길로 내몰았다.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1950년 7월에 7만 5천명의 침략무력으로 《국가경찰예비대》를 조작한후 그 명칭을 1953년 5월에 《보안대》로, 1954년 7월에는 《자위대》로 개칭하였다. 《자위대》침략무력은 극히 침략적이며 야만적인 군대로서 옛 《황군》의 악명높은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였는바 그 비률은 소장이상급에서 81.2%, 준장급에서 80.7%, 대좌급에서 79.3%, 중좌급에서 66.9%나 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재침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1962년 8월 《한일군사협력안》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조선출동의 길을 《개척》한 뒤를 이어 1963년 6월에는 악명높은 《세개화살작전》, 1964년에는 《날아가는독각전》, 1966년 9월에는 《달리는황소작전》들을 짰다.

특히 1965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침략적인 《일한조약》을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재침을 합법화하고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해외팽창책동을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1969년 11월에는 《닉슨—사또회담》을 벌리고 《남조선과 대만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직결되여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아세아침략을 본격화할 흉계를 꾸며냈으며 아세아전역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미친듯이 강화하여왔다.

군국화 파쑈화책동의 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7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국화 파쑈화를 다그치고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따라 미제와 더욱더 공모결탁하면서 《자위대》침략무력을 확대강화하려고 발광하고있다.

1971년 4월 27일에 사또일파는 군비확장과 해외침략전쟁준비를 위한 이른바 《제4차 5개년방위력정비계획》(1972—1976년)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놈들은 이 기간에 직접군사비만도 《제3차 방위력정비계획》의 2.4배나되는 무려 5조 8천억원이나 책정하고 30만에 달하는 《자위대》침략무력의 사단수를 더 늘이는 한편 《향토방위군》의 미명하에 100만의 군대를 무장시킬것을 계획하고 700만명에 이르는 징병대상자명단까지 짜놓았다.

특히 놈들은 《3차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는 《육상자위대》의 강화에 주력하여왔다면 이른바 《4차방위력정비계획》기간에는 《항공의 충실》을 도모한다는 구호밑에 타국을 침략하기 위한 《항공자위대》의 무력강화와 핵무장화에 력량을 집중하려고 획책하고있다.

1971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팽창을 위하여 전해에 비하여 군사비를 17.8%나 더 늘이고 《자위대》의 핵무장화와 《징병제》의 실시 등 제놈들의 《자위대》무력을 조선과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언제든지 내몰수있도록 《비상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도꾜를 중심으로 한 반경1천해리의 방위권》을 떠들어대면서 우리 나라와 중국 그리고 쏘련의 원동지방을 포함한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12월 국회에서 사또놈은 《현재 위협은 조선반도와 대만 등 신변가까운데 있다》고 웨치면서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렸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5월과 6월에 미제 7함대와 제놈들의 침략적해군무력을 동원한 《합동기동연습》을, 8월에는 122대의 헬리콥터와 2천대의 군용차량을 동원하여 수천명의 륙상《자위대》를 공중수송하는 일본력사상 《최대규모》의 《헬리풍작전》을, 9월에는 70여척의 군함과 수십대의 비행기, 1만 7천여명의 《자위대》를 동원한 대규모의 해상《자위대》군사연습 등 우리 나라 동해와 남해, 태평양선상에서 발광적인 전쟁준비소동에 날뛰였다.

이렇듯 침략전쟁준비에 피눈이되여 날뛰던 《항공자위대》소속 《에프—86》전투기는 7월 30일 정기항로에 침입하여 삿뽀로에서 도꾜로가는 《보잉—72》려객기를 공중에서 들이받아 거기에 탔던 손님들과 승무원 162명전원을 죽게한 일본항공력사상 《최대의 참사》까지 빚어냈다.

1971년 사또일파는 군사적수단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망상밑에 군비확장과 전쟁준비를 다그치는한편 사회정치생활의 군국화, 파쑈화를 다그치며 인민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손쉽게 끌어내기 위한 중요수단으로서 천황숭배사상을 퍼뜨리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놈들은 9월에 이미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특급전범자로써 처단되였어야 할 천황 히로히도놈의 구라파 7개국 행각을 조작한데뒤이어 11월에는 무슨 《기자회견》이란것을 벌려놓고 《제2차 대전패의 모든 책임은 수상에게 있다》느니, 뭐니하고 넉두리를 늘어놓게까지하였다.

또한 1971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와의 반동적결탁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6월 17일 사또일파는 일본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반대배격에도 끝내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기만적인 오끼나와 《반환협정》에 조인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데 뒤이어 6월 29일에는 《일미안보협의위원회》라는것을 벌려 《오끼나와를 방위한다》는 명색밑에 《자위대》침략무력을 오끼나와에 집중배치하려는 이른바 《오끼나와방위협정》을 조작했다.

특히 사또일파는 《미, 일, 한, 군사작전체제》를 보강완비하며 그 기초우에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발맞추어 7월에는 미국 《국방》장관 레어드란놈을 끌어들여 침략 및 전쟁문제를 가지고 궁궁이를 벌렸다. 궁궁이에서 레어드란놈이 《일본이 1970년대 극동방위의 핵심이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위대무력이 낡았》음으로 《무장장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웨치고 미국이 이를 적극 도울것이라고 한데 뒤이어 7월 13일에는 사또놈이 기자회견을 열어놓고 미일《안보협조》에 만족한다고 하면서 놈들의 침략무력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그것을 《근대무기로 장비할것》이라고 뇌까렸다.

10월에 사또놈은 국회에서 대미추종정책을 더 강화할것을 다짐하면서 미제침략군기지들은 오끼나와《반환》후에도 미제침략군에게 그대로 《제공할것》이라고 웨치는가하면 이른바 《소신표명연설》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범죄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꾸며낸 닉슨도당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명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일본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9～500페지)

1971년 일본인민들은 미일반동들의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파업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4월 28일 《오끼나와의 날》에 즈음하여 미일반동들의 침략적인 공모결탁을 반대하고 오끼나와의 강점을 종식시키며 《미일안보조약》의 페기를 요구하여 오끼나와와 일본의 전국 44개구역의 263개소에서 70여만명의 인민들이 시위와 파업투쟁에 나섰다.

7월에는 10여만명의 오끼나와로조원들이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성원밑에 《오끼나와반환협정비준반대》, 《일본군국주의반대》등의 구호를 걸고 총파업을 단행한데 뒤이어 전국의 31개도, 부, 현의 151개소에서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수십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집회와 시위 등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벌려 미일도당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같은 해 8월 22일 수만명의 일본인민들은 미제의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의 요꼬스까기항을 견결히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통하여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과 이에 추종하는 사또일파의 침략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

었다.

일본의 근로자들은 사또일파와 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투쟁을 벌렸다.

3월 14일부터 일본의 전국 221개지역에서 100만명의 근로자들이 삶의 권리를 위한 《봄철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여 놈들의 인민수탈정책에는 물론 미일반동들의 인도지나침략정책수행에 큰 타격을 주었다.

10월에 일본인민들은 《1970년대의 최대규모의 가을철투쟁》을 전국도처에서 벌렸다. 《가을철투쟁》에서는 국내인민들에게 군국주의사상으로서의 《천황숭배정신》을 불어넣으려고 1971년 9월과 10월에 구라파나라들을 싸다닌 천황 히로히도놈의 행각저지투쟁, 1967년 10월 8일 하네다비행장에서 사또놈의 남부웰남행각을 반대한 청년학생을 살해한날을 기념하는 제1차 하네다비행장기념투쟁, 오끼나와반환협정비준저지투쟁 등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처음부터 조직적인 폭력성을 띤 힘찬 투쟁을 벌려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제, 사회

일본경제는 제2차대전후 미제의 비호하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게 장악되여있다. 특히 일본독점자본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과 웰남침략전쟁을 통한 군수품생산으로 또다시 배를 불리였다.

일본독점자본의 부활은 미제의 침략전쟁주문에 의하여 주로 강철공업, 전력공업, 자동차공업, 전기기계공업, 전자공업, 화학공업 등 군국주의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부문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였다. 이리하여 벌써 1955년에는 공업생산이 제2차대전전 수준으로 회복되였고 1964년에는 1934—1936년 수준의 5배에 도달하였다.

전후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경제의 군사화는 중공업의 집적과 집중에 의하여 촉진되였다. 선철, 자동차, 동, 알루미니움 등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80%가 해당부문의 5개독점기업체들에 집중되여있으며 약 20개의 대규모적인 독점기업체들이 군수생산의 80%를 통제함으로써 그의 집중화는 급속히 진척되고있다.

또한 일본 전체 회사수의 0.2%에 불과한 독점기업체들이 전체 회사자금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대독점체들은 주요산업부문을 완전히 틀어쥐기 위하여 합병과 재편성을 다그치고있는데 1971년 4월에 일본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들인 야하다제철과 후지제철은 합병하여 2천 293억원의 자본을 가진 대독점강철공업회사로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을 증강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한편 자체의 군수공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고있다. 놈들은 《장비의 자국개발 및 국산화추진》방침에 따라 《미쯔비시중공업》, 《가와자끼중공업》을 비롯한 대독점체를 중심으로 90여개 회사를 망라한 《병기공업회》에 주로 의거하면서 더 많은 민간기업소들을 군수기업체로 전환시켰다. 례하면 무기생산에 종사하지 않고있던 《닛싼》자동차회사에 지상대공중미싸일을 주문하였으며 모든 민용항공회사들로 하여금 자기 생산량의 20～30%를 의무적으로 군용엔징을 생산케 하였다.

최대한의 리윤을 위한 무정부적인 과잉생산으로 팽창할대로 팽창한 일본독점자본은 오늘 새로운 안정된 대외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는 살아나갈수 없는 심각한 모순에 부닥치고있다. 일본공업은 석유의 99%, 철광석의 90%, 동 광석의 70%를 비롯한 중공업원료의 70～10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료원천지와 판매시장의 절박한 해결을 위한 출로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이른바 《무상증여》, 《배상지불》, 《정부차관》, 《년불수출》 등의 간판밑에 침략과 경제적침투에서 찾고있다.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위하여 《아세아개발 10개년계획》이라는 략탈기구를 조작한후 해외자본수출 총액의 50%를 아세아에 투자하고있으며 《원조자》의 탈을 쓰고 경제적침략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만도 근 200여개의 각종 상사들과 기업체들을 꼬치하고있으며 타이, 남부웰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값싼 로동력을 략탈하고있다. 특히 석유, 동, 쇠돌, 니켈, 주석, 고무, 우라늄광 등의 전략물자와 식량, 식료품원료략탈에 1차적 힘을 넣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70년대에는 일본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시대》라고 하면서 이 지역을 《우선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있으며 중근동지역에서는 총원유수입량의 90.4%를 략탈하고있다.

또한 50여개의 독점체들이 브라질, 아르헨띠나, 도미니까 등 10여개의 나라들을 거점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침투하고있는데 1969년에는 5억 1천 300만딸라(1965년의 5배)의 자본을 투자하였으며 9억 4천 400만딸라분의 상품을 수출하고 막대한 초과리윤을 짜냈다. 특히 이지역에서 목화, 양털을 헐값으로 사오고는 면직물을 투매하여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1971년 일본에서는 소비품값이 1965년에 비하여 146.2%로 뛰여올랐다. 1971년에 식료품값과 대중소비품값이 8.4%, 물고기와 해산물값은 21%, 남새값은 6%나 뛰여올랐다.

1971년에 교통사고로 1만 6천 278명이 죽었는데 1969년이래 3년간 매해 1만 6천명이상이 죽었다.

또한 불비한 로동조건으로 매일 평균 20명의 로동자들이 죽고있으며 해마다 160만명의 로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된다.

【출판보도】 통신 교도통신, 지지통신, 재팬 프레스, 니홍뎀빠, 기깐시통신

신문 아까하다(일본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산께이신붕, 도꾜신붕, 리홍게이자이신붕, 샤까이신뽀(주간, 사회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42페지)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은 우리 나라와의 친선관계를 맺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조협회(1951년 결성), 일조무역회(1956년 결성), 일조자유래왕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재일조선인 인권옹호회,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민족교육을 지키는 중앙련락회의,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조선연구소 등을 조직하였다.

1971년 11월 16일 도꾜에서는 일본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조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결성되였다. 이 련맹에는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 출신 중의원 및 참의원 량원의원들 전원과 참의원의 《의원구락부》소속 의원전원, 공명당, 민주사회당, 자유민주당출신 중의원 및 참의원 량원의원들의 일부 등 도합 234명이 망라되였다.

이 련맹은 규약(전문14조)에서 사업목적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우호를 촉진하며 국교를 수립》

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기관지 《일조의원련맹자료월보》를 발행할것을 규정하였다.

1972년 2월 8일 도꾜에서 각 로조단체 대표들이 《일한조약의 페기》와 《조선민족의 통일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하고 《일조 두 나라 사이에 국교회복》과 《일조로동자들의 우호친선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하며 일조로동자들간의 교류, 사회주의 조선에 대한 학습과 소개, 일조로동자들간의 자유래왕촉진 등을 당면과업으로하는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략칭 일조로련회의)를 결성하였다.

1970년에 일본력사서적출판사 《미라이샤》와 《유잔가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에 찬 투쟁력사를 수록한 《김일성전》을 출판하였다.

또한 《미라이샤》출판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인 혁명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려는 광범한 일본사회계의 념원과 요구를 반영하여 1970년 10월부터 1971년 4월 사이에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번역편집한 《김일성저작집》 전 5권을 출판하였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13편을 묶은 《혁명적문학예술론》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30제목을 묶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1930년대의 항일무장투쟁기록》이라는 책을 《미라이샤》가 출판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이 달성한 성과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조선》이라는 216폐지에 달하는 책을 《신니홍》 출판사가 출판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아사히신붕》 편집국장(9월)과 교도통신사 기자(10월)를 만나시고 현국제정세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정책과 조일관계 그리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일본의 90여개 신문, 통신들이 보도하였으며 각 당, 사회계인사들은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아홉돐을 맞으며 4월 10일에 일본학자들이 도꾜에서 《김일성저작연구회》를 뭇고 제1차연구모임을 가졌으며 4월 15일에는 아이찌현에 있는 아이찌대학생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회》를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고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 해에 일본의 사회활동가, 학자, 대학교수, 인테리 등 각계각층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이 연구됨으로써 그이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은 더욱더 두터워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일조협회와 사회당 위원장, 니이가다시장, 니이가다현 의회의원대표, 니이가다시의회의원대표, 학자들을 비롯한 각계인사들로부터 수령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보내왔다.

또한 요꼬스까시와 시오가마시에서는 경축모임을 가졌으며 도꾜지방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들은 합동연구회를 진행하였다.

《유잔가꾸》출판사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단행본으로, 《미라이샤》출판사에서는 회상실기 《인민들속에서》를 출판하였다.

1971년 3월에 일본의 민주주의적인 77개 정당, 사회단체들로 무어진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민족교육을 지키는 중앙련락회의》는 대표자회의를 가지고 사또일파가 재일조선공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파쑈악법인 《출입국관리법》을 조작하려는 것을 항의규탄하였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일조협회 제16차정기전국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1년간의 운동방침을 토의결정하고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요청서를 사또정부에 드리댔으며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를 채택하였다.

1970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사회당대표단(8월), 《미라이샤》와 《유잔가꾸》출판사사장들이, 1971년에 일조인민친선대표단과 《아사히신붕》편집국장(9월), 도꾜도지사와 그 일행 및 교도통신사기자(10월), 《요미우리신붕》론설위원회 고문과 그 일행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일본으로부터 일조협회사무국장(8월), 로동조합총평의회대표단과 학자대표단, 체육협회대표단(9월), 《재펜프레스》통신사 편집국장, 일조과학협력위원회대표단(10월), 《니홍게이자이신붕》기자, 《마이니찌신붕》기자, 《요미우리신붕》기자, 《니이가다닛뽀》 기자, 《엔 에취 케이뉴스》기자, 도꾜방송기자, 《엔 이 티 텔레비》기자, 일조협회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동남아세아, 태평양의 서부에 자리잡고있으며 7천 10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사람이 사는 섬은 약 740개(가장 큰 섬이 루손섬)이다. 령토의 약 40%는 산림이다.

년평균기온은 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600～1천mm이다.

【면적】 29만 9,404km²

【인구】 3,849만명(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필리핀인이며 그밖에 필리핀인과 에스빠냐인과의 혼혈인들이 있다.

국어는 타갈로그어이나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통용된다.

【수도】 케손(주민 97만 1,637명)

1948년에 수도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소재지는 아직 마닐라이다.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965년 12월—), 외무상 로물로, 국방상 폰수 엔리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 1957년에 비법화, 총비서 헤수스라바. **사회당, 진보당, 자유당, 국민당**(집권당), **민족주의공민당, 사회민주주의전선, 로동조합협회, 자유로동조합회**

정 치 1570년대부터 약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 결과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2년 5월 일제에 강점되였다가 제2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7월 4일에 미제침략자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구실밑에 필리핀헌법에 《평등권법안》(미국인이 자연부원개발, 공공사업분야에서 필리핀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을 첨가시키고 그후 《무역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조약》 등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협정을 강요하여 필리핀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필리핀에 약 30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아세아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있다.

미제는 1970년 5월 캄보쟈침략 이래 이 나라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확장하였으며 클라크공군기지에는 공수사령부를 설치하고 1970년 7월부터는 이

기지의 공수능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필리핀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 아스파크(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 아세안(동남아세아국가련합)성원국이다.

필리핀반동정부는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으로서 계속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필리핀인민들은 미제와 반동지배층을 반대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은 중부루손섬에서 점차 넓은 지역으로 무장투쟁을 확대하면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

애국적무장력은 1971년 첫 넉달동안에만도 적군 253명을 죽이고 70명의 괴뢰자위대, 악질관료배, 지주들을 처단하고 90정의 무기를 빼앗아 인민들을 무장시켰다.

각계층인민들도 《양키는 우리 땅에서 물러가라》는 전투적구호밑에 반미반정부투쟁을 강화하였다.

1971년 1월 8일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휘발유값인상을 반대하여 파업파시위투쟁을 시작한 마닐라시 운수부문로동자들의 투쟁은 학생청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반미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여 1월 13일에는 학생들의 류혈적인 폭동이 일어났으며 1월 22일에는 미국놈의 석유회사 사무소폭파사건이 있었다. 2월 17일 다바오시에서는 미제의 간첩소굴인 《공보원도서관》을 소각하고 3월 14일에는 미제침략군의 클라크공군기지근방의 야간유흥장을 폭파시켰다. 4월 30일 케손시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만들어놓은 《필리핀—미국친선동상》을 파괴하였으며 5월 1일에는 마닐라시에서 로동자, 학생들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리면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사탕수수, 코프라, 마닐라삼, 벼, 강냉이, 고무 등이다.

지하자원은 쇠돌, 석유, 동, 망간, 크롬, 금 등이 있으나 이것들은 미제와 일본독점체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불평등조약을 통하여 필리핀의 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으며 미국상품은 관세없이 자유롭게 들어올수 있다.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동남아세아에 대한 미국투자총액의 60%를 차지한다. 투자규모는 약 10억딸라인데 5년간에 이 나라에서 짜내는 리윤총액은 10억딸라를 넘는다.

석유, 동, 쇠돌 등 전략자원들의 채굴은 미제독점자본의 수중에 있으며 야금공업, 화학공업, 고무공업, 직물공업, 사탕공업은 외국독점체들의 통제하에 있다.

최근년간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여 필리핀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의 60%를 차지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무역으로 해마다 2억~3억딸라의 무역적자를 내고있다. 1970년에 대외부채총액은 1967년의 2.5배로 늘어났다.

1971년에 실업자는 300만명이였다.

대학졸업생의 3분의 1이상이 반실업자로 되고있다.

아세아의 최대의 기독교국(인구의 93%가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필리핀보도(국내보도사)

신문 앙그 바얀(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데일리 스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에 필리핀사회당 부위원장과 필리핀《데일리 스타》지 기자, 11월에는 필리핀전국로동조합협회 대표가 우리 나라를 각각 친선방문하였다.

브루네이

(영국《보호령》)

칼리만탄도의 북부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500~3천 500mm이다.

【면적】 5,765km²

【인구】 12만 7,000명(1970년)

주민은 말라이족, 다얀족 등 원주민과 화교이다.

공용어는 말라이어

【행정중심지】 브루네이(주민 약 3만 4,000명)

【추장】 하싸날 볼키아흐(1967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브루네이인민당 1956년 8월에 창건, 북부칼리만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아자하리. 브루네이련맹, 민족통일혁명전선

정 치 원래 오늘의 북부칼리만탄전지역이 브루네이였다.

1613년이후부터 이 지역을 침입하기 시작한 영식민주의자들은 1846년에 사라와크를, 1877년에는 사바흐를 떼내여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1888년에는 다시 브루네이를 《보호령》으로 만들어 3개지역으로 분할 통치하였다.

1959년 9월부터 국방, 외교, 치안문제를 제외한 자치를 실시하여오다가 1971년 11월 23일부터는 대내적으로 독립을 얻었다. 최고통치자로서 추장이있으나 권력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1963년 8월 말레이시아련방조직당시 브루네이는 석유수익분배에서의 의견불일치로 련방에 가입하지 않았다.

브루네이인민들은 1962년 12월 8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의 지도하에 영제국주의자들의 말레이시아련방구상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1963년 1월 1일에는 아자하리를 수상으로 하는 북부칼리만탄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민족해방군은 브루네이에서뿐만아니라 북부칼리만탄 각지에 해방지역을 설치하고 영식민지통치에 타격을 가하고있다.

경 제 경제의 기본은 석유채취업이다. 전체로동자수의 4분의 3이 이 부문에서 일한다. 세리아유전에서는 매일 6만 8천바렐 생산되며 최근년간 해저유전개발을 실시하고있다. 석유는 매년 약 500만t 생산하는데 95%는 수출한다. 천연가스,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주요농산물은 벼, 야자, 고무 등이다. 고무는 매해 약 1천여t 수출하나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1만 3천 67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이다. 적도무풍지대에 있기때문에 태풍은 없다. 년평균기온은 25~27°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약 2천 400mm이다.

【면적】 190만 4,345km²

【인구】 1억 2,424만명(1971년)

다민족국가로서 쟈바족(7천 600여만명), 순다족, 마둘라족 등 100여개의 종족이 있다. 화교는 300만명 있다.

국어는 인도네시아어이나 영어도 통용된다.

【수도】 쟈까르따(주민 577만 6,000명)

【림시인민협상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대통령선거, 헌법제정 등을 한다.

협조국회의원전체와 지역대표, 직능그루빠대표로 구성한다.

【협조국회】 총의석 460석중 대통령이 100석(그중 75석은 군대)임명, 360석은 선거. 직능그루빠, 정당대표 지역대표로 구성

【정부】 대통령 수하르또 (1968년 3월—, 국방상 및 안전상 겸임), 외무상 아담 말리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1965년 《9월 30일 운동》후 비법화. 회교승려협회, 인도네시아회교당, 회교련합당, 민족당, 기독교당, 카톨릭당, 뻬르띠회교당, 무르바당, 독립옹호자련맹, 회교로동자련맹, 인도네시아조선쟈까르따친선협회 1958년 9월 결성.

정 치

1800년부터 화란식민지로 있다가 1942년 8월에 일제에 강점되였다. 일제의 패망후인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46년부터 화란식민주의자들의 재침책동으로 4년간의 류혈적인 전쟁이 있었다. 1949년 11월 《헤그협정》에 의하여 주권이 인도네시아로 넘어왔다.

1950년 인도네시아련방 림시국회는 《단일국가헌법초안》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54년 8월에는 《화란—인도네시아련방》에서 탈퇴하였다. 1963년 5월 1일 서부이리안에 대한 화란의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넘어왔으며 1969년 8월 16일 정식으로 인도네시아령토로 선포되였다.

1965년 9월 30일에 일어난 《9월 30일 운동》을 계기로 우익반동세력은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검거, 투옥학살하였다.

1966년 3월 수카르노대통령의 정부가 해산되였으며 치안을 주로 한 대통령권한이 수하르또에게 이양되였다. (1968년 3월 정식 대통령으로 승격)

1966년 9월 인도네시아정부는 1965년에 탈퇴한 유엔에 다시 들어갔다. 1967년 1월에는 《외자도입법》을 채택하였다. 이해 8월에는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동남아세아국가련합》을 결성하였다.

1969년 11월 국회는 공산당원, 《9월 30일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 금지된 조직의 성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총선거법안》을 채택하였다.

1971년 7월 3일 16년만에 처음으로 협조국회선거를 진행하였다. 선거결과 정부의 정치단체인 직능그루빠(세끄배르 골까르)가 236석, 회교승려협회 58석, 인도네시아회교당 24석, 민족당 20석, 회교련맹당이 11석, 나머지는 카톨릭당, 기독교당, 뻬르띠회교당이 차지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새로 개조하였다.

경제, 사회

총인구의 72%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은 국민소득에서 4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키니네, 야자, 사탕수수, 담배, 쌀, 콩, 감자 등이다. 고무, 종려, 야자, 담배, 코코아, 차 등의 재배면적은 약 1천 700만 정보에 달한다. 생고무는 년산 약 70만t으로서 이 나라의 주요 외화원천으로 되고있다. 쌀은 년산800~900만t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해 약 100만t씩 수입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주석, 석유, 쇠돌, 석,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동, 은, 크롬, 아연 등이 있다.

정부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미제와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가 급속히 강화되고있다. 1967년에 미제와 일본독점체들은 쟈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연해의 해저유전개발계약에 조인하였다.

일본독점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목재탐사권과 채취권을 얻었으며 압연강 가공기업체를 비롯한 각종기업체들을 쟈까르따를 중심으로 하여 도처에 세우고 있다.

1967년에 석유는 2천 426만t, 주석은 13만 8천t, 보크사이트는 91만 2천t, 니켈은 17만 1천t 생산되였다.

1969년에 농업에 중점을 두는 5개년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1971년 8월에 루피아를 10% 평가인하하였다.

고무, 석유, 주석, 담배, 코프라, 차, 커피 등 농, 광산물을 수출하고 쌀, 밀가루와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1968년에 실업자, 반실업자수는 1천 800만명이였다.

소학교학생수는 1천 180만명(1968년)이며 대학생수는 10만명이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통신(국영), 민족통신

신문 베리따 유다(군대신문), 안뻬라 레뷰, 쟈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무소속신문), 와르따 하리안, 와르따 베리따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4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인도네시아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련방)

말레이시아련방에는 말라이반도의 남쪽에 있는 말라이와 칼리만탄섬의 북부에 있는 사라와크 및 사바호가 속한다. 계절의 변화가 명확치않으며 년평균기온은 22~34°C, 년평균강수량은 6천mm이다.

【면적】 32만 9,067km²(그중 말라이 13만 2,287km², 사라와크 12만 1,668km², 사바호 7만 6,112km²)

【인구】 1,080만명 (1971년 12월)그중 사라와크 95만명, 사바호 64만명

주민은 말라이인(44%), 중국인(37%), 인도인(10%) 등이다.

국어는 말라이어이다. 중국어, 영어, 타밀어 등이 쓰인다.

【수도】 쿠알라 룸뿌르(주민 50만명)

【국왕】 아브둘 할림 샤호(1970년 9월—), 각 주 추장의 합동회의에서 선출, 임기 5년

【련방의회】 상하량원제, 상원 58석중 32석은 국왕이 임명, 26석은 주의회에서 선출. 하원 144석중 말라이 104석, 사라와크 24석, 사바호 16석

【중앙정부】 수상 뚠 아브둘 라자끄(외무상, 국방상 겸임, 1970년 9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총비서 진평. 련합당(집권당), 민주행동당, 전말라이회교도당, 인민진보당, 로동당, 인민당, 인민운동, 사라와크국민당, 사라와크인민련합당, 사바흐련맹당, 로동조합회의

정 치

1895년에 말라이가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말라이는 제2차대전시 일제의 군정을 거쳐 1946년에 또다시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957년 8월 31일 말라이는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현재 이를 민족적명절로 한다)

1963년 9월 16일 말라이 11개주, 싱가포르, 사바호, 사라와크를 각각 1개주로하여 도합 14개주로써 말레이시아련방을 선포하였다. 그후 싱가포르는 정치적 민족적 및 경제적 리해관계로 하여 1965년 8월 9일 《련방》에서 떨어져나갔다.

1969년 5월 13일 말라이인, 중국인간의 인종대립이 폭발하여 인종폭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국

가운영리사회》가 조직되였다.

1971년 2월부터 련방의회를 재개하였다.

1970년 9월 수상으로된 라자크는 자기의 정책연설에서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은 《중립》과 동남아세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동남아세아의 중립화》의 《보장》이라고 말하였다.

경 제 주산물은 고무와 주석이며 그 생산량은 세계 제1위로서 세계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있다.

고무재배면적은 말라이에서만도 총경작지의 67%에 달하며 말라이로동자총수의 절반이상이 여기에서 일한다. 1968년에 고무는 말라이에서만도 104만t, 주석은 9만 9천 863t 생산하였다. 고무는 매해 100만t 수출한다.

공업은 주석, 석탄, 쇠돌 등 채굴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미, 일, 영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주로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고무, 주석, 목재, 쇠돌, 종려기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일본, 영국, 쏘련 등이다. 미제는 말레이시아고무를 눅은값으로 략탈하여 국제시장에서 비싼값으로 팔아먹는다. 교육수단으로는 말라이어, 영어, 중어, 타밀어가 사용된다. 학생수는 약 180만명이다.

일반적으로 말라이인은 회교, 중국인은 불교, 기독교, 인도인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르남(1968년 5월 시작)

신문 웃산 말라유

싱가포르

(싱가포르공화국)

인도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지점에 있다.

말라이반도의 남쪽끝에 있는 싱가포르섬을 비롯한 몇개의 섬들과 인도양에 있는 로쥐제호르보섬으로 이루어졌다.

열대성기후로서 최고기온은 31°C, 최저기온은 24°C이며 년강우량은 2천 500mm이다.

【면적】 585km²

【인구】 210만명 (1971년)

주민은 중국인(74.4%), 말라이인(14.5%), 인도인, 파키스탄인이다.

공용어는 중국어, 영어, 말라이어

【수도】 싱가포르(주민 154만 9,000명)

【국회】 일원제, 1968년 4월 13일 총선거실시, 총의석 58석을 인민행동당이 차지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 (1971년 1월—)

【정부】 수상 리관유(1965년 8월—), 외무상 예쓰. 라쟈라트남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 (집권당), 사회주의전선, 로동당, 통일인민당, 전국로동조합회의

정 치 19세기초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던 싱가포르는 1867년 말라이와 함께 영국의 직할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 일제에 강점되였다가 일제의 패망후인 1946년 4월에 말라이에서 분리되여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싱가포르는 1959년 6월 영련방내의 《자치국》으로 되였다. 1963년 9월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주로 편입되였다가 1965년 8월 9일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다. 12월 싱가포르공화국독립법안을 가결하고 1966년 8월 9일에 공포하였다. 영련방성원국이다. 싱가포르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해군기지 한개와 공군기지 세개가 있다.

경제, 사회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되고있어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국민소득의 80%이상이 무역과 관련된 경제부문으로부터 얻어지며 공업과 농업은 불과 10%정도이다. 독립후 싱가포르정부는 식민지통치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의 기형성을 청산하고 자립적인 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남서부에 쥬롱공업지구를 개설하고 강철공장, 조선소, 세멘트공장, 직물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최근년간 싱가포르에 대한 일본독점체들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일본독점체들은 싱가포르에서 석유채취권을 얻었으며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있다.

대학은 싱가포르대학, 남양대학이 있으며 그밖에 700개의 각급학교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사회주의전선기관지), 명보, 심명일보, 남양상보, 신평일보, 성주일보, 인터내슈널뉴스, 민과오아베나, 스트레이츠 타임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 13일 무역협정이 체결되였으며 평양과 싱가포르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9년 11월 28일 총령사관계가 설정되였다.

1971년에 싱가포르의 《성주일보》, 《남양상보》를 비롯한 많은 신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천재적로작들을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신문 《심명일보》는 그이께서 1972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신 신년사의 전문을 실었다.

1968년 9월 싱가포르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11월 3~16일까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에서 인민들의 대절찬속에 공연하였다.

타 이

인도지나반도의 중부, 라오스, 캄보쟈, 버마, 말레이시아련방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국토의 60%는 산림이다.

열대성기후로서 장마철과 가물철로 구분되며 년평균기온은 27°C이다.

【면적】 51만 4,000km²

【인구】 3,700만명(1971년 12월)

주민은 대부분이 타이족이며 그외 화교, 말라이족, 크메르족 등 20여개 민족이 있다.

국어는 타이어

【수도】 방코크(주민 320만명)

【국왕】 푸미폰 아둘랴디트(1950년 5월—)

【혁명리사회】 1971년 11월 17일 정변후 국회가 해산되고 조직되였다.

【정부】 수상 겸 외상 타놈 키티카촌(1971년 11월—), 국방상 프리파스 챠루사티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에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조직된 반미반정부조직. 국민련합당(집권당), 민주당, 자유당, 애국로동자련맹, 애국청년조직, 민족해방전선 1970년 10월 19일 타이애국적무장력의 영향을 받는 회교도세력이 중심이 되여 결성.

정 치 1932년 6월 24일 타이는 전제군주국으로부터 립헌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5월 20일 나라이름을 타이(전에는 샴)로 고쳤다.

1941년 12월 타이는 일제와 《군사동

맹》을 맺고 일제의 아세아침략에 적극 가담하였다.

타이는 1950년에 미제와 《군사원조협정》, 《경제기술협정》을 맺었으며 1954년에는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제는 타이에 30여개의 공군기지, 20여개의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5만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으며 방코크에는 세아토본부가 있다. 이리하여 타이는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동남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군사작전기지로, 인도지나에로의 살인무기반입을 위한 교두보로 전변되였다.

타이반동지배층은 1960년에 미제와 한짝이 되여 라오스에 침략군을 투입하여 라오스반동들과 함께 비엔티안을 공격하였으며 1966년부터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고용병을 계속 파견하여 웰남인민의 학살만행에 가담하고있다.

타이반동들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유엔군》의 미명하에 계속 침략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타이인민들은 미제와 반동지배층을 반대하여 애국전선의 지도밑에 1965년 8월 7일 나콤 파놈주의 타르 파놈군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71년 8월까지의 6년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동북부에서만도 혁명력량은 4천 500여명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이 기간 애국적무장력은 전국 령토의 절반이 넘는 150여개군의 지역에서 전투를 벌려 6천여명의 미제와 타이반동군대 및 경찰들을 소멸하였으며 150여대의 비행기를 쏴떨구고 수많은 군용차를 까부셨다.

1971년 전국 각지의 무장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최고사령부가 설치되였다.

타놈도당은 《전략촌》을 만들어 애국적무장력을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하는 한편 1971년 11월 17일에는 군사정변을 일으켜 국회와 내각을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하고 제놈의 주구들로서 새내각을 꾸리는 일대소동을 벌렸다.

경제, 사회 주민의 85%는 농업을 하며 국민소득의 약 80%는 농업에서 얻는다. 경지면적은 약 620만정보인데 대부분이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1968년에 1천 120만t 생산), 고무, 옥수수,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주석, 텅그스텐, 연, 안티몬, 금, 은, 쇠돌, 망간 등이다.

공업에는 취업인구의 약 3%가 종사한다.

타이경제는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으며 타이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원료공급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되고있다.

타이에서 매국적인 《산업투자장려법》을 조작한 1962년이래 《공동개발》, 《투자》의 간판밑에 《원조자》의 탈을 쓰고 본격적으로 기여든 일본독점자본은 타이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의 40%로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화학, 섬유, 기계, 금속, 다이야, 식료공업부문에 침투한 50여개의 일본독점회사들은 타이매판자본가들과 《합병회사》를 만들어 타이민족자본을 억누르고 시장을 독점하고있다.

일본독점체들은 타이에 150여개의 공장과 사무소를 설치하고 동남아세아에 대한 경제침략의 거점으로 삼고있다. 놈들은 방코크에 《일본인구역》까지 만들어놓고 《치외법권》을 행사하고있다.

1969년 타이수입품중 철판, 강판의 97%, 화물차의 89%, 섬유의 83%는 일본상품이였다.

1968년부터 일본에 대한 타이의 무역적자는 해마다 2억 5천만딸라를 넘고있는데 1969년에는 1957년의 7배를 넘었다. 1970년까지 3년동안에만도 그것은 타이외화보유총액을 초과하였다.

예산지출의 절반이상이 군사경찰비로 지출되며 재정수입의 90%이상은 인민들로부터 수탈하는 세금으로 충당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산 세, 방코크 포스트

버 마

(버마련방)

인도지나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60%는 산림지대이다. 기후는 열대 및 아열대에 속한다. 년평균기온은 20°C, 년평균강수량은 1천mm이상이다.

【면적】 67만 8,033km²

【인구】 2,887만명(1971년 12월)

주민의 약 64%가 버마족이며 기타 샨족, 카친족 등 소수민족들이 있다.

국어는 버마어이나 영어가 많이 쓰인다.

【수도】 랑군 (주민 185만 4,897명)

【혁명리사회】 1962년 군인들로 조직되였으며 립법권을 행사한다. 의장 네윈

【정부】 수상 겸 국방상 네윈(1962년 3월—), 외무상 조 쇼

【정당, 사회단체】 1964년 3월이후 사회주의로선당이외의 정당은 모두 금지되였다.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인민로동자리사회 유일한 로조단체, 농민리사회, 버마조선친선협회 1963년 8월 14일 결성, 위원장 우옹 루윈

정 치 1885년부터 영식민지로 있던 버마는 1942년에 일제에 강점되였다.

1944년 8월 일제를 반대하는 각당파들의 통일전선체인 반파쑈인민자유련맹이 조직되였으며 1945년 3월에는 전국적인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이해 3월 27일에는 민족군이 창건되였으며 버마인민들은 이날을 《항쟁의날》, 《무력창건의날》로 기념하고있다.

버마인민들은 일제패망후 버마를 다시 강점한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1947년 7월에 첫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1월 4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버마독립스물네돐에 즈음하여 혁명리사회 의장 네윈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독립후 버마인민이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하며 민족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1955년에 버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방위협정》을 폐기하고 제국주의적《관세특혜제도》로부터 떨어져나왔다.

1962년 2월에 버마군총사령관이던 네윈이 우누정권을 뒤집어엎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헌법정지로 공식적인 국가정체에 대한 규정이 없음)군인들로 혁명리사회와 내각을 조직하였다. 이해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사회주의에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7월 4일에는 《사회주의로선당》을 조직하였다.

1963년에 정부는 버마에서 오래동안 파괴활동을 감행하던 미제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포드기금》과 《아세아기금》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였다. 이에따라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업기업소들과 은행들을 국유화하였다.

이해에 림업의 국유화를 선포하였으며 1966년에는 파운드 블럭에서 탈퇴하였다.

1971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1차대회에서는 당을 강화하며 민족적통일을 이룩할것이 강조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엄정 중립정책》을 실시할것과 새로운 헌법을 만들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네윈이, 총비서로 산유가 각각 재선되였다.

7월 11일에 버마에서는 버마민족 및 소수민족대표 30명으로 혁명리사회 자문기관이 구성되였으며 15일에는 네윈이 수상과 국방상직을 담당하는 새정부가 구성되였다.

경제, 사회 농업에는 주민의 약 80%가 종사하고있으며 세계적인 벼생산국으로 알려지고있다. 농경지는 약 861만 2천정보인데 대부분이 논이다. 벼는 해마다 600~700만t 생산된다.

주요농산물은 벼, 땅콩, 황마, 목화, 콩, 사탕수수, 밀, 담배 등이다. 1971년현재 버마에는 공급—판매적기능만을 수행하는 1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있다.

지하자원은 월프람, 연, 탕그스텐, 석유 등이다. 고무나무, 종려나무, 찌크나무 등 목재자원이 많다.

공업은 대부분이 농산물과 림산물의 가공공업이다.

1969년에 민족경제법을 공포하여 외국인 소유의 은행과 회사 및 기업소들을 전부 국유화하였으며 1971년현재 정부는 산림자원의 채벌 및 원유의 채취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있으며 채취공업의 80%, 가공공업의 60%를 국유화하고 대외무역과 국내도매상업을 국가가 통제하고있다.

1971년부터 《경제적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경제적기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경제발전 첫 4개년계획(1971—1975년)에 착수하였다.

1971년 버마는 7개의 방직기업소, 45개의 식료공업기업소, 8개의 화학공장, 3개의 야금공장, 1개의 기계공장을 포함한 69개의 공업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1964년부터 정부는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촌인구의 47%(1971년현재)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워킹 피플즈 데일리(혁명리사회기관지), 룩따버뚜네썽(정부기관지), 가디언, 한사워디, 제몽, 만마아링, 메따모, 랑군데일리, 슈마웅, 보다더웅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0월 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58년 3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랑군에 개설되였다. 1961년 5월에는 령사관계협정을 맺었으며 우리 나라 령사관이 랑군에 설치되였다. 1963년 8월에 버마조선친선협회가 조직되였다.

1971년 11월현재 버마에는 《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녀성소조》,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를 위한 교육과학위원회》들이 각지에 조직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고있으며 이 조직들에서는 그이의 혁명력사와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1971년 1월—11월까지만도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를 비롯한 여러곳의 인쇄소들에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 14종 25만부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실은 《가디언》, 《한사워디》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들의 발행부수는 85만부에 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잡지《두니녀빠》 4월호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의 상세한 요지를 실었으며 버마의 작가이며 기자인 마웅 네윈은 《영광스러운 불멸의 혁명업적의 60년》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1971년 5월 25일 랑군시에서 버마련방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해 12월에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 버마인민들의 대절찬속에서 공연하였다.

네 팔

(네팔왕국)

히말라야산맥의 산기슭에 있으며 중국, 인도와 린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900m를 넘는 산악지대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3,000mm이다.

【면적】 14만 700km²

【인구】 1,128만 9,000명(1971년9월)

주민은 쿠르카족, 네와르족, 라나족 등이다. 국어는 네팔어이며 힌두어와 영어도 통용된다.

【수도】 까트만두(주민 33만 3,000명 1971년)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 데바(1972년 1월—)

【전국참사회】 일원제 립법기관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

【정부】 수상 키르티니디 비스타(1971년 4월—), 외무상 갸넨드라 바하두루 까르끼, 국방상 부드하르키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이래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 1949년 9월 창건 (비법화). **네팔청년단체, 네팔조선친선협회** 1957년 9월 19일 창립,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정 치 1816년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된 네팔인민들은 근 1세기동안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1923년에 영제국주의자들과 《영구평화 및 우호조약》을 맺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1년 2월 18일 네팔인민의 전국적봉기로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충실한 주구 라나군사독재정권이 전복되고 립헌제가 선포되였다.

1962년 12월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당이 없는 참사회(지방정권기관)의 민주주의적체계》를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왕의 실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3년 5월에는 국가리사회를 창설하였다.

1971년 4월에 새로 임명된 비스타 수상은 전국에 보내는 방송연설에서 《공업 및 농업생산을 장성시킴으로써 네팔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게 할》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시종일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9월에 네팔왕국은 민주독일과 령사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0%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경지면적은 약 456만정보(55%가 논)인데 남부지방에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강냉이, 콩, 감자, 목화, 황마, 담배 등이다. 농민들은 산이 많은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하여 중소저수지들을 건설하여 농업발전에 리용하고있다.

지하자원은 동, 쇠돌, 운모, 대리석, 석탄, 아연, 금, 은, 석유 등이다. 산림자원과 수력자원도 많다. 무역은 인도를 통하여 실현한다.

교육은 네팔어로 실시한다. 주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도와 불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마더랜드, 마뜨리푸미, 피샤파르리카, 코머너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11일 무역관계와 령사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총령사급의 령사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 5일 까트만두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모임의 참가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편지를 보내여왔다.

1971년 11월 현재 네팔에는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수상로작편집부》등이 조직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여러차례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네팔의 신문들과 잡지들은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실었다. 1970년에 네팔왕국정부친선대표단(12월), 청년단체대표단(9월), 기자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는 네팔사회활동가 부부(10월)와 네팔전국참사회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네팔청년단체대표단(6월)이 우리나라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사회과학자대회에 네팔기자협회회장이 참가하였다.

부 탄

(부탄왕국)

히말라야산맥의 동남부고원지대인 네팔의 동쪽, 인도의 북쪽, 중국의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국토의 70%는 산림지대이다.

【면적】 4만 6,600km²

【인구】 80만명

주민은 보티아스족 80%, 네팔족이 20%이다.

공용어는 티베트어

【수도】 푸나카(겨울수도), 팀부(여름수도)

【국왕】 지그므 도르지 왕츄크(1950년 10월—)

【정부】 국왕이 수상을 겸임한다. (1968년 5월—)

정 치 1810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47년 8월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제국주의자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1949년 8월 조약으로 부탄은 인도로부터 데완기리지방의 반환과 매년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국방 및 외교권을 인도에 넘겨주었다. 1971년 5월 인도에 첫 외교대표부를 개설하였다. 9월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경제, 사회 주로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쌀, 인도밀, 보리, 강냉이, 수수 등이다.

목재, 동, 석탄, 석고와 운모, 고무도 생산된다. 그리고 사향도 난다.

교통수단은 물소,당나귀,말 등이다.

주민들은 불교를 믿는다.

시 킴

(인도《보호령》)

히말라야산맥 가운데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지방과 부탄, 인도, 네팔과 접해있다. 기후는 아열대, 온대, 한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강우량이 많다.

【면적】 7,109km²

【인구】 19만명(1971년)

주민은 네팔족(75%), 보티아스족, 타프챠족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행정중심지】 강토크(주민 1만 2,000명)

【국왕】 쿠마루 팔덴 톤다프 남갈(1963년 12월—)

시킴은 1817년부터 영제국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에 인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인도가 이 나라의 외교, 국방, 교통부문을 쥐고있다.

국왕은 립법권, 행정권을 가지고있으며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국가리사회가 있다.

정당으로는 국민당, 국민대회당, 국가대회당이 있다.

주산물은 쌀, 인도밀, 수수, 과일, 직물, 목재 등이다. 동, 연, 아연, 털, 가죽이 생산된다. 무역은 주로 인도와 한다.

국교는 불교이나 주민의 60%는 인도교도이다.

학교는 193개 있다.

인 도

(인도공화국)

인도는 아세아주의 서남쪽 인도양연안에 있다. 히말라야산악지대, 힌두스탄평원, 인도반도의 세지역으로 구분된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계절풍기후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기온은 추울때에 약 15°C이며 더울때에는 26~46°C이다.

【면적】 294만 8,389km²

【인구】 5억 5,096만 4,000명(1971년)

주민의 46.3%가 힌두스탄족이며 그밖에 델구족, 말라티족, 벵갈족, 아쌈족 등이다.

련방공용어는 힌두어와 영어, 지방공용어로는 힌두어, 우루드어, 판잡어 등 14개가 인정되고 있다.

【수도】 뉴델리(주민 420만명, 1970년 2월)

【대통령】 바라하 벤카타 기리(1969년 8월—)

【의회】 련방원(상원)과 인민원(하원)의 량원제

【정부】 수상 인디라 간디(1963년 3월—), 외무상 스와란 싱, 국방상 쟈그지반 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맑스주의) 1933년 5월 28일 창건, 총비서 피. 순다라야. 국민대회당(집권당), 전인도민주당, 자유당, 통일사회당, 혁명적사회당, 인민사회당, 잔산당, 전인도직업동맹,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인도조선문화협회 1956년 12월 25일 결성, 위원장 씨. 브람 피카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1969년 12월 15일 결성, 위원장 케이. 디. 말라비아

정 치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파키스탄과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인도는 영련방성원국이다.

1950년 1월 26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5년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카슈미르문제를 둘러싸고 무장충돌이 있었다. 이 무장충돌은 1966년 1월에 정화되였다.

독립후 정권을 장악하고있던 국민대회당은 1967년 10월 4차총선거에서 286석(선거전 375석)으로 겨우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1969년 10월에는 국민대회당이 간디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옹호해나서는 우파로 분렬되였다. 이리하여 간디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당의석은 과반수도 못되는 220석으로 줄어들었다. 1969년 11월 하원에서 수상불신임안이 제출(부결)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였다.

1970년 6월 간디수상은 내각을 개조

하고 12월 27일에는 국회를 1년 앞당겨 해산시키고 1971년 3월에 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1971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각 정당들간의 격렬한 대립속에서 하원과 3개주(서부벵갈주, 오리싸주, 타밀라두주)의 지방립법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를 전후하여 칼커타주와 서부벵갈주, 비하르주, 우하르주 등을 비롯한 도처에서 우익반동들의 준동이 격화되여 인도의 국내정세를 혼란시켰으며 선거기간 각당 립후보자를 포함하여 근 100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를 냈다.

선거결과 하원의석 521석중(대통령이 3석을 임명하고 3석은 후에 선거를 진행하기로하고 515석을 선거) 간디의 국민대회당이 350석으로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공산당은 모두 72석을 차지하였다.

12월 3일밤 인도대통령 기리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4일에는 인도수상 간디가 국회에서 《인도—파키스탄의 전면전쟁》을 선포하였다.

12월 17일 전면전쟁에까지 이르렀던 인도—파키스탄간의 사태는 정화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80%이상이 농사를 한다.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70%를 차지한다.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지주와 부농이 약 1억 5천만정보(경지면적의 85%)를 가지고있다.

경지면적의 4분의 3이 알곡재배면적이나 관개면적은 경지면적의 22%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황마, 차, 목화, 보리, 강냉이 등이다. 년 알곡생산량은 약 9천만t이며 해마다 1천만t이상의 식량이 부족된다.

공업에서는 10개의 대자본가들이 전체개인공업의 70%를 독점하고있다.

공업의 많은 부문은 영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망간, 운모, 보크사이트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전기, 기계, 방적, 세멘트, 제철공업이 있으나 공업로동자는 로동인구의 약 5%밖에 안된다.

1971년 8월 동부와 북부지대에서 큰물로 인하여 1천 200여명 이상이 죽었으며 수백만의 인민들이 큰물의 피해를 입었다. 1969년말에 실업자는 1천만명이였다. 인구의 70%가 문맹자이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85%, 회교도가 10%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

신문 뉴에이지(공산당계), 나브바라트(국민대회당계), 타임스 오브,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엑스프레스, 라즈미타, 웨스턴 타임스, 파러뜨, 쟌모르챠, 안드라 파르니까, 엠파클로니클 이부닝 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에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뉴델리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68년에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1년 2월 1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김일성동지로작청년연구소》가 결성되였으며 3월 23일에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로작연구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이리하여 인도에는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 인도조선청년친선협회 주루끄쉐트라지구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청년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 조직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연구하며 그이의 사상을 체득하기 위한 토론회들을 수차 조직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타르쥐만》, 《내슈 널 북에이전시》 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한편 1971년에 인도의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에는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이 광범히 게재되였다.

1971년에 인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선아홉돐을 경축하는 군중집회(4월 15일)가 전인도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또한 이 조직의 주최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경축 군중대회(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경축 군중대회(9월 6일)가 진행되였다.

1971년 2월부터 《인도조선친선월간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신문 《파틀라멘터리 타임스》 3월 13일호와 잡지 《콘텐퍼러리》 3월호는 그이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실었다.

세계반미기자대회에 참가하였던 전 인도민주당 위원장 피. 엘. 라칸팔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김일성동지》라는 서사시를 신문 《이브닝뉴》에 실었다.

1970년 6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도공산당(맑스-레닌주의)대표단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0년에 전인도조선친선협회대표단, 델리종합대학경제학 교수부부(6월), 기자대표단(7월)이, 1971년에는 세계평화리사회상주 인도대표부부가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에 뉴델리에서 우리 나라 상품전람회(3월)와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11월)가 있었다.

또한 11월 16일부터 23일에는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인도에서 공연하였다.

인도—파키스탄 전쟁

1970년 12월 7일 파키스탄에서 총선거가 있은 후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과 그 지지자들이 1971년 3월 26일 일방적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동부파키스탄을 분리하여 《방글라 데슈(벵갈)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파키스탄에는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치적위기는 마침내 내란으로 발전하여 동부파키스탄에서는 정부군과 아와미련맹을 지지하는 동부파키스탄인민들간에 류혈전이 벌어졌다.

동부파키스탄에 조성된 혼란으로 4월부터 인도—파키스탄 국경연선들에는 두 나라 군대들이 대대적으로 집결되여 자주 산발적인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4월 26일 인도는 칼커타에 있는 공관을, 파키스탄은 다카에 있는 인도공관을 각각 폐쇄하였으며 이곳의 130명의 외교관들과 가족들을 서로 연금하였다.

5월 18일과 6월 11일 인도수상 간디는 파키스탄과 《싸울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5월 21일 파키스탄대통령 야히아 한은 동부파키스탄의 정세가 날로 격화되고있는것은 인도의 《지원》과 《아와미련맹》세력의 《분리주의행동》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인도의 《간섭》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11월중순경부터는 두 나라의 국경연선에서 대규모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2월 3일 인도군이 《군용기와 땅크들의 지원》하에 《쟈사르와 라호르사이에 동시적공격을 가하였》으며 《1천 200키로메터에 걸친 국경에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치렬한 전투가 서부파키스탄에까지 확대되였다.

이날 인도대통령 기리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4일 인도수상 간디는 상하량원 긴급합동회의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전쟁상태를 선포》하였다고 하면서 《인도—파키스탄 량국민은 전쟁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12월 4일 파키스탄공군기들이 서부인도의 북부지역과 내륙지역을 《폭격하였》으며 인도군은 《동부파키스탄령내에 진주하고 인도비행기가 동서 량파키스탄비행장들에 반격》을 가하였다.

두 나라 군대들간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12월 6일 인도의 뉴델리에서 《방글라 데슈림시정부구성》이 발표되였으며 인도정부는 이날 《방글라 데슈》를 《독립국가로서 승인》하였다. 같은날 파키스탄정부는 《방글라 데슈》를 승인한 인도의 조치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의 린방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전쟁은 더욱 확대되여 12월 15일에는 인도군에 의하여 동부파키스탄의 행정중심지인 다카시가 《함락》되였다. 16일 동부파키스탄군사령관은 인도군에 《항복》하였고 17일에는 14일간에 걸친 인도—파키스탄간의 전면전쟁이 정화되였다.

이 전쟁결과 동부파키스탄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라호만을 수상으로 하는 《방글라 데슈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인도는 서부전선에서 북부카슈미르의 약 50여개의 초소를 포함한 1천 400평방마일의 파키스탄 령토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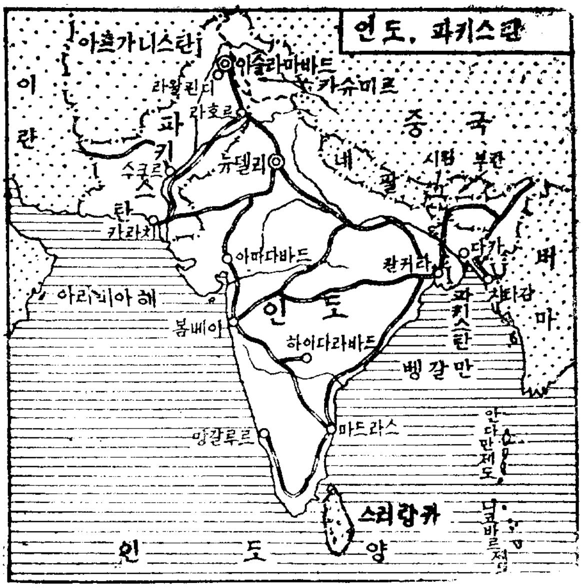
파키스탄은 남부카슈미르 참보지구의 50~60평방마일의 인도 령토를 점령하였다.

파키스탄에서 내란이 발생한 이래 동부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로 간 피난민은 989만 9천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인도—파키스탄사태를 토의하기 위한 12월 7일 유엔총회 긴급본회의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즉시 정전》을 실시하며 두 나라 군대들을 각기 《자기 국경내로 철수》시키며 동부파키스탄피난민의 귀향을 위한 《조속한 정치적해결》을 호소하는 34개국의 공동결의안이 104대 11표로 채택되였다.

파키스탄은 이 결의안을 수락하였으나 인도가 수락하지 않았다.

12월 19일 인도국방상은 전쟁에서 점령한 령토반환문제는 인도가 《단독으로 결정》할것이라고 하였다.



파키스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파키스탄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1천 500km)동부파키스탄과 서부파키스탄으로 나뉘여있다.

동부파키스탄은 평원지대이고 비가 많이 오며 열대계절풍기후이나 서부파키스탄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지못하여 매우 건조하다.

【면적】 94만 7,695km²
서부파키스탄 80만 6,538km²
동부파키스탄 14만 1,157km²

【인구】 1억 2,800만명(1971년), 그중 동부파키스탄인구 7천 500만명, 동부파키스탄주민의 95%가 벵갈족이며 서부파키스탄에서 바르찌족 판잡족, 토이기족, 이란족이 산다.

국어는 우르두어(서부파키스탄), 벵갈어(동부파키스탄), 영어는 1972년까지 공용어

【수도】 이슬라마바드(서부파키스탄) 동부파키스탄의 행정중심지는 다카

【국민의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1971년 12월—, 외무상, 국방상을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1954년 7월에 비법화. 아와미련맹, 인민당, (집권당), 회교도련맹당, 민족인민당,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1967년에 결성. 라호르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1969년에 결성, 위원장 샤다르 샤우카르 알리.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1970년 2월 11일 결성,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싸이드

정 치 파키스탄은 인도의 일부로 있으면서 1858년에 영국의 《직할통치령》으로 되였다.

1947년 8월 14일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고 1956년 3월 23일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파키스탄은 1954년에 미제와 《방위원조조약》을 맺고 그후 미제의 침략적 군사동맹인 세아토와 쎈토에 가담하였다. 파키스탄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이다.

1965년 9월 파키스탄은 쎈토에 요청한 《원조》가 부결되자 쎈토로부터 자기인원을 철수하였다. 또한 쎈토와 세아토의 군사연습에는 참가하지 않고있다.

1969년 3월 25일 아유브 한은 파키스탄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관련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권을 륙군사령관인 야히아 한에게 넘겨주었다.

3월 31일 야히아 한은 민정이양, 새 헌법제정을 위한 총선거실시를 발표하였으며 1970년 1월부터는 정당활동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12월 7일 12년간의 군사통치를 끝장내기위한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국회선거(직접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300석(총의석은 313석)중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이 166석, 인민당은 85석을 차지하였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는 4개월이내에 헌법을 제정하며 새헌법에 따라 정부를 세우기로 되였다.

그러나 헌법제정과 국회소집문제를 둘러싸고 아와미련맹과 인민당 및 군사정권간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은 선거승리를 계기로 방위 및 외교관계만을 제외한 동부파키스탄의 완전자치와 동서파키스탄의 련방을 주장하면서 즉시적인 국회소집을 요구하였다.

인민당은 동부파키스탄의 자치를 거부하고 국회소집의 연기를 주장하였다.

정당들간의 대립으로 정세가 복잡하여지자 1971년 3월 1일 야히아 한은 3월 3일 소집하기로되였던 국회를 무기한 연장하고 3월 2일에는 동부파키스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3월 25일 이후 야히아 한은 동부파키스탄에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으며 포고령을 발표하여 통행과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아와미련맹위원장 라호만과 그 지지자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동부파키스탄에서는 3월 1일부터 강력한 항의시위와 총파업을 벌렸다. 아와미련맹은 3월 26일 동부파키스탄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방글라데슈해방군》을 편성하여 정부군에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이리하여 동부파키스탄에서는 정부군과 아와미련맹을 지지하는 동부파키스탄인민들 간에는 류혈전이 벌어졌다.

4월부터 인도—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는 두나라간의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12월초부터 두 나라는 《전면전쟁》상태에 들어갔으며 12월 6일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가 끊어졌다. 12월 17일 파키스탄은 인도와 정화하였다. 12월 20일 대통령 야히아 한이 사임하고 인민당당수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대통령 겸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80%가 농사를 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은 약 46%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황마, 목화, 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황마생산량은 세계황마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 나라 수출총액의 50%를 황마가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크롬, 쇠돌, 우라니움, 보크사이트, 망간, 석고, 니탄 등이다.

공업에서는 황마가공, 방직, 제탕, 담배, 제지공업 등이 위주로 되고있다.

1969년부터 학교교육에서는 민족어를 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서부파키스탄주민의 80%, 동부파키스탄주민의 70%)이며 동부파키스탄에 힌두교도들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파키스탄통일통신, 파키스탄국제통신

신문 뉴 타임스, 돈, 쎈, 타미르, 마싸와트, 리더데일리 아자드, 놈 뉴 템서우, 타미르 콤배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11월 8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67년 7월 28일에는 무역대표부가 파키스탄에 개설되였다. 1967년에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와의 친선단체는 15개 조직되여있다.

1968년 1월 14일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3월 6일에는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파키스탄에 개설되였다.

1971년 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사와 파키스탄국제통신사 사이에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1년에는 파키스탄선박 《스와트》호의 《김일성수상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1월 10일), 파키스탄전국해운회사선박 《젤룸》호의 《김일성수상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3월 4일), 파키스탄 키크즈청년로동자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로동자소조》 (3월 5일), 파키스탄녀성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녀성소조》(3월 13일), 파키스탄정부비그리대학생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3월 15일), 파키스탄판쟈버아우법과대학 학생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등이 새로 조직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하고있다.

1971년에 파키스탄의 《신시대출판사》를 비롯한 여러개의 출판사에서 그이의 수많은 로작들을 단행본(우르두어와 벵갈어)으로 출판하였으며 《뉴타임스》를 비롯한 수십종의 신문들이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신문 《타임스》4월 12일호와 신문《마싸와트》 4월 13일호는 기념론설을 발표하였으며 라지오방송도 《김일성장군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푸른소나무》등의 노래를 방송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발전된 우리 나라를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0년 9월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 파키스탄《뉴타임스》지 주필부부(6월), [illegible] 련합상공회의소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스리 랑카

(스리 랑카공화국)

남부아세아의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아세아와 구라파, 대양주를 련결하는 교통상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

년평균기온은 26~3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연해평야에서 1천~1천900mm이다.

【면적】 6만 5,620km²

【인구】 1,275만명(1971년 10월)

주민은 싱할족이 약 68%, 타밀족이 약 23%를 차지한다.

국어는 싱할어와 타밀어

【수도】 콜롬보(주민 56만 4,000명, 1971년 10월)

【대통령】 윌리암 고팔라와(1972년 5월—)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시리마 아르.디 반다라나이케(1972년 5월— 외무 및 국방상을 겸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에 창건, 총비서 케이네만(통일전선정부의 주택 및 건설상을 함). **자유당, 평등사회당, 통일국민당, 련방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자유당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1961년 10월에 창설, 위원장 찬드라 구나쎄케라

정 치 1517년에 뽀르뚜갈, 1658년에 화란의 침략을 받았으며 1795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8년 2월 4일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6년 4월 총선거로 독립이래 집권하고 있던 통일국민당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당정권이 수립되였다. 자유당정부는 1964년 12월 3일 국회의 신임투표에서 패배하였다. 이로말미암아 국회가 해산되고 1965년 3월 총선거가 실시되여 다시 통일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70년 5월 국회선거에서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통일국민당정부는 무너지고 5월 31일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71년 3월 16일 국내《혼란과 류혈》이 조성되였다고하면서 수상 반다라나이케의 제의에 의하여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6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경지면적은 약 160만정보인데 그중 3분의 2가 차, 고무, 야자 재배지이다. 이 3대작물은 농업생산액의 75%(차 수출이 수출총액의 60%차지),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식량은 수요의 50%이상을 수입한다.

공업생산액은 국민소득의 약 5%를 차지한다.

정부는 1971년 12월에 총면적 8천정보에 달하는 7개의 영국인소유의 차재배원을 국유화하였다. 그리하여 국영차재배원은 24개로 되였다.

실업자는 1971년에 70만명 있었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도(주민의 70%)이며 타밀족은 주로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 아따(공산당기관지), 자나더나(평등사회당기관지), 썬, 신할레, 스릴라거, 자나사티야, 란카디파, 타임스 오브 스리 랑카, 데일리 미러, 다바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는 두 나라간에 령사관계가, 1970년 7월 15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되였다.

스리 랑카 출판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광범히 실었다.

1970년에 스리 랑카사회주의녀성대표단(8월), 국회대표단, 경제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 대표단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또한 독립학생동맹대표단(6월), 신문《자나더나》 및 《자나사티야》주필(9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4월에는 문화예술협회위원장이며 스리 랑카 인민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문화성고문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1월에 우리 나라 정부문화대표단이 쎄일론을 방문하였다.

1971년 4월 13일 스리 랑카외무성당국자들은 이른바 《국내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대사관 전체성원들을 자기 나라에서 떠날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스리 랑카에서 철수하였다.

말디브제도

(말디브제도공화국)

스리 랑카 서남쪽 인도양에 있는 천여개의 산호섬으로 된 나라이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95개뿐이다. 섬들의 평균높이는 해발 1.2m이며 강과 호수가 없다.

열대성기후로서 매우 덥고 습하다. 년평균기온은 27.3°C이다.

【면적】 298km²

【인구】 11만명(1970년)

주민은 아리만족, 인도족, 쎄일론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종카리어이나 영어도 통용된다.

【수도】 말레(주민 1만 2,000명)

【정부】 대통령 아미드 이브라힘 나시르(1968년 11월—)

정 치

1887년에 영국식민지였던 쎄일론의 《속령》으로 되였다. 1948년에 쎄일론이 독립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제도를 제놈들의《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2년 말디브는 군주제를 철폐하고 1953년 1월에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이해 9월에 정변이 일어나 1954년 2월부터 다시 군주제가 회복되였다.

1960년 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말디브에 국방,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주는대가로 말디브와 간섬기지를 비롯한 기타 군사시설을 30년간(1956년부터)사용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1965년 7월 26일 말디브의 완전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8년 3월과 9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추장통치를 철폐하였으며 11월 1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무역을 한다. 주산물은 물고기, 야자, 공예품 등이다.

땅이 메마르기때문에 기장을 약간 심는 외에 다른곡식은 거의 심지 못하고 식량은 수입한다. 수출의 95%는 해산물이다. 주로 범선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수도 말레에 정부가 운영하는 소년학교와 소녀학교들이 있으며 그외 몇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정부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류학생들을 많이 파견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말디브어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 있으며 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왕국)

남부아세아에 있으며 쏘련, 파키스탄, 이란과 접해있는 내륙국이다. 령토의 65%가 산악지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00~400mm이다.

【면적】 65만 5,000km²

【인구】 1,712만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빠딴족(54%), 따지크족(36%), 우즈베크인, 뚜르크메니아인 등 20여개 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페르샤어(도시)와 푸슈트어(농촌)

【수도】 카불(주민 약 43만명)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1933년—)

【국회】 상하량원제. 그밖에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왕위계승문제 등을 토의하는 국민대회가 있다.

【정부】 수상 아브둘 쟈히르(1971년 6월—), 외무상 모함메드 모사 샤피크, 국방상 칸 모함메드

정 치

1747년에 왕국을 창설하였으나 제1차(1838년), 제2차(1879년)아프칸 전쟁을 걸쳐 1880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19년 5월 27일 독립하였다.

립헌군주제를 규정한 1965년 10월 헌법에 의하면 왕족이 수상, 각료, 국회의원, 최고재판관으로 될수없다. 회교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국왕이 회교교주로 되여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9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데 유목민이 약 240만명에 달한다. 축산물이 국가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염소는 약 800만두이며 면양, 소, 노새, 말, 락타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벼, 보리, 강냉이, 과일, 목화 등이다.

공업에서는 옥석제품, 융단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3차 5개년계획(1969—1972)기간에 기계제작, 면방적, 모직물 공장과 발전소, 세멘트공장들이 건설되고있다.

지하자원은 금, 은, 쇠돌, 연, 아연, 석탄, 류황, 대리석, 석유, 천연가스 등이며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1969년부터 시작된 가물로 1971년에 농업과 목축업에서 혹심한 피해를 받았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과일, 융단, 양모, 양가죽 등이다.

철도는 없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1월에 아프가니스탄왕국 정부친선사절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12일 사절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0년 5월 신문 《카라반 데일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련 《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실었다.

이 란

(이란왕국)

아세아대륙의 서남쪽에 있으며 북쪽은 쏘련 까스삐해에 면하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사막이다. 대륙성기후이다.

【면적】 164만 5,000km²

【인구】 2,928만 2,000명 (1971년 3월)

주민의 50%이상이 페르샤인이며 그밖에 아제르바이쟌인, 토이기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페르샤어

【수도】 테헤란(주민 311만 6,000명)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파흘레비(1941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아미르 아바스 호베이다(1965년 1월—), 외상 아빠스 알리 할라르바리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전신은 1941년 9월에 창건된 이란 공산당, 제1비서 엘. 에스. 칸다리. 민족전선, 신이란당(집권당), 인민대회당, 메룸당, 마르돔당

정 치 1906년에 립헌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35년 페르샤란 이름을 이란이라 고쳤다.

1955년 침략적인 쎈토에 가담하였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1960년 7월 이란은 아랍나라들의 공동의 원쑤인 이스라엘을 승인함으로써 아랍나라들로부터 규탄을 받았으며 애굽은 까히라주재 이란대사를 추방하였다.

1969년 4월 이란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를 흐르는 샤드르 아랍강의 항행조약(1937년)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이라크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1971년 11월 30일 이란은 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페르샤만에 있는 섬들인 무싸섬과 대툼섬, 소툼섬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아랍국가들은 이 3대섬에 대한 이란의 강점을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는》것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다.

12월 1일 이라크는 이란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10%이며 그 대부분은 국왕과 지주, 추장, 사원이 차지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벼, 담배, 과일,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석탄, 쇠돌, 망간, 대리석 등이 있다. 특히 석유생산량은 중근동에서 제3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 외화수입의 약80%, 국가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1969년 석유수출량은 1억 4천만t이였다.

1953년에 《국제석유회사》(미, 영, 프랑스, 화란자본)와의 매국적인 협정에 의하여 40년간의 석유채취 및 가공, 판매권은 이 회사가 장악하고있다.

페르샤융단이 유명하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마드돔(인민당기관지), 메이에이란, 케이한, 인터내슈널 테헤란 저널

이 라 크

(이라크공화국)

아세아의 서남쪽에 있다. 령토의 절반이 사막지대이다.

대륙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7°C, 년평균강수량은 약 200mm이다.

【면적】 44만 4,442km²

【인구】 974만 9,000명(1971년 9월)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족이며 북부지역에 약 200만명의 쿠르드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바그다드(212만 4,300명)

【혁명리사회】 1968년 7월에 창설된 국가의 최고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1968년 7월—), 외무상 무르타다 싸이드 아브둘 바끼, 국방상 하마드 쉐하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 창건.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쿠르드민주당, 로동조합총련맹, 녀성총동맹, 이라크조선친선협회 1969년 7월 6일 결성

정 치 19세기초 토이기제국에, 1914년 11월에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32년에 독립하였다.

1958년 7월 14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파이살왕조가 전복되고 이라크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59년 3월 24일 이라크정부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동맹인 《바그다드조약》에서 탈퇴하고 같은해 3월 30일에는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하고있던 영침략군을 몰아냈다. 또한 미제와 맺었던 예속적인《협정》들을 폐기했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이라크는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6월 6일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68년 7월 17일 아레프정권이 무너지고 혁명리사회가 구성되였으며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월 17일혁명 세돐에 즈음하여 바크르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승리후 이라크인민은…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이라크정부는 1968년 8월 미제독점체들의 청량음료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9월에는 미제가 운영하던 하키마종합대학을 정부의 수중에 넣었다. 1968년 10월에는 요르단반동들이 팔레스티나유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것과 관련하여 요르단주둔 이라크군을 증강하기로 결정하였다. 1968년 7월에 북부윁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69년 4월에는 민주독일을 승인하였다.

1970년 3월 11일 제1차세계대전후 자치와 민족적권리를 요구하여 투쟁하여오던 쿠르드족과 정부간에 쿠르드족문제의 평화적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오래동안 이 나라 정권

앞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섰던 민족적통일문제가 해결되였다.

3월 11일 발표된 평화협정에 의하면 쿠르드족이 사는 북부지역주들에 자치를 실시하며 쿠르드족은 정부와 군대내에서도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생활을 향상시킬수있는 조건을 받게 된다. 또한 쿠르드족 1명이 부대통령으로 되며 그들의 주민수에 비례하여 립법기관에 대표를 보내게 된다.

1970년 7월 17일 쿠르드족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림시헌법을 발표하였다.

1971년 11월에 발표된 민족헌장 초안에서는 1970년 3월 11일부의 모든 합의사항을 실현하는 기초우에서 아랍사회부흥당과 쿠르드민주당간의 협조의 방법으로 쿠르드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라크정부는 1971년 5월 중근동전쟁시기 외교관계를 끊은 미제대사관건물을 몰수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탄압만행에 대처하여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끊고 국경을 페쇄하였으며 요르단비행기의 이라크령공비행을 금지시켰다.

12월 1일 이란이 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페르샤만의 3개 섬을 강점한 것을 규탄하여 영국, 이란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 석유공업이 예산수입의 약 60%를 차지한다.

석유매장량은 약 38억t으로 추산되며 매 유정당생산에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1970년에 원유는 7천 600만t 생산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이래 이라크에서는 외국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1961년 12월 석유법을 발표하여 이라크전지역에서 석유개발및채굴권을 가지고있던 미, 영, 프랑스독점회사들의 채굴면적을 26만 7천 200km²로부터 1천 917.75km²로 제한하고 1967년 9월에는 민족석유회사를 창설하였다.

1971년 6월 7일 정부는 지중해를 통하여 수출되는 석유값을 바렐당 2딸라 41쎈트로부터 3딸라 21쎈트로 올리기로 하였다.

1967년 7월에는 외국인 은행, 보험회사를 포함한 30개의 주요상공업기업소를 국유화하였다.

1970년에는 현대적인 움카스르항, 바그다드국제비행장이 건설되였다. 1971년 4월에는 바그다드화차제조공장 제1계단공사가 끝났으며 이 나라의 첫 류황제조공장이 생산을 시작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외에 연, 석탄, 동, 망간, 대리석, 니켈 등이 있다. 북부산악지대에서는 코발트가 생산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벼, 대추, 목화 등이다. 특히 대추는 이나라 주요수출품의 하나이며 년간생산량은 35만t으로서 세계대추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1968년에 밀은 150만t, 쌀은 40만t 생산하였다.

관개수로는 찌구리스,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리용하고있다.

1971년 9월 정부는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기위하여 색정적이며 사회도덕을 문란시키거나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영화상영을 금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9—1970학년도에 초등 및 중등학교수는 6천 178개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타이키(쿠르드민주당기관지), 알 쥼후리아, 바그다드 옵써버, 알 아얌, 알 누르, 알 무즈타마, 싸우룥 콰라바, 알 라쉬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및지불협정과 문화협조협정을 맺었다.

1968년 1월 30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두 나라간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에 이라크의 《알 쥼후리아》출판사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알 쥼후리아》, 《알 타이키》, 《바그다드 옵써버》를 비롯한 많은 신문, 잡지들은 해마다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광범히 싣고있으며 로작들은 각계인사들속에서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1971년 3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과학협회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이 로작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로작이라고 지적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바그다드 옵써버》와 《알 타이키》는 기념론설을 발표하였으며 신문《바그다드 옵써버》 3월 24일호는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7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민족학생동맹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 집회를 가졌다.

5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흐마드 알 바크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1971년에 아랍사회부흥당 및 정부대표단(4월)과 정부경제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외에 공업성대표단(8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사로청 제6차대회에 전국학생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신문《알 라쉬드》경영주와 이 신문 책임주필이 참가하였다.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지중해의 동부연안에 있다.

기후는 여름에 무덥지않으며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러나 산악지대산봉우리들은 년중 눈에 덮혀있다. 대부분지방에서 10~4월까지는 장마철이다.

【면적】 1만 400km²

【인구】 264만명(1970년 8월)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바이루트(주민 60만명)

【국회】 일원제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에(1970년 8월—) 대통령은 로만파 기독교도, 수상은 시아파 회교도에서 선출된다

【정부】 수상 싸이브 쌀람(1970년 10월 14일—), 외무상 할릴 아부 하마드, 국방상 마지드 아르스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 1958년 12월 레바논공산당으로 분리, 1947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0년에 합법화됨, 총비서 니콜라 샤우이. **아랍사회주의로동당, 사회진보당, 아랍사회부흥당, 아랍로동자청년당, 자치로조련합, 민주청년동맹,** 레바논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14일 결성, 위원장 압두호 아브달라

정 치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20년에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3년 11월 22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으로 독립하였다.

미제는 1951년 5월에 《원조》협정을, 1954년에는 《경제원조》협정을 강요하고 이것을 미끼로 레바논내정에 간섭하였다.

1958년 5월 레바논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민족적자주권과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전국적인 인민항전을 일으켜 6월에는 인민항쟁군이 전령토의 4분의 3을 장악하였다. 미제는 이라크의 파이살왕조를 사촉하여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케 하였으며 위기에 빠진 샤문정부에 무기를 공급하고 제놈들의 함대를 지중해연안에 끌어들였다.

7월에는 《레바논의 독립과 안전을 위한다》는 강도적인 구실밑에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상륙시켰으나 레바논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이해 10월 25일 쫓겨났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레바논정부는 6월 6일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9월에 회복)으며 일체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력침공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힘쓰고있다.

1970년 5월 12일 미제의 사촉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중근동전쟁이래 가장 큰 규모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24시간도 못되여 쫓겨났다.

1971년 바이루트 시민들은 미제의 전쟁사환군인 미국무장관 로져스(5월)와 록펠로놈이 기여드는데 항의하여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다.

경제, 사회 중계무역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민소득에서 3분의 1을 무역이 차지한다. 바이루트항은 중근동의 중요중계무역항이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2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귤, 포도, 사과, 레몬, 바나나, 양배추, 밀, 보리, 담배등이다. 농산물생산에서 과일이 60%, 남새가 20%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유색금속등이다.

공업으로는 면방직, 세멘트, 담배, 올리브가공공장 등이 있을뿐이다.

주민의 절반이 각각 기독교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안와르, 알 무하러르, 알 욤, 알 안바, 알 샤아브, 안 니다, 싸우뜨 알 우르바, 알 바이라끄, 앗 두니야, 앗 씨야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2월 14일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바이루트에 개설되였다.

레바논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 《김일성수상의 사상과 로작을 연구하는 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 혁명소조》 등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이 나라의 신문들인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샤아브》, 《알 안바》, 《안 니다》 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등을 광범히 실었다.

《다르 알 잇터하두》출판사에서는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단행본으로, 《다르 탈리아》출판사에서는 회상실기묶음 《인민들속에서》를 출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1971년 12월 20~22일까지 바이루트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그이께 드리는 편지에서 《19세기에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고한것처럼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고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축원하였다.

7월 30일 레바논평화옹호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바이루트에서 제17차 아랍도서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전람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에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등 수많은 로작들이 전시되였다.

1971년 11월 20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레바논기자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이해에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성원(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레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대표, 《김일성수상의 사상과 로작을 연구하는 위원회》대표, 일간정치신문 《싸우뜨 알 우르바》편집국장이 참가하였다.

요 르 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이스라엘, 수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서부는 비옥하나 요르단강 동부지대의 5분의 4는 사막지대이다.

【면적】 9만 6,610km^2

【인구】 234만 7천 900명(1971년)

주민은 아랍인이며 그중 70%가 팔레스티나인이다(요르단강 서쪽에서 주로 산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암만(주민 약 45만명)

【국왕】 후세인 1세(1952년—)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아흐메드 라우지(1971년 11월—), 외무상 아브둘라 살라흐

정 치 팔레스티나의 일부로서 제1차세계대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예속하에 있었다. 전후에는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6년 5월에 독립하였다. 팔레스티나전쟁결과 아랍측에 남은 팔레스티나 동부지구를 합하여 1949년 6월 하쉐미트요르단왕국으로 선포하였다.

1962년 8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예멘아랍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1963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와, 1967년 5월 30일에는 애급과 《호상방위조약》을 맺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전쟁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요르단은 요르단강서쪽의 5천 600km^2에 달하는 땅을 이스라엘에 강점당하였다.

전후문제처리에서 요르단반동은 빼앗긴 자기령토를 이스라엘의 《양보》를 통하여 되찾아보려는 투항주의적립장을 취하면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

을 탄압하였다.

1968년 10월 요르단반동들은 요르단에서 활동하고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의 활동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단독회담을 진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아랍나라들의 강력한 항의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1970년 2월에는 팔레스티나유격대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규군을 제외한 기타 인원들의 《무기휴대, 포이동, 폭발물저장의 금지》등을 규정한 《치안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1970년 6월과 9월에는 미제의 사촉하에 땅크, 장갑차, 대형포를 비롯한 중무기를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유격대를 공격하였다. 요르단 반동정부는 팔레스티나 유격대의 완강한 투쟁과 아랍나라들의 강력한 배격에 부딪치자 9월 27일 《정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10월에 구성된 와스피 텔 정부는 1971년 3월 17일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탄압을 목적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과 6월에는 요르단 각지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기지들과 피난민수용소들을 불의에 공격하였다.

요르단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을 규탄하면서 팔레스티나해방운동대표 아라파트가 4월 16일 《알 아호람》(애급신문)지에 준 담화에 의하면 요르단반동정권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쪽강안으로부터 철수하는 대가로 팔레스티나유격대운동을 탄압할데 대한 협정을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각각 맺었다. 미제는 년간 6천 400만딸라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확약하였다.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탄압만행에 대처하여 1970년 9월이래 리비아, 쿠웨이트는 요르단에 주던 보조금을 끊어버렸으며 1971년 7월 이라크, 알제리, 수리아는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애급은 요르단에 있던 군사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요르단과의 국경선을 폐쇄하였다.

1971년 11월 까히라에서 진행된 아랍방위리사회에 참가하였던 수상 텔이 암살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목축업이다. 인구의 85%가 농사한다. 유목민이 약 5만명, 반유목민이 12만명이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경작지이고 나머지는 사막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콩, 올리브, 포도, 무화과, 바나나, 담배 등이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쥐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 3분의 2의 지역에서 원유개발권을 가지고있다.

인구의 80%이상이 문맹자이다.

인구의 80%이상이 회교도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호바르 알 우쓰브오, 알 디파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요르단출판협회대표가 참가하였다.

1971년 4월 신문 《아호바르 알 우쓰브오》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실었다.

이스라엘

지중해의 동쪽, 레바논과 애급사이에 끼워있으며 지중해에 면하고있다.

산지가 많고 여름에는 몹시 덥다.

【면적】 2만 755km²(1949년 아랍국가들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².)

【인구】 299만 8,000명(1971년 1월)

주민은 유태인이 절대다수이며 아랍인 등 타민족은 23만 3,000명

국어는 헤브라이어

【수도】 텔 아비브(주민 38만 5,000명, 1969년 1월)

【국회】 일원제

【대통령】 잘만 샤자르(1963년 4월—)

【정부】 1970년 1월 레이버당, 가하르당, 마팜당, 종교국가당, 독립자유당의 련립정부구성. 수상 골다 메이르(1969년 3월—), 외무상 에반, 국방상 모쉐 다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메이르 빌너 겐세크. 레이버당, 마팜당, 독립자유당, 가하르당, 종교국가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정 치 이스라엘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침략적야욕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조작한 나라이다.

팔레스티나는 16세기초부터 제1차대전전까지 토이기제국에 예속되여 있었다. 192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고 유태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에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세계도처에서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모아들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를 강점한 초기에는 유태인이 불과 5만명이 였다.) 유태복고주의자놈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원조》를 받아 팔레스티나의 아랍인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을 교활하게 리용한 미제는 1947년 9월 제2차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지역을 아랍국가와 유태인국가로 분할하도록 하였으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유태인국가만을 조작해냈다.

이스라엘은 생겨난 첫날부터 미제의 앞잡이로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아랍나라들의 원쑤로 되고있다.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은 미제의 사촉하에 팔레스티나 아랍인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키고 6천 700km²에 달하는 땅을 빼앗았고 팔레스티나인들을 내쫓았다. 이리하여 100여만의 팔레스티나인민들은 자기땅에서 쫓기여 피난민생활을 하게 되였다.

1965년에는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은 또다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전쟁을 일으켜 수리아의 골란고지, 요르단강서쪽지역, 애급의 시나이반도 도합 6만여km²를 강점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강점한 아랍땅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통치를 실시하면서 아랍나라들에 대한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또한 1967년 6월 27일에는 국회에서 예루살렘(요르단령)병합결의를 가결하였다.

1969년 1월초 유태복고주의자들은 26개국에서 유태인 《대표》들을 불러들여 이른바 《유태인지도자회의》를 열고 유태인의 이주문제에 대한 모략을 꾸몄다.

놈들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3년간에 이스라엘이 조작된때로부터 19년간 지출총액을 넘는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1971—72회계년도에는 중근동전쟁시기의 4배나 되는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동위기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인민들속에서 앙양되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며 이 지역을 자기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있고 중근동정세가 계속 긴장되여있는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

침략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1페지)

미제는 전후에 들어와서도 중근동에서 힘의 《균형》 유지라는 미명하에 이스라엘에 경제, 군사《원조》를 주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에 내몰고있다.

1968년 6월 미제는《호크》대공미싸일을 비롯한 현대적살인무기를 공급할데 대한 협정을 이스라엘과 맺었다.

1970년에는 미제로부터 5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1971년 7월에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강점한 아랍령토내에 간첩비행기지를 설치하고 미제의 《유—2》 및 《에스아르—71》간첩비행기들이 이스라엘에서 마음대로 날강도적행위를 감행할수있게 하는 《협정》을 맺었다.

1971년 11월에는 미제가 이스라엘에 살인무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적지원을 줄데 관한 비밀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살인무기 생산기지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의 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외국자본투자액중 미제의 자본은 약 70%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사막이고 땅이 메마르다. 주민의 18%가 농사를 한다. 해안지방에서는 귤(주요수출품)을 많이 심는다. 그외 밀, 보리, 강냉이, 담배,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지하자원은 석고, 석회, 류황 등이다.

공업은 다이야몬드연마공업, 면직물가공, 식료품가공공업, 담배, 세멘트, 화학약품, 광학렌즈생산 등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군사비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위기를 겪고있다. 1969년에는 1967년에 비하여 군수산업은 2배, 무기생산량은 3배로 각각 늘어났다.

매가정에서는 해마다 군사적목적을 위해 세금, 채권 등의 형태로 얼마안되는 수입의 절반이상을 빼앗긴다. 1970년초 소득세가 5%나 더 올랐다.

1971년에 이스라엘이 조작된 이래 일곱번째로 이스라엘파운드를 또다시 20% 평가인하하였다.

대부분이 유태교를 믿으며 그외 회교, 기독교 등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주가데레호(공산당기관지), 다바르(정부기관지)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아라비아반도의 중부에 있다. 대부분이 고원과 사막지대이다. 기후는 몹시 건조하며 비가 적게 온다.

【면적】 160만km²

【인구】 75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기타 페르샤인, 유태인, 인도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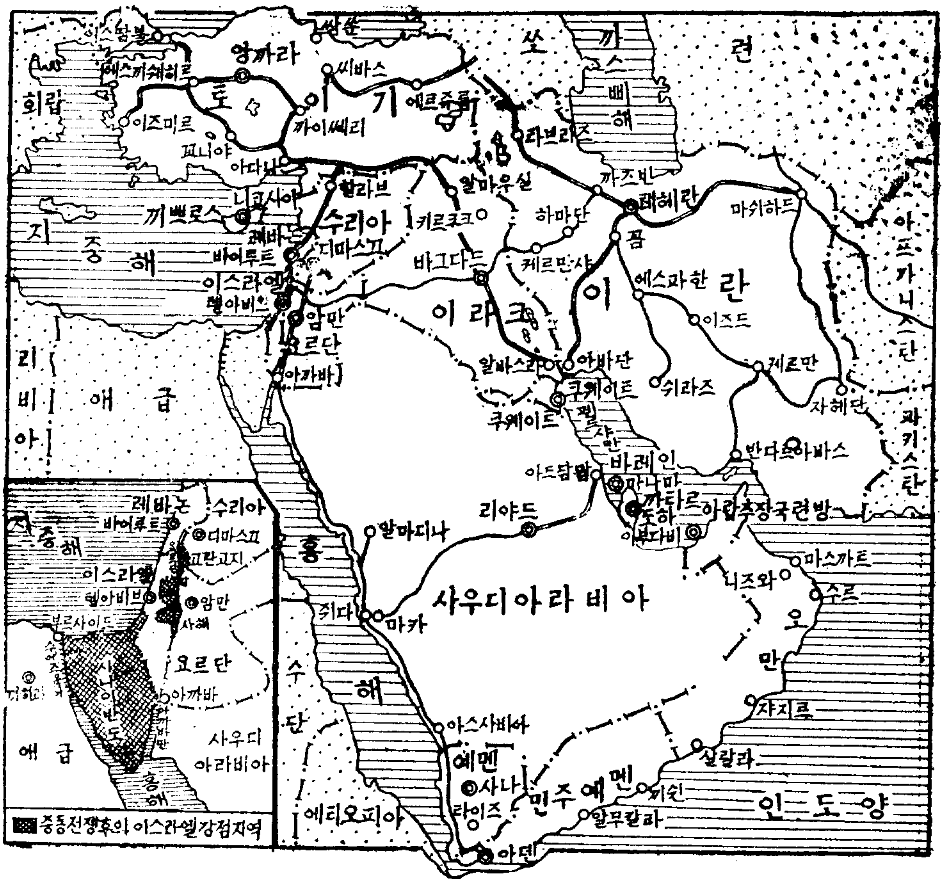
국어는 아랍어

【수도】 리야드(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성지)

【국왕】 아빌 파이살 아브델 아지즈 알 사우드 알 파이살(1964년 11월—수상겸임), 외무상 오마르 사카프

정치 제1차세계대전전까지 오토만제국의 속령(헤쟈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후 이븐 싸우드(네지드왕)가 헤쟈즈를 강점하여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세습군주제국가이며 국가의 모든 법들은 회교성전에 기초하고있다.



1962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에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66년 10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이 나라에 있는 비행장들과 항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기지로 리용되고있다.

1969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 반동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민주예멘에서 반동들을 규합하여 반정부반란을 일으키고 일부 주들을 떼내여 소위《남아라비아공화국》을 조작하려는 목적밑에 민주예멘의 국경초소들을 공격하였다. 이때로부터 량국 국경지역에서는 빈번한 류혈 충돌이 있었다. 1971년 3월에는 약 500여명의 무장악당들을 파견하여 민

주예멘을 반대하는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였다.

경제 반유목, 반농업국가이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강냉이, 벼, 보리 등이다. 10대석유생산국의 하나로서 1969년에는 1억 2천 800만t을 수출하였다. 석유는 국가예산수입의 80~90%를 차지한다. 쇠돌, 석, 금, 은, 동, 아연,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등도 난다.

이 나라 경제의 주요명맥인 원유공업은 미제의 《아라비아 미국석유회사》(1933—1999), 일제의 《아라비아석유회사》(1957년부터 40년간), 이딸리아의 《사니회사》등이 독점하고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회교의 발산지이다.

【출판보도】 신문 타우라

쿠웨이트

(쿠웨이트추장국)

페르샤만 서북쪽에 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이므로 물이 바르다.

【면적】 2만 5,500km²

【인구】 73만 3,196명(1970년 5월)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인이다.

【수도】 쿠웨이트(주민 21만명)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1965년 11월—)

【국회】 일원제

【정부】 수상 쟈베르 알 아흐메드 알 쟈베르(1971년 2월—), 외무상 사바흐 알 아흐메드 알 쟈베르, 국방상 싸드 알 아브드 알라 알 사바

정 치 1899년부터 영식민주의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61년 2월 25일 독립하였다.

1963년 1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내각제를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고 1월 30일 이 나라 력사상 첫 국민회의 선거를 진행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애급을 지원하여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71년 3월 22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쿠웨이트인민은 빼앗긴 자기 조국을 찾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며 석유수입은 국가수입의 90%를 차지한다. 년 석유생산량은 1억t에 달하는데 1969년에는 1억 1천 500만t 수출하였다.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쿠웨이트석유회사는 1934년부터 2009년까지의 채굴권을 가지고있다.

정부는 1960년에 국립석유회사를 창설함으로써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생산활동을 통제하고 그 범위를 극력 축소하며 석유채취와 가공, 국내에서의 원유제품판매 및 분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1970년에는 석유값과 세금을 더 올릴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년간 전력, 기계, 화학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으며 수산업, 목축업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취하였다.

주요농산물은 콩, 남새 등이다. 토지는 거의 족장들과 상인들이 독점하고있다.

1964년에 쿠웨이트대학이 개교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아흐바르 알 쿠웨이트, 데일리 뉴스, 알 칼라즈, 알 하다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8년 4월 20일 쿠웨이트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이라크통신사 부사장 따하 알 바스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레바논〈알 안와르〉 신문 기자 알리 발루트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쿠웨이트신문들인 《데일리 뉴스》, 《알 칼라즈》가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주간잡지 《알 라이 알암》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실었다.

1971년 10월에 외무성의례부장, 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전국학생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바 레 인

(바레인국가)

페르샤만에 있는 몇개의 작은 섬들(가장 큰 섬이 바레인섬—556km²)로 되여있다. 주변은 산호초로 둘러싸여있다. 산림이 없고 재배식물과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풀뿐이다.

【면적】 598km².

【인구】 27만 7,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쉬아족이며 지배계층은 순니족이다. 이란인, 인도인, 파키스탄인도 산다.

【수도】 마나마(주민 약 8만명)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1961년—), 외무상 모함메드 알 무바라크

정 치 1861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71년 8월 14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8월 16일 나라이름을 바레인국가로 제정하고 내각의 명칭을 국무회의로부터 각료회의로 고쳤다. 바레인은 이웃 추장국들과의 친선, 회교국가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 페르샤만의 안전과 진보를 위한 노력,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인정 등 내용을 포함한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1971년 8월 15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으며 1972년 1월 6일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바레인해군기지의 계속 사용을 인정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협정들에 의하여 바레인에는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해공군기지들이 계속 유지되고있다.

경 제 주산물은 석유(매장량 3천 500여만t)이다. 1967년에 석유는 360만t 생산되였다. 1932년에 석유가 발견된이래 제국주의자들이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미제독점체인 《바레인석유회사》가 1940—1995년까지의 석유채취권을 장악하고있다. 바레인섬에는 대규모의 정유소가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송유관으로 수송되는 석유도 정제하고있다.

진주생산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진주는 일본독점회사가 장악하고있다.

경지면적은 5%에 불과하다. 농산물은 벼이고 그외 남새 및 목축사료가 있다.

물이 없기때문에 대륙으로부터 약 150km의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고있다.

까 타 르

(까타르국가)

페르샤만 남쪽기슭에 있는 반도이다. 반사막지대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01mm이다.

【면적】 2만 2,000km²

【인구】 14만명

【수도】 도하(주민 약 10만명)

【추장】 아흐메드 빈 알리 알 타니(1961년—)

정 치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71년 9월 1일 까타르는 영국과 맺은 1916년의예속적인《조약》을 파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9월 3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다. 독립성명에서 까타르는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호상내정불간섭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으며 아랍의 통일을 실현하며 빼앗긴 팔레스티나땅과 아랍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모든 수단을 바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까타르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해공군기지가있다.

경 제 주산물은 석유이다. 석유는 1930년에 발견되였다. 석유채취권은 미제의 《까타르석유개발회사》(2010년까지의 채굴권 탈취)와 영국의 《까타르쉘석유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

1970년에 원유생산량은 1,700만t이였다. 석유채굴에 의한 년수입은 1억 7천 400만딸라이다. 주민들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도 한다.

식량은 대부분 수입하고있다.

아랍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페르샤만에 있는 7개의 추장국(아부다비, 두바이, 푸쟈이라, 샤르쟈, 아즈만,움알 꾸와인, 라스 알 카이마흐)으로 되여있다.

【면적】 8만 3,600km²

【인구】 약 22만명

【수도】 아부 다비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197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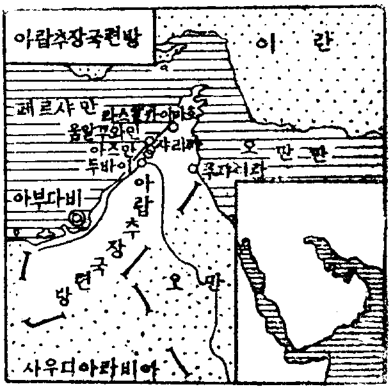
【정부】 수상 마크툼 빈 라쉬드 엘 마크툼(1971년 12월—), 외무상 아흐마드 할리파 엘 수와이디, 국방상 모하메드 빈 라쉬드 엘 마크툼

정 치 1892년에 7개추장국들은 영국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각 추장국들에 영국이외의 그 어떠한 나라와도 관계를 가질수 없게 하는 배타적인 《협정》을 강요하여 식민지통치를 유지하여왔다.

1971년 12월 1일 6개추장국이 련방을 창설하고 2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2년 2월 라스 알 카이마흐추장국이 련방에 가입하였다.

1971년 12월 2일 영국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

1971년 12월 6월 18번째의 성원국으로 아랍련맹에 가입하였으며 9일에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10~15%가 유목민이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를 많이 기르고있으며 해안지대에서는 주로 진주를 채취하고있다.

석유가 많이 매장되여있다. 1960년 무르반유전(아부 다비시 서쪽)이 발견된후 영, 미, 프, 일본 등 제국주의자들이 기여들어 석유를 략탈해가고있다.

1967년에 아부 다비석유생산량은 1천 80만t이였다.

두바이항구는 중계무역중심지로 되고있다.

철도가 없다.

교육사업은 주로 지방에서 자체로 하고있다.

오 만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에 있다. 해안을 제외한 령토의 대부분은 고원이다.

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월에 20.7°C, 6월에 32°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30mm이다.

【면적】 21만 2,300km²

【인구】 75만명(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외 인도인, 흑인 등이 있다.

【행정중심지】 니즈와(주민 4,500명, 이마마트 오만), 마스카트(주민 6,200명, 마스카트오만)

【교주】 갈리브 빈 알리(이마마트 오만), 가브스 빈 사이드(마스카트 오만 추장)

정 치 18세기말에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13년 내륙지방인민들이 반영봉기를 일으켜 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때부터 오만에는 오만회교교주국(이마마트 오만)과 영제국주의의 괴뢰국가인 마스카트오만추장국이 생기게 되였다. 195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카트오만에 《우호, 통상, 항해조약》을 강요하여 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1955년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카트오만을 사촉하여 이마마트오만을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직접 이마마트오만에 대한 무력간섭을 시작하였다.

1958년 7월에는 마스카트오만과 《군사협정》을 맺고 이 지역에 제놈들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들을 설치하였다. 1965년에는 마스카트오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의 륙, 해, 공군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였다.

오만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오만인민들은 1957년 7월 18일 교주 갈리브 빈 알리의 지도밑에 영침략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그후 민족해방전선과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으며 내륙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확대하였다.

1965년 6월 9일에는 도파르산맥에서 영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시작되였으며 《도파르해방전선》이 창건되였다. 1968년 9월 《도파르해방전선》 제2차대회에서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쳤다. 이 전선은 무장투쟁에 의한 나라의 해방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적들을 호되게 족치고있다.

197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동안에만도 290차례의 작전을 벌려 1천 30여명의 적들을 소멸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의 전투기 2대와 직승비행기 1대를 쏴떨구었다.

1971년 12월 오만에서 활동하고있는 투쟁단체들은 련합대회를 진행하고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과 오만민족해방전선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중앙조직인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출판보도】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로서 쏘트 알 샤아브(신문), 6월 9일(잡지)이 있다.

경 제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목화, 담배, 대추, 야자 등이다.

산악지대에서는 락타를 기른다.

석유매장량이 풍부하다. 채굴은 미, 영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철도는 없고 400km에 달하는 도로가 있을뿐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 5월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청년조직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아라비아반도의 서남쪽끝에 있다.

열대성기후이며 지역별차이가 심하다. 사나의 최고기온은 35~45°C이다.

【면적】 19만 5,000km²

【인구】 70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그외 페르샤인, 소말리아인 등도 있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사나(주민 12만명), 제2수도 타이즈(4만명)

【협상리사회】 1971년 4월에 공화파, 왕당파, 추장 등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망라되여 창설.

【공화리사회】 1967년 11월 정변후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조직되였다.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

【정부】 수상 겸 외상 모호쎈 알아이니(1971년 9월—)

【정당】 인민혁명동맹(집권당)1967년 11월 정변후 조직된 유일한 정당

정 치 1923년에 토이기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1958년 애급, 수리아와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12월 23일에 떨어져나왔다.

1962년 9월 27일 왕국 륙군참모장이였던 살랄이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0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예멘왕당파,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반동들을 사촉하여 청소한 예멘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4년 11월 정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미제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동들은 왕당파에 무기와 돈을 대주어 부단히 예멘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에로 사촉하였다. 그리하여 예멘에서는 정부군파 왕당파간에 류혈투쟁이 계속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자 예멘정부는 6월 6일 이스라엘에 전쟁을 포고하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11월 5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살랄정권이 무너지고 알 이리야니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화리사회가 조직되였다.

1970년 3월 예멘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정부, 예멘왕당파간에 내란을 종식시킬데 대한 타협적인 《정화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 공화파, 왕당파, 추장세력을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들을 망라하는 협상리사회를 창설하였다.

1971년 4월에는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2년 9월 혁명이래 지배층내에서는 의견상이가 계속되였으며 1967년 군사정변이후 1971년까지만도 20여차의 내각개조와 10여차의 수상교체가 있었다. 1971년에는 3번의 내각개조와 수상교체가 있었다.

1971년 9월 수상으로 된 알 아이니는 정책성명에서 두 이웃나라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민주예멘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재정적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경비지출을 대폭 축감할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경지면적은 약 230만정보이며 2~3모작 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보리, 밀, 강냉이, 목화, 커피, 야자, 종려 등이다.

동부지방과 홍해연안에서는 주로 축산업을 한다.

지하자원은 금, 은, 찌단, 망간, 석탄, 쇠돌, 류황, 석회석 등이다.

7년이상에 걸친 국내전쟁의 결과 경제전반이 파산되고 사소한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특히 1969년이래 계속된 한재로 농업도 심히 파산되였으며 수많은 농촌지대주민들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예멘통신

신문 알 줌후리아, 알 싸아브, 알리싸라, 알와 하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0년 11월 10일 사나시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또한 이 나라의 여러 출판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널리 소개하고 있다. 1971년에만도 신문《알 줌후리아》, 《알 싸아브》, 《알리싸라》는 그이의 천재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1971년에 예멘아랍공화국 외무부상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주예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라비아반도 남단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홍해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켜선 교통의 요충지로서 군사전략상 의의가 크다. 해안지대는 습기가 많고 더우며 내륙지대는 대륙성기후이다. 아덴시의 평균 기온은 1월에 25°C, 7월에는 33°C이다.

【면적】 29만 80km²

【인구】 150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아덴(주민 약 10만명)

【림시최고인민회의】 최고 주권기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1971년 5월—)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1969년 6월—). 1971년 8월 민족전선 총비서인 이스마일, 수상 하싸니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정부】 수상 및 보위상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하싸니(1971년 8월—), 외무상 모하메드 아워드 쌀립 올라끼

【정당, 사회단체】 민족전선 1963년에 창건된 집권당이며 유일당,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로동조합총련맹, 녀성련맹, 민족전선청년조직, 앗 쌀라피민주청년조직,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1969년 5월 5일 결성,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 샤헤르

정 치 1839년 영제국주의자들이 아덴항을 강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점차 예멘의 남쪽지역을 떼내여 아덴이란 나라를 조작하였다.

1962년 4월에는 남부예멘에 있는 회

교왕국, 추장국, 교주국, 소왕국 등의 졸개들을 긁어모아 《남아라비아련방》을 조작하고(1963년 1월 아덴식민지도 이에 병합)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1963년 8월 남부예멘 애국자들은 남부예멘민족전선을 조직하고 이 해 10월 14일 라드판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7년 6월 20일 영식민지 당국의 괴뢰군인 아랍인수비대군인들이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민족주의군대와 무장한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였다. 무장부대들은 각지에서 병영, 괴뢰립법리사회, 재판소, 은행, 석유창고들을 파괴하였으며 감옥을 공격하여 정치범들을 석방하였다.

이리하여 1967년 8월 《남아라비아련방》 괴뢰정부가 무너졌고 11월 26일까지 영침략군이 쫓겨났다. 1967년 11월 30일 남부예멘은 독립을 쟁취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괴뢰고위군사관리들과 왕족출신의 군사장교들을 파면시키고 외국독점체들과 관료배들, 도망친 추장, 회교군주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1968년 10월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봉건령주, 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였다.

1969년 10월 24일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6월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월 14일에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여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1969년 12월 27일 일체 외국인소유의 은행, 해운회사, 보험회사, 석유판매 및 무역회사 등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0년 11월 30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는 현단계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민족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면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장차로는 《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1971년초에는 토지개혁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1년 2월 전국국방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90%가 농목축업에 종사한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후 토지개간사업, 수리화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농경지는 12만 1천여정보에 달하며 목화, 밀, 보리, 기장, 참깨, 남새등을 재배한다. 1969년에 목화는 1만 1천 700t, 기장 및 수수는 6만 1천 200t, 참깨는 3천t 생산하였다. 이 나라 최대의 공업은 년간 680만t 능력의 아덴정유소이며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으로부터 오는 원유를 정제한다. 그밖에 소규모의 제염, 담배, 섬유공업이 있다.

정부는 민족공업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모든 자연부원을 국가의 관할하에 넣었으며 국립중앙은행, 국영운수회사, 국영항공회사 등을 새로 창설하였다.

정부는 1971년을 공업의 해, 새로운 기업소들을 건설하는 해로 정하고 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 도로건설을 추진시키고있다. 1971년에 우리 나라의 원조로 농기계수리공장과 제5도 메이파하자르지구에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관개공사건설에 착수하였다.

3개년계획(1971—73) 기간에는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신발공장, 남새 및 물고기통졸임공장 등을 건설하며 서부지역과 마흐라, 서부지역도시들 사이를 련결시키는 총 연장 325km의 길을 닦게된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으로 되고있다.

아덴에는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정유소, 아덴항연료고, 항공연료고 등이 있다.

소학교 387개, 중학교 67개, 고등학교 16개, 교원대학 6개, 공과대학 1개가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덴통신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투브르(정부기관지), 앗 싸우리(민족전선기관지), 타우라, 싸우붙 움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5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6월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 10일 두 나라간에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4월 14일에는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민주예멘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 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0년에 아덴항구로동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4월 11일), 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 타와이지부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5월 11일), 1도 비르 아흐메드지구 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9월 1일) 등이 조직되였으며 1971년 1월 25일에는 아덴시 교원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여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발표 모임들을 가졌다.

또한 이 나라의 여러 출판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싸우붙 움말》은 그이께서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1971년 2월 아덴에서 우리 나라 정부가 민주예멘정부와 인민들에게 보내는 볼도젤을 비롯한 원조물자전달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10월 민주예멘 적반월사, 11월에는 앗 쌀라피민주청년동맹,평화위원회,민주법률가동맹에서는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서 내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의 제안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1년 민주예멘으로부터 정부대표단(7월), 공보대표단(7월), 로조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사로청 제6차대회에 민족전선청년조직대표, 앗 쌀라피민주청년조직대표가 참가하였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흑해와 에게해를 통하는 보스뽀라스,다다넬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세아, 구라파 두 대륙에 걸쳐있다. 아세아와 구라파를 련결하는 전략적위치에 놓여있다.

건조한 대륙성기후이며 강수량은 적다. 앙카라의 년평균강수량은 230mm이다.

【면적】 77만 6,980km²

【인구】 3,437만 5,000명(1970년)

토이기족이 대부분이고 동부지역에 쿠르드족이 살고있다.

국어는 토이기어

【수도】 앙까라(주민 90만 2,200명)

【국회】 상하량원제

【대통령】 쉐보데트 수나이(1966년 3월—)

【정부】 1971년 12월에 정의당, 인민공화당, 민족신임당의 련립정부구성. 수상 니하트 에림(1971년 12월—), 외무상 할루크 바윰켄, 국방상 페리트 멜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1월에 창건, 1923년에 비법화, 제1비

서·야쿠브 메미르. 로동당(1971년 7월 비법화), 정의당, 인민공화당, 민족신임당, 신로이기당, 공화농민민족당, 사회민주당, 로동련맹평의회, 《혁명청년련맹》

정 치 제1차 대전전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한 오토만제국이라는 한개의 봉건국가였으나 1차대전에서의 패배로 붕괴되였다.

1919년 5월 왕제가 폐지되고 1923년 10월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41년에 파쑈독일과 《우호호상불가침조약》을 맺고 2차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을 적극 도와나섰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졸개로서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쎈토(1955년)에 가담하였다. 1959년 3월 미제와 《쌍무군사협정》을, 1962년에는 서독과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이 밖에도 미제는 토이기에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했으며 1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토이기령토를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전략기지로 리용하고있다.

토이기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으로서 계속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토이기인민들은 나토에서의 탈퇴, 미군사기지의 철폐, 미제와 맺은 예속적인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1971년에 《혁명청년련맹》 성원들이 4명의 미제침략군과 이스탄불주재 이스라엘총령사(5월)를 랍치하였다. 이들은 체포된 토이기애국자들과 이스라엘총령사와의 교환조건을 제기하고 반동당국이 이에 응하지 않게되자 이놈을 죽여버렸다.

1971년 4월 26일 토이기 반동당국은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11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검거소동을 벌리였다.

1971년 8월 4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약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경지면적은 약 2천 534만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밀, 보리, 과일 등이다.

고원지대에서는 말, 락타, 면양, 산양 등을 많이 기른다.

지하자원은 크롬, 동, 석탄, 망간, 원유, 쇠돌 등이다. 광업은 국민소득에서 약 15% 차지한다. 공업은 섬유, 세멘트, 종이, 유리, 도자기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경제명맥은 미제의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해마다 평균 실업자가 4만명씩 늘어나고있으며 10만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있다.

1971년 7월에 158만 9천 500명의 실업자대군이 있었다.

인구의 98%가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토리에통신

신문 우루수(인민공화당기관지), 숨후리에트, 후리에트, 예니 사바

끼쁘로스

(끼쁘로스공화국)

지중해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며 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의 3대륙을 련결하는 군사적요충지이다.

【면적】 9,250km²

【인구】 63만 3,000명(1970년말)

희랍계주민이 82%, 토이기계주민이 18%이다.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

【수도】 니코시아(주민 10만 3,000명)

【의회】 일원제, 총의석 50석중 희랍계인 35석, 토이기계인 15석차지

【정부】 대통령 마카리오스(1960년 8월 16일—), 외상 스피로스 키프리아누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에제키아스 파파이오안누. 애국전선(지도자 마카리오스), 민족련맹, 전끼쁘로스로동련맹,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 1972년 2월 결성

정 치 4세기말에 희랍제국의 령토로 되였다. 1571~1808년에 토이기제국에 강점되였다.

1941년 영제국주의자들이 끼쁘로스를 자기 나라에 병합하고 1925년에 식민지로 만들었다.

1955년이래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1959년 2월 끼쁘로스독립에 관한 영국, 희랍, 토이기간에 체결된 협정에 기초하여 1960년 2월 총선거를 진행하고 1960년 8월 16일 독립하였다.

3개국협정에 따라 1960년에 식민주의자들이 작성한 헌법에 의하면 희랍계 주민과 토이기계주민의 구성비률은 의회, 정부, 국가기관들에서 7대 3, 군대에서는 6대 4, 대통령은 희랍계인,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인으로 선출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과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불평등조약인 1959년 3개국 협정의 수정과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들에게 많은 권리를 준 헌법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반동들을 부추겨 1963년 12월 두 민족간에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1964년 3월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략적인 《유엔평화유지군》이란것을 조작하고 이 나라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1971년 12월 유엔안보리사회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끼쁘로스주둔기간을 6개월(1972년 6월 15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1971년 7월 대통령 마카리오스는 마라포보우스마을의 군중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끼쁘로스인민만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끼쁘로스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말따로부터 쫓겨나게 되자 1971년 1월 말따에 있던 캔베라정찰비행대를 끼쁘로스에 있는 아크로티리기지에 옮겼다.

1972년 1월 근로인민진보당은 영침략군의 이러한 이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밀, 목화, 보리, 귀밀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동, 크롬 등이다. 경제에서 채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마다 수천명이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간다.

【출판보도】 신문 하라브기, 싸로스, 필레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3월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신문 《하라브기》가 실었으며 1971년 7월 12일 신문 《싸로스》는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실었다.

1967년 우리 나라 5.1절경축행사에 전끼쁘로스로동청년대표가 참가했으며 1969년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신문《하라브기》기자와 《필레페》주필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구 라 파 주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쏘련은 구라파의 동부와 아세아의 중앙 및 북부에 위치하고있다.

기후는 북부는 한대 (전령토의 16%), 남부는 아열대(4%), 중부는 온대(80%)에 속한다. 최저기온은 씨비리의 동북부(웨르호얀쓰크)에서 령하 70°C이고 최고기온은 우즈베크남부(쩨르메즈)에서 약 5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깝까즈산맥일대에서 2천 500mm, 서부지역에서 500~600mm, 중앙아세아지역에서 80mm이다.

【면적】 2,240만 3,000km²

【인구】 2억 4,630만명(1972년 1월)

로씨야족 (53%), 우크라이나족 (20%), 백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100여개의 민족과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국어는 로어

【수도】 모스크바(주민 706만 1,000명, 1971년 1월)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되여 있으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현최고쏘베트는 제8기로서 1970년 7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

【정부】 수상 아 엔. 꼬씨긴 (1968년 8월—), 외무상 아. 아. 그로미꼬, 국방상 아. 아. 그레치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7월 30일에 창건.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직업동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쏘련녀성위원회, 쏘조친선협회 1958년 7월 6일에 창건, 위원장 엔. 엔. 따라쏘브

정 치 10월혁명전 로씨야는 군사봉건적농노제적관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제국주의국가였다.

1917년 11월 7일(음력으로는 10월) 레닌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형태의 쏘베트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였다.

쏘련인민은 1918년—1921년에 청소한 쏘베트국가를 압살하려던 13개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준동을 승리적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였다.

1922년 12월 30일 제1차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 형성되였다. 현재 련맹에는 15개의 가맹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 113개의 변강주가 있다.

1924년 12월 제14차당대회에서 제시한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1926년 12월에 소집된 제15차당대회에서 채택한 농촌경리집단화방침은 1929—1934년기간에 완수되였다.

1936년 12월 5일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에서는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41—1945년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쏘련인민은 파쑈독일과 일본제국주의를 격파하고 쏘베트조국을 수호하였다.

쏘련인민은 1970년까지 8차에 걸치는 5개년인민경제계획(1959—1965년간의 7개년계획포함)을 수행함으로써 락후하였던 로씨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1970년 4월 2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며 인류의 영재인 웨. 이 레닌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쏘련공산당파 최고쏘베트 및 로련최고쏘베트 합동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1971년 3월말부터 4월초에 쏘련공산당 제2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1971—1975년 쏘련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지시문을 토의하였으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6월 13일 가맹공화국 최고쏘베트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유권자의 99.94%가 참가하였으며 그의 99.84%가 찬성투표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선네돐을 기념하여 11월 6일에 모스크바크레믈리대회당에서 경축회가 있었으며 7일에는 열병식파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11월 22—23일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제24차당대회이후의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제적활동에 관하여》를 토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1971—1975년 쏘련인민경제발전 5개년 국가계획과 1972년도 계획 및 예산을 토의하였으며 이 계획들은 11월 24—26일에 진행된 최고쏘베트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1971년에 쏘련은 웰남민주공화국에 추가적인 기술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2월 9일)과 추가적인 무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8월)에 조인하였다.

8월 5일에는 중국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모스크바에서 조인하였다.

2월 25일 쏘련정부는 미제의 라오스침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30일에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인도지나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웰남인민들의 투쟁에 필요한 원조를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월에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애급을 방문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또한 이해에 쏘련내각수상이 알제리, 마로끄, 꾸바(10월)를 방문하였으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프랑스와 민주독일을 방문하였다.

한편 수리아당및정부대표단(2월), 애급대통령(10월),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12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쏘련에는 유용광물이 많다. 석탄, 니탄, 원유, 천연가스, 쇠돌, 망간 등은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수력자원도 많으며 목재자원도 500억m³에 달한다.

경작할수 있는 토지면적은 5억 4천 280만정보이며 주요농작물은 밀, 강냉이,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담배, 대마 등이다.

쏘련근로자들은 9차 5개년인민경제계획(1971—1975년)의 첫해인 1971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1971년에 공업총생산액은 7.8%장성하였다. 그중 소비품생산은 7.9%, 생산수단생산은 7.7% 장성하였다. 1970년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8%, 기계공업, 화학공업 및 석유공업제품 생산은 11% 더 장성하였다. 공업에서 로동생

산능률은 6.3% 장성하였다.

1971년에 원유는 3억 2천 200만t, 석탄은 6억 4천 100만t, 강철은 1억 2천 100만t(세계에서 제1위), 선철은 8천 930만t, 전력은 8천억Kwh 생산되였다. 또한 이해에 약 400개의 새로운 큰 공업기업소들이 일을 시작하였다.

1971년에 농업생산액은 약 870억루블리에 달한다. 이해 농산물생산은 1970년도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축산물생산은 3% 늘어났다. 알곡총수확고는 1억 8천 100만t이였다.

이해에 인구 한사람당 실질소득은 4.5%, 국민소득은 6% 각각 늘었다. 도시와 농촌에 230만세대의 다층주택과 개인주택이 건설되였다.

1970년에 보통교육부문 학생은 4천 940만명, 기술학교 및 기타 중등교육부문 학생은 440만명, 고등교육부문 학생은 460만명에 달했다. 과학일군수는 93만명이다.

1971년 쏘련에서는 우주공간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꼬쓰모쓰―390》호로부터 《꼬쓰모쓰―466》호, 자동정류소 《마르쓰―3》호, 《루나―18》호, 《루나―19》호 등을 쏘아 올렸다.

4월에 우주비행선 《쏘유즈―10》호는 궤도과학정류소 《쌀류트》와 두주야에 걸치는 합동비행을 마치고 지구에 내렸다. 쏘련의 세우주비행사는 우주비행선《쏘유즈―11》 호를 타고 지구궤도에 들어서 궤도과학정류소인 《쌀류트》와 결합한후 25일간의 비행일정을 마치고 6월 30일 지구로 돌아와 예정된 지역에 내렸다. (비행사들은 사망)

【출판보도】 통신 따쓰, 아. 삐. 엔

신문 쁘라우다(쏘련공산당기관지), 이즈베쓰찌야(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성기관지) 잡지 꼼무니스트(쏘련공산당 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49년 3월 17일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 5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 및 항해조약, 1961년 7월 6일에는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70년 9월 15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3월 29일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4월 11일에는 우리 나라 과학원과 쏘련과학원사이의 《1971―1973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2월에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사이에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1972년 4월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레닌훈장을 수여함에 관한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에 쏘련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광범히 벌렸으며 쏘련의 통신, 신문들은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사론설들을 수차 발표하였다.

7월 5일 《조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열돐에 즈음하여서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의 참석하에 모스크바에서 큰 기념집회를 가졌다.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을 맞이하여 모스크바를 비롯한 쏘련의 여러 도시들과 농촌들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으며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설정되였다. 또한 9월에 우리 나라 경공업상품전람회가 열렸다.

1970년에 당 및 정부대표단(8월), 군사대표단 (4월), 외무부상겸 유엔주재 쏘련상임대표(8월), 1971년에는 당 및 정부대표단(7월), 쏘조정부간경제 및 과학기술협조협의위원회에 참가할 대표단(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에는 정부통상대표단(1월), 국립우랄인민합창단(3월), 로련작가동맹대표단 (4월), 레닌공산청년동맹대표단(6월), 유엔주재 백로씨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와 유엔주재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8월), 건축가대표단과 직맹대표단(9월), 무선통신선수단과 로련녀자롱구선수단(10월), 쏘조친선대표단, 교예단, 기자대표단, 모스크바시 쏘베트대표단, 내각국가텔레비죤 및 라디오방송위원회대표단, 군대녀자배구선수단(12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3월), 정부대표단(9월과 11월), 적십자회대표단과 모터찌클선수단(2월), 조쏘친선대표단과 과학원대표단(4월), 보험대표단, 평양시 사격선수단,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6월), 청소년조정대표단(7월), 농업대표단(8월), 직맹대표단과 조쏘친선협회대표단, 자동화협회대표단(9월), 은행대표단,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10월), 평양시 요트선수단과 건설건재대학대표단(11월), 직맹대표단과 체육지도위원회대표단(12월)이 각각 쏘련을 친선방문하였다.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구라파 동북쪽에 있다.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및 민주독일과 린접하고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에 면하고있다. 국토의 92%는 평지대(평균높이 173m)이다.

기후는 동구라파 대륙성기후와 서구라파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심한 편이나 대체로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4∼9°C이며 년평균강우량은 500∼700mm이다.

【면적】 31만 2,677km²

【인구】 3,292만 6,000명(1971년 3월말)

주민은 주로 서슬라브족의 뽈스까인이다.

국어는 서슬라브어에 속하는 뽈스까어

【수도】 와르샤와 (주민 130만명)

【쎄임】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쎄임은 제5기로서 1969년 6월 1일에 선거되였다. 쎄임휴회기간의 최고주권기관은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크 야브원스끼(1972년 3월―)

【정부】 수상 뾰뜨르 야로쉐비치(1970년 12월―), 외무상 스떼판 올숍쓰끼, 민족보위상 보이쩨흐 야루젤스끼

【정당, 사회단체】 **뽈스까통일로동당**

전신은 1918년 12월 16일에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2년 1월 4일에 창건된 로동당이 1948년 12월 15일 사회당과 합당하여 뽈스까통일로동당으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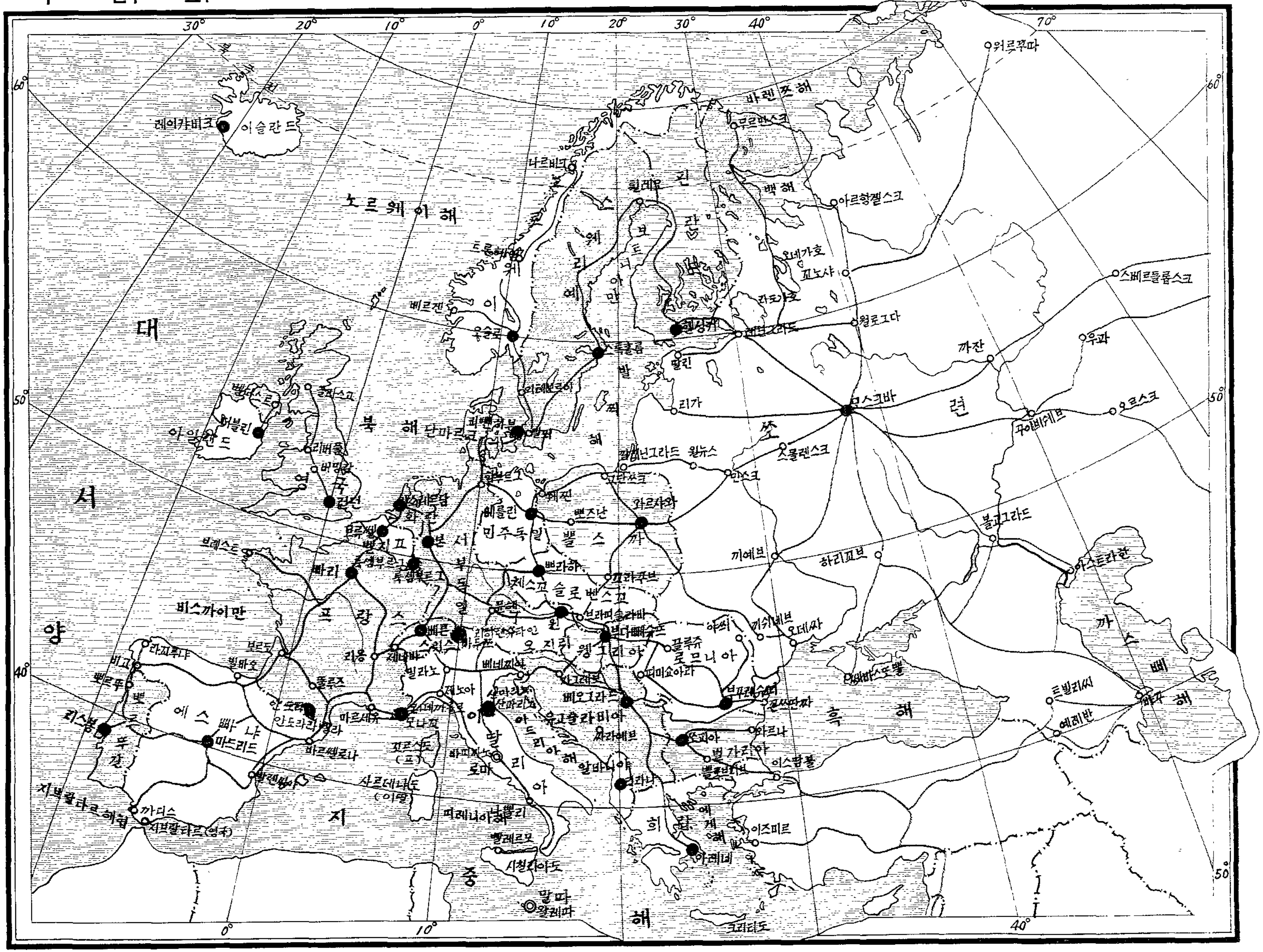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중앙평의회, 사회주의청년동맹, 농촌청년동맹, 녀성동맹

정 치 뽈스까의 기원은 약 1천년전으로 알려져있다.

9세기부터 뽈스까의 령토는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여 14∼16세기에는 발찍해로부터 흑해연안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18세기 말엽에는 짜리로씨야, 프로시야, 오지리

구 라 파



노르웨이해
대
서
양
바렌쯔해
백해
북해
발
해
흑해
까스삐해
지중해
비스까이만
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나르비크
베르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아르항겔스크
스베르들롭스크
우파
까잔
모스크바
리가
스몰렌스크
민스크
꾸이비쉐브
오르스크
볼고그라드
끼예브
하리꼬브
오데싸
아스뜨라한
트빌리씨
예레반
바꾸
베를린
민주독일
바르샤바
쁠스까
쁘라하
체스꼬슬로벤스꼬
부다뻬슈트
웽그리아
로므니아
부꾸레슈띠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쏘피아
벌가리아
이스딴불
알바니아
띠라나
희랍
아테네
이즈미르
크리띠도
이딸리아
로마
빨레르모
시칠리아도
말따
왈레따
아드리아해
꼬르시도
사르데냐도
스위스
베른
빠리
프랑스
브레스트
보르도
리옹
마르세유
뚤루즈
에스빠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스봉
뽀르뚜갈
까디스
지브랄따르해협
아일랜드
더블린
영국
런던
리버풀
글라스고
벨파스트
단마르크
꼬뻰하븐

구라파주 나라들의 면적, 인구, 수도 일람

나라이름	면적(km²)	인구(명)	년 도	수도(행정중심지)
쏘 련	22,403,000	200,004,630	1972. 1	모스크바
뽈 스 까	312,677	32,700,000	1970. 12	와르샤와
체스꼬슬로벤스꼬	127,859	14,442,000	1971. 12	쁘 라 하
로므니아	237,500	20,600,000	1972. 1	부꾸레슈띠
웽그리아	93,030	10,374,000	1972. 1	부다뻬슈뜨
벌가리아	111,030	8,565,000	1972. 1	쏘 피 아
알바니아	28,748	2,000,000	1968	티 라 나
민주독일	108,174	17,040,926	1971	베 를 린
서부독일	248,000	58,707,000	1970. 8	본
오 지 리	83,849	7,443,800	1971. 5	윈
유고슬라비아	255,804	20,660,000	1970. 12	베오그라드
핀 란 드	337,009	4,697,000		헬 싱 키
스웨리예	449,200	7,950,000		스톡홀름
희 랍	132,562	8,430,000		아 테 네
노르웨이	323,917	3,867,000	1969	오 슬 로
이슬란드	103,000	201,975	1968	레이캬비크
영 국	244,100	55,534,000	1969	런 던
아일랜드	78,283	2,970,000	1971	더 블 린
단마르크	43,042	4,873,090	1969	쾨뻰하븐
화 란	32,400	13,100,000	1970. 12	암스테르담
벨 지 끄	30,507	9,646,000		브 류 셀
룩셈부르그	2,586	337,000	1969	룩셈부르그
프 랑 스	551,208	51,000,000	1971. 1	빠 리
스 위 스	41,288	8,115,000		베 른
이딸리아	301,226	54,500,000	1970. 8	로 마
바띠까노	0.44	1,000		
산마리노	60.57	20,000	1969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157	21,230	1969	바 두 쯔
모 나 꼬	1.49	23,000	1969	몬떼까를로
안 도 라	453	19,000		안도라 라벨라
에스빠냐	503,486	33,609,000	1970. 12	마드리드
뽀르뚜갈	92,200	9,560,000	1969. 7	리 스 봉
말 따	316	324,000	1969	왈 레 따

동의 강점으로 완전히 분렬되여 약 130년간 이 나라들의 예속하에 있었다. 1918년 11월 7일에 뽈스까는 부르조아민족국가로 독립하였다.

1939년 9월 히틀러독일이 뽈스까를 강점하였다.

쏘련군대와 뽈스까 제1군의 진격으로 나라의 일부가 해방되자 1944년 7월 21일 루블린에서 첫 인민정권의 집행기관으로서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위원회는 7월 22일 《7월선언》을 발표하였다. (뽈스까인민들은 이날을 재생의 날로 기념한다)

1944년 12월 31일에 《뽈스까민족해방위원회》는 림시정부로 개편되였으며 1947년 1월 19일에는 총선거에 의하여 공산당과 사회당《좌익》을 중심으로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1952년 7월 헌법을 발표하였다.

뽈스까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개혁(1944년 9월), 산업국유화(1946년 1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뽈스까는 해방후 인민경제복구 3개년계획(1947—1949년)과 6개년계획(1950—1955)의 수행결과 경제적으로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다.

1970년 12월 7일 서독과 오데르—나이쎄국경을 확정하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해 12월 12일 정부에서 식료품과 일련의 일용필수품소매가격을 올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데 뒤이어 12월 14일부터 여러도시들에서 로동자, 학생들의 파업과 시위가 벌어져 나라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 원수들의 준동에 의하여 더욱 복잡하여졌다.

12월 17일 뽈스까내각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1년 2월 6일과 7일 량일간에 진행된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12월사변에 대한 평가와 당의 당면과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문제를 토의하고 통일로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정치국위원들을 교체하였다.

2월과 3월에 소집된 쎄임회의에서는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그의 일부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4월에 열린 쎄임회의에서는 농산물생산을 촉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6월 24일부터 25일사이에 진행된 통일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71—1975년 사회경제발전기본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1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통일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뽈스까인민공화국의 금후 사회주의발전에서의 당의 과업》과 《1971—1975년도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본조항》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의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 (려청탄), 갈탄, 니탄, 천연가스, 동, 류황, 돌소금, 아연 등이며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71년에 공업총생산액은 전해보다 8% 장성하였다. 이해에 이 나라에 있는 6개의 원유가공공장에서 1천만t의 원유를 가공하였으며 53척의 배가 건조되였다. 철도로동자들은 1970년에 비하여 1천 500만t이나 더 많은 3억 8천 600만t의 여러가지 짐을 운반하였다.

이해에 와르샤와시에서만도 1만 1천세대의 살림집과 60여개의 상점, 식당,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을 건설하였다.

1971—1975년의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에는 총 107만 5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며 2천 500만t의 콕스탄을 포함하여 1억 6천 700만t의석탄, 960억kWh의 전력, 1천 800만t의 강철, 1천 800만t의 세멘트를 생산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또한 이 기간에 농산물은 17~20%, 축산물은 19~21% 장성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경지면적의 85%를 개인농민들이 차지하고있다.

개인기업소들과 수많은 개인수공업과 상점들이 있다.

1967년부터 8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1971년에 2개의 사범대학이 더 늘어 77개의 대학에서 35만명의 대학생 (그중 주간학생 21만 7천명)이 공부하고있다.

1970년도말 의사수는 4만 9천 200명, 병원침대수는 16만 8천 800대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

신문 뜨리부나 류드(뽈스까통일로동당기관지), 그워스 쁘라찌(직맹기관지), 발까 므워드흐(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조우네즈 볼노스찌(인민군기관지), 지쩨 와르샤븨, 젠니크 류도븨, 뜨이고드니크 꿀뚜라느이

잡지 노웨드로기(뽈스까통일로동당리론잡지) 지쩨 빠르띠(뽈스까통일로동당생활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2년 6월 2일에는 무역협정을, 1956년 5월 11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4월 17일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3월 26일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정부사이의 1971—1975년 장기무역협정과 그리고 1971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0월 25일에는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정부사이의 1972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1년에 뽈스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였으며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뽈스까의 잡지 《제쉬뜨이 떼오레띠츠노—뽈리띠츠네》 제6호가 실었으며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신문 《뜨이고드니크 꿀뚜라르느이》 10월 17일호가 소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신문 《젠니크 츄도븨》 4월 15일호가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1970년 5월에 쎄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에는 농업경제부문과학자대표단(5월), 전뽈스까청년조직협조위원회대표단(6월), 출판일군대표단(7월), 외무부상과 그 일행(8월), 조뽈과학기술협조위원회회의에 참가할 뽈스까측대표단(9월), 정부통상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1971년에 당대표단(11월), 무역부상과 그 일행(6월), 친선문화대표단(7월), 청소년체조선수단(8월), 선박공학교원대표단(11월)이 뽈스까를 각각 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두 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라파의 중심부에 있다.

기후는 대서양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여름에 17°C, 겨울에 령하 3°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450~1천 500mm이다.

【면적】 12만 7,850km²

【인구】 1,444만 2,000명(1971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은 체스꼬인, 슬로벤스꼬인이고 이밖에 독일인, 뽈스까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산다.

국어는 체스꼬어와 슬로벤스꼬어이다.

【수도】 쁘라하(주민 107만 8,000명, 1970년 9월)

【련방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1968년 3월—)

【련방정부】 수상 루보미르 슈뜨로우갈(1970년 1월), 외무상 보후슬라브 호노웨끄, 민족보위상 마르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 1948년 6월에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였다.

제1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인민당, 사회당, 슬로벤스꼬부흥당,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정 치

기원 7세기에 첫 왕국이 건립되였다. 11세기전반기에 오늘의 슬로벤스꼬지역이 웽그리아에 병합되고 체스꼬는 1620년에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1918년 10월 28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부르조아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있었다. 1938년 9월 30일 반동적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는 《뮨헨협정》의 참가국들 앞에 굴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부국경지대의 쑤제뜨지방은 독일에 병합당하였다.

1939년 3월 파쑈독일의 침공을 받았다. 히틀러도배들은 체스꼬와 모라비아지역을 강점하고 여기에 《보호통치》제도를 세우는 한편 슬로벤스꼬지역을 체스꼬로부터 떼내여 이른바 《슬로벤스꼬국가》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슬로벤스꼬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44년 8월 29일에는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인민들의 반파쑈민족해방투쟁은 파쑈독일의 패망을 촉진시켰으며 1945년 5월 9일 히틀러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5년 7월에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46년 5월에는 제1차민족회의선거를 실시하고 새 련합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음모를 짓부셨다. 2월사변후 정부는 산업, 은행, 상업 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완수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1968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중앙집권제를 거부하며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인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8월 21일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당 및 국가활동가들의 요청을 받고 와르샤와조약참가국들인 쏘련, 벌가리아, 웽그리아, 민주독일, 뽈스까 군대들이 이나라 령토에 들어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1969년 1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정부가 구성되였으며 또한 체스꼬사회주의공화국정부와 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정부가 각각 구성되였다.

1971년 2월 4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1970년) 결정실행에 관한 문제를 총화하고 1971년 5월 25일에 당 제14차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5월 25—29일까지 진행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와 1971—1975년도 당의 경제정책의 주요방향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고 새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사회에서의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4차대회의 결정실행과 선거준비기간의 당의 과업 및 당대렬의 공고화를 위한 금후 과업에 대하여》와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고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0월 21일에 가진 당전원회의에서는 국제문제를, 12월 3일 전원회의에서는 총선거결과와 당 및 각급주권기관들의 과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26일과 27일 량일간에 걸쳐 각급주권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유권자의 99.45%가 투표에 참가하여 99%이상이 찬성투표하였다.

12월 9일에 열린 련방회의 인민의원 및 민족의원합동회의에서는 새정부성원들이 임명되였으며 련방회의 의장으로 알로이스 안드라를 선거하였다.

1971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기자》, 《류학생》, 《외교관》, 《개인기업》의 탈을 쓰고 간첩활동과 파괴활동을 감행한 7명의 미국놈과 2명의 서독놈들을 추방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석탄, 갈탄, 쇠돌, 망간, 흑연, 주석, 동, 우라니움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강냉이, 호프, 아마 등이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 종사하는 로력자수의 약 40%가 공업부문에서 일한다. 기계제작공업과 금속공업은 이 나라인민경제 특히 중공업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5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의 첫해인 1971년에 이 나라의 사회총생산물은 전해에 비하여 6% 장성하였다. 공업총생산액은 6.9%, 농업총생산액은 2.8% 장성하였다. 이해에 살림집은 10여만 세대를 지었다.

1971년에 슬로벤스꼬에서는 공업총생산액을 약 8%, 기본건설총량을 12% 장성시켰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농산물생산을 7.5%, 축산물생산을 11%장성시켰다.

5개년계획의 말인 1975년에 1억 1천500~1억 1천 800만t의 석탄, 1천700만~1천800만t의 원유를 가공생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966년 7월부터 주민들에 대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쩨(혁명직맹운동기관지), 믈라다 프론따(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노바 믜쓸(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4년 12월 21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조를 위한 협정을,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3월 17일 쁘라하에서 우리 나라와 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체스꼬어로 출판하였으며 신문 《루데쁘라보》는 《김일성동지의 60년》이라는 제목밑에 그이의 혁명활동을 소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신문 《오스뜨랍쓰끼 웨체르니끄》 7월 2일호가 실었으며 그이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의 요지를 신문 《리도바 데모크라씨에》 1월 8일호가 실었다.

5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여러 도

시들과 공장들에서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고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6월과 7월에는《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곳에서 남조선에서 미제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녀성리사회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에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우리 나라 주요기념행사때마다 사진전람회를 열었다.

1970년에 제1외무부상(4월), 혁명직맹운동중앙평의회대표단(7월), 1971년에는 과학기술협조대표단(7월), 정구선수단(8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 과학원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대표단(5월), 남녀탁구선수단(7월), 궁술대표단(8월), 무역상(9월), 직맹대표단(12월)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각각 방문하였다. 11월에 우리 나라 교예단이 이 나라에서 친선공연을 하였다.

로므니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로므니아는 구라파의 동남부에 있으며 쏘련, 웽그리아, 유고슬라비아, 벌가리아와 린접하고있다. 산지와 언덕지대가 총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기후는 동구라파의 대륙성기후와 중구라파의 해양성기후가 결합되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년평균기온은 10°C이나 45°C로부터 령하 35°C까지의 심한 변화를 일으킨다. 년평균강우량은 635mm이다.

【면적】 23만 7,500km²

【인구】 2,060만명(1972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로므니아인(87%)이며 웽그리아인, 독일인,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국어는 로므니아어

【수도】 부꾸레슈띠(주민 152만 6,000명)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대민족회의는 1969년 3월에 선거되였다. 대민족회의 상임기관은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69년 3월—)

【정부】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1969년 3월재선), 외무상 꼬르넬리우 머네쓰꾸, 무력상 이온 이오니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되였으며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고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당명칭을 다시 공산당으로 고쳤다.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통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정 치

4세기동안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던 로므니아는 1878년 로씨야—토이기전쟁에서 토이기가 패망한후 1881년에 왕국을 선포하였다.

1938년에 군주독재가 수립되였으며 1940년에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 1941년 6월에는 히틀러의 편에 서서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였다.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반동정권을 뒤엎고 쏘련군대와 함께 파쑈독일강점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하였다.

1945년 3월 6일에 첫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7년 12월 30일에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5년 3월 20일에 토지개혁법령을, 1948년 6월 11일에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고 일련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49년 여름부터 1962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완성되였다.

1965년 8월 21일에는 1952년의 헌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새 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9년 8월에 진행된 공산당 제10차 대회에서는 5개년(1971～1975년) 계획과 관련된 지시문과 1976—1980년 기간의 인민경제발전 방향 등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71년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66—1970년도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실행정형을 총화하고 당 및 사회단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5월에 진행된 대민족회의 회의에서는 농업생산과 공업생산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5월 7일에 공산당창건 선돐기념보고대회가 부꾸레슈띠에서 진행되였다.

10월에 진행된 대민족회의 정기회의에서는 1971～1975년기간의 국가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였다.

11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사상사업을 개선하며 대중의 지식과 사회주의 교양과 전반적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와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1월 9일 수도 부꾸레슈띠에서 당 및 정부지도자들의 참가하에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 탄생 70돐을 기념하는 사회계대표들의 집회가 진행되였다.

12월 15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6—17일에 진행된 대민족회의 정기회의에서는 1972년도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계획초안과 1972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쇠돌 등이며 원유와 천연가스생산은 구라파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남새 등이다.

5개년계획(1971～1975년)의 첫해인 1971년도 공업총생산액은 1970년에 비하여 11.5% 장성하였다. 더우기 73억 레이어치의 제품이 계획외에 더 생산되였다. 1971년에 그전해에 비하여 전력생산은 12.3%, 석유채취량은 3.1%, 강철생산은 4.4% 각각 늘었다.

1971년에 340만호의 농가에서 900여만정보의 땅을 경작하였으며 알곡총생산량은 1천 450만t에 달하였다. 정보당 생산에서 밀은 1t 350kg, 강냉이는 2t 20kg에 달하였다. 1971년에 23만정보의 땅을 새로 관개하였다.

1971년초에 이 나라에는 214만 7천 800마리의 소, 530만 800마리의 양, 161만 2천 900마리의 돼지가 있었다.

1971년에 이 나라 상점들에서는 1천 20억레이어치 상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국민소득은 1970년에 비하여 12.9% 장성하였다.

대외무역류통액은 1970년에 비하여 8.6% 장성하였다. 수출은 13.7%, 수입은 4% 각각 장성하였다.

1971년에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수는 25만명 늘어나 536만명에 달하였다.

인구의 5분의 1이 각급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38년에 2만 6,000명이였던 대학생수는1971년에 15만명으로 늘어났다. 8～9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1년에 1천 400명의 의사, 약제사들이 새로 사회에 진출하였다.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매 협동농장에도 1～3명의 의사들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제르 쁘레쓰

신문 쓰끈떼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아 떠네레둘루이(공청기관지).

잡지 롤따 데 클라써(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0월 23일에 경제 및 기술협정을, 1956년 5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8월 1일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1년 6월 9—15일까지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고 6월 15일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971년 3월 8일 우리 나라 무역은행과 로므니아무역은행사이의 청산결제절차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5월에는 두 나라 무역성 사이에 1971~1975년간 상품호상추가적공급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6월 7일에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0~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에 대한 1971년도 보충합의서가 조인되였다.

10월 29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11월 2일에는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들에서 법률상 방조를 서로 줄데 대한 조약과 령사협약이 체결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6. 25—7.27)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의 여러곳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1971년에 로므니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그이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잡지《루메아》 16호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하였다.

1970년에 로므니아 대민족회의 및 국가쏘베트대표단(6월)과 군사대표단(7월)이, 1971년에는 당 및 정부대표단(6월)과 정부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외에 1971년에 은행대표단(3월), 무역대표단(5월), 공산주의청년대표단, 국가쏘베트대표단(6월), 농업대표단과 로므니아텔레비죤촬영단(9월), 직맹대표단, 로므니아대표단(10월), 정부통상대표단, 아제르 쁘레쓰통신사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9월 로므니아군대《도이나》 협주단이 우리 나라에서 친선공연을 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군사대표단(4월), 녀자대학생탁구선수단(1월), 사로청대표단(2월), 직맹대표단(3월), 보건대표단(7월), 기자대표단(8월), 건축가동맹대표단(9월), 농업대표단(10월), 로동자신문대표단(11월)이 로므니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12월에 우리 나라 교예단이 로므니아에서 친선공연을 하였다.

웽그리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구라파동쪽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 오지리, 쏘련과 린접하고있다. 령토의 5분의 4이상이 평원과 언덕지대이다.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대륙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0~11°C, 년평균강우량은 600mm이다.

【면적】 9만 3,030km²

【인구】 1,037만 4,000명(1972년 1월)

주민의 절대다수가 웽그리아인(마쟈르족)이고 기타 로므니아인, 슬로벤스꼬인, 쎄르비아인, 독일인 등이 산다.

국어는 웽그리아어

【수도】 부다뻬슈뜨(주민 201만명)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국가회의는 1971년 4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

【로농혁명정부】 수상 포크 예네(1967년 4월—), 외무상 뻬떼르 야노쉬, 국방상 찌네게 라이요쉬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18년 11월 20일에 창건, 전신은 1948년 6월에 공산당(1918년 11월 20일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1956년 11월에 당이름을 사회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전국리사회.

정 치 9세기말에 아세아로부터 이주한 마쟈르족이 1001년에 웽그리아국가를 세웠다. 그후 웽그리아는 몽골과 토이기의 침략을 받아 그 예속하에 있다가 1867년에는 오지리에 병합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지리—웽그리아제국이 패망한후 웽그리아는 1918년에 부르죠아공화국으로 되였다.

위대한 10월혁명의 영향을 받은 웽그리아의 로동계급은 1919년 3월 21일 무장봉기를 일으켜 로동계급의 정권인 쏘베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음모책동으로 쏘베트정권은 전복되고 1919년 8월 또다시 파쑈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1944년에 히틀러독일이 웽그리아를 강점하자 웽그리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이해 3월 독립민족전선을 형성하였으며 12월에는 림시민족정부를 수립하고 파쑈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였다. 1945년 4월 4일(《국경절》로 기념)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1946~1949년간에는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49년 8월 18일 헌법을 채택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이날을《헌법절》로 기념).

1956년 10월 전복된 국내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반혁명도발사건을 일으켰으나 웽그리아인민들은 이를 분쇄하고 같은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1970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사회로동당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보고와 규약개정에 대한 제의 등 일련의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새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971년 1월에 진행한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대내정책과 대외정책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2월 10일에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지방쏘베트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법안을 심의하였다.

4월 25일에 국가회의 및 지방쏘베트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자들의 99%가 국가회의대의원립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5월 12일 진행된 국가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가회의 의장을 선거하고 정부를 새로 구성하였다.

6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정부의 활동계획과 1970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된 국가회의회의에서는 1972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을 토의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석탄, 망간, 쇠돌, 천연가스, 원유, 갈탄, 우라니움, 바나디움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사탕무우, 감자 등이다.

4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의 첫해인 1971년에는 1970년에 비하여 공업총생산액은 5%, 농업총생산액은 9%장성하였다. 그중 전력은 6.7%, 야금공업은 4.5%, 경공업은 3.7%늘어났다.

1971년에 과일밭면적 17만 2천정보에서 120만t의 과일을 땄다.

1971년에 국민소득은 1970년에 비하여 7~8% 장성하였다. 근로자들의 한사람당 실질수입은 5~6% 늘어났다.

1972년 1월 1일현재 웽그리아의 취업자수는 504만명으로서 그전년에 비하여 1% 늘었다.

1971년에 수출은 8%(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수출은 13%), 수입은 19% 늘었다.

1970년에 의사수는 해방전에 비하여 2배이상 늘어나 약 2만 3천명에 달하였으며 병원침대수는 8만 4천대였다.

1971년에 74개의 대학에서 8만명이, 인민학교, 중학교에서는 200만명이 공부하고있었다.

이해에 2만 3천명의 농업전문가를 포함하여 30만명의 전문가들이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일하고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므띠

신문 네프싸바드 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넴제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잡지 따르샤달미 쎄믈레(사회로동당정치리론잡지), 빠르쎌레뜨(사회로동당생활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11일에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56년 6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4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웽그리아 신문 《끼쉬 열쉐드》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의 요지를 련재하였다.

1971년 9월에 조선—웽그리아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1년 1월 18일에 두 나라 보건성사이에 1971년도 보건 및 의학과학 부문의 계획서가, 1월 25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1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2월 27일에는 1971~1972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같은해 10월 30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에 1972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으며 11월 29일에는 두 나라 과학원사이의 1972~1973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웽그리아어로 출판하였으며 웽그리아 너지까군에서 영화감상모임을 가졌다. 모임장소에는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혁명적가정, 어린시절,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1971년에 무역상(5월),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웽그리아로부터 1970년에 교육문화대표단(4월) 애국전선전국리사회 및 전국평화리사회 대표단(5월), 직맹대표단, 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과학자대표단(6월), 부다뻬슈뜨 쏘베트집행위원회대표단(7월)이, 1971년에는 정부통상대표단(1월), 작가대표단과 웽그리아조선친선나지까다 농업협동조합대표단(5월), 공산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대표단(6월), 농업, 산림 및 수리로동자직맹대표단(7월), 유엔주재 웽그리아상임대표부부(8월), 교육대표단(10월), 과학원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직맹대표단(4월),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6월), 문화친선대표단(7월), 농업과학대표단(10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 남녀청년수영선수단(1월), 녀자배구선수단, 평양시격검선수단(6월)이 웽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벌가리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발칸반도의 동남부에 있으며 로므니아, 토이기, 희랍, 유고슬라비아 등과 린접하고있다. 령토의 3분의 2이상이 해발 500m에 달하는 산지이며 나머지는 500m이하의 언덕과 낮은 평원으로 되여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대륙성기후이나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2~13°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650mm이다.

【면적】 11만 1,035km²

【인구】 856만 5,000명(1971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이 남슬라브계의 벌가리아인이다.

국어는 벌가리아어

【수도】 쏘피야(주민 약 96만명)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회의는 1971년 6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

【정부】 수상 쓰딴꼬 또도로브(1971년—), 외무상 뻬떼르 믈라데노브, 인민보위상 도브리 드쥬로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5월 25일에 창건, 전신은 1903년에 창건된 사회민주로동당이다.

제1비서 또도르 쥡꼬브

조국전선, 직업동맹, 인민농민동맹, 디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정 치 벌가리아는 약 5세기동안 토이기봉건왕조의 통치하에 있었다. 로씨야—토이기전쟁(1877—1878년)에서 토이기가 패배한후 벌가리아는 토이기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과 벌가리아공산당의 지도밑에 1919년에 인민농민동맹정부가 수립되여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23년 6월 9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립헌군주국이 수립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중립》을 선포하였다.

벌가리아인민들은 파쑈통치배들과 히틀러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벌렸으며 1942년에는 공산당의 령도밑에 반파쑈력량을 단합하여 조국전선을 형성하였다.

1944년 9월 9일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쏘련군대의 승리적인 진격의 유리한 환경속에서 전인민적폭동을 일으켜 파쑈군주정부를 뒤집어엎고 인민정부를 수립하였다.

1946년 9월 8일에는 군주제도를 청산할데 대한 전인민적투표를 진행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이 선포되였다.

해방후 벌가리아는 1946년 3월에 토지개혁법령을, 1947년 12월에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71년 2월 16일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였

으며 인민회의, 인민쏘베트, 인민판사, 인민참심원들의 임기를 연기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와 공산당 새 강령의 채택, 1971~1975년간의 사회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지시문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지도기관이 선거되였다.

5월 7일에 열렸던 인민회의회의에서는 공화국의 새 헌법초안을 토의하고 찬동하였으며 새 헌법에 대한 인민투표를 5월 16일에 진행(투표결과 99.66%가 찬성)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5월 18일 인민회의회의에서는 공화국의 새 헌법을 발포하였다.

6월 27일에는 인민회의와 지방인민쏘베트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유권자의 99.85%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그중 99.9%가 찬성투표하였다.

7월 6일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국가주권기관들의 구조와 활동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15일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인민회의회의에서는 제6차 5개년(1971—1975년) 계획초안과 1972년도 국가예산초안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천연가스, 크롬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경지면적은 약 586만정보인데 1971년 현재 그의 21%가 관개되였다. 6차 5개년 계획기간에 25만정보의 농경지에 물을 댈 계획을 하고있다.

산림면적은 약 360만정보인데 령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제6차 5개년(1971—1975년) 계획의 첫해인 1971년에 공업부문근로자들이 137억레브어치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9.5% 더 장성한것으로 된다. 전력은 1965년의 2배에 달하는 210억kWh를 생산하였다. 특히원유가공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년동안에 29.2%나 생산규모가 커졌다. 이리하여 총체적으로 년간공업생산계획은 1.6% 초과수행되였다.

1971년에 농업총생산액은 1970년에 비하여 4.3% 증가하였다.

1970년에 학생총수는 약 170만명이였는데 그중 보통교육부문학교학생수는 29만명, 대학생수는 8만 7천명이였다.

1969년에 해방전 1944년에 비하여 병원침대수는 6배로, 종합진료소 및 진료소수는 4배로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브따

신문 라보뜨니체스꼬 젤로(공산당기관지), 오쩨체스트벤 프론트(인민회의 및 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믈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아르미야(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브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 25일 두 나라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에는 무역협정을, 1969년 12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조직에 관한 협정을, 1970년 12월 29일에는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7월 30일에는 두 나라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5월 8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1—1972년도 문화교류계획서, 11월 1일에는 두 나라정부사이의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10월에 우리 나라에 온 조선벌가리아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의 벌가리아측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970년에 경제기술대표단, 조국전선민족리사회대표단(6월), 디미뜨로브공청대표단(7월), 기자대표단(9월), 작곡가대표단(11월)이, 1971년에는 문화대표단(5월), 디미뜨로브공청대표단(6월), 외무제1부상(8월), 정부통상대표단(10월), 쏘피아시 인민쏘베트대표단(11월), 예술체조선수단(7월), 브라쟈 《보떼브》 축구선수단(8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로동당대표단(4월), 과학원대표단(6월), 농업대표단(8월), 기자대표단(9월), 조선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10월),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정부대표단과 농업과학원대표단, 정부대표단(11월)이 벌가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에 조선인민군협주단(5월)파 교예단(11월)이 벌가리아에서 친선공연하였다.

알바니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서쪽 아드리아해에 면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아, 희랍과 린접하고있다.

지중해성기후이다.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비가 많이 오며 여름은 무덥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5~26°C이고 1월의 평균기온은 6~8°C이다. 구라파에서 강우량이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한다.

【면적】 2만 8,748km²

【인구】 200만명(1968년)

주민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인이며 그밖에 희랍인, 토이기인, 벌가리아인 등이 산다.

국어는 알바니아어

【수도】 티라나(주민 17만명)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회의는 제7기로서 1970년 11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1970년 11월에 재선)

【정부】 수상 메호메트 쉐후(1970년 11월), 외무상 네스띠 나쎄, 인민보위상 베키르 발루크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11월에 제 1차 당대표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민주주의전선

정 치 알바니아는 15세기부터 5세기동안 토이기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 11월 28일에 독립하였다.

1922년에 알바니아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39년 4월에는 이딸리아에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1943년 7월 파쑈이딸리아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1943년 9월 히틀러독일에 다시 강점당하였다.

알바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강점자들과 국내반역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944년 11월 29일에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6년 1월 11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6년 3월 14일 헌법을 채택하였다. 해방후 알바니아는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1949—1950년의 2개년계획을 거쳐 1951년부터는 5개년계획수행에 착수하여 1970년까지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970년 9월 20일 제7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자의

100%가 립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1971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인민회의회의에서는 1971년도 경제 및 문화발전계획 초안과 1971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들을 채택하였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71—1975년 경제 및 문화발전 제5차 5개년계획지시문초안과 군대 및 인민자위지원군의 전투준비를 가일층 개선할데 대한 조치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알바니아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경제발전 제5차 5개년계획에 관한 제6차대회 지시문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에 진행된 인민회의회의에서는 알바니아 경제 및 문화발전 제5차 5개년(1971—1975년) 계획초안과 1972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국가계획초안과 1972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피치, 원유, 크롬광, 동, 석탄, 천연가스, 쇠돌, 니켈, 보크사이트 등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포도, 파일, 남새 등이다

알바니아근로자들은 제4차 5개년계획을 공업생산액적으로 4년 7개월동안에 완수하고 1971년부터 제5차 5개년(1971—1975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1971년 상반년계획을 석탄부문에서는 102.3%, 기계제작부문에서는 103.2%로 넘쳐 수행하였다.

또한 석유가공공업과 경공업 및 운수부문의 근로자들도 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971년 한해동안에 공업부문근로자들은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900여개의 생산선과 직장들을 건설하였으며 2천여종의 새 공업제품을 생산하였다. 또한 건설부문일군들도 550여대의 기계들을 만들어 건설에서의 기계화를 촉진시켰다.

5차 5개년(1971—1975년) 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60~65%, 농업총생산액은 4차 5개년계획기간에 비하여 50~55% 높일것을 예견하고있다.

또한 이 기간 매해 국민소득은 9.5%, 전기간 식료품 및 소비품 생산은 50%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1970년에 고등의학교육을 받은 보건일군수는 1938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다. 1970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62만 2천명이였으며 8년제학교는 1천 329개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아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써(로동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에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 7월 1일에는 기술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3월 10일에 우리 나라 정부와 알바니아정부사이에 1971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1년 12월에 알바니아정부통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3월에 정부통상대표단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독 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독일은 구라파의 중앙에 자리잡고있으며 북쪽은 발찍해에 면하고있다.

전반적으로 대륙성기후이나 바다를 끼고있어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는다. 년평균기온은 7°C, 년평균강우량은 600~700mm이다.

【면적】 10만 8,174Km²

【인구】 1,704만 926명(1971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다.

국어는 독일어

【수도】 베를린(주민 108만 6,000명)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현 인민의원은 1971년 11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부】 수상 윌리 슈토프(1971년 11월 재선), 외무상 오토 윈쩨르, 민족보위상 하인쯔 호프만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1918년 12월 30일 창건)과 독일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민족민주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정 치 1871년에 독일제국이 수립되였다. 독일은 1914년에 식민지분할을 위한 제1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독일군국주의자들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되였으나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여 1918년 가을에는 《11월폭동》이 폭발하였다. 11월초 킬항구에 집결되여있던 독일함대 해병들의 폭동을 비롯하여 함부르그, 라이프찌히 및 기타 많은 도시들에서 대중적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11월 9일에는 반동적군주제도가 전복되고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가 창설되였다.

그러나 당시 로동계급은 혁명적당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지 못하였으며 11월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파쑈독재를 수립하고 1936~1937년에 일본,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맺고 1939년에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941년 6월 쏘련에 대한 불의의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쏘련군대의 결정적인 반격에 의하여 1945년 5월 9일 히틀러독일은 패망하였다.

전후 독일은 쏘, 미, 영, 프랑스 등 4개국에 점령되였으며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속하게 되였다.

1945년 8월 포츠담협정은 독일에서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을 청산하고 독일을 민주화하며 경제적 및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며 강화조약을 체결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포츠담협정을 뒤엎고 1949년 9월 서독에서 단독국가를 조작하고 재군국화의 길로 내몰았다.

1949년 5월 30일 동부독일은 첫헌법을 채택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민주독일은 1946~1949년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부터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에 착수하였다.

1968년 4월 9일에 1949년 헌법을 폐지하고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1971년 1월에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독일사회통일당 제8차대회의 정치적준비에 관한》 문제와 《당기관들의 선거준비와 그 진행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5월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년령관계로 제1비서의 직책에서 해임해줄데 대한 발테르 울브리히트의 요구를 승인하고 그를 당위원장으로 선거하였

으며 제1비서로 에리히 호네케르를 선거하였다.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독일사회통일당 제8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5개년(1971—1975년) 계획지시문 등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6월 24일에 진행된 인민의원회의에서는 1970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를 전국국방리사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11월 14일에 인민의원, 주인민회의, 베를린시의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등록된 유권자의 98.48%가 투표에 참가하여 99.85%가 민족전선의 립후보자들에 찬성투표하였다.

새로선거된 인민의원 제1차(11월 26일) 회의에서는 국가쏘베트위원장과 내각수상을 선거하였으며 제2차(11월 29일) 회의에서는 새 정부정강이 발표되고 정부구성에 대한 새 안이 승인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의원회의에서는 1972년도 인민경제계획 및 국가예산과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2월 11일 민주독일정부와 서부독일정부, 서부베를린간에 서부독일에로의 공민들과 화물통행에 관한 협정에 조인되였다. 12월 20일에는 민주독일정부와 서부베를린 상원간에 서부베를린 상주민들의 민주독일 방문 및 려행에 관한 협정과 피포위령문제해결을 위한 령토교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2월 27일 정부는 미제의 범죄적인 라오스 침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자원으로는 갈탄, 카리염, 우라니움 등이 있으며 유리와 도자기 원료도 많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유지작물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화학, 기계, 광학, 정밀기계, 금속가공, 섬유, 도자기, 유리, 팔프 공업이다.

5개년(1971—1975년) 계획의 첫해인 1971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70년에 비하여 5.5% 늘어났으며 이 분야에서 로동생산능률은 4.5% 높아졌다. 국민소득은 4.5% 늘어났다.

기계제작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1971년에는 공업생산에서 그 몫은 30%를 차지하였다.

1971년에 34만 8천t에 해당하는 약 80척의 여러가지 배가 건조되였으며 그 일부가 20여개나라에 수출되였다.

목재는 730만m^3 생산하였다. 조림면적은 약 276만정보에 달하고있다.

1971년에 축산물생산량은 1970년에 비하여 2.4% 늘어났다. 이해에 뿔난집짐승은 10만마리, 돼지는 30만마리 더 늘어났으며 육류생산계획은 100%로, 가금은 118.3%로, 닭알수매는 106.7%로 수행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국민소득은 27%, 공업총생산액은 34%, 농산물생산은 전 5개년계획에 비하여 12.5%,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입은 매해 평균 4.3% 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1971년에 도시와 농촌에 6만 4천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1970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250만명이였다. 1971년에 24만 8천명의 어린이들이 새로 입학하였다. 대학은 55개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쏘씨알리스티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트리뷰네(직맹기관지)

잡지 아인하인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웨고(사회통일당생활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1월 27일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 6월 12일에는 경제 및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1년 2월 5일에 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3월 9일에는 1971—1975년기간의 장기통상협정을, 9월 28일에는 법률상방조를 서로 줄데 대한 조약을 맺었다.

또한 같은해 2월 19일에 1971—1972년 보건분야의 협조계획서, 3월 8일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71—1972년 사업계획서, 10월 22일에는 1972년도 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1년에 베를린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와 그이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신문 《호리존트》는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수령님의 사진을 모시고 기념론설을 실었으며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 4월 15일호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을 소개하였다.

민주독일로부터 1970년에 인민의원대표단과 녀성대표단(5월), 외무성국무비서와 그 일행(7월), 원양선박대표단(10월), 경제실무대표단(11월)이, 1971년에는 방송대표단(1월), 정부통상대표단(3월), 외무성대표단(5월), 정부대표단(9월), 베를린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작가대표단, 력사교원대표단과 기자대표단, 남자롱구단(10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대표단(6월), 정부대표단(4월), 사로청대표단(5월), 조독과학기술협회 제11차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2월), 정부통상대표단(10월), 인민군유술선수단(1월), 평양시사격선수단(4월), 평양시무선통신선수단(6월) 영화대표단(9월), 빙상선수단(10월), 체조선수단(11월)이 민주독일을 각각 방문하였다.

서부독일

(독일련방공화국)

【면적】 24만 8,000km^2
【인구】 5,870만 7,000명(1970년8월)

주민의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국어는 독일어

【수도】 본(14만 3,500명)

【국회】 련방참의원(상원)과 련방의회(하원)로 구성되여있다.

【정부】 수상 윌리 브란트(1969년 10월—) 외상 발테르 쉘, 국방상 헬무트 슈미트

【정당, 사회단체】 독일공산당 1948년 4월창건, 제1비서 막스 라이만, 1956년 8월 비법화, 독일의 공산당 1968년 9월 창건, 위원장 쿠르트바흐만. 사회민주당(집권당), 자유민주당(집권당), 기독교민주동맹, 전독일당, 국가민주당, 독일평화동맹, 독일로조총련맹,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 《남조선인민의 반제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서부독일프랑크푸르트》 1971년 결성

정 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과 서부독일에서는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86페지)

1949년 9월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서부독일에 단독국가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전후 서독을 사회주의나라들과 기타 평화애호국가들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만들기 위하여 포츠담협정 등 국제협약들을 비법적으로 파기하고 서독군국주의자들을 급속히 재무장시켰다. 미제는 서독침략군의 핵무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많은 무기와 원자원료를 서독에 넘겨주는 한편 근 200개의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약 20만명(1971년)의 침략군을 배치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서독군국주의자들은 각종 악법과 파쑈단체들을 조작하고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령역을 틀어쥐였다. 놈들은 1956년에 조작된 《훈련부대》를 바탕으로 하여 서독《련방군》을 조작하고 그 수를 50만으로 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제놈들의 복수주의적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부베를린을 비법적으로 장악하고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활동의 전초기지로 삼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밑에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고있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971년에 전년보다 13.5%나 늘어난 218억마르크에 달하는 방대한 직접적군사비를 지출하였다. 브란트도당은 4월에 18억마르크를 쏟아부어 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보강하였으며 미제로부터 1월에 2억 2천만마르크분의 원자원료를, 6월에는 《팬톰 에프 4이》 군용기 175대를 사들여 서독침략군을 새로 장비하기로하였다.

놈들은 4월에 새로운 로케트장비포함 10척을 증강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서독군수독점체들은 미제의 군용기주문생산까지 맡아함으로써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가담하였다.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처 미제의 호출을 받고 미국으로 간 브란트놈은 닉슨놈과 미제의 침략기구인 나토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정책을 보다 교활하게 추진시킬데 대하여 모의하고 미제침략군의 서독계속 주둔을 담보 받았다.

또한 4월에 영국 히스도당과는 서독에 영침략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대신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 가입에 발벗고 나설것을 다짐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공모결탁하여 남조선광부들과 간호원들을 끌어다 가혹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9월에 1천 240만딸라분의 《차관》을 주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대한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투자액은 1968년에 비하여 1970년에 3배로 늘어났다.

국방상 슈미트놈은 11월에 타이,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지를 싸다니면서 아세아의 《반공》 추물들과 《협조》 강화를 력설하였으며 특히 일본에 기여들어서는 일본군국주의두목놈들과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협력할 쑥덕공론을 벌렸다. 7월에 외상 쉘은 이스라엘에 기여들어 놈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떠벌이는 한편 아랍나라들과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교활한 량면주의적수법에 매달렸다. 놈들은 1970년에 3억 4천만마르크의 《원조》를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주고 여기에 또 5억딸라분의 각종 무기를 대주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침략전쟁에로 내몰려고 획책하였다.

서독군국주의도당은 회랍반동들을 적극 무장시켜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모한 도발에로 추동하면서 12월에 잠수함들을 제공하였다.

3월에 서독 대통령 하이네만이 경제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싸다니였으며 극반동적인 서독기독교사회동맹 두목 슈트라우스놈은 5월에 남로데시아 및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과는 무력지원문제를, 뽀르뚜갈식민지 앙골라에 기여들어서는 뽀르뚜갈식민지통치를 극구 찬양하였다.

이해에 브란트도당의 대미추종정책과 나라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반대하는 서독근로자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5월 서독각지에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반제투쟁주간》을 설정하고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의 확대강화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미시위들을 벌렸다. 7월에는 하부작소니아지방 주민들이 영침략군과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투쟁을 벌렸다.

10월 11일 일본 《천황》 히로히도놈의 서독행각을 전후하여 본에서 대학생들과 인민들이 련일 반일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타도하자!》, 《일본천황놈은 제국주의자이며 히틀러와 같은 놈》이라고 소리 높이 웨치면서 일본군국주의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12월 북뷰르템베르그와 북바덴지역에서 12만명의 야금로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말미암아 독점자본가놈들은 10억마르크의 손실을 입고 굴복하였다.

이해에 서독대학생들은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으며 학원의 민주화를 말살하려는 《고등교육법안》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경제, 사회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려 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시켰다. 6개의 대독점체들이 서독 총주권의 13%를 장악하고있으며 115개의 대독점체로 보면 그 몫은 실로 65%에 달한다. 이런 현상의 심화과정으로 인하여 1970년에만 하여도 1천 411개의 중소기업소들이 파산몰락하였다. 집적과 집중과정은 소매상업부문까지 포괄하고있다. 결과 1962—1970년까지의 기간에 중소상인 5만여명이 파산몰락하였다. 반면에 대상업독점체중의 하나인 《카르슈타쯔》는 1970년에 45억마르크선을 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서독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다. 1971년에 서독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근 20억마르크에 달하여 그 자본총액은 무려 230억마르크로 늘어났다. 미제독점자본은 특히 원유가공, 화학, 전력 공업 등 기간적인 부문을 틀어쥐고있다.

1971년에 서독에서는 기간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공업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강철생산량은 년초부터 계속 줄어들어 7월에는 전해 7월에 비하여 10.6%나 대폭 줄었다. 하반년도에는 모든 강철공장들이 조업을 단축하였고 같은 기간 화학 및 기계제작 등 기간공업부문도 생산이 줄었다. 석탄공업에서는 7월에 10개의 큰 탄광이, 9월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석탄독점체의 하나인 《루르 콜레아그》회사산하 많은 탄광이 문을 닫았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1971년에 8만 2천개, 1949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에는 무려 77만 8천개의 중소농경리가 엄청난 빚을 걸머지고 파산몰락하였다.

통화팽창으로 1971년에 전반적물가값은 1970년보다 6%나 뛰여올랐다. 그중 대중소비품값이 대폭 올랐는데 10월에 닭알값은 20.3%, 남새값은 15.7%, 빵값은 9.8%나 올랐다. 실업자는 1971년 10월에 전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21.5% 늘어났다.

1970년까지 80만명의 근로자들이 오막살이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였다.

교통사고로 이해 첫9개월동안에만도 5만 3천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독일공산당기관지), 도이르 폴크스 짜이퉁, 디 벨트, 프랑크푸르테르 알게 마이네 짜이퉁, 떼르 쿠리에르, 프랑크푸르테르 룬투샤우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진보적로동청년, 학생 및 사회단체 인사들이 《남조선인민의 반제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서부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결성하였다.

1970년에 서독신문《프랑크푸르떼르 알게 마이네 짜이퉁》은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 제1부》 라는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 제1부를 소개하였다.

1971년에 《붉은별》 출판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비롯한 4개의 로작을 묶은 문헌집 1권을 출판하였다.

1969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서부독일 공산주의자그루빠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0년 9월에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서부독일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서부독일텔레비죤방송자유기자가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오 지 리

(오지리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중앙에 있는 내륙국이다. 남부지방의 기후는 내륙성기후에 가까우며 북부산악지대의 년평균기온은 7~8°C이다.

【면적】 8만 3,849km²

【인구】 744만 3,800명(1971년5월)

대부분이 독일인이고 그외 슬라브인, 마쟐인, 이딸리아인이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

【수도】 윈(주민 165만 6,100명)

【국회】 련방의회(상원)와 국민의회(하원)의 량원제이다. 1971년 10월 10일 하원선거결과 사회당 90석, 인민당 80석, 자유당 10석 차지

【대통령】 프란쯔 요나스(1965년 5월—)

【정부】 수상부르노크라이스키(1970년 4월), 외무상 루돌프 키르히슐레게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프란쯔 무리. 사회당(집권당), 인민당, 자유당, 국가 민주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민주녀성동맹

정 치 1867년에 형성된 오토만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무너지고 1918년에 오지리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39년 3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에 해방되였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이 조인되였고 같은해 10월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오지리는 1956년 오지리경제를 미제에 예속시키는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었으며 같은해 4월에는 침략적인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가담하였다.

1971년 10월 10일 비상국회선거결과 사회당 위원장 크라이스키의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5월 28일 오지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은 갈탄, 쇠돌,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유 등이며 공업에서는 흑색금속, 기계제작 및 화학공업, 원유채취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공업은 수입원료에 의존하고있으며 생산제품을 대외시장들에서 실현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지탱해 나가고있다. 오지리의 주요무역대상국들인 《구라파공동시장》 성원국들의 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상품실현에서 난관을 겪고있다.

1971년 첫 10개월간 대외무역적자는 1970년 한해동안에 비하여 29억쉴링이나 더 많은 209억쉴링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1971년현재 470억 2천만쉴링에 이르렀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71년에 집세는 12.9%, 식료품값은 5.2%, 의약품값은 20.8%, 치료비는 17% 각각 뛰여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정부기관지), 디 프레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23일 오지리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오지리에 우리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1년 3월 3일 윈에서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글로브스출판보급사의 주최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인민예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에 오지리의 인스브룩크에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가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70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8월 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오지리공산주의청년대표가 참가하였으며 10월에 오지리 《안톤 투쉬》 출판사 사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발칸반도의 서부 아드리아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아드리아해안지대는 지중해성기후에 속하며 내륙지방은 대륙성기후이다. 내륙지방의 년평균강우량은 600~700mm이다.

【면적】 25만 5,804km²

【인구】 2,066만명(1970년 12월)

주민은 주로 쎄르비아, 크로아찌아, 슬로베니아 등 남슬라브민족들이며 기타 10여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다.

언어는 쎄르비아어, 크로아찌아어가 대표적이며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도 공용어로 쓴다.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99만 2,000명)

【련방인민의회】(국회) 련방의원과 경제의원, 문화교육의원, 사회정치의원, 사회의원 등으로 구성되였으며 이밖에 민족의원(70명)이 있다.

민족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며 민족문제들을 심의결정한다.

련방의원은 외교, 국방, 내정 전반문제들을 심의하고 법안을 채택한다. 기타 문제에 대한 심의 및 법안채택은

4개의 실무의원과 련방의원과의 합동회의에서 한다.

대통령은 련방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 군최고사령관을 겸임한다. 대통령의 3선은 금지되였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45년 11월—)

【국가상무위원회】 련방공화국내의 6개의 가맹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 (매개 가맹공화국은 3명, 각 자치주는 2명)들의 22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나라의 전반적정책을 협의하고 작성하는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집체적대통령제)이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71년 7월 29일—)

【련방집행리사회】(내각) 위원장(수상) 쉐말 비에디치(1971년 7월 30일—), 외무담당련방비서 미르꼬 떼빠와쯔, 국방담당련방비서 니꼴라 류비치치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 제6차 당대회에서 현재이름으로 고쳤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2차대전시기에 결성된 민족전선을 1953년 2월 개칭), 직업동맹, 인민청년동맹

정 치

유고슬라비아는 1918년부터 독립국가로 있다가 1941년 4월 6일 히틀러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의 지도밑에 조직된 인민항쟁군과 인민들은 1945년 5월에 쏘련군대와 함께 나라의 전지역에서 파쑈강점자들을 몰아냈다.

1945년 11월 29일 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1961년 5월에는 헌법을 일부 개정하여 부대통령제를 폐지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공존》과《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정책에 근거하여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정들을 맺었으며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나라들과도 이런 관계를 맺고있다.

1970년 10월 29~31일까지 진행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차대표자회의에서는 찌또가 제기한 《국가상무위원회》(집체적대통령제)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71년 6월 30일 련방인민의회 민족의원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하여 련방공화국과 가맹공화국들간의 새로운 관계문제, 《국가상무위원회》설치, 이에 망라된 각 가맹공화국과 자치주대표들의 수 문제를 헌법상으로 규정하였다.

새 헌법은 련방공화국의 권한을 가맹공화국(자치주포함)들에 대폭《분권화》하였다. 그러나 대외정책과 무력은 의연히 련방의 수중에 남아있으며 중요한 모든 문제는 전체 가맹공화국들의 일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채택된다.

개정된 새 헌법에 의하여 7월 29일 련방의원합동회의에서는 찌또가 5년기한의 대통령으로 재선되였으며 동시에 《국가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부위원장은 1명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거한다.)

7월 30일에는 쉐말 비에디치를 위원장으로 하는 22명의 새 련방집행리사회(내각)가 구성되였다.

1971년에 찌또는 미국(10월), 영국(11월), 카나다(11월), 이딸리아(3월) 등 서방제국주의나라들과 애급(2월), 인도(10월) 등을 방문하였다.

한편 6월에 유고슬라비아외무담당련방비서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9월에 중국정부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가 9월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석유, 천연가스, 쇠돌, 보크사이트, 몰리브덴, 크롬, 동, 아연, 은, 안티몬, 연, 수은 등이 있다. 공업에서는 섬유, 담배, 제재, 강철, 화학, 전기, 선박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원칙에 의한 국가적통제가 아니라 《로동자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분권화》하고있다. 그리하여 국영기업소들의 운영권이 해당기업소들의 《근로단체》에 넘어갔으며 생산활동의 조직으로부터 생산량과 품종, 가격의 제정, 리윤의 분배,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을 자체로 결정하고있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은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이 허용되고있는데 15만개(1969년말)의 개인작업장이 있다.

농촌인구는 인구의 약 50%이며 농경지는 약 1천 480만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사탕무우, 감자, 담배, 과일 등이다.

산림면적은 약 868만 8천정보인데 그의 3분의 1은 개인소유로 되고있다.

1953년에 제정된 《농촌로력협동조합의 재산관리 및 그 개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로력협동조합》들을 공급과 판매를 위주로 하는 《일반형태》의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1960년에 제정된 《농지사용법》에 따라 토지의 매매, 소작제, 고용농의 사용까지 허용하였다.

무역재정면에서 국가적통제를 폐지하고 《무역의 자유화》를 실시하고있다.

1971년 2월 11일 유고슬라비아정부는 《물가의 점차적인 자유화》정책에 따라 석유, 전력, 철도운임, 우편료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식료품과 주택사용가격도 《자유화》할것을 예견하였다.

8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대학을 포함한 각급학교들에서 약 30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한다.

주민들은 쎄르비아정교(41%), 카톨릭교(32%), 회교(12%)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신문 뽈리찌까(정부기관지), 보르바(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꼼무니쓰뜨(공산주의자동맹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30일에 우리 나라와 유고슬라비아정부는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971년에 두 나라사이에 서로 대사급 외교대표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1971년 5월 25일 베오그라드에서 두 나라 정부사이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의 전문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국제로동운동연구소》 기관잡지 《국제로동운동》이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신문 《보르바》 4월 15일호와 《노비싸프》 4월 8일호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1년 6월 유고슬라비아 기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핀 란 드

(핀란드공화국)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있다. 기후는 대서양과 발찍해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따뜻하다. 가장 추운 2월의 기온은 북부에서 평하 11~

18°C이며 남부에서 평하 4~8°C이다. 7~8월에는 낮이 계속된다. 년강우량은 300~600mm이다.

【면적】 33만 7,009km²

【인구】 469만 7,000명(1970년)

핀란드인이 90%, 스웨리예인이 9%이며 그 밖에 로씨야인, 독일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리예어

【수도】 헬싱키(주민 53만 1,700명)

【국회】 일원제, 1972년 1월 선거결과 200석중 사회민주당이 55석, 공산당의 통일전선체인 인민민주주의전선이 37석, 중앙당이 34석, 민족련합당이 34석 차지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56년—)

【정부】 수상 데우보 아우라 (1971년 10월—), 외무상 올라비 마틸라, 국방상 크리스티나 케스트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사회민주당 (집권당), 중앙당, 민족련합당, 자유당, 스웨리예인민당, 농민당, 로조중앙련맹, 기독교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핀란드조선협회 1967년에 결성

정치 1809년부터 짜리로씨야의 예속밑에 있다가 사회주의 10월혁명의 결과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다.

핀란드는 파쑈독일의 사촉을 받아 1939년 11월, 1941년 6월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였다. 1947년 2월에 쏘련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1970년에는 이 조약을 25년간 연장하였다.

1970년 3월 국회선거결과 인민민주주의전선(공산당의 통일전선조직), 중앙당, 사회민주당, 스웨리예인민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핀란드는 어떤 정치, 경제, 군사적 블럭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경제,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1년 3월 17일 핀란드 련립정부는 가격통제문제에 관한 의견상이로 총사직하고 3월 26일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이 내각은 10월 29일 농업 및 식량 정책에서의 의견충돌로 다시 총사직하고 림시내각이 수립되였다. 1972년 1월 2~3일에 있은 기한전 국회선거에서 200석중 55석을 차지한 사회민주당이 2월 23일 단독내각을 구성하였다.

경제, 사회 목재가공공업 및 제지공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량의 3분의 1, 국민소득의 70%, 수출의 85%이상을 차지한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금속, 조선공업도 발전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목재가공제품, 팔프, 선박 등이다.

경지면적의 4분의 3은 사료작물과 목초재배지이다. 농산물의 비중은 국민총생산액에서 겨우 8.2%(1969년)를 차지한다.

4개의 종합대학과 10개의 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3만 2천 6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이밖에 83개의 인민대학(1~2년제)들도 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스티티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공산당기관지), 소시알 데모크라티(사회민주당기관지), 수오멘마(중앙당기관지), 꼰택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7월 우리 나라와 핀란드 간에 무역 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1970년 9월 15일 헬싱키에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67년에 핀란드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4월 15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이 연구소조는 5월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의 연구모임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네돐에 즈음한 토론회를 가지였다.

핀란드잡지 《뜨리꼰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신문 《꼰택트》 4월 14일호는 《김일성수상님의 탄생 쉰아홉돐》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소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잡지 《뜨리꼰트》 4호와 신문들인 《칸산 우우티세트,》 《소시알 데모크라티》, 《온따뿔》은 그이의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8일부터 1주일간 헬싱키 청년회관에서는 핀란드조선협회의 주최로 사진전람회가 있었다. 7월 13일 핀란드중고등학교학생련맹 이대수낄래야영소에서는 집회를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1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핀란드대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주장하였다.

1969년 7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제기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였다. 《칸산 우우티세트》는 그이께서 주신 대답전문을 이해 9월 2일호와 3일호에 련재하였다.

1971년에 핀란드정부무역친선대표단(3월), 핀란드조선협회대표단(8월), 외무성 정치국 유엔담당 부국장(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5월), 조선청년학생대표단(7월)이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핀란드 땀뻬레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대표와 핀란드조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스웨리예

(스웨리예왕국)

북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있다. 산림, 하천, 호수가 많다. 스톡홀름의 1월 평균기온은 령하 2.5°C, 7월 평균기온은 17°C이다.

【면적】 44만 9,200km²

【인구】 795만명

대부분이 스웨드족이고 기타 덴족, 고드족, 핀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스웨리예어

【수도】 스톡홀름(주민 112만4,900명)

【국왕】 구스타브 아돌프 6세(1950년 10월—)

【의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올로프 팔메(1969년 10월—), 외무상 위크만, 국방상 스벤 안데르쏜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헨리크 헤르만쏜. 사회민주당(집권당), 중앙당, 인민당, 보수당, 로조중앙련맹, 공산주의청년, 녀성동맹,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1959년 결성

정치 스웨리예는 1906년 노르웨이와의 련합왕국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한 립헌군주제 국가이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다.

조선정전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이다. 최근년간 스웨리예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는것을 거부하고 《중립》을 표방하면서 독자적

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7년 4월에 남부웰남괴뢰정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공보부설치에 동의하였다. 1969년 1월 10일에는 민주웰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1968년부터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 도망쳐오는 미제침략군병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있으며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규탄하고 놈들의 철수를 요구하고있다.

미제는 스웨리예의 이러한 립장이 다른 스칸디나비아나라들에까지 《련쇄반응》이 일어나는것이 두려워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고있다.

동시에 국내우익정당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현사회민주당정부는 미제의 경제적압력에 경제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맞서나서고있다.

1971년 11월 23일 스웨리예정부는 미제의 아세아괴뢰들(남조선, 남부웰남, 캄보쟈 괴뢰)에게 《차관》을 대주고있는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스웨리예는 《인도주의적인원조》라고 하면서 1971년에 민주웰남, 라오스 애국전선에 원조를 각각 주었으며 액수를 늘이겠다고 하였다.

경제, 사회 제지, 목재가공, 야금, 조선 공업과 해운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령토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보다 축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쌀보리, 감자, 사탕무우이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통신

신문 뉴다그(공산당기관지), 아프톤블라데트 (사회민주당 및 정부기관지), 다겐스 뉴헤테르(자유당기관지), 익스르 웨쎈, 조선통보(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엑스프레센, 스벤스다그블라데트, 쏘찌알 데모크라티, 알제떼트, 다겐스 미에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12월 1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었으며 1970년 6월 스웨리예에 우리 나라 공보부가 설치되였다.

1971년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성원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4월 6일), 스웨리예웁쌀라종합대학에 있는 《김일성원수 반제혁명사상연구소조》(4월 8일), 스웨리예스톡홀름종합대학동방어문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출판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또한 이해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출판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단행본으로, 그리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포함한 아홉건의 로작들을 묶은 문헌집을 출판하였다.

또한 스웨리예신문들인 《조선통보》 3호(5월 5일), 아프톤 블라데트, 엑스 프레쎈은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각각 실었다.

《뉴다그》, 《아프톤 블라데트》, 《다겐스 뉴헤테르》와 《엑스프레쎈》을 비롯한 스웨리예의 여러중앙신문들이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18건의 특집기사를 다양하게 편집소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정부기관지 《아프톤 블라데트》 4월 13일호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웅, 인민의 수령》이라는 표제로 기념론설을 실었으며 《엑스 프레쎈》 4월 15일호는 특집기사들을 실었다.

1972년 1월 10일 스웨리예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에따할렘회관에서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0년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대표단(4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조선통보》 주필(6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11월에는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11월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6월에 스웨리예에 있는 《김일성원수반제혁명사상연구소조》대표단,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대표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 공산주의청년대표단과 기자들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해에 스웨리예제2텔레비죤방송국 촬영단(7월), 기자대표단(8월), 사회활동가대표단(8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스웨리예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단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희 랍

(희랍왕국)

발칸반도의 남부와 에게해 및 지중해에 널려있는 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년평균강우량은 동부지방에서 400~700mm, 서부에서는 900~1천 200mm이다.

【면적】 13만 2,562km²

【인구】 843만명

희랍인이 절대다수이며 그밖에 토이기인, 유태인 등이 있다.

국어는 희랍어

【수도】 아테네(주민 185만 3,000명)

【국왕】 1967년 4월 군사정변후 섭정인 게오르기오스 조이타키스가 실권을 행사하고있다.

【정부】 수상 겸 국방상 게오르게 파파도풀로스(1968년 6월—), 외무상 쓰. 파타코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17일 창건,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국민급진당, 중앙동맹, 좌익민주동맹, 농민자유련맹, 국민재생운동, 자유당, 농민당, 《람브라끼스》 민주청년, 1967년 4월 군사정변후 공산당, 좌익민주동맹과 일체 정당의 청년조직들이 비법화되였다.

정 치 1830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2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5년에 다시 전제제도를 복귀하고 1936년에 파쑈독재정권을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이딸리아, 히틀러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4년 10월 15일에 해방되였다.

희랍반동지배층은 1952년 2월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3년에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고 미제의 군사기지설치를 허용하였다.

1967년 4월 20일에 미제의 사촉하에 군사정변을 일으킨 희랍반동들은 군사파쑈독재정권을 수립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인민들의 일체 시위를 금지시켰으며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을 수용소와 감옥에 감금하고 살인적 《군사재판》을 감행하였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은 파쑈군사도당을 적극 무장시키기 위하여 1971회계년도에 5천 330만딸라, 1972회계년도에 다시 1억 1천 700만딸라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1971년 10월에는 미제의 전쟁사환군의 한놈인 부대통령 애그뉴놈이 이 나라에 기여들어 희랍군사도당과 쑥덕공론을 벌리고 군사 《원조》를 주는 대가로 나토에 더욱 더 얽어매놓았으며 파쑈군사도당의 《반공》 소동을 일층 고무하였다.

경제, 사회 경지면적은 국토의 25%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담배, 포도, 올리브 등이다.

공업부문에서는 채취, 방직, 식료, 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대부분 미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화란에 침투한 외국자본중 미제독점자본이 40% 이상 차지한다. 1971년에 해외채무는 도합 18억 7천만딸라에 달하였다.

1970년 한해동안에 16만 3천명의 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났다.

【출판보도】 통신 아테네통신

잡지 자유화란(공산당리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월 18일 화란선박《나브마쵸스》호의 선원들이 《김일성수상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월 26일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로부터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왔으며 2월 7일 화란선박 《마그놀리아》호의 선원들은 경축집회를 가지고 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월 12일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파쑈악당의 야수적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30일 화란선박들인 《아리스따 이오스》호, 《까삐딴 게론따스》호, 《예갈리》호 선원들이 런대성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런대성전문을 보내여왔다.

1970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화란공산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8월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6월 화란《람브라끼스》 민주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왕국)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남쪽에 있다. 해안지대는 겨울에도 따뜻하며 1월평균기온은 북부에서 령하3°C, 남부에서는 2°C정도이다.

【면적】 32만 3,917km²

【인구】 386만 7,000명(1969년말)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드족이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

【수도】 오슬로(주민 48만 5,000명)

【국왕】 올라프 5세(1957년—)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트류그베 브라텔리(1971년 3월—), 외무상 아드레아스카펠렌, 국방상 알프 야코브 포스테웨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 11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레이다르 테라르센. 사회인민당, 레이버당(집권당), 자유당, 중앙당, 보수당, 기독교인민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1968년 10월 결성

정치

노르웨이는 14세기이래 단마르크, 스웨리예의 예속밑에 있다가 1905년에 독립하였다.

1904년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에 해방되였다. 침략적인 나로성원국이며 오슬로에는 《나로북부군사령부》가 있다.

1971년 3월 10일 노르웨이 련립정부(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인민당)는 구라파《공동시장》 가입을 반대하는 중앙당과 그를 지지하는 다른 여당들간의 심각한 의견상이끝에 총사직하였다. 3월 13일 브라텔리를 수상(레이버당)으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11월 25일 노르웨이정부는 민주웰남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오슬로에서 노르웨이공산당 제13차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에서 주요한 부문은 해운업과 수산업, 림업이며 팔프제지, 선박 전기, 화학, 야금, 기계제작 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산림자원은 약 600만정보이다. 팔프제지공업제품의 5분의 4는 수출된다. 노르웨이연해는 세계3대어장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물고기생산량은 1970년에 300만t에 달하였다.

경지면적은 전국토면적의 3%에 불과하며 농업생산은 국민소득의 6%, 그중 4분의 3은 축산물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1970년에 326개, 1971년 첫 다섯달동안에 132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파산몰락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엔티비

신문 프린 헤텐(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다 블라데트(레이버당계), 모르겐 블라데트(보수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0월 10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고 1972년 2월 28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반제반미투쟁를 강화하자》를 노르웨이공산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6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노르웨이공산당위원장 레이다르 테라르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11월 28일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970년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5월 5일 공동보도를 발표하였다. 4월에는 조선노르웨이친선협회대표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0월 사회활동가대 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5월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노르웨이대외관계연구소 공보국장,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대표가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슬란드

(이슬란드공화국)

북대서양의 섬나라이다. 북쪽끝은 북극권에 속하여 여름에는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는 백야가 계속된다. 화산과 온천이 많으며 기후는 난류의 영향으로 춥지 않다.

【면적】 10만 3,000km²

【인구】 20만 1,975명(1968년 12월)

주민은 노르드족과 켈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이슬란드어이며 단마르크어도 쓴다.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918명, 1968년 12월)

【의회】 상하량원제, 1971년 6월 12일선거, 인민동맹(통일사회당통일전선) 10석, 진보당 17석, 자유좌익당 5석.

【대통령】 크리스챤 엘자른(1968년 7월—)

【정부】 수상 올라푸르 요한네쏜(진보당, 1971년 7월—), 외무상 아이나르 아구스트쏜

【정당, 사회단체】 통일사회당1938년에 공산당파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쏜. 진보당, 자유좌익당, 독립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전투적사회주의조직

정 치 이슬란드는 1944년 단마르크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 5월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케플라비크에 군사기지를 두고 약 3천 500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1971년 6월 13일 국회선거가 진행되였으며 7월 13일 요한네쏜을 수상으로 하는 인민동맹(통일사회당 통일전선체), 진보당, 진보좌익당을 망라한 새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는 7월 14일 이슬란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철수, 예속적인 군사조약의 폐기, 케플라비크에 있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의 폐쇄를 요구하였다.

경제, 사회 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어획고의 50%는 대구이다.

지하자원은 이슬란드장석, 갈탄, 류황 등이다. 농촌경리의 기본은 면양사육과 젖생산이다. 주요농산물은 감자, 사료작물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와 물고기가공제품, 육류 등이다.

1970년에 물고기생산량은 73만 3천 800t이였다.

【출판보도】 알티두 블라디드(사회민주당기관지), 모르건 블라디드(독립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에 이슬란드전투적사회주의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방해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기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기온은 겨울에 4~7°C, 여름에 13~14°C, 년강우량은 북부에서 2천~3천mm이다.

【면적】 24만 4,100km²

【인구】 5,553만 4,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앵글로싹손족이고 스코틀랜드에 켈트족이 있다.

국어는 영어

【수도】 런던(주민 834만 6,000명)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의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에드워드 히스(1970년 6월—), 외무상 다글러스 흄, 국방상 캐링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총비서 존 골랜. 보수당(집권당), 레이버당, 자유당, 로동조합콩그레스,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행동리사회, 영국조선무역회 1971년 9월결성 영국조선친선협회 1972년 1월 결성

정치 17세기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의 수행과 18세기후반기의 산업혁명은 영국의 자본주의발전을 촉진시켰다.

17세기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은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주의 여러 나라들과 대양주를 강점하였다. 사회주의 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 로씨야를 반대하는 무장간섭을 조작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미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반쏘정책을 추구하면서 독, 이, 일 파시스트의 침략책동을 고무하였으며 1938년에는 《뮨헨협정》으로써 히틀러의 전쟁도발책동을 촉진시켰다.

1939년 9월 영제국주의자들은 파쑈독일의 창끝이 자국에로 돌려지자 쏘련에 《동맹》을 요청하면서 히틀러독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제2차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 세아토 등 침략적군사동맹을 조작하였으며 서독군국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에 조인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침략무력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56년에 미제와 함께 애급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케 하였다. 1965년 11월에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위하여 일방적으로 남로데시아의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세아에 있는 제놈들의 침략기지들을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 리용케 하였으며 해군분견대를 웰남에 파견하여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1971년에 히스반동정권은 대미추종정책에 매달려 새로운 《반공》 군사동맹조작, 군사비증대, 침략전쟁준비 등에 열을 올렸다.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련방정부수반회의에서 히스도당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여 침략적인 군사블럭체제를 강화하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살인무기를 공공연히 대주려는 속심을 드러냈다. 놈들은 국내외여론을 무시하고 2월 22일 보스터인종주의자들에게 직승비행기를 포함한 각종 군용비행기, 군함 및 저격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히스반동무리들은 1971년 1월에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으로 《5개국공동방위협정》을 조작하고 4월에는 이른바 《영련방 5개국 국방상회의》를 벌렸다. 모의에서 영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세아의 영련방성원국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영련방성원국들의 침략무력을 긁어모아 《영련방5개국군사동맹》을 조작하고 이 침략적인 군사기구를 움직이기 위한 《5개국국방리사회》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이 침략적인 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도구인 세아토와 련결시켜 미제의 아세아침략체제를 보강하고 미제에 빌붙어서 수에즈이동지역에서의 저들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해보려고 날뛰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2월 17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1970년 10월에 조작한 침략적인 《수에즈 이동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동남아세아와 인도양, 지중해, 페르샤만 등에서 침략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0월에 다시 《해군력증강계획》이라는것을 내놓고 이 계획에 1억 7천 500만딸라를 쏟아부어 구축함을 새로 더 건조하는 등 《해군의 기동력을 강화》한다고 떠들었다.

11월 23일에는 오만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목적밑에 3척의 군함과 여러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새로운 침략무력을 이 지역에 증파하였다.

히스반동정권은 11월 24일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과 이른바 《남로데시아문제의 조정》이라는 《협정》을 꾸며냄으로써 짐바브웨인민을 소수백인 통치자들에게 팔아넘기려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6월 《구라파공동시장》 6개국과 영국간에 진행된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 가입을 위한 최종회의에서 10년동안 프랑스와 영제국주의간의 정치경제적리해관계의 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하

였던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 가입협상이 타결되였다. 결과 영국은 1973년 7월 1일부터 《공동시장》에 가입하게 되였다.

1971년에 영국근로자들은 히스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특히 1월 26일 반동적국회에서 통과된 파쑈악법인 《반로조법》을 규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월에 이 나라에 있는 미제의 《포드》 자동차회사산하 22개 공장 5만명의 로동자들의 2개월여에 걸친 파업투쟁, 8월에 탄광, 기계, 운수, 체신 및 상업부문 로동자들의 파업, 9월 조선소, 비행기제작, 인쇄부문로동자들의 파업, 11월 기계, 조선, 부두, 야금, 기타 공업부문을 휩쓴 파업 등 1971년 한해동안에 2천 150여건의 파업투쟁이 있었다. 독점자본가놈들은 이로 인하여 1천 355만 8천로동일을 잃었다.

1971년에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북아일랜드인민들의 폭동적진출이 더욱 강화되였다. 히스반동도당은 심한 정치적위기에 직면하자 북아일랜드자치정부 수상까지 갈아치우고 파쑈적인 《비상법》을 휘둘러 북아일랜드를 《비상사태》하에 두고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5%에 불과한 독점자본가놈들이 이 나라 전체 재부의 75%를, 그중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대독점자본가들이 전체 재부의 42%를 장악하고있다.

1971년에 영국경제는 공업생산의 침체, 통화팽창의 격화, 실업자의 증대로하여 더욱 심각한 위기에 부딪쳤다.

1971년에 국민총생산은 10년래 가장 낮은 수자인 1.5%의 장성을 보았다.

공업생산에서도 거의 장성이 없었고 주요공업부문들에서는 생산과 투자가 떨어졌다. 1971년 첫9개월간의 공업생산은 1970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1.5% 떨어졌다.

1971년에 선철과 강철생산량은 전년보다 13%나 대폭 줄어들어 1963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직물생산은 거의 8% 낮아졌다. 기계제작공업에 대한 투자는 1970년보다 8% 줄었다.

공작기계에 대한 주문량은 이해 첫 3개월동안에만도 전해같은 기간에 비하여 36%라는 전례없는 규모로 대폭 줄었다.

1971—1972회계년도에 직접적군사비로서 지난 회계년도보다 2억 6천 500만파운드나 더 많은 25억 4천 500만파운드를 탕진하였다.

방대한 군사비지출로 재정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생산의 악화로 공업기업체들이 파산몰락하였다.

이해 첫6개월동안에만도 약 70개의 대기업체들이 근 10억파운드의 부채를 걸머지고 파산하였다.

10월현재 67%의 모든 상사와 회사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였다.

해외채무액은 1969년말의 40억파운드로부터 1971년 2월에는 무려 50억파운드로 늘어났다. 반면에 금 및 외화보유액은 해외채무액의 4분의 1도 물수 없는 수준에까지 줄었다. 통화팽창으로 파운드의 구매력은 전해 6월부터 이해 5월까지의 기간에 8.7%나 떨어졌다. 파운드위기의 심화는 딸라위기와 함께 자본주의국제통화위기를 수습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1971년에 전반적물가는 50년래 기록적인 해였던 1970년에 비하여 9%, 특히 식료품값은 평균 13%나 올랐다.

1971년말에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이해 상반년동안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범죄사건은 6% 늘었다. 런던에서만도 이 기간에 16만 8천 760건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슌

신문 모닝스타(공산당기관지),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가디언(자유당계), 런던《타임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영국조선무역회가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11월 22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영국조선무역회 사이에 무역협정이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1969년에 영국런던《타임스》지 11월 3일호는 옹근 한면에 걸쳐 《김일성전》 영문판 제1부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1년에 런던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와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1년 6월에 영국청년행동리사회대표가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1월에 영국조선무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런던 《레드 모올》지 주필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화산과 온천이 많다.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이 끼여 찬비가 내리는것이 특징이다.

【면적】 7만 8,283km²

【인구】 297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아일랜드어

【수도】 더블린(주민 66만 3,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대통령】 에이몬 데발레라(1966년 6월—)

【정부】 수상 죤 린치(1970년 5월—) 외무상 힐러리, 국방상 크로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 3월 15일 창건(아일랜드로동당과 북아일랜드공산당이 합당하여 창건), 총비서 마이클 오리오르단, 자유당(집권당), 통일당, 레이버당, 새아일랜드통일공화당(1971년 9월 창건, 북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 로동런맹

정 치 12세기이래 영식민주의자들의 예속하에 있다가 1921년 12월에 아일랜드의 32개주중 26개주가 아일랜드자치령으로 되였다. 1937년에 영련방내에서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48년에는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북부지역(6개주)은 영국에 병합되였다. 북아일랜드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영침략군의 강점을 반대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있다. 1971년 12월초현재 놈들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체포구금된 주민들의 수는 500명을 넘었다.

1970년 5월 9일 아일랜드공화국선포이래 정권을 독점하고있던 자유당이 또다시 내각을 구성하였다.

1971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아일랜드공산당 제15차대회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그 밖에 림업과 공업이 있다. 주요농산물은 귀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71년 8월에 각종 물건값은 전해 8월에 비하여 12%나 비싸졌다. 1971년 12월현재 로동인구의 8.1%에 해당하는 7만 1천 여명이 실업자였다.

단마르크

(단마르크왕국)

구라파북부의 유틀랜드반도와 부근의 섬(약 500개)들로 이루어졌다.

해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선선하고 겨울은 따뜻하다. 년평균기온은 8°C이다.

【면적】 4만 3,042km²

【인구】 487만 3,090명(1969년1월—)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이다.

공용어는 단마르크어

【수도】 쾨뻰하븐(주민 138만 2,057명)

【국왕】 마르 가레테녀왕 2세(1972년 1월—)

【의회】 일원제

【정부】 수상 액옌스 오토 크라그(1971년 10월—), 외무상 안데르센, 국방상 켈드 올레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11월 19일에 창건, 위원장 쿠느드 예스페르센. 사회민주당(집권당), 사회당(집권당), 온건자유당, 보수당, 사회자유당, 사회인민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단마르크 조선친선문화협회 1968년 10월 결성

정 치

단마르크는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5년 5월 해방되였다.

단마르크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미제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었다. 1961년 12월에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발찍해합동사령부》를 조작하였다.

1971년 9월 21일 총선거결과 10월 11일 사회민주당, 사회당련립정부가 새로 구성되였다.

9월 27일 쾨뻰하븐에 있는 일본인학생들은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의 화신이며 특급전범자인 일본《천황》 히로히도놈이 전쟁사환군들을 이끌고 이 나라에 기여든데 항의하여 격렬한 반일시위를 벌렸다.

11월 25일 단마르크정부는 민주월남정부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공업에서는 축산물과 수산물가공, 선박건조 및 선박설비품생산이 기본을 이룬다.

지하자원은 적으며 공업원료는 수입한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 선박, 화학제품, 기계류와 설비품 등이다.

농업은 축산업과 가금업을 위주로 하고있다. 축산물(뻐터, 돼지고기, 닭알)생산이 농업총생산의 90%,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1970년에 물고기생산량은 122만 6천 500t이였다.

공업부문기업소들에서 1969—1970년 사이에 로동사고건수는 해마다 10%씩 늘어나 도합 13만 4천건에 달하였다.

1971년 12월에 실업자수는 5만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단마르크통신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아크 투엘트(사회민주당기관지), 벨링숑케 티덴데(보수당계), 크레스티안 데일리 뉴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0월 10일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에 조직된 쾨뻰하븐건축대학 계획학부와 발전학부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쾨뻰하븐종합대학력사학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와 로작연구소조》와 이 대학 정치과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들이 이해 6월에 있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7월 12일에 쾨뻰하븐 외스떼르지역 기관, 사회단체일군들과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 《크레스티안 데일리 뉴스》 출판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와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1969년 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단마르크공산당 제23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970년 6월에 단마르크공산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6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6월 단마르크공산주의청년동맹 대표가 사로청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밖에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8월), 단마르크기자(9월)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화 란

(화란왕국)

구라파 대륙의 북서부에 있다. 령토의 4분의 1은 해면보다 낮다. 기후는 해양성기후이며 강우량은 650~700mm이다.

【면적】 3만 2,400km²

【인구】 1,310만명(1970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인이다.

국어는 화란어

【수도】 암스테르담(주민 87만 3,400명), 왕궁과 정부소재지는 헤그(주민 60만 2,440명)에 있다.

【국왕】 율리아나 녀왕(1948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피에르 드용(1971년 4월—),

국방상 덴 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에 창건, 명예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 위원장 행크 후크스트라. 레이버당, 카톨릭인민당, 자유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동맹.

정치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화란은 1810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였다가 1813년에 독립하였다.

1945년 8월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자 화란은 미,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였다.

화란은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성원국이며 기타 제국주의 경제, 군사기구들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의 주구로서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71년 4월에 있은 국회선거결과 4월 3일 카톨릭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동맹, 자유민주인민당이 망라한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0월 9일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화신이며 전범자인 일본《천황》 히로히도놈의 이 나라 행각을 반대하여 로테르담시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렸다.

경제, 사회

주요공업은 선박건조, 전기기계, 동력기계, 방직, 식료(치즈, 뻐터) 공업 등이다. 가공공업의 대부분은 대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과 해상운수가 발전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체 농경지의 절반이상이 방목지와 사료재배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지주들이 전농경지의 70%를 차지하고있다.

화란의 무역적자는 1970년에 58억 8천 500만길다였다.

1971년 11월말현재 실업자수는 9만

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피

신문 드 바아르하이트(공산당기관지), 해드브레이에 볼크(레이버당기관지), 텔레그라프(중립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화란공산당 중앙명예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는 여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를 소개하는 글을 자기 당기관지《드 바아르하이트》에 1966년 12월 23일~1967년 1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련재하였다. 론설에서 그는 《조선로동당은 십중하고 전투적인 당이며 좋은 의미에서 큰 당이다. …

북조선은 지구상의 저쪽끝에 있으나 조선로동당은 중요한 당이며 그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다.》고 썼다.

1971년 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벨 지 끄

(벨지끄왕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온대해양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1월에 1~3°C, 7월에는 14~19°C다. 년평균강우량은 500~700mm이다.

【면적】 3만 507km²

【인구】 964만 6,000명(1969년 7월)

화란계의 프라망인이 약 55%, 프랑스계의 왈롱인이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프라망어나 독일어도 쓴다.

【수도】 브류쎌(주민 145만 3,500명)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국회】 상하량원제(1971년 11월 7일 선거, 공산당 5석, 기독교사회당 68석, 사회당 59석, 자유진보당 34석)

【정부】 수상 가스톤 에이스켄스(1968년 6월—), 외무상 삐에르 아르멜, 국방상 반덴 부이난트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마르크 드류모. 기독교사회당(집권당), 사회당(집권당), 왈롱근로자당, 자유진보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총련맹

정 치 1830년에 독립국가로 형성된 이후 벨지끄는 아프리카에 식민주의마수를 뻗쳐 1908년에 자이르를, 1919년에 루안다와 부룬디를 강점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 나라들이 독립하자 급격히 쇠퇴하였다.

벨지끄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브류쎌에는 나토군 총사령부를 두고있다. 《구라파공동시장》, 《유라톰》 등을 비롯한 제국주의 군사, 경제 기구에 가담하였다. 벨지끄 반동정부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학살만행에 참가하였다.

1971년 11월 7일 국회선거결과 기독교사회당과 사회당련립정부가 다시 구성되였다.

이해에 반동정부는 대미추종정책에 매달려 전해보다 20% 더 증가된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침략적인 나토군유지비로서 7억 5천만벨지끄프랑을 지출키로 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벨지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벨지끄공산당 제2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9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벨지끄공산당 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냈다.

경제, 사회 공업은 석탄, 쇠돌, 아연 등의 자원을 토대로 하고있으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나라에 투자된 외국투자액중 70~80%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며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1971년에 대중소비품값은 5.3%, 치료비는 9% 뛰여올랐고 실업자는 1월현재 18만 2천 557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비에엘지에이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구라파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면적】 2,586km²

【인구】 33만 7,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룩셈부르그인이며 독일인, 프랑스인이 많이 산다.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8만명)

【국왕】 잔(1964년 11월—)

【국회】 일원제

【정부】 수상 피에르 베르네르(1964년 6월—), 외무상 가스톤 토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일 창건, 총비서 도미니크 우르바니. 기독교사회당(집권당), 자유당(집권당), 사회로동당, 민주당, 인민독립운동당

정치 1842년부터 독일의 예속하에 있다가 1867년에 《영구중립》을 선포하고 대공국으로 되였다.

1948년에 소위 《영구중립》을 폐기하고 나토(전병력을 나토에 편입), 《서구동맹》, 《구라파공동시장》 등 제국주의 정치, 경제, 군사기구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 미제의 앞잡이로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다.

1969년 2월 자유당과 기독교사회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경제, 사회 채광업과 야금공업이 경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철생산량이 공업생산액의 70%, 수출의 85%를 차지한다. 1971년 10월에 전국 공장, 기업소의 77%가 불경기와 주문감소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침체상태에 빠졌다.

주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1971년 한해동안에 대중소비품값은 5.3% 뛰여올랐다.

국교는 로마카톨릭교이다. 화폐는 벨지끄프랑을 쓴다.

【출판보도】 신문 드짜이퉁(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게르 워르트(천주교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룩셈부르그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룩셈부르그를 방문하였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프랑스는 구라파주의 서부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체로 따뜻한 해양성기후이나 산악지방은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심하다. 남부지중해연안은 아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11°C이며 강수량은 500~750mm이다.

【면적】 55만 1,208km²

【인구】 5,054만 5,000명(1969년말)

주민의 대부분이 켈트족과 프랑크부르군드족으로 구성된 프랑스인이다.

국어는 프랑스어

【수도】 빠리(주민 850만명)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

【대통령】 퐁피듀(1969년 6월—)

【정부】 수상 쟈크 샤방 델마(1969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에 창건, 총비서 발데크 로쉐. 《제5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집권당),

민주주의및사회주의좌익련맹(사회당, 급진사회당, 공화결사회 등의 련합), 공산주의청년운동, 녀성동맹, 프랑스조선친선협회 1969년 12월 8일 결성

정 치

프랑스는 14세기에 통일된 민족국가로 되였다. 1789년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군주제도가 철폐되고 1791년에 부르죠아정권이 수립되였다.

1871년 3월 18일 빠리로동계급은 혁명적폭력으로써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부패한 자본가계급의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로동계급의 정권인 빠리콤뮨을 선포하였다. 콤뮨투사들과 프랑스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수령과 혁명적당을 가지고 있지못하였으며 자체의 불철저성과 반혁명세력의 발악적인 무장공격으로 말미암아 72일밖에 콤뮨은 존재하지 못하였다.

19세기말엽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프랑스는 1881년에 뛰니지를 강점하고 1883년에는 인도지나나라들을 강점하였다. 1918~1920년에는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장간섭에 가담하였다. 1938년에 독일파시즘을 재생시키기 위한 《뮨헨협정》에 조인함으로써 히틀러의 전쟁도발책동을 추진시켰다.

제1차대전시에 히틀러독일에 투항한 프랑스는 1944년에 해방되였다. 제2차대전후 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들인 나토와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침략군을 파견하였다. 1954년에는 서독군국주의를 재무장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에 조인하였다. 1957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구라파에서 미영제국주의세력을 구축하고 저들의 령도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구라파공동시장》을 조작하였다.

1958년 12월 선거에서 《제5공화국》의 첫대통령으로 드골이 집권한이래 프랑스는 서구라파지역에서 미제의 세력을 배제하고 서구라파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목적밑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라파인에 의한 구라파건설》을 기본로선으로 삼고 이른바 《독자적인 로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67년에 미제의 침략적군사도구인 나토의 군사통합사령부에서 프랑스군대를 철수하였으며 프랑스에 있던 《나토군최고사령부》, 《중구라파군사령부》, 《서구라파주둔 미군사령부》와 기타 나토산하기구들을 철수시켰다.

1971년 6월 프랑스는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에 10여년간 도전해 오다가 호상 모순과 대립으로 가득찬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퐁피듀놈은 6월 24일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을 자기의 《첫째가는 공적》으로 묘사하고 《새구라파건설에 관한 포부》를 력설하면서 구라파에서 《맹주》가 되려는 야망을 드러냈다. 9월 퐁피듀는 미제의 략탈적인 《딸라방위책》에 도전하여 자본주의통화체계의 《기준통화》로서의 딸라대신 《금을 기준으로 고정환률제》를 실시할것을 제창하였다. 1971년에 퐁피듀는 프랑스군대를 나토에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책략에 의연히 반대하여 나섰다. 특히 나토내에서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이 강력히 추진시키고있는 《통합통신체계일원화》 책동에 망라되는것을 거부하였다.

프랑스반동정부는 6월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정권에 50대의 군용기를 제공할데 대한 무기협정을 체결하였다. 7월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대규모의 농축우라니움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건설할데 대한 계약을 맺었다.

1971년에 프랑스인민들은 정부의 반인민적반동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1971년 2월에 프랑스항공회사산하 승무원들과 지상근무원들의 총파업이 일어나 국내외의 항공운행을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5월에 전국각지를 휩쓴 100만명의 금속부문로동자들의 총파업에 이어 건설, 철도, 방직, 체신 부문의 근로자들과 교원 및 공무원들 수십만명이 생활상권리를 요구하여 시위, 집회, 파업투쟁들을 벌렸다. 6월 4일 약 250만명의 체신 및 의료부문일군들과 교원들, 기타 여러부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24시간 총파업에 이어 11일에는 40만철도로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철도로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전국철도망의 75%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8월 수도근로자들을 비롯한 각지근로자들이 시내교통운임을 대폭 끌어올리려는 반동당국의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 22일 빠리근로자들은 빠리콤뮨 100돐을 기념하는 대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콤뮨은 살아있다!》,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전투적인 구호밑에 붉은기를 추켜들고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이해에 프랑스의 각계층근로자들은 미제의 범죄적인 인도지나침략전쟁의 확대를 규탄하고 인도지나인민들과의 련대성운동도 광범히 벌렸다. 5월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과의 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빠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반미시위들이 단행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보크사이트, 카리, 석유, 연, 아연 등이다. 공업은 빠리지역, 리옹지역, 쌔느하류지역 등 3개지역에 집중되여있다. 주요공업은 철강, 화학섬유, 자동차공업이 기본을 이룬다.

경지면적은 국토의 32%를 차지하며 포도재배(국토의 2.5%)가 유명하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이며 축산업에서 소, 말이 기본이다.

프랑스는 미제독점자본의 류입을 억제하고있으나 석유공급업의 40%, 고무공업의 50%, 농업원자재와 관련된 산업의 65%, 장거리전신기관의 70%가 미제독점자본의 통제하에 있다.

1971년에 프랑스의 공업생산에서는 새로운 침체현상이 일어났다.

1971년에 강철생산량은 1970년에 비하여 3.8%, 주철생산량은 4.5% 각각 줄었다.

석탄생산량은 1970년이래 해마다 8~10%씩 줄었다.

인플레가 심화되여 대중소비품값은 1971년에 6% 뛰여올랐다. 이해에 생계비는 8.5%나 올랐다.

500만명이상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생활비도 못되는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1971년말현재 실업자수는 60만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3분의 1은 청년들이 차지하였다. 빠리지역에서만 하여도 전년에 비하여 30% 늘어나 10만명을 넘었다.

로동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여 하루평균 7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1967년말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에 7만 3천명이 생명을 잃고 160만명이 중상을 입었다.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죽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무려 36만 6천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기관지), 뽀쀨레르(사회당기관지), 꽁바, 몽드, 피가로(인민공화당기관지), 오로르(급진사회당계), 쥬르날 오피시엘(정부공식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68년 4월 5일 프랑스에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회 대표부가 설치되였

다. 1969년 12월 8일 프랑스 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 1, 2, 3부를 《젠 아프리끄》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 11월 15일호와 프랑스신문 《몽드》 10월 30일호는 《조선이 낳은 영웅의 위대한 민족해방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이라는 표제밑에 《김일성전》 프랑스어판 제1부를 소개하는 글을 각각 크게 실었다.

1971년에는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씨네마 9》 출판사와 《젠 아프리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으며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 2월 8일호는 상세한 요지를 실었다.

3월 18일 빠리에서는 프랑스조선친선협회와 프랑스도서출판 및 보급사의 공동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열렸다.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젠 아프리끄》 사는 그이께 삼가드리는 경모와 신뢰의 선물로서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김일성저작집》과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프랑스어로 번역출판하였다.

출판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이 저작집을 소개하면서 《이 저작집은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을 비교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문헌으로 될뿐 아니라 조선을 더욱 정확히 리해하기 위한 필독문헌으로 된다.》고 썼다.

1968년 5월 프랑스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5월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프랑스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지 《유마니떼》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10월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6월에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프랑스로동총련맹대표단(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프랑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5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9년 4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970년 12월 사로청중앙위원회대표단이 각각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스위스

(스위스련방)

중앙구라파에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지리, 이딸리아 등과 린접하고 있다.

기후는 따뜻하다. 제네바의 1월평균기온은 0.6°C, 7월평균기온은 19.3°C 이다. 년강우량은 800~1,000mm이다.

【면적】 4만 1,288km²

【인구】 811만 5,000명(1969년말)

주민의 절반이상이 독일인이며 기타 프랑스인, 이딸리아인이 많이 산다.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

【수도】 베른(주민 16만 8,000명)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1971년 10월 30일 국민의회(하원) 선거, 련립여당들인 급진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농민당이 총 200석중 160석 차지

【련방회의】(정부)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내각성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내각성원중에서 매년 륜번제로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다. 대통령 루돌프 그네기 (국방상겸임, 1971년 1월—), 정치국장(외무상) 피에레 그러버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 10월에 조직, 전국비서 야끄브 레호라이떠르. 급진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농민당, 민주행동당, 로조련맹, 자유청년

정 치 1648년에 로마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815년 윈회의에서 《영구중립국》으로 선포되였다. 스위스는 유엔이나 미제의 정치, 군사 뿔럭들에 직접 참가하고있지 않으나 《구라파자유무역지대》, 《구라파경제협력기구》 등 배타적인 경제뿔럭들에 참가하고있으며 1956년 6월에는 미제와 《원자협정》을, 1971년 3월 남조선괴뢰도당과는 《투자보호협정》을 맺었다.

스위스는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이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은 적다. 경제에서 시계치차를 비롯한 정밀기계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시계부분품은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한다. 수력자원이 비교적 많다.

전체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70%이상을 차지하며 알곡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시계, 계기류, 합성수지제품, 직물 등이다.

1966—1971년간에 소매상품값은 21.8%, 집세는 42.2% 올랐다. 전반적 물가는 년간 평균 6.7%나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스위스통신

신문 포르베르츠(로동당기관지), 레뷰 크리엘, 라 부아, 우브리에르, 노이에 취 짜이퉁(급진민주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14일 우리나라와 무역관계를 맺었다.

1971년 스위스의 바젤시에서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여기에서는 《천리마》라는 보도잡지를 매달 발간하고있는데 이 잡지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소식들을 싣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1971년에 프레—제롬인쇄협동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5월 25일 바젤에서 스위스로동당출판보급사의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인민예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3월에 스위스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스위스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냈다.

1970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스위스로동당 전국비서 야끄브 레호라이떠르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로동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8월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6월 스위스자유청년 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딸리아

(이딸리아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서남쪽 지중해연안에 있다. 지중해에 돌출한 아페닌반도와 사르디니아섬, 시씰리섬을 포함한 7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아열대성

기후이다.

【면적】 30만 1,226km²

【인구】 5,450만명(1970년 8월)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고 독일인, 프랑스인 등 소수민족들이 산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

【수도】 로마(주민 312만 9,000명)

【대통령】 조반니 레오네 (1971년 12월—)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수상 안드레오리(1972년 2월—), 외무상 알도 모로, 국방상 마리오 따나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에 창건, 위원장 루이지 롱고,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녀성련맹,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 1968년 1월 18일결성, **남조선인민과의련대성위원회** 1971년 10월 8일 결성.

정 치

1870년에 이딸리아의 통일이 이룩되였다.

1922년에 집권한 무쏘리니의 파쑈정권은 1935—1936년에 에티오피아를 강점하였으며 1936년에는 히틀러독일과 함께 에스빠냐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1937년에 침략적인 일, 독 《반공》 협정에 가담하였다.

1939년 4월에 알바니아를 강점하였으며 1940년 6월 파쑈독일과 함께 쏘련을 침공하였다. 쏘련군대의 섬멸적타격과 이딸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을 들고 반파쑈인민항쟁에 참가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43년 7월 무쏘리니의 독재정권은 멸망하였다.

1946년 6월 이딸리아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딸리아반동정부는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에게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초기지로 령토를 제공해주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딸리아는 반동적인 정치세력간의 호상 알륵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으로 말미암아 수십차의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력대로 이 정권들은 반인민적인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만하여도 2월과 7월 두 차례나 정치정세의 혼란으로 정부가 총사직하고 8월에야 겨우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화당의 4개정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그후 지배층내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각 세력간의 모순과 충돌이 계속되였다. 이로 인하여 1971년 2월 27일 공화당출신 각료들이 정부에서 철수함으로써 3월 4일 국회에서 련립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2월에는 이 나라 력사상 가장 오랜 3주일간에 걸친 반동정치세력들간의 치렬한 선거끝에 12월 24일 기독교민주당출신 조반니 레오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1972년 1월 15일 련립정부는 총사직하고 2월 17일 안드레오티를 수상으로 하는 기독교민주당의 단독내각이 구성됨으로써 10년간 집권하여온 련립정부가 허물어졌다. 2월 26일 상원에서 기독교민주당 내각에 대한 신임결의안이 부결되였다. 대통령은 국회량원을 임기만료전에 해산하고 1년 일찍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선거는 1972년 5월 7~8일에 실시하며 그때까지 기독교민주당단독 내각이 지속되게 되였다.

이딸리아반동무리들은 4월 28일부터 3주일간 지중해상에서 미제의 지휘밑에 벌어진 나토성원국들의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에 발벗고 나섰으며 9월에는 미제침략군 륙군참모장이란자까지 《초청》하여 놓고 발광적인 《비밀군사훈련》을 벌리는 등 전쟁연습에 열을 올렸다.

1971년 이딸리아에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4월에 1천 100만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비롯하여 6월에 있은 건설, 운수, 농업 부문의 약 200만 근로자들의 파업, 10월 부두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 12월 약 200만 농업로동자들의 총파업 등 수많은 파업들이 생산을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이리하여 독점자본가놈들은 년간 2억 1천만로동시간을 잃었으며 이해 첫 11개월간에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로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전해에 비하여 로동시간은 16배로 줄었다. 독점자본가놈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준 근 100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파업투쟁은 열번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이해에 이딸리아인민들은 팔름보반동당국의 비호밑에 날로 더욱 악랄해지는 신파쑈분자들의 준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2월6일 파쑈악당들을 반대하는 전국반파쑈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반파쑈조직들이 결성되였다. 10월에는 《반파쑈투쟁월간》을 설정하는 등 파시즘의 재생을 반대하는 투쟁이 년중 계속되였다.

경제, 사회

지하자원으로는 아연, 연, 망간, 보크사이트, 수은, 대리석, 천연가스 등이 있다. 쇠돌, 석탄, 연유 등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올리브, 강냉이 등이다.

제2차대전후 이딸리아경제는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침투와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계속 위기를 겪었다. 1952년이후 1970년까지 이 나라에 침투한 외국독점자본의 투자총액은 6천 519억리라, 그중 미제독점자본의 투자액은 2천 749억리라로서 외국독점자본의 투자총액의 42%를 차지하였다. 1971년첫10개월동안의 공업총생산량은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3.5% 떨어졌는데 특히 1971년 10월에는 전해같은 달에 비해 4.9% 내려갔다.

건재공업, 자동차, 고무, 피복선, 야금공업 및 전기기구공업의 심각한 위기로 인하여 이에 련결된 많은 공업부문에서 《련쇄반응》을 일으켰다.

방직공업은 1971년 첫9개월간에 197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생산이 6.4%, 기계제작공업은 6.4%, 금속공업은 생산이 6.1% 각각 줄었다. 채광업의 월생산 평균지표는 1971년 첫9개월간에 전해 같은 기간보다 72%나 떨어졌다.

이해에 특히 미제의 《10% 수입부가세》 조치로 말미암아 이딸리아의 수출품생산 중소기업소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15만~17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산생시켰다.

1970년 2월부터 1971년 2월까지의 기간에 실업자수는 19%나 늘어나 121만 8천명에 달하였다. 그중 청년실업자는 70만명이였다.

한해동안에 대중소비품의 값은 4.5%, 주식물인 빵값은 22%나 뛰여올랐다.

이해 첫3개월간에 약 30만건의 로동재해가 일어났으며 한해동안에 약 99만 4천건에 달하는 범죄행위가 사회에 범람하였다.

약 300만명의 청소년들이 교실부족, 학비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타(공산당기관지), 아반티(사회당계), 코리에레 델라 쎄라, 메싸젤로, 파에제쥬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18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8일 남조선인민과의련대성위원회가 로마에서 결성되였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 이딸리아어판 제1부와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들인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 출판사가 각각 출판하였다.

이 출판사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 출판사는 또한 《조국광복의 위대한 구상》,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10개 제목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요지)를 실었다.

1969년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12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0년 11월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이딸리아공산주의청년련맹대표단, 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청년운동대표, 《작카부크》 출판사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세디트》 출판사 사장부부(8월)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 4월 22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 12월 사로청중앙위원회대표단이 이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1년 4월 사로청대표단이 이딸리아공청 제19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이딸리아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 출판주체소조》 대표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바띠까노

(바띠까노시국가)

이딸리아 수도 로마시의 중심부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도시국가이다.

【면적】 0.44km²
【인구】 1,000명
【법왕】 파울로 6세

바띠까노는 세계 카톨릭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법왕의 본거지이며 국제반동의 주요중심의 하나이다. 세계 각곳에 널려있는 신자들과 기독교 정당, 출판물, 방송을 통하여 반동적종교사상을 퍼뜨리고있다. 바띠까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각종 암해, 파괴, 정탐 행위의 소굴로 되고있다.

바띠까노는 자본주의 세계 최대의 은행주의 하나이며 도덕적타락과 음탕, 사기와 살인을 일삼고있다.

1950년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적극 지지함으로서 조선인민의 원쑤로 되였다.

산 마리노

(산 마리노공화국)

중부이딸리아의 아페닌산줄기안에 있다.

【면적】 60.57km²
【인구】 1만 9,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인이다.
공용어는 이딸리아어
【수도】 산 마리노(주민 3,000명)
【의회】 일원제
【정부】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인 2명의 섭정이 있다. 국가원수들—루이지 론페르니니, 아떨리오 몬따나리, 외무상 페데리꼬 비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에르네르질도 가스뻬로니. 기독교민주당, 사회인민당, 공산주의청년동맹

정 치 301년에 성립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공화국이다. 1862년 이래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있었다. 1945~1957년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다.

1969년 9월 7일 선거결과 공산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성립되였다.

경제, 사회 축산업, 포도재배 등을 위주로 한다.

주산물은 포도, 포도주, 축산물, 밀, 석재 등이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폐는 산 마리노리라와 이딸리아리라를 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산 마리노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 산 마리노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오지리와 스위스 사이에 있다.

【면적】 157km²
【인구】 2만 1,230명(1969년)
주민은 독일계인이다.
공용어는 독일어
【수도】 바두쯔(주민 4,000명)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
【정부】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다. 수상 알프레드 힐베
【정당】 시민진보당, 조국동맹, 기독교사회당

정 치 리히텐슈타인은 1719년에 공국으로 되였고 1867년에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제1, 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해방된 이후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이 나라의 외교, 군사, 재정은 스위스가 대행하고있으며 군대는 없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주로 소)이다. 금속가공업, 면사공업도 있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도이다.

화폐는 스위스프랑을 쓴다.

모 나 꼬

(모나꼬왕국)

프랑스의 동남부에 있다. 년중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 전령토가 건물로 차있다.

【면적】 1.49km²
【인구】 2만 3,000명(1969년)
모나꼬인은 약 3천명정도이고 그외는 프랑스와 이딸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행정중심지】 몬떼 까를로(주민 약 1만명)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립법권은 의회(일원제)에 있다.
【정부】 수상 차르레스 바렐리오

모나꼬는 프랑스의 《보호》하에 있는 립헌군주국이다. 몬떼 까를로에 있는 《국제해수욕장주식회사》, 까지노에 있는 《공신도박장》이 국가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프랑스와 에스빠냐국경사이의 피레네산줄기안에 있는 내륙나라이다. 좁은 골짜기와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453km²

【인구】 1만 9,000명

기본언어는 까따로니아어이나 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행정중심지】 안도라 라 벨라(주민 1,500명)

안도라는 1278년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공동관리하에 있었다. 립법권은 총참사회에 있고 행정권은 총참사회가 임명하는 장관에게 있다.

장관(대통령) 프란세쓰끄 에스꾸데 페레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축업(소, 말, 양)을 하며 포도, 담배를 재배한다. 관광업이 국가수입의 주요원천으로 되고있다.

에스빠냐

구라파대륙의 서남단 이베리아반도에 있다. 아열대지중해성기후이다.

【면적】 50만 3,486km²(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 포함)

【인구】 3,431만 9,000명(1972년 1월)

주민의 대다수가 에스빠냐인이며 약 100만명의 바스께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마드리드(주민 263만 4,600명)

【의회】 일원제

【정부】 총통 겸 수상 프란시스꼬 프랑코(1939년—), 외무상 그레고리오 로페스 브라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국민운동(집권당), 로동자위원회

정 치

16세기에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던 에스빠냐는 17세기이래 식민지전쟁에서 일부 식민지들을 빼앗기고 식민지였던 중남미나라들이 독립함에 따라 쇠퇴하였다.

에스빠냐인민들은 1931년 4월 군주제도를 뒤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2월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였고 소수민족인 바스께족들은 자치주를 선포하였다. 이해 7월 프랑코도당은 파쑈독일과 이딸리아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아 반혁명내란을 일으켰다. 에스빠냐공산당은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광범한 반파쑈민주력량을 집결하여 독일, 이딸리아 등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국내파쑈도당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세계 모든 제국주의의 공모와 간섭으로 실패하였다. 1939년에 프랑코가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프랑코도당은 집권후 첫 2년동안에만도 30만명의 혁명가들과 민주주의자들을 투옥학살하였으며 바스께족의 자치를 폐지하였다. 1949년까지 에스빠냐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9년동안에 유격투쟁을 벌려 히틀러파쑈도당과 프랑코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프랑코도당은 1953년 9월에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에스빠냐에 4개의 해공군기지를 설치하고 1만 5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1970년 8월 에스빠냐반동정권은 미제와 맺은 《방위조약》의 유효기간(1968년 9월로 만료)을 5년간 더 연장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또한 에스빠냐는 미제로부터 5억딸라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제와 함께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공동방위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였다.

1971년에 에스빠냐에서는 야금, 탄광, 건설, 방직공업, 운수 및 보건부문 로동자들 그리고 각급학교 교원들속에서 파업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이에 각계각층근로자들과 학생들까지 합세하였다.

특히 10월에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세아트》 회사산하 2만1천명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에는 탄광, 조선소 등 34개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이 동정파업을 일으켰다. 아스뚜리아주의 1만 5천명 탄부들은 생활처지의 개선과 로조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2개월동안이나 완강한 투쟁을 벌려 끝내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1971년 상반년동안에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268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경제, 사회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올리브, 포도 등이다. 농산물생산액중에서 알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쇠돌, 석탄, 동, 수은, 연등이다. 공업으로는 방직, 식료, 담배, 조선, 자동차, 전기, 세멘트공업이 있다. 경제명맥은 외국자본에 장악되여있다. 1970년에 물고기생산량은 149만 6천 600t이였다.

반인민적대미추종정책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적자는 1971년에 20억 2천 500만딸라에 달하였다.

1971년에 생계비는 8.42%나 뛰여올랐다. 8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못가고있다. 1972년 1월현재 실업자수는 27만 6천 500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이에프에

신문 문도 오브레로(공산당기관지), 아리바(국민운동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10월 1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으며 조선로동당과 에스빠냐공산당간의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971년에 꾸바에 있는 에스빠냐공민들의 신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실었다.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있다. 아열대지중해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9만 2,200km²(아조레스, 마데이라군도 포함)

【인구】 956만명(1969년 7월)

절대다수의 주민이 뽀르뚜갈인이다.

국어는 뽀르뚜갈어

【수도】 리스봉(주민 82만 9,000명)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1965년 7월—)

【정부】 수상 마르쎌로 카에타노 1968년 7월—), 외무상 마누엘 빠뜨리씨오, 국방상 오라씨오 레베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3월에 창건, 총비서 알바로 쿤할. 국민운동(집권당), 민족해방애국전선(지도부는 알제리에 있다.)

정치

1910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1926년에 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에는 미제와 《친선 및 호상원조협정》을 맺고 본토와 식민지들에 미제의 군사기지건설을 허용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앙골라, 기네비싸우, 모잠비끄에 13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벌리고있다. 이 전쟁을 위하여 1970년에는 9억딸라를 탕진하였다. 1970년 11월에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기네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세네갈에 대한 도발책동을 수시로 감행하고있다.

1971년 12월 9일에는 아조레스군도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로 떼맡기는 《라혜스군사기지사용협정》(1974년 2월 3일까지)을 더 연장하였다.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는 9개의 결의안에 오직 뽀르뚜갈만이 반대투표하였다.

경제, 사회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포도, 보리, 쌀, 강냉이 등이다. 주석, 망간, 석탄, 동 등 지하자원이 있다.

공업은 보잘것 없으며 미, 영, 서독, 프랑스 등 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코르크(세계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가 많이 생산되며 수산업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70년에 대외무역적자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억 5천만딸라가 늘어난 15억딸라였다. 군사비가 국가예산의 44%를 차지한다. 1971년현재 실업자는 16만명이상이였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중에서 인민생활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디아리오 다 만하(국민동맹기관지)

말 따

지중해중부에 있으며 구라파, 아세아,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교통의 중요한 중계지이며 군사전략상 요충지이다. 5개의 섬으로 되여있으나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개이다. 그중 제일 큰것이 말따섬(면적 246km²)이다.

【면적】 316km²

【인구】 32만 4,000명(1969년)

말따인외에 구라파인들이 산다.

언어는 말따어외에 이딸리아어와 영어도 쓴다.

【수도】 왈레따(주민 1만 8,348명)

【국회】 최고립법기관이다.

【총독】 아. 마모(1971년 8월—)

【정부】 수상 도미니크 민또프(1971년 6월—)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말따반제전선, 말따로조

정 치 말따는 1814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7년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였다. 1964년 9월 21일 영련방내에서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7월에 《국방, 재정협정》을 강요하여 제놈들의 군대주둔권과 말따를 언제든지 강점할수 있는 권리를 강탈하였다.

한편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1953년에 나토의 남구라파해군사령부를 말따에 설치하였으며 1967년 6월 중근동전쟁이후 미제6함대는 이 나라를 아랍나라들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뒤받침해주는 주요기지로 리용하였다.

1971년 6월 12일에 있은 국회선거결과 친서방적인 국민당반동정부가 전복되고 진보적인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되였다.

새정부는 반제적이며 자주적인 중립정책을 지향하면서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6월 말따정부는 영제국주의와의 불평등조약이며 침략적인 《국방, 재정협정》을 재검토할것을 요구하였다. 1972년 3월 26일 두나라간에 말따기지사용에 관한 새 《방위협정》이 조인되여 영제국주의자들과 《나토》가 공동으로 해마다 말따에 있는 군사기지들의 《사용료》로 1천 400만파운드씩을 지불하기로 되였다. 대신 영침략군이 말따기지들에 7년간 더 머물러 있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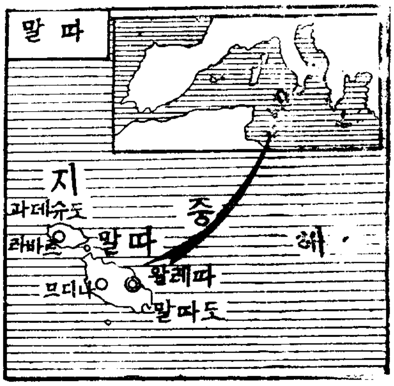
6월 24일에는 횡포하게 내정간섭하던 나토의 남구라파해군사령부 사령관 비린델리놈을 내쫓고 11월 26일 이 사령부마저 완전히 철수시켰다.

또한 지중해에 있는 미제침략군 6함대의 말따시설리용을 금지하였다.

반면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 이웃 아랍나라들과는 국교관계를 맺었다.

대내적으로 말따는 식민주의의 상징인 총독을 말따인으로 교체하고 이전 영국놈 총독을 추방하였다. 그리고 악질 경시총감과 이전 우익반동정부의 해외대사들을 모두 교체하였다.

제1차 국회에서 첫말따인 총독은 빠른 시일내에 경제적측면에서 자립에 힘쓰며 또한 18살이상의 모든 말따인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대부분이 영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경작지는 1만 4천 500정보이며 주산물은 목화, 밀, 올리브, 포도 등이다. 공업으로는 파실 및 남새통졸임, 담배, 맥주, 가구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공장이 있을뿐이다.

1971년에 레이버당정부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영국독점체의 공업기업소인 《아르쎄날》에 대한 관리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영국놈들 대신 말따사람 관리들로 교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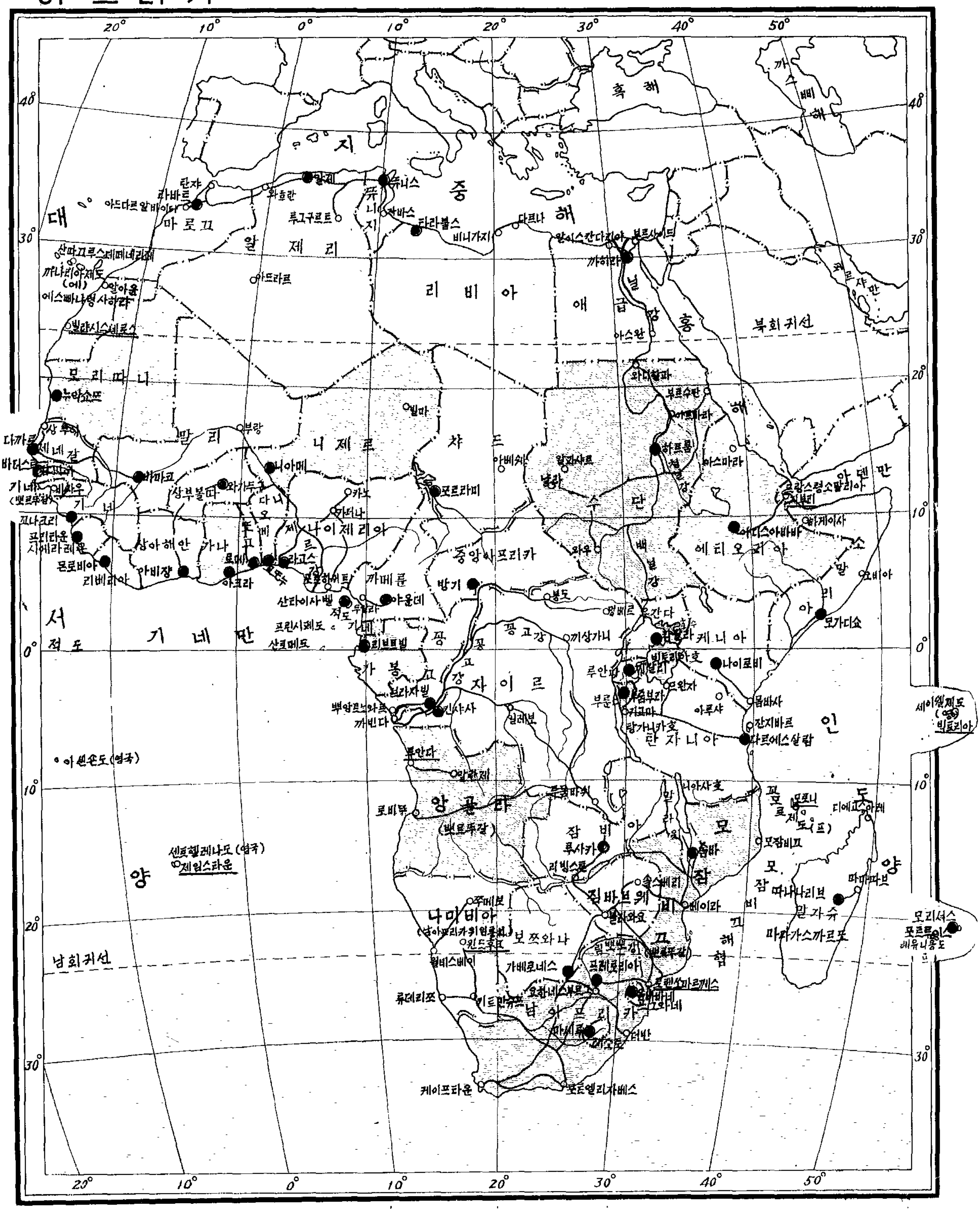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말따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되였다.

12월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께서는 우리 나라와 말따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말따 수상 도미니크 민또프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2월 말따를 방문한 로므니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12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도미니크 민또프 수상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아프리카



흑해
까스삐해
지
중
해
대
서
양
인
도
양
탄쟈
라바트
알제
뜌니스
와흐란
마로끄
알제리
뚜그구르트
따라불스
비니가지
알렉산다리아
까히라
리비아
애급
나일강
홍해
북회귀선
아스완
아드라르
에스빠냐령사하라
모리따니
누악쇼뜨
다까르
세네갈
바마꼬
말리
니제르
챠드
수단
하르툼
와디할파
아스마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덴만
프랑스령소말리아
소말리아
모가디슈
케니아
나이로비
몸바사
잔지바르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빅토리아호
탕가니카호
자이르
콩고
킨샤사
브라자빌
리브르빌
가봉
산타이사벨
야운데
까메룬
중앙아프리카
방기
나이제리아
라고스
카노
니아메
와가두구
상부볼따
가나
아크라
아비장
상아해안
몬로비아
리베리아
프리타운
시에라레온
기네
기네만
적도
앙골라
(뽀르뚜갈)
루안다
로비뚜
잠비아
루사카
좀바
모잠비크
짐바브웨
솔즈베리
불라와요
나미비아
보쯔와나
월비스베이
가베로네스
프레토리아
로렌쏘마르께스
남아프리카
마세루
더반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따나나리브
말가슈
모잠비크해협
세이쉘제도
빅토리아
모리셔스
아센숀도(영국)
센트헬레나도(영국)
제임스타운
남회귀선

아프리카주 나라들의 면적, 인구, 수도 일람

나라이름	면적(km²)	인구(명)	년 도	수도(행정중심지)
애 급	1,002,000	34,000,000	1970. 5	까히라
리비아	1,759,540	1,875,000	1969	타라불스
뚜니지	125,200	5,027,000	1970	뚜니스
알제리	2,384,741	13,349,000	1970	알 제
마로끄	445,577	15,379,000	1971.8	라바트
에스빠냐령사하라	273,000	87,000		빌랴시스네로스
모리따니	1,169,000	1,140,000	1970	누악쇼뜨
말 리	1,204,021	4,881,000	1970	바마꼬
세네갈	197,161	3,780,000	1970	다까르
감비아	11,295	357,000	1970	바더스트
기네비싸우	36,135	567,000	1970	비싸우
베르데갑제도	4,033	201,500		쁘라야
기 네	275,000	4,000,000	1970	꼬나크리
시에라레온	72,326	2,475,000	1970	프리타운
리베리아	111,400	1,400,000	1970	몬로비아
상아해안	322,500	4,195,000	1970	아비쟝
상부볼따	274,200	5,155,000	1970	와가두구
가 나	237,800	8,600,000	1970	아크라
또 고	55,600	1,815,000	1970	로 메
다오메	112,622	2,640,000	1970	꼬또누
나이제리아	878,000	55,000,000	1970	라고스
니제르	1,287,000	3,909,000	1970	니아메
챠 드	1,284,000	4,000,000	1970	포르라미
까메룬	475,400	5,800,000	1970	야운데
중앙아프리카	617,000	2,256,000	1970	방 기
수 단	2,505,825	15,180,000	1970	하르툼
적도기네	28,051	35,000		산타이사벨
가 봉	267,000	630,000	1970	리브르빌
까빈다	7,770	46,277		
꽁 고	342,000	880,000	1970	브라자빌
자이르	2,345,400	20,564,489	1970	킨샤사
부룬디	27,834	3,475,000	1970	부줌부라
루안다	26,383	3,406,000	1970	끼갈리
우간다	243,410	9,548,847	1969. 8	캄팔라
에티오피아	1,222,000	24,760,000	1970	아디스아바바
소말리아	637,593	4,500,000	1970	모가디쇼
프랑스령소말리아	23,000	125,000	1967	지부티
케니아	582,644	10,942,700	1970. 2	나이로비
탄자니아	941,600	12,926,000	1970	다르에스살람
모잠비끄	783,000	7,124,000	1970	로렌쏘마르께스
말라위	119,300	4,285,000	1970	좀 바
잠비아	752,000	4,208,000	1970	루사카
짐바브웨	389,400	5,090,000	1970	솔스베리
앙골라	1,246,700	5,430,000	1970	루안다
나미비아	823,876	670,100	1970	윈두후크
보쯔와나	712,000	629,000	1970	가베로네스
남아프리카	1,223,400	2,100,000	1970	프레토리아
스와질랜드(?) 느그와네	17,366	395,000	1970	음바바네
레소토	30,344	385,555	1970	마세루
말가슈	594,244	6,643,000	1970	따나나리브
까나리아	7,273	1,000,000		산따끄루스데 떼레리페
쎈트헬레나	122	4,760		제임스타운
산토메, 프린시페	964	66,000	1969	산토메
세이쉘	404	51,000		빅토리아
모리셔스	2,100	799,000	1970	포트루이스
레유니옹	2,511	436,000	1969	쌍드니
꼬모르	2,171	181,000		자우지

아 프 리 카 주

아랍공화국련방

아프리카대륙에 있는 애급과 리비아, 중근동지역에 있는 수리아 등 세 나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모두 지중해에 면하고있다.

【면적】 294만 6,019km²
애급 100만 2,000km²
리비아 175만 9,540km²
수리아 18만 4,479km²

【인구】 4,212만 3,000명
애급 3,400만명
리비아 187만 5,000명
수리아 629만 4,000명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랍인이며 아랍어를 쓴다.

【수도】 까히라 (애급수도), 주민 500만명(1970년 11월)

【대통령리사회】 세 나라 수반들로 구성되는 련방의 최고기관이다.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한다.

세 나라의 공동의 관심사로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며 안전보장 등 중대한 문제들은 만장일치가결을 통하여 처리한다.

위원장 안워르 앗 사다트(애급), 1971년 10월 6일 선출.

【련방민족회의】 련방의 최고립법기관이며 임기는 4년, 매성원국에서 20명씩 선출하여 60명으로 구성.

【련방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

【련방정부】 1972년 1월 4일 수상과 7명의 국무상(애급 4명, 수리아 1명, 리비아 2명)으로 구성.

수상 아호메드 엘 하티브(수리아)

정치 원래 애급, 수리아, 리비아를 포함하는 아랍국가들은 같은 아랍민족으로서 같은 언어와 문자 및 종교를 가진 하나의 통일체였다.

16세기이래 토이기오토만제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아랍민족들은 분렬되여 살아왔다.

아랍민족들은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과정에서 그들간의 통일과 단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아랍인민들의 통일단결의 지향은 1945년 애급, 수리아,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수단, 리비아 등 9개국으로 되는 아랍련맹을 창설하는데 이르렀다.

1955년에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군사동맹인 《바그다드조약》을 조작하자 이에 대처하여 애급과 수리아는 침략자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공동방위조약을 맺었다.

1957년에 수리아에 대한 미제와 토이기의 침략적도발책동이 격화되였을 때에는 수리아를 지원하여 애급이 수리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1958년 2월 애급과 수리아는 정치적련합을 선포하고 하나의 국기, 하나의 군대, 하나의 국민을 가진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3월에는 예멘왕국이 이에 망라되였다. 그러나 이 련합은 1961년 9월 수리아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남으로써 허물어졌다.

1963년 4월 애급, 이라크, 수리아가 련방협정에 조인하였으나 이해 7월에 해소되였다.

1970년 11월 애급, 수단, 리비아 수반들이 련방 형성에 합의하였으며 11월 16일 수리아가 이에 합류하였다. 1971년 4월 17일 애급, 수리아, 리비아 수반들이 련방형성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3개국은 련방형성과 관련하여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 《강점된 아랍령토의 해방은 모든 력량을 투하하며 해결해야 할 목적의 하나이다. 이스라엘과는 협상도 타협도 있을수 없다. 한치의 아랍땅도 내여줄수없다. 팔레스티나문제를 청산할수 없으며 이 문제에서 타협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세나라 수반들은 아랍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이 꾸미고있는 온갖 음모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으로 되리라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선언에 서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수단은 《국내사정의 복잡성》을 조건으로 련방에 가입하지 않았다. 9월 1일세나라에서 련방창설에 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여 아랍공화국련방이 발족하게 되였다.

련방헌법에 의하면 성원국들은 국기, 국장, 국가, 수도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공동의 방위 및 대외정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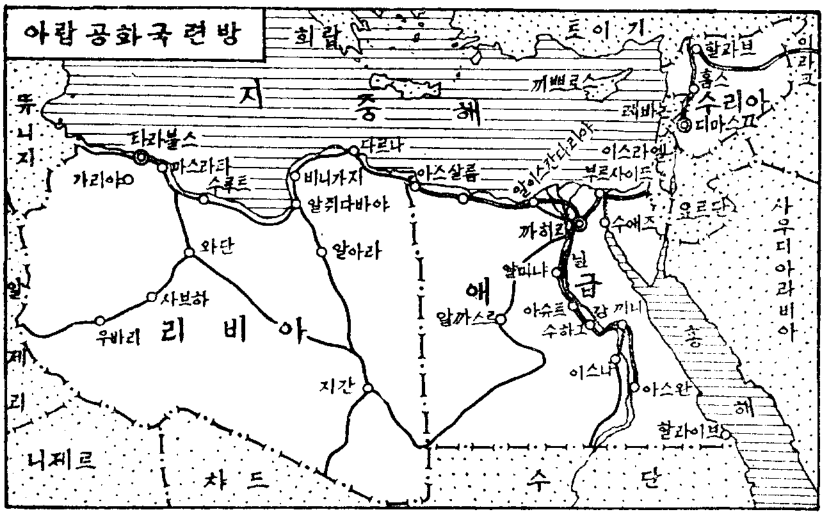
군사분야에서는 하나의 통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여 3개국군대의 훈련과 작전을 조정하나 군대는 각국 대통령의 지휘하에 두며 성원국들은 주권, 외교권, 기타 국가기능에 대한 문제에서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통치체제는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것으로서 대통령리사회에 의하여 지도된다.

련방예산에 성원국들은 균등한 몫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1971년 12월에 진행된 대통령리사회에서는 성원국들간의 경제적통합을 위한 공동경제계획을 작성할데 대한 결정과 외교 및 령사대표부들을 호상 폐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2년 1월 16일 련방내각회의에서는 3개련방성원국들의 자원을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련방내각의 행동계획을 토의하였다.



애 급

(애급아랍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지중해와 홍해에 면해있는 본토와 아세아대륙과 련결되여 있는 한개의 반도(시나이반도)로 되여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다.

【면적】 100만 2,000km²

【인구】 3,400만명(1971년 5월 1일) 대부분이 아랍인이다.

【수도】 까히라(주민 500만명, 1970년 11월)

【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1971년 11월에 선거.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1970년 10월 15일—)

【정부】 1972년 1월 18일 구성

수상 아지즈 시드키, 외무상 무라드 갈리브, 전쟁 및 군수생산상 무함메드 싸데끄

【정당, 사회단체】 아랍사회주의동맹 유일당이며 집권당. 로동련맹, 사회주의청년조직, 애급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결성.

정치 17세기부터 오로만제국의 한 개주로 예속되여 있었다. 1914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보호국》으로 되였다가 1922년 2월 독립왕국으로 되였다.

1936년 8월 영제국주의자들이 애급왕국에 《영국—애급조약》을 강요하여 수에즈운하지대에서의 군대주둔권을 빼앗았다.

1952년 7월 나쎄르를 위수로한 군부가 친영 파르크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애급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6년 7월 26일 애급은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표하였다. 수에즈운하를 《국제관리》하에 두려는 음모가 파탄되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침략자들은 미제의 지지밑에 애급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애급인민들은 이를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였다.

1958년에 수리아, 예멘과 함께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가 1961년 9월에 해소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사촉하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애급에 대한 불의의 전쟁을 도발하여 시나이반도를 강점하였다. (6월 9일 정화)

1971년 4월 17일 리비아, 수리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형성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4월 29일 인민회의는 이를 승인하고 나라이름을 애급아랍공화국으로 고쳤다. 9월 1일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주민의 99.98%찬성)되였다. 9월 20일에는 내각, 인민회의, 아랍사회주의동맹 개편에 대한 정령이 발표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과 11월 3일 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에서 사다트 대통령은 《희생이 어떻든간에 강점당한 아랍령토의 해방을 완성하는 길외에 딴 길을 우리는 가지고있지 않다》고 언명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아랍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1971년에 전국국방위원회, 최고민간방위리사회를 강화하고 각 주들에서 민간 및 대공방위를 강화하며 중학교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주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들을 내오고 경제기구들을 새로 창설하였다.

1971년 5월 쏘련과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경제, 사회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목화이며 그밖에 쌀, 옥수수, 밀, 과일, 옥파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원유, 쇠돌, 망간, 석고, 린광 등이다.

공업은 방적, 세멘트, 제지공업 등이 위주로 되고있으나 최근년간 중공업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1970—1971회계년도에 공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12% 늘어났는데 특히 이 기간에 중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금속공업은 34%, 기계공업은 32%, 석유공업은 26% 늘어났다.

1971년에 공업부문에서는 해마다 80억kwh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아스완수력발전소가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화력발전소, 알루미니움공장, 사탕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또한 16개의 새 유전개발, 해마다 1억 2천만t의 원유를 보내게될 수에즈와 알렉싼드리아를 련결할 송유관건설 등이 진행되였다.

제2차 5개년계획기간 (1965—1970)에 국민소득은 년평균 6.9%, 공업은 7.4%, 농업은 6.3% 늘었다.

정부는 새 5개년계획기간에 공업발전을 위하여 11억 8천 400만 애급파운드를 배당하고 공업생산을 2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10년내에 150만페단(1페단은 0.52ha)의 새땅을 개간하며 관개면적을 늘이고 해마다 벼재배면적을 30만페단씩 늘일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1971년에 누바리아지방에서 2만 7천페단의 땅이 개간되였으며 다까홀리아 및 홍해연안지역에 새로운 관개시설들이 건설되였다. 아스완땜의 완공으로 경지면적은 30% 늘어났다.

1970년에 목화는 1천 13만 780낀딸(1낀딸은 34.5kg), 밀은 125만페단의 땅에서 1천 160만 아르데브(1아르데브는 약 150kg)생산되였다.

대외무역은 1970—1971회계년도에 그 전해에 비하여 8% 특히 공업제품 수출은 42%, 그중 석유수출은 14% 늘어났다.

1971년에 초등 및 중등학교학생수는 450만명이였다.

1970년에 인구한사람당 보건비지출은 1952년에 비하여 약 5배로, 이 기간에 전문의료일군들의 수는 2.5배 늘어났다.

주민의 91%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멘통신(중근동통신)

신문 알 굼후리아(정부기관지), 알 아흐람, 알 메싸, 알 아흐바르, 에질셜 가제트, 쥬르날 에질트, 프로그레 에질시엥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7년 12월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에는 령사관계를, 1963년 8월 24일에는 대리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11월 23일 대사급으로 승격시켰다.

1971년 5월 2일 애급인민회의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내놓은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1년에 애급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들인 《새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다르 알 타흐리르출판사)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알 아흐바르 출판사),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다르 알 타흐리르)를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1971년에 신문 《알 아흐바르》, 《알 굼후리아》를 비롯한 애급출판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력사적인 로작들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조선로동

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등을 광범히 소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까히리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회관에서 우리 나라 수예 및 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0년에 애급사회주의청년조직대표단(6월), 정부통상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1월에는 애급대통령, 아랍사회주의동맹 및 애급정부를 대표하는 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월 30일 대표단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5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5월 13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다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공동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애급측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재천명한 8개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할것을 주장하였다.

1971년 6월과 10월에 애급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14일 사다트대통령의 누이동생이며 애급잡지 《알 무싸워르》부장인 싸끼나 무함마드 앗 사다트를 단장으로하는 애급기자대표단을 만나시였다.

9월에 두나라간에 1971—1972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리 비 아

(리비아아랍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부 지중해에 면해있다. 령토의 3분의 2가 사막이며 강이 없다.

기후는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한 건조한 열대사막기후이다.

【면적】 175만 9,540km²

【인구】 187만 5,000명(1969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이며 이딸리아인, 희랍인 등이 있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트리폴리스(겨울수도, 주민 37만 6,000명), 벵가지(여름수도, 주민 28만명)

【혁명지도리사회】 최고지도기관이다.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

【정부】 수상 겸 국방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 통일및외무상 모함메드 나쟘

【정당, 사회단체】 아랍사회주의동맹 1971년에 조직,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로동조합총련맹

정치

오토만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1911—1912년의 이딸리아—토이기전쟁후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69년 9월 1일 청년장교들이 왕권을 뒤집어엎고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혁명지도리사회를 수립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리비아혁명승리 두돐에 즈음하여 가다피대통령에게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리비아인민은 혁명승리후 지난 2년간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리비아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혁명승리후 혁명지도리사회는 1970년 3월 영침략군을 몽땅 몰아냈으며 6월에는 미제의 《휠러스》공군기지를 철페하고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쫓아냈다.

8월에는 이딸리아자산가들의 마지막 무리를 쓸어버렸다. 또한 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였으며 영국파운드권에서 탈퇴하였다.

1972년 1월 리비아는 이전 봉건왕조가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우호 및 동맹조약》과 《군사 및 재정협정》을, 2월에는 미제와 맺었던 군사기지,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협조 등에 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페기함으로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1971년 4월 17일 애급, 수리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창설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4월 26일 혁명지도리사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9월 1일 실시된 련방창설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98.6%가 찬성투표함으로써 리비아는 아랍공화국련방 성원국으로 되였다.

11월에 애급과 리비아는 아랍사회주의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협조협정을 맺었다.

1971년 2월 가다피수상이 뛰니지를 방문하고 두나라의 경제, 사회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발전을 위한 문제를 심의하는 협동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월에는 프랑스와 1969년 11월에 맺은 계약(1973년까지 프랑스로부터 《미라쥬—3비》제트기 110대구입)에 의하여 《미라쥬—3비》제트기가 처음 리비아에 들어왔다.

5월 칠레와 외교관계를 맺고 6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

원유공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원유는 총생산액의 83%를 이루고있다.

1961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원유의 90%는 40여개 외국독점회사들이 독점하고있었으며 석유세수입은 국가예산의 77%를 차지하고있었다.

공화국선포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역, 상업, 은행, 보험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970년 7월에는 미제의 석유독점체 《에쏘》를, 1971년 12월에는 영석유독점체를 국유화하였다.

원유생산량은 1970년에 1억 7천만t 수준에 이르고있다.

또한 1971년 4월에 정부는 외국석유회사들과 석유공시가격을 바렐당 2딸라 55쎈트로부터 3딸라 45쎈트로 올리는 5년간의 협정을 맺었다.

또한 1970년에는 180만t능력의 원유가공공장건설을 진행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농장을 국유화하였으며 1970년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우선 식량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2차 5개년계획(1970—1974) 기간에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전 계획기간의 거의 3배로 늘이고 토지개간사업, 물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땅콩,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식민주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영어를 페지하고 아랍어를 쓰게 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알 타우라(정부기관지), 알 뜨라, 알 사우라, 트리폴리 미러, 알 호르리에, 알 발라크, 페불루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무역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대표부를 호상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971년에 리비아신문 《알 호르리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1971년 신년사(10월 26일호), 그이의 력사적인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7월 21일, 10월 26—31일호),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7월 22일호)를 실었으며 《알뜨라》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1971년 5월 리비아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 4일 대표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6월에 정부경제대표단, 9월에 기자대표단, 12월에 통상대표단이 각각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수 리 아

(수리아아랍공화국)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대부분이 고원지대이며 내륙지방은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19°C이다.

【면적】 18만 4,479km²

【인구】 629만 4,000명(1970년 11월)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인과 쿠르드인이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디마스끄(주민 63만 6,400명)

【인민회의】 립법기관, 1971년 2월 창설.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3월—)

【정부】 수상 아브델 라흐만 클레파위(1971년 4월—), 외무상 아브델 할림 하딸, 국방상 무스타파 틀라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 아랍사회부흥당(바아스당)집권당, 수리아지역 지도부 총비서 하페즈 알 아싸드. 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28일 결성

정치

오스만제국에 편입되여있던 수리아는 1920년부터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6년 4월 17일 독립하였다.

1958년 2월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정변후 아랍련합공화국에서 떨어져나와 9월 29일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수리아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골란고지를 강점하였다.

1970년 11월 13일 독립이래 11번째의 정변이 일어나 1966년 3월에 집권하였던 아따씨정권이 전복되고 하피즈 브를 수반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1년 2월 최고립법기관으로서의 인민회의 창설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여 바아스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 기타 애국력량을 대표하는 173명의 성원이 임명되였다.

3월 12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여 아싸드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4월 17일 애급, 리비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창설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4월 26일 내각은 이를 승인하였다. 9월 1일 련방창설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96.4%가 찬성함으로써 수리아는 아랍공화국련방 성원국으로 되였다.

5월에 진행된 인민회의에서 수상 클레파위는 정부의 대내외정책강령을 발표하였다.

정책강령에서는 수리아가 세계 모든 지역의 해방운동을 지지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이며 전아랍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지향한다고 지적하였다.

9월에 진행된 아랍사회부흥당 제11차민족대회에서는 아랍의 모든 잠재력을 경주하여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할것을 결의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1년에 수리아는 마로끄(3월), 뛰니지(2월)와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경제, 사회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약 65%를 차지하며 수출총액에서 농산물이 8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콩, 포도, 기장 등이다.

공업은 아레포를 중심으로 한 섬유공업과 유리, 세멘트, 식료가공 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이것은 공업총생산액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1969년에 면사는 2만t 생산되였다.

원유, 린회석, 석돌, 망간, 크롬, 천연가스 등이 채취된다. 원유매장량은 약 10억t이며 1971년에 원유는 550만t 생산되였다.

정부는 3차 5개년계획기간(1971—1975년)에 년평균석유생산량을 1천만t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400개의 유정을 파낼것을 계획하고있다.

1971년에 정부는 중근동의 석유를 빼내기 위하여 수리아령토에 설치된 《이라크석유회사》(서방석유독점체)의 송유관 사용료를 70% 올렸다. 이리하여 석유수송에 의한 년간 수입은 2억 2천 400만수리아파운드로부터 3억 4천 400만수리아파운드로 늘어났다. 수리아에는 150만t능력의 원유가공공장이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1969년 6월까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협동조합은 1972년 3월까지 1천 633개 조직되였다. 주요농산물인 목화는 1969—1970년도에 40만t 생산되였다.

인구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의 869수리아파운드로부터 1971년에는 950수리아파운드로 늘었다.

1970—1971학년도에 6천여개의 각급학교에서 125만 4천 2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바아스당기관지),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오르바' 알피다, 니달 알 팔라힌, 문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6년 7월 25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8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에 수리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1971년에는 그이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비쳐주시는 태양》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수리아신문들인 《알 사우라》, 《알 피다》, 《니달 알 팔라힌》, 《알 싸까파 둘우쑤부아이에》 등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과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광범히 소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수리아전국학생동맹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발표하였으며 농민총동맹, 아. 아단결위원회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6일 수리아방송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특별방송을, 7월 10일 알레포시에서는 군중대회를 진행하였다.

1970년 6월에 수리아혁명청년동맹대표단이, 1971년에는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대표단(10월), 녀성총동맹대표단(4월), 혁명청년동맹대표단(6월), 농민총동맹대표단(7월), 고등교육성대표단(10월), 수리아신문 《문

화》주필(10월) 등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대표단(10월 12일), 수리아녀성총동맹대표단(4월 19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5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수리아를 방문하였다. 5월 23일 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싸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6월 15일 수리아와 우리 나라간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현을 위한 1971—1972년도 집행계획서가 조인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아싸드대통령이 수령님께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수리아《문화》신문주필 부부가 참가하였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 홍해연안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이며 세계에서 제일 더운 나라의 하나이다. 북부사막지대의 6~8월평균기온은 40°C 이상이며 년평균강우량은 25mm이다. 동남부의 최고강우량은 1천mm이다.

【면적】 250만 5,825km²

【인구】 1,518만명(1970년)

500여종족이 살고있는 다민족국가이다. 크게는 북부와 중부에 아랍인과 니그로의 혼혈인 누비아인(70%), 남부에 흑인(30%)이 산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하르툼(주민 19만 4,000명)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71년 10월 12일—), 외무상 할레드 만수르, 국방상 할리드 하싼 아빠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6년에 창건, 1971년 7월 정변후 비법화. 수단사회주의동맹 1972년 1월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위원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수단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16일 결성.

정치 1899년 영식민주의자들이 애급에 강요하여 수단에 대한 영국과 애급의 《공동관리》협정을 맺고 수단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수단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을 통해 1953년 1월 《자결권》을 쟁취하였다. 1955년 11월에 영침략자들을 내몰고 1956년 1월 1일 독립하였다.

1969년 5월 25일 수단군내 장교들이 친서방적인 아즈하리—마호쥬브정부를 뒤집어 엎고 니메리를 위원장으로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니메리정부는 《수단식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새로운 국가기구와 국가기관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6월에는 《자치》를 요구하여 1963년이래 무장반란을 일으켜온 남부수단에 자치권을 주었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회사와 공장,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1970년에는 파괴활동을 일삼던 미제《평화군》놈들을 모두 내쫓았다. 니메리정권은 1969년 5월부터 1970년 3월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6차례의 정부전복음모와 무장반란을 분쇄하였다.

1971년 7월 19일 이전 혁명지도리사회성원들이였던 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7월 23일 니메리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다시 전복되였다.

정변후 수단공산당 총비서, 로조지도자 등 많은 공산당원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처형 또는 체포되였다.

1971년 9월 수단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으며 10월 12일 니메리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니메리는 혁명지도리사회를 해산하고 수단사회주의동맹이라는 유일당의 창건을 명령했으며 기타 모든 정당과 정치적조직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총생산액의 약 60%, 공업은 약 18%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다. 그밖에 참깨, 땅콩, 사탕수수, 강냉이 등도 생산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쇠돌, 망간, 우라니움, 크롬, 아연, 원유, 운모, 마그네시움 등이다.

목화재배면적은 농경지의 40%에 달하며 목화는 수출총액에서 70%를 차지한다. 1969년에 목화생산량은 60만 6천t에 달했으며 수출량은 17만 2천 300t에 달했다.

아라비아고무는 해마다 약 4만t생산되는데 이것은 세계생산량의 80%를 이룬다.

집짐승마리수도 해마다 평균 7%씩 늘어나고있다. 1969년말에 집짐승마리수는 3천 900여만마리에 달하였다.

1971년에 수단에서 가장 큰 국영에스수키농업관개공사가 준공되였다.

1971년부터 민족공업을 건설하며 식량문제를 해결할것과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개발할것을 과업으로하는 경제발전 제2차5개년계획(1971—1975)에 착수하였다.

북부주민은 회교를 믿으며 남부주민은 기독교를 믿는다.

교육은 북부에서는 정부가, 남부에서는 교회가 관리하고있다.

1970년 9월 통신과 신문이 국유화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수단통신, 하르툼통신

신문 알 아호라르(정부기관지), 앗 수단 알 쟈디드, 알 아얌, 알 싸하파, 나일미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6월 21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4월 13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하르툼에서 《김일성수상의 로작연구소조》, 《김일성수상의 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으며 아련에 있는 수단인민들이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로동자들의 조직),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지식인들의 조직)를 결성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광범히 연구하고있다. 또한 여러신문들이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광범히 실었다.

1970년 8월 수단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청년, 체육 및 사회사업성에서 조선인민과의 친선주간(9~15일)을 설정하였으며 하르툼의 바라리조선촌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경축집회, 시위, 도서및사진전시회, 경축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공보및문화상이 신문《알싸하파》 4월 16일호에 글을 발표하였으며 신문《나일미러》와 《알싸하파》는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대답을 실었다.

1971년에 수단친선문화대표단(4월), 정부친선대표단(5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 대회에 수단《김일성수상의 사상연구소조》대표단, 청년 및 체육 사회사업 성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수단통신사 및 작가, 시인, 문화인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뚜 니 지

(뚜니지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지중해연안에 있다. 나라의 약 절반이 사막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7월에 25～32°C, 1월에 5～12°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북부에서 700mm, 남부에서 200mm이하이다.

【면적】 12만 5,200km²

【인구】 502만 7,000명(1970년)

주민이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국어는 아랍어

【수도】 뚜니스(주민 70만명, 1970년)

【국민의회】 일원제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64년 11월—)

【정부】 수상 바히 라드함(1969년 8월—), 외무상 모하메드 마쓰무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창건, 1963년에 비법화, 총비서 모함메드 엔다피. 데스트르사회당(집권당), 로동자총련맹, 농민련맹, 녀성련맹

정치 1837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1년 5월에는 프랑스의《보호령》으로, 1883년 6월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기간에는 파쑈독일(1942. 11～1943. 5)과 미제(1943～1944)의 강점하에 있었다. 1956년 3월 30일 독립하고 1957년 7월 2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10월 비제르타기지에서 프랑스침략자들을 마지막으로 몰아냈다. 1964년 5월 국회에서 외국인의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프랑스독점체《코론》회사의 27만정보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평화군》, 《기술자》, 《교원》등의 탈을 쓰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기관들에 기여들었으며 미제6함대는 뚜니스, 비제르타, 스팍스항 사용권을 쥐고있다.

뚜니지는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승인할것을 제창함으로써 아랍나라들과의 의견대립이 조성되여 1958년 9월 아랍련맹에서 떨어져나왔다.

1970년 1월 20년간을 기한으로 알제리와《우호,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올리브, 포도 등이다.

광업이 총생산의 20%를 차지한다. 린광석, 쇠돌, 석유, 아연, 연 등이 채굴된다.

정부는 석유공업발전을 위하여 1972년 1월에 석유채취공업과 석유가공공업을 지도하며 이 부문에 요구되는 민족간부양성문제를 맡아보는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회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뚜니지아프리카통신(1961년창설)

신문 악씨옹(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아스 사바

알 제 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북쪽, 지중해에 면해 있다.

북부해안연선의 년평균기온은 12～25°C이다. 남부의 사하라사막지대는 건조하고 무덥다. 년평균강우량은 북부산악지대에서 1천 200mm, 남부사막지대에서는 50mm이하이며 비가 전혀 오지않는 지역도 있다.

【면적】 238만 4,742km²

【인구】 2,334만 9,000명(1970년)

주민은 아랍족(60%), 베르베르족(30%)이며 외국인이 약 20만명, 그중 프랑스인이 6만 8천명(1969년)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알제(주민 164만명, 교외인구포함)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

【정부】 수상겸국방상 후아리 부메디엔, 외무상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4년 8월에 창건. 근로자총동맹, 민족해방전선청년단체, 전국녀성동맹, 농업근로자전국련맹, 알제리조선친선련대성협회 1970년 7월 26일 결성.

정치 1830년부터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다. 알제리인민들은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항전을 벌렸다. 1848년부터 1954년까지만도 50여차에 걸친 반프랑스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11월 1일 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80여만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83억딸라를 탕진하였으나 알제리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알제리인민들은 1958년 9월 알제리공화국 림시정부를 수립하고 7년여의 간고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1962년 3월 18일에는 프랑스침략자들로 하여금 정화협정에 조인케 하였다.

1962년 6월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을 규정한《트리폴리》강령을 채택하였다.,

1962년 7월 1일 자결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7월 5일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4년까지 프랑스침략군을 알제리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1963년 10월 외국인소유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1966년 5월에는 미제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포하였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자 알제리정부는 자기의 무력을 전선에 출동시켰으며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고 미영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과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였다.

1971년 7월 30일 혁명리사회와 정부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당국의 탄압만행에 대처하여 요르단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며 팔레스티나유격대에 군사, 재정, 외교적인 원조를 계속 줄것을 결정하였다.

1971년에 제국주의독점체소유의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2월 24일), 대외무역을 국가가 독점할데 대한 결정(7월)을 채택하였다. 또한 새석유법을 제정하고 3월 20일부터 석유값을 한바렐당 2.85딸라로부터 3.6딸라로 올렸다. 이해 11월에는 토지개혁실시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경제, 사회 채취공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채취공업은 공업총생산액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며 석유와 천연가스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사하라사막에는 35억t의 원유와 1조km³의 가스

가 매장되여있다.

독립후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1971년 말까지 석유 생산의 80%, 천연가스생산의 100%, 그밖에 채광공업부문 기업소들과 기계, 화학, 전력, 은행, 대외무역 등의 주요경제명맥은 모두 국유화되였다. 정부는 국영부문을 공고화하면서 경제적자립을 위한 공업화에 힘을 집중하였다. 특히 중공업에 대한 투자액은 1967—1969년까지의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총투자액의 4분의 3에 달했으며 4개년계획기간(1970—1973)에는 48%에 달하였다.

정부는 4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물질적기초를 공고히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킬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간에 흑색 및 유색금속공업, 제철업, 석유 및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노력을 바치고있다.

1970년에는 엘 하자르제철종합공장 제1계단공사가 끝나고 하루 평균 약 600t의 선철과 1천 100t이상의 강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1971년에는 안나바에 년산 60만~90만t 능력의 린비료공장이 일떠섰다.

또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사하라석유연구 및 채취회사의 운영권을 장악하였으며 국영석유회사인 《쏘나트락크》와 국영수력회사를 새로 창설하였다.

이해에 쓰끼끄따시에 에탄분해종류공장(년산 12만t의 에틸렌생산), 아르죠브시에 압축가스공장(년산가스 100억m^3), 가자우에시에 새아연제련공장, 5천여대의 뜨락또르와 1만대의 디젤발동기를 생산할수 있는 꼰스딴찐종합기계공장, 화물자동차조립공장, 부속품공장 건설이 진행되였다.

1970년에 석유는 4천 500만t, 천연가스는 37억m^3, 전력은 19억 6천kwh 생산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단작경리로부터 알곡을 위주로하는 다각경리로 발전시키고있다.

1971년 8월 정부는 2만 5천정보의 포도밭에 알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물들을 심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포도, 보리, 귀밀, 담배, 일년감, 남새 등이다.

무역총액의 약 60%는 프랑스와 진행된다.

수출에서 석유와 포도주가 70%를 차지한다.

교육분야에서 《알제리화》와 《아랍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의 교원력량을 늘이고 학교에서는 아랍어를 쓰고있다.

1971년에 초등학교학생수는 독립당시의 3배로 늘어났으며 독립이후 59개의 중학교, 기술학교, 일반전문학교들이 건설되였다.

대학은 알제와 오랑에 2개있다.

1971년에 각급학교학생수는 250만명에 달하였다.

정부는 4개년계획기간에 100만명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 뻬 에스(알제리통신)

신문 엘 무쟈히드(정부기관지), 레볼류시옹 아프리깬(민족해방전선기관지), 엘 제이쉬(민족인민군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문화협정, 10월에는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다. 1970년 7월에 알제리조선친선련대성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3월에는 알제에서 조선로동자들과의 알제리련대성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71년 7월《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알제리평화옹호위원회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알제리조선친선 라뜨라우이 알리엣투사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떠지우주, 바뜨나, 메데아, 쎄떠프도 등 각지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1월 5일 빠뜨리스 루뭄바렬사유자녀학원 원장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연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높이 평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에 있는 여러 나라 투쟁단체대표부성원들이 련합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971년 8월 알제리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대표단은 8월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민족해방전선청년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알제리종합대학교수와 뜰렘센중학교교원부부가 참가하였다.

마 로 끄

(마로끄왕국)

아프리카의 서북쪽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에 있다.

지중해성기후로서 동부지방은 덥고 건조하며 남부지방은 여름평균기온이 30~4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400mm이다.

【면적】 44만 5,577km^2

【인구】 1,537만 9,000명(1971년 8월)

주민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 절대다수이며 프랑스인(약 13만명), 유태인 등도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라바트(주민 37만 5,000명, 1971년 8월), 탄지르(여름수도)

【국회】 일원제, 1970년 7월에 채택된 새 헌법에 의하여 8월 총선거진행.

【국왕】 물라이 하싼 2세(1965년—)

【정부】 수상 모하메드 까림 람라니(1971년 8월—), 외무상 아흐메드 타이에비 벤히마, 국방상 모하메드 우프끼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에 독자적 당으로 창건됨(1960년에 비법화), 민주사회당(집권당), **립헌제도옹호전선, 독립당, 인민력량전국동맹, 로동총련맹, 로동청년동맹**

정치 19세기 40년대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2년 3월에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이해 11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북부마로끄를 강점하였다.

1923년 12월 프랑스, 에스빠냐, 영국 침략자들이 탄지르지역을 소위 《국제관리》지역으로 만들었다. 1956년 3월 2일 독립하였으며 이해 에스빠냐 강점하에 있던 북부 마로끄도 귀속되였다.

1960년 4월에는 탄지르지역이, 1969년 6월 30일에는 이프니가 마로끄에 귀속되였다.

1965년 로동자와 학생들의 폭동이 있은 이래 국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다. 1970년 7월 의회제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이해 8월에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그러나 국왕은 모든 법에 거부권을 가지고있다.

1971년 7월 10일 왕궁경비대사령관의 지휘밑에 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

으켰다가 6시간만에 진압되였다.

정변후 7월 14일 마로끄는 리비아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9년 1월 20년을 기한으로 알제리와 《우호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포도, 감류 등이다.

남부초원지대에서는 양, 소, 말, 염소, 락타 등을 많이 기른다. 양은 1천만마리에 달하고있다.

광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린광석과 망간이 유명하며 무연탄, 쇠돌(년 1천만t 생산), 연, 아연, 석유, 우라니움, 코발트 등을 채굴한다.

정어리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 정어리는 통졸임외에 어분을 만들어 구라파나라들에 수출한다.

회교가 국교이다.

대학으로는 모하메드 5세대학 등 4개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알람, 오삐니옹, 말랴스펀, 알끼파호, 알 와따니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신문 《오삐니옹》 1971년 4월 16일호가 실었다.

1971년 6월에 진행된 사로청 제6차대회에 로동청년동맹대표가 참가하였다.

에스빠냐령 사하라

아프리카대륙의 서북부 마로끄의 서남쪽에 있다. 세기에 엘 하므(8만 3천 km^2)와 리오데 오로(19만 km^2)의 두 지역으로 구성되여있다.

【면적】 27만 3,000 km^2

【인구】 약 8만 7,000명

【행정중심지】 빌랴시스네로스(주민 약 3,000명)

1916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마로끄령토였던 사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인구의 약 절반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 등이다.

오아시스에서는 보리, 밀, 올리브를 재배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린회석, 쇠돌, 카리염, 동, 석유 등이다.

모리따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반사막지대이다. 년평균기온은 25°C, 년평균강수량은 200~600mm이다.

【면적】 116만 9,000 km^2

【인구】 114만명(1970년)

주민은 75%가 베르베르족이며 나머지는 흑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

【수도】 누악쇼뜨(주민 2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인민당이 전의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1961년 8월—), 외무상 함디 울드 무크나쓰, 국방상 씨디 모하메드 디아가나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근로자동맹,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인민당녀성최고리사회,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1968년 4월 11일 결성, 위원장 바 알라싼느

정치 1920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1월 《프랑스공동체》 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11월 28일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19일 프랑스와 대외정책, 국방, 경제분야에서 불평등한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5년 7월 아프리카말가슈공동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9월에는 장개석도당과, 12월에는 남로데시아에서의 소수백인정권조작에 항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그의 사촉자인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8년 10월 민족회의는 제국주의자들, 유태복고주의자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무역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1년 6월 아프리카통일기구제8차수뇌자회의 의장이였던 다다호 대통령은 아프리카나라들에 《반제적인 현대성의 위업을 촉진시킬것》을 호소하고 아프리카통일기구는 《남아프리카와 일방적으로 대화를 개시하는 어떠한 성원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제, 사회 광업, 축산업, 어업이 3대 중요경제부문으로 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철함유량 65%) 동, 석유, 크롬, 니켈, 바나디움 등이다. 쇠돌은 해마다 1천만t 생산되며 아프리카대륙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

1970년에 큰뿔난집짐승은 1천여만마리, 양은 1천 500만마리, 락타는 100여만마리에 이르고있었다.

물고기생산량도 매년 25~30만t에 달하고 있다. 독립후 양털, 통조림, 피혁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경제의 《모리따니화》실현을 위한 기술인재양성에 힘을 넣고있다. 1970년에 소학교수는 400여개이며 소학교, 중학교 학생수는 4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모리따니통신
신문 삐쁠(인민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9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7년 10월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1967년 10월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9년 7월 1일 모리따니대통령에게 회의장용 방송설비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1970년에 모리따니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청년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누악쇼뜨시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 누악쇼뜨시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들이 조직되였다. 또한 1970년 12월에 까히라에서 공부하고있는 모리따니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는 모리따니교원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를 모리따니《지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삐쁠》(4월 7일호)이 기념론설을 발표하였으며 방송은 4월 16일 축하방송을 하였다.

1971년 4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

고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4월 9일)을 맺었다. 4월 7일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6월에 진행된 우리나라 사로청 제6차 대회에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대표단, 중근동에서 공부하고있는 모리따니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0월에는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그이께 다다호대통령이 보내는 축하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1972년 4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모리따니통신사 사장이 참가하였다.

말 리

(말리공화국)

아프리카의 서북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기후는 몹시 무덥다. 년평균기온은 35°C(최고 60°C), 년평균강수량은 북쪽사막지대에서 100mm, 기타 지역에서 700mm이다.

【면적】 120만 4,021km²

【인구】 488만 1,000명(1970년)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바마코(주민 17만 5,000명)

【민족해방군사위원회】 1968년 11월에 창설된 나라의 최고기관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정부】 수상 무싸 뜨라오레(1958년 11월—), 외무 및 협조상 샤르레스 쌈바 씨쏘꼬, 국방, 내무 및 안전상 키씨마 두카라

정치 1895년 프랑스식민지로 되였으며 1904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통합되였다.

1959년 4월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6월 20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20일 세네갈이 련방에서 떨어져나감으로써 련방은 해체되였다.

1960년 9월 22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8년 11월 19일 중하층장교들이 정변을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말리는 1969년 6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으며 1972년 2월에는 두 나라간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2월 알제리와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합동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6월에는 기네와의 협조 및 친선관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말리—기네협정》을 맺었다.

또한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0년 미제《평화군》 놈들이 다시 기여들었다.

1971년 1월 개인경영회사에 속하는 모든 영화관들을 폐쇄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95%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땅콩, 기장, 조, 벼, 강냉이, 목화, 고구마, 마니오크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쇠돌, 린산염, 망간, 주석, 연, 보크사이트 등이다.

독립후 벽돌공장, 도자기공장, 사탕공장, 방직공장, 육류가공공장, 가죽가공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시카소와 니제르강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다.

1970년에 목화는 4만 2천t, 땅콩은 계획보다 5만 3천t 더 걷어들이였다.

땅콩, 육류 등을 수출한다.

소학교학생수는 약 15만명이다.

주민중 회교도가 65%이며 기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국립통신

신문 에쏘르(민족해방군사위원회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10월 21일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8월 25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도자기공장조업과 관련한 최종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1년 5월 21일에는 1971—1972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1월에는 말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말리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등을 뭇고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들을 가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1971년 2월 9일 신문《에쏘르》가 실었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 돐, 항일유격대창건 서른아홉돐,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 돐에 즈음하여 기념론설을 싣고, 특별방송, 기념집회들을 진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 《에쏘르》 4월 14일호는 《김일성수상동지의 탄생 예순돐》이라는 제목밑에 기념론설을 발표하였으며 4월 13일 말리방송은 특별방송을 하였다.

6월 말리바마코지구 청년 및 체육자 도국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제시된 8개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0월에 말리평화운동위원회에서는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말리 외무 및 협조상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하며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1971년 5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 10일 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또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말리전국청년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말리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세 네 갈

(세네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으며 모리따니, 말리와 접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1월에 23~24°C, 7월에 26~27°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1,800mm, 북부에서 250mm이다.

【면적】 19만 7,161km²

【인구】 378만명(1970년 9월)

주민은 월로프족, 쩨레이족, 뚜꾸레

르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월로프어

【수도】 다까르(주민 52만 5,000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1960년 9월—), 수상 아브두 디우프 (1970년 2월—), 외무상 아마두 까림 개이에

【정당, 사회단체】 진보련맹당(집권당), 아프리카독립당(1960년 8월 비법화), 청년전국리사회, 진보련맹당녀성동맹

정치 1815년 프랑스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 프랑스령서아프리카공동체에 편입되였다.

1959년 말리와 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4월 4일 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으며 8월 20일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디아수상이 정변을 일으켜 대통령을 내쫓았으나 프랑스침략군대에 의하여 진압당하고 쎈고르가 다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3년 3월 내각책임제를 페지하고 대통령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였다.

1970년 2월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8년만에 처음으로 수상이 임명되였다.

세네갈은 분렬된 나라를 별개의 나라로서 각각 인정하고있다. 《두개의 중국》을 인정해왔으나 유엔총회 26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캄보쟈에 대해서는 1971년 8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90%가 농사를 한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200여년간 땅콩만 생산하는 단작경리에 얽매여있었다.

독립후 다각경리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땅콩은 총생산액의 35%, 농민들의 총화폐수입의 65%를 차지하며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벼, 밀, 기장,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도 심는다. 린광석자원이 많으며 1968년에는 111만t 생산되였다.

학령아동의 약 절반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주민의 75%가 회교도이며 5%는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진보련맹당기관지), 다까르—마땡, 모니떼르 아프리깬, 쏠레이, 아프리크 누벨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신문 《모니떼르 아프리깬》, 《아프리크 누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 《모니떼르 아프리깬》은 김일성동지께서 《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감 비 아

(감비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1천~1천 500mm이다.

【면적】 1만 1,295km²

【인구】 35만 7,000명(1970년)

주민은 말린케족, 풀베족, 월로프족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바더스트(주민 2만 8,000명)

【의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1970년 4월—), 외상 에이. 디. 카마라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집권당), 통일당, 련합당, 민주대회련맹, 감비아조선친선협회 1968년 6월 결성, 위원장 엠. 비 존스

정치 1783년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으며 1843년에 영식민지(쎈트마리섬)와 보호령(감비아강류역)으로 되였다.

1965년 2월 18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땅콩(년산 8만t, 매년 6만t수출), 조, 수수, 강냉이, 기장 등이다.

학령아동의 20%만이 학교에 다닌다. 종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감비아뉴스(정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6월 감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68년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감비아조선친선협회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1969년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감비아기자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

기네(비싸우)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대륙부분과 비싸고스제도 등 60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대륙지방은 덥고 메마르며 그밖의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면적】 3만 6,135km²

【인구】 56만 8,000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반투족이며 약 3천명의 뽀르뚜갈인이 있다.

【행정중심지】 비싸우(주민 2만 7,000명)

【정당, 사회단체】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근로자전국동맹

정치 1879년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2차대전후 앙양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기네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이 조직된후 더욱 확대되였으며 1961년 8월 3일부터는 무장투쟁에로 발전하였다.

1964년에 정규적인 혁명적인민무력이 창설되여 분산적인 유격투쟁으로부터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에로 넘어갔다.

1968년부터는 전전선에 걸쳐 총공격에로 넘어가 도시와 농촌에 대한 집중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놈들의 소굴인 비싸우시를 비롯하여 주요요충지들을 779차례나 공격하여 적군 2천 400여명을 소멸하였다. 또한 137대의 적군용차를 까부시고 35척의 각종 배를 물속에 처넣었으며 7대의 비행기를 짓뭉구었다.

기네비싸우애국자들은 전투에서 주도권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식민주의자들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그리하여 1971년까지 이 나라령토의 4분의 3을 해방하였으며 해방지역에는 혁명정권이 수립되여 진보적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1971년 3월 2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는 기네(비싸우) 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및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벼, 코코아, 종려, 담배, 사탕

수수, 목화, 등이다.

농산물과 목재가공을 위한 몇개의 공장이 있다.

베르데갑제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굘 대서양에 있는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4,033km²

【인구】 20만 1,500명

【행정중심지】 쁘라야(주민 약 3,500명)

149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은 기네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과 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다.

커피, 피마주, 귤, 사탕수수, 마니오크, 강냉이, 감자, 바나나 등이 난다.

기 네

(기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우량은 3천~4천mm이다.

【면적】 27만 5,000km²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은 풀베족, 만딩그족, 수수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꼬나크리(주민 35만명)

【전국혁명리사회】 최고기관

【정부】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1958년 10월—), 외무담당국무상 엘하지 싸이플라에 디알로 외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전국리사회, 전국녀성위원회

정치 1895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가 1958년 10월 2일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기네정부는 반제기치밑에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1960년에는 민족군대를 창건하였으며 프랑을 폐지하고 민족화폐를 발행하였다.

1963년 8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 모든 관계를 끊었으며 1965년 11월에는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기네정부가 반제자주적인 길로 나가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기네반동들을 사촉하여 1969년 2월과 1970년 9월 반정부음모를 꾸몄으며 1970년 11월 22일에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내몰아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가 기네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에 의하여 모두 분쇄되였다. 패배당한 제국주의자들은 그후 기네현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주변나라들에 반기네군사기지들을 꾸리는 한편 쫓겨난 기네반동들과 서독, 프랑스, 뽀르뚜갈에서 모집한 2천명의 고용병들을 기네국경연선에 배치해놓고 기네정부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공갈을 일삼고있다.

1971년 5월에는 기네연안에서 나토해군무력의 《대합동군사훈련》을 벌리는 소동을 일으켰다. 기네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반동들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7월에는 정부를 개조하고 혁명적인 민병대창건을 공포하였다.

1월 기네정부는 뽀르뚜갈침략자들의 기네침공을 도와나선 서독군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3월에는 시에라 레온과 호상방위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 바나나, 종려, 파인애플, 커피만을 재배하던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고 점차 다각경리에로 이행하고있다. 벼, 강냉이 등 알곡이 대대적으로 재배되고있으나 식량은 자급자족못하며 해마다 5~6만t의 쌀을 수입하고있다.

보크사이트, 반토, 금강석, 쇠돌 등 수출자원이 많다. 보크사이트매장량은 10억t 이상에 달하며 보케지역은 세계적인 보크사이트매장지로 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방직공장, 3천, 200KWh출력을 가진 미니곤수력발전소, 세멘트공장, 합성수지공장, 사탕공장, 제재공장 등을 건설하였다.

1971년에 우리 나라의 원조에 의하여 마또또에서 도자기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1968년 4월부터 8개민족어를 가르치고있다. 각급학교수는 2천개에 달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기네통신

신문 호로야(기네민주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3월 18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쿠 투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기네방문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단장이 전달하였다.

2월 18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기네에 건설하여 주는 마또또도자기공장 착공식이 진행되였다.

1971년 6월 기네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 전국리사회 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시에라 레온

(시에라 레온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에 면해 있다.

년평균기온은 약 27°C이며 해안지대의 년평균강수량은 최고 5천mm이다.

【면적】 7만 2,326km²

【인구】 247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멘데족, 크레오족을 비롯한 13개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프리타운(주민 12만 8,000명)

【국회】 일원제, 총의석 74석중 60석을 인민대회당이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겸국방상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1971년 4월 21일—), 부대통령겸 수상 에쓰. 아이. 코로마, 외무상 솔로몬 에이. 제이. 프래트

【정당, 사회단체】 전인민대회당 (집권당) 총비서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 인민당, 전국청년동맹, 녀성조직전국련맹,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전국위원회 위원장 몬티 코울

정치 180년동안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다가 1961년 4월 27일 《영련방》성원국으로서 독립하였다. 1962년 5월 첫 총선거가 실시되여 인민당이 집권하였다.

1967년 3월 총선거에서 전인민대회당이 승리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정권은 반동들에게 장악되였다. 1968년 4월 17일 병사들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스티븐스를 수상으로 하는 전인민대회당정부가 구성되였다.

스티븐스정부는 집권후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나라 경제명맥

을 쥐고있던 영제국주의자들의 금강석 및 광업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하였다.

1970년 5월 전인민대회당 대표자회에서 스티븐스는 유일당창건을 주장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내에서 반동적인 야당성원들을 제거하였다. 1970년 10월과 1971년 3월 23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조종밑에 감행된 국내반동들의 반정부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이와 관련된 총독놈을 해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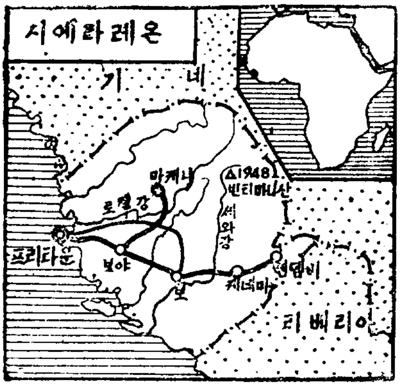
1971년 4월 19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국회는 4월 21일 국가최고정권의 기능과 관련한 헌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수반으로 대통령이 되며 수상직은 폐지되고 그 기능은 부대통령이 수행하게 되였다.

시에라 레온은 쁠럭불가담, 아프리카통일의 리념에 대한 충실성, 인종주의반대, 아프리카의 완전한 종국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대외정책로선으로 제기하고있다.

1971년 3월 기네와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3월 28일 스티븐스는 반동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하여 기네에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기네군과 무장장비들이 시에라 레온에 들어갔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금강석, 쇠돌, 보크사이트 채취공업이다. 금강석생산량은 세계금강석생산량의 약 4분의 1, 쇠돌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3위를 차지한다.

1969년에 금강석은 193만 6천카라트, 쇠돌은 264만t, 보크사이트는 45만 1천t 생산되였다.

1970년에 이 나라 특산물들인 커피는 9천t, 코코아는 4천 500t 생산되였으며 벼는 1969년에 46만 1천t 생산되였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영국금강석회사 《시에라 레온 셀렉슌 트라스트》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1970년말에는 민족회사 《더밍코》를 창설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소매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1969년에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금강석, 보크사이트, 쇠돌 등 4개의 광업회사 주권 51%를 국가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입총액의 60%, 수출총액의 70%는 영제국주의독점체들이 차지하며 영련방의 《특혜제도》와 영파운드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식민지교육체계를 새《기술교육체계》로 개편하고 많은 학교들을 창설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티, 데일리 메일, 유니스, 위온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14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교관계설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번 우리 두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진 조선과 시에라 레온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1971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인민대회당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시에라 레온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8월 1일 대표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콤뮤니케에서 시에라 레온정부대표단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하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어떠한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이룩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방문기간 우리 나라가 시에라 레온에 경제 및 기술적협조를 줄데 대한 두 나라 정부사이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시에라 레온신문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고 있는데 1971년에 신문 《우니티》는 《김일성전》 제1부에 있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의 내용 전문을 4면에 걸쳐 실었다.

1971년 5월 2일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런대성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가지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0년에 유엔주재 시에라 레온 상임부대표가, 9월에는 쏘련주재 시에라 레온 대사관 3등서기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시에라 레온《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과 전국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7월에는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대표단, 11월에는 기네주재 시에라 레온 대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시에라 레온《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대표가 참가하였다.

리베리아

(리베리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기슭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기온이 가장 높을때(3월)에 27°C, 가장 낮을 때(8월)에 23°C, 년평균강수량은 2천~4천mm이다.

【면적】 11만 1,400km²

【인구】 140만명(1970년)

주민의 90%는 아프리카인(네그로)이며 그외 아메리카흑인(8%)과 백인(1%)들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몬로비아(주민 18만명)

【국회】 량원제

【정부】 대통령 윌리암 톨버트(1972년 1월 3일 취임), 국방상 알렌 윌리암스

【정당】 진정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정치

1822년 《미국식민지협회》가 보낸 소위 해방노예들이 국가를 형성하여 미국놈총독의 통치를 받았다.

1847년 7월 26일 독립을 선포하고 공화국으로 되였다. 실권은 극소수의 해방노예후손들이 쥐고 토착민들을 착취하고있다. 1878년부터 진정독립당의 독재정치가 실시되고있다.

1971년 7월에 타브맨대통령이 죽고

부대통령인 톨버드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59년 9월 미제와 예속적인 《방위협정》을 맺었다.. 몬로비아항과 로버쯔공군기지는 미제가 장악하고있다.

경제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커피, 종려, 쌀, 바나나, 땅콩, 코코아 등이다. 경제의 기본은 고무와 쇠돌생산인데 그것은 미제독점체가 틀어쥐고있다.

상선대의 규모는 크나 그것은 미, 영, 희랍등 외국해운업자들의 소유로 되고있다. 고무와 쇠돌을 수출하고 식료품과 식량을 수입한다.

상아해안

(상아해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3°C~25°C,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4천mm, 북부에서 820mm이다.

【면적】 32만 2,500km²

【인구】 419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바울레족, 크루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아비쟝(주민 44만 5,000명)

【민족회의】 일원제, 민주당이 총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겸수상 펠릭스 우프에 보아니(1960년—), 외무상 아르센 우쉐르 아쑤앙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 민족해방위원회, 근로자총련맹

정치 188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04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에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다.

1961년 4월 24일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었다.. 1970년 12월 대통령선거결과 우프에 보아니가(3선)대통령으로 되였다.

1971년에 열린 유엔총회 26차회의에서 상아해안 대표는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와의 《대화》만이 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지껄였다.

경제 주민의 95%가 농사를 한다. 아프리카최대의 커피산지이며 세계3위를 차지한다. 그외에 코코아, 바나나, 종려, 벼, 강냉이, 목화, 마니오크 등도 심는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망간, 석유, 쇠돌 등이 있다.

커피, 코코아, 석유가공공장들이 있으나 프랑스독점체들이 독점하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 상아해안통신

신문 프라테르니테 마틴(정부신문)

상부볼따

(상부볼따공화국)

서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있다.

적도계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가장 낮은 때(12~1월)에 24~26°C, 가장 높은 때(4~5월)에 30~35°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약 1천mm이다.

【면적】 27만 4,200km²

【인구】 515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모시족, 보보족, 구룬시족, 로비족, 만데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와가두구(주민 15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1966년 1월—)

【정부】 수상 제라르 깡고 우에드라오고(1971년 2월—), 외무상 죠제프 꼬늠보

【정당, 사회단체】 민주동맹, 볼따재편운동, 볼따민족동맹

정치 190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3년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강압편입되였다.

1960년 8월 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4월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떨어져나오면서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었다.

1966년 1월 3일 상부볼따군 총참모장 상구레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후 헌법을 폐지하고 민족회의와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였다.

1969년 6월 새헌법을 채택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1970년 12월 민족회의선거를 진행하고 군인들과 정당대표들로 정부를 수립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강냉이, 기장, 벼, 땅콩, 조, 수수 등이다. 1970년에 목화는 3만 2천톤 생산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동, 망간, 우라니움 등이다.

목축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0년에 집짐승은 500여만마리 있었다. 그중 면양과 염소는 160여만마리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까레프르 아프리껭(정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8월 3일 상부볼따 정부기관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을 실었다.

1970년 4월 상부볼따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3월 25일 말리에 있는 상부볼따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가 나

(가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하여있다.

열대성기후, 년평균기온은 해안과 중부산림지대에서 22~23°C,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23만 7,800km²

【인구】 860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산티족, 에웨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아크라(주민 53만명)

【구국리사회】(정부) 1972년 1월 13일 군사정변후 구성된 군사정권,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국방, 재정, 경제성 담당), 외무담당최고전권위원 엔. 에이. 아페리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월 정변후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금지되기전에는 민족진보당, 전인민대회당, 전국인민당, 청년전선당, 민족통일당, 로조대회 등이 있었다.

정치 1844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7년 3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황금해안이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가나로 고쳤다. 동시에 영국《후견령》이던 서부또고가 가나에 편입되였다.

1960년 4월 헌법을 채택하고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6년 2월 친미주구 안크라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부군대와 경찰이 정변을 일으키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안크라는 집권후 헌법을 정지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친미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다가 1969년 4월 반대파에 의하여 정권에서 쫓겨났다.

안크라를 쫓아내고 대통령으로된 아프리파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와 인

민들의 반정부기운이 높아지자 1970년 8월 대통령선거도 있기전에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났다.

1970년 8월 선거로 아쿠포 아도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2년 1월 13일 가나 제1보병려단 지휘관인 아참퐁대좌를 비롯한 장교집단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부시아정부를 전복하였다.

새 정권은 당시 런던에 가있던 부시아수상과 아쿠포 아도대통령을 정권으로부터 제거하고 나라의 통치를 위한 구국리사회를 조직하였다.

구국리사회는 헌법폐지, 국회해산, 로조대회(1971년에 금지됨)복구, 정당금지를 공포하였다.

1월 17일 구국리사회 위원장 아참퐁은 《구국리사회는 쁠럭불가담 및 적극적인 중립정책을 실시》할것이며 《식민지통치로부터의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남아프리카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이웃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가나가 영련방성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코코아 생산에 종사하고있으며 그외 바나나, 땅콩, 수수, 강냉이, 커피, 야자, 생고무 등도 생산한다. 농업생산이 위주로되고있으나 1970년에 8천만딸라어치의 식량을 수입하였는데 이것은 이해 수입총액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금강석, 망간, 보크사이트 등이다.

1971년 12월 가나통화(쎄지)는 44% 평가인하되였으며 물가는 2배로 올랐다.

대외부채는 약 10억딸라에 달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나통신

신문 가나타임스(정부기관지), 이브닝 뉴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 고

(또고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 있다.

계절의 변화가 없고 가물철(3월~6월, 9월~11월)과 장마철로 나뉜다. 가물철 평균기온은 30°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mm이다.

【면적】 5만 5,600km²

【인구】 181만 5,000명(1970년)

주민은 에웨족, 마나족, 까프시족, 까부래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로메(주민 10만명)

【정부】 대통령 에떼엔느 에야데마(1967년 1월—), 외무상 죠아심 훈께

【정당, 사회단체】 또고인민련합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1월 29일 창건, 전국위원회 위원장 에떼엔느 에야데마. **또고조선친선협회** 1969년 11월 4일 결성, 위원장 존손 뽈리까르뽀

정치 1884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4년 8월 프랑스와 영국이 동부와 서부를 각각 강점하였다.

영령또고는 1957년 3월 가나에 통합되고 프랑스령또고는 1960년 4월 27일 독립하였다.

1967년 1월 13일 또고군총참모장이던 에야데마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였다.

1969년 11월 29일 유일당인 또고인민련합을 창건하였다.

1971년 9월 중국을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목화, 강냉이, 땅콩 등이다. 코코아, 커피가 수출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북부지역주민들은 목축업을 하는데 집짐승들중 소가 제일 많다.

주요지하자원은 린(약 5천만t 매장되여 있다), 크롬, 쇠돌, 보크사이트 등이다.

1962년 파리메에 또고럭사상 첫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였고 로메에 현대적인 항구가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또고프레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1월 또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6월 또고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3월 12일 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고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다오메

(다오메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 있다.

적도계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1월에 24°C, 7월에 30°C,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11만 2,622km²

【인구】 264만명(1970년)

주민은 폰족, 아쟈족, 요르바족, 벨족 등 7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꼬또누(주민 12만명)

【대통령리사회】 1971년 5월에 3명으로 구성, 위원장 위베르 마가(수상, 국방상 겸임), 외무상 다우다 바다루

【정당, 사회단체】 1963년 10월 정변후 정당은 금지되였다. 이해 11월 민주당이 결성되였으나 1965년 12월에 해산되였다. 1968년 3월 헌법에는 유일정당제(5년 기한)가 규정되였다. **다오메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6일 결성, 위원장 빠도누 장마리

정치 190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1902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60년 8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 11일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독립후 1971년까지 5차례의 군사정변과 9차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69년 12월 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군사혁명위원회》는 1970년 3월 대통령 및 국회선거 실시를 선포하고 3월 9일 선거를 진행하였으나 대통령립후보자들간의 분쟁과 충돌로 인하여 선거의 무효가 선포되였다.,5월 1일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되고 마가를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종려(경지면적의 절반이상차지), 강냉이, 마니오크, 땅콩, 수수, 커피, 목화, 바나나 등이다.

종려씨와 종려기름이 가장 중요한 재부로 되여있는데 이것은 년수출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쇠돌, 석유, 크롬 등도 채취된다.

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으며 미제의 경제적침투도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원유개발권을 독점하고 채굴탑을 건설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다오 프레스(정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다오메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7월 29일 다오메조선친선협회 청년회원들이 《김일성수상의 로작 및 혁명활동략력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 6월 다오메전국청년운동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12개주로 구성되여있다. 년평균기온은 20~23°C이다.

【면적】 87만 8,000km²

【인구】 5,500만명(1970년)

주민은 하우사족(북부), 이보족(동부), 요루바족(서부) 등 300여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라고스(주민 67만 5,000명)

【최고군정회의】 나라의 최고기관이다.

【정부】 수반 야쿠부 고원(1966년 8월—), 외무상 오코이 아리크포

【정당, 사회단체】 1966년 5월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베닌에서 1967년 2월 결성, 위원장 이제아이에 오모레지에),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라고스에서 1970년 12월 결성, 위원장 푸르티스 죠세프)

정치 1861년 영제국주의들이 이른바 《보호국》으로 만든때로부터 100년간 식민지통치밑에 있었다.

1960년 10월 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6년 7월 고원이 정변을 일으켜 이론시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해 5월에 폐지하였던 련방제를 복귀하였다.

독립후 나이제리아에서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분렬정책》과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인한 종족들간의 분쟁이 계속되여왔다. 이러한 분쟁은 1967년 5월 30일 동부주가 련방정부로부터 떨어져나가 《비아프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국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1970년 1월 12일 3년간의 내전은 100만명의 피해자를 내고 련방군의 승리로 끝났다.

내전후 련방정부는 전쟁피해를 가시고 종족들간의 화해를 이룩하며 파괴된 민족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전쟁피해를 기화로 기여든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과 파괴책동에 대하여 단호한 립장을 취하였다.

정부는 동부주의 이보족들에 대한 박해를 하지 않도록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으며 동부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970—1974년간에 3억파운드의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1970년 1~2월까지만도 비아프라분렬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민 영국《고등판무관》, 미륙군대좌놈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1971년 4월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1971년에 미제의 《필립스》회사와 이딸리아의 《아쥐쁘》회사의 주권의 3분의 1과 프랑스의 《싸프라쁘》회사의 주권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나라, 반제적인 아프리카나라들과 특히 주변나라들파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0년 11월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지원밑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기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자 고원정부는 기네의 요청에 따라 이 나라에 해당한 군사인원을 파견하고 재정원조를 주었다.

1971년 2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6월에는 1968년 4월 비아프라승인으로 끊었던 탄자니아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1971년 2월 고원은 모리따니를 방문하고 그와 관련한 공동성명에서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 인종격리 및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식민지민족해방운동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3월에는 세네갈을 방문하고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나이제리아는 뽀르뚜갈,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나이제리아침략을 막기 위하여 2월 감비아에 군사기술적원조를 주며 나이제리아군대를 감비아에 파견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종려, 코코아, 땅콩, 담배, 목화, 고무 등이다.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종려씨는 1970년에 30만 5천t(17만 9천 100t수출), 코코아는 21만 8천 500t 생산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원유, 콜롬바이트(자본주의 세계생산량의 약 85% 차지), 우라니움과 주석, 석탄 등의 채취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다.

1970년 현재 원유의 총매장량은 6억 7천 600만t이며 170개의 기본유정들에서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1970년에 원유는 5천 350만t 생산되였다.

독립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일부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0여년동안에 1천여개의 크고작은 공업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원료생산에 치중되여있던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극복되고 가공공업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공업제품생산은 1969년에 비해 2.1배로 늘어났다.

1971년에 2개의 새 방직공장이 건설되여 750만m²의 천을 짰다. 전력, 제지, 피혁, 식료, 세멘트 공업도 발전하였다. 수력발전소의 총발전능력은 150만kw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도 영, 미,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많은 경제적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1971년 1월에는 《원조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일본독점체들이 석유자원을 《탐사개발》한다는 명목밑에 《합영기업》을 조작하였다. 나이제리아정부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들이 직접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원조》를 받아드리는것을 허용하고있다.

1971년에 동부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여러지역들에서는 학교들과 병원들이 복구되여 일을 시작하였다. 1971년도 국민총생산액은 18억파운드로써 1966—1967년도보다 3억파운드 더 늘었다.

북부의 하우사족은 회교를 믿으며 동부 및 서부주의 이보족과 요르바족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타임스, 뉴 나이제리언, 모닝 포스트, 나이제리언 옵써버, 썬데이 스타, 뉴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2월 18일 서부주의 주소재지 베닌시에서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가, 1970년 12월에는 라고스에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5월 나이제리아에서 《김일성서점》이 개관되였다.

1970년 8월 나이제리아신문《뉴스》는 《김일성수상님은 위대한 평도자이시며 훌륭한 애국자이시다》라는 표제밑에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였던 기자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실었다.

1971년 4월 신문《썬데이 스타》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고매한 덕성》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초상

화를 정중히 모시고 1970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기자대표단의 방문기를 실었다.

1971년 4월 8일부터 신문《뉴스》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여러 번에 걸쳐 실었다.

1971년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나이제리아 《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아프리카대륙 북부 알제리와 접경하고있는 내륙국이다.

열대사막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30°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250~350mm, 북부에서 100mm이다.

【면적】 128만 7,000km²

【인구】 390만 9,000명(1970년)

하우사, 제르마, 송가이족이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니아메(주민 5만 2,000명)

【국민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수상겸임), 외무상 마이다호 마무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집권당), 전국로동자동맹

정치 1908년부터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속해있다가 1960년 8월 3일《프랑스공동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2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61년 4월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었다.

니아메에는 미제의 문화적침투를 위한 《문화쎈터》가 있으며 100여명의 《평화군》놈들이 침투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땅콩(년 18만t생산), 목화, 조, 마니오크, 사탕수수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주석, 동, 우라니움, 석유, 돌솜, 소금 등이다. 주요경제명맥은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는데 최근년간 미제의 경제적침투가 강화되고있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공화국 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챠 드

(챠드공화국)

리비아, 수단, 니제르, 중앙아프리카와 잇다아 있는 내륙국이다. 전령토의 3분의 1이 사막이다. 년평균기온은 29°C, 년평균강수량은 100~250mm이다.

【면적】 128만 4,000km²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은 하우사족, 시라족, 파간족, 투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포르라미(주민 15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프랑스와 똠발바에(수상, 국방상 겸임), 외무상 바바 하싼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전국근로자동맹, 진보당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정치 19세기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에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1911년에 파쑈독일의 식민지로, 1차대전후에는 다시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60년 8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독립후 챠드정부는 정부와 군대내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챠드인으로 교체하였다.

1968년 4월에는 프랑스의 영향하에 있는《중앙아프리카경제및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미제와 모부투도당이 조작한《중앙아프리카국가동맹》에 가입하였다. 1968년 8월에 북부지역에《민족해방전선》의 반정부폭동이 있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프랑스군이 챠드에 들어갔다. 챠드는 프랑스와 《방위협정》을 맺고있다.

1971년 8월 27일에는 챠드에서 군사정변이 있었으나 진압되였다. 그후 챠드는 애굽(27일), 리비아(28일)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벼, 땅콩 등이다. 그중 목화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목축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소는 약 400만두, 양은 450만두, 말은 약 15만두 있다.

공업으로는 원유가공공장, 화력발전소, 제분소 등이 있다.

1971년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목화략탈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권의 45%를 차지하는 《코톤챠드》회사를 창설하였다.

원료, 식료품 등을 수출한다.

챠드에는 철도가 없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으며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인포챠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년평균기온은 25°C, 년평균강수량은 1천 600mm이다.

【면적】 47만 5,400km²

【인구】 580만명(1970년 1월 1일)

주민은 반투족, 세미반투족, 풀족, 함족 등 130여개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수도】 야운데(주민 11만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이 수상을 겸한다.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드 아히죠(1961년—), 외무상 장 꺼차

【정당, 사회단체】 전국동맹(집권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정치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침략자들이 까메룬을 강점하였으며 1919년 7월에는 동, 서로 분할하여 각각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60년 1월 1일 프랑스령까메룬이, 1961년 2월에는 영령까메룬이 독립하였다. 1961년 10월 1일 이 두 지역이 까메룬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으며 1972년 5월 20일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까메룬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프랑스와 《협조협정》을 맺고있으며 프랑스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고있다.

1967년에 미제의 《평화군》이 기여들

었으며 수도에 《유엔보도쎈터》가 있다. 군대내에는 프랑스군사고문들이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땅콩 등이다.

보크사이트가 풍부하며 그밖에 알루미니움원료, 주석, 석유, 연, 금강석, 망간, 우라니움 등이 있다.

경제명맥은 프랑스,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전국동맹기관지) 라 드레스뒤까메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3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7년 5. 1절기념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9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기자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다.

기온이 제일 낮은 때인 12월에 21°C, 제일 높은 때인 6월과 7월에 31°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남부에서 1천 500mm, 북부에서는 400mm이다.

【면적】 61만 7,000km²

【인구】 225만 6,000명(1970년)

주민은 우방기족, 방다족, 만쟈족, 사라족, 페르며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방기(주민 24만명)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장 베델 보카싸(국방상 겸임, 1966년 1월—), 외무상 클레망 느가이 부예또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로조련맹, 녀성동맹, 민족청소년동맹

정치 1894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60년 8월 13일 독립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륙군참모장으로 있던 보카싸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다꼬정부를 전복하였다. 보카싸대통령은 헌법을 폐지하고 민족회의를 해산하였다.

보카싸는 집권후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미제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금강석회사와 강하천운수를 국유화하였다.

한편 1970년 2월에 미국무차관보놈이 이 나라에 기여들었으며 이 해 3월에는 미제와 체류사증제도를 폐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프랑스와는 이미 사증제도를 없앴다. 1970년 6월에 있은 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자회의에서 모부투도당과 우간다 아민군사정권의 참가를 반대하는 다수 성원국들에 대항하여 회의에 파견했던 자기 대표단을 소환하였다.

1970년 4월 10일 군부의 대통령암살미수사건이 있었다.

1971년 9월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 목화, 차, 금강석생산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독립후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농산물, 목재, 모피가공공장을 건설하고 철도를 부설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금강석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국영기업체 및 국가—민간합영기업체들을 창설하면서 경제에서 국영부문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외국의 《원조》에 많이 의거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0월 7일에는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9월 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적도기네

(적도기네공화국)

아프리카중부 대서양연안에 있다. 까메룬, 가봉에 접해있는 리오무니와 페르난도 뽀섬을 비롯한 기네만에 있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무덥고 습기가 많다. 년평균기온은 25°C이상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mm이다.

【면적】 2만 8,051km²

【인구】 약 35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파브웨족과 반루족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산타 이사벨(주민 3만 7,200명)

【정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외상, 국방상 겸임, 1968년 9월—)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당 1970년 7월 7일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총비서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청년조직

정 치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이 1777년에 페르난도뽀섬을, 1886년에 리오무니를 강점하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963년 12월 《국민투표》라는 기만극을 벌려 저들의 주구들로 《자치정부》를 조작하였다.

완전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8년 10월 12일 독립을 이룩하였다.

1968년 9월 민족해방운동당, 인민사상당, 인민운동동맹, 페르난도 뽀자결독립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며 느게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독립후 적도기네는 민족적리익에 맞게 국가기구를 개편하고 제국주의《고문》들을 축출하는 등 반제자주적인대내외정책을 실시하였다.

1969년 에스빠냐침략군과 그 군사기지를 철수시켰으며 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민족경찰과 전국경비대를 새로 조직하였다.

1970년 미제의 독점석유회사(모빌)와 《국제적십자사》의 간판밑에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놈들을 내쫓았다.

1970년 7월 7일 유일당인 민족통일당을 창건하였다.

1971년 4월 민주독일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8월 꽁고를 방문한 마시아스대통령은 자기연설에서 적도기네는 앙골라,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나미비아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남아프리카와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절대 접수하지 않겠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세계생산량의 약 27% 차지), 커피, 마니오크, 바나나, 담배 등이다. 커피는 주로 리오무니에서 생산(총생산량의 80%)되며 코코아는 페르난도 뽀섬(총생산량의 90%)에서 생산된다.

공업으로는 세멘트공장, 제재공장, 제분공장 등을 비롯한 소규모적인 가공공장들이 있다.

독립후 정부는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외국인들이하던 경제관리를 적도기네인들이하게 하였으며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공화국은행을 창설하였다.

《간부적도기네화》의 구호를 들고 자체의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에바노(정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1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산타 이사벨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1년 6월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 청년조직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적도기네공화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가 봉

(가봉공화국)

중부아프리카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열대성기후이다. 년평균기온은 25~28°C,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2천 500mm이다.

【면적】 26만 7,000km²

【인구】 63만명(1970년)

주민은 피그미족, 판족 등 50여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리브르빌 (주민 3만 1,000명)

【국민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1967년 11월—), 외무상 죠르쥐 라위리

【정당】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정치 1862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에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의 한 령지로 되였다.

1960년 8월 1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가봉에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요하여 군대주둔권, 군사기지설치권, 프랑스회사의 면세권까지 탈취하였다.

경제 경제의 기본은 림업, 목재가공업, 광업이다.

경제명맥을 프랑스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미제의 독점체들도 해마다 투자를 강화하고있다. 목재의 80%는 합판가공에 적합한 흑단이며 이 나라 수출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코코아, 커피, 나무감자, 사탕수수, 땅콩 등을 재배한다.

망간, 원유, 금, 금강석, 쇠돌, 우라니움 등이 매장되여있다.

꽁 고

(꽁고인민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으며 서남부는 대서양에 면하여있다.

적도성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2~27°C, 년평균강수량은 1천~1천 600 mm이다.

【면적】 34만 2,000km²

【인구】 88만명(1970년)

주민은 반투족을 비롯한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고 민족어로는 꽁고어, 크리어, 트크어 등이 있다.

【수도】 브라자빌(주민 20만명)

【국가리사회】 나라의 최고집행 및 행정기관으로서 1970년 1월 5일 구성,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국방및안전사업담당), 외무상 앙리 로뻬즈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69년 12월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 로동조합총련맹, 사회주의청년동맹, 혁명녀성동맹, 꽁고조선친선협회 1968년 7월 결성

정치 1886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0년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여 《중앙꽁고》라고 불리였다.

1911년부터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차세계대전후 다시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1월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8월 15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풀베르 율루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식민주의정책을 계속 실시하였다.

1963년 8월 애국적인민들은 대중적인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 율루반동정부를 타도하고 8월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8월혁명후 꽁고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군사경제적협정들을 폐기하고 외국군사기지와 병영들을 철폐하였으며 외국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68년 8월 마리엔 느구아비가 전국혁명리사회를 창설하고 1963년의 헌법을 폐기하였다.

1969년 12월 꽁고로동당이 창건되고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후 꽁고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70년 3월 꽁고로동당은 미제의 사촉하에 진행된 반동들의 국가정변음모를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다.

1971년 2월에는 프랑스독점회사들의 산림소유권을 폐기할데 대한 대통령명령을 발표하였다.

11월에는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줄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림업이다. 로동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나무감자, 기장, 수수, 땅콩 등이다. 최근년간 벼, 커피, 사탕수수도 재배하고있다.

꽁고에는 6만 ha이상의 20여개 국영농목장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40여대의 뜨락또르가 일하고있다.

1971년에만도 6천t의 나무감자를 생산하는 새 국영농장이 생겨났으며 2천 500ha의 종려재배지가 새로 조성되였다.

산림면적은 전령토의 58.5%에 달하는데 해마다 50만m³의 목재를 수출한다.

지하자원은 금, 연, 주석, 동, 소금, 원유, 천연가스 등이다.

공업에서는 나라의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다.

1967년에 《쏘씨에떼나씨오날 데네르쥐》 국영전력회사, 1968년에 년산 10만t능력의 루떼뜨세멘트공장, 1969년에는 낀순디에 매년 340만m의 면직물과 15만점의 편직물을 생산하는 방직종합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1971년에 이 나라에는 28만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독립당시의 2배에 달하는것이다.

인구의 약 절반이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통신

신문 에똥바(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 라 부아아프리깬, 꽁고생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에는 두 나라간에 과학기술협조협정과 무역및지불협정 그리고 우리 나라가 꽁고에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12월에는 문화협정, 1967년 3월에는 통신및방송협정, 9월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을 각각 맺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꽁고인민에게 보내신 선물인 베뚜성냥공장이 1970년 9월 26일 조업하였다.

1970년에 꽁고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베뚜성냥공장로동자들),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 등이 조직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광범히 연구보급하고있다.

1971년에 신문 《브라자빌》, 《라 부아 아프리꺤》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등을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브라자빌》은 김일성동지께서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에 꽁고사회주의청년동맹 전국집행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까 빈 다

(뽀르뚜갈식민지)

꽁고와 자이르의 접경지대인 대서양연안에 있다.

【면적】 7,770km²

【인구】 4만 6,277명

1886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까빈다인민들은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벌리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종려, 땅콩 등이다.

자 이 르

(자이르공화국)

중부아프리카의 서쪽 꽁고와 접경하고 있다. 나라의 절반땅이 원시림으로 꽉 들어차 있다. 평균기온은 꽁고강 상류지대에서 20~25°C,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mm이다.

【면적】 234만 5,400km²

【인구】 2,056만 4,489명(1970년 1월) 200여종족이있는데 그중 반투족이 약 84%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킨샤사(주민 150만명~1970년)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겸국방상 죠세프 메지데 모부투(1965년 11월—), 외무상 마리오 카르도죠

【정당, 사회단체】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 1965년 4월에 조직,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가스톤 수미알로. 인민혁명운동당(집권당)

정치 1908년부터 벨지끄직할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 6월 30일 독립하였다.

1960년 7월 8일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벨지끄장교들을 반대하는 자이르군의 폭동을 구실로 이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을 하는 한편 제놈들의 주구 숌베를 사촉하여 7월 11일 카탕가주를 《독립국》으로 선포케 하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유엔군》을 들이밀어 무장간섭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1960년 9월 미제는 륙군참모장이던 모부투를 사촉하여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고 1961년 1월 18일 루뭄바수상과 그의 전우들을 학살케 하였다.

미제는 《유엔군》을 리용하여 애국력량을 탄압하는 한편 민족분렬책동과 앞잡이들의 빈번한 《정권》 교체를 통하여 제놈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유리한 지반을 닦으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대통령》감투를 쓴 모부투는 1천여명의 미제《평화군》과 1천 300여명의 《선교사》놈들, 그리고 미제군사 《고문》들을 끌어들였으며 도처에 군사기지와 비행장들을 건설하고있다.

또한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벨지끄, 서독,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1971년 4월 모부투놈은 경제개발에 대한 일본의《원조》를 구걸했다.

6월에는 로바니움대학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고 6월 6일 이 대학을 무기한 페쇄하였으며 대학생전부를 반동군에 강제로 몰아넣었다.

8월 19일에는 꽁고림시대리대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생트집을 잡아 꽁고대사관원들의 철수를 강요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공예작물생산이다.

금강석, 우라니움, 코발트, 동, 주석, 망간 등 지하자원이 많으며 미제와 프랑스, 서부독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100여개의 미제독점체들이 이 나라 우라니움광의 90%, 코발트광의 전부, 망간, 라디움, 탕그스텐 등 군수원료의 절반이상을 통제하고있다. 1971년 5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광물자원을 략탈하기위하여 《자이르—일본협회》를 조작했으며 일본의 《마쯔다모터》독점체를 비롯하여 많은 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에 기여들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밀, 야자, 종려, 목화, 고무, 차, 나무감자 등이다.

로력자의 절반이상이 실업자이다.

【출판보도】 통신 자이르통신

신문 떼블루시옹(혁명최고리사회기관지), 르. 쁘로그레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에 가스톤 수미알로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69년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꽁고(레)혁명최고리사회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었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으며 자이르와 탄자니아사이에 있는 내륙국이다.

적도계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3~25°C, 년평균강수량은 1천~1천 500mm이다.

【면적】 2만 7,834km²

【인구】 347만 5,000명(1970년)

주민은 바후투족(75%), 와투치족(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민족, 평균 2m), 피그미족(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민족, 평균 1.3m)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부줌부라(주민 7만 1,000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미쉘 미콤베로(1966년 11월—), 외무협조및계획상 아르떼몽 씸바나니예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진보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동맹,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정치 1890년에 루안다와 함께 독일의 식민지로, 1922년에는 벨지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12월부터 《유엔후견령》으로 있다가 1962년 7월 1일 루안다와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1966년 7월에 수상으로된 미쉘 미콤베로가 이해 11월 28일 세습적인 왕정을 뒤집어 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9년 10월 미제와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의 정부전복음모를 짓부셨다. 《쁠럭불가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및 국제적협조》를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남아프리카와 뽀루뚜갈의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정권을 배격하고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아라비카종커피이며 그밖에 수수, 강냉이, 밀, 쌀, 콩, 고구마, 땅콩, 차, 목화, 담배 등이 난다. 1971년에 커피는 2만 4천t, 쌀은 1만 2천t 생산되였다. 금, 주석 등도 난다.

탄가니카호에서 잡는 물고기량은 해마다 약 1만 5천t에 달한다.

부룬디인민은 《통일, 로동, 진보》의 기치밑에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사회적로동으로 수백키로메터의 도로와 수십개의 학교, 수많은 관개시설들을 건설하였다.

소학교학생수는 1970년에 20여만명이였다.

총인구의 절반이 카톨릭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마잠베리(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유니옹 에 라 레볼류시옹, 미긴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3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부룬디청년학생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9월 2일)와 기네에서 공부하고있는 부룬디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8월 12일) 등이 결성되였다.

1971년에도 부룬디종합대학생들의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와 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71년에만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등을 신문《유니옹, 에 라 레볼류시옹》, 《미긴베》등이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마잠베리》 2월 29일호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 기념》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1972년 신년사를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열렬히 축하하기 위하여 부룬디 대통령특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수령님께 미쉘 미콤베로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에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루 안 다

(루안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부에 있으며 탄자니아, 자이르, 우간다, 부룬디와 접해있다. 년평균기온은 18~21°C, 년평균강수량은 900~1천 500mm이다.

【면적】 2만 6,383km²

【인구】 340만 6,000명(1970년)

주민은 바후투족(약 84%), 와투치족, 피그미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수도】 끼갈리(주민 1만명)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겸수상 그레고와르 까이방다 (1969년 10월—) 국제협조상 아우구스띤 문야네자나

【정당, 사회단체】 파르메후투당(집권당), 바후투족의 정당. 아프르소마(사회진보협회), 민족동맹 와투치족의 정당

정치 1890년에 부룬디와 함께 독일의 식민지로, 1922년에는 벨지끄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12월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행정상 자이르에 예속되여있었다.

1962년 7월 1일 부룬디왕국파 분리되여 독립하였다.

경제 목축업을 위주로 하면서 커피, 목화, 차, 담배 등을 생산한다.

주식물은 강냉이, 밀, 고구마이다.

서부지방에서 주석, 탄타르광이 채굴되나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4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5월 6일 부룬디에 있는 루안다인들이 《김일성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 6월 루안다전국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다.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1.5°C이며 년강우량은 900~1천 500mm이다.

【면적】 24만 3,410km²

【인구】 954만 8,847명(1969년 8월)

주민의 99%가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스와힐리어도 쓴다.

【수도】 캄팔라(주민 8만명)

【정부】 대통령 이디 아민 (수상, 국방상 겸임), 외무상 와누메 키베디

【정당, 사회단체】 1971년 1월 군사정변이전에 인민대회당, 민주당, 카바카예카당, 아프리카련맹, 로동련맹, 인민대회당청년조직, 녀성동맹 등이 있었으나 이해 10월에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정치 1894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가 1962년 10월 9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우간다는 부간다, 분요로, 앙콜레, 토로의 4개왕국이 련방을 이루고있었으나 1966년에 련방제가 페지되였다. 1967년 9월 공화국이 선포되고 왕국이 철페되였다.

1971년 1월 25일 륙군사령관 이디 아민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권을 수립하였다.

2월 9일 아민은 군사정권에 인입된 모든 각료들을 장교로 임명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자신을 대장으로 승격시

키고 대통령, 수상, 국방상및군총사령관직을 겸임하였다.

3월 23일 아민은 2년동안 모든 정치적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여 집회, 시위, 정치적활동들을 금지시키고 5월 11일에는 《의심되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할수 있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정변후 아민은 무력을 3배로 늘이고 새회계년도의 국방비를 전회계년도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였다. 아민은 주변의 반제적인 나라들이 우간다를 공격하려 한다 하면서 2월 27일 탄자니아와의 국경부근에서 군사연습을, 3월초에는 국경도시인 무투큘라에서 실탄연습등을 진행하였으며 탄자니아와 경제적련계를 끊고 7월에는 탄자니아(11월에 해제), 루안다국경을 폐쇄하였다. 이에 대하여 탄자니아도 국경지역에 무력을 집결시킴으로써 탄자니아—우간다국경지역은 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4월 우간다주재 수단외교관과 수단대리대사를 《추방》하였다.

정변후 군대내에서 반정부폭동이 일어나 1천여명이 죽었다.

우간다사태와 관련하여 아프리카통일기구 제16차각료리사회는 캄팔라에서 소집하기로 되였던 제8차 수뇌자회의를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생산이 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 목화(년산 약 21만t)와 커피(약 14만t)가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1970년 10월에 캄팔라에 첫 국립종합대학이 창설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왕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아비시니아고원지대에 있는 화산국이다.

대체로 열대계절풍기후에 속하나 지형에 따라 기후의 차가 심하다. 수도의 년평균기온은 13~16°C, 년평균강수량은 1천 300mm이다.

【면적】 122만 2,000km²(그중 에리트레아 12만 4,000km²)

【인구】 2,476만명(1970년 7월) 그중 에리트레아인구는 약 120만명

주민은 암하라족(약 50%), 가라족등이 있다.

에리트레아에는 찌그라이, 찌그레, 베니—아메르족 등이 산다.

공용어는 암하라어와 영어

【수도】 아디스 아바바(주민 64만 4,200명)

【국왕】 하일레 셀라씨에 1세(1930년 1월—)

【국회】 량원제, 하원은 선거하며 상원은 국왕이 임명한다.

【정부】 수상 테샤피 테자즈 아쿠릴루 웰드, 외상 미나쎄 하일레

【정당, 사회단체】 민족애국련합회 황제정권을 옹호하는 유일한 합법적정치조직,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에리트레아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애급, 알제리, 이라크, 수리아, 수단, 이딸리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정치 1935년 이딸리아식민지로, 1941년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2년 1월 영국이 에티오피아에 이른바 《주권》을 준다는 협정을 맺었다. 영식민지였던 에리트레아는 1952년 9월 에티오피아의 련방으로 편입되였으며 1962년에는 한개 주로 되였다. 1954년 5월 미제와 맺은 90년간의 《군사기지대여협정》에 의하여 마사와항은 미제의 해공군기지로 되고있으며 이 나라 군대에는 미군사《고문》들이 있다.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66년 9월에 남조선강점《유엔군사령부》에서 자기의 대표단을 철수하였다.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여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주요직은 왕족들이 차지하고있다.

아디스 아바바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 본부가 있다.

1971년 10월 셀라씨에 황제가 중국을 친선방문하였다.

에리트레아인민들은 에리트레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에리트레아에서 미제침략군을 내쫓으며 에티오피아의 예속에서 전령토를 해방》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무장투쟁을 진행하고있다.

경제, 사회 인구의 90%이상이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인 커피재배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종사하며 커피수출액은 수출총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밖에 보리, 밀,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도 난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3%를 차지한다.

주민의 60%가 기독교를 믿으며 기타는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에티오피엔 헤랄드(정부기관지), 혁명(에리트레아해방전선기관지), 아디스 제멘

우리 나라와의 관계

수리아에 있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총사령부 대표부성원들과 애급, 이라크, 수단, 알제리 등에서 공부하고있는 에리트레아대학생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광범히 연구하고있다. 또한 1970년에 에리트레아해방전선기관지 《혁명》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실었다.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애급에 있는 에리트레아해방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단, 디마스크에 있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배우기 위한 에리트레아소조》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소말리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 홍해의 남쪽입구에 있다.

기후는 몹시 덥고 비가 적게 온다. 년평균기온은 25~30°C이다.

【면적】 63만 7,593km²

【인구】 273만명(1971년)

주민은 사마르족과 사브족이다.

공용어는 영어, 이딸리아어, 아랍어

【수도】 모가디쇼(주민 25만명)

【최고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기관으로서 립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있다.

【정부】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1969년 10월—), 외무담당국무비서 오마르 아르테호 갈리브, 민족군사령관 겸 국방담당국무비서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

【정당, 사회단체】 1969년 10월 21일 혁명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해산되였다.

정치 1880년대에 영국, 이딸리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3개지역으로 분할강점하였다.

1960년 6월 영령소말리아와 이딸리아령소말리아가 각각 독립하였으며 같

온해 7월 1일 70년간 갈라져있던 두지역이 통합되여 소말리아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령소말리아는 아직도 식민지통치밑에 있다.

1969년 10월 21일 친미반동적인 에갈정권이 타도되고 최고혁명리사회가 조직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 국회, 정당들을 폐지하고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후 소말리아정부는 대내적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로선을, 대외적으로는 《진정한 중립》로선을 내놓고 일련의 반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69년 12월 최고혁명리사회는 200여명의 미제《평화군》놈들을 내쫓기로 결정하고 1970년 2월까지 몽땅 내쫓았다.

1970년 5월 6일에는 침략과 략탈의 도구로 되고있던 모든 외국은행과 주요외국인회사 등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1월 최고혁명리사회는 종족주의와 부패행위, 외국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무원들속에서 군사훈련과 정치교육을 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소말리아정부는 1970년 4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정변음모를 조종한 미제대사관 서기관놈을 내쫓고 민주독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다. 6월에는 웰남민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8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유엔에서의 중국의 모든 합법적권리회복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국으로 나섰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인구의 80%가 유목 또는 반유목생활을 한다. 농민은 불과 10%밖에 안된다.

독립전에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바나나만 재배하였다. 독립후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밀 등을 널리 재배하고있다. 바나나는 년 10만t생산되는데 95%는 수출한다. 소말리아에서는 물이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은 농업, 및 목축업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애를 주고있다. 정부는 물문제 해결을 위하여 1968—1970년의 3개년계획기간에 총투자액의 70%이상을 이에 집중시키고 모가디쇼의 물저장땅크, 쥬바강 주변의 관개건설, 저수지건설등에 착수하였다. 1971년 9월에는 란따부르따에 6천정보의 땅을 적실수있는 길이 14km의 관개수로가 개통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 석유, 쇠돌, 망간, 동, 주석, 연 등이다.

1971년부터시작된 인민경제발전3개년계획(1971—1973)기간에는 농업을 발전시키며 현존공업기업소들을 개건하고 새로운 공업기업소들과 도로,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할것을 예견하고 약 10억소말리아쉴링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식민지교육체계를 민족교육체계로 개편하고 소말리아어를 만들기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있다.

1971년 9월 공업과 농업분야에 절실히 필요되는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10월의 별(정부기관지 영어, 이딸리어로 발간됨), 선봉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을, 1967년 4월 12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1월 23일 모가디쇼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되였다.

1970년 11월 모가디쇼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말리아혁명승리 두돐에 즈음하여 시아드 바레 위원장에게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소말리아인민이 혁명후…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히 짓부시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나라의 룡성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자기의 성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정당한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신문《선봉》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등 여러 로작들을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최고혁명리사회 관방실고문단이 이 나라 민족군사령부 영화관에서 우리 나라 기록영화 《새조선》에 대한 영화감상회를 가졌다.

영화감상회에는 최고혁명리사회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이 참가하였다.

1971년에는 소말리아 지방장관대표단(4월), 군장관대표단(9월), 정부대표단(8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 밖에 교육대표단, 《10월의 별》주필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사로청 제6차대회에 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소말리아사회과학자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프랑스령소말리아

(아파르—이싸해안)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아덴만에 면해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군사전략적지점으로 되고있다.

【면적】 2만 3,000km²

【인구】 약 12만 5,000명(1967년)

주민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족과 다나크족이다.

【행정중심지】 지부티(주민 4만 1,000명)

【정당, 사회단체】 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 1963년에 조직, 소말리아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총비서 아브달라히 아르데에. **민주청년**(민주예멘에 있는 소말리아청년들의 조직)

정치 1880년에 원래 소말리아령토였던 이 지역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하고 1882년에 《보호령》으로, 1958년에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1967년 6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아파르—이싸해안》으로 고치고 《프랑스공동체》내의 《해외령토》로 선포하였다.

놈들은 4천여명의 침략군으로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소말리아인민들은 1963년에 조직된 《프랑스령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치렬히 벌리고있다.

이라크에 있는 강점된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1970년 7월), 아덴에있는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돌격대《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와 소말리아민주청년조직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1970년 8월)가 결성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광범히 연구하고있다.

1971년에 강점된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신문 《알라이드》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반유목민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과 제염업도 한다. 일년감, 낡새, 파일 등이 생산되며 석고, 운모, 류황, 석유 등이 난다.

지부티항과 아디스 아바바를 련결시킨 철도는 미제와 서방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지역의 침략적군사기지에 보내는 군수물자 수송에 리용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라이드(강점된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신문)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다. 적도상에 놓여있으나 기후는 무덥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년평균기온은 20°C,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mm이다.

【면적】 58만 2,644km²

【인구】 1,094만 2,700명(1970년 12월)

키쿠이아족(220만명), 루오족(150만명)을 비롯한 42개의 소수민족과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수도】 나이로비(주민 47만 8,000명, 1969년 8월)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겸수상 조모 케니아타(1963년 6월—), 외상 느죠로게 뭉가이

【정당】 아프리카인민족동맹(집권당), 인민동맹 1969년 비법화

정치 1920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 6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이해 12월 12일 독립하였다.

1964년 11월 3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9년 10월 인민동맹을 비법화하고 아프리카인민족동맹 단독내각을 구성하고있다. 에티오피아와 호상방위조약을 맺고있으며 동북부 소말리아족문제로 소말리아와의 국경충돌이 빈번하다.

경제, 사회 주민의 절대다수가 농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 밀, 보리, 담배, 목화 등이다.

주민들은 배물교, 기독교,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케니아통신

신문 이스트아프리칸 스탠다드, 데일리 네이숀

탄자니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중부, 동부해안에 있는 탄가니카와 그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36km 떨어져 있는 잔지바르(펨바섬포함)로 이루어졌다.

년평균기온은 탄가니카에서는 15~35°C, 잔지바르에서는 22~33°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천 200mm이다.

【면적】 94만 1,600km²

【인구】 1,327만명(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며 기타 아랍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구라파인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

【수도】 다르 에스 살람(주민 27만 3,000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1964년 4월—), 제1부대통령 아부드 줌베(잔지바르대통령, 1972년 4월—), 제2부대통령겸수상 쉐이크 라쉬디 므파우메 카와와(1972년 2월 17일—), 외무상 시귀에미시 사무엘존말레셀라, 국방보위및민족복무상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탄가니카집권당), 아프리카쉬라지당(잔지바르집권당), 탄가니카로동자전국동맹,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다) 전국녀성동맹,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1970년 4월 결성, 위원장 아담 사피 모크와와

정치 1961년 12월 9일, 1963년 12월 1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각각 독립한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하여 1964년 4월 26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련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잔지바르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며 국방, 경제, 문화분야에서 독자적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적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고있다.

1967년 2월 5일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아루샤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기간 경제요소들을 국유화하였다.

1969년 8월에는 이 나라에 기여들어 정탐과괴활동을 감행하던 미제《평화군》놈들을 마지막으로 내쫓았다.

1971년 2월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타누당) 전국집행위원회 비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복음모책동에 대처할 정부방침을 토의하고 《타누(당)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에 국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기로 하였다. 2월 21일 이 《새 로선》을 지지하는 군중대회에서 니에레레대통령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며 방위군을 강화하여 조국의 독립을 수호》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따라 각지방에 민병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3월 5일에 발표한 1971—1972회계년도 발전계획초안에서는 《탄자니아는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미국식생활양식》을 배격하며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2월 17일 수상직제를 새로 내오고 아프리카인이 아닌 각료를 정부에서 제거하였다.

대외적으로 탄자니아는 쁠럭불가담정책을 내놓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있으며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앙골라 민족해방투쟁단체들을 자기 나라에 상주시키고있으며 그들에게 물질적지원을 적극 주고있다.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탄자니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장개석도당을 내쫓을데 대한 결의안의 발기국으로 나섰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탄자니아에서는 사이잘삼(세계생산량의 3분의 1), 커피, 목화, 잔지바르에서는 정향(세계생산량의 80% 차지)등이 생산된다.

지하자원은 금강석, 동, 주석 등이다.

1967년 《아루샤선언》이 발표된후 3년동안에만도 정부는 자력갱생과 《사회주의》의 구호하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은행 5개를 포함한 8개의 외국은행, 9개의 큰 제분소 그리고 보험회사, 식료품회사, 6개의 중요사이잘삼회사들을 국유화하고 33개의 회사의 주권의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또한 외국석유회사인 《쉘 탄자니아》와 《아쥐프 탄자니아》의 주권의 50%를 국가가 장악하고 영제국주의자들이 경영하던 《다르 에스 살람모터》운수회사를 국유화하였다. 1971년 7월 1일부터 잔지바르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몽땅 없앴다. 이리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국가가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나갈수있는 튼튼한 밑천을 다

련하였다. 1970년까지만도 방직공장, 합성수지공장, 농기구공장 등 30여개가 새로 신설, 확장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다각화》가 추진되였으며 식민주의자들의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고 국영농장과 집단적영농조직인 협동로동촌(우자마아마을)들이 창설되였다. 1971년 8월 현재 2천 668개의 협동로동촌들에 83만 9천 300명의 농민들이 망라되였다.

1970년에 목화는 9만 9천t, 커피는 5만 5천t, 사탕은 9만t 생산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자력갱생을 위한 교육》정책에 따라 다르 에스 살람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들이 건설되였으며 전국적으로 문맹퇴치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1971년에 정부에서는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일반교육에 관한 특별방송을 하며 눅은 값으로 교과서들을 팔고있다. 1971년 잔지바르학생수는 5만 6천명이였다.

정부는 《주택소유법》을 채택하고 1971년 7월 현재 2만 9,000여개의 자본가놈들의 집을 국유화하였다.

탄가니카에는 기독교도가 많고 잔지바르에는 회교도가 많다.

【출판보도】 신문 스탠다드(정부기관지), 내슈널리스트(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기관지), 느구루모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6월에는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칸산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민족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스와힐리어)으로 출판하였다.

1971년에 신문《느구루모》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느구루모》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8회에 걸쳐 련재하였으며 《4천만의 어버이》에 있는 회상실기 《손수 심으신 밤나무》를 실었다.

1971년 8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내신 타보라혁명학원 교육설비이관식이 타보라주에서 진행되였다.

1968년 6월 니에레레 대통령이, 1970년 11월에는 탄자니아인민보위군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이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에 탄자니아기자대표단(9월), 정부경제계획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6월에 진행된 사로청 제6차대회에 청년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력사교원부부와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 예술 및 사회과학부 학부장이 참가하였다.

모잠비끄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동남부 인도양에 면하고있다.

해안지대의 년평균기온은 25°C, 12월부터 4월까지의 강우량은 1천~1천500mm이다.

【면적】 78만 3,000km²

【인구】 712만 4,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

【행정중심지】 로렌쏘 마르께스(주민 18만 3,800명)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끄해방전선** 1962년 5월에 결성, 모잠비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사모라 모세이스 마셸. **아프리카인민족동맹, 민족주의당, 해방전선청년동맹**

정치 1700년부터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이 항공 및 해군기지들을 설치하고 이 나라 인민들을 탄압하고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의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1950년 후반기부터 아프리카인들을 내쫓고 잠베지저지에는 100만명의 백인을 이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아프리카의 광산들과 《남로데시아》의 담배재배원에 팔아넘긴 모잠비끄로동자들의 수는 100만이상에 달한다. 놈들은 떼떼주에 집중수용소를 만들어놓고 1971년 5월에는 년말까지 8만 5천명을 가두어넣겠다고 결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비행기로써 주민지역을 폭격하여 집과 농작물과 농경지를 파괴하며 주민들을 학살하는 등 야만적인 식민주의전쟁을 감행하고있다.

모잠비끄인민들은 1962년에 에두아르도 몬들라네의 지도밑에 모잠비끄해방전선을 결성하고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지하활동을 전개하였다. 1964년 9월 25일에는 250명의 유격대원으로 민족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애국적무장력은 1만 5천여명의 정규무력과 6만명이상의 《자위대》를 가진 강력한 무력으로 자라나 전쟁 7년동안에 1만여명의 뽀르뚜갈침략군을 살상하였으며 1천여대의 각종 자동차를 파괴하였고 수백개의 적진지를 습격하였다.

1970년 6월부터 1971년 6월까지만도 적병 1천 500여명을 죽이고 자동차 260여대, 적기지 60개를 파괴하였다.

그밖에 함선, 렬차, 비행기 등을 파괴하였다.

무장투쟁은 나라의 3분의 1이상으로 확대되고 해방지역은 전국령토의 4분의 1이상이나 되는 20여만km²를 포괄하였다.

해방지역들에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온갖 형태의 자본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경리형태가 없어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되고있다.

경제, 사회 기름진 땅은 백인놈이 독점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식량을 위한 작물은 재배하지못하며 목화재배만을 강요당하고있다. 아프리카인 매 성인들은 1ha, 로인과 녀성들, 아이들은 0.5ha를 의무적으로 재배케하고 헐값으로 빼앗아 간다. 아프리카인들은 목화 한 포대를 팔아도 면내의 하나도 살수 없다.

석유, 주석, 보크사이트, 우라니움 등 자원이 많으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12만km²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석유와 기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권을 틀어쥐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농업이 집단화되고 식량은 자급자족하고있다.

이전에는 전혀 없던 인민학교가 160여개나 설치되여 근 2만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황열병을 비롯한 일련의 전염병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있으며 까보델가도주에서만도 2개의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11개의 지역병원과 58개의 구급소들이 설치되였다.

【출판보도】 모잠비끄 레볼루숀(해방전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모잠비끄해방전선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이며 모잠비끄해방군 총사령관인 사모라 모이세스 마쉘을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라 위

(말라위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이다.

적도무역풍기후이다. 가장 낮을때(7월)의 평균기온이 14~19°C이다.

【면적】 11만 9,300km²

【인구】 428만 5,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좀바(주민 1만 7,690명)

【립법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수상 겸임, 1964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집권당), 국민대회해방당, 공화당, 전국로동런맹

정치 1891년 5월 영식민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3년 10월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6년 7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는 세계인민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 참가하지 않고있으며 1971년 2월에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무기수출재개를 로골적으로 지지하였다. 이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 주재 말라위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자들은 말라위의 군사기지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사회 주로 담배, 차, 커피를 재배하며 쌀과 식료품은 수입한다.

지하자원으로는 돌솜, 보크사이트, 동, 석탄, 금, 쇠돌, 망간, 금강석, 석유 등이 있으나 자원은 비교적 적다.

해마다 수천명의 로동자들과 빈농민들이 남아프리카에 팔려간다. 지금 남아프리카의 금광들에서만도 9만명의 말라위로동자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중부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이다.

평균기온은 가장 높을 때(10월)에 20~25°C, 가장 낮을때(7월)에 15~20°C이다. 년평균강우량은 750~1천mm이다.

【면적】 75만 2,000km²

【인구】 420만 8,000명(1970년)

카프에르족, 벰바족, 바르르세족, 룬다족 등 73개의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

【수도】 루사카(주민 13만 8,000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1964년 8월—) 외무상 이. 예취. 케이 무뎬다, 국방상 알렉싼드르 그레이 줄루가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집권당), 아프리카민족대회당, 민족진보당, 로조대회,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 1971년 4월 결성, 위원장 까모프일 므왈비

정치 1891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3년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1963년 12월 《중앙아프리카련방》은 해체되고 1964년 10월 24일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잠비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1969년 6월에는 독립당시 영제국주의자들이 잠비아에 강요한 헌법을 개정하고 백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 토지와 일부 공장, 기업소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1970년에는 군대내에 있던 영국《장교》들을 내쫓았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표방하고있으며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다.

1971년 2월 23일 잠비아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무기수출재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채광업이 국민소득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동은 매장량과 채굴량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동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50%, 수출의 90~95%를 차지한다. 1970년에 동은 68만t, 연은 2만 7천300t생산하였다.

정부는 1970년 1월부터 이 나라 동생산을 장악하고있던 2개의 미, 영 독점회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땅콩, 담배, 조, 마니오크, 콩, 남새 등이다.

1971년에 르바쉬아시에 년산 1천t의 첫동제품생산공장이 건설되여 전화선, 전기선들을 포함한 여러가지 동선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이 나라 사탕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영제국주의독점체 《잠비아 슈가르콤파니》사탕회사를 국가의 통제하에 둘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독립후 농촌지역에 116개의 진료소와 11개의 병원이 새로 건설되였다.

독립후 잠비아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들이 건설되였다.

1971년현재 소학교학생수만도 70만명에 달하고있다.

1971년에 초등학교들에서는 영국교과서대신 새로운 잠비아교과서들을 사용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잠비아 메일(정부기관지), 데일리 메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잠비아인민들속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이 광범히 소개되고있다.

1971년에 신문《데일리 메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국영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기업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실었다.

1971년 4월 18일 루사카에서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위원장 까모프일 므왈비)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 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5월 신문《데일리 메일》 주필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또한 6월에 진행된 사로청 제6차 대회에 민족통일독립당청년운동대표단, 조선청년친선협회《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짐바브웨

(남로데시아)

남아프리카의 중앙부에 있는 내륙고원국이다.

기후는 몹시 무더우며 최고 38°C (10~11월)를 넘는다. 년평균강수량은 762mm이다.

【면적】 38만 9,400km²

【인구】 509만(1970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며 백인(약 24만명)과 혹인의 혼혈인 등이 있다.

【수도】 솔스베리(주민 약 39만명)

【의회】 상하량원제

【대통령】 크리퍼드 워터 듀폰(1970년 3월—)

【정부】 수상 이완 스미스(1969년)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본부는 잠비아에 있다.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민족해방투쟁단체, 본부는 탄자니아에 있다. **로데시아전선**(집권당), **중앙당**, **범아프리카사회동맹**, **아프리카로조대회**

정치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3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중앙아프리카련방》에 통합되였다. 이 지역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련방》이 해체된후 잠비아와 말라위는 독립하였으나 짐바브웨에서는 영식민지통치가 계속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더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여 스미스를 우두머리로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고 1965년 11월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스미스도당은 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69년 6월 이른바 《헌법》을 채택하고 1970년 3월 2일 《남로데시아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4월에는 비법적인 소수백인인종주의《정부》를 조작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도당은 1971년 11월 24일 이 나라 인민들을 소수백인인종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하여 《헌법개정》이라는 기만술책으로 로데시아에서의 이른바 《다수인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영국이 동의한다는 《협정》을 맺는 모략을 꾸몄다.

남로데시아 《독립》이 선포된 이래 이 나라 인민들은 백인인종주의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의 지도하에 애국자들은 1966년 4월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72년 1월초에는 짐바브웨인민혁명군 창건을 선포하고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 및 중남부지역에서 유격전을 펴고 도처에서 백인인종주의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2년 1월 15일부터 공업도시 그웰로시에서는 8천여명의 아프리카인들이 1971년 11월의 《영국로데시아협정》을 반대하며 백인인종주의정권을 때려부시기 위하여 경찰의 탄압을 맞받아 대규모시위를 벌렸다. 1971년말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스미스백인인종주의정권을 승인하지 않고있으며 아프리카나라들은 정치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인구의 5%밖에 안되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경지면적의 70%이상을 독차지하고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농업생산액의 50~80%), 강냉이, 목화, 땅콩 등이다.

쇠돌, 돌솜, 크롬, 동, 니켈 등의 지하자원이 많으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12~14시간의 고용로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임금은 백인로동자의 20분의1에 해당하는 기아임금을 받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짐바브웨레뷰(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행사와 1969년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앙 골 라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있으며 잠비아, 자이르, 나미비아와 접해있다.

년평균기온은 17~28°C이다.

【면적】 124만 6,700km²

【인구】 543만명(1970년)

주민의 97%가 반투족이다.

언어는 반투어

【행정중심지】 루안다(주민 28만명)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 1956년 12월 9일에 창건, 앙골라민족해방투쟁을 지도, 꽁고, 알제리, 애급, 탄자니아, 잠비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인민련맹**, **통일전선**, **전국근로자동맹**, **녀성조직**

정치 188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951년에 앙골라를 제놈들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1957년에는 파쑈적기구인 《국가정보및치안경찰》을 설치하고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61년 2월 4일 앙골라인민들은 인민해방운동의 령도밑에 루안다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3월 24일 20자루의 보총을 가진 24명의 애국자들이 시에라다 감바산악지대에서 첫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북부산림지대에서 투쟁을 확대하였다.

1962년 12월 인민해방운동 제1차대회에서 민족해방군창건을 결정하였으며 그후 민족해방군은 최신식 각종 포와 자동무기로 장비된 5만명의 강력한 대오로 자라났다.

1969년에는 새로운 전투전선(동북전선과 중부전선)이 형성되였으며 1971년에는 5개지역에서 전투를 벌려 적들을 해안지대로 몰아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10여만의 침략군을 투입하고 마을을 폭격하며 《전략촌》을 만드는 등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으나 앙골라유격대원들은 1971년에 뽀르뚜갈침략군 1천 684명을 소멸하였으며 적군용차 113대를 까부시고 각종 비행기 20대를 쏘아 떨구었다. 또한 동부와 북부에 있던 적군사기지들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령토의 3분의 1이상이 해방되고 약 100만에 달하는 주민들이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났다.

해방지역에는 인민정권(행동위원회)이 조직되였으며 선거된 행동위원회들은 인민자위대를 통하여 자위의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인민해방운동은 완전독립의 기초우에서 공화제도와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며 뽀르뚜갈인과 기타 외국인의 일체특권을 페기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것을 자기 당의 기본지침으로 삼고있다.

경제, 사회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150만정보의 기름진 땅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종려, 사탕수수, 땅콩, 강냉이, 바나

나, 나무감자 등이다.

금강석, 석유, 동, 망간, 갈탄, 운모, 연, 아연, 쇠돌, 우라니움, 월프람 등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인민탄압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서독,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앙골라의 자연부원에 대한 략탈에 참가시키고있다.

해방지역에는 행동위원회의 지도밑에 착취없는 새로운 생활이 창조되고있다. 농업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인민해방운동이 직접 양성한 교원들에 의해 학교들이 운영되고있으며 의료망이 늘어나고있다. 전선지대들에서는 병원들과 야전진료소, 특별이동의료봉사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승리냐, 죽음이냐 《인민해방운동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5월 29일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이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내놓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졌다.

11월 인민해방운동신문《승리냐, 죽음이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특집호에 실었다.

1968년 9월과 1971년 8월 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찌노 네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8월 12일 네또는 자기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당신들이 우리 운동에 주고있는 물질적, 정치적 및 도덕적지원은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의 패망을 촉진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1971년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인민해방운동청년대표단, 잠비아에 있는 인민해방운동《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아프리카대륙의 서남쪽 대서양연안에 있으며 남아프리카, 앙골라, 잠비아와 접해있다.

해안지대는 사막성기후이고 내륙지방은 고원성기후이다. 년평균강수량은 250~500mm이다.

【면적】 82만 3,876km²

【인구】 67만 100명(1970년말)

주민은 오밤보족, 부쉬만족, 굿텐트족, 반투족 등이다.

통일적인 언어는 없다.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4만 3,000명)

【정당, 사회단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에 조직,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탄자니아, 잠비아, 애급, 알제리, 꾸바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삼 누죠마. 오밤보인민당, 민족동맹, 국민당, 통일당, 서남아프리카당, 로동자련맹, 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청년동맹

정치 1915년 7월 남아련방에 강점당하였으며 1920년 12월부터는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제놈들의 령토에 병합시키고 극단한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1966년 5월부터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1968년 11월 동북부지역의 므파챠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무장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애국적무장력은 적군사기지를 들이치고 군수물자를 로획하는 대담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1971년 1월부터 4월중순까지의 기간에만도 남아프리카인종주의침략군 37명을 죽였으며 4월 16일에는 카티마물릴로에 있는 적들의 항공기지부근에서 장갑차를 매복습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벌렸다.

경제 경제의 주요부문은 채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토지의 대부분은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이며 밀, 공예작물도 난다. 축산업은 소, 면양기르기가 기본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세계생산량의 3%), 바나디움(세계생산량의 10%), 동, 망간, 우라니움 등이 많으나 이것들은 영국(외국자본 총투자액의 80% 차지),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독점자본가놈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고 투쟁대오내에 《김일성부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71년 6월 나미비아(서남아프리카)청년동맹대표와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보쯔와나

(보쯔와나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남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대부분이 열대초원지대이다.

【면적】 71만 2,000km²

【인구】 62만 9,000명(1970년)

주민의 절대다수가 아프리카인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가베로네스(주민 2만 6,277명)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겸수상 세레즈 크하마, 외상 마시시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 인민당, 독립당, 로조대회

정치 1885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1910년 《남아련방》에 편입되여 케이프타운주로 되였다.

1965년 3월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였다.

1966년 9월 3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고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물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수수, 콩 등이다. 식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하자원은 돌솜, 망간, 동, 연, 쇠돌, 금 등이 있으나 외래독점자본가들에게 략탈당하고있다.

로동력의 4분의 1은 남아프리카에서 노예로동을 하고있다.

초급학교 280개(8만 2천명), 중학교 10개(3천명), 교원대학 2개가 있다.

느그와네

(느그와네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동북쪽에 있으

며 남아프리카공화국령토로 둘러싸여 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감비아 다음으로 작은 나라이다.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년평균강수량은 500～1천400mm이다.

【면적】 1만 7,366km²

【인구】 41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스워지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음바바네(주민 1만 3,800명)

【국왕】 사브후자 2세

【의회】 량원제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이 상하량원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정부】 수상 마코쉬니 들라미니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집권당), 진보당, 해방운동당, 통일전선, 범아프리카단결대회

정치 1968년 9월 6일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하고 스워질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느그와네로 고쳤다.

왕당파정당인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이 국회와 정부를 독차지하고있다.

경제 토지의 대부분을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이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사탕수수, 오렌지, 강냉이, 벼 등을 재배한다. 목재, 풀솜, 쇠돌, 금, 은 등도 생산된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재소를 건설하고 이 나라 목재를 략탈하고있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남쪽 고원지대에 있다. 중부고원지대에는 강우량이 많고 기온의 차가 적다. 년평균강우량은 650mm이다.

【면적】 122만 3,400km²

【인구】 2,100만명(1970년)

원주민은 호텐도트와 부슈멘족이며 백인(370만명), 혼혈인(200만명), 아세아인(65만명) 등 특이한 인종구성을 가지고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프레토리아(주민 42만 2,000명)

【대통령】 푸체

【정부】 수상 존 보스터(1966년—), 외상 뮬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창건. 민족대회 1912년 1월에 결성,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꾸바, 알제리, 아련, 잠비아, 탄자니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총비서 알프레드 느조. 국민당(집권당), 통일당, 통일전선, 로조대회

정치 1652년 화란의 식민지로 되였다.

1814년에 케이프타운과 케프주를 강점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이 1820년부터 이 나라에 백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화란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였다.

1910년 5월에 케프주와 다른 수개의 강점지역을 병합하여 《남아련방》을 조작하고 그를 영국의 한개 《자치령》으로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민족해방투쟁에 부딪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자 1948년에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여 조선인민을 학살하는 적대행동을 감행하였다.

1961년 5월 31일 나라이름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백인인종주의정권은 제놈들의 반동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행증법》, 《파괴활동금지법》등 100여종의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고 세계최악의 야만적인 《인종격리정책》을 실시하여 이 나라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놈들은 미, 영, 뽀르투갈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고용병들과 무기를 제공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여 반제투쟁을 약화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이 나라에 대한 일체관계를 끊고 제재조치를 취하고있다. 유엔 26차총회에서까지 남아프리카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09대 2로 채택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배격규탄받고있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 이른바 《대화》를 제창하였으나 아프리카나라들의 항의와 규탄에 부딪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채광업이다.

인구의 19%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토지면적의 87.5%, 국민소득의 73.3%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백금, 금강석, 우라니움, 마그네시움, 크롬, 석탄, 쇠돌, 동 등이다.

금, 백금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총생산량의 50%차지), 금강석생산량은 60～70%를 차지한다.

275개의 미제독점회사와 490여개의 영국독점회사들이 남아프리카경제의 대부분을 독점하고있다.

남아프리카에 미제는 10억딸라, 영제국주의자들은 15억파운드(영국의 직접적해외투자의 9～10%에 해당)를 투자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이 나라의 전략원료들을 략탈하고 각종무기와 군수품을 수출하고있는데 1960년부터 1969년까지 무역액을 379%로 늘이였다.

보스터도당의 인종주의정책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인들은 공민권도 없는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인꿀루레끄(공산당기관지), 디 부르게르(국민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남아프리카민족대회 총비서 알프레드 느조를 단장으로하는 민족대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6월에 진행된 사로청 제6차대회에 남아프리카전국대회청년대표가 참가하였다.

레 소 토

(레소토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령토내의 동쪽에 있다. 평균기온은 가장 높을때(1월)에 25～26°C, 가장 낮을때(7월)에 15°C이다. 년평균강수량은 750～1천mm이다.

【면적】 3만 344km²

【인구】 88만 5,555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바수토인과 아풀인이다.

공용어는 반투어와 줄루어

【수도】 마세루(주민 3만 4,000명)

【국왕】 모쉬슈 2세

【국회】 일원제

【정부】 수상 레브아 조나탄(외상, 국방상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5월에 창건. 1970년 1월 27일 선거후 비법화. 바수톨랜드대회당, 바수톨랜드민족당(집권당), 마레마틀로우자유당, 로조대회

정치 1868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6년 5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0월 4일 바수톨랜드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쳤다.

경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수수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돌솜, 석탄, 금강석 등이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이웃 나라로 떠난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바수톨랜드대회당 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말 가 슈

(말가슈공화국)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인도양에 있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섬이다.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59만 4,244km²

【인구】 664만 3,000명(1970년)

주민구성이 복잡하며 메룬족(말라이인종)이 제일 많다.

공용어는 말가슈어와 프랑스어

【수도】 따나나리브(주민 34만 2,4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필리베르 치라나나(수상, 국방상 겸임, 1970년 9월 재선), 외무담당국무상 쟈크 라베마난자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제1비서 랑드리 앙자 러네 앙셀므. 사회민주당(집권당), 독립대회당, 통일당, 인민전선, 로조련합회, 민주청년동맹.

정치 1896년 8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0년 6월 26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중 친서방적이며 반동적인 나라다.

1970년 11월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정권과 첫 《경제협정》을 맺음으로써 진보적인 아프리카나라들에 도전하여나섰다.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벼, 마니오크, 강냉이, 커피,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은 흑연, 운모, 베릴리움, 크롬 등이다.

학령아동의 약 절반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까나리아

(에스빠냐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마로끄의 서남부)에서 115km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서양교통의 요충지이다.

섬에는 화산이 많다. 기후는 비교적 네계절이 구분된다.

【면적】 7,273km²

【인구】 10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베르베르족태생인 까나리아족이고 그외에 에스빠냐인, 인도인, 독일인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행정중심지】 산따 끄루스 데 떼레네페

【정당】 까나리아섬민족독립운동 1960년에 조직된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 결성.

알제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4월 26일 결성.

정치 1516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0년초에 《까나리아자치운동》이 조직되면서부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여 도처에서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있다.

1971년 6월 까나리아섬민족자결및독립운동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경제 주민의 대부분이 밀, 보리, 바나나, 옥파, 감자, 귤 등을 재배한다.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수산물가공공장도 있다.

쎈트 헬레나

(영국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이다. 열대에 속하나 산이 많고 기후는 서늘하다.

【면적】 122km²

【인구】 4,760명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1,700명)

1673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섬을 강점하고 침략적인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목축업을 하거나 이 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봉사사업에 종사한다.

대마, 아마, 남새 등이 난다.

산토메 프린시페

(뽀르뚜갈식민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있다. 강수량이 많고 따뜻하다.

【면적】 964km² (산토메도 824km²)

【인구】 6만 6,000명(1970년)

주민은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다. 인구의 88%는 산토메도에서 산다.

【행정중심지】 산토메(주민 8,000명)

1485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여 1951년에 제놈들의 《해외주》로 만들었다. 산토메도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정치범》의 류형지로 되고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요구하여 싸우는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가 있다.

뽀르뚜갈침략자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코코아, 커피, 코프라 등 수출용작물을 재배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성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세 이 쉘

(영국식민지)

서부인도양의 92개 섬으로 이루어졌다.

년평균기온은 약 26°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 402mm이다.

【면적】 404km²

【인구】 5만 1,000명(1970년)

주로 반투족, 구라파인, 인도인 등이 산다.

【행정중심지】 빅토리아(주민 1만 2,000명)

1794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정당으로는 민족적독립을 주장하는 세이쉘제도인민통일당(위원장 레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을 한

다. 야자,, 향료, 겨자 등이 나는데 인도에 많이 수출된다.

모리셔스

(모리셔스공화국)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에 있는 작은 화산섬이다. 모리셔스, 로드리게스, 까르가도스—까라호스, 아갈레그, 아르히뻴라그, 차고스섬들로 구성되여있다. 섬들은 록음으로 뒤덮여있다. 때때로 열대태풍이 있으나 기후는 비교적 좋다. 년평균강수량은 서부해안지대에서 762mm, 산지대에서는 5천mm 이상에 달한다.

【면적】 2,100km²

【인구】 79만 9,000명(1970년)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인도인(68%), 아랍인, 중국인, 백인들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도 쓴다.

【수도】 포트루이스(주민 13만 7,600명)

【정부】 수상 시우사구르 람굴람, 외무, 관광 및 이민상 찰스 개탄 두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위원장 엘. 챤드라문. 레이버당(집권당), 사회민주당, 해방전선, 공산주의청년동맹,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위원장 엘. 챤드라문

정치 1810년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다가 1968년 3월 12일 독립하였다.

독립후 영제국주의자들과 6년간의 호상방위원조협정을 맺었다.

경 제 자원은 거의 없고 사탕수수재배가 기본이다.사탕수수 재배면적은 경작지의 90%를 차지한다. 년생산량은 약 68만t이며 그의 약 70%는 영국에 수출된다. 식량은 수요의 10분의 1도 생산못하며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독점체들이 포트루이스에 어업기지를 설치하고 어업자원을 략탈하고 있다.

【출판보도】 신문 로브, 액숀, 아드반스, 레 쎄르네엔

인도계주민들은 힌두교와 회교를 믿으며 아프리카와 구라파인의 혼혈인인 쿠레오르족은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4일에는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설정하였다.

1971년에 모리셔스에서 《김일성동지 도서관》이 개관되였다.

1971년 1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 모리셔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월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주최로 포트루이스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성과를 축하하는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모리셔스신문 《로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라는 표제밑에 화첩《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체내용을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 30회에 걸쳐 련재하였다.

1970년 8월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1971년 5월에는 모리셔스외무, 관광및이민상이 우리 나라를 방문였다. 6월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단과 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모리셔스를 방문하였다.

레유니옹

(프랑스식민지)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20°C 이다.

【면적】 2,511km²

【인구】 45만명(1970년)

주민의 4분의 3이 구라파계인이며 그밖에 인도인, 말가슈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

【행정중심지】 쌍드니(주민 8만 7,000명)

【정당】 공산당 프랑스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 총비서 뽈 베르제스

정치 1643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으며 1793년부터 레유니옹(이전에는 부르봉이라고 부름)이라고 부르게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식민지로, 1815년에는 다시 프랑스식민지로, 1946년부터는 프랑스의 《해외주》로 되였다.

경제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벼, 감자, 콩, 땅콩 등이다.

프랑스독점체들의 제탕공장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레유니옹공산당 총비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떼무아나쥐(공산당 기관지), 레쁘블 레 프로그레스

꼬 모 르

(프랑스식민지)

아프리카대륙과 말가슈섬사이의 인도양에 있는 6개의 섬으로 어루어져있다. 습도가 높고 년평균기온은 23°C이다.

【면적】 2,171km²

【인구】 18만 1,000명

주민은 안떨라우또라족, 말가슈족, 인도족 등이다.

아랍어를 쓴다.

【행정중심지】 모로니 (주민1만1,500명)1912년에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꼬모르인민들은 꼬모르민족해방운동의 지도하에 민족해방투쟁을 하고있다.

1961년 12월 내부자치권을 획득하였다.

주민들은 주로 양을 기르며 야자, 와닐라(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종교는 회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꼬모르민족해방운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미 주

꾸 바

(꾸바공화국)

까리브해와 안틸제도에 있는 1천 6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아열대성기후이며 기온은 최고 35°C, 최저 15°C이다. 년평균 강수량은 600mm이다.

【면적】 11만 4,500km²

【인구】 855만 3,395명(1970년 9월)

주민은 백인, 혼혈인, 흑인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아바나(주민 175만명, 1970년).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외무상 라울 로아 가르씨아, 무력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3년 7월 26일에 조직된 《7월 26일운동》이 인민사회당 및 《3월 13일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조직, 1965년 10월 공산당으로 고침.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혁명수호위원회, 조선인민과의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정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98년 미국—에스빠냐식민지전쟁의 결과 꾸바는 미제에 강점당하였다.

1902년 5월 20일 꾸바는 독립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1903년 미제는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해군기지로 만들었으며 1906—1909년까지 꾸바에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1952년 3월 미제의 사촉을 받은 군사정변으로 바띠스따친미독재정권이 조작되였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선두로 한 165명의 청년애국자들은 바띠스따괴뢰정권의 큰 군사요새였던 《몬까다》 병영을 습격하였다. 1956년 12월부터는 유격투쟁을 시작하여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정권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입니다.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의 기지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9페지)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1961년 4월 19일 미제의 직접적지휘밑에 삐라야히론에 기여든 약 2천명의 고용병들을 단 72시간내에 완전히 소멸하였다. 1962년 10월 미제에 의하여 조성된 《까리브해위기》 시에도 놈들의 《해상봉쇄》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꾸바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였다.

1971년에도 미제는 꾸바에 대한 악랄한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240페지)

5월 26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인 반혁명악당들은 까리브해의 도라이 또루뚜가스섬근방의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꾸바어선들에 무장공격을 가하여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민들을 랍치하여 갔으며 6월 11일에는 두척의 간첩선으로 다섯놈의 간첩악당들을 꾸바령해에 들이밀었으나 모두 붙들려 재판에 회부되였다. 10월에는 보까 데 싸마이촌을 무장습격하여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2월에 이르러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까리브해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15일 꾸바혁명군은 꾸바해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미제고용병들의 해적선 《죠지 엑스쁘레스》호를 붙잡았다. 이 배는 이미 5일 꾸바해군에 의하여 붙들린 미제해적선 《레일라 엑스쁘레스》호와 함께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꾸바에 대한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한 반혁명분자들과 살인무기를 후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6일 꾸바혁명정부는 미제의 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2월 25일 꾸바외무성은 《관따나모는 미국놈들의 범죄 및 도발 행위의 기지이다.》라는 표제밑에 미제침략자들이 1961년부터 1969년까지 관따나모를 기지로 하여 꾸바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사실을 폭로하는 문건을 발표하였다.

4월에는 미제침략자들과 꾸바의 반혁명분자들의 범죄적인 준동에 타격을 가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법체계를 개편하여 구역, 지구, 주, 최고 인민재판소들을 창설하였다.

7월 26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여덟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에서 피델 까스뜨로수상은 《꾸바에 대한 제국주의의 〈봉쇄〉 책동은 계속될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은 멈춰서있지 않고 계속 전진할것이기 때문이다. 꾸바혁명은 견결하고 원칙적인 립장을 고수할것이며 온갖 난관을 물리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피델 까스뜨로수상이 칠레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꾸바와 칠레간에 전신 및 우편련락에 관한 협정, 민간항공로개설에 관한 협정, 통상협정이 2월에 각각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 사탕생산이 경제에서 가장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외 주요농산물로서는 벼, 커피, 레몬, 감귤류, 담배 등이있다.

꾸바에는 인민농장과 소농협동농장이 있다. 1971년말현재 농경지의 78% 이상이 수리안전경작지로 되였으며 2800여대의 사탕수수수확기와 1만여대의 사탕수수적재기가 있었다. 사탕은 1970년에 850만t 생산하였다. 사탕수수가공량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에 하루 평균 4천 550만아로바로부터 5천 200만아로바로 높아졌다.

벼는 1년에 두번 심는데 1970년에 벼재배면적은 1만 5천까발레리아(1까발레리아는 13.4ha)였으며 1971년 벼

생산량은 1969년에 비하여 2.4배 늘었다. 이 밖에 담배, 커피, 남새 생산도 늘었다. 그리하여 꾸바의 농업생산은 평균 40%이상 늘었다.

1971년에 규격방목지는 3천 800여개였다. 이해 소는 730여만마리였으며 닭알은 14억개를 생산하였다. 알을 낳는 닭마리수는 960여만마리였고 마리당 년평균 200개의 알을 낳았다. 우유 일인당 생산량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중 첫자리를 차지한다.

지하자원은 망간, 크롬, 니켈, 코발트, 동, 원유 등이다.

공업부문에서는 1971년에 전해 생산수준을 18% 릉가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계획과제를 평균 145%로 완수하였다. 1971년에 경공업 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20%나 늘었다. 이 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평균 22% 높아졌다. 직물생산량은 상반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6% 늘었다.

1971년에 상선대의 배수는 50척이였으며 그의 화물적재량은 43만 7천t이였다.

혁명후 보건부문에서도 획기적전진이 이룩되였는데 병원침대수는 2배로 늘고 5천 500명의 의사들과 2만 7천명의 간호원과 기술인원들이 새로 자라났다.

이해에 국가탁아소수는 540여개였다.

1971학년도에 중등학교들에서는 30만명, 초등학교들에서는 17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로농학교는 1천 329개였고 20만명이상의 학생들이 기술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

신문 그란마(공산당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아오라(오리엔떼주신문), 씨에라 마데를라, 아델란떼

잡지 꾸바 쏘씨알리쓰따(공산당리론잡지), 베르데 올리보(혁명군주간잡지), 꼰 라 빠르디아 엔알또(혁명수호위원회 기관잡지), 뻰싸미엔또 그리띠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8월 6일 경제 및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1972년 6월 9일 아바나시 10월 10일지구 라우똔구역에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보천보도서관》을 새로 열었다.

1971년 4월 15일 꾸바정치서적연구소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문 《아오라》와 《씨에라 마데를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셋째부분)를 각각 실었으며 정치리론잡지 《뻰싸미엔또 끄리띠꼬》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를, 신문 《아델란떼》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실었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지 일곱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아바나종합대학 농학부 교수 아르만도 게라는 테제가 거대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문헌이라고 높이 찬양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이 되는 1972년 4월 15일에 즈음하여 신문 《그란마》는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소개하는 론설을 실었으며 신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실었다. 4월 24일에는 《인민의 수령을 노래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진전람회가 아바나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1971년 12월 1일부터 아바나에서 꾸바제인민간의 친선협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있었다.

12월 꾸바외무성은 남조선박정희괴뢰도당의 《비상사태》 선포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0년 5월 꾸바에서는 외무부상과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일행은 방문기간 5월 17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그외에 정부대표단(6월), 인민친선대표단(7월), 기초공업성대표단(11월), 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12월), 전국문화위원회 부위원장(1월), 근로자중앙대표단(6월), 녀성련맹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는 꾸바정부통상대표단(1월), 민족은행국장(2월), 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7월), 농업근로자대표단(7월), 교육대표단(10월), 과학원대표단(11월), 가금업대표단(7월), 건축가대표단(8월), 축구선수단(5월), 유술선수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경제대표단(4월), 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7월), 녀맹대표단(3월), 작가예술가대표단(4월), 사진전람회대표단(10월), 예술단(2월), 수구선수단(5월), 평양시녀자롱구선수단(6월)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카 나 다

북미대륙의 북부에 있다. 령토의 절반이상이 북극권내에 속하므로 기후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구라파나라들 보다 차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 남쪽 연안은 강우량이 많고 따뜻하다.

【면적】 996만 547km²

【인구】 2,159만 4,000명(1971년 2월)

주민은 영국인(약 47.8%), 프랑스인 (약 30.7%), 독일인(4.4%), 인디안, 에스키모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수도】 오타와(주민 53만 6,000명, 교외인구포함, 1971년 2월)

【의회】 상하량원제

【총독】 롤랜드 미체너

【정부】 수상 삐에르 엘리오트 트루도(1968년 4월—), 외무상 미첼 샤프, 국방상 에드가지 벤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자유당(집권당), 진보보수당, 사회신용당, 신민주당, 로동회의, 카나다조선친선협회 1971년결정

정치 카나다는 16세기부터 프랑스, 영국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763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인민들의 독립운동이 앙양되였다. 영식민주의자들은 1867년 7월 《북미주법안》을 채택하고 카나다에 자치를 부여하였다. 1931년에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외교적자주권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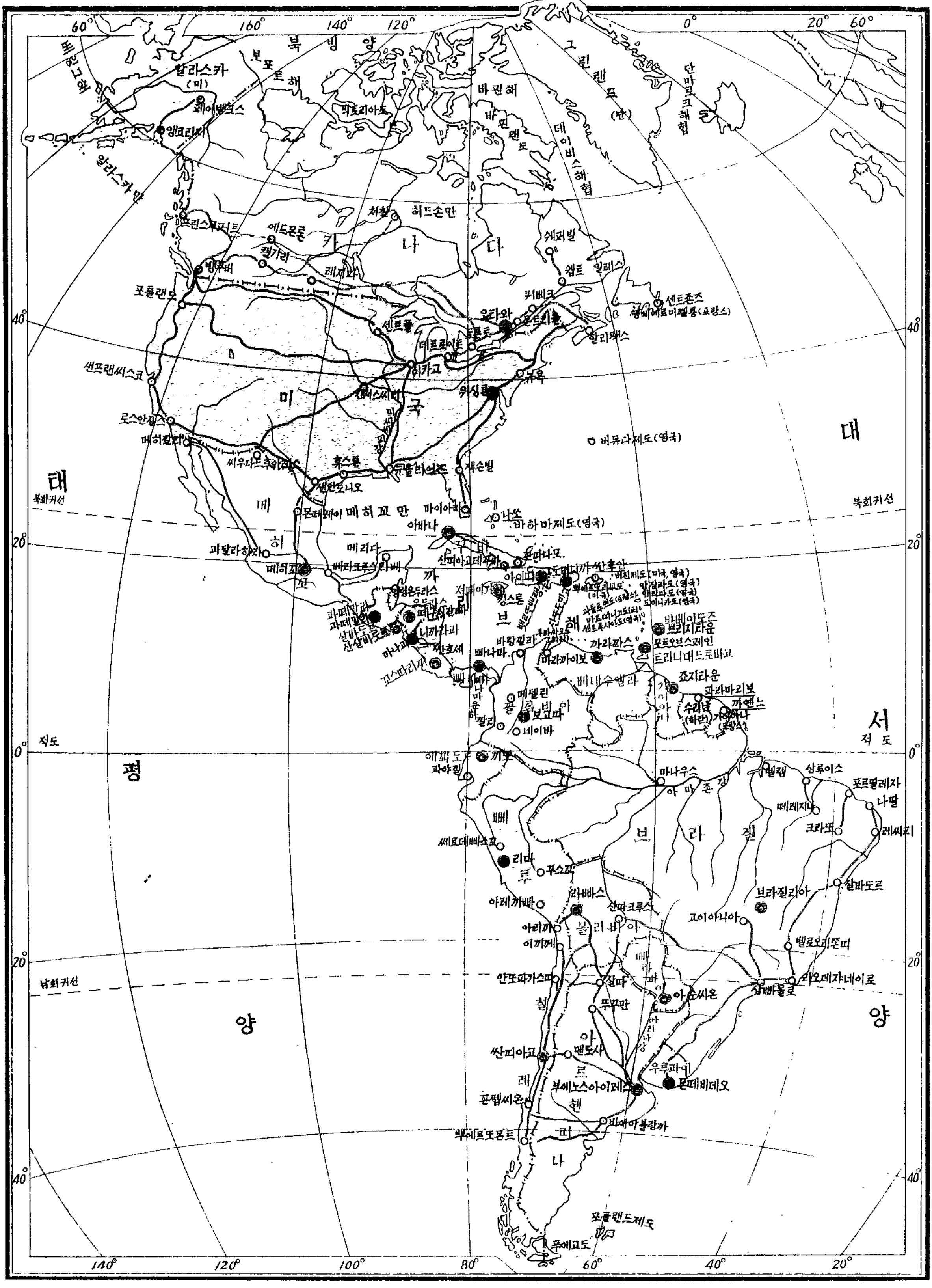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케벡크주(프랑스계 주민의 다수가 거주)를 중심으로 케벡크주분리를 위한 무장투쟁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였는바 1970년에 《케벡크해방전선》에 망라된 성원들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971년에 트루도반동정부는 미제의 경제적침략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3월 파산에 직면한 카나다의 제일 큰 석유회사를 사려는 미제의 시도를 막아버렸으며 7월초에는 외래독점체들이 카나다회사들과 통합하는것을 금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는 재판소설치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에는 기업에 대한 카나다인의 통제와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카나다개

아메리카



북 빙 양
보포트해
알라스카 (미)
페어뱅크스
앵커리지
알라스카만
바핀해
바핀랜드
데이비스해협
그린랜드 (덴)
단마르크해협
허드슨만
처칠
카 나 다
쉐퍼빌
쉡트 일레스
퀘베크
센트존즈
할리팩스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데트로이트
센트폴
시카고
뉴욕
워싱톤
미 국
캔사스씨티
에드몬톤
캘가리
레지나
밴쿠버
프린스루퍼트
포틀랜드
센프랜씨스코
로스안젤스
메히깔리
씨우다드후아레스
휴스톤
뉴올리언즈
잭슨빌
센안토니오
버뮤다제도(영국)
몬떼레이
메히꼬만
마이아미
나쏘
바하마제도(영국)
아바나
메리다
과달라하라
메 히 꼬
베라크루스
까 리 브 해
산띠아고데꾸바
바베이도즈
브리지타운
포트오브스페인
트리니다드토바고
까라까스
마라까이보
빠나마
산호세
니까라과
베네수엘라
조지타운
빠라마리보
수리남 (화란)
까옌느
가이아나 (프랑스)
메델린
콜롬비아
보고따
네이바
끼또
과야낄
뻬 루
리마
꾸스꼬
아레끼빠
라빠스
볼리비아
산따크루스
아리까
이끼께
안또파가스따
마나우스
아 마 존 강
벨렘
상루이스
포르딸레자
나딸
떼레지나
크라또
레씨페
살바도르
브 라 질
브라질리아
고이아니아
벨로오리존띠
리오데자네이로
상빠울로
아순씨온
살따
뚜꾸만
싼띠아고
멘도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루과이
몬떼비데오
꼰셉씨온
바이아블랑까
뿌에르또몬뜨
아 르 헨 띠 나
포클랜드제도
푸에고도
대 서 양
태 평 양
북회귀선
적도
남회귀선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아메리카주 나라들의 면적, 인구, 수도 일람

나라이름	면적(km²)	인구(명)	년 도	수도(행정중심지)
꾸 바	114,500	8,553,395	1970. 9	아바나
카나다	9,960,547	21,594,000	1971. 2	오타와
미 국	9,257,675	208,557,735	1971. 12	워싱톤
메히꼬	1,972,546	48,377,363	1970	메히꼬
과떼말라	108,889	5,014,000	1969	과떼말라
살바도르	21,393	3,390,000	1969	산살바도르
온두라스	112,088	2,495,000	1969	떼구시갈빠
영령온두라스	22,957	119,000	1970	벨리제
니까라과	130,000	1,915,000	1969	마나과
꼬스따리까	50,700	1,695,000	1969	싼호세
빠나마	75,650 (운하지대제외)	1,417,000	1969	빠나마
아이띠	27,750	4,768,000	1969	뽀르또 쁘랭스
도미니까	48,734	4,900,000	1969	산또 도민고
뿌에르또리꼬	8,897	2,754,000	1970	싼후안
트리니대드토바고	5,128	1,040,000		포트오브스페인
베네수엘라	912,050	12,385,000		까라까스
가이아나	214,970	742,000	1969	죠지타운
수리남	142,822	400,000	1970	파라마리보
프령가이아나	91,000	46,000		까엔느
브라질	8,511,965	90,840,000	1969	브라질리아
꼴롬비아	1,138,914	20,463,000	1969	보고따
에꽈도르	270,670	5,890,000	1969	끼 또
뻬 루	1,285,215	13,172,000	1969	리 마
볼리비아	1,098,581	4,500,000	1970	라빠스
빠라과이	406,452	2,303,000	1969	아순씨온
우루과이	186,929	2,852,000	1969	몬떼비데오
아르헨띠나	2,776,656	23,983,000	1969	부에노스 아이레스
칠 레	741,767	9,268,584	1970. 9	싼띠아고
바베이도즈	431	254,000		브리지타운
앙길라	90	6,000	1969	
그린랜드	2,175,600	39,600		고드다브
쌩삐에르, 미껠롱	242	5,025		쌩삐에르
버진	344	63,000	1970	샬로트아말리
버뮤다	53	52,000		하밀톤
바하마	11,405	195,000		나 쏘
과들루쁘	1,780	323,000	1970	바스떼르
도미니카	789	63,600		로 조
마르띠니끄	1,090	332,000		뽀르또 쁘랭스
쎈트루시아	616	96,841		카스트리
안티과	172	54,405		쎈트죤스
포클랜드	12,000	2,130		스탠리

발회사를 창설하는 한편 자국내 기업체들을 운영보호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혁법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미제가 성사시키려는 《북미대륙의 동력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할데 관한 회담을 무기한 중지하였다.

카나다는 미제의 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다양화》하여 판도난을 뚫어보려고 시도하였다. 트루도는 5월에 쏘련에 갔으며 6월에는 중국에 경제대표단을 보냈다.

한편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상 샤프놈이 상아해안, 자이르 등을 싸다니면서 소위 《경제적지원》을 약속하고 《경제협정》들을 맺었다.

미제의 전쟁확대모험책동에서 한몫을 보려는 카나다반동정부는 1971—1972회계년도에 18억 2천 500만딸라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9, 10월 암치트카섬에서 미제의 핵시험에 항의하여 반쿠버에서 1만명의 근로자들의 시위를 비롯한 각지에서 반미 시위, 집회들이 있었다. 1971년 첫 9개월동안에 406건의 파업에 20여만명의 각 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 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초보적으로 가공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과 팔프제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업생산액은 총생산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공업생산의 약 80%는 케벡크와 온타리오주들에 집중되여있다.

니켈, 백금 생산량은 세계제1위이며 그밖에 우라니움광, 석탄, 금, 은, 아연, 동, 원유, 쇠돌, 연, 주석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로 미제의 공업원료로 제공되고있으며 카나다의 기간공업의 3분의 2는 외국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카나다의 365개 큰 회사중 276개는 외국독점자본이며 그중 미제독점체가 75%를 차지하고있다. 자동차공업의 96%, 석유공업과 고무공업의 80%, 전기공업의 66%와 기계제작공업의 60%가 미제독점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1971년현재 미제독점자본의 카나다에 대한 총투자는 343억 2천 300만딸라, 그중 직접투자는 약 220여억딸라에 달하였다. 미제독점자본의 침투로 1971년에 파산된 중소기업소수는 2천 627개에 달하였다.

농경지는 이 나라 면적의 7.7%를 차지하며 인구의 약 10%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담배 등인데 밀생산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

뉴파운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은 세계 3대어장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대구, 이면수 등이 많다. 1970년 어획고는 137만 7,500t이였다.

1971년현재 극빈자수는 450만을 헤아리며 11월말현재 실업자수는 50여만명으로서 전체로동인구의 6.6%를 차지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 프레스

신문 카나디안 트리뷴(공산당기관지), 글로브앤드 메일(보수당계), 토론토 데일리 뉴스(자유당계), 썬데이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카나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에 카나다신문 《썬데이 썬》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실었다.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미국은 북미대륙의 한복판에 있다.

기후는 북극권한대로부터 남부의 아열대성기후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심하지만 대체로 온대에 속한다.

【면적】 925만 7,675km²

【인구】 2억 855만 7,735명(1971년말)

주민은 인디안(75만명), 흑인(약 3천만명),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졌다.

【수도】 워싱톤(주민 80만 8,000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리챠드 닉슨(1969년 1월 20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창건,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 홀. **흑인펜서당, 청년로동자해방동맹**, 공화당(집권당), **민주당, 사회당—사회민주주의련맹**(1972년 3월 11일 두당이 합당), **에이에프엘—씨아이 오합동로조,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위원회,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 1970년 8월결성,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1971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에서 결성

정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3페지)

미국은 해적의 무리들이 원주민인 인디안에 대한 살륙과 식민지략탈전쟁의 피바다속에서 1787년에 생겨났다. 이때로부터 20세기중엽에 이르는동안에 미제침략자들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도 110여차례의 침략전쟁과 8천 900여차의 군사적간섭을 감행하여 평토를 10배이상 넓히였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그러모은 미제는국제반동의 원흉으로, 세계제국주의 두목으로 등장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제2차세계대전직후 미제는 《반공》을 《총전략》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진압하며 서구라파나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미제는 1949년에 침략적군사동맹인 나토를 뭇고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망을 늘어놓았으며 일본과 서독에서 군국주의를 재생시켰다.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남조선을 강점하고 1950년에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안쥬스(1951년), 세아토(1954년), 쎈토(1955년) 등 침략적군사동맹을 연거펴 조작하였고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자기의 추종국 및 괴뢰도당들과 쌍무군사협정을 맺고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포위하고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침략적군사망을 완성하기에 날뛰였다.

미제는 1961년 쁠라야 히론침입, 1962년 까리브해위기의 조성 등 꾸바에 대한 침략책동을 감행하였으며 1965년에는 도미니까인민들의 애국적무장봉기를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1961년에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라오스에 대한 무장간섭을 감행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시작함으로써 인도지나전역에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1968년 11월 미제의 새로운 두목으로 들어앉은 닉슨은 선행자들의 침략정책을 답습하면서 패배에 직면한 저들의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

다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닉슨놈은 1969년 2월 아세아의 5개 추종국 및 괴뢰국가들의 행각에서와 그에 앞서 괌도 《기자회견》에서 악명높은 《닉슨주의》을 내놓고 이른바 정책변경에 대하여 떠들면서 보다 모험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였으나 이것 역시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습니다. 미국안에서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대중적으로 앙양되고있으며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은 지속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1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계속 심대한 타격을 받고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쇠퇴와 몰락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세계도처에서 녹아나는 미제 1971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정치, 경제, 군사적 출로를 찾으려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였으나 가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 국제적고립은 더욱 심화되였다.

이해에 미제는 악명높은 《닉슨주의》에 기초한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아세아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음모책동을 미친듯이 추진시켰다.

이러한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을 위하여 닉슨도당은 5월 20일에 218억 8천만딸라의 《무기조달법안》을 통과시켰고 1972회계년도에 대외 《원조》로서 40억딸라(전년에 비해 4억딸라증가)를 지출하여 그 대부분을 아세아괴뢰들과 추종국가들에 퍼부었다. 이리하여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조성하였다. 한편 미제는 《평화》, 《협상》, 《미군철수》 따위의 나발을 소란하게 불어대면서 자신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평화》의 막뒤에 숨어 전쟁확대모험으로써 저들의 파국의 처지를 돌려세우려는 책동은 특히 인도지나에서 횡포하게 감행되였다.

수년간 인도지나에서 패배를 거듭하여온 미제는 1971년에 《닉슨주의》를 실현시켜보려고 남부웰남에서 4월부터 《람손 720》 작전, 라오스의 9호도로에서 년초부터 《람손 719》 작전, 캄보쟈의 동북부전선에서 8월중순부터 《첸라 2호》 작전 등을 비롯한 대소규모작전들을 벌려놓고 미제침략군과 괴뢰군, 추종국가고용병들을 내몰아 파괴전쟁을 강화하기에 더욱 분별없이 날뛰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작전들은 인도지나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여지없이 참패를 보았으며 1971년에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 살상당한 미제침략군과 추종군 및 괴뢰군수는 38만여명에 달하였다.

미제는 매해 300억딸라의 전쟁비용을 탕진하고있는 웰남침략전쟁에서만도 1969년부터 1971년 6월까지 121만 5천명의 침략군을 잃었으며 1만 3천 460대의 각종 군용비행기를 포함한 수많은 군수기재들을 파산당하였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더 효과적으로 써먹기 위한 군사정치적음모책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닉슨도당은 사또일파와 6월 17일 범죄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 조인놀음을 벌림으로써 일본본토까지도 오끼나와와 같은 미제의 핵공격기지로 전변케 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아세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길을 터놓았다.

7월에는 미제호전광 부대통령 애그뉴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일본의 사또놈과 함께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미, 일, 한 공동군사작전체제》 완성을 모의하였다. 이에 앞서 5월 조선동해에서, 6월에는 오끼나와북부에서 일본군국주의,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군사연습》 소동을 벌림으로써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1971년 1월부터 14개월동안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무려 1만 4천 760여건의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의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과의 군사정치적공모결탁과 조선에서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은 우리 나라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쳤다. 일본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과 대미추종정책의 련속적인 파탄으로 인하여 일본지배층내의 혼란과 아귀다툼으로 하여 사또일파의 지반은 건잡을수 없이 뒤흔들리게 되였다.

이해 미제는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라는 간판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면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에로 적극 사촉하였다. 한편 놈들은 요르단반동들을 그슬러 아랍나라들을 내부로부터 교란시켜보려고 악랄히 책동하였다.

아랍인민들은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놈들의 흉계를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준비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팔레스티나항쟁투사들은 아랍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혁명적공세를 분쇄하고 적강점지역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보복을 안겼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을 내세워 아랍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던 미제의 전략은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10월 25일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고 미제의 충실한 주구 장개석도당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이 20여년동안이나 실시하여오던 중국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과 중국을 약화시키고 질식시키려던 봉쇄고립정책은 완전히 파산되였다. 결국 닉슨은 지난날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제침략자들이 판문점에 흰기를 들고 나오듯이 국교관계가 없는 중국에 흰기를 들고 구걸 외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미제국주의는 지어 제놈들의 충실한 《동맹자》와 추종자들의 랭대와 항거, 조소에 부딪쳐 더욱더 궁지에서 허덕였다. 미제의 많은 《동맹자》들은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더러운 전쟁》, 《간섭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인적, 물적지원은 물론 상징적지지조차 외면하였다.

8월에 닉슨도당이 《딸라방위책》을 선포한 이래 《통화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제국주의렬강간에는 추악한 개싸움이 벌어졌으며 그들은 일관하게 미제가 《딸라방위책》의 한고리로서 내놓은 《10%수입부가세》를 철회하고 《금가격인상에 의한》 딸라의 평가인하와 딸라를 《기준통화》로 하지않는 새로운 국제통화체계의 확립을 요구하여나섰다. 이처럼 자본주의세계에서도 저들의 《특권적지위》와 그의 《명령정책》이 더는 통할수 없게 되자 12월중순 미제는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기준통화》로서 37년간 고정시켜온 딸라의 공식가치를 처음으로 인하하는데 동의하고 《10%수입부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쳐 미제의 마지막 생명선은 여기저기에서 끊어져갔다.

앙양되는 인민들의 투쟁 1971년에 미제국주의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계속 얻어맞고 녹아났을뿐아니라 미국안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

닉슨도당은 소위 《번영》, 《복리》의 공담대신 경찰폭압기구를 늘이기 위하

여 1972회계년도에 2억 8천 500만딸라를 쏟아붓고 무려 937억딸라(전년도보다 54억딸라증가)의 세금을 근로자들에게 들씌웠다. 저주로운 징병제를 2년간 더 연장하고 년간 10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징집하여 전쟁터에 내몰았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내부모순은 더욱 격화되였다.

이해 미국인민들의 반전반정부투쟁은 그 규모와 조직성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계속 고조되였다. 《로동자학생동맹》, 《공동의 위업》, 《전쟁을 반대하는 웰남전쟁참가퇴역군인회》를 비롯한 많은 반전단체들이 새로 조직되여 반전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였다.

2월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발단으로 하여 5월까지 반전투쟁은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2월 10일 진행된 전국적인 반전투쟁은 《1969년 10월이후 가장 큰 반전시위》로서 전국각지를 진감하였으며 4월 24일 100여개의 반전단체들은 《전국평화행동련합》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100여만의 각계층 인민들을 망라한 공동투쟁을 벌렸다.

5월 1일과 2일 워싱톤에서 전국의 여러 주들에서 온 수만명의 반전시위자들은 《인도지나전쟁을 당장중지하라!》, 《정권을 인민들에게로!》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수천명의 반동경찰놈들과 《주방위군》, 지어 완전무장한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치렬한 격전을 벌렸다.

10—11월에는 전쟁과 닉슨도당의 반동적인 《신경제정책》, 그리고 암치트카섬에서의 지하핵시험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여 또다시 전국각지에서 반전운동이 폭발하였다.

미제 두목 닉슨도당의 저주러운 인종주의적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폭동적진출은 여러 도시들은 물론 미제침략군병영, 감옥들에서까지 전개되였다.

미국도처에서 계속 일어나고있는 반전운동은 웰남전쟁터에 끌려나갔던 퇴역군인들이 합류되여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도 반전사상과 염전사상이 날로 높아갔다.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에서 항공모함 《코랄씨》 호가 남부웰남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할때 30여명의 병사들이 웰남침략전쟁참가를 반대하여 승선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앞서 《콘스텔레이숀》 항공모함이 캘리포니아주의 싼떼아고를 출항할 때에도 10명의 해병들이 승선을 거부하여나섰다.

웰남전쟁터에 끌려나간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 도주자는 늘어나고있으며 마약중독자수는 1970년에 50%, 1971년에 60%로 늘어났다.

이해에 미국에서 독점자본의 지배와 착취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진출이 장기성, 격렬성을 띠고 치렬히 전개되였다.

특히 미제두목 닉슨도당의 《신경제정책》의 선포를 전후하여 《임금동결》조치를 반대하는 파업투쟁이 격렬하였다.

7월 1일에 돌입한 미국서부해안 일대의 1만 5천명의 부두로동자들의 3개월이상에 걸치는 파업투쟁에 이어 10월 1일 동부해안과 멕시코만부두로동자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거의 모든 항구들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해상수송이 완전히 멎어버렸다. 닉슨도당은 반동적인 악법인 《타프트 하틀리법》을 발동하여 총파업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는 《비상조치》까지 취하는 파쑈폭압행위를 감행하였다.

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과 때를 같이하여 10월 1일 미국에서의 석탄생산을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뜨린 20개탄광을 휩쓴 10만탄광로동자들의 44일간의 파업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고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1971년에 미국에서 4천 900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320만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독점자본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심화되는 경제위기 1969년 8월부터 전후 다섯번째 위기를 겪고있는 미국경제의 만성적인 성격은 1971년에 더욱 심화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인도지나에서의 침략전쟁의 계속 확대, 경제의 군사화에서 찾아내려고 군수품생산을 발광적으로 다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우지 못하였다.

1971년에 미국경제위기는 어느 한 부문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산업과 재정금융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위기를 겪었다.

미국의 공업생산지수는 1971년 11월에 다섯번째 위기가 시작되였던 1969년 같은달에 비해 3.7%나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71년의 강철생산은 《25년이래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이해 미국에서는 공업생산설비의 27%가 가동하지 못하였으며 평균 조업률은 75.4%밖에 안되였다.

강철생산의 조업률은 4.4분기에 50%까지 대폭 줄었다.

생산의 감퇴와 조업률의 단축으로 수많은 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파산몰락하였다.

한편 재정금융분야에서의 위기도 더욱 걷잡을수 없이 심화되였다. 그것은 국가재정상태의 부단한 악화와 통화팽창의 격화, 국제수지적자의 급격한 증대와 심각한 딸라위기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6월에 끝난 1971회계년도의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적자의 근 2배에 달하는 무려 232억 4천 200만딸라라는 적자를 냈다.

또한 미국반동정부가 걸머진 국가채무액은 계속 늘어나서 4천 294억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에 이르렀다. 그중 약 20%에 해당하는 800억딸라가 닉슨도당의 집권기간에 새로 불어났다.

닉슨도당의 무모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하여 통화팽창이 또한 격화되였다.

통화팽창률은 1970년의 9%로부터 1971년 5월말에는 11%라는 《기록적인 속도》를 내였다.

대외무역에서는 1888년이래 최악상태로 굴러 떨어져 1971년에 20억 4천 700만딸라의 막대한 적자를 냈다.

무역수지의 이러한 악화는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해외군사비지출및침략적인 대외《원조》와 전반적국제수지를 더한층 악화시켰다.

1971년에 미국의 국제수지에서는 《미국력사상 최고기록》을 내였다고 떠들었던 1970년의 약 3배에 달하는 296억딸라의 적자를 냈다. 해외단기채무만하여도 1971년 8월 574억딸라에 달하였다.

국제수지적자의 이와 같은 증대는 금보유량의 부단한 감소를 가져오며 딸라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의 금보유액은 전후 최고기록이였던 1949년의 246억딸라로부터 1972년 2월현재 95억 8천800만딸라로서 1935년이래 처음으로 100억딸라이하로 대폭 줄었다. 이것은 사실상 해외단기채무액의 5분의 1도 채 물어줄수 없는 액수이다.

그리하여 서방자본주의금융계에서는 금의 담보를 상실한 미국딸라와 금과 바꾸는 《금구입》 소동을 빚어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질린 닉슨도당은 8월 15일 이른바 《딸라방위책》(《신경제정책》)이라는것을 내걸고 《딸라와 금과의 교환을 정지》하고 《100% 수입부가세》를 실시하며 《90일간 임금 및 물가를 동결》한다는 《비상대책》을 취하였다.

심각한 재정금융위기의 중하를 저들의 《동맹국》들에 들씌워 제 리속만 채우려는 《딸라방위책》은 국내외의 강력한 배격과 반발에 부딪쳐 12월 8일 닉슨도당은 딸라의 평가를 7.89%인하하

고 《10%수입부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것을 선언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농업에서도 위기를 겪었다. 1971년에 농장들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20억딸라나 감소되였다. 이 기간 파산된 농장수는 5만 5천개에 달하였으며 30만명을 헤아리는 중소농장경영자들이 파산몰락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업자대군을 확대시켜 미국사회경제적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악화되는 인민생활, 썩고 병든 사회 미국에서는 극소수의 대독점자본가들이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실권을 장악하고있다. 모르간(금융독점자본), 록펠러(석유독점자본)를 비롯한 8대 재벌들이 미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다.

1971년에 미국독점체들과 그 통제하에 있는 자매회사들이 긁어모은 수입은 1970년보다 15%나 늘어난 474억딸라에 달하였다. 그중 《제네랄 모터스》 한개회사의 순 리윤만 하여도 19억 3천 600만딸라에 이르렀다.

독점자본가놈들은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중소기업소들은 금융난, 판로난에 빠져 무리로 파산되였으며 그에 따라 실업자는 현저히 늘어났다.

1971년 12월현재 실업률은 닉슨이 집권당시인 1969년의 2배인 6.1%에 달하였다. 그중 흑인들의 실업률은 12월에 10.3%, 청년들의 실업률은 14.5%였다.

1971년말현재 완전실업자수는 521만명, 반실업자까지 합하면 1천만명이상에 이르렀다. 이밖에 근 8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에 쪼들리는 극빈자였다. 게다가 50만명을 넘는 파산당한 농민들이 매해 도시로 밀려들고있다.

인플레의 격화로 인하여 물건값과 생계비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1971년 12월에 뉴욕에서 전기세는 12.5%, 집세는 7.5%, 학생옷 등 대중소비품값은 3.4~8.5% 각각 올랐다. 극히 축소된 발표에 의하여도 생활비지수는 8월에 0.3%, 9, 10, 11월 석달동안에 또 0.2% 뛰여올랐다.

미국근로자들은 매해 52만명이 병원문전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고있다. 당장 치료대상의 어린이들만 하여도 1천만명을 헤아린다.

1천 400만명이상의 학령아동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있으며 2천 450여만명의 청년들이 문맹자이다.

범죄의 소굴 뉴욕에서는 1971년 8월에 전년 8월에 비하여 살인사건만 하여도 43%나 늘었다.

썩고 병들어가는 미국에서 18~25세까지의 청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려진 마약중독자수만 하여도 1971년 현재 56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신문 워커(공산당기관지) 데일리 월드, 블랙크 펜서(흑인펜서당기관지), 가디언, 뉴욕 타임스, 워싱톤 포스트, 헤랄드, 트리뷴,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에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0년까지에 뉴욕에 있는 출판사 《가디언》 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 영문판 제1, 2, 3 부 수만부를 출판하였다. 한편 《뉴욕 타임스》지 1969년 10월 27일호는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제1부》라는 제목으로 옹근 한면에 걸쳐 《김일성전》 제1부를 소개하는 글과 새로 출판될 제2부와 제3부의 내용을 알리는 글을 실었다.

뉴욕에 있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출판사 《인터내슈날 파블리셔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포함한 1955—1970년사이에 발표된 9편의 로작들을 편집수록한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문헌집을 출판하였다.

1970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헨리 윈스톤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10월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에 미국청년로동자해방동맹대표단, 미국병사동맹 위원장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8월), 미국전국법률가조합대표(10월)가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메히꼬

(메히꼬합중국)

북미대륙의 남단에 있다.

해안지대는 열대성, 중간지대는 아열대성 기후이다. 북부는 비가 많이 오나 남부는 적게 온다.

【면적】 197만 2,546km²

【인구】 4,837만 7,363명(1970년말)

주민의 60%가 에스빠냐—인디안혼혈인이며 인디안이 30%, 백인 10%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메히꼬(주민 760만 6,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1970년 12월—), 외무상 에밀리오 라바사, 국방상 에르메네힐도 꾸엔까 디아스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될수 없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15일에 창건,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 립헌혁명당(집권당), 국민행동당, 인민사회당, 로농당, 민족주의당, 민족해방운동, 로동자농민총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메히꼬조선친선협회 1970년 10월 결성

정치 메히꼬는 1521년부터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6일에 독립하였으며 1824년에는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립헌혁명당이 50년간 1당독재정권을 유지하고있다. 1968년 9월 1당독재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규모적인 투쟁이 있었다. 1970년 7월 대통령선거에서 립헌혁명당의 후보가 당선되였다.

1961년 4월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불간섭원칙을 견지하였으며 꾸바와의 관계를 끊을데 대한 《미주국가기구》의 결정을 거부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견지한 미주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1971년 1, 2월에 메히꼬는 자기 나라 령해를 침범한 미제해적선 2척을 붙들어 벌금을 부과시켰다.

10월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장개석도당을 즉시 내쫓을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찬성투표하였으며 11월에는 자기 나라에 있던 장개석도당의 《대사관》을 추방하였다.

한편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압살하려고 시도하면서 국내반동들은 각주에 《반공련맹》을 비롯한 여러가지 테로단을 조작하여 놓고 진보적인사들과 애국적청년들을 마구 학살하며 그들의 조직을 파괴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5.1절에 즈음하여 약 100만의 메히꼬근로자들은 일자리의 보장,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착취행위를 규탄하여 시위를 벌렸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경지면

적은 전평토의 15%(3천만ha)에 불과하며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사이잘삼, 목화, 커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강냉이는 경작지의 53%를 차지한다. 사이잘삼은 세계공급량의 50%를 생산한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공업의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은생산량은 세계제1위이며 1968년에 1천245t 생산하였다. 그밖에 금, 아연, 연, 동, 철, 류황, 석유 등이 있다. 그러나 채취공업의 대부분과 전력, 화학, 식료(90%이상) 공업은 미제독점체들이 독차지하고있다.

1971년에 메히꼬에 대한 제국주의, 주로 미제독점자본의 투자액은 25억딸라나 늘었다. 반면에 메히꼬의 대외채무는 38억딸라에 이르렀다.

석유공업은 1938년에 국유화되였다. 정부는 미제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71년 8월 미제독점자본의 가장 큰 동광회사주권의 대부분을 사들였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반기아상태에 있으며 로동인구의 4분의 3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있다. 매년 약 15만명의 어린이들이 굶어죽는다.

1971년에 25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 엑셀시오르, 엘나씨오날, 울띠마스 노띠시아스, 엘디아. 잡지 씨엠뿌레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우리 나라 5.1절기념행사에 참가한 메히꼬주간잡지 《씨엠뿌레》 아바나주재 특파기자가 이 잡지에 두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방문기를 실었다.

1970년에 10월 메히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 제1부를 메히꼬의 이름난 출판사인 《인민문화사》가 에스빠냐어로 출판하였다.

과떼말라

(과떼말라공화국)

중미대륙의 서부메히꼬의 남쪽에 있다. 평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이다.

저도게절풍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5~30°C, 강수량은 2천~3천mm이다.

【면적】 10만 8,889km²

【인구】 501만 4,000명(1969년)

주민은 인디안, 혼혈인, 기타 백인과 흑인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과떼말라(주민 약 65만 2,930명)

【국민의회】 1원제

【정부】 대통령 까를로스 마누엘 아라나 오소리오(1970년 7월—), 외무상 이바르겐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에 로동당으로 고침,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러도 몬손. 혁명당, 민족해방운동(집권당), 립헌민주당 (집권당), 민족혁신당, 기독교민주당, 로조련맹, 애국로동청년

정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고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1년 민주력량의 지지밑에 수립된 아르벤스정부가 민주주의적인 일련의 법령을 채택하자 미제는 반동들을 사촉하여 1954년 6월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1960년 4월 반동정부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자국령토를 미제의 반꾸바책동의 근거지로 내맡겼다.

1970년 7월에 집권한 오소리오친미독재정권은 이해 《계엄령》,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반미반독재투쟁에 궐기한 진보력량을 탄압하고있는데 1970년 7월부터 1년동안에 2천여명의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71년에는 반동적국회를 발동하여 《평정계획》을 꾸며내여 미제 《고문》 놈들의 직접적지휘밑에 반동군경놈들과 《노아》, 《마노 블란까》 등 반동적테로단체들을 내몰아 수천명의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하여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감금하였다.

미제는 이 나라 반동경찰유지비로 해마다 200만딸라를 지출하며 지어 《경찰학교》를 설치하는데만도 40만딸라를 탕진하였다.

과떼말라의 애국적인민들은 1962년부터 《과떼말라를 위한 승리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밑에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유격투쟁을 진행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강냉이, 벼 등이다. 커피는 해마다 20만t이상 생산되며 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커피농장은 1만 2천개이나 수확의 80%는 1천 500개의 대농장주가 독차지하고있다. 연, 아연, 은, 안티몬, 크롬 등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림산자원이 많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과실회사는 바나나와 커피를 독점하고있으며 모든 항구, 그리고 수출의 4분의 3을 틀어쥐고있다. 미제는 해마다 과떼말라에서 1억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낸다.

국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출판보도】 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지 서른아홉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971년 4월 아바나에 있는 과떼말라혁명조직대표 아르만도 레모뜨라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1967년 우리 나라 5.1절기념행사에 과떼말라로동당정치국 위원이며 비서국 성원이며 봉기무력전국지도부 성원인 가브리엘 살라싸르가 참가하였다.

1971년 6월 과떼말라애국로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살바도르

(살바도르공화국)

중미나라들중 제일작은 나라로서 태평양에 면해있다. 나라의 대부분이 산악과 고원 지대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 500~1천 800mm이다.

【면적】 2만 1,393km²

【인구】 339만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며 기타는 백인, 인디안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산 살바도르(주민 47만 1,860명, 1968년)

【의회】 일원제, 1970년 3월선거에서 국민화해당 37석, 기독교민주당 15석 차지.

【정부】 대통령 피델 싼체스 에르난데스(수상 겸임, 1967년 7월—), 외무상 프란시스꼬 호쎄게레로

【정당】 공산당 1930년에 창건, 지도자 호르페시피끄 한달리. 국민화해당, 혁신행동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5월 9일 혁명당, 혁명청년동맹

정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823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839년 9월에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내란과 정변이 많아 정권교체가 빈번하였으며 력대로 집권자들은 친미독재통치를 실시하여 왔다. 살바도르는 1947년에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유엔조선위원단》에 참가하였다.

1961년 3월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1962년에는 《반공법》을 조작하여 인민탄압에 날뛰고있다. 1965년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통합군》에 가담하였다. 산 살바도르에는 침략적인 《미주국가기구》 본부가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열네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경지면적의 3분의 2를 독점하고있다.

주산물은 커피이며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한다. 목화, 강냉이, 사탕수수, 벼등도 난다.

평균수명은 30세이며 주민의 80%는 문맹자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살바도르 작가 로께 달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온두라스

(온두라스공화국)

중미의 중앙부에 있다. 까리브해안의 평지는 기온이 높고 년평균강수량이 5천mm에 달하나 산악지대는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다. 령토의 4분의 3이 고원지대이다.

【면적】 11만 2,088km²

【인구】 249만 5,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15만 4,400명)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로만 에르네스또 끄루스(1971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비법화). 국민당(집권당), 자유당, 민족개량운동당, 로조련맹

정치 152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다. 1823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839년에 탈퇴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반동적인 국민당과 자유당이 엇바꿔가면서 100여년동안 독재정치를 실시하고있다.

1971년 3월 28일 40여년(1932년이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여 1963년 10월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던 로뻬스정권이 전복되고 국민당정권이 수립되였다.

이해 2월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된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중미방위러사회》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온두라스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미제의 《협조와 자금》으로 작성된 정부의 미국식 《교육강령》 도입책동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전체 인구의 5.2% 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 등이며 목재자원도 있다. 지하자원은 금, 은, 연 등이다. 바나나경작지와 광산들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로동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이며 인구의 5분의 4가 문맹자이다. 신발도 없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주민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영령온두라스

중미의 유가단반도의 남쪽에 있다. 열대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4~27°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천mm이다. 령토의 92%가 산림지대이다.

【면적】 2만 2,957km²

【인구】 10만 6,000명

주민의 50%가 흑인이고 기타는 백인과 혼혈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행정중심지】 벨리제(주민 4만명)

【정부】 수상 죠지 프라이스(1964년 1월—)

【정당】 인민통일당(집권당) 1950년에 창건. 민족독립당

정치 1862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1964년 1월부터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내부자치》를 실시하며 초대수상으로 인민통일당의 프라이스가 취임하였다.

경제 경제의 기본은 림산업이다. 특히 이깔나무가 많으며 목재를 많이 수출한다. 고무, 바나나, 사탕수수, 야자, 쌀 등이 난다.

니까라과

(니까라과공화국)

중앙아메리카의 중앙에 자리잡고있다.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령토의 절반이상이 밀림지대이다. 고원지대는 따뜻하고 해안지대는 무덥고 화산이 많다.

【면적】 13만km²

【인구】 191만 5,000명(1969년)

주민의 70%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며 기타 흑인, 백인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마나과(주민 39만 7,663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겸 수상 아나스따시오 소모사(1967년 5월—), 외무상 로렌소 게레로

【정당】 사회주의당 전신은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 1944년에 사회주의당으로 고침, 1945년 이래 비법화. 싼디노민족해방전선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제1비서 까를로스 쏜세라. 국민자유당(집권당), 전통보수당, 독립자유당, 공화동원당

정치 152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고 1838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7년 2월 5일 30년간(1936년부터 1963년까지 소모사와 그 아들이 집권) 파쑈독재를 실시하던 소모사일당이 또다시 협잡선거를 통하여 집권하고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면서 인민탄압에 날뛰고있다.

니까라과인민들은 1959년부터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반미반정부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친미반동도당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전체토지의 80%이상을 소모사일당의 25가족이 독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동, 주석, 망간 등이 있다.

1970—1971학년도에만도 25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출판보도】 신문 라 쁘렌싸(전통보수당기관지), 디아리오 노베다데스(정부기관지), 오리엔따씨온 뽀쀨라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2월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싼디노민족해방전선 중앙지도부 제1비서 까를로스 쏜세라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월 니까라과싼디노민족해방전선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공화국)

중미의 니까라과와 빠나마사이에 있다.

축축한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강수량은 3천mm이다.

【면적】 5만 700km²

【인구】 169만 5,050명(1969년)

주민은 에스빠냐계의 백인과 혼혈인이 97%를 차지한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산 호세(주민 19만 6,700명)

【국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겸 수상 호쎄 피게레스 페레르(1970년 5월 8일—)

【정당, 사회단체】 인민전위당 전신은 1930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현재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민족해방당(집권당), 민족통일당, 자유당, 공화당, 기독교민주당, 근로자총련맹, 혁명청년동맹

정치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다. 1824년에 《중미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838년에 련방해산과 동시에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미, 영독점자본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는데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 미제가 영제국주의세력을 배제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

꼬스따 리까인민들은 오랜기간 미제의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으며 1948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1953년에 성립된 피구에레스정부가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미제독점체들의 략탈을 반대하여 나서자 미제는 1955년 니까라과반동들을 사촉하여 꼬스따 리까에 대한 무장침공을 감행하였다가 진압되였다. 1956년 1월 꼬스따 리까와 니까라과간에 《무장충돌을 방지할데 관한 협약》이 조인되였다.

1948년에 군대를 폐지하고 경찰과 해안경비대만 두고있다.

정권은 헌법에 의한 선거로 교체되고있다.

1971년 2월 정부는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미제의 침략적 군사기구인 《중미방위리사회》에서 탈퇴하였다.

5월에 꼬스따 리까와 메히꼬간에 제국주의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불평등한 조건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71년 5월에 꼬스따 리까인민전위당 제11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새 지도기관을 선거하였으며 당의 새 규약과 당의 당면투쟁강령을 채택하였다.

경제, 회사 인구의 절반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담배 등이다. 커피가 외화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커피, 바나나는 미제의 《유나이떼드》 과실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절반이상이 기아임금을 받고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질병에 걸려있다. 주민의 50%이상이 살림집이라고 말할수 없는 곳에서 산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레뿌블리까(민족해방당기관지), 디아리오 데 꼬스따 리까(민족통일당기관지)

빠 나 마

(빠나마공화국)

빠나마는 중미와 남미주를 련결하는 지대에 있다. 중앙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련결하는 빠나마운하가 있다. 열대성기후이며 까리브해안은 비가 많이 온다.

【면적】 7만 5,650km²(운하지대는 제외)

【인구】 141만 7,000명(1969년, 운하지대는 제외)

주민은 인디안과 혼혈인(72%), 흑인(14.5%), 백인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빠나마(37만 3,200명)

【정부】 대통령 데메뜨리오 라카스(1969년 12—월), 외무상 후안 안또니오 떼끄, 국가경비대 사령관 오마르 또르리호스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30년에 창건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 전국민족애국련합당, 민족동맹, 사회당, 선봉인민운동, 로동조합총련맹, 공산주의청년.

정치 빠나마는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꼴롬비아에 병합되였다. 1903년에 미제는 꼴롬비아로부터 빠나마를 떼내여 독립케 하고 그해 11월에 예속적인 《미국—빠나마조약》을 강요하여 운하와 그 량안지대를 《영구조차지》로 탈취하였다.

1903년의 불평등조약을 반대하며 운하지대의 모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1964년에 운하문제에 관한 《협상》에 응하지않을수 없었으나 운하지대를 영구강점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면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빠나마정부는 1970년 8월 미제의 리오 하토군사기지를 철폐하였으며 1971년에는 6차에 걸쳐 미제가 운하지대를 리용하여 빠나마의 자주권을 침해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미제에 강력한 항의를 들이대였다.

1971년 2월에는 빠나마에서 파괴암해책동에 날뛰던 미제의 《평화군》 120명의 간첩악당들을 몽땅 내쫓았으며 미제가 운하지대를 친미주구들의 망명피난처로 리용하는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1971년 6월 29일 다시 열린 미제와의 《협상》에서 빠나마측은 운하의 방위 및 운영권을 운운하는 미제의 예속적인 절충안을 배격하고 운하지역에 대한 자주권의 인정,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빠나마에 통합시킬것을 주장하였다.

이해 10월 11일 15만명의 수도시민들은 운하지대로부터 200메터 떨어진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비대사령관 또르리호스는 군중집회에서 빠나마사람들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미제에 강점된 운하지대를 되찾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은 미제의 경제적략탈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도 강화하였는데 이해 9월 미제기업체들에서 일하는 7천명로동자들이, 12월에는 운하지대의 뻐스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정부는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5월 꼴론주에 있는 미제의 《카티바사탕수수재배원》의 22개 농장을 몰수하였다.

빠나마정부는 미제의 령해침범을

반대하여 1967년에 빠나마의 령해는 200마일이라는것을 선포하였으며 1971년 6월에 200마일령해권을 고수한다는 빠나마의 립장을 다시 천명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나 식량의 약 60%를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쌀, 파인애플, 강냉이, 코코아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철, 수은, 류황, 석유 등이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자본의 예속하에 있다. 운하사용료(년간 193만딸라), 운하지대에 공급하는 상품과 봉사수입, 관광수입 등이 국가수입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신문 모멘또(인민당기관지) 에스뻬렐라 데 빠나마, 라 오라, 아뜰란떠꼬, 울떠마 오라

빠나마운하지대 빠나마운하량측 8km의 지대를 말한다(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면적】 1,676.3km²(그중 륙지면적 952km²)

【인구】 5만 6,000명(그중 미국인 4만 1,817명)

【행정중심지】 발보아 하이쯔

1903년에 불평등한 《미국—빠나마조약》에 의하여 이 지역을 강점한 미제는 1904—1914년기간에 운하를 건설하였다. 미제는 운하지대에 총독과 침략군(까리브해통합사령부를 두고 있다.)을 파견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빠나마인들의 운하지대에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고 운하지대를 《나라안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운하에서 매년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운하의 넓이는 90~300m, 길이는 약80km이며 매해 1만 4천척의 선박이 통과할수 있다.

미제는 지금의 운하로부터 약 10마일밖에 새로운 수평운하를 건설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빠나마인민당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빠나마인민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10월 19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빠나마인민당대표단 성원이였던 《모멘또》 신문 책임주필 에에스 안또니오 마르끄는 이 신문에 우리 나라 방문기를 실었다.

6월에 빠나마공산주의청년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아 이 띠

(아이띠공화국)

까리브해상에 있는 아이띠섬의 서쪽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년평균 기온은 24~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이 2천mm 내외이다. 산지가 많다.

【면적】 2만 7,750km²

【인구】 476만 8,000명(1969년)

주민의 90%가 흑인이며 기타는 물라드인(혼혈인), 백인이다.

중미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일반적으로 크레올어도 쓰고있다.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25만명)

【립법회의】 일원제

【정부】 대통령 쟝 끌로드 듀발리에(수상겸임, 1971년 4월—), 외무상 라이몬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통일당 1969년 3월에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창건(1948년 2월 이래 비법화). 혁명행동통일당 (집권당), 사회민주당, 민주련맹당, 혁명해방전선, 전국해방운동, 전국로동총련맹, 통일공산주의청년동맹.

정치 1697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1804년에 프랑스침략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1806년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15년부터 다시 미제의 강점하에 있다가 1934년에 미제침략군을 몰아냈다.

독립이래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물라드인이 인민들에 대한 탄압정책으로써 독재정권을 유지하고있다.

1957년에 정권을 탈취한 친미독재자 프랑수아듀발리에놈이 1971년 4월에 죽고 그 아들(20살)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미제는 이 새로운 친미독재자를 내세워 제놈들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띠해안에 군함과 경비정 그리고 수만명의 침략군을 동원하여 군사연습 등 해상봉쇄에 미쳐날뛰였다. 한편 8월 미제는 이 나라의 반미반정부 투사들의 혁명적진출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기와 군사장비 《원조》를 강화하며 군사 《고문》놈들을 파견하여 아이띠경찰놈들을 훈련시키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사한다. 경지면적은 전국령토의 3분의 1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아연광, 망간, 석탄, 석유 등이나 채굴량은 적다.

주민의 80%이상이 문맹자이다. 미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다.

로마 카톨릭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아이띠 져널, 떼라띠오날, 부칸(공산주의자통일당 월간 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에 아이띠 통일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도미니까

(도미니까공화국)

까리브해상에 있는 아이띠섬의 동쪽 3분의 2를 차지한다.

기후는 열대성에 속한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4만 8,734km²

【인구】 432만명(1970년)

주민은 인디안—구라파혼혈인(60%), 백인(28%), 흑인 (12%)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산또 도민고(주민 57만 7,780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외무상 마누엘 페르난데스, 국방상 엔리께 뻬레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5년에 창건,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꼰데. 혁명당 지도자 후안 보슈. 개혁당(집권당), 인민운동당, 공산청년동맹, 로동총련맹, 녀성련맹

정치 1492년부터 에스빠냐, 그후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으나 1822년에 아이띠에 정복되였다. 1844년에 아이띠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16~1924년까지 미제침략군이 강점하고있었다.

1930년 정변이후 30년간 뜨루힐로 1가의 테로독재가 계속되여오다가 1962년 12월 30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결과 대통령으로 된 혁명당의 후안 보슈는 진보적인 개혁을 예견한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63년 9월 미제의 사촉에 의한 군사정변으로 전복되였다.

1965년 4월 반동적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의 전국적인 무장봉기가 일어나 까아마니오를 림시대통령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였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브라질, 꼬스따 리까, 온두라스, 니까라과, 살바도르 등 제놈들의 졸개들로 《중미통합군》을 조작하여 도미니까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고 또다시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하였다.

1970년 5월 16일에 삼엄한 폭압망을 펴고 협잡과 날조로써 대통령, 국회량원 선거를 진행하여 1966년 6월에 집권한 발라게르놈이 다시 집권하였다.

발라게르친미도당은 미중앙정보국의 사촉밑에 1971년 4월부터 9월에만도 20여명의 애국자를, 그의 집권의 근 1년간에 무려 800여명의 공산당, 혁명당을 비롯한 진보적 력량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6월에 이 나라의 5 개혁명단체들은 무장봉기개시 여섯돐과 관련하여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것을 국내의 모든 혁명조직들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국민소득의 60%), 커피, 코코아, 바나나,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으로는 보크사이트, 석탄, 철, 석유, 동 등이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다. 로마 카톨릭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엘. 이. 헤14, 리베르따드, 디아리오데라 따르데(인민운동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0월 혁명당 지도자 후안 보슈(1963년 2—9월까지 대통령으로 있었다.)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 9월 26일에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이 쏘피아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를, 1971년 1월 13일에는 웽그리아에서 공부하는 류학생들이 부다뻬슈뜨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각각 결성하였다.

이해 4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도미니까 인민과의 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도미니까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축전에서 공산당, 혁명당을 비롯한 도미니까의 진보적세력들에 대한 발라게르친미반동정권의 파쑈적 탄압과 테로행위를 규탄하며 그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도미니까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탄압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3월 도미니까대통령에게 항의전문을 보냈다.

저메이커

꾸바의 남쪽 까리브해상에 있는 섬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산간지대이다. 낮은 해안지대의 평균기온은 26°C이나 산간지대는 18°C이다.

【면적】 1만 1,400km²

【인구】 195만 9,000명(1969년)

주민은 흑인 76%, 혼혈인 17%, 인도인 2%, 백인 1%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킨스톤(주민 19만 2,000명

【총독】 캠벨

【정부】 수상 미카엘 만리(1972년 3월—)

【정당】 인민국가당(집권당), 레이버당, 자유인민운동

정치 1494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1670년부터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1961년 10월 저메이커는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서인도련방》에서 탈퇴하였으며 1962년 8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3년 6월 6일 저메이커친미도당은 미제와 《방위협정》을 맺고 자기 나라를 미제침략자들의 군사기지로 내맡겼다.

1972년 2월 29일 총선거에서 1967년 2월 총선거당시 33석을 차지하였던 레이버당이 패하고 인민국가당이 승리하였다. 결과 총의석 53석중 인민국가당은 34석, 레이버당은 17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경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린회석, 연, 아연 등이다. 보크사이트매장량이 많으며 세계총생산의 약 25%가 생산된다.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까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비스께스, 꿀레브라, 오나 섬들을 포함)이며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8,897km²

【인구】 275만 4,000명(1970년)

주민의 80%가 에스빠냐계 백인이며 기타 인디안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어와 영어

【행정중심지】 산 후안(주민 46만 8,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지사】 루이스 페레(1968년 1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비법화). 독립운동 1960년에 창건, 이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루벤 베르리오스 마르띠네스, 사회당, 신진보당(집권당), 인민민주당, 독립당, 기독교행동당

정치 1509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미국—에스빠냐간의 식민지략탈전쟁의 결과 1898년부터는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2년 7월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 령토의 약 13%를 군용지로 전변시키고 상시적으로 2만 5천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그외 7만여명의 미국놈들이 여기에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간첩암해, 파괴 활동에 종사하고있다. 여기에는 미제의 까리브해지구사령부가 도사리고있다.

1960년에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이 조직되여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도하고있다. 1967년 9월부터 도시유격대인 《해방무장대》가 조직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은 1971년 2월에 이 나라 섬인 꿀레브라령해일대에서 미제침략군의 전쟁연습소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리오 삐드라스》 감옥에 감금된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위원장을 포함한 민족해방투사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9월 12일에는 미제부대통령 애그뉴놈이 기어드는것을 계기로 싼 후안에서 5만명의 군중이 반미시위를 벌렸다.

경제, 사회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담배, 파실 등을 재배한다. 농경지의 80%는 미제의 사탕수수재배지로 되고있다. 석유, 금, 은, 주석, 연, 동, 대리석 등이 나는데 미제독점체들이 직접 통제하고있다. 미제는 해마다 이 나라에서 4억 5천만딸라의 순리윤을 짜내고있다. 민족공업의 파산으로 1971년에만도 100여개의 공장이 파산당하고 로동능력있는 주민의 20%이상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미제는 신문, 라지오 등 대중보도수단을 독점하고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주민의 4분의 1이 극심한 빈궁속에 있다. 약 150만의 뿌에르또 리꼬인이 미국에 끌려가 인종차별과 박해속에서 비참하게 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깔(해방무장대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뿌에르또 리꼬출판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에스빠냐어와 영어로 된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1972년 4월 신문 《끌라리다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5월에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는 5월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6월에는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의 남안에 있는 트리니대드와 토바고 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 6~12월은 장마철이다.

【면적】 5,128km²(트리니대드섬은 4,829km²)

【인구】 104만명

주민은 흑인(약 47%), 인도인(약 35%), 혼혈인(약 16%), 백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주민 10만명)

【국회】 량원제 1971년 5월 24일 선거에서 인민민족당이 총의석 36석을 독점

【정부】 수상 에리크 윌리암스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 인민민족당(집권당), 《평민들의 정권운동》, 석유로동자로조, 전국통일행동위원회

정치 1802년부터 영국식민지로 있었다.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서인도련방》에 병합되였다가 1962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71년 5월 24일 국회총선거에서 독립이래 집권하고있던 친미반동정당인 인민민족당이 또다시 사기와 협잡으로 국회의석을 독차지하였다.

10월 친미반동정부는 미영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행위를 반대하며 비법적으로 체포된 진보적단체들과 로조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전국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주산물은 원유와 피치이며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야자, 귤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기독교를 믿는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남미대륙의 북부에 있다. 서북부는 산악지대이고 동남부는 넓은 밀림지대이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한다. 6~11월은 장마철이다.

【면적】 91만 2,050km²

【인구】 1,238만 5,000명

주민은 혼혈인(66%), 백인(20%), 흑인(10%), 인디안(2%)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까라까스(주민217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라파엘 깔데라(1969년 3월―), 외무상 아리스 떼네스 깔리바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7년 8월에 창건,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좌익혁명운동, 공화민주런맹당, 민족해방전선, 기독교사회당(집권당), 민주행동당, 근로자통일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정치 155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6월 5일에 독립하였다. 1821년에 꼴롬비아에 병합되였다가 1830년에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8년에 수립된 히메네스군사독재정권은 미제와 군사협정을 맺고 미제군사고문단을 공공연히 정부고문으로 끌어들였으며 석유자원을 미제에게 넘겨주었다.

1958년에 대통령으로 들어앉은 베땅꾸르는 1961년 11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962년 5월에는 공산당과 좌익혁명운동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베네수엘라인민들은 1961년부터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유격투쟁을 시작하였다. 1962년 6월에는 민족해방전선이 창설되였으며 그 산하에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1971년에 무장유격대들은 수도 까라까스를 비롯한 바리나스주, 아뿌레주, 안소아떼기주 등지에서 반동정부군놈들과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2월 18일에 소도시 끼리갈레를 습격점거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도미니까의 친미반동정권의 총령사놈을 사로잡았다.

미제독점회사들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도 치렬하여 4월 미제석유회사 《크레올 페트롤레움》에 고용된 9천명의 석유로동자들의 해고반대투쟁, 7월에 한달가까이 파업을 단행한 《오리노꼬 마이닝》과 《아이론 마인스》에 고용된 4천명 광부들의 생활상권리를 위한 투쟁이 있었다.

3월 26일 야라꾸이주 2천명 농민들이 대지주의 땅 1만 2천헥터를 점거하였으며 9월과 10월에 라라주농민들도 놈들의 폭압을 물리치고 땅을 점거하였다.

1970년 10월부터 반동적인 《종합대학개편법》 도입책동을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중앙종합대학 학생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년중 동맹휴학과 시위투쟁이 과감히 전개되였다.

한편 깔데라반동정부는 광범한 사회계의 압력과 미제의 경제적침투로 조성된 경제위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3월 18일 외래석유독점체들의 석유수출값을 33%(년간 5억딸라) 올렸으며 7월 30일에 모든 외국석유회사들의 전체 재산을 리권기간이 만료(대부분이 1983년에 만료됨)되는 차제로 보상없이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8월 13일에는 천연가스의 채취 및 개발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 법령들에 기초하여 미제를 포함한 외국석유회사들에 해당한 통제와 제재 조치를 취하고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석유공업과 광업이다. 석유는 1969년에 1억 8천 812만t생산되여 세계3위를 차지하였다. 국가수입의 70%가 석유에서 들어온다. 그러나 미제의 《크레올 페트롤레움》을 포함한 3개의 외래독점체들이 이나라 석유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있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략탈을 막기 위하여 1971년에 석유세를 33% 올렸으며 점차 석유채취를 국유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석유수출량은 1969년에 1억 2천 900만t에 달하였다(세계3위). 철돌매장량은 약 10억t이며 1969년에 1천 939만t 생산되였다. 그러나 생산의 70%는 미제가 독점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 투하한 총자본의 40%를 해마다 리윤으로 짜내고있다.

농업에는 인구의 약 40%가 종사하고있으며 식량은 수입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이다. 1971년 현재 약 100만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못갔다.

【출판보도】 신문 뜨리부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좌익혁명운동기관지), 뿌에블로 이 레볼루씨온(민족해방전선기관지), 라 레뿌불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에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 위원장 엘리아쓰 마누이뜨 소좌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베네수엘라 근로자통일중앙 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가이아나

(가이아나련합공화국)

남미대륙의 동북쪽에 있다. 기후는 적도기후로서 년평균기온은 26~28°C, 년평균강수량은 2천mm내외이다. 전령토의 87%가 산림이다.

【면적】 21만 4,970km²

【인구】 74만 2,000명(1969년)

주민은 인도인(45%), 흑인(약 20%), 기타 인디안, 백인, 중국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죠지타운(주민 19만 4,470명)

【대통령】 아더 충(1970년 3월—)

【민족회의】 최고립법기관이며 일원제, 1968년 12월 선거에서 인민민족대회당이 총의석 53석중 30석, 인민진보당이 19석, 통일력량당이 4석차지

【정부】 수상 포브스 부른함(외무상겸임, 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년에 창건된 인도인의 정당, 지도자 체디 쟈간. 인민민족대회당(흑인정당이며 집권당), 통일력량당(백인정당), 근로인민전위당(중국인당), 로동총련맹, 인민진보청년조직

정치 1814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3년에 처음으로 헌법에 의회선거제를 규정하였다. 1966년 5월 26일 가이아나는 영련방성원국으로서 총독과 영칠략군이 그대로 있는 조건부로 독립하였다. 1970년 2월 23일 공화국을 선포하고 총독제를 폐지하였다. 1970년 3월 17일 대통령선거에서 인민민족대회당 후보가 당선되였다.

1971년 7월 15일에 정부는 카나다의 《데메라라》 보크사이트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내린동시에 나라의 경제에서 외래독점체들의 지배를 청산하겠다고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 정책을 추구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관계발전을 모색하며 아프리카에서의 백인소수통치를 반대하고있다.

1971년 1월에 있은 영련방수상회의에서 가이아나수상은 인종주의청산을 주장하였으며 남아프리카백인인종주의정권에 대한 영국히스도당의 무기수출재개책동을 규탄하였다. 가이아나는 1970년부터 아프리카의 소수백인인종주의자들과 싸우는 아프리카해방투사들에게 1년에 2만 5천딸라의 재정적원조를 주기로 결정했다.

1970년 9월 4일에 쏘련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1년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중국의 합법적권리회복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고 11월 14일에는 중국과 호상 무역대표부설치, 통상협정 등에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사탕수수, 벼 재배에 주력하고있으며 야자, 커피, 코코아 등도 재배한다.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보크사이트의 매장량이 많으며 망간, 금, 금강석 등이 있다. 산림자원은 많으나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주요산업으로 되지 못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보크사이트, 망간, 벼, 목재, 금, 금강석 등이다.

로동인구의 5분의 1이 실업자이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에 가이아나진보청년조직 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수 리 남

남미대륙의 북쪽에 있으며 가이아나와 프랑스령가이아나사이에 있다. 90%는 무인지대이다. 덥고 비가 많이 온다.

【면적】 14만 1,822km²

【인구】 37만 5,000명

주민은 크리올, 인도인, 인도네시아인이다.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주민 12만 3,000명)

1667년에 화란식민지로 되였으며 1954년에 자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가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으며 1962년 4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이 나라를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주산물은 보크사이트(1966년에 556만t 생산)이다.

프랑스령가이아나

남미대륙의 북쪽 해안에 있다.

【면적】 9만 1,000km²

【인구】 4만 6,000명

주민은 인디안, 흑인, 프랑스인 등이다.

【행정중심지】 까옌느(주민 2만 8,500명)

1815년에 프랑스식민지로,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목재, 금 등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빠리에서 진행된 가이아나(프랑스령) 학생련맹 제6차대회에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및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남미주 동북부를 차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세계에서 제4위). 남부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이그아수폭포(넓이 4km, 높이 80m)가 있다.

기후는 대체로 열대에 속한다.

【면적】 851만 1,965km²

【인구】 9,084만명(1969년)

주민의 절반이상이 백인이며 그밖에 흑인, 갈색인 등이 있다.

국어는 뽀르투갈어이나 에스빠냐어, 이딸리아어도 쓴다.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44만명)

【국회】 상하량원제(1970년 11월 15일 선거결과 국가혁신동맹이 상원의석 66석중 58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에밀리오 가라스따주

메디씨(1969년 10월—), 외무상 마리오 기브쓴 알베쓰 바르보사, 륙군상 오를란도 게이셀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3월 25일에 창건. 국가혁신동맹(집권당), 민주운동, 인민혁명전위, 민족해방행동, 로농총련맹

정치 16세기초부터 뽀르뚜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2년에 독립을, 1889년에는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891년에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고쳤다. 1963년 1월 국민투표에 의하여 《의회내각제》가 《대통령내각제》로 되였다.

1964년 3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브란꼬도당은 4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고 1965년 10월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의 페지, 대통령간접선거제 등을 공포하였다. 또한 《외국자본도입제한법》을 페지하고 국내자원채굴권을 외국회사들에 넘겨주었다.

1969년 10월 메디씨군사정권이 수립되여 친미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다. 정당결성의 자유는 인정되고는 있으나 1965년 12월 군사정권이 조작한 국가혁신동맹과 민주운동의 2대 정당제가 계속되고있다.

친미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은 1971년에도 도시들을 중심으로 맹렬히 전개되였다. 1월에 무장유격대원들은 전해(12월)에 사로잡았던 한 대사놈을 교환조건으로하여 비법적으로 투옥 된 70명의 애국자들을 석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5월 3일 뽀르또 알레그레시에서는 친미반동당국의 화약창고를 폭파시켜 5놈을 죽이고 56명에게는 심한 중상을 입혔으며 주변 방송국을 비롯한 다섯채의 건물을 심히 파괴하였다. 7월에 유격대의 한 소조는 싼 빠울로시에서 악질헌병대 두목놈을 사살하였다. 이리하여 이해 친미반동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1~8월까지 무장유격대원들은 200여차의 각종 대소기습작전을 벌려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제는 이 나라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1959년부터 계속 친미반동당국의 경찰놈들을 훈련장비시키고 있다.

이해 6월 1일부터 브라질은 자기 나라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브라질은 인구의 60% 이상이 농목축업을 하고있다. 농산물이 수출총액의 89%를 차지한다. 경지면적의 80%이상을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약 600만정보는 미제가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수출의 40%차지, 1968년에 105만t 생산) 코코아, 강냉이, 담배, 목화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망간, 우라니움, 쇠돌, 금, 원유 등이다. 철광석의 매장량은 약 350억t이며 1968년에는 2천 734만t 생산되였다. 공업은 방적공업이 위주로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이 이 나라 경제의 72.5%를 통제하고있다. 그중 공업의 70.1%, 상업의 58.3%, 교통운수의 67.8%, 출판업의 89.9%를 차지하고 있다.

4월에 미제독점자본의 수출입은행과 미제의 통제하에 있는 《세계은행》은 각각 1억 8천만딸라의 《차관》을 미끼로 브라질의 강철공업을 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해 주민 2만 8천명에 겨우 한사람의 의사가 차례졌다. 어린이 1천명중 평균 105명은 한살도 되기전에 죽는데 한시간에 평균 61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1971년에 생활필수품값은 15%, 집세는 20%, 가스세와 수도세는 11% 올랐다. 로동능력있는 주민의 30%가 실업당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젠씨아 나씨오날(정부통신)

신문 브라질 헤랄드, 까레이오 다 마냐, 오 에쓰따도 데 상 빠울로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1일에 브라질조선문화협회가 창설되였다.

1971년 4월 9일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사들이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으며 11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가지였다.

11월에 또한 그이의 불후의 로작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아홉돐에 즈음하여 꾸바에 있는 브라질혁명조직 대표 알루이시오 베라노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월에 브라질민족해방행동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 브라질 《김일성동지혁명활동 및 로작연구소조》 대표가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콜롬비아

(콜롬비아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서부에는 안데스산맥이 뻗어있고 동부는 고원지대이다.

기후는 아열대에 속한다.

【면적】 113만 8,914km²

【인구】 2,046만 3,000명(1969년)

주민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68%), 백인(20%), 인디안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보고따(주민 228만 7,130명, (1969년)

【의회】 상하량원제, 의석은 보수당과 자유당이 절반씩 나누어 차지한다.

【정부】 대통령 미싸엘 빠스뜨라나 보레로(1970년 8월—), 외무상 알프레드 바스게스 가리소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자유당(집권당), 보수당(집권당), 인민당, 자유혁명운동, 근로자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민주녀성동맹, 콜롬비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10월 결성

정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9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같은 해에 베네수엘라, 에꽈도르를 통합하여 《대콜롬비아련방》을 형성하였다. 1830년에 베네수엘라, 에꽈도르가 련방에서 탈퇴한 이후 1886년에 나라이름을 콜롬비아공화국으로 고쳤다.

독립후 자유당과 보수당의 치렬한 정권쟁탈전이 계속되여오다가 1958년에 두당간에 대통령은 4년씩 교체하여 선거하며 내각조직과 의회의석수는 절반씩 차지할것을 헌법에 첨가하였다.

1970년 4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당의 친미독재자 빠스뜨라나가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8월 보수당과 자유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콜롬비아 반동정부는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으며 1952년에는 미제와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콜롬비아인민들은 미제와 친미반동독재정권을 반대하며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하여 각종형태의 합법적 및 비합법적투쟁을 전개하고있다.

1951년에는 유격대가 조직되여 1964년부터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있다.

1971년 9월에 콜롬비아혁명무장군은 《토벌작전》에 미쳐 날뛰던 토벌대 12놈을, 11월 14일에는 반동정부군 11놈과 여러놈의 경찰들을 쓸어눕혔다. 3월 26일에는 이 나라에서 착취와 략탈을 일삼던 서부독일인 3놈을 사로잡았다.

학생들속에서는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강화되여 로동계급의

파업에 합세하였다. 2월 27일 반동정부는 전국에 《계엄령》까지 선포하였으나 학생들은 전국적인 동맹휴학을, 3월 8일 로동자들은 전국적파업으로 대답하였다.

땅없는 농민들은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이해 2월부터 11월 중순사이에 지주들의 농장 1천개를 점거하였다. 조성된 정치경제적위기는 반동지배층내부에서까지 알륵을 격화시켜 6월에는 13명의 각료가 사임하여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콜롬비아는 미제의 경제적략탈을 반대하여 조직된 안데스지역 《공동시장》 성원국이다. 1971년 11월 령해권문제토의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10개국 외상회의에서 콜롬비아대표는 미제의 령해침범을 반대하면서 까리브해는 까리브지역 나라들의 공동재산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 사회 토지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여있는 반면에 경지면적의 3.5%만이 농민들에게 속해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등이며 커피생산은 세계제2위이며 이 나라 수출의 77%를 차지한다.

광물자원과 석유, 가공공업 전체 기업소의 4분의 1과 바나나, 코코아, 생산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고있다.

1971년에 물건값은 14.7% 뛰여올랐으며 실업자수는 300만명에 이르렀다. 이해에 수도 보고따의 사립학교들에서만도 학비를 물지 못하여 2만명의 학생들이 쫓겨났다.

【출판보도】 신문 보스 쁘로레따리아(공산당기관지), 푸에르사스 아르마다스(유격대신문), 엘 에헤르씨또 뽀뿔라르 데 리베라씨온(인민해방군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보치까》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해 10월 콜롬비아 국회하원은 우리 나라와 외교, 경제 및 문화적 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국회외교위원회의 제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2월 6일 꾸바에 있는 콜롬비아혁명조직대표 헤르난데스가 남조선괴뢰도당의 《비상사태》 선포를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1971년에 콜롬비아공산당대표단(8월), 국회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공산당대표단은 8월 31일, 국회대표단은 9월 16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각각 받았다.

6월에는 공산주의청년대표가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1년 10월 콜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에꽈도르

(에꽈도르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북부에 있다.

년평균기온은 25°C이며 년평균강수량은 250mm이다.

【면적】 27만 679km²

【인구】 589만명(1969년)

주민의 80%는 인디안과 혼혈인이며 기타는 백인과 흑인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끼또(주민 48만 3,847명), 정치, 경제 생활의 중심지는 과야낄(주민 60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1970년 6월 해산)

【군사위원회】 1972년 2월 15일 군사정변이후 륙, 해, 공군사령관들로서 조직된 나라의 최고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길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1972년 2월—), 외무상 호쎄 마리아 뽄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 23일에 창건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뻬드로 사아드. 자유당(집권당), 보수당, 사회기독교민주당, 자유급진당, 사회혁명당, 인민혁명운동, 근로자련맹, 공산청년

정치 1532년부터 3세기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22년 5월 반에스빠냐폭동이후 콜롬비아련방의 한개 주로 있다가 1830년에 분리되여 독립공화국으로 되었다.

공화국이 선포된이후 정변과 폭동이 빈번하여 1965년까지 헌법이 10회이상 개정되고 거의 50여회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68년 8월에 대통령으로 된 벨라스코 이바라는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억압하기 위하여 1970년에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와 사법기관을 해산하였다.

1969년 5월 26일 에꽈도르는 남미주의 서해안 4개국(콜롬비아, 칠레, 에꽈도르 및 볼리비아)과 함께 미제의 경제적침투를 막기 위한 안데스지역 《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에꽈도르는 200마일령해주권을 제일먼저 표명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며 1971년 1월 30일 워싱톤에서 열린 《미주국가기구》 외상특별회의에서 에꽈도르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의 해적행위를 규탄하였다.

에꽈도르는 1971년에만도 비법적으로 자기령해에 기여든 미제해적선 51척을 붙들어 벌금을 부과하였다. 해적선을 붙든것과 관련하여 미제가 강도적인 《제재조치》와 압력을 가하자 2월 1일 에꽈도르는 보복조치로써 이 나라에 들어와 간섭과 파괴암해책동을 일삼던 미제의 《군사사절단》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9월 2일 칠레대통령의 에꽈도르방문과 관련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는 온갖형태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나라들의 평등, 꾸바와 외교 및 통상을 포함한 온갖관계수립의 권리, 령해권수호 등을 주장하였다.

1972년 2월 15일 륙군사령관이던 길레르모 로드리게스가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 정권을 잡았다.

경제, 사회 주요경제부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가 이에 종사한다.

인구의 2%밖에 안되는 대지주들이 총경지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바나나, 코코아, 커피가 수출의 67%를 차지하며 특히 바나나수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중에 속한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금, 원유, 쇠돌, 은, 석탄, 류황, 천연가스 등이다.

미제독점체들이 석유탐사권과 개발, 천연가스채취를 독점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사람 중 80%가 수공업에 종사한다.

1970년에 3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였으며 부족학교수는 약 1만 2천개였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르꾸리오(보수당계), 라 띠에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13일 아바나에 있는 에꽈도르혁명적청년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조직하였다. 이 소조는 1971년 1월 10일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10월 8일에는 에꽈도르혁명적청년들이 그이의 불후의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연구발표모

입을 각각 가지였다.

에꽈도르의 《볼룬따드》 출판사는 그이의 천재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찬양하여 에꽈도르잡지 《마냐나》 편집원 호르헤 베라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6월에 에꽈도르청년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 에꽈도르공산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뻬　루

(뻬루공화국)

남미대륙의 서쪽, 태평양연안에 남북으로 뻗어있다. 아마존강상류의 밀림지대를 내놓고 대부분이 고원이다. 평지대는 무더우나 산악지대는 춥다.

【면적】 128만 5,215km²

【인구】 1,317만 2,000명(1969년)

주민은 인디안(약 46%), 인디안—구라파인의 혼혈인(약 45%), 백인(약 8%) 등으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리마(주민 302만 1,000명)

【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기관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1968년 10월—)

【정부】 수상 에르네스또 몬따그네, 외무상 미겔 안헬 델라플로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 10월 7일에 창건, 총비서 호르헤 델쁘라도. **인민행동당, 기독교민주당, 인민당, 인민혁명당, 좌익혁명운동당, 민족혁명운동당, 민족해방전선, 근로자총련맹, 인민녀성련맹, 뻬루조선친선협회** 1970년 8월 결성

정치 153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7월 28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8년 10월 3일 군사정변으로 친미독재정권을 전복한 벨라스꼬정부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대지주, 대자본가놈들의 토지, 공장, 광산, 철도, 은행을 몰수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9년에 미제와 체결한 예속적인 《딸라라협정》(1968년 7월 원유채취장을 미제의 독점체인 《국제석유회사》에 넘겨준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그해 8월에는 40여년간 뻬루인민의 피땀을 짜내던 미제의 《인터내슈널》 석유회사를 비롯한 모든 석유자원을 국유화하고 이날을 《민족존엄의 날》로 선포하였다. 1969년 6월 24일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이날을 《농민의 날》로 선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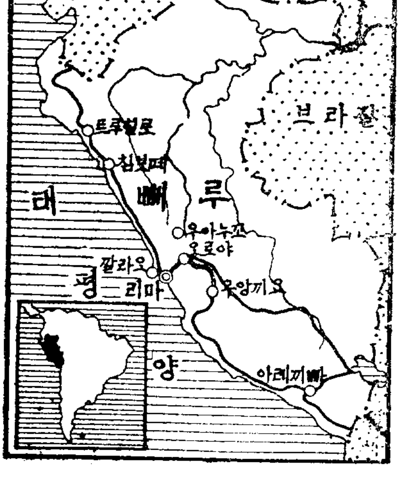
1970년 4월과 1971년 6월에 발표한 광업법에 의하여 광석개발, 동광의 제련 및 그 판매를 국가가 장악하였다. 1971년 7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철도회사를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국가철도관리국을 새로 내왔다.

한편 이해에 뻬루에서의 진보적변혁과정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과 국내반동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뻬루인민들은 8월에 깔라오시에서 현정부를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키려던 반동들의 책동, 9월에 교원들을 파업에로 선동하려던 반동들의 책동을 사전에 폭로분쇄하였다. 10월에 있은 현정부수립 세돐에 즈음한 중앙군중집회에서 후안 벨라스꼬대통령은 제국주의자들과 과두세력들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국내에서 혼란을 조성하려하고있다고 규탄하고 진보적사회경제적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1월 22일 한 모임에서 벨라스꼬는 《뻬루의 립장은 반제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 뻬루는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 및 무역 관계를 맺었으며 꾸바와의 무역제한 및 일체관계를 끊을데 대한 《미주국가기구》의 비법적인 결정을 재검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뻬루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중 제일먼저 칠레의 알옌데정권을 승인하였다.

1971년 11월에 중국과 외교 및 무역관계를 맺었다.



뻬루정부는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고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해적선을 비롯한 외국선박들을 나포하고 벌금을 받아내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뻬루는 《안데스조약》 성원국이다.

경제, 사회 경제는 채취공업과 농업, 수산업이 기본이다.

1970년에 어획고는 1천 260만t으로서 세계제1위를 차지하였다. 어획량의 대부분은 수출용어분을 만드는 멸치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사탕수수, 카피, 벼 등이며 밀은 수입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연, 아연, 쇠돌, 은, 석유, 석탄, 바나듐 등이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채취공업(광업의 85%, 석유, 석탄 공업의 90%)과 사탕공업의 70%, 그리고 은행, 통상, 출판기관을 미제독점체들이 통제하고있었으며 이 나라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계속 략탈하였다.

벨라스꼬는 집권후 미제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제독점체인 《인터내슈널》 석유회사를 비롯한 석유자원을 국유화하고 《엠쁘레싸뻬뜨롤레라 삐쓰깔》 국영석유회사를 내왔다. 또한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1971년 1월)을 발포하여 제련소, 기계제작공장, 화학원료가공공장 등 건설을 예견하고있다.

대외무역에서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여 《뻬루의 시장을 다양화》하고있다.

1969년 6월 《토지개혁법령》 발포이후 1971년 6월까지 미국놈 및 국내대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유상)하여 새로 조직되는 농업협동조합들에 넘겨주거나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나누어주었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반데라 로하, 라 쁘렌싸, 보스델 레벨데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13일 뻬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었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씨글로 베인떼》 출판사가, 그이의 불후의 로작인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민족해방》 출판사가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잡지 《오이가》는 그이의 력사적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또한 이해에 《씨글로 베인떼》 출판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그이의 력사적로작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0월에 뻬루근로자총련맹 전국리사회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으며 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1971년에 뻬루조선친선협회대표단(11월), 무역일군들(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뻬루 리마 싼 마르꼬스종합대학 교수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볼리비아

(볼리비아공화국)

남미대륙 중부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고원지대의 기후는 따뜻하나 낮은 지대는 매우 덥다.

【면적】 109만 8,581km²

【인구】 450만명(1970년)

주민은 인디안(50%)과 인디안－에스빠냐혼혈인(28%), 백인(13%) 이다.

언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50만 7,200명, 법적수도는 수끄레)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유고 반세르(1971년 8월 23일—), 외무상 마리오 구띠에레스, 국방상 안또니오 아르네쓰 까마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됨, 제1비서 호르헤 꼴레. 민족혁명운동당(집권당), 사회주의팔랑헤당(집권당), 민족해방전선당, 로동자중앙련맹 볼리비아 조선친선협회 1971년 6월 29일 결성

정치 16세기부터 약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미제의 책동과 지배층내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1971년까지 181회의 정변과 11차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1964년에 에스뗀소로친미정권은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10년 10월 4일 미제의 사촉밑에 단행된 우익군사정변을 진압하고 집권한 또레스정부는 1971년에 미제독점회사들인 《인터내슈널 메탈 프로세씽》 광업회사(1월 13일), 《미나마띨데》 아연광산(4월 30일) 등에 대한 국유화, 5월 21일 미제침략의 척후병인 100여명의 《평화군》의 철수결정, 6월 중순에 수도 라 빠스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의 《엘 알또》 공군기지의 철폐 등 일련의 반미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또레스정부는 《사회개혁》을 단행할데 대한 집권초기의 약속을 리행하지않고 우유부단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볼리비아의 광범한 인민들은 또레스정부의 우유부단성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한편 볼리비아정부의 반미적조치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미제는 또레스정부에 대한 이러한 인민들의 불만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8월 20일 우익반동들로 하여금 싼따 끄루스(이 나라의 제2도시)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8월 21일 우익반동들이 수도 라 빠스에로 진격하였을 때 볼리비아공군과 륙군참모본부 등 거의 모든 군대들이 반란군에 합세하였으며 기타 도시들에서도 군대들이 반란군의 편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또레스정부는 전복되고 8월 22일 반세르란놈을 두목으로하는 《3인군사위원회》, 8월 23일에는 반세르를 대통령으로 하는 반동적인 민족혁명운동당, 사회주의팔랑헤당 련립정부가 조작되였다.

반세르군사반동정권은 대학의 자치를 폐지하고 9월 6일에는 1972년 2월까지 대학을 폐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반세르도당은 1967년에 철폐된 반미반독재투쟁을 탄압할것을 목적으로한 《사형법》을 복귀시키고 애국적민주력량을 잔인하게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볼리비아인민들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워온 국제주의전사 체 게바라소좌가 1967년에 볼리비아에서 전사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고무(수출량은 남미 제2위) 등이다. 이 나라 경제에서 가장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석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1968년에 2만 9,100t생산)를 차지하며 수출총액의 54%를 차지한다. 안티몬과 탕크스텐 생산도 세계에서 손꼽힌다. 석유매장량도 많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며 어린이 1천명중 그의 4분의 1은 1년도 못되여 죽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리베라씨온, 쁘레쎈시아,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잡지), 엘 디아리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29일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4월 5일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볼리비아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 볼리비아신문 《엘 디아리오》(6월 9일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으며 10월 2일 아바나에 있는 볼리비아상주인련맹 위원장은 그이의 불후의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빠라과이

(빠라과이공화국)

남미대륙의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령토의 3분의 2는 온대지대이며 3분의 1은 열대지대이다. 년평균강수량은 1천~2천mm이다.

【면적】 40만 6,752km²

【인구】 230만 3,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며 챠꼬족이 약 4만명 있다.

언어는 과라니어와 에스빠냐어

【수도】 아순씨온(주민 약 41만 1,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알프레드 쓰뜨로에스네르(1954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현재 비법화), 총비서 오스깔 끄레떼. 꼴로라도당(집권당), 급진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민족해방통일전선, 근로자련맹, 녀성련맹

정치 1535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5월 14일

에 독립하고 1844년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4년 5월에 미제의 부추김밑에 집권한 스뜨로에스네르가 1968년 대통령선거에서 네번째로 당선을 날조하여 (종신대통령) 계속 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빠라과이 인민들은 1959년부터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스뜨로에스네르친미독재정권은 뒤흔들리는 통치지반을 부지하기 위하여 각종악법을 조작하였으며 1971년 2월 7일에는 1963년 11월부터 실시해온 《계엄령》을 더 연장하고 10여년간 감옥에서 싸운 이 나라 로조지도자 싼띠데르를 야수적으로 처형하였으며 수많은 애국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투옥하였다. 스뜨로에스네르집권기간(1954년부터)에 수천명이 학살되고 50여만의 이 나라 주민들이 탄압을 피하여 해외로 떠났다. 1971년 4월에 빠라과이공산당 제3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의 강령과 규약 및 정치테제를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70%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주요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말, 면양 등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벼, 담배, 사탕수수, 강냉이, 콩, 과일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지하자원은 석유, 쇠돌,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목재자원이 많으며 수출의 50%는 목재이다. 석유를 비롯한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다. 1970년 12월 미제독점회사는 또다시 120만ha의 석유산지를 장악하였다.

인민생활수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델란떼(공산당기관지), 라반파르디아, 라 뜨리뷰나

우루과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남미주의 동남부에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띠나와 린접하고있다.

년평균기온은 17°C, 년평균강우량은 1천mm이다.

【면적】 18만 6,929km²

【인구】 285만 2,000명(1969년)

주민의 약 90%가 백인이고 기타 인디안—구라파인 혼혈인, 인디안 등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5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대통령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1972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1일 창건,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민족해방운동(뚜빠마로스), 꼴로라도당, 블란꼬당,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광범한전선》, 공산주의청년동맹, 근로자전국회의, 녀성동맹,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 1967년 10월 결성

정치 1516년부터 300여년간 에스빠냐, 뽀르뚜갈, 아르헨띠나, 브라질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에 독립하였다. 1830년 7월 18일 첫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제2차대전을 전후하여 미제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1952년 미제와 《군사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예속적인 《협정》을 맺었다. 1958년 선거에서 93년간 집권당으로 있던 꼴로라도당이 패하고 블란꼬당이 집권하였다. 반동적블란꼬당정부는 친미추종정책을 실시하면서 1964년 9월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미제와 친미반동정권을 반대하여 1967년 7월에 민족해방운동(뚜빠마로스)이 조직되여 수도 몬떼비데오를 비롯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있다(이 나라 인구의 70%가 도시에 집중되여있다).

1971년 3월 22일 민족해방운동은 앞으로 수립할 혁명정부강령을 발표하였다.

4월에 민족해방운동 성원들은 미제침략군의 《공군사령부》를 습격하였으며 친미반동통치배들의 상업기관과 은행 그리고 기업소들에 30여개의 폭발물을 던져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8월 3일 한 소조는 몬떼비데오에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단번에 20여정의 무기와 군수품을 로획하였다.

1월 8일 반동당국을 적극 부추기던 영국 《대사》잭슨놈을, 3월에 친미당국의 검사총장, 전신전화국의 두목놈들을 사로잡거나 처단하였다.

9월 6일 민족해방운동 성원 129명, 이에 앞서 7월 30일에는 30여명의 녀성유격대원들을 탈옥시키는데 성공하여 또다시 그들은 투쟁대오로 들어갔다.

4월 2일에는 몬떼비데오에서 50만의 근로자들이 진보적신문의 폐간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한편 우루과이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에 질겁한 친미반동당국은 년중 나라를 《비상사태》 하에 두고 탄압책동에 날뛰였다. 1월에 영국 《대사》 놈이 없어지자 반동당국은 《긴급각의》를 열고 1만 2천명의 경찰과 군대, 그리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수색작전》에 미쳐날뛰였으며 국회를 발동하여 경찰놈들에게 인민들을 마음대로 체포투옥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빠체꼬놈은 4월에 내각개조에 이어 6월에는 악명높은 반동군벌 두목들로 각료들을 교체하여 반미반정부투쟁을 억눌러보려고 미쳐날뛰였다.

6월 16일 친미반동당국은 반미반독재투쟁을 보도하였다는 구실로 《쁘렌싸 라띠나》 지사활동을 금지하고 특파원을 부당하게 내쫓았다. 반동정부는 우익테로단체들을 부추겨 2월에 조직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조직인 《광범한 전선》 출신 대통령립후보의 살해음모, 각종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경제, 사회 목축업과 그 가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육류와 양털생산을 많이 한다. 총경지면적의 92%가 목축업에 리용되며 양과 소의 사육이 위주로 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황마 등이다.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연, 망간, 쇠돌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양털, 고기, 가죽)이며 곡물과 광물도 수출한다.

1971년에 대외무역적자는 1천 760만딸라에 달하였다.

이해 1—10월까지의 기간에 생계비는 24.9%, 10개월간 생활필수품값은 27.9%나 올랐다.

15만세대의 근로자들이 집이 없어 한데에서 살며 30여만명의 실업자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엘 게릴레로 오리엔딸(동방혁명무장군기관지), 악씨온(사회당계), 엘 디아(꼴로라도당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우루과이 수도 몬떼비데오에서 우리 나라와 우루과이정부간에 무역대표부를 호상설치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7년 10월에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

원회사업총화보고》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협회는 그이께서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묶은 문헌집 《국제정세와 조선혁명에 관한 네가지 대답》을 출판하였다.

1970년에 우루과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5월),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7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 우루과이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남미대륙의 남부에 있다. 중부의 여름평균기온은 25°C이다.

【면적】 277만 6,656km²

【인구】 2,398만 3,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에스빠냐와 이딸리아계 등 구라파 이주민들의 후손들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760만 2,000명)

【의회】 상하량원제(1966년 6월 군사정변후 해산되였으나 1971년 3월정변후 복귀한다고 선포)

【군사위원회】 1971년 3월 23일 군사정변이후 륙해공군사령관들로 조직된 나라의 최고통치기관이다.

【정부】 대통령 알레한드로 라누쎄(1971년 3월 26일—), 외무상 빠블로 빠르도, 국방상 까쎄레스 모니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조직된 국제사회주의당을 192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헤르니모 아르네도 알바레스. 인민급진공민동맹, 사회민주당, 사회당, 급진당, 공산주의청년동맹, 아르헨띠나조선친선협회 1967년에 6월에 결성

정치 1516년이래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6년 7월 9일에 독립을, 1862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제2차대전이후 미제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그후부터 미제의 조종에 의한 군사정변이 빈번히 일어나 여러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66년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들어앉은 온가니아는 국내 모든 진보적정당들과 국회를 해산시키고 1967년에는 반미반정부세력을 진압할 목적으로 《반공법》까지 조작하였다.

1971년 3월 23일 륙군사령관이던 라누쎄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1970년 6월에 집권한 레빙스똔을 전복하고 3인군사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3월 26일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라누쎄는 3월 26일 정책연설에서 군벌통치로부터 《안정된 의회제 민주주의》 정치의 실시, 9월 17일에는 1973년 3월 25일 총선거의 실시, 5월 25일에는 민간인정부를 복귀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1966년 6월이래 해산된 국회의 복귀, 정당활동의 합법화 등을 발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제에 도전하여 나서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가 및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200마일 령해주권을 선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다른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미제의 두목 닉슨놈이 8월 15일 《딸라방위책》을 내놓고 《10%의 수입부가세》를 선포하자 아르헨띠나는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미제상품수입을 금지하는것을 포함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7월 23~24일 량일간 칠레대통령이 방문하였을 때 라누쎄는 두 나라 인민들간의 선린관계의 계속강화, 민족자결의 존중과 내정불간섭, 《비글운하》 지대에서 빈번한 국경충돌의 평화적조정 등에 관한 《쌀따선언》에 조인하였다. 10월 16, 17일 량일간에 라누쎄는 칠레답례방문기간에 선언을 재확인하였으며 칠레에서 미제동광국유화조치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1966년 6월 군사정변에 의한 군사독재가 수립된이래 아르헨띠나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자유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구호밑에 성스러운 반미반독재무장투쟁을 벌리고 있다.

1971년 3월 9일 유격대원들은 멘도사시에서 한 폭약창고를 습격하여 86개의 폭약상자와 1만 4천 800개의 뢰관을 로획하였으며 30일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폭발물 12개를 던져 미제독점회사 7개와 기타 서방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파괴하였다.

4월 27일에 4개의 비행장을 습격하고 7월 9일에는 미제의 어용통신사 《유에스아이에스》 지부와 그 부속건물들에 폭탄세례를 안겨 불길에 휩싸이게 하였다.

6월 1일 싼 헤르니모시의 경찰서를 습격하여 30정의 무기를 로획한 유격대원들은 11월 5일 수도에 있는 《피아트》 독점회사를 습격하여 단번에 30대의 자동차를 파괴하였다. 이해에 7월 18일까지만 하여도 파괴한 반동기업주놈들의 자동차대수는 약 40대에 달하였다.

5월에 유격대원들은 로싸리오시에 둥지틀고있는 영국령사놈을 사로잡아 석방조건으로 로싸리오시 가난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 비법적으로 해고된 로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여 반동당국을 굴복시켰다.

6월 수도의 남부에 있는 한 감옥을 들이쳐 4명의 녀성유격대원들, 꼬르도바에서 5명의 녀성애국자들을 각각 구출하였다.

공업도시 꼬르도바시 근로자들은 생활상권리를 위하여 3월 16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3천여명의 폭동진압경찰과 파감한 격전끝에 놈들의 자동차 35대와 1천여개의 상점을 들부셨다. 질겁한 반동당국은 1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목축업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1963년 육류생산량은 294만t이며 그중 60만t이 수출되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세계에서 가장큰 육류랭동공장이 있다. 양털생산량은 1968~1969년에 18만t이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목화, 담배 등이다. 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쇠돌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의 25개 큰 기업소중 15개를 차지하고있으며 총투자액은 1969년말에 약 12억딸라였다. 미제는 투자한 매 한딸라에서 12딸라까지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대외채무는 1971년 상반년에 47억 5천 600만딸라에 달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정부는 광범한 계층의 압력에 의하여 아르헨띠나인들의 기업소들에 대부를 주어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경제를 《아르헨띠나화》 하려고 시도하며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의 지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를 중지시키고 국내공급자들에게 외래독점체들의 상품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있다. 1971년에 생계비는 40%나 올랐다. 집없이 헤매는 근로자수는 250만명이다. 12월현재 실업자수는 100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델 쁘레스

신문 라 오라(공산당기관지), 라 쁘렌싸, 라 나씨온, 누에스뜨라 빨라브라, 반과르디아(사회당기관지), 푸렌떼 아르헨띠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6월에 아르헨띠나조선친선협

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6월 아르헨띠나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칠 레

(칠레공화국)

남미대륙의 서남부 태평양에 면하고 있다.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관계로 기후의 차가 심하다. 년평균기온은 북부지대는 19°C, 중부지대는 15°C, 남부지대는 6°C이다.

【면적】 74만 1,767km²

【인구】 926만 8,584명(1970년 9월)

주민은 원주민인 인디안이 5%에 불과하며 95%는 에스빠냐, 기타 구라파계통의 사람들이다.

국어는 에스빠냐어

【수도】 싼띠아고(주민 188만명)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1970년 11월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행동을 망라한 인민통일련합정부를 구성, 1972년 1월 28일 내각개조에서 좌익급진당, 좌익기독교민주당 참가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사회당, 임기 6년), 외무상 클로도미로 알메이다(사회당), 국방상 호쎄 또아(사회당)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사회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좌익급진당, 좌익기독교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인민사회당, 민족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운동,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동맹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1962년 8월 13일결성

정치 1541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었다. 1818년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879년에 초석개발문제를 둘러싼 볼리비아, 뻬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따라파까, 안또파까스따지방이 칠레에 병합되였다. 그후 정변과 내란이 계속되여 오다가 1932년이래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고있다.

1938년에 공산당, 사회당, 급진당을 망라한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여 약간의 사회경제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6년에 대통령으로 된 급진당출신 비델라는 1947년 미제와 결탁하여 정부로부터 공산당을 배제하고 1948년 미제의 압력밑에 이른바《민주주의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공산당을 비법화하였다(1958년에《민주주의보호법》페지). 1964년 8월 칠레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4년 9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 공산당, 사회당을 포함한 민주세력들이 인민행동전선을 결성하여 참가하였으나 선거결과 기독교민주당정부가 수립되여 반인민적친미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 9월과 10월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당을 포함한 6개의 정당들의 련합전선인 인민통일련합의 립후보 쌀바도르 알옌데가 승리하였으며 11월 3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칠레는 11월 17일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여온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칠레민주력량이 이룩한 승리와 칠레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변혁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 주고있습니다.》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칠레인민은 1971년에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인민통일련합은 4월 4일 진행된 지방주권선거에서 국내외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전년에 있은 대통령선거 때 보다 14.5%나 더 많은 표수를 얻었다.

칠레정부는 1월에 전국적으로 《인민재판소》를 설치할것과 이전친미독재정권시기에 구금된 43명의 애국자들을 석방할데 대한 법안을 작성발표하였다.

5월 20일에는 세계최대의 동광산인 《엘 떼니엔떼》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장악하였으며 7월 11일 헌법을 수정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을 채택하고 이날을 《민족존엄의 날》로 선포하였다.

칠레정부는 1970년 11월부터 1971년말까지 150개에 달하는 미제와 국내독점자본가들의 기업소와 은행을 국유화하고 대지주들의 농장 1천 383개를 몰수하였다.

대외적으로 칠레는 사회주의나라들, 주변 나라들과 국가 및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국제적련대성을 일층 강화하였다.

1971년에 중국, 민주독일과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민주월남과는 무역관계를 맺었다.

1971년에 알옌데대통령은 에꽈도르, 콜롬비아, 뻬루, 아르헨띠나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11월 꾸바의 피델 까스뜨로수상을 초청하였다.

한편 칠레는 1월 8일 3개의 미제공군기지(낀떼로, 뿐따 아레나쓰, 빠스허섬)를 철페하였으며 9월 16일 미제의 어용통신 유피아이 싼띠아고지사를 페쇄하였다.

미제와 칠레반동들은 현정부의 진보적조치를 반대하여 혼란을 조성시키며 알옌데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월과 7월에 각각 대통령암살음모를 꾸몄고 6월 18일에는 칠레형사국을 습격하였다. 또한 우익반동세력은 6월에 이전내상이며 기독교민주당지도자를 암살한것을 비롯하여 우익정당 우두머리들과 칠레에 있는 미국놈들의 살해음모를 꾸밈으로써 야당세력들로 하여금 정부를 공격케하며 칠레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의 구실을 마련하여보려고 피하였다. 1월 8일 알옌데대통령은 인민통일전국대회에서 《우리는 반동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대답하겠다.》고 경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부문은 광업이다. 대체로 북부는 광산지대, 동부는 농산지대, 남부는 산림지대이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초석, 쇠돌,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이다. 동생산량은 세계3위이며 이 나라 외화벌이의 83%를 차지한다. 인민통일정부가 수립된후 1971년말까지 칠레에서는 동광업, 초석생산, 흑색금속공업, 세멘트공업, 방직독점체들, 거의 모든 은행들이 국유화되였으며 대지주들의 땅이 몰수되였다. 이리하여 1971년에는 전해보다 국민총생산액은 8.8%, 공업생산은 13% 늘어났다. 이해 5대동광산의 동생산량은 6% 장성하여 57만 1천 397t에 달하였다. 강철은 64만 2천여t 생산함으로써 1970년보다 10% 장성을 보았다.

정부는 200에이커이상의 개인농장들은 1973년말까지 다 몰수할 계획밑에 1971년말까지 256만 6천ha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영농목장을 만들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쌀, 해바라기, 포도 등이다. 포도와 포도주 생산이 농업에서 주요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면양, 소, 염소, 말, 노새 등인데 주로 남부와 일부 동부 지대에 집중되여있다. 수산업에서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분배를 국가가 통제하고있다.

1971년에 일련의 상품값이 낮아졌으

며 20만명이 일자리를 새로 받았다.

주민의 대부분이 카톨릭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엘 씨글로(공산당기관지), 울띠마 오라(사회당기관지), 라 나씨온(정부기관지), 끌라린, 뿐또 피날(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가 창설되였으며 1970년 11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싼띠아고에 설치되였다.

1971년 7월 21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칠레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에 칠레신문 《울띠마 오라》(2월 2일호)와 잡지 《뿐또 피날》 (3월호)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의 전문을 각각 실었으며 신문 《라 나씨온》과《끌라린》도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칠레의 각정당, 사회단체로부터 그이께 공동축하편지를 보내여왔으며 신문 《라 나씨온》, 《엘 씨글로》, 《엘 끌라린》은 그이의 영광찬란한 60성상의 혁명력사를 실었다. 4월 16일에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와 칠레교육 및 출판국, 민족도서관의 주최로 싼띠아고에서 개막되였다.

1971년 1월 칠레사회당 제23차대회와 9월 칠레근로청년들의 제4차전국회의에서는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각각 채택하였다.

9월 7일 싼띠아고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를 비롯한 친선단체들의 주최로 우리 나라 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련대성집회를 가졌는데 칠레사회당 총비서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10월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69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상원의장이였던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현대통령)가, 1970년 5월에는 칠레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 6월 칠레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으며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6월에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칠레종합대학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 공산주의청년대표단, 사회주의청년련맹대표단이·참가하였다. 1972년 4월 칠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이며 칠레사회당중앙위원회 재정부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4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1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칠레사회당 제23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1월), 칠레공산당창건 쉰돐기념행사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12월), 농근맹대표단(8월), 직맹대표단(12월)이 칠레를 각각 방문하였다.

바베이도즈

까리브해 동쪽에 있다.

【면적】 431km²

【인구】 25만 4,000명

흑인이 77% 기타 백인, 혼혈인이 있다.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약 1만명)

정치 1627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6년 11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8일 339년간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독립하였다.

경제 주산물은 사탕, 람술, 당밀 등이다. 관광업에서 많은 수입을 얻고있으며 어업도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앙 길 라

까리브해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의 동쪽 240km의 해상에 있다.

【면적】 90km²

【인구】 6,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다.

언어는 영어

정치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서인도련방》에 속해있었다. 1962년 자메이카의 독립으로 이 련방은 해체되고 1967년 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다시 앙길라와 이웃의 두개섬(쎈트키츠와 네비스)을 합쳐 이른바 《련방》을 다시 조작하였다. 1967년 7월 앙길라인민들은 영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공화국으로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앙길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1969년 3월에는 침략군을 파견하였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영식민지통치로 경제는 보잘것 없으며 전기도, 전화도, 수도시설도 없으며 의사도 없다. 소금을 수출한다.

그린랜드

(단마르크식민지)

북빙양과 대서양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북극권내에 있고 80%는 사람이 살수 없는 어름지대이다. 7월의 평균기온은 령하 28°C이다.

【면적】 217만 5,600km²

【인구】 3만 9,600명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에스키모인이다.

【행정중심지】 고드다브

1841년에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 4월 미제는 단마르크와 《공동방위조약》을 맺고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1953년 헌법개정에 따라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수렵과 어업이다. 알루미니움제조에 쓰는 크리오라이트와 우란광이 많다.

쎙뻬에르 미껠롱

(프랑스식민지)

카나다령 뉴 파운드랜드의 남쪽에 있다.

【면적】 쎙뻬에르군도 26km², 미껠롱군도 216km²

【인구】 5,025명

【행정중심지】 쎙 뻬에르

1660년이래 프랑스식민지이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버 진

(미국식민지)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틸제도사이에 있는 40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사철 따뜻하다.

【면적】 344km²

【인구】 6만명

주민의 64%가 흑인이고 기타 백인, 혼혈인 등이다.

【행정중심지】 샬로트아말리(주민

1만 5,000명)

본래 단마르크령이였으나 1917년 3월에 미제가 2천 500만딸라로 매수하였다.

사탕수수재배 및 목축업을 한다.

버 무 다

(영국식민지)

미국의 뉴욕 동남방 1천 80km의 대서양상에 있는 36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은 20여개이다.

【면적】 53km²

【인구】 5만 2,000명

【행정중심지】 하밀론(주민 3,000명)

1684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2차대전이래 미제가 이 섬에 해공군기지를 두고있다. 휴양지로 유명하다.

주산물은 바나나, 감자 등이다.

바 하 마

(영국식민지)

미국 플로리다반도의 동남쪽 대서양의 크고 작은 약 700개(그 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21개)의 섬과 2천개이상의 암초로 이루어졌다.

【면적】 1만 1,405km²

【인구】 19만 5,000명

주민의 80%가 흑인이다.

【행정중심지】 나쏘(주민 약 6만명)

1783년부터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1964년 1월 7일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다.

1968년 4월 10일 의회선거에서 흑인들의 리익을 표방하는 진보자유당이 38석중 29석을 차지하였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이다.

관광업이 수입의 주요원천이며 나쏘는 휴양지이다.

과들루쁘

(프랑스식민지)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에 있는 과들루쁘본도와 그란드떼르섬을 포함한 5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면적】 1,780km²

【인구】 32만 3,000명

【행정중심지】 바스떼르(주민 1만 3,000명)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한개 현으로 되였다.

1971년 3월 수도시장선거에서 공산당후보가 당선되였다.

정당으로는 공산당(1958년에 창건), 사회당 등이 있으며 사회단체로서 로동총련맹이 있다.

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데 3분의 2는 프랑스독점자본가놈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4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그이께 과들루쁘 공산당과 로동총련맹은 각각 축전을 보내여 왔다.

도미니카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789km²

【인구】 6만 3,600명

【행정중심지】 로조(주민 1만5,000명)

1783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67년 3월 1일 자치권을 얻었다.

주산물은 바나나, 감, 귤류, 코코아 등이다. 경지면적은 5만ha이다.

마르띠니끄

(프랑스식민지)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의 가운데 있다.

【면적】 1,090km²

【인구】 33만 2,000명

주민은 흑인과 혼혈인이 대부분이다.

【행정중심지】 뽀르또 쁘랭스(주민 약 9만 9,000명)

1635년에 프랑스식민지로,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로는 공산당(1957년에창건), 진보당, 통일사회당,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이 있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등이다.

서인도제도

(화란식민지)

【면적】 1,011km²

【인구】 21만 3,000명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4만명)

1634년부터 화란식민지로 되였으며 1954년에 자치권을 얻었다. 1965년 5월 석유정유소 로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폭동이 있었다.

쎈트루시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616km²

【인구】 9만 6,841명

【행정중심지】 카스트리(주민 2만 5,000명)

1803년에 영국식민지로 되였으며 1967년 3월 1일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등이다.

안티구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면적】 172km²

【인구】 5만 4,405명

【행정중심지】 쎈트죤스

163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67년 2월 27일에 《자치권》을 얻었다. 1940년에 미제가 이 섬에 해공군기지를 설치하였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과실, 담배 등이다.

포클랜드

(영국식민지)

남미대륙 남쪽끝의 마젤란해협 동쪽 480km 해상에 있으며 약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면적】 1만 2,000km²

【인구】 2,1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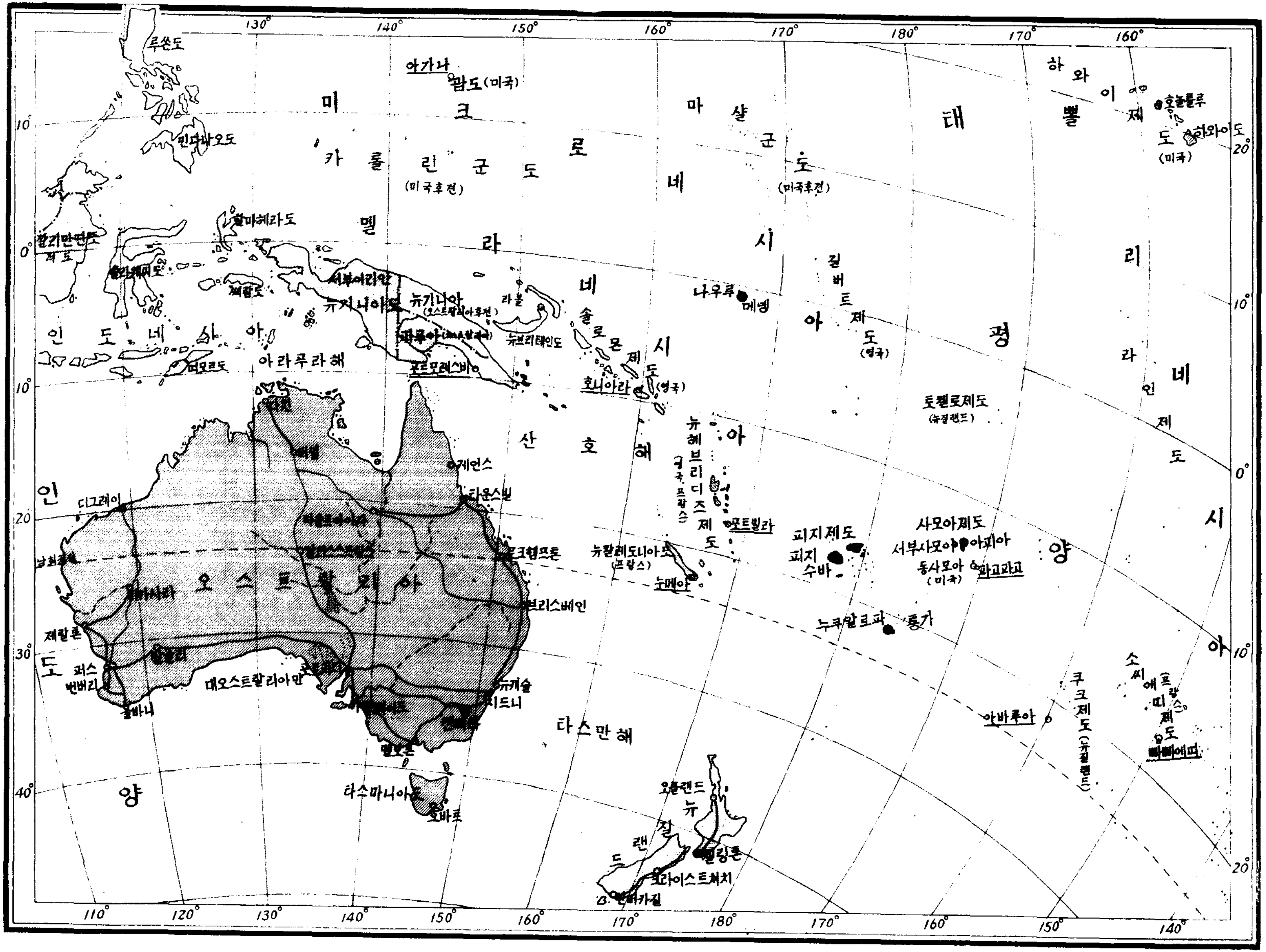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란드인이다.

【행정중심지】 스탠리(주민 약1,000명)

1840년대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아르헨띠나는 자기의 령토라고 하면서 말빈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제도에는 미제의 해군침략기지가 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양)이며 펭긴새들이 많다.

대양주



루손도
민다나오도
할마헤라도
칼리만탄도
셀레베스도
세람도
티모르도
인도네시아
아라푸라해
서부이리안
뉴기니아도
뉴기니아 (오스트랄리아후견)
파푸아 (오스트랄리아령)
포트모레스비
라불
뉴브리테인도
아가나
괌도 (미국)
미크로네시아
카롤린군도 (미국후견)
마샬군도 (미국후견)
멜라네시아
솔로몬제도 (영국)
호니아라 (영국)
나우루
메넹
길버트제도 (영국)
뉴헤브리디즈제도 (영국 프랑스)
포트빌라
뉴칼레도니아도 (프랑스)
누메아
산호해
피지제도
피지
수바
사모아제도
서부사모아
아피아
동사모아 (미국)
파고파고
통가
누쿠알로파
토켈로제도 (뉴질랜드)
폴리네시아
라인제도
하와이제도 (미국)
호놀룰루
하와이도
쿠크제도 (뉴질랜드)
아바루아
소씨에테제도 (프랑스)
대평양
오스트랄리아
디그레이
케언스
타운스빌
록햄프톤
브리스베인
뉴캐슬
시드니
멜보른
대오스트랄리아만
제랄톤
퍼스
번베리
올바니
타스마니아도
호바트
다스만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웰링톤
크라이스트처치
인도양

대양주 나라들의 면적, 인구, 수도 일람

나라이름	면적(km²)	인구(명)	년 도	수도(행정중심지)
오스트랄리아	7,686,810	12,880,000	1971. 12	캔베라
뉴질랜드	268,700	2,770,000	1969. 6	웰링톤
뉴기니아	576,700	2,257,000		
뉴칼레도니아	19,103	99,900	1968	누메아
피 지	18,200	520,000	1969	수 바
서부사모아	2,946	131,500	1969. 2	아피아
나 우 루	21	6,516	1969. 6	메 넹
통 가	416	100,000		누쿠알로파
괌	540	50,000		아가나
미크로네시아	1,813	100,000		사이빤
솔로몬제도	29,800	148,800	1968	호니아라

그이께 삼가드리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대 양 주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남태평양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전령토의 60%가 고원지대이며 서부는 대부분 사막이다.

남회귀선이 대륙중앙을 지나감으로 북부는 열대, 남부는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년평균강우량은 250~410mm이다.

【면적】 768만 6,810km²

【인구】 1,263만명(1970년 9월말)

주민의 90%가 영국에서 이주해온 구라파인이다. 원주민은 약 5만명이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캔베라(주민 11만 9,000명)

【의회】 상하량원제

【정부】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정부이다. 수상 윌리암 맥마혼(1971년 3월—), 외무상 니켈 에이취 보웬, 국방상 존 고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 창건, 위원장 에프 힐. 측인펜서당(원주민들의 조직)1972년 1월 창건. 자유당(집권당), 지방당(집권당), 레이버당, 민주로동당, 로동조합리사회, 유레카청년동맹, 부녀련맹, 오스트랄리아평화위원회

정치 177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이민단》을 이 대륙에 보냈다. 그후 반세기동안 이 나라는 영국의 《죄인》들의 류배지로 되여있었다.

1901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대륙에 분산되여 있던 지역적인 식민지들을 통합하여 오스트랄리아련방을 조작하고 저들의 《자치령》으로 선포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영련방성원국이나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와 《세아토》에 가담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동남아세아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아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으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원국으로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있다.

또한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 가담하여 1967년부터 남부웰남에 침략무력을 파견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캄보쟈괴뢰도당에게 군사《원조》를 주겠다고 떠벌였다. 1971년에는 캄보쟈괴뢰군을 훈련하기 위한 이른바 《반게리라전 전문가》들을 보냈으며 이를 위하여 1971—1972회계년도에 20만딸라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밀(1970~1971년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감소)이며 귀밀, 보리, 사탕수수, 목화, 감자 등도 난다. 목축업에서는 양사육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년간 양모생산량은 약 86만t이다(세계 생산량의 약 30%). 육류, 가축 등을 생산한다.

석탄, 보크사이트, 쇠돌, 연, 주석 등이 채굴된다.

1971년에 생계비는 6.4% 올라갔다. 1972년 1월에 실업자수는 12만 574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 에이 피, 에이유피통신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시드니 모닝그 헤랄드, 오스트랄리안, 멜보른 에이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오스트랄리아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그 부인을 접견하시였다.

같은해 작가인 윌프레드 버체트(3월)와 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6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랄리아 평화인사이며 작가인 스탠리 무어는 《김일성수상님 만세!》라는 시를 지어 그이께 삼가드리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동쪽에 있는 2개의 큰 섬과 기타 여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해양성기후로서 추위와 더위의 차가 적다.

【면적】 26만 8,700km²

【인구】 277만명(1969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이 영국인이고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약 21만 4,000명 있다.

공용어는 영어

【수도】 웰링톤(주민 29만 5,300명, 1969년 4월)

【국회】 일원제

【정부】 수상 존 마샬(1972년 2월—), 국방상 존 로버트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윌콕스. 국민당(집권당), 레이버당, 사회신용당, 자유당, 로동총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정치 1804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으며 1907년 9월에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60년 11월이래 국민당정권이 계속 집권하여 친미 추종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뉴질랜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1950년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다.

1951년에 《안쥬스》동맹, 1954년에는 《세아토》등 미제가 조작한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하였다. 1963년부터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침략군을 파견하였다.

1971년 4월 30일 뉴질랜드인민들이 전국각지에서 벌린 반미시위를 비롯하여 반정부투쟁을 년중 줄기차게 벌렸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농업생산에서 축산물이 90%이상 차지한다. 양털과 육류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공업은 주로 빠터와 치즈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석탄, 쇠돌, 금, 은 등이 채굴되며 산림자원이 많다.

【출판보도】 신문 도미니온, 썬데이 타임스 뱅가드, 피플즈 보이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뉴질랜드육류및 그와 관련한 로동자들의 산업직업동맹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뉴기니아

(오스트랄리아후견령)

오스트랄리아동북쪽에 있는 태평양상에서 가장 큰 섬인 뉴기니아의 동부를 차지하고있다. 서부는 인도네시아령토인 서부이리안과 접경하고있다. 북부는 오스트랄리아의 후견령, 남부는 식민지(파푸아)이다.

【면적】 후견령 23만 8,700km², 식민지 23만 8,000km²

【인구】 후견령 165만 9,000명, 파푸아 59만 8,000명

뉴기니아의 동쪽 북부는 독일의 식민지였으나 1921년에 오스트랄리아의 위임통치로, 1946년에 후견령으로 되였다. 동쪽 남부(파푸아)는 19세기말부터 영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있다가 1906년에 오스트랄리아식민지로 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1949년에 《파푸아와 뉴기니아법》을 조작하여 두 지대에 대한 련합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72년 1월 23일 파프아의 포르 모레스비부군의 주민들이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야자, 커피, 코프라, 고무등을 재배하며 금, 은, 백금, 석탄이 채굴된다.

뉴칼레도니아

(프랑스식민지)

동경 161°30′~164°40′, 남위20°1′~22°26′ 사이에 있는 섬이다..

【면적】 1만 9,103km²

【인구】 9만 9,900명(1968년)

【행정중심지】 누메아

1853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여 1860년에 식민지로 되였다. 1970년 6월 뉴칼레도니아 자치로동조합동맹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광물자원이 많으며 니켈과 크롬이 유명하다.

커피, 코프라, 남새 등이 난다.

피 지

남태평양상의 멜라네시아군도의 동쪽에 있는 크고작은 35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따뜻하다.

【면적】 1만 8,200km²

【인구】 52만명 (1969년말)

피지인과 인도인(약 절반)이 산다.

【수도】 수바 (주민 약 5만 4,000명)

【립법리사회】 최고립법기관이다. 총의석 52명중 피지인 22명, 인도인 22명 기타 8명으로 구성

【정부】 수상 라트 세르 카미세세 마라

【정당】 통일당, 독립당, 련방당, 민족민주당

정치 1874년부터 영국식민지로 있다가 1970년 10월 1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경제 사탕수수, 야자, 바나나 등을 재배하며 림업도 한다. 해상 및 항공로의 교차점에 놓여있어 관광업 및 운수업 수입도 있다.

서부사모아

서태평양상에 있는 9개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면적】 2,946km²(그중 우포르도가 1,113km², 사이바도는 1,820km²)

【인구】 13만 1,500명(1969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은 사모아인이고 구라파인도 있다.

【수도】 아피아(주민 2만 5,000명)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다.

【국가원수】 마리에토아 타누마피리 2세

【정부】 수상 쯔삐아 다마세세 메아로후이(1970년 2월—)

정치 1919년부터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있었다.

1927년에 대중적반제민족해방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2년 1월 1일 서부사모아는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동부사모아는 미제의 강점하에 있다.

1971년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경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토지 전체가 화산질이다. 좋은 토지는 외국독점자본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나 우 루

동경 166°55′, 적도이남 약 40km 지점에 있는 산호초의 섬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면적】 21km²

【인구】 6,516명(1969년 6월)

나우루인 3,300명 기타 섬들의 원주민, 중국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국어는 영어

【의회】 일원제

【정부】 대통령 함미 데 로버트(수상, 외상겸임)

정치 1888년부터 독일에 병합되여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중에 오스트랄리아군이 강점하였으며 그후 오스트랄리아, 영국, 뉴질랜드의 《신탁통치》하에 있었다. 1942~1945년에 일제에 강점되였으며 1947년에 《유엔신탁통치령》으로 되였다.

1966년에 자치권을 획득하고 1968년 11월에 독립하였다. 영련방준가맹국이다.

경제 린광석생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령토의 5분의 4의 지역에 린광석이 매장되여있다.

통가왕국

남위 15~23°30′, 서경 173~177°, 피지제도의 동남 약 640km지점에 있는 약 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면적】 416km²

【인구】 약 10만명

주민의 대부분이 포리네시아인이다.

【수도】 누쿠아로파(통가타푸섬, 주민 1만 6,000명)

【국가원수】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

【정부】 수상 파다메히 쯔이삐레하게

1845년에 투포우왕 1세가 전통가를 통일하였다. 1900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가 1970년 6월 4일 독립하였다. 통가는 립헌군주국이며 영련방성원국이다.

주산물은 바나나, 코푸라 등이다.

괌 섬

(미국식민지)

북위 13°26′, 동경 144°43′, 마리아나군도의 최남단에 있다.

【면적】 540km²
【인구】 5만명
【행정중심지】 아가나
1898년에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대전시 일제에 강점되였다가 1944년에 미제가 다시 강점하였다. 미제는 괌섬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해공군전략기지로 삼고있다.
주산물은 사탕수수, 강냉이, 고구마 등이다.

미크로네시아

(미제의 신탁통치령)

필리핀동쪽에 있는 마리아나군도, 카롤린군도, 마샬군도를 포함한 2천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면적】 1,813km²
【인구】 1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 원주민이며 필리핀인과 일본인, 혼혈인들이 산다.
【행정중심지】 사이판(마리아나군도)
미크로네시아는 제1차세계대전후부터 일제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의 《후견령》으로 되였으나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고있다.
미제는 오끼나와와 필리핀인민들의 반미투쟁에 부딪쳐 이 지역의 군사기지의 지위가 날로 불안정하여져감에 따라 미크로네시아를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책동하나 이 지역인민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치고있다.
토지전체가 화산질이며 코푸라, 코코아,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농산물은 주로 일본에 수출된다.

솔로몬제도

(영국보호령)

남위 5~12°, 동경 155~169°에 걸친 태평양상에 있는 10개의 큰 섬들과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2만 9,800km²
【인구】 14만 8,800명(1969년말)
말라네시아인이 13만 8,700명있다.
【행정중심지】 호니아라
1893~1899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이 제도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든후 서부 태평양 영국 고등판무관놈이 직접 통치한다..
주산물은 코푸라, 목재, 식물성 및 동물성 기름이다.

량 극 지 방

남 극 권

【개관】 지구의 가장 남쪽끝에 있는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일부로 이루어진 남위 60°(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 나라대표회의에서 결정)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면적은 1천 361만km²이며 대륙해안선의 길이는 1만 3천km이다.
1820년 1~2월에 로씨야의 탐험대가 대륙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1894년에 노르웨이탐험대가 남극대륙에 처음 들어갔다. 1911년 12월 14일에는 노르웨이의 탐험가가 남극점에 처음 도달하였다.
남극대륙은 해발 2천~3천m의 높이를 가진 고원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4천 500~6천m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있다.
남극권은 83%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세계의 눈과 얼음 총량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m, 최고 4천 480m나 된다.
1958년 1월에 관측된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m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m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m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0m지점이다.
남극대륙은 아직까지 군도인지 단일한 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C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령하 5°C이며 가장 추운철(6~7월)에는 령하 50°C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 대륙동부의 쏘련 워쓰또크기지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88.3°C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제일 낮은 기온이다.
1년에 한번의 낮과 밤의 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4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이남의 전지역은 년중 폭풍이 일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30m/초이상되는 날이 년중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뀐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않는 지대(500km²)가 있으며 최고기온은 8.3°C, 최저 령하 5.5°C되는 고원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란, 망간, 석탄 등이 있으며 최근년간 방사성물질들이 발견되고있다. 펭긴새가 많으며 세계 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권에서 난다. 식물은 300여종이 발견되였다.
남극권은 과학연구에서 뿐만아니라 남반구대륙들을 련결하는 해상 및 항공운수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극조약》에 의하여 남극권은 평화적으로 리용되여야하며 이 지대에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과학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령유권을 론하지 않기로 되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극권에 전략기지들을 설치하고 군사연습 등을 진행하고있다.

북 극 권

【개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3대륙의 북쪽의 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빙양이 속하는 북위 66°30′이북의 지역을 말한다. 면적은 약 2천 500만km²인데 그중 약 1천 435만 km²는 해면이다..
15세기말 《지리적발견》이후 아세아에로의 최단 항로를 개척하려는 나라들에 의하여 북극권에 대한 탐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북서항로에서는 1497년에 뉴파운드랜드가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동북항로에서는 바렌쯔해와 씨비리북부연안, 노바야제믈랴 등에 대한 탐험이 진행되고 1596~1597년에 스피쯔베르겐군도가 발견되였다. 17세기중엽에 베링그해협의 발견은 북극권탐험대의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19세기후반기부터 북극권내의 륙지에 대한 탐험이 시작되였으며 1967년 4월 6일 처음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1937년에 최초의 학술탐험이 시작되였으며 현재 북극권내에 령토를 가지고있는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가 과학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1969년 5월에 처음으로 영국탐험대가 (걸어서 5천 800km) 북극권대륙횡단에 성공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북서항로가 개설되였다.

북극의대부분은 3m 두께의 얼음에 덮여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천 219m이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권보다 따뜻하다. 가장 추운 철(1~3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대에서 령하 40°c, 대륙연안에서 령하30°c이다. 가장 더운 철(7~8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대에서 0°c, 대륙연안에서 5~9°c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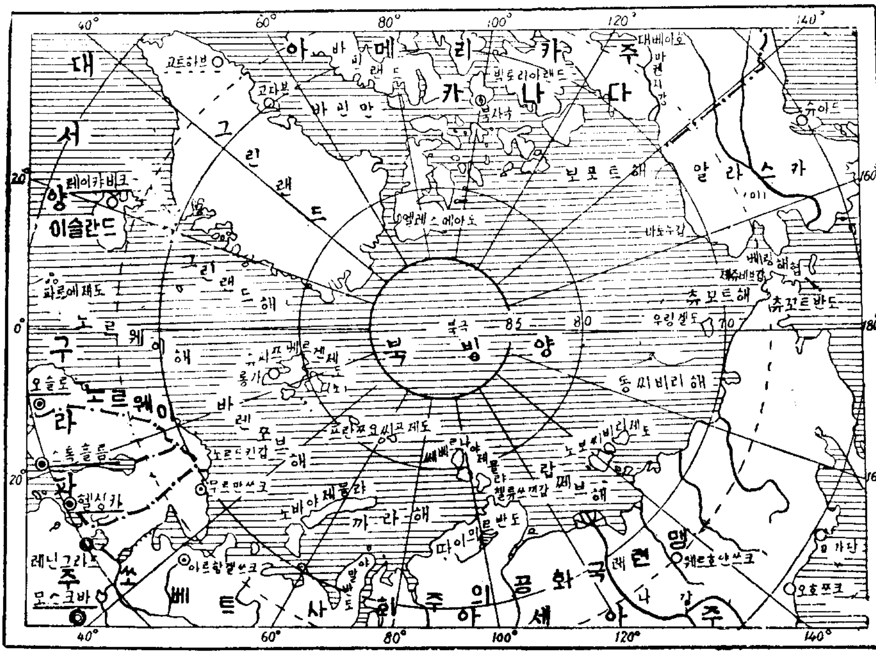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된다. 년평균강수량은 200~400mm인데 기온이 낮음으로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여 기온의 변화를 일으킨다. 북극권의 얼음의 두께는 해마다 얇아지고 북빙양의 수위는 년간 10mm씩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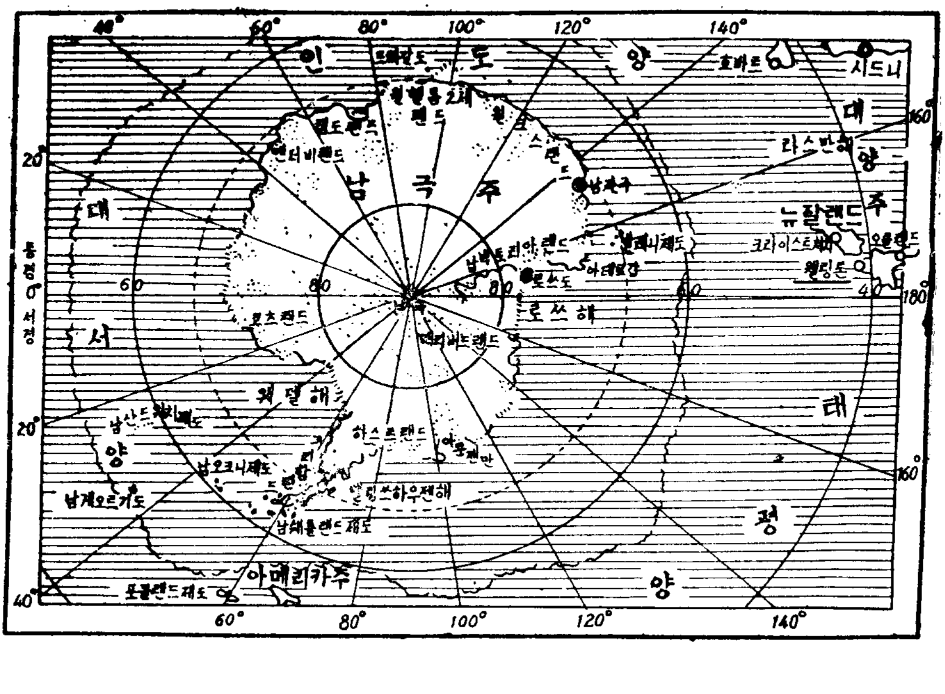
【주민】 약 12만명이 있다. 주요민족의 거주지역과 인구를 보면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빵그바지방 및 그린랜드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에드족(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뚜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쪽에는 아메리카 인디안족, 북구라파의 북쪽에는 랍프족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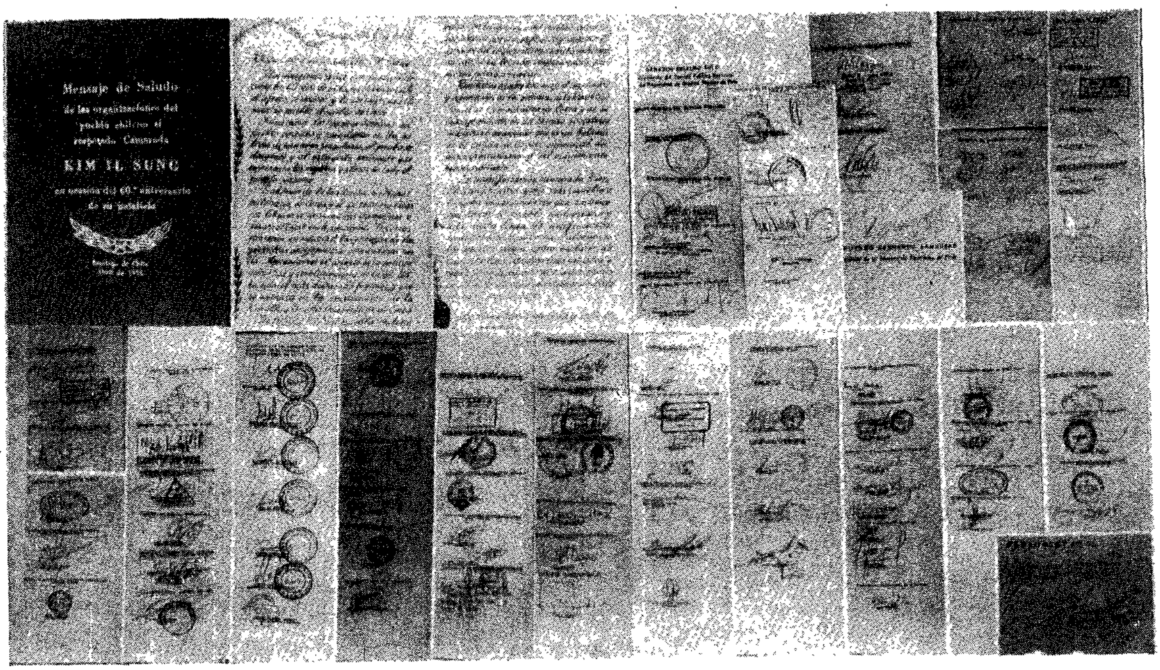
【자원】 석탄, 석유 등의 자원이 많으며 쇠돌,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있다.

남쪽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으며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 등 털가진 짐승이 많이 산다.

북극권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침략자들은 북극권대륙에 수많은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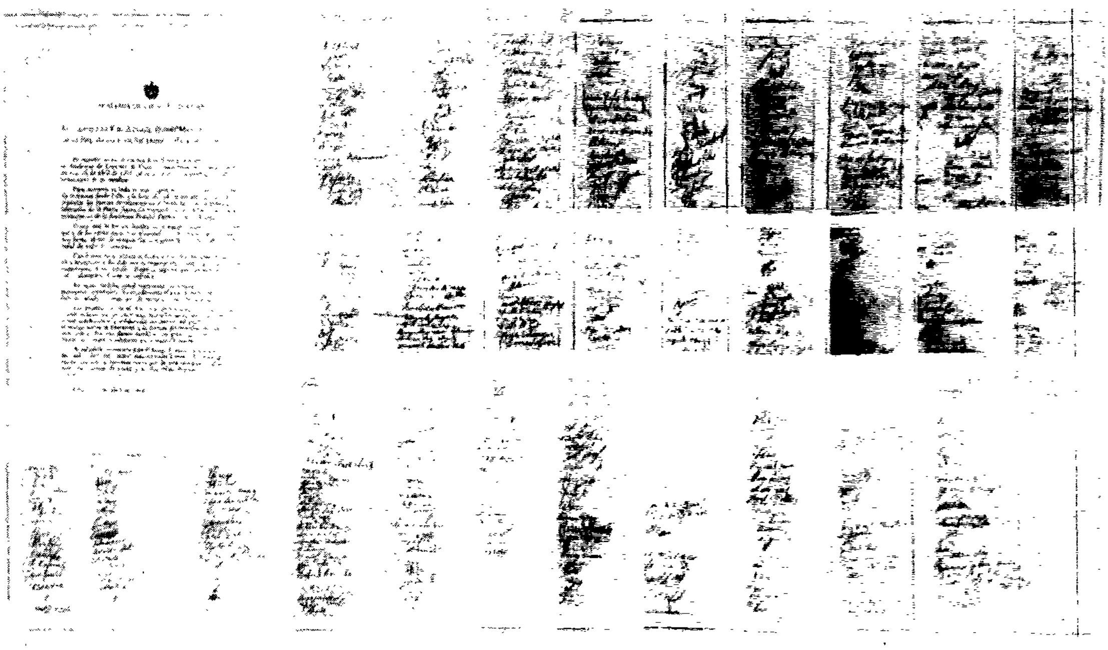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린 칠레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축하편지

문건과 자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린 꾸바과학원 성원일동의 공동축하편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 성 애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공화국 녀성들의 대중적혁명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총결기간 녀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창조적활동을 벌렸으며 우리 녀성들은 당의 붉은 전사로서, 당당한 사회주의건설자로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업적들에는 우리 녀성들의 줄기찬 투쟁과 숭고한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은 당의 방조자이며 인전대인 녀성동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그 역할을 한층 더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전반적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내놓았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오늘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나라 모든 녀성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임무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는 전체 인민들과 녀성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보고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열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강화발전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이며 5차당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녀성들을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입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녀성해방의 위대한 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녀성동맹의 과업

동지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업적을 총화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웅대한 강령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5차당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면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다 같이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특히 우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들은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의 승리적전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입니다.

녀성문제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는 중요한 사회적문제이며 녀성운동은 사회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습니다. 녀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할수 없으며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투쟁의 전기간 녀성문제해결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나아갈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투쟁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 녀성들의 사회적처지와 생활에서는 실로 놀라운 세기적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오래동안 봉건적예속과 일제의 민족적억압과 자본의 착취밑에서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를 받았으며 심한 불평등과 완전한 무권리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녀성들은 한평생을 두고 어렵고 힘든 로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헐벗고 굶주려야 하였으며 썩어빠진 봉건유교도덕에 얽매여 인신적인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지난날 녀성들은 사회정치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였을뿐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것은 하나의 옛말로 되였으며 그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에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과 예속에서 해방되였으며 사회적평등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제통치시기에 15성상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을 해방하여주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몸소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녀성들을 수천년에 걸친 봉건적 예속과 질곡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전기간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육친적인 배려에 끝없이 고무된 녀성들은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로동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녀성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은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그들의 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

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의 한 부대를 이루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문화건설과 정치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녀성문제해결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결코 아니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아직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으며 사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부담을 걸머지고있습니다. 일부 녀성들의 머리속에는 자본주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않게 남아있으며 그들은 낡은 도덕과 뒤떨어진 생활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녀성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벌려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완전히 꼭같은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녀성들을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천명하신 녀성해방에 대한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로선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3페지)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녀성문제해결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력자구성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녀성들은 공업부문에서 로력자수의 45.5%를 차지하고있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거의 6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업부문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이 남아있으며 농업로동이 계속 힘든 로동으로 남아있는 한 녀성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는 해결될수 없습니다. 오직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업부문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하게 될 때 비로소 근로자들과 녀성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3대기술혁명의 하나로 규정하심으로써 녀성들을 사회생활령역에서뿐아니라 가정생활령역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제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이 걸머지고있는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은 그들의 사회적활동을 적지않게 제약하고있으며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것을 저애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힘과 재능을 사회주의건설에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 가정용랭동고와 세탁기, 전기밥가마를 비롯한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며 옷공장, 세탁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잘 갖추어준다면 녀성들은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헐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수도화방침에 따라 군소재지들과 모든 농촌부락들에 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농촌녀성들도 수천년동안 물려내려오는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녀성들은 남자들과 다름없는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가지게 될것이며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이와 같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일뿐아니라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가장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녀성해방의 력사적인 과업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차당대회보고에서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기를데 대한 문제를 문화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녀성들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또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커다란 배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6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66년 10월에 진행된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 이후 탁아소, 유치원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에는 수많은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새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어린이양육과 교양사업이 훨씬 개선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250만에 이르는 귀여운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이 훌륭한 양육조건과 교육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들의 광범한 사회적진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됩니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였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우리 녀성들을 이제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고 어린이양육에서 걸머지고있는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한다면 그들에게는 실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게 될것이며 모든 녀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칠수 있게 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월한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이 싹트게 되며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몸젖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교양을 받는다면 그들이 커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당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4페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수 없습니다. 녀성들은 국가사회생활과 가정생활 특히 자녀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는것만큼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여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될뿐아니라 녀성운동자체의 근본요구로 됩니다.

녀성들이 착취와 억압, 예속과 무권리에서 해방되였다고 하더라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 뒤떨어진 생활유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녀성들의 해방은 완전한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또한 녀성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문화수준이 높지 못하면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여있는 사회적평등과 권리마저 제대로 행사할수 없습니다.

녀성들이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유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 때 비로소 그들의 해방은 완전하고 종국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모든 녀성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녀성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녀성문제해결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보고는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일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녀성운동의 근본원칙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방도를 뚜렷이 천명한 녀성해방의 위대한 력사적선언입니다.

5차당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보고는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주고 그들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고있으며 민족적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에게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5차당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보고를 심장으로 접수한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은 커다란 감격과 새로운 투쟁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자기들에게 해방과 평등한 행복을 주시였으며 보다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고계시는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기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위대한 혁명적 로선과 방침들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녀성동맹조직들은 수령님께서 5차당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녀성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이 영예로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모든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기술혁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과학과 기술발전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당한 사회주의건설자로서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것만큼 기술혁명수행에서도 마땅히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합니다. 특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녀성들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녀성들은 이 영예로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이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술학습을 널리 조직하며 모든 녀성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녀성들은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꼭 배우도록 하며 기술을 아는 녀성들은 새로운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젊은 녀성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모두 기능자, 기술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며 나이많은 녀성들도 모두 근로자중학교에서 일반지식을 배우는것과 함께 일정한 기술지식을 배우

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대담하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많은 녀성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산설비와 기계들을 개조하며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낡은 생산기준을 대담하게 마사버리고 새 기준을 창조하는 사업에 녀성들이 적지않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는곳마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대담하고 창조적인 발기로써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모범적인 녀성방직공과 제사공, 녀성선반공과 녀성뜨락또르운전수를 비롯한 수많은 녀성로력혁신자들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혁명수행에서 녀성들이 놀고있는 역할은 우리 녀성들에 대한 수령님의 높은 기대와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비해볼때 아직 부족합니다.

녀성들은 기술발전에 대한 낡은 사상관점과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자기부문의 기술과 설비, 자기 기대에 정통할뿐아니라 생산설비들을 끊임없이 개조하며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경리부문과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녀성들은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내놓으신 농촌기술혁명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발관개체계를 널리 실시하며 농산작업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녀성들은 자기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성들은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참가하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거의 모든 리들에 텔레비죤이 들어갔으며 집집마다 신문 또는 잡지가 차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문화적혜택을 받고있으며 그들의 문화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날 글 한자 배울수 없었고 문화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였던 우리 녀성들도 오늘은 수령님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모두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당당한 주인으로, 창조자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녀성들의 문화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으며 특히 40살이상 되는 녀성들의 문화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지난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혹시 받았다면 부르죠아사회에서 자본주의적교육을 받았을뿐입니다.

오늘 녀성들의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빨리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이며 따라서 이것은 우리 녀맹조직들과 녀성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의 일반지식수준과 전반적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의 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어머니학교를 잘 운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머니학교는 녀성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선전하며 일반지식과 문화지식을 보급하여 녀성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농촌, 가두에 어머니학교를 잘 꾸리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좋은 동무들을 강사로 배치하여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머니학교들에 좋은 교재와 교양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주며 어머니학교운영에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는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어머니학교를 통하여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 더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자기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뿐아니라 나라의 전반적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자기 가정과 인민반, 자기 마을과 직장을 언제나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나라의 전반적 사회정치생활과 문화수준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문화혁명수행에 대한 당의 모든 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70페지)

지난 기간 당이 취한 현명한 조치들과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과거사회에서 물려받은 자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인 낡은 도덕과 생활유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도덕과 생활유습을 반대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도덕과 생활유습가운데서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것은 대담하게 버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살려서 사회주의적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녀성들은 생활에서 필요없는 허식을 차리고 랑비를 가져오게 하거나 아들 딸들을 락후한 방법으로 기르는것과 같은 낡은 관습을 버려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례절이 바르며 시부모를 존경하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도덕과 관습은 살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은 또한 개체생활을 잘하고 사회적인 공동생활질서와 공산주의도덕의 모든 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것입니다.

녀맹조직들은 한편으로는 녀성들속에서 낡은 생활유습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463~464페지)

우리는 지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으며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준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첨예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며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협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없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당과 근로단체 조직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겨야 하며 여기에 가장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과 그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녀성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녀성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녀성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이며 모든 녀성들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어느때나 동원될수 있도록 그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하는 대중적운동입니다. 다시 말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운동입니다.

우리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과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목적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은 결코 그들의 혁명실천, 생산활동과 떨어져서 진행될수 없습니다. 사상혁명과 혁명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훌륭한 방도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는것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이 일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인민반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키워 모든 녀성들이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곳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이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산에 참가하고있는 녀성들속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녀성들이 로력전선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계획과제들을 언제나 어김없이 완수 또는 넘쳐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어린이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청년들과 아동들은 우리의 교대자들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후대교양문제는 곧 혁명의 장래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후대들을 옳게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혁명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1969년판, 38페지)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고 잘 교양하여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것은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녀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자이며 교양자일뿐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린이 양육과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양육과 교양을 담당하고있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모두 녀성들이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가운데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녀성들에게 달려있으며 학교교육의 질도 녀성들에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어린이 양육과 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든 녀성들이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이미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잘 꾸리고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 5차당대회에서 내놓으신 방침대로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 로동자구들에 새로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 많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탁아소, 유치원 건설사업을 전 사회적운동으로 널리 벌려 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탁아소, 유치원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의 대렬을 잘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보육원, 교양원들을 좋은 동무들로 선발 육성하며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보육원, 교양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쳐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양육사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질좋은 식료품과 놀이감들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는것입니다. 과학연

구부문과 식료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어린이식료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널리 진행하며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어린이식료품을 많이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용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으며 어린이들의 지능발전에 도움이 될 맵시있고 아름다운 여러가지 놀이감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기위하여 당 제5차대회에서 군들에 산원시설을 강화하고 아동병동을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산원시설과 아동병동을 꾸리는 사업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녀성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합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의 새로운 기만적간판뒤에서 남조선에 현대적대량살륙무기들과 침략적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습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새 전쟁준비에 더욱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음모와 온갖 도발책동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단호히 맞받아나가 싸울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그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물자예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을 대신하여 자기 공장과 자기 협동농장을 운영하여 전시생산을 보장하며 자기 마을과 자기 일터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도록 생산기술과 관리운영 방법을 꾸준히 배우며 로농적위대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인민군대원호사업과 인민군대후방가족원호사업을 널리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장병들로 하여금 조국보위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그 가족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 녀성동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동맹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인정하시고 언제나 녀맹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녀성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총결기간에만 하여도 1968년 10월 11일교시와 1969년 8월 20일교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시와 로작들에서 매시기 녀맹사업의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녀맹일군들과 녀성들을 친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이러한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녀맹일군들은 언제나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과 녀성동맹사업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녀성동맹조직이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녀성들의 혁명적대오로 자라난것입니다.

지난날 녀성동맹은 이름만 있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직체계도 웃기관만 형식적으로 있고 아래에는 똑똑한 조직이 없었으며 일부 있는 녀맹조직들도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회조직에 용해되여 그에 복무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적지않은 녀맹지도일군들은 수정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으며 국제대회에나 다니면서 행세식으로 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녀맹제3차대회는 유야무야하던 녀성동맹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녀맹제3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는 녀성동맹조직들과 우리 나라 녀성들이 나아갈 앞길을 또다시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녀성동맹이 당의 강력한 인전대로서, 근로녀성들의 사회정치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녀성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산 조직으로서 늘 움직여야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제구실을 할수있지 그렇지못하면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자기 사명을 다할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조직체가 이름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이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을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전투력이 강한 혁명적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녀맹조직체계를 사회주의사회의 근로녀성들의 정치조직답게 혁명적으로 개편하고 녀맹대렬을 정리하였으며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동맹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녀성동맹의 기본구호와 기발, 휘장을 새롭게 제정하고 모든 동맹원들에게 맹원증을 수여하였으며 가맹사업과 이동절차에 이르기까지 동맹조직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동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지도되는 전일적인 혁명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녀성동맹의 기본임무는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을 하나의 문화계몽단체로 여기는 그릇된 경향을 없애고 녀맹 사업의 기본을 녀성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 두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근로녀성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후 녀성동맹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으며 녀성동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녀성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녀성들속에서 학습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며 통달하기 위한 운동이 군중적으로 벌어진 결과 수많은 녀성들이 수령님의 로작들과 혁명활동략력의 기본사상과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통달하였습니다.

녀성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학습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충성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으며 살아도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투쟁하다가 한목숨바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시되면 제때에 집행대책을 토의하고 그 관철에로 녀성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녀맹조직들과 녀성들 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녀성동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리였습니다.

한때 수정주의분자들은 녀성들속에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수정주의분자들은 녀성들속에서 《현모량처》, 《녀필종부》와 같은 썩어빠진 봉건유교도덕을 설교하였으며 안일부화한 사상과 양풍을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녀성들을 옛날과 같이 집에 들어앉아 남편의 시중이나 드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부화타락케 만들어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서 떼여내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 언제나 충직한 녀성동맹과 녀성들은 수정주의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렸습니다. 수정주의분자들과 그들이 뿌린 사상독소를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녀성들속에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가 들어오는것을 철저히 막았으며 녀성동맹의 사상의지의 순결성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오늘 조선민주녀성동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전동맹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으며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사상과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녀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동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참으로 조선녀성운동력사에서 오늘 처럼 우리 녀성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때는 없었으며 오늘과 같이 녀성동맹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전동맹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찬 혁명적대오로 꾸려진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인전대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녀성들의 혁명적대오로 자라났다는것을 대회앞에 떳떳이 보고할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7페지)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동맹조직생활체계를 세우고 녀성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지난날 녀성동맹에는 동맹조직생활체계가 없었으며 맹원들은 동맹의 조직적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초급녀맹단체들에서 회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고 동맹생활총화를 하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동맹조직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엄중한 상태를 수습하고 각급 녀맹조직들에서 녀맹회의와 동맹생활총화를 정상적으로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웠으며 모든 동맹원들이 늘 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녀성들이 언제나 녀맹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녀성들이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며 열렬한 녀성혁명가이신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초급녀맹단체들에 어머니학교를 알뜰히 꾸리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녀성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강습과 강연회들을 통하여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활동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특히 녀성들속에서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자》 백번읽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녀성들이 강반석녀사의 열렬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품성을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뽑는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지난날 적지않은 녀성들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자기개인과 자기 가정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사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가정생활이나 안온하게 해나가려는 리기주의사상에 물젖어있었으며 집안에 들어앉아 남편의 시중이나 들고 아이를 기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지 않고서는 녀성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울수 없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뽑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한편 낡은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이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가정살림보다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을 집단적로동속에서 단련시키는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성과적으로 개조되며 빨리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집단적로동을 통해서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집단적로동속에서 자신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며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과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근로녀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두터운 배려가 더 잘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이 건설되여 운영되고있으며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이 근로녀성들을 위하여 훌륭히 봉사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그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놓고 힘자라는껏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보장받고있습니다.

수령님의 이러한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총결기간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대렬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200만에 달하는 녀성들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보람찬 로동속에서 자신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안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녀성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녀성혁명가로 자라났으며 녀성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녀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계급적원쑤를 끝없이 미워하고 부정적현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조직생활과 집단적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을 다투어 나서며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것도 서슴지않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속에서는 혁명적인 기백이 차넘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녀성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가정과 인민반을 혁명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녀성들은 강반석녀사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이 혁명가로 될뿐아니라 자녀들을 혁명적으로 키우고 온 가정을 혁명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마을과 인민반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녀성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낡고 뒤떨어진 생활유습에서 벗어나 혁명적가정으로 꾸려졌으며 6천여개의 인민반이 천리마인민반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들과 인민반들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가득 들어차고 모두가 다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간부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녀맹일군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난날 어떤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나온 인테리들만 될수 있는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녀맹에서 상대해야 할 녀성들은 공장과 농촌에서 일하고있는 근로녀성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장과 농촌에서 실지 로동을 통하여 단련된 견실한 동무들을 간부로 쓰는것이 좋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1969년판, 28~29페지)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부르죠아인테리녀성들만이 녀맹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던 그릇된 사상관점을 없애고 녀맹의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녀맹의 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우리는 로동자, 농민출신 녀성들가운데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녀성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키워낸 젊은 인테리녀성들을 녀맹 각급 지도기관에 대담하게 등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동맹의 간부대렬은 계급적바탕이 좋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능력있고 대중속에서 신망이 높은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간부대렬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전당적으로 진행되는 1개월강습에 모든 녀맹일군들이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자체로 녀맹일군들을위한 강습과 방식상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습니다.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녀성동맹 후비간부양성체계도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중앙당학교와 근로단체중앙학교, 공산대학을 비롯한 각급 양성기관들에 녀맹일군양성반을 내오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도 녀맹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낼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녀맹조직들은 생산현장과 군대에서 단련된 녀성들과 혁명학원을 졸업한 녀성들을 계획적으로 각급 양성기관들과 대학들에 보내여 지식있고 능력있는 후비간부를 전망성있게 키워내고있습니다.

녀성동맹간부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녀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앞으로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그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조선녀성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매우 많으며 우리가 갈길은 아직도 멉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러한 중대한 혁명과업은 녀성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강화하며 녀성대중과의 사업을 더욱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를 튼튼히 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적녀성동맹건설의 근

본원칙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녀성동맹이 자기 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인전대로서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맹의 총적과업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녀성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창조적혁명사상이며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혁명과 건설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수령님의 이러한 위대한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실패와 동요를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7폐지)

우리는 녀성동맹안에 사상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녀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리론이 담겨져있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강령적교시들을 모든 녀성들에게 깊이 연구체득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녀맹사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녀성들이 그 전반사상과 진수 그리고 투쟁과업들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깨닫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녀성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녀성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근 반세기에 이르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도록 하며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반석녀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십니다.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 밑에 강반석녀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첫 녀성혁명조직이 출현하였으며 공산주의녀성운동의 훌륭한 모범과 빛나는 전통이 창조되였습니다. 강반석녀사는 온 생애를 조국의 독립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바치신 열렬한 녀성혁명투사이시였을뿐아니라 혁명가의 충직한 안해였으며 자제분들을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신 혁명가의 훌륭한 어머니이시였습니다. 참으로 강반석녀사는 조선녀성혁명가의 귀감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의 전형적모범이십니다.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혁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 녀성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거울처럼 비쳐주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학교와 강연회, 담화들을 통하여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자》 백번읽기운동을 계속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다가까운 앞날에 그것을 완전히 통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이 강반석녀사의 모범을 따라 오직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열렬한 녀성혁명가로, 자녀들의 훌륭한 공산주의적어머니로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된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로동당의 강력한 인전대입니다. 우리 당과 녀성동맹안에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만이 있을뿐이며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그 어떤 사소한 반동적사상독소도 녀성동맹안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녀성동맹안에 언제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만이 가득차게 하며 그이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녀성동맹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녀성동맹과 녀성들의 최대의 과업이며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과 마음을 다바쳐 높이 모시며 그이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수령님의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안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녀성들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키며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모든 녀성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제시된 과업을 끝까지 실속있게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맹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간부들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켜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는 녀맹간부대렬을 당과 수령님께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녀맹일군들의 준비정도는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녀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낮기때문에 녀맹조직들이 사업에서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으며 적지 않은 녀맹일군들은 자립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녀성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녀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녀성군중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으며 녀성동맹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먼저 간부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상혁명을 옳게 지도하고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12페지)

우리는 녀맹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빠른 시일안에 모든 녀맹간부들을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정치리론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발전할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습니다.

녀맹일군들은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가 되기위하여,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녀맹일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며 당조직들과 녀맹에서 진행하는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녀맹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체득할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간부들속에 엄격한 학습기풍을 세우고 그들의 학습을 철저히 지도통제하며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토요학습과 강연회를 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전당적으로 진행하는 1개월강습에 모든 녀맹일군들을 빠짐없이 참가시켜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녀맹간부들가운데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군들을 각급 양성기관들에 보내여 재교육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부개별교양체계를 잘세워 웃간부가 아래간부들을 교양하고 교양받은 간부가 또 자기의 아래간부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이 늘 남을 교양하면서 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물교육과 실천을 통한 교양은 간부들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지 사업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한편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성동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녀맹조직생활은 녀성동맹의 전투력을 높이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동맹조직생활이 강화되여야 녀맹조직들이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될수 있고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녀성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킬수 있습니다.

결국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녀맹사업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고리이며 출발점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근로단체조직생활이 강화되여야 맹원들의 사상개조도 혁명화도 다 잘되고 당이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이 잘 관철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녀성동맹조직생활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녀맹원들속에 녀맹조직생활에 대한 영예감을 높여주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녀맹조직생활은 녀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입니다. 녀맹원들은 녀맹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것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에게 동맹조직생활은 곧 정치활동이며 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모든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여주신 녀맹조직의 한성원이 된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하였던 부녀회원들처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녀맹생활규범에 따라 동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녀맹원들에 대한 분공을 옳게 조직하는것은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녀맹원들에 대한 분공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빠짐없이 분공을 주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며 이미 준 과업을 다 수행하면 총화하고 또 새로운 과업을 주어 모든 녀맹원들이 언제나 동맹조직으로부터 받은 분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생활총화와 녀맹회의를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맹원들이 자기의 조직생활정형을 스스로 총화해보는것을 습성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녀맹생활총화를 매달 충분한 준비밑에 진행하며 녀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맹조직생활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은 사상투쟁의 무기이며 사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 녀성들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고칠수 있고 녀맹사업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녀맹조직생활에서는 비판의 분위기가 매우 약합니다. 적지않은 녀성들이 비판받는것을 싫어하며 남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고있습니다. 비판을 싫어하고 비판하기 두려워하는것은 소부르죠아사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판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사상관점을 없애고 녀맹조직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녀맹원들이 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비판에서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여서는 안되며 비판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여서도 안되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비판받은 사람들을 덮어놓고 처벌하려 해서도 안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9페지)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이러한 원칙적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녀맹안에 혁명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그릇된 현상들과 제때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초급녀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초급녀맹조직은 녀성들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녀맹원들이 소속되여 조직생활을 하는 녀성동맹의 기층조직입니다. 우리는 초급녀맹조직의 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초급녀맹조직들이 녀맹원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녀맹위원회들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녀맹위원회들은 동맹조직생활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녀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은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운동은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운동이 아니라 전반적사회운동의 한고리를 이루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녀맹사업과 녀성들의 모든 활동은 전반적사회생활과 합류되여야 하며 전반적사회운동을 발전시키는데로 지향되여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내부사업을 강화하는 목적은 결국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자는데 있는것입니다.

지난기간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많이 높아졌으나 당의 요구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도 적지않은 녀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며 사회에 진출한 녀성들도 남자들만큼 일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녀성들의 활동분야는 그리 넓지 못하며 녀성들가운데 이름있는 사회활동가도 적고 학사나 박사도 많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이 더 큰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모든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사회주의건설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여야만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녀성들이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배울수 없으며 점점 더 락후해질수밖에 없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1969년판, 41페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것입니다. 녀성들에게 아무리 법적으로 남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인격을 존중해준다 하여도 녀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면 아이나 보고 남편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남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수 있고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이 더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며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은 가내작업반에 참가하여 힘자라는껏 일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학, 교육, 문화, 보건부문과 편의봉사부문에 녀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며 이 부문에서 결정적역할을 놀아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속에서 학사와 박사, 공훈교원과 공훈의사, 공훈배우와 인민배우를 비롯하여 이름있는 사회활동가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며 국가,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녀성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남편의 덕에 안일하게 살아나가려는 그릇된 현상들과 결혼을 하면 마땅히 집안에 박혀있어야 되는것처럼 생각하는 옳지 못한 사상관점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녀성들이 결혼하면 더 발전할수도 없고 사회에서 별로 큰 역할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되는대로 살아가려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과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누구나 다 직장에 나가 불편없이 일할수 있고 마음껏 배울수 있고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보장받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모든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하며 꾸준히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터가 다 중요한 혁명초소이며 우리 근로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입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영예롭게 여기며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녀성들이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동맹이 자기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녀성동맹은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혁명적정치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녀성동맹의 사업방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으로 되여야 하며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군들은 깜빠니야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만 몰두 할것이 아니라 동맹내부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모든 녀성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동맹내부사업에 자기의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또한 사업을 포치하고는 그 정형을 검열하며 제때에 총화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녀맹사업에서 중요한 결함의 하나가 사업을 포치하고는 그것을 제때에 검열하고 총화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녀맹조직들이 사업을 많이 널어놓기는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는것은 얼마 없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이러한 형식주의적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일단 포치한 사업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장을 내고 또 다른 사업을 포치하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실속있게 일해나가야 합니다.

녀성동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군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98~299페지)

녀맹조직들은 우에 앉아서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중앙은 도를 도와주고 도는 군을 도와주며 군일군들은 초급조직들에 늘 내려가 초급일군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모든 녀맹일군들이 근로녀성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동맹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녀맹조직들은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모든 녀성들에게 철저히 해석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 동맹과 모든 녀성들을 움직이는 혁명적방법으로 동맹조직사상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고있는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식민지파쑈통치는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에게 헤아릴수 없이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녀성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학정밑에서 그리고 썩어빠진 봉건유습의 구속밑에서 2중3중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있으며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있습니다. 남조선사회에서 녀성들은 아무런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초보적인 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실업과 빈궁에 허덕이고있습니다. 특히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폭행과 강간, 살인만행으로 하여 남조선녀성들은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못하고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심하여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에게는 새로운 엄중한 재난의 위험이 들씌워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도 남조선녀성들을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오늘의 남조선녀성들은 결코 침략자와 억압자들에게 순종하던 어제날의 조선녀성들이 아닙니다. 남조선녀성들은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 한 녀성들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질수 없으며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셔야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과 평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원쑤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수많은 녀성혁명가들과 애국적녀성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원쑤들의 야수적탄압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남조선녀성들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투쟁은 자기들의 민족적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고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입니다.

나는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녀성들의 이름으로 원쑤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을 무릅쓰고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녀성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정의의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남조선녀성들은 하루빨리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처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화국북반부녀성들과 같이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남조선녀성들은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녀성들은 당면하게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야 하며 진보적녀성들과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녀성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야수적만행과 민족적멸시를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을 다시금 저들의 노예로 만들어보려고 망상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남북조선녀성들의 공동의 민족적과업입니다.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녀성들의 반미, 반일,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그들을 식민지노예의 불행한 처지에서 하루빨리 구원하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자기의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은 매우 간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의 대오를 더욱 확대하며 투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입니다.

오늘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전체 재일본 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기간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재일본 조선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널리 벌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녀성들과 가정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총련의 지도밑에 일본에 있는 모든 조선녀성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총련 제9차전체대회결정관철에로 그들을 훌륭히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대회의 이름으로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재일본조선녀성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전체 60만재일조선동포들에게 뜨거운 혁명적인사를 보냅니다.

3. 세계진보적녀성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대외활동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언제나 세계진보적녀성들과 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녀성단체들과 서로 녀성운동경험을 나누고 호상 접촉과 교류를 강화하며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 수많은 벗들과 전우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세계민주녀성단체들, 조선녀성들과 세계 진보적녀성들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 녀성단체들과 녀성들이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우리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전체 조선녀성들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녀성단체들과 녀성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규모에서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과 녀성들이 반제혁명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 혁명적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격렬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쇠퇴몰락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애호력량은 계속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혁명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혁명적인민들과 녀성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오늘 인도지나 인민들과 녀성들은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영웅적인 웰남, 라오스, 캄보쟈 녀성들과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호되게 족치면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있으며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을 파탄시키고있습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아랍인민들과 녀성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나라 애국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날을 따라 전과를 더욱 확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불길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 과떼말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이 지역 인민들과 녀성들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영용한 무장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믿어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조차 《안식처》를 구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발전하고있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평화애호 인민들과 녀성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탄압 정책은 미국내 인민들과 녀성들 속에서도 배격당하고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녀성들의 반전운동이 대중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자유와 계급적해방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확대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폭동적진출이 강화되고있습니다. 미국인민들과 녀성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미제의 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지배층내부모순도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사이의 갈등이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세계혁명력량이 끊임없이 장성하고 인민들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발전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현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제국주의가 완전히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스스로 력사무대에서 물

버가려 하지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에 매여달리고있으며 거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2~49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평화를 교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평화》니, 《협상》이니하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습니다. 요즘 파쑈호전광 닉슨도당은 《대결의 시대》로부터 《협상의 시대》로 넘어갈것이라느니뭐니하면서 마치도 침략과 전쟁정책을 포기하는듯이 가장하여나서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인민들앞에서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야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극히 교활하고 음흉한 모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반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날을 따라 그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아세아에서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력량과 반제혁명투쟁을 압살하고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악명높은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 수십만의 자기 군대를 직접 동원하는것과 함께 전쟁의 《윁남화》란 간판밑에 아세아와 인도지나의 고용병들을 끌어들여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계속하고있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침략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강점 《미군감축》이라는 기만극의 막뒤에서 대량살륙무기를 증강하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을 더욱 늘이고 현대화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매일과 같이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전세계 인민들과 녀성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미제에 공격의 창끝을 집중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녀성들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 녀성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녀성들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세계 진보적녀성들은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윁남인민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며 아세아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의 모든 인민들과 녀성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이 사면에서 미제에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녀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그의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되살아났으며 이미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인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 또 되풀이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7페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교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섰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에서 먼저 조선을 정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도꾜를 중심으로 한 반경 1천해리의 방위권》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 기후와 지형조건에 류사한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중국인민을 반대하

는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입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녀성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반동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할것입니다.

조선녀성들은 일본녀성들과 중국녀성들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 녀성들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녀성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동방초소를 튼튼히 지켜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과 녀성들의 공동투쟁의 한고리이며 조선녀성운동은 국제녀성운동의 구성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선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국제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인민들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윁남, 라오스, 캄보쟈 녀성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

조선녀성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자기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형제적 중국 인민과 녀성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미제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일본녀성들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녀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랍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합니다.

조선녀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아프리카 인민들과 녀성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서반구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형제적꾸바 녀성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에게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보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녀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조선녀성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녀성들과 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동지들과 국제적벗들의 대렬을 늘이며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의 진보적인 녀성단체와 녀성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의 진보적녀성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국제민주녀성련맹의 모든 진보적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더 많은 국제민주단체들과의 련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제무대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제녀성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녀성들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반드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조선녀성들은 전세계 진보적녀성들과 함께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싸울것이며 국제녀성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며 녀성들의 국제적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책동을 단호히 배격할것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녀성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녀성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녀성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아갈것입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녀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섰으며 녀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고 질서정연한 사업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녀성동맹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녀성운동에 관한 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입니다. 이 모든 승리와 업적들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력사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찬란히 기록될것입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 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동맹과 녀성들은 당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계속 비상한 정력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녀성들의 앞날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곧바른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

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주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혁명하는 나라 녀성들과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있으며 온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우리 편에 서있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녀성들은 일편단심 수령님을 따라 억세게 전진할것이며 수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혁명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고야말것입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공동 콤뮤니케, 성명 및 호소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971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는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와 함께 왔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 동안 평양시와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 교육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또한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는 김성애동지와 함께 평양시내의 유치원, 탁아소, 견방직공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조선녀성들과 친선적인 상봉을 하였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로므니아인민에 대한 따뜻한 친선의 정으로부터 로므니아대표단을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히 환영하고 환대하였다.

로므니아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 전기간에 받은 환영과 환대에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과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시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신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이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그리고 대표단성원들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용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내각제1부수상인 김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제2부수상인 박성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대장 오진우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내각부수상인 정준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비서인 양형섭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외무상인 허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영남동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 강영섭동지가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측으로부터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이신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시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신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대표단성원들인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수상인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동지,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국가쏘베트 부위원장인 마네아 머네쓰꾸동지,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부꾸레슈띠시당위원회 제1비서이며 부꾸레슈띠시인민쏘베트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두미뜨루 뽀빠동지,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이온 일리에쓰꾸동지,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외무제1부상인 제오르제 마꼬베쓰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사 아우렐 멀녀산동지와 그리고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안드레이 쉬떼판동지,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참사들인 꼰쓰딴띤 미떼아동지와 에밀리안 도브레쓰꾸동지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과 로므니아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은 친선적이며 진지하고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조선과 로므니아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당과 국가들 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이 조선과 로므니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의 리익에 전적으로 맞는다고 인정한다.

두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로동당과 로므니아공산당, 조선인민과 로므니아인민들 사이의 형제적친선을 강화하며 심화시킬 굳은 결의를 재천명하였다.

쌍방은 앞으로도 대표단교환 및 경험교환을 증대하고 두 당들 사이의 접촉을 강화하며 두 당국제부 및 두 나라 외무성 및 경제성 대표들의 상봉을 조직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은 두 나라 직맹, 청년학생조직, 녀맹 및 기타 사회대중단체들 사이의 협조관계를 심화발전시키도록 고무할것이다.

로므니아측은 형제적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관철하여 자기 나라를 짧은 기간에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 오늘 이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진군의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로므니아측은 미제침략과 일본군국주의 책동 그리고 그들의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로므니아대표단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침략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4천만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로므니아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다시 표시하였다.

이 기회에 로므니아는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에서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조선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존중할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선의 통일에 관한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방침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천명한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측은 로므니아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한다.

조선측은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이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로므니아공산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뒤떨어졌던 로므니아를 발전된 공업과 전면적인 현대화과정에 있는 농업과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만들어놓은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 로므니아공산당 제10차대회가 내놓은 목표들과 1971년～1975년간의 5개년계획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측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 협조 및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의 존중, 평등권, 내정불간섭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로므니아공산당의 방침과 로므니아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로므니아측은 조선로동당과 정부와 인민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므니아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쌍방은 현국제정세가 의연히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자주권과 독립을 유린하며 무력으로 침략하며 통치하며 지시하는 제국주의의 정책을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독립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거대한 력량들이 일떠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쌍방은 세계 모든 반제혁명력량들의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식민지략탈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쌍방은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의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구국항전에서 날로 큰 승리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며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미국이 침략책동을 중지하고 웰남과 인도지나반도로부터 미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을 완전히 무조건 철거시키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기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데 대한 웰남, 라오스 및 캄보쟈 인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존중할것을 견결히 주장한다.

쌍방은 대만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그의 군사기지를 철폐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없이는 현국제문제해결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인정한다. 조선측은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회복을 위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의 적극적인 립장을 환영하였다.

쌍방은 미일반동계층에 의한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는 일본인민, 중국인민, 그리고 아세아의 기타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쌍방은 중근동정세에 관한 자기들의 립장을 천명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성명하였다.

또한 팔레스티나 문제는 팔레스티나 인민의 민족적리익에 부합되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미제의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쌍방은 미제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쌍방은 착취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구라파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세계정세와 사회발전의 현조건을 고려하여 쌍방은 인류가 직면하고있는 주요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에 령토의 크기와 인구,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참가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쌍방은 군비철폐 특히는 핵무기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시키고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

또한 쌍방은 타국령토로부터의 군사

기지의 철폐와 자국국경내로 모든 군대의 철수, 군사쁠럭의 청산을 주장한다.

대표단들은 무력의 사용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제거하게 할 구라파에서 안전의 실현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

쌍방은 세계의 모든 반제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그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세계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과 로므니아공산당은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동지적협조와 국제주의적련대성을 발전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난관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모든 반제력량과 세계평화와 사회주의위업의 리익에 부합되게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투쟁할것이라는것을 성명하였다.

량당은 국제적중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쌍방은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친선과 협조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김일성동지께서 인솔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부인이신 김성애동지도 초청하였다.

조선측은 이 초청을 쾌히 접수하였으며 방문날자는 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 성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1971년 6월 1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 왕국의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인 김일성수상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197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경제및재정상인 티운뭄,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인민교육및청년상인 챤 유란,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사법및사법개혁상인 체아 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부 판방상인 께아트 춘, 캄보쟈국가원수친왕의 고모 노로돔 께트 까니아공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어머니 뽐 뻬앙부인, 최고왕실회의 의원 꾸룬의 부인, 국가원수친왕 판방장관 시쏘와트 메타비친왕과 그의 부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무성 제2부상인 반 피니와 그의 부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캄보쟈왕국 대사인 께르 메아스,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캄보쟈왕국 대사인 앙 낌 코안과 그의 부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부 부국무비서인 크린 떼안,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군사장비및군비성 부국무비서인 헹 뻬크, 국가원수친왕의 아들 노로돔 유바나트친왕, 국가원수친왕의 딸 노로돔 소리야뻥시공주, 국가원수 친왕의 아들 노로돔 시하모니친왕, 국가원수친왕의 아들 노로돔 나린드라뽕친왕, 국가원수친왕의 개인비서실장 싸르 싸오르트부인, 국가원수친왕의 판방실 의례처장 께르 치엥과 그밖의 성원들이 왔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세번째로 되는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은 반제공동전선에 서있는 전우이며 형제인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에 굳게 맺어진 불패의 친선과 전투적단결의 새로운 커다란 시위로 된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다시금 만나게 된 더없는 기쁨속에서 친왕을 비롯한 캄보쟈의 벗들을 가장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싸우는 캄보쟈인민에 대한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동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와 같이 온 캄보쟈손님들은 평양시와 강원도의 공장, 농촌,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다.

또한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은 김성애동지와 함께 평양시의 유치원, 탁아소, 피복공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조선녀성들과 친선적인 상봉을 하였다.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김일제1부수상, 박성철제2부수상, 허담외무상, 김경련재정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영남부부장, 권희경외무부상, 캄보쟈왕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은환대사가 참가하였다.

캄보쟈측에서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경제및 재정상인 티운 뭄,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인민교육및청년상인 챤 유란,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사법및사법개혁상인 체아 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정치국비서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수상부 판방상인 께아트 춘, 국가원수친

왕 관방장관 시소와트 메라비친왕, 캄보쟈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외무성 제2부상인 반 피니,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캄보쟈대사인 앙 낌 코안이 참가하였다.

형제적친선과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1970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이후의 전반적정세발전에 대하여서와 이에 대처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에 대한 문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1970년 6월 30일 평양에서 조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캄보쟈왕국의 공동성명이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으며 여기에서 표명된 전반적정세발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쌍방은 앞으로도 커다란 생활력을 가진 이 공동성명에서 밝혀진 행동방침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나갈데 대한 굳은 결의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지난 한해동안 전반적정세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였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수상은 지난 한해동안 영웅적 캄보쟈인민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친왕의 1970년 3월 23일 5개 항목 선언에 따라 창건된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올바른 령도밑에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높이 평가한다. 이 기간 캄보쟈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일성수상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캄보쟈인민의 이 승리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벌써 인구의 10분의 6과 전국령토의 10분의 7을 통제하고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철저히 주동적립장을 견지하며 공세를 전개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론놀-시리크 마타크-손 느곡 탄도당을 헤여날수 없는 패망의 구렁텅이에 더욱더 깊이 몰아넣고있다.

국제분야에서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수립된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캄보쟈의 유일하게 정당한 합법적정부로서 27개 나라의 인정을 받았으며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그의 위신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항전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것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로선의 정당성에 기인된다.

애국주의와 민족적독립과 반제국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일관하게 견결히 실시하며 수호하고있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두리에 생활력있게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려는 캄보쟈인민의 투쟁결의를 명백히 하였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용감한 반제투사로, 자유와 민족적독립과 평화위업의 견결한 옹호자로 커다란 존경을 받고있다.

캄보쟈에서의 사태발전은 탁월한 지도자의 주위에 굳게 뭉쳐 신성한 민족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결의를 가진 인민은 불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수상은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반드시 멀지않은 장래에 온 캄보쟈땅을 완전히 해방하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독립되고 반제적이며 인민적이며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김일성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견결히 지원할것이라는것을 거듭 엄숙히 선언한다.

김일성수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캄보쟈령토에 대한 저들자신과 남부웰남괴뢰들의 비행기와 대포, 함선들에 의한 폭격과 포격 및 기총사격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캄보쟈에서 저들의 군사인원들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하며 그리고 모든 남부웰남괴뢰군들을 캄보쟈에서 즉시 완전히 철수하여야 하며 론 놀—시리크 마타크—손 느곡 탄반역도당들에 대한 온갖 원조와 지지를 중지하고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파괴책동과 도발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캄보쟈내정에 대한 문제는 캄보쟈인민자신이 해결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민족해방위업에 시종일관 강력한 지지와 각종 형태의 효과적인 원조를 준 위대한 반제투사이며 탁월한 혁명가인 김일성수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깊은 사의를 다시한번 표시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영웅적조선인민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의 올바른 령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열렬히 축하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이름으로 미제가 남조선강점 《미군감축》이라는 모략적책동의 연막뒤에서 남조선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강화하고있으며 여기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적극 끌어들이고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단죄하고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철저히 소멸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병진시키고있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고있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 그리고 미일 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인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해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캄보쟈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 련대성을 다시한번 확언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이름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그의 침략군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천명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일성수상은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이 오래전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인도지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추진시키고있는 전쟁의 《웰남화》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범죄적책동이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의 단결된 공동투쟁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파산되여가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은 침략전쟁을 확대하면 할수록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서의 모든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자기의 륙해공군침략무력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하며 인도지나 매개 나라 인민들의 문제는 이 나라 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쌍방은 영웅적반미구국항전에서 형제적웰남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웰남문제는 반드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방안들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얼마전에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서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제기한 7개항목의 새로운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라오스인민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렴치한 침략전쟁 확대책동을 때려부시는데서 거둔 거대한 성과를 축하하며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애국전선의 5개 항목의 정치적해결책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오스애국전선이 지난 4월 27일과 6월 22일에 제기한 새로운 제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쌍방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때려부시고 영광스러운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계속 《두개 중국》 또는 《한개 중국, 한개 대만》 조작음모에 매여달리며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대만을 해방하고 나라의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형제적중국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리용하여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며 자기의 흉악한 침략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러한 《새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할것을 망상하면서 조선과 중국, 인도지나에 대한 침략책동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쌍방은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실제에 있어서 이 군국주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그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쌍방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할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와 그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공모결탁과 그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조선, 캄보쟈, 중국, 웰남,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된 조선, 캄보쟈, 중국, 웰남, 라오스 등 아세아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미공동전선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캄보쟈, 웰남, 라오스의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영웅적반미구국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발휘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세아에 거연히 서있는 반제투쟁의 기둥으로서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며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의 달라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미친듯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엄격히 경고한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 모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에 변함없이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력사적사실은 미제국주의야말로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손에는 총칼을 들고 날뛰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평화의 교란자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독립의 교살자이며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모든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종국적멸망은 불가피하다.

김일성수상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미제가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후퇴함이 없이 힘있고 견결하게 벌림으로써 그의 각을 뜨게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쌍방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의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의 반미공동투쟁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로 된다고 만족하게 지적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특별히 성대한 환영과 열렬하고 형제적인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김일성수상과 그이께서 령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되는 사의를 표한다.

1971년 8월 11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며 내각 수상인

김 일 성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과 제 정당, 사회 단체 인사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호 소 문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제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사들!

오늘 남조선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새로운 민족적각성을 촉구하는 매우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있으며 이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가 더 한층 악랄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닉슨주의》간판을 내걸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침략전쟁을 캄보쟈, 라오스 등 인도지나 전역에 확대하는 한편 1970년대의 《대결지점》은 《동북아세아 특히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추구하여 온 새 전쟁 도발책동은 최근 《주한미군의 일부감축》이라는 모략극의 막뒤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미제의 이른바 《감군》소동은 《평화》의 간판으로 세계여론을 기만하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괴뢰군을 대폭 증강하며 남조선에 일본군국주의를 끌어들여 《미일한공동작전체계》를 완성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노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범죄적인 계획에 따라 이미 일본과 미국본토에서 여러개의 전투비행대대들과 전술비행단들을 끌어들였으며 계속 수많은 공군무력과 해군함선들과 여러가지 신형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에게 10억딸라에 달하는 추가적인 《군사원조》와 1억딸라분의 군사장비까지 넘겨주면서 남조선괴뢰군의 이른바 《현대화》와 《향토예비군》의 《전력화》를 서두르고있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은 실로 수백만의 병력이 집결된 일대 병영으로, 모든것이 전쟁정책수행에 복종되는 방대한 군수창고로 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것으로써도 부족하여 미국본토와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침략군부대들과 군수물자들을 아무때나 끌어들일수 있는 긴급수송작전체계까지 세워놓고 《포커스 레티너작전》이니 《프리덤 볼트작전》이니 하는 대규모적인 공수작전훈련을 계속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기들의 범죄적인 계획이 진척되면 될수록 더욱더 무모한 불장난을 일삼고있다. 매일같이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합동군사연습소동을 벌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날을 따라 짙어가고있는 전쟁의 위험은 미제의 조종밑에 촉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엄중해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려는 흉계밑에 그를 재생시키고 재무장시켰으며 그의 해외팽창야망을 적극 부추겨왔다.

미제의 비호밑에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으며 미제와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자기의 륙해공군무력을 급속히 증강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깊이 발을 들여놓았으며 미제에 다음가는 두번째 주인노릇을 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미제가 해오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각분야에 걸쳐 자기들의 지배권을 세우고있을뿐아니라 공공연한 군사적침투를 감행하는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일본의 방위선》으로 선포하고 《한국을 방위할 방안을 연구》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할 모험적인 《작전계획》을 짜놓고 일단 유사시에 일본으로부터 시모노세끼, 부산을 걸쳐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까지 단시간내에 대병력을 밀어넣을수 있는 《긴급수송체계》를 세우고있다. 지금 그들은 《자위대》에 조선말교육과 조선의 기후와 지형에 맞는 《내한훈련》, 《산악기동훈련》을 시키면서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출동시킬 모든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심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있다. 사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주재 일본무관을 2배로 늘이고 《교류근무》요, 《교환류학》이요 하는 명목밑에 일본《자위대》의 골간부대를 남조선에 상주시킬 음모를 공공연히 꾸미는데까지 이르렀다.

미일침략자들이 서로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에서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을 다그치고있는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그에 적극 추종하면서 갖은 매국배족행위를 남김없이 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가 꾸민 각본에 따라 《감군》소동을 벌리고있는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미제의 전쟁정책수행에 송두리채 밀어넣고있다. 그들은 남조선괴뢰군을 70여만으로 늘이고 250여만의 《향토예비군》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예비사단》들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고 불구자를 제외한 모든 청장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끌어내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막대한 외자를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외국독점자본에 예속시키고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있으며 남조선도처에서 군용비행장과 로케트기지, 군용항만과 전략도로를 비롯한 군사기지들과 군수시설들을 계속 신설확장하고있다. 그들은 《전시체계》를 떠벌이면서 군사비조달을 위한 조세수탈을 강화하고있으며 토지와 산림으로부터 식량과 건물에 이르기까지 온갖 재부들을 제멋대로 략탈하여 군사적수요에 충당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스스로 《제2의 리완용》을 자처하면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범죄행위까지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서울 한복판에 지난날의 《총독부》를 련상시키는 《일본대사관》을 틀여앉히고 남조선을 그들의 정치적지배하에 내맡기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 침략의 선발대들에게 온갖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들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독점체들과 상사들을 업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일본의 경제권내에 밀어넣고있으며 퇴폐적인 왜색문화를 끌어들여 남조선에 양풍과 함께 왜풍을 범람시키고있다. 그들은 남조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서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리고 지어는 《남끌당》이라는것을 세워놓고 지난날 우리 인민을 탄압학살하다 저승에 간 왜놈들의 뼈다귀를 긁어모아놓고 《위로》하는 추악한 개노릇도 서슴지 않고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침략무력까지 끌어들이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수만명의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의 남부윁남침략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아 개죽음을 시키고있으며 《이민》이니 《인력수출》이니하는 명목밑에 수많은 남조선동포들을 해외각국에 상품과 같이 노예로 팔아먹는 인신매매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피비린내나는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천지를 군사, 경찰, 정보, 특무 등의 살기어린 폭압망으로 뒤덮어놓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 수행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세력들을 압살하기에 혈안이 되고있다. 그들은 온갖 선진사상과 진보적운동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등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그들은 수많은 파쑈악법들과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평화통일이라는 말만해도 엄벌에 처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대중과 애국적민주주의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심지어 자기들과 정책주장을 달리하는 모든 반대파세력들까지 전면적으로 억압하고있다.

만고역적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이 모든 악독한 범죄행위를 《반공》의 넉두리로 《합리화》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추구하면서 《승공통일》을 운운하고 있지도 않은 《남침의 위협》을 떠들어대며 빈껍데기뿐인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이라는것을 요란하게 광고하고있는것도 결국은 남북의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며 새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는 자기들의 범죄적책동을 가리워보려는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더욱 강화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 그리고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군사파쑈폭압과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는 전례없이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만일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이 모든 범죄행위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그 때에는 과연 어떠한 엄중한 후과가 빚어질것인가?

그렇게 되면 남조선에서 식민지군사파쑈폭압이 더한층 강화되고 자유와 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민주력량은 보다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될것이며 오직 침략자들과 매국노들만이 더욱 오만무례하게 제멋대로 날뛰게 될것이다. 그렇게되면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무력을 끌고 본격적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또다시 남조선땅을 피묻은 군화로 짓밟게 될것이며 남조선은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더욱 지연되고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는 보다 더 격화될것이며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불집은 터지고야말것이다.

조국과 민족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성된 정세를 신중히 토의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폭압이 더욱 강화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까지 본격화되고있는 이때에, 남북사이에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우리 민족앞에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박두하고있는 이때에 긴급한 구국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불타는 우국의 일념을 담아 친애하는 당신들에게 다시한번 이 호소문을 보낸다.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제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사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선인민은 벌써 26년동안이나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끝없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길고긴 력사는 천만권의 책을 써도 오히려 그 불행과 고통의 전모를 다는 표현할수 없는 크나큰 민족적비극을 낳고있다.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한나라 한강토안에서 한동포, 한혈육간에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하고 아무런 접촉도 없이 살아온 그 수많은 나날에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분렬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며 얼마나 목마르게 통일의 위업이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던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머리우에는 통일의 서광이 아니라 새로운 재난의 위협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민족적량심이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지체없이 떨쳐일어나 적극적인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무겁고도 긴급한 력사적임무를 앞에 놓고있는 이 엄숙한 시각에 과연 그 누가 남조선을 2중의 식민지로 만들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다가오는 새로운 재난을 막고 민족적불행의 온갖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출로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것은 전민족의 힘을 합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는데 있으며 남북이 손을 잡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분렬로 인한 민족적비운을 끝장내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고 인정한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정책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며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진출

이 급격히 앙양되고있다.

용감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또다시 피에 젖은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와 파쑈적군사교육제도를 반대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항시적으로 떠도는 전쟁의 위협과 끝날줄 모르는 분렬의 비극에 대하여 우려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현실적인 방도를 모색할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남조선 정계와 사회계에서도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요즈음 남조선 정계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배격하며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서신교환, 기자교류, 체육경기 등 호상접촉을 도모하며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주장들이 대두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사이의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할데 대한 모든 주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중적지향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민족의 앞날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이 거족적으로 단결할수 있는 더욱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때라고 굳게 믿고있다.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수상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온민족이 굳게 뭉쳐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원하는것은 민족적량심이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일것이다.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이 근본문제에서는 그가 갈라진 조국의 남쪽에 살건 북쪽에 살건,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종교인이건, 무신론자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의 립장이 결코 다를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이 손을 잡고 단합하지 못할 리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지체없이 하나로 굳게 뭉쳐 전민족적인 반미반일반박정희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을 쓸어버리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할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전민족적인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일대 구국투쟁을 전개하자!

비록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민족적량심을 잃지 않았다면 과거를 뉘우치고 민족적립장에 돌아설때는 왔다.

만일 분별없이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계속 추종함으로써 민족을 배반하는 력사의 죄인으로 저주와 치욕의 락인을 찍히우지 않으려 한다면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전민족적반미반일반파쑈공동투쟁에 합류하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우리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며 우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피맺힌 원쑤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비극적분렬은 끝날수 없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 놈을 등에 업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된 악독한 침략자이며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한 철천의 원쑤이다.

미제의 조종밑에 감행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다 큰 재난을 들씌우고있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새로운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전민족의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마수를 단호히 꺾어버리자!

박정희괴뢰도당은 애당초 나라와 민족의 리익이란 안중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고질적인 매국노이며 추악한 민족반역자이다.

원래 박정희역도는 지난날에는 일제의 개노릇을 하였고 8.15후에는 미제의 충실한 번견으로 둔갑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두 침략자를 상전으로 섬기고있는 2중의 주구이다.

박정희도당이 미제의 지시밑에 가장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남조선괴뢰정권을 가로챈것부터가 4월인민봉기이후 급격히 앙양되고있던 조국통일기운을 압살하고 무너져가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총칼로 유지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지난 10년동안 박정희역도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미친듯이 반대하고 남조선을 전대미문의 기아와 빈궁, 패덕과 패륜이 휩쓰는 범죄와 죽음의 생지옥으로, 테로와 학살, 감옥과 총칼이 지배하는 20세기의 암흑천지로 만들면서 짐승도 낯을 붉히고 리완용, 송병준도 무색케 할 극악무도한 매국배족행위만을 감행하였다.

오늘 박정희역도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남침의 위협》을 떠벌이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계속 애걸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며 군사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도 그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것은 인민들을 기만하고 세계여론을 오도하면서 미일침략자들의 비호밑에 더러운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는것이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전조선을 외래침략자들의 지배밑에 넣으려는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박정희역도의 계속적인 《집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쑈독재를 의미하며 자주, 자립이 아니라 보다 더한 식민지적예속과 파멸을 의미하며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의미하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의미한다.

박정희역도와 같은 매국노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노예의 굴욕적인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이란 상상조차 할수 없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더러운 앞잡이이며 극악한 매국역적인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라!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력량이 하나로 굳게 뭉쳐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라!

강력한 대중적투쟁으로 남북의 대립과 분렬을 고취하는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족적단합과 평화적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라!

남조선에서 모든 외래침략세력과 매국역적을 쓸어버리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타도된 다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거나 애국적인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은 경우에는 남북의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경애하는 김일성수상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의하고있는 방안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여기에 정중히 제기한다.

1.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조선인민자신이 자기의 민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것.
2.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덜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할것.
3. 《한미호상방위조약》, 《한일협정》 등 민족적리익에 배치되게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고 무효로 선포하며 외래침략세력의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할것.
4.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인민들의 의사표시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완전한 민주주의적분위기속에서 일반적이며 평등적이며 직접적인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대표하는 통일적인 민주주의중앙정부를 수립할것.
5. 남조선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하여 체포, 투옥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전국적규모에서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어느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벌릴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것.
6.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남북의 사회정치제도상 차이를 그대로 두고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것.
7. 분렬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경제적교류와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호상협조를 도모하며 인사래왕과 서신거래를 실현할것.
8. 민족의 당면과업을 협의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

우리의 구국방안은 바로 이러하다.

우리의 구국방안들은 하루빨리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분렬로 말미암아 조성된 우리 나라의 객관적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남북의 합작과 협상을 이룩하는데서 훌륭한 기초로 될수 있다고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는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그 누구의 의견이든지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한다.

우리는 남북의 협상과 단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내정문제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조선사람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들 사이에는 비록 정견과 사상의 차이가 있으나 그것은 결코 남북의 협상과 민족적단합에 장애로 될수없다. 우리는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단일민족이며 앞으로도 함께 손을 잡고 통일조국을 건설해야 할 하나의 겨레이다. 어떠한 장애도 우리 조선인민의 심장마다 뜨겁게 고동치는 끊을수 없는 혈육의 정과 맥맥히 상통하는 동포애적친밀감과 민족적통일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 만나야 하며 만나서 민족적재난을 제거하고 통일의 앞길을 개척할 공동의 리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러한 절박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긴급한 구국대책을 공동으로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소집할것을 엄숙히 제의한다.

이 련석회의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참가할수 있을것이며 회담장소는 판문점이나 혹은 제3국으로 할수 있을것이다.

정치적견해와 사상의 차이, 신앙의 유무와 과거의 여하에 관계없이 반제반미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의 거족적인 단결을 이룩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공동투쟁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의 협상을 실현하자!

우리의 모든 힘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바치자!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남조선 방방곡곡이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거세찬 함성으로 끓어번지게 하며 통일을 가로 막는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남북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엄한 구국투쟁의 불길속에 휩싸이게 하라!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제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인사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잠시도 미룰수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이 이상 더 지속시킬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그대로 둘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수상의 간곡한 말씀은 우리 모든 조선사람들의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고동치게 하는가!

통일은 빠를수록 좋고 분렬은 오래갈수록 불행하다.

우리는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우리 조선인민은 인류력사의 려명기부터 찬란한 문화전통을 창조해온 슬기로운 민족이며 자기의 민족문제를 능히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존엄있고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갖추어져있다.

오늘 우리 조국 북반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

에 부강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가 일떠서고 조국통일의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여있으며 남조선에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반일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우고있는 아세아의 수억만인민들이 우리 조선인민의 반미반일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강력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이 또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고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이러한 지지성원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이 앞으로도 전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지구상 도처에서 반제반미력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련속적인 타격을 받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극악한 민족반역자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고립되여있다.

그 어떤 원쑤도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전체 조선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나고 민족적재난의 온갖 근원은 청산되고말것이며 우리 조국은 멀지않아 반드시 희망찬 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삼천리 강토우에 세상에 부러울것없는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 4천만 조선인민의 행복의 락원을 건설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여러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우리의 이 애국적인 호소를 열렬히 환영하고 여기에 적극 호응하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1년 4월 13일

평 양

인도지나정세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성 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도지나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이에 대처할 해당한 대책을 심의하였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거듭 당하고있는 패배로부터 헤여나보려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불길을 미친듯이 확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얼마전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 및 타이고용병들을 투입하여 라오스우파군대와 함께 남부라오스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침공을 새로이 감행하였으며 웰남비무장지대부근에서 전쟁을 확대하여 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을 북부웰남가까이에 집결시키면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수적 폭격과 포격 등 온갖 전쟁행위를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캄보쟈에 더욱 많은 남부웰남괴뢰군을 들이밀어 론 놀괴뢰군과 함께 침략전쟁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허용할수 없는 계단식 전쟁확대행위이며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과 1962년 제네바협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인도지나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날강도적침략전쟁확대책동을 이 지역 인민들의 독립과 자주권 및 령토완정에 대한 가장 횡포한 침해로서, 나아가서는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서 준렬히 단죄한다.

오늘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길을 인도지나전역에 확대하고있는것은 이른바 《닉슨주의》가 아세아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횡포한 무력탄압과 전쟁확대정책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계속 눌러앉아있으려는것이며 그들이 떠벌이는 《평화》요, 《담판》이요 하는 것이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폭로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이른바 《닉슨주의》에 의한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악랄하게 날뛰고있다.

미제는 《닉슨주의》를 인도지나에서는 전쟁의 《웰남화》란 간판밑에 실시하면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는 《미군감축》이란 간판밑에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은 얼마전에도 자기의 이른바 《대외정책보고》와 거듭되는 기자회견에서 북부웰남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할것이라고 위협하며 인도지나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계속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발광적인 전쟁확대책동으로써도 멸망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결코 구원할수 없다.

오늘 인도지나인민들은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전투적단결을 굳게 하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리고있으며 날로 큰 승리를 거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전선에서 거두고있는 전반적승리를 축하하며 특히 요즘 미제가 새로이 무력침공을 확대하여 나선 남부라오스와 9호도로일대에서 라오스인민해방군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적들을 철저히 소멸하고 거둔 거대한 승리를 자신의 성과처럼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한다.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의 빛나는 승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의 《윁남화》 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려는 《닉슨주의》가 수치스럽게 파탄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전쟁확대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여 윁남민주공화국 정부는 1971년 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윁남민주공화국인민회의는 범문동수상의 정치보고를 토의하고 3월 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1971년 2월 5일 미제의 라오스에 대한 새로운 무력침공과 인도지나에서의 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는 1971년 2월 7일 라오스인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2월 8일과 3월 7일에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1971년 2월 8일 윁남민주공화국 손덕승주석과 회담하고 2월 9일에는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과 회담한후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들은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에 대처한 인도지나인민들의 불굴의 투지와 더욱 굳게 단합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견결히 싸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그들의 한결같은 혁명적립장을 힘있게 시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 성명들과 호소문, 공동성명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윁남인민, 라오스인민,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영웅적구국항전은 자기 나라의 해방과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한 정의의 투쟁일뿐아니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크게 촉진시키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형제적윁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으며 윁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윁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는것을 거듭 천명하여왔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이 완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것을 다하여 그들을 적극 지원할것이라는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하며 앞으로도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구국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느 때 어떤 조치라도 다 취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인도지나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수습하고 평화를 회복하며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범죄적인 전쟁의 계단식 확대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와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이 지역에서 물러가야 한다.

윁남문제는 반드시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내놓은 10개 항목의 전반적해결책과 8개 항목의 보충적제안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라오스문제는 라오스애국전선의 5개 항목의 정치적해결책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캄보쟈문제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1970년 3월 23일에 발표한 5개 항목선언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계속 무모하게 확대강화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비참한 패배를 면치못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인도지나전역에서 전쟁을 확대하며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오늘 미제의 이 범죄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윁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 인민들이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미제에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타격을 가한다면 능히 그를 타승하고 공동위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과 단결하여 남조선과 대만에서, 남부윁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그들을 몰아내며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려는 그들의 모략을 철저히 파탄시킴으로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확대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그의 손아래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또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해외침략책동을 계속 철저히 반대하며 미제의 침략책동에 적극 협력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음모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해외침략을 저지파탄시키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대한 큰 기여로 인정하며 그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종국적으로 소멸될것이며 모든 나라 인민들은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1971년 4월 13일
평 양

전세계 인민들에게 고함

남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에 대하여

정의와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평화를 사랑하며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전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

우리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스물여섯해동안이나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가장 포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적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군대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기본 장애이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채 마스고 남조선인민들을 굶주림과 가난속에 몰아넣었으며 남조선천지를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며 짓밟히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모든 선량한 인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르고있는 천인공노할 죄행에 대하여 이미 여러번 국제민주단체들과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그리고 전세계인민들앞에 제소한바 있다.

국제민주단체들과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및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제소에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범죄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철거할것을 주장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의연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제멋대로 날뛰면서 살인, 강도, 방화, 파괴, 략탈, 부녀자롱욕등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상시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의 도처에서는 무고한 인민들이 숨지고있으며 그들은 갖은 민족적 멸시와 모독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극악무도한 만행은 전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가장 악랄한 참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정의와 인도주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을 가장 포악한 침략자로, 가장 흉악한 살인강도로 준렬히 단죄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함께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1969년 6월부터 1971년 5월까지의 기간에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보도관제밑에 있는 남조선 출판물과 통신들에 극히 축소하여 발표된 미제침략군의 만행에 관한 자료들중 그의 일부를 여기에 수록하여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및 전세계 인민들앞에 또다시 제소한다.

1

남조선에 대한 지배자로, 강점자로 군림한 미제침략군은 오늘 남조선에서 저들의 야수적본성을 더욱 날날이 드러내놓으면서 현대제국주의의 가장 치욕스러운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고있다.

극도의 배타주의와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은 미제침략군은 처음부터 남조선인민들을 민족적으로 멸시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까닭없이 닥치는대로 살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사람을 죽이는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으면서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포탄을 마구 쏴대고 총질을 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있으며 폭발물을 터쳐죽이고 칼로 찔러죽이고 길가는 사람을 때려죽이고 군견을 풀어놓아 물어뜯어죽이게 하고 목을 졸라죽이고있다.

또한 놈들은 민가에 되는대로 불을 질러 사람들을 태워죽이고 자동차로 깔아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수없이 살해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이와같은 살상만행은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격화됨에 따라 날로 더욱 우심하여지고있다.

1969년 6월 3일 낮 1시쯤 미제침략군시설공병대놈들은 림진강강가에서 자갈을 추고있던 남조선주민 15명에게 폭발물을 던져 김진우(35살)를 그 자리에서 즉사케하였다.(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69년 6월 4일)

1969년 6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미제침략군야수들은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미친듯이 포를 쏘아대다가 부근에 있는 《둔포중학교》를 과녁삼아 류탄을 발사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던 주정보(15살) 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대전일보》 1969년 6월 16일)

1969년 7월 24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놈들은 포사격장에서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다가 탄피를 줏고있던 마을청소년들에게 포탄을 마구 쏴대여 경기도 련천군 관인면 문바위에 사는 김영철(16살)소년과 20살가량의 다른 한 청년을 숨지게 하고 김명식(20살)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7월 25일)

1969년 8월 7일 오후3시쯤 충청남도 서산군 원북면에 있는 미제침략군 44포대 사격장에서 포사격을 하고있던 야수놈들은 근처에서 놀고있던 7명의 어린이들에게 엠—79포탄을 발사하여 모두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69년 8월 8일)

1969년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케이—55》 기지에 있는 미군수품 창고옆에서 보초를 서고있던 미제6314헌병대소속군견반 일등병 리처드 디. 베이스트(20살)란 야수놈은 철조망근처 앞길을 지나가던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사는 권대식(15살)소년을 《맛있는것을 준다》고 꾀여 기지안에 불러들여 군견을 풀어 그를 물어뜯게하여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하였다.(남조선 《중앙일보》 1969년 10월 25일)

1969년 11월 5일 낮 3시 15분쯤 미제침략군 《미하야리야》 부대소속 《고

문단` 종사 맨타일러라는놈을 비롯한 세놈의 살인악당놈들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대청부락 뒤산에 몰켜와 《사냥》을 한다고 마구 총질을 하던 끝에 밭에서 일하고있던 유장로(30살) 농민을 과녁으로 삼아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동화통신》 1969년 11월 6일)

1969년 12월 24일 오후 10시쯤 미제침략군 공병대소속 이등병 로벨트.이.휘샤란 야수놈은 아무 리유없이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답절건널목 사무실에 돌을 마구 던져 유리창을 모조리 까부셨으며 이에 항의하는 김화영(42살)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칼로 그의 얼굴을 마구 찌르고 때려서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한국일보》 1969년 12월 26일)

1970년 1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케이.엠.에이.지소속 장교 20여명의 강도들은 경상남도 김해군 명지면 서락동강변에서 사냥을 하다가 김해군 명지면 신산동구에 사는 하억수(16살) 소년을 발견하자 그에게 마구 총질하여 온 몸에 관통상을 입혔으며 그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그를 차에 걷어싣고 가다가 내던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서울신문》, 《경남매일》 1970년1월 20일,《대구일보》 1970년 1월 21일, 《동화통신》 1970년 1월 19일)

1970년 1월 23일 오전 10시 미제침략군놈들은 로케트포탄을 마구쏘아대여 경기도 려주군 대신면 장풍리 616번지에 사는 리수복(55살)의 둘째아들 리헌신을 비롯한 3명의 어린이들에게 중경상을 입혔으며 집한채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1월 23일)

1970년 2월 16일 미제침략군 공군 38려단 본부중대소속 일등병 초이트.헨리(20살)란 야수놈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고용되여있는 종업원인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1600번지에 사는 정동기(16살)소년에게 생트집을 걸어 면도칼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찢어 중태에 빠뜨리게 하였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2월 16일)

1970년 3월 4일 밤 미제침략군 제7사단 3련대 3대대소속 본부중대 기술상등병 제임스.월터(23살)와 하사 존.블라운드(22살)란 두놈은 부대에서 100리나 떨어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 사는 김화남(28살)의 집에 기여들어 마약을 내라고 강요하다가 거절하자 김화남부부의 머리를 돌멩이와 재털이로 까서 실신시킨후 면도칼로 목을 잘라 무참히 살해하고는 시체에서 손목시계와 담배 등 소지품을 몽땅 뒤져가지고 도망쳤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3월 9일, 《서울신문》 1970년 3월 11일)

1970년 4월 21일 밤 미제침략군 제7사단소속 일등병 빈게란놈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대회산리 《대동농장》에 뛰여들어 엠—16소총을 무턱대고 쏘아대여 방에서 잠자던 종업원 림근수(19살)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4월 22일)

1970년 4월 21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있는 사격장에서 미친듯이 총질을 하던 미제침략군 야수들은 사격장부근에서 산나물을 캐던 박영숙(19살)과 박순자(44살)녀성을 발견하자 그들에게 총질을 하여 모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한국문화방송》 1970년 4월 22일)

1970년 5월 17일 새벽 1시4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7련대 2대대 본부중대소속 병장 하이트 클라이드리(25살)란놈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14번지에 있는 조창환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방에서 자고있던 리금주(26살) 녀성을 태워죽였다. (남조선 《중앙일보》 1970년 5월 27일, 《동아일보》 1970년 5월 25일, 《동화통신》 1970년 10월 30일)

1970년 8월 1일 8시 미제침략군 전략통신대대소속의 두 야수놈은 총을 메고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대성리 식장산에서 《사냥》을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있던 대전시 가오동 81번지에 사는 천영세(33살)와 임신 6개월의 그의 처 리정애를 발견하자 그들을 파녁삼아 총탄을 퍼부어 두명에게 모두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대전일보》 1970년 8월 8일,《대전문화방송》 1970년 8월 6일)

1970년 10월 21일 11시30분쯤 미제침략군 4대대소속일등병 더.메스(19살)란놈은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황산리 앞 야산에서 꿩사냥을 하다가 밭에서 일하는 김길단(62살)로인을 보자 그를 과녁삼아 렵총을 쏴대여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전주문화방송》 1970년 10월 23일, 《전북매일신문》 1970년 10월 24일)

1971년 4월 11일 밤 11시쯤 미제침략군의 한 야수놈은 의정부시내 가릉동에서 성북운수소속 경기영 1—101호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운전수 원병상(22살)을 칼로 찔러죽였다(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4월 15일)

1971년 5월 2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 있는 미제침략군 공병대대에서 보초를 서고있던 상등병 하반스란놈은 자기앞을 지나가던 경기영 1—3400호오물차에 타고있던 여섯명의 로동자들을 향하여 《엠—16》소총을 마구 쏴대면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5월 25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살상만행은 이뿐만 아니다. 온 남조선땅을 무법천지로 만든 미제침략군은 초보적인 교통질서마저 지키지않고 되는대로 자동차를 몰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있다.

놈들은 자동차를 파속으로 몰아 앞에 나타나는것이 사람이건 자동차이건 집이건 무엇이나 덮어놓고 들이받는 행패를 부리고있으며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다니면서 심심풀이로 사람들을 깔아죽이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이와 같은 만행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마음놓고 길을 다닐수조차 없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하여 억울하게 숨져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수 역시 이루 헤아릴수 없다.

1969년 6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833병기탄약중대소속 상등병 로스. 산호(24살)란 놈은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면 학정리 앞길에서 43부호를 단 군용화물차를 미친듯이 몰고 다니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운전수 심유웅(49살)과 리종현(47살)을 깔아죽였다.(남조선 《한국일보》 1969년 6월 6일, 《동양라지오방송》 1969년 6월 8일)

1969년 6월 21일 오전 11시 20분 미제침략군 제8군 대전주재 통신부대소속 상등병 싱클. 존케이(18살)란놈은 경상북도 김천시 릉두동 신영사 앞길에서 《씨.아이》 14호자동차를 고속으로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가는 김천고등 《공민학교》 학생 김상기(16살)를 발견하자 그를 뒤따라가서 들이받아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6월 25일)

1969년 6월 23일 오후 4시쯤 미제침략군 제8군 저유창소속 양키놈은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읍 금로동 앞길에서 몰고가던 트럭으로 길가는 영천군 완산면에 사는 전옥례(34살) 녀성을 들이받아 불구자로 만들고 그가 업고있던 딸 순자를 차에 깔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매일신문》 1970년 1월 14일)

1969년 6월 27일 6시쯤 미제침략군 상등병 브라운 윌슨이란놈은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739번지 앞길에서 군용화물차로 길가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 528번지에 사는 최원순(59살)로인을 깔아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남조선《서울신문》 1969년 6월 29일, 남조선《한국문화방송》 1969년 6월 28일)

1969년 6월 30일 밤 9시쯤 미제침략군 하사 리챠드란놈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길옆에서 앉아놀고있던 이 마을 어린이 김화자(6살)를 군용화물차로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7월 1일)

1969년 7월 2일 밤 8시 미제침략군놈들은 군용찦차를 몰고가다가 경기도 평택군 춘성면 천곡리 앞길에서 마주오던 경기역 5-5516호뻐스를 들이받아 승객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7월 8일)

1969년 7월 7일 밤 10시 40분쯤 미제침략군 놈들은 군용차로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에서 마주오던 경기영 1901호뻐스를 들이받아 뻐스에 타고있던 승객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7월 8일)

1969년7월 14일 미제침략군통신 《에이》중대 상등병 찰스 칼멘이란 야수놈은 진해시 이동교에서 모래를 실은 경형화물차를 몰고가다가 길옆에 앉아놀던 경상남도 진해시 덕산동 73번지에 사는 김태성(7살) 어린이를 심심풀이로 치여 심한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매일신문》 1969년 7월 19일)

1969년 7월 19일 오전 10시쯤 미제침략군 제6168전투지원대소속 토마스 플레스톤(21살)이란놈은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봉덕동 2구 603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리성희(24살)녀성을 발견하자 군용찦차를 그에게 몰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매일신문》 1969년 7월 25일)

1969년 7월 25일 오전 10시30분쯤 미제침략군소속 대형화물자동차를 몰던 야수놈은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어은리에서 길옆에 서있던 라준조의 세째아들 영준(6살) 어린이를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전북매일》 1969년 7월 27일)

1969년 8월 3일 미제침략군 에롤드. 디. 슈스타는 야수놈은 《서울자4—2938호》 택시를 몰고 금천에서 왜관으로 가던중 길가던 13살가량의 소년을 깔아죽였다. (남조선《매일신문》 1969년 10월 4일)

1969년 8월 11일 오후 3시15분쯤 미제침략군놈들은 군용화물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박촌리 앞길에서 경기영 5—453호뻐스를 들이받아 뻐스운전수 리완복 (34살)을 비롯한 20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8월 12일)

1969년 8월 25일 오후 5시반쯤 미제침략군제110헌병대소속 다비드 피엘이란 놈은 충청남도 대덕군 탄동면 반석리 앞길에서 몰고가던 차로 앞에 달리는 《경북자2—1502호》 찦차를 들이받아 전복시켜 차를 타고있던 대전시 《고려서적》에 있는 손영애녀성을 비롯하여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남조선 《중앙일보》 1969년 9월 24일)

1969년 9월 7일 오후 6시 미제침략군 《캠프캐롤》 소속 제임스 디.썰리란 야수놈은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앞길에서 자동차를 그냥 들이몰아 길가는 사람을 치여죽였다. (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12월 18일)

1969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4경비대대 11중대 소속 일등병 크린지 (19살)란놈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리 228번지 앞길에서 대형군용화물차로 길옆에 앉아있는 윤순춘(2살) 어린이를 깔아죽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9월 12일)

1969년 9월 24일 오후 5시쯤 미제침략군 공군전투지원대소속 야수놈은 대구시 태평로 미제침략군 47보급창 앞길에서 군용화물차로 대구시 대명동 2482번지에 사는 리치훈(55살) 로인을 깔아죽였다. (남조선 《평남일보》 1970년 1월 24일)

1969년 9월 27일 오전 10시30분쯤 미제침략군 44포병대 제4대대 본부 중대 소속병장 버느한.월리암이란 야수놈은 인천시 간석동 21번지 약사사입구 앞길에서 차를 피해 달아나는 간석동 36번지에 사는 조봉암(7살) 어린이를 화물차로 뒤따라가 깔아죽였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69년 9월 30일)

1969년 10월 7일 밤 11시 15분쯤 미제침략군 제65의무단 168대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케시어. 죠세프(23살)란놈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2번지 앞길에서 찦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이곳 주민 우경희(18살) 청년을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신아일보》 1969년 10월 8일)

1969년 10월 26일 오후 6시45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 19지원단소속 일등병 콘자레스.대디스라우(21살)란놈은 서울 서대문구 교북동 10번지 앞길에서 《아이.제이》 662호승용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서대문구 옥천동 126번지에 사는 김숙완(51살) 녀성을 깔아죽였다. (남조선 《한국일보》 1969년 10월 28일)

1969년 10월 29일 2시 50분쯤 미제침략군 웰스델(21살)이란놈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에서 폭발물을 실은 406호 군용화물차를 마구 몰고가다가 영동포소속 경기영 649호시외뻐스를 들이받아 뻐스에 타고있던 포천면에 사는 윤상순(27살) 청년을 비롯한 13명의 주민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10월 30일)

1969년 11월 20일 오전 11시쯤 미제침략군 도산비행장소속 브림트 제임스란놈은 군용화물차를 몰고 대전방면에서 리리방면으로 달리다가 론산읍 덕지동 앞길에서 놀고있던 론산읍 덕지동 702번지에 사는 최영순(31살) 녀성의 맏아들 박수여(5살)어린이를 발견하자 그에게 차를 몰아 깔아죽였다. (남조선 《대전일보》 1969년 11월 22일)

1969년 12월 5일 오후 6시15분쯤 미제침략군 김포지구 전투공항단 수송부소속병장 제임스.헤베훼엘(21살)이란놈은 하인천네거리에 있는 목재소 앞길에서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아대다가 중구 북성동1가 6번지에 사는 장영학(25살) 청년을 치여 뇌진탕으로 죽게 하였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12월 6일)

1969년 12월 31일 오전 8시30분쯤 미제침략군놈들은 군용화물차를 몰고 평택쪽으로 미친듯이 달리다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합덕리 길옆에서 앉아놀고있던 리훈희(5살)어린이를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중도일보》 1970년 1월 1일)

1970년 1월 8일 밤 11시15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소속 하사 바크 티란놈은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 1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리강미(26살) 녀성을 보자 타고가던 4—925 차를 우정 그쪽으로 몰아 리강미녀성을 깔아죽이고 함께 가던 그의 동생 리강인(21살)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1월 9일)

1970년 1월 8일 오전 11시 5분쯤 미제침략군 제38려단 44포대 4대대 《비》중대소속 중사 하원 뒤엠이란놈은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역전길에서 군용화물차를 몰고가다가 보령군 람포면 달산리에 사는 최희순의 처 리경순(37살)녀성을 깔아죽였다. (남조선 《중도일보》 1970년 1월 10일)

1970년 1월 10일 밤 9시 48분쯤 미제침략군 《케이—2》 공군소속 병장 핸드슨.데이비드란 야수놈은 경상북도 대구시 점산동2구 경대교입구 점산동네거리에서 승용차를몰고 미친듯이 달리다가 길가던 대구시 신암동1구 58번지에 사는 장도원(28살) 청년과 같은 동 3구 1128번지에 사는 김용일(27살) 청년을 치여 심한 타박상을 입히고 그냥 달아나다가 신암동3구 제방뚝에서 《매일택시》 소속 경북영 1—3573호승용차를 들이받아 크게 파손시켰다. (남조선 《대구일보》 1970년 1월 18일)

1970년 3월 5일 오후 4시30분쯤 미제

침략군 제1공병대 2중대소속 상등병 죠세트란놈은 군용화물차로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전양단 고개길에서 정비를 하고있던 시내 택시 경기영 1—309호를 우정 들이받아 운전수 김기영(37살)을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3월 5일)

1970년 4월 6일 저녁 7시 30분쯤 군용화물차를 몰고가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에서 집앞에서 놀고있던 정식(8살)어린이를 깔아죽였다.(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4월 6일)

1970년 5월 18일 밤10시 미제침략군 제500의무중대소속 일등병 바크라는놈은 서울 룡산구 리태원동 13번지 앞길에서 위생차를 미친듯이 몰다가 길가는 한남동산 15번지에 사는 심제윤(37살)을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5월 19일)

1970년 5월 29일 낮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44보급대대소속 상등병 롬린(18살)이란놈은 군용짚차를 몰고 마산시내를 이리저리 싸다니다가 시내 양덕동에 있는 봉덕 《국민학교》 앞길에서 이 학교의 1학년생인 강형래(8살)와 박현주(8살) 두 어린이를 우정 깔아넘기고 이 부근에 사는 선세살나는 리정희할머니가 어린이들을 구하려고 달려오는것을 보자 그에게 차를 몰아 그를 잇달아 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합동통신》 1970년 6월 1일)

1970년 6월 25일 밤10시 10분쯤 미제침략군놈들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 282번지 앞길에서 몰고가던 군용짚차로 인천시 남구 주안동 967번지에 사는 한보정(37살)을 치여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다.(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6월 26일)

1970년 7월 27일 오후 5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2련대 본부중대소속 이등병 빅타이어. 월렴(21살)이란놈은 서울시내 서대문구 감현동 305의 28번지의 《국민은행감현지점》 앞길에서 군용화물차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서대문구 대조동 123의 5번지에 사는 감현동 《금성뼁끼사》 종업원 송재길(17살)을 무참히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향신문》 1970년 7월 28일)

1970년 8월 10일 낮 미제침략군 제46수송대소속 침략군놈들은 대형군용화물차를 몰고 김포를 떠나 제1한강쪽으로 달리다가 서울 영등포구 네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 신호를 기다리던 서울영 1—6738호 택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운전수 정태홍(34살)과 학생 리영숙을 치여죽였으며 로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8월 10일, 《동아일보》 1970년 8월 11일)

1970년 8월 17일 오전 9시쯤 미제침략군 제2사단소속 311호 군용차를 몰던 야수놈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등원리에서 맞은 편에서 오던 문산발 서울행 《대성려객》소속 경기영5—5020호 시외뻐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객 31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8월 17일)

1970년 9월 4일 오후 2시 미제침략군 제6168전투지원단소속 해리. 해롤스(30살)란놈은 대구시 효목동 아양교입구에서 군용화물차로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영주동 327번지에 사는 차옥남(40살)녀성을 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령남일보》 1970년 9월 6일, 《전남일보》 1970년 9월 10일)

1970년 9월 11일 밤 11시 55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작전처에 있는 오티스 다블유. 윌슨이란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택시정류장앞길에서 리윤희(39살)가 운전하는 서울영 1—1371호택시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다음 계속하여 길옆에 서있던 서울 경암동 11번지에 사는 김석출(32살)을 비롯한 2명을 깔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한일보》 1970년 9월 12일)

1970년 10월 31일 새벽 5시 1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76공병대대 《씨》중대소속 대형군용화물차를 몰고 가던 침략군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앞길에서 마주오던 《합동택시》소속 배송렬(28살) 이 운전하는 경기영 1—1265호택시를 들이받아운전수를 깔아죽이고 택시를 완전히 부서뜨렸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10월 31일)

1970년 11월 20일 오후 6시쯤 평택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 《험프리》 부대 《안전과장》 에프.아이. 브롬베리(52살)라는년은 4—9251호차를 몰고가다가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삼정리고개 앞길에서 달리던 차를 뒤로 들이받아 타고있던 춘천시 근화동1구 64번지에 사는 최경자(23살) 녀성을 즉사케하였다. (남조선 《조선일보》 1970년 12월 21일)

1970년 12월 27일 오후 9시쯤 미제침략군 제8군소속 중위 웰렴마빈이란놈은 4—8929호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 룡산구 룡산동 2가 8번지 미제8군 7호 정문 앞길에서 길가던 20살가량의 녀성을 보자 차를 그에게로 몰아 그를 무참히 깔아죽였다. (남조선 《경향신문》 1970년 12월 28일)

1971년 1월 30일 오전 10시 15분쯤 미제침략군 제2사단소속 1—23호 군용화물차를 몰던 한 악한놈은 경기도 파주군 일롱면 의정리 앞길에서 경기영 5—2204호뻐스를 들이받아 3메터 언덕아래로 굴러떨어뜨려 승객 1명을 숨지게하고 25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남조선《기독교방송》 1971년 1월 30일)

1971년 2월 27일 밤 8시 50분쯤 미제침략군 제46수송대소속 15호화물차를 몰던 야수놈은 서울 서대문구 룩번동 50번지 네거리에서 같은 동 1001번지에 사는 리광수(35살)의 딸 명자(7살)를 깔아죽였다. (남조선 《중앙방송》 1971년 2월 27일)

1971년 3월 4일 밤 9시 15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 168의무대대 567위생차중대소속 15호차를 몰던 상등병 반 콜콘제리더란놈은 서울 성북구 도봉동 195번지 앞길에서 길가는 도봉동 99번지에 사는 하금자(16살) 와 같은 동에 사는 정동오 (19살) 두 처녀를 보자 차를 우정 그쪽으로 몰아 두명을 모두 깔아죽였다.(남조선 《신아일보》 1971년 3월 5일, 《조선일보》1971년 3월 6일)

1971년 3월 23일 오후 4시15쯤 미제침략군 제75포대소속 멘델데리란놈은 경기도 가평군 와서면 앞길에서 군용화물차로 앞에 달리던 최영롱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27메터나 되는 언덕아래로 굴러떨어뜨려 운전수등 3명에게 심한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중앙방송》 1971년 3월 24일)

1971년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한 야수놈은 서울시 서대문구 록번동 7번지 앞길에서 군용자동차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다가 길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 280번지에 사는 리창복(43살)을 깔아죽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1년 5월 1일)

1971년 5월 12일 오후 5시 50분쯤 미제침략군 해군소속 웰리암이란놈을 서울 서대문구 록번동 21번지 앞길에서 위생차를 몰고가다 길가는 65살가량의 로인을 깔아죽이고 달아났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1년 5월 12일)

2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녀성들에 대하여 치떨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녀성들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온갖 만행은 제국주의침략군, 강점군으로서의 미제침략군의 추악한 정체와 극도로 부패타락한 그의 야수적면모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눈에는 조선녀성들이 한갖 저들의 롱락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있으며 부녀자를 보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

지 않고 덤벼들어 제놈들의 수욕을 채우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놈들은 살림집에 무시로 침입하여 부녀자가 있으면 눈이 뒤집혀 덮어놓고 겁탈하려 하며 길가는 녀인들을 랍치하여 병실과 창고에 가두어넣고 륜간하며 녀자들을 머리태를 자르고 옷을 벗겨 알몸뚱이채로 길가에 끌고다니는등 갖은 행패를 다하고있으며 제놈들의 요구를 순순히 듣지않으면 칼질과 매질을 하여 부녀자들을 살해하는 범죄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이러한 만행은 리성을 가진 사람의 머리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다.

바로 이 시각에도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남조선녀성들을 억울한 봉변을 겪고있으며 도저히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있다.

1969년 6월 1일 새벽3시쯤 미제침략군 상등병 데이비드(24살)란놈은 경기도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사는 김희숙(20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있는 그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한 다음 겁탈하고 도망쳤다.

같은 날 오후7시쯤 미제침략군 제7기갑중대소속의 두 야수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마정리 길가에서 지나가는 리덕래(22살) 녀성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다가 그의 완강한 반항에 부닥치자 그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생명을 위독하게 만들었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6월 4일)

1969년 6월 7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 공병대소속 일등병 젠바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평성면 안정리 88번지에 사는 지옥련(24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닥쳐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그 녀성을 때리고 구두발로 차서 실신시킨후 범죄증거물을 없앨 목적으로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69년 6월 9일)

1969년 6월 22일 밤 9시쯤 미제침략군 《캠프캐롤》 본부중대소속 하사 싱글 리트리.사롤드이(24살)란놈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클럽》에서 왜관읍 석전동 434번지에 사는 김남순(35살) 녀성에게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어 그를 머리높이까지 들었다가 세멘트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신타박상과 뇌진탕으로 생명이 위독하게 만들었다. (남조선 《매일신문》 1969년 6월 24일)

1969년 6월 24일 오전9시쯤 미제침략군 제8군 《캠프캐롤》 44공병대 13중대소속 병장 길버트.리로이.알렌들이란놈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리아무개(30살) 녀성에게 달려들어 그를 마구 때려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6월 29일)

1969년 6월 24일 5시 45분쯤 미제침략군 공군 헌병인 상등병놈은 상무동 8반 192번지에 사는 박영자(26살)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심한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전남매일신문》 1969년 6월 26일)

1969년 7월 8일 밤11시50분쯤 미제침략군 공병소속 일등병 트.코파스(20살)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아무개(23살) 녀성의 집에 기여들어 수욕을 채우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남조선 《한국일보》 1969년 7월 11일)

1969년 7월 17일 밤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본부소속 하사 탐 픔손(31살) 이란놈은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3구469번지에서 오영순(37살) 녀성을 희롱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달려들어 마구 때리다가 그래도 성차지 않아 그를 길가에 끌고다니면서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9월 5일)

1969년 8월 13일 오후 5시30분쯤 미제침략군 크라랜스(41살)란놈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조선녀성을 희롱하는 것을 말린다 하여 박애자(34살) 녀성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동화통신》 1969년 8월 14일)

1969년 8월 14일 밤 9시쯤 미제침략군의 한놈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영자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완강한 항거에 부닥쳐 제놈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그 녀성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하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8월 22일)

1969년 8월 27일 오후 5시쯤 미제침략군 제377군부대소속 일등병 하리.제이. 및선(22살)등 두놈은 인천시 산곡동 길가에서 약담배를 피우다가 지나가는 임정순(30살) 녀성을 보자 달려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집단폭행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8월 28일)

1969년 9월 1일 오후4시 15분쯤 미제침략군 하사 키플리외 두명의 야수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홍하클럽》에 뛰여들어 홀에 앉아있는 김영희(24살) 등 두명의 녀성에게 달려들어 겁탈하려다가 그들이 반항하자 집단폭행을 가하여 각각 심한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69년 9월 3일)

1969년 10월 17일 새벽1시쯤 미제침략군 제335중장비정비대대 《에이》중대소속 상등병 제크.지.아비.크롬비(22살)란놈은 제놈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고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 176번지에 사는 리금순(23살)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겁탈하려다가 그 녀성이 단호히 항거해 나서자 마구 때리고 옷깃이로 그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였다. (남조선 《경남일보》 1969년 10월 31일)

1969년 9월 23일 밤1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베이트병장 등 5명의 악당들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서 마을에 사는 정아무개녀성과 김길영녀성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다가 그들이 반항하자 그 녀성의 머리태를 손에 감아쥐고 끌고 다니면서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남조선 《국제신보지사》 1969년 9월25일, 《한국문화방송》 1969년 10월 4일)

1969년 11월 21일 오전 10시쯤 미제침략군 공군하사 플(38살)이란놈은 전라남도 광주시 윤천동 7번지에 사는 최송자(42살)의 집에 기여들어 희롱하려다가 그 녀성이 항거하자 그를 방안에서 마당으로 내던져 머리가 터지게 하는 등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전남매일신문》 1969년 11월 29일)

1969년 12월 24일 밤11시 30분쯤 대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제44공병대대 《비》 중대소속 하사 다니엘.이.등 두명의 악한들은 경상북도 대구시 태평로1가 10번지에 사는 조아무개(22살) 녀성과 김아무개(22살) 녀성을 랍치하여 제놈들의 숙소에 가두어놓고 수욕을 채운후 그들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12월 26일)

1969년 12월 25일 오후7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캠프캐롤》 부대 제44공병대대소속 병사 펠프스.라이(23살)란놈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2동에 사는 김아무개(22살) 녀성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다가 그가 필사적으로 항거해나서자 미친듯이 구두발로 차고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12월 27일)

1970년 1월 1일 아침 6시 30분쯤 미제침략군 공군 제6175화약 경비대소속 병장 후레드리.씨.썰베이(26살)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에 사는 김영자(25살)녀성을 탐치하여 《대광려관》 16호실에 가두어넣고 강간하려 함으로 그가 방문을 열고 뛰여나가면서 고함을 지르자 이 악한놈은 화풀이로 려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같은날 오후9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제728헌병대소속 병장 파코씨.케리(25살)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기기제(26살)녀성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는 등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1월 5일)

1970년 1월 1일 밤9시 30분쯤 미제침략군 헌병대소속 병장 카텔.해리(25살)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리화자 (25살) 녀성이 제놈의 희롱에 반항한다고 하여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1월 2일)

1970년 1월 7일 밤1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602공병대대소속 상사 피스트.이.제임스(32살)란놈은 짐승같은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고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옥복남(28살)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그 녀성의 옷을 찢어벗긴후 머리채를 움켜잡고 큰 길로 50메터나 끌고다니면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1월 9일)

1970년 2월 10일 밤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1군단 38포병대소속 하사 판 쿠인(30살)이란놈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봉양리에 사는 정미출(33살)녀성이 자기 부대 길문앞을 지나가자 달려들어 겁탈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자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고 구두발로 배를 차서 온 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중태에 빠뜨려 임신 3개월이던 그로 하여금 류산케 하였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2월 14일)

1970년 3월 1일 오후6시쯤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기지소속 상등병 페데릭.비.이스란놈은 소양로 3가 96번지에 사는 홍아무개(21살)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강간하려다가 그가 완강히 항거해나서자 미친듯이 매질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강원일보》 1970년 3월 2일)

1970년 3월 22일 밤 미제침략군 제6314시설부대소속 일등병 커프.이.토마스란놈은 더러운 야욕을 채우려고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사는 리점순(22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미친듯이 날뛰다가 그 녀성의 단호한 항거에 부딪쳐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마구 때리고 구두발로 차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3월 25일)

1970년 3월 23일 밤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통신대 《에이》 중대소속 상등병 프레스캇.디.아이손(20살)이란놈은 서울시 가룽동 590번지에 사는 리아무개(28살)녀성에게 시비를 걸어 그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깊이 2메터나 되는 하수도 구멍에 처넣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3월 26일)

1970년 3월 23일 밤 11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제31려단 2대대 《씨》 중대소속 병장 등 6명의 악당들은 대천읍 대천리 길가에서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잡고 희롱하는 등 갖은 추태를 다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대천읍 대천리에 사는 강순태(22살)녀성에게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하여 그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남조선 《대구일보》 1970년 3월 28일, 대전일보 1970년 3월 26일)

1970년 3월 28일 미제침략군 제8군 《캠프 캐롤》 부대소속 병장 휠.휠립프란놈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용2동에 사는 장화자의 동생(20살)의 방을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그가 항거하면서 고함을 질러 장화자가 달려오게 되자 이 야수놈은 그 녀성에게 달려들어 미친듯이 마구 때려 온 몸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매일신문》 1970년 3월 31일)

1970년 4월 13일 오후2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6314비행정리중대소속 병장라미.엘.로이스(22살)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송태읍 신장리 《제일극장》 앞길에서 영화구경을 하고 나오는 상기 마을에 사는 강아무개(24살)녀성에게 대낮에 달려들어 희롱하다가 그가 도망치자 쫓아가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서울신문》 1970년 4월 16일)

1970년 4월 18일 새벽 1시쯤 미제침략군 제44포병대소속 상등병 올리암.엔.틴오데(23살)란 악한놈은 더러운 야욕을 채우려고 야밤에 미친듯이 돌아치다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전정자(24살)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겁탈하려다가 단호한 항거에 부닥치자 단도로 그의 복부와 온 몸을 마구 찔러 생명을 위독케 하였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4월 18일)

1970년 4월 30일 오후5시 10분쯤 미제침략군 제2보병사단 7기갑대대소속 병장 불(27살)이란놈을 비롯한 5명의 야수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4리 앞길에서 이 마을에 사는 유희란(38살) 녀성을 붙잡고 희롱하려다가 그가 응하지 않자 맥주병으로 그 녀성의 머리를 까고 면도칼로 얼굴과 온 몸을 마구 찢어 중태에 빠뜨렸으며 이를 말리던 김호진(32살)에게도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였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5월 1일)

1970년 5월 10일 밤 9시쯤 인천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유도탄부대소속 30여명의 악당놈들은 경기도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에 사는 리아무개(28살) 녀성을 랍치하여 상기 부대 오락실에 가두어놓고 강간하려다가 그 녀성이 필사적으로 반항하자 집단폭행을 가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차례로 륜간하였다. (남조선 《동화통신》 1970년 5월 15일)

1970년 5월 17일 새벽2시 30분쯤 미제침략군 한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279번지에 사는 김아무개(20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희롱하려다가 그의 완강한 항거에 부닥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5월 17일)

1970년 5월 29일 밤 9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73기갑대대소속 무스란놈은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대전1리에서 김옥순(31살) 녀성을 강간하려다가 그가 반항하여나서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질러 다섯간짜리 집을 몽땅 태워버렸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5월 30일)

1970년 7월 11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 제8군본부중대소속 일등병 존.베르벤을 비롯한 8명의 악당들은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1가에 사는 19살나는 장아무개처녀를 랍치하여 부대안에 있는 병사에 가두어놓고 차례로 륜간하였다. (남조선 《경향신문》, 《한국문화방송》 1970년 7월 11일)

1970년 8월 3일 새벽 3시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71포병대 《비》 중대소속 상등병 에드워드 메이어(23살)란놈은 황경자(22살) 녀성이 자기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고 달려들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면도칼로 위협하면서 그의 머리털을 깎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남조선 《산업경제신문》 1970년 8월 9일, 《합동통신》 1970년 8월 8일)

1970년 8월 22일 오전 6시 20분쯤 부산지구 부전동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 하사 다텐.랜레스(23살)란놈은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55번지에 사는 허봉애(33살)녀성을 랍치하여다가 병영내 702호건물안에 있는 숙소에 가두어넣고 겁탈하려다가 반항하자 그의 목을 달아매고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하였다. (남조선 《경향신문》 1970년 8월 22일)

1970년 10월 8일 오후1시쯤 미제침략군 공병단 《비》 중대소속 하사 메시.트.제임스(42살)란놈은 서울시 용현동에 사는 리필순(24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희롱하려다가 그가 항거한다하여 그 녀성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

혀 생명이 위독케 만들었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10월 9일)

1970년 10월 20일 밤8시쯤 미제침략군 제36공병대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메츄스(20살)라는 악한놈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15번지에 사는 가난한 17살 나는 처녀로동자가 공장에 야간작업을 하려가는것을 길가에서 붙들고 강간하려다가 그가 필사적으로 항거해나서자 천막끈으로 목을 졸라매여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남조선 《중앙방송》 1971년 3월 2일)

1970년 10월 21일 밤8시 30분쯤 미제침략군 통신 《에이》 중대소속 병장 코란댄스 란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 사는 리미자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강간하려다가 단호히 항거해나서자 칼로 그 녀성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10월 22일)

1970년 10월 22일 밤9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이등병 크레포드.빼치야신이란놈은 제놈의 더러운 수욕을 채우려고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39번지에 사는 김홍자 (25살)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미친듯이 날뛰다가 그 녀성의 완강한 반항에 부닥쳐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게 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남조선 《중앙방송》 1970년 10월 23일)

1970년 10월 24일 오후7시 부산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상등병 그린 앤드슨과 상사 리챠드스메리 등 3명의 야수놈들은 자기 부대 앞을 지나가는 병어리처녀 리아무개를 강제로 병영창고에 끌고가서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차례로 륜간하였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0년 11월 5일)

1970년 12월 19일 밤11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제239비행중대소속 병장 카치슨 아이엘 등 3명의 야수놈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225번지 박순국의 집에 세들고있는 최순화(32살)녀성과 다른 한 녀성에게 달려들어 겁탈하려다가 항거에 부닥쳐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그를 때리고 온몸을 칼로 찔러 모두 피투성이가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그 녀성들의 몸을 뒤져 현금 2만원과 손목시계 1개를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중앙방송》 1970년 12월 20일)

1971년 2월 14일 오전10시 10분쯤 부평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보급창 《에이》 중대소속 브라운(31살)이란놈은 더러운 야욕을 채우려고 돌아치다가 경기도 인천시 북구부평동 284번지에 사는 손아무개(24살)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강간하려다가 그 녀성이 내뛰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쳐 5세대의 살림집을 몽땅 불태워 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남조선 《련합신문》 1971년 2월 15일, 《한국일보》 1971년 2월 16일)

1971년 2월 18일 오후 8시 50분쯤 미제침략군 제9편대 2대대 《에이》 중대소속 상등병 베치스.제리(20살)등 2명의 야수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 69번지에 사는 리귀순(24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륜간하려다가 그 녀성이 몸을 피하게 되자 군용최루탄을 집에 마구 던져 민가를 파손시키고 주변을 연막으로 뒤덮이게 하여 옆집에 사는 김옥화 등 2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산으로 대피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남조선 《련합신문》, 《한국문화방송》 1971년 2월 19일)

1971년 3월 13일 새벽 2시쯤 미제침략군 병사 한놈은 경기도 평택군 평성면 안정리 18번지에 사는 리은희(26살)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겁탈하려다가 그가 완강히 항거하자 화풀이로 집에 불을 질러 5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3월 13일)

3

남조선도처에서 살인과 부녀자들에 대한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일반주민들을 일상적으로 멸시하고 모욕하며 그들에 대한 폭행을 태연하게 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깡패악당의 본성 그대로 개별적으로 혹은 무리를 지어 길가는 사람들을 아무 리유없이 때리고 칼로 찌르며 영화관과 극장에까지 들어가 패싸움을 벌려놓고 닥치는대로 사람을 치는 등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1969년 6월 5일 낮12시 30분쯤 미제침략군 부산기지 본부중대소속 병장 조지 웰리엄,상등병 크렌스.에이.스티븐, 일등병 토마스 등 세놈의 야수들은 부산시 부전동 상진북지점 앞길에서 지나가는 부산시 부암동 145번지에 사는 홍현표(28살)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단도로 오른쪽 갈비대, 다리, 가슴 등 온몸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린후 시내에 있는 카메라상점인 《에리사》의 창문까지 짓부시고 달아났다. (남조선 《매일신문》, 1969년 6월 7일)

1969년 6월 8일 새벽 1시쯤 미제침략군 《캠프 캐롤》 소속 두명의 야수놈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2동 464번지에 사는 한주연(36살)로동자에게 아무 리유없이 마구 달려들어 몽둥이로 그의 입을 짓찧고 왼쪽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가 부서지고 웃이발 두대와 아래 이발 두대가 부러지게 하였으며 그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남조선《매일신문》 1969년6월 27일)

1969년 6월 14일 오후5시 45분쯤 미제침략군 병장 롬프스.인론(21살)이란놈은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학산리 길옆에서 일하고있는 주민 리원길(34살) 을 아무 리유없이 마구 때리고 발길로 차서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제놈의 이러한 폭행을 말리는 박아무개에게도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대전일보》 1969년 6월 16일)

1969년 7월 11일 밤1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512군부대소속 상등병 데이크.커미스.알이란놈은 경기도 인천시 북구부평동에 있는 미제침략군부대앞길을 지나가던 인천시 남구간석동에 사는 리성덕(24살) 청년이 옆을 스치면서 지나갔다고 시비를 걸어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7월 12일)

1969년 7월 13일 밤11시 15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 대구기지근무중대소속 멕.두몬.크리포드.다부류라는놈은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4748군 뒤문입구에서 지나가는 아세아택시소속 1—6260호 운전수 전형진(33살)을 멈춰세우고 차유리를 발로 차서 모조리 깨버린 다음 운전수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대구일보》 1969년 7월 19일)

1969년 7월 14일 오후2시쯤 미제침략군 헌병놈은 경기도 인천시 부평역에 근무하는 한만광(20살)을 아무 리유없이 헌병대에 끌고가서 수갑을 채운채 8시간동안이나 감금해놓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전신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역측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이전에도 많았다고 하소연하였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7월 16일)

1969년 7월 20일 밤1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유도탄대대 7중대소속 상등병 유플이란 놈은 차를 몰고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 임곡교를 건느다가 다리옆에 피해 서있는 비산리 232번지에 사는 강병원(43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를 높이 4메터의 다리밑으로 내던져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69년 7월 21일)

1969년 8월 28일 밤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상등병 칼웰(24살)이란놈은 학익동 430번지 앞길에서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 돌아치다가 지나가는 리몰순(46살)을 무턱대고 맥주병으로 마구 때려 심한 중상을 입혔으며 잇달아 길가는 사람 7명을 몽둥이와 맥주병으로 마구 때려 각각 심한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8월 29일)

1969년 9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미제침략군 제2사단소속 병장 맥스프월투스 등 3명의 야수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대릉리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는 등 갖은 추태와 행패를 다 부리다가 그것도 성차지 않아 김옥분(56살)의 집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길가에 마구 던져 깨뜨렸으며 이를 말리던 정문부(27살)를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9월 25일)

1970년 9월 11일 오전 9시쯤 미제침략군 5헌병대소속의 한 악당놈은 찌프차를 타고 달리다가 서울시내2가에서 교통정지신호에 의하여 서고있는 서울영택시의 뒤를 고의적으로 네차례나 들이받아 차뒤부분을 파손시킨후 택시운전수 오선빈을 권총으로 쏴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마구 때려 심한 상처까지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동화통신》 1970년 9월 11일)

1969년 10월 18일 밤10시40분쯤 미제침략군의 다섯놈의 악당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명산동 《제일명산옥》 앞길에서 지나가는 조준덕 (21살), 안영찬(19살), 박영신 등 세명에게 아무 까닭없이 달려들어 뭇매질을 가하고 칼로 마구 찔러 온 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남조선 《전북일보》 1969년 10월 21일)

1969년12월 15일 밤 11시쯤 미제침략군 제6168전투지원중대소속 병사 포미, 카크란놈은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3구 469번지 《신태양》 앞길에서 지나가는 박삼봉로인(61살)을 아무 리유없이 구두발로 차고 때리며 귀를 찢어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매일신문》, 《대구일보》 1969년 12월 20일)

1969년 12월24일 밤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소속 50여명의 야수놈들은 떼를 지어다니면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 428번지 《뉴욕홀》 앞길에서 지나가던 정경식(27살) 등 8명과 홀주인 장만회(32살)를 아무런 까닭없이 끌어내여 집단폭행을 가하여 각각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조선일보》 1969년 12월 26일, 《대한일보》 1969년 12월 25일)

1970년 1월 1일 밤11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23직접지원소속하사관 켄네르쓰.투야(31살)라는놈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사는 김영숙이 꾸어준 돈 3천 3백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자 돈을 갚을대신 그를 때려 중상을 입히고 살림도구를 짓부시는 등 갖은 행패를 다 부렸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1월 5일)

1970년 1월 31일 밤10시쯤 미제침략군 일등병 베이스.상등병 구름바 등 세 야수놈은 장하리 앞길에 버티고서서 지나가는 최병락 (43살)에게 아무 리유없이 집단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고도 성차지 않아 그 마을 육신영(55살)의 집대문을 마스고 뛰여들어가 잠자고있던 김혜숙(20살) 처녀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힌 다음 옆에 있는 류동열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살림도구를 닥치는대로 마스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전일보》 1970년 2월 4일)

1970년 2월 5일 밤9시 20분쯤 미제침략군 부산기지사령부 본부중대소속 2등병 쿨레조.조지엘이란놈은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 앞길에서 지나가는 김윤근(37살) 이 자기 옆으로 지나간다고 시비를 걸어 그를 때리다가 말리는 리현식(30살)에게 달려들어 칼로 그의 얼굴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부산일보》, 《국제신보》 1970년 2월 7일)

1970년 2월 6일 밤11시 50분쯤 미제침략군 공군 제475전략비행대소속 병장 메클리스트란놈은 경상북도 대구시 봉덕동 3구에서 진경희(23살) 를 아무 리유없이 때려 왼쪽 팔을 부러뜨리는 등 심한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령남일보》 1970년 2월 11일)

1970년 2월 13일 미제침략군 제1군사령부소속 일등병 리키.다브르.산더스란놈은 동부대에 고용되고있는 원봉오(36살)가 자기에게 오는 공문을 훔쳤다고 루명을 씌워 마구 때린후에는 그가 《간첩》이라고 미제침략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심문과 심한 고문까지 당하게 하였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2월 14일)

1970년 3월 25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 병장 벌드에드멘드 등 4명의 야수놈들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 리발관 앞마당에서 《성은국민학교》 교원 리의덕(20살)과 박지명(25살) 2명을 아무 리유없이 뭇매질을 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3월 28일)

1970년 3월 31일 오후4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 2대대 《에이》 중대소속 병장 스트본슨.헤롤드란놈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 4리 505번지 앞길을 개싸다니듯 하다가 김실(28살) 청년이 자기 집 대문앞을 나서자 아무 까닭없이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4월 4일 및 6일)

1970년 4월 5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석수동에 사는 조병태(54살) 집에 큰 돌멩이를 마구 던져 문파 유리창 4개를 부셨으며 돌로 조병태의 딸 조현자(14살)의 얼굴을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이 야수놈들은 4월 13일에는 양기춘(35살)의 가게방에 돌을 마구 던져 유리창들을 까고 상품들을 부셨다.

이 마을에서는 밤마다 미제침략군놈들이 살림집에 마구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한 밤을 보내고있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4월 14일)

1970년 4월 8일밤 10시 15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7보급 수송대대 《비》 중대소속 병장 카너(22살)란놈은 동부대에 고용되고있는 종업원 관친섭(44살)을 아무 리유없이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4월 10일)

1970년 4월 18일 오후7시쯤 미제침략군 공군헌병 윌리암 제랄(20살)이란놈은 봉덕동 641 《뉴욕클럽》에 들어가서 종업원 오아무개(23살)녀성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로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령남일보》 1970년 4월 26일)

1970년 4월 30일 미제침략군 제11공병대대 《씨》 중대소속 상등병들인 호워드.비.리(20살)와 헨리다 블유.포셀(19살), 파블.제이호스드(22살)등 세놈은 길을 지나가는 금오동 436번지에 사는 리만(34살)과 양주군 의정부 사동에 사는 안열선(27살)을 맥주병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마구 때려 두사람이 다 정신을 잃게 하였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5월 2일)

1970년 5월 20일 밤9시쯤 미제침략군 제2사단 23련대소속 세놈의 악당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 앞길에서 지나가는 주민 권의중(36살)에게 아무 리유없이 집단폭행을 가하였으며 제놈들의 이러한 폭행을 주변주민들이 말리자 30여명의 침략군놈들을 더 끌고와서 닥치는대로 주민들을 때리고 상점유리 40여장을 마스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였으며 현장에 달려 온 미제의 헌병놈들은 공포까지 쏴대면서 주민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격분한 마을주민 200여명이 투석전을 벌리면서 완강히 싸웠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0년 5월 21일)

1970년 6월 8일 오후8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제2사단 소속 군용화물자동차를 타고가던 야수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서울영 5—1709호 뻐스를 보자 맥주병과 돌을 마구 던져 경기도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사는 김영순 (32살) 녀성 등 3명에게 심한 중상을 입히였으며 5명의 경상자를 냈

다. 또한 맥주병으로 문명순(35살)의 얼굴을 때려 왼쪽눈알이 빠지게 하는 등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한국일보》 1970년 6월 8일, 《중앙방송》 1970년 6월 9일)

1970년 6월 22일 오후2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2사단 38포 5대대 《에이》 중대 하사관 아본이란놈은 의식적으로 경기영 1—1154호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운전수 유봉산(29살)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6월 25일)

1970년 8월 8일 미제침략군 《피엑스》 본부에 있는 야수놈들은 《국제관광공사》 동두천 《아리랑택시영업소》의 김택순 등 27명의 운전수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미제침략군 헌병놈들의 폭행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하여 오히려 20여명의 헌병놈들을 불러다가 운전수들을 마구때리고 구두발로 차는 등 집단폭행을 가하였으며 지어 운전수의 목을 조르고 손발을 꺾어 심한 상처를 입힌 다음 강제로 헌병대로 끌고가서 심한 고문을 들이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8월 8일)

1970년 10월 13일 오전 8시 30분쯤 미제침략군 병참수송대대 《비》 중대소속 203호군용화물차를 몰고가던 한 야수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향양리 앞길에서 학교로 가는 문산녀중 1학년 정선후(14살)학생의 머리에 맥주병을 마구 던져 그를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남조선 《조선일보》 1970년 10월 14일)

1970년 10월 18일 미제침략군 병사 30여명은 경기도 파주군 립진면 운천리마을에서 서로 패싸움을 벌리다가 작전용 가스연막탄을 마을주민가옥들에 마구 던져 리봉조(36살)를 비롯하여 20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가스중독으로 질식되여 쓰러지거나 대피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남조선 《국제신보지사》 1970년 10월 20일)

1971년 2월 2일 오후4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제44공병대대 《에이》 중대소속 병사 허만 시스.미첼베이던더 등 7명의 야수놈들은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반계리 죽전부락에서 강정수(48살) 등 20여명의 농민들이 농악놀이를 하고있는것을 보자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어 강정수농민 등 4명을 마구 찔러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리윤수(42살) 등 16명의 농민들도 닥치는대로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부산일보》 1971년 2월 4일)

1971년 3월 15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 제347비행전술대 1파견대소속 병장 포 요요요(27살)이란놈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 《제일극장》 앞길에서 지나가는 한범의(40살)에게 아무 리유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다가 성차지 않아 벽돌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1년 3월 16일)

1971년 3월 19일 밤8시쯤 미제침략군의 《마이크러》 뻐스를 몰던 한 양키놈은 대구시 대봉동 3구 《세회려관》 앞길에서 이곳을 지나가던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407번지에 사는 윤경환(22살) 녀성을 보자 차창을 열고 그의 빰을 때리고 차옆으로 끌어당겨 차에 치우게 하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구방송》 1971년 3월 20일)

1971년 4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미제침략군 존 밀러병장이란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의 한 《클럽》 홀안에 수류탄을 던져 홀안을 파괴하고 김영자(23살)녀성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1년 4월 13일)

1971년 4월 12일 밤9시 30분쯤 미제침략군 40여명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연풍극장》 앞에서 패싸움을 벌리다가 한패거리가 쫓겨 극장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패거리들이 몽둥이와 칼을 뽑아들고 뒤쫓아들어가 싸움을 벌림으로서 영화상영이 중지되고 500여명의 구경군들이 대피하는 등 극장내가 대수라장으로 되였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1년 4월 13일)

1971년 4월 25일 밤 8시 15분쯤 미제침략군의 30여명의 야수놈들은 길가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돌아치다가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지산리 조원백(43살)이가 경영하는 《대원 당구장》에 떼를 지어 몰려들어가 아무 리유없이 유리창과 당구장비품을 마구 짓부시고 당구를 치고있던 4명의 조선사람에게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하여 타박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4월 26일)

1971년 5월 10일 밤 미제침략군 제44포병부대 4대대 《디》 중대소속 스팽클림을 비롯한 10여명이 주동이 된 수많은 악당들은 경기도 려주군 릉서면 번도리에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살림집에 7시간동안이나 마구돌을 던져 20여채의 집의 유리창을 모조리 깨고 굴뚝과 담벽들을 모두 마스는 등 갖은 행패를 다 부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1년 5월 12일)

1971년 5월 22일 밤 9시쯤 미제침략군 40여명의 악당들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1036번지 《클럽》에 뛰여들어 종업원 7명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였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1년 5월 23일)

1971년 5월 22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 병장 네오네(21살) 등 세놈의 야수놈은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면 수향리에서 지나가는 이곳 마을에 사는 허병희 등 2명에게 아무 까닭없이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하여 중태에 빠뜨렸다. 이것을 본 마을에 사는 세사람이 미제침략군 부대장놈에게 항의를 들이대자 이놈은 《너희들이 사는 집은 부대땅이니 불도젤로 밀어버리겠다》고 폭언을 던지였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5월 23일)

4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 특권을 행사하고있는 미제침략군대는 인민들의 재산과 재물을 략탈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제멋대로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살림집과 상점을 습격하여 파괴와 략탈행위를 일삼고있으며 총칼의 위협과 날치기로 사람들의 금품을 털어내는 날강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저들의 이러한 략탈행위에 항거하는 경우에는 마구 때리고 살상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온갖 만행을 다하고있다.

1969년 6월 14일 오후2시 30분쯤 미제침략군 포병사단소속 일등병 힐빈.제이와 일등병 해리 어네스트를 비롯한 6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48번지 길가에서 강선미(28살)가 운전하는 부평기업소속 경기영 1—518호택시를 세워놓고 《미국에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가 거절하자 운전수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2,500원을 강탈하여 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69년 6월 16일)

1969년 7월 6일 오후6시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13공병대 《씨》중대소속 슈버. 반단란놈을 비롯한 네명의 악당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산 비상길에서 경기영1—2295호 택시를 운전하던 운전수 심규성(36살)의 목을 조르고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 7천원과 손목시계 등을 강탈하였을뿐아니라 택시까지 빼앗아타고가다가 개울가에 던져 버리고 달아났다. (남조선 《조선일보》, 《국제신보》 1969년 7월 8일, 《동양통신》 1969년 7월 7일)

1969년 7월 21일 밤10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제7사단 76포대 4대대소속 일등병 리빙스톤.레오날드.로우넨즈(18살)란놈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시내 앞길에서 아리랑택시운전수에게 달려들어 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해가지고가려다가 붙잡혔다. (남조선 《동양통신》 1969년 10월 25일)

1969년 10월 4일 밤 미제침략군 상등병 폴로이트 등 2명의 악당놈은 부산에서 부산영 1—2232호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수 김화경의 목을 조르고 그가 가지고있던 현금을 모두 강탈하여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0년 2월 11일)

1969년 10월 9일 낮12시쯤 미제침략군항공대소속 중위 엔디 버거(26살)란 놈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1리에서 주민가옥들을 공격목표로 삼고 대형 헬리콥터 《이씨—47》을 몰아내며 군사훈련을 벌리다가 이곳 주민 박창연의 집을 비롯한 9세대의 집을 몽땅 짓부셔버렸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69년 10월 10일)

1969년 11월 2일 밤 11시 10분쯤 미제침략군 한놈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미군병원앞길에서 경기영 1—2836호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수 리창수(28살)를 칼로 위협하고 돌멩이로 머리를 까서 정신을 잃게한 다음 현금 2,8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남조선 《합동통신》 1969년 11월 3일)

1969년 12월 4일 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부산기지 사령부 본부중대소속 상등병 하우엘 노레스(23살)와 미화물선 《아메리칸 메일》호 선원 에프.에이.크로퍼드(28살) 등 2명의 침략군놈들은 부산시 초량동길에서 부산영 1—2292호택시를 타고가다가 초량동 지하도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운전수 정화성(47살)의 목을 조르고 그의 돈을 몽땅 빼앗았다. (남조선 《조선일보》 1969년 12월 5일, 《서울신문》 1969년 12월 6일)

1969년 12월 30일 밤8시쯤 미제침략군8군소속 병장 해리 로젠드란놈을 비롯한 3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서울영 01—7505호택시를 타고가다가 차비를 주지 않았을뿐만아니라 흉기로 협박하여 운전수의 돈 4,300원까지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동양방송》 1969년 12월 31일)

1970년 1월 8일 미제침략군병원소속 병장 코리만(21살)과 상등병 아담스(20살)를 비롯한 3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 사는 김룡환(36살)을 비롯한 3명의 주민으로부터 물품을 사주겠다고 속여 현금 52만원을 탈취하여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중앙방송》 1970년 1월 13일)

1970년 2월 7일 미제침략군 일등병 스틱스 죠니(21살)란놈은 경상북도 왜관에서 화물자동차를 몰고가면서 길을 가던 사람들의 모자를 10여개나 날치기해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전일보》 1970년 6월 16일)

1970년 3월 16일 새벽3시 미제침략군 공군 헌병대소속 12명의 악당들은 조선인기술자숙소에 권총을 빼들고 침입하여 잠자던 기술자들을 모두 발로 차서 깨운후 그들이 갖고있던 담배, 사진기 등 모든 소지품들을 강탈해가지고갔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4월 16일)

1970년 3월 28일 미제침략군 포사령부제12포병대대소속 상등병 테레스.하빈(22살) 외 5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신읍리에 있는 오승재(34살)의 집에 몰려가 마약이든 《해피 스모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다가 없다고 하자 집에 불을 질러 집과 11만 3,500여원의 현금을 몽땅 불타게 하였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대한일보》 1970년 3월 30일)

1970년 3월 28일 오후 미제침략군 경상남도 부산기지 야전병원소속 병장 트레이드와 일등병 에보레이는 조선녀성 서옥분의 집에 침입하여 옷장을 뒤져 2만 2,500여원을 훔쳐가지고달아났다. (남조선 《매일신문》 1970년 3월 31일)

1970년 4월 15일 낮12시 10분 미제침략군 제382대대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뒤산에다 마구 포사격을 퍼부어 12만여 그루의 나무가 들어찬 37정보의 산을 몽땅 불태워버렸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4월 16일, 《대구일보》1970년 4월 17일)

1970년 4월 15일 낮2시 40분쯤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골산리 소요산에다 대고 마구 총포사격을 퍼부으며 조명탄을 터뜨려 약 30정보의 산림을 불태워버렸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4월 16일)

1970년 4월 18일 저녁8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세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서 경기영 1—3111호 코로나택시를 2시간이나 타고서도 료금을 요구하자 주변에 있던 미군 10여명과 합세하여 운전수 윤덕영(26살)과 옆에 타고있던 송학선(33살)을 집단적으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4월 21일)

1970년 4월 30일 미제침략군 제1군단에 있는 놈들은 제놈들에게 고용된 조선인종업원 600여명을 지뢰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국제신보》 1970년 5월 2일, 《동양통신》 1970년 11월 9일)

1970년 5월 28일 밤 미제침략군 장비중대소속 병장 식스.월림.쥬니어(27살)와 헌병대소속 병장 스코트.로버트.엘(22살)이란놈들은 인천시 부평동 284번지에 사는 원경순녀성의 집에 기여들어 4만원짜리 록음기 1대를 훔쳐가지고달아나다가 집주인 리상혁 등 3명의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그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을뿐만아니라 록음기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2명의 주민들에게는 권총을 쏘면서 위협공갈하였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경기매일신문》 1970년 5월29일)

1970년 6월 23일 밤 10시 30분쯤 미제침략군 모사단 707정비대대소속 기술상등병 팬드.메이.엘이란놈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의 정아무개녀인(29살)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후 금고를 부시고 현금 3만 8천 500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도망쳤다. (남조선 《경기련합일보》 1970년 6월 24일)

1970년 6월 28일 밤 미제침략군 《캠프캐롤》부대소속 이등병 디스메인을 비롯한 다섯놈들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2129번지에 사는 박제동과 박인호의 고무신가게에 침입하여 돌, 벽돌, 몽둥이로 주인을 때려 쓰러뜨리고 신을 강탈하여가지고 달아나다가 이것을 말리던 이웃 조석환(28살)을 때리고 단도로 얼굴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으며 얼마후 이들은 다시 부대에서 2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을 끌고와 조석환이 입원하고있는 병원에까지 찾아가 그와 그의 어린이들에게까지 마구 집단폭행을 가하였으며 마을주민 김생귀(35살) 등 2명을 때려눕혔다. (남조선 《조선일보》, 《평남일보》, 《매일신문》 1970년 6월 30일)

1970년 7월 2일 새벽 미제침략군 공병단소속 상등병 오브레이(24살)와 테이트러 날드(21살)란놈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앞길에서 김순배(30살)가 운전하는 경기영 1—907호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까지 와서 운전수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한뒤 그가 가지고있던 돈을 몽땅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0년 7월 2일, 《경기련합일보》 1970년 7월 3일)

1970년 7월 11일 아침7시쯤 미제국주의자들의 《빅토리아호》 선박의 1등전기사 루시엔엘 버트(55살)란놈은 부산시 초량동의 《국민은행부산북구지점》 앞길에서 운전수 서상남(30살)이 운전하는 부산영1—263호택시를 3시간이나 타고는 료금도 내지 않고 달아나다가 운전수에게 잡히게 되자 그를 부산항에 정박중인 자기 배로 끌고가 선실에 가두어놓고 매질을 가하여 쓰러뜨렸다.(남조선 《합동통신》 1970년 7월

13일)

1970년 7월 17일 밤11시 미제침략군 제8군 502통신대소속 중사 스테이션. 제임스.씨(36살)란놈은 서울 룡산구 한강로1가에 사는 한희순(30살)의 손을 비틀고 그가 가지고있던 미국돈 10딸라를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신아일보》 1970년 7월 18일)

1970년 8월 1일 1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서 집앞에서 라지오를 듣고있던 박양수(46살)를 비롯한 4명의 주민들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모두 때려눕힌 다음 라지오와 귀중품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0년 8월 1일)

1970년 9월 3일 새벽 미제침략군의 한놈은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에 사는 김만금(38살) 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칼과 망치로 위협한 후 현금과 금품 5만원어치를 빼앗아가지고 미제침략군 통신부대안으로 도망쳤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0년 9월 7일)

1970년 9월 28일 밤11시 40분쯤 미제침략군 4유도탄사령부 《에이》 중대소속 상등병 마리.미스(22살)란놈과 일등병 윌슨이란놈은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3가 95의 5번지 《신도소리사》 주인 신판권(40살)에게서 꾸어쓴 15만원을 물지않기 위하여 그를 부대안으로 끼여들여 쓰러뜨리고 칼로 위협하여 자기들이 서명한 채용증서를 불태우게 한후 그의 몸에서 60만원의 현금거래채용증을 빼앗았다. (남조선《강원일보》 1970년 10월 8일)

1970년 10월 10일 오후6시 30분쯤 미제침략군 7사단 73전차대대소속 병장 브라운 등 7명의 악당놈들은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대전1리 길가에 세워둔 서울자 2—5825호 승용차를 운전수가 있는데서 《조선놈의 차 건방지다》고 몽둥이로 쳐서 차체와 창유리 등을 파손시켰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10월 12일)

1970년 10월 30일 밤7시 45분쯤 미제침략군 장거리통신단 《비》대대 《비》중대소속 에드워드 젠즈(29살)란놈을 비롯한 5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상북도 대구시 교동 49번지 《마산려인숙》 앞길에서 길가던 대구시 신암동3구 1098번지에 사는 김영남(29살)에게 달려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였으며 그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집단폭행을 가하여 그의 얼굴을 찢고 이발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대구일보》, 《매일신문》 1970년 11월 1일)

1970년 11월 2일 새벽1시쯤 미제침략군 하사 제임스 쇼트(33살)란놈은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 4구 소재성(33살)의 집에 살고있는 권순복(17살)의 방에 침입하여 외투를 비롯하여 4만 6천원의 옷가지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전일보》 1970년 11월 4일)

1970년 11월 10일 오후11시 20분쯤 미제침략군 여섯놈은 서울 룡산구 한강로 1가 미제침략군 제8군 1호정문앞에서 서울영 1—1702호 택시를 세워놓고 두놈은 밖에서 망을 보고 세놈은 뒤좌석에 한놈은 앞좌석에 올라탄후 단도와 면도칼을 운전수 김병호(27살)의 목에 들이대고 1만원이 들어있는 그의 돈주머니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경향신문》 1970년 11월 11일)

1970년 11월 15일 오후6시 30분쯤 미제침략군 제8군 44공병대대소속 상등병 케리 등 40여명의 백인병사야수놈들은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차용리 167번지 《칠성홀》에 밀려들어 전날밤 이 홀에서 제놈들의 흑인병사 14명으로부터 백인병사 2명이 얻어맞은것을 트집잡아 홀안에 있는 난로, 의자, 탁자, 진렬장, 전축 등 비품과 홀전등을 모두 파괴하여 50만여원의 손해를 입혔을뿐만아니라 주인 리한우(31살)와 종업원 김경옥(24살)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부산일보》 1970년 11월 20일)

1970년 11월 16일 오후7시쯤 미제침략군 제43공병대소속의 5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내동리에 있는 설주곤(31살)의 잡화상점에 침입하여 란동을 부리면서 상점과 진렬상품을 마구 부셔 잡화점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품을 강탈해가는 등 6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상점주인까지 때려 중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경남일보》 1970년 11월 20일, 《경남일보》 1970년 11월 19일)

1970년 11월 21일 미제침략군 모사단 헌병중대 헌병놈들 40여명은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 2리 《한국보이스카웃파주지구대》의 막사에 침입하여 단원 리호경(18살)을 비롯한 10여명을 령도이하의 추운 밖으로 내쫓고 이들이 쓰고있던 침구, 식사도구, 야영장비 등 막사비품을 모두 강탈해갔다. (남조선 《경향신문》 1970년 11월 24일)

1970년 12월 6일 새벽1시쯤 미제침략군 한놈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3동 앞길에서 경기영 1—3985호택시에 오른 다음 운전수 김병서(33살)를 위협하고 현금 6,400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동화통신》 1970년 12월 7일)

1970년 12월 27일 새벽0시 10분쯤 미제침략군의 병사 한놈은 경기도 의정부시내 의성운수소속 고종철(33살)이 운전하는 경기영 1—4030호택시를 훔쳐타고 달아나다가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 4리 541번지 황하연(53살)의 집을 들이받아 집과 차를 부셔 2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채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남조선 《경기매일신문》 1970년 12월 28일)

1970년 12월 23일 밤11시 20분쯤 미제침략군 라디오 케이블대대 《비》중대 일등병 필립스 놀만(24살), 상등병 두신죠니, 일등병 스미스 존(20살)이란 놈을 비롯한 18명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33번지 앞길에서 십십쯤이로 길을 걷고있던 성북구 삼선동에 사는 리호연(21살)에게 악수를 하는척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때리고 칼로 배를 찔러 중상을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룡산구 보관동에 사는 리천수(22살)에게도 달려들어 칼로 얼굴과 몸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다음 근처에 서있던 서울영 2—2293호택시운전수 유병주(21살)도 때리고 칼로 위협한후 현금 6,5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서울신문》, 《산업경제신문》 1970년 12월 25일, 《동양라지오방송》 1970년 12월 24일)

1971년 1월 10일밤 미제침략군 제304통신대대소속 상등병 스피리트.알브트(20살)와 일등병 조이.심프슨(21살)이란놈들은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앞길에서 김명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가다가 그를 위협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서울신문》 1971년 1월 30일)

1971년 1월 21일 오후7시 30분쯤 미제침략군의 한놈은 찌프차를 타고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앞을 지나가다가 길옆에 세워놓은 《한밭택시》 소속 충남영 1—864호 운전수 강상기(32살)의 택시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3만 2천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전일보》 1971년 1월 24일)

1971년 2월 13일 밤11시부터 12시사이에 여러놈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군용트럭 937호(지.엠.씨)를 몰고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부락에 침입하여 전태욱(59살), 연규철, 림영재, 림양호, 서용덕 등 다섯집의 소 6마리(시가 54만여원)를 훔쳐 트럭에 싣고 경부도로를 따라 대전방면으로 달아났다. (남조선 《충청일보》 1971년 2월 17일, 1971년 2월 19일)

1971년 2월 28일 오후7시 30분쯤 미제침략군놈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426번지 하영자(46살) 녀성이 경영하는 《클럽》에 최루탄을 던져 비품을 파괴하고 유리를 깨였으며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리게 하는가

하면 오후8시쯤에는 연풍리 406번지 김만순(50살)의 집에 최루탄을 던져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대피케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남조선 《련합신문》 1971년 3월 1일)

1971년 3월 4일 밤8시 30분쯤 미제침략군 병장 스프르찰리스(20살), 하사 브룩스 클르스와(28살), 반스도벌브.비(28살)란놈들은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26번지 김효근(46살)의 상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흥정하는척하다가 주인의 처 오춘해(42살)를 돌로 까눕히고 물건들을 강탈해갔으며 다시 11시 30분쯤 되여 하사 브룩스와 하사 반스란놈이 찾아와서 상점주인 김효근을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로 마구 짓밟아 실신시킨후 상점 유리창, 상품 등을 모조리 부시고 달아났다.(남조선 《련합신문》 1971년 3월 6일)

1971년 3월 18일 밤 10시쯤 미제침략군 네놈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운천리에서 경기영 1—3887호 택시를 타고가다가 운전수 정운교(22살)의 목을 조르고 현금 6,200원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남조선 《한국문화방송》 1971년 3월 19일)

1971년 3월 28일 밤11시쯤 미제침략군 모부대 80포대 5대대 《비》 중대소속 일등병 홀린스.두완인.엘파 다른 한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통암리앞길에서 경기영 1—582호 택시운전수 조남홍(37살)을 식칼로 위협한뒤 현금 8천원을 빼앗고 그를 차밖으로 밀어던진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 (남조선 《대한일보》 1971년 3월 29일, 《한국문화방송》 1971년 3월 29일)

1971년 4월 4일 밤9시 45분쯤 미제침략군 세놈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477번지에 있는 《궁전다방》에 연막탄 2개를 지붕과 《다방》내부에 던져 유리창 10여장과 지붕 일부를 파손시켰으며 다방안에 있던 손님 20여명을 대피케 하는 소동을 벌리게 하였다.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4월 5일)

1971년 4월 12일 밤12시쯤 미제침략군 7명의 야수놈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 앞길에서 경기영 1—953호택시를 타고가다가 불의에 운전수 백귀장(22살)의 목을 졸라매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 3천원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났다.(남조선 《중앙방송》 1971년 4월 13일)

1971년 4월 13일 밤7시쯤 미제침략군 《캠프.험프리즈》소속 100여명의 야수들은 주둔지역마을인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에 나와 떼를 지어 싸다니다가 리용선(33살)이 경영하는 《클럽》에 뛰여들어 아무 리유없이 비품을 마스고 몽둥이로 마구 사람을 때려 10여명의 종업원에게 심한 중상을 입힌후 다시 세개의 《클럽》에 뛰여들어 비품과 문짝 등을 모조리 마스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까지 놓았다.(남조선 《서울신문》 1971년 4월 15일)

* *

미제침략군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남조선에서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수적인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조선인민앞에 씻을수 없는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있으며 범죄자들은 아무러한 처벌도 당하지 않고있다.

도리여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을 우롱하고 모독하며 닥치는대로 죽이는것이 강점군의 응당한 권세인것처럼 자처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저들의 침략군대의 만행을 가리우고 범죄자들을 비호할 음흉한 목적밑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이른바《한미행정협정》이라는것을 꾸며냈다.

이 《협정》이 미제침략군의 상시적인 파괴략탈과 살인만행으로부터 남조선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오직 미제야수들의 범죄행위를 감싸주고 더 조장시키기 위한 방패로 날조되였다는것은 《협정》이 체결된후 침략군의 범죄건수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오늘까지 범죄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한미행정협정》 이 《효력》을 발생한후 1년동안에만 하더라도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범죄건수는 그 전해에 비하여 6배, 1963년에 비하여 9배나 더 늘어났으며 《협정》 체결후 지난 3년간 놈들이 감행한 범죄 총건수는 극히 축소되여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무려 7천여건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협정》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가한것은 사실상 단 한건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한미행정협정〉이 〈발효〉한뒤 미군의 만행은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강력범으로 번져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결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25년이상이나 미제의 총칼밑에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강요당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에 항거하는 대중적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미제침략군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집단적행동은 올해에 들어와서 더욱 늘어나고있다.

1971년 4월 17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400여명의 택시운전수들은 택시를 타고도 료금을 내지 않고 도리여 운전수에게 폭행을 가하여 살해한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항의규탄하면서 살인자를 당장 잡아넘길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견결히 싸웠다.(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4월 17일)

1971년 5월 3일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에 사는 500여명의 녀성들은 100여명의 미제침략군 헌병놈들과 괴뢰경찰놈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행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발자욱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웨치면서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대중적인 반미시위를 벌리였다. (남조선 《동양라지오방송》 1971년 5월 3일)

1971년 5월 4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 사는 강로현을 비롯한 1천여명의 주민들은 미제야수놈들이 패를 지어다니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때리는 행패를 하며 무료로 식당의 음식을 처먹는 등 갖은 폭행을 다하고 있는데 항거하여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벌리였다.(남조선《한국문화방송》 1971년 5월 4일)

1971년 5월 23일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면 수향리 50여명의 주민들은 무고한 남조선녀성들에게 폭행과 행패를 부린 미제침략군놈들의 야수적만행에 항거하여 미제침략군 병영앞에 몰려가 달려드는 침략군야수놈들에게 세찬 돌벼락을 들씌우면서 용감히 싸웠다.(남조선 《기독교방송》 1971년 5월 23일, 《동화통신》 1971년 5월 24일)

미제야수들의 온갖 범죄적만행과 그를 비호하고 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 반박정희 투쟁은 날로 앙양되고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만도 남조선인민들의 시위, 파업, 롱성, 생활조건개선 등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건수는 1천 442건에 이르

고있으며 여기에는 108만 8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있는데 대하여 미국출판물까지도 《남조선사람들의 미국인들에 대한 육체적인 공격이 증대되고있다.》고 비명을 질렀고 남조선출판물은 《한국사람들은 근래에 와서 미국관이 많이 변하고있다. 잦은 미군의 만행을 보고 그들의 본성과 태생이 잔인한 야수와 같다고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미국놈이라고 한다.…》고 썼다.

미제침략군의 범죄적인 만행이 우심해지면 질수록 남조선인민들의 반항은 더욱 더 커질것이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만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조선에서의 새 전쟁의 위험도 제거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도 이룩될수 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놓은 후 《미군감축》의 간판밑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고 남조선괴뢰군의 무력을 더욱 늘이며 그의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새 전쟁도발준비를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군사분계선일대에서와 하늘과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날로 격화시키고있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이중의 앞잡이인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야수적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는 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투쟁과업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갈 때까지 침략자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싸울것이며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야수적만행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제반미투쟁의 중요한 한고리이다.

우리는 정의와 민주주의, 세계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각국의 민주주의적 사회단체들 및 인간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전세계 인민들이 세계도처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무조건 즉시 철거할것을 견결히 주장하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보내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1971년 7월 5일
평 양

성명일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큰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왕국민족련합정부의 1월 18일부호소문과 1월 19일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1월 22일

▲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고 라오스, 캄보쟈, 웰남 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전투적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2월 15일

▲유엔총회 제26차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유엔총회의정에 포함시켜 토의할데 대한 정당한 제의를 지지하여……9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 웰남, 라오스, 캄보쟈 등 인도지나전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으며 북부웰남의 여러 지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더욱 야수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규탄하여……1월 22일

▲웰남,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지나 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침략전쟁확대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대변인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2월 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웰남민주공화국을 침공하려고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2월 25일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이 3월초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이른바 《프리덤 볼트》작전이라는 전쟁도발연습소동을 벌리려 하는것을 규탄하여………………………2월 27일

▲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라오스에 대한 대대적인 무장침공을 새로이 감행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 만행을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여………3월 13일

▲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강화하기 위한 음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3월 22일

▲민주웰남에 대한 미제의 폭격과 포격만행을 단호히 규탄하며 민주웰남외교부대변인의 3월 20일 성명과 외교부의 3월 22일 성명을 지지하여…3월 27일

▲ 쎄일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쎄일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훼손시키는 사태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4월 20일

▲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손아래 동맹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공모결

탁하여 조선과 아세아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6월 2일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래동안 쑥덕공론을 거듭하여오던 끝에 이른바 《오끼나와반환》에 관한 《협정》 조인놀음을 벌린것을 규탄하여……………………………6월 20일

▲ 7월 1일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가 남조선에 기여들며 이와 함께 미제의 파쑈적호전광인 애그뉴가 기여들려고 하는것과 관련하여……6월 24일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범죄적공모결탁을 강화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각방으로 더욱 다그치고있는것을 규탄하여……………………………………8월 17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많은 유엔성원국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엔총회의정으로써 제기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한 조선에 관한 문제를 유엔총회의정에서 삭제하여 1년간 그 토의를 보류할데 대한 《제안》을 비렬한 방법으로 강압통과시킨것을 규탄하여………9월 28일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새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 나라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것을 규탄하여……………………………12월 7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계속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만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나서고있는것을 규탄하여……………………………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성명

▲미제와 그 앞잡이 타이 및 남부웰남 괴뢰도당과 론놀—시리크 마타크 반역도당이 캄보쟈의 력사적유물인 앙코르사원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표명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립장을 지지하여…5월 29일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불시착륙한 우리 인민군 비행사를 남조선에 영원히 강제적으로 붙잡아 두려는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여…………6월 1일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다그치면서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이 범죄적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6월 16일

▲일본당국의 공공연한 비호밑에 일본에서 재일조선학생들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며 그들에게 집단적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날로 더욱 심해가고있는것을 규탄하여…………………7월 24일

▲라오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행위를 규탄하며 라오스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여 발표한 1971년 7월 14일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7월 24일

▲요르단반동들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팔레스티나혁명력량을 반대하는 악랄한 도발행동을 또다시 감행하여나서고있는것을 규탄하여………8월 2일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총련산하조직들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살인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여………………………9월 27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대대적인 폭격을 하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준렬히 규탄하여…………………………9월 27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수천명의 남부웰남괴뢰군을 동원하여 캄보쟈의 여러 지역에서 감행한 새로운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규탄하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무성대변인의 11월 25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11월 27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꾸며낸 이른바 《오끼나와반환협정》을 일본국회 참의원에서 강압《통과》시키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12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책동하면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며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의 12월 18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1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대변인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미군감축》의 연막뒤에서 전쟁소동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계획적으로 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해나서고있는것을 규탄하여……………………………12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성명, 보도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위원회 성명 (미제의 더러운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 텔레비죤방송을 방해하는 비렬하고 파렴치한 책동을 규탄하여)……………………5월 27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조종밑에 범죄적인 《반공》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전쟁도발책동을 격화시키고 있는것을 규탄하여)……………12월 5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3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대학생간첩단사건》이란 것을 날조하여 파쑈적폭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을 규탄하여)…………………………4월 21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남침위협》에 관한 기만적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4월 2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조선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5월 31일

공동콤뮤니케와 공동 성명,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아랍련합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5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라크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5월 31일

▲조선로동당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웰남로동당 및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사이의 공동콤뮤니케……………………10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콤뮤니케…………………5월 18일

▲시에라 레온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한 공동콤뮤니케……………8월 2일

▲혁명리사회 성원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외무상인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를 단장으로 하는 알제리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방문결과에 관한 조선알제리 공동콤뮤니케…………………………8월 17일

▲꼴롬비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의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9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시에라레온공화국간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관한 공동콤뮤니케……10월 14일

▲아랍사회부흥당및이라크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성명……5월 1일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수리아아랍녀성총동맹간의 공동성명……4월 21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수리아아랍농민총동맹간의 공동성명……8월 3일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대표단과 일본적십자사 대표단의 공동성명……2월 5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구라파나라 청년단체대표단들의 공동성명……6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 민주인사들의 공동성명……6월30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8월 19일

▲이라크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보도……10월 29일

▲ 스웨리예공산주의좌익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대한 공동보도……11월 16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단마르크방문에 대한 공동보도……11월 30일

▲로므니아직업총동맹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10월 26일

사회단체들의 성명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여)……6월 21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조종밑에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6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군사파쑈독재와 부정《선거》를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애국학도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6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그에 따르는 강도적인 략탈을 반대하여 결사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전투적인 성원을 보내여)……8월12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성명(남조선에서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감시》밑에 감행된 부정협잡《선거》의 더러운 내막에 대하여)……7월 12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성명(일본반동당국이 우리 나라 동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중 라침판고장으로 방향을 잃고 여러날 표류하다가 일본에 표착한 우리 나라 선원을 억류하고 심문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사실을 규탄하면서 그를 즉시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낼것을 강경히 요구하여)……8월 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성명(공화국북반부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분연히 일떠선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여)……8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성명(일본당국이 우리 나라 동해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중 라침판고장으로 방향을 잃고 여러날 표류하다가 일본에 표착한 우리 나라 선원을 억류하고 심문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사실을 규탄하면서 그를 즉시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낼것을 강경히 요구하여)……8월 6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성명(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31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국제탁구련맹총회에 캄보쟈의 론 놀—시리크 마타크도당과 남부웰남의 티우—키괴뢰도당의 《탁구대표단》이 참가하는것과 관련한 3월 18일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변인성명과 남부웰남공화 공보문화성대변인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3월 22일

▲조선학생위원회 성명(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야수적인 고문과 박해를 가하면서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을 가혹하게 처형하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만행을 규탄하여)……6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수석위원 성명(미제침략자들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며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6월 22일

▲세계청년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지지하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성명……6월 29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성토문……10월 18일

▲국제청년학생기구들과 각국의 청년학생단체들 및 세계의 진보적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10월 22일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평양시 군중대회)……6월 26일

▲성토문 (미일침략자들의 2중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파쑈악법을 날조하여 괴뢰국회에서 날강도적방법으로《통과》시키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12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김룡중소장이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에 보낸 편지 사본을 연구하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1월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극로위원장과 강량욱, 백남운부위원장들이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위원장 고병철로부터 1971년 5월 24일 김일성원수께 조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보내온 편지에 대한 회답을 보내였다……8월 11일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자료

국제기자동맹 제7차대회; 1월 4일부터 11일까지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82개 나라 기자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6차대회(1966년)이후의 동맹사업을 총화하였으며 전세계 진보적기자들앞에 나선 과업을 토의하고 총결의 월남, 라오스및 캄보쟈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대표들을 이 대회에 참가할수 없게한 일본반동당국의 부당한 행동을 규탄하는 항의문기타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총결의는 1969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표시된 세계진보적기자들의 반제반미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전세계기자들이 미제의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규탄하고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해마다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싸우는 월남인민과의 세계진보적기자들의 련대성주간으로 할것을 호소하였다.

총결의는 미제에 의하여 유엔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인 결의들을 취소하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요구하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진보적언론인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야수적탄압과 만행을 규탄하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되찾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것 등을 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위원장 쟝 모리스 헤르만(프랑스)

부위원장 13명(조선, 몽골, 남부월남공화, 쏘련, 뽈스까, 민주독일, 핀란드, 꾸바, 뻬루, 칠레, 애급, 기네, 뽀르뚜갈령 아프리카나라대표들)

서기장 이쥐 꾸브까(체스꼬슬로벤스꼬)

령해에 대한 자주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회의;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 9개국 즉 칠레, 뻬루, 살바도르, 에꽈도르, 니까라과, 아르헨띠나, 빠나마, 우루과이, 브라질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해양권에 관한 유엔총회 제25차회의의 결의에 따르는 정세의 평가,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해양정책의 일치해양권에 관한 국제회의의 준비위원회 사업개시와 관련한 통일적인 행동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법률협상위원회 제12차회의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모든 나라대표들은 200마일령해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립장을 재확인하였으며 바다자원을 략탈하고있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과 공동행동을 취할것을 강조하였다.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9개나라들은 200마일까지의 령해권수호를 위한 통일적인 규범을 작성하였으며 자기들의 견해들을 옹호하는 문제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1973년 제네바에서 진행될 해양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이 자기의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자기 나라 정부에 제기하며 국제회의의 준비위원회 사업이 시작되는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아프리카로조련맹 제1차대회;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을 비롯한 55개나라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아프리카로조운동의 새로운 과업》이라는 보고를 토의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아프리카의 모든 로조들에 서방제국주의독점체들의 통치로부터 전아프리카대륙을 해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치며 신구식민주의를 청산할것을 호소하였다.

결의들에는 수백만아프리카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이른바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주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또한 기네인민을 반대하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영제국주의자들의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무기공급을 규탄하였다.

대회에서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위원장 마호쥬브 벤 세디크(마로끄)

서기장 마마두 시쏘코(말리)

국제학생동맹 제10차대회;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브라찌슬라바시에서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하여 120개나라 학생단체대표들, 국제민주단체들과 민족해방운동단체대표들 약 400명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학생동맹과 학생들의 역할과 과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결의》, 미제를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비롯하여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각국 학생단체들에 호소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 및 학생들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고 각국의 학생단체들이 각종 련대성행사들을 광범히 벌리며 가까운 시일에 조선인민과 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세계학생들의 국제적련대성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련대성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새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위원장 두샨 울챠끄(체스꼬슬로벤스꼬)

부위원장들은 우리 나라, 세네갈, 인도, 이라크, 쏘련, 벌가리아, 꾸바, 빠나마, 칠레, 뽈스까에서 1명씩 선출

서기장 아흐메드 메흐디(이라크)

세계평화리사회회의;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다페슈트에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표단을 비롯

하여 126개나라 민족평화위원회대표들과 여러 국제기구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모든 진보적력량들의 통일과 공동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자들의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총결의를 비롯하여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 중근동정세에 관한 결의 등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총결의는 특히 미제가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고있는 사실을 폭로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며 아세아 및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결의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내놓은 8개항목의 구국방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평화리사회 리사들과 상설위원회의 성원들을 새로 선거하였다.

서기장 로메쉬 찬드라(재선)

인도지나에 대한 미국범죄행위 국제조사위원회 제2차회의;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온 진보적인 법률가들과 사회활동가들, 그리고 민주웰남,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및 라오스 대표단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는 남부웰남, 라오스, 캄보쟈에서 미제야수들이 감행하고있는 천인공노할 범죄적살인만행과 이범죄적행위를 저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제8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39개 아프리카나라들의 수뇌자 또는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는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의 비상회의와 제16차회의 및 제17차회의가 권고한 아프리카대륙의 비식민지화문제, 민족해방운동문제, 인종차별과 인종격리문제들과 아프리카에서의 외국고용병문제, 국제기구들에서의 아프리카대표권문제, 범아프리카적인 협조와 관련한 광범한 문제, 행정적 조직적 재정 및 법적성격을 띠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대화》를 배격하는 선언,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제국주의고용병들의 범죄적인 활동을 규탄하는 선언, 아프리카대륙의 비식민지화에 관한 결의, 인종격리와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나라들의 자연부원의자주권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나라들간의 수산자원의 자주권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에서의 공업발전에 관한 결의, 아프리카나라들간의 통상 및 문화교류 촉진에 관한 결의 등 22개의 선언과 결의를 채택하였다.

제17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국제예비회의가 도꾜에서, 5일부터 7일까지 세계대회가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예비회의와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민주웰남, 꾸바, 로므니아 등 13개나라 대표들과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3대륙인민단결기구를 비롯한 9개 국제단체대표들, 그리고 주최국인 일본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국제예비회의 첫날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7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보내신 축전이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랑독되였다.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대표가 제17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 특히 조선에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이에 편승하여 남조선재침과 우리 나라 적대시정책 그리고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과 민족적박해정책을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강력히 단죄하였다.

대회에서 국제적협조를 위한 히로시마호소문, 인도지나인민들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비롯하여 2개의 국제문건과 일본대표가 제기한 《일본인민의 책임성과 우리의 결의》등을 각각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의 《국제적협조월간》에 국제적인 통일행동을 진행할것을 호소하였다.

인도지나에 관한 국제민주법률가들의 제2차회의;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알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43개 나라 법률가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알제리의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여러나라 기자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침략군과 그의 모든 추종군을 인도지나에서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구국투쟁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들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민주법률가협회 단장은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 모든 침략군과 그의 추종군, 온갖 살인무기들과 전쟁수단들을 걷어가지고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한다고 말하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광범히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일반결의》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세계직련총리사회 제21차회의;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베를린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현시기 직맹 및 로조들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과업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및 근로자들과의 련대성에 관한 선언을 비롯하여 총결의, 인도지나 나라 근로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련대성결의 등 일련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조선인민및근로자들과의 련대성에 관한 선언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당장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1971년 4월에 제기한 8개항목의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의 예비회담을 환영하고 회담과 관련한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을 다시금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저지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깜빠니아를 힘있게 벌릴것을 전세계근로자들과 직맹들에 호소하였다.

인도지나근로자들과 인민들에 대한 결의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 라오스 및 캄보쟈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총결의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아랍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회의;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칠레, 메히꼬, 콜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 페루, 도미니까, 꼬스따리까의 민족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특수한 예속에 관한 보고, 자기 나라의 자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정부들에 보내는 호소문《리마선언》과 라틴아메리카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들을 내놓은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선언에서 라틴아메리카 각계층 대표들은 제국주의, 주로는 미제의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것, 완전한 자주권과 외국독점체들의 수중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는것, 자기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별결의들에서는 칠레의 진보적정책, 특히 동광을 국유화한 칠레정부에 대한 미제의 압력에 대한 항의, 빠나마운하지대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과 정부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페루에서 은행체계를 개편할데 대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또한 에꽈도르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압력을 규탄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국유화할데 대한 조치들을 지지하였다.

유엔총회 제26차회의; 9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되였다.

총회의정에는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회복문제,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정화와 군대철수문제 등 109개의 문제가 상정되였다.

총회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한 조선문제를 의정에 상정시킬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9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호상방문, 그들간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그리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상봉을 마련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유엔은 조선인민자신의 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더는 간섭하지 말며 지난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결의》들을 페기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과 기타 일체외국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9월 25일 미제는 총회에서 많은 유엔성원국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한 조선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정에서 삭제하며 1년간 토의를 보류할데 대한《제안》을 비렬한 방법으로 강압통과시켰다.

9월 28일 우리 나라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정에서 삭제케 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음모책동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엄중한 범죄적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하였다.

10월 18일부터 《유엔기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회복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는 두개의 결의안이 제기되였는데 그 하나는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장개석도당을 당장 내쫓을것을 요구하는 22개나라들의 결의안이였다. 다른 하나는 미제가 일본사또일파와 공모결탁하여 내놓은 이른바 《역중요사항지정》 결의안이였다.

미제는 매수와 위협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가면서 교활한 막후책동을 감행하였으나 표결결과 알바니아, 알제리를 비롯한 22개 나라들의 결의안이 찬성 75표, 반대 35표, 기권 11표, 결석 3표의 압도적다수표로 채택되였다.

이른바 《역중요사항지정》결의안은 찬성 55표, 반대 59표, 기권 15표로 부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모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게된것과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유엔과 그의 모든 기구에서 장개석도당의 대표를 당장 내쫓을것을 요구하는 알바니아, 알제리를 비롯한 22개 나라들의 결의안이 압도적다수로 채택된것은 중국인민의 위대한 승리일뿐아니라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승리이며 20년이상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며 <두개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조작음모에 매달리면서 유엔에서의 중국의 합법적권리회복을 집요하게 방해하여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서 그들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22년간 유엔에서 중국의 의석을 비법적으로 차지하여온 장개석도당을 유엔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 경제리사회를 비롯한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아내고 유엔과 그의 모든 기구들에서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정화와 군대철수문제에 대하여서는 여러나라들이 제출한 일련의 결의안을 둘러싸고 론의하던끝에 12월 7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즉시정전》을 실시하며 두 나라군대들을 각기 《자기 국경에로 철수》시키며 동부파키스탄 피난민의 귀향을 위한 《조속한 정치적해결》을 호소하는 아르헨띠나 등 32개국의 공동결의안이 찬성 104, 반대 11, 기권 10의 압도적다수표로 채택되였다.

그밖에 총회에서는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 (찬성 102, 반대 2)등 일련의 결의안들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1971년말 현재)

국제민주단체기구

세계민주청년련맹 1946. 6. 24
국제민주녀성련맹 1946. 10. 15
세계직업련맹 1947. 5. 2
세계평화리사회 1949. 4. 25
국제금속 및 기계공업로동자직업련맹 1949. 6. 21
국제광산로동자직업련맹 1949. 7. 15

국제건축, 목재 및 건재공업로동자직업련맹 1949. 7
국제교원직업련맹 1949. 8. 12
국제학생동맹 1949. 9. 15
국제식료, 담배, 음료, 려관, 카페 및 식당일군직업련맹 1949. 11. 3
국제농업 및 림업로동자직업련맹 1949. 12. 17
국제화학 및 석유로동자직업련맹 1950. 3. 15
국제기자동맹 1950. 9. 17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평화옹호련락위원회 1952. 10. 2
국제운수, 항만 및 어업로동자직업련맹 1955. 3. 18
국제민주법률가협회 1955. 4. 23
국제공무원직업련맹 1955. 5. 15
국제모성상설위원회 1955. 7. 10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1958. 1. 1
국제방직, 피복및모피로동자직업련맹 1958. 7. 30
아세아아프리카작가회의 1958. 10. 7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1959. 6. 4
아세아아프리카기자협회 1963. 4. 30
전아세아 및 태평양지역부두련락위원회 1963. 10. 4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협회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1966. 1. 15

국제경제, 과학, 기술기구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 1954. 11. 29
국제건축가동맹 1955. 7. 11
사회주의국가농업및림업부문과학사업조정위원회 1956. 3
사회주의국가규격기관대표자회의 1956. 5. 26
식물보호 및 검역에 관한 국제회의 1956. 8. 1
련합원자핵연구소 1956. 12. 3
철도협조기구 1957. 9. 1
세계과학자련맹 1957. 9. 2
사회주의국가관광려행단체회의 1957. 10. 4
사회주의국가체신협조기구 1957. 12. 16
사회주의국가검사기관대표자회의 1959. 5. 26
국제지구물리학위원회 1959. 7. 1
사회주의국가세관국장회의 1959. 10. 19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1960. 5. 3
사회주의국가민용항공기관대표자회의 1961. 2. 11
국제천문학동맹 1961. 8. 24
사회주의국가재정상회의 1961. 9. 18
국제과학동맹리사회 1961. 9. 28
사회주의국가측지학자회의 1961. 11. 11
사회주의국가과학원원장회의 1962. 3. 14
사회주의국가보험기관대표자회의 1962. 6. 15
아세아경제뷰로 1962. 11. 1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호련맹 1963. 5. 17
국제규격화기구 1963. 6. 21
국제전기공학위원회 1963. 10. 25
국제토양학협회 1964. 8. 31
아세아아프리카보험 및 재보험련맹 1964. 9. 5
국제수학자동맹 1964
국제자동화련맹 1965. 7. 22
국제양봉가협회 1965. 8. 25
국제우표수집가련맹 1965. 6. 15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1965. 12. 15
국제지질학동맹 1966. 7. 11
세계가금과학협회 1966. 8
국제수력학연구협회 1966. 9. 13
국제문헌련맹 1967. 9. 14
국제측지및지구물리학련맹 1967. 10
국제력사과학위원회 1970. 8. 20
선박기술검사와 급수제정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1961년 와르샤와협약기구 1970. 10
국제광업대회조직위원회 1971. 5. 19

국제사회보건문화예술기구

사회주의국가보건상회의 1956. 4. 9
적십자사련맹 1957. 10. 26
국제적십자 1957. 10. 26
국제인형극련맹 1957. 12. 14
세계평화운동에스페란트협회 1959. 2
국제항결핵동맹 1960. 9. 3
국제영화필림보존동맹 1960. 10. 11
국제과학영화협회 1961. 9. 16
국제영화기술협회동맹 1961. 9. 29
아세아산업보건협회 1964. 5. 21
아세아아프리카의학자대회 1964. 10. 30
아세아아프리카소아과대회 1964. 8. 25
국제도서관협회련맹 1970. 9

국제체육기구

국제배구련맹 1956. 2. 11
국제사격련맹 1956. 10. 24
국제롱구애호가련맹 1956. 12. 3
국제탁구련맹 1957. 3. 7
국제권투애호가협회 1957. 6
국제빙상련맹 1957. 6. 8
국제항공련맹 1957. 9. 28
친선군대체육위원회 1958. 3
국제축구련맹 1958. 6. 5
국제체조련맹 1958. 7. 5
국제레스링애호가련맹 1959. 7
사회주의국가체육기관대표자회의 1959. 9. 24
국제력기련맹 1959. 9. 28
국제자전거동맹 1959. 3. 5
국제궁술련맹 1961. 8. 14
사회주의국가안전일군체육기관대표자회의 1962. 5
국제올림픽위원회 1962. 6. 5
국제륙상경기애호가련맹 1962. 9. 17
국제빙상호케이련맹 1963. 8. 14
가네포련맹 1963. 11. 25
국제요트련맹 1963. 11. 12
국제수영애호가련맹 1963. 12
국제스키협회 1964. 2
국제조정련맹 1964. 4. 5
국제까노에련맹 1964. 4. 26
국제유술련맹 1964. 7. 1
국제베이징탁구초청경기련락위원회 1964. 10
국제대학생체육련맹 1965. 8. 30
가네포아세아대륙위원회 1965. 9
신흥세력력기경기련락위원회 1966. 5.23
국제격검련맹 1968. 5. 16

※ 수자는 가입날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축전, 축하편지일지

(1971년 1월～12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나라 주요 기념일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축전,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김일성동지께 축전을 보내온 세계 여러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진보적 조직들을 아래에 날자순위로 적는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1 월

21일 말리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26일 회랍공산당 중앙위원회

29일 모리서스조선친선협회위원장 앨찬드라문

2 월

1일 꽁고 민족인민군보병부대집회 참가자일동

2일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바그다드지부

3일 버마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총서기 우라죠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모함메드 아이쉬

4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대리 서기장 모리따니인민당 상무청사국장, 모리따니민족회의 의원 바끼리꾸이리바리▶웽그리아에 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리까르도 아마르도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 위원장 후쎄인 좌바르 ▶다오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빠도누 쟝마리

5일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일조협회 회장 나가노 구니스께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버마세계평화위원회 서기장 ▶모리따니공화국(회교) 국방상 모하메드 모크타르 마루뜨▶베를린에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실습생, 대학생, 연구생 참가자일동▶팔레스티나아랍해방전선 이라크지부 ▶버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6일 웽그리아에 있는 진보적아프리카 류학생들의《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바그보논 에밀▶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레바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유세프 아불회슨▶버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우옹 루윈▶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네팔조선친선협회《김일성수상의 로작편집부》 주필겸 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마니크랄 쉬레스타▶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비또르엘마예키쏘▶에리트레아해방전선 바그다드지부 ▶쏘련군사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나라 학생일동▶강점된 서부소말리아 해방전선 바그다드지부▶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일동을 대표하여 류학생협회위원장 데니아 마불레 ▶버마련방 랑군시《알로운》 자동차수리소 종업원일동▶버마련방《조선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성원일동▶에리트레아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 타하누루▶버마련방《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 ▶에리트레아대학생총동맹 까히라지부 위원장 알리 할리파▶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경축하는 버마조선친선협회 참가자일동▶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성원일동

7일 말리《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 일동▶말리아세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와 말리평화옹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아브둘라 이예쏘우▶끼쁘로스선박 《아르데나》호 전체선원들을 대표하여선장 피 마클라하스 ▶네팔조선친선협회가 조직한 기념집회 참가자일동▶서남아프리카학생동맹 제1비서 호마떼니 까루예나 ▶기네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룬디류학생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을 대표하여 깐졸라 비딸

8일 기네공화국대통령 아흐메드 세쿠투레▶뽈스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 《김일성동지혁명투쟁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위원회 ▶쎄일론인민조선친선협회 켄디지부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총사령부 디마스끄주재 대표부 책임자 싸리흐 아흐메드 아야이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성원일동 ▶파키스탄 조선인민친선협회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서기장, 모리따니 민족회의 의원 팔알리즈 ▶끼쁘로스선박《신비 코스트》호 선장 스빠노스 스떼빠노스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이예흐디흐 울드 씨리 아흐메드 ▶까히라에 있는 수단지식인들의 《김일성동지혁명활동 및 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까히라에 거주하고있는 수단인들의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뽈스까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류학생《김일성동지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 연구소조》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덴시교원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아세아, 아프리카 경제협조기구 총서기 아민. 에. 아와달라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서른아홉돐에 즈음하여

4 월

20일 꽁고민족인민군 총참모부 소속부대 군무자일동

21일 산또메 및 프린씨프해방위원회《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 ▶버마련방《김일성동지 혁명활동연구소조》성원일동

22일 꽁고민족인민군보병부대장병일동▶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집행위원회▶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23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덴시교원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덴항구 로조《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위원장 모함메드 아브두 제이드 하싼 ▶모리따니 근로자동맹 서기장 팔말리크▶예멘학생전국총동맹 1도비드 아흐마두 청년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24일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성

원일동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부 타와이분지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아덴로동자구 군중집회 참가자일동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 책임자 회이게 히르벤살로

25일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총사령부 디마스끄 주재대표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싸리호아호메드 이야이 ▶디마스끄주재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대표부 ▶시에라 레온 조선친선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장 몬티코올 ▶말리《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소조책임자 모디보 깐느 씨쎄 ▶버마조선친선협회《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 소조》성원일동 ▶누아크쇼트시《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책임자 에뜨만느 울드 제르간느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디마스끄주재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대표부 《김일성동지 로작 및 사상을 연구하는 혁명위원회》성원일동▶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대리 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하여

6 월

22일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법률가 원우수,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훵띤팔 ▶버마련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일동▶버마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혁명력사 연구소조》 성원일동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이라크농민조합총련맹위원장 후쎄인 좌바르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버마조선친선협회위원장 우옹 루윈 ▶버마련방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23일 《조선파의 련대성월간 꾸바조직위원회》

24일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뽈스까의 우지대학들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류학생일동 ▶말리《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책임자 모디보 깐느 씨쎄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까히라지부 ▶아련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연구발표모임 참가자일동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김일성동지혁명력사 연구소조》 ▶네팔조선친선협회가 조직한 반미공동투쟁월간집회 참가자일동

25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 혁명군총사령관이며 알파타호 공식대변인인 야씨르 아라파트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장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한 아련근로자들의 군중집회참가자일동 ▶탄자니아번역출판일군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까히라에 있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 련대성위원회 서기장 라브히 아부 바쌈 ▶팔레스티나해방전선▶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26일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일동을 대표하여 책임자 메니아 마불레 ▶파키스탄 조선친선협회

28일 네팔조선친선협회 박타푸르도서관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참가자일동

29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샤프 샤헤르▶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아덴주재 대표 우싸마 알 할리프

30일 팔레스티나 로조위원장 무사아보우하타부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안젤로 올리바▶까히라외국인 류학생구락부성원들과 직원들의 군중집회참가자일동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한 외국선원들의 련대성모임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여 희랍선박《아리스따 이오스》호 선장 아이 까라몰레고스, 희랍선박 《에깔리》호 선장 스따마니떠오스 발마스, 희랍선박《까떼딴 게른따스》호선장 스따마떠오스 빠르바마스, 일본선박 《고후꾸 마루》선장 이즈미니 시게요시, 단마르크 선박《미카엘 젭센》호, 중국인선원대표 원충분 ▶꽁고《김일성동지혁명력사 연구소조》성원일동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위원장 아민 힌디

7 월

1일 《조선인민파의 련대성 앞제리 쎄떠프도군중집회》참가자일동을 대표하여 쎄떠프도당통제위원회 위원장 베쉬리 메나 우에도 ▶프랑스조선친선협회대표 위원장 쟝 쓔레 까탈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파의 련대성월간기념 하마시군중대회 참가자일동

2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형제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 집회참가자일동

4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

5일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10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한 이라크민족학생동맹집회참가자일동 ▶수리아아랍공화국 알레포시군중대회 참가자일동

11일 까히라주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 쏠로만 미치마

12일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끼쁘로스위원회 위원장 바쏘스 리싸리데스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 레바논위원장 파리드 져부란

13일 소말리아 민주주의공화국 최고 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꾸바조선친선《천리마》조선소로동자일동 ▶핀란드 중고등학교학생련맹 ▶《조선인민파의련대성월간》 꾸바 마딴사스주조직위원회

14일 꽁고민족인민군 총참모부소속부대집회참가자일동 ▶수리아아랍공화국 라끼야시군중대회 참가자일동

15일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류학생동맹 상설서기국

16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서기장 조요노르드만 ▶꾸바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일동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로총알렉산드리아지부와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알렉산드리아지부가 조직한 군중집회 참가자일동

17일 꾸바근로자중앙 오리엔떼주 빅또리아 데 라스 뚜나스지구위원회 ▶뿌에르또 빠드레지구조직 위원회와 지구당위원회

20일 수리아 전국학생동맹 집행위원회 ▶꾸바에 와있는 브라자빌혁명가일동

21일 꾸바에 와있는 꼴롬비아혁명가일동 ▶코펜하븐 외스떼르지역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모임 참가자일동 ▶웁쌀라종합대학 《김일성원수반제혁명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인게르 게르호름

22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한 쾨뻰하븐시련대성군중집회 참가자일동

23일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의 집회참가자일동

24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림시혁명정부자문리사회 위원장 윈우수, 주석 휭떤팔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진행된 수리아아랍공화국 디마스끄군중대회참가자일동 ▶미국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쟌오스틴

25일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바그다드지부위원장 이마드루 듀피 말하스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아련평화민족리사회 알렉산드리아위원회 비서 과우지 함자 알무하미

26일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루안다공화국 대통령 그레고와르 까이방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대리 부위원장 미쇄케 미용고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호만 알 이리야니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집행위원회 ▶아련북부아프리카중근동주재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 림시대리대표 베르나르드 무루마 ▶이라크정치과학협회위원장 따하야씨날 하디시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대표 아브 따이부 ▶말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을 대표하여 책임자 모디보 깐느씨쎄 ▶말리《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까히라주재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책임대표 빅또르 엘 마예키쏘 ▶알제리조선친선 라뜨라우이 알리옛루사 협동농장원 일동

27일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장 박사 과우지 엘사이드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서기장 대리엔 해베이샤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과타흐)바그다드지부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바그다드지부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책임자 잠비아주재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 자꼬브 엠까말라과 ▶잠비아주재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부대표 케이 문룬 그와 ▶스웨리예 조선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비르기타 세베프죠르드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로동조합총동맹,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팔레스티나교원동맹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 《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성원일동을 대표하여 모리따니주재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상설대표부 부책임자 아부 모함메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성원일동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모리따니 근로자동맹 서기장 팔말리끄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칠레사회당, 칠레공산당, 급진당, 인민행동통일운동, 아세아, 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칠레평화운동, 칠레근로자통일중앙과 그 산하조직, 인민단결녀성위원회,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28일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투레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8 월

26일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조직된 누아크쇼트체신부문일군들의 친선모임참가자일동, 누아크쇼트우편국장 까마라 아브둘 라호만느

29일 레바논편집인협회 위원장 물함 카람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바그다드지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조직한 조선인민과의 친선주간개막식 참가자일동

9 월

1일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회 위원장 쟝 쓔레까날, 총서기 미쉘 제노 ▶버마련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 ▶버마련방《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 책임자 보마뒤 ▶버마련방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성원일동

3일 버마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총비서 우라죠 ▶오지리항쟁문서관을 대표하여 서기장 헤르베르트 슈라이베르 ▶부재중인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을 대리하여 대통령실사업을 담당수행하고 있는 국방상 씨디 모하메드 디아기나

4일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레바논조선친선협회위원장 국회의원 맘두호 아브달라 ▶까히라 주재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대표 빅또르 엘 마예키쏘

5일 네팔주간신문 《마뜨리 푸미》책임주필 고빈두 비노기 ▶버마련방《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성원일동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까히라지부 대표 아브둘라호 알리나씨르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중앙위원회 ▶이라크 녀성집행위원회 ▶이라크농민총동맹위원장 후쎄인 좌바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 련대성위원회》 서기장대리 아부 알아메드

6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윈우수, 주석 휭떤팔 ▶전아프리카 로조련맹 서기장 대리국회의원 알프레드 탄다우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 집행위원회 ▶예멘학생 전국총동맹 집행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서기장 아민 예이 아와달라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모함메드 아이쉬 ▶브라질 인민혁명전위대

7일 칠레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중장 하페즈 알 아싸드 ▶꼴롬비아국회대표단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 ▶인도공화국수상 인디라 간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비서 박사 죠르쥬 하바쉬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아바나)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조직꾸바위원회 위원장 멜바 에르난데스 ▶이라크친선협회 위원장 박사 이짜트 무스타파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국제비서 까를로스 빠딜야 ▶아랍사회주의동맹 까히라비서 무함마드 파달라호 알 하티프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부대표 에스.케이. 에스.부마 ▶애급로동청년련맹 위원장 살라호 갈리브 ▶수단사회주의녀성동맹 알리윰 알 샤르끼야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베이룻 말리5월청년부대기념집회 참가자일동

8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쏘련 당 및 정부지도자들 ▶벌가리아 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웰남민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뽈스까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꾸바공화국혁명정부 수상 소좌 피델 까스뜨로 루쓰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

원장 수파누봉친왕 ▶몽골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탄자니아 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통령리사회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쎄일론 수상 시리마아르 디 반다라나이케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수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에이 엠 야히아 한 ▶핀란드조선협회 서기장 라 노로도 그렌 크리스티나 ▶모리따니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혁명리사회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후아리 부메디엔 ▶네팔 박타푸르《김일성수상의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 ▶아랍 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다트 ▶조선을 방문하였던 레바논공화국 국회대표단 단장 박사 쌀림 하이다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집행위원회▶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자크 샤프 샤헤르▶일본사회당 도꾜도본부위원장 우라베 히데오 ▶《조선통일》편집위원회 위원장 라빈데르 한다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장 박사 파우지 엘 사이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까나리아섬 자결독립운동 서기국을 대표하여 호쎄 베헤따

9일 꾸바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 ▶도미니까공산당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꾼데 ▶뽀르뚜갈령기네및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 ▶네팔왕국 수상겸 외무상 키르티 니드히 비스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서기장 조요 노르드만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팔레스티나해방조직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씨르 아라파트 ▶수리아아랍지역 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브달라 알살렘 알 아흐마드 ▶아랍사회주의청년동맹 총서기 아흐마드 카말 아브 알 마즈디 ▶레바논공화국 국회의원 레바논평화운동 위원장 박사 하쉽 후쎄이니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 삼누아 쬬마 ▶남아프리카민족대회 총서기 알프레드 느조 ▶모잠비크해방전선 집행위원회 ▶니까라과 싼디노민족해방전선 전국지도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칠레아세아, 아프리카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마르따 멜로 ▶레바논로동자사무원 로조민족련맹 위원장 알 야스 알 하브드 ▶꾸바에 있는 에꽈도르혁명적청년일동 ▶말리변호사 말리평화운동위원회 명예위원장 뗌바 디알로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페르난도 무릴요 비아나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위원장 안또니오 로아지오

10일 콩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소좌▶꾸바에 있는 베네수엘라 혁명가 엘리아스 마누이뚜 까메르소좌 ▶레바논 《두스루르》주간잡지사 사장 알리 발루트 ▶레바논국회의원이며 국회재부규정위원회 위원장인 변호사 하싼리파이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이에 쏘우▶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까를로스 이그라씨오 까스뜨로 삐씨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 련대성위원회》성원일동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 대표들, 까히라주재 외국류학생동맹대표들 ▶다르 에스 살람주재 바스톨랜드대회당 대외사업담당대표 라마컬레 친야네, 까히라주재 바수톨랜드대회당대표 파까네 보꼬토 칼라▶《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 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위원장,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몬티 코올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라바레요, 서기장 헤나로 까르베로 체까▶콩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

11일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20일 쿠웨이트 국가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조선로동당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10월

9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서기장 바까리 꾸이리바리

10일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몬티코올 ▶아랍사회부흥당민족지도부 부총비서 아흐달라 알 아흐마르 ▶하이티공산주의자통일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꾸바상주대표인 좐 쥐라드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바그다드지부▶모리따니주재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 상설대표부 대표대리부대표 아부 무함마트▶뽀르뚜갈민족해방인민전선을 대표하여 페르난도 삐떼이라 싼또스▶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나라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성원들을 대표하여 밀리떠씨 니꼴라스 ▶베를린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알제리에 있는 브라질 투쟁단체 대표부 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책임자 바야르드 데 마리아 보이뗴우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신 축전, 축하 편지 일지

(1971년 1월~12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들에 즈음하여 해당 나라 당 및 정부 수반들과 지도자들, 진보적단체들과 조직의 책임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인민들에게 친선과 혁명적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축전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수반들과 지도자들, 진보적조직과 단체들의 책임자들을 날자 순위로 아래에 적는다.)

1 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년하장을 교환하심

2일 버마독립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버마련방혁명리사회 의장 네윈에게

5일 라오스애국전선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에게

9일 챠드공화국독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챠드공화국 대통령 프랑스와 똠발아예에게

10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선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2 월

인도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인도공화국 수상 인디라 간디에게

2일 쎄일론독립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쎄일론수상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에게

17일 네팔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네팔왕국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에게

24일 쿠웨이트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국가 수상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에게

28일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수상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수상 범문동에게

3 월

1일 마로끄 국경절에 즈음하여 마로끄왕국 국왕 물라이 하싼 2세에게

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에서 석유회사들과 가스회사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조치를 지지하여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수상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10일 모리셔스독립 세돐에 즈음하여 모리셔스 수상 시우사구르 람굴람에게

15일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에게

19일 뜌니지공화국독립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뜌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에게

21일 인도공화국 수상 재임과 관련하여 인도공화국 수상 인디라 간디에게

22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결성 한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에게 ▶파키스탄의 날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에이. 엠야히아 한에게

27일 시에라 레온 인민과 군대들의 영웅적투쟁에 련대성을 보내여 시에라 레온 수상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에게

28일 라오스인민과 인민해방군이 투쟁에서 승리한데 대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에게

4 월

1일 영국공산당 총비서 탄생예순돐에 즈음하여 영국공산당 총비서 죤 골랜에게 ▶미국공산당전국위원회 위원장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헨리 윈스톤에게

2일 웰남인민들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신데 대하여 웰남민주공화국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지도자들에게

3일 웽그리아해방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웽그리아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세네갈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세네갈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에게

16일 수리아아랍공화국독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에게 ▶쁠라야 히론승리 열돐에 즈음하여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에게

24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창건 일곱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예레레에게

25일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한돐에 즈음하여 웰남민주공화국 당과 정부지도자들,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지도자들,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수파누봉친왕▶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에게

26일 시에라 레온공화국 선포, 대통령취임과 관련하여 시에라 레온공화국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에게 ▶또고공화국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또고공화국 대통령 에띠엔느 에야데마에게

27일 아랍련합공화국, 수리아아랍공화국, 리비아아랍공화국이 아랍공화국련방을 형성한것과 관련하여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리비아아랍공화국 수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시에라 레온공화국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시에라 레온공화국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에게

5 월

4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수립 한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장,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 수상 펜누트에게

8일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수상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14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씨르 아라파트에게 ▶예멘아랍공화국공화리사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예멘아랍공화국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이리야니에게

17일 웽그리아 로농혁명정부 수상 재임과 관련하여 웽그리아로농혁명정부 수상 포크 예네에게

24일 수단 5.25혁명승리 두돐에 즈음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게 ▶아랍사회부흥당 수리아지역지도부 총비서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아랍사회부흥당 수리아지역지도부 총비서 하페즈 알 아싸드에게

26일 아프가니스탄독립절에 즈음하여 아프가니스탄왕국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에게

20일 제8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를 축하하여 수뇌자회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수립 두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 주석 휭떤팔에게

28일 부룬디공화국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 루안다공화국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루안다공화국 대통령 그레고 와르 까이방다에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 집행서기국 창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에

31일 뜌니지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뜌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에게

6 월

15일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상무위원회 위원장, 수상이 재선재임된것과 관련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정, 수상 범문동에게

29일 소말리아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 혁명리사회 위원장 시아드 바레에게

7 월

3일 알제리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수상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5일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쏘련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축전교환

9일 몽골인민혁명 쉰돐에 즈음하여 몽골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10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축전 교환

11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과 내각수상 선거와 관련하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 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쥐꼬브와 내각수상 스딴꼬 또도르에게

14일 모리따니인민당 총비서 재선과 관련하여 모리따니인민당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에게

16일 이라크 7.17혁명 세돐에 즈음하여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알 바크르에게 ▶ 버마련방혁명리사회의장 재선과 관련하여 버마련방혁명리사회 의장네윈에게

21일 뽈스까재생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뽈스까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 아랍련합공화국 7.23혁명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아랍련합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24일 꾸바인민무장봉기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에게

25일 말디브제도독립 여섯돐에 즈음하여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에게 ▶ 제17차원수폭금지 세계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와 대회참가자들에게

31일 다오메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다오메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국가수반, 정부수반 위베르 마가에게 ▶ 아랍사회주의동맹 위원장 재선과 관련하여 아랍사회주의동맹 위원장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8 월

5일 볼리비아독립 백마흔여섯돐에 즈음하여 볼리비아대통령 후안호세 또레스 곤쌀레스에게

7일 싱가포르독립 여섯돐에 즈음하여 싱가포르공화국수상 리관유에게

11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위원장 재선과 관련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리사회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 꽁고 8월혁명승리 여덟돐에 즈음하여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에게

12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혁명정부수상 탄생 마흔다섯돐을 축하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혁명정부 수상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에게 ▶ 우리 나라 8.15해방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쏘련 당과 정부지도자들과 축전교환

16일 가봉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에게 ▶ 인도네시아독립선포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수하르또에게

17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재선과 관련하여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에게

22일 로므니아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에게

24일 바레인국가독립 선포일에 즈음하여 바레인 국가추장 이사빈 술만 알 할리파에게

29일 말레이시아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말레이시아 수상 뚠 아브둘 라자끄에게

31일 리비아혁명 두돐에 즈음하여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리비아아랍공화국수상 모아메르 엘 가다피에게

9 월

1일 예멘아랍공화국 내각수상 임명과 관련하여 예멘아랍공화국 내각수상 겸 무력 총사령관 하싼 알아므리에게 ▶ 웰남민주공화국 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수상 범문동에게

6일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쥐꼬브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7일 말따 국경절에 즈음하여 말따공화국 수상 도미니크 민토프에게

8일 벌가리아사회주의혁명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12일 까타르국가 독립 선포일에 즈음하여 까타르 국가 추장 아흐메드 빈 알리 알타니에게 ▶ 꽁고혁명 열돐에 즈음하여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에게

17일 칠레공화국독립 백예순돐에 즈음하여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에게

18일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뽀르뚜갈령기네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밀카르 카브랄에게

21일 말리공화국선포 열한돐에 즈음하여 말리공화국 국가수반, 정부수상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에게

25일 예멘아랍공화국 혁명 아홉돐에 즈음하여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 이리야니에게 ▶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통령리사회위원장 재선과 관련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리사회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10월

3일 잠비아독립 일곱돐에 즈음하여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에게

6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지도자들에게

7일 아랍공화국련방 대통령 리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된것과 관련하여 아랍공화국련방 대통령 리사회 위원장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11일 라오스독립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에게 ▶ 적도기네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에게 ▶ 칠레국경절에 즈음하여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에게 ▶ 까메룬 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까메룬련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에게

13일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게 ▶ 민주예멘 10월 14일혁명 여덟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 나이제리아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련방 군사정부 수반 군총사령관 야쿠부 고원에게 ▶ 끼쁘로스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 대주교 마카리오스에게

17일 우리 나라와 시에라 레온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시에라 레온공화국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에게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나라 투쟁조직, 친선단체들, 국제기구들과 민주인사들로부터 보내

온 축전들과 편지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19일 소말리아 10월21일혁명승리 두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에게

22일 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여러나라 형제 당 및 혁명 조직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27일 중국의 유엔가입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지도자들에게

11월

3일 칠레인민통일혁명정부수립 한돐에 즈음하여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에게

6일 사회주의 10월혁명 쉰돐에 즈음하여 쏘련의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여러나라 형제당과 신생독립국가 집권당 및 혁명조직지도자들로부터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8일 캄보쟈왕국 독립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에게

10일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여러나라 정부와 혁명조직 및 친선단체지도자들로부터 보내여온 축전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심

20일 중국에서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기네인민들이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친 승리의 날 한돐과 관련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투레에게

21일 레바논 국경절과 관련하여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에에게

27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 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에게 ▶부룬디혁명 다섯돐에 즈음하여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첼 미촘베로에게

28일 유고슬라비아인민의 민족적명절인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브로즈 찌또에게 ▶알바니아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당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립네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에게

3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수상 재선과 관련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수상 윌리 슈토프에게

12월

7일 탄가니카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에게

9일 아랍추장국련방결성과 독립선포에 즈음하여 아랍추장국련방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앙골라인민해방운동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에게

10일 케니아독립 및 공화국 선포일에 즈음하여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죠모 케니아타에게

12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수상 재임과 관련하여 수상 류보미르 슈트로우갈에게

21일 포드사이드승리의 날과 관련하여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르에게

22일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취임과 관련하여 대통령 줄피카르알리 부토에게

23일 애급아랍공화국대통령 탄생 쉰세돐에 즈음하여 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25일 우리 나라와 말따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설정된데 대하여 수상 도미니크 민토프에게 ▶캄보쟈인민과 캄보쟈해방인민무장력이 6호도로를 비롯한 여러지역의 전투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나라들에서 귀중한 혁명동지들의 서거와 관련하여 조문과 큰물, 가물, 태풍으로 일부 지역들에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여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1월 26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헤르만 마테른의 서거와 관련하여 독일의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7월 26일 쏘련우주비행사들이 희생된데 대하여 쏘련의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11월 3일 로므니아의 후네도 이라도 체르메즈 불꺼룸브광산에서 일어난 불상사로 수십명이 희생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조문을 보내심 ▶파키스탄에서 태풍으로 일부지역들에서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대통령 에이 엠 야히아 한에게

7월 6일 칠레에서 심한 폭우와 눈비바람으로 일부주들에서 큰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고쌘스에게

8월 1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물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호에게

9월 1일 민주웰남에서 큰물로 여러주들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러순, 정부수상 범문동에게

11월 3일 남부웰남 중중보지대에서 일어난 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위원장,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법률가 원우수, 주석이며 건축가인 휭뗜팔에게

22일 꾸바의 서남부해안지대에서 태풍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 루쓰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심

국내 주요 일지

(1971년1월—12월)

1 월

1일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를 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 한덕수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총련 한덕수의장으로부터 새해축하편지를 보내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나라를 비롯한 세계여러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과 년하장을 교환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소, 6월22일화학섬유공장, 천내리세멘트공장, 홍남비료공장의 로동자들과 서평양기관차대 붉은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날계획을 115%로부터 127%까지 넘쳐 수행.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발표 일곱돐기념과학로론회 평양에서 진행.

5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평양시군중집회진행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새로 75개의 작업반에 2중천리마작업반 및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주기로 결정.

6일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이 우리 령해에 침입하여 적대행동을 감행하는 미제 무장간첩선 한척을 격상시킴.

7일 신창탄광 붉은 탄부들과 평양철도국산하 붉은 수송전사들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상반년계획을 4월 15일전으로 끝낼 결의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채택.

9일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6개년계획의 전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전원회의 11일까지 진행.

11일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서거 서른다섯돐 평양시 추모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1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1차회의에서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의 새전쟁도발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규탄 ▶조선민주법률가협회에서 미국공산당원이며 흑인운동투사인 안젤라 데이비스를 석방하기 위한 미국공산당과 미국의 진보적력량들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에 전문을 보냄.

16일 근위1급 숙천군 농근맹열성자회의에서 1970년의 1.5배이상의 알곡생산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킬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7일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청년들은 총진군할데 대한 전체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사로청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붉은기》 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 달리기》 경기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시작.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과 첫해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전국청년열성자회의 19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채택 ▶우리 나라 보건성과 웽그리아 보건성사이의 1971년도 보건 및 의학과학부문의 협조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우리 나라 전람회에 참가할 전람회대표단이 떠남.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뜨락또르운전수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딸리아공산당 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 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만행을 규탄하는 평양시 성토대회진행 ▶우리 나라 정부 문화대표단이 쎄일론으로 떠남(2월 13일 돌아옴).

2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86차비서장회의에서 미제의 여러가지 범죄행위를 폭로규탄 ▶국제학생동맹 제10차대회에 참가할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군대들간의 체육교류계획에 의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인민군 유술선수단이 떠남.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수도건설자들과 시민들의 궐기모임 진행.

22일 우리 나라 정부에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왕국민족련합정부의 1월 18일부 호소문과 1월 19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발표 ▶우리 나라 외무성에서 웰남, 라오스, 캄보쟈 등 인도지나전역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0차회의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원산중등학원창립 스무돐을 맞는 이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1970년도 군 및 협동농장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총화하고 우수한 6개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55개의 협동농장들에 순회우승기를 주기로 결정.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원산중등학원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 학원의 모범적인 교원을 표창하심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사이의 1971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등 및 중등학원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각 초등 및 중등학원의 모범적인 교직원들을 표창하심.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칠레사회당 제23차대회에 축하문을 보냄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1970년도 농업부문 공장, 기업소들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총화하고 모범적인 47개 단위들에 순회우승기를 주기로 결정 ▶우리 나라와 꾸바공화국사이에 1971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9차 전체대회앞으로 축하문을 보내심.

29일 누에치기를 비롯한 좋은일하기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한 평양시 녀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87차 비서장회의에서 미제의 범죄적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무조건 완전철거를 강력히 주장.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문제와관련한 워싱톤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소장의 편지사본을 주의 깊게 연구

하고 그에게 편지를 보냄 ▶제4차재일동포 조국방문단의 제1진이 함흥에 도착.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9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애급아랍공화국대통령 아랍사회주의동맹 및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는 친선대표단과 함께 대표단을 환영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동대표단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수여, 동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대표단은 2월 1일 귀국.

2 월

1일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세돐기념 《일당백상》 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 평양시체육관에서 시작 ▶성천영예군인공장에서 1.4분기계획을 끝냄.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조쏘정부간경제 및 과학 기술협의위원회 제6차회의에 참가한 쏘련대표단 단장을 만나심.

3일 조쏘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6차회의 의정서와 조쏘두나라 정부간의 1971~1975년기간의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협정과 1971년도 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제4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조국에 옴.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90개 사로청조직과 409명사로청원들을 표창하시는 《민청창립 10주년기념청년의영예상》 수여식 진행▶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군사로선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조선인민군 군인을 표창하심 ▶《프로레타리아독재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고수하자》 론설을 로동신문이 발표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맞이하여 기념강연회 진행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앙골라의 날》에 즈음하여 앙골라의 해당단체들에 련대성 전문과 편지를 보냄.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창립 스물다섯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심 ▶외무성에서 웰남,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침략전쟁확대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발표 ▶우리 나라 적십자회대표단과 일본적십자사대표단간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와 관련하여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 발표▶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라지오방송위원회 및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텔레비죤방송위원회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요새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조선인민군 구분대 군인 및 종업원들, 예방약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김익복동무가 일하는 공장 일군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심 ▶전국토양학부문과학일군회의 평양에서 진행.

7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 평양시경축대회 평양대극장에서 성대히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맞이하여 조선인민군대에 《사로청호》 땅크를 전달하기 위한 전국청년학생련합모임 진행.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권성린동무소속구분대를 찾으시고 일당백의 초병들을 축하하심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맞이하여 김성애동지께서 녀맹중앙위원회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김은희동무소속녀성구분대를 방문 ▶사로청대표단이 조선인민군 문은화동무소속구분대를 방문하고 청소년들의 지성어린 위문품 전달.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녀맹중앙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자신문》 창간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이 신문사 일군들을 표창하심.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혁명박물관창립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박물관일군을 표창하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제1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여 축전을 보냄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조선중앙통신사와 파키스탄국제통신사 사이에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조인.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14일까지 진행,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채택 ▶전국 철도운수부문 열성자들이 강원도 이천에서 모임을 가지고 6개년계획을 2년반이상 앞당겨 완수하며 이천—세포사이의 새 청년철도건설을 1972년 4월 15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52명의 농촌기계화 선구자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두수청년발전소 건설사업소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뉴질랜드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15일 우리 나라 정부에서 라오스, 캄보쟈,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전투적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 발표.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신포수산사업소를 표창하심.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힘쓰고 있는 영화창작집단들에 선물을 보내주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신포수산사업소 청년어로전사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과학부문앞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제27차상무위원회 18일까지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312차회의 진행,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벌가리아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출판사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이 출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출판사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출판사의 모범적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마전지질탐사대를 표창하심 ▶우리 나라 보건성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보건성사이의 1971—1972년 보건분야의 협조계획서가 베를린에서 조인.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천지구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22일까지), 그이께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이 공장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심 ▶사로청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공동명의로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에게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청년학생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련대성 편지를 보냄.

21일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1년 2월 20일 현지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집회를 가지고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25일 외무성에서 미제의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천리마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표창하심, 현지에서 표창장과 근위기발 전달모임을 가지고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 ▶외무성에서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벌리려 한 《프리덤 볼트》 작전이라는 전쟁도발 연습소동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전국수산부문열성자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2.27~3.1)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웽그리아 정부사이에 1971—1972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부다뻬슈뜨에서 조인.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몽골인민혁명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3.1인민봉기 쉰두돐평양시기념회진행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일본에서 열리는 3.1 《비키니의 날》 중앙집회에 미제의 전쟁정책반대, 《한일조약》, 《안보조약》 폐기와 세계평화수호를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 전문을 보냄 ▶덕현광산에서 1.4분기 계획을 110.5% 넘쳐수행.

3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수산부문단체들과 일군들을 표창하심.

2일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계속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군사적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편지를 보냄.

3일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 종업원회의를 열고 1972년 4.15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 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전국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호소.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토지개혁법령발표 스물다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 종합공연을 보심 ▶수령님께서 토지개혁의 수행과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농근맹열성자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스위스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이 꾸바로 떠남(3월 22일 돌아옴).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3월 5일을 농업근로자절로 제정할데 대한 정령 발표.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4일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대표단을 만나심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기네공화국으로 떠남(3월 22일 돌아옴).

7일 우리 나라 외무상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뽀르뚜갈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 무역은행과 로므니아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절차에 관한 협정이 평양에서 체결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사이에 문화 및 과학협조계획서가 베를린에서 조인.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전국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대회 11일까지 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에 1971—1975년기간 장기통상협정과 1971년도 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핀란드공화국정부무역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3월 17일 돌아감).

10일 직총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에서 도미니까당국이 도미니까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도미니까대통령에게 항의전문을 보냄 ▶우리 나라 정부와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1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서 티라나에서 조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라이프찌히봄철국제시장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만나심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림업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림업부문일군들을, 1970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강선제강소일군들을 표창하심.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청진제강소 일군들, 4.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심 ▶토지개혁법령발표 스물다섯돐기념전국사회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13일 우리 나라 외무성에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만행을 강화하고 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조선알제리친선협회에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알제리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지지하여 알제리혁명리사회의장에게 전문을 보냄 ▶우리 나라군사대표단이 몽골인민군창건 쉰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3월 22일 돌아옴) ▶군사정전위원회 제313차회의에서 미제의 새 전쟁도발행위를 강력히 항의 규탄 ▶령대탄광에서 1.4분기계획을 완수.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빠리꼼뮨 100돐에 즈음하여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에서 웰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지지주간》(3.19~3.25) 설정 ▶웰남인민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3월 2일 귀국)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로므니아직업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통상협정을 맺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정부통상대표단이 떠남.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벨지끄공산당 제20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정부사이의 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쁘라하에서 조인 ▶조중압록강수력발전회사 리사회 및 감사회 회의 결정서 베이징에서 조인.

18일 쏘련국립우랄인민합창단이 평양에 옴.

19일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31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딸리아프로레타리아통일사회당 제3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조선중앙통신사에서 공화국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보도발표 ▶꾸바를 방문하는 평양시수구선수단이 떠남.

2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웰남인민대표단을 만나심 ▶우리 나라 외무성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기 위한 음모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89차 비서장회의에서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

26일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정부사이에 장기무역협정과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와르샤와에서 조인.

27일 함흥의학대학에 천리마대학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진행 ▶우리 나라 외무성에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날강도적이며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만행을 단호히 규탄하며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의 3월 20일 성명과 외교부의 3월 22일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발표.

28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쏘련공산당 제24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떠남(4월 11일 돌아옴).

29일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 정부사이의 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와 사회주의건설을 지원하는 로력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조선인민군 구분대에 선물을 보내심.

4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4.1~3일, 4.7~9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함경남도 당위원회 및 함흥시당위원회 련합확대집행위원회를 지도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건하시고 발간하신 혁명적출판물의 이름을 지닌 신문 《새날》의 첫호가 나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와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전체 청소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편지전달계주 시작 ▶우리 나라 과학원과 쏘련과학원사이의 1971~1973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모스크바에서 조인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00억 2천여만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조선인대표단이 옴.

3일 천리마재령농기계작업소 천리마삼지강기계화 초병들이 농근맹열성자회의를 열고 논세벌갈이는 4월 15일까지, 마른논 써레는 4월 25일까지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기계화작업반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4일—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해지구수산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으며 신포시내 수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심▶모리따니회교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 대표단은 5일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회담을 가짐.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열돐기념 함경남도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대회에서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수령님께서 북청군중문화회관에서 북청회의 열돐기념사진전시회와 북청군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심 ▶수리아녀성총동맹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일본돈으로 3억 194만 5천원을 보내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형제적라오스인민과 인민해방군이 남부라오스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를 축하하여 해당단체들에 전문과 편지를 보냄 ▶조선시에라 레온친선협회에서 정부전복음모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한것을 축하하여 시에라 레온 조선친선협회에 전문을 보냄 ▶사회주의국가녀성단체지도일군협의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이라크녀성총동맹 제3차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알제리를 방문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단이 각각 떠남.

8일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유도탄으로 장비한새로운 포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인것과 관련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편지를 보냄 ▶우리 나라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1~1975년 기간의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무역협정과 1971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무역의정서 조인.

9일 우리 나라 정부와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평양에서 조인 ▶중국과학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월선동무가 일하는 건설종합기업소 건설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심 ▶우리 나라 정부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이 아덴에서 조인.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12~14) 진행.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작업반들에 천리마영예상을 주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재일본조선대학교졸업생들을 표창하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아홉돐기념강연회가 각지에서 진행 ▶서독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 서기관 유성근이 가족들과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세계직련뷰로회의와 웽그리아직맹 제22차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쏘련을 방문하는 조쏘친선협회대표단이 떠남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 아덴에서 조인.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쉰아홉돐에 즈음하여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를 비롯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들에서 소년단련합단체대회 진행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쉰아홉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16일 조선중앙통신사에서 《100일전투》 총화에 대한 보도 발표 ▶우리 나라 보통교육부문학교들에서 일본에 있는 요꼬하마 조선초급학교창립 스물다섯돐을 축하하여 전문을 보냄.

17일 김성애동지의 참석하에 수리아녀성총동맹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8일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한돐 평양시 기념회 진행.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녀성동맹대표단을 만나심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떠남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사이에 법률상방조를 서로 줄데 대한 조약의 비준서교환의정서가 부다뻬슈트에서 조인.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독일사회통일당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냄 ▶외무성에서 우리 나라와 쎄일론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훼손시키는 사태가 쎄일론에서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애급사회부흥당 및 이라크공화국 정부대표단,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지방장관대표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친선문화대표

단이 우리 나라 방문.

21일 조선중앙통신사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대학생간첩단사건》이란것을 날조하여 파쑈적폭압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을 규탄하는 보도발표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수리아아랍녀성총동맹간의 공동성명 평양에서 발표.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포리전선지도 스무돐기념모임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교육대표단, 중국기자대표단, 리비아아랍공화국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문 《로동청년》 창간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신문사의 모범적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신문 《로동청년》 창간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로동청년신문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우리 나라 정부와 이라크공화국정부사이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이 바그다드에서 조인.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5월 21일을 건설자절로 제정함에 대한 정령발표.

5월

1일 애급사회부흥당 및 이라크공화국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성명 평양에서 발표 ▶직총중앙위원회에서 4.15전으로 1971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작업반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총화하고 57개의 작업반들을 표창하기로 결정.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무역상 비로 요제프, 리비아아랍공화국기자대표단을 만나심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돐평양시기념보고회 진행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대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대표단, 프랑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 모리셔스외무, 관광 및 이민담당국무상부부, 벌가리아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 대학에 선물을 보내주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대학교창립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대학교의 모범적인 교원들과 리사회 리사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불후의 고전적문헌 조국광복회 10대강령발표 35돐기념 전국 사회과학토론회 혜산시에서 진행 ▶애급을 비롯한 아랍나라들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국제화학 및 석유관계부문공업로동자직맹 제6차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 사회주의국가 건축가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건축가동맹대표단이 떠남.

6일 우리 나라 정부의 초청으로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5월 12일까지) ▶라지오공학, 전자공학 및 전기통신과학기술협회 제27차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조선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 쏘련을 방문하는 평양시남자롱구선수단과 사격선수단이 떠남 ▶군사정전위원회 제315차회의에서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함부로 날뛰지말것을 경고 ▶운곡탄광 전차갱 3갱《1월 2일 청년돌격대》, 《김진청년돌격대》, 《4.15청년돌격대》 대원들이 각각 6개년계획에 예견된 생산굴뚫기계획의 2년분과제를 끝냄.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00억 2천여만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 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냄

8일 우리 나라 정부와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1971~1972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5만정보의 발관개건설을 위한 전국 각 시, 군의 사회주의경쟁을 총화하고 우승한 24개 단위들에 순회우승기를 줌.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조선인민군 제923군부대창립 스무돐을 맞는 이 부대 전체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923군부대창립 스무돐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교직원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운수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철도성산하 5개단위들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리공화국정부대표단을 만나심▶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제 923군부대에 국기훈장 1급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제약의료기구공업총국산하 공장, 기업소 일군들을 표창하심.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사로청단체에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도(직할시) 사로청대표회들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90차비서장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에서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강력히 항의규탄.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석탄생산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고원탄광의 붉은 탄부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길주합판공장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 당에, 꼬스따 리까인민전위당 제11차대회와 애급 사회부흥당 제5차지역대회를 축하하여 이 대회들에 축전을 각각 보냄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혁명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에 관한 의정서와 조선꾸바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2차회의에 관한 의정서 아바나에서 조인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1971년 5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으로 설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지질총국산하 21명의 지질탐사대 일군들을 표창하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예군인예술소조공연을 보시고 공연에 출연한 영예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지질총국에서 지질탐사절을 기념하는 보고회 진행 ▶쏘련방문 우리 나라 스키청년종합선수단, 영화대표단, 쏘련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주의국가보험 및 재보험기관대표자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보험대표단이 떠남.

15일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 호지명소년선봉대창립 서른돐에 즈음하여 호지명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대기보호에 관한 사회주의나라 전문가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의학자대표단이 떠남.

16일 156차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운 귀국재개 제1차선이 청진항에 도착.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지방장관대표단을 만나심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진행.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형선박 《만경봉》호 건조에서 모범을 보인 청진조선소일군들을 표창하심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무역대표단, 웽그리아조선친선나지까다농업협동조합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본국에 소환되여가는 우리 나라 주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사 요제프 할주빠,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팔레스티나조직대표 함디 마호무드를 만나심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예군인예술소조에 참가한 영예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이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라오스 애국적중립파력량동맹위원회 상무위원회 대표들이 회의를 가지고 라오스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촉진시킴데 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한것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평양시에서 첫 건설자전을 기념하는 모임 진행.

21일 김성애동지께서 녀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평양시주변 협동농장작업반들에 새로 꾸린 어머니학교를 돌아보심 ▶웽그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시장에 참가할 내각사무국 국장이 떠남.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내외의 전람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중앙공업 및 농업전람관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심.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량강도내 혁명전적지를 꾸리는 사업과 기타 건설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을 표창하심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 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청년학생성토대회진행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제막식 대홍단벌에서 성대히 진행 ▶우리 나라에서 수단혁명승리 두돐에 즈음하여 《조선수단친선주간》 (1971. 5. 24—5. 30)을 설정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자유독일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남 ▶함흥시와 개성시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 탄압을 규탄하는 청년학생들의 성토대회진행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의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다마스끄에서 발표.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적출판물발행사업에서 맡겨진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인쇄공업부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우리 나라 무역성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무역성사이에 1971~1975년간 상품호상추가공급에 관한 의정이 평양에서 조인.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출판사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이 출판사의 모범적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로청출판사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사로청출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에게 축전을 보냄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위원회에서 우리의 텔레비죤방송에 전파장애를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아홉돐을 기념하는 전국교육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28일 제20차 하기올림픽아세아지역 제3조 축구예선경기에 참가할 우리 나라와 수리아아랍공화국 축구선수단간의 첫번째 경기를 평양에서 가짐.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과 2월 26일공장의 일군들을 표창하심 ▶우리 나라 외무성대변인은 미제와 그 앞잡이 타이 및 남부웰남괴뢰도당과 론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이 캄보쟈의 앙코르사원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발표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성명에서 표명된 정당한 주장과 립장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설계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청산협동농장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카나다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귀국재개 제1차선으로 조국으로 돌아온 동포들을 만나심 ▶조선중앙통신사에서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조선어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한 보도를 발표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의 이라크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바그다드에서 발표

6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 보건일군대회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6. 1—6. 2), 수령님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대회에서는 수령님께 드리는 맹세문과 남조선의료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정부친선대표단을 만나심 ▶김성애동지께서 수단 청년성대표와 고등교육성대표를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창립스물다섯돐을 맞는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외무성대변인이 항공미실로 남조선에 불시 착륙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문제의 해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우리 비행사를 남조선에 강제적으로 붙잡아 두려는 미제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평양에서 제20차 하기올림픽 아세아지역 제3조 축구예선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와 수리아아랍공화국축구선수단과의 두번째 경기에서 1:0으로 우리 선수단이 이김.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보건부문일군들을 표창하심 ▶외무성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공모결탁하여 조선과 아세아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봉기일곱돐 평양시청년학생기념회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16차회의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정탐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항의규탄.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기자대표단을, 잠비아신문 《데일리 메일》 주필을 만나심 ▶**김일성동지**께서 민주조선사 기자, 편집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는 민주조선사 기자, 편집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4일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 서거 마흔다섯돐 평양시추모회 진행.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시지방공업총국산하공장 3명의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공화국내각에서 평남도 룡강군과 황

해남도 청단군, 함남도 북청군, 부전군에 《모범교육군》 칭호를 주기로 함 ▶몽골인민혁명당 제6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떠남.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축하문을보내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칠레사회당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주심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칠레사회당대표단간의 회담 평양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이 무장투쟁을 시작한 여섯돐에 즈음하여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총사령부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과 학생 및 청소년지도일군들에게 주시는 《조선소년의 영예상》과 표창장 수여식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맞는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 전달을 위한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 진행, 대회에서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기석탄공업부문 일군들을 표창하심.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칠레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국제원유일군대회에 참가할 조선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이 떠남.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정부지도간부들과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는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마중하시고 비행장에서 환영연설을 하심, 수령님께서 대표단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베푸심, 대표단은 김일성동지와 부인 김성애동지를 의례방문, 10일 김일성동지께서와 부인 김성애동지께서 답례방문,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간의 회담 진행.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수업발전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독일사회통일당 제8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떠남.

15일 우리 나라 정부와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현을 위한 1971—1972년도 집행계획서 조인.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평안남도 위원회전원회의(6.16—6.18) 진행, 전원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주요한 결론을 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제1기계공업성, 광업성, 전재공업성 산하공장, 기업소,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심 ▶우리 나라 외무성대변인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다그치면서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이 범죄적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모내기전투에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표창하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대사를 만나심.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군사파쑈독재와 부정《선거》를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애국학도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손님들이 판문점을 방문하고 반미구호를 웨치면서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강력히 항의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현지에서 일부 대표들은 공동성명 발표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륙운 및 해운성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함흥의학대학병원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야수적인 고문과 박해를 가하면서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을 가혹하게 처형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조쏘친선협회와 쏘련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 련맹 및 쏘조친선협회 사이의 1971년도 협조계획서가 평양에서 조인.

20일 우리 나라 외무성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오끼나와반환》에 관한 《협정》 조인놀음을 벌린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제157차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운 귀국선이 청진항에 도착.

21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6. 21~6. 28)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대회에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 대하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토의됨, 보고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음, 대회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축하문을 보냄, 조선소년단, 붉은 청년근위대가 축하문을 드림,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들은 대를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연설하심, 28일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 남조선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세계청년학생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지지하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 성명을 발표▶우리 나라사회단체들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으면서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편의봉사부문일군들에 대한 공훈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발표▶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수석위원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며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범죄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쏘련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림업성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6차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손님들을 만나심 ▶우리 나라 외무성은 7월 1일 일본군국주의 두목 사또와 미제의 파쑈적호전광인 애그뉴가 남조선에 기여들려고 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25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10여만시민들의 군중대회 진행, 대회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채택.

26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27일 미제를 반대하고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와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전체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성두대회 진행.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청년조직대표단단장, 재일본조선청년학생 축하단을 만나심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외국손님들을 환영하는 연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당 중앙위원회에, 모리따니인민당비상대회를 축하하여 이 대회앞에 각각 축전을 보내심 ▶우리 나라 과학원과 벌가리아과학원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이 쏘피야에서 조인 ▶천리마근위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6개월을 앞당겨 1971년계획을 완수.

7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라남영예군인설계학교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라남영예군인 설계학교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발표

2일 뽈스까인민공화국과 웽그리아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친선문화대표단 떠남.

4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집회 성대히 진행.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1969년 6월부터 1971년 5월까지의 기간에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범죄적 인만행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각국의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 및 전세계인민들에게 제소하는 고소장을 발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해군기(근위해군기)와 장기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발표.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쏘련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우리나라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70~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에 의한 1971년도 보충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8일 몽골인민혁명 쉰돐기념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꾸바가금업대표단, 조선체스꼬슬로벤스꼬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5차회의에 참가할 체스꼬슬로벤스꼬과학기술협조대표단, 벌가리아예술체조선수단 우리 나라 방문.

10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12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남조선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감시》 밑에 감행된 이른바 괴뢰 《대통령선거》와 괴뢰 《국회의원선거》의 더러운 내막을 폭로규탄하여 성명발표. ▶우리 나라에서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 (7. 12~8. 11)을 설정.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군중집회진행 ▶웰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체결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서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 지지주간》(7. 14~7. 20)을 설정.

14일 조선체스꼬슬로벤스꼬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5차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5일 신의주영예군인학교창립 스무돐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 ▶웽그리아 농업, 산림 및 수리로동자직맹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16일 국제건축가동맹 집행리사회 제40차회의에 참가할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꾸바방문 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이 떠남 ▶우리 나라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1년도 문화교류계획서 하노이에서 조인.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출판사와 조선중앙통신사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12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19일까지).

19일 외무성대변인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의 새로운 침략행위를 준렬히 단죄하는 성명발표.

2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91차 비서장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새 전쟁도발을 위한 전투진지로 더욱 더 전변시키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레바논공화국 국회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아랍사회주의동맹 전국대회 소집에 즈음하여 이 대회 앞으로 축전을 보냄 ▶예멘아랍공화국 외무부상, 유엔주재 몽골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부, 꾸바농업근로자대표단,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우리 나라 방문(8월 11일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설하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회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와 싸우는 캄보쟈인민에게 보내시는 의약품전달, 대표단과 함께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와 혁명적 민족가극 《피바다》를 보시였고 8월 6일 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심, 8월 11일 두나라간의 공동성명 조인 ▶라오스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23일 웰남아세아, 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24일 외무성대변인이 일본에서 재일동포들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며 집단적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더욱 심해가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971년 7월 14일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발표.

26일 우리 나라 중앙기관, 사회단체들에서 영웅적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여덟돐을 축하하여 이나라 해당 사회단체들에 련대성전문과 편지를 보냄 ▶양덕군지방공업부문일군들은 직맹열성자회의를 열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혁신을 이룩할것을 결의하고 전국지방공업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27일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제2차전국녀성의학자학술보고회(29일까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열여덟돐을 맞이하여 조선인민군에 《사로청호》 땅크를 전하는 전국청년학생련합모임 사리원시에서 진행 ▶꾸바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 벌가리아의 브라짜 《브떼브》 축구선수단,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대표단, 뽈스까인민공화국 출판일군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2중천리마애원중학교 2중천리마중등반교원작업반에 천리마영예상을 주심 ▶양덕군에서 군적으로 년간지방공업생산계획을 104%로 넘쳐수행했으며 14개공장이 중요지표별로 년간계획을 끝냄.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아프리카공산당창건 60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군사정전위원회 제319차회의 진행, 회의에서 정전협정을 계획적으로 파괴유린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대회에서는 김성애동지께서 보고, 대회참가자일동의 이름으로 위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

31일 김성애동지께서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부인으로부터 보내온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내심.

8월

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시에라 레온공화국정부대표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벌가리아 사회민주당창건 80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2일 우리 나라가 시에라 레온공화국에 경제 및 기술적협조를 줄데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시에라 레온공화국정부사이의 의정서와 시에라 레온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한 공동콤뮤니께 조인 ▶외무성대변인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팔레스티나혁명력량을 반대하는 악랄한 도발행동을 또다시 감행하여 나서고있는 요르단반동들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수리아농민동맹간의 공동성명 평양에서 조인▶조선윁남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회의(3~24) 진행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외무제1부상, 스웨리예기자대표단, 이딸리아 《세디트》 출판사 사장부부가 우리 나라 방문.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문예총일군들과 전체 작가, 예술인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자》 발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론설을 로동신문에 발표 ▶중국신화통신사로부터 조선중앙통신사에 친선의 선물(통신보도활동에 필요한 많은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보내옴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인민교육 및 청년상, 경제 및 재정상, 사법 및 사법개혁상이 평양에 옴.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일본당국이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중 라침판고장으로 일본에 도착한 우리 나라 선원을 억류하고 심문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사실을 규탄하여 그를 즉시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낼것을 요구하여 성명발표.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건설과학위원회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건설과학위원회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우리 나라 동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중 라침판의 고장으로 일본에 도착한 우리 나라 선원을 억류하고 심문하는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즉시 조국으로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성명 발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사리원시 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대표단,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공보 및 전국지도성기관지 《10월의 별》 주필이 우리 나라 방문.

10일 력사적인 중요산업국유화법령발포 스물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사린챠크외무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체조선수단이 우리 나라 방문 ▶평양통성피복공장에서 년간계획을 100.3%로 넘쳐 실행.

11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대중적인 폭동에 일떠선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성명 발표 ▶유엔주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부,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1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단을 만나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전쟁정책과 강도적략탈을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성명 발표 ▶팔레스티나 로동조합련맹 제4차대회와 팔레스티나 근로자 및 인민과의 련대성을 위한 국제직맹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칠레에서 열리는 토지개혁과 농촌근로자들의 로동권리를 위한 라틴아메리카대회에 참가할 조선농근맹대표단, 쏘련과 벌가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나라 농업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군사정전위원회 제392차 비서장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새 전쟁도발을 위한 전투진지로 더욱더 전변시키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실험기구공장일군을 표창하심.

14일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 대표들의 회담을 가질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를 보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기자동맹대표단, 뿔스까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체조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체조선수단, 벌가리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력기경기대회에 참가할 청소년력기선수단, 체스꼬슬로벤스꼬방문 우리 나라 궁술선수단이 각각 떠남 ▶평양녀자옷공장에서 103%로 년간계획을 넘쳐수행.

15일 우리 나라와 중국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 베이징에서 조인.

1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을 만나심 ▶두만강류벌사업소에서 년간계획을 112.9%로 앞당겨 끝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대변인이 8월 20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남북조선 두 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의 문건교환절차와 관련하여 담화발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대변인은 일본당국이 우리의 귀국선 《만경봉》 호의 니이가다입항을 보장하고 귀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데 대한 담화 발표 ▶외무성에서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범죄적공모결탁을 강화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각방으로 다그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알제리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공식방문 결과에 관한 조선알제리공동

콤뮤니케 평양에서 조인.

18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친선방문하는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떠남.

19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판문점에서 남북조선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우리의 1971년 8월 14일부 편지원문과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의 1971년 8월 12일부 성명원문 정식으로 교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내각수상이신 김일성원수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 위원장 고병철에게 보낸 회답편지에서 표명한 《해외조선동포통일회의》 소집을 지지하여 해외조선인구국통일전선 재카나다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선공론사 사장인 장세석으로부터 편지를 보내옴.

23일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2명의 파견원을 8월 26일 또다시 판문점에 보낼데 대한 담화발표 ▶꾸바건축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24일 꼴롬비아공산당대표단, 유엔주재우크라이나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 유엔주재 백로씨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 일조협회사무국장, 스웨리예사회활동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25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꼴롬비아공산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북청파수기계공장에서 년간계획을 100.2% 넘쳐실행.

26일 판문점에서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파견원들이 남조선적십자사 파견원들과 두번째로 상봉하고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의 회답편지를 넘겨 받음.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사이의 예비회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를 보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대변인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8월 27일부 편지를 8월 30일 12시 판문점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조선적십자측에 전달할데 대한 담화 발표.

30일 판문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파견원들과 남조선적십자사 파견원들이 세번째로 만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8월 27일부 편지를 넘겨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로청 각도(직할시) 위원회 전원회의들이 8월 한달사이 진행.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년간공작기계 1만대 생산수준을 돌파한것과 관련하여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꼴롬비아공산당대표단을 만나심. ▶8월에 구성공작기계공장로동자들이 850대의 공작기계생산.

9월

1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1971년 8월 27일부 편지에 대한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의 회답서한을 전달받기 위하여 9월 3일 2명의 파견원을 보낼데 대한 담화발표 ▶군사정전위원회 제321차회의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측을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벨지끄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서부독일에서 진행될 제20차올림픽경기대회준비정형을 시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조사단, 쏘련에서 열리는 국제민용항공일군쎄미나르에 참가할 우리 나라직맹대표단이 떠남.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성지구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만대의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돌파한 구성공작기계공장 혁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심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파견원들이 판문점에서 남조선적십자사 파견원들을 네번째로 만나고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의 8월 27일부편지에 대한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의 수락편지를 넘겨받음 ▶우리 나라와 파키스탄사이에 회담을 가지고 1972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조인.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의주지구공장, 기업소들을 2일동안 현지지도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4분기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심.

5일 꼴롬비아공화국국회대표단, 나이제리아 조선인민친선협회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전원회확대회의를 지도하시고 회의에서 중요발언을 하심 ▶모잠비크해방전선대표단, 중국로동자대표단, 일조인민친선대표단, 로므니아농업대표단, 핀란드 외무성정치국 유엔담당 부국장, 웰남기자대표단, 탄자니아기자대표단, 오스트랄리아평화인사부부등이 우리 나라 방문 ▶조선뽈스까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0차회의(13일까지), 회의에서 조선, 뽈스까 두 나라간의 1971~1976년도에 실행할 과학기술협조안들을 심의한 다음 해당한 의정서조인.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평안북도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김일성동지께서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건재전람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과 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쏘련으로 떠남.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과 선물을 보내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평양시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벌가리아방문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이 떠남.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잠비크해방전선대표단을 만나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는 김일성종합대학교원대표단이 떠남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대표단, 단마르크기자부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군장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12일 공화국정부에서 유엔총회 제26차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의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과 기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문제를 올해 유엔총회의정에 포함시켜 토의할데 대한 정당한 제의를 지지하는 성명발표.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상업일군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대회에서는 수령님께서 강령적교시를 주심.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9월 2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절로 제정함에 대한 정령발표 ▶외무성대변인이 9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대표들의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성명발표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로순찌 빨 위원장이, 남아프리카민족대회대표단, 세계평화리사회 상

주 인도대표부부 우리 나라 방문 ▶무역상이 체스꼬슬로벤스꼬, 쏘련에서 열리는 자동화부문국제과학기술토론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자동화협회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하는 농업과학자대표단이 떠남 ▶우리 나라 정부와 애급아랍공화국 정부사이에 1971～1972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까히라에서 조인.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조인민친선대표단, 콜롬비아국회대표단을 각각 만나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전력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발표 ▶로므니아군대 《도이나》 협주단이 우리 나라에 옴.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로숀찌 빨위원장을 만나심 ▶김일성동지께서 외국문출판사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해방 제15차대회를 축하하여 대회앞으로 축전을 보냄 ▶일본신문인 《아사히신붕》 편집국장, 중화인민공화국 남자롱구 및 녀자배구선수단, 일본교도통신사기자 우리 나라 방문.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군사로선 관철에 기여한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일군들을 표창하심.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고 회의에서 중요발언을 하심 ▶판문점에서 남북조선적십자단체 사이의 예비회담 제1차회의 진행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로동자집회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창설에 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조인 ▶6월 1일공장에서 년간계획 100.2%로 수행.

21일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탄자니아련합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나라 군대유술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사회주의 나라친선군대체육위원회전권대표와 각국 선수단, 일본 체육협회대표단이 옴 ▶군사정전위원회 제322차회의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괴뢰도당들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책임추궁.

22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에 남북을 련결하는 첫 직통전화개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남북조선사이의 직통전화선이 개설된것과 관련하여 축하전화문을 보냄 ▶로므니아에서 열리는 국제건축가동맹 도시계획실무기관대표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건축가동맹대표단이 떠남.

24일 콜롬비아공화국 국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평양에서 사회주의 나라군대 유술선수권대회 27일까지 진행.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신문 《아사히신붕》 편집국장과 그 일행을 만나심 ▶재령군 천리마삼지강협동농장 농근맹원들 올해 결산분배총화를 11월중으로 할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협동농장농근맹원들에게 가을걷이 사회주의경쟁호소.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로동자대표단과 중국베이징경극단을 만나심, 수령님께서 《위호산을 지략으로 탈취》를 보심 ▶외무성대변인이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하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발표▶외무성대변인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총련산하 조직들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살인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평양민족가극단이 떠남

28일 외무성에서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미제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문제,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문제를 포함한 조선에 관한 문제를 유엔총회 의정에서 삭제하여 그 토의를 1년간 보류할데 대한 《제안》을 비렬한 방법으로 강압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호히 규탄하는 성명발표 ▶재일동포들이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감사드리는 재일조선교육자대표단,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 참가할 재일본녀성축하단이 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떠남 ▶수리아아랍지역아랍조선친선협회대표단, 쏘련건축가대표단, 쏘련직맹대표단, 일조과학기술협력위원회대표단, 일본학자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종합대학 교직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김일성동지께서 출판지도국산하인쇄공장들에 선물을 보내심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2차회의, 회의에서 쌍방은 일련의 문제들에서 합의를 봄 ▶제5차 재일동포 조국방문단이 평양에 옴.

30일 사로청 중앙위원회에서 원산농업대학에 천리마대학칭호를 주기로 결정.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창립 스물다섯돐 기념보고대회진행, 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 채택 ▶파키스탄련합상공회의소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일본돈으로 109억 1천 351만 633원)을 보내심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 참가할 각 도(직할시)대표들이 평양에 옴.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학생절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학생들을 표창하심.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군장관대표단을 만나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발표 다섯돐을 기념하는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를 축하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로부터 축전을 보내옴 ▶군사정전위원회 제394차비서장회의에서 비무장지대를 전투진지화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적들의 죄행을 강력히 항의규탄.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에 축하문을 보냄, 7일 수령님께서 강령적교시를 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9일 대회에서 김일성수상님께 드리는 맹세문채택, 10일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재일본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우리 나라와 모리셔스사이에 령사관계설정 ▶빠나마인민당대표단, 모리따니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쏘련무선통신선수단이 우리 나라 방문 ▶녕변견직공장에서 1971년생산계획을 100.1% 넘쳐 실행.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년간공작기계 2500대 생산수준을 돌파한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72군부대창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교직원들을 표창하심 ▶남북조선적십자단체대표들의 예비회담 제3차회의에서 본회담장소와 시일문제협의.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제4차대회에 참가한 대표들과 재일본조선녀성축하단을 만나심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빠나마인민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일본 《재팬프레스》

통신사 편집국장이 옴.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교도통신사기자를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전국녀성예술소조원들의 음악서사시극 《조선녀성의 노래》 공연을 보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 제672군부대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발표.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9월에 1천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였으며 10월 10일전으로 올해계획을 끝낸 회천의 붉은 기계전사들을 몸소 찾으시여 그들의 자랑찬 성과를 축하하시고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선물전달모임 현지에서 진행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에서 1971년 생산계획을 104.7%로 빛나게 완수.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천리마6월 4일공장의 로동자들이 10월 10일까지 5개편성의 현대적인 뗑동차를 만들어 냄.

11일 라오스독립 스물여섯돐 평양시기념회 ▶로므니아정부대표단, 애급아랍공화국기자대표단 우리 나라에 옴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지역 아랍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만나심 ▶꾸바교육대표단,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 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 대표, 쿠웨이트기자대표단, 에꽈도르잡지 《마냐나》 주필, 몽골작가대표단, 오지리 《안론루쉬》 출판사사장이 옴 ▶황해남도에서 벼가을을 끝냄.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8개 재일본조선학교들과 학생들을 표창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4차회의 ▶소말리아혁명승리 두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로므니아방문 농업대표단, 독일, 웽그리아를 방문하는 정부통상대표단이 떠남 ▶쏘련건축가대표단 우리 나라에 옴.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녀맹제4차대회경축 전국녀성국방체육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애급아랍공화국기자대표단을 만나심 ▶우리 나라와 시에라 레온공화국간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설정,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대한 공동콤뮤니케 프리타운에서 조인.

15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방송사업국 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중국방문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이 떠남.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박문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심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성애동지께서 애급아랍공화국 안워르 앗 사다트대통령의 누이동생 싸끼나 무함마드 앗 사다트녀사를 만나심.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는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이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류례없는 군사파쑈적폭압만행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토문 발표 ▶이라크정부경제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빠나마인민당대표단을 만나심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적파쑈폭압을 규탄하는 성토대회 각지에서 계속 ▶뽈스까정부통상대표단, 로므니아직업총동맹대표단, 네팔사회활동가부부 평양에 옴 ▶인도공화국신임총령사, 뽈스까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가 평양에 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하는 웰남에 대한 미제의 죄행반대투쟁 조선위원회대표단이 떠남.

21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미제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류례없는 군사파쑈적폭압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국제학생청년기구들과 각국의 청년학생단체들 및 세계의 진보적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군사정전위원회 제323차회의에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범죄적인 책동을 폭로규탄.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에 대하여 답전보냄 ▶우리 나라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이에 1972년도 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 베를린에서 조인.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자사에 선물을 보내심.

24일 웰남민주공화국방문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 떠남.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이라크정부경제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남도 청단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주심.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유마니떼》 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 룡강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하심. ▲프랑스로동총련맹대표단, 로므니아정부통상대표단, 레바논 《김일성동지 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 성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기자대표단, 애급아랍공화국 신문 《알굼후리아》 대외부장 우리 나라 방문 ▶로므니아직업총동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앙은행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은행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심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6차회의 ▶꾸바방문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대표단이 떠남 ▶일본 도꾜도지사 미노베료기찌와 그 일행이 우리 나라 방문.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스트랄리아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 제5차대회를 경축하는 집단체조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창작하고 출연한 창작성원들과 교원, 학생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역출판사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이 출판사의 모범적인 일군들을 표창하심 ▶이라크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과 웰남민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하노이에서 조인 ▶웰남민주공화국에 경제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과 군사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하노이에서 조인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도꾜도지사를 만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알바니아로동당 제6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사이의 1972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부다페슈트에서 조인.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네팔사회활동가를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일본 도꾜

도 미노베 료기찌 지사가 오찬을 차림.

11 월

2일 광주학생운동 마흔두돐 평양시청년학생기념회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법률상 방조를 서로 줌에 대한 조약과 령사협약 평양에서 체결 ▶네팔사회활동가부부를 환영하는 군중집회진행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 쏘조친선협회대표단, 꾸바작곡가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3일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7차회의 진행

4일 평원농기계작업소의 농기계화초병들 농근맹열성자회의를 열고 《천리마》호 뜨락또르 대당 100정보이상 갈아엎는 투쟁을 벌려 당면한 가을갈이를 빨리 끝내며 명년봄까지에는 《천리마》호 뜨락또르대당 토지정리는 3정보, 흙갈이는 80정보이상 보장할것을 결의하고 전국 각지의 농촌기계화초병들에게 사회주의경쟁 호소.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61차귀국선으로 조국에 돌아온 애국적인 상공인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네팔왕국 민족판챠야트대표단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심.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쉰세돐 평양시기념회진행 ▶기네공화국주재 시에라 레온대사, 필리핀전국로동조합협회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남도의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주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9월 15일을 상업절로 제정할데 대한 정령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알바니아로동당창건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당에 축전을 보내심.

8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김성애위원장 캄보쟈왕국 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에게 축전을 보내심.

9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간의 회담진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력사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서른네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진행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통상대표단, 아프가니스탄왕국 정부친선사절단, 일조협회대표단, 이딸리아녀성대표단, 국제자동조절련맹집행리사회 위원, 쏘련교예단 우리 나라 방문.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영국공산당 제32차 대회에 축전을 보냄.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과학원토양조사연구집단에 선물을 보내심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8차회의 진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청진교원대학에 국기훈장1급을 수여.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 아프가니스탄왕국정부친선사절단, 우리 나라 주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총중앙위원회에 선물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전달 ▶청진사범대학 열돐 기념보고회 ▶뻬루조선친선협회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4분기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공장, 기업소들을 표창하심▶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함흥의학대학에 국기훈장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김성애위원장께서 이딸리아녀성대표단을 만나심.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3차전원회의 23일까지 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므니아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북도 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을 표창하심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필리핀전국로동조합협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국제민주녀성련맹 뷰로회의에 참가할 녀맹대표단, 기네 방문 정부대표단이 떠남 ▶쏘련 모스크바시쏘베트 대표단과 벌가리아쏘피아시인민쏘베트 대표단, 레바논기자대표단과 쏘련기자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무역은행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17일 우리 나라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선박기술검사와 선급제정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관한 협정 체결.

18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24차 회의에서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정탐행위와 새 전쟁도발책동을 전반적으로 폭로규탄하고 분별없이 날뛰지말것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

19일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9차회의 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정부사이에 1972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조인.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도건설청년돌격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쏘련방문건설건재대학교원대표단, 뽈스까방문선박공학교원대표단이 떠남.

21일 우리 나라 무역은행과 체스꼬슬로벤스꼬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절차에 관한 협정이 체결.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레바논기자대표단을 만나심.

23일 쏘련, 벌가리아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떠남 ▶조선기자동맹과 레바논신문편집인협회 사이에 호상원조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조인 ▶꾸바공화국과학원대표단, 제20차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 축구3조 예선경기의 심판을 보게될 국제심판원들, 제20차올림픽대회 아세아지역축구3조예선경기에 참가할 이라크축구선수단 우리 나라에 옴.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원선전수첩출판사의 모범적인 일군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독일의 공산당 뒷셀도르프대회에 축전을 보냄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10차회의 진행 ▶애급, 알제리,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애급방문 김일성종합대학대표단, 탄가니카방문 직맹대표단, 벌가리아방문 농업과학원대표단이 떠남 ▶웽그리아과학원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창, 전천 공업대학의 모범적인 교육일군들을 표창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창건 마흔다섯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냄.

26일 로므니아아제르쁘레쓰통신사대표단이 평양에 옴.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진, 김종태 사범대학의 모범적인 교원들을 표창하심 ▶외무성대변인이 미제가 수천명의 남부웰남괴뢰군을 동원하여 캄보쟈의 여러 지역에서 감행한 새로운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규탄하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무성대변인의 11월 25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발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미국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위원장 고별침에게 보낸 회답편지에서 표명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조선동포회의》 소집을 지지하여 쿠바에서 사는 미국사람들인 로버트 코헨과 마가레트 랜달로부터 편지를 보내옴 ▶사로청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확대회의 진행(12월 1일까지).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기자, 공훈기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발표.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남도 부전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하시고 이 군의 모범적인 교육일군을 표창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주—배천사이의 철길을 넓히는 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을 표창하심 ▶해주—배천사이의 넓은 철길개통식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단마르크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코펜하겐에서 발표▶혁명적출판물 《3.1월간》 창간 서른다섯돐기념 전국출판보도일군보고회진행 ▶직총 제5차대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축하단 평양에 옴▶뽈스까통일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 벌가리아방문 평양시롱구선수단이 각각 떠남 ▶쏘련과학기술협조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12월

1일 우리 나라 정부와 벌가리아 정부사이에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3차회의 의정서 쏘피아에서 조인 ▶군사정전위원회 제396차 비서장회의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일군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3일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11차회의 진행.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꼴롬비아공산당 제11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중앙통신사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전체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조종밑에 범죄적인 《반공》 소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전쟁도발책동을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위임에 의하여 성명발표▶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 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위원회 제5차회의 의정서(평양에서) 조인.

6일 쏘련최고쏘베트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7일 외무성에서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우리 나라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2차회의에 참가할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협조대표단이 옴.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주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림시대리대사, 우리 나라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를 만나심 ▶쏘련내각국가 텔레비죤 및 라지오방송위원회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 15일까지 진행, 14일 회의에서 수령님께서 강령적교시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 축하문을 보냄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12차회의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최고쏘베트대표단을 만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가극 《당의 참된딸》을 보심 ▶중국주재 페루무역일군들이 우리 나라에 옴.

14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과학원대표단 우리 나라에 옴.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만나심 ▶새날소년동맹창립 마흔다섯돐기념 중앙대회 진행▶쏘련특해공군자원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가할 조선체육지도위원회대표단, 쏘련방문 직맹대표단이 떠남.

16일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창립 열돐기념중앙보고대회 진행

17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조인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13차회의 진행.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숙천군내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창립 열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숙천읍에서 진행.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심.

20일 《근로자》 창간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진행 ▶애급아랍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작가, 예술가대표단이 평양을 떠남.

22일 외무성에서 쿠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자들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쿠바공화국혁명정부의 12월 10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발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이 우리 나라에 옴.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교원대회 27일까지 진행, 27일회의에서 수령님께서 강령적교시하심▶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남조선전역에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박정희괴뢰도당이 그것을 뒤받침하기 위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괴뢰국회에서 강압통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토문발표 ▶알바니아정부통상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

25일 로므니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말타수상을 방문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를 전달 ▶민족보위성대변인이 박정희괴뢰도당이 1971년에 《미군감축》의 연막뒤에서 전쟁소동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계획적으로 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해 나서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외무성대변인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꾸며낸 이른바 《오끼나와반환협정》을 일본국회 중의원과 일본국회 참의원에서 강압통과시키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책동하면서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윁남민주공화국 외교부의 12월 18일부성명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계평원지구관개건설공사에 참가하여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표창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우리 나라와 쿠바공화국 사이에 1972년도 통상의정서 아바나에서 조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일동포들의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교육자대표단을 만나심 ▶신계평원지구관개준공식 ▶중화인민공화국 정부통상대표단 평양에 옴 ▶군사정전위원회 397차비서장회의 진행.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천—세포사이의 새청년철도건설 전국청년돌격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중에서 혁명적민족가극 《피바다》를 보심.

남조선인민투쟁 주요일지

(1971년 1월—12월)

1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새해를 맞이하여 남조선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편지를 드림.

7일 서울시 남대문구내 500여명의 령세상인들이 《외래품단속》의 명목밑에 이곳 시장에 달려들어 물품들을 강탈해가는 괴뢰악당의 졸개들에게 호된 복수의 징벌을 안김 ▶《질자호》 침몰사건으로 가족들을 잃은 전라남도내 주민들이 려수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12일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면내 농민들이 괴뢰아산군청에 몰려가 자기들의 논밭을 빼앗아 군용도로를 만들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항의규탄하고 땅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

13일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내 농민들이 물없어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였다고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괴뢰도당에게 강력히 요구.

16일 괴뢰도당이 내던진 폭발물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 부산진구 감만동내 주민 60여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롱성시위를 벌림.

17일 서울시 종로구의 300여명의 령세상인들이 괴뢰어용수탈기구인 《관리사무소》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큰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낼것과 영업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

22일 경상북도에 있는 결핵환자들이 괴뢰도청에 몰려가 박정희괴뢰도당의 환자들에 대한 범죄적무관심성을 준렬히 폭로규탄하고 치료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 투쟁.

24일 전라북도 전주지구의 군용도로공사장에 끌려나와 혹사당하고도 임금을 받지못한 100여명의 로동자들이 40여대의 화물자동차를 빼앗아 타고 괴뢰도당의 《도로공사전주출장소》에 몰려가 밀린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2 월

2일 경상북도 창원군 창원면내 주민들이 미제침략군 모공병대놈들의 민족적멸시와 모욕적인 폭언에 격분을 참을수 없어 놈들을 때려눕힘.

5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내 농민들이 괴뢰도당의 관리기업체인 《한전팔당사무소》에 몰려가 범죄적새전쟁준비를 위한 공사를 벌려놓고 옥한 농밭을 못쓰게 만드는데 항의하고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투쟁.

17일 박정희괴뢰도당의 주택강제철거만행으로 움막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부산시 암남동, 남부민동 50여명의 주민들이 원쑤들의 죄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18일 충청남도 론산군내 농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곳에 군용도로공사를 벌려놓고 농토를 파괴하는 범죄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

26일 서울시내 잠실중학교 학부형 200여명이 괴뢰시교육위원회에 몰려가 학생들의 수업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

3 월

1일 경기도 평택에서 애국적주민들의 한 집단이 미제침략군 화물자동차에 뛰여올라 《엠—16》소총 2정과 탄알 100여발을 빼앗아가지고 자취를 감춤.

5일 서울에 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은행에 고용된 조선인종업원들이 사무실에 몰려가 자기들에 대한 민족적박해와 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과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15일 경상남도 진양군에서 애국적주민들의 한 집단이 전쟁물자를 싣고 달리는 적들의 군수렬차를 뒤집어 엎음.

17일 경기도내의 자동차운전수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의 범죄적만행에 항거하여 미제침략군 1군단사령부로 몰려가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안김.

19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내 4천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읍사무소에 몰려가 가혹한 세금수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놈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20일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정암탄광에서 일하는 17명의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면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합창으로 부름.

26일 경기도 파주군 아동면의 《직업보도소》에 갇혀있는 60여명의 가난한 녀성들이 천대와 박해를 가해나서는 괴뢰도당의 악랄한 행위를 반대하여 일제히 뛰쳐나감.

4 월

2일 연세대학교 학생 1천여명이 《교련교육반대성토대회》를 가지고 《교련교육을 즉각 철회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 괴뢰기동경찰들과 맞서 완강히 투쟁.

6일 고려대학교 1천 300여명의 학생들은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군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군사교육단은 학원으로부터 즉각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 탄압하는 괴뢰경찰대 150여명과 불싸움을 벌려 괴뢰경찰 10여명을 까눕힘. 이 날 서울대학교상과대학 학생 300여명, 서강대학학생, 연세대학교 학생, 성균관대학교 학생 500여명도 시위투쟁에 합류.

7일 고려대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이 《민주수호투쟁위원회》 결성대회를 가진 다음 《학원사찰을 즉각 중지하라》, 《언론은 비판의 칼을 뽑으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 괴뢰경찰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림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 학생 200여명이 《성토대회》를 가지고 《학원사찰과 보도관제를 즉각 철폐하라》, 《대학의 지성인은 선거과정을 주시한다》, 《당국은 련행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롱성투쟁, 괴뢰경찰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 괴뢰경찰서장놈을 까눕힘.

8일 남조선의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문단 및 녀성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민주수호선언문》을 채택한 다음 《민주수호국민협의회》결성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 학생 300여명이 《4.19기념탑》앞에 모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학원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표시로 저주로운 괴뢰군제복과 군화를 불태워버리는 《군국주의화형식》을 단행한후 시위투쟁을 벌림 ▶고려대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투쟁, 괴뢰경찰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림.

9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200여명이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교련관실》로 몰려가 현역괴뢰군《교관》놈을 몰아내고 《교련용무기고를 짓는》목재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림, 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퍼부음.

12일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 100여명의 학생들이 《교련철폐와 언론수호를 위한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 100여명의 괴뢰기동경찰대와 맞서 싸움. 서울대학교의 상과대학 학생 100여명, 사범대학 학생 50여명, 중앙대학 학생 100여명, 성균관대학교 학생 400여명, 경북대학교 학생 200여명이 《교련》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13일 서울의 연세대학교 2천여명의 학생들이 학원의 군사화책동을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대학의 자유를 쟁취하자》, 《림시휴교조치로 학원을 황폐화하지 말라》고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130여명, 상과대학 학생 200여명, 성균관대학교 학생 1천여명, 경희대학교 학생 800여명도 시위투쟁을 벌림, 괴뢰경찰기동대와 견결히 투쟁.

14일 고려대학교 1천 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강당에 모여 《제2차민주수호대행진대회》를 가지고 괴뢰《국방장관》은 물러날것과 《언론의 자유화를 계속 강력히 촉구한다》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성균관대학교 학생 1천 500여명, 서울공과대학 학생 700여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범대학 학생 200여명, 연세대학교 학생 500여명, 중앙대학교 학생 300여명,《감리교신학대학》학생 200여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들도 학원자유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15일 연세대학교 학생 1천여명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양학부 학생 2천여명, 성균관대학교 학생 700여명, 중앙대학교, 서강대학 학생 500여명,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학생 200여명, 《감리교신학대학》 학생 170여명, 경희대학교 학생 500여명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생 150여명, 부산대학교 학생 1천여명, 경북대학교의 학생들이 각각 교련반대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투쟁,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격렬한 투쟁을 벌림.

16일 중앙대학교 학생 500여명, 성균관대학교 학생 500여명, 외국어대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가정대학 학생 200여명, 숭실대학 학생 300여명, 《서울신학대학》학생 200여명, 서강대학 학생 1천여명, 한양대학교 학생 1천 500여명, 고려대학교 학생 1 천500여명, 부산대학교 학생 200여명,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100여명이 교련반대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시위투쟁을 벌림.

17일 서울의 《카톨릭의과대학》학생, 서울의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들이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 괴뢰경찰놈들과 투쟁 ▶남조선의 《3대일간신문》 기자들이 모임을 갖고 언론인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폭로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강력히 요구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400여명의 자동차운전수들이 미제침략군 야수놈들의 살인적만행을 반대하여 강력한 반미투쟁을 벌림.

18일 경상남도 신청군내의 근 2천여명의 가난한 주민들이 괴뢰면사무소와 괴뢰군청에 각각 집단적으로 몰려가 《먹을것을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며 완강히 투쟁 ▶ 서울시내 4천여명의 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추악한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가두시위를 벌림.

19일 남조선의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단 및 녀성계 등 각계각층대표들이 모여 《민주수호국민협회》를 결성▶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강대학, 동아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외국어대학 등 13개 대학생들이 망라되여있는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련맹》이 4월봉기 열한돐을 맞이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죄상을 폭로하며 《주권을 되찾고 대학의 자유를 옳바로 누리기위해 견결히 싸울것》을 선언하는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 ▶ 연세대학교 학생 2천 500여명을 비롯하여 숭전대학교, 대구사회사업대학, 강원대학교, 성심녀자대학, 경희대학교, 카톨릭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원군사화책동을 배격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갖고 대회에서 각각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시위투쟁을 벌림. 시위를 저지하려고 달려드는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투쟁을 벌림.

20일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서울시립농업대학, 《카톨릭의과대학》, 서강대학,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각각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투쟁, 괴뢰기동경찰과 맞서 투석전을 전개.

21일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법과대학, 농과대학과 대구의 령남대학교 학생들이 각각 성토대회와 시위투쟁을 전개. 고려대학교 상과대학과 정경대학 학생들이 단식농성투쟁, 서강대학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위한 《초불행진》과 《교련강화장례식》 및 시위투쟁을 단행.

22일 전라남도 광주지구의 애국적 주민들의 한 집단이 광주시내에 있는 전남대학교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냄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공명선거를 실시하라》고 쓴 천을 가슴에 달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협잡선거를 반대하여 투쟁할 결의를 다짐.

23일 《3.1국민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온국민은 주권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호소.

27일 남조선 강원도의 한 농민이 군중들 앞에서 《김일성수상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더없는 존경을 표시하면서 《김일성장군만세!》를 소리높이 웨쳐 군중들을 감격의 도가니속에 휩싸이게 함. ▶ 경기도 광주의 애국적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협잡《선거》놀음을 배격하는 삐라들을 《투표함》들에 집어넣는 대담한 투쟁을 벌림.

30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 150여명이 교내에서 《선거참관인단보고대회》를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협잡《선거》놀음을 반대배격하는 성명서를 발표. 전북대학교 학생 500여명은 협잡선거반대 시위투쟁전개,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남조선의 《민주수호국민협회》가 박정희도당의 선거협잡행위를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5 월

1일 경기도 인천과 화성에서 애국적주민들이 적들의 《경비전화선》을 수백메터씩 잘라치움으로써 서울과 이 지방간의 《지휘통신》을 마비시킴 ▶ 남조선의 한 애국적주민이 괴뢰경찰놈의 카빙총을 빼앗아 그놈을 처단함.

3일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 사는 500여명의 녀성들이 이곳 미제침략군 공군기지 정문에 몰려가 인권을 유린하는 미제침략군놈들을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항의시위.

4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내 1천여명의 주민들이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놈들의 야수적만행에 항의하고 미제침략군 두목놈에게 범죄적행위가 다시 되풀이 안되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

5일 서울거리에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박정희역적놈을 단죄하는 《애국동지회》의 이름으로 된 삐라들이 뿌려짐.

6일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학생 150여명이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협잡《선거》를 규탄하고 시위.

7일 서울대학교 6개 단과대학 학생 400여명이 모임을 가진후 협잡《선거》를 규탄하면서 시위 ▶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구봉광산》의 200여명의 광부들이 광산사무실에 몰려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

10일 경상북도 김천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주민이 학생들 앞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자랑찬 현실을 말해주면서 《학생들, 우리는 김일성수상님을 찾아 가야만 희망을 풀수있다》고 힘주어 말하여 그들을 고무 ▶ 충청남도 서산군 근흥면 두야리내 100여명의 농민들이 괴뢰군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농경지를 마구 파헤치는 괴뢰도당의 처사에 항거하여 버티기투쟁.

11일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족 400여명이 괴뢰악당놈들의 살인만행을 규탄하며 놈들에게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악질기업주놈의 집을 점거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괴뢰경찰 300여명과 맞서 투석전을 벌려 여러놈을 까눕힘 ▶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학생 150여명은 모임을 갖고 《대통령선거 재실시》와 《중앙정보부해체》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 고려대학교 학생들 《민주수호선언대회》를 가지고 박정희역도의 당선날조를 규탄. 리화녀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파대학 학생들도 괴뢰협잡《선거》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결의.

12일 서울의 고려대학교 300여명의 학생들이 협잡선거와 군사교련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연세대학교 《민주수호투쟁위원회》가 괴뢰도당의 협잡《선거》와 군사훈련을 배격하는 선언문 발표. 경남도 울산공업대학 학생 400여명이 버티기투쟁을 벌림.

13일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내 300여명의 농민들이 괴뢰울진군 《토지조합》에 몰려가 밀린 품삯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

15일 남조선의 《기자협회》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경기도 평택군내 1천여명의 농민들이 미제침략군부대에 몰려가 이 일대의 수리시설을 파괴한 놈들의 죄행을 단죄하고 관개시설을 당장 복구하라고 요구.

17일 전라남도 광주의 조선대학교 5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 모여 폭력을 일삼는 악질교원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6개 항목의 요구서를 내고 롱성투쟁.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100여명이 성토대회를 가지고 《구속학생을 즉각 석방하라》고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완강히 투쟁. 서울동대문구의 주민 100여명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선거》협잡에 격분하여 버티기투쟁.

19일 고려대학교 학생 1천여명, 서울대학교 법파대학과 문리파대학 학생들, 전라남도 광주의 조선대학교 학생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각각 성토대회를 열고 학원의 군사화와 파쑈화를 통렬히 규탄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투쟁.

20일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과 법파대학, 상파대학 학생들이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

21일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및 상파대학 학생들과 법파대학 학생들이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하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투쟁을 전개. 서강대학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

22일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내 주민 300여명이 괴뢰군부대의 마을주둔을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폭력투쟁을 벌림, 이 투쟁에서 괴뢰군 《소령》을 비롯한 네놈을 까눕히고 많은 탄약과 한대의 군용차를 빼앗음.

24일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상파대학, 공파대학, 법파대학,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협잡《선거》놀음과 파쑈적폭압을 반대하며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시위투쟁.

26일 서울대학교 공파대학, 문리파대학, 교양파정부, 리파대학, 법파대학, 상파대학, 약학대학, 치파대학 학생들과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부당하게 체포된 학생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

27일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학생 400여명이 《구속학생을 석방하라》, 《미국은 최루탄공급을 중지하라》고 웨치면서 시위투쟁. 서울대학교 농파대학학생들이 최루탄을 쏘아대는 괴뢰경찰놈들 20여명을 돌멩이로 까눕힘 ▶ 서울대학교 치파대학, 의파대학, 약학대학, 법파대학, 사범대학, 공파대학, 교양파정부 및 상파대학 학생들 또다시 투쟁을 전개. 서울의 서강대학 학생들이 시위,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시국백서》와 《결의문》을 발표,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여 계속 투쟁.

28일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의파대학, 공파대학, 농파대학, 음악대학, 외국어대학,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휴업령》파 학생탄압만행을 반대하여 성토대회와 시위투쟁을 전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대의원 회의를 열고 《교련수업을 계속 전면거부하며 교사교련단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29일 서울대학교 의파대학 학생들이 성토대회를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구속학생석방과 휴업령철폐를 강력히 요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자유선언문》을 발표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

3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국민협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4개 단파대학에 들씌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휴업령》을 준렬히 규탄. 서울시내 15개 대학 학생대표들이 구속학생의 석방파 《휴업령》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

6 월

1일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내의 성심녀자대학 학생 600여명이 성토대회를 열고 구속학생의 석방파 학원의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

2일 서울대학교 공파대학파 교양파정부 학생 2천여명이 성토대회와 학생총회를 열고 파쑈적인 휴강조치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결의하고 가두시위, 괴뢰경찰놈들을 돌로 까눕힘. 서울시내 7개 단파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탄압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 ▶ 경기도 부평에 있는 자동차공장에 고용된 로동자들 1천200여명이 로조결성을 방해하는 악질기업주놈의 책동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림.

3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150여명이 학생총회를 열고 《휴업령철회》와 《구속학생석방》, 《학생징계백지화》 등을 강력히 요구, 치파대학 학생들은 서명운동을 벌림.

4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내 농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반대하여 괴뢰어용수탈기구인 《농업조합》에 몰려가 빼앗아간 비료값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 경상북도 영일군 의창면에 있는 괴뢰해군 병사가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부대를 뛰쳐나감.

5일 서울의 우석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이 학원을 수탈장으로, 군사교역장으로 만들어놓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졸개인 《리사》놈들을 반대하여 투쟁,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견결히 투쟁.

7일 경기도 수원시 《명동 시장》내 100여명의 령세상인들이 《시장조합》에 몰려가 박정희괴뢰도당과 악질모리배놈의 시장파괴행위에 항거하여 사무실의 책상과 걸상 등의 기물을 들부시면서 완강히 투쟁 ▶ 경기도 려주군 려주읍 하거리내 100여명의 농민들이 군용도로공사를 벌려놓고 농토와 도로를 파괴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규탄하고 공사를 당장 걷어치울것과 길을 다시 이어놓을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림, 괴뢰경찰놈들과 완강히 싸움.

1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청년협의회》는 사또놈과 《자위대》, 《고위급장교》 놈들의 남조선침입을 반대하며 배일문화운동을 단호히 벌릴것을 호소 ▶ 서울에 있는 미제의 《대사관》에 고용된 90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미제침략자들에게 로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과 생활권의 보장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

14일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대포리내 800여명의 농민들이 서울에까지 집단적으로 달려가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땅을 강탈한 괴뢰도당을 규탄하고 빼앗아간 땅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투쟁, 괴뢰기동경찰과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림.

16일 경상남도 울산시 양정리내 농민들이 공장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수로를 막아치우고 농토를 황폐화시킨 괴뢰도당의 비호를 받는 매판자본가놈의 죄행을 규탄하고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

17일 남조선 미제침략군에 고용되여있는 로동자들이 미제 《대사관》에 고용된 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박해를 당장 걷어치우지 않을때에는 남조선전역에서 공동투쟁을 벌리며 우선 1차적으로 서울지구의 미제침략군 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 6천여명이 일제히 동정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의.

19일 서울시 성동구내 5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살림집들을 마구헐어치우는 놈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여 투쟁.

23일 서울시 동대문구내의 가난한 주민 300여명이 괴뢰구청에 몰려가 강제철거행위를 규탄한 다음 《집터를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며 버티기 투쟁.

25 《기독청년협의회》에 망라된 서울의 대학생들 200여명이 로조결성에 앞장섰던 로동청년을 잔인하게 학살한 괴뢰악당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로동자들과 공동으로 시위투쟁을 벌림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동양고무공장》의 400여명의 로동자들이 악질기업주놈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규탄하고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앉아버티기투쟁.

28일 서울시내 1천 5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시청에 몰려가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행위를 폭로규탄하고 시위투쟁 ▶ 충청남도 보령군 천북면내 5개마을 농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강도적인 수탈행위에 항거하여 집단적으로 괴뢰 《농업조합》에 몰려가 《차압》해간 밀보리를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며 완강히 투쟁.

29일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두전리내 주민 500여명이 괴뢰리사무소에 몰려가 빼앗은 집터를 당장 내놓으라고 버티기투쟁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 사또놈의 침입을 반대배격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신식민주의와 일장기(일본국기)의 화형식》과 시위투쟁을 벌림, 괴뢰경찰대놈들과 맞서 돌벼락을 들씌움, 서울의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성토대회와 시위를 전개,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성명발표.

3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칠성사이다공장》 350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을 33% 올릴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 남조선의 《국립의료원》의 의료일군들이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14일간의 완강한 투쟁끝에 임금을 올리겠다는 다짐을 받아냄.

7 월

1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또놈의 남조선행각을 폭로규탄하는 내용의 수많은 삐라를 서울시민회관 일대에 뿌림.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동에 있는 《삼화운수회사》의 뻐스운전수와 차장 100여명이 넉달동안이나 임금을 주지 않은채 일자리마저 빼앗으려는 악질기업주놈의 악랄한 행위에 격분하여 뻐스운행을 거부하고 밀린임금과 보상금을 즉시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6일 경기도 의정부지구의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150여명의 로동자들이 자기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다못해 《기습감찰》이란 구실로 횡포를 감행하는놈들의 범죄행위에 항거하여 롱성투쟁.

10일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주민 2천여명이 미제침략군놈들이 불의에 마을에 뛰여들어 칼과 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근 100여명의 주민들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흉악한 만행을 감행한데 격분하여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사령관은 공개 사과하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놈들의 병영앞에 몰려가 일대집단적항의를 들이대고 범죄자들을 당장 처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림.

13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보산리내 주민들이 조선녀성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미제침략군놈들의 만행에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놈들을 족치며 격렬한 반미폭력투쟁을 일으킴 ▶ 남조선전역의 섬유부문로동자 1만 2천 400여명이 임금을 25~35% 더올릴것을 요구하여 일제히 쟁의에 들어감.

16일 충청남도 대덕군내녀성 200여명이 무고한 조선녀성을 잔인하게 때려죽인 미제침략군놈들의 살인만행에 격분하여 일제히 병영에 몰려가 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우며 반미시위투쟁을 벌림.

20일 경상남도 창녕군내 농민 1천여명이 괴뢰군청에 몰려가 수리시설이 파괴되여도 아무런 복구대책을 세우지않는 괴뢰도당을 규탄하고 도천면 우강리에 있는 수문을 당장 고쳐놓으라고 요구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광모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에 뛰쳐나와 학원에까지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추잡한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는 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여 가두시위를 벌림.

23일 전라남도 무안군 지도면내 200여명의 주민들이 모임을 가지고 섬과 섬을 이어놓는다는 구실밑에 섬주민들을 략탈하고 혹사해온 괴뢰도당에 항거하여 시위투쟁, 괴뢰경찰놈들과 맞서싸움.

26일 경상남도 울산시 삼산리내 300여명의 주민들이 《농작물피해보상촉진위원회》를 뭇고 악질기업주놈에게 피해보상금 5천 970만원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

27일 경기도 광주군중부면내 200여명의 주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주택강제철거책동을 반대하여 괴뢰 《출장소》에 몰려가 기물들을 짓부시며 3시간이상 완강히 싸움.

28일 경상남도 고성에서 전쟁연습에 내몰린 《향토예비군》 800여명이 미제의 전쟁정책과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폭력투쟁을 벌림.

29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 100여명이 미제침략군우두머리놈에게 항의를 들이대고 함부로 몸수색을 하던 끝에 로동자들에게 폭행까지 감행한 미제악마들을 당장 처벌할것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

8 월

1일 서울의 애국적주민들이 영등포구에 있는 미제침략군 8군단 탄약고에 들어가 30여개의 수류탄상자를 빼앗아 내오는 대담한 투쟁을 벌림.

8일 서울시내 《근대산업회사》의 뻐스운전수와 차장 2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의 날강도적착취행위를 규탄하고 밀린임금 석달분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파업.

10일 경기도 광주군내 농민들과 주민들 5만여명이 괴뢰광주군청안에 있는 《광주대단지서울시 사업소》에 몰려가 괴뢰악당놈들의 략탈죄행을 규탄하면서 놈들의 사무소건물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괴하고 괴뢰도당의 략탈문건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림, 1천여명의 괴뢰경찰들과 치렬한 투쟁을 벌려 많은 놈들을 까눕힘.

1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천면에 있는 《호남탄광》의 로동자 200여명이 악질기업주놈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규탄하고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투쟁 ▶ 경기도 부평에 있는 자동차조립공장의 1천여명의 로동자들이 300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해고시키고 로조조직을 파괴하려는 악질기업주놈의 악랄한 행위에 항거하여 투쟁.

18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광암리내 주민 150여명은 무고한 조선녀성을 잔인하게 때린 미제침략군 2려단놈을 정문까지 쫓아가 놈들에게 복수의 돌벼락을 들씌움.

19일 남조선청년들이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에 있는 일제침략자들의 《위령탑》을 도끼로 까부심.

2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애국적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자동총을 빼앗아냄.

23일 경기도 인천지구 신미도에 있는 괴뢰군병사들이 자기들을 외딴섬에 가두어 놓고 파쑈적인 폭압과 가혹한 《훈련》에 내모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행위에 참을수없어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수십명의 괴뢰군경놈들을 처단함. ▶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내 3천여명의 어민들이 자기들의 어로활동을 억제하는 파쑈적 《어로지지선》을 철폐하고 어로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투쟁.

25일 1만 5천여명의 남조선부두로동자들이 현임금의 57%를 더 올릴것과 기술수당을 지불할것 등을 요구하여 쟁의.

26일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내 상인 500여명이 시장을 철거하려고 달려든 괴뢰악당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우며 그놈들이 타고온 화물차를 짓부서버림.

30일 서울시 동대문구 리문동내 50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도당의 저탄장에 몰려가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저탄장소를 없앨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31일 서울시내의 《평화시장》과 《통일시장》, 《동화시장》의 상인 800여명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가혹한 세금을 들씌워 영업을 하지 못하게하는 범죄적책동에 항거하여 일제히 상점문을 닫고 앉아버티기투쟁.

9 월

1일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 있는 《중앙유리회사》의 400여명 로동자들이 회사에 몰려가 공장의 유리창과 전화기 등을 비롯한 기물들을 들부시며 석달동안의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

4일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견습생들이 《견습생》이라는 구실을 붙여 《숙소》에 강제로 접어넣고 24시간의 근무를 강요하면서 보잘것없는 임금을 지불하는데 참을수 없어 무기한 파업.

7일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의료일군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일군들도 모임을 가지고 임금을 당장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8일 부산과 경상남도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부산철도국에 몰려가 부산철도병원과 그 부근의 넓은 땅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영사관》에 팔아넘긴 박정희매국도당의 반역행위를 준렬히 규탄.

9일 남조선의 기자들의 한집단은 남조선신문들이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보건시책을 폭로하였다하여 언론에 대해 참을수 없는 모욕을 가한 괴뢰보건사회부장관이란놈의 모독행위를 규탄하고 공개사과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10일 《국립의료원》의 의료일군 100여명이 모임을 가지고 《억압된 권리수호》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파업.

14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일대의 주민 100여명이 괴뢰군청에 몰려가 놈들의 강제철거만행을 규탄하고 당장 살아갈 방도를 세우라고 웨치며 시위투쟁.

15일 남부윁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갔던 1천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체불로임》을 지불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악질기업주놈의 사무실로 몰려가 악랄한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폭동 ▶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방림방적회사》 1천여명의 녀성로동자들이 미제와 괴뢰도당의 비호밑에 착취만을 일삼는 매판자본가놈의 범죄적착취행위를 폭로규탄하고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투쟁.

17일 충청남도 대전시 주변 산성동내 주민 200여명이 가난한 주민들의 집터까지 팔아먹는 괴뢰악당놈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가두시위,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싸움 ▶ 고려대학교 학생 1천여명이 성토대회를 열고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유린하는 파쑈악당들의 죄행을 규탄하고 처벌받은 학생회장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여 투쟁.

18일 부산에 있는 《대한더일회사》 640여명의 대표 30여명이 회사사무실에 몰려가 악질기업주놈의 날강도적착취행위를 폭로규탄하고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롱성투쟁.

19일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내 주민 1천여명이 괴뢰악당놈들에게 항의서를 들이대고 재난만을 들씌우는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시설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하여 투쟁.

21일 미제의 남부윁남전쟁마당에 끌려갔던 남조선로동자들의 가족들이 서울시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진상사》사무실에 몰려가 《구속한 남편과 아들을 당장 석방하라》, 《밀린임금을 지불하라》 등 구호를 웨치며 롱성투쟁.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칭송하는 론문을 연세대학교의 한애국적교원이 간행물에 기고하여 싸우는 청년학생들을 힘있게 고무.

28일 서울의 연세대학교학생 600여명이 성토대회를 열고 파쑈적인 군사훈련의 전면철폐와 《현역교관》놈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여 시위투쟁, 괴뢰경찰놈을 돌로 까눕힘.

29일 충청남도 론산군에 사는 김아무개주민은 《김일성수상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계시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님녁동포들의 심중을 샅샅이 헤아리시고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베푸시는 김일성수상님의 높고높은 은덕을 이루다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표시함.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상도동내 100여명의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몰려가 자기들을 뼈빠지도록 부려먹고 품삯한푼 주지않는 악질모리배놈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품삯을 당장 내라고 앉아버티기 투쟁.

10 월

2일 서울의 《한진행동회사》에 고용되여 혹사당하고있는 150여명의 로동자들이 공사현장에 몰려가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웨치며 버티기투쟁.

6일 남조선의 강원도 원주시내 1천여명의 종교인들이 매국배족을 일삼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밀수행위와 협잡행위를 폭로규탄하며 시위투쟁, 괴뢰무장경찰놈들과 치렬히 투쟁 ▶ 경상북도 대구시의 극장, 영화관들에서 일하는 종업원 300여명이 극장, 영화관들에서 영사기와 기타 시설들마저 갖지못하게 하는 파쑈악당놈들의 폭압책동에 항거하여 롱성투쟁 ▶ 서강대학교 학생 400여명이 《대학수호궐기대회》를 열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원군사화책동을 폭로규탄한 다음 《교련을 전면철페하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대중적인 시위, 괴뢰경찰놈들과 과감히 투쟁 ▶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섬유회사 6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을 40% 더올리며 부당하게 해고당한 로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7일 고려대학교 학생 1천여명이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여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학원의 자유와 민권을 보장하라》, 《경찰에 련행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등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림, 200여명의 괴뢰경찰들과 투쟁.

8일 고려대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대학생총회를 열고 괴뢰《집권층》의 반역적망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와 법과대학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여 투쟁, 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투쟁에 궐기.

11일 고려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괴뢰군을 학원에 침입시켜 란동을 부리게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부당하게 체포한 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웨치며 시위투쟁, 괴뢰경찰놈들을 돌로 까눕힘. 서울시내 6개대학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결사적으로 투쟁할것을 굳게 결의. 연세대학교 1천 500여명의 학생들이 《무장군인들의 학원탄압은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범죄행위이다》라고 규탄하고 시위, 최루탄을 쏘아대는 괴뢰무장경찰놈들을 돌로 까눕힘. 전남 광주의 전남대학교 300여명 학생들도 파쑈악당들의 야수적탄압만행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 500여명, 교양과정부 학생 300여명과 성균관대학교 학생 500여명, 동국대학교 학생 200여명이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대중적인투쟁에 또다시 궐기.

12일 서울의 고려대학교 학생 600여명이 성토대회를 열고 학원군사화책동과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하고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들씌우며 격렬한 시위투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150여명, 상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학생들도 괴뢰도당의 악정과 파쑈적만행을 견결히 규탄. 전라남도 광주의 전남대학교 1천 500여명의 학생들이 괴뢰경찰놈들을 돌로 까눕히며 시위투쟁. 연세대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부정부패의 원흉을 상징하는 허수아비의 화형식을 갖고 경찰놈들을 돌로 까눕힘. 건국대학교 학생 1천여명과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 학생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

13일 학원탄압을 반대하여 서울대학교의 7개단과대학 700여명의 학생들이 비상학생총회를 가진 다음 괴뢰중앙정보부를 상징한 허수아비의 장례식을 갖고 시위투쟁. 전라남도 광주의 전남대학교 학생 600여명이 파쑈탄압에 미쳐날뛰던 괴뢰경찰서장놈을 돌로 까눕히면서 시위투쟁. 서울의 연세대학교와 신학대학 학생들도 계속 투쟁.

14일 부산의 동아대학교 학생 5천여명이 성토대회를 가진후 《무장군인의 학원탄압을 규탄한다》, 《부정부패를 일소하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 500여명의 괴뢰경찰놈들과 치렬한 투쟁.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학생 1천 500여명, 단국대학교 학생 200여명, 건국대학교 학생 100여명, 한양대학교 학생, 동국대학교 학생 2천여명, 서울의 외국어대학 학생 300여명,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3천여명, 전남 광주의 전남대학교 학생 500여명도 학원탄압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20일 전남 광주의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파쑈적 《휴업령》을 반대하여 집단적인 수업거부투쟁을 벌림, 전남대학교와 령남대학교의 교수, 교원들이 파쑈적인 학원탄압에 견결히 항의.

23일 서울시 성북구 도봉동에 있는 《신원교통회사》의 뻐스차장들이 악랄한 박해책동에 항거하여 투쟁.

26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내 주민들이 악질기업주놈의 회사에 몰려가 밀린 품값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투쟁.

11 월

1일 경기도 인천시내에 있는 《경성공작소》 로동자들 200여명이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회사마당에 모여 밀린임금을 내놓으라고 웨치면서 대중적인 롱성투쟁 ▶ 미제의 남부윁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갔던 남조선로동자들의 가족들이 괴뢰국회앞에 모여 밀린 임금을 당장 내놓을것과 부당하게 체포구금한 가족들을 빨리 석방할것 등을 요구하여 계속 투쟁.

2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천일두부공장 로동자들이 악질기업주놈의 략탈죄행을 규탄하고 빼앗아간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롱성투쟁.

3일 남조선청년들이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마지리에서 적들의 군용차를 기습하여 많은 탄약이든 상자와 카빙총을 빼앗아 가지고 자취를 감춤.

6일 서울시 동대문구 룡두동내 주민들이 괴뢰군살이를 배격해 나선 청년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괴뢰《수도경비사령부》의 헌병놈들을 벽돌로 까눕힘.

7일 10월 11일부터 쟁의를 벌려온 서울시내 2만 1천여명의 운수부문로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여 파업을 결의.

9일 미제의 남부윁남침략전쟁터에 끌려가 갖은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혹사당한 남조선로동자들이 《현대건설회사》를 상대로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투쟁 ▶경기도 양주군내 1천 300여명의 주민들이 악질기업주놈의 횡포에 항거하여 투쟁.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고 제놈들의 책동을 반대하였다하여 부당하게 학교에서 쫓아낸 학생들을 복교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

11일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에 있는 괴뢰륙군모부대 경비중대의 박아무개 병사는 생트집을 걸어 자기를 마구때린 상관놈의 만행에 격분하여 총탄을 퍼부어 아홉놈의 악질상관놈을 쓸어눕히고 괴뢰군부대를 뛰쳐나옴.

15일 경상남도 진해의 화학공장 로동자 500여명이 임금을 올리며 거울나이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여 투쟁.

19일 충청북도 중원군 산척면 원월리 마을에서 한 종교인이 200여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 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는 연설을 하여 많은 청중들을 힘있게 고무.

26일 경기도 부평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120여명의 로동자들이 민

족적멸시를 일삼는 미제야수놈들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미제침략군의 한부대사령관놈에게 요구하여 투쟁. ▶ 부산지구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 로동자들이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놈들에게 임금을 30%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

29일 미제의 범죄적인 남부윁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가 총알받이로 내몰렸다가 불구가된 남조선괴뢰군병사들이 살아나갈 대책을 요구하여 집단적인 투쟁을 벌림.

30일 남조선 전역의 철도, 전매, 체신, 운수, 부두 등 6개 부문의 로동자 5만 4천여명이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림.

12 월

1일 남조선 전역의 부두로동자 1만 5천여명이 현임금을 58%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여 공동투쟁 ▶ 남조선 전역의 미제침략군 기관에 고용된 3만 2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결의 ▶ 일본군국주의독점체들이 경영하는 《도꾜은행서울지점》과 《미쯔비시은행서울지점》에 고용된 남조선종업원들 60여명이 임금 30% 올릴것과 로동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 부산의 4천 400여명의 부두로동자들이 임금 58% 더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

6일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은행에 얽매여 혹사당하는 130여명의 종업원들이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할것과 임금 30% 올릴것을 요구하여 쟁의.

7일 남조선의 대구와 대전에 있는 방직공장의 5천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11월 27일과 12월 6일, 7일에 각각 지구별로 모임을 가지고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림.

10일 서울시내 《천우토건회사》의 40여명의 로동자들이 악질기업주놈의 간악한 략탈행위를 반대하며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롱성투쟁.

14일 미제독점체의 《제1은행 서울지점》에 고용된 남조선종업원들이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자기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면서 악랄한 착취행위를 일삼는 미제승냥이놈들을 준엄히 규탄하고 임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16일 경기도 인천시에 사는 애국적주민 사아무개는 모략적《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막뒤에서 전쟁준비와 인민탄압에 미쳐날뛰던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하는 벽보를 써붙임.

28일 남조선의 《동화통신사》종업원들이 모임을 갖고 종업원들을 집단해고하는 악질기업주놈의 행위를 규탄하고 집단해고 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30일 부산진구 범천1동에 있는 《동해고무공업사》의 150여명의 로동자들이《밀린임금을 지불하라》고 웨치며 롱성투쟁을 벌림,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림.

재일조선공민주요일지

(1971년 1월—12월)

1 월

1일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삼가 축하전보를 보내여 옴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새해축하인사를 보냄 ▶ 한덕수의장이 여러나라 지도자들에게 새해 축전을 보냄.

2일 삿뽀로쭌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조사단을 환영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주신 교시학습을 총련산하 모든 단체들에서 일제히 진행.

9일 김일성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의 할일을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한 간또지방 열성자대회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일본각지에서도 진행)

11일 총련중앙 정재필부의장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14명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한 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규탄하는 담화발표.

1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공모결탁하여 5년동안에 걸쳐 벌려온 《영주권신청》 강요책동이 수치스러운 결과로 끝난것과 관련하여 60만 재일동포들은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21일 총련산하 모든 단체들에서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해설 강연회 일제히 진행.

23일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에서 삿뽀로쭌동기올림픽경기대회와 제3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과 남조선선수단을 공동으로 환영 성원할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영향하의 체육단체에 보냄.

24일 제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제1진이 조국을 향하여 일본을 떠남.

29일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내이는 대회,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계승자들의 승리와 단결의 대회 총련제9차전체대회 개막 ▶ 제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제2진이 일본을 떠남.

30일 삿뽀로쭌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올림픽선수단을 환영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31일 총련제9차전체대회폐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채택.

2 월

3일 김일성원수님께서 서른여덟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감사 편지를 드림, 그리고 한덕수의장이 담화발표 ▶ 총련제9차전체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의 귀환보고모임 각지에서 진행.

5일 당제5차대회보고 집중학습이 각지에서 일제히 진행 ▶ 한덕수의장이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에 대한 합의문건들에 조인이 이루어진것과 관련하여 일본적십자사에 합의사항을 충실히 리행할것을 강력히 요망하는 담화를 발표.

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밑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의 배길이 다시 열리게 된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편지를 드림, 총련산하각단체들에서도 보내여 옴.

7일 총련중앙 부의장이 삿뽀로쭌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단에 대한 일부 분자들의 불순한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여 담화발표.

8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채택 ▶ 한덕수의장이 삿뽀로준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단의 경기를 방해하기 위하여 벌린 박정희괴뢰도당의 비렬한 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총련제9차전체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련산하 단일단체들의 정기대회들이 진행 ▶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 도꾜조선청년학생 이어달리기 12차대회 진행.

14일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 선수들이 삿뽀로준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여 담화 발표.

15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3.1인민봉기 쉰두돐을 공동으로 기념할것을 《민단》에 제의.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00억 2천여만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삿뽀로준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 도꾜에 돌아온 우리 나라 올림픽선수단을 환영하는 모임 조선회관에서 진행.

18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00억 2천여만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재일조선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2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삿뽀로준동기올림픽경기에 참가한 한필화선수와 20여년이나 헤여져 생사여부조차 몰랐던 그의 오빠와의 상봉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범죄적책동으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3일 총련제9차대회결정을 해설침투하는 대중강연회 일제히 진행.

24일 재일본조선인인권옹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파쑈적악법인 《출입국관리법안》을 국회에서 조작하려고 또다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사또반동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담화발표.

27일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결성 스물다섯돐을 축하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 월

1일 3.1인민봉기 쉰두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미제침략자들이 《한미련합대공수작전훈련》을 벌리며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규탄하는 항의문을 닉슨도당에게 보냄. 총련도꾜도본부관하 각 지부들에서 미제침략자들의 《한미련합대공수작전훈련》을 견결히 폭로규탄하는 가두선전을 일제히 벌림.

3일 총련제9차전체대회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총련 각 지부들의 정기대회 각지에서 일제히 진행.

5일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 상품전람회가 오사까에서 성황리에 열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 전람회가 조일두나라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와 우호친선의 강화에 더한층 기여할것을 바라는 담화발표

8일 도꾜도내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수백명이 일본반동정부의 《출입국관리법안》과 《학교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립법화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힘찬 가두선전을 벌림.

13일 한덕수의장이 윁남인민의 《전국반미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윁남,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 전문을 보냄.

15일 조은야마구찌신용조합 본점준공축하모임 진행.

1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사또반동정부가 각의에서 《출입국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을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안》의 국회제출을 그만두고 그 성립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경히 요구하는 성명발표.

18일 파쑈적악법 《출입국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기어이 립법화하려는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2일 한덕수의장이 파쑈적 《출입국관리법안》을 반대하는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줄데 대한 요청문을 일본의 각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에게 보냄 ▶ 제31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을 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23일 한덕수의장이 재일조선고급학교들의 졸업식에 즈음하여 졸업생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냄.

24일 조선대학교 제13회 졸업식 진행.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열렬히 축하하는 연설회가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 오사까부본부관하 2천여명의 동포들이 파쑈적인 《출입국관리법안》의 범죄적본질을 폭로 규탄하는 가두선전을 벌림.

27일 총련중앙부의장인 조국선수단재일조선인환영위원회 위원장이, 제31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모략을 꾸미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담화 발표.

4 월

1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1971~1972학년도입학식에 즈음하여 중고급학교입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2일 1970년 12월 22일에 오사까에서 개막되였던 우리 나라 상품전람관을 페관하는 모임 진행.

3일 제4차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동포들의 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4일 히가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중급부교사준공 축하모임진행.

8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서른아홉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편지를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드림,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앞두고 총련의 각 강연구들에서 강연회 진행.

14일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 제13회 졸업생들에게 보내주신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수령님께서 재일본조선인 상공련합회 결성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애국적인 동포상공인들에게 보내신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음악무용조곡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공연이 있음(각도, 부, 현대회도 일제히 진행) ▶ 김일성원수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편지를 드림.

16일 4.19인민봉기 열한돐기념,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9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24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학습을 위한 재일조선과학자들과 총련의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과학연구토론회 조선대학

교에서 진행.

25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창립 스물다섯돐기념 체육관준공축하모임 진행

26일 한덕수의장이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28 총련 제9차전체대회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총련분회총회들이 일제히 진행.

5 월

1일 5.1절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각 현본부들에서도 기념대회 진행.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쉰아홉돐을 축하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우승기타기,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일군체육대회 도꾜에서 진행 ▶ 교또조선회관준공축하모임진행.

4일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다섯돐기념 총련일군들의 모임도꾜에서 진행.

5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조선대학교창립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교원들과 리사회 리사들에게 보내주신 표창장과 선물 전달모임 도꾜에서 진행 ▶ 조선대학교창립 열다섯돐 축하모임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9일 히로시마 조선중고급학교 기숙사준공축하모임진행.

11일 파쑈적《출입국관리법안》을 견결히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4일 귀국재개 제1차선(156차)이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19일 재일본조선인민족교육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의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악질적인 모략사건들을 빈발시키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수교양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크게 기여한 조선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수중 및 부교수중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25일 총련결성열여섯돐기념 재일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재일조선인인권옹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파쑈적인 《출입국관리법안》이 폐안으로 된것과 관련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것이라는 담화 발표.

29일 재일본조선청년학생단체들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군사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힘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공동으로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에 보냄.

30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규탄하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6 월

2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청년학생 축하단을 환송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 오사까조선회관준공축하모임진행.

5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따라배우기위한 후가이도 조선청년학생들의 모임진행 ▶ 한덕수의장이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수립 두돐에 즈음하여 휭떤팔주석에게 축전을 보냄.

10일 재일본조선교직원동맹중앙위원회에서 7월에 쁘라하에서 열리는 《교직원조합의 권리와 직업의 보장에 관한 국제로동조합회의》에 참가할 자기 대표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즉시 낼것을 일본반동당국에 요구하는 성명 발표.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8일 157차 귀국선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25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철거를 요구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 후꾸이회관준공축하모임진행.

26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각 단일단체들의 회의 진행.

28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결정집행을 위한 각현본부 집행위원회회의들이 진행.

3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일본사또놈이 박정희매국역적의 《대통령취임식》에 기여드는것과 관련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당장 중지하라는 성명 발표.

7 월

5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중앙모임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0일 한덕수의장이 칠레에서 심한 자연재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위문전문을 보냄 ▶ 재일본조선인민족교육대책위원장이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집단폭행만행을 견결히 규탄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

12일 총련선전원 및 성인교육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6일 제158차 귀국선이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를 떠남.

18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재일본조선소년단원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21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한덕수의장이 뀨스까재생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뀨스까인민공화국 내각수상에게 축전을 보냄.

27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여덟돐기념 재일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총련중앙국제국장이 미제의 사촉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29일부터 도꾜에서 이른바 《한일협력위원회 제3차총회》를 열고 침략과 매국을 위한 모의를 벌리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담화발표 ▶ 나가노 조선학원의 법인인가와 나가노 조선 초중급학교의 설치인가를 획득.

31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열여섯돐기념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8 월

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17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각국대표들을 위해 환영연회를 차림.

4일 재일본조선교육일군 제6차교육방법연구대회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5일 한덕수의장이 일본적십자사 사장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본에 표착한 우리 나라 선원 김남선을 조국에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청문을 냄 ▶ 총련중앙국제국장이 일본반동당국에 우리 나라 선원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조국에 돌려보낼것을 요구하는 담화 발표.

6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흔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감사편지를 드림,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7일 동해상사주식회사 창립열돐축하모임 도꾜에서 진행.

1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8.15해방 스물여섯돐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할것을 《민단》에 제의 ▶ 각 현본부들에서 총련선전원 및 성인교육열성자대회가 일제히 진행.

12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흔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을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성명을 발표.

14일 한덕수의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위원장에게 회담편지를 보내여 《해외조선동포통일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의에 지지를 표명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 ▶ 위대한 수령님께서 8월 6일에 하신 연설을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5일 8.15해방 스물여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채택.

16일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위원장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8월 14일 편지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담화 발표.

17일 한덕수의장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 대표들의 대회를 열렬히 지지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대회를 공동으로 가질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에 보냄.

20일 한덕수의장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이 판문점에서 첫 접촉을 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 ▶ 159차로 귀국하는 동포들을 태운 《만경봉》호가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21일 한덕수의장이 로므니아해방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국가쏘베트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23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사또반동정부당국에 우리 나라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보냄.

28일 재일조선축구단결성 열돐기념모임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9 월

1일 도꾜도본부 관하 100여명의 동포들이 일본반동정부의 수상관저와 일본법무성에 몰려가 조국래왕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요청투쟁을 힘차게 벌림.

2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대변인이 남북적십자단체간의 회담을 지지하는 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의를 《민단》이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총련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 발표 ▶ 총련의 강연구들에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8월 6일에 하신 연설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으로 대중강연회 진행.

4일 한덕수의장이 후꾸시마 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준공축하모임 뒤끝에 내외기자들과 만나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우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담화를 발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도꾜에서 진행(각지에서 일제히 진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재일 각국인사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축하연을 차림 ▶ 한덕수의장이 벌가리아사회주의혁명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국가쏘베트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16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에서 남북조선적십자단체간의 예비회담을 취재보도할수 있도록 일본재입국허가를 낼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일본반동정부당국에 제출, 또한 협회는 남북조선적십자단체간의 회담을 성사시키며 통일의 기운을 높여가기 위하여 남북조선기자들이 함께 힘쓸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영향하의 《한국통신신문협회》에 보냄.

17일 제160차귀국선 《만경봉》호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18일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간의 회담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일본각지에서도 진행)

19일 도꾜에서 남북조선적십자단체사이의 예비회담을 지지하는 《민단》영향하의 《재일한국학생동맹》 동포학생들의 집회가 열림.

20일 한덕수의장이 남북조선적십자단체 대표들의 예비회담 제1차회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적십자회대표단의 제안을 지지하는 성명발표.

24일 제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18명) 도꾜를 떠남.

25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를 축하하는 재일조선녀성대표단과 재일동포들의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감사드리는 재일조선교육자대표단이 도꾜를 떠남.

26일 오사까에서 《민단》영향하의 동포청년학생들이 남북적십자단체사이의 예비회담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짐.

28일 조선신보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음.

30일 한덕수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주은래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10 월

1일 한덕수의장이 기네공화국 독립열세돐에 즈음하여 아흐메드 세쿠 투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3일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기념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기념 사진전시회 도꾜에서 열림.

4일 어버이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감사전문을 드림 ▶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기념 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 김일성원수님께서 마흔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한덕수의장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는 담화를 발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축하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기념 중앙체육축전이 도꾜에서 진행 ▶ 한덕수의장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발테르 울브리히트국가쏘베트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7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흔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8개 학교들에 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후의 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발표 다섯돐기념보고회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편지를 드림 ▶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공포 여덟돐에 즈음하여 조선신보가 《공화국공민된 영예를 더욱 굳건히 지키자》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음 ▶히가시오사까조선제2초급학교 새교사준공축하모임진행.

11일 총련 제1부의장이 《요미우리신붕》국제정세조사회의 초청으로 《남북조선적십자회담과 통일문제》에 대한 강연을 함.

15일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우리 나라공학파학원, 사회파학원 겸임 연구사 임명에 대한 전달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재일본조선인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축하연을 차림.

16일 박정희피뢰도당의 군사파쑈폭압을 규탄하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7일 총련 분회열성자 제10차대회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18일 끝남)

22일 제161차귀국선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를 떠남.

23일 한덕수의장이 삿뽀로에서 일본기자들과 회견하고 조일량국간의 관계개선, 남북조선적십자단체대표들의 회담 등 일련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담화발표.

25일 훗가이도조선초중급학교창립열돐기념 새교사준공축하모임진행.

26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어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한덕수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한것과 관련하여 주은래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11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련효고현 열성자대회 아마가사끼시에서 진행,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각현본부, 단일단체열성자들의 모임진행).

3일 광주학생운동 마흔두돐기념, 박정희피뢰도당의 군사파쑈폭압을 규탄하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각지방대회도 진행)

6일 한덕수의장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승리 쉰네돐에 즈음하여 쏘련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냄.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국통일사 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사와 깊은 련계가 있는 재일본시대사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전달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1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신 한돐을 기념하는 총련일군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어버이 수령님께서 재일본조선인 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재일본 각급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영예의 표창장과 선물 전달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예술축전 도꾜에서 진행.

13일 조국을 방문하였던 제5차조국방문단 성원들이 도꾜에 도착 ▶ 현정세와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옹호에 관한 간담회 도꾜에서 진행(오사까, 나고야에서도 진행).

15일 《150일간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기 위한 조청열성자들의 중앙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16일 도꾜와 가나가와, 지바 등지의 각계층 동포들 200여명이 조국 왕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할것을 일본반동정부에 요구하여 요청투쟁.

17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각급 학교들과 학생들에게 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신데 대하여 그이께 감사드리는 모임이 각 현본부 및 각급 학교들에서 진행.

20일 재일본조선인중등교육실시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학생미술전람회 도꾜에서 진행.

24일 총련 제1부의장이 일본기자구락부만찬회에 참석하여 《현대 조선의 기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함 ▶삿뽀로동기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한 총련일군들과 애국적동포상공인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 동해상사주식회사 제11기주주총회가 도꾜에서 있음.

26일 총련 구마모또현본부 회관준공축하모임진행.

27일 총련 제1부의장이 《도꾜대학》의 초청으로 《오늘의 조선문제와 아세아정세》에 대한 강연을 진행.

12 월

1일 《3.1월간》창간 서른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출판보도일군들의 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6일 제5차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일동포들의 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7일 박정희파쑈악당의 《비상사태》선포소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외무성성명을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성명 발표 ▶ 히로시마조선제2초중급학교의 설치인가를 획득.

8일 한덕수의장이 탄가니카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11일 총련 지방가무단 예술경연대회 도꾜에서 진행 ▶ 재일본조선학생 제16차학파별 연구토론회가 도꾜에서 진행.

15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중앙상임위원회는 내외반동들과 결탁하여 총련조직을 파괴와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 일부 분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조선신보가 제5천호 발간을 기념.

17일 제162차귀국선 《만경봉》호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를 떠남.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흔두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그이께 감사편지를 드림, 한덕수의장이 담화발표 ▶ 한덕수의장이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한돐에 즈음하여 남부월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원우수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 총련 제1부의장이 《뉴욕타임스》 도꾜지국장과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24일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흔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진행 ▶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에서 총련에 대한 일부 변절타락분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을 단호히 규탄단죄하는 성명 발표.

28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에게 보내주신 선물 전달모임 도꾜에서 진행,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0일 조선신보가 박정희피뢰도당이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파쑈악법을 날조하여 괴뢰국회에서 날치기로 통파시킨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사설을 실음.

국제 주요 일지

(1971년 1월—12월)

1 월

3일 3대륙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네팔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까뜨만두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4일 다마스끄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대표부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 및 사상을 연구하는 혁명위원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5일 중국과 칠레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말리정부가 제국주의의 반동적사상문화침투의 도구로 되여있던 개인경영회사에 속하는 모든 영화관들을 폐쇄할데 대한 결정 채택.

6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라오스애국전선창건 15돐에 즈음하여 전체 라오스인민들, 간부들과 전투원들에게 반미구국투쟁에서 더큰 승리를 쟁취할것을 호소.

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3대륙류학생들이 모임 진행, 모임에서는 조선인민을 비롯한 싸우는 인민들을 지지하는 성명 채택.

8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미제와 타이반동들, 남부웰남괴뢰도당이 캄보쟈 샴만의 바다밑 석유자원과 광물자원을 략탈하는 죄행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 리비아아랍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가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발표(조선중앙통신) ▶ 가나에서 전국인민당창립대회 진행(10일까지) ▶ 우루과이민족해방운동성원들이 반동정권을 부추기면서 온갖 악랄한 행위를 감행하던 영국대사 잭슨이란놈을 랍취.

9일 웽그리아에 있는 진보적아프리카류학생들이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10일 파키스탄전국해운회사 선박《스와트》호 선원들이 《김일성수상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를 결성 ▶ 3대륙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이라크에서 공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이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수단내각비상회의에서 팔레스티나항쟁운동에 4만수단파운드의 원조를 줄것을 결정 ▶ 칠레정부가 이전 정권이 미제와 맺었던 공군기지협정을 더 연장하지 않고 3개의 기지를 모두 철폐 ▶ 리비아정부는 리비아에서 반제적이며 혁명적인 조치들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행위를 감행하던 미제어용기자놈을 내쫓음.

11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비서 구스따브 후싸끄를 단장으로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14일까지 벌가리아방문.

12일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파쑈악당의 야수적인 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 브라질유격대의 한 소조가 친미독재당국의 한 식량창고를 습격하여 많은 식량을 로획, 자동차로 식량을 실어다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반정부선전사업진행 ▶ 뻬루정부는 미제독점자본가놈의 동광회사인 께루베꼬동광을 국유화하기로 결정(조선중앙통신) ▶ 로므니아가 또고와 대사급외교관계 맺음.

13일 웽그리아에 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이 부다페슈트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꽁고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도꾜에서 일본의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들과 광범한 각계 인사들이 삿뽀르동기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선수단 환영위원회를 결성 ▶ 벌가리아 아. 아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가 우리 나라 국적을 되찾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여 성명발표(조선중앙통신) ▶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니꼴라이 뽀드고르느이가 아랍을 공식방문, 방문기간 아스완수력시설준공식에 참가 ▶ 볼리비아정부가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미제독점자본가놈의 광업회사인 《인터내슈널 메탈프로세씽》을 국유화.

14일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가 공무원들속에서 군사훈련과 정치교육을 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

16일 부룬디의 수도 부줌부라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연구소조》를 결성. 결성모임에서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라오스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가 1월 6일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

17일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이 미제와 사또일파의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브라자빌에서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전원회의에서는 현단계에서의 꽁고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고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내부규약》을 채택(조선중앙통신) ▶ 민주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근로자들이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그의 피살 선두돐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시위 진행.

18일 랑군에서 버마련방《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희랍선박 《나브마쵸스》호의 선원들이 《김일성수상로작 및 혁명활동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의 애국적인 군대와 인민들에게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호소 ▶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세네갈강류역 국가기구성원국 제4차 수뇌자회의 진행.

19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캄보쟈에서의 미제의 전쟁확대책동과 놈들의 살륙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0일 버마 랑군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잠비아에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 ▶ 캄보쟈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여줄것을 전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 발표 ▶ 구바가 웰남에

주는 무상경제원조에 관한 협정 조인 ▶까히라에서 애급, 수단, 리비아, 수리아 4개국수뇌자회의 진행. (22일까지)

21일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23개나라의 63개 출판보급기관들이 참가한 제3차국제도서전람회 진행(31일까지) ▶ 까히라에서 전아프리카로조련맹 제4차대회 진행(24일까지).

2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중앙위원회가 꽁고사회주의청년동맹에 보내는 선물전달식이 브라자빌에서 성대히진행 ▶ 캄보쟈민족해방군이 프놈뻰비행장을 공격하여 미제와 론놀도당의 각종 비행기 91대를 까부시고 750여명의 적들을 소멸. 비행장에 있던 놈들의 병영, 창고들을 몽땅 짓부셔버리고 수백톤의 탄약을 폭파시킴으로써 론놀도당의 공군력의 95%이상을 파괴.

23일 까히라에 있는 수단지식인들이 《김일성동지혁명활동 및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수리아 수상 겸 국방상 하페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대표단이 25일까지 알제리를 공식방문.

24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주최로 포트 루이스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성과를 축하하는 사진전람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 웰남정부가 미제침략자들이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발표.

25일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가 인도지나침략전쟁을 확대하며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하려는 미제를 규탄하며 인도지나 세나라 인민들의 반미구국전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괴뢰군, 타이반동군 지어 캄보쟈괴뢰군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소말리아외무성대변인은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침략적인 해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 우간다륙군사령관 이디 아민이 캄팔라에서 군사정변을 일으킴. 대통령 및 국회의 권한과 관련한 헌법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

26일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전채택 ▶ 영국의 히스반동도당이 영국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동적악법인 로조법을 통과 ▶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웰남민주공화국을 친선방문 (2월 9일까지).

27일 미제가 미국군수독점회사들이 대형수송기들을 제작하여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 등지에 식민주의 군대를 실어나르는데 리용하려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것을 승인 ▶ 꽁고정부가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부패한 생활습성들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전국에서 도박장과 그 기구들을 없애기로 결정.

29일 꽁고브라자빌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부아프리카류학생들과 꽁고대학생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짐. 모임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조선영화축전개막식이 콜롬보에서 진행 ▶ 칠레사회당 제23차대회 진행 (2월 1일까지). 대회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 채택. 까를로스 알따미라노를 총비서로 선거 ▶ 기네정부가 기네에 대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지원한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음 ▶ 영국에 있는 미제의 《포드》자동차회사산하 로동자 5만명이 미제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히스도당의 반동적인 로조법조작책동을 반대하여 2개월간 파업.

3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뻬루의 《민족해방》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2월

1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김일성동지로작청년연구소조》결성, 결성모임에서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마로끄민족전선은 미제침략자들이 마로끄령토인 께니뜨라, 시디야히야 및 부크나델라에 군사기지를 비밀리에 계속 두고있는 사실을 폭로규탄하고 군사기지를 당장 철폐할것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 수리아 수상 겸 국방상 하페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 (3일까지).

2일 라오스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강화되는 침략을 단호히 폭로규탄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은 우파괴뢰정부수상에게 긴급전문 보냄.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는 라오스에 관한 1962년 제네바회의 공동의장국들에 긴급 서한 보냄.

3일 에꽈도르당국이 자기 나라에 기여들어 간섭과 파괴암해 행위를 일삼고있는 미제의 《군사사절단》의 철수를 요구 ▶ 남부웰남공화외무성은 미제가 남부웰남괴뢰군을 들이밀어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더한층 강화하기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 소말리아정부가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여 성명.

4일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가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확대책동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성명은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 남부웰남공화외무성,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변인이 각각 발표한 2월 1일, 2일, 3일 성명을 지지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이 남부라오스를 침공한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발표.

5일 슬로벤스꼬의 위뜨라시에서 국제학생동맹 제10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학생단체대표들이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련대성회의 진행. 회의에서 조선인민 및 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문 채택 ▶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강화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발표 ▶ 웰남민주공화국외교부가 미제침략군과 남부웰남괴뢰군이 남부라오스에 침입해들어간것을 준렬히 규탄한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6일 영국의 주요 자동차부분품과 비행기기관을 생산하는 《롤스 로이스》대독점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모대기다가 파산몰락 ▶ 메히꼬당국은 자기 나라 령해에 들어와 도적고기잡이를 하던 미제의 해적선을 붙잡음.

7일 우루과이에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친미반동세력을 반대하여 싸우기 위하여 진보적력량전선을 창설, 창설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사회경제적개혁, 반동독재정권의 타도, 외래독점체들의 예속으로부터 나라의 경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결의 ▶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와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7일 네팔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기념집회 진행, 회의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회랍선박《마그놀리아》호 선원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경축집회를 가지고 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미제가 남부윁남괴뢰도당, 타이반동도당 및 캄보쟈반동들을 내몰아 라오스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8일 끼쁘로스선박《실버 코스트》호 선원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맞이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버마의 《메따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인도의 《내슈널 북에이전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핀란드에서 7만명의 금속로동자들이 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1956년이래 가장 큰 전국적인 총파업 단행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수만명의 침략군과 남부윁남괴뢰군을 남부라오스에 끌어들여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파괴뢰정부 수상에게 긴급 서한 보냄.

9일 네팔의 까뜨만두회관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네팔조선친선협회의 명의로 사진전람회 진행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회담을 가지고 인도지나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두나라인민들의 투쟁결의를 표명한 공동성명 발표 ▶ 이딸리아의 볼로냐시에서 10만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적인 반파쑈시위를 단행, 밀라노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각계층근로자들이 《파시즘을 타도하라!》는 구호밑에 반파쑈시위, 군중집회, 파업투쟁 전개.

10일 윁남민주공화국정부와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남부윁남괴뢰군까지 끌어들여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확대강화하고있는 미제를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 중국과 나이제리아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1일 쎄일론의 콜롬보에서 회교청년동맹성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연구소조》를 결성 ▶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꾸바전국문화위원회 주최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을 기념하는 사진전람회진행 ▶ 조선중앙통신사와 파키스탄국제통신사 사이에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 ▶ 빠나마당국이 인민들의 단호한 요구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과 간섭의 척후병인 《평화군》에 망라된 120명의 간첩악당들을 몽땅 내쫓기로 결정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라오스에 대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확대하고있는 미제와 남부윁남괴뢰들을 지지해나선 영제국주의를 규탄하여 성명.

12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모임을 가짐, 모임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에콰도르에서 로조단체들과 학생단체들 그리고 진보적정당들이 미제의 침략과 간섭 및 략탈로부터 나라의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전선 창설위원회》를 조직.

13일 부룬디에 거주하고있는 아랍인들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결성모임에서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중국정부는 1971년 2월 8일부 윁남—캄보쟈, 2월 9일부 캄보쟈—라오스의 공동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15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윁남민주공화국정부간에 1971년도에 중국이 윁남에 추가적인 경제 및 군사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 맺음, 22일 협정의정서가 베이징에서 조인됨.

16일 콩고에서 프랑스제국주의독점회사들이 가지고있던 산림소유권을 폐기할데 대한 대통령명령을 발표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은 남부라오스에 기여든 미제침략군과 남부윁남괴뢰군, 라오스우파괴뢰군, 타이반동군놈들에게 호된 징벌타격을 들씌워 빛나는 승리를 거둘것을 전체 라오스인민과 무장력에 호소.

17일 국제기자동맹 뻬루위원회 위원장이며 《국제기자상》수상자인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읽고 담화발표 ▶수리아국가수반이 수리아아랍공화국인민회의 창설에 관한 법령 발표 ▶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놈이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라오스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발광.

18일 우리 나라가 기네에 건설하여주는 도자기공장 착공식 마또또에서 성대히 진행.

19일 폐샤와르지구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결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윁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가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계단식전쟁확대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20일 쎄일론의 콜롬보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주체사상연구 쎄일론의학대학소조》를 결성.

22일 영제국주의 우두머리 히스반동도당이 남아프리카인종주의악당들에게 대한 살인무기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

24일 미국의 뉴욕에서 미국의 진보적정치활동가, 기자들, 문화예술활동가들 및 학자들을 망라하는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창설됨 ▶알제리정부가 제국주의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사하라의 모든 천연가스산지들과 나라의 모든 송유관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발포.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일곱돐에 즈음하여 민주독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3대학학생들로 구성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이 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26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각료리사회 제16차회의와 아프리카통일기구 국방문제위원회가 열림.

27일 적도기네에 있는 산로베 및 프린시페해방지도위원회 성원들이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꾸바와 칠레사이에 정기민간항공로를 개설할데 관한 협정 조인.

28일 알제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수리아, 예멘 대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3 월

1일 수리아와 마로끄가 1965년이래

단절되였던 외교관계를 재개.

2일 웽그리아 수도 부다페슈트에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국방상위원회 회의 진행(3일까지) ▶ 캄보쟈민족해방군이 캄보쟈의 시하누크빌에 있는 캄보쟈의 유일한 정유소를 공격하여 정유소시설의 80%를 파괴 ▶까히라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32개나라의 참가하에 국제전람회 개막(23일폐막) ▶일조협회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전쟁연습소동인 《프리덤 볼트》작전을 규탄하여 미제우두머리 닉슨놈에게 항의문 보냄 ▶ 몽골과 소말리아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조선중앙통신).

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이라크정치과학협회 위원장 따하야씨날 하리시가 담화발표 ▶ 중국에서 과학실험용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쏴올림(무게 221kg).

4일 파키스탄전국해운회사선박《젤룸》호 선원들이 《김일성수상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 결성모임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국제학생동맹 제10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세계진보적 청년학생단체 대표들이 조선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조선중앙통신).

5일 파키스탄 키크즈 《김일성수상로작연구로동자소조》 결성 ▶ 세계민주청년련맹이 고공비행훈련도중 항방을 잃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 불시착륙한 조선인민군비행사를 강제억류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준렬히 규탄하여 남조선괴뢰도당에게 항의문을 보냄 ▶ 주은래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웰남을 방문(8일까지).

7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민군비행사를 강제억류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조선중앙통신) ▶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는 미제가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강화하며 전쟁을 인도지나전역에로 확대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 에꽈도르해군이 자기 나라 령해에 비법적으로 침입한 미제해적선 1척을 붙잡음.

8일 꼴롬비아에서 수십만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계엄령》을 박차고 전국적인 총파업단행 ▶ 뽀르뚜갈의 중부지방에 있는 탄코스의 공군기지에서 큰 불이 일어나 식민주의자들의 비행기 11대가 몽땅 불타버림.

9일 웰남민주공화국외교부는 미제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이른바 《프리덤 볼트》라는 위험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미제전쟁두목 닉슨놈의 2월 26일부 이른바 《대외정책서신》을 신랄히 규탄하여 성명발표.

11일 우리 나라 상품전람회가 뉴델리에서 대성황리에 진행(20일까지) ▶ 일본사회당이 미국석유독점체들과 결탁하여 남부웰남의 석유자원을 마구략탈하려고 꾀하고있는 일본석유독점체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12일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또고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파키스탄교원들이 라호르에서 파키스탄 《김일성수상로작연구교원소조》 결성, 결성모임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알제리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로동자들과의 알제리련대성위원회》조직(조선중앙통신).

13일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파키스탄《김일성수상로작연구법률가소조》와 파키스탄《김일성수상로작연구녀성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15일 파키스탄청년기독교인들이 라호르에서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파키스탄정부비그리대학 학생들이 라호르에서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파키스탄청년기독교인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아르헨띠나의 꼬르도바시에서 약 10만명의 로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친미독재당국의 류혈적탄압을 반대하여 총파업 ▶ 미국무성이 중국과의 대결을 피하려는 음흉한 책동밑에 20년동안 실시해오던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려행제한조치를 철회.

16일 파키스탄정부패로르고등학교 학생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달레이지부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1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일곱돐에 즈음하여 네팔 바련시 히라니아도서관의 주최로 이 로작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수단민주주의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위원장 겸 수상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에게 보내시는 선물인 우리 나라 기록영화《수단의 노래》 전달식 진행(조선중앙통신) ▶ 프랑스의 빠리에서 프랑스조선친선협회와 프랑스도서출판사 및 보급사의 공동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열림.

19일 파키스탄 휘먼기독교대학생들이 라호르에서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벨지끄공산당 제20차대회진행 (21일까지).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22일 모리따니교원들이 누악쇼뜨에서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 결성모임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중국과 쿠웨이트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23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위원회》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위원장 피. 엘. 라칸팔 ▶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파키스탄 관쟈버마우법과대학 학생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체스꼬슬로벤스꼬 브라찌슬라바에서 공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각각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시에라 레온에서 미, 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반동군벌들의 군사정변음모를 분쇄 ▶ 우간다에서 2년동안 모든 정치적활동을 정지시키는 법령 발포 ▶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방위청기자단》이라는 간판을 쓴 놈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선동부지역을, 25일에는 《방위청》성원들이 서부전선을 《시찰》.

24일 탄자니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성원들이 《김일성수상의 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를 결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네팔의 수도

까뜨만두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지지하는 모임을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최로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25일 파키스탄의 라왈핀디에서 까우따정부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말리에 있는 상부볼따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각각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칠레인민통일련합정부가 정부의 진보적조치들을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을 단호히 처벌할것이라고 성명.

26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는 기네비싸우 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및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중국과 까메룬이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 ▶ 팔롬비아유격대가 자기 나라에 기여들어와 온갖 착취와 략탈 행위를 일삼던 서부독일놈 3명을 사로잡음 ▶ 윁남민주공화국과 칠레간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정 ▶ 기네와 시에라 레온이 호상방위협정을 맺음.

28일 파키스탄의 라왈핀디에서 파키스탄암따바드정부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일조협회가 남조선에 불시착륙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를 비행기와 함께 당장 공화국 북반부로 돌려보낼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닉슨도당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보냄(조선중앙통신) ▶ 수단을 방문한 애급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는 수단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강점당한 아랍령토를 되찾고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애급의 립장을 재천명, 어떠한 압력이 가해져도 어떠한 전투에 직면해서도 애급인민은 한치의 땅도, 한알의 작은 모래알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

29일 아르헨띠나인민혁명군의 한 소조는 한 텔레비죤방송국을 점령하고 정권에 들어앉은 친미군사악당들을 폭로규탄하고 인민들을 반정부무장투쟁에로 호소 ▶ 중국과 쿠웨이트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30일 아르헨띠나인민해방군에 속해있는 유격대원들이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미제독점회사 7개와 기타 서방제국주의독점자본가놈들의 회사를 폭발물로 파괴 ▶ 쏘련공산당 제24차대회 모스크바에서 진행(4월 9일까지).

31일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1만여명의 레바논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들이 팔레스티나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앞잡이 요르단반동들의 류혈적인 대중학살만행을 규탄하여 시위.

4 월

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팔롬비아 《보치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 중국과 까메룬이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우루파이 수도 몬떼비데오에서 50만명의 근로자들은 반동놈들이 진보적인 신문을 페간한데 항의하며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총파업.

3일 수리아에서 아브둘 라흐만 클레파위를 수상으로 하는 새 정부 구성.

4일 까히라에 있는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산하 학생들이 《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결성, 결성모임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5일 까뜨만두 청년들과 학생들이 네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위원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볼리비아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오지리의 수도 윈에서 열린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인민예술전람회 대성황리에 진행(조선중앙통신) ▶ 딴자니아정부가 딴자니아에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파키스탄 《인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8일 스웨리예 웁쌀라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들이 《김일성원수반제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를 버마의 《묘넝》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9일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성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애급 《알 아흐바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알제리정부가 프랑스제국주의 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사하라석유연구 및 채취회사를 국유화.

10일 일본학자들이 도쿄에서 《김일성저작연구회》를 결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를 파키스탄 《진보》출판사가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 ▶ 아덴에서 우리 나라와 민주예멘정부 사이에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조인.

1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이 시의회의석수를 271개 늘이고 정, 촌의회의석수를 175개 늘이는 성과를 달성, 도쿄도의 19개 교외시들에서는 공산당출신 후보 70명이 전원 당선.

12일 쏘련군사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류학생들이 《김일성원수님의 자위의 군사사상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를 버마《떠찡》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 ▶ 쿠바에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유일적으로 내각에 종속되는 인민재판소들을 설치하기로 결정(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뉴욕에 있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총령사관》이 미국흑인해방투사들의 폭탄벼락에 맞아 폭파.

13일 수단에 있는 에리트레아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의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버마의 《씨비》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을 묶은 문헌집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를 쿠바에 있는 3대륙인민단결기구 출판사에서 출판(조선중앙통신)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청소년교양에서 교

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를 인도의 《판쟈브 부크 쎈터》가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 ▶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수상 펜 누트친왕이 크메르설명절에 즈음하여 크메르인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 ▶ 베네수엘라 중앙종합대학 학생들이 반동적인 《종합대학개혁법》도입책동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6개월간에 걸친 투쟁에서 승리.

14일 팔레스티나녀성들이 까히라에서《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아덴에서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민주예멘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국 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 맺음 ▶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크메르인민의 설명절에 즈음하여 크메르인민에게 보내는 특별서한을 발표 ▶ 민주독일과 적도기네공화국이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남부웰남의 중부고원지역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부웰남괴뢰군 1만여명을 투입하여 악명높은 《람손—720작전》이란것을 벌리기 시작.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아홉돐에 즈음하여 프랑스의 빠리에서 세네갈, 모리따니, 알제리 및 프랑스의 대학교원,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저작선집연구소조》를, 일본도꾜에서 아이찌대학생들이 《김일성수상로작연구회》를 각각 결성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핀란드조선친선협회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아홉돐에 즈음하여 서부베를린에서 진보적인 로동청년, 학생 및 언론계인사들이 망라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의 주최로 사진전람회진행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이딸리아의 《작카부크》 출판사가 출판 ▶ 런던에서 미제의 조종하에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이른바 《영련방성원국》들의 전쟁광들이 《영련방5개국국방상회의》라는것을 벌림(16일까지).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쉰아홉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에 있는 진보적미국녀류기자 엘렌 크레인이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을 높이 칭송하여 담화발표 ▶리비아의 비나가지에서 애급, 수리아, 리비아가 아랍공화국련방을 창설할데 대한 협정 조인.

19일 시에라 레온에서 공화국을 선포, 첫대통령으로 수상 시아카 프로빈스티븐스가 취임 ▶ 구바에서 쁠라야히론전투승리 열돐기념집회 진행.

2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지 서른아홉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아바나에 있는 과떼말라혁명조직 대표 아르만도 레모뜨라가 담화발표 ▶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 쏘피아에서 진행(25일까지).

21일 일본의 도꾜에서 일본학자들이 《김일성저작연구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민주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독일사회통일당창건 스물다섯돐기념보고대회 진행 ▶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놈이 《새아세아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흉악한 침략문건인 이른바 《대외원조에 관한 특별서신》이라는것을 국회에 내놓음 ▶미국의 워싱톤에서 수천명의 퇴역군인들이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며 인도지나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즉시 무조건철수를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시위전개.

23일 쏘련에서 사람(3명)을 태운 우주비행선《쏘유즈—10》호를 쏘아올림 ▶ 노르웨이공산당 제13차대회가 오슬로에서 진행(25일까지).

24일 벌가리아인민회의 외교위원회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 미국에서 100여개의 반전단체들이 《전국평화행동련합》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워싱톤과 쌘프랜씨스코에서 미국력사상 최대규모의 100여만 각계층인민들의 반전시위폭발.

25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서른아홉돐에 즈음하여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이 기념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외무성대변인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한 8개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6일 알제리에 있는 까나리아섬자결 및 독립운동대표부성원들이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라오스애국전선상무위원회와 라오스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상무위원회 대표들이 라오스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의 새제안을 토의(27일까지) ▶ 토이기정부가 계엄령을 선포 ▶ 리비아아랍공화국혁명지도리사회가 아랍공화국련방을 창설할데 관한 협정을 승인.

27일 애급민족회의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된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결의채택 ▶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외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한 이른바 《제4차 5개년방위력정비계획원안》을 발표 ▶ 리비아의 비나가지에서 아랍공화국련방 창설에 관한 선언이 발표됨(조선중앙통신).

28일 바그다드에서 우리 나라와 이라크정부간에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조인 ▶ 《오끼나와의 날》에 즈음하여 일본로동계급을 비롯한 70만명의 인민들이 미제의 오끼나와강점을 종식시키며 《미일안보조약》의 페기를 요구하여 군중집회와 시위, 파업투쟁 벌림.

29일 애급민족회의가 아랍공화국련방을 창설할데 대한 협정을 승인.

30일 알제리에 있는 프랑스인들이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5 월

1일 서부베를린에서 미제와 그의 개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남조선인민의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강력한 시위투쟁 ▶ 볼리비아에서 특별법령을 발포하여 미제의 독점회사로부터 《마띨리데》아연산지의 개발권을 박탈 ▶ 탄자니아민족회의가 주택사용에서 모리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주택소유법》을 채택(조선중앙통신).

2일 핀란드의 땀뻬레에서 《김일성수상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시에라레온에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시에라 레온 조선친선협회, 《조선인민의정당한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 성원들이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 드리는 편지 채택.

3일 사또반동정부의 사법상, 자민당 헌법조사회 회장놈을 비롯한 놈들은 《천황이 일본의 중심이며 일본을 대표한다》고 줴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한 파쑈군사독재제도의 복귀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위한 집회를 도꾜에서 가짐 ▶ 리비아정부가 나라의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에 대한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강도적인 략탈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령을 발표.

4일 서부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진보적인 로동청년, 학생 및 사회계인사들이 《남조선인민의 반제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서부독일프랑크푸르트》를 결성.

5일 프랑스의 빠리에서 《아프리끄 아지아》사 전체 성원들이 《김일성동지저작선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캄보쟈괴뢰정권내에서 벌어지고있는 혼란과 내부모순을 폭로하는 성명 발표.

6일 부룬디에 있는 루안다인들이 부줌부라에서 《김일성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이딸리아의 《아르떼 그라피께 아벤띠나》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로므니아대민족회의 대외정책위원회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한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하는 성명 채택(조선중앙통신) ▶ 캄보쟈민족련합정부 수상인 펜 누트친왕이 캄보쟈왕국 립헌절에 즈음하여 크메르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7일 세계직련뷰로 제3차회의에서 조선근로자들 및 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채택 ▶ 몽골에서 인민혁명승리 50돐에 관한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테제를 발표.

8일 수리아 수도 디마스끄에서 아랍사회부흥당 제5차지역대회진행(14일까지).

12일 버마녀성들이 랑군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녀성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단마르크 쾨뻰하븐에서 종합대학력사학부 학생들이 《김일성동지혁명력사와 로작연구소조》를, 정치학부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건축대학발전학부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각각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워르 앗 사다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전달 ▶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부웰남청년들의 대중단체인 《사회적평등을 위한 청년위원회》가 사이공에서 결성됨.

18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라오스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라오스애국전선의 새제안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1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제1권을 서부베를린에 있는 《붉은기》출판사에서 출판.

20일 칠레정부가 미국놈의 큰 동광산인 《엘 떼니엔떼》광산을 몰수하여 국유화 ▶ 웰남민주공화국외교부가 라오스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라오스애국전선의 새제안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21일 볼리비아정부가 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의 척후병인 《평화군》을 추방하기로 결정.

22일 아르헨띠나인민혁명군이 로싸리오에서 영제국주의《령사》놈을 사로잡아감.

23일 3대륙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은 《재일조선공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5월 25일)에 즈음하여 호소문 발표.

25일 버마의 랑군에서 버마련방《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스위스의 바젤에서 스위스로동당출판보급사의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인민예술전람회》가 성대히 진행 ▶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우리 나라정부와 유고슬라비아정부사이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체결 ▶ 칠레정부가 독점자본가놈들이 소유하고있는 《아루르》, 《쑤마루》, 《싸이드》, 《이르마쓰》회사(방직공장)들을 국유화 ▶ 체스꼬공산당 제14차대회진행(29일까지) ▶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 아련 방문(28일까지).

26일 프랑스의 빠리에서 《아프리끄 아지아》사 전체성원들이 《김일성동지저작선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캄보쟈민족해방군이 민족해방군의 통제하에 있는 스눌지역(캄보쟈—남부웰남국경부분)에 대한 미제와 남부웰남괴뢰군의 《토벌작전》에 섬멸적타격을 주고 스눌지역을 완전히 장악 ▶ 미제해적의 무리들이 까리브해의 공해상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꾸바고기배 4척을 나포하고 8명의 어부들을 붙잡아가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

27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크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전달 ▶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 빠리콤문100돐을 기념하는 근로자들의 대시위진행 ▶ 칠레정부가 칠레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여온 미제의 《포드》자동차회사 지사를 국가가 통제하기로 결정.

28일 중국과 오지리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미제 제7함대와 일본군국주의해군무력이 우리 나라 동해에서 《합동기동연습》이라는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림(6월 5일까지).

29일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이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된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3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를 애급의 《다르 알 타호리르》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 ▶ 일본륙상《자위대 막료장》놈을 두목으로 한 악질장교 4명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향토예비군》의 군사장비를 시찰.

6 월

1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중앙위원회는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새로운 무장공격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민청단체들의 기본임무》를 아련《알 아흐바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베이징에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와 내각수상인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수상인 펜 누트친왕이 공식회담하고 로므니아—캄보쟈공동콤뮤니케 채택.

3일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미제의 전쟁수급사환군인 미국무장관 로져스놈의 지휘밑에 《나토각료리사회회의》진행(3일까지) ▶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100여차의 공격전투를 벌려

미제 173공수려단 《지휘처》와 《작전쎈토》, 괴뢰군 제53보병사단지휘처를 비롯한 4개의 《지휘처》와 플레이크와등하에 있는 비행장과 제5 및 제6 화력기지를 비롯한 수다한 《군사기지》들을 파피소각 ▶ 모스크바에서 국제전축, 목재및건재로동자직업동맹 제6차대회진행(16일까지).

4일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결의문을 채택(조선중앙통신) ▶ 프랑스에서 약 250만명의 체신 및 의료부문일군들과 교원들, 기타 여러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24시간 총파업단행.

6일 쏘련에서 3명의 사람들을 태운 우주비행선 《쏘유즈—11》호를 쏘올림.

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따르에서 몽골인민혁명당 제16차대회 진행(11일까지) ▶ 나이제리아와 탄자니아간에 1968년 4월에 비아프라승인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외교관계를 재개.

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단마르크의 《크레스티안 데일리 뉴스》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1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전문을 단마르크의 《크레스티안 데일리 뉴스》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11일 인도조선친선협회와 뉴델리청년동맹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만행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보냄.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연설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를 모리따니 《지지》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쏘련에서 가맹공화국과 자치공화국 최고쏘베트들, 그리고 지방정권기관(변강, 주, 시, 구역, 부락 및 촌 쏘베트들)들의 선거를 진행.

14일 네팔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이 쏘련을 방문(24일까지).

15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 제17차회의 진행(19일까지) ▶ 민주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독일사회통일당 제8차대회 진행(19일까지) ▶ 꾸바혁명재판소가 5월 22일과 6월 6일 두척의 해적선을 끌고 꾸바령해에 기어들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다섯놈의 미제해적놈들에게 10만딸라의 벌금형을 내림 ▶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윁남을 친선방문(19일까지).

17일 중앙아프리카정부가 자기 나라의 금강석을 략탈해가던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소피카드》회사를 내쫓기로 결정(조선중앙통신) ▶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 대한 공동침략을 위한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할것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오끼나와반환》에 관한 《협정》조인놀음을 벌림 ▶ 일본전국의 42개도, 도, 부, 현의 193개소에서 일본공산당과 일본사회당,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의 공동주최로 침략적이며 굴욕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규탄하는 항의군중모임과 시위진행.

21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 제8차 수뇌자회의 진행(23일까지) ▶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몽골을 친선방문(24일까지).

22일 아바나에서 꾸바와 칠레가 정기항공로를 새로 개설(6월 26일부터)하기로 합의.

23일 수리아의 수도 다마스끄에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위원회회의 진행(24일까지).

24일 체스꼬슬로벤스꼬련방회의 외교위원회에서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호소문을 토의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채택 ▶ 말따인민들이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며 이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도발을 일삼아온 지중해의 나토해군사령관놈을 몰아냄.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조국해방전쟁 21돐을 기념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만강점을 규탄하는 베이징시군중대회 진행 ▶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강요하는 군사교육을 반대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편지를 보냄 ▶ 일본공산당중앙위원회가 사또놈이 박정희매국역적놈의 괴뢰《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한다는 명목밑에 7월 1일 남조선에 기여들기로한것을 규탄하여 사또반동정부에 항의문을 들이댐.

26일 칠레인민통일련합전국지도부는 이전내상을 살해하였을뿐만아니라 그후에도 테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현정부를 뒤엎으려는 우익반동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27일 일본에서 참의원선거 진행, 공산당은 3개의석을 늘여 10석으로, 사회당은 5개의석을 늘여 66석으로 크게 진출 ▶ 말가슈에서 이 나라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온갖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미제대사놈과 대사관놈들을 몽땅 몰아냄(조선중앙통신).

28일 남부윁남인민해방무장력이 퀴논서쪽 데오 손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병참기지를 공격하여 3만 8천톤의 폭탄이 들어있는 25개의 저장고를 폭파. ▶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1차대회 진행(7월 11일까지), 간부당으로부터 대중당으로 이행하는 새규약을 채택.

29일 일본사회당이 일본반동정부 우두머리인 사또놈에게 남조선행각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들이댐.

30일 오스트랄리아에서 수십만군중들이 미제의 윁남침략을 반대하며 수많은 청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윁남전쟁터에 내몰고있는 반동통치배들을 규탄하여 전국각지에서 대규모적인 시위전개 ▶ 레바논평화옹호위원회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 영국히스반동도당이 북아일랜드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900명의 침략군대를 더 보내기로 결정(조선중앙통신).

7 월

1일 일본군국주의의 우두머리인 사또가 남조선박정희매국역적놈의 괴뢰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기여 들어 남조선괴뢰도당과 전쟁모의를 벌림 ▶ 윁남에 관한 빠리회의 제119차전원회의에서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남부윁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7개 항목의 새로운 제안의 성명 발표.

2일 민주독일과 나이제리아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4일 전쟁미치광이인 미국방장관 레어드놈이 일본군국주의의 우두머리들과 흉악한 침략모의(10일까지) ▶ 서부독일의 여러 주에서 4만 8천명의 화학공업부문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거의 한달동안의 파업에서 승리 ▶ 남부윁남 추 라이 기지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아메리칼》보병사단의 수백명 병사들이 남부윁남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 자기들에게 수치스러운 개죽음

올 강요하고있는 닉슨도당을 반대하여 반전시위.

5일 악명높은 일본반동두목 사또는 제놈의 집권 7년사이에 3번째로 되는 《내각개조》를 단행.

6일 미국서부해안의 부두로동자들이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24개의 항구에서 파업 ▶ 뻬루정부가 뻬루에 있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철도회사인 《뻬루비안코퍼레이숀》을 완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넣음(조선중앙통신) ▶ 인도인민들이 뉴델리비행장에서 미제두목 닉슨놈의 《특별보좌관》 키신저놈이 기여든데 항의하여 대중적인 반미시위 ▶ 공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미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로 미국에 억류되였던 꾸바어부 4명이 42일간이나 완강히 싸워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옴 ▶ 사이공에서 20여개 대중단체들로 무어진 《기만적선거를 반대하는 인민운동》이 미제와 느구옌 반 티우괴뢰도당의 기만적《선거》놀음을 반대하여 성명 ▶ 아련의 수도 까히라에서 팔레스티나민족회의 제9차회의가 진행(13일까지) ▶ 이라크정부가 《외교관》의 탈을 쓰고 국내의 반동들을 긁어모아 이라크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파괴암해활동을 벌려온 영국대사관 관원 두놈을 쫓아냄(조선중앙통신)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버마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칠레정부가 독점자본가놈이 소유하고있던 《범미은행》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기로 결정 ▶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이 미제침략군과 수천명의 남부웰남괴뢰군을 캄보쟈의 《앵무새부리》지역에 내몰아 대규모적인 침략작전을 벌림.

9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중조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체결 열돐에 즈음하여 중조우호협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의 공동명의로 《중조친선주간》개막식을 진행 ▶ 닉슨도당이 아세아에서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실현을 위한 미제의 흉악한 1972회계년도 대외군사《원조》계획의 내용을 공개.

1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버마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마로끄에서 왕궁경비대사령관의 지휘밑에 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킴(6시간후 진압) ▶ 적도기네가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그이의 저작집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미국 《인터내슈널 파블리셔스》출판사가 출판(조선중앙통신)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을 인도《진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칠레국회가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을 이루며 미제독점체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있는 동광을 국유화할수 있게 하는 헌법수정안에 관한 법령을 채택, 이날을 《민족적존엄의 날》로 선포.

12일 단마르크 수도 쾨벤하븐의 외스떼르지역의 기관, 사회단체 일군들과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미국방장관 레어드란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및 괴뢰두목놈들과 이른바 《한미안보협의회》라는것을 벌림(14일까지) ▶ 민주독일과 뽈스까령토에서 와르샤와조약참가국군대 참모부 및 후방기관들의 군사연습 진행(21일까지).

13일 이슬란드에서 요한네 쏜을 수상으로 하는 새 정부구성.

14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미제와 그 주구 비엔티안괴뢰도당이 수많은 우파괴뢰군《특공대》놈들과 타이반동군들을 동원하여 자르평원지역에 대한 범죄적인 공격을 벌린것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발표.

15일 칠레에서 큰 동광들인 츄끼까마따, 엑소띠까, 쌀바도르, 안디나스 및 엘 떼니엔떼 광산들을 국유화.

17일 노르웨이웰남단결위원회가 남부웰남문제의 해결에 관한 7개항목의 새 제안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18일 이라크정부가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탄압책동과 관련하여 요르단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량국간의 국경을 폐쇄.

19일 수단에서 이전 혁명지도리사회성원들이였던 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23일 전복됨.

20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국제지구화학일군회의가 열림.

22일 꼬스따 리까의 진보적청년단체들이 미제의 지원밑에 파쑈적테로단체인 《자유꼬스따 리까운동》이 근로자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 사실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23일 까히라에서 아랍사회주의동맹전국대회 진행(26일까지).

24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를 창설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수단은 이라크가 수단에서의 군사정변을 지지한 리유로 외교관계를 단절.

26일 아르헨띠나의 쌀따에서 칠레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와 아르헨띠나대통령 알렉싼드로 라누쎄가 회담을 진행하고 《쌀따선언》에 서명 ▶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열여덟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를 아바나에서 진행.

27일 칠레의 싼디아고에서 진보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프랑스 《씨에마9》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 또한 그이께서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들을 묶은 단행본을 영국 《프린키포》출판사가 출판(조선중앙통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를 에꽈도르 《볼룬따드》출판사가 출판(조선중앙통신) ▶ 뉴갈레도니아섬의 누메아시 근로자들이 생계비를 계통적으로 끌어올리고있는 반동당국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을 반대하여 파업.

28일 까리브해의 소안틸제도 나라들이 그레나다섬에서 회의를 열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 련방창설과 앙길라섬의 독립을 요구 ▶ 에꽈도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며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여 이 나라 근로자들의 90%가 총파업.

2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를 칠레 《쁘렌싸 라띠노아메리까 에쓰. 아》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남부웰남의 사이공의 26개 로조에 뭉친 4만여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괴뢰도당의 가혹한 수탈행위에 항의하여 총파업.

3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칠레 《딸레레스 그라피꼬스 꼬로쁘라씨》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우루과이에서 반정부무장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구금되였던 30여명의 녀성유격대원들이 탈출 ▶ 알제리혁명리사회와 정부가 비상회

의를 열고 요르단반동당국과 모든 련계를 동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 ▶ 로므니아와 감비아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리비아의 수도 따라블스에서 애급, 수리아, 예멘, 민주예멘 및 리비아 수반들이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야수적인 탄압책동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31일까지).

3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메루 《씨글르 베인떼》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총평, 로조원 423만명) 제42차 정기대회 진행(8월 4일까지) ▶ 알제리혁명리사회와 정부가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적독점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 채택.

8 월

1일 영국의 런던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수백명의 미제침략군병사들이 닉슨도당의 범죄적인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시위 ▶ 민주예멘에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족전선조직 총비서 아브돌 파타호와 수상 알리 나쎄르 무함메드 하싸니를 성원으로 하는 새 대통령리사회를 구성.

2일 미국에서 17개주의 수송사업을 마비시킨 16만 3천명의 철도로동자들의 장기간의 파업투쟁이 승리.

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이딸리아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출판사에서 출판(조선중앙통신).

4일 오스트랄리아 철도부문 로동자약 10만명이 임금을 올려받기 위하여 파업, 파업으로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4개주들에서 철도운행이 마비 ▶ 중국과 토이기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5일 중국과 쏘련정부사이의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조인 ▶ 잔지바르혁명리사회가 국가 및 사회재산에 대한 절취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채택(조선중앙통신).

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칠레 《쁘렌싸 라띠노아메리까 에쓰. 아》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8일 자이르친미반동당국이 민주주의적교육의 실시를 요구한 킨샤사의 로바니움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학교 학생 1천여명을 잡아가는 야수적만행을 감행(조선중앙통신).

9일 북아일랜드인민들의 대중적인 폭동적진출로 영제국주의자들이 북아일랜드에 《계엄령》을 선포 ▶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무성은 미제가 캄보쟈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이른바 《웰남화》정책을 다그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0일 일조협회가 도꾜에서 《제5차 한일각료회의》라는 흉악한 모의를 벌리고있는 일본사또정부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 ▶ 모리따니에서 대통령선거와 민족회의선거 진행.

11일 콜롬비아의 수도에서 《라틴아메리카특별조정위원회》 제10차회의를 진행(조선중앙통신).

12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브라질인민혁명전위대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발표 네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민주독일에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독일로동운동의 이름있는 활동가이며 독일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인 칼 리프크네히트탄생 100돐을 기념하는 모임을 진행 ▶ 수리아가 요르단과 외교관계 단절 ▶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와 세네갈이 외교관계를 맺음(조선중앙통신).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말리바마코시청년지도국 성원들이 진행 ▶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수상 루보미르 슈트로우갈이 뽈스까를 방문(14일까지).

14일 영제국주의식민지였던 바레인이 독립을 선포.

15일 미제의 두목 닉슨놈이 미국재정경제의 현실태와 암담한 전망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반영한 이른바 《딸라방위》를 위한 《긴급조치》라는것을 발표.

16일 중국과 이란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8일 쏘련이 웰남민주공화국에 국방력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무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모스크바에서 조인 ▶ 해고를 반대하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조선소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여 서부스코틀랜드의 20만 탄광, 기계, 운수체신 및 상업부문 로동자들과 각계층이 파업과 시위, 항의집회를 전개 ▶ 디마스크에서 애급, 수리아, 리비아 국가수반들이 아랍공화국련방헌법초안을 토의하는 회의 진행(20일까지).

20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이 딸리아어판 제1부가 이딸리아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출판사가 출판(조선중앙통신) ▶ 중국외교부가 유엔에서의 미제의 《2개중국》조작음모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 쥴리어스 케이. 니예레레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내신 타보라학원 교육설비이관식이 성대히 진행됨(우리나라 군사교육대표단에 의하여 이관됨) ▶ 도꾜도 다찌가와시 시장선거에서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이 공동으로 내세운 민주력량의 통일립후보자가 승리 ▶ 말따의 첫 국회회의에서 첫 말따인 총독이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정부의 립장을 표명.

23일 홋까이도에서 《헬리본작전》이라는 일본력사상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림(26일까지).

25일 미국의 24개 항구에서 부두로동자들의 장기적인 파업(7월 1일부터)으로 태평양연안의 해상수송이 완전히 마비 ▶ 일본 도꾜에서 중남미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팽창을 강화하기 위한 《중남미주재 일본대사들의 회의》라는 것을 벌림(28일까지).

26일 온두라스에서 25개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협조와 자금》으로 작성된 친미반동당국의 미국식《교육강령》도입책동을 반대하여 총파업.

27일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제반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국교관계를 맺을것을 사또에게 제기 ▶ 우리 나라를 비롯한 35개나라가 참가한 제8차 알제국제시장 개막식이 진행됨(9월 12일 폐막) ▶ 꾸바 수도 아바나에서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청년들의 군중집회 진행 ▶ 칠레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분배를 국가가 통제하기로 결정 ▶ 챠드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가 실패함, 챠드가 애급(27일), 리비아(28일)와 외교관계 단절.

30일 모리따니 수도 누악쇼트에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에 대한 독자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3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통신사 부사장이 제기

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버마 《메따모》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

9 월

1일 까따르가 독립 선포 ▶ 애급, 수리아, 리비아에서 련방창설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아랍공화국련방형성 ▶ 칠레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가 꼴롬비아를 방문하고 공동선언을 발표.

2일 칠레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의 에꽈도르 방문과 관련한 공동성명 발표.

3일 브라자빌에 있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 채택.

5일 이라크에서 미제의 선전수단으로 리용되는 색정적이며 사회도덕을 문란시키는 영화와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영화들을 금지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

6일 베이징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중국정부사이에 중국이 조선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을 맺음 ▶ 칠레의 발빠라이소에서 세계민청집행위원회 회의 진행(9일까지), 회의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채택 ▶ 우루과이친미반동당국의 뿐따 까레따스감옥에 갇혀있던 우루과이민족해방운동(뚜빠마로스) 성원 129명이 2개의 지하굴을 통하여 집단탈옥에서 성공.

7일 칠레의 수도 싼띠아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칠레사회당 총비서를 비롯한 기타 책임일군들의 참가밑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대회 진행 ▶ 쏘련의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농촌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상영주간이 개막 ▶ 칠레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의 페루방문과 관련한 공동성명발표(조선중앙통신) ▶ 아르헨띠나의 꼬르도바시에서 약 30만명의 로동자들이 비법적으로 감금한 진보적로조지도자들과 애국자들의 석방, 임금인상, 《탄압법》등의 폐기를 요구하여 총파업 ▶ 몽골과 아르헨띠나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칠레 《라틴아메리카》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하노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 기념집회 진행.

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레바논 《다르 탈리아》출판사가 출판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학예술과 관련한 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혁명적문학예술론》을 일본 《미라이샤》출판사가 출판(조선중앙통신).

10일 알바니아와 칠레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레바논 일간정치신문 《사우트 알 우르바》편집국장 이브라힘 조르쥬 삼마스가 《동방이 낳은 천재 김일성》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11일 아랍련맹리사회 56차회의에서 바레인과 까따르의 아랍련맹가입 결정 ▶ 애급아랍공화국에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진행, 투표에 참가한 전체 주민의 99.98%가 새 헌법채택에 찬성.

12일 미국의 아티카시에 있는 미제의 감옥에서 1천여명의 수감자들이 류혈적폭동 ▶ 뿌에르또 리꼬의 5만명 군중이 미국부대통령 애그뉴란놈을 두목으로 하는 놈들이 이 나라에 기여드는데 항의하여 반미시위단행.

14일 아프가니스탄국왕이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와 쏘련정부의 초청으로 쏘련을 방문(20일까지).

15일 벌가리아와 적도기네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6일 민주예멘주재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대표부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중국과 미국이 직통무선전화련계를 회복할데 대하여 합의를 봄.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말리 바마코시에 있는 도서관 관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중국과 벨지끄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8일 애급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까히라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 몽골과 나이제리아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독일사회통일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와 수상 슈토프가 인솔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20일까지).

1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략력》을 꼴롬비아 《보치까》출판사가 《김일성원수 혁명활동 략력》이라는 표제밑에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20일 쏘련의 모스크바에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주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상품전람회 개막 ▶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뿌에르또 리꼬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9월 23일)에 즈음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한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2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나이제리아의 이바단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24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진행, 집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 채택.

25일 칠레 수도 싼띠아고에서 진행된 로동청년들의 제4차 전국회의에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반미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채택(조선중앙통신).

27일 인도수상 인디라 간디가 쏘련을 공식방문(29일까지) ▶ 단마르크의 쾨벤하븐에 있는 일본인 학생들이 재생된 일본군국주의의 화신이며 특급전범자인 일본《천황》 히로히도놈의 이 나라방문을 반대하여 격렬한 시위전개.

2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파키스탄 《아이로그》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29일 세계평화리사회 서기국이 남북두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과 본회담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노력을 지지하여 성명 ▶ 베네수엘라민족해방군에 망라된 유격대원들의 한소조가 도미니까 친미반동정권의 총령사놈을 사로 잡음.

30일 민주예멘 수상 겸 국방상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하싸니가 쏘련을 방문(10월 9일까지).

10 월

1일 쁘라하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있는 아프리카직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이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3일 남부웰남 사이공에서 폭압과 사기협잡으로 티우놈을 《단독출마》하기로 꾸며놓고 《당선》을 날조하는 이른바 《대통령선거》진행 ▶ 쏘련최고쏘베트상업위원회 위원장인 니꼴라이 워또로비치 뽀드고르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당및정부대표단이 민주웰남을 공식방문(8일까지).

4일 모리서스의 수도 포트 루이스에서 우리 나라와 모리셔스사이에 령사관계설정에 합의 ▶ 까히라에서 진행된 아랍공화국련방 대통령리사회(애급, 수리아, 리비아) 제1차회의에서 애급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르가 위원장으로 선거됨.

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발표 다섯돐에 즈음하여 애급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연구발표모임을 까히라에서 진행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진행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 일조무역회가 남북조선적십자단체 사이의 회담을 지지하여 성명(조선중앙통신).

6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주간지 《쓰베뜨쁘라쩨》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있는 회상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의 전문을 실음 ▶ 에티오피아황제 하일레 셀라씨에가 중국을 방문(12일까지) ▶ 미제의 두목 닉슨도당이 100일간 계속해온 미국부두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반동적악법인 《타프트 하틀리법》을 발표하는 《비상조치》를 취함.

7일 애급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까히라에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위원회》결성 ▶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수상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진행하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 스위스의 바젤시에서 스위스—조선공보위원회결성모임을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조선중앙통신).

8일 꾸바에 있는 에꽈도르 혁명적청년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채택 ▶ 오지리의 인스브룩크시에 있는 반제투쟁련대성위원회 회원들이 인스브룩크종합대학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가지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여옴 ▶ 일본 도꾜도 나까노구의회가 일조 두 나라사이에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 채택 ▶ 이딸리아 수도 로마에서 여러 민주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기타 진보적인 정치 및 사회계인사들이 《남조선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를 창설 ▶ 쏘련 내각 수상 아. 엔. 꼬씌긴이 마로끄를 방문(10일까지).

9일 남부웰남주둔 미제침략군 제1공중기동사단의 1개 중대가 상관놈들의 전투명령을 거부하고 폭동 ▶ 화란의 노테르담시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도놈의 화란행각을 반대하여 반일시위전개.

10일 서독의 본에서 대학생들과 인민들이 일본《천황》 히로히도놈이 서독에 기여드는것을 반대하여 강력한 항의시위를 단행.

11일 애급대통령이며 아랍사회주의동맹 위원장 안워드 앗 사다르가 쏘련을 공식방문(13일까지) ▶ 민주웰남정부와 스위스정부가 두 나라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3일 중화인민공화국과 부룬디공화국이 대사급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 ▶ 쏘련에서 《꼬쓰모쓰—444》호로부터 《꼬쓰모쓰—451》호에 이르는 8개의 인공지구위성을 하나의 운반로케트에 의하여 발사 ▶ 일본《방위청》장관 니시무라놈이 침략무력인 《자위대》를 《인도주의적사명》이라는 간판밑에 《해외에 파견할수 있다》는 폭언을 함.

1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끼쁘로스 《자발리스》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시에라 레온 프리타운에서 우리 나라와 시에라 레온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 일본 도꾜에 있는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우호촉진을 위한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발기인 회의 진행 ▶ 리비아아랍공화국혁명지도리사회가 리비아에 있는 4개의 보험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법령발포.

15일 아일랜드공산당 제15차대회가 벨파스트에서 진행(16일까지).

16일 일본 니이가다현 의회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 ▶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제7차동부아프리카및중부아프리카 각료회의를 진행하고 《모가디쇼선언》을 채택.

17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미제가 이른바 《특공대》를 리용하여 라오스에서 침략전쟁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9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힘을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를 버마 《모마보》출판사가 출판.

2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꽁고 국영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일본 전국의 47개 도, 도, 부, 현의 600여개 도시에서 150여만의 인민들이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비준》을 반대하여 군중집회와 시위를 전개.

22일 오지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인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및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채택 ▶ 꼴롬비아국회하원이 우리 나라와 외교, 경제 및 문화적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외교위원회의 제의를 채택 ▶ 오지리에서 사회당 위원장 브루노 크라이스키가 새정부를 조직.

23일 중국외국문출판사에서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과 관련한 축전, 연설 및 신문의 사설들을 묶은 단행본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튼튼한 동맹》을 우리 나라 말과 중국 말로 출판 ▶ 뻴스까와 말따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25일 유엔총회 제26차 회의에서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유엔의 모든 기구에서 장개석도당을 축출할데 대한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의 압도적다수표로 가결,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 성명발표 ▶ 중화인민공화국과 벨지끄왕국간에 호상승인하

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 ▶ 쏘련공산당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가 프랑스를 공식방문(30일까지).

26일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싼띠아고에 있는 바꾼돈마박물관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열림(조선중앙통신) ▶ 뽈스까에서 와르샤와조약참가국 합동군 군사위원회 회의와 지휘관들의 협의회 진행(29일까지) ▶ 쏘련내각수상 아. 엔. 꼬씨긴이 꾸바를 친선방문(30일까지).

27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아. 아탁구친선초청경기발기국회의가 28일까지, 대표단 단장들의 회의는 31일에 진행됨 ▶ 꽁고가 나라이름을 자이르공화국으로 고침.

29일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요르단반동들의 탄압책동과 관련하여 7월 18일 폐쇄되였던 이라크—요르단국경이 열림.

30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민주독일방문(11월 1일까지).

1 1 월

1일 웽그리아 수도 부다페슈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열림(조선중앙통신) ▶ 알바니아로동당 제6차대회 진행(7일까지).

2일 수리아의 《알 싸까파》지 주필 마드하르아까쉬가 쓴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비쳐주고 계시는 태양》이라는 책을 수리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베이징에서 아세아아프리카탁구친선초청경기대회 진행(14일까지) ▶ 중국과 뻬루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4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라오스침략에 타이반동군을 더욱 끌어들이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 《특별조정위원회》 제12차회의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략을 반대하는 《리마협정》을 채택(조선중앙통신).

5일 일본 도꾜에서 일본과 우리 나라간의 친선관계를 촉진시키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본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조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가칭)》준비위원총회를 진행.

6일 꾸바의 아바나종합대학 력사학교수 산마디노 베다레스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보고를 하신지 한돐이 된것과 관련하여 담화발표 ▶ 파키스탄은 인도가 방글라데슈정권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인도와 외교관계를 단절.

7일 뽀르뚜갈 수도 리스봉근방의 나토지역사령부건물이 이 나라인민들 지하조직에 의하여 크게 폭발.

9일 로므니아의 수도 부꾸레슈띠에서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딴생 70돐을 기념하는 사회계대표들의 집회를 진행.

10일 서부독일에서 7만 6천명의 야금로동자들이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투쟁을 전개 ▶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를 비롯한 뽈스까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

11일 뻬루정부가 국내의 모든 체신수단과 대중보도수단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을데 대한 법령 발포.

12일 에꽈도르에서 자국령해에 불법기여든 5척의 미제해적선을 현장에서 나포.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와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인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우루과이 《몬떼비데오》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인도의 뉴델리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열림 ▶ 영국공산당 제32차대회 진행(16일까지).

14일 독일사회통일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독일당및정부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조선중앙통신).

15일 미국의 20개 탄광을 휩쓴 10만 탄광로동자들의 파업이 44일간의 투쟁끝에 승리 ▶ 핀란드의 52개로조, 청년학생 및 기타사회단체들이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

16일 소말리아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쏘련을 방문(22일까지).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김일성수상로작출판위원회》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꾸바의 아바나종합대학 경제학 교수 엘씨엔 미싸박사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찬양하여 담화를 발표.

19일 우간다에서 군사정변후 폐쇄되였던 우간다—탄자니아국경 재 개통하기로 결정.

20일 벌가리아 수도 쏘피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열림 ▶ 범문동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중국을 친선방문(27일까지).

24일 사또일파가 중의원본회의에서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날치기로 강압통과 ▶ 영국 각지에서 약 10만명의 근로자들이 히스반동도당의 반인민적경제정책에 항의하여 반정부시위와 집회를 진행.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하여》를 버마 《모따보》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독일의 공산당 제2차대회 서부독일에서 진행(28일까지).

28일 요르단 수상 와스피 텔이 까히라에서 열린 아랍련맹방위리사회 회의에 참가하려 왔다가 암살됨.

29일 바이루트에서 제17차 아랍도서전람회 진행(12월 3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에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이 전시됨 ▶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캄보쟈침공을 규탄하여 성명.

30일 이란이 페르샤만에 있는 3개의 섬을 강점.

1 2 월

1일 이라크가 이란이 페르샤만의 3개의 섬을 점령한것에 항의하여 영국,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 ▶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주요전략지점인 바라이와 콤퐁 트마르를 해방 ▶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꾸바체인민간의 친선협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열림.

2일 아랍추장국련방결성 ▶ 쏘련의 자동정류소《마르쓰—3》호가 우주력사상 처음 하강기구를 화성표면에 가볍게 착륙시킴 ▶ 꾸바에서 혁명군절 열다섯돐을 뜻깊게 기념.

3일 꾸바와 칠레사이에 교육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싼띠아고에서 체결.

6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제6차대회 시작 ▶ 꾸바혁명정부 수상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정부대표단 칠레방문 ▶ 라오스애국군대가 주요전략지점인 사라반을 해방.

7일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 이리야니가 쏘련을 공식방문 (18일까지) ▶ 꾸바해군이 꾸바의 해안에 불법침입한

미제고용병들의 해적선을 나포 ▶ 꽁고인민공화국에서 이 나라의 첫 종합대학창설에 관한 정령 발표.

8일 중국과 이슬란드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9일 소말리아정부가 영제국주의자들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간에 꾸며진 《협정》을 규탄하는 성명발표 ▶ 에꽈도르당국은 자기 령해를 비법적으로 침입한 미제해적선을 나포 ▶ 체스꼬슬로벤스꼬 련방회의 인민의원 및 민족의원 합동회의 쁘라하에서 진행, 새정부를 구성.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영국의 《아프리카매가진》과 프랑스의 《전 아프리끄》출판사들이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손찌 빨의 기네공화국방문에 관한 기네—웽그리아 공동콤뮤니케 기네에서 발표.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뿌에르또 리꼬 《뿌에르또 리꼬》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조선중앙통신).

14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죄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 중국과 끼쁘로스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5일 민주독일외무성대변인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비상사태》소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 일본 도꾜도 스미다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일조우호촉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

16일 알제리민족해방전선이 인도군이 동부파키스탄을 침공한후 그곳에서 체포한 서부파키스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항의하여 전세계 사회당 및 공산당들에 편지 보냄.

17일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약 2주일간 계속된 전쟁이 정화 ▶ 유엔에서 장개석도당의 《기자》들이 추방됨.

18일 꾸바아랍문화협회와 꾸바에 있는 아랍인단체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비상사태》선포를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 애급기자문화궁전에서 《조선문화주간》이 개막.

20일 우리 나라와 말따국가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꾸바외무성 남조선괴뢰도당의 《비상사태》선포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21일 일본의 각 로조단체대표들이 수많이 참가하여 도꾜에서 《일본과 조선의 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약칭 일조로련회의) 결성준비회의진행 ▶ 세계민주청년련맹 서기국과 전아프리카청년운동서기국이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공동콤뮤니케 발표 ▶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가 쏘련을 방문(28일까지) ▶ 벌가리아 내각수상 쓰딴꼬 또도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민주월남을 공식방문(27일까지).

22일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쁘라하에서 우리 나라 예술전람회 열림 ▶ 사또일파가 《오끼나와반환협정》을 참의원에서 강압《통과》, 이를 반대하여 일본공산당 국회의원단 성명발표, 오끼나와, 도꾜의 인민들 반대 시위, 집회진행.

26일 우리 나라정부와 리비아아랍공화국정부사이에 무역대표부를 호상 교환하기로 합의.

29일 꾸바민족법률가협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상사태》선포놀음을 규탄하여 성명(조선중앙통신).

30일 스웨리예청년학생들의 진보적인 대중련합단체인 《스웨리예 엔엘에프—그루빠련합조직》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편지(조선중앙통신).

조 선 중 앙 년 감

발 행 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인 쇄 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1972년 6월 20일	1972 년 7월 3 일

7—241111　　　　값 5원 50전